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 책에 사용된 한글성경 번역본은 ‘개역한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따로 표기했습니다.

서 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은 더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두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서 한참 멀어지게 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띤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믿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여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주 쉽고 가볍게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었으며, 마지막까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글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텅 빈 도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실체가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지켜 달라고 하느님(원문: 上帝)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의가 고작 더 많은 은혜를 얻는 것에만 국한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동일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가장 측량하기 어렵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간파’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능한 자, 교만하고 무지한 자라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규정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실로 개미보다 작은 존재거늘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자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계책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이다. 사람은 마땅히 순종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이상, 자신의 관념을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참고해 달라며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패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도적으로 극력 대적하는 것은 더 안 될 일이다. 이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상,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상, 진리의 도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아야지, 목을 뺏뺏이 하고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너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일 수도,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너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에 있어 연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구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마주하고, 또한 신중하게 알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깥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그 본질(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겉모습은 본질을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하나님이 한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할 리도 없다. 예수의 겉모습이 바로 사람의 관념에 어긋나는 모습 아니더냐? 예수의 용모와 차림새는 예수의 진짜 신분을 설명할 수 없지 않더냐? 당시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것도 예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 아니더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모든 형제자매가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정신 차리고 고민해 보길 바란다. 이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책무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말에 빠지지 말고 영의 눈을 밝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면을 봐야 한다. 늘 모든 것을 잊고 온종일 봉 뜬 채, 하늘의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예수가 갑자기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 이제껏 그를 안 적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그의 뜻대로 행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주길 바라서는 안 된다.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거라!

너는 이 책을 펼칠 때 연구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졌든 이 책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 읽어 보길 바란다. 이 말씀들을 다 읽고 나면 네 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것은 네 마음가짐과 깨닫는 정도에 달렸다. 하지만 이 점은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난 다음 이것을 사람이 얻은 깨우침이라고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무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이 얻은 깨우침과 같을 수 있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열고, 전 인류를 인도하고, 비밀을 밝히는 말씀이자 사람에게 새 시대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는 말씀이다. 사람이 얻은 깨우침은 그저 간단한 실행이나 인식에 지나지 않아 전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자신의

비밀도 밝힐 수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사람의 본질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성령의 깨우침으로 보고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어찌 되었든 너는 높은 것을 낮다고, 깊은 것을 얕다고 말하며 옳고 그른 것을 뒤바뀌서는 안 된다. 진리임을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반박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올바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하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예수는 여호와와의 사역 이후에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그의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내고 행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시대로 대체해야 하고, 옛 사역이 끝나면 새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 가야 한다. 이번 성육신은 예수의 사역을 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물론, 이번 성육신 역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단계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때마다 늘 새로운 시작이 있고,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사역 장소,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긴다. 이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시대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항상 전 인류를 인도하여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하였으며, 이번 성육신은 은혜시대를 끝내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다. 두 번째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 벗기지 않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은혜시대에만 머무르면 패괴 성품을 영원히 벗어 버릴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알 수도 없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신앙은 너무도 가련하다. 네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면, 너는 오랜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발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이토록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네가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異象)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계 1:12~16)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발하여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물론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의 본래 모습을 사람 앞에 나타낸다. 다시 말해,
 인자의 고유 성품을 알게 된 사람은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서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나라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하나하나 체험한 후에는 요한이 말한 촛대 사이의 인자의 모습, 즉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한 이 평범한 육신이 확실히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최고의 행운아라고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느냐?

이 책의 1부는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으로, 막을 내린 은혜시대와 새로 시작된 하나님나라시대 사이의 과도기에 선포된 말씀이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자를 증거한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들은 계시록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라는 말씀이 응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한 시작 단계의 사역이다. 2부는 인자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후 친히 발한 음성이다. 여기에는 예언, 비밀에 대한 해석, 생명의 도 등 몇 가지 범주의 음성과 말씀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은 하나님나라의 앞날에 대한 예언, 경륜의 비밀에 대한 해석, 사람의 본성에 대한 분석,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 엄한 심판, 진지하고 깊은 위로,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 진입에 대한 말씀 등 매우 풍부하다. 요컨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그의 사역과 말씀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번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실행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패괴 성품을 벗겨 버리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시대 하나님 사역의 실상이다. 너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싶느냐?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싶느냐? 더 높은 진리를 얻고 싶느냐? 인자의 본래 모습을 보고 싶느냐? 이번 생을 헛되지 않게 살고 싶느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싶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목 차

제 1 부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 —

(1991년 2월 11일~1991년 11월 20일)

내용 소개.....	25
제1편.....	31
제2편.....	32
제3편.....	33
제4편.....	34
제5편.....	34
제6편.....	36
제7편.....	37
제8편.....	38
제9편.....	40
제10편.....	43
제11편.....	44
제12편.....	45
제13편.....	46
제14편.....	51
제15편.....	53
제16편.....	55
제17편.....	56
제18편.....	59
제19편.....	60
제20편.....	62
제21편.....	64
제22편.....	65
제23편.....	67

제24편	68
제25편	68
제26편	69
제27편	70
제28편	71
제29편	72
제30편	73
제31편	74
제32편	74
제33편	75
제34편	76
제35편	78
제36편	80
제37편	82
제38편	84
제39편	85
제40편	86
제41편	87
제42편	88
제43편	89
제44편	90
제45편	91
제46편	92
제47편	94
제48편	95
제49편	96
제50편	97
제51편	98
제52편	99
제53편	100
제54편	101

제55편	102
제56편	103
제57편	104
제58편	106
제59편	106
제60편	108
제61편	109
제62편	110
제63편	112
제64편	114
제65편	116
제66편	118
제67편	119
제68편	120
제69편	122
제70편	124
제71편	126
제72편	128
제73편	130
제74편	131
제75편	133
제76편	135
제77편	137
제78편	140
제79편	142
제80편	145
제81편	148
제82편	151
제83편	154
제84편	156
제85편	159

제86편	162
제87편	164
제88편	167
제89편	170
제90편	172
제91편	175
제92편	178
제93편	181
제94편	183
제95편	186
제96편	190
제97편	193
제98편	195
제99편	199
제100편	203
제101편	206
제102편	209
제103편	213
제104편	216
제105편	218
제106편	221
제107편	225
제108편	228
제109편	232
제110편	235
제111편	239
제112편	242
제113편	246
제114편	249
제115편	251
제116편	255

제117편	258
제118편	260
제119편	262
제120편	265

제 2 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1992년 2월 20일~1992년 6월 1일)

내용 소개.....	271
제1편	272
제2편	274
제3편	275
제4편	277
제5편	279
제6편	282
제7편	285
제8편	287
제9편	290
제10편	293
하나님나라의 축가.....	296
제11편	298
제12편	301
제13편	303
제14편	306
제15편	309
제16편	312
제17편	315
제18편	318
제19편	321
제20편	324

제21편	327
제22편	330
제23편	333
제24편	336
제25편	339
백성들아! 환호하라!.....	342
제26편	343
제27편	346
제28편	349
제29편	352
제30편	355
제31편	358
제32편	361
제33편	365
제34편	368
제35편	371
제36편	374
제37편	377
제38편	379
제39편	382
제40편	385
제41편	388
제42편	391
제43편	394
제44편	397
제45편	400
제46편	403
제47편	406

부록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부분적인 말씀에 대한 해석)

제1편	411
제3편	415
제4편	419
제5편	425
제6편	429
베드로의 인생에 관하여	435
제8편	440
제9편	443
추가: 제1편	448
제10편	450
제11편	455
추가: 제2편	460
제12편	461
제13편	468
제14편	472
제15편	476
제16편	481
제17편	486
제18편	491
제19편	496
제20편	499
제21편	503
제22편과 제23편	505
제24편과 제25편	509
제26편	513
제27편	517
제28편	521

제29편	523
제30편	526
제31편	530
제32편	533
제33편	537
제35편	540
제36편	544
제38편	548
제39편	552
제40편	554
제41편	557
제42편	561
제44편과 제45편.....	565
제46편	567

제 3 부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1992년 6월~2014년 8월)

내용 소개.....	571
------------	-----

1

(1992년 6월~1992년 10월)

길 ... 1	577
길 ... 2	580
길 ... 3	584
길 ... 4	588
길 ... 5	591
길 ... 6	595
길 ... 7	599
길 ... 8	603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607
하나님의 사역 절차에 관하여.....	609
패괴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611
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613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615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17
정상적인 영 생활은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621
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623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627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가.....	630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633
‘실제’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637
정상적인 영 생활에 관하여.....	640
교회 생활과 실생활에 관하여.....	642
각자의 역할을 다함에 관하여.....	646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648
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650
구원받는 사람은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653
쓰임 받기에 합당한 목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656
체험에 관하여.....	657
새 시대의 계명.....	660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663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666
실제를 좀 더 중시하여라.....	670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	675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678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682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685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한가?.....	691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694

일곱 우리가 크게 올리다 —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696
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699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704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종교 의식이 아닌 실재를 중요시해야 한다.....	709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711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715
기도의 실천에 관하여.....	720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725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733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관하여.....	739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케 되다.....	744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749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753
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758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767
하나님의 ‘실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776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781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792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798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를 간략하게 논하다.....	805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809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815
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823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828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835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841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846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 한다.....	850
너는 살아난 사람인가?.....	858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861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866

2

(1992년 11월~1993년 6월)

사역과 진입 1.....	873
사역과 진입 2.....	875
사역과 진입 3.....	879
사역과 진입 4.....	883
사역과 진입 5.....	888
사역과 진입 6.....	893
사역과 진입 7.....	898
사역과 진입 8.....	904
사역과 진입 9.....	910
사역과 진입 10.....	916
사역 이상 1.....	924
사역 이상 2.....	929
사역 이상 3.....	935
성경에 관하여 1.....	949
성경에 관하여 2.....	957
성경에 관하여 3.....	961
성경에 관하여 4.....	966
실행 1.....	970
실행 2.....	979
성육신의 비밀 1.....	984
성육신의 비밀 2.....	995
성육신의 비밀 3.....	999
성육신의 비밀 4.....	1006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1019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1026
실행 3.....	1036

실행 4.....	1040
실행 5.....	1045
정복 사역의 실상 1.....	1049
너는 왜 부각물이 되기 싫어하느냐?	1057
두 번째 정복 사역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1068
정복 사역의 실상 2.....	1076
정복 사역의 실상 3.....	1080
정복 사역의 실상 4.....	1088
실행 6.....	1093
실행 7.....	1098
실행 8.....	1111
이스라엘인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1114
자질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1119
모압의 후손을 구원하는 의의.....	1122
베드로의 체험 —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1134
흐리멍덩하게 따르지 말고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1154
너는 마지막 구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1158

3

(1993년 7월~1994년 3월)

너는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169
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	1170
사람의 본질과 신분.....	1172
사람의 원래 신분과 가치는 어떠한가.....	1175
불학무식한 자는 짐승이 아닌가?	1176
중국 선민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파도 대표할 수 없다.....	1179
너희는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180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1182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187
‘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1191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네가 행한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1196

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1201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1206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1210
너희의 인격은 너무나 비천하다!.....	1213
율법시대의 사역.....	1217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1221
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	1225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1230
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1243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1256
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1264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1270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다	1275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1282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1289
너는 ‘13편 서신’을 어떻게 보느냐.....	1293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1299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1312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1329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1343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1358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1369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1384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1391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1407

4

(1994~1997년, 2003~2005년)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1422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1426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1429

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1432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1436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1439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1443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1447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1451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1454
종착지에 관하여.....	1458
훈언 3칙.....	1461
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1464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468
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1471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1476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2	1479
하나님나라시대의 선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정 법령.....	1483
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1484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1488
전능자의 탄식.....	1491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1494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1497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1502

속편

(2013년 10월 17일~2014년 8월 18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1511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1518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1558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1593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1663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1717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1762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1797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1828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1845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1873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7	1897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1918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1940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1962
부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1994
후 기	2002

일러두기

이 책에는 두 가지 각주가 있습니다. 숫자^{[1], [2]...}로 표기된 것은 원래 원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로 표기된 것은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역자가 단 것입니다.

제 1 부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

—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 —

(1991년 2월 11일~1991년 11월 20일)

내용 소개

1991년 2월 11일, 하나님은 교회에서 첫 편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 말씀은 당시 성령의 흐름 속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나타났도다”, “우주의 머리, 말세의 그리스도, 그는 빛나는 태양이요”라는 말이 있는데, 뜻깊은 의미를 지닌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을 새로운 경지로 인도했다. 이 말씀을 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고, 크나큰 사역을 할 것임을 예감했다. 이 아름답고 유려하고 간결한 한 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속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시대로 인도했으며,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반을 닦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하나님이 선포한 이 한 편의 글은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자, 은혜시대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발한 음성인 것이다. 또한, 이는 2천 년 동안 모습을 감추었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발한 음성이고, 나아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을 여는 서막이며, 중요한 첫걸음이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말씀은 제삼자의 위치에서 찬미하는 형태로 등장한다. 게다가 우아하고 대중적인 언어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생명을 공급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만 아는 당시의 소수 사람들을 하나님 경륜의 다른 단계 사역으로 살며시 인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장차 어떤 사역을 하시려는 것인지, 앞으로의 길은 어떤 것인지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 후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 많은 말씀을 하여 사람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시대로 인도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편 한 편의 내용이 다르고, 찬미나 표현의 방식도 서로 다른 것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어조는 같아도 내용이 서로 다른 이 말씀들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묻어나 있으며, 또한 거의 매 편마다 내용이 다른 생명의 공급과 사람에 대한 교훈, 권면, 위로의 말씀이 들어 있다. 이 말씀들에서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성육신하셨으며, 그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머리이시라”, “승리의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만유는 모두 그의 손에 있다”와 같은 말들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러한 말씀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즉, 인류에게 “하나님은 벌써 세상에 임하였으며, 더 큰 사역을 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얻었으며, 원수들을 물리쳤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 편 한 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새롭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마다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나아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희로애락을 주관하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한편, 더 양모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부지불식간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거의 잊게 되었다. 케케묵은 설교나 영적인 사람들의 저서에 신경 쓸 겨를은 더더욱 없었다. 사람 모두가 과거의 서적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번에 음성을 발한 목적 또한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두가 이러한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말씀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자, 역대 이래 그 어떤 영적 인물이나 과거의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고차원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편 한 편의 말씀에 이끌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 역사의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었고, 새 시대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람들은 소망으로 충만해졌으며, 하나님 말씀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게 되었다. 이 짧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뜻깊고 잊기 힘든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그 기간에 누린 것은 그저 성령 역사의 분위기에 불과하다. 또는 당의정 곁면의 단맛만 살짝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성령 역사의 분위기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단계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시대에 말씀하고 사역한 첫 번째 절차 — 봉사자의 시련 — 이다.

‘봉사자’의 시련 전에는 대부분의 말씀이 가르침과 권면, 질책, 징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한편으로는 은혜시대의 옛 호칭, ‘나의 아들’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의 독선과 교만 등 패괴 성품을 어떻게 심판하든, 사람은 ‘아들’의 신분으로 그것을 대하고 받아들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들’에게 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 기간에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어린 아기처럼 지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이 ‘성년기’에 이를 때 심판을 시작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나라시대의 사역을 정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를 닦은 것이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리를 잡자마자 매우 빨리 자신의 사역 방식에 —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에 — 들어갔다. 확실히, ‘봉사자’의 시련 전까지의 모든 말씀은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사실,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오로지 한시바삐 하나님나라시대의 사역을 정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당의정을 먹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어르고 달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모든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의 은혜를 잃은 모든

이가 그에게 보이는 진실한 태도를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가 보고 싶어 한 것은 결과지 과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이 절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종착지와 앞날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또 한번 전 인류를 향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정상적인 인류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991년은 특별한 한 해로, 우리는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부른다. 당시,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시대의 새 사역을 전개하고, 전 인류를 향해 말씀했다. 사람도 전례 없던 따스함을 누리는 한편,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전례 없는 고통도 맛보았다. 인류는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달콤함을 맛보았고, 또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심판과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잃은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느낌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겪어 본 사람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무형의 체험이자 자산이었다. 이 1년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 부분의 내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간 세상에 온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푸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실컷 먹고 마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고용되는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오매불망 바라던 내용이다. 게다가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음성을 발할 때부터 사람은 모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리는 서로 다른 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등에 진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왕권을 잡을 수 있을지 타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동시에 계산속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몹시 증오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를 기만하고 이용하는 자를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첫 부분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고, 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부분 말씀의 목적은 바로 지위와 이익 앞에서 보이는 사람의 각종 추태를 드러내고, 사람의 탐욕과 비열함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간곡한 어투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분노는 원수를 대하듯 정점에 이르렀다. 어쨌든 하나님은 정상적인 인류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마음속 노를 억누르고 겨우겨우 말썽했다. 게다가 이는 정상 인성과 이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극도로 파괴되고, 탐욕으로 물들고, 극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류를 앞에 두고 말썽한 것이었다.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고 혐오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인류는 하나님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받는 심적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누구도 인류의 어리석음과 구제 불능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모두 염치없이 뻔뻔하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듯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모든 상을 받으려 했다. 심지어는 남에게 뒤쳐져 손해를 볼까 봐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보였을지 지금 너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느 때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은 모두 지극히 귀한 것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은 것은 크나큰 상처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 이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과 하나님께 돌려 준 것들이다.

하나님은 몹시 애썼지만, 깊이 파괴된 인류를 불 못에 넣어 단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봉사자로 고용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데서 엄한 데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바뀌는 방식과 내용(원문: 篇幅)으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지위를 미끼 삼아 사람의 파괴된 본성을 드러내는 한편, 봉사자, 백성, 아들들을 언급하며 사람에게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예상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려 하지 않았으며, 모두 앞다투어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고 하였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한 말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례 없이 엄하였으나, 사람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고 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 또한 너무 간절하여 하나님 말썽의 어조나 방식에 관념이 생길 틈도 없이 오직 한마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앞날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썽에 이끌려 하나님이 설치한 ‘미궁’에 빠졌다. 사람은 저도 모르게 앞날과 운명이라는 유혹에 빠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봉사자가 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런 모순된 심리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전례 없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였다. 물론 이런 방식의 심판과 연단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만이 이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파괴된 인류를 순순히 복종시킬 수 있었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야 했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며, 방향을

가리켜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자 인류의 필수품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역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반면,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은혜이자 행운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운명은 멸망뿐일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무치게 증오하는 동시에, 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려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은혜를 얻어 내려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상처를 주어 하나님의 마음에 한없는 고통을 가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심 없는 마음과 인간 이기심의 뚜렷한 대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할 때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분 말씀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그저 ‘말세의 그리스도’, ‘우주의 머리’ 등의 말만 흘렸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더구나 사람은 애당초 ‘그리스도’와 ‘성육신’이란 개념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몸을 낮춰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고심이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호칭밖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든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그것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할 때에 가진 의도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이토록 세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은 또 이토록 지혜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피조물인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일어나 증거할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만약 하나님이 줄곧 ‘특수 역할자’로 불리며 사역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애이다. 이는 피조물인 인류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으며, 사람은 오직 복을 위해 믿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특수 역할자’라는 신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 주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류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쉽다. 또

사람이 하나님에게 안겨 준 가장 큰 고통과 수모는 바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현현하거나 사역할 때조차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잊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더없는 수모를 견뎠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지불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양심이 있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이 치른 이 대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 본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한번 또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고 변화를 얻었으며, 인생의 방향을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얻은 것이라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죄스럽다는 고백과 미미하기 그지없는 찬미뿐이다. 설마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 보답이겠느냐?

현재 하나님이 이미 많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는 아무런 발전이 없고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그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에 불과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한 것은 사람을 은혜시대에서 하나님나라시대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이 부분의 말씀에 머물게 하거나 이 부분 말씀만 준칙으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음 말씀을 할 필요도,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이 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에 계속 진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진입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사람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라!

제1편

찬미가 시온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거처가 나타났도다. 영광의 성호는 만백성이 찬양하며,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도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머리, 말세의 그리스도, 그는 빛나는 태양이요, 온 우주의 위엄 넘치는 광활한 시온산에 솟아올랐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향해 환호하고, 춤을 추며 노래하나이다. 당신은 진실로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주의 큰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이기는 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셨나이다. 만백성이 반드시 이 산으로 모이고,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리이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영광, 찬양, 권병을 보좌로 돌리겠나이다! 보좌에서 생명 샘이 흘러나와 만백성에게 공급하고 양육해 주니, 생명은 날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빛과 계시가 우리를 따르며, 시시각각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나이다. 체험 중에 참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타나고 옳은 사람 안에 나타나나이다. 우리는 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매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잡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빛 비춤을 받을 것이리이다. 매일의 삶, 행동, 언사, 마음,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니 언제든 분별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인해 주니 안에 숨겨진 것들이 줄줄이 드러나나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나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폭로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매 순간을 살며, 그 앞에서 심판을 체험하나이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은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나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점유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사전을 벌여야 할 것이나이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권을 잡을 수 있나이다.

지금 성령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향해 돌격하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도다! 우리가 기꺼이 스스로를 버리고,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수시로 빛을 비추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사탄이 점령했던 것을 되찾아 와 하루속히 우리를 온전케 하리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며 성도들 모두와 함께 건축하면, 하나님나라로 인도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제2편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습을 갖추었도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한 것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굳게 믿으며 영적 길을 가옵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성육신하셨으며, 그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머리이시라. 이는 성령이 인치신 것이요, 증거가 확실한 영원불변의 사실이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오늘날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셨나이다. 소경을 눈 뜨게 하시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당신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영계의 비밀을 보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관통되어 사탄이 패괴시킨 인성에서 구원되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크나큰 역사와 긍휼이 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증인이 나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묵묵히 계시며 자신을 낮추고 감추셨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생의 온갖 고초,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나이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맛보고 시대에 버린 바 되셨나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거름 더미에서 구원하사 오른손으로 받쳐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만드셨나이다. 당신께서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당신의 심혈과 대가를 성도들에게 다 쏟으셨나이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심혈이요, 대가이 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 당신의 공의와 위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인해, 만민이 세세토록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리이다.

오늘날 당신께서 교회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셨사오며, 당신의 6천 년 경륜이 실현되었나이다. 성도들은 당신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영 안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샘의 근원에 연결되나이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 교회의 모든 더러운 물을 씻어 없애사 당신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셨나이다. 실제의 참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알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리이다. 언제나 당신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기울이고,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서 막힘없이 이뤄지게 하리이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장점을 배워 각자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나이다. 언제나 영적으로 행하면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함께하나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 실천하며, 새로운 빛을 따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리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과 견해, 세상의 짐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리이다.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잡으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초월하게 되며, 세상을 이기며, 영은 자유롭게 날며 해방받았나이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결과로다. 우리 어찌 춤추며 찬양하지 않겠나이까, 어찌 찬미와 새 노래를 바치지 않겠나이까.

찬미의 방식은 실로 많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도를 올리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도다. 이러한 찬미에는 누림이 있고 기쁨 부음이 있으며, 찬미하면 능력이 있게 되며, 사명감과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나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서로 조화롭게 섬기며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리이다. 하루빨리 거룩한 영체가 되어 사탄을 짓밟고 사탄의 운명을 끝내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타났도다.

제3편

승리의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그는 구속을 이루었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 만유가 모두 그의 손에 있다. 그는 신성한 지혜와 능력으로 시온을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그는 그의 위엄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만국과 만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생물,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필히 심판할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것이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진노의 불은 반드시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를 태워 버릴 것이고, 재앙이 필히 그들에게 수시로 닥칠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기 어렵고 숨을 곳도 없을 것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승리한 아들은 반드시 시온에 남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민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필 것이며, 찬미의 소리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참하나님은 이미 나타났다! 영 안에서 확신을 갖고 바짝 따르며, 더는 주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결말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올바른 교회 생활과 주변의 사람, 일, 사물이 우리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속히 접자! 몽롱한 눈빛을 하루속히 거두자! 우리의 발걸음이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입과 혀를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더 이상 자기의 이해득실을 위해 논쟁하지 말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던 마음을 버려라! 남편, 자녀에 대한 미련도 버려라! 자기 주장과 편견을 버려라! 깨어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 안에서 앙망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권세를 잡게 해야 한다. 절대 롯의 아내가 되지 마라. 버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이냐! 얼마나 가련한 일이냐! 깨어나라!

제4편

늘 깨어 기다리고, 영 안에서 평온히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구하며, 무슨 일이 닥치든 맹목적으로 교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영적으로 늘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영이 굳세고 예민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수를 얻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적시고 채우는 한편, 우리 안에 있는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족하는 사탄의 성품을 수시로 정결케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천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관념이 너무나 심하며, 말하기를 좋아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영에 따라 행하지 못한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성령 역사가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세부적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 반응과 행동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한 것이든, 뒤에서 한 것이든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 체험 가운데서 전능자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한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었고, 영적 비밀이 우리 앞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깨끗한 마음으로 추구해라!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며 달갑게 자신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누린다면, 온 우주의 새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사탄의 운명이 끝날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땅에서 영원히 왕권을 잡을 것이다!

제5편

강산은 쉽게 바뀌고, 물의 흐름은 방향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며 대대로 영원히 존재한다! 만사와 만물이 다 그의 손안에 있고, 사탄은 그의 발아래에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미리 예정한 선택으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냈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속주다. 영원한 부활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와 대면하고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심혈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심 없는 헌신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세월 속에서 모진 풍상을 겪었다. 수많은 인생의 고통, 핍박, 환난이 닥쳤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고 정부에 모함당했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영,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양육한다. 우리가 아무리 우매하고 상대하기 힘들지라도 그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장자들을 위해 그는 침식도 잊은 채 밤낮으로 일한다. 술한 밤낮을 보내고 술한 폭염과 혹한을 견디며 그는 시온에서 한결같이 지키며 바라보고 있다.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기꺼이 전부 버렸다. 세속의 즐거움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행한 것이든 뒤에서 행한 것이든 그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타산하고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다.

그의 앞에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즐겁고 편하고 편안하지만, 늘 내면이 텅 비고 하나님께 실로 죄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적도 없고 해내기 힘든 놀라운 일이다. 성령이 확증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유일한 참하나님이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은 실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져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계의 비밀을 보여 주셨나이다. 하나님나라의 미래는 무한하게 밝으며,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니 깨어 있어 기다려라.

전쟁의 불길이 휘날리고 초연(硝煙)이 자욱하다. 날씨가 따듯해지고 기후가 변하니 한 차례 역병이 만연할 것이다. 사람은 살길을 찾기 어려우니 그 앞에 놓인 것은 죽음뿐이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시자 피난처시나이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오니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리이다. 이는 당신의 신성한 보호이자 보살핌이나이다.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미하는데, 찬미 소리가 온 시온에 메아리친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놓았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

제6편

만유의 머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왕권을 잡고 우주와 만유를 주관하며 온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늘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앞에 와 마음을 평온히 하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매 순간 배울 공과가 있다. 주변 환경과 사람, 일, 사물은 모두 보좌가 허락한 것이므로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비록 육체가 조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며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깨우쳐 줄 것이다. 육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의사이다! 병 안에서 살면 그저 병뿐이지만 영 안에서 살면 병이 없다. 너에게 한 모금의 숨이라도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더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달콤하다! 하나님 말씀은 특효약이며, 마귀와 사탄을 치욕스럽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의지할 곳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데 즉효이다! 만사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믿음은 외나무다리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건너기 어렵고 목숨을 내걸면 편안히 건널 수 있다. 사람에게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의 우롱으로 인한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상 자신의 생각을 보낸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빛 비춤과 깨우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독소를 정결케 하며, 영 안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훈련을 하여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온몸과 마음을 점유하게 해야 한다.

제7편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서둘러 영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성령의 근심을 무시한 채 강박한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자만자족하지도 말며, 스스로 수고했다고 말하지도 말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이동풍으로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세심하게 되새기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찾아야 한다. 대추를 통째로 삼키듯 대충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어린애처럼 큰소리치다가 일이 닥치면 멍해져서는 안 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날마다 시시각각 영을 훈련하며, 영적으로 예민해야 한다. 어떤 사람, 일, 사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오면 길이 생긴다. 매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많이 노력하고, 세부적인 것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진리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더 넓게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체험도 없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라. 발전하려 하지 않고 건성건성 대하는 것은 실로 눈먼 짓이다.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좋은 강철은 칼날을 만드는 데 써야 하듯이 핵심을 파악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로만 실천하는 것을 열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행동, 성품, 믿음, 담력, 식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심한 어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를 짓누를 수는 없다. 이런 각오도 없다면 큰 그릇이 되기는 아주 힘들다. 목숨을 아끼느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겁을 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매해도 그는 계속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바짝 따르며,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절박하게 구하기만 하면 그는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는 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먹기만 좋아하고 일에는 게으르며, 온종일 무위도식하고 아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재자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를 앙망하고 영 안에 들어가 그와 교제한다면 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보여 줄 것이고, 그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며 밝아지고 안정될 것이다.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체험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내면으로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너의 성품도 변화될 수 없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신속히 전개되고 있다! 바짝 따르며 훈련받지 않으면 전진하는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힘들다. 서둘러 상황을 반전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짓밟힐 것이고, 유황불 못에 들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력을 다해 추구한다면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다.

제8편

하나님나라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된 뒤부터 하나님의 경영이 전 우주 범위에서 전면적으로 펼쳐졌다. 중국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증거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 신성한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며,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섬기고 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기묘하게 역사한다.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은 오직 한 분뿐이다. 우주의 수많은 교회에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령이 그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 음성으로 그들을 깨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다. 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찬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오차가 없다. 모두가 온 힘을 다해 바른길로 나아가고,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는 기묘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렵고 추측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생명의 왕이다!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계를 심판하고 만유를 주재하며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 만백성이 다 그에게 무릎 꿇고 있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와 가까이하고 왕래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든 짧든, 지위가 얼마나 높든, 관록이 얼마나 있든, 마음속으로 맞서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앞드려 고통에 겨워 애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이 애원하는 소리는 유황불 못에서 고통받는 소리이자 하나님의 철장(鐵杖)에 맞아 내지르는 고함 소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다.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뒤가 켕기고, 누군가는 깨어 있다. 누군가는 주의 깊게 듣고, 누군가는 개과천선하고 몹시 후회하며,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슬피 운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찾고, 누군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이상 감히 샅된 짓을 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방법을 간절히 찾고, 누군가는 왜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성한다. 누군가는 여전히 흐리멍덩하고, 누군가는 재빨리 용감하게 전진하며 핵심을 파악해 서둘러 생명을 돌본다. 누군가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이상(異象)이 불분명하며, 마음에 짊어진 큰 짐이 정말로 가볍지 않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성령이 내면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 네가 중시하는 것, 네가 가는 길, 네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것에는 온통 너의 관념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마음이 불타듯 조급하다. 너희를 단번에 온전케 하여 하루빨리 내가 쓰기에 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의 무거운 짐을 덜고 싶다. 하지만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급히 이루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저 천천히 기다리고, 천천히 나아가며, 천천히 붙잡아 주고 인도할 수밖에 없구나. 아!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너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고 너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영 안에서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와 교제하여라.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 조용히 양망하기를 원하지, 말로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진실하게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두 나타낼 것이다. 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네가 마음으로 양망하고 언제나 따르기만 한다면, 나의 뜻을 수시로 너에게 묵시하고 나타낼 것이다. 주의 깊게 기다리는 사람은 자양을 얻고 행할 길이 있겠지만, 세심하지 못한 자는 나의 마음을 알기 어렵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빨리 일어나 나와 협력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나와 가까이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늘 손으로 너희를 끌고, 때리고, 밀고, 타이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호소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뜻을 모른다. 자신의 관념과 세상의 얽매임에 너무 심각하게 가로막혀 나와 더 가까이할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해서, 일이 생기면 나를 찾고, 일이 없으면 마음이 심란해져 자유 시장이 되고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찬다. 또한, 마음이 세속에 빠져 어떻게 나와 교제할지를 모른다. 내가 어찌 너희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조급해해서도 안 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임무가 너무 막중하며 나의 발걸음은

날듯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소유한 것을 지켜야 한다. 늘 앙망하고 나와 가까이 교제하면 내 뜻은 반드시 수시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행할 길이 생긴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나와 진실하게 교제해야지 거짓을 꾸미고 스스로 잘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수시로 드러나게 된다. 순금은 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다! 걱정하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연약해지지도 말라. 영 안에서 자주 나와 직접 교제하면서 천천히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나의 때에 맞춰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꼭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너에게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마음속으로 언제나 나와 교제하고 마음을 언제나 내 앞에 두고 살면,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 그리고 남편과 자식도 네가 마음속으로 나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마음이 늘 성령께 단속받고 시시각각 나와 교제하면, 나의 뜻을 반드시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늘 이렇게 가까이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든지,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이 임하든지, 너는 어리병병하지 않고 행할 길이 생기게 된다.

평소에 크고 작은 일에서 모두 지나치지 않고 온갖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되고 영 안에서 차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말이 너의 내면에서 즉시 묵시해 준다.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 자신을 비추어 보면 행할 길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병에 맞게 약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병은 반드시 치유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전능하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빛 비추고 깨우쳐 주어 영계의 비밀을 보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행할 길이 있게 하고, 최대한 빨리 파괴된 옛 성품을 벗어버려 생명이 성숙되고 내가 쓰기에 합당하게 할 것이다. 복음 사역이 하루빨리 막힘없이 펼쳐져야 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이 최대한 빨리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임할 때 땅에서 모두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제9편

너에게 일깨워 줄 것이 있다. 내 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하거나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내 뜻대로 행해야 한다. 또 반드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내게 의지해 너의 천성적인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내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와 안정적인 성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하며,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에도 속박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나와 늘 가까이하고 교제해야 한다. 또 굳세고 기개가 있어야

하며 굳게 서서 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일어나서 나를 위해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내 마음을 만족케 하며,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을 내 뜻에 따라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 네 심정이 어떠하냐? 괴롭지 않으냐? 그것은 네가 잘 알 것이다. 어째서 일어나 나를 위해 말하지 못하고 내 부담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없이 꿈수를 부리는 것을 나는 다 훤히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뒤에서 호위하며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무 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한시라도 빨리 정을 떨쳐 버려야 한다. 나는 정을 생각하지 않고 공의를 실행한다. 교회에 이롭지 않다면 네 친부모라도 예외는 아니다! 내 뜻을 너에게 나타냈으니 못 본 척하지 말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면 늘 내 손으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남편, 아내가 두려워 속박받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믿어라! 믿어라! 나는 틀림없는 너의 전능이다. 네가 이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나의 경영을 위해 너는 전심으로 헌신해야 한다. 모든 비밀과 결말을 네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겠다. 더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때가 곧 끝날 것인데, 네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추구해야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나에게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와 더 깊이 교제해라.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시시각각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알려 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를 모두 갖추고 많이 먹고 마셔라. 모든 진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느냐? 예전과 다르게 큰 부담을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으냐? 내 뜻이 너에게 있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벗어나려 하지 마라. 늘 나와 연락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하며 내 마음을 헤아리고 협력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뜻이 늘 너희에게 나타나게 해라. 늘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기울여라! 조금이라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의 본분이며, 내 사역이 그 안에 있다.

지금 너는 조금 깨닫게 되어 무척 기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거에는 조금 의심하면서 항상 사람의 머릿속 관념, 생각, 구상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거의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기묘한 사역이자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다. 너는 반드시 깨어 기다리며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모든 시간은 내 손에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순간도 절대 느슨해지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면 네가 내 사역을 지연시키게 되고 내 뜻이 너에게서 가로막힐 것이다.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와 많이 교제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 행동, 마음, 생각, 가정, 남편, 자식까지 모든 것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 ‘자기’ 뜻대로 하다가 나를 노하게 하면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항상 네 발걸음을 금하고 내 말 속에서 행하며 내 지혜를 지녀야 한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 줄 것이니 아무렇게나 함부로 교제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 생명에 이롭지 못한 일이다. 이는 네가 지식이 부족하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해를 입고 내적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성령의 함께함이 사라지는 지경에 다다른 뒤에야 알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아주 촉박하므로 생명의 경주로에서 조금이라도 뒤떨어져선 안 된다. 반드시 내 발걸음을 바짝 따라와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와 가까이하고 많이 묵상하며 나와 직접 교제해라. 네가 이 길을 알게 되면 앞으로는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나는 너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부족한 점이 있다. 너희는 많이 교제하되, 자신의 영 생활에서 스스로 먹고 마실 줄 알고 핵심적인 진리를 파악해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말의 실재를 찾아내고 중점과 원칙을 파악하며 긴장을 늦추지 마라. 늘 묵상하고 나와 교제하면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도 전에 다른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언제나 흐리멍덩하고 모호한 상태에 빠져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너는 내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설령 얼마간 느끼게 되더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네 마음이 오롯이 내게 점유되어 그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리게 된다면, 그때 나는 내 뜻에 따라 너희에게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내게 가까워지는 길을 알아야 한다. 누가 너를 때리고 욕해도, 너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한다면 안 된다. 마음이 나에게 사로잡혀 잠시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까이하고 교제하면 자신의 부모, 남편, 자식, 친척과의 왕래, 세속의 짐이 표연히 떠날 것이다. 또한, 늘 마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누리고, 향기로운 맛을 느끼게 되어 나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늘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내가 너희의 길이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얼마나 자랄지, 언제 세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언제 정을 떨쳐 버릴 수 있을지, 언제 남편과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언제 생명이 성숙하게 될지 등 이 모든 것에는 나의 때가 있으니 조바심을 내선 안 된다.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해라.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면 역시 소극적인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 협력하며 게으르게 굴지 말고 정성을 다해라. 또한, 항상 나와 교제하고

나를 더 가까이해야 한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단번에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서 나를 의지하는지, 나에게 의지할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늘 나를 가까이하고 모든 일을 내 손에 맡겨야 한다. 헛되이 돌아가지 마라.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이렇게 한동안 나와 가까이하다 보면 내 뜻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네가 이를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나와 대면한 것이고, 진정으로 내 얼굴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 네 마음이 아주 환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또 의지할 곳이 생기고 능력과 믿음도 생기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제10편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 앞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말고 내 뜻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의 본분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분노할 것이고 내 손으로.... 그러면 네 마음은 끝없이 괴로울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며 목숨 걸고 따르고,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를 검증하는 이때, 너는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충성심으로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두려움을 떨쳐 버려라. 내가 네 뒤에서 호위하는데 누가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명심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모든 일에는 나의 아름다운 뜻이 있고, 나는 그 속에서 감찰하고 있다. 너의 모든 언행은 내 말에 부합하느냐? 불의 시험이 임할 때 너는 무릎 꿇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냐?

네 안에는 내 담력이 더해져야 하고,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또 나를 위해, 모든 흑암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내 지혜에 의지해 완전한 도를 행하며, 사탄의 음모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네가 온갖 노력을 다해 마음을 내 앞에 내놓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위로해 주어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를 만족게 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나아가 그렇게 하면 평생 언제까지나 기쁘고 평안하지 않겠느냐? 지금의 고통은 네 앞날의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을 의미한다. 너는 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은 이렇게 현실적이다. 너무도 현실적이다! 그것은 또한 머지않아 맞이할 일인데, 네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일체의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앞날이 얼마나 밝으냐! 눈물을 닦고 더 이상 비통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내 손이 일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루빨리 너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너는 너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마땅히 감사하고 찬미하여 내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생명이 이미 나타났으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사탄은 우리 발아래 있고, 그것들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어서 깨어나라! 이 음란한 땅과 죽음의 심연에서 벗어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나에게 충성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바로 너의 견고한 반석이니 나에게 의지해라!

제11편

내가 너의 하나님이자 너의 왕이냐? 너는 내가 네 안에서 진정으로 왕권을 잡게 했느냐? 잘 성찰해 보아라. 새 빛이 왔을 때 연구하고 거부하며, 심지어는 따르지 않고 멈추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심판받아 죽음으로 떨어질 것이다. 심판과 채찍질을 당하고 성령 역사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급히 울부짖으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나는 늘 너희에게 얘기하고 말했다. 너희에게 하지 않은 말이 없다. 잘 돌이켜 보아라. 내가 당부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도 계속 잘못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하고, 의심의 구름이 해를 가려 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관념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니겠느냐? 네 안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속에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실패해 아무런 방법도 없게 되어야 나에게 간구하는구나. 네 생각대로 한번 해 봐라! 이 사람들아! 전부 네 옛 자아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어떤 이들은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새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 늘 예전에 깨달은 것들만 교제할 뿐 새로운 것이 없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모두 자기 안에서 살면서 나를 향해 문을 닫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 방식이 바뀐 것을 보면 너는 틀릴까 봐 늘 조심한다.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구했느냐? 너는 ‘성령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머리로 궁리하기만 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 역사임을 보고서도 한바탕 논평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자의 관념만 잔뜩 늘어놓고, 성령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대가를 치르며 내 앞에서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대한다. 또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도 내 앞에 와서 교제하며 구하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무슨 속셈이냐?

제12편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이 죽 끓듯 하여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채찍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책망을 받고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 앞길이 막혔을 때는 나에게 와라. 그러면 힘이 넘칠 것이고 믿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는 흐지부지 지내게 된다.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되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성품이 안정되어야 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다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언제나 내 말이 마음에서 운행하게 하며,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부담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한다. 쫓대 없이 흐리멍덩하게 남을 따라 해서는 안 되고,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용감하게 일어나 거절해야 한다. 옳지 않다는 걸 분명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너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고 화제를 돌려 보지만 사탄에게 가로막혀 말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견지하지 못한다면,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기는 자란 어떤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정예병은 용감해야 하고, 영적으로 나를 의지하여 강해져야 하며, 앞다투어 싸우는 용사가 되어 사탄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시시각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너에게 언제나 능동적으로 나와 협력하고 나를 가까이하라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내 말을 따르고 나의 언행을 중시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려 주관을 세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서 받은 것은 모두 실행 가능한 것이다. 나의 모든 말은 너의 내적 상태를 겨냥한 것으로, 네 마음을 깊이 찌른다. 네가 말로는 수긍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승복할 것이며, 연구하면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말이 곧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며,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좌우에 날 선 검이다. 깨닫고 실행할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는 더없이 현실적이다. 이제 나의 심판 범위도 넓어졌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내 앞에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 성령 역사를 극력 대적하고 가로막는 자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 앞에 나와 내 발걸음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다! 하나님은 위엄이다! 지금은 심판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들을 전부 심판하여 죽게 할 것이다. 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자, 자신을 과시하는 자, 속마음과 목적이 바르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마시지 않는 자, 흐리멍덩하고 늘

의심하는 자, 성령 역사를 연구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해야지, 건성으로 소홀히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 네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방하거나,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거나, 어중간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 앞에 와서 나와 많이 교제해야 한다.

내 안에서 취한 자에게는 실행의 길이 생기고 나의 능력이 따를 것이며, 내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언제나 나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세속적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으며, 부활의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말과 일 처리와 행실에서 나의 말을 찾아볼 수 없고, 나의 함께함을 찾아볼 수 없으며, 나와 거리가 멀고, 언제나 자기 안에서 머릿속 관념과 이치와 규례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네가 죄를 사모한다는 의미이다. 늘 옛 자아를 끌어안고 자기가 상처받거나 혼이 다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그릇된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숨고 피하는데 내가 언제쯤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 내 말이 끝나도 너는 유심히 듣지 않고 지나쳐 버리며, 정말 똑바로 지적해 주면 또 너무 연약해진다. 도대체 분량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늘 달래기만 한다면 언제쯤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급히 “아무도 저를 책망해서는 안 돼요. 저는 스스로 타고난 옛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어요.”라는 말로 경고한다면, 너에게 지적해 주는 사람도, 너를 건드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네가 나의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자 너의 주라고 확신한다는 말은 공허하다. 네가 확신했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 마땅히 감사하며 찬미해야 한다.

제13편

지금 너희의 상태를 보면, ‘자기’ 관념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종교적인 방해가 심하고, 영 안에서 행할 줄 모르며, 성령의 역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새로운 빛을 거부하고 있다.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네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늘 ‘부모’를 떠나지 못하며, 영적인 분별이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심에도 두서가 없다. 스스로 먹고 마실 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매일 새로운 빛이 있고, 날마다 신선한 것이 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연구하기 좋아하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보고, 또 대충 흘려 보고, 대강 흘려들을 뿐이다. 영 안에서 늘 기도하지 않고 나를 앙망하지 않으며 내 말을 많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글귀와 규례, 이치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먹고 마시는 데 두서가 있어야 하고 내 말을 내 앞으로 많이 가져와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좁은 세상에서만 맴돌고 있는데, 이는 옳은 사람이 아니다. 마음가짐과 목적이 바르지 않으므로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한 자는 도태될 것이다.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누구와도 아무렇게나 교제하지 마라. 교제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 생명에 관한 영 안의 일에 대해 교제해야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람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 사람을 훈계하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교제하려면 영 안의 일을 알아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반드시 본인부터 옳은 사람이어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제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와 교제하고, 나와 가까이하며 왕래하고, 혼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영 안의 일을 최대한 빨리 깨닫고 환경과 주변에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는 나의 어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내 말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손을 알되,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원망하며 내 손을 벗어난다면 하나님께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나를 가까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 어떻게 나를 가까이하고 내 마음을 파악해야겠느냐? 사람이 나를 가까이할 줄 모르는 원인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 있다. 또 뜨거웠다 차가웠다 성품이 안정적이지 않고, 조금 단맛을 보면 자만과 독선이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네가 말한 것 중에 너의 어떠함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자신을 위해 변호한 것이 얼마나 되고, 모방한 것이 얼마나 되며, 규례에 맞춘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성령 역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가까이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늘 겉에서 ‘자기’ 관념과 머리로 궁리하고 뒤에서 연구하며 얕은 수작을 부리면서 당당히 앞에 내놓지 못한다. 이것 또한 네가 성령 역사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안다면 어째서 용감하게 일어나 거절하지 못하느냐? 너희 중 일어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남자아이다운 패기가 하나도 없구나.

지금 내가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너희의 생명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 눈을 떠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섬길 때 능력이 따르고 부담을 가지게 되며, 영적으로 든든할 것이다. 반면, 내게서 나지 않은 것은 전부 공허한 것이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영안이 공허해지고 믿음을 잃게 되며, 나와 멀어지고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다. 지금 영 안에서 살면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탈할 수 있지만, 생각 속에서 살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며,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지금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마음으로 나를 양망하면 곧바로 영이 강해지고 실행의 길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 말이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언제 어디에 있든,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닥치든 마음으로 나를 양망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또렷하게 보여 줄 것이고, 반드시 내 마음을 드러내 네가 앞으로 달려가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찾을 줄 알지 영적으로는 찾을 줄 모르며, 종종 스스로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한 후에는 더 흐리멍덩해지고 앞이 막막해 어쩔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 가진 것이 많고 속에 채운 것은 가득하지만 그것이 쓸모가 있겠느냐? 너에게 정말 나아갈 길이 있느냐? 빛 비춤과 깨우침이 있느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느냐? 진보했느냐, 아니면 후퇴했느냐? 새로운 빛을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할 줄 모르는구나. 평소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말뿐이다. 네가 순종하는 생명을 살아 냈느냐?

사람의 독선, 자만, 자기만족, 오만함이 얼마나 크게 가로막고 있느냐? 실제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자신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아라. 네 속마음과 목적이 모두 나를 위한 것이냐? 네 말과 행동이 모두 내 앞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나는 네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고 있다. 너는 마음에 가책이 없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태연하게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는 스스로를 가리고 보호하는 것이다. 네 악을 가리고 보호하며, 심지어는 온갖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니, 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것이냐! 네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아라.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한 것 아니더냐? 혼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사탄을 감싸고 형제자매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 않았더냐? 네가 또 할 말이 있느냐? 이번에 사탄이 형제자매들의 먹고 마시는 시간을 빼앗아 갔는데 다음번에는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보상할 수 있는 것이더냐? 이 시간을 네가 보상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을 많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몇 번의 예배에서 먹고 마시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누가 방해한 것인지 하나하나 교제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엄격하게 저지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들이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정말이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소경이 너무도 많구나! 분간할 수 있음에도 일어나서 지적하지 않고 어정쩡 넘어가는 자는 여전히 소경이며, 보고도 입을 열지 않는 자는 병어리다. 불구자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 결국 내 말을 틀에 맞추는데, 이는 역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이들은 참된 감사와 찬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부차적인 것에만 신경 쓴다. 하나님의 경역을 방해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더냐?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무엇이더냐?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란 무엇이고, 사탄의 종이란 무엇이더냐? 이런 진리를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번에 먹고 마시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 지금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찬미해야겠느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만 찬미하는 것이냐? 그 외의 다른 방식은 전부 찬미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차례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예배하러 온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성령이 무엇을 하려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방해하게 된다. 이번 예배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으면서도 모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교회의 증거를 수호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일어나 말할 수 있느냐?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 사탄의 모든 행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나의 진리를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탄을 폭로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너에게서 만족을 얻도록 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네 마음을 내놓았느냐? 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스스로 많이 자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사탄의 선물을 네 속에 담고 있는 것은 네가 인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탄의 독소를 알지 못한 탓이므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실로 심하게 미혹되어 그야말로 모두가 흐리멍덩해졌다. 음탕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주관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며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 제대로 먹고 마시지는 않고 도리어 무턱대고 싸우고 다투며, 사리 분별을 못 해 이끄는 자가 누구든 다 따라가니, 진리를 조금도 갖추지 못했구나! 어떤 자는 자신을 위해 변호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척 거짓을 꾸미는데, 그 결과 상대방이 실행할 길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의 속셈, 목적, 동기, 출발점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겠느냐? 형제자매들의 먹고 마시는 시간을 빼앗아가 놓고, 너는 이것을 보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 교제하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 말해 보라고 하여라. 결국 뱃속

가득 더러운 물과 오물만 채워져 있고, 나아갈 길이 없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형제자매 간의 사랑은 또 어떠하냐? 뒤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만 파고드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못하느냐? 평소 구호는 잘 외치면서 실제로 일이 닥치면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어떤 사람은 깨달은 것을 말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른다.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역사를 파악할 줄 모르고,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며,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것, 사람의 관념과 일치한 것이라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구 싸운다. 성령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교회에 대해 진실한 부담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너는 파악했느냐?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일종의 찬미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자기 관념 아니겠느냐? 너는 늘 자기 관념을 꼭 끌어안은 채 내려놓지 않고, 성령이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의 느낌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하기 좋아해 찬송도 열심히 불렀지만 결과는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먹고 마셨겠느냐? 진정으로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발견했느냐? 전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부담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현재 성령 역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관념을 완고하게 고집하며 성령 역사에 대적한다면 그런 자는 소경이 아니겠느냐? 벽에 부딪혀 뱅뱅거리는 파리가 아니겠느냐?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버림받을 것이다.

재난 전에 온전케 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해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 받드는 사람이며, 승리한 남자아이이자 그리스도의 정예병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하나님을 가까이할 줄 알고 교제할 줄 아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가까이할 줄 모르면 사탄에게 끌려갈 위험이 있지만, 나를 가까이할 줄 알고 나와 교제하면 너에게 반드시 모든 진리가 나타날 것이며, 너의 삶과 행동에 기준이 생길 것이다. 네가 나를 가까이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말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 역시 삶 속에서 나의 말을 떠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탄은 틈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수치를 당해 황망히 도망갈 것이다. 네가 내면의 부족함을 겉에서 찾는다면, 조금 찾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규례적인 것이 많으며, 네가 얻어야 할 것들이 아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며 많이 되새겨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나를 가까이하여 나와 많이 교제하여라. 그렇게 할 때 얻는 것이 참된 것이다. 반드시 나를 가까이하는 것에서부터 입문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먹고 마실 줄 모를 것이다. 혼자서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정말로 분량이 너무 작은 것이다.

제14편

지금 시간이 몹시 촉박하다. 성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인도하고 있다. 모든 진리로 무장하여 ‘거룩히 구별되고’, 나와 진정으로 가까이하며 왕래해야 한다. 너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허락되지 않는다. 성령의 사역은 사정없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구하고 따르고자 하며,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제득실을 따지지 않기만 한다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찾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네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하든 나는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네가 적극적인 면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만 본다. 네가 아직도 ‘자기’ 관념을 고수하며 좁디좁은 자기 세계에서만 맴돈다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들림 받는 것이란 무엇이나? 버림받는 것이란 또 무엇이나?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어떻게 능동적으로 나와 협력해야겠느냐? 자기 관념을 제거하고 자신을 분석하며, 가면을 벗어던져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스스로를 증오하며, 갈급하게 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신의 모든 일 처리 방식을 중단하고,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양망하며, 끊임없이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사람은 늘 자기 안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지금 성령 역사는 실로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다. 모두 실제에 진입해야 하니 절대 데면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옳지 않으면 갈 길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어 있어야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깨어 기다리며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언제나 나를 양망하는 마음을 품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말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결코 더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갖가지 역병이 창궐해 재난이 되고, 시뻘쭙고 흉악한 아가리를 벌려 홍수처럼 너희를 삼키려 할 것이다. 내 아들이! 때가 되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오로지 내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자아이의 기개를 가져야 한다. 연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발걸음을 따르되, 새 빛을 거부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대로 순순히 잘 먹고 마셔야 한다. 지금 마구 다투고 논쟁할 시간이 있느냐? 배불리 먹지 않고 진리를 온전히 갖추지도 않으면 싸울 수 있겠느냐? 종교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진리를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내 말을 많이 먹고 마시며, 내 말을 많이 묵상해야 한다. 스스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경고한다! 주의를 기울여라! 총명한 자는 어서 각성해라! 내려놓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생명에 해롭기만 할 뿐 이롭지 않다! 나는 네가 내게 의지해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뿐인데, 어디에서 살길을 찾겠느냐? 겉으로만 행하길 좋아하는 마음을 접어라! 다른 사람에게 불복하는 마음을 접어라! 생명이 자라지 못해 버림받는다면, 이는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지금 성령 역사는 네가 상상한 것과 다르다.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사람의 관념과 일치한다면 너의 옛 성품과 관념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 너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 어쩌면 너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념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의 온갖 추악한 물결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나?

너는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내 얼굴을 찾는 사람이나?

너는 나와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할 줄 아느냐?

너는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내 뜻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밝힌 말을 실천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너는 사탄의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용감하게 폭로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부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성령 역사를 파악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서로 협력하며 섬길 것이냐?

어떻게 나를 위해 힘 있게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런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들을 통해 날이 아주 가까워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온전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일이다!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자 하건만, 너희는 참으로 제멋대로 구는구나. 좋은 강철을 칼날을 만드는 데 쓰지 않듯 핵심을 내버려 둔 채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봐야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너희는 호의도 모른 채 마구 다투고 소란을 피운다. 그러니 내가 헛되이 심혈을 쏟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들여 너희를 달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더 이상 각성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서 성령 역사를 거둘 것이다! 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보아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 말을 들을지 말지는 너희가 결정할 일이다! 앞으로 너희는 어리벙벙하고 나아갈 길이 없으며 참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겠느냐? 이 얼마나 우매하냐! 한사코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헛수고 아니겠느냐! 재난이 닥치면 버려질 텐데 얼마나 가련하겠느냐!

지금은 교회 건축의 중요한 단계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와 협력하며 전심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도 탄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너희를 너그럽게 대하며 너희가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리지만, 시간상으로 봐도 계속 이럴 수는 없다. 전반적인 국면을 살피자면, 하나님 경륜의 근본 취지를 위해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의 발걸음도 날마다 시시각각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날마다 새 빛이 있고 날마다 새 일을 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다! 따르지 않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제15편

‘하나님의 현현’이 이미 많은 교회에서 나타났다. 이는 그 영이 발하는 음성이자 말씀이라. 그는 맹렬한 불이요, 위엄을 지니고 심판을 시행한다. 그는 인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도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도다!

인자가 증거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니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누가 대적하는 눈빛을 보이겠느냐? 대적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것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든, 말한 것이든, 행동으로 저지른 것이든 공휼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부 나의 심판이다!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고 함부로 방해하며 나의 건축을 허무는 것을 내가 용인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을 것이다! 더 심각해지면 불길이 너를 태워 죽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체로 나타난다. 그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와 살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는 우주 세계를 초월하고 셋째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린다! 우주 만유가 모두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있으라 하면 생기고, 정해지라 하면 정해진다. 사탄은 나의 발아래, 무저갱 속에 있을 뿐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면 천지가 없어지고 무(無)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모든 악한 자들을 이겼다. 여기에 앉아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할 것이며, 살아 있는 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날이 곧 끝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권토중래’하리라. 명심하여라! 기억해야 한다! 대충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뛰어다니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라! 깨어나라! 뉘우치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현현했고, 내 음성이 이미 나타났다. 너희 앞에 나타난 내 음성은 매일 너희를 마주하고, 매일 새로워진다. 너는 나를 보았고, 나 또한 너를 보았다. 나는 시시각각 너를 향해 말하며, 너와 얼굴을 마주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나 너희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다! 망설이고 주저한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 내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하냐! 이 얼마나 가련하냐!

내 보좌 앞의 일곱 영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내 사자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자요, 신실한 자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곧 나의 말이 내 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니 귀 있는 자는 모두 들어야 한다! 살아 있는 자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기만 하여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진심으로 내 얼굴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빛과 깨우침,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새로우리라. 내 말이 시시각각 너에게 나타나 영의 눈을 열어 주면, 너는 영계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근과 온역이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고, 맹수와 독충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몸이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거룩한 영체가 나타났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세상과 육체가 모두 변모하고, 산에 올라 변형된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깨끗하고 빛난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세상과 만유는 그의 발등상이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도다. 하나님나라의 길은 밝고 무한하며, 영광의 빛이 발하는도다. 산과 강이 기뻐하며, 일월성신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 돌며 6천 년 경륜을 마치고 개선한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다! 모두 환호하며 춤추고 있다! 환호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도다! 노래하라! 전능자의 승리의 깃발이 위엄 있고 웅장한 시온산에 높이 솟아올랐도다! 열국이 환호하고 만민이 노래하며, 시온산이 기쁘게 웃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다. 또 날마다 얼굴을 마주해 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그가 마련하고 공급하며, 삶,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에 그의 영광이 빛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가 인도해 주나, 마음에 패역을 품는 자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생활하며, 그와 함께 살고 동행하고 누리며 함께 영광과 축복을 얻는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고 하나님나라에 거하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얼마나 감미로운가!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며, 늘 대화하고, 매일 새로운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다. 영의 눈을 뜨니 모든 것이 보이고,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거룩한 삶은 실로 여유롭다. 멈추지 말고 빨리 뛰어가라.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라. 더 놀라운 삶이 눈앞에 있다. 달콤함을 맛보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안으로 쫓아 들어가라. 만유가 망라되어 진실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채워졌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여라. 이 안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뀐다. 삶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초월하였다! 초월하였다! 참으로 초월하였다! 하나님의 초월적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홀가분하다! 세상과 세속을 초월하고,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정에 연연하지 않으며, 질병과 환경의 제약을 초월하니 사탄이 감히 방해하지 못한다. 모든 재난을 초월하는 것, 이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사탄을 짓밟고 교회를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하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폭로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며 영광의 몸이 나타났다. 이는 들림 받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제16편

‘인자’가 증거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산에 올라 형상이 변한 것이다! 이제부터 갈수록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러한 성령 사역 방식을 보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에서 나오신 것이다. 어떤

사람의 통제도, 공간적 지리적 제약도 받지 않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우주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 만국과 만민이 조용히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영적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광의 몸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는 확실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며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다. 우리를 권면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고, 위로하시며, 또 징계하고 심판하신다. 그는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시고, 우리가 빨리 깨어나 그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몹시 애타하신다. 그의 초월적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 그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초월하여 세상과 모든 악한 자를 이기고 그와 함께 왕권을 잡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영체이다. 그가 정해지라 하면 정해지고, 있으라 하면 생기고, 세워지라 하면 세워지니, 그는 유일무이한 참하나님이다! 사탄은 그의 발아래, 무저갱 속에 있을 뿐이다. 우주 만유가 다 그의 손안에 있으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가고 권토중래하리라!

제17편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사탄은 극력 그것을 허물려 한다.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나의 건축을 허물고 싶어 하므로 하루빨리 교회를 정결케 해야 한다. 악의 무리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얼룩 하나 없이 정결하고 예전처럼 순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필히 늘 깨어 기다려야 하고, 내 앞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사탄의 각종 음모와 간계를 간파해야 한다. 또한 영과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하고,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되, 혼자서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모든 진리로 무장하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너희의 영안(靈眼)을 열어 영적인 모든 비밀을 보게 할 것이다.... 교회가 건축에 돌입하면서 성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탄의 각종 추악한 몰골이 하나하나 너희 앞에 보여질 것인데, 너희는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퇴보하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냐? 사탄의 패괴된 추태를 철저히 드러내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 목숨 걸고 사탄과 결전을 벌여라! 내가 너희를 뒤에서 호위하리니 남자아이의 기개를 가져라!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사탄은 내 발밑에 있고, 또한 너희의 발밑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이다!

종교적인 방해자, 교회 건축을 허무는 자는 조금도 용인하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사탄을 폭로하고 짓밟아 살아남지도, 숨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가지각색의 사악한 마귀와

귀신, 요괴들은 반드시 내 앞에서 본모습을 드러내고 무저갱에 떨어져 움짱달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전부 우리 발밑에 있다.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려거든 먼저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섬기고, 자신의 모든 관념과 견해, 주장, 일 처리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체험해야 한다. 마음가짐과 목적은 오직 하나,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앙망하고 나의 움직임과 행사에 주목해야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고 눈을 밝게 해야 한다. 평소 마음가짐과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 외적인 일을 하기 좋아하는 자, 잘 방해하는 자, 종교적 도리를 고집하는 자, 사탄의 종 등 이런 자가 일어나면 교회의 문젯거리가 되고, 형제자매들의 먹고 마심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나타나 활동하면 그 즉시 차단해야 한다. 몇 번이나 일러 주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심하게 고집하는 자가 계속 스스로를 변호하고 죄악을 덮으려 하면 교회는 그러한 자를 가차 없이 바로 제명해야 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말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영의 눈을 떠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영이 통하고 영을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이 통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거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느냐?

어떤 사람이 잘 방해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누가 나의 충실한 증인이냐?

오늘날 최고의 이상(異象)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는 깨우침이니 이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대충 넘기지 말고 분명히 알 때까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는 너희의 생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앞에 놓인 길을 갈 수가 없다. 또한 수시로 시험에 빠지고 노략당할 위험이 존재하며,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다. 지금은 주로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과정에서 내게 부족한 것과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채워 줄 것이니, 너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에 얼마나 우매했었는지 따지지 않고, 너의 지난 과오 역시 기억하지 않고 오직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만 본다. 너는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네가 뉘우치고 내게 의지하여 우매함을 벗어 버릴 수 있는지를 본다. 어떤 이는 나와 대립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하며, 다른 이를 판단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며, 내 얼굴을 찾지도 않는다. 내 앞에서 진심으로 나에게 구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깨우침을 주고 다 보여 줄 것이며, 직접 나를 보게 하고 내 뜻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뜻을 보여 주고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은 반드시 내 말에 따라 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뜻에 따라 가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내 말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배로 임할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을 것이며, 매일 더 새로운 것을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맛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달콤하냐! ... 삼가 조심해라. 작은 깨달음과 달콤함을 맛본 것에 만족하지 말라. 계속 앞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실로 기묘하고 참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적이 앞에 있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으라. 근원을 바라보고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진심으로 믿어라.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의혹이라도 품는다면 문밖으로 내쳐질 것이다. 이상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착실하고 견실하게 이 생명의 흐름을 따르며, 흐름이 어디로 향하든 바짝 쫓아라. 잠시라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오직 먹고 마시며 찬미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청결한 마음으로 찾으며 포기하지 말라. 모르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가져오고 절대 의심을 갖지 말라.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말이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바짝 따라오라! 걸림돌을 제거하고 방종하지 말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라오며 물러서지 말라. 너의 마음을 시시각각 바치되 일분일초라도 놓쳐선 안 된다. 성령은 수시로 새로운 사역을 하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며, 날마다 새로운 깨우침을 준다. ‘산에 올라 변형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체가 나타났다! 공의로운 해가 밝은 빛을 발하니, 만국 만민이 이미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도다. 내 앞에 온 자에게는 반드시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내 말은 빛이라. 앞에서 인도하리니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 빛 속에서 행해야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그 안에 나의 뜻이 있다. 모든 비밀은 감춰졌으나 점차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언제나 나의 말을 명심하고 늘 내 앞에 와서 나와 교제하라. 성령의 역사는 나아가고 있으니 내 발걸음을 따라 행하여라. 앞에 경이로운 일들이 있으니 하나씩 네게 나타날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는 볼 수 있다. 절대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곧 끝나고 교회 건축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긴 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 만들어진 이긴 남자아이는 나와 함께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왕권을 잡고 철장(鐵杖)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영광 속에 나와 함께할 것이다!

제18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려 하면, 사탄 또한 온 힘을 다해 허물려 한다. 건축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상(異象)이 있어야 하고, 나를 의지해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여야 하며, 내게 충성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시련을 견디고,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사람을 알아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시각각 영안(靈眼)을 밝게 하여 모든 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한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나를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하고, 사탄과 끝까지 결전을 벌이며, 건축하면서 싸운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의 견고한 요새이자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여 변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품이 안정적이고, 어떤 환경에서든 늘 나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며, 가정은 물론 어디에 있든 사람과 일, 사물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주관을 갖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살아 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는 하루 이틀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전체를 고려하는 한편,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또한, 협력하여 섬기고,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 성령의 구원 방식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을 비우고 순수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형제자매 간에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왕래하며, 영 안에서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점은 취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교회에서 건축되기를 추구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나라에 분깃이 있을 것이다.

제19편

현재 성령의 역사는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로운 성령 역사의 방식 안으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분명 나를 오해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나를 대적하고 연구하며 나와 대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 역사의 방식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나의 말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한 이상, 도중에 포기할 생각은 없다. 단지 너희 스스로가 의혹을 품고 공연히 되돌아가려고 할 뿐이다. 어떤 이는 정체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이는 상황을 보며 기다리고, 어떤 이는 대충 넘기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따라 하니, 실로 마음이 강박하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큰소리치고 있다. 다시 잘 묵상해 보아라. 그저 긍휼과 심판의 말이 임한 것뿐이다. 너희는 실로 패역하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해부하면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는 겁 없이 함부로 날뛰거나 경거망동하지 말고, 방종하거나 독선적으로 굴지 말라! 내 말을 실행하는 데 집중해라. 어디에 있든 나의 말을 살아 내야 한다. 나의 말이 너의 마음에 자리하여 참으로 너를 변화시키게 하고, 나의 성품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래야 진정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추구하고 더는 멈추지 말라. 성령의 불사름으로 정결케 되고 변화되어야만 건축될 수 있다. 현재 성령 역사는 이미 너희를 교회 건축으로 이끌었다. 계속 예전처럼 건성으로 행동하고 꾸물거린다면 구제 불능이다. 반드시 모든 진리를 갖추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며, 나의 지혜에 기반해 완전한 도를 행해야 한다. 교회 건축은 반드시 생명의 영 안에서 이뤄져야지, 겉모습만 모방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 곧 건축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은사로 건축될 수 없고, 영이 통하지 않고 실체가 없어도 건축될 수 없다. 늘 나와 가까이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자도 건축될 수 없다. 머릿속 관념에 빠져 살면서 규례에 의지하면 건축될 수 없다. 감정에 의지해도 건축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될 수 없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오만하고, 자만하며, 늘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건축될 수 없다. 협력하여 섬길 줄 모르면 건축될 수 없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누가 이끌든 다 따르는 자는 건축될 수 없다.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옛 상태에서 살면 건축될 수 없다. 새로운 빛을 따르지 못하고 이상(異象)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건축될 수 없다.

교회 건축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자, 현재 나의 절박한 마음이기도 하다. 마땅히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여 전력을 다하고 자신을 바침으로써 건축의 흐름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 버려야 할 것은 전부 버리고,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제대로 먹고 마셔라. 내 말의 실재를 살아 내야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네 내면에는 나의 말이 얼마나 있느냐? 나의 말을 얼마나 살아 내고 있느냐?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의 생명 성장에 실로 백해무익하다. 진리를 밝히 알면 실행에 길이 생기고, 나의 말이 진정으로 너의 생명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지금은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사탄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를 허물려 하고 있다. 너희는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하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분별력이 없으면 크게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탄도 허상을 만들고 모조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질이 다르다. 사람은 우매하고 경솔하여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는 맑고 평온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손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복 아니면 화이다. 내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나의 말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사탄이 찾아오면 바로 경계하게 되고 예감이 있어 영 안이 실로 평안하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현재 사탄도 대세에 따라 역사하므로 사람이 깨어 있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있으면 노략당할 것이다. 항상 눈을 맑게 하고, 이해득실을 위해 논쟁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셈하지 말며,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똑같은 물건이라 해도 질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과 영을 알고, 분별력을 갖추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의 독소가 나오는 즉시 확실하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빛을 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영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역점을 뒀야지,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누가 이끌든 무턱대고 따르기만 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너희 내면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 너희는 모두 맛보았느냐? 섬기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자신의 뜻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심각할 경우,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는 잘라 버릴 것이다! 교회는 많은 사람으로 숫자를 채우는 곳이 아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을 원한다. 너희는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아야 한다. 빈곤한 자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자기기만이 아니겠느냐? 교회 건축에서는 영을 따라 행해야지, 맹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되, 자신이 지켜야 할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 주어진 역할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붓는다면 나 또한 흡족할 것이다. 너희 모두에게 같은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섬겨야 한다.

제20편

성령의 역사는 아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미 너희를 새로운 경지로 인도했다. 즉, 하나님나라 삶의 실체가 이미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성령의 말씀은 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직접 드러냈고, 이에 따라 하나 또 하나의 화면들이 네 앞에 연이어 나타났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시온에 남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며, 반드시 나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얻고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지금 너희는 아직 영안(靈眼)이 열리지 않아 영계의 일부 비밀을 보지 못하였다. 모든 것이 지극히 기묘하다. 이적과 기사, 사람이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일이 앞으로 점차 일어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나큰 이적을 나타내어 온 우주 땅끝과 만국 만민이 직접 보게 할 것이다. 모두가 나의 위엄과 공의, 전능을 보게 될 것이다. 날이 머지않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뒷걸음질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견지할 것이냐? 어떤 사람도, 일도, 사물도 보지 말고, 세상도, 남편도, 자녀도, 삶의 걱정거리도 생각지 말라. 오직 나의 사랑과 긍휼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나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만 생각하여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고, 나의 뜻은 속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 이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영광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자는 한 걸음 뒤처짐으로 인해 평생 스스로를 원망하며 후회막급해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의 분량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지, 서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통해 실제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너의 순종은 그야말로 선택적 순종이다. 설령 이 사람에게는 순종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잘 순종하지 못한다. 사람의 관념으로 봐도 확실히 순종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고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다. 그에 반해 현재 너의 순종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내가 알려 주겠다. 순종이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내적 생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신께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다. 순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순종의 생명을 살아 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늘 내 앞에 와서 이에 대해 나와 교제해야 한다. 그러면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면의 관념과 선택도 자연히 내려놓게 될 것이다. 사람은 나의 이러한 사역 방식을 꿰뚫어 보기 힘들다. 사람이 홀룡해서, 또는 대단해서가 아니다. 나는 가장 우매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한편, 사람의 일부 관념과 견해, 선택을 돌려세운다. 하나님의 행사는 이토록 기묘하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네가 정녕 나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순수하게 진리를 깨달아야지, 치우치거나 그릇되어선 안 된다. 항상 내 말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생명의 빠른 성장을 추구해야지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 성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이 성장해야 건축될 수 있고, 하나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몇 마디만 더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적지 않거늘, 그중 네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얼마나 되느냐? 네 생명의 실체가 된 말씀은 얼마나 되느냐? 나의 말을 얼마나 살아 났느냐? 밭 빠진 독에 물 붓듯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이들은 매우 수월하게 득을 보았는데 너는 어떠하냐? 아무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너를 지켜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명심해라. 내 말을 너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않으며, 묵상하지 않고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너는 손해를 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교훈을 얻고 너 자신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받아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의 생명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하며 새로워지고 있다. 형제자매들이 열의를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종점을 향해 뛰어가라.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줄 수 없으니 스스로 노력하며 나와 협력하여라. 이상(異象)이 있고 길이 있으며 낙심하지 않고 늘상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필히 이길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풀이 죽어선 안 된다. 모든 일에서 앞을 바라보고 옛길을 다시 가지 말라. 모든 것을 내걸고 모든 짐을 버리며 필사적으로 쫓아가라! 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런 자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편

현재 성령의 역사는 또다시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으며 다시 시작된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치에도 어긋나겠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지혜가 반영된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관념과 견해를 내려놓고,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라. 내가 이미 이렇게 행한 이상, 신성한 책임을 질 것이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묘한 일을 하면서 전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나의 많은 지혜로 온 우주의 교회를 통치하고 만국 만민을 잘 다스려 모두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교회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할 것이다. 여태까지 불복하던 사람도 이제는 내 앞에 순종해야 한다. 모두가 서로 순종하고 포용하며,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협력하여 섬긴다면, 교회는 반드시 건축될 것이며, 사탄도 절대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나의 경륜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는 또 너희에게 몇 마디 일깨워 주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고 해서 오해하고, 그로 인해 영적 상태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옳지 못할뿐더러 무가치한 일이다. 네가 믿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역할은 달라도 몸은 하나다.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해 생명의 성숙을 추구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내 앞에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만 신경 쓰고, 늘 나와 교통하고 왕래하여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많이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때를 기다려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되, 경거망동하지 말라. 치우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참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고 묵상하여라. 또, 나의 말을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 말의 실재를 살아 내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교회의 건축 과정은 생명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생명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버리면 건축될 수 없다. 자연적인 것과 육적인 것, 열정, 공헌, 자격으로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건축될 수 없다.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살며,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아야 한다.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되며, 영적으로 같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깨우침을 받으며 새로운 빛을 쫓아가고, 나와 끊임없이 가까이하고 왕래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나의 말대로 행하며, 나의 말을 근거로 모든 사람, 일, 사물을 잘 처리하며, 삶 속에서 나의

말을 행동 준칙으로 하며, 나의 성품을 살아 내야 한다.

내 마음을 느끼고 헤아리려면 반드시 나의 말에 신경을 써야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화로 돌아갈 것이다! 오직 내가 인정하는 것만이 축복이다. 내가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고, 세워지라 하면 세워질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내 분노가 너희에게 떨어질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제22편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자는 흐리멍덩하게 따르고 아무것이나 다 먹는다. 그러면서도 아주 맛깔스럽고 아주 입맛을 돋운다고 여긴다! 어떤 자는 또 갈채를 보내기까지 하는데 이는 영적 분별이 없는 것이다. 이번의 경험은 너희가 잘 종합해 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 시기에는 온갖 영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지하고, 교회 건축에 개입하여 이를 허무는 역할을 맡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남겨 둔다면,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막다른 지경에 몰릴 것이다. 심각한 자는 이상(異象)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쏟은 심혈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교회가 건축될 때는 사탄이 가장 미쳐 날뛰는 때이기도 한데, 흔히 일부 사람들을 통해 교란하고 방해한다. 영을 알지 못하는 자거나 새 신자가 사탄의 역할을 가장 쉽게 맡게 된다. 사람은 흔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탓에 완전히 자신의 기호와 방식, 관념에 따라 제멋대로 한다. 너의 입을 꼭 닫아라. 이것은 너에 대한 보호이다.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다. 여기에서는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영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야만 다른 사람이 너에게 탄복하게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 먼저 자기 내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타락 성품을 없애며, 자신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교제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먼저 자신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며, 나의 말대로 생활하고 행하며,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마음에서 권세 잡도록 해야 한다. 육적인 것과 천연적인 것을 벗어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주권을 잡게 하면, 너의 생명이 꼭 변화하게 되고 너는 자신의 성품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점점 느끼게 될 것이다. 예전에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거나 야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오만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점점 이런 것을 벗어 버릴 수 있다. 즉시 벗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의 옛 자아가 정말로 깊이 뿌리박혀서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주관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령 역사에 순종하며,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기꺼이 나의 말을 실행해야 한다. 네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너를 징계한다. 하지만 네가 뉘우치고 깨달은 뒤에는 내면이 즉시 평안해진다. 네가 함부로 말하면 네 속이 즉시 질책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깨닫고 바로 멈추면 내면이 평안해진다. 일부 새 신자들은 생명의 느낌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명의 느낌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때는 네가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자신의 선택과 관념, 견해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때는 늘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의 내면이 평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네가 어찌 된 까닭인지를 알고 즉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면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긴장되고 심란하며 평안하지 않을수록 너는 절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특히 새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에 주는 느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마음이 밝아지고 든든해지는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이것은 방해하는 것이다. 이 일에 절대 주의해야 한다. 이 병이 자주 도지는 자는 먼저 ‘예방약’을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해하는 너를 칠 것이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취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과 언행에는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누구를 보더라도 자신만 못하다고 여긴다면 너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것인데, 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금의 핵심은 생명을 중시하고,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얹으로써 나의 말을 진정으로 너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이 자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시시각각 나의 말대로 살아야 하고, 삶 속에서 나의 말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점점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은 네가 갈수록 이상을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갈수록 가까워지며, 형제자매들과 서로 진실로 사랑하게

한다. 또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게 한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은 너에게 이상이 사라지게 하여 이전에 소유한 것도 모두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며, 형제자매들 간에 사랑이 없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 또한 갈 길을 잃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이고, 악령 역사가 일으킨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므로 마지막 임무를 잘 마쳐야 한다. 영적 눈을 크게 뜨고 선악을 분별하며 교회 건축을 위해 너희의 모든 능력을 다해야 한다. 사탄의 종, 종교적 방해, 악령 역사를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재난 전의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너희를 되도록 빨리 온전케 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제23편

나의 음성을 들은 형제자매들은 모두 엄하게 심판하는 나의 음성에 몹시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 엄한 음성 속에 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나는 반드시 징계하고 다루어 하루빨리 온전케 할 것이다. 내 마음은 절박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임을 진실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외식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눈물을 흘린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고 통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도 확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허울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장 증오한다! 그들 역시 조만간 나의 성에서 제거될 것이다. 나는 간절히 나를 원하는 자들을 원한다. 진심으로 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손으로 그들을 떠받쳐 그들이 그 어떤 재앙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빨리 실제에 진입해야 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짐이다.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두 실제에 진입하여 나와 얼굴을 마주하며 직접 교제할 수 있고, 모두 진리와 의를 행해야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큰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제24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정신을 차려라!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발할 것이니 들은 사람은 모두 깨달아야 한다. 내가 바로 너희가 오랜 세월 믿어 온 그 하나님이다. 오늘날 육신이 되어 너희 눈앞에 왔다. 이로써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사람에게 감춰진 이면을 낱알이 알 수 있고,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감찰한다.

지금 나는 내 뜻에 맞는 한 무리 사람들, 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 한 무리 사람들을 되도록 빨리 온전케 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교회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을 수 없고, 정결케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나의 심장이다. 나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인을 증오한다. 일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간사하기 그지없고 진심으로 나를 가까이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악인이고, 모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아주 독선적이고 오만 방자하며, 야심적이고, 늘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악인들을 모두 깨끗이 없애 제거할 것이며, 재앙 속에 남겨 연단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발걸음을 지켜 내 마음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일깨워 주고 경고해 주는 것이다. 항상 영 안으로 돌아오라. 나는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하므로 나 역시 반드시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을 멀리하도록 보호할 것이고, 나의 집에서 설 수 있고 길을 끝까지 가도록 보호할 것이다.

제25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감람산을 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들으라! 우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음이라. 우리는 직접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을 보았도다!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고 참모습으로 나타나셨도다! 땅끝의 모든 사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 보좌 앞의 일곱 영은 각 교회로 보내심을 받아 당신의 모든 비밀을 여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당신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며, 열국을 당신 앞에 행복하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당신 앞에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빛이 이르렀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나이다. 하나님이지요! 하지만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셨나이다. 열방은 당신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당신의 광명으로 나아오나이다. 당신이 눈을 들어 사면을 보시니 당신의 아들들이 다 모여 당신께 오나이다. 당신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며 당신의 딸들은 안기어 오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당신의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나라로 향하고 있으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을 가로지르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감사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정직하고, 평온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앙망하고, 증거하고,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축하게 하옵시며, 하루빨리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당신께 쓰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땅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제26편

나의 아들이여, 나의 말을 새겨듣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네게 밝혀 줄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자 너희의 유일한 구속주이니 내 안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라. 늘 너희 마음을 평온히 하고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나는 네 반석이요 너희의 산성이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한결같이 나를 의지하여라. 그리하면 나 역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의심하는 자들아! 너희는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며, 그 무엇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한다.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시기냐!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어서 나와 가까이하고 교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비밀을 밝혀 줄 것이다.

성령이 가르치는 말은 모두 순종해야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더냐! 데면데면한 자여! 얼마나 많은 복을 잃었더냐! 지금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세심히 듣고, 나와 많이 교제하며 가까이해야 한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현재 글귀를 말하는 자는 너무도 많으나 진정으로 나의 실재를

가진 자는 너무도 적다. 그들의 교제를 들으면 오히려 미혹당하고 무감각해져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 들어 봤자 글귀만 조금 더 알게 될 뿐이다. 자신의 발걸음을 조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항상 내 앞에서 살며, 나와 왕래하고 가까이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자신의 입을 지키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내가 가는 길을 가도록 해라.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나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속히 나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는 너희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늘상 내가 하는 일을 오해한다. 너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휴!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지난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의심했든, 나에게 얼마나 죄스러웠든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일각도 지체할 틈이 없다. 만약 또다시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난다면 롯의 아내가 될 것이다. 지금 성령 역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니 새로운 빛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위험하다. 깨어 있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니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너는 주위의 모든 환경이 다 내가 허락한 것임을, 또 내가 마련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명심해라. 내가 네게 마련해 준 환경에서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고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오늘날 사람에게 관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자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야심적이고 늘 남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를 수치당하게 할 것이다. 진심으로 나의 부담만 생각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니, 오직 나를 따르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제27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하나님,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이다! 지금 성령은 의혹을 품는 자가 없도록 곳곳에서 역사하며 증거하고 있다. 승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으며, 구속을 이루셨도다! 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 그분은 온 땅에서 왕권을 잡고 계시며, 이 땅을 되찾고 사탄을 무저갱으로 내쫓으신다.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니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왕이 되어 권세를 잡고 계신다.

온 땅이 환호하며, 영원토록 승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은 모든 존귀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모든 권병과 영광을 우주의 큰 왕께 돌려 드리나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조금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분의 부담을 생각하며 그분과 한마음으로 그분의 경륜을 위해 헌신하되, 자신의 재산을 남겨 두지 말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남김없이 바쳐라! 아낌없이 바쳐라!

제28편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성령의 사역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또 우주의 왕, 즉 빛나는 태양이자 하나님나라의 왕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크나큰 복을 얻게 된 것은 모두 나의 은총이자 긍휼이다. 또 그 어떤 것이 너와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너는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하며, 계속 바깥세상에서 떠돌지 말고 언제나 내 앞에서 평온히 기다려야 한다.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조금도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일이 닥치든 맹목적으로 선불리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대로 행하되 내가 원치 않는 것이거든 단호히 그만두어야 한다. 설령 친부모일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처럼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내쳐야 한다. 너는 사람과 일, 사물에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여라. 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두려워 말고 나의 말대로 행하기만 하여라. 내가 손으로 너를 받쳐 주고 있어 반드시 너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며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나를 떠나면 즉시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세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온갖 역병이 돌고 있고 각종 악령이 득실거린다. 오직 나만이 참하나님이고, 오직 나만이 너의 피난처이다. 지금 너는 나의 은밀한 처소에 숨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앙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고 화도 너의 장막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늘 가까이하며, 은밀한 곳에서 나와 교제해야지 다른 사람과 함부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分別력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악령 역사가 매우 심하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 너와 교제하며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다. 그것은 달콤한 속임수이며,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에게 독을 주입한다. 너는 오늘날의 사람 대부분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그들이 알려 주는 것은 규례와 글귀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직접 나와 교제하는 것이 낫다. 내 앞에 와서 속에 있는 묵은 것을 완전히 쏟아내고 내게 마음을 활짝 열면, 반드시 나의 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너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내 앞에 나와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면 너의 생명은 무엇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 또한 네 안에 거하며 너의 왕이 되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면, 너는 나의 나라에서 분깃이 있을 것이다.

너는 자신의 젊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나를 위해 바쳐야 한다. 나는 사람의 외모도, 나이도 보지 않는다. 오직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의 도를 행하는지, 만사를 제치고 진리를 실천하는지만 본다. 내일이 어떠할지, 미래가 어떠할지 걱정하지 말라. 날마다 오직 나를 의지해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나는 생명이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또한 사탄이 준 생각이다. 언제나 마음으로 나를 가까이하고 마지막까지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기만 하여라. 네가 나의 질타와 경고의 말을 들었거든 깨닫고 즉시 앞으로 달려야 한다. 계속 나를 가까이하며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섬김의 길에서 나의 말을 자꾸 되새겨야 한다.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되고, 남자아이의 의지와 기개, 강인하고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반드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려는 부분에서 나를 흡족게 해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것과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 앞에서 겸허히 순종해야 한다. 또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멋대로 연구하거나 고민하지 말며,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한다.

이 자리에서 충고하겠다. 내가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제29편

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의지하여 네게 있는, 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단기간에 벗어 버려야 한다. 즉, 우매함, 둔함, 불투명한 생각, 나약함, 의지박약, 황당무계함, 지나친 감정, 어리석어 사리 분별 못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벗어 버려야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기꺼이 나와 협력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각종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다.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으로, 네게 있는 여러 가지 병과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네 생명이 자라는

데 방해가 되므로 하루빨리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빛 비취 준 것들은 나를 의지하여 다 벗어 버려야 하며, 언제나 내게 의존하고 나를 가까이해야 한다. 너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나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와 많이 교제하라. 네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밝히 알려 줄 것이니, 모르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온정적인 성품을 유지하되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지 말며, 언제나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항상 내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편이든 가정이든 나를 위해서라면 모두 사정을 봐주지 말라.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다. 반드시 진리에 따라 행동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 또한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대적하는 자는 나도 참아 줄 수 없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그 어떤 사람, 일, 사물도 중시하지 말고, 영 안에서 내가 쓰는 사람을 잘 보고, 영에 속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라.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알곡은 어쨌든 알곡이고, 가라지는 어쨌든 가라지니, 다양한 사람들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말을 할 때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조심하여 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상의 말들을 주의 깊게 되새기며, 최대한 빨리 패역을 벗어 버리고 내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한다.

제30편

깨어나라, 형제들아! 깨어나라, 자매들아! 나의 날은 연기되지 않는다. 시간이 곧 생명이니 시간을 잡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은 떨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공부하면 되지만, 나의 날은 연기되지 않는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는 좋은 말로 전하는 나의 충고다. 세상의 결말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고, 대재난이 곧 닥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의 생명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 더는 의심하지 말고 참답게 대해라!

참으로 가엽도다! 궁핍하도다! 눈이 멀었도다! 이 잔인한 인간들아! 내 말을 그냥 흘려듣다니, 내가 너희에게 헛되이 말을 했던 말이냐? 너희가 여전히 이렇게 해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체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더냐?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이니라! 너희의 전능자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명심해라!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대체 나더러 어떻게 말하란 것이냐? 내 말이 너희가 자세히 되새기고, 반복해서 곱씹어 볼 가치가 없단 것이냐? 너희가 내 말을 이토록

참답게 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데 내가 어찌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러겠느냐?

너희의 올바른 교회 생활은 왜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바치려 하지 않고, 내 앞에서 헌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깨어나라, 나의 아들이! 나를 믿어라, 나의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왜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냐?

제31편

나는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니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할 것이다. 내 뜻을 알겠느냐? 내 집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자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고지상하고 유일무이하며 우주 만유를 다스린다!

너는 내 집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면서 나를 섬기어라”. 또한 이는 네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나뭇잎이 되지 말고 나무의 뿌리가 되어 생명에 깊이 뿌리내려라. 참된 생명 체험에 들어가 내 말에 따라 살아가고 모든 일에서 나를 찾으며,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하거나 왕래하여라. 바깥일은 전부 신경 쓰지 말며, 그 어떠한 사람이나 일, 사물에 구애받지 말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과 나의 어떠함을 교제하며, 나의 뜻을 깨닫고 서로 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라. 또한 나의 말대로 살고 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너는 내가 맡겨 준 일에서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흡족게 하여라. 나는 너의 능력이요 너의 기쁨이다.... 나는 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 너는 오직 나를 추구하여라. 나는 너의 진실한 소망을 알며,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내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나를 끝까지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나의 심장이다. 나는 교회 건축에 있어서 마음이 불타오르듯 급하다. 너는 아낌없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한다.

제32편

빛이란 무엇이냐? 너희는 예전에 뜻밖에도 성령 역사의 변화 형식을 빛으로 여겼다. 진정한 빛은 시시각각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사귀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영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체험 과정에서 그의 어떠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빛 비춤을 얻는 것 역시 전부 빛이다. 네가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시로 깨우침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새로운 빛을 찾았다면 섬김에도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섬기는 과정에서 너희는 정말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이는 너희가 실재를 느끼지 못해 진실한 체험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에게 진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섬길 줄도 알지 않겠느냐? 어떤 일들이 임할 때, 너는 제대로 체험해야 한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빛이 생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실제 속으로 진입하지 않고 언제나 겉에서만 찾으니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생명 성장까지 지체되는 것이다.

겉면에 역점을 두지 말라.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섬김에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 말을 유념해서 듣도록 하며, 내 말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내가 가리키는 길로 가서 진입하면 된다. 이러면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실제에 진입하는 길을 찾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길이 생긴다.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라. 그러면 부족한 것을 모두 얻을 것이며,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 그리고 빛이 생길 것이다.

제33편

나의 나라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간사하지 않은 자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착실하고 충직한 자들이 푸대접을 받지 않더냐?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다르다. 정직한 자들은 내게로 오면 된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며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또, 가정과 주변의 환경도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여 은혜 입을 기회를 적잖이 놓친다. 한번 또 한번 후회를 하지만 막상 일에 맞닥뜨리면 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해 간신히 이기지만, 다시 그러한 일을 겪으면 고질병이 재발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고 너희의 과오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이 음란한 땅에서 구원하고자 하며, 너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한번 또 한번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이니, 더 이상 어리석게 굴어서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도 안 될 것이다.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용감하게 전진해라. 풍성한 잔치가 너희 앞에 있으니 어서 예복과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석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고통과 슬픔, 탄식은 없을 것이다. 그때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서 권세를 잡아야만 네 안이 깨끗이 씻김 받은 성전이 되고, 네가 얻은 그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세세토록 네 안에 거할 것이다!

제34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한 참하나님이시라! 그는 일곱 별과 일곱 영, 일곱 눈을 갖고 있으며, 일곱 인을 떼고 책을 펼친다. 나아가 그는 일곱 재앙과 일곱 대접을 주관하고, 일곱 우레를 떼며, 일찍이 일곱 나팔을 울렸도다! 그가 창조한 만물과 그가 온전케 한 모든 것은 마땅히 그를 향해 찬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보좌를 높이 받들어야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바로 모든 것이나이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밝게 하며,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을 힘 있고 굳세게 하시나이다! 당신은 모든 비밀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다 여셨나이다. 또한, 당신은 원수들을 심판하고 위엄과 맹렬한 불, 그리고 진노를 나타내셨나이다. 더구나 미증유의 영광,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무한한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만민은 모두 깨어나 힘껏 환호하고 노래하며, 이 전능하고 참되며, 살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갖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광의 참하나님을 찬송하라. 언제나 그의 보좌를 높이 받들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그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베푸신 무궁한 축복이도다! 우리 중에 받지 않을 자 누가 있으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받들고, 그의 보좌를 향해 경배해야 할지라. 그의 앞에서 다른 속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전부 그의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니라. 지금은 그의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이자 멸망할 때이며, 나아가 나, 전능한 하나님이 드러날 때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이니라. 만민들아! 어서 일어나 찬송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고, 자신의 아들을 만드시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 이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행사라! 또한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자 예비함이니라. 바로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사 영광으로 인도하심이라.

일어나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눈먼 자들의 조상이요, 미련한 자들의 왕이라. 그들은 영원히 미련한 자로, 영원히 어리석은 자로, 영원히 눈먼 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마땅히 깨어나야 할 것이다! 백성들아 모두 일어나라! 영광의 왕이자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구속의 아들이자 모든 것을 갖춘 일곱 영, 위엄과 맹렬한 불을 지니고, 공의로 심판하며, 풍성하고 풍족하며, 모자람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으며, 완전하고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호와 찬양으로 쉬지 말고 찬송하라. 그의 보좌는 영원히 높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기묘한 구원 방법이며, 그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아야 할지라! 이런데도 일어나 증거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기간의 우리 행실과 생각, 살아 낸 것에 따라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가 결정된다. 바로 이 여정에 달린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영원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이며,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영원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이라!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곧 이 유일한 참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품는 자는 전부 병자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미 증명되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러 왔으니, 반드시 날 선 점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짓이다. 하나님 영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영의 길을 가며,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살고,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토록 높이 받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곱 영의 하나님이다! 일곱 눈도, 일곱 별도 그니라. 일곱 인은 그가 떼셨으며 책은 전부 그가 펼치셨다! 그는 이미 일곱 나팔을 울렸으며, 일곱 대접과 일곱 재앙 역시 그가 다스리고 그의 뜻에 따라 쏟아질 것이다. 줄곧 봉인되어 있던 일곱 우레야! 그 봉인이 떼어질 때가 되었도다! 일곱 우레를 떼실 이가 이미 눈앞에 나타났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에게서는 모든 것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 없이 형통하나이다! 그 무엇도 감히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것이 귀순할 것이나이다. 귀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전부 죽음을 맞이할 것이나이다!

일곱 눈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는 환하고 밝아 아무것도 숨지 못하고 전부 드러나며 밝혀지도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수정같이 맑도다. 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한 그러하니,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일도 그와 그의 아들 앞에서 숨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곱 별은 밝게 빛난다! 교회는 이미 그에 의해 이루어졌고, 교회의 사자들은 그의 명을 받아 세워졌으며, 온 교회가 그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일곱 인은 그로 인해 떼어지고, 그의 경륜과 뜻은 전부 그 자신에 의해 이뤄진다. 그의 경영의 비밀과 영의 말씀을 담은 책 또한 이미 그로 인해 펼쳐지고 드러났다!

백성들은 그가 부는 일곱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이므로 더는 숨김도 슬픔도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승리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곱 나팔은 공개와 영광과 승리의 나팔이다! 또한 원수를 심판하는 나팔이기도 하다! 그의 승리 속에서 그의 뿔 역시 높임 받고 있다! 온 우주를 주관할 것이다!

그는 이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였다. 그 재앙은 그의 원수에게 끝까지 쏟아질 것이며, 맹렬한 불이 그의 원수들을 태워 멸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위엄을 떨치면, 그의 원수는 모두 멸망한다. 마지막의 일곱 우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는 봉인되지 않고 전부 떼어질 것이다! 전부 떼어지리라! 그는 일곱 우레로 그의 원수를 쳐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그를 위해 힘쓰게 하며, 더는 황폐하지 않게 할 것이다!

공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당신은 무한한 찬양과 찬송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당신의 일곱 우레는 심판을 위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광과 권병을 위해 존재하나이다.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만민이 보좌 앞에서 경축하며,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도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치는 듯 전 우주를 흔들도다! 모든 것이 그로 인해 생기고 그로 인해 나오도다! 누가 감히 모든 영광과 존귀, 권능, 지혜, 거룩함, 승리, 나타남을 전부 그에게 돌리지 않으랴! 이는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경영 건축의 준공을 알리는 것이니라!

제35편

보좌에서 일곱 우레가 발하니 우주가 진동하고 천지가 뒤집히며 그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도다! 뚝고 들어오는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은 도망치기도, 숨기도 어렵다. 우레와 번개가 치니 삼시간에 천지가 크게 변하고, 사람들은 혈떡이며 사경에 이른다. 이어, 폭풍우가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엄청난 속도로 전 우주를 휩쓸며 하늘에서 내리친다! 땅끝의 구석구석이 샅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이 찢겨져 오물은 조금도 없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는데 어떤 것도 숨을 수 없고 어떤 이도 피할 수 없다. 우렛소리는 섬뜩한 빛이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좌우에 날 선 검은 패역한 자식을 치고, 원수는 재앙을 만나 숨을 곳이 전혀 없으며, 이 폭풍우에 얻어맞아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순식간에 쓰러져 물살에 휘말려 간다. 오직 죽음뿐, 살길은 전혀 찾지 못한다. 나에게서 비롯된 일곱 우레는 내 뜻을 담고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악한 자를 징벌하여 나의 교회를 정결케 한다. 이로써 모두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나와 한마음이 되게 하여 하나가 된 우주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 취지이다.

그 우렛소리에 잇따라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자는 화들짝 놀라 꿈속에서 깨어나 깊이 반성하고, 재빨리 보좌 앞으로 돌아와 더 이상 공공연히 사기를 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은 셈이다. 나는 보좌에서 바라보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진심으로 강렬히 나를 원하는 자를 구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뜻을 깨닫고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영원히 구원하리라! 내 손은 반드시 그들을 안전하게 받쳐 줄 것이니, 그런 상황이 임하지 않고, 그런 피해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자는 그 번갯불이 내리친 후의 광경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끝없는 후회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너무 늦은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들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의 구원 방식이기도 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을 치며, 나라가 땅에서 견고하고 평온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만국 만민과 우주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위엄이고 맹렬한 불이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로써 희고 큰 보좌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만민에게 선포하리라! 말과 생각이 다른 자, 의혹을 품고 감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나의 뜻을 깨닫고도 실행하기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속셈과 동기를 성찰해야 한다. 자신의 올바른 위치에 서서 내 말을 잘 실행하며, 생명 체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겉으로 열성적으로 행하지 말고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안정되고 원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 뜻에 부합할 것이다.

그 사탄의 종들, 내 건축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악령들에게는 틈탈 기회를 주지 않고 엄하게 제한하고 저지하며 오직 날 선 검으로 상대할 것이다. 심각한 자는 즉시 제거하여 후환을 없앨 것이다. 이로써 교회를 아무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번개가 내리침에 따라 우렛소리가 울린다.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뒤쫓아라. 그러면 반드시 내 손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온전케 하고,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 또 무엇을 칠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이 일체의 모든 것이 너희 앞에 펼쳐져 너희는 나의 전능함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보좌 위에서 온 우주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일곱 우레가 메아리치니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생명의 빛에 따라 사람은 살길을 찾고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전능한 참하나님을 외치고 애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우렛소리를 들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는 그들의 결말에 불과하다. 승리를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반드시 시온에 남을 것이며, 만민은 모두 너희가 장차 얻을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 앞에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는 그야말로 크나큰 복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일곱 우레가 발함은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 자에 대한 구원이다. 나에게 속하는 자,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은 모두 나의 이름 아래로 돌아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땅끝의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의롭고 신실하며, 내가 자비와 긍휼이고 위엄이고 맹렬한 불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자비한 심판임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확실히 완전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도, 마음으로도 탄복할 것이며, 어떤 자도 감히 더 이상 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가는 즉시 저주가 내려지고 그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멸망을 자초할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참하나님임을 만민이 알게 하고, 우주 땅끝의 가가호호, 모든 이가 다 알게 할 것이다. 모두가 연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심지어 이제 막 입을 떼 어린아이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리라! 직위가 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도 자신들 앞에 참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묵도하고는 앞드려 경배하며 사해 달라 빌겠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죽을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심판하여 심연으로 떨어지도록 해 줄 수밖에 없다. 모든 시대를 끝내고, 나의 나라를 더욱 전고히 하며, 만국 만민이 반드시 내 앞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것이다!

제36편

전능하신 참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왕이 되셨도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얼굴을 만국 만민에게로 향하시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다. 온 우주 땅끝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불지어다. 산과 강, 호수, 땅과 바다, 그리고 생존하는 모든 만물이 참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서막을 열었도다. 그들은 소생하였으며 꿈에서 갓 깬 듯 흠을 꿰고 싹을 틔우고 있다!

아! 유일하신 참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도다.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으랴?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진심으로 복종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한다. 만인이 그에게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에게 경배하도다! 온 땅과 바다, 강과 산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 끝없는 찬미를 보내도다! 봄기운을 타고 온 따뜻한 봄바람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시냇물은 많은 사람들처럼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죄스러움과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강과 호수, 파도와 물결이 참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며 찬미하도다! 그 찬미의 소리가 얼마나 청명한가! 사탄이 파괴시킨 옛것은 전부 새로워지고 바뀌며 새로운 경지에 들어설 것이다....

이는 거룩한 나팔이라, 크게 울려 퍼졌도다! 귀를 기울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이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으로, 열국 백성에게 때가 되었고 최후의 종국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도다. 또한 나의 경륜이 끝났고, 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땅에 나타났으며, 세상의 나라가 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도다. 나의 일곱 나팔이 보좌에서 울렸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기묘하랴! 땅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이 밀물처럼, 천둥처럼 엄청난 기세로 사방팔방에서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 여러 종류의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다. 자세히 살피고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색깔의 말을 타고 오는 이들이 활기로 가득하고, 위엄이 넘치며,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 울부짖는 소리와 사람들이 참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는 가운데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이 한순간에 말발굽에 짓밟힌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고, 불구가 되었으나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하늘과 땅을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패역한 자식들아! 이것이 너희의 최후가 아니겠느냐?

기쁘게 나의 백성을 바라보니 내 음성을 들은 자들이 각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여든다. 모든 이가 끊임없이 기뻐 뛰며 참하나님을 찬미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참하나님을 증거하니, 그 소리는 우레 같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이가 나의 나라로 밀려들 것이다.

나의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자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서둘러 일어나면 늦지 않을 것이니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눈을 뜨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보아라.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무엇에 더 연연하는 것이냐? 내 생명을 얻는 것과 네가 사랑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의 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이냐? 더는 마음 내키는 대로 노는 데 정신을 팔지 마라.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느니라! 어서 일어나라. 영을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사탄의 온갖

음모와 간계를 간파하고 무력화하며 또한 사탄 앞에서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생명 체험을 더 심화하고 나의 성품을 살아 내며, 생명이 성숙하고 세련되게 하는 한편, 끝까지 나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 낙담하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끝까지 나아가라!

다시 울려 퍼지는 일곱 나팔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니라. 패역한 자식들과 만국 만민을 심판하여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반드시 만국 만민 앞에 나타날 것이니라. 모두가 진심으로 탄복할 것이며, 참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 영광스럽다. 나의 아들들도 나와 함께 영광을 얻고, 나와 함께 왕이 되어 만국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악인을 징벌하며, 나에게 속하는 자를 구원하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나라가 굳건해지고 안정되게 할 것이다. 일곱 나팔이 울림으로써 많은 이가 구원을 받고, 내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경배하며 끊임없이 나를 칭송할 것이다!

또다시 울려 퍼지는 일곱 나팔 소리는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마귀 사탄을 물리쳤음을 알리는 승리의 소리이며, 하나님나라의 삶이 공개적으로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포 소리이니라! 이 소리는 드높이 울려 퍼진다. 이 소리가 보좌에서 메아리치고 하늘과 땅을 울리니, 이는 내 경륜의 승리를 상징하도다. 또한, 이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 옛 세상이 완전히 사형에 처해 무저갱으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소리이니라! 이 나팔 소리는 은혜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나라의 삶이 땅에서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니, 이는 더없이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로 돌아가면, 땅의 사람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릴 것이고, 하나님의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 잇따라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37편

너희는 내 앞에서 실로 믿음이 부족하고, 늘 자기 자신에 의지해 일을 처리한다. “너희가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나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했건만, 패괴된 너희는 늘 나의 말을 귓전에 스치는 바람으로 여긴다. 오늘날의 삶은 말씀의 삶이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체험도 없으며, 믿음은 더욱이 말할 필요도 없다. 믿음은 말씀 안에 있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생긴다. 생명이 자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늘 조급해하고, 나의 지시를 듣지 않으며, 항상 나의 발걸음을 앞서고 싶어 한다.

이것은 무엇이나? 사람의 야심이다.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너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내 앞에서 열심은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시종일관 충성을 다해 끝까지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너희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눈먼 사람들아! 어째서 늘 내 앞에 와서 구하지 않고 혼자서 헛되이 애쓰는 것이냐?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역사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재하는 유일한 참하나님, 전능자이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늘 너희가 소유한 것을 지켜야 한다. 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말이냐?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던 말이냐?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며 단절하지 못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꺼내어 내게 보여 줄 수 있느냐? 자신을 온전히 내게 바칠 수 있느냐?

내 말을 많이 묵상하여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흐리멍덩하게 굴거나 이리저리 망설여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 나의 순수한 말을 많이 이해하여라. 내 마음을 오해해선 안 된다.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관념이 너무 많다. 늘 대충 넘기면 그만이라고 여기며,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장난치려 한다. 바보 같은 녀석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노는 데에 정신 팔 때가 아니다. 눈을 뜨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보아라. 태양이 곧 지평선 너머에서 떠올라 대지를 환하게 비출 것이니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 대충 건성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큰 일을 너희는 이렇게 가벼이 대하다니! 내 마음은 몹시 조급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선한 권고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임무는 막중한데 나를 위해 이 중임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아직도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예전보다는 얼마간 진보했다지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면 되겠느냐? 나는 아주 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속도로 어떻게 오늘날의 빛을 따라오고 내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더는 망설이지 말라. 나의 날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거듭 강조했었다!

오늘의 빛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것이니, 어제와도 내일과도 비교할 수 없다.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빛은 나날이 강해지고 밝아진다. 더는 멍하니 있지도, 어리석게 굴지도, 옛것을 고집하지도 말라. 내 시간을 계속 지체시키거나 헛되이 낭비해선 안 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게 많이 간구하고 내 앞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반드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38편

네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도, 순수하기 때문도 아니다. 나의 사역이 기묘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나의 공훈이다! 조금이라도 이기적이거나 거만한 패괴 성품을 지녀선 절대 안 된다. 그랬다간 내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깨닫도록 해라. 사람이 넘어지거나 곤세지는 것은 사람 자신이 아닌 내게 달려 있다. 오늘, 이 점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날 이뤄진 것은 전부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때문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한 일 중에 대단한 것이 있느냐? 이기적이고 거만하며 스스로 큰 척하거나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는 짓거리뿐이다. 패괴된 인간들아! 오늘날 반드시 나를 의지해야 한다. 미리 알려 주겠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고 전부 헛수고만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더는 꾸물거리거나 망설이지 말라. 오늘날, 나의 기묘한 사역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내가 쓰는 자들은 전부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내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자는 나도 그에게 내 마음을 전부 열어 주어 분명히 보게 하고, 언제나 내 앞에서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며 짐을 짊어진다면 나는 절대 섭섭하게 대하지 않겠다. 나의 공의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나를 원망하지 말라. 나의 은혜는 너희가 누리기에 충분하니,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너는 그 은혜 속에서 더없는 달콤함을 맛볼 것이고, 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나의 사역은 한 걸음씩 차근차근 진행되지, 절대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다. 나를 따른다면 너희 역시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렇게 내 발걸음을 따라온다면 하나님나라로 인도될 것이다. 다 일제히 환호해라!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사역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지니, 복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측량할 수 없도다! 나는 너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면서 너희에게 나의 기묘한 행사를 보여 주었다!

제39편

눈을 뜨고 살펴보아라. 그러면 곳곳에서 나의 큰 능력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나에게 대해 확신할 수 있다. 온 우주와 공창이 나의 큰 능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온난화, 이상 기후, 사람의 비정상적 작태, 사회 불균형, 간사해지는 인간의 마음 등 모두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응할 것이다. 해가 희게 변하고 달이 붉게 물들며,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바로 사람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 온 유일한 참하나님, 곧 전능자라! 그 누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다. 그가 말씀하면 바로 사실이 임하는데, 어찌 그를 참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 모두가 나와 협력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의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너희는 진입할 줄 모르고, 실제적인 훈련을 할 줄 모르며, 실제적인 일이 임하면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가 먼저 나선다. 너희에게 일러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영원히 내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없다! 아들아! 너는 오직 마음을 내게 완전히 바쳐야 한다.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나는 네가 돈과 물질, 열정과 간사함, 그리고 꾀꾀이를 지닌 채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며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네게 답을 줄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어째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내 말에 의혹을 품는 것이냐? 완고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때조차 그런 식으로 굴다니, 너무도 우매하고 참으로 짝 막혔구나! 너희는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나 기억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을 체험했느냐? 일이 닥치면 정신을 놓고 허둥지둥하며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밖에 모르다니! 오늘 너희는 영 안에 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나와 많이 교제해야 한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자주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알겠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서둘러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내 말을 들은 후 주저 없이 즉시 실행에 옮기는 자는 반드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곱절로 베풀어 주리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1초라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너희 인간들의 생각은 언제나 그러하다. 항상 질질 끌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려고 한다. 참으로 게으르며,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둔하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며 자신의 상태에 비춰 보아라. 그러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제40편

어째서 그렇게 둔한 것이냐? 어째서 그렇게 무감각한 것이냐? 몇 번이나 일깨워 주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니 실로 괴롭구나. 내 아들이 이 모양인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 내가 어찌 안타깝지 않겠느냐? 예휴! 내가 하나하나 친히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다. 내 발걸음은 계속 빨라지고 있다. 나의 아들이! 어서 일어나 나와 협력하여라. 오늘날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느냐? 어느 누가 조금의 불평도 없이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 너희는 언제나 그렇게 무감각하고 우둔하구나! 너희 중에 또 몇이나 내 마음을 생각하겠느냐? 또 누가 진실로 내 말 속의 영을 느낄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나의 아들이! 오늘날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늘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인 나를 마음 졸이게 하는 것이냐? 언제쯤이면 성장하여 내가 걱정하지 않고 너에 대해 마음 놓을 수 있게 해 주겠느냐? 언제쯤이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어나 아버지가 어깨에 짊어진 짐을 털어 주겠느냐? 나는 조용히 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바칠 뿐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나의 약속이 이루어져 너희 눈앞에 나타났거늘,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냐? 무엇 때문이냐? 지금까지 내 마음을 만족케 한 일을 몇 가지나 했는지, 교회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양육하는 일을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 본 적이 있느냐?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이 되새겨 보아라. 모든 실제 상황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 중요시하고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의 심판을 거쳤는지, 변화된 새사람의 모습, 즉 모방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는지 시시각각 살펴야 한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면 생명 성장이 지체되지 않게 해라. 한시바삐 이러한 상황을 돌려놓고 내 마음을 만족케 하며, 일처리의 원칙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즉, 일을 처리할 때는 공의롭고 정직하며 나의 마음을 만족케 해야 하는 것이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명심했느냐?

제41편

교회에 생긴 문제에 대해 항상 그렇게 근심하지 마라. 교회 건축 과정에서는 착오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내 앞에서 많이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나타낼 것이다. 교회는 내 심장이자 궁극의 목적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일어나서 나를 위해 말해라. 만사 만물에는 모두 보좌의 허락이 있고, 거기에 내 뜻이 있음을 믿어라. 제멋대로 교제를 나누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는 그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사탄이 빈틈을 파고든다. 늘 내 앞에 오너라. 솔직히 말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내 앞에 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나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손쉽게 복을 얻고 싶은 것이구나. 그렇지 않느냐?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강렬해지지 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상황이라도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다. 시련은 곧 나의 축복이다. 자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축복을 간구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어리석은 아이들아! 언제나 좋은 말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나의 즐거움에도 분명 동참할 것이다. 이는 내 약속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누려라. 어둠이 지나면 곧바로 광명이다. 동트기 전의 하늘이 가장 어두운 법, 이 순간만 지나면 점차 밝아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위해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내 아들을 위해 권세를 잡는다.

교회의 일에 대해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라. 진심으로 내 앞으로 가져오면 길이 있다. 작은 일 좀 생겼다고 무서워하고 당황하며 난처해하느냐? 나는 “늘 나를 가까이하라!”라고 여러 번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시킨 일을 너희는 착실하게 실행했느냐? 내 말을 꼼꼼이 생각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깨달음이 없다. 이는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겠느냐?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냐? 일을 망쳐 놓고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대강 넘어가려 하는구나. 내 말을 중시해야 한다.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굳게 서서 나를 증거하고 진리를 견지하며,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옳고 그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탄과는 싸워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물리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나에 대한 증거는 모든 것을 내걸고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일을 하는 근본 취지이니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늘 알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모두 나의 순서가 있다. 조급해하면 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라. 육적인 먹고 입는 것은 중시하지 말고, 늘 내 뜻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뜻을 보여 줄 것이고, 너는 점차 모든 일에서 내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가로막힘 없이 행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흡족해진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제42편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크도다! 기묘하도다! 놀랍도다! 일곱 나팔이 울리고 일곱 우레가 치며 일곱 대접이 쏟아질 것이니, 의심할 여지 없이 곧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복을 얻거나 화를 입는 것이 전부 그에게 달려 있으니 우리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정하지 못한다. 온 마음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큰 복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보전코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만사와 만물이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더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 천지가 크게 변하면 사람은 숨을 수 없다. 그저 비통에 차서 슬피 울 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성령 사역을 따르라.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각자가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아야지, 더는 다른 사람이 일깨워 줄 필요가 없다. 이제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그에게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그는 분명 너에게 계시해 줄 것이고, 결정적인 때에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이미 너의 온 몸과 마음을 점유했다. 그의 보호와 보살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는 자는 손해를 볼 것이다. 네게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한다. 하늘이 일시에 변한다 한들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가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천지가 바로 파괴될 것인데, 사람이 걱정할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느냐? 그가 천지가 변하라고 하면 변하고 우리에게 온전케 되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케 된다. 그러니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이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늘 깨어 있도록 하여라. 하늘이 일순간에 변할 수 있다! 육적인 눈은 아무리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어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공사가 준공되며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이 완전히 보좌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국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사람은 중형을 받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고 모든 것을 지켜 온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제43편

내가 일깨워 주지 않았더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거늘 듣지를 않는구나. 데면데면한 사람아! 언제쯤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날마다 새로운 깨우침이 있고 매일 새로운 빛이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몇 번이나 되느냐? 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알려 준 것이 아니더냐? 계속 그렇게 피동적이구나. 버리지처럼 건드려야 꿈틀댈 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거나 내 부담을 생각하지는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의 그 활발하고 귀여운 웃는 얼굴과 내 아들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어리숙하고 둔할 뿐이다. 너희는 자발적으로 찾고 구해야 한다. 대담하게 추구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주하게 해라. 신중해라! 경계해라! 교회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시시각각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생명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담하고 용감하게 나를 위해 일어나 말해라. 안심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에게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내 마음을 만족게 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너에게 웃는 얼굴과 내 뜻을 보여 줄 것이다. 굳세고 패기 있으며 남자아이의 성품으로 살면 내가 너를 지지해 주고 중용할 것이다. 내 앞에 와서 오로지 나를 가까이하라.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구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는 네게 말해 줄 것이다. 나는 화려한 미사여구도, 너의 아침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무엇보다 혐오한다. 또한 나는 그런 사람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며 누구보다 싫어하니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나를 위해 권력을 잡지 못하고 너무 큰 통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겠느냐? 내 아들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내 아들이 핍박과 괴롭힘, 냉대와 모욕을 당하는 날은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대담하게 행동해라. 내가 시시각각 너와 동행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말하며 함께 행동할 테니 겁내지 말고 대담하게 말해라. 너희는 늘 감정적이고 소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교회 건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부모는 물론 교회에서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도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앨 것이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해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감찰하고, 자신의 이해득실과 명리,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언제나 너를 지도하고 명확한 길을 가리켜 줄 것이다.

아들아!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구나. 무엇을 겁내는 것이냐? 어쩌서 아직도 율법의 속박이나 규례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는데도 너희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없구나. 어떻게 된 일이냐? 나와 많이 교제하면 내가 알려 줄 것이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나는 실제이다.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실제이다! 나는 말한 대로 하지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

제44편

나는 공의롭고, 신실하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내가 곧 드러낼 것이다. 당황하지 말라. 모든 것에는 다 나의 때가 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하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앞에서 나를 가까이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나의 일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속히 일을 이루려 하지 말라. 나의 사역은 단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는 나의 절차와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손이 하는 일, 즉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 역시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내 진노가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다. 이로써 내가 바로 참하나님,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길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라.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낱알이 보고 있다. 너는 사람을 속여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가 전부 꿰뚫어 보고 있는데도, 나를 속이려 들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너 자신이 총명하다고, 이해타산에 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알려 주겠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에는 내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사와 만물은 다 내 손안에 있거늘, 사람 하나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피하지도 숨지도 말고, 속이거나 감추지도 말라. 내 영광의 얼굴과 진노, 심판이 공개되고 드러났건만,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냐?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나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즉시 심판할 것이다. 나의 공훈은 한계에 도달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 더 이상 외식하지도, 함부로 날뛰 생각도 하지 말라.

나의 아들아, 유의해라. 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테니 겁내지

말라. 나의 그 좌우에 날 선 검을 들고 내 뜻에 따라 사탄과 끝까지 싸워라.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모든 숨겨진 것들이 공개되고 드러날 것이다. 나는 빛을 발하는 태양이니 인정사정없이 모든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출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미 완전히 임했으며, 교회는 바로 전장이다. 너희 모두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지켜 주겠다.

조심해라. 현재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간사해서 미덥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완전히 너희를 위할 수 있다. 내게는 간사함이 없으니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 아들은 최후의 결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사탄이 나타나 마지막 발악을 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고, 너의 전부이다. 이것저것 재지 말라. 그럴 시간이 없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기에 너희의 귀를 잡고 일깨워 줄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전투 준비에만 신경 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혈투이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영원히 패배를 모르는 승자이다. 반면,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절차이자 나의 사역, 나의 뜻, 나의 계획이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겁먹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 내가 한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일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깨어 있어라! 내가 한 모든 말을 깊이 되새기며, 더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45편

공개적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니 참으로 사리 분별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는 간덩이가 부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하나 모두 어리석고 마음이 무겁다. 큰 짐, 작은 짐을 그리도 많이 짊어지었건만, 네 마음속에 내 자리는 조금도 없다. 눈먼 자여! 참으로 잔인하구나. 대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거듭 내 마음속 말을 하고 내 모든 것을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너무도 인색하고 인간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구나.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하여 자신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네 안에 내 자리를 조금도 내어 주지 않는 것이냐? 설마 내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나의 날이 머지않았으니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다투거나 소란 피우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날이 도래할 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대로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명심해라! 그 어떠한 사람도, 일도, 사물도 나의 발길을 막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 없이는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지 말라. 네게 알려 주마. 네가 이렇게 네 생명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네 자신의 목숨만 잃게 될 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일정한 단계까지 진행되어 증거가 절정에 달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어서 너의 그 몽롱한 눈을 뜨거라. 내가 기울인 심혈이 헛되지 않게 해라. 더는 네 자신과 타협하지 말라. 너희는 내 앞에서 좋은 일을 즐겨 한다. 그러나 내가 없을 때도 너희의 행위를 내 앞에 가져와 감찰받을 수 있겠느냐?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내가 한 말은 듣지 않고 내 앞과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다니, 내가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참으로 어리석다!

앞으로는 나아가는 도중에 절대로 수작을 부리거나 교활하고 간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무엇이 교활하고 간사한 짓인지 너희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 감찰받을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은 모두 교활하고 간사한 짓이다. 이제 알겠느냐? 더 이상 교활하고 간사한 짓을 행해 놓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니 훨씬 더 심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는 오직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심한 자는 자신을 망치고 말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너희에게 임한 것은 사랑의 채찍질이지, 결코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가련하고 그야말로 구제 불능이다. 사랑의 채찍질을 원치 않는다면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무자비한 심판뿐일 것이다. 그때가 되어 왜 진작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말라.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은 너희가 자초한 결과다. 훗날 나를 원망하는 자가 없도록 지금 분명하게 말해 두겠다.

제46편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바친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길 끝까지 지켜 줄 것이다. 또한 네가 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도록 나의 손으로 받쳐 줄 것이며, 날마다 나의 빛과 계시를 더해 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네게 갑절로 축복을 내려 네가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갖게 해주겠다. 내가 네 안에 더해 준 것은 너의 생명이 되었으므로 어떤 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혼자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며 답답해하지 말라. 내 안에 있으면 오직 평안과 기쁨뿐이다.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다면 나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반면, 나는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증오하니 반드시 그들을 쳐낼 것이다. 나는 내 집에서 세상적인 냄새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지 않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가장하고 포장해도 소용없다. 세상 최고의 연기자라고 해도 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꿰뚫어 볼 수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마음속이 어떠한지도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헌신하길 원한다. 하지만 감언이설로 사람의 환심을 사기는 싫은 것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의 하나님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지혜와 심혈로 세워진 것이다. 내면에 지혜와 나의 어떠한을 갖고 있는 자라면 내 나라의 건축에 동참한 자이다. 더는 걱정하지 말라. 늘 혼자 근심에 싸여 나의 계시와 빛 비춤을 무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무슨 일이 있거든 자승자박하지 않도록 나와 많이 교제해라.

겉보기에는 내가 누구에게나 미온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늘 높여 주고, 스스로 크다 하며 높이는 자들은 늘 밟아 버린다. 내 뜻을 모르는 자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는 나의 어떠한이자 성품이므로 누구도 바꿔 놓거나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깨우쳐 주어야만 너는 깨달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꿰뚫어 볼 수 없으니 오만하게 굴지 말라. 어떤 이는 입으로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늘 내게 불충한 마음을 품고는 암암리에 내게 맞서곤 하는데, 그런 자를 나는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나의 행한 것과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씩 내 뜻을 알게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뜻에 부합하고, 어떤 실수도 없을 것이다. 혼자 눈물 흘리거나 슬퍼하지 말라. 네 모든 행동과 생각을 나는 전부 꿰뚫고 있으며, 네가 진실로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이냐? 아직 느끼지 못한 것이냐? 어째서 내가 네게 그런 태도를 취하였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네게 계시해 주었고, 너 또한 얼마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진입해라. 그러면 내가 계속 너에게 계시해 줄 것이다. 순종하고 말을 잘 들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더 많은 계시를 받으며, 나에 대해서도 인식이 깊어지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느냐? 언제나 자신의 관념을 끌어안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 생수의 흐름을

가로막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을 완전히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단순한 마음으로 따르고 더는 염려하지 말라!

제47편

공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께는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전혀 없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밝히지 못한 모든 비밀을 당신께서 밝히 드러내시니, 더 이상 찾을 필요도 모색할 필요도 없나이다. 이는 오늘날 당신의 본체가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나이다. 당신이 바로 그 밝혀진 비밀이고, 실제의 하나님 자신이나이다. 오늘날 당신이 저희와 얼굴을 마주하였으니 저희는 당신의 본체를 보았나이다. 곧, 영계의 모든 비밀을 보았나이다.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나이다! 당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더욱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당신과 실로 가까이 있으니 뭐라 형용할 수 없이 지극히 오묘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의 경륜을 완성했다. 그는 우주의 이긴 큰 왕이다. 만사 만물이 그의 손안에 있다. 만인이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참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만사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이렇게 해이한 것이냐? 왜 진심으로 그와 협력하지도,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도,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냐? 설마 고통을 받고 싶은 것이냐? 버림받고 싶은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바치고 헌신하는지,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느냐? 우매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나의 뜻을 찾지도, 내 부담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늘 내 속을 썩이는구나! 언제까지 이럴 셈이냐?

어디에서나 나를 살아 내고 어디에서나 나를 증거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겠느냐? 사리 분별도 못하는구나! 너희의 일 처리에서 나를 찾아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더더욱 나를 찾아볼 수 없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가 어찌 그런 열매를 맺었겠느냐? 계속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너희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네가 말할 때 나의 함께함이 있더냐? 네가 밥을 먹고 옷을 입을 때, 나의 약속이 있더냐? 정말로 세심하지 못하구나! 조금이라도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복하는 본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가 괜찮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 전부 사탄의 추악한

몰골임을 왜 모른단 말이나? 나와 협력하여 그것들을 전부 털어 내고, 나의 어떠한 소유가 너를 온전히 점유하게 해라. 그래야만 나를 살아 낼 수 있고, 더 실제적으로 나를 증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너희로 말미암아 내 보좌 앞에 돌아와 복종할 수 있다. 너희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며 증거하여 만인이 구원받게 하고, 나의 나라를 흔들림 없이 견고케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오늘날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할까 봐 전부 확실히 짊어 주었다.

어떤 일을 마주하면 뜨거운 가마 속의 개미처럼 갈팡질팡하며 허둥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성품이다. 너희는 외관상으로는 성년 같지만, 내면의 생명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저 일을 저지르고 내게 부담만 더해 줄 뿐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너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지 말라. 내 말은 모두 참되다. 내가 늘 너희를 훈계한다고 여기지 말라. 내 말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겠지만, 너희의 실제 상태가 이리하다.

제48편

나의 마음은 급하지만 너희 중에 나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내 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금도 신경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는다. 내 심혈을 폐품 취급 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 우매하고 무지하며 이성이 없는 자는 전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조금도 내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한다. 나는 오롯이 너희를 위하는데, 너희는 나를 얼마나 위하느냐? 내 마음을 오해하니 그야말로 눈이 멀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꼴이다. 계속 너희를 걱정하게 만들고 너희를 위해 시간을 쏟게 만드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응당 자신에게 많이 물어봐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녕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고 있느냐? 정말 알고 있다면 진작에 내 마음을 느끼고, 내 부담을 생각했을 것이다. 더 이상은 건성으로 넘기지 말라. 그랬다간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영은 죽음을 맞아 음부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이 아니냐? 내가 다시금 일깨워 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내게 너무 많이 빚진 것이냐? 옳고 그름을 혼동하지 말고 사리 분별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권을 다투고 암투를 벌일 때가 아니다. 생명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은 속히 내려놓고 실제에 진입해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으니 참으로 경솔하구나!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을 생각하지 못한다. 사실 내가 말하는 많은 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어리석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또 한번 말해 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내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하나 세어 보아라. 진정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제49편

서로 협력하며 섬길 때는 반드시 정확하고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한다. 또한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여 이를 본 자들이 공급을 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섬기는 것도 내 뜻에 맞게 섬겨야 한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충족시켜 나에게 온전케 된 부분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워야 한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활 속에 나의 말이 가득하고 말 속에 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겠느냐? 내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진심으로 내 뜻을 살피는 자이냐? 진정으로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냐? 진정으로 나를 위해 바치고 헌신하는 자이냐? 내가 한 말을 모두 되새겨 보았느냐?

모든 면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나의 완전한 도를 행해야 한다. 내 말 안에서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내 말에 따라 행하는 자가 가장 잘 순종하는 자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다. 네가 변명하거나 나와 이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너를 생각해서 한 말(엄하든 부드러든)이니 너는 오로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오늘날 내 집에서,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고 뒤에서는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제이지 대단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실체가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존재하며 실체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육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실체가 아니면 텅 빈 것이며, 그 외는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모두 참답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하지 말고 오로지 참도에서 굳게 서길 바란다. 아무에게도 속박받거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의 기둥이요 하나님나라의 이긴 자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서 살 자격이 없다.

상황에 따라 나를 가까이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자는 내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경건한 일을 곧잘 하지만 뒤에서는 온통 엉망진창인데, 어디에서도 나의 말을 찾아볼 수 없으니 참으로 역겹고 혐오스럽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급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나와 자주 가까이하며 교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염려하고 너희를 위해 애쓰는 것이다.

제50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행위 중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나라 건축에 자기 몫을 다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도, 시간을 쏟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먹고 마시며 노는 향락에만 시간을 쏟아붓는다. 여럿이 모이면 희희낙락거리기만 할 뿐 생명에 관련된 영적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도 중요시하지 않는다. 경박함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대화는 내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하지만 너희는 너무 그릇되어 내가 수차례 일러 주었음에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명백하게 짚어 준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에도 이런 말로 일렀거늘 너희들은 아직도 수공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너희를 오해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렇지 않으냐?

나를 진성으로 대하는 자는 버려질 것이다. 다시 한번 진성으로 대해 보거라! 다시 한번 소홀히 대해 보거라! 나의 말은 조각칼이니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그 칼로 깎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의 체면을 생각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조각하는 것은 나의 뜻에 맞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니 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 마땅히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주 작은 헤아림이라도 있다면 나는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소홀히 하지 말라. 나의 뜻이 언제나 너에게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이 놓인 위치가 다른 만큼 너희 각자의 역할도 다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모든 능력을 바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기꺼이 충성을 다해야 하며 절대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심판이 언제나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너희의 육과 영과 혼이 감당치 못할 것이며, 또한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제51편

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당신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밝게 하시니,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나이다. 당신은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당신이 왕권을 잡으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으니 너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원히 드러났나이다! 나는 진정 완전히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강림했으며, 공의로운 해로 나타났다. 지금은 더 이상 새벽별이 나타나는 시대도, 은밀한 단계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은 변쩍이는 번개와 같고, 전광석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내 사역이 이미 이 단계에 이르렀으니 꾸물거리는 자가 있다면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네가 상상하는 공홀과 자비가 아니라 위엄과 심판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여전히 두리뭉실하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깨닫지 못한다면 직접 맛보게 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의혹을 품으며 진담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맡긴 일들을 너희는 충성을 다해 완성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무슨 일이든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내 당부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재고하면서 한 일은 몇 건이나 되느냐? 설사 내 당부에서 한 마디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할 때는 열심히 듣지만 그 후에는 스치는 바람으로 치부한다. 그 당시에는 듣고 자신의 실제 상태에 대조하며 스스로를 증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로 여기곤 한다. 오늘날은 외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네 생명 성장이 더 중요하다. 너희는 모두 의지가 없으며, 결심을 하려고도 대가를 치르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땅에 속한 짧은 즐거움을 버리려 하지 않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복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들이다! 억울하다고 여기지 말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냐? 네 마음속 생각을 짚어 내지 않았느냐? 인간성도 없구나! 정상적인 사람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자신이 궁핍하다는 것도 모르며 온종일 안일에 빠져 잘난 척하다니! 자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니, 어리석구나!

내 사역이 이미 이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보지 못했느냐? 나는 내 마음을 전부 너희에게 쏟았거늘, 너희는 언제면 그것을 느끼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태하구나! 대가를 치르려고도, 노력을 기울이려고도,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다니! 알려 주마! 고난을 두려워할수록 생명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생명 성장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앞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임)! 자신의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자를 나는 냉담한 태도로 대하고 포기할 것이다. 나는 이미 이대로 실행하였거늘, 너는 아직

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거래도, 장사도 아닌 생명의 문제다. 알겠느냐?

제52편

나는 공의로운 해로 나타났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을 얻고 세세토록 복을 누릴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로, 이미 너희에게서 응하기 시작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모두 너희에게 이루어 주며, 나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사실이어서 절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임한 이 아름다운 복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나를 섬겨 얻은 결과이다. 너희는 종교 관념을 벗어 버리고, 나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 나는 너희와 농담을 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두말하지 않으니, 내가 베풀어 주는 자는 얻을 것이고, 내가 베풀어 주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정해 놓은 일이다. 세상의 복이 별것이냐? 내가 보기에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분토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땅에 속한 즐거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과거에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나를 의심하며 선불리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일이 드러났고, 내가 공의로운 해로 나타났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나? 어둠이 땅을 덮었을 때, 너희가 빛을 보지 못한 것은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모든 음지를 밝게 비추고 있어 더는 가려지거나 숨겨진 것들이 없는데도 너희가 계속 의심한다면 나는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나를 100% 확신할 때이며, 기꺼이 나를 위해 바치고 헌신할 때이다. 만약 누군가 내게 추호라도 대항한다면 심판의 불이 즉시 그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일분일초도 틈 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무자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니, 옳지 못한 생각을 갖기만 해도 즉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는 말의 참뜻이다.

내 사역은 몹시도 빨라 사람을 놀라게 하고 겁먹게 한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는 것도,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의 사역은 앞으로 갈수록 더 빨리 진행되므로 깨어 예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버림받을 위협에 처할 것이다. 더는 시험하려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나의 사역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어 이방과 우주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심판의 불은 무자비하여 누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일지라도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거나 조금이라도 반발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빛이 임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살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마지막까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살며, 그들은 심판을 받은 후에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죄를 인정하는 그들의 태도에 달렸다.

나의 날이 이미 도래했고, 지난날 말하던 ‘나의 날’이 눈앞에 이르렀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임했으며, 나와 너, 너와 나는 이미 공중에서 만나 함께 영광을 얻었다. 나의 날이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임한 것이다!

제53편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한 자이자 완전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향해 음성을 발하니, 너희는 반드시 나의 말을 진실로 믿어야 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여라! 명심하여라! 나의 말은 여태껏 한 번도 번복한 적 없다. 나의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속히 실제에 진입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내 아들을 이끌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이 곧 실현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어서 일어나 나를 따르거라!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한 번 놓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어둠이 지나가면 광명이 올 것이다. 들림 받는 것이 눈앞에 있다. 알겠느냐? 너희는 눈을 떠라! 어서 깨어나라! 이제 너희는 교제할 때 쓸데없는 말이나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주로 너의 실제 체험을 얘기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빛 비춤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교제하며 형제자매에게 공급해라. 이러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분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움을 모른 채 내가 뭐라 말하든, 얼마나 조급해하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옛 자아를 조금도 터치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누가 곤경에 빠지는 사람이 될지 보거라! 늘 세상에 연연하고 재물을 탐하며, 자녀와 남편을 생각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라! 머지않은 미래에 너희는 모두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심판뿐일 것이다.

제54편

각 교회의 상황에 대해 나는 손바닥 보듯 흰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말라. 교회 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흰히 알고 있다. 지금 나의 절박한 마음은 너를 훈련시키려는 것이다. 네가 하루빨리 성장하여 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지혜가 충만하며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내가 친히 하나하나 가르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뜻을 찾고 일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면 그 어떠한 일에 맞닥뜨려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훈련 과정에서 처음에는 찾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항상 속을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리고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말에는 때로는 불순종이나 장난기 때로는 사람의 관념과 질투심 등이 담겨 있다. 요컨대 너희들은 진중함이 없고 생명에 공급을 주지 못하며 상대방의 상태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저 제멋대로 교제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은 혼탁하여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간사한 것인지 모른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교활함과 간사함을 지혜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나에 대한 모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추구해 본 적이 있느냐? 잘 듣거라. 나의 뜻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자 목표다. 이것이 아닌 길은 모두 헛된 것이다. 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자는 추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자 버려지고 도태될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공과는 바로 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는 급선무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내가 하나하나 짚어 줄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지 말라! 언제나 무디고 흐리멍덩하다니. 우스운 꼴이로구나! 이토록 어리석다니! 어찌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냐! 자신에게 물어보거라. 과연 나의 뜻을 찾아 행동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이제는 스스로 훈련에 임할 때이니라!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직접 가르칠 수는 없느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겪어 나가는 법을 배우며 식견과 지혜를 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너희들은 번지르르한 말을 내놓지만 실상은 어떠하냐? 일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바가 없다. 너희들의 행위가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잊지 말라! 앞으로는 나의 뜻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제55편

정상적인 인성이란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나 일, 사물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환경의 압박을 극복하며, 어떠한 장소나 환경에서도 나를 가까이하며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종종 내 뜻을 잘못 이해하는데, 내가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단속하고 자신의 욕을 통제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세심하게 찾기보다는 외형적인 차림새에 신경을 쓰며 나의 계시와 감동을 소홀히 하니 참으로 경솔하고 또 경솔하구나! 설마 내가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대업을 이루었다는 것이냐? 우매하구나! 깊이 뿌리내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말이다! “나뭇잎이 되지 말고 나무의 뿌리가 되라”라는 말은 진정 너의 좌우명이 되었느냐? 대충대충 하고 세심하지 못하구나!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해하다니,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신중하게 대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라! 섬기는 가운데 나와 자주 가까이하고 교제를 나누어라. 이것이 너의 유일한 살길이다. 나는 네가 이미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깨닫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와 협력하고, 내 뜻을 알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부담을 가장 잘 생각하는 것이요, 최고의 순종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에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온 땅에서도 내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과도 관계되는 일이다! 너는 전혀 무섭지 않느냐? 자신이 한 행동에 두렵고 떨리지 않느냐? 성도들 가운데 내 뜻을 찾을 줄 아는 자는 몇 안 된다. 너는 전례를 깨뜨리고 온전하게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고 싶지 않느냐? 알고 있느냐? 내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의 절실한 마음이다. 너는 그중의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바치고 싶지 않느냐? 조금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고 전혀 심혈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의 심혈이 너희에게서 헛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어도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겠느냐?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했거늘, 말해 보아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그렇게 주저하며 가정 상황을 걱정하고 외부 환경을 두려워하니 옳고 그름을 모르는구나! 나는 정직하고 단순하며 열려 있는 자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쓰면 너도 기뻐하고 기꺼이 원할 텐데 어찌하여 아직도 걱정하고 있느냐? 내 말이 너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내가 너를 쓴다고 했는데도

너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혹만 품으며 내가 너를 버릴까 두려워하니 참으로 관념이 많구나! 내가 너를 쓴다고 하면 쓰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늘 의심하느냐? 내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고 거짓은 한 마디도 없다. 아들아! 나를 믿어라. 마음을 다해 나를 위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진심으로 위할 것이다!

제56편

나는 이미 일을 시작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집권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내게 맞서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행정 법령의 손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다. 명심해라! 이것이 바로 내 심판의 시작이다. 누구도 봐주거나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인간적 감정이 없이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나는 함부로 사람을 징벌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의를 실행한다. 나의 아들이라면 나는 반드시 사랑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라면 나는 반드시 증오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일 처리 원칙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행정 법령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내 앞에서 너무 조심성이 없으며, 내가 무엇을 온전케 하고 무엇을 만들려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내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모를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누구든 마음으로 맞서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 내가 택한 자가 그릇된 생각을 품는다면 즉시 징계가 임할 것이다.
3.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한쪽으로 제쳐 두어 마음대로 지껄이고 행동하게 두었다가 마지막에 철저히 징벌하고 응징할 것이다.
4. 나를 믿는 자들은 시시각각 돌보고 보호하며 구원의 방식으로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 사랑이 함께하므로 절대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설령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이며, 나는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대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가장 가련한 자들이다. 나는 일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보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고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6.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받아들인 장자들은 복이 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내려 마음껏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내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전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중 나를 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입으로 말한 것을 모두 성찰한 적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 어리석구나! 성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방종하다니! 내가 너에게 거듭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건만, 너는 조금의 반응도 없다. 계속 그렇게 둔해선 안 된다! 내 뜻을 찾는 것은 너의 본분이자 내가 마땅히 진입해야 할 길이다. 흐리멍덩하고 식견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이루려는지, 무엇을 얻으려는지 보지 못하다니! 내 뜻을 찾으려면 먼저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많이 교제해야 한다. 온종일 찾지 못하겠다는 말만 한다. 자신에게 속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역사하겠느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앞에 오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 별레 같다고 말하면 억울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제는 일어나 나와 협력해라! 소극적인 상태로 있지 말아라! 그래서 너 자신의 생명을 그르칠 뿐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나? 나의 뜻을 늘 내게 나타내고 있었건만, 알아채지 못했던 말이나? 왜 계속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냐? 왜 계속 내 뜻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냐? 나의 뜻을 찾는 것이 네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나?

나는 네가 모든 면에서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내가 너에게서 행할 길이 있고, 안식처가 있게 하기를 바란다. 더는 나를 가로막지 말라. 그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다! 내가 하는 말에 조금의 인식도, 반응도 없구나.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보아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 발걸음을 바짝 따라오지 않는다면 늦을 것이고, 더군다나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

제57편

너는 너의 모든 마음속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성찰해 본 적이 있느냐? 내 뜻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분별력이 조금도 없구나! 어째서 내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이냐?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너는 알아야 한다! 세심하지 못한 사람은 내 뜻을 알 수 없고, 큰 빛과 계시를 얻을 수 없다.

교회가 목양받지 못하고, 진실한 교제가 부족하다. 너는 그 이유를 찾았느냐? 너로 인한 이유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아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나의 음성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완수했느냐? 형제자매들의 생명 성장을 지체했는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일을 만났을 때, 냉철하거나 침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다니 정말 식견이 부족하구나! 나의 음성은 마땅히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 성령 역사를 억제해서는 안 되며, 나의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 나는 네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바치고, 모든 생각은 나를 위하고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하기를 바란다. 또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나라와 나의 경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그래야 내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증거가 있는데, 너는 어째서 본받지 않느냐? 일을 할 때 어째서 그 증거를 찾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더 설명해 주길 바라느냐? 나는 직접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너는 여전히 배우지 못하는구나. 정말 아둔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냐? 낙담하지 말고 다시 떨쳐 일어나야 한다. 성도들의 공통된 염원과 바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쳐라. 내 뜻은 여전하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

무엇을 하든 두서가 있어야지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의 상태를 네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네가 지혜가 없다는 뜻이고, 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네가 모든 시간을 여기에 쓸 수 있다면, 네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주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객관적인 이유만 찾으려고 하니, 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슬프게 하는구나! 더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소자, 당신께 송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으며, 당신이 당부하신 것에 충성하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소자가 늦게나마 뉘우치고 있으니, 소자를 버리지 마시고 소자에게 계속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자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항상 소자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자도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신의 부담을 생각할 줄 모르고, 당신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나아가 어떻게 교회를 양육해야 하는지도 모르나이다. 당신은 소자가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 소자에게 언제나 가르침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제야 저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 알겠나이다.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사옵나이다. 소자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니, 언제나 소자를 붙잡아 주시고, 소자가 당신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더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없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당신을 위하고, 전적으로 오늘날의 당신의 나라를 위하는 소자의 마음을

당신은 알고 계시나이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감찰하시오니, 언제나 소자와 동행하옵시고, 소자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소자가 하는 모든 일에 당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구하옵나이다.

제58편

나의 뜻을 알면 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고, 빛과 계시를 얻을 수 있으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흡족하고, 나의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나의 나라가 땅에서 견고하고 안정될 것이다. 현재 핵심은 내 뜻을 찾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진입해야 할 길이자, 모든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나의 말은 좋은 약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내 앞에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나의 전능과 기묘한 행사, 공의와 위엄, 나아가 너희 자신의 패괴와 연약함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너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전부 알고 있다. 늘 마음속으로 일을 꾸미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구나. 너의 모든 행위는 내가 더욱 분명히 알고 있다. 너는 어떤 것이 나의 칭찬을 받고, 어떤 것이 나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확실히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충 건성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부담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무지몽매하다. 이는 사람이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입으로는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실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는 모두 알고 있다. 핵심은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59편

네가 처한 환경에서 나의 뜻을 많이 구하면 너는 반드시 나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네가 구하며 나에게 경외심을 품고 있으면 나는 네게 부족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 현재 교회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고,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으므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미리 맛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흐리멍덩하거나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너희에게 모든 것에서 실제에 진입하라고 요구하겠느냐? 너는 진정으로 체험했느냐? 너희는 정녕 내가 너희의 바람을 들어준 것처럼 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간사하게 굴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누차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사리 구분을 못하고 나의 호의를 모르는구나!

나의 공의와 위엄, 나의 심판, 나의 사랑 등 나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을 너는 진정 맛보았느냐? 너희는 세심하지 못하고 내 뜻을 살피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차려 놓은 잔치 음식을 직접 맛보라고 거듭 말했지만, 너희는 누차 그것을 뒤집어엎는다. 너희는 어떤 환경이 좋고 어떤 환경이 나쁜지 구분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 너희 스스로 초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마련한 것이냐? 너 스스로를 위해 변호하지 말라! 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단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나는 나의 뜻을 살피는 자를 늘 위로하고 어떤 고통과 피해도 받지 않게 한다. 현재 핵심은 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진정 나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자 누구냐? 모두가 이리저리 망설이고, 이모저모 따져보며, 가정과 바깥 환경, 먹고 입는 것 등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내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나, 네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처자식과 부모를 생각한다. 설마 그러한 것들이 다 너의 유업이란 말이나? 어째서 그러한 것들을 내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나? 아니면 내가 네게 마련해 준 것이 적절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냐? 어째서 줄곧 육체의 가정을 마음에 두고 가족을 걱정하느냐? 네 마음에 내가 있긴 한 것이냐? 그러고도 내가 네 안에서 주권을 잡고, 너의 온 몸과 마음을 점유하게 하겠다고 말하니, 전부 사람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자 몇이나 되느냐? 또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나라를 위하는 자 누가 있더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나를 이 정도로 몰아붙였으니, 이제 나는 손으로 너희를 쳐서 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너희를 어르고 달래서 가게 하지 않겠다.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기에 사람에게 따라 취하는 수단도 달라진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가 감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막겠느냐? 누가 감히 내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내 행정 법령의 손으로 그를 다스릴 것이고, 이로써 그에게 나의 전능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를 원하는 것이다. 충성심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며 교활하고 간사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버리고 벌할 것이다. 더 이상은 나를 공홀과 자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다 너 자신과 타협하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관용을 보일수록 네가 점점 더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변하며,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너무도 다루기 힘들기에 언제나 매를 들고 잡아끌어야 한다.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지, 더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다!

제60편

생명이 자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너희가 대가를 치르고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천지 만물이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지어졌으니,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빨리 자라 나를 위해 내 어깨 위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수고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만족을 얻는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짐을 지지 않고, 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말 안에서 행하지 않는구나. 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 이기적이기 짝이 없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너는 참으로 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냐? 어째서 계속 제멋대로 구느냐? 양심적으로, 이러면 나를 볼 면목이 있느냐? 병의 원인을 찾아낸 후 왜 나를 찾아와 교제하며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냐?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 너희가 다시는 육체의 병을 얻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불편한 곳이 있다면 절대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앞으로 와 내 뜻을 구하여라. 기억하겠느냐? 내가 허락하노니, 너희는 이후에 완전히 육체에서 나와 영계로 들어갈 것이다. 즉, 다시는 그 어떤 질병도 너희의 육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기쁘냐? 즐거우냐? 이는 나의 약속이요, 너희가 더없이 바라던 것이다. 오늘날 복받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신묘막측하다!

나의 사역은 밤낮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분일초도 멈추지 않는다. 너를 내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너희에게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절실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을 누릴 시기가 왔다! 과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갖은 고난을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시련을 받는 날들은 지나갔다. 누가 또다시 내 아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자를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또한 나의 행정 법령이니,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자는 손해를 입을 것이다. 아들들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노래하고

환호하라! 너희가 다시는 괴롭힘도, 억압도,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며, 더는 마음 졸이며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널리 알려라. 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우주와 땅끝까지 울려 퍼지도록 소리 높여 외쳐라. 과거 자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일어나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더구나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진입하기만 하여라.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리니 너희는 누릴 준비만 하여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보다 달고 더없이 오묘하며 측량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할 것이다!

제61편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 내 뜻에 이르게 된다. 사실 내 뜻은 결코 찾기 어렵지 않다. 내가 과거에 그저 내 뜻에 따라 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너의 재물이나 물건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알겠느냐? 이것이 나의 뜻이고, 더구나 내가 얻고자 하는 바다. 사람은 늘 자신의 머릿속 관념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고, 자신의 잣대로 나의 분량을 재려고 한다. 이는 사람의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자 내가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부분이다. 확실히 알겠느냐? 왜냐하면 이는 사탄에게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분량이 작아 자주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는데, 좀처럼 분별을 못하는구나! 나는 여러 번 너희에게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사탄의 꾀에 빠지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는 한사코 듣지 않고,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이 손해를 입었으니, 후회해도 늦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후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면 좋지 않겠느냐? 너에게 알린다! 쉽게 소극적이 되면 생명은 아주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 그러니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조금하게 일을 이루려 하며 그저 눈앞의 일만 본다. 내가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을 벌하기 시작한다고 하니, 너희는 마음이 더 급해져서 왜 저놈들이 아직 멀쩡히 자리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빈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 사람은 너무나 관념에 매여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악인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르는 자들을 벌하고, 나를 믿기만 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매하다니!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고도 자신이 자라서 철이 들었고, 내 뜻을 알게 되었다며 혼자 우쭐거린다. 나는 만사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힘쓴다고 자주 말했는데, 너는 이 말을 진실로 이해하느냐? 이 말을 진정 알겠느냐? 나는 쉽게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우주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의 적합한 안배가 있다. 누가 징벌받을 대상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대상(나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음)이며, 누가 내가

택한 대상이고, 또 누가 내가 택한 후 도태시킬 대상인지는 모두 내 손이 주관하고 있다. 더구나 너처럼 내가 택한 자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하고, 다음 시기에 무엇을 할지, 모두 내 지혜로운 안배가 있으니 너는 나를 위해 미리 안배하지 말라. 그저 기다렸다 누리기만 하거라! 이는 네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이다. 내 것은 내가 지배하니, 다른 이가 감히 불평하거나 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나는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내가 자주 노하는 이유는 내가 준비한 행정 법령 계획이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인정사정없다고 여기지 말라.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 그 어떤 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감히 막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이것은 내 어떠함이자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내 성품이다. 나는 누구든 똑같이 대한다. 모두가 내 아들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생명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아버지가 있더냐? 아들의 앞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더냐? 너희 중 누가 이를 알겠느냐? 또 누가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늘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만을 위해 타산하고 계획하고, 내 마음은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 나는 너희 때문에 애간장을 태웠거늘 너희는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과 같은 육적인 것만 즐긴다. 너희에게는 일말의 양심도 없단 말이나?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 탈을 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내 말은 절대 과하지 않으니 못 견디겠다 여기지 말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구원 방식이다. 또한 이는 사탄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철저히 물리치고 멸하는 내 지혜이다. 네가 회개하고, 내게 의지해 옛 성품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나는 더없이 흡족해할 것이다. 이러면 정상 인성으로 사는 것으로, 바로 내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것이다.

시시각각 나와 가까이하거라. 보다시피, 나의 발걸음이 날로 빨라지고 있다. 영적 교제가 잠시라도 없으면 즉시 심판이 닥칠 것인데, 너는 이를 깊이 느꼈을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라지 못하고, 성령의 단속을 받지 않고 늘 제멋대로 굴 것이다. 이것은 더구나 내 지혜의 일면이다.

제62편

너에게 내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좀처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동쪽이라 하면 사람은 ‘동쪽이 맞을까? 아마도 아닐 거야! 쉽게 믿을 수 없어. 다시 봐야겠어.’라며 기어이 따지고

든다. 너희 사람은 이리도 다루기 힘들다. 무엇이 진정한 순종인지 모르니 말이다. 내 의사를 알았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행하기만 하거라! 내가 한 말을 늘 확신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이해하니 어찌 참된 깨달음이 있겠느냐? 줄곧 내 말에 진입하지 않는구나. 나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내 말에 진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정예병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자는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 내 사역을 방해할 것이다. 이를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말라. 내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게 된다. 이러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엄히 징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네가 한순간이라도 내 앞에서 떠나면 심판이 닥칠 것이다. 만약 네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 얼굴빛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나를 떠나면 또 어떤 상태일지 한번 시험해 보거라.

나는 네가 영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 사역이 이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너는 어쩔 셈이냐? 내 사역에는 모두 절차가 있으니 조금해하지 말라. 나는 친히 내 사역을 할 것이다. 내가 일하면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탄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한 형벌로 처분할 것이다. 이 또한 내 행정 법령과 관련된다. 보다시피, 지금 나의 행정 법령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이미 반포되고 실행되기 시작했다.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모든 면이 내 행정 법령과 관련되니 이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볼 것이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진정 깨달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해졌느냐? 이제 나는 교제하겠다. 세계의 만국 만민이 모두 내 손안에 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자든 모두 내 보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어떤 이는 심판을 받아들인 후에도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다(멸망의 대상으로, 더는 존재하지 못하게 철저히 불태워 버림). 어떤 이는 심판을 받은 후 내 이름을 받아들여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천 년만 누릴 수 있음).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권을 잡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과거에 나 때문에 갖은 고난을 겪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무궁무진한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백성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따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림이란 그저 누리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난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도 뜻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토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유이자, 모든 면이 내 행정 법령과 관련된다는 것의 내적 함의이다. 내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테도 너희는 여전히 고생할까, 혼이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계속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타산하고 계획한다. 설마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계속 자신을 위해 계획하느냐? 이는 나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하면, 너는 이를 뒤집어 버리고 스스로 다시 계획을 세운다.

너희는 말은 듣기 좋게 하지만 사실 내 뜻을 조금도 살피지 않는다. 너에게 알려 주겠다! 나는 절대 너희 중 누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의 행함이 내 뜻에 부합하더라도 절대 너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구원 방식이다. 이러한데도 너희는 때때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며 득의양양해하고 다른 이들을 모두 무시한다. 이는 사람의 패괴 성품의 한 면이다. 내가 이렇게 지적하니 너희 모두 인정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이다. 진실로 변하기 위해서는 나를 가까이해야 한다. 나와 교제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어떤 이는 옷을 입히겠다면 손을 내밀고, 밥을 주겠다면 입을 벌리듯 가만히 앉아 남의 성과만 누리려 한다. 그저 남이 씹은 음식을 입안에 넣어 씹야 먹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가장 어리석다. 이들은 그저 다른 이가 먹었던 음식을 먹기 좋아한다. 이는 사람의 가장 나태한 부분이기도 하다. 나의 이 말을 들을 때 더는 한 귀로 흘리지 말라.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내 뜻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순종이다.

제63편

너희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잘 알아야 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귀에 대고 알려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으로, 네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으며,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 너의 행위에는 나의 허락과 나의 뜻이 들어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구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위해 진실로 시간을 들인 적이 있느냐? 참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네게 편잔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애당초 이런 것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늘 흐리멍덩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아느냐? 너희는 마음이 맑지 못하고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째서 저희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항상 당신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묻겠다. 너는 진정으로 내게 충성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의심의 여지 없이 온전히 내게 바쳤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마 너희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굳이 내가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는 너희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선택과 기호, 그리고 자신만의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사하게 굴지 말라! 내가 일찍이 너희 속을 들여다보았거늘, 굳이 또 지적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스스로 자신의 여러 부분(마음, 생각, 입으로 한 모든 말, 말 속의 모든 단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에 담긴 속셈과 동기)을 많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완전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알려 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언제까지나 흐리멍덩하고 온종일 욕을 탐하는 일에만 빠져 나의 마음은 추호도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시시각각 사랑의 손길로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를 느꼈느냐? 나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아라. 정녕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앞에 가져와 검열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내가 일일이 심사해도 되겠느냐? 내가 제멋대로 군다고 말하니 너는 스스로를 변호한다. 이제 심판이 임했으니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며, 네 안의 실제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인간들아! 너희는 이렇게 다루기 어렵다. 내가 실제 상태를 지적할 때에야 너희는 진심으로 탄복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자신의 낡은 틀과 생각을 고수하며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독선이 아니겠느냐? 자기만족에 빠져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식해라. 이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하려는 의지가 약해지지 않고 점점 강해질 것이며, 너의 상태 역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 나날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의 뜻을 알면 스스로를 알게 되고, 이로써 나를 더 잘 알게 되어 나에 대한 확신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된다. 지금 나에 대한 확신이 90%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버림받을 대상이다! 나머지 10%는 온전히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 달려 있으니, 이를 통해 100%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즉 오늘날 이러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내가 늘 너에게 나의 뜻을 보여 주어 생명의 감각이 줄곧 네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냐? 틀렸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느냐? 그렇다면 왜 훈련을 전혀 중시하지 않느냐? 알려 주마. 나의 뜻은 한두 번으로 알 수 없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와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실행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나?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생각만 하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려 하지 않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이 얼마나 미련하냐!

내가 시시각각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거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항상 우둔하고 무디기만 한 것이냐? 많이 성찰하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주 내 앞으로 오라. 너희에게 알려 주마! 내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냐? 나의 말이 너희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가 내 말을 볼 때는 자신에 대해 잘 인식하면서 나의 뜻을 찾지 못했고 내게 죄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떠하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듯하다. 이것이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나의 말을 누릴 때는 늘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지나갈 뿐, 내 말 속에 들어 있는 나의 뜻을 전혀 찾지 않는다. 사람은 늘 겸손하게 보이기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이 가장 가증스럽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기를 좋아하며 자기가 나의 부담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바보이다(자신이 진실로 깨달은 것과 나에 대한 인식을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사람을 나는 가장 증오한다. 이는 나에 대한 모독이자 폄하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너희에게 나의 크나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건만,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이냐? 이른바 실제로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 낸다.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니겠느냐? 나를 더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말해 보아라! 사탄이 패괴시킨, 불결하고 더럽고 음란한 땅에서 또 누가 실재를 살아 낼 수 있겠느냐? 다 패괴되고 공허하지 않으냐? 어쨌든 나의 말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은 없다. 머리가 아무리 우둔해도 나의 이 말을 보면 생각이 트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제64편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내 말을 깨달아야지 그릇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내 말을 한두 번 생각해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많이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한다.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희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 세심하지 못하고 오직 겉껍데기만 중시하며, 모방할 줄만 안다. 그것을 어찌 영적이라고 하겠느냐? 그저 사람의 열정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혐오한다. 너에게 알려 주마! 내가 혐오하는 것들은 모두 내쳐질 것이며, 재난 속에서 연단받고 나의 불사름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멋대로 굴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나를 가까이하고 나와 교제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렇게 행하길 바란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늘 겉면의 사람과 일, 사물에 속박받고 자기 관념에 속박받아 나를 위해 선한 증언을 하지 못하고, 나와 잘 협력하지도 못한다. 나는 시시각각 너희를 붙들고 키워 주는데, 너희는 자신의 능력을 다해 나와 협력하지 못한다. 이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다. 나를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면 누구도 네가 참도를 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어떤 관념도 너를 속박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너는 정녕 내 말의 뜻을 이해하느냐? 이런 말은 내가 명확히 짚어 주어야 너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다. 바늘로 뿔속까지 찔려야 겨우 아픔을 느낄 정도다. 다시 말해, 내 말이 너희 병의 근원을 짚어 내야만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때때로 내 말을 실행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알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찌하여 아직도 사람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나의 말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성심성의를 다해 나와 협력하는 모습이다. 네 말이 듣기 좋은 그렇지 않은, 나와 협력하려 하고 진심으로 나를 경배한다면, 너는 반드시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우매할지라도 내가 깨우쳐 주어 그 우매함을 벗어 버리게 하겠다. 내가 행하는 것은 반드시 내 말과 부합하며, 나는 두말하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뜻을 곧 교회들과 장자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는 감춰진 것이 더는 없을 것이다. 완전히 나타내는 날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부터는 더 이상 ‘감춤’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며, 감춰진 것들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감춰진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전부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나는 모든 권능을 지닌 지혜의 하나님이며, 만사와 만물, 만인이 다 내 손안에 있다. 이들을 폭로하는 데는 나의 절차가 있다. 나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폭로할 것이다. 또다시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를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똑똑히 보아라! 나의 심혈은 헛되지 않으며, 전부 수확이 있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즉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누가 감히 내게 등을 돌리겠느냐? 모두 내 뜻에 따라야 한다. 너에게 알려 주마! 오늘날,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과 뜻, 구상은 전부 옳으니, 사람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너희에게 더는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따르라고 거듭 말하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 확실히 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관념에 묶여 있지만,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면 내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줄곧 내게 불평만 늘어놓는구나. 네게 경고하겠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온종일 큰소리나 치며 너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확실히 그렇다. 나는 말한 대로 한다. 나의 말이 떨어지면 그 즉시 사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예전에 내가 한 말들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더는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등을 떠밀거나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때리고 몰아낼 것이다. 더 확실히 말해주겠다.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지난날, 나는 입이 아프고 닳도록 여러모로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제 사역이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니 너희가 어찌는지 보겠다! 아직도 스스로에게 여지를 주겠느냐? 그런 사람은 온전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드시 내게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제65편

나의 말은 언제나 너희의 급소, 즉 너희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다. 그러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늑장을 피우고 꾸물거리며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를 것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는 사랑의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어떠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반드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사시킬 것이다. 나, 공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어찌 착오가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말해 보아라! 내가 하는 일과 하는 말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겸손을 떨며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저희를 위하시지만, 저희는 하나님과 협력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나와 협력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다니! 그것은 전부 낮부끄러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해 놓고 실제로는 어째서 거듭 육적인 것을 좇는 것이냐? 말은 듣기 좋게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그렇게 높지 않다.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를 성싶으냐?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내 말은 시시각각 너희를 깨우치지만, 마음이 너무나 강박한 너희는 영 안에서 내 뜻을 찾지 못하는구나! 말해 보아라. 내가 몇 번이나 일깨워 줬느냐?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적인 생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너희는 한사코 듣지 않는다. 말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이다. 너희는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졌단 말이나? 조금의 느낌도 없단 말이나? 내가 괜한 말을 한 것이란 말이나? 내 말이 틀렸단 말이나? 아들아! 내 깊은 고심을 헤아리거라! 너희의 생명이 자라면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있게

된다. 지금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은 조금의 가치도 없다. 나의 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실현되어 인간 세상에 공개적으로 임했다. 이것은 나의 심판이 완전히 임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느꼈느냐? 나는 차마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겠는데, 너희는 내 마음을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가 얻는 것이 언제나 무정한 심판이 아닌, 내 사랑의 보살핌과 보호이기를 바란다. 너희가 기꺼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더 가까이하지 않고, 나와 교제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것이냐? 나에게서는 그렇게 냉담하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렇게나 좋아하며, 너의 뜻에 꼭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줄곧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대할 셈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두 손이 텅 빈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성령 역사가 이리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애타고 조급한 내 마음을 보지 못했느냐? 너희에게 나와 좀 협력하라고 해도 원치 않는구나. 모든 재난이 연달아 임하고 있다. 각국 각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염병, 기근, 수해, 가뭄, 지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한두 곳의 문제도,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다. 재난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각종 충해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도 도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모두 만국 만민에 대한 나의 심판이다. 나의 아들들아! 너희는 절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루빨리 자라 내 어깨 위의 짐을 짊어지기를 바란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모르느냐? 앞으로 사역은 점점 더 많고 무거울 텐데, 너희는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둘 정도로 모질단 말이냐? 더 확실하게 말하겠다. 생명이 자란 자는 피난처에 들어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지 못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내 말이 아주 확실하지 않으냐!

내 이름이 각 지역과 각처로 퍼져 나가 모든 사람이 내 거룩한 이름을 알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마카오, 홍콩, 각 나라와 각 분야의 사람들이 곧 한꺼번에 중국으로 몰려들어 참도를 찾을 것이다. 나의 이름은 이미 그들에게 증거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되도록 빨리 자라 그들을 목양하고 이끌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사역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한 이유이다. 재난이 임하면서 나의 이름도 널리 퍼질 것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단 말이냐? 내 이름은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에 널리 퍼질 것이다. 내 사역은 질서 있게 순서대로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모두 내 지혜로운 계획이다. 오로지 너희가 걸음마다 내 발걸음을 바짝 쫓으며 전진하기를 바란다.

제66편

나의 사역이 이 단계까지 진행된 것은 전부 내가 지혜롭게 안배한 것이자 나의 대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내 경영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너는 내 사역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의 일과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나, 지혜로운 전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는 감히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지 못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나와 맞선다. 이 바보야! 내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임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피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너에게 알려 주마! 앞으로 내 입에서는 엄한 심판의 말만 나올 뿐, 온유한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견뎌 내는지 지켜보겠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나를 가까이하지 않는 자, 즉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 다른 단계로 넘어갔는데, 예전의 사역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방식에 들어선 것이다. 내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심연인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영원히 침륜할 대상임). 새로운 사역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즉 세속과 재물,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영계 이외의 온갖 일에 연연해하면 바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깨우침이 갈수록 뚜렷해진다. 즉, 생명의 느낌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시시각각 운행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자는 곧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생명의 달림길에서 크게 뒤쳐질 것이다. 나는 냉담한 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추구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버려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재앙 속에서 천 년 동안 연단할 것이다.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자들, 즉 언제나 방해하는 자들은 그 우매함을 없애 내게 충성하게 할 것이며,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어 더욱 큰 믿음으로 추구하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장자들은 갑절로 축복하고 언제나 나의 사랑이 임하게 하며, 시시각각 보살피고 보호하여 사탄의 울무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만민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즉, 나의 사역 항목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천 년 동안 봉사할 대상인데, 많은 사람이 나의 나라로 몰려들 것이다.

나의 아들은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너희가 행하고 완수해야 할 사역들이 아주 많다. 나는 너희가 어서 성장하여 내가 맡긴 사역을 완수하기만을 바란다. 이것은 너희의 신성한 직책이자, 장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나는 길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아름다운 복을 누리도록 돌볼 것이다! 너희는 저마다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물과 환경을 마련했느냐? 그것은 전부 나의 축복이다. 알겠느냐? 너희는 모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누구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제67편

나의 아들이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만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누군가 감히 공개적으로 대적한다면, 나는 필히 그를 엄하게 벌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오늘날, 일어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현재 나와 함께 영광 속에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곧 너희의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내게 순종하는 자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럼으로써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갖게 할 것이다. 나의 뜻은 전부 너희 장자들에게 있으니 오로지 너희가 하루빨리 성장하여 내가 준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랄 뿐이다.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은 내 경륜의 마지막 항목이다. 나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전 존재를 바치고 나를 위해 오롯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시간은 절대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도 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 분명히 알아 두어라! 나의 사역은 단계마다 어떤 막힘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나의 발은 온 우주 땅끝을 밟으며, 나의 눈은 늘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더 나아가 우주의 전모를 살펴보고 있다. 나의 말은 실제로 우주의 모든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날 위해 봉사하지 않고, 누가 감히 날 위해 충성하지 않겠느냐? 또 누가 감히 내 이름을 판단할 것이며,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겠느냐?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심판은 전면적으로 임한다. 다시 말해, 지금은 심판의 시대이며, 자세히 관찰하면 나의 심판이 우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의 집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 말, 일거수일투족이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깨달아야 한다! 나의 심판은 일부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을 느꼈느냐? 네가 마음과 생각으로 맞선다면 내적으로 즉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심판은 아주 다양하다.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는 우주 세계에서 유일한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심판을 너희에게 낱알이 보여 주겠다. 마음과 생각으로 맞서면 내가 바로 너를 깨우쳐 줄 것이다. 즉, 네게 경고할 것이다. 만약 듣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너를 내칠 것이다(이런 것은 모두 나의 이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누림을 쫓는, 너의 외적인 일을 가리킨다). 만약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느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 너의 영 안은 어두워지고 육체는 고통받을 것이다. 나와 가까워지려 해도 하루 이틀 내에는 절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생명은 확연하게 멀리 뒤쳐져 있을 것이다. 나는 제멋대로 말하는 네 입과 혀를 징계하고 너의 혀를 다스릴 것이다. 일할 때 방종하고 단속을 받지 않는 자 역시 내가 영 안에서 경고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는 자는 중벌을 내릴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대적하는 자, 즉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도태시키고 내칠 것이다. 그렇게 그를 멸망시켜서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모두 내가 택했다가 도태시킨 자들이다. 우매한 자들, 즉 이상(異象)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깨우침을 주고 구원하겠지만, 진리를 깨닫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가 우매한 자든 아니든 앞에서 말한 몇 가지 항목에 비추어 집행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심이 바르지 못한 자가 줄곧 실재를 찾지 못하게 했다. 결국에는 그들을 천천히 하나씩 도태시켜 한 명도 남기지 않겠지만,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겨 두겠다(나는 일을 함에 있어 경솔하지 않으며, 순서와 차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나의 심판이 완전히 열렸으니 다양한 사람에게 다 비추어 볼 것이다. 누군가 어떤 항목을 범하면 나는 그 항목에 따라 집행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명단에 없고,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의 결과밖에 없다. 만약 나를 대적하는 자라면 나는 바로 그의 영, 혼, 육을 저승으로 보낼 것이다. 나를 대적하지 않는 자라면 너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심판할 것이다. 나는 조금도 숨김없이 명확하게 다 말했다. 너희가 시시각각 마음에 새기기를 바랄 뿐이다!

제68편

나의 말이 각 나라, 각 지역, 각 교파에 시행되어 곳곳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지에서 재난을 겪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거나 총과 칼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고 있다. 모두가 나의 심판을 받고, 재난 속에서 연단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자는 각종 재해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며, 영원히 흑암 속에 거하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는 깔끔하고 명확하게 일을 하며, 네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충성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네가 나를 대적하기만 하면 내 심판의 손길이 바로 너에게 노를 발할 것인데,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줄곧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이뤄질 것이며, 하나하나 다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실제로 들어간다는 참뜻이다.

대재난은 내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시각각, 분초를 가리지 않고 내 아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너희는 그 고통도, 고난도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내 말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전능을 분명히 알고 생명이 더욱 자라서 하루빨리 나의 집을 짊어질 수 있게 할 것이며, 내 경륜의 완성을 위해 너희의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겨 주관하게 하며, 너희 손에 맡길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데, 장자들인 너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대재난의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테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발걸음을 다그쳐 시시각각 곳곳에서 나의 발자국을 따르되, 뒤쳐지지 마라.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서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라. 나와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함께 누려라. 너희가 누리고, 받아야 할 아름다운 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안에는 비할 바 없는 풍부함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없다. 모두가 내 아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생각한 것들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다 말하고 나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셈이다. 사역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또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잠시라도 유의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저 멀리 내쳐져 이 흐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제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고심을 저버리게 된다. 앞으로 각국의 사람들이 수시로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런 상태로 그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나는 짧은 시간 안에 너희를 철저히 정예병으로 훈련시켜 내가 준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곳곳에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며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내 뜻을 깨달았느냐? 나의 깊은 고심을 느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나의 복을 누릴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

나,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보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두루 다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위해 힘쓰지 않겠느냐? 각국의 형세는 불안하고 모두가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결국은 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 그들이 땅에서 가진 지위와 누린 것에 따라 그들을 하나하나 심판할 것이며, 하나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진노는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서 하나하나 이뤄질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다. 과거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업신여겼지만, 현재는 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 내 아들을 핍박한 자들은 더욱 그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벌할 것이며, 어린아이라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사탄의 부류이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내 아들을 증오한 자들 역시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왕권을 잡은 자는 우리지, 절대로 그들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름을 각 지역, 각 종교, 각 교파에 증거하며, 전체 우주 땅끝까지 두루 전파되게 해야 한다!

제69편

나의 뜻은 표명되었으니, 대적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자를 즉시 없앨 것이다. 오늘날, 내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 내 뜻을 곡해하는 자는 모두 내 나라에서 도태되고 버림받을 것이다. 나의 나라에는 오직 나의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 나아가 내 말대로 행하는 자들뿐, 다른 자들은 없다. 그들은 나 대신 왕권을 잡아 만국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자들로, 천진난만하고 활기차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며, 정직하고 지혜로운 장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서 만족을 얻고, 내가 하려는 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며, 완전히 공개되고 나타난다. 한편, 속셈과 목적을 가진 자들을 나는 이미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쓰러지게 할 것이며, 하나하나 파멸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영, 혼, 육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손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나는 궁핍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며, 우매하나 열정적이고 내 경영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다. 반면, 내게 대적하고 나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징별한다. 이는 모두 내 말에 따라 하나하나 확증될 것이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너는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나? 너는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나? 너는 내게 대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마음이 합하는 사람이나? 이에 대해 너는 분명히 알고 있느냐? 내가 하는 물음에 다 대답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열심으로 추구하기만 할 뿐 내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경영을 방해하고 내 뜻을 곡해하기 가장 쉽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면 내가 제거할 대상, 멸망시킬 대상이 될 것이다.

내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으며, 그 비밀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다. 나는 나의 계획에 따라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모두에게, 즉 나의 장자들에게 열어 줄 것이다. 이방인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저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결국 내가 위엄이고 심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이방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만 알 뿐, 내 뜻은 모르고 있다. 내 뜻은 오직 내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이해한다. 나는 내 아들에게는 다 공개하고 드러내지만 사탄에게는 위엄과 심판으로 대한다. 그러니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오늘날, 오직 장자들만이 내 뜻을 알 자격이 있지 다른 자들은 모두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는 전부 내가 창세전에 예비해 둔 것이다. 누가 복을 얻고 누가 화를 입을지 나는 일찍이 다 예비해 놓았고, 또 나만의 계획이 있다. 또한 오늘날 그것을 완전히 드러냈다. 복을 받는 자들은 이미 누리기 시작했고, 화를 입는 자들 또한 이미 재난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화를 입는 자들은 원치 않아도 그 화를 입어야 한다. 그것은 모두 내가 정한 것이며, 내 행정 법령의 손이 안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화를 입겠느냐? 나는 이에 대해 이미 밝혔으며, 이는 너희에게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이다. 나를 받아들였으나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추구하지 않는 자, 나를 알고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 내 앞에서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리며 나를 기만하는 자, 내 말을 보고 소극적으로 구는 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자,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 자신이 이미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자(사탄의 모델)들은 모두 화를 입을 대상이다. 반면, 나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자(이런 자는 설령 방해할지라도 나는 그 과오를 묻지 않을 것이다. 단, 반드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방종하지 말고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하며, 시시각각 내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순수한 자, 마음을 여는 자, 정직한 자,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속박도 받지 않는 자,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장성한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복받을 대상이다. 지금 각자의 상태에 따라 맞춰 보아라. 네가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는 이미 명확하니 내가 밝히 말할 필요는 없다. 복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한 화를 입는 자들도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안배한 것이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다 네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예정이자 너의 잔머리가 불러온 화이니, 자업자득인 것이다! 음부에 떨어진다고 해도 부당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결말이자 말로이다!

복을 받는 장자들아! 어서 일어나 환호하여라! 어서 일어나 찬미하여라! 오늘 이후로 너희에게는 절대 고통도,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안에 있다.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된 자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이며, 재난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이뤄 주겠다(그러나 제멋대로 굴어선 안 됨).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제70편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나의 비밀을 열어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은총이자 긍휼이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나의 말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도 나의 은총이고 긍휼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는 모든 이를 사랑하고,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대적하는 모든 이를 증오한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고 곱절로 축복할 것이다. 반대로 배은망덕한 자들은 곱절로 징벌하고 절대 쉽사리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의 나라에는 교활함과 간사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기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즉, 죽은 자의 냄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순수하고 열려 있으며, 감춰지거나 숨겨진 것이 없다. 또한, 그곳의 모든 것은 다 새롭고 누릴 수 있으며 도움이 된다. 죽은 자의 냄새를 지닌 자가 있다면 나의 철장(鐵杖)으로 다스릴 것이니, 절대 내 나라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무궁무진한 비밀을 온전히 너희에게 — 말세에 내게 얻어진 사람들에게 — 열어 주었다. 너희는 복되다고 생각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은 더욱이 너희가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 날이다.

진정 왕이 될 자들은 모두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며, 여기에는 절대 인간의 뜻이 섞여 있지 않다. 이 일에 관여하려는 자는 내가 반드시 칠 것이며, 나의 맹렬한 불길로 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나의 공의와 위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만유를 주관하고, 모든 권능을 지닌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 누구도 쉽사리 용서하거나 사정을 봐주지 않으며,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는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나의 공의와 정직, 위엄으로 대한다. 나는 이 기간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하고, 내 행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악령들의 작태에 따라 하나하나 처벌하고 하나하나 무저갱에 처넣을 것이다. 이는 내가 태초 전부터 이미 해 놓은 일이니 사탄에게는 어떤 자리도, 역사할 곳도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은 단 한시도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고 언제나 성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은 전부 사탄에게 넘겨주어 더는 남아 있지 못하게 하겠다. 나의 모든 행정 법령에는 나의 공의와 위엄이 서려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육체까지 음부로 던져 버릴 것이다. 사탄에 대한 내 감정은 오직 증오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사탄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철저히 파멸시켜 역사할 기회를 조금도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사탄에 의해 심히 파괴된 자들(화를 입을 대상)은 나의 지혜로 준비해 놓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사탄이 날뛰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명심하라! 내게는 해결 못 할 일이 없다. 따라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지 못할 말이 없다. 인간은 나의 책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 내 손이 너를 쳐서 음부에 던져 버릴 것이니 조심하라. 기억하라! 오늘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니 그런 자는 손해를 보지도 심판의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예정하니 지휘하려 들지 말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큰소리치지 말라. 결국은 다 내가 예정하지 않느냐? 나의 책사가 되려고 하다니 수치를 모르는구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다니 참으로 가엾을 정도이다! 이러한데도 너희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모르고 있으며, 나의 말을 한번 또 한번 스쳐가는 바람처럼 대하였다. 너희는 나의 심혈을 저버리고도 내가 긍휼로 너희를 선대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거듭 자신의 잔꾀만을 뽐내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자는 어떤 형벌에 처해진다고 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말을 차갑게 대하며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또한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런저런 짓을 하고 다닌다. 악을 행하는 인간들아! 언제면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나치지 않은 응분의 대우니라!

전에 감춰졌던 것들이 오늘날 하나하나 너희 앞에 드러나고 있다. 큰 붉은 용은 무저갱에 떨어져 철저히 멸망될 것이다. 그것을 남겨 뒤 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힘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붉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점차 사라져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이는 내 사역이 완성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관념을 버려라.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내가 이미 이룬 것이다. 잔꾀를 부리는 자는 자멸하고 창피를 당할 것이다. 네가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알짜만 남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내가 온전케 할 대상이니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나와 협력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은 형벌을 받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내게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너희의 생명은 차이가 클 것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일어나 나와 협력하라!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 진심으로 나를 위해 바치는 자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모든 축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너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라!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물론, 너의 앞날까지 전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가 합당하게 준비하리니 너는 한없이 누릴 것이고 취하여도 마르거나 닳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제71편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거늘, 너희는 왜 온 마음을 다해 내 말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냐? 왜 내 말을 쓸모없는 고물로 취급하느냐? 내 말이 틀려서냐? 내 말이 너희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냐? 너희는 왜 계속해서 미루고 망설이는 것이냐? 내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이냐? 내 말을 세심히 묵상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너희 중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아이가 누구냐? 내가 헛되이 말했느냐? 조금의 성과도 없단 말이냐? 너에게 내 뜻에 맞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한동안 말을 안 했더니 절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구나.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가 명확히 짚어 주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냐? 너에게 이르겠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나를 섬길 수도 없다. 이런 자들은 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는 자들은 간이 크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들을 미워한다. 그들에게는 가차 없이 위엄과 심판으로만 대할 것이니 그래도 감히 나를 속이는지 보겠다.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란 것에 대해 모든 이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성으로 일하며 나를 속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유이다. 나는 그 어떤 이도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나는 일을 잘못 처리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행사는 내가 지혜롭게 계획한 것이다.

나의 심판은 이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렀다. 이 시기에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도태시킨 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이런 것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씩 다 드러내 보일 것이다.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내 말을 성사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내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다. 내가 친히 온 우주 땅끝을 움직이고 있으니 나는 감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가 음부에 떨어져 더는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은 구구절절 합당하고 조금의 과장도 없다. 너희도 나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뜻도 불분명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좀 갖췄고 그런대로 괜찮다고 여긴다. 너에게 이르겠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기준과 더 멀어진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게 나를 속이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자신의 분량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찌면 그토록 무지하고 어리석으냐!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말해 주고 있는데, 설마 아직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실망시킬 셈이냐?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무도 홀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기 때문에 누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의 감찰을 거쳐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는 다 복받을 대상이고, 왕이 되도록 내가 예정한 장자 그룹이다. 반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간계에 넘어간 자들이니 화를 입을 대상으로 내가 정해 놓았다.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하나씩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 사역을 예비해 놓았고, 이미 이 사역을 시작하였다. 계획 없이 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질서 있게 순서대로 행한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도태시킬지 이미 다 해 놓았으니, 하나씩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겠다. 이 기간에 내 손으로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다. 나의 공의와 위엄은 그 누구도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를 엄하게 벌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수시로 모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자가 바로 나다. 겉으로만 나를 보지 말라. 눈먼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명확하게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 완전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구나. 누가 감히 거짓말로 속이고 숨긴다면 나는 그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을 너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느냐? “나를 본 것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을 본 것이다”, 이 말을 너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나의 비밀을 이미 너희에게 보였거늘 아직 보지 못했느냐? 왜 나를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하나님은 어찌 그리 숭배하는 것이냐? 나, 유일한 참하나님이 어찌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겠느냐? 똑똑히 알아라! 확실히 하라! 나의 모든 언행,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웃고, 먹고, 입는 것 등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가늠하는데, 설마 내가 오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더라도 했던 말이나? 그렇다면 왜 네 마음속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나와 비교하느냐? 모두 사람의 관념이다! 나의 모든 행사가 너희의 상상과 다르다는 거구나! 나는 그 누구도 나의 모든 행사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두지 않는다. 내가 유일한 참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불변하고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다! 자신의 간계에 넘어가지 말라. 나는 이미 완전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나에게는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고 전부 하나님 자신이니, 그 무엇도 숨기지 않고 모두 너희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제72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내게 의지해 이런 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너에게서 매우 멀어질 것이고, 너는 저 멀리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역은 자주 나를 가까이하고, 내게 기도하고, 나와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오늘날 나의 사역은 이전과 다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 수준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가장 뚜렷한 부분은 모두 내 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명료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기묘함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내 사역의 발걸음이 빨라졌으며 분명 이전과는 다르다.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좀처럼 종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더는 비밀이 아니다. 반대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명료한 것이며, 해방된 것이자 완전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 공간이나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환경적 속박을 넘어 육신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으로 나의 대업을 완전히 이룬다!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성된다.

대업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장자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너희는 이후에 절대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속박도 받지 않을 것이고, 우주 각국을 두루 다니고 전 우주를 두루 밟으며 곳곳에 너희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눈앞에 곧 실현될 일을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너희에게 맡긴 일이고, 내가 밟을 디딘 곳에는 반드시 너희의 발자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왜 나의 계시가 점점 명료해지고 뚜렷해지며, 조금도 숨김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느냐? 왜 나의 증거가 이미 절정에 이르렀고, 모든 비밀과 모든 말을 너희에게 알려 주겠느냐? 바로 위에서 말한 일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 사역의 진행이 너무 느려 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며 나와 잘 협력할 수가 없다. 당장은 내 뜻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나는 박차를 가해 너희를 훈련시키고 서둘러 너희를 온전케 하여 빨리 내 마음을 흡족게 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가장 뚜렷한 점은 장자 그룹이 이미 완전히 형태를 갖춘 것이다. 모두 나의 검증을 통과하고 창세 이래 예정하고 택한 자들로, 다 내가 직접 뽑았다. 여기에 사람이 생각할 여지는 없다. 너 역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으니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모두 나의 은총과 긍휼이다.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 일찍이 다 이루어졌거늘 너희가 눈이 흐려 지금까지도 내 행사의 기묘함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전능과 지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언행에 대해 너희 모두 명료하게 알지 못하니, 내가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내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나는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겪고 나 자신을 헌신하길 원한다. 내 말을 통해 너는 나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하느냐? 더는 제멋대로 굴지 말고 내 마음을 헤아리거라! 이렇게 큰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 주는데, 너희는 무슨 할 말이 더 있느냐? 또 무슨 불평이 있느냐? 너희가 만일 대가를 치르지도, 각고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이 애타는 마음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모두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는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 없고, 어디에 가든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위엄이자 심판이다. 모든 사람은 내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내 손안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만약 사람이 조금이라도 참견한다면 나는 절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만물의 창조자인 나를 알아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와 사람에게 버림받고 비방을 당하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획하는 유일한 참하나님, 하나님나라를 주관하는 왕,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자신,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고 음부의 열쇠를 관리하는 하나님을 말이다. 모든 사람(어른, 아이, 영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바보나 장애가 있는 자 등등)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 사역에서 나는 그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엄한 사역으로, 내가 일찍이 예비해 놓은 것이며 이제부터 행할 사역이다. 내가 말을 하면 반드시 행하니 너는 영의 눈을 뜨고,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한 참하나님임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을 것이고, 모두에게 내 행정 법령을 행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 나에게서 얻은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느냐? 너의 그 녀마 같은 물건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니냐? 필요 없는 것들은 서둘러 전부 내다 버려라!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 바로 지금 결정되니 지금은 아주 중요하고 목숨이 걸린 순간이다. 이에 대해 너는 정녕 깨달은 바가 있느냐?

제73편

내 말은 바로 이루어지고, 절대 바뀌지 않으며, 완전히 정확하니, 이를 꼭 기억해라!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과 단어를 세세히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고, 나의 심판과 진노와 불태움만 받을 것이다. 현재 사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코 엉성하게 하지 않는다. 상당히 세밀하게 이루어지는데, 거의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부드럽다. 내 말에는 헛된 것이 없고 모두 사실이다. 너는 매 구절이 다 진실하고 틀림없음을 믿어야 한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니 절대 등한시하지 말라!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는 이 순간에 달렸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네가 하늘에 있을지 음부에 있을지는 모두 내가 주관한다. 음부로 갈 대상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하늘에 있을 자는 최후의 고난을 좀 겪을 것이며 나를 위해 마지막 헌신을 할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에게 번뇌를 가져오는 번거로운 일(결혼, 직장, 성가신 재물, 지위 등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로지 누리고 찬미할 일만 있다. 반면 음부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고(그 영, 혼, 육을 가리킴), 영원히 내 징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물과 불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으니 서로 얹힐 것이 전혀 없다. 화를 입을 자는 계속 화를 입고, 복을 받을 자는 마음껏 누린다.

만사 만물은 모두 내가 주관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속한 자들이자 내 6천 년 경륜의 결정체이며 내 보배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든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은 사탄의 후손이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증오스럽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너의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사랑하는 자다. 반드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고 나를 냉대하며 나에게 대한 충성심이 없다면, 틀림없이 내가 증오하는 자로, 너를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것이다. 너는 지옥에 떨어질 날만 기다려라! 다른 사람은 아마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너 자신과 나,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만은 알고 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날 테니, 진심이 있는 자들은 조급해할 필요 없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두 내 지혜로운 안배다.

임무가 긴급하고 많고 무거우니, 너희가 이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나를 위해 헌신해야겠다.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그저 너희가 나와 훌륭하게 협력하고 항상 나를 만족게 하며 나의 내적 인도를 따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맹목적으로 굴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든 어디서든 내 뜻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을 매우 분명히 알아야 내 뜻을 살필 수 있다. 불과 얼마 후에, 너희는 참도를 찾는 외국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들을 목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절박한 마음이니,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내 전능을 믿어야 한다. 옳은 사람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를 정예병으로 훈련시킬 것이다. 이는 내가 적절하게 예비해 놓은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고난을 겪을 결심을 해야 한다. 중요한 시기이니, 절대로 놓치지 말라! 나는 절대 너희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누리게 할 것이다. 은혜와 복은 결코 같지 않다. 내가 보기에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나의 은혜이다. 이후에 너희들이 무궁무진하게 누릴 것이야말로 복이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다. 너희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창세 이래 사람들이 누리 본 적이 없는 복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이미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다. 오로지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어디서든 나를 위해 생각하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너희가 항상 내 마음을 헤아려 내가 언제나 너희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은 나와 함께 왕이 되는 자로, 그 어떤 형제의 억압도 받지 않을 것이고, 나 역시 채찍질을 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을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장자 그룹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얹잡아 보이고 억압받은 자들로, 인간 세상의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나에게 미리 다듬어지고 깨뜨려져 미리 온전케 되었음). 이들은 받아야 할 복을 이미 나와 함께 누렸다. 나는 공의롭기에 그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제74편

나의 말을 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내가 결코 너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데, 이는 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명중한다. 모든 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나는 바로 너희의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해 줄 명의이니 내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왜 앞으로는 근심과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바로 이 때문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뤄지지만, 사람에게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전부 공허하고 인류를 속이는 것뿐이다.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복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내 앞으로 오지 않는 자는 분명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일 테니, 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무거운 형벌을 가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라! 내 앞에 많이 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나, 이는 은혜에 불과하며, 그 후에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나는 이 사람들, 즉 지금의 너희를 예정하고 택하였다. 성품, 자질, 모습, 체격, 출생 가정, 직업, 결혼 등 너의 모든 것, 심지어는 너의 머리카락 색깔, 피부색, 출생 시간까지도 다 내가 직접 안배했다. 네가 매일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내 손으로 안배한 것이며, 오늘날 너를 내 앞으로 인도한 것은 더더욱 내가 안배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누리도록 한 것은 당연한 너의 몫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일찍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극단적이다. 마음이 너무 강박하거나 뻔뻔하고, 나의 계획과 안배에 따라 행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우니 스스로를 얹어매지 마라. 그러면 생명이 해를 입을 것이다. 기억하였느냐?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라. 과거에 너희에게 비밀이었던 것을 오늘날에는 전부 드러내 보이고 더 이상 감추지 않을 것이다(앞으로는 결코 감춰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임). 사람은 언제나 서둘러 이루려는 마음에 몹시 성급해하기만 할 뿐, 나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나를 위해 짐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빨리 자라서 너희보다 어린 형제들을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부자가 조속히 상봉하여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면 나의 뜻에 부응한 것이다. 비밀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으며 조금도 감춰진 것이 없다. 바로 나, 완벽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으로 오늘날 너희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모든 것(차림새, 외모, 체형)은 곧 하나님 자신의 완전무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세 이래 사람들이 상상해 왔으나 아무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것은 나의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협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정상적인 사람이 이토록 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진심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책망할 때도 너에게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어 그 속에서 나를 알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너를 책망하든 너는 도망갈 수 없음은 물론, 나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가 연약해지는 순간도 내가 예비한 것이다. 나를 떠나면 목숨을 잃고 말라 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내가 너의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또한 네가 연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질 때도 연약함이나 강인함은 너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완전히 내게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모든 비밀은 다 밝혀졌다. 앞으로는 너희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일이 가리켜 줄 것이다. 결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짚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너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친히 알려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경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감춰진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이다.

제75편

나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즉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추호의 잘못도 없다. 일체의 모든 숨겨진 비밀을 앞으로 조금도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모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에게 나타낸다. 나는 네가 나에게서 더욱 큰 이적과 기사를 보고 더욱 큰 비밀을 보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너희를 놀라게 하고 나, 전능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여 그 속에서 나의 지혜를 깨닫게 할 것이다. 창세 이후로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유일한 참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와 얼굴을 마주한다. 조금도 특별한 것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너희 내면에 거하며, 동시에 또 너희 가운데서 다닌다. 이 점은 믿지 않는 자나 고정 관념에 깊이 사로잡힌 자에게는 걸림돌이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 내가 정상 인성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일에서도 일부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정해질 수는 없다. 반대로 이것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이 충분히 증명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해 100% 확신한다. 너희는 너무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는 숨기지 않고 공개한다. 하지만 신의를 저버린 자,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자인 이방인에게는 숨긴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만민에게 나타난다고 한 말은 나의 공의와 심판, 위엄을 가리켜 한 말인데, 자신들이 얻은 결과를 통해 내가 우주 만물의 주관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대담하게 행하여라! 고개를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위해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믿음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집권자들이 흉악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커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껏 환호하고 뛰며 기뻐하여라! 모든 것이 다 너희 발아래에 밟히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멸망할지는 모두 나의 말 한 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쓰는 사람은 모두 일찌감치 나의 검증을 통과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 장자 그룹의 사람은 모두 정해 놓았는데, 그들은 내가 창세부터 정한 자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다 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나의 계획이다. 나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안정적이고 적절하게 한다. 내가 세워지라고 하면 세워지고 이루어지라고 하면 이루어진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데 너희는 아직도 훈련을 서두르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설마 외국인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와 너희와 마주하는 날까지 기다릴 셈이냐? 이전에는 조금 느렸을지라도 계속 이렇게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들아! 나의 고심을 생각하여라! 나와 자주 가까이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 사역의 발걸음은 절대 큰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다. 내 말의 참뜻을 깨달았느냐? 너희는 나와 더 잘 협력하면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복받고 싶어 하면서도 고생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모순된 마음이 아니냐? 너에게 알려 주겠다! 오늘날 복받고 싶어 하는 자가 목숨을 내걸지 않는다면 얻는 것은 징벌과 나의 심판일 뿐이다. 그러나 목숨을 내거는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할 것인데, 이는 모두 나의 축복이다. 오늘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과 대가이다. 나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하지 말라.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게 할 것이다. 나의 말에는 빈말이나 거짓말이 단 한 마디도 없으며 모두 진실하다. 그렇지만 지혜도 있다. 너희는 반신반의하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온전케 한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들을 증오하고 멸하며 게다가 조금의 여지도, 흔적도 남겨 두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에는 나의 풍부함이 깃들어 있다. 너희는 일일이 살펴보았느냐? 어떤 말은 내가 이미 수차례 말했는데도 너희는 왜 그 속에서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말을 보고 나면 그만이란 말이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나? 너희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 왜 나를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모든 권능과 지혜를 지닌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아직도 그 속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조한 말을 너는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느냐? 그것이 정말로 너의 행동 원칙이 되었느냐?

나는 모든 것 위에 서서 전 우주를 살펴본다. 나는 만국과 만민에게 나의 큰 능력과 모든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지금 누림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이 합쳐질 때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현재에도 너희에게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고 고통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다! 장자들아!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한없이 누리고 끝없이 누리리라. 이는 풍성하고도 완전하도다!

제76편

음성을 발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발현되는 것이다. 누가 내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느냐? 또 누가 내 뜻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언급한 문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느냐? 이리도 세심하지 못하다니! 감히 내 계획을 교란하려 든단 말이나! 방자하구나! 한 번만 더 이러한 악령 역사가 보이면 그 즉시 무저갱에 처박아 죽일 것이다! 나는 일찍이 각종 악령의 행위를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악령이 쓰는 대상(불순한 의도를 지닌 자, 육체를 탐하는 자, 재물에 연연하는 자, 자신을 높이는 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 등) 또한 전부 똑똑히 보았다. 악령을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알려 주마! 나는 지금부터 이런 자들을 하나하나 처단할 것이며,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즉, 악령이 패괴시킨 자라면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단번에 차 버리겠다는 말이다. 나를 몰인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명심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절대 더러운 전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 내 부담을 생각하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만을 쓴다. 이들은 내가 예정한 자들이므로 악령 역사는 절대 없다. 설명을 덧붙여 보겠다. 지금부터 성령 역사가 없는 자는 모두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악령이 역사하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그 육체와 함께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여태까지 너희에게 요구한 것들은 좀 가벼운 것들이었기에 너희는 육적으로 방종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도 나를 나타내지 못하는 언행, 나를 닮은 모습이 없는 언행을 보인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늘 시시덕거리며 포복절도하고 있을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너는 내가 이미 너를 떠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냐? 그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여전히 방종하는 것이냐? 내 심판의 손이 너에게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나? 오늘 이날 이후로 한순간이라도 내 뜻에 어긋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즉시 징벌할 것이다. 또한, 모여 앉아 잡담을 늘어놓는다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내 사역이 이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내 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가 함께 모여 앉아 생명과 영적인 일에 대해 교제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섭섭하게 대하지 않는다. 네가 입을 열기만 한다면 나는 네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이는 나의 말에서 내 마음을 느끼라는 것이지 병어리처럼 굴라는 것도, 잡담을 늘어놓으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더 이상 나의 날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하겠느냐? 너희는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내 말의 뜻을 이해했느냐? 다시 말해, 나는 말을 할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너희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더욱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복을 누리지 못할까 조급해하기만 할 뿐, 자신의 생명을 위해 생각하지는 않으니 이 얼마나 미련하냐! 이 얼마나 가련하냐! 너희는 내 부담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 모든 심혈을 너희에게 쏟았다. 내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만국이 너희의 다스림을, 만민이 너희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길 것이다. 현재 통치자들이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와해되어 내 심판이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똑똑히 보아라! 지금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내 나라는 성공적으로 건축되었다. 내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장자는 나와 함께 왕이 되어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아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네 앞에 펼쳐진 사실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기도로 간구하기만 하면 나는 즉시 손을 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을 응징하며, 너희가 증오하는 자들을 멸하고, 너희를 위해 힘쓰는 사람과 일, 사물을 관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힘쓰기만 하는 자(나의 아들을 위해 힘쓰기만 하는 자)를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을 위해 힘쓰는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큰 능력에 의한 것이며, 내 기묘한 행사이다.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런 자는 영적인 일을 조금도 꿰뚫어 보지 못하니, 쓰임이 끝나면 더는 쓸데가 없다. 한 가지 명심해라! 이는 너희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이니, 무턱대고 잡아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사람 수는 갈수록 줄어든 것이고 사람은 갈수록 정제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자 나의 경륜이고, 나아가 나의 지혜와 전능이며, 또한 내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다. 똑똑히 보았느냐? 이 점을 진실로 깨달았느냐? 나는 내 정상 인성을 통해 한 말을 나의 신성으로 하나하나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고 거듭 말한 이유로, 나는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으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룰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은 하나하나 응할 것이며, 절대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허언을 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지도 않는다. 감히 나를 평가하려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절대 내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누가 감히 대적하고 누가 감히 속이거나

기만하겠느냐? 내가 말했듯이,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내 정상 인성을 통해 모든 사람과 사탄의 행위를 드러내며, 불순한 의도를 지닌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내게 충성하지 않는 자, 재물을 탐하는 자, 내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 자, 형제자매에게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리는 자, 감언이설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자, 형제자매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자들을 드러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정상 인성으로 인해 암암리에 나에게 반항하며,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리면서도 내 정상 인성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정상 인성을 특별히 중요시하여 내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하인처럼 나를 모시며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수작을 부린다. 눈먼 인간들아! 내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임을 어찌 그리 모른단 말이나!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고 네가 별이는 짓들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다니! 잘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정상 인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망쳤더냐. 눈을 떠라! 더는 나를 속이지 말라. 너는 너의 모든 행위와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 앞에 내놓고 내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77편

내 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나의 말이 내 아들에게서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중요시하지 않다니, 너희는 참으로 경박하구나! 많은 말이 내 아들에게서 흘러나옴에도 반신반의하고 못 미더워하다니 눈이 멀었구나!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알지 못하다니, 설마 내 말이 내 아들을 통해 나오면 별것 아니란 말이나? 어떤 말들은 내가 직접 하고 싶지 않아 내 아들의 입을 빌린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리도 그릇되어 꼭 내가 직접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냐?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모든 행사에 늘 의혹을 품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내 모든 행사는 다 옳으니 따져 볼 생각을 버리고, 너의 그 더러운 손을 썩 치우라고 말이다! 내가 한 마디 하겠다. 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 내가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이고, 오늘날 검증된 자들이다. 너희는 늘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서 나라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을 따져 보곤 하는데, 전부 계산적인 행동만 할 뿐이다.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간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너희는 내게 의혹을 품어선 안 된다.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분석하거나 따져 봐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 일에 끼어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과 관계되는 큰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속히 행하여라.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이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국인들이 곧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많은 이가 여기에 의심을 품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루빨리 생명 성장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도록 누차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금부터 국제 정세는 더욱 긴박해질 것이며, 세계 각국이 내부에서부터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즉, 국내에서는 더 이상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일어나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할 것이며,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을 것이다. 또한, 모든 공장이 도산하고, 임원들은 자금을 마련해 도피 준비를 할 것이다(이것 또한 나의 경륜을 위해 힘쓰는 것임). 중앙 정부의 관료들은 눈앞의 이익만 챙기며, 모두 준비 작업(다음 단계를 위해 힘쓰는 것)을 할 것이다. 잘 보아라!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우주와 관련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또 장자 그룹이 왕이 되게 힘쓰는 일이기도 하다. 잘 알겠느냐? 어서 추구하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섭섭히 대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도록 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기묘하다. 세상에 재난난이 닥칠 때, 악을 행하고 권세를 쥔 모든 자들이 징벌을 받을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이름 아래에 있지 않은 악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너희에게 나의 복을 내려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 “너희는 절대로 그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했던 말의 참뜻이다. 깨달았느냐? 내가 말한 ‘이때’는 내 말이 입에서 나올 때를 가리킨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빠르다. 나는 일분일초도 미루지 않고, 일분일초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즉시 그 말대로 할 것이다. 오늘날 내가 도태시키겠다고, 혐오한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끝을 보게 된다. 나는 곧바로 나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둬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자는 산송장이자 폐인이 될 것이다. 멀쩡히 숨 쉬면서 걸어 다니거나 이야기하고 언제나처럼 내 앞에서 기도하겠지만 그는 이미 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미 말 그대로의 폐인이 된 것이다. 이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다!

나의 말은 나, 이 사람을 대변한다. 명심해라! 의심하지 말고 꼭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목숨이 걸린 엄청난 일이다! 나의 말이 나오는 순간, 내가 하려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모두 내 아들을 통해 전해진다. 너희 중 이러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해 본 자가 있느냐? 어떻게 이보다 더 명확히 말할 수 있겠느냐?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설마 내가 그렇게 인정사정없겠느냐? 내가 나에게 검증된 사람들까지 마구 버리겠느냐? 내가 하는 일에는 다 원칙이 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지 않을 것이며, 나의 계획을 망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큰일이다. 나는 공의롭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다. 너는 정녕 믿지 못하는 것이냐? 계속 걱정하다니!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겁을 내는 것이냐? 너 스스로 자신을 움아매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야! 나는 너에게 슬픔에 빠지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여러 차례 일깨워 주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늘,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는 너를 꼭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너를 내 사랑의 품에 안고 보듬으며, 너를 돌보고 지켜 주겠다. 또한, 어디에서나 너에게 계시를 내리고 보여 주며,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네 뒤에서 호위한다는 것을 알려 주겠다. 내가 아버지의 어깨에 올려진 짐을 어떻게 덜어 드릴 수 있을지时时刻刻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는 전부 내가 너에게 준 부담이니 절대로 벗어던져선 안 된다! 오늘날,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그저 네가 한시바삐 훈련을 받고 성장하여 내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아들 또한 때 순간 아버지의 경륜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지난날 내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와 협력하라고 자주 말했던 것이다.

모두가 나의 행사이다. 나는 오늘날 나에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 부담과 지혜를 더해 주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뜻에 부합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다. 그들은 하루 종일 흐리멍덩하게 지내며 먹고 자기를 반복할 뿐, 무엇을 부담이라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속히 나의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지금 나는 이상(異象) 부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교제하겠다. 교회는 하나님나라가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교회 건축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나님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 곧바로 하나님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내 허락이 아니라면). 교회는 시작 단계일 뿐이고, 하나님나라야말로 내 경륜의 근본 취지이다. 사람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오직 나와 내 장자들만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만국 만민을 다스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내 나라가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왕이 될 자와 백성이 될 자가 모두 공개된 상황이다. 앞으로의 일들은 단계별로 차례차례 일러 줄 것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다면, 나는 네게 진실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에게는 나 역시 무성의한 태도로 대할 것이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지 보게 할 것이다!

제78편

말했듯이,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든 손쉽게 즐겁게 하지만 너희는 나와 크게 다르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 어렵기 그지없다. 나는 옳게 여기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 내가 옳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케 할 것이다. 사람은 나의 사역에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내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오로지 내 사랑의 품에 안기어라. 나는 너희에게 허풍을 떠는 것도 아니고 큰소리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면,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늘 애가 탄 나머지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고 내가 한 말이 빈말일까 봐 두려워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 ‘활로를 찾아 준다’. 눈멀고 어리석구나! 자신이 몇 그램이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나의 모사가 되려고 하다니. 네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 자신이 어떤 꼴인지 비춰 보아라!

내가 알려 주마!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믿음이 지극한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너희에게 임할 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때, 너희는 모든 것을 내걸고 나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이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킨다. 나의 아들이! 너는 내가 한 말을 아직 마음속에 새기고 있느냐?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말 말이다. 오늘 너는 정말로 이 말의 함의를 깨달았느냐? 나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에 말할 때 숨긴 부분도 오늘은 하나하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는 것이다. 어떤 숨김도 없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나의 참뜻이다. 하물며 내 앞에 감춰진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이는 나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는 내 정상 인성의 일면이 있고, 내 완전한 신성의 일면도 있다. 너희는 이 말을 확실히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네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내게 있어 어떤 사람이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이 간사한 여우인지, 아니면 개나 늑대인지는 모두 내가 정해 놓은 시간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는 정말로 이해했느냐? 과거, 너희는 줄곧 그날이 나의 날을 가리킨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에 근거한

해석에 불과하다. 너에게 알려 주겠다! 앞으로 나의 말을 또다시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그릇된 존재’이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그날은 너희가 복을 누리는 날, 그러니까 온갖 악령이 나의 교회에서 쫓겨나 멸망하며, 사람의 행하는 모든 방법이 거부당하고, 더욱이 모든 재난이 임하는 날을 가리킨다. 기억하여라! ‘모든 재난’이다. 다시는 오해하지 말라. 나의 재난은 나의 손에서 한꺼번에 전 세계에 쏟아질 것이다. 단, 나의 이름을 얻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절대 그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느냐? 내가 말을 할 때는 바로 내가 일을 시작할 때이다(재난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쏟아졌음). 너희는 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내가 왜 조금도 늦추지 않고 너희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지 너희는 확실히 알고 있느냐? 국제 정세가 긴박할 때, 즉 국내의 소위 그 집권자들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 다시 말해 시한폭탄이 터지려 할 때, 참도를 찾는 일곱 나라의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 두고 붓물이 터진 듯 필사적으로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들 중에는 내가 택한 자도 있고, 나를 위해 힘쓰는 자도 있겠지만 장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행사이며, 내가 창세전에 이미 해 놓은 일이다! 그러니 사람의 관념을 버려라. 내가 허투루 말한다고 여기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이미 이룬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 또한 내가 이미 이룬 일이다. 분명히 알았느냐?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생각과 계획에 달려 있다. 나의 아들이!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위해서이며, 더욱이 너를 사랑해서이다. 감히 속으로 불복하거나 시기심을 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나의 저주와 불사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내 나라의 행정 법령과 관련된 일이다. 오늘날, 하나님나라가 이미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이, 너는 신중해야지 이를 밑천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고심을 깨달아야 한다. 나의 아들은 이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을 그다음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거둬 압박을 가하지 말라.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든 그것은 내가 미리 예정한 것이고, 내 신성한 성품의 일부 발현이다. 의심하지 말라! 나는 너를 증오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겠느냐?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냐? 아직도 너의 ‘두려움’에 통제되고 있느냐? 나는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열성적인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간사한지 알고 있다. 말했듯이, 나는 성도들의 상태를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드러났지만(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며, 단지 너희에게 나의 정상 인성의 일면을 보게 할 따름이다), 너희가 보기에는 감추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 탓이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나의 발이 모든 것을 밟고 있으며, 나의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는데, 그 누가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정결하지 않은 자, 말 못 할 비밀이 있는 자, 뒤에서 판단하는 자, 마음속으로 맞서는 자 등 내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모든 이는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낄낄이 털어놓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뭔가 느낀 자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현명한 사람은 어서 회개하고, 바보라면 그냥 기다려라! 그때 가서 누가 화를 입는지 보자!

하늘은 여전히 원래의 하늘이고, 땅도 여전히 원래의 땅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하늘과 땅은 이미 바뀌어 이전의 하늘과 땅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오늘날의 하늘은 무엇을 가리키고, 이전의 하늘은 또 무엇을 가리키느냐? 내가 교통해 주겠다. 이전의 하늘이란 믿기만 하고 본 사람은 없는, 그러나 너희가 진심을 다해 믿었던(볼 수 없기 때문임) 하나님을 의미한다. 반면, 오늘날의 하늘이란 나의 정상 인성에 나의 완전한 신성을 더한 것을 말한다. 즉, 이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똑같은 한 분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새로운 하늘이라고 하겠느냐? 이것들은 사람의 관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오늘날의 땅이란 너희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전의 땅에는 성결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지만, 오늘날 너희의 발길이 닿는 곳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땅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움’이란 바로 ‘거룩함’을 뜻한다. 지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이를 밝히 알고 있느냐? 나는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낄낄이 드러낼 것이다. 조금해하지 말라. 더욱 큰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제79편

눈이 멀었구나! 우매하구나! 폐물 같은 것들이 나의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분리하다니! 너희는 이것이 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는 내가 사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실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는 내 정상 인성의 일면만을 인식할 뿐, 내 완전한 신성의 일면은 조금도 보지 못했다. 누가 뒤에서 나를 기만하는지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지켜보겠다. 내가 수천, 수만 번을 말했건만 너희의 악행은 줄어들지 않았다. 어째서 거듭 기만하는 것이냐? 죽고 싶어서 그러느냐? 내 심기를 건드려 나의 분노가 한계에 이르면 나는 인정사정없이 단번에 너를 차 버릴 것이다. 그때는 예전에 네가 어땠는지,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길을

달렸는지,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조금도 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면 나는 너를 무저갱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기만하겠느냐! 명심하여라! 앞으로 나의 화를 돋우는 자는 누구든, 두 번 다시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없도록 즉시 제명하여 후환을 없앨 것이다. 네가 대적한다면 나는 즉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모두 명심했느냐? 현명한 자는 어서 회개하여라.

오늘, 즉 지금 이 순간 나는 노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위해 너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손을 뻗어 너를 칠 것이며, 이로써 모두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오늘 나는 모든 이를 진노와 위엄(심판보다 더 강한 것)으로 대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너희는 조금도 반응이 없다니, 정녕 이렇게까지 어리석단 말이나?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마귀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알았느냐? 어서 상태를 돌려세우라! 오늘날 성령이 이 정도로 역사하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였느냐? 나의 이름이 장차 열국, 열방의 가가호호에 퍼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주 세계 모든 사람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다. 나, 곧 이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발현이다. 누가 감히 나를 경외하지 않겠고, 누가 눈빛으로 나와 맞서겠으며, 누가 입으로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런 자는 반드시 내 저주와 진노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진노가 있으므로 저주함). 또 누가 감히 나에게 불충하고 불효하며, 허튼수작을 부리겠느냐? 그런 자도 반드시 나의 증오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나의 공의와 위엄, 심판은 영원히 세세토록 존속할 것이다. 처음에 나는 자비와 긍휼이었지만, 이는 내 완전한 신성의 성품이 아니다. 공의와 위엄, 심판이야말로 나,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다. 은혜시대에 나는 자비와 긍휼이었다. 그때 내가 자비와 긍휼을 지냈던 것은 완성해야 할 사역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자비나 긍휼이니 할 필요가 없어졌다(앞으로도 없을 것임). 오직 공의와 위엄, 심판뿐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정상 인성에 완전한 신성이 더해진 완전한 성품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저갱에 떨어져 멸망할 것이고, 나를 확신하는 자들은 내 사랑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면 온 우주는 물론 땅끝도 진동한다. 누가 내 말을 듣고도 전전긍긍하지 않겠느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공의와 위엄을 깨닫지 않으랴! 또 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의 전능과 지혜를 보지 않으랴! 누구든 유의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유의하지 않는 자는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이자 나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천사장이며, 가장 방자한 자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라. 누구든 방자하고

독선적이며 거만하게 굴고 스스로를 크게 여긴다면, 그자는 분명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지금 나는 내 나라의 행정 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모든 것이 내 심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또한 내 공의와 위엄 안에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든 공의를 행할 것이다.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게 맞서거나 나를 이미 저버린 자는 내가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나의 때가 있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풍자의 뜻이 담긴 말을 하는 자는 즉시 죽을 것이다(그의 영, 혼, 육을 가리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억압하거나 냉대하는 자는 내가 즉시 진노로 심판할 것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여기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넘겨 심판받게 할 것이다. 성실하고 무던한 자(지혜가 부족한 자 포함),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는 모두 나의 나라에 남길 것이다. 훈련받지 못한 자, 즉 지혜와 식견이 부족한 정직한 자들이 내 나라에서 권세를 잡겠지만 다듬어지고 깨지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훈련받는 과정이 결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내게 의혹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단번에 차 버리겠다. 그런 자는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이러한 때조차 아직 나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니, 나는 이런 자를 혐오한다). 내가 전 우주에서 하는 일을 통해 정직한 자들로 하여금 나의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의 지혜와 식견과 분별력을 키워 줄 것이다. 반대로 간사한 자들은 나의 기묘한 행사로 인해 순식간에 파멸될 것이다. 일찍이 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장자들(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직한 자들)은 먼저 내 나라에 들어가 나와 함께 만국 만민을 다스리고, 내 나라에서 왕권을 잡아 만국 만민(모든 장자들만이 내 나라에 있고 다른 사람은 없음을 의미함)을 심판할 것이다. 만국 만민 중에 심판을 받고 회개한 자들은 나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겠지만,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다(영원한 멸망을 가리킴). 이는 내 나라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심판이며, 내가 세상을 완전히 깨끗게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더 이상 불의도, 슬픔도, 눈물도, 탄식도 없을 것이며, 세상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온통 그리스도의 발현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얼마나 큰 영광이냐!

제80편

모든 일에서 나와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해질 수 없다. 현재 너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의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가 나의 정상 인성에만 주목할 뿐, 나에게 완전한 신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듯하다. 이것은 나에게 대한 모독이다! 알겠느냐? 너희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당장 그 고질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죽임을 당하리라. 내 앞에서 수작을 부리고(정인군자처럼 겸손하고 인내하는 척하는 것), 내 뒤에서 또 다른 수작을 부리다니(완벽한 위선자로, 절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며, 내키는 대로 온갖 짓을 하고, 당을 짓고 독립 왕국을 세우며, 나를 배반하려 하는 것) 눈이 멀었구나! 사탄에게 가려진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기묘한 줄을 모르다니! 나의 전능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힘써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느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신분을 속이고 내 앞에 와서 으스스대다니 천하도다! 내가 너를 집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이 같은 자를 쓰지 않는다.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 대로 행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두려워 말라. 누구 하나 섭섭지 않게 나의 계획과 공의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 악을 저지른 자는 창세 이래로 사탄의 후손이었으므로 나는 그들을 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이다. 사람이 간파하지 못하는 일도 나에게서는 모두 숨김없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네가 몇몇 사람의 눈을 속이고 많은 이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에게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너는 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안목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눈앞의 일이나 조금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정도만 되어도 꽤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막힘없이 형통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내 다스림을 따르지 않을쏘냐! 누가 감히 내 경영을 방해할쏘냐! 누가 감히 나에게 불충불효할쏘냐! 누가 감히 내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고할쏘냐! 그런 자는 내 분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설령 지금 네가 진심으로 승복하고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여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무저갱에서 끌고 나와 다시 내 진노의 징벌을 받게 하겠다(증오가 극에 달함). 네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보자. 나의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떼어 놓는 것은 내가 무엇보다 증오하는 일이다.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내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그런 자를 갑절로 축복하여 내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사탄을 모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라. 모든 것에는 나의 시간이 있는 법이다. 내가 예정한 시간에 1초의 차이가 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함부로 일하지 않고 정확하게 절차 있게 진행한다. 사람이 보기에 나는 조급해하지 않으며 태산처럼 안정적일 것이다.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냐?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일찍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거늘 모두가 조급하여 하루빨리 나를 위해 힘쓰고자 기다리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온 우주 세계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은 오직 너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나의 경영에 끼어들지 말라. 나는 만국 만민으로 하여금 나의 일을 통해 나의 전능을 보게 할 것이고, 나의 기묘한 행사를 통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하고 찬미하게 할 것이다. 말했듯이, 나는 근거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나의 공의와 위엄, 나아가 나의 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 자는 반드시 내 축복과 보호, 보살핌을 받을 것이며, 형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천륜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알겠느냐? 고통은 영원하나 즐거움은 더욱 영원하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받기 시작할 것이다. 네가 고통을 받을지, 기쁨을 얻을지는 죄를 인정하는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 너 자신이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인지는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은 지금부터 나의 크나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은 지금부터 호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현재,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형벌을 받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알겠느냐! 다시 말해, 현재 네가 얻는 것이 나의 책망과 엄한 심판의 말이라면, 너는 내게 혐오와 증오를 받는, 나에게 버림받을 대상이다. 반면, 네가 얻는 것이 나의 위안과 생명의 공급이라면 너는 이미 나에게 점유되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다. 그러니 정신을 놓지 말라!

나는 사람의 실제 상태에 맞춰 말을 한다. 너희는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다고 여기느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여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머지않아 참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너희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뤄질 테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게 된다. 너희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모르는 것이냐? 나의 이 말을 들으면 확실히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일을 그르치지 않고, 허언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그러기에 너희에게 빨리 나의 훈련을 받아들여 그들을 인도하고 목양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나는 너희를 통해 그들을 온전케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통해 나의 크나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 중에서 한 무리를 택해 나를 나타내게 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고,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경영이고,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을 유황불 못과 무저갱에 처넣고, 큰 붉은 용을 확실히 던져 죽여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저갱에 던져질 자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증오는 이미 극에 달했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는 보지 못하였느냐? 충성하지 않는 자, 교활하고 간사한 짓을 하는 자들이 이미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오만 방자하고 독선적이며 건방진 자들은 천사장의 후손이자 가장 전형적인 사탄이며, 모두 나의 적이고 원수이다.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벌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 마음속 한이 풀릴 것이다. 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행하고,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황불 못과 무저갱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사람들은 유황불 못을 물질적인 것으로 상상하지만, 그것이 크게 틀린 해석인 줄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줄곧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황불 못이란 사람을 형벌하는 나의 손을 가리킨다.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내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말로, 그런 자의 영, 혼, 육이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말의 참뜻이다. 그렇다면 무저갱이란 또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사람은 관념으로 무저갱이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못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무저갱은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사람이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지면 무저갱에 들어간 것처럼 날개가 돋친다 해도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로서, 내가 예비해 놓은 것들이다.

제81편

사악하고 음란한 옛 시대야! 내가 너를 몰락시켜 버리리라! 시온산아! 일어나서 나를 위해 환호하라! 내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기 위하여 누군들 일어나 환호하지 않으랴! 누군들 일어나 춤추지 않으랴! 그러지 않는 자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하리라! 나는 모든 이에게 공의를 실행한다. 여기에는 어떤 긍휼도, 자비도 없고, 인정도 전혀 없다. 만백성아! 일어나 찬미하며 내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무궁무진한 영광은 모두 나로 인해 존재하고 나로 인해 생긴다. 누가 감히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랴? 누가 감히 나의 영광을 한낱 물건 취급하랴? 그러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내 손에 죽임을 당하리라! 잔혹한 인류야!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에게 공급했으며, 또 너희를 오늘날까지 이끌었으나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의 인식도, 사랑도 없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또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구원을 베풀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오직 진노로 대할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파멸로 답할 것이고, 영원한 형벌로 업보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이다. 오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의 나라는 견고하고 안정되어 언제까지나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나의 아들과 나의 장자, 나의 백성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복을 누리리라! 반면 영이 통하지 않는 자들, 성령의 계시가 없는 자들은 머지않아 나의 나라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철장(鐵杖)의 다스림과 나의 위엄에 쫓겨나는 것이며, 나의 발에 차이는 것이다. 과거, 한때 악령이 들렸던 자들(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를 가리킴)은 오늘날 모두 모습을 드러내리라. 나는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나, 곧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은 불결하고 더러운 전에 거하지 않는다. 악령이 들렸던 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런 자는 내가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사탄 주제에 감히 내 나라에 섞여 들어오려 하다니! 꿈도 꾸지 말라! 내가 알려 주겠다!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해 주겠다. 인류를 창조할 때,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의 내면에 나의 자질과 성품을 더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날 나에게 충성을 바치고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원한다. 반면,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은 사탄에 의해 심히 파괴되었고 나의 자질이나 성품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너희는 내 말이 모순적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예정하고 택한 것이며, 또한 너희의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은 사탄을 가리켜 한 말이다. 지금 분명히 말할 것이 있다. 오늘날 일어나 교회의 권병을 담당하는 자, 교회들을 목양하는 자, 나의 부담을 생각하는 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전부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다. 이를 알려 주는 것은 너희가 걱정으로 가득하여 생명의 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그것이 졸업장을 받듯 그렇게 쉬운 일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진작에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파괴되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 자들을 시시각각 돌보고 지켜 주며,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예정하지 않은 자, 즉 악령이 들렸던 자, 교회를 목양할 수 없는,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영이 트이지 않은 자(언뜻 열정적인 것 같지만 이상(異象)이 명확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킴)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내가 너를 보고 역겨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빨리 사라질수록 형벌을 적게 받을 것이고, 지체할수록 형벌은 무거워질 것이다. 알겠느냐? 뻔뻔스럽게 굴지 말라. 너는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굴고 거드름 피우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눈이 멀었도다!

내 나라에서 권세를 잡을 자들은 전부 내가 정성 들여 고른 후, 수차례의 검증을 거치게 한 자들이며,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힘을 더해 줬으니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도, 길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나의 검증을 통과한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원형을 드러내고 온갖 추악한 일을 다 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탄을 형벌하고 불사르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전부 나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며, 내가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다. 내가 항상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며, 사랑의 눈길로 보살피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악인의 간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음모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나는 나를 위해 봉사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다. 내가 왜 그것들을 하루빨리 내 나라에서 쫓아내려 하겠느냐? 내가 왜 그들을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내가 그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내가 그들을 증오하겠느냐? 어째서 치려고 하겠느냐? 어째서 멸하려 하겠느냐(내 눈앞에 그들의 잿더미조차도 보이지 않게 없애려 한다)? 어째서겠느냐? 큰 붉은 용, 옛 뱀, 사탄인 주제에 내 나라에 빌붙으려고 하다니! 꿈도 꾸지 말라! 전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멸하고 나의 나라로 탈바꿈시켜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세세토록 함께하며 함께 누릴 것이다! 불결한 것들은 내 나라에 있을 생각을 버려라. 틈탈 기회를 엿보느냐? 꿈도 꾸지 말라!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함을 모른단 말이냐! 내 손이 모든 것을 지배함을

모르단 말이나! 자신이 꽤나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모두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을 터이니 겸손한 척하지 말고(복받는 자들을 가리킴),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지도 말라(화를 입는 자들을 가리킴). 지금, 내가 이름을 짚어 가며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들의 현 상태에 빗대어 내가 택한 자의 모습과 택하지 않은 자의 모습에 대해 다 말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 중에 내가 택한 자가 있으면, 나는 그 모습에 따라 내가 택한 자에게는 어떤 상태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상태를 짚어 가며 알려 주었다. 따라서 내가 이미 매우 분명하게 말해 주었으니 누구나 속으로 잘 알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 수는 몇 안 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거짓으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라고 말했으면 틀림없다. 네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나의 자질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두말하지 않으므로 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생각대로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들은 전부 옳기 때문이다. 나는 지고지상하며, 유일무이한 자다.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악행을 저지르는 자,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도 지금은 나의 말을 보고 힘을 다해 진보하고자 하며, 주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자그마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어물쩍 내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니, 망상을 하는구나(이들에게는 가망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나라의 대문은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나의 나라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의 나라가 별의별 폐물까지 다 받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온갖 썩은 물건까지 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산이다! 오늘날, 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나와 왕권을 잡을 자들이며,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운 자들이다. 네가 원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안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 나의 비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즉 내가 택하지 않은 대상들은 받아들일 자격이 없으며, 설령 듣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며 그들의 전 존재를 마구 짓밟아 놓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내가 하는 일을 기묘하고 지혜롭다 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힘쓰도록 움직인다고 하겠느냐?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징벌하고, 파괴되게 할 것이다. 이로써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이토록 지혜롭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나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제82편

내 말을 들으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전전긍긍한다. 뭐가 두렵단 말이나?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구나. 너희가 내 뒤에서 경박하고 무가치한 짓들을 저질러 나로 몹시 증오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을 당장이라도 무저갱에 던져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 그러니 잠시 네 알량한 목숨을 살려 주도록 하겠다. 그러나 나를 위해 힘쓰는 일이 끝나면 너를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나는 너 같은 것, 꼴도 보기 싫다. 그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알겠느냐? 이해했느냐? 쓸모없는 천박한 것! 똑똑히 알라! 너를 언제 쓸지도 내가 정하고, 언제 쓰지 않을지도 내가 정한다. 만유가 내 지배하에 있으며, 일체 모든 것이 착실하게 순순히 내 손안에서 주관된다. 감히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다면 내 손이 당장 그를 치리라. 나는 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손으로 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일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말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 말의 참뜻을 이해하겠느냐?

나는 나를 위해 힘쓰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나라에 자리가 없다. 그런 자들은 바깥일에 정신이 없을 뿐,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들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가장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나의 뜻대로 행하고, 나의 부담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나를 위해 전 존재를 바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시시각각 깨우쳐 주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축복’이란 무슨 의미겠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이는 현재 성령 역사에 비추어 말하면 내가 너에게 더해 준 부담을 의미한다. 교회에 부담을 갖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놓는 자라면 그의 부담과 그의 진심은 모두 나의 축복이다. 또한, 내가 그의 마음에 더해 준 계시 역시 나의 축복이다. 지금 부담을 지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대상이고, 이미 나의 저주가 임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예정하고 택한 대상은 내가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몫이 있지만,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대상은 내가 말하는 부정적인 것에만 몫이 있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분명해질 것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 내가 예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창세전부터 나의 저주를 받았다. 어째서 너희가 태어난 연, 월, 일, 심지어 시, 분, 초까지 모두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몇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될지, 나는 이미 오래전에 예정해 놓았다. 이는 모두 내 심중에 있던 일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게 귀하게 여겨졌으며, 일찍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다 가치가 있고 나의 뜻이 있다. 사람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이나! 내가 사랑하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몇 명을 제외하고 또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아들이 된 자들은 또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백성들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전에 말한 ‘내 아들’은 다 장자를 가리킨 호칭이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들과 백성들이 그것이 자신들에 대한 ‘존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뻔뻔하게 내 장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너에게 자격이 있느냐? 오늘날 유일하게 입증된 자, 바로 내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내 보좌와 면류관, 영광, 나라에 분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심하게 계획한 것이다. 오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는 태어나서부터 열악한 가정 환경, 자신의 앞날, 직업, 혼인 등등에서 다 크나큰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겪었다. 장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명분이 아니다. 일찍이 인생의 쓴맛, 닳맛, 신맛, 매운맛을 경험하였다. 지난날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집에서 편히 지낸 자들은 장자의 자리가 없다. 그들은 장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내 이름만 욕되게 할 뿐이니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아들과 백성들 가운데 내가 택한 자들 역시 세상에 있을 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장자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지금 내게 쓰임 받는 자들이 일부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백성 될 자격조차 없는, 영원히 침륜될 대상이다. 나는 잠시 그들을 써서 나를 위해 봉사하게 할 뿐이지, 오래도록 사용할 생각은 없다. 내가 오랫동안 쓸 자들은 이미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말해, 내가 중용하는 자, 즉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미 쓰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역할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내가 증오하는 자들은 현 단계에서 잠시 쓰임 받을 뿐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때 장자들이 너희 앞에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가 빨리 자라서 나의 부담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이 부담은 너희들의 역량에 따라 짊어지는 것이므로 과하지 않다. 나는 너희의 분량과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들이 기꺼이 자신을 바치며, 그 어떤 공간적, 지리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 구애받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증오하는 것을 증오하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를 바란다. 또한 너희가 어디에 있든 영적으로 자유롭고, 장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를 바란다. 오늘날, 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칠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불철주야할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집안일을 돌볼 자가 누구냐? 내 어깨의 짐을 털어 줄 자가 누구냐? 내 아들 말고 누가 더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

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내 아들을 위해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알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나의 장자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일을 그르치지 않으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도, 너를 무시한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또한, 내가 너의 진가를 몰라준다고도, 내가 너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 내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네게 자격이 없었을 뿐이다! 알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확증을 주겠다. 항상 나의 노를 자극하는 자, 항상 나의 질타와 책망을 받는 자는 틀림없이 내가 증오하는 대상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는 이미 정해졌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장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안색을 보여 준다면 그 사람은 위험하다. 두렵지 않느냐? 나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이 다 그 말로 인해 죽는다. 다만 영은 죽고 육체는 남을 것이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자율적이지 못한 것이다(이미 사탄에 의해 이 지경까지 파괴된 것임). 그의 육체가 언제 멸망할지는 내가 적절히 안배해 놓았고, 정해 놓은 시간이 있다. 그의 영이 죽으면 나를 위해 제대로 힘쓸 수 없다. 나는 그의 육체를 통해 내 기묘한 행사를 드러낼 것이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내게 철저히 복종할 것이고, 칭찬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매우 작은 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거나 죽을 것이며, 나를 위해 힘쓴 후에 물러가게 할 것이다. 설령 사탄이라 해도 나를 위해 힘쓴 후 무저갱 속으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절차는 모두 안정적이고 알차며, 피상적인 것들이 전혀 없다.

누가 감히 나에 비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내 반대편에 서겠느냐? 내가 그자를 당장 치리라! 단번에 육체까지 멸하여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다. 나는 말을 하면 즉시 실천하며 절대로 되돌리지 않는다. 세상은 날마다 무너져 가며, 사람은 날마다 멸망하고 있다. 반대로 나의 나라는 나날이 형태를 갖추고, 나의 장자는 나날이 성장한다. 나의 진노는 매일 쌓여 가고, 나의 형벌은 날로 무거워지며, 나의 말은 날로 엄해진다.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어조가 온화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포기해라! 그것은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지에 달렸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어조가 온화하고 언제나 위안을 주지만, 너희에게는 그저 엄한 말과 심판, 그리고 형벌과 진노만 있을 뿐이다. 부지불식간에 세계 각국의 형세는 갈수록 긴박해지며,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진다. 또 각국의 수뇌들은 모두 최후의 권세를 차지하려 한다. 정말이지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나의 형벌이 이미 임한 마당에 감히 내 권력을 넘보다니, 망상이구나! 연합국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용서를 빌 것이다. 그의 악행이 적지 않으니 형벌의 때가 왔다. 나는 그자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집권자들은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오직

나만이 만유를 관장할 자격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 몇 안 되는 외국인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은 물론, 나를 연구하는 자들도 즉시 쳐 버릴 것이다. 나의 사역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이다. 날마다 새로운 계시가 있고, 날마다 새로운 빛이 있으며, 일체 모든 것이 갈수록 온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날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고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제83편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모르고, 만사와 만물이 다 내 손안에 있음을 모르는구나!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이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는 전부 나의 허락에 달려 있고 나의 행사에 달려 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이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 음란한 시대에, 사탄에 의해 깊이 패괴된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뜻에 합한 자는 몇이나 되느냐? 오늘도, 어제, 머지않은 미래에도, 모든 사람의 일생은 다 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그들이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 나에게 사랑받을지 증오받을지는 내가 한 번에 결정한 것이다. 누가 감히 자기 발걸음은 자기 스스로 걷는 것이라고, 자기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방자하게 굴 수 있겠느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마음으로 내게 복종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감히 제멋대로 구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자는 내가 당장 형벌하고, 다시는 인류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막 받아들였을 때가 바로 내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푼 때였다. 다시 말해, 나는 일부 사람을 택했으며, 그들은 비록 영원히 복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은혜를 적잖이 누렸다. 그러므로 너를 영원한 복을 받을 자로 예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에게 박하게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직접 화를 입은 자들보다는 훨씬 낫다.

내 심판은 확실히 절정에 이르렀고, 미증유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은 진노의 심판이니 과거 위엄의 심판에 비하면 차이가 아주 크다. 지난날, 사람들은 심판이 임해서야 조금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말 한 마디만 들어도 혼비백산하며,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입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내가 음성을 발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화들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당장에라도 땅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컴컴한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악령이 들린 자이므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 내가 큰 붉은 용, 옛 뱀을 심판할 때, 그들은 목을 움츠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인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사탄의 후손이다.

예전에 나는 “예정하고 택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렇다면 예정하고 택했다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예정하고 택했느냐?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것은 또 어떤 경우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다 내가 분명히 설명하고 짚어 줘야 하며, 직접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해 준다면, 둔한 자들은 그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이는 나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나는 숨기는 것도, 속이는 것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만물을 창조할 때, 나는 먼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화초, 수목, 산천 호수, 땅과 바다, 각종 곤충, 각종 조류, 각종 동물, 사람의 먹을거리와 볼거리 등)을 만들었으며, 지역에 따라 사람을 위한 각종 식량을 만들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며, 다른 한 부류는 사탄의 자질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내가 창세전에 만들었으나 사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한 부류를 만들었고 그들을 예정하고 택하였는데, 그들은 각자 다른 정도로 나의 자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택한 자들도 서로 다른 정도로 나의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들이 비록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모든 단계는 내 경륜의 일부이다. 어째서 정직한 자들이 나의 나라에서 권세를 잡는다고 하겠느냐? 모두 내가 미리 안배해 놓은 것이다.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은 어떻게 해도 정직해질 수가 없다. 그들은 사탄에게서 태어났고, 사탄에게 점령당했으며, 줄곧 사탄에게 예속된 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희가 추측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짚어 주겠다. 나는 내가 온전케 할 대상을 돌보고 지켜 준다. 반면, 내가 증오하는 대상은 나를 위해 힘을 다 쓴 후 나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나는 이들을 언급하기만 해도 화가 난다. 이들을 언급할 때면 당장에라도 처리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내가 일을 하는 데는 절제가 있으며, 내가 하는 일과 말에는 정도가 있다. 내가 노하면 단번에 세상을 눌러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예정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나 화가 풀리면 나는 다시 세상을 떠받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세상이 더 이상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면 나는 그 즉시 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말 한 마디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이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아도 도처에 나의 놀라운 행사가 충만하다. 앞으로의 여정은 비할 바 없이 더 빛날 것이다. 내가 순차적으로 주는 계시는 다 너희에게 지시해 주는 길이자, 내 경륜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계시가 더 많아지고 더 명확해질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나의 계시와 발걸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이미 형체를 갖췄고, 일체의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었다. 복을 받을 자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고, 화를 당할 자는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나의 비밀은 많고도 많다. 내가 보기에 가장 간단한 말도 너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갈수록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적기에 내가 한 마디 한 마디 설명해 줘야 하겠지만, 너무 성급해하지는 말라. 나는 내 사역에 따라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제84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여 수도 없이 내 경영을 방해하고 내 계획을 망쳤지만, 내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갖고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은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고, 완벽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나의 지혜뿐 아니라 숨겨진 비밀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비밀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비밀이다. 오늘 너희는 그 비밀, 그러니까 내 본체를 보았을 뿐, 거기에 숨겨진 비밀은 열지 못했다. 사람은 오직 나의 인도를 따라야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다. 과거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말은 시대에 뒤쳐진 지 오래다. 그것은 낡아 빠진 개념이므로 지금에 와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너희 중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이 정도로 나를 확신하는 자가 또 몇이나 되느냐? 모두 내가 분명히 말해 주고, 명확히 지시해 주어야 한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파멸되었다. 사탄의 백성들도 곧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을 마치고 내 집에서 하나씩 쫓겨날 것이다. 즉, 지난날 분장하고 갖가지 배역을 맡은 자들이 오늘날 모두 본모습을 드러내 내 나라에서 내쳐질 것이다. 명심해라! 오늘부터 내게 버림받는 자들은 — 이전에 버림받은 자들을 포함하여 — 모두 연기자이고 가짜들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한바탕 연극을 공연했을 뿐이다. 이제 막이 내리면 무대에서 내려가야 한다. 반면, 진정한 나의 아들들은 정식으로 내 나라에 돌아와 내 사랑을 받고, 내가 일찍이 예비해 놓은 복을 누릴 것이다. 장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일찍부터 내 훈련을 받은 까닭에 오늘 내게 쓰임 받기 합당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어라.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도 내게는 막힘이 없으며,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장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렸고, 또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왜 자신이 그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온 우주 세계에서 너희는 이 작디작은 중국에 국한되어 있을 참이냐? 나는 온 우주 세계의 사람을 모두 너희 손에 맡겨 목양하고 인도하게 할 것이다. 형제들을 이끄는 것은 장자인 너희가 이행해야 할 직책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누리도록 할 것이다. 사역하는 이는 나다. 즉, 성령이 각지에서 역사하고 친히 이끄는 것이다.

이전에는 나의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느냐? 내 구원의 대상은 다음의 몇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처음에는 예정되어 한동안 나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예정한 때가 되면 내쳐질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생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세 번째 부류는 내가 예정하고 택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거기에는 나를 받아들인 전후로 겪은 고난과 나를 받아들인 후에 얻은 깨우침과 빛 비춤이 포함된다. 그들은 앞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나는 그들을 철저히 구원할 것이며, 이는 내 대업이 이뤄졌음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너희에게 묻노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혐오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지난날, 너희가 고난을 겪은 이유는 나를 얻고 생명이 성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은혜의 일부이다. 복이란 앞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혐오하는 것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너희의 실생활 속에 더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은 너희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가정, 직업, 아내, 남편, 자녀, 친척, 친구는 물론, 너희가 지긋지긋해하는 하루 세끼도 사라질 것이다(이는 시간의 제약 없이 완벽하게 육신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풍족해야 너희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는 육체가 아닌 몸을 가리킨다. 완전히 자유롭고 초월하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보여 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이적과 기사이다.). 너희 몸에서 모든 흠의 성분이 사라지면, 완벽히 거룩하고 오점 없는 영체가 되어 우주 땅끝까지 누빌 것이다. 사람을 귀찮게 하던, 씻고 닦는 그런 일도 없이 너희는 마음껏 누릴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던 출산도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 너희는 일할 필요도, 노동할 필요도 없이 내 사랑의 품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을 오롯이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다. 너희는 복을 누리겠지만, 은혜 또한 계속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예비한 것, 즉 세계 각국의 진귀한 보물을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인데, 지금 너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그것은 사람이 한 번도 누리 보지 못한 복이다.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한없이 기뻐하겠지만, 그것이 전부 나의 큰 능력임을, 나의 행사이자 공의, 나아가 나의 위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나는 은총을 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은총을 내리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 그때가 되면 너희는 부모는 물론, 어떤 혈연관계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더 이상은 그 누구도 감히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성장해 성인이 된 때이며, 철장(鐵杖)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이다!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로막겠느냐?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공격하겠느냐?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으니 모두들 내 사랑하는 아들도 경외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체의 모든 것들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은 무궁무진하여 아무리 취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머지않은 미래에 너희는 햇볕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찌는 듯한 더위나 추위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비와 눈, 바람 또한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그곳은 완벽히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예비해 줄 것이다. 누가 감히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하겠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당장 그를 칠 것이다. 말했듯이, 나의 진노는 영원히 존재하며(악한 자에게) 조금도 가벼이 넘어가지 않지만, 나의 사랑 또한 영원히 존재하며(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 말이 심판이라고 듣는 자들은 모두 그릇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아챘을 때, 성령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 나는 온 우주 세계에서,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장자들을 택하지만, 아들과 백성들은 너희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온 우주 세계에 주안점을 둔다. 즉, 세계 각국에서 아들과 백성들을 택한다는 뜻이다. 알겠느냐? 내가 왜 장자들에게 한시바삐 성장하여 외국인들을 이끌라고 거듭 강조하겠느냐? 내 말의 참뜻을 깨달았느냐? 중국은 내게 저주받은 나라이고, 나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이기에 내가 가장 증오하는 나라이다. 명심해라! 나와 나의 장자는 하늘에 속한 우주 사람이므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의 본체를 이미 너희에게 보여 주었으니, 고집스럽게 사람의 관념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렸다. 나의 말을 기억해 두었느냐? 내가 왜 너희가 점점 소수 정예가 되어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 구원의 은혜가 점차 우주 세계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떠난 자는 내 이름만 받아들인 자들로, 모두 장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힘만 쓴 자들이다. 알겠느냐? 내가 왜 모두 나의 아들을

위해 힘만 썼다고 하겠느냐? 오늘, 그 이유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은 확실히 몇 명 되지 않지만, 내 아들로 인해 적잖은 덕을 보고 적잖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 말의 참뜻을 알았을 것이다! 누구든 나를 대적하면 호된 형벌을 내릴 것이며, 누구든 나를 지지하면 내가 그에게로 향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위엄 있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나의 행사는 빠르고도 기묘하다. 얼마 안 가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기묘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곧’, ‘얼마 안 가’라고 말했다. 알겠느냐? 어서 생명 진입을 추구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있고,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

제85편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써서 내 뜻을 이룬다. 즉, 나의 저주는 내가 형벌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나의 축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현재 너희 중 누구에게 축복이 임할지, 누구에게 저주가 내려질지는 모두 나의 말 한 마디와 나의 음성에 달려 있다. 알다시피, 현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늘 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나에 대해 차츰 알아가고 확신하며 새로운 빛과 계시를 받으며, 내 사역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을 가리킴), 내가 증오하는 자에게는(이는 모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사람이 겉만 봐서는 알아챌 수 없음) 분명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그런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붉은 용의 자손이므로 내가 큰 붉은 용에게 내린 저주에 묶이 있다. 자질이 부족해 온전케 될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져 내 눈에 차지 않는 자일지라도 그나마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 아들은 될 수 있다. 또 어떤 자는 나의 자질을 조금도 갖추지 못하고 영이 통하지도 않으며 나를 모르지만, 그래도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저주받는 대상에 묶이 있는 자는 내가 보기에 이미 구제 불능이고,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다. 그런 자들은 당장에라도 차 버리고 싶다. 그는 본디 큰 붉은 용의 소생이므로 나는 누구보다 증오한다. 이제부터 그런 자는 나를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자를 원치 않는다!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내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다.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단번에 너를 차 버릴 것이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 따위가 내 앞에 올 자격이 있느냐? 그럴 만하다고 여기느냐? 좋은 사람인 양, 겸손한 척 가식을 떨다니! 나쁜 일을 수도 없이 저질러 놓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 리 있겠느냐? 내 앞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나를 대적하기 시작하다니, 네게는 처음부터 좋은 심보가 없었다. 나를 기만하려고 들다니! 큰 붉은 용의 후손인 네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너는 이미 내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너를 철저히 심판하리라! 일편단심으로 착실하게, 순순히 나를 위해 힘쓰고 그다음에는 네게 속한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내 나라에 동참하려고 하다니, 꿈도 야무지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파괴될 만큼 파괴되어 버린 더럽고 부정한 몸을 가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선단 말이나! 썩 물러서라! 한 걸음이라도 머뭇거렸다면 내가 너를 중형에 처하리라! 내 앞에서 교활하고 간사한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어디로 숨으려느냐? 또 어디로 피하려느냐? 아무리 숨고 피한들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나를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너의 수명은 더욱 짧아질 것이다. 내가 즉시 너를 끝장내리라!

나는 어떤 사람이 나의 장자인지 너희에게 똑똑히 알려 주고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함부로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어떤 자는 너무 겸손하고 어떤 자는 너무 방자하다. 나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자까지 모두 나의 장자 자리를 넘보고 있다. 그렇다면 장자에게는 대체 어떤 모습들이 있겠느냐? 첫째, 내 뜻을 찾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역점을 두며, 또한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한다. 둘째, 한결같이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방종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단속을 받으며, 매우 정상적이다. 그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성령의 역사를 찾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신에 대한 내 사랑을 생각하기에 늘 신중하고 나를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을 품을까 몹시 우려한다). 셋째,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 삶,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거하는 것을 모두 생각에서 지워 버린다. 넷째, 언제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예전에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평판은 좋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이고 또 남녀 관계에서도 올바른 품행을 가진 자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확실한 증거지만, 지금은 너희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없다. 나의 사역이 거기까지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자들은 명심해라!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 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인식, 추구,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모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자 내가 너희에게 준 확실한 증거다.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고, 나와 똑같이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더없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전에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며(내 이름을 증거하기 이전도 포함) 나를 사람으로 여긴 자, 또한 나를 모독하고 비방한 자들을 나는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현재 누구보다 나를 힘 있게 증거한다고 해도 안 된다. 예전에 나를 핍박한 것은

나를 위해 힘쓴 것이므로 오늘날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오늘날, 진정으로 내가 친히 온전케 한 자야말로 내가 쓰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이미 육신에서 나와 땅에 속한 모든 관계를 초탈했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예전에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전부 내 손안에 있다. 나는 감정이 없으며, 모든 일에서 공의를 실행한다. 또한, 나는 올곧으며 그 어떤 더러움도 묻지 않았다. 내 말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도 해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보기에 나에게도 정상 인성이 있고, 가족도, 인간적 감정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틀렸음을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설마 잊은 것이냐? 혼동한 것이냐? 여전히 나에 대해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공의가 이미 너희에게 완전히 나타났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나의 공의와 위엄이 드러난다. 나는 진노를 지닌 하나님 자신이므로 나를 핍박하고 모욕한 자를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격한 요구에서, 너희는 분명히 알겠느냐? 내가 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보기 드문 진주나 마노처럼 적고도 적다. 왕이 될 사람은 백성이 될 자보다 훨씬 적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나의 큰 능력과 기묘한 행사를 드러낼 수 있다. 나는 늘 너희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으며, 나에게서는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상과 면류관,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이라고 하면 사람은 관념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참뜻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고정 관념이며, 모두 그릇된 해석이다. 상이란 지금 얻은 것으로써 은혜의 일부를 뜻한다. 단, 어느 정도는 육적인 누림의 의미도 있다. 나를 위해 힘쓰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누림을 조금은 얻을 수 있다(하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 쓰여질 물질임). 면류관 역시 관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면류관은 내가 주는 물질적인 누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새 이름을 뜻한다. 누구든 자신의 새 이름에 어울리는 자는 면류관, 즉 나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상과 면류관은 모두 복의 일부지만, 복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한편, 사람의 관념으로는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영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의 관념으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말은 또 무엇을 가리키느냐? 나의 전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과 소유, 즉 공훈과 자비(내 아들에 대해), 공의, 위엄, 심판, 진노, 저주, 불사름(모든 사람에 대해)이다. 다시 말해, 내 본체가 바로 영광인 것이다. 나는 왜 내게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다고 말했겠느냐? 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나는 더없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으로 온다는 말은 너희가 나에게 만들어져 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지니고, 나에게 만들어져 나를 향한 경외심을 품고 반발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세가 이미 극도로 긴장되어 모두가 나를 위해 힘쓰고 나의 불사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의 진노와 불사름이 임할 때에도 그 어떤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행하는 일은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다. 마땅히 내 말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서둘러 준비하며, 외국에서 찾으려 온 자들을 목양할 채비를 하여라. 명심하여라! 중국, 즉 중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은 다 나의 저주를 받았다. 내 말뜻을 알겠느냐?

제86편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리켜 공흠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말하며, 나에게 지음 받은 자라면 모두 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부 사람의 관념에 불과하다. 나는 공흠을 베푸는 하나님이지만, 이는 내 장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상도 나의 아들과 백성들에게 국한된다. 나는 현명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증오하는 자에 대해 다 계획이 서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증오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좋다 해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서 나지 않았고, 나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나의 생명 또한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가 예정하고 택한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일을 잘못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행하는 일은 모두 거룩하고 귀하며, 또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너무 매정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공의롭고 위엄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느냐?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 내가 증오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신성불가침의 성품으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오늘날, 진정으로 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의해 온전케 될 것이다. 나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철저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나에 의해 불살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에게 저주를 받은 많은 이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일까(내가 더러운 전에 거하지 않는 것을 놓고 말한 것임)? 너희는 만사와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한다는 참뜻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일으켜 봉사하게 할 때면 성령이 그들을 통해 일한다. 그러나 평소에 봉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한다. 추구한다 할지라도 열심뿐이며, 그것은 사탄의 간계에 불과하다. 그들은 평소 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나의 부담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장자가 장성했으니 그들을 차 버리고, 곳곳에서 나의 영을 거둬들여 장자에게 역점을 둘 것이다. 알겠느냐? 모든 것은 나의 행사와 예정,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달렸다. 나의 축복을 받는 곳은 필히 내가 역사하는 곳이자 사역을 전개하는 곳이다. 중국은 사탄을 가장 숭배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나의 저주를 받았고, 또한 나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는 절대로 큰 붉은 용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의 참뜻을 이해했느냐? 아들들과 백성의 수는 어쨌든 많지 않다.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내 손안에 있으니 정력을 집중하여 내가 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장자들은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내 어깨 위의 짐을 짊어지고, 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는 봉사할 때 나의 은혜를 얼마간 얻을 것이다. 즉, 잠시 동안은 너희에게 앞으로의 사역과 일들을 알려 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은혜이다. 봉사를 마치고 나면 머물지 말고 바로 물러가야 한다. 장자들도 거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부심은 가져도 좋다. 내가 너희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을 내렸기 때문이다. 멸망할 대상들은 걱정을 사서 하지도 말고, 자신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 네가 사탄의 후예인 것을 어찌겠느냐? 나를 위한 봉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금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는 네가 더 이상 쓸모없으니 나는 너를 형벌로 대할 것이다.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본다. 행한 이상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론 이상 반드시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장자들과 아들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내린 이상, 그 형벌은 반드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를 반드시 형벌하겠다고 누차 일러 주었다. 네가 나를 대적하는데도 성령의 책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런 자는 나중에 반드시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반면, 네가 나에게 옳지 못한 생각을 품을 때 성령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축복을 받았음을 뜻한다. 하지만 반드시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고, 건성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제87편

내가 하려는 일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너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때조차 내 말의 뜻을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나?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냐? 나는 갈수록 말을 더 분명하고 더 많이 했건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내 말의 본뜻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지 않느냐? 사탄아, 내 계획을 망칠 생각을 버려라! 사탄을 위해 힘쓰는 자들, 즉 사탄의 자손(사탄에게 점령된 것이란 분명 사탄의 생명을 지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탄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다.)은 내 발아래에서 용서를 빌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지만,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탄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사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며,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즉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아직도 늘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의혹을 품으며 내가 너희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알겠느냐?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다! 만약 내게 지혜도, 능력도 없다면 마음대로 행사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거듭 강조하고 말해 주는데 어째서 많은 이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아직도 의심하는 것이냐? 어째서 자신의 관념을 죽여라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것이냐? 그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더냐?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너희에게 나의 말을 의심치 말고 확신하라고 여러 번 알려 주었다. 너희는 나의 말을 참답게 대한 적이 있느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나의 행사 또한 믿지 못하니 어떻게 된 사람이냐? 좀 매몰차게 말하자면, 이는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너는 나의 봉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반드시 내 말을 믿어야 한다! 이는 모두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물론 믿는 자들은 예외이다. 나의 말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믿음에 따라 너에게 베풀고 이루어 주겠다. 장자들아! 나는 지금 모든 복을 너희에게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니 너희는 결혼과 가정, 먹고 입고 자는 것, 모든 자연재해(바람, 땡볕, 비, 그리고 뼈를 에는 한파와 눈 내리는 고통 등 너희가 증오하는 모든 것) 등 사람이 증오해 마지않는 육체의 모든 속박을 조금씩 벗어 버릴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바다와 육지, 상공을 두루 누비며 내 사랑의 품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 사랑의 보살핌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다.

누군들 내가 만든 장자들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 장자들로 인해 내

이름을 찬미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비밀을 너희에게 열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어째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겠느냐?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내가 왜 예전에는 중국이 나의 저주를 받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나를 위해 힘쓰는 대상들을 왜 드러내지 않았겠느냐? 이것 또한 오늘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가 보기엔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는 나의 장자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오늘 나의 장자들은 이미 나와 함께 왕권을 잡았다. 그들은 그 모습이 갖추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왕이 된 것이다. 현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는 반드시 나와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드러나는 시점은 오늘이지 어제, 내일도 아니다.). 나는 오늘 내 정상 인성 측면의 모든 비밀을 밝힐 것이다. 내가 드러내려는 사람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지혜이다. 나의 사역이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반드시 내가 이 기간에 정해 놓은 행정 법령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장자와 아들들, 백성들, 봉사자들에게 알맞게 인을 칠 것이다. 나에게서 권병이 있기에 심판을 시행할 수 있고, 철장(鐵杖)으로 다스릴 수 있다. 누가 감히 나를 위해 착실히 힘쓰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내게 불평하겠느냐? 누가 감히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마귀 본성이 진작에 내 앞에 드러났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 주기만 하면 너희는 바로 질투하고 증오하니, 그야말로 사탄의 본성이다! 내가 내 아들에게 잘해 주는데 네가 감히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느냐? 너를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데다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찌감치 너를 내쳤을 것이다!

사탄의 부류들아! 제멋대로 날뛰 생각을 버려라! 이제 그 입을 다물어라! 더 이상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지 말라! 나의 사역은 이미 내가 택한 아들들과 백성들에게서 전개되기 시작했고, 중국 이외의 각 나라, 각 교파, 각 종교,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나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어째서 늘 영이 트이지 않는 것이겠느냐? 어째서 늘 영이 통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어째서 나의 영이 늘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절대로 많은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과거 나의 고통과 심혈은 모두 나의 장자들 그리고 일부 아들들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나의 사역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내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기에 걸음걸음 모두 적절하게 예비해 놓았다. 나는 사람(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을 가리킴)을 억지로 머물게 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예정하고 택한 자들을 가리킴)을 치지도 않는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므로 그 누구도 바뀌 놓을 수 없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나는 차갑고 무정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돌보고 지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내가 택했다면 그는 택함받은 자요, 내가 예정했다면 그는 예정된 자이다. 이는 모두 내가 한 일이며, 창세전부터 정해 놓은 것이다.).

누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 나 자신이 마음대로 계획하여 행사할 뿐이지 또 누가 감히 경거망동하면서 내 명령을 듣지 않겠느냐? 이는 모두 나의 행정 법령이다. 누가 감히 나에게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없앨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은 데다, 정직하고 순수하며 내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째서 그를 택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이 또한 나의 행정 법령이다. 내가 누군가를 가리켜 나와 마음이 합했다고 하면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가리켜 사탄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내가 증오하는 자이다. 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 비위 맞추지 말라! 너에게는 정말 그를 꿰뚫어 볼 통찰력이 있느냐? 이것은 모두 내가 정한 것이다. 아들은 어쨌든 아들이고, 사탄은 어쨌든 사탄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바꿔 놓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누어져 있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너희에게 나의 비밀을 밝힌다. 오늘날, 내 사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내 영의 인도에 따라 내가 하려는 일을 하고, 내가 하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왜 중국이 나의 저주를 받은 나라라고 했겠느냐? 나는 먼저 내 형상을 따라 오늘날의 중국인을 만들었지만, 중국인은 영이 없으며, 먼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므로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노하고 저주를 내린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을 가장 증오한다. 언급하기만 해도 화가 난다. 그들은 큰 붉은 용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이 중국을 병탄했을 때를 연상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그와 비슷하다. 이는 모두 나의 저주이자, 큰 붉은 용에 대한 나의 가장 힘 있는 심판이다. 나중에 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 그중에서 나의 장자, 아들, 백성, 그리고 나를 위해 힘쓸 대상들을 예정했다. 그래서 오늘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일찍이 예비해 놓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째서 중국의 집권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를 핍박하고 억압하겠느냐? 큰 붉은 용이 내 저주에 불만을 품고 내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위협 아래에서 나는 나의 장자들을 만들었고, 이로써 큰 붉은 용과 그의 자손들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했다. 이제는 그들을 처리할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들으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된 의미를 진정 깨달았느냐? 내가 큰 붉은 용이 이미 철저히 내쳐져 죽었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을 때, 큰 붉은 용은 장자들을 핍박함으로써 나를 위해 적지 않은 힘을 쓸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면 악한 종(봉사자)들을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나의 장자들은

이미 나와 함께 왕이 되었고, 이미 나의 마음을 만족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힘쓰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유황불 못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들어가야 한다! 나는 사탄의 부류들도 내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사탄의 권세하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행정 법령이 있으므로 모두가 지키고 집행해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나는 나의 행정 법령을 계속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는 너희가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88편

사람은 내가 발걸음을 얼마나 빨리 할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한 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은 줄곧 앞을 향해 나아왔고, 나의 사역 또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온 우주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모두가 내가 하는 사역이자 나의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나의 경영이다. 너희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알려 주거나 얼굴을 맞대고 직접 얘기해 주어야 조금 깨닫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경륜의 청사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큰 능력이자 놀라운 행사이며, 그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아무도 절대 바꾸지 못한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이다! 스스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며 만족하지 말라. 명심해라! 아직도 멀었다! 너희는 나의 전체 경륜 중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귀담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의 말을 따르면 반드시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며, 더 나아가 나의 위엄, 진노, 형벌이다. 즉, 나는 사람의 생각, 견해, 일거일동,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수심에 잠긴다. 내가 너를 억울하게 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나? 너는 큰 붉은 용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짐짓 좋은 사람인 척하는구나! 나의 장자 행세를 하려 들다니! 나에게 눈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의 아들뿐만 아니라 큰 붉은 용의 자손인 너희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모든 것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완벽하게 알고 있다! 내가 스스로를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다. 내가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지 모를 것 같으냐? 오지랖 넓게 걱정하지 말라. 내 손이 너를 칠까 하노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나의 행정 법령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위의 내용은 내 행정 법령의 일부이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날 이후에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갚아 줄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몰랐기에 넘어간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나의 행정 법령을 반포하겠다(행정 법령은 반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내림).

나는 말한 대로 하며,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의심하는 자는 필히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즉시 화근을 제거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 것이다(이로써 쳐 죽임을 당한 자는 내 나라의 백성일 리가 만무하며, 사탄의 후손임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장자인 사람은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의 경륜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아름답게 증거해야 하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잠시라도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아들과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항상 장자로서 모두의 앞에 서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지, 남에게 굽신대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장자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직책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자신을 바치고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한다.

앞으로 온 우주 세계에서 아들과 백성들을 목양하는 일을 장자들에게 맡겨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를 마음과 뜻을 다해 완수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형벌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의이다. 나는 장자도 쉽사리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아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한 명의 장자에게라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장자는 나를 대변하므로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에서 가장 엄격한 조항이다. 아들과 백성들 중에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나의 장자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따라 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나를 가볍게 대하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과 나의 외적인 일만 중시하며, 나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조금씩 멀리할 것이다. 이는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나를 위한 봉사를 마친 사람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손볼지도 모른다(이 조항은 추가 사항임).

오늘부터 모든 장자가 철장(鐵杖)을 들고 나의 권병을 시행하여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만국 만민 가운데서 다니고,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나의 심판, 공의, 위엄을 시행할 것이다. 나의 경륜이 완성되고 나의 모든 장자가 나와 함께 다스리므로 아들들과 백성들은 나에게 경외심을 품고, 영원토록 나를 찬미하고, 나에게 환호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일부이며, 앞으로는 사역의 진행 단계에 따라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위의 행정 법령을 통해 너희는 내 사역의 발걸음과 진행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보아야 한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나는 일찌감치 사탄에게 심판을 시작했다. 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장자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었으므로 나는 세상과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에게 나의 공의와 위엄을 보여 주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고, 사탄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나와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없기 때문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 왔을 뿐이다. 나의 사역이 한 단계 한 단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뜻이 온 땅에서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완전히 멸망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나는 모든 장자로 하여금 사탄에게 나의 행정 법령을 시행하게 했다. 사탄에게 나의 진노가 임했음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도 보여 주었다(나의 모든 장자가 사탄에게 치욕을 안겨 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증거임을 보여 준 것). 나는 사탄을 직접 벌하는 대신 나의 모든 장자를 통해 공의를 시행하고 위엄을 보여 주었다. 사탄이 과거에 나의 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유린했으므로 오늘날 사탄이 자기 역할을 다 한 뒤에는 그것을 처리할 권한을 장성한 장자에게 맡긴다.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은 사탄이 힘없이 무너졌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람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나는 과거에는 단계별로 조금씩 사탄에게 치욕을 안기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도 이뤄질 것이다(곧 임할 복을 말함). 나는 실제의 하나님 자신이니 규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각기 다른 내 경륜에 따라 말을 하므로 과거에 했던 말이 오늘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 나는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초월적이며 완전히 해방된다. 내가 했던 지난날의 말들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어찌면

뒤쳐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다(그러나 나의 행정 법령은 한 번 반포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음). 이것이 내 경륜의 절차이다. 날마다 새로운 빛과 계시를 줄 것이니 너희는 규례를 고집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나는 매일 너희에게 빛을 제시해 줄 것이며, 우주 세계에 나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알겠느냐? 이는 너의 직책이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니, 한시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나의 검증에서 통과한 사람을 끝까지 쓸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이 나의 전능이다.

제89편

뭐든지 내 마음에 들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억지로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 네게 나의 자질을 주었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장자라고 정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장자인 것이다! 위장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으냐? 내 앞에서 잘 보이면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반드시 내 허락과 예정이 있어야 한다. 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제멋대로 구는구나! 나를 위한 봉사가 끝나는 대로 속히 유황불 못으로 돌아가라! 너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염증을 느낀다. 나를 위해 봉사하는 자, 내게 충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 절제 없이 방종한 자, 나의 뜻을 찾지 않는 자들은 봉사가 끝나는 대로 썩 물러가라! 아니면 내가 너를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이런 인간들은 잠시도 내 집에(교회를 가리킴) 둘 수 없다.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내 명성에 해가 되기 전에 모두 나가라. 이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자손이다. 큰 붉은 용이 나의 경영을 방해하려고 보낸 자들로, 내 사역에 훼방을 놓으려고 짐짓 간사한 짓거리를 일삼는 자들이다. 나의 아들이! 반드시 간파해야 한다! 그런 인간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을 만나면 함정에 빠져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멀리하거라! 아무 말이나 지껄이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낱낱대며 툴툴만 하는 자들을 나는 제일 증오한다. 나는 그러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사탄의 부류이다! 걸핏하면 장난치고 놀리는데, 뭐하는 짓이냐? 아무 말이나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다니! 제일 가치 없는 자들이다. 나는 진작 그들을 알아보고 멀리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나의 징계도 받지 않고 계속 함부로 지껄이는 모습을 보이겠느냐? 누가 봐도 큰 붉은 용의 자손이다!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없앨

것이다. 내가 어찌 사탄의 후예를 나의 장자로, 나의 아들과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알았느냐?

오늘날 너희가 직면한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나쁘든 다 나의 지혜로운 계획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다루고 주관한다. 이는 절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이는 손에 땀을 쥐며 나를 걱정하는데,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구나!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영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 애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무슨 내 마음을 만족게 할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내 걱정을 하다니! 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네가 웬 걱정이냐? 뭐든 그럭저럭 때우기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똑똑히 들어라! 오늘부터 그런 인간들은 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내 집에서 나를 섬길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자들을 혐오한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 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나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이다”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 문제는 그런 자들이 나를 모독하고도 그것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참으로 눈이 멀고 미련하며 영이 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너를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이는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내가 이토록 증오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일을 거듭해서 언급하니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때가 차지 않아 참을 뿐이다. 아니면 진작에 처리했을 것이다.)! (이는 지금도 외국인이 중국에 몰려들 것임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직도 이 같은 사실을 믿지 않으니 분노가 치밀고 끓어오르는 것이다.)

내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느냐? 다시 말해, 창세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집에서 영원히 머물도록 예정했겠느냐?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와 한마음인 사람이고, 나와 동고동락하며 환난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즉, 행복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 또한, 내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내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배가 주리는 한이 있어도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기꺼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위해 헌신한다. 또한 나의 고충을 헤아리고, 항상 나를 위해 마음을 쓴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비롯한 모든 것을 준 것이다. 따라서 내가 교회들을 이끄는 만큼 이들 또한 이끌 수 있게 하였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 이들에게도 나의 지혜가 있게 하였다. 내가 진리를 위해 고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받을 수 있게 이들에게

의지를 주었다. 내가 뛰어난 자질을 갖춘 만큼 이들에게도 나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나와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들을 보는 것은 곧 나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나는 이들이 나의 완전한 신성의 일면을 살아 내어 나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나의 완전한 신성을 이들에게 입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외적인 것을 나와 같게 하지 말라(나처럼 먹고 입는 것을 말함). 이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너희 스스로를 사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겉으로만 나를 따라하는 자는 사탄의 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간계와 욕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나처럼 될 자격이나 있겠느냐? 내가 단번에 밟아 죽일 것이다! 나의 사역은 줄곧 계속되어 왔고, 세계 각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 서둘러 나의 발걸음을 따르라!

제90편

눈먼 자들은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야 한다. 잠시라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자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가 진정 나에게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는 분명 적겠지만, 반드시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들을 하나하나 발탁해 나의 양팔로 삼고, 나를 나타내는 자로 삼을 것이며, 만국 만민이 이들로 말미암아 내게 끝없는 찬미와 환호를 보내게 할 것이다. 시온산아!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 내게 환호하라! 나는 우주 땅끝을 두루 다니고 산천 만물의 구석구석을 누빈 후 다시금 여기로 돌아왔다. 나는 공의와 심판, 진노, 불사름을 지니고, 나의 장자들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다. 내가 증오하는 모든 것, 내가 혐오하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내게서 멀리 내쳐졌다. 나는 이미 승리했고, 내가 하려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누가 감히 내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할쏘냐? 누가 감히 내가 나의 장자를 얻지 못했다고 말할쏘냐? 누가 감히 내가 개선하여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할쏘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분명 사탄의 부류요, 내게 사함 받지 못할 존재이며, 소경이자 더러운 귀신이다. 나는 그런 자를 가장 증오한다. 나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 나의 진노와 심판의 전부를 드러낼 것이며, 불사르는 나의 불길이 온 우주 땅끝에서 활활 타올라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내 말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내 말에서 위안을 얻어야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선 안 된다. 날마다 심판의 말이 임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멍하고 무감각한 채로 있는 것이냐? 어째서 내게 협력하지 않는 것이냐? 설마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것이냐? 내가 말했듯이, 나의 장자와 아들들, 백성들에게 나는 긍휼을 품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는 단순한 한마디 말이 아니다. 응당 긍정적인 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눈먼 인류야! 나는 몇 번이나 너희를 구원하여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형벌 속에서 나와서 내 약속을 받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 중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공의와 위엄, 심판은 사탄을 대할 때는 조금도 인정사정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구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성품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일하는 원칙을 모른다. 내가 경중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상도 가리지 않으면서 일할 것이라고 여기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그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나는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다. 그가 음녀인지 기생인지도 나는 전부 꿰뚫어 볼 수 있다. 누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내 면전에서 자태를 뽐내려 하지 말라. 천박한 것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나는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이다! 내 이름을 증거하지는 못할지언정 부정적 역할을 하고 가풍을 더럽히는구나! 나는 그런 자를 원치 않으니 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단 일분일초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추구하든 전부 허사다. 나의 나라에는 성결하고 때가 조금도 없는 사람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지 말라. 네가 예전에 나를 얼마나 잘 대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너희에게 비밀을 열어 주는데,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방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따라 비밀을 밝히느냐? 알고 있느냐? 너희는 늘 내가 때에 따라 너희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것에 관하여 너희는 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내 사역의 절차에 따라 나의 비밀을 하나씩 너희에게 드러내고, 나의 계획, 나아가 너희의 실제 분량에 맞춰 너희에게 공급해 준다(여기에서 공급이란 하나님나라 안의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함). 내가 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내 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안과 공급, 그리고 심판을 더해 주고, 사탄에게는 불사름과 진노만 내릴 뿐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나는 내 행정 법령을 통해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들을 하나씩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금하게 굴 것 없다. 그들의 본모습(마지막에 내 아들을 위해 힘쓰는 것)을 전부 드러낸 후 무저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절대 이 일을 그만두지도, 이 일에서 손을 놓지도 않겠다. 사람은 늘 지옥이니 음부니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두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느냐? 설마 정말로 음랭하고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사람의 머릿속 생각은 늘 내 경영을 방해하는데, 혼자 제멋대로 생각하고는 틀림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혼자만의 상상에 불과하다. 음부와

지옥은 모두 사탄과 악령이 거했던 더러운 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 사탄이나 악령에게 점령되면 그 사람이 바로 음부이자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변론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예전에 내가 더러운 전에 거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하나님 자신)가 음부나 지옥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헛소리 아니겠느냐? 이미 몇 번이나 말했거늘 너희는 여전히 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음부는 지옥보다 더 심각하게 사탄에 의해 파괴된 곳이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 그 상태가 극도로 심각하므로 절대로 내가 예정한 자가 아니다. 한편, 지옥에 있는 자들은 내가 예정하였다가 도태시킨 자들이다. 어쨌든 나는 이들을 하나도 택하지 않았다.

사람은 내 말을 곡해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내가 하나하나 짚어 주고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 중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말조차도 반신반의하는데 언급하지 않은 일은 또 어떻겠느냐. 현재 각국이 내부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와 지도자, 학생과 교사, 국민과 정치인 등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움직임들이 각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모두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의 한 부분이다. 어째서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설마 내가 남의 불행을 기뻐하겠느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나의 큰 능력과 기묘한 행사를 부각해 준다. 또한 그것들은 모두 나를 증거하는 힘 있는 증거이자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서로 영토와 세력 쟁탈전을 벌일 때, 나의 장자들은 나와 함께 왕이 되어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내 나라가 완벽히 인간 세상에 세워졌다는 걸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을 다투며 다른 이를 심판하고자 할 때, 그들은 역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나의 진노에 불사름 당할 것이다. 이 얼마나 가련하냐! 이 얼마나 가련하냐! 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나!

사람이라면(내 나라의 백성이든, 사탄의 후예든 상관없이) 내 기묘한 행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설령 네가 기꺼이 나의 심판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 기묘한 행사를 보지 못했다면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모두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설령 큰 붉은 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엔 일어나 나의 승리에 찬미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기억했느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내게 끊임없는 찬미를 보내고, 모든 사람이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제91편

나의 영이 시시각각 말하고 시시각각 음성을 발하는데, 너희 중 몇이나 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왜 성육신하여 너희 가운데 왔겠느냐? 이는 모두 크나큰 비밀이다. 너희는 온종일 나를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나를 찬미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우매하고 눈먼 것이냐! 얼마나 나를 모르는 것이냐! 너희 가운데 몇이나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몇이나 나를 알 수 있겠느냐? 하나같이 교활하고 음흉한 놈들이 내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니, 꿈도 꾸지 말라! 알려 주겠다! 사탄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은 전부 나의 건축을 허물고 나의 경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잘해도 나를 대적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의 집에서 쫓겨난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그 어떤 일도(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배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무엇이든 사람이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네가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겠다. 따라서 나는 네게 중한 형벌을 내려 영원히 발붙일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만사와 만물 중 내 손에 주관되지 않는 것이 있느냐? 나로 인해 세워지거나 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그래 놓고 나를 안다고 하다니! 모두 허튼소리다. 사람을 속였다고 나까지 속일 수 있을 성싶으냐? 네가 저지른 일을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말하게 하겠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내 행정 법령이다!

나의 영은 누구이고 나, 이 사람은 또 누구인지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성육신한 의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큰 일을 곰곰이 되새겨 보며 내게서 계시를 얻은 자가 있느냐? 모두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 어째서 너를 가리켜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 하겠느냐? 오늘날, 내 성육신의 비밀을 너희에게 열어 주었다. 창세 이래 그 어떤 사람도 밝히지 못한 이 비밀로 나는 내가 증오하는 대상을 수도 없이 파멸시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육신으로 인해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온전케 했다. 도대체 내가 왜 성육신한 것이겠느냐? 지금의 형상(키, 외모, 체형 등 모든 것)을 갖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누가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겠느냐? 내 성육신의 의의는 너무도 많아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지금 너희에게는 그중 일부만 알려 주도록 하겠다(내 사역의 절차가 이미 이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반드시 이렇게 행하고 말해야 함). 성육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의 장자들에 대해 말한 것으로, 장자들과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의 장자들이 나와 거리감 없이 친밀해져서(함께 먹고 거하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킴) 실제 속에서 내게 양육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허언이 아니라 실제이다. 과거에 사람들은 나를 믿어도 실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성육신함으로써 너희 모두는 실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언행과 일 처리 원칙에서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통해 내 인성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를 대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을 것인데, 내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한, 성육신은 내가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데 있어 가장 힘 있는 증거가 되었다. 나는 육신에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게다가 어떠한 공간적, 지리적 제약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방해가 되지 않고 완전히 형통한다. 이 점에서 사탄은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나는 육신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육신을 통해 아무 영향 없이 내 일을 행하며, 산과 강, 호수는 물론, 우주 만물의 곳곳을 누빈다. 내가 성육신한 이유는 나에게서 났으나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만약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드러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내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킴). 만약 내가 계속 영으로 있었다면, 사람은 계속 관념적으로 나를 경배했을 것이며, 나를 형태도 형상도 없고 지극히 높아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나의 성육신은 사람의 관념과 정반대이다(나의 키나 생김새를 두고 하는 말). 나의 성육신은 외모도 평범하고 키도 크지 않은데, 이러한 조건만으로도 사탄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고, 무엇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관념(사탄의 모독)을 깰 수 있다. 만약 내 생김새가 남달랐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경배하고, 관념적으로 나를 알아 갈 뿐, 나를 위해 아름다운 증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의 이 형상을 취한 것은 조금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마땅히 관념 속에서 나와야지,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는 내 사역의 필요에 따라 계속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오늘날 나는 나의 대업을 이루었고 나의 계획을 완성했으며, 이미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얻었다. 이는 또한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기도 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는 기묘한 일이다. 지금 이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즉, 내가 예전에 말한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버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말한 것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여라! 조금의 오차도 없는 것이다. 오해해선 안 된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사람은 내게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합격이라 말하면 너는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불합격이라 말해도 너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러쿵저러쿵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내가 정해 놓은 것이다. 누가 너에게 스스로를 존중하지 말라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그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했느냐?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나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내 뒤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더냐! 썩 물러가라! 패역한 자식들아! 스스로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너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했더냐? 꿈도 꾸지 말라! 나는 그런 쓸모없는 자들을 단 하나도 원치 않으니 전부 물러가라! 이는 내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는 일이다.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사악하고 음란한 옛 시대에 스스로를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고, 오점 없이 완전한 성결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나와 함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오점도 없는 자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므로 누구든 내 이름을 욕보이는 자는 원치 않는다. 그런 자들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자 명실상부한 사탄의 종이니, 반드시 쳐서 돌려보내야 한다(무저갱에 처넣는 것을 의미함).

나의 집은 거룩하고 오점이 없으며, 나의 전은 화려하고 웅장하다(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지닌 사람을 가리킴). 누가 감히 이곳에 들어와 함부로 행패를 부리겠느냐? 그런 자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의 행사는 지혜로워서 칼도, 총도 쓰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철저히 물리친다. 나에게는 아량이 있다. 사탄이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와중에도 나는 차분히 나의 사역을 행할 뿐, 전혀 사탄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 경륜을 완성함으로 사탄을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자 지혜요, 나아가 무궁무진한 내 영광의 작은 한 부분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내 눈에 땅의 벌레와 같다. 언제든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밟아 죽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나는 나의 장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처리하게 할 것이다. 나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는다. 나의 행사는 단계와 순서가 갖춰져 있고 질서 정연하여 한 치 오차도 없다. 나에게서 난 장자들은 반드시 나의 어떠함을 지닐 것이며, 나의 행사에서 내 무궁무진한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제92편

사람은 모두 내가 하는 말과 일에서 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되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나의 사역이 없는 데가 없다. 나의 자취는 중국은 물론, 더 중요하게는 세계 각국에도 있다. 하지만 먼저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곳은 단지 이전에 말한 7개국뿐이다. 이것은 내가 사역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너희는 완전히 알고 철저히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알려 주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너희들의 분량에 따라 너희에게 말을 하고 음성을 발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 있지만, 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일일이 알려 주어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게 영원히 아이로만 보이기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친히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오직 나의 인도를 받아야만 자신의 일생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 온 우주 세계가 모두 내 손안에 있지만 나에게서는 바삐 보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쁘히 한다. 사람은 모두 나의 전능을 알지 못하기에 내 걱정을 하며 조급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것이냐! 내 앞에서 자신의 하찮은 것들을 과시하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는구나! 나는 이미 다 간파하였다. 내 앞에서 수작을 부리다니, 천박한 것들! 어서 내 집에서 꺼져라! 나는 이런 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나라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언정, 이런 천박한 자는 들이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음을 아느냐? 네가 전과 다름없이 먹고 입고 있지만 사탄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아느냐? 사탄을 위해 힘쓴다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내 앞에 오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이전에 늘 “대재난이 곧 닥치고, 대재난이 이미 내 손에서 쏟아졌다”라고 했었다. 그럼 ‘대재난’은 무엇을 말하고, ‘쏟아졌다’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너희는 대재난을 사람의 영, 혼, 육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재난으로 여긴다. 게다가 내가 말한 ‘지진과 기근, 온역’이 바로 대재난이라고 여긴다. 너희는 너희가 나의 말을 그릇되게 해석했음을 알지 못한다. 또 ‘쏟아졌다’는 말을 대재난의 시작으로 보는데, 정말 가소롭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너희의 해석을 듣고 나니 정말로 화가 난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 동안 그 누구도 밝힌 적이 없는 비밀(가장 은밀한 것)이지만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그릇되게 해석해 온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비밀은 그 누구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이것은 말세에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사람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한다.). 이 비밀은 내가 아주 철저히 봉해 놓았기에 사람은 조금도 꿰뚫어

볼 수 없다(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불가능함). 나의 사역이 이 단계까지 진행된 이상, 나는 사역의 필요에 따라 너희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부터 교제를 시작할 테니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자를 비롯해 신중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하면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영, 혼, 육을 거두어 가는 것을 뜻함). 대재난은 내 나라 행정 법령의 각 조항을 두고 말한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은 다 대재난의 한 부분이다(나의 행정 법령을 너희에게 완전히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조급해하거나 애타하지 말라. 어떤 것들은 너무 일찍 알면 너희에게 유익한 면이 적다. 명심하여라!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른 한 부분은 무엇이겠느냐? 대재난은 나의 행정 법령과 진노, 이 두 부분이다. 대재난이 쏟아질 때가 곧 내가 진노하며 나의 행정 법령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이다. 내가 여기에서 장자들에게 알려 주겠는데, 절대 이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말라. 설마 너는 만사와 만물이 다 나의 예정 안에 있음을 잊었던 말이냐? 내 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에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노력을 들여 이룬 일을 내가 망쳐 버린다면,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느냐? 나는 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명심하였느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면 좋겠느냐? 계속해서 대재난에 대해 말하겠다. 대재난이 쏟아지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의 추한 몰골이 가장 잘 드러난다. 온갖 귀신의 모양이 다 내 얼굴빛으로 인해 드러나는데, 숨겨지거나 가려진 것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드러난다. 대재난을 통해 거두려는 성과는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슬피 울며 용서를 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나의 심판이자 내 진노의 심판이다. 지금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머릿수만 채우려는 속임수로 고비를 넘기려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할수록 사탄은 그에게 더 역사하게 되고, 때가 되면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

나는 절대로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내가 직접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그에 대한 풍자인데, 그가 큰 붉은 용의 후손이기에 그를 전혀 중시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배’라는 단어를 쓴다 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직접 모든 일을 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매우 안정적인 성공을 거둔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안배해 놓았다. 나는 나의 뜻과 부담을 너희에게 조금씩 알려 주겠다. 이제부터 나의 말이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의 장자들이 이미 만들어졌고(아들들과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임), 나의 사역 방식이 또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알았느냐? 최근

들어 내가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는지 너희는 파악했느냐? 나는 나의 장자들에게는 언제나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나의 장자들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임) 나는 손에 칼(가장 엄한 말썽을 가리킴)을 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든, 또는 다른 어떤 존재이든, 잠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를 가리키므로 전혀 모순적이지 않음) 즉시 내던질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봉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자에게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는데, 버린다고 한 이상 두말하지 않는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눈에 거슬리는 자는 당장 제해 버리고 절대 살펴보지 않는다. 나는 말한 대로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봉사자로 예정한 이상,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대적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눈에 거슬리면 바로 차 버릴 것이다. 나는 절대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서는 나의 행정 법령이 있다. 나는 말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기에 반드시 이룬다. 아무렴 내가 사탄을 원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들어라! 겁먹을 것도 없다. 내가 꺼지라고 할 때에 곧바로 꺼지고 내게 이유를 대지 말라. 나는 너와 할 얘기가 없다! 내가 수없이 인내하였으며, 이제는 나의 행정 법령을 시행할 때도 되었고, 너희의 말일도 이르렀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너희는 줄곧 제멋대로 굴고 계속 자신의 성미대로 행동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인내했다(나는 도량이 넓어 네가 깊이 패괴되어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너희를 관대하게 대해 주는 기한이다. 찾으니 너희는 또다시 유행불 못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나는 본격적으로 나의 심판을 행하고 나의 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다.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지진과 기근, 온역, 그리고 갖가지 흉년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가 각 나라 각 지역에서 크게 역사할 때 이런 흉년은 창세 이후의 그 어떤 때보다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만민에게 내리는 심판의 시작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아, 안심하여라. 그 어떤 재앙도 절대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앞으로 너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기에 그 어떤 재난의 고통도 겪지 않음을 뜻함). 너희는 나와 함께 왕이 되어 만국 만민을 심판하고, 나와 함께 우주 땅끝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은 모두 응할 것이고 또한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시일을 끌지도 않고 일 처리도 아주 빠르니 조급해하며 속 끓이지 말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모든 사람은 나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순종하고, 끊임없이 환호하고 끝없이 기뻐 뿔 것이다.

제93편

이뤄진 사실들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며,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내 사역의 발걸음은 마치 발사된 로켓처럼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내 사역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오직 일이 발생한 후에야 너희는 내 말의 참뜻을 깨달을 것이다. 큰 붉은 용의 자손들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 기묘한 행사를 직접 보게 할 것이다. 내 행사를 본 후에 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과 내가 결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헛되이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중국에는 소수의 장자들을 제외하면 백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나를 가장 심하게 핍박한 큰 붉은 용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말해 두겠다. 너희는 큰 희망을 품지 말라. 내 사역의 역점은(창세 이래로) 장자들과 중국 외의 몇몇 국가에 있다. 그러므로 내 장자들이 장성하면 내 뜻에 이르는 것이다(장자들이 다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앞으로의 임무들을 모두 장자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람들에게 내 기묘한 행사의 일부를 보여 주는 이유는 단지 큰 붉은 용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누리질 못할 것이다. 그저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 또한 부득이한 것이다. 나에게서는 나의 행정 법령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그것을 거스르겠느냐?

지금 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교제를 하겠다. 미리 알려 주는 것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 위에 서서 다스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도 너희 가운데서는 극히 작은 자이기에 ‘위에 서서 다스린다’고 말한 것임). 그들은 모두 성령의 계시를 받았으며, 앞으로 약속이나 한 듯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큰 붉은 용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전력을 다해 막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나의 경륜은 이미 철저히 완성되었으며, 그 어떤 존재도, 사람도 내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 나는 수시로 그들에게 계시를 주고 있고, 그들 또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니 절대 큰 붉은 용에게 묶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적절히 예비하였으며, 이제 너희가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만 남았다. 예전에 나는 너희에게 늘 말했지만, 너희 중 많은 이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지금은 어떠하냐? 몹시 당혹스럽지 않느냐!

이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루빨리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허둥댈 것 없다. 일을 하는 존재는 나다. 때가 되면 내가 친히 내 사역을 할 것이다. 큰 붉은 용은 이미 내게 내던져져 가루가 되었다. 즉, 나는 나의 영을 이미 장자 외의

모든 사람에게서 거두었다(이때는 누가 큰 붉은 용의 자손인지 더 쉽게 드러남). 그들이 이미 나를 위해 힘쓰기를 마쳤으니, 나는 그들을 무저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즉, 나는 그들 중 단 한 명도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의 장자들이 철저히 드러날 것인데, 내 곁에 있는 자, 내가 쓰기에 합당한 자들은 모두 장자들이다.). 나의 장자들은 본격적으로 내가 내린 복을 누릴 것이다(내가 증오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임). 이로써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너희는 나를 100% 믿게 될 것이다(이것은 오늘에야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내가 예정한 시간임).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나에 대한 무궁무진한 사랑과 경외일 것이며, 너희는 시시각각 나를 찬미하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실로 내 사랑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살고, 삼층천에서 사는 것이니 이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겠느냐!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지, 즉 진정한 영계이다!

모든 재앙이 연달아 발생하고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형세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일어날 더 심각한 일들은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내 아들들을 일으켜 그것들을 처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자, 일찍이 내가 마련해 놓은 바이다.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고, 만민(내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킴)에게 연이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예전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나라란 무엇이냐? 유형의 도시를 의미하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계이다. 내 이름을 받아들인 후 나에게 완전히 만들어진, 복을 누리게 될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과거에 영계는 하나님나라의 겉모습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나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내가 친히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영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태까지 하나님나라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너무나 얕팍했고, 관념에 불과했다. 오직 하나님나라에 들어간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복은 사람들이 누릴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 행정 법령의 마지막 항목이다.

제94편

나는 또 나의 장자들을 데리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다. 너희는 이 말의 참뜻을 진정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서 성장하여 나와 함께 왕권을 잡아야 한다고 여러 번 일깨워 주었다.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이는 모두 나의 성육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내가 시온에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온 이유는 육신을 통해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될 사람들을 얻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즉, 육신에서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다’는 말의 참뜻이다. 이는 또 내 모든 경륜의 참뜻이자 요점이며, 더구나 경륜의 중요한 일환이니 누구도 이것을 막지 못한다. 이 일은 지금 눈앞에 다가왔으며 곧 이루어질 것이다. 육신에 있으면 영원히 사람의 관념과 사유, 나아가 땅에 속한 냄새와 먼지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영원히 진흙으로 남는다. 몸 안에 있어야만 복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 그렇다면 무엇을 복이라고 하겠느냐?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육안에서는 복을 거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신에서 몸에 이르는 과정은 모든 장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신에서는 큰 붉은 용의 압제와 핍박을 받지만(권세를 잡지 못했고 영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임), 몸 안에서는 크게 다르다. 그때는 억압받던 날들이 저 멀리 가 버렸으니 기를 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 내면에 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자질을 갖춘 데에 그칠 뿐이다. 사람이 겉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리 모방해도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으며, 오직 거룩한 영체(몸을 가리킴) 안에서만 완전히 같아질 수 있다(같은 자질과 어떠함과 소유를 지니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파벌을 가르지도, 나라를 나누지도 않는 것을 가리킨다. 모두 거룩한 영체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왜 세상과 의식주 등 각종 번거로운 인간사를 혐오하게 되었겠느냐? 왜 한번에 다 벗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겠느냐? 이는 모두 영계(몸)에 진입하려는 전조(前兆)이다. 너희 모두 이에 대해 예감이 있을 것이다(다만 서로 정도가 다를 뿐임). 나는 서로 다른 사람과 일, 사물로 하여금 내게 가장 중요한 단계를 위해 봉사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나를 위해 힘써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물론 이는 내 육신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며, 내 영이 친히 역사해야만 한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온 우주 세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자그마한 역할이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찬미하고 내게 환호해야 한다. 나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 손에서 쏟아지며,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일곱 인은 이미 떼어져 우주 세계와 만국 만민, 산천과 만물을 향하고 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란 무엇이나?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이냐? 어째서 내

손에서 쏟아진다고 한 것이겠느냐?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심으로 탄복하고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말해 줘 봤자 너희가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세계 각국과 모든 백성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가리키는 것은 마귀 사탄의 권세, 그리고 큰 붉은 용(내가 이용하고 힘쓰게 하는 대상)의 음모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사탄과 큰 붉은 용을 풀어 주어 아들과 백성들을 형벌할 것이다. 그럼 누가 아들이고 누가 백성인지 드러나게 된다. 그때에 미혹된 자들은 내가 예정하지 않은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장자들은 그때 이미 나와 함께 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들과 백성들을 만들게 된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은 각국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저 나의 아들과 백성들과 상관있을 뿐이다. 복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필히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들과 백성들이 성장하고 나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철저히 거둬들일 것이며, 그 후로는 더 이상 재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은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와 나의 장자들이 몸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는 때이다. 이는 천지가 뒤집히는 것처럼 온 땅과 우주가 진동하는 일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때, 나와 나의 장자들은 함께 영광을 얻고 다음 단계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지만, 이제는 은혜시대가 아니라 진노의 시기이므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음란한 짓을 하는 자, 재물에 관해 깨끗하지 않은 자, 이성 간에 선이 분명하지 않은 자, 내 경영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 영이 통하지 않는 자, 악령에게 점령당한 자 등 선민 이외의 모든 자들)은 하나도 놓아주거나 용서하지 않고 전부 음부에 처넣어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크고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의 관념에 불과하다. 일곱 나팔은 내 진노의 음성을 의미한다. 내가 음성(위엄 있는 심판과 진노의 심판)을 발하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현재 이것은 내 집에서 가장 엄한 조목이기에 누구도 피하지 못함). 그리하여 음부와 지옥에 있는 크고 작은 마귀들은 모두 머리를 감싸 쥐고 슬피 울며 도처로 도망칠 것이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지금은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아니라 내가 진노를 쏟는 때이자 가장 엄한 심판의 시기이다. 누구도 여기에서 도망칠 수 없으므로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 밝히는 것은 결코 일곱 인의 내용이 아니다. 일곱 인이란 향후 너희가 누릴 복을 의미한다. 또한, 떴다는 말은 너희가 이해하기만 할 뿐, 아직 누리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그것을 누릴 때면 일곱 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중 일부만을 알 수 있을 뿐,

완전하지는 않다. 앞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희에게 조금씩 알려 주어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더없는 영광을 누리며 마음껏 즐기게 하는 수밖에 없다.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웬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역점을 두겠다. 장자들에게는 반드시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절대 원치 않는다. 남녀 간의 관계가 문란한 사람은 더욱 필요 없다(백성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특히 강조하겠다.). 지난 일이니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장자의 이름을 얻는 것이 그리 쉬운 것 같으나? 또한 나를 대적하는 자, 육신에 거하고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나는 이렇게 엄하다(지금 내가 권세를 철저히 되찾았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은 자 또한 원치 않는다. 모두 나처럼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어야 한다. 작은 환난이라도 상관없지만, 그것조차 겪지 못한 자는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내 장자의 자리를 노리며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라. 당장 한쪽으로 물러가라! 한때 내게 보잘것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좀 하고는 나의 기쁨을 사고자 하는데, 눈이 멀었구나! 너에 대한 내 증오를 모르는 비천한 자로구나! 네가 행한 수작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몇 번이나 숨기고, 몇 번이나 기만했거늘! 너의 흉악한 얼굴이 이미 본모습을 드러냈음을 모른단 말이나?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나까지 모를 줄 알았느냐? 나를 위해 힘쓰는 자 치고 쓸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부 처리해야 할 천박한 것들이다. 그러니 전부 무저갱에 던져 모조리 불사르리라!

말을 해도 경건함이 없고, 일을 해도 충성심이 없으며,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허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아라! 천박한 존재이다! 이런 자를 남겨 어디다 쓰라는 것이냐? 내 눈앞에서 빨리 쫓아 버릴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말에서 깨우침을 얻으며, 나의 전능과 지혜를 알아야 한다. 예전에 나는 늘 거룩한 영체가 나타났다고 말하곤 했다. 말해 보아라. 정말 나타났느냐? 내가 허언을 한 것이냐? 거룩한 영체란 무엇이나?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거룩한 영체라고 하겠느냐?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내가 알려 주겠다. 나에게는 흠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공개되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자유롭다(내가 지혜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말하기 때문임). 내가 행하는 일 중 몇몇하지 못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 빛 속에서 행하므로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복종하고 누구도 책잡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체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이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한 조목이자, 내 성품의 일부이다. 영체란 내가 발하는 음성을 말한다. 내 말에는 모두 목적과 지혜가 있지만, 조금도 통제받지 않는다(나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이는 내 영이 음성을 발하는 것이고, 내 본체가 말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한다.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을 때는 사람을 드러낼 때인데, 그 또한 내가 적합하게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사탄의 본질을 드러낼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거룩한 영체도 함께 나타난다. 향후 거룩한 영체는 몸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현재와 미래에 각각 하나씩 그 의미가 적용된다. 하지만 미래의 거룩한 영체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와 크게 다르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누구도 꿰뚫어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내가 직접 너희에게 계시해 주어야 한다.

제95편

사람이 상상하기에 모든 일은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일에는 다 숨겨진 비밀이 있으며, 나의 지혜가 깃들여 있고 나의 안배가 들어 있다. 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전부 친히 안배한다. 큰 날의 심판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명심해라! 큰 날의 심판은 이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 통곡 소리는 어떤 사람이 아닌 귀신이 내는 소리이며, 음부와 지옥에서 오는 것이다. 그 통곡 소리도, 사람에게 대한 내 경륜의 마지막 구원도 나의 심판으로 인해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얼마간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버려야 할 것 같다. 나의 사역이 이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장자도, 백성도 아닌 자들은 전부 버릴 것이다. 모두 내게서 썩 물러나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중국에서 장자와 백성 이외의 존재는 다 큰 붉은 용의 자손이며, 버림받을 대상이다. 명심해라! 중국은 어쨌든 내게 저주받은 나라이니, 몇몇 백성도 단지 앞날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대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장자 외에 다른 사람은 모두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다. 내 저주를 받은 자는 곧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나는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누구든 눈에 거슬리는 자가 있다면 바로 차 버릴 것이다. 그것은 그가 내게 저주받은 대상이고 큰 붉은 용의 후손임을 설명해 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중국에는 오직 장자(힘쓰는 백성을 제외함)뿐이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하지만 장자는 소수의 몇 명뿐이며, 모두 나의 예정에 있다. 내가 행한 일은 내가 안다. 나는 네가 소극적으로 구는 것도, 돌아서 나를 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행정 법령과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 손에 재난난이 쥐어져 있으므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날이 오면 너를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장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양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예정에 달려 있다. 내가 장자라고 말하는 자가 곧 장자이니 싸우지도, 빼앗지도 말라. 모든 것이 나, 전능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

언젠가 나는 너희 모두에게 나의 행정 법령이 무엇인지, 또 나의 진노가 무엇인지(모두가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며, 용서를 빌고 순종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장자 된 자들에게 그중 일부만을 보여 줄 뿐이다.) 보여 줄 것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의 모든 자손에게 내가 장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 많은 희생양(장자 외의 모든 사람)을 골랐으며, 큰 붉은 용이 스스로의 잔꾀에 빠지게 했음(나의 경륜에서 큰 붉은 용이 나의 경륜을 방해하려고 나를 위해 힘쓸 대상, 즉 장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보냈으나 자신의 꾀에 넘어갔다. 그들은 다 나의 일을 위해 힘을 바쳤다. 이 또한 ‘내가 만유를 움직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한다’의 참뜻의 일부이다.)을 보여 줄 것이다. 오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때, 나는 그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내 발아래 짓밟는다. 나는 이 일로 큰 붉은 용에게 수치를 주고 그것을 철저히 모욕했다(어물쩍 넘어가 복을 얻고자 했지만, 나를 위해 힘쓰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음).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정도, 의리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게 인간성이 없다고 여긴다. 확실히, 나는 사탄에게 정도, 의리도 없다. 또한 나는 인간성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이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인간성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모르느냐? 내가 모든 것을 초월했음을 모르느냐? 나의 장자들 외에는 아무도 나와 같지 않고, 나의 성품(사람의 성품이 아닌 신성한 성품)을 지니거나 나의 자질을 갖춘 자 또한 아무도 없다.

영계의 문을 열면 너희는 모든 비밀을 보게 된다. 너희는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에 들어가고, 내 사랑의 품속에 안기며, 내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나는 늘 손으로 인류를 받치고 있었지만, 일부 사람은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받친다’고 말한 이유는 내가 받치지 않았다면 온 세상이 진작에 타락하여 음부에 내려갔을 것이기 때문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경륜이다. 무엇이 나의 경륜이겠느냐? 내가 인류를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들었겠느냐? 내가 말했듯이,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류를 만들 때, 나는 그저

인류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고자 소수의 장자 그리고 아들들과 백성들을 만들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장자와 백성, 아들 외의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다 힘쓰는 존재이며,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모든 경륜은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륜이자 사역이며, 절차이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나는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평온해진다.

내 사역의 발걸음은 몹시 빨라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으며, 하루하루가 다르다.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손해를 볼 것이니, 매일의 새로운 빛을 지켜야 한다(그러나 나의 행정 법령, 내가 교제한 이상(異象)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 내가 왜 날마다 말을 하겠느냐? 왜 시시각각 너를 깨우쳐 주겠느냐? 그 참 뜻을 알겠느냐?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시시덕거리며 진지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내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며, 그저 내 말을 듣는 당시에나 약간 조금해할 뿐,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조차 망각한 채 거드름을 피운다. 너는 네 지위에 대해 알고 있느냐? 나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될지, 아니면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가 될지는 모두 내 손에 의해 주관된다. 누구도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내가 친히 행해야 하고 친히 예정하고 택해야 한다. 누가 감히 나를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내가 하는 일 하나에도 나의 지혜가 있다. 누가 또다시 내 경영을 방해하고 내 계획을 망쳐 놓겠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시간은 모두 내 손안에 있다. 나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경륜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역시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니냐? 내가 이루어지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완성되라고 하면 완성된다. 나는 조금해하지 않고 적절하게 안배할 것이다. 사람은 나의 사역에 끼어들어서도, 나를 위한다며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누구든 끼어드는 자가 있다면 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한 항목이다. 나의 사역은 나 스스로 하지, 그 누구도 필요 없다(힘쓰는 자들 역시 내 명령을 따른다. 내 명령 없이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모든 사역은 다 내가 스스로 안배하고 내가 스스로 정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이권을 놓고 다투고, 영토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만, 당황할 것 없다. 이는 모두 나를 위해 힘쓰는 것에 불과하다. 어째서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사탄을 심판할 때는 먼저 그것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마지막엔 멸망시키며, 그것들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한다(나와 권세를 다투다가 결국엔 나를 위해 힘쓰는 대상이 되는 것을 놓고 말함). 나는 말하기만 하고, 명령을 내리기만 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면 그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즉시

그자를 멸할 것이다. 이것은 전부 내 심판의 일부이다.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기에 모든 것이 다 내가 정한 대로 따른다. 모든 것은 내가 직접 안배하니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너희도 앞으로 임할 일들에서 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제멋대로 하지 말고, 일이 생기면 나에게 더 많이 다가와라. 다방면에서 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여 내 형벌을 초래하거나 사탄의 간계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말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나의 어떠함을 알고, 나의 소유를 보아야 한다. 또한, 제멋대로 굴지 말고 반드시 내 기색을 살피 행동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너희에게 미리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을 저질러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어떠함과 소유겠느냐? 너희는 이에 대해 진정 인식이 있느냐? 내가 받는 고통은 내 어떠함의 일부이다. 그것은 내 정상 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의 완전한 신성 측면에도 나의 어떠함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나의 어떠함은 두 가지 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인성의 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신성의 면이다. 이 두 가지 면이 결합되어야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신성 면의 어떠함에도 많은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속박받지 않고, 모든 환경과 시간적·공간적·지리적 제약을 초월한다. 또한,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나는 여전히 뼈와 살, 그리고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보인다. 단, 성질은 이미 바뀌어 육체가 아닌 몸이다. 이런 것은 모두 작은 부분이다. 모든 장자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이 길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할 때, 나는 예정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차 버릴 것이다(이는 내 말이 정확한지를 보려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임). 반면, 내가 예정한 자는 어딜 가든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원칙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소유란 나의 지혜와 식견, 지략, 모든 말을 가리킨다. 이는 내 인성과 신성이 모두 갖추고 있는 바이다. 다시 말해, 내 인성과 신성이 행하는 것들이 다 나의 소유이다. 이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취할 수 없다. 내가 갖춘 것이라면 아무도 바꿔 놓지 못한다. 이것은 내 행정 법령의 가장 엄격한 항목이다(내가 행한 수많은 일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가장 거스르기 쉬운 항목이자 가장 엄격한 항목이므로 사람의 생명은 여기에서 손해를 본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대충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제96편

나는 나에게서 났으나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형벌하여 내 진노의 전부를 나타내고, 내 큰 능력과 온전한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공의이며, 불의와 간사함, 교활함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다면 그는 필히 지옥의 자식일 것이며, 분명 음부에서 태어난 자일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하며, 내가 이루어지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세워지라고 하면 세워진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꿔 놓거나 따라 할 수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할 일에서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장자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장자 그룹 이외의 자들은 이를 계기로 내게 내쳐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을 끝마친다. 현재 일부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저 나의 장자들에게 내 기묘한 행사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국면에서 출발할 것이며,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귀신과 귀신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몇몇만 본보기로 들추어내면 충분하기 때문임). 장자들은 속으로 다 알고 있을 테니 내가 분명히 짚어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때가 되면 하나씩 드러날 것이기 때문임).

말한 대로 하는 것은 내 성품이며 나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는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전부 알려 주지만,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절대로 말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으로 인해 큰 것을 잃지 말라. 그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보여 줄 것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무정하고 가차 없다. 누군가 나의 형벌을 거스른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고 참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를 똑같이 대하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행한다. 나에게서는 일말의 사사로운 감정도 없고, 감정에 의거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없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나의 공의와 위엄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는 나의 지혜이자 성품이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밝히 깨달을 수 없다. 나의 손은 한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휘하며,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 내 경륜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봉사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눈앞에 복을 두고도 결국 누리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하냐! 하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자(행정 법령이라고 하면 아무도 바꿔 놓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는 말들에도 내가 정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의 행정 법령일 것이다. 명심해라!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내 경륜의 일부이다. 또한 이는 내가 친히 하는 사역이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며, 이렇게 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 전능을 보여 주고 내 진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내 인성의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한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여전히 아리송해하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사역이다. 지금 이 시기에 알면 좋고 알지 못해도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미 확실히 말했으니 앞으로 더는 말하지 않겠다(너무 많이, 너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는 의심할 나위 없이 장자 중의 한 명이다. 그러나 나를 모르는 자는 틀림없이 아니다. 이는 내가 이미 그에게서 나의 영을 거두어들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인성과 신성의 두 측면에서 나를 완전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은 내 사역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또한 이는 내 행정 법령이기도 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입에서 유일한 참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내게 끝없는 찬미와 환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내 경륜은 이미 전부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일찍이 이루어졌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 수많은 사역이 진행 중인 것 같겠지만, 나는 이미 다 적절히 안배해 놓았다. 이제 내 절차에 따라 한 항목씩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나는 누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을지, 누가 예정되고 선택될 수 없는지, 누가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지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내 고난에 동참하는 자, 즉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라면 내가 반드시 그를 보호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할 것이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다. 봉사자일지, 장자일지, 아니면 아들이나 백성 중의 하나일지 나는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과거에 내가 장자라고 칭한 자는 지금도 장자이며, 과거에 내가 장자가 아니라고 한 자는 지금도 여전히 장자가 아니다. 나는 일을 함에 있어 후회하지 않으며, 쉽사리 바꾸지도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했으면 그렇게 정해진 것이므로(나는 경솔하지 않음)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영원히 힘쓰는 나의 우마이다(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영이 통하지 않는다. 내가 쓸 때는 그들이 유용하지만, 쓰지 않을 때는 그들을 죽여 버릴 것이다. 우마라고 하면 영이 통하지 않고, 나를 모르며,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말을 잘 듣고 순종할뿐더러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그자는 그저 표준적인 우마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절제 없이 제멋대로 굴며, 함부로 지껄이고 웃거나 방자하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그런 자들은 내 인성의 면만 보았을 뿐, 신성의 면은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인성 면에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넘어가고 어찌어찌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성 면에서는 그리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향후 나는 너에게 나를 모독한 죄를 정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인성은 거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신성은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거스른다면 절대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심판할 것이다. 네가 나, 이 사람과 오랜 세월 함께하고 익숙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주지 않는다! 나는 누구든 공의로 대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다.

비밀은 날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루가 다르게 더 분명해진다. 너희는 계시의 절차에 따라 내 사역의 진행 발걸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의 지혜이다(나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내 장자들에게는 깨우쳐 주겠지만, 큰 붉은 용의 자손들에게는 숨긴다.). 오늘날 나는 나의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내 비밀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열어 주어 확실히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다. 이 비밀은 장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만, 아무도 깨닫지는 못한다. 비록 모든 사람의 내면에 다 있지만,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요 사이에 사역하고 음성을 발하는 과정에서 나는 늘 큰 붉은 용, 사탄, 마귀, 천사장을 언급하곤 했는데 이것들은 또 무엇이나? 이것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큰 붉은 용은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의 의미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언제나 나를 핍박하고, 간계로 나의 경영을 방해하려 한다. 사탄은 나와 권력을 놓고 싸우고, 내 선민을 점령하려 하며, 부정적인 말을 퍼뜨려 내 백성들을 미혹시킨다. 마귀(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불신파는 전부 마귀임)는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고 사악한 정욕과 사욕에 젖어 있으며,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들 중 어떤 자는 나를 대적하고, 어떤 자는 나를 지지한다(그렇다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천사장은 거만을 떨며 말을 하고, 경건함이 없으며, 늘 내 어조를 빌려 다른 이를 훈계한다. 겉으로 나를 모방하는 데만 집중하여 내가 먹는 것을 따라 먹고, 내가 쓰는 것을 따라 쓰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고, 야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자질도, 생명도 갖추지 못한 폐물에 불과하다. 사탄, 마귀, 천사장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자는 모두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절대적이다! 이들은 모두 나의 원수(그러나 사탄이 방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의 본성에 나의 자질이 있다면 이것은 누구도 바꿔 놓지 못한다. 현재 여전히 육에서 살고 있기에 이따금 사탄의 유혹을 마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 시시각각 주의해야 한다.)이므로 장자들 외에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은 모두 버릴 것이다. 그들의 본성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탄의 자질이다.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마귀이며, 살아 내는 것은 천사장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큰 붉은 용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마리의 크고 붉은 용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게 반하는 악령을 뜻한다. ‘큰 붉은 용’은 그것의 대명사이다. 그러므로 성령 외의 모든 영은 악령이며,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이다.

제97편

나는 각 사람이 나의 기묘한 행사를 보고 나의 지혜로운 말을 듣게 할 것이다.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매사에서 말이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자 진노이다. 나는 이를 각 사람과 매사에 적용시킬 것이며, 우주 땅끝의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나는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진노를 남김없이 모조리 쏟아부을 것이다(머지않아 세계 각국으로 방향을 바꿈). 나의 진노란 무엇이나? 어느 정도로 심하냐? 어떤 사람에게 진노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화가 가장 많이 난 것을 진노라고 여기지만, 이런 해석은 결코 완전한 해석이 아니다. 진노와 나의 행정 법령은 분리할 수 없는 두 부분이다. 내가 나의 행정 법령을 집행할 때 진노도 이에 따라 쏟아진다. 도대체 진노란 무엇이나? 진노는 내가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의 정도이다. 다시 말해, 행정 법령의 어느 한 조목을 집행하는 원칙인데, 누가 어느 한 조목을 거스르면 나의 진노가 그 정도까지 이른다. 진노가 있으면 반드시 행정 법령이 있고, 행정 법령이 있으면 반드시 진노가 있는데, 행정 법령과 진노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는 가장 엄한 심판이니 그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마다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역대로 사람이 이를 안 적은 없었다(어떤 사람은 대재난의 고통을 겪고도 여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지금부터 집행한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너희가 거스르지 않도록 너희에게 완전히 밝혀 준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나의 말을 듣고 또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하지도 공사를 벌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일언일행은 다 너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너희의 본보기다. 성육신하게 된 까닭은 바로 너희에게 나의 인간적 어떠함과 소유를 보게 하고, 장래에 나의 신적 어떠함과 소유를 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반드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나를 알 수도 없으며, 이상(異象)이 흐릿하고 나를 분명히 볼 수도 없다. 나의 말은 나의 본체가 완전히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람이 무지몽매하여 내 말을 듣고도 나를 알지 못할 뿐이다. 오늘날 내가 성육신했어도 사람은 여전히 나를 대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진노와 행정

법령으로 이 사악하고 음란한 옛 시대를 징벌하여 사탄과 마귀를 철저히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자 인류의 종착지와 결말이기도 하다. 대세가 이미 정해졌으니 그 누가 바꿀 수도, 설득할 수도 없다. 오직 나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경영이자 계획이니 사람마다 반드시 믿고 또 진심으로 승복하게 할 것이다. 금생에 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영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금생에 고통을 받는 자는 반드시 영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정한 바이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내가 한 말에 누구든지 한 글자라도 더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제멋대로 한 글자를 없애는 것은 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거스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나의 비밀을 날마다 너희에게 밝혀 주는데, 너희는 정말로 깨달았느냐? 정말로 확신했느냐? 사탄이 너를 미혹할 때 너는 간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 너희 생명의 분량에 달렸다. 모든 것을 내가 예정한다고 말했는데, 왜 내가 친히 성육신하여 장자를 온전케 하겠느냐? 게다가 사람이 보기에 내가 왜 또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겠느냐? 내가 어리석단 말이나? 명심하여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장자들을 얻기 위해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이다. 사탄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사탄의 자손이 사탄을 거역하게 하고 돌아서서 나를 찬미하게 할 능력이 있다. 나아가 이는 다음 단계의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온 땅이 환호하면서 나를 찬미하고,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때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날이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 일곱 우레가 울릴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확정되며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 하나님나라 생활이 시작된다. 하지만 하나님나라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사람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아무도 하나님나라 생활을 겪어 보지 못했기에 단지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마음속으로만 궁리할 뿐임).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나라 생활로, 다시 말해 현재 모습에서 미래 모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나라 생활로 들어가는 전제이기에 나는 하나님나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온 힘을 다해 교회 생활을 발전시킬 것이다.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장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나를 알아 가고, 나의 불사름과 정결케 함을 받아들여 나의 행정 법령과 심판, 진노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나라 생활에서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나라 생활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모든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이 되어 만국 만민을 다스리는 생활이다(나와 나의 모든 장자들만이 하나님나라 생활을 누릴 수 있음). 만국 만민 중의 아들과 백성들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나라 생활을 누릴 수는 없다. 하나님나라 생활은 반드시 영계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장자들과 나만이 몸으로 살 수 있지 그 외의 아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다(하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된 육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들이 나와 더불어 왕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영, 혼, 육이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멸망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드시 고난과 재앙 등 사탄의 모든 결박과 잔혹한 박해를 겪어야 함). 그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 생활의 정상 궤도에 들어가고 나의 행사를 나타내기 시작한다(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타냄). 그때부터는 절대 탄식도 눈물도 없을 것이고(상심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이것은 아들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들과 백성들은 영원히 육이다.), 모든 것이 상쾌하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비물질적인 것이다. 장자들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기묘한 행사이자 큰 능력이다.

너희가 늘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일시적인 누림은 너의 일생을 망칠 것이고, 일시적인 고통은 영원한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나는 이전에 늘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축복이란 무엇이나? 오늘날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후에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너희가 시온산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고통에 대해 끝없이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오늘 육신으로 사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것이고(네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놓고 말함), 내일 몸으로 사는 것은 영광의 날이고 더욱이 시온산에 있는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시온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시온산은 하나님나라의 대명사이자 영계이다. 오늘의 시온산은 육신이 위로를 얻고 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후의 시온산은 몸으로 왕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복받을 때를 놓치지 말라. 오늘은 어디까지나 오늘일 뿐, 내일과는 크게 다르다. 네가 복을 누리게 될 때, 너는 오늘의 은혜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부탁이자 나의 마지막 충고이다.

제98편

너희는 너희 각자에게 임한 모든 일을 통해 나를 더 알게 되고 나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 이 유일한 하나님 자신, 나 이 전능자, 그리고 나 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육신에서 나와 시온으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은 나의 거처이자 내가 돌아갈 곳이며 내가 만물을 창조한 근거지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한다. 너희 중 이 말의 함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드러내야만 너희는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주에는 더욱 속하지 않는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 세계가 내 손안에 있고 나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다. 사람은 온전히 나의 권병 아래 순종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내게 환호하고 나를 찬미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씩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감춰진 일이 없을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가 말하는 방식과 어투를 잘 알지 못하고, 나의 경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모든 말 중에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부 알려 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간단명료하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어렵기 그지없어 그야말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말하는 방식을 바꿔, 더는 서로 연결 짓지 않고 하나하나 분명히 지적하려 한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육신이 죽은 다음 죽음에서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으로 성육신했을 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정말 글자 그대로의 표면적 의미를 뜻하겠느냐? 그 과정이 정말 글자로 서술한 그대로겠느냐? 말했듯이, 내가 분명히 말하거나 알려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만세와 만대의 모든 사람 중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한 자는 지금껏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창세 이래 그 누구도 그 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진정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고 죽은 후에 무덤에서 나왔느냐? 정말 그러하냐? 그것이 사실이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공을 들이지 않았고 이를 통해 나를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내적 함의가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머지않은 미래에 너희가 이 일을 겪을 것이기에 미리 알려 주는 것임) 피조물은 누구나 살기를 바라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육의 죽음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나의 영을 거둬들일 때 비로소 죽음을 맞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에 의해 파괴된 마귀들(불신파와 모든 이방인)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을 창조한 후, 나는 내가 택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람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 그래서 나는 떠났고 사람은 고통과 고난(내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받은 고통을 가리킴)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예정한 시간(내가 사람을 버린 뒤의 기한)에 예정한 사람을 다시 되찾아 그들에게 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했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진정으로 나의 영 안에서 사는 자는 이미 초월하여 몸에서 살고 있다. 머지않아 너희는 사유와 관념, 그리고 땅에 속한 모든 얽매임을 벗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상상하듯 고통을 받은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몸에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영계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내가 말하는, 정상 인성을 초월하는 것은 가정과 아내와 자녀 등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나의 형상을 살아 내는 것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중시하고 나 이외의 다른 것은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으며,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다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상 인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말을 그릇되게 해석했고 너무도 얽박하게 인식했다. 만국 만민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지금의 육체로 나타나겠느냐? 아니다! 때가 되면 나의 몸으로 우주 각국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외국인을 목양할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는 육신에서 나와 몸으로 들어가 목양해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질 일이지만, 사람이 상상하듯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서 나와 영계로 들어가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너희가 육신에 있어야 한다면 너희는 육신에 머물게 된다(내 사역의 필요로 인해 지금 너희는 반드시 사유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여전히 육체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계속 나의 절차에 따라 육체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또, 내가 보기에 너희가 몸에서 교회를 목양할 필요가 있으면, 너희는 육신에서 나와 사유를 벗어 버리고 완전히 내게 의지해 살아갈 것이다. 나의 큰 능력과 지혜를 믿어라.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 너희에게는 누릴 일만 남았다. 나는 반드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려 한없이 누리게 해 주겠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원칙과 나의 기묘한 행사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장자들을 데리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절대 너희의 상상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너희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희는 내 말의 목적을 더욱 찾지 못하여 어리둥절해할 것이다. 또한 이전에 한 말과 혼동되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전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에는 다 의의가 있다. 말했듯이, 나는 존재하는 것들을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많아지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육신에서 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고 상상한다. 이전에 나는 그런 방법으로 나의 크나큰 이적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나는 너희를 육신에서 직접 몸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는 더 큰 이적과 기사가 아니겠느냐? 나의 전능을 더 분명히 나타내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 내 손안에 있지 않은 자가 있느냐? 나 자신이 하는 일은 나 스스로 알고 있다. 오늘날 내가 사역하는 방식은 어쨌든 이전과는 다르다. 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은혜시대였지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다. 내 사역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과거와 같거나 느린 것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빨라졌다. 번거롭게 많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어떻게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를 온전케 할지는 권병을 지닌 나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내가 말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난날, 나는 늘 내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사람에게 이전에 겪은 고난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언급한다면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 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신이고, 나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그런 고난을 언급할 때면 사람들이 상심하여 눈물을 흘린다. 나는 앞으로는 절대 탄식도 눈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해야 내 말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절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의 모든 관념과 사유, 그리고 육적인 감정과 모든 세속적인 냄새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나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반박할 때도 여전히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 자신임을 확실히 증명한다. 또, “육신에서 영계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장자가 나와 함께 왕권을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라고 한 말은 너희가 이전에 상상했던 그 일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정식으로 육신에서 나와 몸으로 들어가서 집권자들과 임금들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 일로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너희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이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죽음에서 부활할 필요도, 너희가 고통받을 필요도 없다(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 고난은 끝났기 때문이다. 또한 말했듯이, 나는 지금부터 더 이상 장자들을 훈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째서 그것을 나의 공홀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겠느냐?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영계에 들어간다면 공홀과 은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은 나의 공홀과 은총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사람에게 대한 나의 예정과 택함을 더욱 잘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내 행정 법령의 엄함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나는 은총을 베풀고 싶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 공홀히 여기고 싶은 자를 공홀히 여긴다. 그러니 누구도 빼앗으려 하거나 다뤄선 안 된다. 모든 것이 나의 일이다.

사람은 모두 생각이 트이지 못해 숨도 못 쉴 정도로 스스로를 압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속박하니, 사람의 사유는 참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필히 사람의

사유와 관념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반드시 육신에서 나와 영계로 들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만국 만민을 다스릴 수 있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머지않은 일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전능을 믿지 않고 나,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그저 나를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길 뿐, 내 신성은 조금도 보지 못한다. 나는 이루고 싶을 때 이루는데, 이는 전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 최근 내가 한 말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너희는 오직 나의 인성 측면만 중시할 뿐, 나의 신성 측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에게도 사유와 관념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과 생각, 사유, 일거수일투족, 일언일행이 전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발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너희는 이 말을 잊은 것이냐? 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니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말에서 나의 정상 인성의 일면을 보게 한다(너희가 나의 이 한동안의 말에서 여전히 내 정상 인성의 일면을 알지 못했기에, 나는 일상생활과 실제 속에서 너희에게 내 정상 인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정상 인성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트집을 잡고 내 앞에서 제멋대로 구는구나! 눈이 멀고 어리석도다! 나를 알지 못하다니! 이렇게 오랜 시간 말했건만 헛된 것이었구나. 너희는 전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정상 인성을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어찌 노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다시 긍휼을 베풀겠느냐? 이 패역한 자식들은 진노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방자하고 이렇게 나를 알지 못하다니! 나,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기다니! 내가 어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 없이 한 육신을 택해 입었겠느냐? 나의 인성과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을 이루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두 부분이다. 이제는 너희가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할 말을 다 했으니 더는 너희에게 잔소리하지 않겠다!

제99편

내 사역의 속도가 빨라지니 누구도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의 ‘죽음’을 의미한다(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말 속에서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죽음의 또 다른 해석이지, 내 영이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단계에서 몸 안으로 넘어갈 때,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의 본뜻이 응할 것이다(다시 말해, 이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의 본뜻임). 현재 너희가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내 마음을 알 길이 없고, 내 자취를 찾지 못하며, 영 안에서 평온해지지 못한 채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내가 언급한 ‘고통’이다.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고려하는 한편, 사방팔방에서 쏟아지는 나의 불사름과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 말의 어조와 방식에서 조금의 법칙도 찾아내지 못한다. 내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을 보면 어조가 몇 가지나 되는데, 이는 너희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내 사역의 절차이자 나의 지혜이다. 앞으로 너희는 이 방면에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외식하는 모든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너희는 이러한 고통의 자극 아래 있다. 죽음에 필적할 만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경지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으로 진입하여 나와 함께 왕권을 잡고, 만국 만민을 다스리게 된다.

최근 들어 내 어조가 엄해진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어째서 내 어조와 사역 방식은 변화무쌍한 것이겠느냐? 여기에는 내 지혜가 들어 있다. 나의 말은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대상(내 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보게 해야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는 나만의 사역 방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말로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며, 사람의 본성을 폭로한다. 이를 통해 내가 택할 사람을 고르고,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친다. 이는 모두 나의 지혜이자 내 사역의 기묘함이다. 또한, 이것이 이번 구간에서 내가 일해 가는 방식이다. 내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의 부담을 생각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일을 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 자신이다. 언젠가 너희는 내가 한 이 말의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한량없어 사람은 조금도 간파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만 내가 하는 일에서 지혜의 일부를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하여 결함이 존재한다. 너희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지금은 가장 소중한 시대이자, 너희가 육신에 머무는 마지막 단계이다. 지금의 삶은 육에서의 마지막 삶이다. 육체에서 영계로 들어갈 때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때이다. 그때 너희는 분명 크게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기뻐 떨 것이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나의 이 말은 다 장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오직 장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영계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 최고의 복이며, 무엇보다 가치 있는 누림이다. 현재 너희가 얻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저 육적인 누림이자 은혜에 불과하다. 나는 전혀 그것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내 사역의 중점은 다음 단계(영계로 들어가 우주 세계를 향하는 것)에 있다.

나는 큰 붉은 용이 내게 내던져져 가루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 말을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계속 나를 위해 핍박과 환난을 겪으려 하느냐? 그것은 불필요한

희생이 아니냐? 나는 너희에게 누리는 것에만 신경 쓰라고 여러 차례 일깨워 주었다. 내가 친히 일할 텐데, 왜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느냐? 정말 누릴 줄도 모르는구나!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히 예비해 두었다. 그런데 왜 내게로 와서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냐? 아직도 내 말을 확신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어리석다(‘모든 것을 완벽히 예비해 두었다’는 말은 나를 더 많이 앙망하고, 내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다. 내가 친히 나서서 내게 대적하는 모든 자를 저주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자를 징벌할 것이다.)! 내 말에 조금의 인식도 없구나! 나는 내 비밀을 전부 너희에게 열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 중 이를 분명히 깨달은 자는 몇이나 되느냐? 진정 깊이 있게 깨달았느냐? 나의 보좌란 무엇이냐? 나의 철장(鐵杖)이란 또 무엇이냐? 누가 알고 있느냐? 보좌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앉는 곳이나 나의 거처, 혹은 나, 이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모두 그릇된 것이다. 그야말로 엉망이구나! 너희는 하나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모두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달았으니, 정말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다! 권병이란 무엇이냐? 권병과 보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좌가 바로 나의 권병이다. 장자들이 나의 보좌를 높이 받들 때가 바로 그들이 내게서 권병을 얻을 때이다. 오직 나만이 권병을 지니므로 나에게만 보좌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자들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은 후, 나의 어떠한 소유를 부여받고 내게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얻는 과정이자, 그들이 내 보좌를 높이는 때이며, 나에게서 권병을 받게 될 때이다.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다 분명히 알 수 있게 조금도 모호함이 없이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그러니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열어 주는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라! 그렇다면 철장이란 무엇이겠느냐? 이전 단계에서 철장이라면 내 엄한 말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 철장이 가리키는 것은 나의 행사, 즉 권병을 지닌 대재난이다. 그러므로 철장을 언급하면 곧 권병과 연결된다. 철장의 본뜻은 대재난을 가리키며, 이는 권병의 일부이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말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의 손에는 철장이 들려 있다. 즉, 권병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그는 대재난의 어떤 것이든 집행할 권세가 있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한 조목이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공개되고(확실히 지적인 부분을 가리킴), 모든 것이 또 너희에게 감춰진다(내 말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가리킴). 나는 말을 지혜롭게 한다. 어떤 말은 너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하고, 어떤 말은 그 말에 담긴 함의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단, 보통 사람은 찾아낼 수 없음). 이것이 내 사역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분량이 일정한 정도가 되면 너희에게 참뜻을 알려 줄 것이다. 이는 나의 지혜이자 기묘한 행사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며, 마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것임). 이는 너희가 또 다른 차원에 진입할 때에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많은 일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내가 분명히 말해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계에 들어간 후에야 많은 일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여 내 경영에 방해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내 사역의 절차’의 진정한 의미이다. 너희의 생각 속에 나에 대한 앎은 얼마나 되느냐? 너희의 앎은 조금도 틀림이 없느냐? 그것은 영적인 앎이냐?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내 사역을 완성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체 ‘또 다른 차원’이란 무엇이겠느냐? 정말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정경이겠느냐? 공기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존재하는 것이겠느냐? 나는 예전에, 몸에 있을 때의 상태는 뼈와 살이 있고, 형태와 모양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모두가 믿어야 한다. 이것은 몸에 있을 때의 실제 상태이다. 몸에는 사람이 혐오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겠느냐? 사람이 육체에서 몸으로 갈 때는 반드시 큰 그룹이 생길 것이다. 즉, 자신의 육적인 집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육체는 육체로, 몸은 몸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가정과 부모, 아내(남편), 자식을 떠나는 것은 영계에 들어가는 시작이다. 결과적으로 영계의 정경은 장자들이 한데 모여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내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고 환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고 늘 새로운 광경이다. 모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들은 영원히 나를 찬미하고, 영원히 내 거룩한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계에 들어간 모습이자, 영계에 들어가는 사역이다. 이는 또한 내가 말한, 영계에서 교회를 목양하는 모습이며, 더욱이 나의 본체가 우주 각국, 그리고 만국 만민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다. 나는 권병과 진노, 심판, 나아가 철장을 지니고 만국 만민을 다스릴 것이다. 또한, 나를 위해 만민 가운데서, 온 우주에서 천지가 진동할 만한 증거를 할 것이며, 만민과 산과 강과 호수와 땅끝의 만물이 다 나를 향해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며, 모든 것을 인도하고, 관리하고, 심판하고, 온전케 하고, 징벌하고, 멸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인 나에 대해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본체가 현현한 것이다.

제100편

나는 내가 예정하지도, 택하지도 않은 모든 자들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내 집에서 쫓아내 나의 전을 흠 없이 거룩하게 할 것이며, 내 집을 항상 새롭게 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널리 알리며, 내 거룩한 백성들이 다 내 사랑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정경과 이런 집,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는 나의 처소이자 내 만물 창조의 근거지니,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오직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만이 그곳에 거할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곳을 망가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그곳을 점령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그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곳에는 찬미와 환호만 있으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경만이 존재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바치기만을 바란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힘쓰는 자든 복받는 자든 모두 내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는 피조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고 이대로 집행해야 한다. 나는 내 나라를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 집을 화평으로 단결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이 힘을 바치게 할 것이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것이다. 지금 나의 저주가 만국의 백성들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저주는 심판보다 더 강력하다. 이제 모든 사람을 정죄할 때가 되었으므로 저주라고 한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지 만물을 창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사역의 발걸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또한 사역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버릴 자는 버리고, 잘라 낼 자는 잘라 내고, 죽일 자는 죽이고, 남길 자는 반드시 남기리라. 이는 사람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 추세이다. 사람은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으며, 반드시 내 뜻에 따라야 한다! 내가 버리려고 한 자는 버려질 것이고, 내치려고 한 자는 반드시 내쳐질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남길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자를 기뻐할 것이다. 반드시 내 뜻에 따라야 한다! 나는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나에게에는 오직 공의와 심판, 진노만 있을 뿐, 감정이라곤 조금도 없다. 또 나에게에는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내 인간적인 면만을 볼 뿐, 내 신적인 면은 보지 못하니 정말 눈이 멀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에서 내 뜻을 찾아 내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전능을 알고, 나의 본체를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말은 지혜의 말이므로 누구도 그 안에서 내가 말하는 원칙이나 법칙을 찾아낼 수 없다. 사람은

모두 내가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며, 내 말에서 나를 알아가기느라 오히려 나를 모독하니, 그야말로 눈이 먼 것이다! 조금도 분간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우매하구나!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권병이 있고 심판이 있으므로 누구도 그것을 바꿔 놓을 수 없다. 내가 말을 한 이상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나의 말이 곧 권병이므로 이를 고치려는 자는 형벌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게 죽임 당할 것이다. 심한 자는 목숨을 잃고 음부로, 그리고 무저갱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인류에 대한 내 유일한 처리 방식이며, 사람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명심하라!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여태까지 나는 너희에게 몹시 관대했다. 그저 말만 했을 뿐, 죽인다는 것과 관련된 말들은 아직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재앙(행정 법령을 가리킴)이 연달아 임하여 내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자를 징벌할 것이다. 반드시 사실이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계속 제멋대로 굴 것이다. 이는 내 경륜의 절차이자, 다음 단계 사역의 방식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 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를 거슬러 영원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오늘 이후로 나는 나의 뜻에 따라 장자들 외의 모든 사람을 하나씩 자기 자리에 앉게 한 후 형벌할 것이며,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더 방탕하게 굴어 보아라! 더 거역해 보거라! 내가 말했듯이, 나는 누구에게나 공의로우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를 통해 범할 수 없는 내 성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의 본체이며, 사람이 바꿔 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고, 내 영광의 얼굴을 보며,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우주 땅끝의 모든 사람이 나를 찬미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과 내가 사용하는 어휘, 나의 언행은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는 내 자신이 하는 일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나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 나를 비방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리하도록 두겠느냐? 내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냐? 내가 하는 일이 너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냐? 정말이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놈들이다! 나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시온산이란 무엇이냐? 나의 처소란 무엇이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란 무엇이냐? 만물 창조의 근거지란 또 무엇이냐? 어째서 내가 요 며칠간 늘 이런 단어들을 입에 올리는 것이겠느냐? 시온산, 처소, 아름다운 가나안 땅, 만물 창조의 근거지란 모두 내 본체를 가리킨다(몸을 가리킴). 사람은 그것을 유형의 장소로 생각하겠지만, 내 본체가 바로 시온산이고 나의 처소이다. 영계에 들어가는 자는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고, 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내 본체의 모습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 몸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근거지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왜 너희로 하여금 나와 함께 몸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겠느냐? 이 말에 담긴 본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앞에서 내가 언급한 명사들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저 다른 곳에서 달리 말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문자적 의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말에 집중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내 뜻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왜 너희에게 내 말에는 지혜가 있다고 거듭 일깨워 주는 것이겠느냐? 이 말의 함의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너희 중 몇이나 되느냐? 모두 사리 분별을 못 하고 어리석게 분석할 뿐이다!

너희는 내가 예전에 한 말의 대부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혹을 품고 있으며, 내 마음을 만족게 하지도 못한다. 너희가 내 모든 말을 확신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의 생명이 성장할 것이다. 나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너희는 내가 말한 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부 그릇되게 해석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내게 따지며 내 약점을 잡고자 한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나에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언젠가 진상이 드러나면 너희가 완전히 알 테지만, 지금은 알려 주지 않겠다(지금은 사람을 드러낼 때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나는 내 말로 모든 사람을 드러낼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두 본모습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기생인지 음녀인지 모두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내 말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나는 네가 위장해도 두렵지 않다. 일단 내가 말을 하면 너는 본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훌륭하게 위장해도 나는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금도 힘을 들이지 않고 말만으로 다 이루는 내가 일하는 원칙이다.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손에 땀을 쥐고, 나를 위해 초조해하며, 나 대신 걱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이지 사서 고생하는 것이며, 쓸데없는 걱정이다. 나를 위해 마음을 줄이면 네 생명이 성장한다더냐? 너 자신의 운명은 어떠하냐?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아라.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내 사역을 위해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나의 본체를 보아야 하며, 나를 더 잘 알아야 한다. 나의 전능과 지혜, 내가 만물을 창조한 방법에 대해 알며, 이로써 나를 끊임없이 찬미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 행정 법령의 손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내 사역이 누구에게서 이뤄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완성하려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행정 법령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누구도 함부로 내 말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 모두 내 말에서 내 행사의 원칙을 보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의 진노이고 무엇이 나의 저주인지, 무엇이 나의 심판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중시하며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제101편

나의 경영을 방해하고 나의 계획을 망쳐 놓는 자는 한 사람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의 말에서 나의 뜻을 찾아내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현재 상태에 비춰 보아 누구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을 위해 힘쓰고 있는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뜻에 따른 것인지 마귀를 따른 것인지 말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내 행정 법령을 거슬러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람은 모두 내게 불충불효하고 존중도 경외함도 없었으며, 심지어 나를 배신하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이 사람들이 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보기에 내가 사람이긴 하나 내 눈에 들지 않은 자들은(여기에서 내 뜻을 깨달아야 한다. 네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네 용모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정되고 택함 받은 자인지를 보는 것이다.) 모두 내게 내쳐질 대상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인성을 지닌 것 같겠지만, 너는 내 인성을 통해 내 신성을 보아야 한다. 내가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두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하나님만을 중요시한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주제에 내 장자가 되고 싶어 하다니,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신분도 모르는구나! 백성의 자리에도 뭍이 없건만, 장자가 되어 나와 함께 왕이 되겠단 말이냐? 이런 사람은 모두 자신을 모르는 사탄의 부류이니 내 집의 기둥이 될 자격도, 내 앞에서 나를 섬길 자격도 없다. 그러니 나는 이들을 하나하나 내치고 본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형통하며, 조금의 막힘도 없다. 나는 이미 이겼으며, 온 우주에서 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내가 마귀와 사탄을 물리친 후 다시 권세를 되찾았음을 가리킴). 내가 나의 장자들을 모두 얻을 때가 바로 시온산에 승리의 깃발이 솟아오를 때이다. 다시 말해, 나의 장자들이 바로 승리의 깃발이고,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다. 이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상징이자 내 사역 방식이다(내가 예정한 후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지만 다시금 내 곁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큰 붉은 용에게 수치를 안기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나의 전능을 의미하며, 나의 대성공을 상징한다. 이는 누구도

바뀌 놓거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장자들을 통해 내 경륜을 완성한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만국 만민이 너희로 인해 내 보좌 앞에 돌아오리라”라고 한 말의 참뜻이며, 더욱이 ‘너희 어깨에 짊어질 중임’이라는 말의 본뜻이다. 알겠느냐? 이해했느냐? 장자들은 내 모든 경륜의 결정체이므로 나는 그들을 잠시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줄곧 엄하게 징계하고 있다(세상에서 겪은 고통, 가정의 불행, 부모·남편(아내)·자식에게 버림받는 것, 요컨대 세상에 버림받고, 시대에 버림당하는 것을 가리킴). 그래서 오늘날 내 앞에 올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어째서 다른 사람은 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 걸까?’라고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다. 알았겠지!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와 다르다. 나의 경륜은 이미 새로운 방식에 접어들었고, 나의 사역은 더욱 예전과 다르며, 내가 하는 말 역시 전례가 없던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위해 잘 힘쓰고(봉사자들에게 하는 말) 스스로를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며, 열심히 추구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는 것은 크나큰 누림이 아니겠느냐?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내가 알려 주마! 오늘 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지 않고,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한다면, 내일 너는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일찍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니 내 경륜을 위해 너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내 심판과 내 공의의 형벌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내가 허튼소리를 한다고 여기지 말라. 나는 공의에 따라 말을 하고, 내 성품에 따라 말을 하며, 더구나 나의 공의와 위엄을 지니고 일을 한다. 사람들이 나를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며, 패역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내게는 어떤 감정도 없이 전부 공의와 위엄, 심판, 그리고 진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품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도 단계이므로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외적인 일에 불과하다. 나의 장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보고 완전히 깨달아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겠다. 또한 너희 입으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고, 게다가 영원히 나를 찬미하고 영원토록 나를 칭송하게 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흐름이니 누구도 바뀌 놓지 못한다. 또한, 이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장자는 갈수록 이상(異象)에 대해 더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이는 결코 애정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니 확실히 꿰뚫어 봐야 한다. 예전에 내가 말했듯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자신의 용모를 뽐내는데, 그런 자는 사탄의 종이다. 내가 자신들의 용모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그야말로 최하등의 천한 것들이다.). 한편, 장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내가 한동안 한 말을 보고 이상이 점점 흐려지고, 나,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점점 냉담해지다가 결국엔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리된 것이다. 이는 내가 한동안 말을 한 목적이므로 모두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장자들에게 하는 말). 내 말과 행사에서 나의 기묘함을 보아야 한다. 어찌하여 나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겠느냐? 나의 신분, 내가 한 말과 일로 해석하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깊이가 얕다. ‘평강의 왕’이란 장자들을 만드는 내 능력과 사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장자들에 대한 내 무한한 축복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장자들만이 나를 평강의 왕이라 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나의 장자들을 사랑하므로 평강의 왕이라는 호칭은 마땅히 장자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 나의 장자들에게 나는 평강의 왕이다. 또한, ‘영존하는 아버지’란 아들들과 백성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나의 장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아 만국 만민(아들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아들들과 백성들은 마땅히 나를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즉, 이는 장자들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본뜻이다. 그리고 ‘나는 기묘자’란 모든 아들들과 백성들, 그리고 나의 장자들 외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나의 역사는 기묘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나를 볼 수 없고(내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임), 내 행사에 대해 조금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나는 기묘자이다. ‘모사’란 모든 사탄 마귀를 상대로 한 말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탄 마귀에게 수치를 안겨 주기 위한 것이며, 나의 장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순탄하고 나는 항상 승리를 거둔다. 또한, 나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사탄의 간계를 이용하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하고, 역으로 나의 봉사자가 되게 했다. 이런 것은 모두 내가 모사가 된 의의이다. 이는 아무도 바뀌 놓거나 꿰뚫어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본체를 놓고 보자면 나는 평강의 왕이자 영존하는 아버지며, 또한 모사이자 기묘자이다. 이는 조금의 거짓도 없이 확실한,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으로 형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많다. 그러니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지,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지난날 너희가 깨달은 것은 오늘날 이미 옛것이 되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는 때이니 너희 역시 생각과 낡은 관념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말의 참뜻이다. 오직 나만이 내 자신의 말을 해석할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내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내 말만이 거짓 없이 전부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성결한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은 모두 사람의 상상으로, 불순물이 끼어 있다. 그렇게 해서는 내 뜻에 이를 수 없으니 나 자신이 친히 말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것 역시 ‘나 자신이 친히 사역한다’는 말의 본뜻이자, 내 경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니 모두가 내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내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예 이런 기관(器官)이 없다. 이것은 내가 마귀를 모욕하는 방식이니(만약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단계마다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수시로 사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 있으므로 내가 장자들을 택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만약 내가 모든 비밀을 깨닫고,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없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는 나, 이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은 근본 이유이다.) 사람은 모두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인도에 따라 행해야지, 혼자서 심오한 글귀와 이치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102편

내가 말을 하는 정도에 따라 나의 사역도 그만한 단계에 이른다. 너희는 마땅히 내 마음을 알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내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육신에서 영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다. 너희는 시대를 뛰어넘는 선구자이자, 우주 땅끝을 누비는 우주인이며, 나의 보배이고, 나의 사랑이다. 너희 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내 모든 심혈과 대가가 전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설마 너희는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나? 내가 왜 만물을 창조했겠느냐? 내가 왜 만물을 움직여 너희를 위해 힘쓰게 하겠느냐? 이는 모두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다. 산과 산속의 만물, 땅과 땅 위의 만물이 모두 너희를 얻은 내게 찬미를 보내고 영광을 돌린다. 확실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며, 철저히 이루어졌다. 너희가 나를 위해 힘 있게 증거하고 마귀와 사탄을 모욕하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전부 내 권병 아래 복종할 것이며, 내 경륜의 완성으로 인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내 백성들은 모두 내게로 돌아오고, 사탄의 부류는 모두 불 못과 무저갱으로 돌아가 영원히 애곡하며 멸망함). ‘멸망’과 ‘앞으로 그의 영, 혼, 육을 취하겠다’는 말은 그를 사탄에게 넘겨 짓밟히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내 집에 있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며,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 나 이외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침륜의 참뜻이기도 하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무(無)로 돌아가 영원히 멸망한 것이다(내가 그에게 역사하지 않고, 그가 내 밖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 나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지 않은 한, 누구도 밝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모호해지고 공허한 느낌이 들며,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현재 많은 사람(장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의 반응도 없이 육적인 즐거움만 생각하며 먹고 자고를 반복할 뿐, 내 말을 되새기지 않는다. 설령 힘을 낸다 하더라도 한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금의 변화조차 없다. 마치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한 양 행동하니 그야말로 폐인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조금의 부담도 느끼지 못하며, 전형적으로 밥술이나 얻어먹는 자들이다. 앞으로 내가 그들을 하나씩 버릴 것이니 조급해 말라!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무저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성령은 이런 자들에게 역사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한 일은 전부 은사로 한 것이다. 은사로 했다 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나의 봉사자이니 그런 자는 단 하나도 원치 않고 전부 도태시킬 것이다(하지만 아직은 조금 쓸모가 있음). 힘쓰는 자들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쓴다 해서 너희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들려면 반드시 나의 검증을 통과하고 내가 친히 온전케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힘쓰는 자들은 우마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이 어찌 장자가 되겠느냐? 그야말로 역지가 아니겠느냐?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생명과 자질을 갖춘 자만이 내 장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이치와 도리에 맞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맡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고,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며, 위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내게로 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유로워진다. 이는 누구도 가로막거나 바꿔 놓지 못한다. 이 큰 세상이 전부 내 손안에 있는데, 일개 사탄 마귀 따위가 다 무엇이겠느냐? 만약 내 경륜과 장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사악하고 음란한, 죽은 자의 기운으로 가득한 옛 시대를 멸해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정도가 있다. 또한 나는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 지혜가 들어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고 내 행사를 위해 길을 열 것이다. 나의 말은 나의 지혜이며,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꿰뚫어 보지도 못한다. 나는 ‘불 못’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유황불 못과는 어떻게 다르겠느냐? 유황불 못은 사탄의 권세를 가리키지만, 불 못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킨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 못에서 불살라질 대상이다(그들이 갈수록 더 파괴되고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하나씩 나에게 멸망당할 것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나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말 한 마디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나의 진노가 클수록 온 불 못의 화염은 더 세계 불타오른다. 즉, 사람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불 못이 폭발할 때이다. 즉, 온 우주 세상이 멸망하는 때를 말한다. 그날이 되면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일이다. 사람은 내가 말을 한 이상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일은 이미 앞당겨 이루어졌다.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어렵지 않으며, 이루어지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세워지라고 하면 세워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날마다 내 말을 먹고, 나의 성전에서 살진 것을 즐기며, 내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시고, 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다. 그렇다면 내 성전의 살진 것이란 대체 무엇이겠느냐? 생명수 강의 물이란 무엇이겠느냐? 생명나무란 무엇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란 또 무엇이겠느냐? 아무도 자주 쓰는 이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헛갈려 하면서 혼용하거나 뒤죽박죽 사용한다. 성전의 살진 것은 내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역대 이래, 그 누구도 내 성전의 살진 것을 누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직 말세에만 내 장자들을 통해 무엇이 내 성전의 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내 ‘성전의 살진 것’에서 ‘성전’이란 나의 본체, 즉 시온산과 나의 처소를 의미한다. 이곳은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드나들 수 없다. 그렇다면 ‘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살진 것’이란 몸 안에서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 복을 뜻한다. 요컨대, 장자들이 몸 안에서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 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편, 생명수 강의 물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내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 즉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일을 하는 지혜와 지략,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가리킨다. 내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무궁무진하다(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앞으로 공개적으로 다 밝히는 그날에 비하면 여전히 숨겨져 있다. 여기에서 숨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수 강의 물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내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내 어떠함과 소유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다. 즉, 생명수 강의 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다양한 유형적인 나무를 생각하겠지만, 여태껏 생명나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다고 하니 우스울 뿐이다! 무턱대고 아무것이나 먹으려 하는구나! 내가 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내가 어째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 말의 의미를 알겠느냐? 오늘날, 실제의 하나님 자신이 곧 나,

이 사람이고 바로 생명나무이다. 사람의 관념으로 나를 가늠하려 하지 말라. 내 겉모습이 나무 같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생명나무이다. 이해하겠느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언행이 다 생명나무의 열매이자 나 자신의 본체로서 내 장자들이 먹어야 하는 열매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오직 나의 장자들만이 나와 똑같아질 것이며, 나를 살아 내고 나를 증거할 수 있다(이것은 모두 영계에 들어가는 일을 가리킨다. 몸 안에서만이 완전히 똑같아질 수 있다. 육신에서 사는 한,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각자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나는 장자들에게서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장자들을 통해 만국 만민을 다스리고, 나의 큰 능력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은 내 사역의 절차이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자 전환점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내 손이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 막연한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동태를 보면 그리 먼 훗날의 일도 아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니 절대로 대충 넘기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복과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내 나라의 앞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온 세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무저갱과 유흡불 못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는 사람의 모골을 송연하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몸 둘 바를 모르게 한다. 내 이름으로 택함 받았다가 도태된 자들은 무저갱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도태시킬 대상을 무저갱 속에 버릴 것이라고 누차 말한 것이다. 온 세상을 멸한 후, 파멸된 것들은 전부 유흡불 못에 들어간다. 즉, 불 못에서 유흡불 못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이때, 누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나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 누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나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가 결정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와 나의 장자들은 내 나라에서 나와 영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모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말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 그저 내가 이끄는 대로 행하고, 내 빛 속에서 행하며, 내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누리고,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권세를 잡으며, 나의 권세로 나와 함께 만국 만민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무궁무진한 축복이다.

제103편

우레와 같은 음성이 온 땅을 진동시키며 귀를 찢을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으며, 사람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멸망당하고, 일부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유례없는 광경이다. 귀를 기울여 들어 보니 계속되는 우렛소리 속에서 애곡 소리도 들려온다. 그 소리는 음부와 지옥에서 오는 것으로, 나의 심판을 받은 패역한 자식들의 통곡 소리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내 엄한 심판과 진노의 저주를 받았다. 나의 음성이 바로 심판이고 진노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든 사정을 봐주는 일이 없고 누구든 가차 없이 대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며, 진노와 불사름, 정결함, 그리고 파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숨김도, 감정도 없이 전부 공개하며 공의롭고 공평무사하다. 나의 장자들이 이미 나와 함께 보좌에 올라 만국 만민을 다스리므로 불공정한 일들과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 나는 철저히 조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드러낼 것이다. 나의 심판이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고,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를 무저갱에 내던져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고, 불사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공의이자 정직이다. 이는 아무도 바꿔 놓을 수 없으며, 반드시 내 것에 따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말쑥은 말쑥이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참으로 눈이 멀었구나! 내가 신실한 하나님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냐? 내 말은 사실과 병행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니더냐? 사람은 아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오직 깨우침을 얻은 자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내 말을 보기만 해도 놀라 혼비백산하며 사방으로 흩어져 숨는데, 하물며 내 심판이 임할 때는 어떻겠느냐? 나는 만물 창조, 세상 파멸 그리고 장자들을 만드는 것 모두 말 한 마디로 이룬다. 나의 말은 그 자체가 권병이고 심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 이 사람이 바로 심판이고 위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일면이자, 내가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다 내 손안에서 주관되며, 내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며, 전부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뤄진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모두 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영이 음성을 발할 때면 전부 반신반의하며, 전혀 나의 전능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나를 모함하기까지 한다. 내가 알려 주마! 내 말에 의혹을 품고 내 말을 성의 없이 대하는 자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며, 영원히 침륜에 빠질 자이다. 이를 통해 장자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말로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전능이다. 누구도 내 말에서 그 근원이나 목적을 찾지 못한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오직 내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내 공의에 따라 내 뜻에 맞게 모든 일을 하여 나의 집을 공의롭고 평안하게 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존재하게 해야 한다.

나의 심판이 모든 이에게 임하고, 나의 행정 법령이 모든 이에게 미치며, 나의 말과 본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날 때가 바로 나의 영이 크게 역사할 때이다(바로 이때,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가 분명히 가려짐). 나의 말이 나오면 나는 누가 복을 받을 자인지, 누가 화를 입을 자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내 인성에 입각해 하는 말이다. 그러니 이는 나의 예정·선택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산천 만물과 온 우주 세상을 두루 누비며 구석구석 감찰하고 깨끗이 정리할 것이다. 따라서 불결한 곳이나 음란한 땅들은 전부 내 말에 의해 무(無)로 돌아가고 깨끗이 불살라질 것이다. 나에게는 그 무엇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만약 지금이 내가 세상을 멸하기로 예정한 때라면 나는 말 한 마디로 온 세상을 삼켜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반드시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 내 계획이 어긋나지 않고, 내 경영이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치에 맞는지 알고 있다. 나에게는 나의 지혜와 나만의 계획이 있으니 사람은 조금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내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은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여기에서 내 행정 법령의 엄함과 원칙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하나는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노를 지니고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모든 자를 저주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내 행정 법령의 집행 원칙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집행하며,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통해 나의 공의와 위엄, 진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땅과 세상에 속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나의 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고, 또한 밝혀진 비밀도 있다. 그러므로 관념과 사유로는 사람이 영원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반드시 관념과 사유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경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해야만 나의 장자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의 재난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내 집에서는 대재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람은 몸을 숨길 곳도 없고, 어찌할 도리도 없다. 지금은 과도 단계이므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다음에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모른다. 나의 심판이 임한 후에야 명확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자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하나 위로하고 단계에 따라 발탁하겠지만, 봉사자들은 하나하나 도태시키고 버릴 것이다. 이는 내 경륜의 한 부분이다. 모든 봉사자가 드러나면 따라서 나의 장자들도 드러날 것이다(이것은 내게 있어 지극히 쉬운 일이다. 내 말을 들은 후, 모든 봉사자가 내 말의 심판과 위협하에 점차 물러날 것이므로 남아 있는 자들은 자연히 나의 장자들인 것이다. 이는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사람의 의지로 바뀌 놓을 수 있는 일도 아니라 나의 영이 친히 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다. 내가 최근 단계에서 행한 일과 말을 통해 너희는 마땅히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지, 내 말은 왜 이리도 변화막측한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나의 장자들에게 위로와 긍휼, 자비의 어조로 말하지만(내가 언제나 그들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예정했기에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장자들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과 위협, 공갈이다. 그들은 늘 간담이 서늘할 것이며, 언제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멸할 때, 이 사람들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내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자 형벌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드러낼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다. 이제 내가 예전에 그런 말들을 한 의도를 이해하겠느냐? 내게는 응하지 않은 일도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한 일이라고 해서 꼭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나에게서 나의 지혜가 있고, 나의 사역 방식이 있으므로 사람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 단계 사역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내게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드러내는 것), 나는 다음 단계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뜻은 막힘없이 형통하며, 나의 경륜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사물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전부 한쪽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은 들으라! 내가 시온에서 세상에 성육신한 것은 나의 장자들을 얻고 너희의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함이며(큰 붉은 용의 자손들을 가리켜 하는 말), 내 장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그들을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함부로 날뛰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나의 장자들을 시켜 너희를 응징할 것이다. 지난날, 내 아들은 괴롭힘과 핍박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권세를 잡았으니, 내 아들은 반드시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더는 괴롭힘도, 핍박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공의이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증오하는 자를 증오한다’는 말의 참뜻이다.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은 썩 물러가라. 더는 뻔뻔한 얼굴로 내 집에서 밥 빌어먹을 생각 말고 하루빨리 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네 얼굴을 보지

않도록 말이다. 무저갱이야말로 너희의 종착지이자 발붙일 곳이다. 내 집에는 너희의 자리가 없다. 너희는 우마, 또는 내가 쓰는 도구이니 쓰지 않을 때는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릴 것이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사역 방식과 나의 공의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04편

나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전부 제거되어 무(無)로 돌아갈 것이나,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나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이며, 나의 시온산, 나의 거처로 들어가서 영원히 나와 공존할 것이다. 나는 처음에 만물을 창조한 자이자 마지막에 사역을 완성하는 자이며, 영원토록 존재하며 왕권을 잡을 자이다. 또한 이 기간에 나는 온 우주를 이끌고 지휘하는 자이며, 누구도 나의 권병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게는 내 권병을 장자들에게 넘겨주어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할 권한이 있다. 이는 영원토록 존속할 일이며,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행정 법령이다(내 행정 법령이 언급된 부분은 모두 하나님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영원히 존속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진심으로 순종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 큰 능력을 보아야지, 내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자가 있다면 한쪽으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네가 불의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형벌을 거스른다면 나는 너를 응징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물론, 이는 다 장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됨). 나의 집에 그런 놈은 필요 없으니 어서 썩 물러가라! 일분일초라도 지체해선 안 된다! 반드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마디 말로 너를 멸할 것이다. 한 번 더 머뭇거리려 보아라. 한 번 더 간사하게 굴어 보아라. 내 앞에서 헛소리를 하고 내 앞에서 나를 기만하다니 당장 사라져라! 그런 놈들에게 내 시간은 정해져 있다(힘쓸 때가 되면 힘쓰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 나는 지혜롭게 일을 하며, 일분일초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공의롭고 완전히 정확하게 행한다.). 그러나 나는 내 장자들에게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며, 그들을 영원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 기간에는 절대 좌절도,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를 가리킴). 이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장자들에게 준 무한한 축복이자 약속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내가 예정한 자는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버리고 도태시킨 자는 영원히 증오하는 나의 공의를 보아야 한다.

장자로서 너희는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들림 받아 내 앞에 오고, 내가 직접 하는 검열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 영광의 형상을 너희 몸으로 살아 내고, 내 영광의 빛이 너희 얼굴에서 발하게 하며, 내 음성이 너희 입으로 전파되게 하는 한편, 내 나라를 다스리고, 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나는 ‘처음 익은 열매’와 ‘들림 받다’라는 말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관념적으로 가장 먼저 들림 받는 무리나 이긴 자, 또는 장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전부 그릇된 논리이며, 내 말을 곡해한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나에게서 계시를 받고 권병을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처음 익은 것’이란 내가 점유하고 예정하고 택한 사람을 가리키지, 제일 먼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열매’란 청량한 향기를 내뿜는 존재(예표의 의미가 있음)를 뜻한다. 다시 말해, 나를 살아 내고 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할 존재를 가리킨다. ‘열매’는 모든 아들과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처음 익은 열매는 나와 함께 왕권을 잡을 장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이라는 수식어는 마땅히 권병을 지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함의이다. ‘들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들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정한 후 택하는 이 일을 의미한다. 즉, 예정되고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놓고 한 말이다. 누군가 장자의 명분을 얻든, 아들의 명분을 얻든, 또는 백성의 명분을 얻든 전부 들림 받을 대상이다. 이는 사람의 관념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미래의 내 집에 분깃이 있는 자라면 전부 들림 받아 내 앞에 올 자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영원불변한 것이므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반격이다. 내가 예정한 자는 들림 받아 내 앞에 온다.

‘신성한 나팔’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쩌서 신성하다고 하고, 또 이미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이겠느냐? 이것은 마땅히 내 사역의 절차를 통해 해석하고, 내 사역의 방식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내 심판이 많은 이들에게 공표되는 때는 바로 내 성품이 만국 만민에게 나타날 때를 가리킨다. 그때는 바로 신성한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이다. 다시 말해, 나는 늘 내 성품이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했기에 ‘신성하다’는 단어로 ‘나팔’을 수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나팔’이 내 성품을 가리키고 내 어떠함과 소유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의 심판은 날마다 진행되고, 나의 진노는 날마다 표출되며, 나의 저주는 날마다 내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심판이 시작될 때가 바로 신성한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이며, 또한 그것은 한시도 쉬거나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울려 퍼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신성한 나팔은 대재난이 점차 임함에

따라 점점 더 크게 올려 퍼진다. 즉, 내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남에 따라 내 성품은 점점 더 많이 공개되고, 내 어퍼함과 소유는 점점 더 많이 장자들 내면에 더해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구원하는 한편, 나의 말로 내가 증오하는 모든 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다음 사역의 방식이다. 명심해라! 이는 확실히 나의 사역 방식이자 사역 절차이며,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니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나의 말에는 여전히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말하는 방식과 비밀을 밝히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말하는 방식은 날마다 변화되고 개선되며 매일 그 형태와 방식이 다르다.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므로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말한 것에 따라 말하고 행해야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내 본체와 육신에는 모두 나의 알맞은 안배가 있고, 내 인성 부분의 모든 행사에는 다 내 신적 지혜가 들어 있다(사람에게는 아예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장자들에게 나의 지혜가 있다고 한 것은 그들 안에 내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자들이 어떤 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인성 부분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히 인성 부분의 어리석음을 없애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내가 혐오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나에게서 온 자들은 반드시 내 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에게서 난 자들은 반드시 나의 영광 속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면, 내가 증오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게 하나하나 버림받을 것이며, 하나하나 제거될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자 내 경영이며, 내 창조 6천 년 계획이다. 내가 내치는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며 고분고분 내게서 떠나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받은 복으로 인해 나를 찬미함으로써 나의 이름을 더없이 영화롭게 해야 한다. 내 영광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더하고, 내 영광 속에서 나의 지혜로 충만해지며, 내 영광 속에서 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야 한다!

제105편

사람은 모두 내가 말하는 원칙과 사역하는 방식 때문에 나를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해 온 목적이자(큰 붉은 용의 모든 자손을 상대로 말한 것) 나의 지혜로운 사역 방식이며, 큰 붉은 용에 대한 심판이다. 이는 또한 나의 지략이므로 누구도 완전히 꿰뚫어 볼 수는 없다. 나는 모든 전환점, 즉 내 경륜의 각 과도 단계마다 내 사역의 순서에 따라 일부 사람을 도태시킨다. 이것이야말로 내 전체 경륜의 사역 방식이다. 나는 도태시킬 자들을 하나씩 내버린 후에 다음 단계 사역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 도태시키는 일은 마지막 한 번으로(중국의 교회들에서), 창세 후로 사람을 가장 많이

도태시키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도태시킬 때마다 일부를 남겨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힘쓰게 했지만, 이번만은 예전과 달리 깔끔하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 철저히 도태시킬 것이다. 이 말을 본 많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어떻게 해도 이겨 내지 못하여 결국 몸부림치다가 쓰러질 것이다. 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예정한 자는 무슨 수를 써도 도망칠 수 없고, 내가 예정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도 내 마음에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내 마음에 든 사람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내 나라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장(鐵杖)이며, 내가 내 행정 법령을 집행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완전한 나타냄이다. 이는 너에게 열의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왜 사탄이 이미 힘없이 쓰러졌다고 말하겠느냐? 처음에는 사탄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사탄 역시 내 다스림을 받기에 내가 엎드리라고 하면 반드시 엎드리고, 일어나 나를 위해 힘쓰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 고분고분 힘써야 했다. 이는 사탄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철장의 다스림을 받아 철저히 승복한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이 사탄을 다스리며, 나에게 큰 능력이 있기에 사탄은 어쩔 수 없이 진심으로 승복하고, 순순히 내 발등상 아래 짓밟힌 것이다. 지난날 내 아들을 위해 힘쓸 때, 사탄은 간덩이가 부어 함부로 내 아들을 억압함으로써 나를 무력한 존재라고 모욕하려 했다. 그야말로 눈이 멀었다! 나는 너를 밟아 죽일 것이다! 어디 한번 방자하게 날뛰어 보아라! 어디 한번 내 아들을 경멸해 보아라! 정직한 사람일수록,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너는 더 심하게 억압하고 고립시켰다(당을 짓는 것을 가리킴). 그러나 네가 그렇게 방자하게 굴 수 있는 날도 이제는 끝났으니, 나는 하나하나 남김없이 청산하겠다. 지금은 너, 사탄이 권세를 잡을 때가 아니라 내가 권세를 되찾고 내 아들을 시켜 너를 응징할 때이다. 너는 고분고분해야지 조금이라도 반항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에 와서는 소용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반드시 내가 예정한 숫자여야 하므로 하나라도 많아서는 안 되고 하나라도 적어서는 더구나 안 된다. 사탄아, 교란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증오하는 자는 또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느냐? 굳이 네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겠느냐? 사탄이 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전부 그릇된 존재들이다! 하나같이 천한 것들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완전히 버리리라. 단 한 명도 원치 않으니 모두 썩 물러가라! 6천 년 경륜이 이미 끝났고, 내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짐승 같은 것들을 응징할 것이다!

내 말을 믿고 행하는 자는 분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한 명도 버리거나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 장자들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준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는(창세전에) 축복받을 것인데(오늘날에), 이것이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자 내 각 행정 법령 조목의 주된 원칙이다. 이것은 누구도 바꿔 놓아서 안 되며, 단 한 마디,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제해선 안 된다. 과거에 나는 늘 내 본체를 너희에게 나타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본체란 무엇이나?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그저 나, 이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겠느냐? 아니면 내가 한 모든 말을 가리킨 것이겠느냐? 이 두 가지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이 ‘본체’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될 수는 없다. ‘본체’란 나, 이 사람과 내가 한 말,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가리키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바로 ‘나의 장자들과 나’만이 나의 본체이다. 다시 말해, 왕권을 잡는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바로 나의 본체이다. 그러므로 장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두 내 본체의 일부이다. 그래서 나는 한 명이라도 많거나(내 이름을 모욕하게 됨) 적어서는 안 된다(나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음)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장자들은 내가 애지중지하는 보배이자 내 6천 년 경륜의 결정체라고 거듭 역설하는 것이다. 장자들만이 나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고, 나 혼자서는 그저 내 본체만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장자들이 있어야 비로소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자들에 대한 내 요구는 엄격하며, 조금도 소홀히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면, 장자 이외의 사람들은 계속 잘라 버리고 죽일 뿐이다. 이는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한 근본 원인이자, 최종 목적이다. 또, 나는 반드시 내 마음에 드는 자여야 한다고, 창세 이래 내가 친히 택한 자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나타나다’는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 말은 영계에 들어갈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많은 사람은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시점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는 나, 이 사람을 보게 될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모두 틀렸다. 전혀 상관이 없다. ‘나타나다’는 단어의 본뜻은 이해하기 그리 어렵지 않지만, 내 뜻에 따라 이해하기는 무척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류를 창조할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질을 더해 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의 본체이다. 즉, 나의 본체가 그때 나타났던 것이다. 이 나타남은 이 이름을 받아들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예정한 후 그들에게 나의 자질이 있었기에(본성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본체의 일부임) 내 본체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줄곧 나타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나, 이 사람을 나의 본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이자 관념일 뿐이다. 만약 나 혼자만이 나의 본체라면 사탄을 모욕할 수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만고 이래 사탄이 내 이름을 모욕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므로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내 사역에는 모두 성과가 있어야 하고, 게다가 내 말에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늘 나의 영에 따라 음성을 발하고, 나의 영이 행하는 일에 따라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내 말 속에서 나의 영을 느껴야 하며, 내 영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를 보고,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내 사역 방식과 모든 경륜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내가 우주의 전모를 살펴보니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곳이 다 내 주관 아래서 움직인다. 그 어떤 것도 내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으며, 모두 내가 지시한 순서대로 조금씩 움직인다. 이것이 나의 큰 능력이며, 나의 모든 계획을 경영하는 내 지혜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그 누구도 꿰뚫어 보거나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전부 나 자신이 친히 하는 일이자, 나 혼자 다루는 일이다.

제106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 내 정상 인성을 알지 못하는 자, 내 신성에 대적하는 자는 모조리 제거되어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모두가 이 부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자, 가장 엄한 조목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명확히 지적해 주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즉 영이 통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나는 사람에게 이런 기관(器官)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에 그리 큰 요구를 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실행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자는 내 집의 사람도, 나와 같은 부류도 아닌,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영이 통하지 않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예전에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이 너무 지나쳤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짐승 같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과 말이 통하겠느냐? 말이 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논리가 아니겠느냐? 내 정상 인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인성으로 한 일들을 자신의 관념으로 가늠하여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안으로 나에게 트집을 잡는 자를 뜻한다. 내가 한 말이 괜한 것이겠느냐? 나는 나의 정상 인성이 나, 완전한 하나님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부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적절한 조화이다. 나는 정상 인성을 통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내게 대적하고 나와 합하지 못하는 자들을 드러낸다. 그다음 인성을 통해 내 완전한 신성의 음성을 발함으로써 일부를 처리하는 것이다. 네가 나의 행사를 몰라도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정죄하지 않고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런 자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우쳐 줄 것이다. 나의 신성에 대적하는 행위에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 정상 인성과 합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신성으로 한 일(분노를 발하거나

교회 건축을 하는 것 등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내 신성에 대적하는 행동이다. 내가 한 가지 강조하니 너희는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나, 이 사람과 합하지 못하는 자는 내 신성에 대적하는 자이다. 어째서 나, 이 사람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거듭 말하겠느냐? 나, 이 사람의 성품은 모든 신성한 성품이다. 사람의 관념으로 나를 가늠하지 말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정상 인성을 지녔기에 내가 하는 일이 100%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단 한 마디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눈먼 자의 자손이자 큰 붉은 용의 후손이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앞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또다시 거스른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웃고 먹고 거하는 것과 내 모든 언행은 다 나,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없다! 전혀 없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더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 잔머리를 굴릴수록 더 빨리 끝장난다. 내 충고를 명심해라!

나는 시시각각 모든 이의 폐부와 일언일행을 감찰한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일을 했건만, 내가 말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밝히 말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밝히 말하지 못한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말을 해서 내가 혐오하는 자들을 모두 내치는 한편, 너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또 한 번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설령 지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방식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내 뜻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큰 붉은 용을 완전히 끝장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이상 함부로 날뛰지 못한다. 이는 몸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이자 과도 단계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첩첩이 쌓인 난관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임을 믿어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 자신이기에 말한 이상 반드시 이뤄진다. 각국, 각 지역, 각 교파가 모두 내게 돌아오고 내 보좌를 향해 몰려올 것이다. 이는 나의 큰 능력이다. 나는 모든 패역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여 유황불 못에 처넣을 것이며,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물러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 경륜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가 완성되면 나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내 경륜 또한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기에(하지만 나의 마음은 결코 조급하지 않음) 나는 날마다 나의 말을 너희에게 제시해 주고, 내 손의 비밀을 너희에게 밝혀 줌으로써 너희가 내 발걸음을 바짝 따를 수 있게 한다(이는 나의 지혜이다. 나는 말로써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한 말로써 사람을 친다.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보고, 내 말에서 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 소극적인 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드러나야 할 자는 드러나며,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고, 충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내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다. 내가 말한 몇 가지 상황은 전부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자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과거에 나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추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한 목적과 의의는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는 이해했느냐? 이에 대해 밝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내가 인도하는 대로 추구하라는 것은 나, 이 사람의 인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가는 길을 가리킨다. 오늘날, 이 말은 진실로 이루어졌다. 내가 말을 하자 온갖 귀신의 모양들이 모두 내 얼굴빛 앞에서 드러났는데, 너희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다. 나의 이 말은 사탄에 대한 선포이고, 나아가 너희에게 맡기는 사명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간과하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만 생각한다. 어찌하여 이 말이 심판의 말, 권병을 지닌 말임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말하는 목적은 사탄이 나를 위해 열심히 힘쓰고 완전히 내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날 내가 밝힌 비밀 중 많은 것들을 너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이 밝혀 주어 너희가 더 잘 이해하고 확실히 깨닫게 할 것이다.

대재난이 임하면 사람은 모두 두려워 간담이 서늘해지고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하며 자신의 지난 악행을 증오하겠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 지금은 진노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기가 아니라 모든 봉사자를 제거하고 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권세를 잡는 시기인 것이다. 이 시대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며, 이는 창세 이래 미증유의 일이다. 나는 세상을 한 번 창조했으므로 또한 세상을 한 번 파멸시킬 것이다. 내가 정한 일은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예전에 ‘그리스도인 그룹’ 또는 ‘우주의 새사람 그룹’라는 말을 늘 하곤 했다. 이 말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 그룹은 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겠느냐? 우주의 새사람 그룹 역시 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틀렸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짚어 주겠다. 그리스도인 그룹과 우주의 새사람 그룹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인 그룹과 우주의 새사람 그룹은 언뜻 보기엔 차이가 별로 없고 똑같은 개념

같겠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인 그룹이란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혹은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나를 떠올리는데, 틀린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人)’이라는 단어를 보면 관념으로 틀림없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며, 그 누구도 다른 것을 떠올리지 않는다. 또한, 인(人) 그룹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인 것을 생각한다. 마치 하나처럼 보이므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의 생각이 매우 단순하여 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나는 무엇이 그리스도인 그룹인지 본격적으로 교제하겠다(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의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없다. 설령 내가 말해 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을 하면 내 장자들은 모두 내 뜻에 따라 행동하고, 내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자들은 마음도, 입도 하나인 것이다. 장자들이 만국 만민을 심판할 때 내 공의를 시행할 수 있고 내 행정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나의 발현이자 창현(彰顯)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룹은 장자들이 내 행정 법령을 집행하는 사실이자, 장자들의 손에 있는 권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또한, 모든 장자는 다 내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우주의 새사람 그룹이란 내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나의 장자와 아들들과 백성들을 의미한다. ‘새’란 단어는 나의 이름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다. 내 이름 안에 있고(내 이름은 모든 것을 지니며 영원히 낡지 않고 새롭다. 이는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므로 우주의 새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룹이란 사람의 수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으로, 앞의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내가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믿어야 한다. 의심을 품지 말고, 사람의 관념과 사유를 버려라. 현재 내가 비밀을 밝히는 과정은 사람의 관념과 사유를 제거하는 과정이다(사람이 모두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가늠하고 내가 하는 말을 가늠하기에 나는 비밀을 밝혀 사람의 관념과 사유를 없앴). 이 사역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비밀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사람은 내 말에 어떤 생각도 갖지 않을 것이며, 관념으로 나를 가늠하지도 않을 것이다. 매일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전부 밝히고 깰 것이니 어느 정도에 이르면 사람이 더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를 비운 채 아무 생각 없이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영계에 들어갈 때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영계로 들여 보내기 위해서 하는 준비 사역이다. 반드시 먼저 사람의 관념을 벗겨 버려야 오점 없이 성결한 모습으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또한 내가 거룩한 영체라는 말의 본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나의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부지중에 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제107편

나의 말이 어느 정도 엄해지면 많은 사람이 나의 말로 인해 물러갈 것이다. 바로 그때가 장자들을 드러낼 때이다. 말했듯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나의 말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내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멸하고,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장자들을 온전케 한다(내가 말을 할 때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낼 때이자, 나와 장자들이 형상을 바꿔 영계에 들어갈 때임). 나는 나의 영이 친히 역사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나의 말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나의 전능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내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 말의 목적과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인성으로 한 모든 말도 한 측면으로 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상 인성에서 한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내쳐질 것이다! 나는 내 정상 인성이 없어서는 안 될 완전한 신성의 한 부분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가 내 완전한 신성만을 중요시할 뿐, 내 인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눈이 멀었구나! 너는 내가 너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나 이 사람이 너의 하나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이 내 나라에 남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단번에 차 버릴 것이다! 더 거역해 보아라! 더 제멋대로 굴어 보아라! 나의 웃음은 너의 관념에 맞지 않고, 나의 말은 네 귀에 곱게 들리지 않으며, 나의 행사는 네게 이롭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무엇이든 네 뜻대로 따라 주어야 하나님이겠느냐? 그런 자가 내 집에 머물며 내 나라에서 복을 받으려 하다니 그야말로 망상이 아니냐?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순종하기는 싫어하면서 나의 복은 받고 싶어 하다니, 꿈도 꾸지 말라! 내 나라에 들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겠느냐? 누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고 흰히 꿰뚫고 있다. 내가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내 심판의 말로 인해 모두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내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할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니 누구도 바꿔 놓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나는 그들을 하나씩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탄 마귀를 심판하여 마지막으로 이루려는 성과이다. 반드시 심판과 행정 법령으로 각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람을 형벌하는 수단이다. 너희는 이에 대해 진실한 깨달음이 있느냐? 나는 사탄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저 나의 철장(鐵杖)을 들어 호되게 내리칠 뿐이다. 사탄을 모질게 매질하고, 사탄의 입에서 구구절절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심판의 말을 볼 때 그 방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다 내 행정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 심판에 대한 말을 꺼낸 이상, 심판대와도 연결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너희가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심판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 하고 있다. 혹자는 심판대를 유형의 물질, 또는 사람 상상 속의 커다란 탁자나 세상에 존재하는 심판대로 여길 것이다. 물론 이번 해석에서 나는 너희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내게는 여전히 예표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과 나의 본뜻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하거나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이 정도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며,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대체 심판대란 무엇이겠느냐? 내가 비밀을 밝히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예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부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목적에 이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너희의 관념과 생각을 없애 버릴 수 있다. 내가 말할 때 너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 소홀히 지나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의 심판대는 창세 때 이미 설치되었다. 만세와 만대의 수많은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내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고 새롭게 살아났다. 나의 심판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멈추지 않으며, 그렇기에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심판대라는 말만 들어도 일말의 두려움을 느낀다. 물론, 너희는 앞서 한 말에서 무엇을 심판대라고 하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심판대는 심판과 병존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여기에서 물질은 물건이 아니라 말쑤를 가리킨다. 사람은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한다.)이다. 심판은 나의 말이다(엄하든 온화하든 다 나의 심판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심판이다.). 예전에 사람들은 나의 말을 심판의 말, 온화한 말, 생명을 공급하는 말 등 몇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확실히 밝히겠다. 심판과 나의 말은 서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심판이 곧 나의 말이고, 나의 말이 곧 심판이다. 그러니 절대 따로 분리하여 말해선 안 될 것이다. 사람의 상상으로는 엄한 말이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일부만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 나의 모든 말이 다 심판이다. 예전에 말한 심판의 시작이란 나의 영이 본격적으로 곳곳에서 역사하고, 나의 행정 법령을 집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심판이란 실재를 가리킨다. 이제 심판대에 대해 설명하겠다. 왜 심판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한다고 말했겠느냐? 또한 왜 심판과 병행한다고 말했겠느냐? 심판에 대한 해석에서 너희는 뭔가 이해한 것이 있느냐? 심판대란 바로 나, 이 사람을 뜻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줄곧 음성을 발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기에 심판대와 심판 역시 영원히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은 상상으로 나를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지만, 이런 부분에서 나는 결코 너희를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기 바란다.

사람은 나의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자취를 찾지 못하며,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이 수준에 이르게 된 것(나의 계시를 받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알며, 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나의 기묘한 행사이며,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공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언젠가 너희에게 나의 지혜와 내 손이 행한 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기묘함을 보여 주겠다. 그때가 되면 내 모든 경륜의 청사진이 너희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온 우주 세계에 매일 내 행사의 기묘함이 펼쳐진다. 이는 모두 내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을 힘쓰는 자로 정했는지, 어떤 사람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자인지, 내가 사탄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나 스스로는 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슬피 울고 어떤 사람이 이를 가는지, 어떤 사람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이 침륜에 빠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멸망의 대상은 유향불 못에 빠져 철저히 불사름 당하고, 침륜의 대상은 무저갱에 빠져 영원히 연단을 받는다. 그러므로 멸망과 침륜을 비슷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두 개념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며,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나의 이름 아래에 있다가 나간 봉사자는 침륜에 빠질 것이고, 나의 이름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될 것이다. 그러므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은 내 심판이 끝난 후 영원히 나를 찬미하겠지만, 영원히 내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통치를 받게 된다. 무저갱을 가리켜 사람을 형벌하는 나의 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나는 또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고 했다. 설령 무저갱이 사탄의 권세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사람을 형벌하는 내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주관된다고 한 것이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다. 나는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내 말에는 분별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나는 절대로 허언이나 허튼소리를 하지 않으니 모두 내 말을 믿어야 한다. 앞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말 때문에 냉담해지거나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갖가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모두 나가면 나의 대업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장자들로 인해 쓰러지고 결국 한 걸음씩 물러가게 된다. 다시 말해, 나의 집은 점차 성결해질 것이며, 가지각색의 마귀들이 점차 내 곁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나면 나의 장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나는 다음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장자들은 그때야 나와 함께 왕이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자 내 경륜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니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의 말이 너희에게 밝혀질 때는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이다. 나의 말은 단 한 마디도 허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시간 개념은 나와 크게 다르다. 나는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진다. 또한, 내 사역의 발걸음은 일분일초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나아간다. 창세부터 내 말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음성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잘 짜여 있으며 아주 정확하다. 나는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을 하며(내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됨), 내 일의 절차를 조금도 깨트리지 않는다. 나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안배하지만 전혀 분주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나의 영이 일하고 있으며, 나의 영은 곳곳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고, 온 우주 세계가 다 내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의 전능과 지혜,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한 내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제108편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안식과 자유를 얻지만, 내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자유와 기쁨을 얻지 못한다.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영이 없는 죽은 자라 부르는 것이다. 반면, 내 안에 있는 자를 나는 영이 있는 산 사람이라고 부른다. 나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보좌로 돌아올 것이다. 힘만 쓰는 자, 마귀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고, 제거되어 무(無)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것은 내 경륜의 비밀이자 내 경륜에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고, 나에게 속한 자는 나의 마음에 합하는 자이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내가 사탄을 심판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공의와 정직을 볼 수 있다. 즉, 사탄에게서 난 것은 다 심판하고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것도 나의 진노이며, 나의 성품을 더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내 성품이 모든 이에게 공포될 것이며, 만국 만민과 각 종교, 각 교파, 각 분야에 조금도 숨겨지지 않고 전부 드러날 것이다. 나의 성품과 일 처리 원칙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감춰진 비밀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장자들이 행정 법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내가 드러낸 나의 성품으로 만국 만민을 심판하기 위한 것임). 이것은 나의 경륜이자 사역 절차이므로 누구도 함부로 바뀌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인성 안에서 이미 내 신성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냈으므로 그 누구도 나의

인성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내가 나타낸 것은 다 신성의 성품이다. 그래서 나는 정상 인성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를 거스르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멸해 버릴 것이다! 명심하여라! 이것은 내가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행정 법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목이다. 사람은 모두 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다. 네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나는 모든 일을 명확히 말하고 짚어 줄 것이다.

정세가 몹시 긴박하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반드시 여러 면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고 나를 살아 내며 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은 마지막 시기이니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리고, 남겨야 할 것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억지로 남기지도 밀어내지도 말라. 나의 경영을 방해하지 말고, 나의 계획을 망치지도 말라.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영원히 자비이자 긍휼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성품은 내 사역의 단계에 따라 나뉜다. 나는 실제의 하나님 자신이고,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또 언제든 변한다. 이것을 확실히 가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만 너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내 아들에게 나는 자비와 긍휼, 공의와 징계로 대하지만, 심판은 하지 않는다(장자는 멸망시키지 않음을 의미). 그러나 내 아들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나는 시대에 따라 언제든 변한다. 자비와 긍휼, 공의와 위엄, 심판과 진노, 저주와 불사름으로 대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육을 멸하는데, 멸망의 대상은 그 영과 혼까지 파멸시킨다. 하지만 봉사하는 자는 그 영과 혼만은 남긴다(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는 나중에 알려 주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임). 그러나 영원히 자유가 없고, 영원히 해방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백성보다 낮으며 백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토록 봉사자들을 증오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 봉사자들 이외의 자들도 큰 붉은 용의 자손에 속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장자들 이외의 자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자손이다. 침륜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나를 찬양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나를 위해 봉사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노예이자 마소 같은 존재이니, 나는 언제든 그들을 도살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성품을 갖추지 않은 큰 붉은 용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큰 붉은 용의 후손이니 큰 붉은 용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짐승의 성품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확실한 것이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내가 정해 놓은 것이므로 그 누구도 바뀌선 안 된다(어떤 사람도 이 법칙을 위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의미함).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내 경륜과 사역이 어디까지 전개되었는지는 내가 밝힌 비밀을 통해 봐야 한다. 즉, 내 손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자들을 심판하는지, 어떤 자들에게 진노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이 나의 공의이다. 나는 내가 밝힌 비밀에 따라 나의 사역을 안배하고, 나의 계획을 경영한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정한 대로 따라와야 한다. 비밀은 내 사역을 전개하는 길이자, 내 경륜 절차의 표징이니, 누구도 내 비밀에 무엇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비밀이 틀리면 길도 틀리기 때문이다. 내가 왜 지금 너희에게 내 비밀을 밝히겠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 중 그 누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비밀이 바로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느냐? 이 길은 너희가 육에서 몸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요한 일환으로, 내가 비밀을 밝힌 후에는 사람의 관념이 차츰 사라지고, 사람의 사유가 차츰 열린다. 이는 영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사역에는 모두 절차가 있으며, 전혀 막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이고, 내 사역의 방식이다.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 사역은 나 스스로가 친히 한다. 온 우주와 세상을 나 홀로 다루고, 나 홀로 지배하는데, 누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나 홀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사코 자신의 관념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하겠느냐? 그런 자는 반드시 나의 중형을 받으리라! 큰 붉은 용의 결말을 너희 모두 보았을 것이다! 그것이 큰 붉은 용의 말로이자, 필연적 귀결이다. 반드시 내가 직접 행해야 그것에게 치욕을 주고,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하며,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비밀을 밝히겠다(명심하여라! 내가 밝히는 비밀의 대부분이 너희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지만, 또 아무도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다.).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게는 이미 끝난 일이며, 내가 시작으로 보는 일이 사람에게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 모순이냐?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관념이 있고 사유가 있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은 나의 말(세워지라고 하면 세워지고, 이루어지라고 하면 이루어짐)로 말미암아 이뤄지지만, 내가 말한 일 중 내가 보기엔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정해 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 일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임) 이미 이뤄진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내가 밝힌 비밀 때문에 나에게 의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실체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본뜻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나에게 맞서고 나를 부정한다. 이는 사탄이 자신의 간계에 빠진 것이다(복을 받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관념에 이렇게까지 맞지 않을 줄은 몰랐던 관계로 물러남). 이 역시 내 사역의 성과이다.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찬미하고

환호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일체의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고, 일체의 모든 것이 내 심판 가운데 있다. 만민이 내 산으로 모여들 때, 장자들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내 경륜이 끝나고 내 6천 년 경륜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예비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너희가 계속 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에 내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 계획을 망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내 일을 도울 수 없고, 내 경륜에 손을 댈 수 없다. 현재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나에게 속하지만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육에 속한 자는 내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를 영계에 진입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지진은 이 세상 재난의 시작이다. 먼저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변동이 생긴 뒤, 전염병과 기근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자 절차이다. 나는 내 경륜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움직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온 우주와 세상은 내가 멸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 마지막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육신에서 영계로 진입하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장자들은 결코 재난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나, 그 외의 사람들은 재난 속에서 연단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의 예감에 이는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재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큰 붉은 용의 음모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것이 중한 징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 후에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며(아들들과 백성들을 만드는 것을 가리킴), 영원히 자신의 간계에 빠져 영원토록 나의 심판과 불사름을 받게 할 것이다. 이는 봉사자들로 하여금 나를 찬미하게(그들을 통해 나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뜻함) 하는 참뜻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이 내 나라에 섞여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를 찬미할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그것에게는 영원히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임)! 오직 그것이 영원히 나를 위해 힘쓰게 할 뿐이다! 또한, 그것이 내 앞에 엮드리게 할 뿐이다(멸망되는 것은 침륜되는 것보다 견디기 쉽다. 멸망은 일시적인 중형이지만, 침륜되는 자는 영원히 중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엮드리게’ 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사람들이 나의 집에 섞여 들어와 나의 은혜를 적잖이 누렸고, 나에게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중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집 밖에 있는 자들은 아는 것이 없기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관념으로 멸망이 침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다. 침륜되는 자는 영원히 중형을 받을 것이고, 멸망되는 자는 영원히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제109편

나는 날마다 음성을 발하고, 날마다 말을 하며, 날마다 나의 크나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이는 모두 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인간의 눈에는 내가 한낱 사람에 불과할 것이나, 나는 이 사람을 통해 나의 모든 것과 큰 능력을 나타낸다.

인간은 다 나, 이 사람과 나의 모든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았느냐? 사람은 모두 이처럼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며, 나의 행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악하고 패괴된 인류야! 내가 언제 너를 삼키기라도 했느냐? 언제 너를 유황불 못에 던지기라도 했느냐? 나는 몇 번이고 너희 가운데에서 쫓겨났다. 사람은 몇 번이고 나를 모욕하고 조소하고 비방했으며,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대적했다. 눈먼 인류야!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는 한 줌 흙임을 모르느냐? 너희는 피조물임을 모르느냐? 오늘날, 내가 발하는 진노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할 뿐이다. 하지만 나의 사역이 이 단계까지 전개된 이상, 아무도 바꿀 수 없다. 피조물은 반드시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내가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너무 패괴되고 방자해서이며, 너희가 사탄에게 끌려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전을 가질 수도 없다. 지금부터 나의 진노(분노보다 더 심한 것)가 만국 만민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며, 나에게서 나왔으나 나를 알지 못하는 인간 말종들을 하나씩 멸할 것이다. 인류에 대한 나의 증오는 극에 달해 더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 더 이상은 긍휼도, 자비도 베풀지 않고 나의 모든 저주를 쏟아부어 전부 불살라 버림으로 오직 나의 나라만 남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들은 내 집에서 나를 찬미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향해 끊임없이 환호할 것이다(백성의 기능을 가리킴). 나의 손은 나의 집 안에 있는 자와 집 밖에 있는 자에게 본격적으로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나에게 경배해야 한다. 이는 나의 위엄이며, 나아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선포하는 나의 행정 법령이다. 누구도 다른 이를 구하지 못하고, 오직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 바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형벌을 가하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이 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내가 노를 발하기 시작하면, 크고 작은 마귀들은 내 손에 죽임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 머리를 감싸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간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나의 손에는 모든 형구(刑具)가 들려 있으며, 나의 손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한다. 그러니 누구도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나는 각 항목의 준비 사역을 모두 끝내 놓았고, 인류 가운데서 사역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적절하게 처리함). 모든 것을 알맞게 준비한 뒤, 나는 성육신하여 세상에 왔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깨우쳐 준 사람들 이외의 모든 패역한 자식들은 나를 대적했고 모욕했으며 냉대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전부 착실하고 온순해지게 만들 것이다. 사람에게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의 대업은 이미 이루어졌다(사람들은 모두 나,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승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표징임). 나는 오늘부터 나를 대적하는 가지각색의 모든 악령에게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얼마나 오래 따랐든 상관없이 반드시 내 주변에서 물러가야 한다. 나에게 반하는 자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영이 통하지 않는 자, 악령에게 점령되었던 자, 나를 알지 못하는 자). 단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모두 없애 버려 침륜의 자식이 되게 하리라! 오늘날 나를 위해 봉사한 후 모두 물러가라! 언제까지 내 집에 눌러앉을 생각도, 뽀뽀하게 밥을 빌어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 사탄에 속한 것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며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이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내 곁에서 조용히 물러간다. 그래서 내 사역의 발걸음은 막힘없이 더 순조로우며, 더는 조금의 방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조금의 장애도, 막힘도 없이 이뤄질 것이며, 모두가 내 눈빛으로 인해 쓰러지고 내 불길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이로써 나의 전능과 완벽한 지혜를 충분히 알 수 있다(장자들에게 행한 것). 이를 통해 내 이름을 더욱 빛낼 것이며, 내 영광을 더할 것이다. 나의 일 처리에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어조에서 보았겠지만, 나는 내 집에서 내 사역을 철저히 끝마쳤기에 이제 이방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방에서 나의 사역을 전개하고 다음 단계 사역을 시행할 것이다.

나의 많은 말이 너희의 관념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아, 너는 떠나지 말라.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에 나의 음성이라는 것이 더 잘 증명된다. 만약 사람의 관념에 맞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내 말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재난이 다시 시작되는 시대, 더구나 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는 시대에 나의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누구도 감히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며, 내 앞에 엎드려 내 지혜와 전능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어디까지나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다! 누가 나에게 반박하겠느냐? 또 누가 감히 일어나 나와 맞서겠느냐? 누가 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누가 나의 전능을 몰라보겠느냐?

나의 영이 각처에서 크게 역사할 때, 사람은 모두 나의 전능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내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진노를 통해 나의 전능과 지혜, 내 본체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전부 장자들에게 있으며, 이는 확실한 것이다. 장자들 외에는 아무도 내 본체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정해 놓은 일이다.). 내 집에는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없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다. 내가 음성을 발할 때, 사람은 모두 내가 너무 무정하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데 어째서 나는 그들을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 하는지, 게다가 그들을 하나씩 버린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내 집에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예정한 숫자에서 하나라도 많거나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는 나의 행정 법령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사탄 앞에서 굴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의 지혜와 위엄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뿐, 내가 사람에게 굴복할 일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가장 큰 모욕을 주는 일이다. 내가 택한 사람은 모두 겸손하고, 순종하며, 말을 잘 듣고, 또한 정직하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며 나를 섬긴다(사탄은 이것을 이용해 나를 모욕하려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당했음). 이 사람들에게서 나의 성품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내가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올 때, 나는 나의 장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내 나라의 왕으로 삼는다. 그제야 나는 안식한다.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장자들은 나를 대표하며, 나의 발현이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면서 섬김으로 나에게 순종하고, 정직함으로 나의 말을 집행하며, 정직함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 또한, 그는 겸손함으로 나의 이름을 빛낸다(거만하지도, 야만적이지도 않지만 위엄과 진노를 지니고 있음). 나의 장자들이여! 우주 세계를 심판할 때가 도래했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고, 권병을 주며, 복을 주리라! 일체의 모든 것이 이미 이뤄졌으며, 너희는 모든 것을 다루고 지배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자 견고한 망대이고 너희의 피난처이고 산성이며, 또한 너희의 전능자이자 너희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이 너희 손안에 있다. 오늘은 물론, 어제도 그러했고, 내일도 그러하리라! 그러니 기뻐할 만하지 않겠느냐? 환호할 만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두 나로부터 너희가 얻어야 할 몫을 받으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재산은 다 너희 것이고 나의 풍성함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만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이유이다.

오늘날 너희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은 또 무엇을 위함이나?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어떻게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겠느냐? 오늘날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어린양의 혼인 잔치란 무엇이냐? 너희는 모를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해석해 주겠다. 내가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나는 가지각색의 사람과 일, 사물을 예비하여 오늘날 나, 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했다. 현재 모든 것이 다 이뤄졌으므로 나는 봉사자들을 한쪽에 내던져 버린다. 이런 것은 혼인 잔치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봉사할 때, 즉 내가 어린양이 되었을 때, 나는 혼인 잔치의 분위기를 느꼈다. 다시 말해, 내가 인생에서 겪은 고통, 행한 일, 했던 말, 함께 지낸 사람들, 행한 모든 것이 다 혼인 잔치이다. 나,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너희는 나를 따랐다(이때 나는 어린양이 되었음). 그래서 너희는 내 인도를 받으며 여러 가지 고통과 재난, 세상 사람들의 버림과 비방, 가족의 버림을 체험했고, 또 나의 축복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린양의 혼인 잔치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행한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얻기 위함이었으므로 ‘혼인 잔치’라는 말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잔치의 일부일 뿐이다. 앞으로(오늘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 너희가 누릴 것, 얻을 것, 나와 함께 왕권을 잡는 것, 이 모두가 잔치이다. 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는 반드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나의 사랑 속에 있으리라. 영원히!

제110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내가 안식할 때이자, 나아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때이다. 내 사역은 내가 직접 하며,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안배한다. 내가 시온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때, 나의 장자들이 나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나의 대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관념상, 이뤄진 일은 반드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나는 내가 계획할 때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시온은 나의 거처이자 내가 돌아갈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전능을 나타내고, 나의 장자들과 함께 천륜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시온, 그 아름다운 곳, 모두가 그리는 그곳을 만세와 만대의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과거의 성도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말세에 장자를 택하고, 장자들은 모두 말세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의 공훈과 은총이 여기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오늘날 장자들은 모두 나와 함께 시온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장자들을 매우 높여 주는 이유는 장자들에게 나의 자질과 영광의 형상이 있으며, 그들이 나를 증거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나를 살아 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고 큰 붉은 용에게 모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의 장자들은 정결한 동정녀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며, 내가 택하고 마음에 들어 한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높여 주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면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장자들을 위해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고, 그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정성 들여 예비하였다.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장자들에게서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할 것이며, 나의 장자들로 인해 내게 진심으로 승복하게 할 것이다. 나는 마귀에게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고, 그것이 광기에 차서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증거가 있고, 나의 손에는 권병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부류는 들어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은 다 나의 장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나의 지시에 따르고, 나의 장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응징하여 당장 침륜에 빠지게 할 것이다! 현재 장자들은 이미 나의 행정 법령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오직 나의 장자들만이 나의 보좌를 높이 받들 자격이 있고, 나는 이미 나의 장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장자들에게 불복하는 자들은 분명 못된 것들이며, 틀림없이 큰 붉은 용이 나의 경륜을 방해하게 보낸 자들이다. 그런 놈들은 당장 나의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는 그런 놈들이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놈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인데,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당장 그리할 것이다! 또한, 봉사하는 자들은 나의 동의를 거친 자여야 하며, 반드시 순종하고 말을 잘 듣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만약 거역하는 행위를 보인다면 나를 위해 봉사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물건짜이 필요 없으니 썩 물러가라. 나는 그런 자들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제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봉사하는 자들은 봉사에 최선을 다해야지,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네가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일어나 방해한다면 나는 그 즉시 너를 끝장낼 것이다! 봉사하는 자들은 알아들었느냐? 이것이 나의 행정 법령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장자들의 본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하면서 내가 준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우주 땅끝을 누빈 후에 나의 장자들을 택하였고 또한 온전케 하였다. 이는 창세전에 이미 해 놓은 일이다.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사역은 이렇듯 소리 없이 이뤄졌다. 이는 사람의 관념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사실이니 누구도 바꿀 수는 없다. 크고 작은 마귀들이 모두 가면을 벗고 본모습을 드러냈으며, 각기 다른 정도로 나의 형벌을 받았다. 내가 행하는 일에는 절차가 있고, 내가 하는 말에는 지혜가 있다. 내가 하는 일과 말에서 너희는 무언가를 보았느냐? 단순히 일하고 말하는 것뿐이더냐? 내 말에는 오직 준엄함과 심판과 위로만 있더냐? 그렇다면 너무 단순하다. 하지만 사람이 그런 것을 본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내 말에는 지혜뿐만 아니라 심판과 공의, 위엄, 위로, 더 나아가 나의 소유와 어찌함이 들어 있다. 나의 모든 말은 사람이 풀 수 없는 비밀이며, 나의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한다. 비록 비밀을 풀어 주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그것을 상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한마디 말이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말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러므로 나는 장자들의 형상을 철저히 바꿔 완전히 몸으로 진입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육에서 몸으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서로 다른 정도로 형상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사람은 이것을 하지도 못하고 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고 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초자연적인 느낌 속으로 들어갈 뿐이다.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는 비밀을 보게 될 때 모두 약간의 반응을 보인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불복하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장 간사하다. 내가 비밀을 밝힐 때, 이들을 하나하나 도태시키고 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 나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나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에는 또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내가 한 단계 말씀을 하면 사역 방식이 나를 따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뿐이다. 모든 일이 다 나의 말로 이뤄지고, 나의 말로 드러나니 누구도 성급해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봉사를 잘해야 한다. 그러면 충분하다. 만세 전에 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 예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무화과나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말을 해석할 사람 또한 없었다. 과거의 찬미 속에 이런 단어를 언급했었지만 아무도 이 단어의 참뜻을 깨닫지는 못했다. 이 단어는 ‘대재난’이라는 말처럼 사람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밝히지 않은 비밀이기도 하다. 사람이 보기에 무화과나무는 아마 좋은 나무, 더 나아가 많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말세에 나의 책을 펼칠 때(책이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즉 마지막 때에 하는 말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내 책의 내용이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무화과나무는 나의 행정 법령과 행정 법령의 모든 조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무화과나무가 이미 싹이 텄다는 것은 나의 육신이 이미 사역하고 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의 행정 법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때는 나의 이 이름이 증거되기 전이었고, 누구도 나의 행정 법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 나의 이름이 증거되고 널리 알려지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때, 그리고 나의 행정 법령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바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점이다.

이것은 한 치 오차도 없이 밝혀진 완벽한 해석이다(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전에 한 말 중에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찾고 구해야 한다.).

장자들을 온전케 할 때, 나는 내 모든 영광과 전모를 우주 세계에 나타낼 것이다. 몸으로써, 그리고 만인의 위에서, 나의 본체 안에서, 나의 시온산 위에서, 나의 영광 속에서, 나아가 모든 환호성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반면 나의 원수들은 모두 내 주변에서 물러나 무저갱과 유향불 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사람의 상상에는 한계가 있고, 나의 본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사람의 관념과 사유를 겨냥해 말한다. 어느 날(몸으로 진입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생각에 완전히 부합하고 또 너희가 어떤 반향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생각이 없으므로 내가 직접 깨우쳐 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자들이 누릴 복이며, 그때야말로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을 시기이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지 않는다. 믿는 자가 몇 명 있다 해도 그것은 나의 특별한 깨우침 덕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모두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이는 오직 나의 말로 사람의 관념을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들은 후, 사람은 모두 힘을 얻었지만 결국엔 다 물러갔다. 이는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속에는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누구도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지 못한다. 이 비밀이 밝혀질 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며, 이로써 내가 “나의 쓰임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뿌리째 뽑아 버린다”라고 한 말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나의 장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다양하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낱알이 보여 줄 것이다. 명심하여라! 장자들 외의 사람에게는 전부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며, 그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이 일은 곧 낱알이 드러나겠지만, 어떤 자는 끝까지 봉사하고 어떤 자는 한동안만 봉사할 것임). 나의 말로 하는 사역으로 모두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각 나라, 각 지역, 각 교파는 모두 내 이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재난이 하나하나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참도를 찾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든 감수하려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나의 시간이 있다. 내가 언제 이뤄진다고 하면 반드시 그때 이뤄지며, 여기에는 한 치 오차도 없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 큰 붉은 용은 결국 나에게 패할 존재이며, 나의

봉사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진정으로 나의 마소 같은 존재이다. 나의 일이 완성될 때 나는 그것을 무저갱과 유황불 못에 내던질 것이다(멸망되는 자를 겨냥해 말함). 멸망되는 자는 죽음의 맛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나를 꺾박한 것으로 인해 더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일도 봉사자를 이용해 이를 것이다. 바로 사탄이 동족상잔함으로 자멸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큰 붉은 용의 후손들을 철저히 멸할 것이다. 이는 내 사역의 일부이다. 이 사역이 끝나면 방향을 이방으로 돌릴 것이다. 이것이 내 사역의 절차이다.

제111편

만국은 반드시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며, 만민은 반드시 너로 인해 내게 환호와 찬미를 보낼 것이다. 나의 나라는 반드시 번영하고 발전할 것이며,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떤 자의 유린도, 나와 합하지 않은 어떤 것의 존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므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와 마음이 합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로써 나의 성품과 위엄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대적하면 나는 나의 때에 그를 징벌한다. 어째서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을 볼 수 없겠느냐?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나의 손이 아직 진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재난을 쏟았다고는 하나 대재난의 내용에 대해 말한 것일 뿐, 대재난은 아직 누구에게도 실제로 임하지 않았다. 나의 말에서 너희는 무언가를 보았느냐? 나는 대재난을 실제로 선포할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난날에는 일부 사람들을 드러내기만 했을 뿐 대재난이 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지난날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대재난의 내용을 전부 말해 준 이상, 특정한 때에 대재난을 실제로 모두에게 공포할 것이다. 이전에는 어떤 이도 대재난을 접해 보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이(큰 붉은 용의 자식들을 말함) 제멋대로 굴고 함부로 행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임하면 그것들은 철저히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것이며,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행정 법령이다. 이로 알 수 있듯 나의 사역 방식(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 방식을 가리킴)은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나의 진노와 심판, 저주가 큰 붉은 용의 후손에게 나타날 것이며, 나의 손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반면, 장자들에게는 나의 긍휼과 자비, 나아가 나의 신성불가침한 성품과 나의 권병과 본체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봉사자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위해 봉사할 것이며, 장자들은 점점 더 알려질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쳐서 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차 없는 나의 손을 보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공포로 전전긍긍하며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장자들은 그 가운데서 나의 권병을 보고, 나를 더 잘 알게 되어 생명이 자라게 될 것이다. 또한, 일전에 했던 말들(행정 법령과 예언, 각 부류 사람에 대한 심판을 포함)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말이 한 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실제로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 때문에 나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철장(鐵杖)의 역할뿐 아니라 내 말의 지혜도 있다. 이로써 나의 전능과 큰 붉은 용에 대한 나의 증오를 보게 될 것이다(이는 내가 일을 시작한 후에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몇몇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내 형벌의 작은 부분일 뿐 대재난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를 통해 이후 나의 사역 방식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가 그때 가서 이것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도록 오늘 알려 주겠는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독선을 벗어던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로 다른 수단으로 큰 붉은 용을 징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원수이자 적수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것의 후손을 모조리 없애 버려야 내 마음속 원한을 풀 수 있고, 그것에게 더 확실하게 모욕을 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그것을 유황불 못, 무저갱에 던져 버리는 것이다.

어제뿐 아니라 오늘에도, 더 중요한 것은 내일에도, 나는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고 만국을 다스리며 복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친히 역사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영이 완전히 사람의 몸에 임해 말을 하거나 역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지난날과 다르다. 나의 영이 우주 세계의 모든 곳에서 친히 역사한다. 나는 말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 나와 함께 왕권을 잡게 할 것이므로, 먼저 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얻어 나의 집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 나의 영이 완전히 그에게 임하여 음성을 발할 것이고, 우주 세계에 나의 행정 법령을 펼칠 것이며, 나의 비밀을 밝힐 것이다. 나의 영이 친히 그를 온전케 하고, 친히 그를 가르칠 것이다. 정상 인성으로 생활하기에 누구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리고 장자들이 몸으로 진입할 때 내가 현재 하는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물론 사람이 육안과 관념으로 보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에 대한 나의 관용이다. 사실이 임하지 않았기에 사람은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관념으로는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다 그렇다. 사람은 나의 육신(직역: 사람)이 하는 말만을 믿거나 그게 아니면 나의 영이 발한 음성만을 믿는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까다로운 점이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정 법령을 통해 패역한 자식들을 징별한다.

예전에 나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이다. 최종적으로 나는 십사만 사천의 이긴 남자아이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는 ‘이긴 남자아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관념으로 숫자가 있으면 분명 사람이나 물건의 수로 생각한다. 이긴 남자아이를 수식하는 ‘십사만 사천의 이긴 남자아이’라는 말에서도 사람은 이긴 남자아이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여기고, 어떤 이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십사만 사천을 구분해서 해석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해석은 모두 틀렸다. 이는 실제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예표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역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예표의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십사만 사천과 이긴 남자아이는 연관이 있다. 즉, 십사만 사천이란 말세에 왕권을 잡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십사만 사천은 시온에서 와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무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십사만 사천의 이긴 남자아이라는 말의 완벽한 해석은 시온에서 인간 세상에 와서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나에게 얻어지고 나와 함께 시온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내 말에서 내 사역의 절차를 볼 수 있다. 즉, 너희가 몸으로 진입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측면에서 거듭 설명하고 일깨우는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의 말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내 사역의 발걸음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찾으려면 반드시 내가 밝혀 준 비밀을 통해 봐야 한다(성령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임). 내가 말세에 비밀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의 집에는 나와 맞지 않는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씩 제거하고 정결케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말세에 친히 사역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내가 몇 번이나 너희에게 누리기만 할 뿐, 손발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의 공의와 위엄, 사람이 열 수 없는 나의 모든 비밀(사람이 줄곧 내 경륜과 나의 사역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비밀’이라고 함)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말세에 얻으려는 것과 하는 것 모두가 비밀이다. 나는 창세전에는 오늘날의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사람에게 내 영광스러운 얼굴과 내 본체의 일부를 드러낸 적이 없다. 그저 내 영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역사했을 뿐이다(창세 이래,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나의 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사람에게 나의 본체를 보여 준 적이 없으며, 게다가 내 영은 일부 사람에게서 역사했을 뿐임). 그러다 오늘날 비로소 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본체를 나타냄으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본 것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려는 것은 오직 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누구도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말해, 몸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의 본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시온산에서 우주 세계를 향해 내 본체를 나타내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마지막 공정(工程)이다. 시온산에 들어갈 때, 나의 나라는 이미 건축에 성공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본체가 바로 나의 나라이며, 장자들이 몸으로 진입할 때가 바로 나의 나라가 실현될 때이다. 그래서 나는 장자들이 시온산에 들어가는 일을 거듭 언급했다. 이는 내 모든 경륜의 중심점이나, 역대로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내가 사역 방식을 바꾸고 나면 사람의 사유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더욱 많아지므로 반드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사유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더욱 고통받아야 하고, 나와 더 많이 협력해야 하며, 제멋대로 굴거나 자신의 관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많은 봉사자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람의 관념을 밝힌다(그러나 봉사자들의 경우, 내가 그들의 관념을 바꿔 놓지 않을 것이므로 넘어질 것이고, 장자들은 이 기회에 나를 통해 자신의 관념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제거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장자들은 내가 밝혀 주는 비밀로 인해 온전케 될 것이다.

제112편

‘말과 사실이 병행된다’는 것은 나의 공의로운 성품의 일부이다. 나는 반드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이 말에서 내 모든 성품을 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는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 가뿐히,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다. 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즉시 사실로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내가 말한 이상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관념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나의

본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우매해도 열심히 추구하는 자는 끝까지 구원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구원’이란 봉사자를 겨냥해 한 말이며, 그 본뜻은 그런 봉사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활하고 간사한 봉사자들은 멸망의 대상으로 삼아 중형을 내릴 것이다(멸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는 했으나 멸망당하는 자와 비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영원히 중형을 받는 징벌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징벌은 마귀나 사탄에 대한 징벌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큰 붉은 용의 후손이라고 한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장자들에게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장자들을 되찾아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장자들은 내가 예정하고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장자들은 본래 나에게 속해 있고 나로부터 왔기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아들과 백성들은 장자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아들과 백성들은 봉사자보다는 훨씬 낫지만, 어쨌든 내게 속한 자들은 아니다. 아들과 백성들은 인류 중에서 따로 택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장자들에게 모든 정력을 쏟아부은 후, 장자들로 하여금 이 아들과 백성들을 온전케 하게 한다. 이것은 나의 향후 사역 절차이므로 지금 너희에게 알려 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나 백성들에 대한 말은 많이 꺼내지 않고, 오직 장자들에 대해서만 거듭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방식이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으며,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다.

나는 날마다 너희의 관념을 깨부수고, 날마다 너희 모두를 해부한다. 내가 어떤 단계까지 말을 하면 너희는 또 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람을 드러내 보일 시점이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육신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이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 나와 조금도 연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얼마나 패괴된 인류인가! 지난날,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건만 너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스럽구나! 나는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며, 내 인성에는 완전한 신성이 더해져 있다. 누가 감히 함부로 나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생각으로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의 대재난이 쏟아지면 그들을 차례로 하나씩 징벌하여 한 명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전부 중형으로 대해 주리라! 나의 영이 친히 역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한다. 사람은 모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며, 나의 말 속에서 나의 전능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말에서 트집을 잡거나 흠을 찾는다. 내가 장자들과 함께 시온에 나타나는 날에 나는 그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기간에

나는 주로 이 사역을 한다. 내가 말을 할 만큼 하고 나면 많은 봉사자들이 물러가고, 장자들도 고초를 겪을 만큼 겪었을 것이다. 이 두 사역이 진전됨에 따라 나의 사역은 일단락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장자들을 데리고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 사역의 절차이다.

나의 장자들은 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나의 본체가 바로 나의 나라이며, 나의 나라는 장자들의 탄생과 함께 생겨난다. 다시 말해, 나의 나라는 창세 때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내가 나의 장자들을 얻는 것은(장자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함) 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생기고, 왕권을 잡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새로운 생활이 생기고, 모든 옛 시대를 끝마칠 수 있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장자들은 이런 지위를 지니기에, 세상의 파멸과 사탄의 멸망을 상징하고, 봉사자의 드러남, 큰 붉은 용이 대가 끊기고 유향불 못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집권자들과 큰 붉은 용의 모든 후손이 끊임없이 가로막고 대적하며 계속해서 뒤흔들 놓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장자들을 끊임없이 높여 주고, 재차 증거하며, 거듭 나타낸다. 오직 나에게서 온 자만이 나를 증거하고, 나를 살아 낼 자격이 있으며, 나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이외의 자들은 그저 내 손안의 흙 한 줌에 불과하며, 모두 피조물들이다. 아들과 백성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택함 받은 그나마 괜찮은 자들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나에게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자는 아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들은 장자와 전혀 비교될 자격조차 없다. 그들은 장자의 관할과 지배를 받는 존재일 뿐이다. 이제 너희는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사실이며, 조금의 거짓도 없다. 모두가 내 본체의 일부 발현이자 나의 음성이다.

나는 빈말을 하지 않고 일을 그르치지도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를 통해 나의 위엄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리 분간을 못해서 나의 형벌이 임해야만 진심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처럼 거역하고 제멋대로 군다. 그래서 나는 형벌로 온 인류를 깨부수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을 들여다보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라면서 왜 그렇게 많은 장자들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것은 나의 일이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뿐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나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비록 장자들과 내가 형상이 다르다고는 하나 영은 하나이기에 모두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할 수 있다. 같은 형상이 아닌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본체의 모든 부분을 확실히, 그리고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만국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는 내 행정 법령의 마지막 부분이다(마지막 부분이란 어조가 부드러워지고, 아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킴).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갖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의 관념을 낱낱이 드러내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할 것이다. 나는 우주와 땅끝을 누비고, 우주의 전모를 살핀다. 어떤 사람이든 다 내가 감찰하므로 아무도 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일이든 다 내가 참여하므로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누가 감히 나의 전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나에게 진심으로 승복하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내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겠느냐? 온 하늘은 반드시 나의 장자들로 인해 변하고, 온 땅은 나와 나의 장자들로 인해 크게 진동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내 본체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것이 반드시 내 손에서 주관될 것이다. 여기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승복하게 하고, 모든 물품들이 나의 집으로 돌아와 나를 위해 쓰여지게 할 것이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마지막 부분이다. 지금부터 행정 법령의 모든 조항이 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행정 법령이 다 사람들에게 공포되었고, 각 부류의 사람과 매사가 다 적절히 안배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며, 가지각색의 사람이 나의 행정 법령으로 인해 그 원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실제 행정 법령이 임한 것이다.

현재 나는 사역의 절차에 따라 내가 하려는 말을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역대로 모든 성도의 입에서 ‘새 예루살렘’이 거론되었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사역이 오늘날의 이 시점에 이르렀으니 나는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너희에게 풀어 주겠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도가 있다. 내가 어떻게 설명하든, 얼마나 확실하게 말하든, 너희가 완벽히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이 단어의 실체는 아무도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서의 내 거처, 즉 내가 거닐고 다니는 곳이었다. 하지만 ‘새’라는 글자가 그 단어를 바꿔 놓아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람은 이것을 조금도 파악할 수 없다. 혹자는 그것을 나의 나라라고 여기고, 혹자는 그것을 나, 이 사람이라고 여기며, 혹자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여긴다. 또 혹자는 그것을 내가 세상을 멸한 후의 새 세상이라고 여긴다. 사람의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 사람의 머리가 아주 복잡해도, 사람은 여전히 이것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다. 역대로 모든 사람이 이 단어의 참 뜻을 알거나 깨닫게 되기를 고대했지만 그 원을 이루지 못했다. 모두가 실망을 품은 채 기대를 남기고 죽었을 뿐이다. 그때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해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사역이 이 시점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에게 전부 알려 주겠다. 즉, 새 예루살렘은 나의 진노, 나의 행정 법령,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장자들에게 베푸는 무한한 축복,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새’라는 글자를 사용한 이유는 이 네 부분이 모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의 진노를 인식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의 행정 법령을 알지 못했으며, 아무도 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새’라는 글자는 감춰져 있음을 뜻한다. 내가 사람이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했으나 아무도 새 예루살렘의 실재를 직접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말해도 사람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설령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머리로 이해하고 글귀나 관념상의 이해에 그칠 뿐이다. 이는 필연적인 경향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길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제113편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나의 지혜가 들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전혀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은 그저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말만 볼 수 있을 뿐, 나의 영광도, 내 본체의 현현도 볼 수 없다. 사람에게 전혀 그런 능력이 없기에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황하에서 나의 장자들과 시온으로 돌아가 형상을 바꿈으로써 사람이 나의 지혜와 전능을 보게 한다. 현재 사람이 본 나의 지혜와 전능은 내 영광 중 작은 일부분이라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로써 나의 지혜와 영광은 무궁무진하고 한량없이 심오하여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은 장자들의 본분이자, 나의 본직이다. 즉, 나의 경륜의 한 가지 항목인 것이다. 나의 나라 건축은 교회 건축과 다르다. 장자들과 내가 나의 본체이고 나의 나라라고 말한 이상, 나와 장자들이 시온산에 들어가면 나의 나라가 건축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나라 건축은 한 단계의 공정(工程)이며, 영계로 전환해 들어가는 한 단계이다(하지만 내가 창세 이후 행한 모든 것은 또 이 한 단계를 위한 것이다. 한 단계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결코 한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봉사자에게 이 한 단계를 위해 봉사하게 한다. 그러므로 말세에 많은 사람이 물러갈 것인데, 이들은 모두 장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상이다. 누가 이 봉사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반드시 나의 저주 아래 죽게 될 것이다(봉사자들은 모두 큰 붉은 용의 음모를 대표하는 사탄의 종이므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큰 붉은 용의 일당이자 사탄에 속한 자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와 불사르는 대상을 증오한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와 반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도, 가만두지도 않을 것이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힘쓰도록 많은 봉사자를 예비한다. 이로 알 수 있듯, 역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모두 오늘의 이 단계를 위해 봉사한 자들이지, 나의 뜻에 맞는 자도,

나에게서 비롯된 자도 아니었다(비록 대다수가 내게 충성을 다했지만, 모두 내게 속한 자는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력은 나의 마지막 이 단계를 위해 기초를 다진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헛수고를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더 많은 사람이 물러갈 것이다(많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 경륜이 끝나고 내 나라의 건축이 이루어졌으며 장자들이 이미 보좌 위에 앉았기 때문임). 이는 모두 장자들의 나타남으로 인한 것이다. 장자들이 나타남에 따라 큰 붉은 용은 나를 위해 봉사하는 자, 현 단계에 정체를 드러낸 자, 내 경영을 방해하는 가지각색의 악령을 보내는 등 온갖 방법과 계략을 다해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전부 영계의 일이라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많은 사람이 물러갈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알고, 나의 경영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언젠가 가지각색의 부정한 악령들이 모두 정체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정할 것임).

나는 나의 장자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성심성의껏 나를 사랑하는, 큰 붉은 용의 후손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오한다(그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기에 호의를 베풀고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전부 큰 붉은 용의 음모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성품이자, 내 공의로움의 전부이다. 사람은 아예 측량할 수 없다. 어째서 내 공의로움의 전부가 여기에서 보여지겠느냐? 이를 통해 나의 신성불가침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장자들을 사랑하고, 장자들 외의 모든 사람을 증오하는데(아무리 충성해도 안 됨), 이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다. 너희는 알아채지 못하겠느냐? 사람은 관념으로 내가 시종일관 긍휼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기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다 사랑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느냐? 내가 소나 말을 사랑하겠느냐? 내가 사탄을 장자로 삼아 기쁨으로 여기겠느냐? 허튼소리 말라! 나의 공정은 장자들에게 있고, 나는 장자들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아들들과 백성들은 부차적일 뿐, 중요하지는 않음). 사람은 모두 내가 예전에 쓸데없이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일들이다(두 번 성육신하여 한 일들을 가리킨다. 나는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므로 반드시 성육신하여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 나의 영이 친히 역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육신에서의 내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나와 장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육신을 입고 벌이는 사탄과의 전쟁은 영계에서 사탄과 벌이는 전쟁보다 더욱 격렬하며 사람도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의 자손이라 해도 나를 위해 그 아름다운 증언을 할 수 있으며, 게다가 내게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의의이다. 주된 목적은

마귀의 후손들이 스스로에게 모욕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효과적으로 마귀와 사탄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이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내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빌게 한다. 나는 이미 승리했고, 모든 것을 이겨 냈다. 나는 셋째 하늘을 뚫고 시온산으로 직행하여 나의 장자들과 천륜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의 잔치를 즐길 것이다!

나는 장자들에게 모든 대가를 치렀고, 모든 심혈을 쏟았다(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말들, 나아가 내가 가지각색의 악령들을 속속들이 간파하고 각종 봉사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모두 장자들을 위한 것임을 전혀 모름).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역을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안배한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하는 말에서 나의 사역 방식과 절차를 보아야 하고, 내가 날마다 하는 일에서 나의 지혜와 일 처리 원칙을 보아야 한다. 나는 “사탄이 나의 경영을 방해하고자 나를 위해 봉사할 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봉사자들은 가라지를 가리킨다. 하지만 곡식은 장자들이 아니라, 장자들 이외의 모든 아들과 백성들을 가리킨다. “곡식은 결국 곡식이고, 가라지는 결국 가라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같은 부류들의 성품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사탄인 것이다. 곡식은 아들과 백성들을 가리킨다. 창세전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의 자질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사람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곡식은 어디까지나 곡식이다. 그렇다면 장자들이란 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느냐? 장자들은 내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자이다. 그러므로 곡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곡식이라고 하면 ‘심는다’는 단어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의 ‘심는다’란 말은 ‘만들다’는 의미이다. 모든 가라지는 사탄이 몰래 들어와 뿌리고 간 것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오로지 충만하고 완벽한 나의 본체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땅히 금은보화로 대신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과 연관이 있다. 내가 온 것은 금은보화를 훔쳐 가기 위함이다(이 금은보화는 원래 내 것이었으므로 나는 다시 내 집으로 가져갈 것임). 장자들이 나와 함께 시온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이 금은보화를 훔쳐 왔을 때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탄의 방해와 교란이 있었으므로 나는 이 금은보화를 놓고 사탄과 결전을 벌였다(이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영계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로 치부할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서 내가 6천 년 경륜으로 무엇을 이루는지를 깨달아야지, 절대로 이를 우스운 얘기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서 떠날 것이다.). 오늘날, 이 결전이 이미 끝났으므로 나는 장자들을 데리고(나에게 속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의 시온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은보화가 몹시 드물고 귀하기에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해 빼앗아 가려 한다. 그러나 내가 재차 말했듯, 나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의 본뜻은 앞에서 말한 대로다. 내가 장자들이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내게 속한다고 한 것은 사탄에 대한 선포였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모두 영계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째서 장자들이 나에게 속한 존재라고 재차 강조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내 말에 목적과 지혜가 있다고 한 바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뿐,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은 자가 없다.

나의 말은 할수록 많아지고 할수록 더욱 엄하다. 어느 지경에 이르면, 나는 나의 말로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들 것이며, 큰 고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며, 내 사역의 절차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사탄에게 치욕을 줄 수 있고, 장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내 말을 통해 최종적으로 장자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이 육신에서 벗어나 영계에 들어가게 할 것임). 사람은 모두 내 말의 방식이나 어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해석에서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하며, 내 말에 따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는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니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바깥세상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영계로부터 말이다.

제114편

나는 우주 세계와 산천 만물을 창조했고 우주 땅끝까지 창조했으며, 나의 아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만사 만물을 지휘한다. 이제 나는 장자들을 데리고 나의 시온산, 나의 거처로 돌아가려 한다. 이는 나의 마지막 단계 사역이다. 내가 행한 모든 것(창세부터 현재까지 행한 모든 것)은 다 오늘날의 이 사역을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내일에 왕권을 잡기 위해서였고, 내일의 하나님나라를 위함이었으며, 또한 나와 장자들의 영원한 향유를 위한 것이었다. 이야말로 내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자, 만물을 창조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한 말과 일에는 모두 목적과 계획이 있으며,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비록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된다고 했지만, 나는 원칙 있게 일하고, 나의 지혜와 성품으로 일한다. 너희는 이에 대해 깨달은 바가 있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장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나의 본모습을 보지 못했다. ‘장자들 외’라고 말한 이유는 장자들이 본디 내 본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를 창조할 때, 사람을 나의 요구에 맞춰 아들과 백성, 봉사자, 멸망할 대상의 네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장자들은 그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장자들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인류에 속하지 않는다.

성육신하기 전에 나는 장자들을 어떤 가정에 태어나게 할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 봉사하게 할지 모두 예비해 놓았으며, 누구를 언제 내 곁으로 데려오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지도 예비해 놓았다. 이는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일이므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다. 이는 전부 시온에서의 일인 데다가 내가 성육신할 때 사람에게 이런 것을 알아챌 기관(器官)을 주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시온으로 돌아갈 때, 너희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고 오늘날은 또 어떤 모습인지, 이번 생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내가 분명히, 그리고 조금씩 너희에게 알려 줄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나의 경영을 방해할 것이다. 오늘날, 나와 대다수의 장자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생김새는 서로 다를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영이다. 사탄의 후손은 기회를 노리지 말라. 네가 곁으로 어떻게 위장하든,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피상적인 것과 곁으로 나를 모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자는 100% 사탄임을 알 수 있다. 영이 다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떻게 모방하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장자들은 본디 하나의 영이기에 모방하지 않아도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모두 정직하고 순수한 데다가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지만, 그것은 처세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것은 장자의 결함이 아니다. 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대다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책망하든 옛 성품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반면, 장자는 내가 책망하지 않아도 내 뜻에 맞다. 그들은 나와 같은 영을 갖추었고, 영적으로 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자들 외에는 누구도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내가 사탄을 정복하면 그제야 나를 위해 힘쓰려 하는 것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장자들은 무엇보다 높고 무엇보다 뛰어나다. 어떤 사물도, 사람도, 일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들을 뛰어넘지도 못하며 모두 순순히 내 본체 앞에 항복한다. 이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내가 이미 이룬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여기서 불복하는 자란 사탄을 가리킨다. 사탄이 점령한 사람은 의심할 나위 없이 사탄이다.), 나는 반드시 그 화근을 뿌리째 뽑아 후환을 제거할 것이며, 당장 그자를 내 형벌로 죽게 할 것이다. 이 부류의 사탄은 나를 위해 힘쓰기를 원치 않는다. 그놈들은 창세 이래 줄곧 뻔뻔스럽게 나에게 반기를 들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내게 불복한다(이는 영적인 일이므로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챌 수 없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탄을 대표한다.). 나는 모든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먼저 그놈들을 멸할 것이며, 그놈들이 영원히 중한 징계를 받게 할 것이다(‘멸한다’는 것은 없애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놈들에

대한 모진 정도를 뜻한다. 여기에서의 ‘떨하다’와 멸망할 대상의 ‘떨하다’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또한 영원히, 끝도 없이 울며 이를 갈게 할 것이다. 사람은 전혀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도 영적인 일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일은 시온에 돌아간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된다.

미래의 내 집에는 나와 장자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계획이 완벽히 성공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나의 장자들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아들과 백성들은 피조물 가운데 속하며, 봉사자와 멸망될 대상은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와 나의 장자들은 세계를 심판한 후에 다시 신성한 삶을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나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사람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잇달아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순교하고 몸과 마음을 바쳤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어쨌든 피조물일 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같은 부류로 나뉠 수는 없다. 이는 필연적인 흐름이므로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쨌든 만물을 창조한 존재이고, 사람은 어쨌든 피조물이며, 사탄은 어쨌든 나에게 멸망될 대상이자 내 원수이다. 이는 “강산은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라는 말의 가장 참된 의미이다. 현재 처한 이런 상황과 이런 지경은 나와 장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전조(前兆)이다. 세상에서의 내 사역이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기에 다음 단계 사역은 반드시 몸으로 돌아가서 행해야 하는데,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자 오래전에 내가 계획해 놓은 바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내 행정 법령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제115편

내 마음은 분명 너로 인해 크게 기쁠 것이고, 내 손은 분명 너로 인해 환희의 춤을 출 것이며, 나는 반드시 너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너는 창세전에 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본디 이 세상이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존재이므로 오늘날, 반드시 나의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고,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며, 영원토록 지켜 줄 것이다. 나에게서 비롯된 자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 마음은 불덩이 같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하루빨리 함께할 수 있기를, 나의 본체가 하루빨리 전부 시온에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는 모두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이다. 영 안에서 늘 따르지는 못하지만, 영 안에서 늘 함께하고 육신에서

를 만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며 더없이 친밀하니, 시온산에 돌아가는 날까지 누구도 너를 내 곁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장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항하는 모든 원수를 증오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시온으로 데리고 갈 것이며, 내가 증오하는 자는 저승이나 지옥에 처넣을 것이다. 이는 내 모든 행정 법령의 주요 원칙이다. 장자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내 영이 발현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이를 확실히 이해한 상황에서 나의 장자들을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내 다음 단계 사역이다. 누군가 이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자를 응징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심판의 말을 한 마디 하면, 사탄은 그 즉시 저승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이미 장자들에게 권병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제 장자들이 나와 함께 왕권을 잡을 때가 온 것이다(이는 육체에 있는 단계로, 몸에 있을 때 함께 왕권을 잡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누군가 마음으로 불복한다면 육신을 입은 나를 대적한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나를 대하는 것과 장자들을 대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 우리는 본디 한 몸이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 나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장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 이는 내 행정 법령의 한 조목이므로 모든 사람이 일어나 증거해야 한다.

나의 나라는 땅끝까지 충만하고, 나의 장자들은 나와 함께 땅끝까지 두루 누빈다. 너희는 육체의 한계로 인해 내가 많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역은 시온에 돌아간 후에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말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일이다. 그래서 내가 거듭 시온과 시온에서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의 목적을 알겠느냐? 너희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 마음은 하루빨리 시온에 돌아가 전체 옛 시대와 우리의 땅의 생활을 끝내고(나는 땅의 사람과 일, 사물이 지긋지긋해졌으며, 육적인 생활은 더욱 진저리가 나기 때문이다. 육신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모른다. 오직 시온에 돌아간 후라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삶이 하나님나라에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나의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탄의 손에 넘겨줘야만 마지막 이 단계에서 너희를 내 몸 안으로 되찾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첫 번째 성육신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을 얻지도, 속죄 제물을 가져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너희는 세상에 오자마자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에게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으므로 나는 너희를 시온에서 이끌고 나온 이상, 너희를 다시 시온으로 데리고 갈 자신도 있다. 사탄이 어떻게 가로막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의 대업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장자들은 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경륜이 너희에게 점차 펼쳐지고 있다. 나는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내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내가 시온에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음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만국 만민 가운데서 사역을 전개하는 것은 시온에 돌아간 후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시온에 돌아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나는 그 전에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나의 사역은 점점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나의 땅의 사역은 갈수록 적어져서 이제는 거의 없다(바쁘다고 함은 영 안에서 사역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바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마련할 사역 항목이 많음을 의미한다.). 내가 말했듯이, 나의 땅의 사역은 이미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역은 모두 시온에 돌아간 이후에 할 것이다(시온에 돌아간 이후에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후의 사역을 육신으로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육신으로 이후의 사역을 한다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물리치고 시온에 돌아갈 때, 그때의 삶은 만세 이전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다(내가 세상을 완전히 이겼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육신을 통해 완전히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육신으로는 일부 영광만을 얻었지만, 두 번째 성육신으로 나의 본체가 완전한 영광을 얻으면 사탄은 틈탈 기회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온의 삶은 더 아름답고 평화로울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의 본체는 더욱 영광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사탄 앞에 나타나 큰 붉은 용에게 모욕을 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모든 지혜의 핵심이다. 내가 겉면의 일에 대해 말할수록 너희는 더 쉽게 이해하고, 내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온의 일에 대해 말할수록 너희는 공허하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하기 힘들어하며, 내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입에서는 허언이 나오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다. 너희의 사유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육적인 한계로 인해 사람은 내 말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이해하지는 못하며, 나 역시 많은 말을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다. 시온에 돌아가게 되면 너희는 내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사람의 육체와 관념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밝힌 비밀을 통해 너희의 육적인 사유를 개선하고 너희의 관념을 깨부수려 한다. 여러 번 말했듯이, 이는 내 사역의 절차이기 때문이다(이 항목의 사역은 시온에 들어간 다음에야 멈춤).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서로 다른 ‘시온산’이 있다. 내가 시온산을 거듭 언급했으니, 시온산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려 주어 너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시온산에 있다는

것은 영계로 돌아가는 것인데, 영계라고 하지만 사람이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곳은 아니다. 이는 몸에 대해 말한 것이다. 몸이 나타나면 형상이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형상이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만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시온산에서는 의식주에 신경 쓰지 않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없으며 성별의 구분 또한 없다(시온산에 있는 자는 모두 내 본체이며, 한 몸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정도, 성별의 구분도 없는 것임). 또한, 나의 본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경계하지 않을 때 내 본체가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을 때 나의 본체는 다시 사라질 것이다(이는 육에 속한 사람이 이를 수 없는 일이므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이후에도 태양과 달, 물질적인 하늘과 땅은 있다. 하지만 나의 본체가 시온에 있기에 피약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대낮도 없을 것이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일 역시 없을 것이다. 나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의 일을 가리킨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온 우주의 만물을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라는 말의 참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내가 “나무에 달마다 열두 가지 실과가 맺힐 것이다”라고 한 것은 시온의 일을 가리킨다. 이 말은 시온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시온에서는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에 ‘달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열두 가지 실과’는 오늘날 너희가 살아 내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시온의 삶을 요약해 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온의 삶이 매우 풍성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열두 가지’는 완전함을 가리키기 때문임). 그것은 근심도, 눈물도 없는 삶이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는 일도 없는 삶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 모든 것이 내 본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분리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광경은 모두가 늘 새로울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질서를 갖추고, 시온에 돌아가 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비록 땅에서의 내 사역이 철저히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은 장자들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하므로 나는 당장 혼자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장자들이 땅의 사역을 끝내면 우리는 함께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야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내 본체를 전부 나타낼 수 있다(나의 장자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땅에서의 그들의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 사역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봉사자들이 해야 한다.).

제116편

내가 한 말 중에 사람을 두렵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공포에 떨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나아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말의 품성함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고, 아무도 분명히 알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알려 주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너희는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진면목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로써 나의 모든 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너희가 더 잘 깨닫도록 하겠다. 내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나는 말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일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말과 사실이 병행한다는 참뜻이다.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이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을 기초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나는 함부로 말하지도, 일하지도 않는다(인성에서든 신성에서든, 내가 하는 말과 일에는 지혜가 있다. 나의 인성은 갈라놓을 수 없는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할 때는 아무도 내 말의 어조에 주의하지 않고, 내가 일할 때는 아무도 나의 사역 방식에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결점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큰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장자들뿐만 아니라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탄에게 수치를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이가 내가 장자들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패괴를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장자들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잘못이란 말이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높이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해서 내 아들을 너희 아래 깔아뭉개고 냉대하며, 너희의 종처럼 대했을 것이다. 이 짐승 같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씩 응징할 것이다!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말해 보아라.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어떤 것들이겠느냐? 말 그대로 짐승이다! 나는 그런 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너희가 증거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진작에 내 일을 그르쳤을 것이다! 이 짐승들아!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구나!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힘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썩 물러가라! 내 아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억압했으니, 내가 너를 짓밟아 곤죽을 만들 것이다! 어디 계속 방자하게 굴어 보아라! 어디 한 번 더 나를 욕되게 해 보아라! 나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 짐승들을 응징할 때가 되었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이뤄지고(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모든 것이 또한 내 손안에서 파멸된다(내가 증오하는 짐승과 혐오하는 사람, 일, 사물이 여기에 해당). 나는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나의 장자들에게 보여 주어 그들이 확실히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가 시온에서 나온 후에 한 모든 것을 보게 하겠다. 그다음, 우리는 함께 시온산,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가 머물던 그곳으로 들어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누릴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세상과도, 이 짐승들과도 접촉할 일이 없을 것이며, 완전한 자유를 얻어 모든 것이 막힘없이 순조로울 것이다. 누가 감히 나의 장자들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또 나의 장자에게 맞서겠느냐? 내가 그자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과거에 나를 경외한 것처럼 오늘날 장자들을 경외해야 한다. 내 앞과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보고 있다. 내 아들에게 불충하는 것은 나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본디 한 몸이므로 나에게서 잘하나 장자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전형적인 큰 붉은 용의 후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고, 장자들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책무이다. 누구도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즉시 응징할 것이다! 너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잘 들으라! 그런 자일수록 나에게 가혹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런 자일수록 가망이 없으며, 침륜에 빠질 자이니, 내가 영원히 형벌을 가할 것이다!

나의 모든 사역은 나의 영이 친히 행한다. 사탄과 같은 부류 중 그 누구도 함부로 끼어들어 내 계획을 교란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나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나와 나의 장자들을 찬양하게 할 것이며, 경이로운 나의 행사와 내 본체의 현현을 찬미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찬미의 소리가 온 우주 땅끝과 산천과 만물을 진동하게 하고, 사탄이 철저히 수치당하게 하겠다. 나는 나의 증거를 통해 더럽고 불결한 옛 세상을 멸하여 성결하고 흠이 없는 새 세상을 이룩할 것이다(내가 앞으로 일월성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옛 세상이 존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멸하여 옛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내가 우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때야말로 내 뜻에 맞는 세상이다. 그곳은 오늘날과 같은 억압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도 없으며, 육체 안에서 완전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상일 것이다(비록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육체 안에서다. 나의 나라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쨌든 인간 세상은 인간 세상이고, 영계는 영계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나와 장자들이 바로 그런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그 세상에는 절대 사탄의 방해가 없다. 사탄이 나에게 철저히 응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나라의 삶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만세와 만대에 그 누구도(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이런 삶을 누려 본 적이 없다. 역대로 아무도 장자가 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힘만 쓸 것이다. 이 봉사자들이 충성스럽다고는 하나, 어쨌든 나에게 정복된 사탄의 후예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고 나면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나를 위해 힘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은 어쨌든 아들이고, 봉사자는 어쨌든 사탄의 후예이다”라는 말의 참뜻이다. 지금까지 오늘의 장자들을 위해 힘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모든 봉사자 중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영원히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그들의 본성을 보면 모두가 사탄의 자식이고, 모두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비록 나를 위해 힘쓴다고는 하나 전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마지못해 그리할 뿐이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쥐어져 있기에 내가 쓰는 봉사자는 반드시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역대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본디 같은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최종적으로(6천 년 동안 줄곧 나를 위해 힘썼으므로 이 사람들은 봉사자의 부류로 구분됨) 누구도 역대로 수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예비한 것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나의 장자들로 하여금 다시 나의 집으로, 나의 곁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나는 승리했고, 완전한 영광을 얻었으므로 너희를 되찾을 것이다. 과거, 어떤 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다. 그 예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조금 해석해 주도록 하겠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란 다 사람의 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사람의 수를 가리키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둘은 장자들을 의미하지 않으며, 모두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세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다(피조물은 원래 내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만든 사람 중, 아들들과 백성들을 뜻한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얻어졌으므로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녀’라고 부른 것이다. ‘다섯’은 내가 예정한 아들들과 백성의 수를 뜻한다. 한편, ‘미련한 다섯 처녀’란 봉사자들을 가리킨다. 봉사자는 나를 위해 힘을 쓰며, 생명은 조금도 중시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일만을 추구하므로(나의 자질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도 외적인 일임) 나의 유능한 조력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섯’은 사탄을

의미하며, ‘처녀’는 나에게 정복되고, 나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므로 봉사자라고 부른다.

제117편

너는 그 책을 펼치는 자이고, 그 일곱 인을 떼는 자이다. 모든 비밀이 너로부터 나오고, 모든 복이 너로 인해 밝혀지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며, 만민으로 하여금 너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본디 나의 본체이고, 나의 완전하고 완벽한 발현의 일부이며, 나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를 특별히 증거해야 한다. 내 본체에 속한 자 외에 또 누가 내 마음에 합하겠느냐? 사실 네가 너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너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나의 행정 법령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뤄 줄 것이며, 네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열납할 것이다. 너에게 불충하는 자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내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릴 것이며, 너와 합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권병이다. 과거에 말한, 장자들에 대한 요구와 기준은 모두 너를 본보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네가 어떠한 장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나의 영이 친히 하는 일이다. 만약 사람이 너를 증거한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사탄의 부류이자 나의 원수가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증거는 무엇보다 확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며, 성령이 인친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함부로 바꿔 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람은 나를 증거할 수 없기에 나 스스로 나의 본체를 증거한다. 그러니 사람은 나의 사역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라! 이는 엄한 심판의 말이니 모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 말의 모든 세부 사항은 너희가 되새기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니,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유의하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왜 장자들이 나의 본체이자, 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라고 말했겠느냐? 만세 전에 우리는 본디 함께 생활했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사탄의 방해로 인해 내가 처음으로 성육신한 후 다시 시온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 인간 세상에 왔다. 말세에 내가 승전고를 울리면, 다시 말해 사탄이 패괴시킨 육신 속의 너희를 다시 얻으면, 나는 너희를 데리고 시온으로 돌아가 내 본체와 재회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성육신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결코 몸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그때부터 더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장자들과 시온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철저히 완성되어 내가 곧 모든 옛 시대를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에 있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나의 본체는 시온에 있고, 시온 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새 하늘이자 새 땅이다. 나의 본체가 온 시온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나의 장자들 또한 새 하늘이자 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와 장자들은 본디 한 몸이기에 헤어질 수 없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절대 장자들이 빠질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한다면, 나는 그자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만국 만민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모든 사탄은 철저히 수치당할 것이고, 모든 더러운 귀신은 내 주위에서 물러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만민 가운데(아들들과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있을 것이며, 만국에는 사탄의 방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만국 만민을 다스리고, 온 우주 세계를 주관하고 있으며, 사탄은 모두 파멸하고 패배하여 내 행정 법령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만민 가운데서 사역을 전개하지만, 그들은 내 영의 깨우침만 얻을 뿐이다. 그들 중 나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자는 없으며, 나의 발현이 될 자격을 가진 자 또한 없다. 내게서 온 자만이 나의 사역을 할 자격이 있다. 나머지는 그저 나에게 잠시 이용당할 뿐이다. 나의 영은 경솔하게 어느 사람의 몸에 임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은 귀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이 사람의 몸에 임하는 것과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나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내 영이 그에게 역사하지만, 나에게서 온 자에게는 내 영이 그의 몸에 임한다. 이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일이다. 나에게서 온 자는 원래 거룩한 존재지만, 나 이외의 자들은 아무리 훌륭해 봤자 거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 영은 쉽사리 어느 사람의 몸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일을 그르치지 않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100% 자신이 있는 것이다! 나는 증거한 이상 반드시 지켜 줄 것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에게서 왔으며, 내 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신의 관념과 사탄이 준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기 바란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내 부탁이자 충고이니 반드시 지키고 진심으로 복종하며, 반드시 내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만국 만민 가운데서, 나아가 우주 세계의 곳곳에서 내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시온에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음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만민 가운데서, 우주 세계에서 내 사역을 전개하는 것은 반드시 시온에 돌아간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임).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영으로 외국인과 만난다고 한 이유는 육신으로는 이 일을 전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두 번 다시 모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으로 외국인과 교제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진정한 영계이지,

육으로 사는 막연한 영계가 아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은 시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거듭 내가 말하는 방식에 주의하라고 일깨워 주었고, 내가 한 말에 사람이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내가 알려 주었기에 너희는 이제 겨우 조금 깨달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다. 이 기간의 사역이 지나면 나는 차츰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나는 이를 통해 계속 일부 사람들을 도태시킬 것이므로 지금은 말하지 않겠음). 이것은 내가 다음 절차에서 사역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임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118편

일어나 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다. 일어나 나의 아들을 증거하기는커녕 도리어 대적하고, 사람의 관념으로 가늠하는 자는 내가 멸해 버릴 것이다. 누구나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아들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만 존중하고 아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큰 붉은 용의 후손이다. 나는 그런 자가 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멸하여 무저갱에 던질 것이다. 나는 충성되고 정직한 봉사자들로 하여금 내 아들을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두 필요 없다. 이는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이로써 내가 흠 없고 거룩한 하나님 자신임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치 않겠다.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누군가 너를 대적하고 핍박했다면 나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형벌로 갚아 줄 것이다. 나는 조금의 혈연관계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를 증거한다는 것은 봉사자들이 이미 나를 위해 봉사를 끝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조금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 그들은 결국 너의 봉사자들이고, 너는 어쨌든 하늘에 속한 존재이니 결국 나의 몸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몸에 네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날 너를 대적하고 너와 마음이 합하지 않았던 자들(다른 이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너 스스로만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은 오늘날 모두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 쓰러졌다. 너는 하나님 자신이라서 대적하거나 거스르는 이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지만 내면에는 나의 영이 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철장(鐵杖)이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이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증거한 이상, 너는 반드시 권병을 지닐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은 모두 내가 선포하는

것이며, 네가 행하는 일은 모두 나의 발현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며, 내 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므로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네가 입고 쓰고 거하는 것 역시 틀림없는 나의 행사이다. 누구도 약점을 잡거나 트집을 잡지 말라. 그랬다간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나는 모든 악한 종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충성된 종들이 내 집에서 나의 장자들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자, 내 사역의 방식이다. 악한 종이 나의 아들을 증거하면 죽은 자의 냄새를 풍기는데, 이는 내가 혐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성심성의를 다해 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이는 내가 열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얼른 썩 물러가라!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나가라고 하면 너는 나가라! 그리고 너의 결말이 어떨지, 너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지켜보아라. 봉사자로서 네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나의 심판과 나의 분노, 나의 저주, 나의 불길, 나의 진노가 수시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손은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봉사자 중에 지난날 얼마나 충성스러웠든 지금 내 아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즉시 그를 멸하여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용서치 않는 내 손을 보여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모두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본성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나를 위해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즉시 마음이 변하여 나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는 사탄의 본성이다. 스스로를 옳다 생각하지 말며 충성을 다한다고 여기지 말라! 조금의 이익도 없다면 짐승 같은 너희가 나를 위해 충성할 리 없다. 만약 내가 나의 행정 법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벌써 떠났을 것이다. 지금은 나를 위해 힘쓰고 싶지도 않고, 내 손에 죽임 당하고 싶지도 않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을 뿐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재난난이 임할 거라고 내가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진작에 나갔을 것이다. 아무렴 내가 사람의 웅졸함을 모르겠느냐? 현재 많은 사람이 일말의 희망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뀔 때, 그들은 하던 일을 뺏개치고 물러가겠다고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 누구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하지만 네 결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람의 본성은 나 외에 누구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사람은 다들 자신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충성’에 불순물이 섞여 있음은 모른다. 그 불순물이 사람을 망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나에게 간파된 큰 불은 용의 음모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늘, 그 단순한 일을 모를 리 있겠느냐? 나는 너의 피와 살을 뚫고 너의 속셈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사람은 스스로 똑똑한 척 굴며, 자신의 속셈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지 만물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함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나는 내 아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할 것이며, 큰 붉은 용과 사탄은 영원토록 증오할 것이다. 나의 형벌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며, 나를 적대시하는 그 누구도 피해 가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 “나는 시온에 큰 돌을 하나 놓았다. 그 돌이 믿는 자에게는 건축의 기반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겠으며,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맞아 죽을 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언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았고, 어떤 이는 해석해 보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비밀을 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역은 오늘날, 말세에 이르러서야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말을 해석했어도 그것은 억설에 불과하다. 오늘날, 나는 모든 뜻을 너희에게 밝혀 주어 내가 장자들을 증거하는 중요성과 목적을 깨닫게 해 주겠다. 나는 시온에 큰 돌을 하나 놓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돌은 장자들이 증거되는 일을 가리킨다. ‘크다’고 한 것은 증거될 때의 기세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들을 증거할 때 많은 봉사자가 떠나갈 것임을 뜻한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아들이 증거됨으로 인해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 반석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치는 반석’은 실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것임을 의미한다. “믿는 자에게는 건축의 기반이 된다”라는 말에서 ‘믿는 자’는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을 뜻하고, ‘건축의 기반’은 충성을 다해 봉사한 후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장자들이 증거되었다는 것은 모든 옛 시대가 곧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 즉, 사탄의 나라가 이미 멸망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사람을 쳐 죽이는 돌인 것이다. 따라서 열국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온 세상을 바꿔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산산조각 낸다’는 말의 참뜻이다. 이해했느냐? 이 한 마디에 내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다. 이는 나의 기묘한 행사이니 마땅히 내 말 속에서 내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119편

너희는 마땅히 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시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이니, 나는 이것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하루빨리 너희와 만나 시온에서 매 순간을 함께하기만 기다릴 뿐이다. 나는 이 세상과 육적인 것을 혐오하며, 땅의 모든 사람은 더더욱 혐오한다. 나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은 전부 귀신의 본성을 지녔고, 인간다운 면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땅에서의 삶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피조물과 육에 속한 자들을 혐오한다. 온 땅에 시체 냄새가 가득하니 나는 당장 시온으로 돌아가 땅의 모든 죽은 사람의 냄새를 없애고, 온 땅에 나를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 나는 반드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고, 육체와 이 세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람을 치는 나의 손은 사정이 없으니 아무도 막아서지 말라! 지금부터 누구도 교회 건축에 대한 일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지금은 장자들을 증거하는 시기이자, 하나님나라를 건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가 교회 건축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나라 건축을 허물고 내 경영을 방해하는 짓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갖춰졌고,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었다. 이제 장자들이 높임 받고 증거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일본일초를 지체하거나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즉시 시온으로 — 너희가 언제나 바라는 그곳으로 — 돌아갈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언제나처럼 평화롭다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역은 모두 시온에 돌아가서 할 것들이므로 지금은 손대지 않을 것이다. 시온에 돌아가는 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군들 빨리 시온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겠느냐? 누군들 부자 상봉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치 않겠느냐?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육신을 움아매지는 못한다. 우리는 육신을 초월하여 함께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느 누가 감히 가로막겠느냐? 또 어느 누가 감히 장애물을 설치하겠느냐? 내가 그자를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나는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가차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시온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이다. 나는 정결케 하는 이 사역과 나의 장자들을 증거하는 사역을 동시에 진행한다. 정결케 하는 사역이 끝날 때가 바로 내가 장자들을 밝힐 때이다. 또한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이란 수많은 봉사자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나의 장자들이 나와 함께 온 우주 땅끝과 산천 만물의 구석구석을 두루 누비게 할 것이다. 누가 감히 막을쏘냐? 누가 감히 저지할쏘냐? 나의 손은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장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에게 나는 진노이자 저주이다. 온 땅에서 육에 속한 자 중에 내 축복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내 저주뿐이다. 창세 이래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축복하지 않았다. 설령 축복한다 해도 말뿐이었지 사실로 임한 적은 없었다. 사탄에 대한 내 증오가 극에 달해 사탄을 징벌할 뿐, 축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세에 내가 사탄을 철저히 정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면, 나는 충성스러운 봉사자들 모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 나를 찬미하도록 할 것이다. 나의 모든 대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은 확실히 얼마 남지 않았다. 6천 년 경륜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왔다(확실히 눈앞에 다가왔으며, 이는 예표가 아니다. 나의 심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나의 장자들을

데리고 곧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마 어떤 자들은 장자만을 위한 것이면 왜 6천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야 했고 또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들었냐고 할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귀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물며 나의 장자들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는 만유를 움직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할 것이다. 또한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온 우주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고, 모든 자가 우리를 위해 힘을 쓰며,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짐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나에게서는 시간관념이 없다. 비록 내가 나의 경륜과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6천 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해방된다. 6천 년이 안 됐다 해도 내가 보기엔 때가 된 것일 수 있다. 누가 감히 반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내 사역은 내가 알아서 행하고, 내 시간은 내가 안배한다. 어떤 사람, 일, 사물도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것이 나의 뜻에 따르게 할 것이다. 나에게서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늘 사람의 관념으로 나를 가늠하려 하지 말라! 내가 장자들은 나와 함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불복할쏘냐?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즉시 멸하리라! 어디 불복해 보아라! 거역해 보아라! 나는 온 인류에게 일말의 긍휼도 베풀지 않는다. 나의 증오는 이미 조금도 관용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에게서는 온 우주 세계를 즉각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대업을 이루는 것이며, 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이고, 나의 마음속 한을 푸는 것이다. 지금 나는 나의 장자들을 증거하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일단 한쪽으로 제쳐 두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먼저 중요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일을 하는 게 내 사역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니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늘날,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으므로 나 또한 안식을 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장자들에게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을 시킬 것이다. 나의 장자들이 바로 나 자신이며, 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니 관념으로 가늠하지 말라. 우리는 본디 하나이므로 장자들을 본 것이 곧 나를 본 것이니라. 누군가 우리를 분리시킨다면 이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 절대 용서치 않겠다. 나의 말 속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나타낼 수 있지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정한 것이므로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 나의 말은 풍부하고 완전하며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하니, 사람은 모두 나의 말에 집중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이다. 한 글자, 한 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사람의 깨달음에 치우침이 생겨 내 말을 곡해할 것이다. 나의 성품은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곧 내가

증거한 장자들이 어떤 사람의 대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장자들은 내 성품의 각 면을 대표한다. 그렇기에 거룩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바로 내가 장자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거룩한 나팔, 즉 나의 성품이 차츰 사람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장자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내 성품이 보여질 때이다. 이것을 누가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열어 준 비밀 가운데 여전히 사람이 풀 수 없는 비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너희는 이 말의 진정한 함의를 곰곰이 되새겨 보았느냐? 나의 성품이 너희들의 생각처럼 인간의 성격 같겠느냐? 그렇다면 크게 틀렸다! 오늘날, 나의 장자들을 보게 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며, 나의 성품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다. 나의 장자들은 나의 전부를 대표하며, 확실히 나의 본체이다. 그러니 누구도 의심하지 말라! 순종하는 자는 은총을 입을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정한 것이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제120편

시온아! 환호하라! 시온아! 노래하라! 내가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만민들아! 어서 질서 있게 정렬하라! 만물아! 모두 멈추어라. 나의 본체가 전 우주를 향하고, 나의 본체가 세상의 동방에 나타났기 때문이라! 누가 옆드려 경배하지 않겠느냐? 누가 참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겠느냐? 누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앙망하지 않겠느냐? 누가 찬미하지 않겠느냐? 누가 환호하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나의 나라에는 필히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산천 만물이 환호를 그치지 않고, 기쁨의 춤을 멈추지 않는구나. 이 순간, 그 누구도 감히 물러가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감히 일어나 대적하지 못하니 이는 나의 기묘한 행사이자 큰 능력이다! 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찬미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 6천 년 경륜의 최종 목적이자 내가 정해 놓은 일이니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일도 감히 일어나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모두 나의 산(내가 이후에 창조할 세계를 가리킴)으로 모여들 것이고, 반드시 내 앞에 엎드릴 것이다. 나는 위엄과 심판, 그리고 권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몸으로 있을 때를 가리킨다. 육신에도 권병이 있지만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기에 완전히 영광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육신으로 장자들을 얻었지만 영광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온에 돌아가 형상이 바뀌어야만 권병을 지니게 되었다고, 즉 영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다. 모든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파멸되고, 또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세워지고 이뤄진다. 이것이 바로 나의 큰 능력이자

권병이다. 나에게는 능력과 권병이 넘쳐 나기에 그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을 이겼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장자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장자들을 보고 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장자들을 얻는 목적이며, 또한 창세 때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는 날이 바로 내가 시온에 돌아가는 날이다. 그날은 분명 만민이 기념할 것이다. 내가 시온에 돌아갈 때, 땅의 만물이 침묵하고 땅의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며, 내가 시온에 돌아가고 나면 모든 것 또한 원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그때 나는 시온에서 하는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며, 나의 공의를 시행하고 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말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사물로 하여금 형벌을 내리는 내 손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 나의 완전함을 보게 하리니, 아무도 감히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존귀를 보게 하고, 나의 온전한 승리를 직접 보게 할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의 큰 능력과 권병을 볼 수 있다. 감히 범할 자가 아무도 없고, 감히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거늘 누가 감히 덮어 가리겠느냐? 그런 자는 내가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나는 천박한 자들을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할 것이고, 그러한 인간 말종을 반드시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자를 철장(鐵杖)으로 다스리고, 나의 권병으로 인정사정없이 심판할 것이다. 나는 인간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위엄 있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두가 이 점을 인식하고 깨달아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죽임을 당하거나 파멸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나의 채찍은 나를 거스르는 모든 이를 친다. 그자가 나의 행정 법령을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나의 본체는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사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자는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지금에 와서 나를 공홀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원래 양이 아니라 사자이니 누구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나를 거스른다면 사정 봐주는 일 없이 당장 죽일 것이다! 여기에서 내 성품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물러갈 것이다. 사람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지만, 나는 오히려 흥가분하고 유쾌하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인류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는 반드시 남을 짓이고, 나를 적대시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정해 놓은 일이니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뜻을 정한 일은 내가 이미 이룬 일이다. 여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형벌에 처할 것이다. 시온에는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 또한, 시온에는 세상의 냄새가 없다. 세상과 비교하면 그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과 같지만, 지금껏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기에 사람의 상상 속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시온에서의 삶은 땅에서의 삶과 다르다. 땅에서의 삶은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온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곳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이 기쁨에 싸여 있는 삶으로, 시시각각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지만, 또 시시각각 함께하는 삶이다.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나는 너희에게 시온이 있는 곳에 대해 알려 주겠다. 시온은 나의 거처이자, 나의 본체가 머무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온은 거룩한 곳이며, 땅과 떨어진 곳이다. 이 때문에 나는 땅의 사람과 일, 사물을 증오하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육적인 행위를 혐오한다고 말한 것이다. 땅에서 아무리 잘 누려 봤자 시온에서의 삶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땅에 사람이 풀지 못한 수많은 수수께끼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람이 시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온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상상하는 외계 행성에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저 사람이 머리로 상상해 낸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 내가 셋째 하늘을 언급했을 때, 사람은 관념적으로 그것에는 예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사람이 관념으로 깨닫는 것은 전부 나의 것과는 반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거짓이 전혀 없는 사실이다. 내가 일월성신을 멸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나의 처소를 멸할 리 있겠느냐? 내가 시온산을 없앨 리 있겠느냐? 그것은 웃음거리가 될 일이 아니겠느냐? 셋째 하늘은 본디 나의 처소이자 시온산이다. 이것은 절대적이다(어째서 절대적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그저 들을 수만 있을 뿐,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유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온에 관한 일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옛날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간 후에도 땅에서는 찬미의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은 나를 위해 힘쓰고자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기능은 이미 끝났으니, 그들은 내가 땅에 있던 날들을 그리워하기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화를 입어야 할 자들에게 재앙을 쏟기 시작하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이다. 나는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줄 뿐, 결코 징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악행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누림을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공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시온에 돌아간 후에 세계 각국으로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내 다음 단계 사역이다. 그때의 사역은 지금과 다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를 초월해서 하는 사역이고, 말한 이상 반드시 이뤄지며 세워지라 하면 반드시 세워진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바로 사실로 이뤄지니, 이것이 바로 말씀과 사실이 병행한다는 참뜻이다. 나의 말 자체가 바로 권병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땅의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안배가 있을 것이니,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전부 막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사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과 사람의 사유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나는 일찍이 “말세에 짐승이 나와서 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끌려갈 것이며, 나를 본 자들은 짐승에게 죽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짐승’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가 시온으로 돌아갈 때 많은 봉사자들이 물려갈 것이다. 즉, 짐승에게 노략당한다는 말이다. 그런 자들은 모두 무저갱으로 돌아가 영원히 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본 자들’이란 나에게 정복된 후의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을 의미한다. ‘나를 본 자’란 나에게 정복된 후의 사람을 가리킨다. ‘짐승에게 죽임 당한다’는 말은 나에게 정복된 사탄이 감히 일어나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 봉사자들에게 감히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나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음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은 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셋째 하늘에 올라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의 관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악한 종들은 또다시 사탄에게 속박되어 무저갱에 처박힐 것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내 징벌이고, 그들이 자초한 인과응보이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다.

내 사역의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내가 땅에 머무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내가 시온으로 돌아갈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땅의 사역을 완성했으니 나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땅에서의 삶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나의 경영과 계획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때가 되었으니 나는 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상관치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땅의 모든 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장자들을 얻고 사탄을 물리치려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시온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인류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인간 세상을 혐오하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 심지어 단번에 모든 인류를 멸하고 싶을 정도지만, 나의 일에는 단계와 순서, 그리고 분별과 절제가 있으므로 되는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나의 장자들과 하루빨리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제 2 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

(1992년 2월 20일~1992년 6월 1일)

내용 소개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선포한 제2부 말씀이다. 1992년 2월 20일부터 1992년 6월 1일까지 총 47편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 부분은 말씀하는 방식이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까지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사람의 표면적 행위에 대한 폭로와 단순한 영 생활에 대한 인도로 이뤄져 있으며, 마지막에는 ‘봉사자의 시련’으로 끝을 맺는다. 반면, 이 부분의 말씀은 사람이 봉사자의 신분을 종료하고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사람을 하나님 사역의 두 번째 절정으로 이끌고 있다. 그 과정에 불 못의 시련, 죽음의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등장하며, 이 몇 개의 절차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추태와 진면목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과 헤어지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로써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첫 번째 무리들을 정복하는 모든 절차를 끝마친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의 위치에서 선포한 것으로, 이는 피조물인 인류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이다. 말씀에 사용된 어휘와 풍격은 더욱 우아하고 감동적이어서 인류의 어떤 문학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 사람을 드러내는 그의 말씀은 정확하여 어떤 철학적이론으로도 반박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을 굴복시킨다. 사람을 심판하는 그의 말씀은 날 선 검처럼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찌르고, 심지어 피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사람을 위로하는 그의 말씀은 긍휼과 자비를 담고 있어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며, 사람이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평안을 선사한다. 이 부분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와 신분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혹은 말세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그의 고유한 신분으로 그를 따르거나 아직 따르고 있지 않는 모든 인류를 향해 알리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 처음으로 전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자, 처음으로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피조물인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다. 물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편으로 전 인류를 향해 말씀하는 것 역시 전례 없던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선포한, 사람을 폭로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사람과 마음을 나눈 첫 번째 저작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취와 거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류에 대한 염려를 담은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이 창세 이래 처음으로 셋째 하늘에 서서 인류를 향해 한 말씀이며, 또 처음으로 그의 고유한 신분으로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나타나 선포한 마음의 소리이다.

이 부분의 말씀은 심오하고 측량하기 어려워 읽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근원과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각각의 말씀 뒤에 해석을 달아 놓았다. 즉,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각 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두 부분을 결합해 읽으면 누구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추가 부분으로, 이 부분은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한 그리스도의 해석이다. 이 두 부분의 결합이 바로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다. 추가 부분은 하나님이 제삼자의 위치에서 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말씀한 것의 근원과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방식이 다양해도 그가 역사하는 목표나 계획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은 사람과 헤어지는 내용으로 끝나지만, 사실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정복·구원 사역과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은 이제 막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세 사역의 ‘예언’ 부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왜냐하면 성육신한 인자가 이 말씀을 한 후부터 비로소 정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사역하고 말씀하기 시작했으며, 교회들을 다니며 생명을 공급하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목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대한 분량의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제1편

나의 말을 본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나의 말을 받아들였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정말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느냐? 진심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를 위해 큰 붉은 용 앞에서 강하고 힘 있게 증거하였느냐? 너희의 충성심은 정말 큰 붉은 용을 부끄럽게 할 정도가 되느냐? 내 말의 시련이라야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내 말에서 나의 위엄과 진노, 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일을 시작하고, 반드시 완성한다. 사람의 폐부를 감찰하는 것도 나다. 솔직히 말해서, 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말로 모든 이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는 말로 내 모든 사역을 완성하여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내 나라에 복속시키고, 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다. 나의 사역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만큼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을 보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나라에 있으니 내 나라의 백성이다. 내 말의 인도를 받았기에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아들’이란 호칭과 다를 것이 없다. 내 나라의 백성이 된 이상 모든 사람이 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고,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의 행정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모두 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충고이다.

오늘날은 새로운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 예전의 일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는 “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예전에 한 말이든, 앞으로 하게 될 말이든,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원칙이다. 교회 건축 사역이 완성되었으므로 지금은 교회 건축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성공적으로 건축될 때이다. 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땅에 있으므로 땅에 있는 사람의 모임은 계속해서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잘 세워진 교회인 만큼 그 본질은 예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나라가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말의 근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목적을 알지 못했을 것이나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는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대성통곡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방식일까 봐 염려할 것이다. 낡은 관점을 고수하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나를 원망하거나 대적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떠나지 않았거니와 오늘날 소생하게 되었다며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의 말에 ‘들볶여’ 모진 고통을 겪느라 맥을 못 추고, 내가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도 나의 말을 거들떠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원망의 말을 퍼붓거나 의구심을 가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날 해방받는 행운을 얻어 나에게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위의 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늘날에 이른 이상 더는 과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미래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 현실을 거슬러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을뿐더러 괴로움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 중에 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땅에서 세운 나의 언약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무엇도 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한순간도 나의 일을 행하지 않거나 나의 경영을 계획하지 않은 적이 없다. 사람 중에 참견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내가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경지에 들어선 것도 나의 계획과 예상대로 된 것이다. 이는 내가 일찍이 예정해 놓은 것이다. 너희 중에 이 단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의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992년 2월 20일

제2편

새로운 방식에 들어가니 새로운 사역의 단계가 펼쳐진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신성으로 직접 일하고, 단계별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며, 사람의 생각은 전혀 섞여 있지 않다. 다음은 실제 실행의 길에 관한 것이다. 모두가 고난과 연단 끝에 ‘백성’이란 호칭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엄격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사역 방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말씀’도 중요하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나라 백성의 요구 기준에 맞는 언행이 있어야 하며, 이를 거스를 경우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다만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은 제외한다. 하나님나라 건축에서 나의 말을 먹고 마시며, 나의 지혜를 깨닫고, 나의 사역을 통해 확증을 얻으라. 나는 나의 말 이외의 다른 책을 중시하는 자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음녀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사도라면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쓰지 않고 버릴 것이다.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무르며 생명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사도는 최소한 두 차례에 한 번 꼴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므로 주기적으로 사역자 예배(사역자 예배는 모든 사도가 참석하는 예배, 모든 교회 리더의 예배, 확실한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의 예배를 포함함)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너희 중 적어도 일부는 매번 참석해야 하며, 사도는 교회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전에 말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나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전에 죄를 저지른 모든 이에 대해 나에 대한 충성심을 감안하여 검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증거한 후에 또다시 죄를 지었으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교회에 남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음성을 발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경우, 나의 영은 즉시 떠날 것이다. 교회는 나의 심판을 집행하여 그를 교회에서 내보낼 권리가 있다. 이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심판이다. 시련 속에서 쓰러진 자, 즉 물러간 자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는 나를 시험하고 사탄이 날뛰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그에 대한 심판이다. 만약 불의를 저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물러간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백성에서 제외될 것이다. 사도의 또다른 역할은 복음 전파를 중시하는 것이다. 물론 성도 역시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말썽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상, 지금 실행해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가지 더 일깨우고 싶은 것이 있다. 모든 이가 내 말의 실체에 진입하고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설교할 때 깊이를 중시해야 한다. 모든 이에게 나의 말을 분명하고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백성이 배반할 마음을 품는다면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제명하여 나의 집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992년 2월 21일

제3편

너희가 백성이라고 불리는 만큼 과거와는 다르다. 너희는 나의 영이 발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 나의 사역을 바짝 따라와야 하며, 나의 영과 육신을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영과 육신은 본래 하나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만 중시하거나 영만 중시하면서 영과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손해를 볼 것이며 자신이 빚은 쓴잔을 자신이 마실 수밖에 없다. 영과 사람을 불가분의 하나로 보아야 나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내재된 생명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나의 다음 단계 사역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의 연단을 통해 내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시험한다. 또한, 사역 방식을 통해 나를 따르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망감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 전체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망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내 말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갓난아이를 잃고 애달파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며 탄식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이렇게 사는 것은 치욕적이라며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전에 중병에 걸린 것처럼 하루 종일 녀이 나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원망의 말을 쏟아낸 후 조용히 떠난 사람도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 나를 찬미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오늘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 나는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허락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 따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나의 모습으로 살면서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말한다. 너희 역시 매 순간 내 앞에서 자신을 알아 가야 한다. 오늘날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만 자신을 이길 수 있다. 나의 말을 중심축으로 삼아야지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회는 나의 말에서 실질적인 실행 길을 찾을 수 있다.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영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자이므로 나는 그를 멀해 버릴 것이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아량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사람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고, 나를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는 내가 손바닥 보듯 훤히 알지 않겠느냐? 나의 손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렴 네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전혀 모를 것 같으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이가 가장 크게 실망할 때, 기다림에 지쳐 다른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 묻고자 할 때, 또는 일부 사람들이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일어나 반기를 들고자 할 때,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할 때, 나는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인 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심판하는 것을 새로 시작하였다. 즉, 내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훈련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훌륭하게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싸워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의 백성은 시시각각 사탄의 간계에 대비하고, 나를 위해 내 집의 문을 지켜야 하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고 공급해야 한다. 함정에 빠지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내가 왜 너희의 훈련에 속도를 내겠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영계의 실상을 알려 주겠느냐? 내가 거듭 너희를 일깨우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깊이 생각하여 밝히 알게 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를 밑거름 삼아 더 원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씀의 인도하에서 내면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너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필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주렁주렁 달린, 그것도 변질되지 않는 열매이다. 내 말의 참뜻을 알겠느냐? 온실 속의 꽃은 무수한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고, 모든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지고 난 후에는 사탄의 간계처럼 너저분해져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풍파를 겪고 나를 증거한 모든 이는 그 꽃이 아름답지 않아도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는 내가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 내가 모든 열매를 향유하게 될 때, 나는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내 지혜의 결정체를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1992년 2월 22일

제4편

내 앞에서 나를 섬기는 백성들은 모두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았느냐? 나를 향한 충성심이 순수했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참되었느냐? 너의 마음에 나의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완전하였느냐? 내 말이 너희에게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나를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오늘날 내가 구원의 음성을 발할 때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조금 더 커졌느냐?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은 더 순결해졌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느냐? 과거의 찬미가 오늘날 너희의 인식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느냐?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나의 음성이 너희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느냐? 너희는 정말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느냐?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나의 이런 질문을 듣고도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네가 한몫 챙길 기회만 엿보고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예정한 시간에 도태되어 두 번째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경고의 말이다. 이것을 흘려듣는 자는 누구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또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분명히 짚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내 말을 거역하여 회복의 흐름에서 버림받고 도태되었다. 결국 육체가 사라지고, 영체는 음부에 떨어져 지금까지도 증벌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나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어겼다. 그래서 나의 발길에 차인 뒤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져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오늘날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는 모두 내 말의 외면에만 순종할 뿐 내 말의 본질은 거역하고 있다.). 또 많은 자들이 내가 과거에 했던 말만 듣고 늘 과거의 ‘폐물’을 끌어안고 지키면서 현재의 ‘토산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천고의 죄인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들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며, 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상태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부패되고 마비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체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나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먼

상태'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실례를 하나 들 테니 참고하여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바울을 언급하면 너희는 그의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그에 관한 부정확하고 실제에 맞지 않는 일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고 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의 예정으로 내가 갖추게 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는 열아홉 살부터 생명에 관한 여러 서적들을 읽고 연구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 없이 바울은 그의 자질로 인해, 그리고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인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나의 뜻을 찾을 줄도 알았다. 물론 이것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하지만 옥에 티라면, 그는 타고난 재능 때문에 늘 큰소리쳤다는 점이다. 그의 패역으로 인해 어떤 것은 직접 천사장을 대변했다. 그러므로 내가 처음 성육신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대적했다. 그는 나의 말을 알지 못한 자로, 그의 마음속에서 나의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그런 까닭에 직접 나의 신성에 대적하여 내게 맞고 결국 엎드려 죄를 자백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장점을 이용한 뒤, 즉 그가 나를 위해 한동안 사역한 후 그의 고질병이 또 재발했다. 비록 그가 나의 말을 직접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내적인 인도와 깨우침은 거역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한 영광의 면류관은 공허한 말이 되고 혼자만의 상상이 되었다. 그가 지금도 나에게 결박당한 채 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누구든 나(육신을 입은 나쁜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영, 즉 나의 신성임)를 대적하는 자는 육체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나의 영이 너를 떠날 때 너는 일락천장하여 곤장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비록 육체는 땅에 있지만, 정신병자처럼 이성을 잃게 되어 즉시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심지어 육체를 당장 없애 달라고 내게 애원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너희처럼 영이 있는 많은 사람이 깊이 체험했을 것이므로 내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에 내가 정상 인성으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나의 진노와 위엄과 '겨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신성으로 직접 말하고 일해도 여전히 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보게 될 사람들이 일부 있다. 게다가 심판 시대에 하는 두 번째 주된 사역은 모든 백성이 내가 육신으로 하는 행사를 직접 알게 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이 나의 성품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있는 까닭에 나 역시 너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나는 너희가 자신의 영, 혼, 육을 장난감으로 삼아 함부로 사탄에게 '바치지' 않길 바라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린애 장난처럼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이런 것들이 너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로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진실한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너희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나에 대한 인식과 내 말을 누리고 나를 아는 것을 너희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삼고 싶으냐? 진정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양처럼 여겨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끌고 다니도록 맡길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나에게 열납되고 내 약속을 받은 자라고 다 복을 받은 자이겠느냐? 나의 이 말에서 너희는 뭔가를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시련을 준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지배를 따르고,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말이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반대로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모든 면에서 실제에 깊이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네가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내게 맡겨 쓰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나? 누가 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더는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입하여 내 말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고 세운 뜻과 같이, 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나의 집에서 굳게 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내가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위해 자신의 가장 훌륭한 것을 바쳐야 한다. 너는 진정으로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1992년 2월 23일

제5편

내 영이 발한 음성이 곧 내 모든 성품의 발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에 대해 모르거나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는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는지를 너희는 정말 알고 있느냐? 내 앞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정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내 백성이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사리는 더더욱 분별할 줄 모른다! 이런 자는 언젠가 내 집에서 도태될 것이다! 고참티를 내며 자신이 ‘나를 굳게 증거했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더냐? 속셈과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너는 벌써 ‘다른 길을 찾아 떠났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오늘날 모든 것은 ‘실행의 실제’에 진입할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이전처럼 입만 놀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집에서 밥술이나 얻어먹었으며, 오늘날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내 말이 엄격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목적도 없이 함부로 말한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또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땅에서 나의 구원을 베풀었다. 나는 은밀한 곳에서 모든 사람의 언행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을 때가 없으므로 사람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은밀한 곳은 나의 처소이고, 온 궁창은 나의 침상이다. 나는 위엄과 공의와 심판으로 무장하였기에 사탄의 세력은 내게 미치지 못한다. 내 말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너희는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또 막 놀란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너희의 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은밀한 곳을 나의 처소라고 하겠느냐? 너는 내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아느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나를 알겠느냐? 어느 누가 나를 자기 부모 알듯 알겠느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안식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하나같이 바빴다. 저마다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세상을 누비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남은 힘을 바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니와 이들은 숨 쉴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전에 사람을 만들었고, 또 환난에 빠진 자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었지만, 사람이란 자들은 모두 배은망덕했고, 그 누구도 나의 완전한 구원을 헤아리지 못했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세월과 세기(世紀)를 거쳐 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나타냈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정신병자와 같이 우둔하고 무감각해졌으며, 어떤 때는 심지어 숲속의 짐승처럼 마구 소란을 피워 대며 나의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을죄로 정했다. 그러나 나의 경륜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옛것들을 내 손안에서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사역 절차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너희를 또 한 번 구원했다.

내가 계획한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이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고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와 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상,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겠다. 즉, 나의 이 시기의 헌법을 너희에게 반포하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는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즉, 시련 속에서 굳게 서야 한다. 나를 기만하고 내게 숨기면서 내 뒤에서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는 일률적으로 출교시켜 나의 집과 격리시키고, 나의 처분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이전에 나에게 충성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은 자와 오늘날 또 나서서 공개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자 역시 나의 집 밖으로 출교시킬 것이다. 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항상 나의 부담을 생각하고 내 말을 깨닫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의 깨우침과 인도하에 살게 되고, 형벌 또한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만 중시하는 자들, 즉 모든 행위가 내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밥 빌어먹기’ 위함인 ‘비렁뱅이’ 같은 부류들은 내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그자들은 천성적으로 나의 부담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성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그자들의 머리는 ‘영양’ 실조에 걸렸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보양’해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은 저마다 반드시 나에게 대해 알아 가는 것을 자기 본연의 사역으로 여겨 끝까지 해 나가야 하고, 먹고 입고 자듯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는 나에게 대한 인식이 밥 먹듯이 ‘익숙’하고, 식은 죽 먹듯이 전혀 힘들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내가 한 말은 한 마디 한 마디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이해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다. 나의 말을 먹지도 않고, 인식하려 노력하지도 않는 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니 직접 내 집 문밖으로 쫓그리 내칠 것이다. 전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알짜이기 때문이다. 백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내 말에서 나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나머지 사람들을 도태시킬지라도 그 한 명만을 집중적으로 깨우쳐 주고 빛을 비취 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나타내고 살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밀(날알이 꼭 차지 않았을지라도)을 원하지 가라지(날알이 꼭 차고 사람들이 흠족해할지라도)는 원하지 않는다.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하기만 한 그런 자는 내 이름을 계속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자발적으로 떠나야 한다. 나는 그런 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백성에 대한 요구는 잠시 이 몇 가지만 말하겠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다시 제재할 것이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 자신이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뜬구름 잡는 말일 뿐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안다면 감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나의 말에서 계속 나를 알아 갈 것이다. 어느 수준에 이르러 참으로 나의 행사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나를 지혜요 혹은 기묘자라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나에게 대한 너희의 인식은 너무나 얕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를 섬기면서 나의 행사를 보고 나에게 대해 확실히 적지 않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종일관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고, 대적하려는 마음은 감히 조금도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자취를 찾는 일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인도가 없으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랜 세월 체험을 하고 나서야 나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종합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지혜이고 기묘자이며 모사라 하였고, 나의 말이 좌우에 날 선 점 같다 하였으며, 나의 행사가 크고 놀랍고 기이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위엄을 두르고 있고, 나의 지혜가 궁창보다 높다는 등등의 깨달음을 말하였다. 오늘날 너희는 그들이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한다. 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얕은 인식과 ‘낮은 학력’을 감안해서 너희에 대한 형벌을 어느 정도 면해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이 행한 것이 이미 나의 뜻에 합당하므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내가 성육신한 후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전혀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므로 형벌도 받지 않았다고 여긴다. 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을 여가 시간에 하는 일로 삼을 뿐,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으로 마음속에 담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간을 소모하든지 아니면 할 일 없이 빈둥댄다. 너희의 자격과 경험은 물론, 이성과 식견도 부족하다는 점을 봐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나의 형벌 속에서 멸망되거나 파멸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땅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계속 관용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이 점을 다소라도 알고 있어야 하며, 더 이상 계속 사리 분별을 못 해서는 안 된다.

1992년 2월 25일

제6편

영 안의 일에 세심해야 하고, 내 말을 중시해야 하며, 진정으로 나의 영과 사람, 그리고 나의 말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만유 위에 서서 온 우주의 모습을 살핀 적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니며 인간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다닐 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창세 이래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것이고, 역대로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육신을 입은 나를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경영 절차이지만, 사람은 오히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정신이 흐린 탓에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설마 이것이 사람의 비천한 면이 아니란 말이나?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 보완해 주려는 부분이 아니냐? 오랜 세월, 나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오랜 세월, 성육신한 나를 직접 접한 자일지라도, 내가 신성으로 직접 발한 음성을 들은 적은 없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대로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너희에게 측량하기 어려운 수많은 기묘한 사역을 행했고 적지 않은 말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서 직접 나를 대적한다. 너에게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 주겠다.

날마다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뜻과 생명의 느낌을 찾고 있지만, 내 말이 임하면 태도가 변한다. 나의 말과 영을 온전한 하나로 여기면서도 사람을 오히려 ‘끌어차 버리고’, 그런 말은 내 영이 지배하여 한 것이지 나란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의 말은 어느 정도 믿지만, 내가 입은 육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연구하며 “왜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그럴 리 없어! 내가 보기에 그분은 나와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너희 중에 앞에서 말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점유되지 않은 자가 누구냐? 너는 그것을 자신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차지하고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관적으로 노력하려 하지 않고, 내가 친히 나서서 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구하지 않고도 쉽게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은 내가 너희를 훈계하려고 하는 허황된 말이 아니다. 네가 또 다른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얘기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가 하나님을 세 번 부인한 일, 사탄을 위해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일,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일 등을 떠올린다. 지금 나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에 중점을 두어 너희에게 얘기하겠다. 베드로는 좋은 자질을 갖췄지만, 바울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의 부모는 나를 핍박했고, 사탄에게 점령된 악마에 속했다. 그렇기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전도했다고는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총명하고 타고난 자질이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원수’가 되었다. 이는 베드로가 끊임없이 나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로 인해 부모와 등지게 되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먼저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고, 또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은 사탄의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자 직접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를 찾으려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내 말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시했고, 더욱이 내 뜻을 찾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신중했기에 영은 언제나 민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의 사슬에 매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소에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자신을 다그치는 것을 중시했다. 그는 또한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것을 중시했다. 그런 까닭에 부정적인 면을 통해, 더 중요하게는 긍정적인 면을 통해 더 빨리 성장하였으며, 나아가 내 앞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의식주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나를 만족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 풍요로움을 누렸음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었는지 모른다. 물론 베드로 또한 그 시련 속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베드로는 수백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을 잃거나 나에 대해 실망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실행 원칙에 따라 실제로 나를 사랑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그가 나를 사랑할지라도 칭찬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를 사탄의 손에 내버릴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육신에 실제로 임하지는 않는 이러한 말씀의 시련 속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에게 기도했다. ‘하나님, 천지 만물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일이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겠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제 마음은 당신의 긍휼로 매우 기쁘나이다. 당신이 저를 심판하실 때,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행사가 얼마나 심오한지 더욱 느끼나이다. 이는 당신께 권병과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나이다. 제 육체는 고통받지만, 영은 위로를 받나이다.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와 행사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난 후에 저를 죽게 한다 해도 어찌 기꺼이 원하지 않겠나이까? 전능자시여! 당신은 정말 저에게 보이기 싫어하시나이까? 제가 정말 당신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까? 혹시 저에게 당신이 보고 싶지 않으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나이까?’ 베드로는 그런 시련 속에서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쓰임 받는 것으로(나에게 심판받아 사람들이 나의 위엄과 진노를 볼 수 있을지라도)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고, 시련으로 고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보인 충성심과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본받아야 할 바가 아니냐?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며 베드로의 행적을 얘기하는지 너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는 마땅히 이것을 너희의 행동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안 되지만, 나는 이로 인해 사람에게 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의 관용을 빌미로 자신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마땅히 베드로를 통해 어느 정도 나를 알고 추구해야 하며,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통해 지난날을 뛰어넘는 계시를 얻어 사람들이 도달한 적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온 우주의 궁창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땅의 만물과 하늘의 만물이 모두 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설마 너희는 방관자가 되어 사탄 세력의 부추김을 받기 원한단 말이냐? 사탄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시시각각 집어삼키고 언제나 흥포하게 날뛰며 마지막 발악을 한다. 너희는 이때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마지막 사역이 완성될 때, 자신의 인생을 망치길 원하는 것이냐? 설마 너희는 아직도 내가 다시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행의 중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내가 말로 너희에게 직접 계시했으니, 나는 너희가 나의 인도에 순종하여,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뭔가를 소망하거나 계획하지 않기를 바란다.

1992년 2월 27일

제7편

서쪽의 가지로서 모두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난날, 나에게 충성한 적이 있느냐? 내가 유익한 말로 하는 권고를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의 소망은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냐? 사람의 충성심, 사랑과 믿음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모두 내가 준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나의 뜻을 깨달았느냐? 내 마음을 보았느냐? 비록 지난날 나를 섬기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해 수시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나를 배반할 위험도 있었지만, 내가 늘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늘 음성을 발하여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사탄의 울무에 갇히고, 사람에게 얽매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한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분쟁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몸은 내 집에 있지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너희를 붙들어 준 적이 얼마나 많고, 너희 가운데 긍휼의 씨앗을 뿌린 적이 얼마나 많으며, 고난을 겪고 난 후의 너희의 참상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지만 오늘날 너희는 드디어 나의 보호로 난관에서 벗어났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것은 내 지혜의 결정체이다. 하지만 너희는 명심하거라!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너희라고 굳세었더냐? 어느 누가 굳세기만 하고 연약한 적이 없었더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받은 복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냐? 어느 누가 입은 화가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냐? 설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축복’이란 말이나? 설마 욕이 화를 입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이란 말이나? 설마 바울이 내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확실히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이나? 너희는 나의 증거를 지키지만, 어느 누구의 증거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같을 수 있단 말이나? 사람의 ‘충성심’이 진실할 수 있단 말이나? 나는 너희의 ‘증거’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너희의 ‘충성심’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높게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 계획의 원뜻대로라면, 너희는 모두 ‘불량품’, 즉 불합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뿌려 준 공흙의 씨앗’이 아니더냐? 너희가 본 것은 나의 구원이 맞느냐?

너희는 모두 돌이켜 보아야 한다. 너희가 나의 집에 돌아온 후, 어느 누가 득실을 따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나를 알려고 했더냐? 너희는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은 완전히 숙지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이해했느냐? 그리고도 여전히 너의 ‘자본’을 고수하며 실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음성을 발할 때, 내가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할 때, 너희 중 누가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내려놓고 밝혀 놓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말을 중시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내 말을 ‘기관총’으로 삼아 직접 자신의 ‘원수’에게 겨누기만 할 뿐, 나를 알기 위해 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저마다 창끝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면서, 너희는 그 누구도 ‘이기적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어제가 아니었더냐? 그러나 오늘은 어떠하냐? 너희의 ‘충성심’은 조금 더 늘어났고, 저마다 조금 더 노련해지고 성숙해졌다. 그리하여 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커졌고, 그 누구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는 왜 늘 소극적인 상태에 있느냐? 너희의 적극적인 요소는 왜 늘 찾아볼 수 없느냐? 나의 백성들아! ‘지난날’은 이미 흘러갔으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 어제 굳게 섰으니, 오늘은 나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내일에는 더더욱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앞에 있지 않지만, 나의 영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내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 수 있길 바라며, 그것을 밑천으로

삼지 말고 내 말에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움으로써 적극적인 요소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이것이 내가 남기는 말이다!

1992년 2월 28일

제8편

나의 계시가 절정에 이를 때, 그리고 나의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즉 모든 백성이 드러나고 온전케 될 때, 나는 우주 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나의 뜻에 맞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시시각각 찾는다. 누가 일어나 나와 협력할 수 있느냐?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진실로 너무 작고, 나에 대한 믿음 또한 초라할 정도로 보잘것없다. 내가 직접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세상일을 모두 아는 듯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하며 공리공론을 늘어놓을 것이다. 과거에 내 앞에서 ‘충성’을 다한 자, 오늘날 내 앞에서 ‘굳게 선’ 자, 그들 중 어느 누가 감히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 ‘몰래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폭로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미 몸 둘 바를 몰라 하고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방식을 바꿔 말한다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욱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구제 불능이라고 여길 것이며, 모두가 ‘소극적’에 단단히 결박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본격적으로 울린다. 즉, 사람이 말하는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나라의 생활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즉 내가 신성으로 직접 일할 때(머리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함), 모든 사람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마치 다시 소생한 듯,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하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런 형편에 처했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예전에 나는 교회 건축에 대해 많은 말을 했고 또한 많은 비밀을 밝혔으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끝나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나라 건축은 그와 다르다. 영계의 교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 나는 비로소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즉, 사람이 모두 떠나려고 할 때, 나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또 새로운 사역을 일으킨다. 하나님나라 건축과 교회 건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교회 건축은 신성의 지배를 받는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옛 성품을 다루고, 사람의 추태를 드러내며, 사람의 본질을 폭로해 그 기초에서 자신을 알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탄복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나라 건축은 신성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아는 것을 기초로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끝내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늘의

하나님'의 지위를 끝내는 것이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육신을 통해 나의 행사를 알게 함으로써 내가 땅에 거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건축은 직접 영계를 향한다. 즉, 영계의 교전 상황이 곧바로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모든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다.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직접 영계가 드러나고 영계의 생활을 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 충성하기 시작할 때, 다음 부분 사역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전부 바쳐야 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없던 일로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나의 계획에서 시종일관 내 뒤를 따르고 있다. 사탄은 나의 지혜의 부각물로서 내 원래 계획을 교란하기 위해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간계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 하늘과 땅 가운데의 어느 누가 나를 위해 힘쓰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설마 사탄의 간계라고 예외겠느냐? 이것이 바로 내 지혜의 교점이고, 내 행사의 기묘한 점이며, 나의 전체 경륜의 실행 원칙이다. 하나님나라 건축 시대에도 나는 사탄의 간계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행위를 골라 나의 부각물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냐? 바로 내 사역의 기묘한 점이 아니냐?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갈 때, 하늘 위아래의 만물이 다 크게 변하고 경축하며 환희에 차 있는데, 너희도 그러지 않겠느냐? 누구의 마음인들 꿀처럼 달지 않겠느냐? 누구의 마음인들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누구의 몸인들 흥겨워 춤추지 않겠느냐? 누구의 입인들 찬미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서 내 말의 목적과 근원을 알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저것 끝없이 이야기한다고 여겨 그 근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심하게 묵상해 보면 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아라. 어느 말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냐? 어느 말이 네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또 어느 말이 영계의 실제 상황을 소개한 것이 아니더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이 밑도 끝도 없으며, 설명도 해석도 부족하다고 여긴다. 설마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말이 그렇게 추상적이더냐? 너희는 나의 말에 진심으로 순종하였느냐?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느냐? 나의 말을 장난감으로 여기지는 않았느냐? 나의 말을 자신의 옷으로 삼아 너의 추태를 가리지는 않았느냐? 이 아득한 세상에서 어느 누가 직접 나의 검열을 받아들였느냐? 어느 누가 직접 내 영의 말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모색하며 찾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난 속에서 간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양망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묶여 있느냐? 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 곳을 몰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 속에서 나를

배반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은망덕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간계 때문에 충성하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옴이냐? 누가 베드로냐? 내가 왜 여러 번 옴을 언급하고 베드로를 언급했겠느냐? 너희에 대한 나의 희망을 너희는 느낀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오랜 세월 충성을 다하면서도 입에 불평을 담은 적이 없었고, 원망의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다. 옴도 그에게 미치지 못했고, 역대의 성도들 또한 베드로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베드로는 나를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간계를 부릴 때에도 나를 알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의 오랜 섬김이 다 나의 뜻에 부합하였고, 그로 인해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옴의 믿음을 본받았으나 옴의 단점도 파악하였다. 옴은 믿음이 컸지만, 영계의 일에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다. 이는 그의 인식이 얕아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언제나 영적인 느낌을 찾는 것과 영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간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역대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나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너에게 나를 위해 걸으라 할마를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모두 부차적인 일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면, 네가 말하는 믿음과 사랑, 충성심은 전부 환상이고 물거품이다. 너는 분명 내 앞에서 큰소리치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침륜의 자식이 될 것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에 냉담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네가 영계의 문을 통해 그 안에서 나의 형벌을 받는 각양각색의 영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누가 나의 말에 냉담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으며, 또 나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았더냐? 어느 누가 나의 말을 자신의 ‘호신용 무기’로 삼아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았더냐? 그들은 나의 말에서 나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말을 ‘이용’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을 뿐이다.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한 것이 아니더냐? 내 말은 누구냐? 내 영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런데 너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더냐? 진실한 체험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겠다.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1992년 2월 29일

제9편

내 집의 백성이 된 이상, 또 내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이상, 모든 행위는 반드시 내가 요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너에게 떠다니는 구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하얀 눈이 되라는 것인데, 본질은 물론 가치도 있어야 한다. 나는 본래 거룩한 곳에서 왔으므로 이름만 있고 본질이 없는 연꽃과는 전혀 다르다. 연꽃은 본래 진흙에서 온 것이지, 거룩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새 땅이 궁창에 펼쳐질 때는 바로 내가 인간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이기도 하다.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있더냐? 내가 강림하는 것을 본 자가 있더냐? 내게는 이름뿐만 아니라 본질도 있음을 깨달은 자가 있더냐? 내가 손으로 구름을 걷어 내고 궁창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주에는 내 손으로 안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주 아래에서는 나의 대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미약한 힘’을 바치고 있다.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는 크지 않다. 그것은 내가 본래 실제 하나님이며, 사람을 만들고 주관도 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사람 중에 그 누가 전능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늘 끝이나 바다 끝에 있다고 한들 어찌 내 영의 감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의 영을 ‘알기도’ 하지만 거스르기도 한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의 추악한 몰골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짚어 냄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빛에 드러나게 했고, 나의 감찰 속에서 쓰러지게 했다. 사람은 쓰러졌지만 그 마음은 감히 내게서 멀리 떠날 수 없었다. 피조물 중에 그 누가 나의 행사로 인해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말로 인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움의 정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내가 요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요구한 ‘최저 기준’에 이르는 것조차 ‘걱정’하는데, 하물며 사탄이 극도로 미쳐 날뛰고 기고만장한 시대인 오늘날은 어떻겠느냐? 혹은 사람이 이미 그것에게 ‘짓밟혀’ 온몸이 더러워진 때는 어떻겠느냐? 사람이 타락하여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슬퍼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설마 내가 사탄을 불쌍히 여기겠느냐? 설마 내가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겠느냐? 사람이 나를 거역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몰래 눈물을 흘렸고,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나는 형벌을 주었다. 또한 사람이 내게 구원받아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나는 정성 들여 양육했고, 사람이 내게 순종할 때 내 마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는데, 순식간에 천지 만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사람이 나를 찬미할 때 내가 어찌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나를 증거하고 나에 의해 얻어질 때, 내가 어찌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지배하고 공급하지 않더냐? 내가 지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모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저마다 ‘나를 등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이 한 일과 행동, 그리고 말을 육신을 입은 내가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랜 세월 나는 갖은 고초를 겪었으며, 인간 세상의 고통도 겪어 보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고난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도록 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 어떤 즐거움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 냉대하거나 믿음을 잃게 할 수도, 나를 저버리게 할 수도 없었다. 설마 나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고난도 즐거움도 없는 것에 제한되어 있겠느냐?

오늘날 나는 육신에 평안히 거하며 본격적으로 내가 하려는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은 내 영이 발한 음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내 영의 본질은 거역한다. 사람이 내 말을 통해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은 내가 밝히 말할 필요도 없다. 말했듯이 나의 요구는 전혀 크지 않다. 너희는 나를 완전히 알 필요가 없다(사람의 부족함은 선천적인 데다가 후천적으로 보완될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육신에 거하는 ‘나’의 모든 행사와 말만 알면 된다. 나의 요구가 크지 않으니 너희 모두가 이를 알고,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벗어 버리고 뒤떨어진 ‘제왕가(帝王家)’에서 발전을 추구해야지,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조금도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하루 동안 한 말과 발한 음성도 네가 알려면 공을 들여야 하고, 심지어는 내가 했던 어떤 말 한 마디도 네가 알려면 평생에 걸쳐 체험해야 한다. 내가 한 말은 막연하지도, 헛되지도 않다.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얻기를 바라지만 나는 거들떠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내가 기름진 것을 베풀기를 갈망하지만 나는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시종일관 숨고, 많은 사람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나는 눈을 감고 멀리 바라보며, 그가 ‘사모’한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 음성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내 말은 줄곧 그를 향해 ‘진격’하고, 많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나는 일부러 나타나 그들을 친다. 사람은 진정으로 내 얼굴을 본 적도, 진정으로 내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칠지라도, 그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내 손안에서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행위가 진정 내 마음에 맞는지 모르고,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나타내는지도 모른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진정으로 나를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진정으로 나를 본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내가 오늘날 성육신했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육신에서 나타내는 나의 행사와 나의 성품을 너는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하늘 위에는 내가 누울 곳이 있고, 하늘 아래에는 내가 안식할 곳이 있다. 나에게는 거할

곳이 있고,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 내가 땅에 있지 않았다면, 육신에 은밀히 거하지 않았다면, 또한 내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지 않았다면, 천지가 벌써 바뀌지 않았겠느냐? 나의 백성이 되는 자는 내가 진작 ‘가져다 쓰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나는 지혜롭게 일한다. 나는 사람의 간사함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교환물’을 준다. 나의 지혜는 영계는 물론, 육신에서도 무궁무진하다. 이때가 바로 나의 행사를 나타낼 시점 아니겠느냐? 나는 오늘날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었다. 그런데도 내가 또 나의 날을 계속 늦춰야 한단 말이나? 내가 ‘나약한’ 자를 좀 더 긍휼히 여겨 주기는 했지만, 내 사역을 완성할 때에도 옛 사역을 하여 스스로 혼란스럽게 할 리 있겠느냐? 설마 내가 일부러 사탄이 참소하게 하겠느냐? 사람은 나에게 뭔가 해 줄 필요 없이 내가 말한 실제 사정과 본래의 의도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다. 그것은 너희가 너무 어리고 너무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육신에서 직접 비밀을 밝히고 내 뜻을 분명히 보여 줄 때, 너희는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음성만 들을 뿐 그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슬프다. 육신에 거하면서도 육신 본연의 사역을 행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 누가 내가 하는 일과 말에서 내 육신의 행사를 알 수 있겠느냐? 비밀을 글로 보여 주거나 말로 나타낸다면, 사람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을 감고 침묵할 것이다’. 사람은 왜 내가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느냐? 사람은 왜 나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사람은 왜 나의 행사를 보지 못하느냐? 나를 한 번 보고 기억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음성을 듣고 귓등으로 흘려버리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 뜻을 세심히 살펴 나를 흡족게 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사람’ 가운데서 움직이고 생활하며 사람의 삶을 체험한다.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한 후 매우 좋다고 여겼지만, 나는 인간 세상의 삶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 세상의 복을 낙으로 삼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혐오하여 버리지도 않지만,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도 않는다.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기에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보기 어렵고, 번잡한 곳에서 내 음성을 듣기 어려우며, 내 말을 식별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행위는 다 겉으로는 내게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온 인류의 옛 성품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누가 예외일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나의 형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누가 나의 관용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모두 나의 진노로 멸망한다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일찍이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며, 공개적으로 심판을 했다. 그것이 사람을 직접 멸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내 목적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심판 속에서 나의 모든 행사를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무저갱에서 올라올 때, 즉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때, 너희 자신의 이해타산과 계획은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뜻을 세워 나를 만족케 할 것이다. 그러면 내 목적을 이룬 것 아니겠느냐?

1992년 3월 1일

제10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는 어쨌든 지난 시대와 다르다. 이 시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없으며,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교회 건축만 있었을 뿐, 하나님나라 건축에 대해서는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친히 언급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본질을 알겠느냐? 나는 지난날 세상에 임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했지만, 성육신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나라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입은 육신은 본격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나라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에서 왕권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한 것에는 문자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도 있다. 이것이 ‘실행의 실제’ 한 측면의 의의이다.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적이 없고, 나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보았다고 한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내 말을 들었다고 한들 또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있다. 하지만 또 모두가 나의 심판과 시련 가운데도 있다. 사람이 극도로 패괴되었을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이 모두 내 보좌 앞으로 돌아와 복종했을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다. 내가 준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암 속에서 헤매며 광명을 찾고 있더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련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더냐? 욕에게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자신의 활로’를 찾지 않은 적이 있더냐? 백성들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설지라도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마음으로 믿은 자가 있더냐? 전부 마음에 의혹을 품은 채 입으로만 믿지 않았더냐? 사람 중에 시련 속에서 굳게 서거나 진정으로 순종한 자는 없었다. 내가 얼굴을 가려 이 세상을 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보았더라면 모든 사람이 내 불사름의 눈빛에 쓰러졌을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릴 때는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그 소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궁창을 뒤흔들고,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하나님나라의 축가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울려 퍼지면, 내가 큰 붉은 용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나의 나라가 땅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세계 각국을 두루 누비며 아들들과 백성들을 목양할 것이다. 이것 역시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튼 곳에 친히 임하여 그것과 ‘겨룬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통해 나를 알고 나의 행사를 볼 때, 큰 붉은 용의 소굴 역시 그에 따라 잿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 큰 붉은 용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는 이상 일거수일투족으로 내 마음을 만족케 함으로써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너희는 진정 큰 붉은 용이 증오스럽다고 여기느냐? 큰 붉은 용이 ‘하나님나라 왕’의 원수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진정 나를 아름답게 증거할 자신이 있느냐? 큰 붉은 용을 물리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이다. 너희는 이 정도 수준에만 이르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수준에 이를 자신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왜 친히 전장에 왔다고 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측면에서 ‘삐딱하게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렇게 해서 나를 알게 되었느냐? 솔직히 말해, 땅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말의 함의를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땅에서 전례 없는 일을 시작해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참된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관념’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던 시대를 끝낸다.

오늘날, 나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 강림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마주했으며, 이에 온 궁창이 흔들리고 있다. 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린 재난 속에서 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재난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의심할 바 없이 사람에게 대한 구원이자 사람에게 베푸는 일종의 사랑이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하고 보게 함으로써 오랜 세월 보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겠느냐? 왜 파괴된 인류를 전부 멸하지 않았겠느냐? 왜 인류는 모두 재난 속에 있겠느냐? 왜 내가 친히 육신을 입었겠느냐? 내가 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사람은 쓴맛뿐만 아니라 단맛도 보았다. 세상 사람 중 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자가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백성의 지위를 주어야만 축복이겠느냐? 백성이 아니라 봉사자라 해도 너희는 내 축복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의 근원을 짚어 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내가 준 칭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자’란 칭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성’이란 칭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모른다. 그 누구도 나를 속이지 말라.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너희

중에 그 누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느냐?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울리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나는 일찍이 예정해 놓았다.

많은 사람이 내 얼굴빛 속에서 내 불사름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내 격려에 분발하여 바짝 따라간다. 사탄의 세력이 내 백성을 공격할 때 나는 저지했고, 사탄이 음모로 내 백성의 삶을 파괴할 때 나는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쫓아냈다. 온갖 악령들이 땅에서 시시각각 안식할 곳을 찾고 있고, 삼킬 자의 시체를 찾고 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반드시 나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절대 방종하지 마라! 절대 제멋대로 행하지 마라! 마땅히 내 집에서 충성을 바쳐야 한다. 충성심이 있어야만 마귀의 간계에 반격할 수 있다. 더는 예전처럼 내 앞뒤에서 서로 다르게 행해선 안 된다. 그러면 구제 불능이 된다. 내가 이런 말을 적게 했느냐? 누누이 타일러도 사람의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기에 누차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겹다고 하지 마라! 전부 너희의 운명을 생각해 말하는 것이다! 사탄은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원한다. 구제 불능이 될수록,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할수록 온갖 더러운 귀신이 기회를 틈타 침입한다. 그 지경에 이른다면 너희의 충성심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은 허튼소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의지’도 더러운 귀신에게 삼켜져 ‘패역’이 되고 사탄의 ‘간계’로 변질돼 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전혀 신중히 대하지 않는다. 나는 네 지난 행실을 기억하지 않는다. 설마 그래서 내가 또다시 ‘기억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주길 기다리는 것이냐? 사람이 나에게 대항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절제하며 방종하지 말라고 할 뿐이다. 이것조차 못 하겠단 말이냐?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열어 주어 ‘눈 호강’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네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들 또 어찌겠느냐? 설마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해지기라도 하겠느냐?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겠느냐? 나는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해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않는다. 사람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있더냐? 너희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더냐? 너희의 실제 사정에 맞지 않게 너희를 감찰한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진심으로 탄복시키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한 말이 너희의 심금을 울리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 말을 볼 때 무저갱에 떨어질까 봐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내 말로 인해 시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더냐? 나의 말에는 권병이 있지만, 나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의 실제 사정을 감안하여 내 말의 뜻을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낸다. 실제로 그 누가 내 말에서 나의 전능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내 말의 정금(正金)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많은 말을 했지만, 내 말을 소중히 여긴 자가 있느냐?

1992년 3월 3일

하나님나라의 축가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입이 나를 유일한 참하나님이라 부르고, 만민이 눈을 들어 나의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고, 나의 본체는 풍부하고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즐겁게 춤추지 않으랴? 시온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향해 경축하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전파하라! 땅끝의 만물아! 어서 깨끗이 씻고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려라! 하늘의 별들아!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궁창에서 내 큰 능력을 나타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보니 노랫소리에 나에 대한 경애심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물이 소생하는 날에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며, 만물이 기쁨으로 들끓는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나라의 예포 소리에 무너지고, 하나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축가에 부서져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리!

땅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으랴? 나는 땅에 내려올 때 불사름과 진노를 가지고 임했으며, 모든 재난을 가지고 임했다.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물결치고 일렁이며, 하늘 아래에서는 호수와 강물이 세차게 출렁이며 감동적인 무곡을 연주하고 있다. 동굴에서 지내던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고, 꿈속에 잠들어 있던 만백성은 나로 인해 눈을 떴으며, 만민이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나에게 바친다!

아름다운 이 순간, 가슴 벅찬 이 순간

천상천하에 찬미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 어느 누가 이에 감격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유쾌하지 않으랴? 이 광경에 어느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하늘은 더 이상 원래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하늘이 되었고

땅은 더 이상 예전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었네.

큰비가 지나간 뒤에 더러웠던 옛 세상이 바뀌고 있네.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있네...

침묵하던 산아! 일어나 나를 위해 신명 나게 춤을 추어라!
멈추었던 물아! 다시 흐르라!
꿈속의 사람들과! 떨쳐 일어나 속히 뒤쫓으라!
나는 이미 왔고... 왕이 되었고도다...
모두가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나라의 삶을 체험하고 있네...
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잊을 수 없으리... 잊을 수 없으리...

내 진노의 불길 속에서 큰 붉은 용이 몸부림치고
나의 위엄 있는 심판 속에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네.
나의 엄한 말에 사람은 죄책감으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람은 나를 비웃었고
항상 자신을 자랑하며 늘 나를 거역했네.
지금의 광경을 보아라, 누가 눈물 흘리지 않으랴? 누가 자책하지 않으랴?
온 우주와 세상에 울음소리 가득하고...
환호 소리 가득하며... 웃음소리 가득하네...
더없이 즐겁고... 더없이 즐겁네...

가랑비가 보슬보슬... 함박눈이 펄펄...
모두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네... 기쁘게 웃는 사람이 있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으며... 환호하는 사람도 있네...
모두가 깡그리 잊은 듯하네... 빗줄기가 그치지 않는 봄인지
꽃이 만발하는 여름인지, 창고 가득 풍작을 거둔 가을인지
뽕뽕 얼어붙은 겨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땅에는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네.
아들과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천사는 일하고... 목양하고 있으며...
땅의 사람들은 바쁘게 보내고, 땅에 있는 것들은 늘어가고 있네.

제11편

모든 인류는 내 영의 감찰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를 면밀히 성찰해야 하며, 더욱이 나의 놀라운 행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아들들과 백성들이 모두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본격적으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을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친히 사역을 시작할 때, 심판 시대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때, 나는 전 우주를 향해 말하고 전 우주를 향해 내 영의 음성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지 만물 중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나의 말로 정화하여, 더는 더럽고 음란한 땅이 아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바꾸어 내가 쓸 수 있게 하고, 진흙 냄새가 배지 않고 땅에 속한 냄새가 묻어 있지도 않게 할 것이다. 사람은 땅에서 내가 한 말의 목적과 근원을 모색한 적이 있고, 땅에서 나의 행사를 관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의 근원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었고, 내 행사의 기묘함을 참으로 본 자도 없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친히 음성을 발하니 그제서야 사람은 나에게 대해 조금 알게 되었고, 생각 속에 있던 ‘나’의 지위를 제거하고 의식 속에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하게 되었다. 관념이 있고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만 주는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진정으로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여기겠느냐? 정말로 조금의 의심도 없겠느냐? 사람 마음속의 ‘나’와 실제의 ‘나’는 그야말로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겠느냐? 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날마다 모든 이의 내면에서 운행한다. 사람이 참으로 나를 보게 되면, 모두 나의 말 속에서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방식과 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나라가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에 임할 때, 만물 중에 어느 것이 침묵하지 않겠느냐? 만인 중에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우주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친히 모든 일을 안배하는데, 어느 누가 이때에 내 행사의 기묘함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손은 만유를 떠받치고 있지만, 나는 또 만유 위에 있다. 오늘날 성육신하여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것이 바로 내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진정한 함의가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내가 아주 좋다고 칭송하고 내가 매우 아름답다고 찬미하지만, 참으로 나를 아는 자가 있느냐? 오늘날 왜 너희 모두에게 나를 알라고 하겠느냐? 큰 붉은 용에게 치욕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더냐? 나는 사람이 위압에 의해 나를 ‘찬미’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나를 알게 됨으로 인해 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나아가 나를 찬미하기를 원한다. 그런 찬미는 빈말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찬미이며, 그런 찬미야말로 직접 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 높이 울려 퍼질 수 있다.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관념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육신하여 친히 전 인류를 정복하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폭로하며 모든 생각을 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서 자신의 풍채를 뽐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나’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나라가 강림할 때, 먼저 이 단계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착수하였다.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태어난 백성이 큰 붉은 용의 독소를 조금이나 일부분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단계 사역의 중점을 너희에게 두었다. 이는 내가 성육신으로 중국에 온 또 다른 의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며, 설령 조금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아는 듯 모르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방식의 전환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볼 수 있고 내 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사람은 다 구원받아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나에게 순종할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내가 안식하고, 사람이 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때이다. 지금은 너희 분량이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작고 심지어 잡아 쥐도 일어서지 못할 정도이니, 하물며 나를 알아 가는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나는 비록 천사들이 보냄을 받아 아들들과 백성들을 목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했을 때, 천사들 역시 사역하며 목양하기 시작하였다. 천사들이 목양하는 기간 동안, 모든 아들들과 백성들은 시련과 목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상(異象)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된다. 또한 직접 신성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인성에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사람이 초자연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운행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고(사람은 직접 신성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이라고 여김), 사람의 관념과 뜻은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만 이 점을 분명히 알게 된다. 지금은 시작이므로 진입하는 데 아직 적지 않은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이 단계까지 이끌어 온 이상, 나는 합당한 안배를 해 놓았고 나 자신의 목적도 갖고 있다.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고 한들 너희가 정말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을 위해 활로를 찾지

않는 자가 있더냐?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풍부하고 다채롭다 한들 만세 후의 오늘이 이럴 줄 누가 예상했겠느냐? 설마 네 스스로 노력한 결과란 말이나? 너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얻어 낸 것이란 말이나? 너의 머리로 그려 낸 아름다운 화면이란 말이나? 내가 온 인류를 이끌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나의 안배에서 벗어나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었겠느냐? 설마 사람의 '상상'과 '바람'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단 말이나? 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란 말이나? 많은 사람은 일생이 예상 밖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이는 그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란 말이나? 전체 인류를 통틀어, 전능자의 눈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전능자의 예정 속에서 생존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사람의 생사존망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원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멀리 피해 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강자가 되길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죽는 날이 다가와 그들을 죽음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대성통곡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 속에서 잡혀갔는지 모른다. 내가 비록 사람이 나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격살하고 멸할까 봐 내 얼굴 보기를 무서워했는지 모른다. 과연 사람은 참으로 나를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형벌을 내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일어나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판단하는데, 설마 이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란 말이나? 사람이 전에 나를 알지 못한 것은 내 얼굴을 본 적도, 내 음성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내가 있다고 해도 어느 누가 모호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분명히 알고 있겠느냐? 나는 백성들이 나에 대해 모호하고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큰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살며시 인간 세상에 왔다가 표연(飄然)히 떠나간다. 누가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설마 태양이 붉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설마 달이 밝고 맑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설마 별들이 높이 떠 있다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에는 사람도, 만물도 모르고, 내가 떠나갈 때에도 사람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설마 땅에 있는 사람의 찬미란 말이나? 설마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이란 말이나? 하늘을 나는 작은 새란 말이나? 산속에서 포효하는 사자란 말이나? 아무도 나를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다! 아무도 내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없다! 설령 한다 해도 효과는 또 어떠하겠느냐? 나는 날마다 많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날마다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아무도 나의 심판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아무도 나의 심판의 실재를 벗어난 적이 없다. 내가 궁창 위에 서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훈과 자비 속에서 살고 있다. 너희도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1992년 3월 5일

제12편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는 바로 내가 음성을 발하기 시작할 때이다. 번개가 번쩍이면 온 하늘이 환해지고 모든 별들이 변화한다. 전 인류가 말끔하게 정리된 듯하다. 동방에서 비치는 이 빛줄기에 모든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은 눈이 부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산속 동굴 안으로 피난 가는 동물 같지만, 그 어떤 존재도 내 빛 속에서 말살된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 빛의 도래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순된 심리다. 자책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강을 이루고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나의 날이 또 한 번 전 인류에게 다가왔고, 또 한 번 인류를 불러 깨워 새로운 시작을 열어 줬다. 내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내 심장의 박동에 따라 산도 흥겹게 뛰고 물도 즐겁게 춤추며, 파도는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킨다. 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큰 붉은 용이 거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머지않아 땅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나라로 인해 영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겼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큰 붉은 용이 갖가지 계략으로 나의 계획을 망치고 내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을 없애려 하지만, 내가 그것의 간계 때문에 낙담할 리 있겠느냐? 내가 그것의 위협에 놀라 자신감을 잃을 리 있겠느냐? 천지 만물 중 내 손으로 주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물며 부각물인 그 큰 붉은 용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 역시 내 손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후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직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고, 오직 동방번개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 나라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껏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없고 동방의 번개를 본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보좌에서 발한 음성을 들은 이가 있겠느냐? 사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본체를 직접 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날 내가 세상에 왔기에 사람은 나를 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만 들었을 뿐, 내 뜻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모두 그렇다. 백성 중의 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느냐? 나를 알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온 목적이 단지 사람에게 내 육신을 보여 주려는 것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큰 붉은 용을 물리치며 그것의 소굴을 멸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나에게서는 손금 보듯 흰하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지만 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밝은 빛을 좇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도, 낮게 평가하지도 않고 사람의 속성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며, 이로써 내가 사람을 택하는 목적을 이룬다. 산속에 수많은 맹수가 있지만 내 앞에서는 모두 양처럼 순하고, 바닷속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이 깃들어 있지만 나에게서는 땅 위의 만물처럼 모두 흰히 드러나 있다. 또 하늘에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있지만 나는 그 경지에서 곳곳을 다닌다. 사람은 빛 속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를 보았다. 오늘날 너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나는 큰 붉은 용의 광폭함이 극에 달했을 때, 육신에서의 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큰 붉은 용이 처음으로 본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의 이름을 증거했다. 내가 인간 세상의 길을 다닐 때 그 어떤 사물도 사람도 놀라서 깰 적이 없다. 그렇기에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내가 육신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제야 깨어났다. 귀청을 때리는 나의 음성에 놀라 꿈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시작했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땅에서의 내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상, 이른바 ‘백성’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자들이 아니며, 나는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서 일부를 택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나는 백성들에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태될 위험이 있다. 온 힘을 다해 자아를 다루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버림받는 대상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바울처럼 직접 나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말에서 뭔가 짐작한 게 있느냐? 나는 계속 교회를 정결케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깨끗게 할 것이다. 나는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전을,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을 더 오색찬란하게, 티끌 하나 없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저마다 내 앞에서 지난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또 지금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굳은 각오를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오랜 세월 사람은 줄곧 나를 기만했고 나를 나그네 취급 했다. 사람은 수없이 나를 ‘집 문’ 밖에 세워 두었고, 수없이 내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나를 외면했다. 또 사람들 가운데서 수없이 나를 저버렸고, 마귀 앞에서 수없이 나를 부인했으며, 입놀림으로 수없이 나를 공격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연약한 점’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의 패역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을 주어 불치병을 고쳐 주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해 나를 알 수 있게 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더냐? 사람에게 살 기회를 준 것 아니더냐? 나는 인간 세상에 여러 번 왔지만, 사람은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했다고 해서 나를 상대해 주지는 않았다. 그저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의 활로를 찾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길이 내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안배하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 중 누가 감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누가 경솔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할 따름이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내가 성육신한 이 일로 혼비백산하여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기 때문에 사람이 재앙을 면하고, 다행히 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이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이 쉬이 온 것이 아니니 너희는 내일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1992년 3월 8일

제13편

나의 말과 음성에는 나의 뜻이 많이 담겨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 채 내 말의 겉면만 받아들이고 흉내 낼 뿐, 내 말에서 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을 살피지도 못한다. 내가 분명하게 짚어 준들 그 누가 깨닫겠느냐? 나는 시온에서 인간 세상에 왔지만 정상 인성을 지니고 사람의 형상을 입은 관계로, 사람은 모두 내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내게 내재하는 생명도, 영에서 온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입은 사람만 알 뿐이다. 실제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야 할 가치가 없단 말이나? 실제 하나님은 너희가 애써 ‘분석’해 볼 가치가 없단 말이나? 나는 전 인류의 패괴를 증오하지만, 전 인류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또한 전 인류의 옛 성품도 다룬다. 중국에 있는 내 백성의 일원으로서 너희 역시 전 인류의 일부가 아니더냐?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고 모든 아들들, 즉 내가 택한 전 인류의 선민 중에서 너희는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가장 많은 정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오늘날의 이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나? 그런데도 너희는 악독하게 나를 거역하며 따로 허튼수작을 부린단 말이나? 나의 공훈과 자비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진작에 사탄에게 잡혀가 사탄의 ‘별미’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 중에 진실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설마 오늘날의 ‘백성’이란 신분이 너희의 사유 재산이라도 되었단 말이나? 너의 ‘양심’이 그렇게도 ‘얼음장’ 같단 말이나? 너는 정말 내가 요구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느냐? 지난날을 보나 오늘날을 보나 누군가 내 마음을 흡족게 한 자가 있더냐? 누군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있더냐? 내가 너희를 일깨우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냉동’ 상태나 ‘동면’ 상태에 있길래도 한 듯 말이다.

사람은 세차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나의 진노를 보고, 일렁이는 먹구름에 놀라 허둥거리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뇌우에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나면, 사람은 모두 상쾌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을 느낀다. 하지만 그때 그 누가 사람에게 대한 나의 끝없는 사랑을 느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그림자만 있을 뿐, 내 영의 본질은 없건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나? 한 차례의 세찬 비바람이 지나가자 모든 사람은 면모가 새롭게 달라진 듯하고, 환난 속에서 연단을 겪은 후에 또다시 광명과 생명을 얻은 듯하다. 너희 역시 나의 채찍질을 겪고 나서 운 좋게 오늘이 있게 된 것 아니더냐? 하지만 너희는 오늘이 지난 내일도 큰비가 지나간 뒤의 청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연단 후의 충성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오늘의 순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겠느냐? 설마 이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요구란 말이나? 나는 날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이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 영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 가운데 그 누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겠느냐? 설마 내가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인다고 한 말이 과장된 것이겠느냐? 이전에 나는 “내가 인류를 창조하고 또 전 인류를 인도했으며, 지휘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설마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나?

너희가 이런 면에서 체험한 것이 아직 적단 말이나? ‘봉사자’란 이 세 글자만 해도 너희가 평생의 정력을 들여 서술하기에 족하다. 사람에게 실제 체험이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내 말을 통해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왔으니 너희가 나를 아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성육신한 것 역시 너희에게는 구원 아니겠느냐?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벌써 관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즉, 사탄에게 점령되었을 것이다. 네가 믿는 것은 사탄의 형상일 뿐,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설마 나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나?

사탄이 내 앞에 올 때 나는 그것이 미쳐 날뛰다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이 흥측하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한다.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나는 그것의 간계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조용히 물러가게 한다. 사탄이 내가 택한 사람을 빼앗으려고 나와 싸울 때, 나는 육신에서 그것과 결전을 벌인다. 그때 나는 백성들이 쉽게 넘어지거나 헤매지 않도록 육신에서 붙들어 주고 목양하며 한 걸음씩 인도한다. 사탄이 실패하여 물러갈 때 나는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얻게 되고, 백성들은 나를 위해 아름답고 힘 있게 증거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경륜에 두었던 부각물을 완전히 무저갱에 던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자 사역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날이 온다면, 사탄에게 잡혀가겠느냐, 아니면 나에게 얻어지겠느냐? 이것은 너의 운명이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님나라의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생활이다. 사람은 모두 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큰 붉은 용과 결사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이 마지막 싸움을 잘하고, 큰 붉은 용을 끝장내기 위해 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나라란 신성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는 삶을 가리킨다. 즉, 모든 사람은 나의 직접적인 목양과 훈련을 받아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듯한 삶을 살 것이며, 셋째 하늘의 생활을 진정으로 실현할 것이다. 나는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그들의 기도예 수없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며 그들의 찬미를 수없이 많이 누렸다.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나의 처소는 내가 은거하는 곳이다. 하지만 나는 또 나의 처소에서 원수들을 물리쳤고, 나의 처소에서 땅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또 나의 처소에서 사람의 모든 언행을 관찰하면서 전 인류를 살피며 지휘하고 있다. 인류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나를 흠족게 하고 내 기쁨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전 인류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나의 뜻 아니겠느냐?

사람은 모두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나의 천둥소리에 놀라 그제서야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많은 이가 번쩍이는 서슬 퍼런 빛에 눈이 찢려 방향조차 분간하지 못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더욱 몰랐다. 많은 사람이 강렬한 빛에 맞아 온몸이 폭풍우 속에서 쓰러지고, 시체는 강을 이룬 빛물에 떠내려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은 빛 속에서 비로소 나의 얼굴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나의 겉모습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나아가 나의 형벌과 저주가 다시 한번 그들의 육신에 내릴까 심히 걱정한 나머지 더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이 메도록 통곡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풀이 죽어 낙담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흘러 강을 이루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체가 곳곳에 떠다녔더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오는 가슴을 안고, 오랜 불행에 눈물을 흘렸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빛의 위압에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기로 결심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명하여 삶의 즐거움을 잃고, 그로 인해 빛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더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뜻을 올리고 빛이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내일을 소망하고 있었더냐? ... 오늘날, 사람 중에 그 누가 이런 상태로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빛 속에 있지 않겠느냐? 네가 굳센들 혹은 연약한들 어찌 쏘아지는 나의 빛을 피할 수 있겠느냐?

1992년 3월 10일

제14편

역대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은혜를 누려 보지 못했고, 하나님나라의 왕을 본 사람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일찍이 내 영의 빛 비춤 아래에서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예언했으나, 그 겉면만 알았을 뿐 내적 함의는 알지 못했다. 오늘날 하나님나라가 땅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나라시대에 이루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사람을 어떤 경지로 이끌어 가는지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이 '혼돈'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어렴풋하게만 알 뿐 밝히 알지는 못한다. 내가 신성으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나라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나라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비로소 나의 성품이 점차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본격적으로 거룩한 나팔을 울리며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나라에서 정식으로 왕권을 잡을 때, 백성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에 의해 온전케 될 것이다. 세상의 각 나라가 분열될 때는 내 나라 건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때가기도 하다. 즉, 내가 형상을 바꾸어 전 우주를 마주할 때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내 영광스러운 얼굴과 본모습을 볼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인류를 이 지경으로 파괴시키기까지, 사람의 파괴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에게 갈수록 감춰진 존재가 되었고, 갈수록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나의 본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나’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 그저 신화나 전설 속의 ‘나’에 대한 상상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나’의 모습을 바꿔 놓기 위해 나는 사람의 상상, 즉 관념에 근거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나’를 다루었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원칙으로, 여태껏 그 누구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고, 내 앞에서 나를 경배했어도, 나는 사람의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형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성품이 자리하지 않은 관계로 사람은 나의 본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대적했거나 나의 행정 법령을 범했다고 생각했어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거나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머릿속 상상일 뿐,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우주 위에 서서 살펴보고, 또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내 처소에 거하면서 인생을 겪으며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놓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진지하게 임한 사람도 없었고, 내 앞에서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본분을 지킨 자 역시 없었다. 또한 그 누구도 나를 자신의 마음에 거하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처럼 나를 중시하지 않았다. 아무도 실제 속에서 내 신성의 모든 어떠함을 보지 못했고, 실제 하나님 자신과 접촉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사람의 온몸이 물에 잠길 때 나는 사람을 그 죽은 물에서 구해 내 다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었다. 사람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음의 벼랑 끝에서 끌어 올려 삶의 용기를 주었고, 나를 생존의 근본으로 삼게 했다. 사람이 나를 거역할 때,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 속에서 나를 알게 했다. 사람의 옛 성품 때문에, 또한 나의 긍휼 때문에 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고 개과천선하게 했다. 사람이 기근에 빠졌을 때, 숨이 넘어가기 직전일지라도 사탄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빼앗아 왔다. 사람이 나의 손길과 자비로운 얼굴과 웃는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또 나의 위엄과 진노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사람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사람의 연약함을 ‘트집 잡을 기회’로 삼지 않았다. 나는 인간 세상의 고통을 살피기에 사람의 연약함

역시 해아려 준다. 다만 사람이 패역하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합당한 형벌을 줄 뿐이다.

나는 사람이 바쁠 때 모습을 감추고, 사람이 한가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는 ‘만물박사’이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단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 앞에 올 뿐, 내 앞에서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사람은 병세가 위중할 때 다급히 내게 도움을 청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최대한 내게 고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편안할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자신과 더불어 즐기며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역시 없다. ‘집안’에 행복이 가득할 때, 사람은 일찌감치 나를 한쪽에 내버려 두거나 문전 박대 하고서는 즐겁게 온 집안의 행복을 누린다. 사람은 웅졸하고 속이 좁아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람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인 나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즐겁게 웃을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들에게 버림받았는지 모르고, 사람이 넘어졌을 때 몇 번이나 그들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는지 모른다. 또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릴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들의 ‘의사’로 불려 갔는지 모른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인류더냐! 그야말로 이성도 없고 도의도 모른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정’을 조금도 볼 수 없고, 인간미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오늘날과 견주어 보아라. 너희는 조금이라도 변화했느냐? 과거의 성분들이 오늘날에는 줄어들었느냐? 여전히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냐?

나는 산 넘고 강 건너며 인간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고, 사람들 가운데서 오가며 여러 해를 사람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얼마 바뀐 것 같지 않다. 또한 옛 성품이 사람의 내면에 뿌리내려 싹트기라도 한 듯 사람의 옛 성품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그저 원래 상태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은 바뀌지 않고 방식만 많이 바뀐 셈이다. 사람은 모두 나의 눈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어물쩍 넘어가 나의 기쁨을 사려고 나를 속이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의 ‘수작’을 기뻐하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로 인해 격노하지 않으며,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다.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천박한 존재이기에 본인조차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또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니,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한다.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중시하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에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 나의 백성이 된 너희

역시 이런 상황 아니더냐? 내 앞에서 다짐을 했다가 폐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더냐? 내 앞에서 수시로 다짐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 세운 다짐을 변함없이 오래 지킨 자가 누가 있더냐? 사람은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내 앞에서 다짐을 세우지만, 역경에 처하면 그것을 백지화했다가 일이 지나간 후에 다짐을 다시 주워 내 앞에 내놓는다. 내가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온 폐품을 마구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천하단 말이나? 사람 중에 자신의 다짐과 정절을 지키는 자는 매우 적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는 자도 매우 드물다. 너희 또한 이러하지 않더냐? 하나님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게 미움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1992년 3월 12일

제15편

사람은 모두 자신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라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 손금 보듯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두 그의 앞에서 ‘검열’을 받았거나 먼저 그의 승낙을 받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모두 훤히 꿰뚫는 듯하다.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본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여전히 내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하지만, 내 뒤에서는 또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도 내 앞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인 양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는 듯 낮빛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추태가 아니더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와 내 뒤에서 전혀 딴 사람 같다.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는 갓 태어난 양 같지만 내 뒤에서는 사나운 호랑이 같고 또 산속의 새처럼 ‘신이 나서 깡충거린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앞에서 의지를 다지며 내 말을 찾고 갈망하지만, 뒤에서는 내 말을 싫어하고 포기한다. 마치 나의 말이 그들에게는 짐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원수’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다. 또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수없이 보았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또 몇 번을 타일러도 고치지 않기에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그 뜻이 아무리 간절해도 분노를 띠고 사람의 행위를 외면했었다. 나는 사람이 나와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 앞에서 내 품에 안긴 듯, 내 품의 따스함을 느끼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선민들의 활발하고 순진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내 손안에서 정해진 복을 누릴 줄 모른다. 이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참되게 추구하지 않는다.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 중에 그 누가 내 앞에서 눈같이 깨끗하고 옥같이 순결할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한 사랑을 맛있는 음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높은 직위와 후한 급여로 바꿀 수 있겠느냐? 또는 너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이 시련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겠느냐? 설마 사람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의 안배를 원망하게 되겠느냐? 그 누구도 내 입의 날 선 겉을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그저 그 겉면의 뜻만 알 뿐, 내면의 뜻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사람이 정말 날 선 겉의 예리함을 봤다면, 모두 쥐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 했을 것이다.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내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므로 내 말의 엄준함을 모르고, 내 말이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사람의 패괴를 얼마나 많이 심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이해하여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나라에서 입으로 음성을 발할 뿐만 아니라 발로 본격적으로 곳곳을 누비며, 이로써 더럽고 불결한 모든 땅을 이겼다. 그리하여 하늘도 바뀌고 땅도 바뀌면서 그에 따라 새로워지고 있다. 온 우주 아래에는 나의 영광으로 온통 새롭게 되어 마음을 즐겁고 후련하게 해 주는 기쁨의 광경이 나타났다. 사람이 상상했던 하늘 밖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가 없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일도 없었다. 온 우주 위에는 못별이 나의 지휘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 선 채 캄캄한 밤하늘을 밝게 비추며, 그 무엇도 감히 불복하려는 뜻을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내 행정 법령의 본질로 온 우주가 질서 정연한 배열을 이름으로써 혼란한 상황이 나타난 적이 없고 온 우주가 분열되는 일도 없었다. 나는 못별 위로 높이 뛰어오르며 작열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단번에 없애 나의 손안에서 함박눈이 펄펄 내리게 했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바꿀 때는 또 모든 눈이 녹아 강을 이뤘다. 순식간에 하늘 아래는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고, 땅의 산과 물에는 푸른 기운이 널리 퍼졌다. 내가 하늘을 거닐 때, 땅은 나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삼시간에 ‘밤’이 되자 온 세상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은 빛이 사라진 틈을 타 서로 죽이고 빼앗았다. 온 땅의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혼돈’에 빠졌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은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빛이 문득 다시 한번 인간 세상에 직접 임하여 흑암의 날을 끝내고 원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사람을 뿌리치고 떠났으며, 더 이상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아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나는 일찌감치 온 세상 사람을 버렸고, 땅의 상황을 보지 않기로 눈을 감았으며,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찌감치 사람의 어리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누리는 것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새 세상을 하루속히

일으키기 위해 세상을 새롭게 바꿀 계획을 따로 세웠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가서 바로잡아 주어야 할 기괴한 모습과 내가 친히 면하게 해 주어야 할 실수들이 몹시도 많다. 또한 내가 가서 치워야 할 먼지들과 내가 가서 밝혀야 할 비밀들도 수없이 많다. 사람은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고, 모두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땅에 있을 때, 나는 사람 마음속의 실제 하나님이고, 하늘에 있을 때, 나는 만물의 주재자이다. 나는 높디높은 산을 넘고 깊디깊은 물을 건너기도 했으며, 표연(飄然)히 사람들 가운데를 거닐기도 했다. 그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실제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전능자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감히 내가 확실히 하늘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누가 감히 내가 틀림없이 땅에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거하는 곳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하늘에 있을 때,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이기만 하겠느냐? 땅에 있을 때, 나는 실제 하나님이기만 하겠느냐? 설마 만물을 주재하거나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실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나? 그렇다면 사람은 구제 불능일 정도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나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도 거하고, 만물 가운데도 만인 가운데도 거하므로 사람은 날마다 나를 접하고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나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내게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내게 있는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하여 마음속의 ‘괴로운 심정’을 없애고자 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투시경을 사용한다고 한들, 어찌 내게 있는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백성들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 큰 붉은 용의 소굴은 즉시 파헤쳐지고 진흙은 모조리 제거될 것이다. 또 오랫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은 모두 내 불길에 말라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큰 붉은 용은 멸망하여 유황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정말 큰 붉은 용에게 붙잡혀 가지 않도록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의 간계를 증오하느냐? 그 누가 나를 위해 굳세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과 내 영, 그리고 내 전체 경륜을 위해 그 누가 자신의 힘을 바칠 수 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나라의 형성을 위해, 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기 위해, 나아가 내 날의 도래를 위해,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때와 번성하는 날을 위해, 사람을 고해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일의 도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위해, 더욱이 훗날의 누림을 위해 모든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분투하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상징 아니더냐? 바로 내가 이미 계획을 완성했다는 표징 아니더냐?

말세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 간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 속에서 죽어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하다가 실망하는지 모르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손아귀에 지배당하는지 모른다. 나는 일찍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사람이 광명을 잃었을 때, 그들을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 빛 속에서 나를 알게 하고 행복 속에서 나를 누리게 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은 모두 나의 빛이 비치자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본래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그림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이 영의 작용인지, 아니면 육신의 기능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이 한평생 구체적으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의 깊은 곳에서 나를 그리워했다. 나의 지혜는 사람의 탄복을 자아내며, 나의 기묘한 행사는 사람의 눈을 호강시켜 준다. 사람은 나의 말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나의 ‘실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제 분량 아니겠느냐?

1992년 3월 13일

제16편

내 입에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공급하는 대로 내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하나만 알 뿐 들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사람을 때려죽이지 않으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나의 일을 할 뿐이다. 사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해도 나는 계속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은 나를 가슴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할 것이다. 내가 땅을 떠날 때가 바로 내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보좌에 오를 때이다. 즉,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게 될 때가 바로 아들들과 백성들이 땅에서 왕권을 잡게 될 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만이 내 나라에서 왕권을 잡을 자격이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나의 어퍼함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를 살아 낼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는지는 개의치 않는다. 어찌 되었든 나의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없다. 사람은 다만

나의 빛 속에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따름이다. 지금, 사람은 자격을 얻었으니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려도 되고,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고 똑같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에 대한 사람의 경외심은 너무 작아, 내 면전에서는 나를 경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의 면전에서는 도리어 나를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에 여태껏 아무도 영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모두 나의 육신에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만 볼 뿐 하나님의 영은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뜻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나를 속이는 전문가이다. 마치 사탄의 특수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나를 기만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결코 사탄에게 방해받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처럼 나의 지혜로 전 인류를 정복하고 인류를 패괴시킨 자를 물리쳐서 나의 나라를 땅 위에 굳건히 세울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별은 얼마나 큰지, 또 하늘의 공간은 얼마나 넓은지 탐색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가 죽어 실패를 고했다. 나는 만인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실패한 이들의 동태를 관찰해 보았다. 그들 중 진심으로 내게 신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순종조차 하지 않으니 사람의 야심이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깊은 물의 표면 전체가 혼탁해졌을 때, 나는 세상의 괴로움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의 영은 세계를 주유하고, 만인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나 나는 또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인류를 정복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게 대적하는 것은 그들의 패역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가 이미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본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살아 내고 나타내는 것은 나의 큰 능력과 지혜가 사람을 나의 뜻에 부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있지만, 나는 사람의 영 안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사람은 모두 영 안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품고 있지만, 거기에 내 몫은 없다. 그렇기에 사람의 사랑은 거품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부서지고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들 눈에 공기와 같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다만 아득히 펼쳐진 하늘 위에서, 세차게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잔잔한 호수의 수면 위에서, 혹은 공허한 글귀 속에서 찾을 뿐이다. 인류의 본질을 아는 이는 한 사람도 없고, 나에 대한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그들이 상상하는 내 요구의 최고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하면 산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거꾸로 흐르며 사람이 순종한다. 또 내가 말을 하면 호수가 멈추지 않고 흐르며, 노기충천한 바다도 호수처럼 평온해진다. 내가 가볍게 손을 한번 흔들면 곧바로 광풍이 사라져 내게서 멀어지고, 세상은 순식간에 평온함을 회복한다. 하지만 내가 진노하면 그 즉시 산이 갈라져 무너지고 땅이 뒤흔들리며 물이 마르고 사람은 재난에 삼켜진다. 하지만 나는 노했으므로 사람의 울부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을 외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분노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별들은 나의 존재로 인해 당황하여 허둥댄 적이 없고 오히려 나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사역한다. 이에 나는 그들에게 더 큰 빛을 주어 더 큰 광채를 발하게 한다. 이는 내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하늘 위가 밝을수록 하늘 아래는 더욱 캄캄하다. 내 안배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하면서 나를 떠나 자신의 왕국을 세워 나를 배반하고 이 어둠의 상태를 바꿔 보려고 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의 의지가 실현되었더냐? 어느 누구의 의지가 성공을 거두었더냐? 내가 안배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땅 위에 봄기운이 두루 퍼질 즈음, 내가 살며시 세상에 빛을 보내니 땅에 있는 이들은 순간 신선해진 공기를 느낀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내가 다시 그들의 눈을 가려 도처에 가득한 안개만 보게 하니 모든 사람과 사물이 흐릿해진다. 이에 사람은 모두 ‘왜 빛은 잠시만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짙은 안개와 흐릿함만 주시는 것인가?’라고 탄식할 뿐이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안개는 어느샌가 사라진다. 하지만 얼핏 희미한 빛을 볼 때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니, 꿈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청을 울리는 뇌우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숨을 새도 없이 큰비에 온몸이 잠기고 만다. 순식간에 하늘 아래 만물이 내 진노 속에서 깨끗이 씻기니, 더 이상 누구도 갑작스러운 폭우를 원망하지 않고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된다. 갑작스러운 큰비로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물에 익사하여 물속의 ‘송장’이 된다. 나는 온 땅을 살피보았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쪽배를 타고 물의 원천을 찾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내게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였다. 또 많은 사람이 빛을 보았고, 많은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이 삶의 용기를 얻었다. 온 땅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큰비가 내린 뒤, 모든 사물이 내 마음속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더 이상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온 땅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미의 기운이 맴돌았으며 또한 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나의 지혜는 온 땅 위에 있고 또 온 우주에 있으니, 만물 속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내 지혜의 열매이고, 만인 속에 넘실거리는 것은 내 지혜의 결정품이다. 모든 것이 내 나라의 만물과 같고, 모든 사람이 내 목장의 양처럼 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내가 만인 위를 거닐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옛 모습을 지닌 사물도, 옛 상태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나는 보좌 위에서 안식하고 온 우주 위에 누워 흡족함을 느꼈다. 만물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했고, 나는 다시 시온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땅 위의 사람은 다시 나의 인도로 평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민이 모두 나의 손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며 원래의 총명과 본래의 면모를 회복했으며, 더 이상 먼지투성이가 아니라 나의 나라에서 옥같이 거룩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사람 마음속의 거룩한 자와 같다. 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14일

제17편

내 음성은 우레와 같아 사방을 비추고 온 땅을 밝혔으며, 사람은 천둥 번개 속에 쓰러졌다. 천둥 번개 속에서도 강한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은 내 빛에 놀라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동방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쳤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빛에 ‘마음이 움직여’ 바로 환각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내 빛이 땅에 임하는 날이 이미 왔음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 어리둥절해하거나 신기한 눈으로 빛의 움직임과 빛이 나타난 방향을 살폈으며, 빛의 근원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잡고 빛의 맞은편에 선 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오늘의 빛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가 있더냐? 오늘의 빛이 얼마나 특별한지 주의를 기울인 자가 있더냐? 대부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빛에 찔려 눈을 다치거나 빛에 맞아 진흙 가운데 쓰러졌다. 그 희미한 빛 속에서 땅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참상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진다. 따라서 빛이 강렬해지면 땅에서는 사람이 내 앞에 서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빛 비춤을 받고 있고 또한 빛의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빛에 찔리고 있다. 어느 누가 빛에 맞아 죽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빛의 불사름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 곳곳을 누비며 내 손으로 내 영의 씨앗을 뿌려 온 땅의 사람이 내게 ‘감동’받게 한다. 하늘의 정점에서 온 땅을 내려다보며 땅에 있는 존재들의 ‘괴이한 모습’을 관찰해 보니, 바다 위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 바닷새들이 이리저리 날며 삼킬 만한 물고기를 찾고 있었지만 바다 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바다 위의 상황에도 그들은 조금도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바다 밑에서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승강이’가 떨어진 적이 없어 셋째 하늘처럼 평온했기 때문이다. 여러 괴이한 모습들 중에서 나를 가장 만족시키지 못한 존재는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에게 준 지위가

너무 높은 탓에 사람의 야심이 지나치게 커졌고, 사람의 눈에는 늘 ‘불복종’의 기운이 맴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을 징계할 때, 또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자비를 보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어떤 사람도 확대한 적이 없다. 그저 사람이 거역할 때 적당히 제재하고, 사람이 연약해질 때 적당히 ‘도움’을 베풀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사탄의 간계로 나를 배반할 때, 나는 즉시 사람을 멸하여 다시는 내 앞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없게 하고, 땅에서 기세등등하게 힘을 믿고 설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내 권병을 행하고 내 모든 사역을 전개했다. 내 사역에 대한 모든 반응은 다 땅에서 나타났다.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있는 내 움직임을 안 적이 없고, 내 영의 운행 궤적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다. 대다수는 영 밖의 사소한 것들만 파악할 뿐, 영 안의 실제 상태는 살피지 못했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하늘에 있는 막연한 내가 제시한 것도, 땅에 있는 가늠할 수 없는 내가 제시한 것도 아니다.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 적당하게 요구한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고혈을 짜내’ 나를 즐겁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다. 설마 내 요구가 겨우 그 정도 수준이겠느냐? 땅의 만물 중 무엇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겠느냐? 내 말과 내 불길로 깨끗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 존재가 있겠느냐? 내 앞에서 감히 ‘활개 치고 다니는’ 존재가 있겠느냐? 내 앞에서 허리 굽히지 않는 존재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그저 만물을 침묵하게 하는 하나님이겠느냐? 나는 만물 가운데서 내 뜻에 맞는 것을 택하고, 만인 가운데서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택하며, 모든 별 가운데서 최고를 택하여 내 나라에 빛을 더한다. 나는 땅을 거닐며 곳곳에 내 향기를 뿌리고, 내 그림자를 남긴다. 곳곳에는 내 음성이 울려 퍼진다. 사람은 다 어제의 아름다운 광경을 그리워한다.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나를 만나길 갈망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땅에 오니 사람은 내가 온 것에 질색하며 찾아온 빛을 몰아낸다. 내가 하늘에 있는 적이라도 되는 양 사람은 내게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시시각각 조심하고, 내가 그들을 ‘어찌기라도 할까’ 몹시 두려워한다. 사람은 나를 낯선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게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들의 숙적이다. 사람은 환난 속에서 나의 따뜻함을 느낀 후에도 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앞에서 계속 나를 경계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을 품는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기회 삼아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 품에 따뜻함을 주고, 그 입에 감미로움을 주고, 그 배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 준다. 그러나 내 진노가 산과 강을 뒤흔들 때는 사람이 ‘접낸다’ 하여 다른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크게 노할 것이며, 그 어떤 존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내릴 것이다. 그 순간 천둥 번개는 성내는 파도나 무너지는 산 같을 것이며, 사람은 패역으로 인해 모두 번개에 맞아 죽고, 사물은 우렛소리로 인해 모두 소멸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 우주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만물은 원래의 생기를 되찾을 수 없고, 만인은 우렛소리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빗발치는 번개 속에서 사람은 한 무리씩 급류에 쓰러져 산에서 밀려오는 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 어느새 사람의 ‘종착지’에는 또 ‘사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바다 위에는 사람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내 진노 때문에 내게서 매우 멀어진다. 그것은 사람이 내 영의 본질을 거스르고, 패역함으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물이 없는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웃고 노래하면서 내가 준 약속을 누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내가 그들 앞에 한 줄기 빛을 비추면, 사람은 문득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며 침묵을 깨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곧바로 마음속 영을 깨운다. 이때 사람은 모두 부활해 자신의 괴로움을 던져 버리고 내 앞으로 온다. 내가 해 준 말로 또 한 번 생존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땅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 살고자 한 자가 있더냐? 자신에게서 ‘훌륭한 것’을 찾아 내가 즐기도록 바친 자가 있더냐? 매력적인 나의 향을 느낀 자가 있더냐? 사람은 모두 거친 존재다. 겉으로는 눈부시게 빛나 보여도 본질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너무도 부족하여 나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을 두고 비웃지 않는다. 내 손길은 수천 년간 땅에 있었고, 내 눈길은 줄곧 만인을 굽어살폈지만, 내 손이 사람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함부로 가지고 논 적은 없다. 나는 사람이 쏟는 심혈을 헤아리고, 사람이 치르는 대가도 이해하고 있기에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서 형벌을 내리거나 나쁜 것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저 계속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은혜요, 내 손에서 나온 풍요로움인 것이다. 내가 땅에 있기에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주는 누릴 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내 축복 속에서 살고 있거늘, 모두가 내 형벌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 산은 깊은 곳에 자신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물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내 말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즐기고 경험할 양식이 그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내가 땅에 있으면 사람도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린다. 하지만 내가 땅을 떠날 때, 즉 내 사역이 완성될 때, 사람은 두 번 다시 자신의 ‘연약’을 이유로 내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992년 3월 16일

제18편

번개 속에서 모든 동물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빛을 받아 사람도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 파괴된 옛 세상이! 드디어 더러운 물에서 무너지고,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 내가 창조한 모든 인류야! 드디어 빛 속에서 다시 소생하여 생존의 기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안에 있는 만물아! 어찌 내 말로 인해 새롭게 바뀌지 않겠느냐? 어찌 빛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땅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고, 하늘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다. 하늘과 땅은 더 이상 간격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영원히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희 속에서, 그리고 환호 속에서 나의 공의와 거룩함은 전 우주 위아래에 두루 미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 하늘의 성은 즐겁게 웃고, 땅의 나라는 기뻐서 춤추고 있다. 이 순간, 어느 누가 경축하지 않겠느냐? 어느 누가 눈물 흘리지 않겠느냐? 땅은 본래 하늘에 속하고,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다. 사람의 거룩함과 거듭남으로 인해 하늘은 더 이상 땅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고, 땅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침묵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띠고, 마음에 끝없는 감미로움을 품고 있으니, 사람과 사람은 언쟁을 하지도, 몸싸움을 하지도 않는다. 어느 누가 내 빛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않겠느냐? 나의 날에 어느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내게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몰래 내게 부르짖는다. 나도 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찰한 바 있다. 정결케 된 사람 가운데 나를 거역한 자나 나를 판단한 자는 없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품이 관통되어 있었다. 모두가 나를 알아 가고 있고, 내게 다가오고 있으며, 나를 앙망하고 있다. 나는 사람의 영 안에 굳게 섰고, 사람의 눈에 지고지상하고, 사람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땅 곳곳에 사람이 뿜어내는 희열의 기운이 넘쳐흐르고, 신선한 공기가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짙은 안개가 아닌 찬란한 햇빛이 온 땅을 덮고 있다.

하나님나라를 보아라. 나는 나라에서 왕이 되었고, 권세를 잡았다. 아들들은 나의 인도 속에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갖은 시련과 세상의 험난함, 인간사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늘날 나의 빛 속에서 살면서 지난날의 불공평함 때문에 울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어렵게 맞이한 오늘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 또 이 기회에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느냐? 이 기회에 누가 마음속 열정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지금 이때 누가 자기 체험을 표현하지 않겠느냐? 모두가 이때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내게 바쳤다. 많은 이들은 어제의 우매함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많은 이들은 어제의 추구 때문에 자신을 몹시 증오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알았고, 사탄의 행위를 보았으며, 나의 기묘함을 보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의 자리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고, 사람에게 버려지지 않는다.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 오늘날 나의 나라에서 사는 아들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내 사역 방식 때문에 근심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내게 진심을 보이는 자가 있느냐? 너희 마음속의 ‘불순물’은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늘었느냐? 만약 너희 가운데 불순물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버릴 대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에 합하는 거룩한 백성이지 나를 거역하는 더러운 귀신이 아니다.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는 결코 높지 않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세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 뜻에 잘 합할 수 없고, 사람은 나의 마음을 곧바로 만족게 할 수 없다. 대다수 사람은 최후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 남몰래 힘쓰고 있다. 또한, 대다수가 게으름 피울 생각도 못 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탄에게 다시 사로잡힐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은 내게 다시는 원망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줄곧 내 앞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표한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들어 보았고, 고난 중에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관한 하소연도 들어 보았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내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험난한 길에서 활로를 찾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희망도 못 찾고 마음속에 고민도 좀 있었지만 원망의 말을 꺼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나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저주의 말도 들어 보았다. 이들은 하늘을 욕하고 땅을 원망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이들은 자신을 폐품 취급 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물 범벅이 되든 말든 자신을 방치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서로 말다툼하는 소리도 들어 보았다. 지위가 바뀌었다고 ‘얼굴색’이 따라 변하고, 사람 간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어 서로 말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은 내 말을 ‘기관총’ 총알로 삼고 상대가 방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여기저기 난사했다. 그로 인해 어디를 가든 사람 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넘쳐났고, 이는 결국 모든 평온을 깨뜨렸다. 다행히 오늘에 이르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기관총의 난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른다.

하나님나라는 내 말이 선포됨에 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점차 땅에 임하였다. 사람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땅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내 말이 선포됨에 따라 새 시대의 각종 ‘무기’도 회수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의 마음에서 화합의 기운이 나오고, 불의의 일격을 경계하는 사람도 사라졌다. 사람은 모두 정상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삶에 진입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처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환경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 궤도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마음은 넘치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처럼 직접 역경의 고통을 겪진 않았지만 사람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사람의 연약함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단점 때문에 사람을 비웃지 않는다. 그저 사람의 불의로 인해 적절히 ‘교육’하여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고, 더 이상 떠돌이 고아가 아닌, 가족이 있는 아기가 되게 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일하는 데에 원칙이 있다. 만약 내가 주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득이하게 그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무저갱에 보낸다. 이때가 되면 누구든 다시는 원망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의 안배 속에서 나의 공의를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대한 사랑을 말리지도 않는다. 내게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 사람의 운명을 내가 주관하긴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고 속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은 나의 행정 법령 때문에 ‘자승자박’하는 일 없이 나의 도량과 관대함으로 인해 ‘해방을 얻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로 인해 제약받는 일 없이 해방받아 자신의 활로를 찾고 있다.

나는 언제나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 사람에게 난제를 준 적도 없고, 사람을 난처하게 한 적도 없다. 그렇지 않느냐? 많은 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까지 풀어 주면서 고해 속에서 허우적대도록 내버려 둔다. 사람은 미친한 그릇이기 때문에 내 손안에 있는 복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누리는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탄의 손에 있는 ‘재앙’을 취하여 자신을 해치며, ‘몸보신’ 거리로 사탄에게 먹힌다. 물론, 눈으로 내 빛을 본 자는 당장은 짙은 안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욱한 안개가 뒤덮였다는 이유로 빛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는다. 길이 험하고 순탄치 않을지라도 안개 속을 더듬으며 찾을 뿐이다. 나는 사람이 거역할 때 크게 진노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의 거역으로 인해 죽어 간다. 나는 사람이 순종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사람 마음속의 사랑을 불러일으켜 나를 거짓으로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바쳐 누리게 한다. 사람이 나를 찾을 때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얻으려 했던 적이 많고 많다. 하지만 내가 음성을 발하지 않을 때 사람의 믿음은 바로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사람의 ‘위조품’뿐이었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내가 나타날 때에야 엄청난 ‘믿음’을 내보인다. 반면에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는 나를 거스름까 봐 두려운 것처럼 몸을 움츠린다. 심지어 어떤 자는 나를 만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를 ‘심하게 가공하여’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많은 이들의 상태가 이리하고, 많은 이들의 심리가 이리하다. 단지 사람은 자기 추태를 잘 감출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을 들추고 싶지 않아서 뻔뻔하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말의 사실성을 인정할 뿐이다.

1992년 3월 17일

제19편

사람은 내 말을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무로서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자기 몫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하고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품을 내 앞에 내밀어 흔들며 나를 만족시키려 할 뿐, 자기 목숨을 교환의 대가로 내게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은 모두 탐심이 있다. 사람은 마음을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게 마음을 바치지 못한다. 내가 말할 때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말을 멈추면 사람은 다시 자신의 '경영'을 시작하며 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내 말이 그의 '경영'의 부속물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엄격했지만 그래도 인내와 관용을 베풀었다. 나의 관용으로 인해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며, 자신을 알지도 반성하지도 못한다. 그저 내가 인내하니 나를 기만하기만 한다. 사람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헤아리는 자가 없었고, 나를 자신의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도 없었다. 그저 한가할 때 나를 무성의하게 대할 뿐이다. 나는 이미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을 들였고 전례 없는 사역을 하였다. 나는 또 사람에게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통해 인식과 변화를 가지라고 한층 더 '부담'을 주었다. 나는 사람이 그저 '소비자'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생산자'가 되라는 것이다. 비록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한 내 요구 기준은 있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장난치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일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서 깨닫고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먼지를 묻혀도 되는 겉옷처럼 여기지 말아라. 자신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나의 풍부함을 누려야 하며, 나아가 나로 인해 사탄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사탄을 공격해야 한다. 내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냐?

동방에서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이 비치자 온 우주의 사람들이 동방의 빛을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더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동방의 빛이 시작되는 곳을 보려고 나섰다.

하지만 사람은 능력의 한계로 아무도 그 빛의 근원을 보지 못했다. 온 우주 아래가 온통 환해지자 모든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고, 그제야 나의 날이 인간 세상에 조금씩 다가왔음을 알았다. 사람은 모두 경축하였고, 빛의 출현으로 더는 깊이 잠들지도 혼미하지도 않게 되었다. 사람은 나의 빛 비춤 아래에서 마음과 눈이 밝아져 문득 삶의 즐거움을 느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니 동물들이 모두 머물고 있었다.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자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생활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동물들도 먹이를 찾아 동굴에서 기어 나왔다. 물론 식물도 마찬가지로 빛이 비치자 푸른 잎을 반짝이며 내가 땅에 있을 때 자신의 몫을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빛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빛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자신의 추한 몰골을 가릴 수 없음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사람들 모두 가리는 것 없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빛이 비치자 몹시 당황하고 빛의 출현에 크게 놀랐다. 또 많은 사람은 빛을 본 후에 크게 후회하며 자신의 더러움을 증오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므로 나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고난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보자 문득 빛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는 그 빛을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 가슴에 품었다. 또 많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오래전에 실명하였기 때문에 빛이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빛이 가져다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위대하지도 않지만 천하지도 않다. 사람에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 마치 내가 없어도 사람의 삶은 쓸쓸하지 않으며, 내가 있어도 사람의 삶에 기쁨을 더하지 못하는 듯했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사람에게 누릴 것을 아주 조금만 베풀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사람의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질 때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도 다시 바뀌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법칙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행히도 자신을 헌신해 내게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설마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이 자신의 취미에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나? 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내가 주는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단 말이나? 설마 사람은 나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단 말이나? 설마 사람의 에너지가 정말로 오늘날의 상태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나? 설마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나?

만물은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은 땅에서 각 나라의 경계를 이루었고, 물은 땅 사이에서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공기는 땅의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물질이 되었다. 오직 사람만이 진심으로 내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만물 중에 패역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에게 진정으로 순종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계속

사람을 엄격히 다스렸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의 영광을 온 우주 아래에 두루 퍼지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보일 것이다. 사람은 더러워서 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수천 년 동안 나를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고 감추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보인 적이 없었고, 사람은 계속 타락하여 죄의 심연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사람의 불의를 용서해 준 적이 있지만, 사람은 모두 스스로 보호할 줄 모른 채 언제나 ‘죄’를 향해 자신을 활짝 열고 ‘죄’가 스스로를 상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자애심(自愛心)과 자존감이 결여된 것이 아니란 말이나?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사람의 충성심은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 속에는 가짜가 섞여 있지 않느냐? 사람의 충성심은 모두 혼합물이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다. 사람은 모두 나를 알지 못한다. 비록 나를 알고자 해도 내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주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충성심’을 바친다면 나는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 내게 자신을 조금도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로 인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사람을 처리하여 적합한 종착지를 줄 뿐이다.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고, 큰 산이 무너질 때 사람을 파묻을 것이다. 맹수가 굶주릴 때 사람을 통째로 삼켜 버리고, 바닷물이 세차게 불어날 때 사람을 수몰시킬 것이다. 세상에서 서로 잔인하게 죽일 때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난 재해로 인해 모두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형성되고 세워진다. 어떤 세력도 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백성 중에 인간 세상의 일원이 아닌 자가 누가 있더냐? 누가 사람들과 다른 상태에 있더냐? 내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하겠느냐? 너희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서 아직도 세상에 오래 머물 생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나? 나는 지금 백성 가운데서 다니고 있고 백성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내 나라에 남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나의 나라에서 권세를 잡을 것이다. 나를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자신을 저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나에게 점유되어 내 나라의 풍성함을 이어받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자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열납할 것이며, 내게 바치는 자에게는 누릴 것을 줄 것이다. 또 나의 말을 누리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니 반드시 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나의 집에서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한 축복을 너희는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위한 약속을 너희는 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반드시 내 빛의 인도를 받아 어둠 세력의 압제를 깨뜨릴 것이고, 반드시 어둠 속에서도 빛의 인도를 잃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사탄 앞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큰 붉은 용의 나라가 무너질 때 만인 가운데 우뚝 서서 내 승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는 시님(원문: 秦國) 땅에서 반드시 흔들림 없이 굳셀 것이다. 받은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온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이 빛나게 할 것이다.

1992년 3월 19일

제20편

나의 집은 셀 수 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찾아와 이를 누린 적이 없다. 사람은 스스로 누리거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곤장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부추김에 내 앞으로 온 자들이고, 전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거나 시간을 할애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실제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은 오랫동안 형성된 풍속 습관으로 인해 온몸에 땅의 흠냄새가 가득 배어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두 무감각해져 버렸고, 세상의 쓸쓸함을 느끼지 못한 채 차가운 세상에서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삶에는 열정과 인간다운 면이 조금도 없으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의 삶이 부질없고 가치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한을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지 못한 채 총총히 왔다가 총총히 떠나간다. 내가 본 사람은 모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났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총총히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저 내가 갑자기 하늘의 약속을 이 세상에 내려 주어 방향을 잃고 헤매던 자신이 다시 영생의 도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정말 약속을 주는지 보려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사람은 환난을 겪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혹은 시련으로 인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최대한 빨리 위험 지대에서 벗어나 이상향에 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시련이 지나가면 사람은 크게 기뻐한다. 땅에서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며, 내게 생일을 축복해 달라고 한다. 그때 사람은 예전에 했던 맹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죽음이 두 번째로 다가올까 봐 매우 두려운

것이다. 내가 손으로 세상을 떠받칠 때 사람은 기뻐 춤추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의지한다. 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땅 아래로 내리누르면 사람은 즉시 공기가 부족해 생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내가 멸할까 심히 두려워 내게 크게 부르짖는다. 사람은 모두 내가 영광받는 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의 날을 삶의 밑천으로 삼아 살아간다. 인류는 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기에 오늘날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말세에 태어난 사람은 나의 모든 영광을 보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말로 정해 놓은 복이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이 실망과 미련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계획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내 손을 거쳐 갔다. 많은 영들이 저승에 떨어졌고, 많은 영들이 육신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영들이 땅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나라에서 복을 누릴 기회는 얻지 못했다. 내가 사람에게 준 것은 적지 않으나 사람이 얻은 것은 많지 않다. 사탄 세력의 공격으로 사람은 나의 모든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바라만 볼 뿐 다 누리지는 못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하늘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보물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내린 복을 놓쳐 버렸다. 사람의 영은 나의 영과 통하는 기관(器官)이 아니더냐? 왜 사람은 늘 영을 통해 나와 접촉하지 못하느냐? 왜 육신에서는 나를 가까이하면서 영을 통해서는 그러지 못하느냐? 설마 나의 본래 모습이 육신이기라도 하단 말이나? 왜 사람은 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 안에 나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없단 말이나? 내가 사람의 영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냐?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의 눈은 영계까지 볼 수 있단 말이나? 나는 영을 통해 수없이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자상이라도 입은 듯, 내가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할까 몹시 두려워하면서 먼발치에서 나를 바라만 보았다. 나는 사람의 영을 통해 사람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집에 들어가 모든 물건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문밖에 세워 두었다. 내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차가운 ‘대문’뿐이었다. 나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사람을 수없이 구했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이 든 순간 나를 떠났다. 나의 자비에 감동하기는커녕 사람은 나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없었다. 사람은 감정이 없는 냉혈 동물이다. 나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껴도 감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산속의 야만인 같아 내가 사람을 ‘아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긴 적이 없다. 나를 가까이하느니 차라리 산속에 묻혀 살기를 원한다. 산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나에게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나의 사역을 행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나의 곁으로 헤엄쳐 와 육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바닷물에 삼켜질 위험에서 벗어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의 말이 완전해져 감에 따라 하나님나라도 땅에서 차츰 모습을 갖춘다. 사람도 서서히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고 땅에서 내 마음의 하나님나라를 세운다. 하나님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정상인의 삶을 회복한다. 더는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이 아니고 사철이 봄 같은 세상이다.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쓸쓸함을 가까이하지 않고, 세상의 냉혹함을 인내하지 않는다. 사람 간의 다툼, 나라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살육이 멈춘다. 살육으로 인한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온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곳곳에 세상의 따뜻함이 넘친다. 나는 온 땅을 누비고, 보좌에서 즐기며, 수많은 별 사이에서 생활한다. 천사는 나에게 새 노래와 춤을 바치며, 더 이상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눈물로 얼굴을 적시지 않는다. 내게 더는 천사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다. 너희가 오늘은 내 앞에서, 내일은 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더냐? 오늘 치른 대가로 내일의 복을 얻게 되고 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너희는 여전히 내 영의 본질을 가까이하고 싶지 않단 말이나? 아직도 스스로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단 말이나?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약속을 원한다. 그것이 잠깐일지라도 말이다. 아무도 내일의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영원할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멸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이다.

나의 날을 세어 본 사람은 있어도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희망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에서 맴돌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되는 실망 속에서 결국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내 말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날짜를 좇거나 실망한 나머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받길 바라고, 온 땅의 사람이 나의 약속에 분깃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기 넘치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지 죽음에 잠식당한 사체(死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나라의 보좌에 앉은 이상 온 땅의 사람을 지휘해 나의 검열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불결한 것도 내 앞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그 누구도 내 사역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의 사역에 개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풀려난 후에도 재난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땅의 불길에 태워질 것이다. 성육신 기간에 내가 행하는 사역을 육신에 거하는 나와 함께 논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혐오받을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땅에 나의 혈육이 없음을 여러 차례 알렸다. 누구든 나와 그를 동등하게 대하고, 나를 그의 육체에 끌어들여 '옛정을

나누고자' 한다면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정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사람을 엄격하게 대한다. 내 사역에 개입하거나 내게 모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두 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내가 영원히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20일

제21편

사람은 모두 나의 빛 속에서 쓰러지고 나의 구원으로 굳게 선다. 내가 온 우주에 구원을 베풀 때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내 회복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복의 급류에 떠내려가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고, 급류에 휩쓸려 침륜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물결 속에서 굳게 서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급류를 따라 오늘날까지 흘러왔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저 나의 겉모습만 볼 뿐, 내 안의 풍부함은 모른다. 나는 매일같이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지만 사람은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베푸는 모든 풍부함을 내게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는 사람의 패괴를 날날이 꿰뚫어 보고 있다. 나에게 사람의 내면세계란 물속의 달과 같다. 나는 사람을 기만하지도, 건성으로 대하지도 않지만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오늘날까지 타락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가련하고 빈곤한 인류야! 왜 나를 사랑하면서도 영의 뜻은 따르지 못하느냐? 내가 인류에게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나? 사람이 나를 본 적이 없단 말이나? 내가 인류에게 베푸는 공홀이 너무 모자랐단 말이나? 온 인류의 패역자야! 너희는 반드시 나의 발아래에서 멸망하고 나의 형벌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내가 대업을 이루는 날 인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패역자의 추한 물골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기 어렵고 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것은 온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잡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모습을 찾으려고도, 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에게 패괴가 생긴 것 아니더냐? 이로 인해 결핍이 생긴 것 아니더냐? 지금까지 전 인류는 나의 공급을 받아 왔다. 나의 공급과 공홀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나는 더없이 풍성하지만 내 손에는 또 모든 재난이 쥐어져 있다. 그러니 재난 속에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간구한다고 되겠느냐? 마음으로 흐느껴 운다고 되겠느냐? 사람은 내게 진실로

간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평생 참된 광명 속에서 살지 못하고 늘 가물거리는 빛 속에서 살아왔다. 그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인류의 결핍이 초래된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 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위해 큰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에 따라 약속을 줌으로써 진실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겠느냐? 나를 향한 사람의 충성심이 하늘에 있는 나의 영을 감동시켰겠느냐? 사람의 행위는 ‘하늘’을 조금도 감동시킨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면 인류는 모두 내 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눈물범벅이 되도록 우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마음’을 내놓고 내게 있는 풍요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사람이 그렇게 ‘경건’해도 나는 사람의 ‘들끓는 열정’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함부로 주지는 않았다. 사람은 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작에 모든 사람의 가면을 벗겨 불 못에 던져 버렸기에 소위 말하는 사람의 ‘충성심’이나 ‘간청’은 내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 사람은 하늘의 구름처럼, 울부짖는 바람 앞에서 그 거대한 세력에 두려움을 느끼고는 이내 바람을 따라 날아갔다. ‘패역’ 때문에 ‘죽임’ 당할까 심히 두려웠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추한 모습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소위 사람의 ‘순종’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거짓된 ‘진심’ 아니겠느냐?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배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말이 ‘사람의 옛 성품’에 위배된단 말이나? ‘자연법칙’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정의를 내려 준 것이 아니란 말이나? 사람은 내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진심으로 내게 구한다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무가치하고 천박한 존재기에 반드시 형벌을 내려 앞으로 나아가도록 다그쳐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약속이 충분히 사람의 마음에 든다 한들 어찌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사람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언제나 실망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시달리다가 생기를 잃고 기력을 소진했기에 내가 준 풍성함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두가 내게서 영 안에 있는 감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궁한 채로 마지막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탓에 뜻대로 하지 못했다. 또 많은 사람이 내가 준 시련 속에서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지만 늘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공허함 속에서 나를 사랑했지, 내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내 앞에 두고도 거들떠보지 않은 탓에 사탄에게 틈을 주어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나를 떠나가 버렸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공급할 때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말을 영 안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공 기물처럼 아무렇게나 쓴 후 아무 때나 원래 있던 자리에 던져 버렸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나를 찾고, 시련이 닥쳤을 때 나를 양망하며, 평안할 때 나를 누리다가, 위험할 때 나를 부정하고, 바쁠 때 나를 잊고, 한가할 때 나를 무성의하게 대한다.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었다. 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진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지 않고, 내게 진심을 주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퍼져 있고 내가 기울인 심혈이 스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모든 행위의 ‘진상’과 나를 향한 기만이 차 있다. 마치 사람은 모태에서 ‘기만의 성분’을 갖고 나오고, 독특한 ‘사기술’을 타고난 듯하다. 그 ‘사기술’은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 아무도 그 근원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기만 속에서 살면서 본인이 원해서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안배’였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근원 아니겠느냐? 사람의 간계 아니겠느냐? 나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우왕좌왕한 적이 없다. 사람의 본질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핏속에 불결한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람의 골수에 사탄의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월을 거둬하며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은 사탄의 괴롭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 나는 구름 속에 숨는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악인의 손아귀에서 부림을 당할 뿐 내 모습을 찾지 못한다. 반면 사람이 나를 가까이할 때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때 사람은 나의 자애로운 얼굴을 보고 문득 크게 깨닫는다. 어느새 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 더할 나위 없는 감미로움을 느끼고, 우주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나의 사랑스러움과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더는 나를 떠나려 하지 않고 생존의 빛으로 여긴다. 사람은 내가 떠날까 몹시 두려워하며 나를 꼭 껴안는다. 나는 사람의 열정에 감동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사랑 때문에 사람에게 ‘금홀’을 베푼다. 그때 사람은 곧바로 내가 준 시련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람은 문득 삶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사람은 나의 성품 때문에 나를 ‘껴안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길 바란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사랑’이 반격을 가하면 사람은 갑자기 돌변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나의 심판에서 도망친다. 나의 자애로운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내가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진실한 사랑이

그저 공허뿐이란 말이나? 사람은 나의 빛 비춤 속에서 살 때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나? 어제든 오늘도 사람은 모두 이러한 상태 아니었더냐? 너희는 내일도 여전히 그럴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모의 마음이지, 겉으로 만족게 하는 마음이 아니다.

1992년 3월 21일

제22편

사람은 빛 속에 살지만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빛의 본질도 모르고, 빛의 출처도 모르며, 빛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더 모른다. 나는 인간 세상에 빛을 내린 후 바로 세상의 모습을 관찰했는데,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해 변화되고, 빛으로 인해 성장하고, 빛으로 인해 어둠에서 벗어났다. 온 우주 곳곳을 살펴보니 산은 안개 속에 잠겨 있고, 물은 흑한 속에 얼어 있었다. 사람은 빛의 도래로 동방을 바라보며 더 귀중한 것을 찾고자 했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좀처럼 방향을 구별하지 못했다. 온 세상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기에 내가 구름 위에서 세상을 살필 때 내 존재를 알아챈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모두 땅 위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먹을 것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의를 기울여 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날을 모르기에 수시로 동방의 희미한 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만민 가운데서 진정 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고자 만민 사이를 돌아다니고 만민과 함께 생활했지만, 땅에 있는 모두가 근심 없이 평안함에 빠져 있어 진정 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관찰하지 못하고, 빛 안에서 행하며 빛 비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은 한때 내 말을 소중히 했으나 사탄의 간계를 꿰뚫어 보지 못했고, 분량이 너무 작아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높여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느꼈으나 그로써 나를 만족게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준 ‘지위’를 두 손으로 받쳐 들어 자세히 연구했고, 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위의 복을 ‘탐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족한 점 아니겠느냐? 산이 움직일 때 네 ‘지위’ 때문에 너를 피해 돌아가겠느냐? 물이 흐를 때 사람의 ‘지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겠느냐? 천지가 사람의 ‘지위’ 때문에 뒤집힐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거둬 공허를 베풀었지만 사람은 그저 ‘이야기’ 삼아 듣고, ‘소설’ 삼아 볼 뿐 아무도 아끼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말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 것이냐? 내 말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냐? 설마 내 존재를 믿는 자가 없는 것이냐?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과 연합하여 내게

반격하며, 사탄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 나를 섬긴다. 나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간파해 땅에 있는 사람이 다시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사탄의 존재로 인해 나를 대적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나라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람은 나를 하나님나라의 왕으로 대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구세주’처럼 대한다. 그래서 내가 은덕을 베풀길 바랄 뿐 나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거지처럼 ‘간청’하고, 많은 사람이 ‘자루’를 가져와 내게 벌리며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늑대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한입에 삼켜 배를 채우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내게 관용을 간구하거나 기꺼이 나의 형벌을 받아들인다. 내가 음성을 발할 때 사람의 온갖 추태와 천태만상이 빛 속에서 본모습을 드러냈다. 빛이 비치는 가운데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급히 내 앞에 엎드리며 죄를 자복한다. 나는 사람의 ‘정직함’을 보고 또 한 번 인류를 구원 열차에 태운다. 이에 사람은 내게 감격하여 애정의 눈빛을 보내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내게 귀의하겠다는 마음은 없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 주지 않는다. 나를 ‘사랑’할 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며, 몸은 내 앞에 있지만 마음은 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너무 버릇없는 데다 내 앞에 올 마음도 없기에 나는 사람에게 적당히 ‘후원’해 주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던 데서 내게로 돌아서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자 최선을 다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온 우주 아래의 사람은 나의 날을 축하하고, 천사는 백성들 사이를 거닐고 있다. 사탄이 방해할 때, 천사는 하늘에서 섬기는 까닭에 언제나 내 백성을 도와준다. 천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세력의 침입이 있기에 오히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인생을 더 체험하게 된다. 모든 백성은 내 이름 아래 굴복하며,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한 자는 없었다. 천사의 사역으로 내 이름을 받아들였으니 모든 사람이 내 사역의 흐름 안에 있다. 세상이 기울어지고 있도다! 바벨론이 마비되고 있도다! 종교계야! 어찌 땅에 있는 내 권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겠느냐? 서기관이냐? 모든 종교 관원이냐?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냐? 천사냐? 나의 완벽함과 충만함을 축하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만민 가운데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나는 큰 붉은 용의 소굴이 있는 곳에 살지만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큰 붉은 용의 모든 ‘민중’은 이미 큰 붉은 용을 증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붉은 용 앞에서 그것을 위해 ‘본분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땅의 나라가

어찌 멸망하지 않겠느냐? 땅의 나라가 어찌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 어찌 환호하지 않겠느냐? 어찌 즐겁게 노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람의 사역이더냐? 이것이 사람 손에 달린 일이더냐? 나는 일찍이 사람에게 생존의 기반을 주고 물질을 공급했지만,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가 없이, 아낌없는 헌신 없이 어찌 쉽게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내 나라를 영광으로 찬미케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로 인해 오늘날 이 시대에 진입했고,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사람은 모두 내 빛의 인도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땅에 있는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앞길을 알겠느냐? 누가 내 뜻을 알겠느냐? 내가 사람의 요구에 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느냐?

어제는 비바람 속에서 살아남고, 오늘은 나의 나라로 들어와 내 백성이 되며, 내일은 또 내가 내리는 복을 누린다. 어느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해 봤겠느냐?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난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았더냐? 나는 비바람 속을 걸었고, 또한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해를 보내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것이 내 경륜의 절차 아니겠느냐? 누가 내 계획에 한 획이라도 더한 적이 있더냐? 누가 내가 계획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억만 명의 마음속에 살고, 억만 명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또 억만 명에게 버려지고 비방받았다. 사람 마음속에 실제로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내 말에서 내 영광스러운 얼굴을 어렵듯이 보았지만 사고의 ‘방해’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흐릿한 ‘나’를 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사람 마음속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 사람이 내 앞에 놓은 사랑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니 마치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내키는 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오늘날 나는 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남겨 두었고, 이에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왜소한 몸집에 빛을 맞고 죽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사람은 아직 스스로를 몰라서 내 앞에서 으스스대고 내 뒤에서 자신을 과시하지만, 누구도 감히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말하는 대적의 의미를 모른 채 계속 나를 속이며 자신을 높이기만 하고 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만, 인위적인 대적은 조금도 봐주지 않는다. 사람은 그 본뜻을 알아도 본뜻대로 행동하려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나를 기만한다. 나는 늘 내 말 속에 나의 성품을 담아 나타내고 있다. 사람 역시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성품’을 ‘드러낸다’. 사람은 모두 나의 심판 속에서 진심으로 복종하고, 나의 형벌 속에서 결국 나의 형상을 살아 내며, 땅에서 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1992년 3월 22일

제23편

내 입에서 음성을 발할 때, 내 눈에서 불꽃을 내뿜을 때 나는 온 땅을 감찰하고, 전 우주를 살피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내게 기도하며 나를 앙망하고, 내게 다시는 노하지 말라 간청하고, 다시는 나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무엇이 내 결심을 돌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 간청이겠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겠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누가 내 입에서 나온 말 없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내 눈의 감찰 속에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더냐? 내가 온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펼칠 때 벗어난 자가 있더냐? 산이 높다 하여 피할 수 있겠느냐? 물이 많다 하여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계획을 이행하면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내 지배를 벗어난 적이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항의의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땅에 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한다. 나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 육신을 분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진실로 나를 안 적이 없기에 늘 나를 대적하고 속이며, 내 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말을 아끼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과 나에 대한 태도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적합한 ‘보수’를 준다. 그래서 사람은 다 ‘보수’를 보고 일을 하지, 단 한 명도 자기희생적 사역을 한 적이 없다. 사람은 아낌없는 헌신은 하려 하지 않고, 대가 없는 ‘보수’는 좋아한다. 베드로는 내 앞에서 헌신했으나 그것은 내일의 ‘보수’가 아닌 오늘의 ‘값’을 위해서였다. 사람은 나와 진실하게 교제한 적이 없고, 내 앞에서 몇 번이고 나를 무성의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무성의’로 쉽게 내 칭찬을 얻으려 한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기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없이 발굴했다. 심지어 사람이 눈치채지도 못했지만 내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것도 있다. 그러자 사람은 ‘물증’을 보고 나서 더 이상 ‘겸손을 떨지’ 않고 두 손을 펼치며 자신이 정결하지 않음을 인정했다. 사람에게에는 모두가 충분히 누리도록 내가 ‘채굴’해 주어야 할 새로운 것들이 더 많이 있다. 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사역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 내 본래 계획에 따라 사람을 고쳐 준다. 사람은 과일나무와 같아서 가지를 쳐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열매 없이 마른 가지와 낙엽만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나라의 ‘안방’을 꾸민다. 이제껏 내 ‘작업실’에 갑자기 뛰어들어 와 내 사역을 방해한 자는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게 ‘해고’되어 ‘실직’되면 더 이상 살길이 없어지고, 나아가 사탄에 의해 점령된 ‘사막’에 떨어질까 봐 몹시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사람을 위로하고, 날마다 사람의 사랑을

일깨우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을 교육한다.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 같아 젖을 공급하지 않으면 영원히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내가 사람의 부르짖음 속에서 세상에 오자 사람은 곧 빛이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고,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하늘을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람은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마음속 ‘억울함’을 토로하며 음식을 받아먹으려고 내게 입을 벌렸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 더 이상 내게 뭔가를 구하지 않았고, 기분 좋게 잠들거나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다. 사람의 ‘버림’을 통해 사람은 ‘감정’이 없고 내게도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의 불쌍사나운 모습을 보고 조용히 떠났으며, 더는 사람의 진심 어린 외침에 쉽게 내려오지 않으려 했다. 어느덧 사람의 고뇌는 점점 더 커졌고, 이로 인해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불현듯 내 존재를 알아챘다. 그리하여 사람은 다짜고짜 내 옷깃을 잡아당기며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풍성한 음식을 내놓고 나를 대접했다고는 하나 사람은 여전히 나를 ‘한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대하며 조금이라도 내 ‘도움’을 얻으려 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내 앞에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마치 사업하는 데 대출금이 부족한 것처럼 내게 ‘서명’을 시키고자 있는 힘껏 ‘공세’를 펼쳤다. 사람의 모든 행동 속에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들은 나를 눈치도 없고,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할 줄도 모르는 존재로 보았는지, 내게 온갖 일의 모든 체험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은’ 다음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나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증오한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일부러 나를 대적하고 일부러 내 분노를 ‘유도’하는 것처럼 내 눈앞을 서성이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사람 중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전 인류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지면서 모두가 공허함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거역하며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 뜻에 부합한 적이 없다. 사람은 불의하여(원문: 不仁不義),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외도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 유린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불결해졌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모르고 계속 내 뒤에서 사탄을 ‘모신다’. 이에 나는 노한 나머지 사람을 무저갱에 처넣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사람은 슬피 울면서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시종일관 뻔뻔하게 반항하며 일부러 나를 노하게 하려 한다. 이런 태도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죄인으로 대하고, 내 마음속 따뜻함을 베풀지 않는다. 천사는 한결같이 나를 섬기고 내게 순종하지만 사람은 정반대다. 마치 사람은 내가 아닌 사탄에게서 나온 것 같다. 모든 천사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탄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본분만 이행한다. 모든

아들들과 백성들은 천사의 양육하에서 건강하게 자라니 연약한 자가 없다. 이는 나의 행사이자 나의 기묘함이다. 천사는 개국식의 축포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리듬감 있는 반주 속에서 내 사열대 앞으로 걸어와 내 사열을 받는다. 천사는 마음속에 ‘불순물’도, ‘우상’도 없고 또한 내 사열을 회피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면서 하늘이 삼시간에 내려앉았다. 급기야 사람은 모두 숨통이 막혀 자기 뜻대로 내게 부르짖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쓰러졌다. 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수시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가랑잎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갔다. 순식간에 쓸쓸해진 땅 위에서 사람은 각자 자기 몸을 끌어안고 언제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추후의 재앙을 기다린다. 산새는 누군가에게 슬픔을 토로하듯 곳곳을 날아다니고, 산굴에서는 사자가 울부짖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마치 인류의 결말을 예시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사람은 내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하늘의 ‘주재자’에게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광풍이 어찌 개울물 흐르는 소리에 가로막히겠느냐? 광풍이 어찌 사람의 간청 소리에 갑자기 멈추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이 겁먹었다고 하여 마음속 노를 억누르겠느냐? 사람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빗속에서 여기저기로 숨는다. 또한, 나의 노에 놀라 벌벌 떨며, 내 손이 자신에게 다가올까 봐, 마치 내가 총알을 발사하는 총구이기라도 한 양 언제든 자신의 가슴을 겨눌까 봐 심히 두려워한다. 사람은 내 원수 같기도 하지만, 또 내 친구 같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내 진짜 뜻을 알아차린 적이 없고, 내 진짜 목적을 깨달은 적도 없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거스르고 대적한다. 하지만 또 무심결에 내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람은 내가 노할 때 내 얼굴을 보기 힘들다. 나는 먹구름처럼 짙은 분노에 숨고, 우레 속에서 전 우주 위에 서서 사람에게 공황을 베푼다. 사람은 나를 안 적이 없기에 나는 사람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형벌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 나는 늘 노를 발하고, 또 늘 웃는 얼굴을 보이는 존재다. 하지만 사람은 나를 본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 모든 성품을 본 적이 없고 나팔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것은 사람이 너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억 속에 내 모습이 있고, 사람의 사유 속에 내 그림자가 있는 것 같지만,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진실로 나를 본 자는 없었다. 사람의 두뇌가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찍이 나를 ‘분석’했지만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과학 연구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라는 이 연구 항목은 언제나 공백 상태이며, 이를 메우거나 ‘세계 기록을 깨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류가 오늘날 발붙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 중 다행이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23일

제24편

나의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또 모든 사람을 멀찍이 피해 가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삶 속에 나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가득하다. 사람은 나를 안 적이 없기에 나에 대한 태도가 늘 변덕스럽고 정상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나는 쪽 사람을 보살피고 지키고 있다. 다만 사람이 어리석어 나의 모든 행사를 보지 못하고, 나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만국의 선도자이고, 만인의 지존자이다. 그저 사람이 나를 모를 뿐이다. 나는 오랜 세월 인간 세상에서 살았고, 인간 세상의 삶을 경험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나를 ‘외계’에서 온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성품’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또, 내 옷차림이 ‘너무 특이했는지’ 아무도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때서야 나는 인간 세상의 쓸쓸함과 불공평함을 느꼈다. 오가는 사람 사이를 다니며 모든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 보니 모두 병고 속에 사는 듯 ‘만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한 형벌 속에 사는 듯 ‘자유롭지’ 못했다. 스스로 속박을 받고 겸손한 척한다. 많은 자가 내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칭찬받으려 하고, 일부러 가련한 척하며 내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사람은 모두 내 뒤에서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내 말이 틀렸느냐? 이것이 사람의 ‘생존법’이 아니더냐? 어느 누가 삶 속에서 나를 살아 냈느냐? 어느 누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높인 적이 있느냐? 누가 ‘영’ 앞에서 자중한 적이 있느냐? 어느 누가 사탄 앞에서 나를 위해 굳게 선 적이 있느냐? 어느 누가 자기 ‘충성심’에 진심을 더한 적이 있느냐? 누가 나 때문에 큰 붉은 용에 의해 ‘도태’된 적이 있느냐? 사람은 사탄과 한패다. 모두 나를 거역하는 ‘고수’이고, 나를 대적하는 ‘발명가’이며, 나를 무성의하게 대하는 ‘연구자’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위해 땅 위에서 뭔가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정작 내가 부를 때는 여전히 나의 귀함을 못 느끼고, 계속 ‘자신감’ 있게 자신을 의지하지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는 귀하다. 그러나 이제껏 백 점짜리 ‘의지’는 없었다. 다들 내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러다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나는 매일 음성을 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일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온몸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 음성을 듣기도, 내 얼굴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랑하는 이가 매우 ‘아름답고’ 그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우나, 사람은 그의 얼굴을 쉽게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쉽게 듣지 못한다. 유사 이래, 내 얼굴을 쉽게 본 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베드로에게 말한 적이 있고, 바울 앞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 실제로 내 얼굴을 본 자는 없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시간을 아끼고 싶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단 말이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곗바늘은 갑자기 멈추기라도 한다더냐? 아니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라도 한다더냐? 아니면 사람이 ‘회춘’이라도 한다더냐? 오늘처럼 행복한 생활이 다시 돌아올 것 같느냐? 나는 결코 사람이 ‘낭비’한 것을 두고 적당한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한결같이 나의 사역을 할 뿐이다. 나는 결코 사람의 분주함과 사람의 부르짖음을 이유로 시간의 운행을 멈추지 않는다. 수천 년간, 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내 원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나는 만유 위에서, 또 만유 속에서 내 모든 계획의 진수를 펼칠 것이다. 아무도 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아무도 내 손에 있는 ‘상품(賞品)’을 얻을 수 없다. 내게 간청한들, 무작정 내게 손을 내밀어 받아 내려고 한들, 내 마음을 움직인 자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 내 ‘무정’한 말에 거절당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큰 자비를 베풀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자신을 ‘뒷문으로 들여보내 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어찌 내 계획을 함부로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땅에서 몇 년 더 살게 하겠다고 지구의 운행을 멈출 수 있겠느냐? 사람의 머리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하지만 또 갖추어야 할 요소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은 늘 ‘놀라운 방법’을 떠올려 일부러 내 사역을 방해한다.

내가 여러 차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여러 차례 사람의 연약함을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 주었으나 동시에 나는 사람의 무지를 이유로 적절한 ‘처우’를 하기도 했다. 다만 사람이 계속 은혜를 몰라서 오늘날 이런 결말을 맞은 것이다. 바로 온몸은 먼지투성이에, 걸친 옷은 너털너털하고, 머리카락은 ‘잡초’처럼 정수리를 ‘덮고’ 있고, 얼굴은 ‘때’ 범벅이고, 발에는 직접 만든 ‘형짚신’을 신고, 두 손은 죽은 매의 발처럼 양쪽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 말이다. 눈을 뜨고 보니, 그 모습이 막 무저갱에서 기어 나온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 노가 끓어오른다. 나는 이제껏 사람을 관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거룩한 나라에 마귀가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어찌 ‘거지’가 내 집에서 ‘공밥’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어찌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의 ‘손님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늘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만 내게는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도 나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다. 사람은 내게 조금도 정을 가진 적이 없다. 사람의 눈은 특히 ‘기민’한 듯 일단 나와 마주치면 바로 안색이 ‘변화’하고, 냉랭한 얼굴에 약간의 ‘표정’이 더해진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이유로 사람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저 우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로써 나의 땅의 사역을 할 뿐이다. 사람의 기억 속의 나는 사람을 후하게 대한 적이 없다. 하지만 가혹하게 대한 적 또한 없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 남겨 둔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작정 사람의 내면에 머무를 때 사람은 나를 무례하게 내쫓는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나를 기쁘게 해 줄 수 없다며 듣기 좋은 말로 내게 변명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의 얼굴에는 늘 ‘먹구름’이 ‘질게 낀다’. 마치 인간 세상에 언제라도 재앙이 닥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나를 ‘모셔 내보낸다’. 내가 말쑥으로 베풀고, 가슴속 따뜻함으로 베풀어도 사람은 청각 기관이 없는 것처럼 내 음성을 전혀 들은 척하지도 않고 머리를 감싼 채 도망쳐 버린다. 내가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약간 진노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떠나가자, 사람은 순식간에 거대한 풍랑의 습격 속으로 사라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은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는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불어닥치는 풍랑을 동요시킬 수 있겠느냐? 차츰, 사람은 종적을 감추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

만세 전에 나는 우주에서 온 땅을 바라보며 계획했다. 땅에 대대적인 사역을 벌여 내 뜻에 맞는 인류를 창조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나라를 세워 내 능력을 온 하늘에 드러내고, 내 지혜를 온 우주에 두루 미치게 하자고 말이다. 그리하여 수천 년 후인 오늘날에도 나는 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땅에서의 내 계획과 경영을 아는 사람은 없고, 땅에서의 내 나라를 본 사람은 더 없다. 이 때문에 사람은 뜬구름 잡듯 내 앞으로 와서 나를 속이고, ‘무언의 대가’로 나의 하늘에서의 복을 얻으려 한다. 이로 인해 내 마음속 분노가 일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사람은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지하’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상’의 일에 완전히 무지하고, 그저 자기 앞길만 좇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나의 빛 비춤 아래에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들 흑암 속에 사는 데에 익숙해진 것처럼 칙흑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 빛이 왔을 때 사람은 멀쩡이 피한다. 빛이 자기 일을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약간 짜증을 낸다. 빛이 자기 모든 고요함을 깨뜨려서 다시는 폭 자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빛을 쫓아낸다. 또, 빛이 ‘자기 주제를 몰라서’ 사람을 깨운 것처럼 깨어날 때 모두 두 눈을 감고 있다.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고, 내게 약간 불만을 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점점 빛을 강하게 하여 누구나 다 나의 빛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머지않아 빛과의 왕래에 능숙해지고, 아울러 모두가 빛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때 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춤추고, 축하한다. 땅은 순식간에 환희로 가득 찬다. 수천 년간의 고요함이 내 빛의 도래로 인해 깨진다….

1992년 3월 26일

제25편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눈 깜짝할 새 오늘이 되었다. 내 영의 인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의 빛 속에 살고 있으며,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어제에 미련을 두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나라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빛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나라가 세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나라의 따뜻함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아무도 없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 뿐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의 나라가 모습을 갖추었을 때 누가 이것 때문에 떨 듯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설마 땅의 나라가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큰 붉은 용이 간교하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나의 행정 법령을 온 우주에 공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권병을 펼치며, 온 우주에 나의 권병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제대로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의 행정 법령이 온 우주에 공개될 때가 바로 이 땅에서 나의 사역이 곧 완수되는 때이다.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왕권을 잡고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받을 때, 나의 나라는 온전히 땅에 임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진정으로 체험해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너희는 진정 나의 빛 속에서 살고 있느냐? 참으로 나의 말대로 살고 있느냐? 그 누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지 않겠느냐? 그 누가 자신의 운명을 위해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 누가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겠느냐? 그 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 설마 하나님나라의 복은 사람이 땅에서 부지런히 노동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설마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소원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일찍이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 줬으나 사람은 그저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만 볼 뿐, 진정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일찍이 사람에게 이 땅의 실제 모습을 ‘보고’했으나 사람은 듣기만 할 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사람에게 하늘의 모습을 알려 주었으나 사람은 ‘아름다운 전설’처럼 들을 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모습이 인간 세상에 나타났지만 ‘산 넘어 고개 넘어’ 찾아온 자가 누가 있더냐? 내가 재촉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여전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설마 땅 위의 생활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말이나? 설마 사람의 마음속에는 ‘높은 요구’가 없다는 말이나?

내가 예정한 백성들은 모두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나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자들이니, 그들 모두 내 눈에 소중하기 짝이 없으며 나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는 빛이 반짝인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느냐? 누가 나의 요구에 부응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설마 나의 요구가 사람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냐? 고의로 사람에게 착오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여 주고, ‘우선적 대우’를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특별 대우’ 한 것도 아니며, 그저 ‘현실에 맞게 사실적’으로 대한 것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외부에서 좌절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의 ‘고충’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더냐?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다만 나의 외형을 보고 조금 이해할 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누가 나의 마음을 세심히 살필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앞에서 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땅에 임했을 때, 칠혹 같은 어둠이 땅을 뒤덮고 있었으며, 사람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내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둘러본 모습은 참혹하기 짝이 없어 실로 눈을 뜨고 보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향락을 좇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 ‘외부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 모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 땅을 감찰했으나 생기가 충만한 곳을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나는 곧바로 빛과 열기를 뿌려 주었고, 셋째 하늘에서 온 땅을 살펴보았다. 비록 빛이 땅에 임하였고 열기가 땅에 퍼져 땅에는 오직 빛과 열기만 ‘끓고’ 있는 듯했지만,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불러 깨우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준비해 놓은 ‘채찍’을 즉시 세상에 내렸다. 채찍이 내려옴에 따라 빛과 열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땅 위에는 순식간에 처량함과 어둠으로 가득 찬다. 어둠이 오자 사람은 그 ‘틈을 타’ 계속하여 ‘향락’을 좇는다. 나의 채찍이 임하니, 그제서야 사람은 조금 지각이 들기는 했으나 결국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땅 위에서의 복’을 누리는 데 여념이 없다. 그에 따라 나는 내 입에서 나온 음성으로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전 우주의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단다. 형벌이 내려질 때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진동하니 그제서야 사람들은 놀라 깨어난다. 사람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 도망치려고 망상하나 이미 때는 늦었다. 형벌이 임함에 따라 나의 나라도 땅에 임하였으니 열국은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날마다 온 우주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모두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아무도 내 사역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본인 이외의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만든 ‘새누리’에 살면서 다른 이의 ‘방해’를 받기 싫어하고, 모두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체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설마 사람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조금도 없단 말이나? 설마 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주재자로 자리할 수 없단 말이나? 설마 인간의 영은 모두 인간을 두고 떠나갔다는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자가 과연 있었느냐? 내 마음의 뜻을 세심하게 살핀 자가 과연 있었느냐? 설마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물들로 가득 차 버린 것이냐? 내가 사람을 향해 수없이 ‘부르짖었거늘’ 내게 자비심을 베푸는 자가 누가 있느냐? 과연 인간성을 갖추고 사는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람은 비록 육체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성’이 전혀 없다. 설마 ‘동물의 왕국’에서 태어나기라도 했단 말이나? 아니면 천계(天界)에서 태어나 ‘신성’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이냐?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람은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괴물’이어서 가까이하기 어렵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내가 사람에게 실망을 느낀 것이 몇 번이고, 사람의 ‘성적 부진’으로 크게 진노한 적이 몇 번이며, 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슬퍼한 것이 몇 번인데, 나는 왜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단 말이나? 왜 항상 사람 마음속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단 말이나?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는 보물’로 삼기를 원치 않는 것이냐? 설마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란 말이나? 설마 인간의 영 안에 다른 것이 ‘머물고’ 있단 말이나? 사람은 왜 늘 통곡하길 그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은 어찌하여 언제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냐? 사람은 왜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 설마 내가 사람을 찢어 아프게 했단 말이나? 설마 내가 사람을 일부러 버렸다는 것이냐?

내 마음속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나는 사람에게 작지 않은 권병을 주어 산속의 초목, 숲속의 동물, 수중의 물고기 등 지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으나, 사람은 이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늘 근심으로 가득하다. 사람의 일생은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분주하며, 또 공허와 기쁨이 뒤섞여 있을 뿐 새로운 ‘발명과 창조’는 없다. 아무도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아무도 ‘실제적인 삶’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비록 오늘날의 사람들이 모두 나의 빛 아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공황을 베풀지 않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헛되이 이 땅에 와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이 헛되이 사라질 것이다.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의 사람들은 모두 땅의 공허함을 알고 나를 찾으며,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올 때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만물을 창조하고 또 인류를 창조했으며,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으나 사람은 도리어 나를 공격하며 내게 ‘보응’하고 있다. 설마 내가 사람에게 한 일들이 모두 사람에게 무익했다는 말이나? 설마 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이나? 사람은 왜 나를 버리는 것이냐? 사람은 왜 내게 그토록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냐? 어찌하여 땅에 시체들이 즐비한 것이냐?

설마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만들어 준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나? 나는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주었거늘 어째서 사람은 내게 빈손으로 보답하는 것이냐? 사람은 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은 왜 언제나 내 앞에 있지 않는 것이냐? 설마 나의 말이 모두 헛된 것이란 말이나? 설마 나의 말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없단 말이나? 왜 사람은 나와 협력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냐? 설마 나의 날이 왔을 때가 사람이 죽을 때라는 말이나? 하나님나라가 모습을 갖췄을 때 설마 내가 사람을 몰살시키겠느냐? 왜 나의 모든 경륜 안에서 나의 뜻을 찾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싫어하여 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나?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게 할 뿐이다.

1992년 3월 27일

백성들아! 환호하라!

사람은 나의 빛 속에서 다시 광명을 보고, 나의 말 속에서 누릴 것을 얻는다. 나는 동방에서 왔고 동방에서 빛을 발한다. 내가 영광의 빛을 발할 때 만국이 밝게 비취고, 모든 것이 비취어 어둠에 남겨지는 것이라곤 없다. 하나님나라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하다. 물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산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의 풍성함을 누린다. 모든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분발하며, 나의 나라에서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더 이상 패역과 대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람과 나는 서로에게 애뜻하며, 오손도손 정답게 살면서 서로에게 기댄다.... 이때 나는 본격적으로 하늘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사탄의 방해는 자취를 감추었고,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나의 선민은 온 우주 아래 나의 영광의 빛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삶이 아닌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삶이다. 모든 이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다 오늘날 나의 빛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찌 이 아름다운 순간을 쉬이 흘려보낼 수 있으랴? 백성들아! 어서 마음속의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위해 신나게 춤추어라! 어서 그 참된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어서 나를 위해 신명나게 북을 치며 연주하라! 나는 온 우주 위에서 기쁨을 드러낸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의 얼굴을 보인다! 나는 크게 외칠 것이다! 나는 온 우주를 초월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었다! 나는 백성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나는 푸른 하늘 위를 거닐고, 백성들은 나와 함께한다.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다니고, 나의 백성은 나를 옹위한다! 백성들의 마음은 즐겁기 그지없고, 힘찬 노랫소리는 온 우주를

뒤흔들고 하늘에 올려 퍼진다! 온 우주 아래를 뒤덮던 짙은 안개가 자취를 감추었고, 진흙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온 우주의 성결한 백성들아! 사열하는 내 앞에서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구나. 온몸에 더러움을 잔뜩 묻힌 사람이 아니라 백옥같이 흰 성결한 자이니 모두가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다! 만물이 생기를 되찾고, 모든 성결한 자가 다시 하늘 위에서 나를 섬기며, 나의 따스한 품에 안긴다. 이들은 더 이상 슬피 울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바치고, 내 집으로 돌아와 고국에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어찌 슬픔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눈물 짓겠느냐! 어찌 육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땅은 사라져도 하늘은 영원하다. 나는 만민에게 나타나고, 만민은 나를 찬미한다. 이런 삶과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삶이라.

제26편

누가 내 집에 편안히 거한 적이 있었느냐? 누가 나를 위해 굳게 선 적이 있었느냐? 누가 나로 인해 고난받은 적이 있었느냐? 누가 내 앞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느냐? 오늘날까지 나를 따르면서 차갑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왜 사람은 모두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냐? 왜 세상은 나를 저버린 것이냐? 왜 사람은 모두 나를 싫어하는 것이냐? 왜 세상에는 따뜻함이 없는 것이냐? 나는 시온에서 하늘의 따뜻함을 느끼고, 하늘의 복을 누린 바 있다. 또한 나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고통을 맛보고,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 적이 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나를 위해 무언가를 보태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 계획을 따르고, 나를 거역하지 않으며, 나를 욕되게 하는 표가 되지 않고, 나를 힘 있게 증거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 중에는 나를 위해 아름답게 증거하고,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행위가 어찌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마음에 들고 나의 뜻에 맞을 수 있겠느냐? 땅에 있는 산과 물, 화초와 나무 중 그 어느 것 하나 내 손의 행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고, 나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은 내가 요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사람의 비천함 때문이란 말이냐? 내가 사람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냐? 내가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왜 사람은 늘 나의 요구를 ‘두려워’하느냐?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왜 나의 음성만 듣고 나의 얼굴은 보려 하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말을 보기만 하고 내 영과 맞춰 보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는 것이냐?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냐? 하늘의 나는 땅에 올 수 없단 말이냐? 땅의 나는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냐? 마치 땅에 있는 나는 비천한 존재이고 하늘에 있는 나는 존귀한 존재인 듯하고, 땅과 하늘 사이에는 언제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모르는 듯하며, 나의 말에 음성만 있고 뜻은 없는 것처럼 줄곧 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사람은 모두 내 말에 노력을 쏟으며, 나의 겉모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오히려 내 말에 의해 격추되어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믿음을 검증했을 때 진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고 뽁뽁 숨겨 ‘열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심장’을 앗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읊조차 시련 속에서 굳게 서지 못했고, 역경 속에서 향기를 풍기지 못했다. 사람은 꽃피는 봄날에나 푸르름을 내비칠 뿐,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한 적은 없었다. 사람의 분량은 떠만 양상할 정도로 보잘것없어 내 기대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이가 없다. 사람은 서로 별반 차이가 없고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나의 행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의 형벌이 모든 이에게 임할 때에야 ‘자신도 모르게’ 나의 행사를 알게 된다.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사람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사람은 모두 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행사를 보게 된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내 행사가 나타나는 부분이며,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나라에서는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땅의 모습이 변함에 따라 땅의 경계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땅이 갈라질 때, 땅이 합쳐질 때가 곧 내가 열국을 산산조각 낼 때임을 예언한 바 있다. 그때 나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전 우주를 다시 나눌 것이다. 이로써 온 우주를 바로잡고, 옛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행사이다. 열국 백성이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즉시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세상에 베풀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더없이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 옛 세상이 존재할 때, 나는 열국에 크게 진노하고 온 우주에 공개할 행정 법령을 반포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내가 온 우주를 향해 말을 할 때 모든 이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즉, 온 우주 아래에서 행한 나의 모든 행사를 보는 것이다.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내게 맞서는 자는 나의 형벌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뭇별을 모두 새롭게 바꿀 것이다. 나로 인해 해와 달도 새롭게 바뀌어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닐 것이며, 땅의 만물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는 나의 말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온 우주 아래의 열국을 다시 나누고, 나의

나라로 바뀌, 땅에 있는 나라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나를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는 모두 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망당할 것이며, 사탄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불사름 속에서 쓰러질 것이다. 즉, 현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종교계는 내가 만민을 형벌할 때 각각 다른 정도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고, 나의 행사로 말미암아 정복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흰 구름을 탄 거룩한 자’가 이미 왔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나 땅에서의 행위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자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에 존재하고,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만국 만민에게 나타나고, 땅에서 친히 음성을 발할 것이며,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직접 목도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깊어짐에 따라 나는 또한 온 우주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만물이 나의 말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서서히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간다. 나는 이에 크게 기뻐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어느새 나의 대업은 이루어지고 만물도 어느새 모두 변하였다. 나는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나누어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을 분류하였다. 나의 경륜이 끝나려 할 때, 나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켜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때가 되었도다!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곧 완성될 것이다. 더러운 옛 세상아! 너는 반드시 나의 말에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다! 만물들아! 나의 말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주재자’를 얻으리라! 흠 없이 거룩한 새 세상아! 반드시 나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할 것이다! 시온산아!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내가 이기고 돌아왔노라! 내가 만물 가운데서 온 땅을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 백성들아! 어찌 나의 빛 속에서 부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인도 아래에서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은 기뻐 환호하고, 물은 즐거움에 크게 웃는도다! 부활한 이스라엘아! 어찌 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금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눈물을 보였었느냐? 누가 애곡했었느냐? 지난날의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섰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 백성으로 인해 생존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애굽아! 아직도 나를 대적하는 것이냐? 어찌 나의 긍휼을 틈타 내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형벌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소행을 쉬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며, 공의, 위엄, 진노, 형벌로 세상의 동쪽에 나타나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다!

1992년 3월 29일

제27편

사람의 행위는 나의 마음을 움직인 적도, 내게 소중하게 여겨진 적도 없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늘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고 권병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 나를 위해 행한 것은 거의 없으며, 내 앞에서 굳게 선 것도 없다.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은 내 앞에서 소리 소문 없이 거꾸러졌다. 그런 다음에야 나는 나의 행사를 나타내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실패 속에서 나를 알게 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내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품고 있다. 나는 사람이 '옛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고질병이 도지는 것'을 가장 증오한다. 하지만 무엇인지 모를 어떤 힘이 사람을 부추겨 계속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게 한다. 또 내 앞에서는 내 뜻에 부합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뒤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한다. 설마 이것이 사람의 충성심이란 말이나? 나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나? 왜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느냐? 왜 사람은 흙탕물이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늘 늪지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람을 잘못 대했던 말이나? 내가 길을 잘못 가리켜 주었던 말이나? 내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기라도 한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지옥'에서 살기를 원한다. 빛이 도래할 때 사람의 두 눈은 곧바로 실명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지옥에서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옥의 복'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것을 나에게 빼앗겨 '생존의 근본'이 사라지게 될까 두려워 보물처럼 품 안에 끌어안고 있다. 사람은 모두 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땅에 왔을 때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내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살면서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오면 사람의 가정은 평화를 잃게 된다. 내가 열국도 산산이 부숴 버릴 것이거늘 하물며 사람의 가정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누가 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복을 얻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나의 모든 말에서 나의 뜻과 행사를 보았지만, 누가 생각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말에서 혹은 내 말 밖에서 또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일찍이 나의 따듯함을 체험하고 진실로 나를 섬겼으며, 내 앞에서 진실로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영 안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굶주린 이리에게 잡혀간 것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늘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예전에 사람이 내 앞에서 한 약속과 굳은 맹세를 회상한다. 사람은 자신의 정으로 내 뜻에 보답하겠다고 했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람의 의지 때문에 나는 늘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사람이 수없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순종하니,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기 어렵다. 수없이 나를 사랑하고 충정을 굽히지 않으니, 그 진실한 마음에 탄복했다. 수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니,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진실함을 보고 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수없이 내 앞에 와서 자신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는 사람의 수심에 찬 얼굴을 어루만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사람을 애지중지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원수를 대하듯 미워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랬음에도 사람은 나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 사람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내가 위로해 주었으며, 연약할 때도 내가 붙들어 주었다. 또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었으며, 통곡할 때도 내가 눈물을 닦아 주었다. 하지만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 때 누가 마음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애간장을 태울 때 누가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상심할 때 누가 내 마음의 상처를 메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할 때 누가 자진해서 나와 협력할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대하던 태도를 오늘날에는 더는 볼 수 없단 말이나? 왜 사람의 기억에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냐? 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두 망각하였느냐? 이는 인류의 원수가 패괴시킨 까닭이 아니겠느냐?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며 나를 찬양할 때,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일면서 내 마음은 순간 매우 슬퍼지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사람과 함께했지만, ‘옛정을 나눌 수’ 없다. 사람과 나는 하늘 위아래로 갈라져 있어서 늘 함께 모일 수 없다. 누가 옛정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예전을 회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옛정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가 나와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내 마음은 참으로 걱정되고, 사람의 영은 참으로 우울하다. 영과 영이 비록 같지만 늘 함께 모일 수 없으며 서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온 인류의 인생은 비통하고 생기가 없다. 이는 사람이 늘 나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세에 떨어진 하늘의 물건처럼, 땅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개 들어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이리의 아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의 위협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큰 소리로 간청할 때, 나는 얼굴을 돌리고 차마 계속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애곡 소리가 어찌 내게 들리지 않겠느냐? 나는 세상의 불공평을 없애고, 온 땅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역을 하여 사탄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원수가 다시는 제멋대로 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땅에서 왕이 될 것이고, 나의 보좌를 땅으로 ‘ 옮겨 와서 ’ 원수가 내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나의 근심과 슬픔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다. 나는 온 우주를 평정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모든 원수가 놀라서 간담이 서늘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온 땅을 폐허로 만들고 원수를 폐허로 보내어 더 이상 인류를 파괴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미 정해졌으니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말라. 내가 당당하게 온 우주 위를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만물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애곡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되니 내 마음은 아주 흡족할 것이다. 사람이 모두 돌아와 나로 인해 기뻐하며, 온 우주의 위아래는 온통 기쁨으로 들끓는다...

오늘날 나는 열국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 사이를 운행하면서 계획한 모든 사역을 하고 있다. 사람은 내 뜻대로 각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땅의 사람은 모두 자신의 종착지를 주목하고 있다. 날이 확실히 다가왔고 천사도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시일을 지체하지 않고 만물이 더불어 기쁘게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누가 나의 날을 제멋대로 연장할 수 있겠느냐? 설마 땅에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늘에 있는 별이겠느냐? 천사이겠느냐? 내가 음성을 발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날이 온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모든 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내가 영광을 얻는 날이며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다. 공의의 심판이 머지않아 온 우주를 향하므로 모두가 두려워한다. 이는 인간 세상에 공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의로운 해가 나타날 때 동방이 밝게 비취진다. 그 후 온 우주를 밝게 비추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사람이 진실로 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나의 백성은 모두 나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나의 날이 임하기를 갈망한다. 내가 공의로운 해로 온 인류에게 보응하여 인류의 ‘종착지’를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나라는 온 우주 위에서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역만 백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천사의 협력으로 나의 대업이 곧 완성될

것이다. 아들과 백성이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그들과 함께 모이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 나라의 백성이 어찌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뛰어다니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가 없이 모이는 것이란 말이나?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며, 모든 사람의 말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 나는 돌아올 때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을 정복할 것이다. 때가 왔도다! 나는 나의 사역을 펼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고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이다!

1992년 4월 2일

제28편

내가 시온에서 왔을 때 만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시온으로 돌아갔을 때 만인이 나를 영접했다. 내가 왕복하는 중에 내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적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내 사역은 계속 순조롭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왔을 때, 모든 것들은 침묵 속에서 나를 맞이하였고, 내가 다시 떠나 자신들이 기뻐할 곳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였다. 또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인도를 순순히 따르고, 내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말로 많은 피조물을 온전케 하였고, 많은 패역한 자식들에게 형벌을 가했다. 그래서 만인은 내 말을 주목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하며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계속 음성을 발하여 더 빨리 내 사역을 진행하고, 더 빨리 땅에 만족스러운 국면을 불러와 땅의 쓸쓸한 광경을 돌이키려고 한다. 내 눈이 궁창을 살필 때, 즉 내가 다시 전 인류를 향해 돌아섰을 때, 온 땅에 바로 생기가 돌았다. 더 이상 흙먼지가 날리지 않았고, 진흙으로 뒤덮이지도 않았다. 나의 눈은 즉시 눈부신 빛을 발산하여 온 땅의 사람이 나를 우러르고 내게 의지하게 하였다. 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 오늘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내게 진심으로 의지하였더냐? 누가 마음으로 나의 대가를 얻었더냐? 누가 나의 집에서 편히 거했더냐? 누가 내 앞에 진심을 바쳤더냐? 내가 사람에게 요구할 때 사람은 그 즉시 자기의 ‘작은 창고’를 닫아 버린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베풀 때면 사람은 냉큼 입을 벌려 나의 풍요로움을 빼먹고는 내가 자신에게 ‘반격’할까 봐 몹시 두려워하며 속으로 늘 별별 편다. 그러니 사람은 입을 ‘어중간하게 벌린’ 상태로 내가 주는 풍요로움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지만 사람은 늘 ‘내 손을 잡고’ ‘금홍’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 사람의 간청에 나는 다시 ‘공홀’을 베풀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매서운 말을 해 준다. 그러니 문득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은 직접 내 ‘공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다. 사람이 나의 모든 말을 먹고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 사람의 분량은 내 뜻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사람의 간청은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효과를 보게 된다. 나는 인류가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간청’할 때에 축복한다.

나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 왔고 계속 말해 왔다. 하지만 사람은 오늘날과 같은 내 음성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나의 위엄이 어떤 것인지, 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겪어’ 본 적도 없다. 지난 세월 속에서 나에 관한 전설을 들어 본 자는 있어도 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진정 알게 된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날의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긴 하지만 아직도 내 입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몰라 사람은 내 입을 ‘화수분’으로 여긴다. 사람은 내 입에서 국가 기밀이든, 하늘의 신비든, 영계의 움직임이든, 인류의 종착지든 뭔가를 얻길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면, 모든 사람이 바로 ‘병상’에서 일어나 나의 도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사람 내면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영양 보충’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정신적 지주’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자 ‘병증’이다. 나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람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모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모두가 ‘약’의 작용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 너희는 정말로 큰 붉은 용을 증오하느냐? 진심으로 증오하느냐? 왜 내가 이렇듯 여러 차례 묻겠느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거듭 반복하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큰 붉은 용의 형상은 대체 어떠하냐? 정말로 없었느냐? 정말 ‘아비’처럼 대하지 않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은 내 질문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은 대중의 분노를 유발시키려는 것도, 반기를 들게 하려는 것도, 사람에게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큰 붉은 용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조급해하지 말라. 내 말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아무도 내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다. 나는 온 땅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고, 땅의 마귀들을 흔적도 없이 소탕할 것이다. 나는 일을 시작했고, 큰 붉은 용이 사는 곳에서 형벌의 시작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 형벌은 이미 온 우주에 내렸고, 큰 붉은 용과 온갖 더러운 귀신은 결코 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가 온 땅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땅의 사역을 완성할 때, 즉 심판 시대가 끝날 때, 나는 본격적으로 큰 붉은 용을 형벌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틀림없이 내가 그것에게 내리는 공의로운 형벌을 볼 것이고, 나의 공의에 칭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온 땅에서 나를 영원토록 찬미할 것이다!

심판 시대가 절정기에 들어설 때, 나는 내 사역을 서둘러 끝내지 않고, 더 나은 효과를 위해 형벌 시대의 ‘증거’들을 결합해 모든 백성에게 보여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내가 큰 붉은 용에게 형벌을 가하는 수단이다. 나는 백성에게 이것을 직접 보게 하여 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할 것이다. 백성이 나를 누릴 때가 큰 붉은 용이 ‘형벌받을’ 때이다. 큰 붉은 용의 민중이 일어나 그것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으로, 이는 내가 백성을 온전케 하는 방식이자 모든 백성의 생명이 자랄 좋은 기회이다. 밝은 달이 떠오를 때 조용한 밤은 순식간에 깨진다. 달이 꼭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기분에 취한 모든 사람은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한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한 사람의 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얼굴에 열은 미소가 번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맑은 향기가 퍼진다. 한 줄기 ‘미풍’이 불어오자 사람은 그윽한 향기를 느끼며 그것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때가 바로 내가 인간 세상에 임한 때라, 사람은 더더욱 그윽한 향기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 모두가 향기 속에서 살게 된다. 나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람은 나와 화목하게 산다.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다른 눈으로 보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부족함을 훈계하지 않는다. 사람의 얼굴에서는 수심이 사라지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죽음도 사라진다. 오늘날 나는 사람과 함께 형벌 시대로 발을 내디디고,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간다. 나는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즉, 인간 세상에, 인류의 패역한 곳에 나의 채찍을 내리친다. 사람의 눈에 나의 채찍은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나의 채찍은 내 원수들을 놓아주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원래 기능을 발휘한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본래 뜻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내 뜻을 거스른 것과 변질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에 물은 포효하고, 산은 무너지고, 강은 붕괴되고, 사람은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떨고,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칠흑으로 변한다. 사람은 더 이상 평안할 날이 없고, 땅은 더 이상 평온할 때가 없으며, 하늘은 더 이상 차분하지도, 침묵하지도, 인내하지도 않는다. 만물은 다시 ‘바뀌어’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 땅의 가정은 모두 ‘파탄’되고, 땅의 나라는 ‘분열’되며,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 땅의 모든 옛 모습은 나에 의해 깨질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남겨 두지 않는다. 내게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나의 증오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람은 사람과의 ‘정’ 때문에 나를 한쪽에 밀쳐 두었고, 그로 인해 나는 사람의 눈에 ‘제삼자’가 되었다. 또한, 사람은 사람과의 ‘정’ 때문에 나를 잊었고, 사람의 정 때문에

기회를 틈타 다시 ‘양심’을 주워 들었으며, 사람의 정 때문에 언제나 나의 형벌을 싫어했다. 사람은 정 때문에 늘 내가 공정하지도 의롭지도 않다고 말하고, 내가 일을 처리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설마 땅에 내 ‘친족’이라도 있단 말이나? 누가 나처럼 내 모든 경륜을 위해 침식을 잇고 밤낮으로 애썼더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인 사람과 동류가 되겠느냐? 내가 어찌 계속 사람과 함께 땅에서 생활하며 움직일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걱정하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의 간청으로 되겠느냐? 나는 사람과 모이고 사람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까지 사람은 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날이 언제 오겠느냐? 사람은 나의 마음을 걱정하고 헤아려 본 적이 없다지만, 누가 빛이 없는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의 축복이 있었기에 사람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다.

1992년 4월 4일

제29편

만물이 소생할 때 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다. 이때서야 사람은 나의 친근함을 조금 느꼈다. 사람과 나의 왕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사람은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조금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나를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자 사람은 모두 나를 보았다. 하지만 재앙이 인간 세상에 닥치자 사람은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이고, 나의 형상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재앙’의 도래에 놀라 당황해하며 나의 당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은 계속 알아차리지 못했고, 계속 나를 알지 못했다. 오늘날 내가 친히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내 앞으로 와 내게서 무언가를 얻으라고 알려 줬지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멀리 피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른다. 내가 우주 땅끝을 두루 밟을 때 사람은 반성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광받는 날이요, 내가 돌아오는 날이요, 또한 내가 떠나가는 날이다. 오늘날 나는 전 인류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펼쳤고, 온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내 경륜의 마지막 부분을 전개했다. 만약 또다시 경솔하게 구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무자비한 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는 내가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경륜의 단계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계획한 단계에 따라야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고, 나아가 전 우주

아래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따라 분주했다. 전 우주 위아래는 ‘환희에 물들었고’, 사람은 나에게 의해 움직였다. 그래서 큰 붉은 용마저도 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갈팡질팡하다 나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음은 원하지 않으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마지못해 ‘나의 지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내 모든 계획 속에서 큰 붉은 용은 나의 부각물이 되었고, 나의 ‘원수’가 되었지만, 또 나의 ‘일꾼’이기도 하다. 이에 나는 늘 큰 붉은 용에 대한 ‘요구’를 늦추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성육신의 사역은 ‘그것의 집’에서 완성한다. 이렇게 하면 큰 붉은 용이 나를 위해 힘쓰게 하는 데 더 유리하며, 이로써 그것을 정복하여 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사역함과 동시에 모든 천사도 나와 같이 ‘결전’을 벌이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내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내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를 배반할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 우주 사역의 동태이다.

내가 인간 세상에 온 목적과 의의는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여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의 기능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내가 인류를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만물을 다 마련해 주었고, 그 후에 내 요구에 따라 내가 주는 ‘풍요로움’을 얻게 했다. 그러기에 나는 전 인류가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다. 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사랑의 보호 속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증오의 형벌 속에 사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내게 간구하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실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순리를 따르고, 더는 거역하지 않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인생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세상의 불공평함, 쓸쓸함, 처참함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만약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계속 대자연을 끌어안고 ‘인생’의 맛을 자세히 음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실정이 아니란 말이냐?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발하는 구원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냐? 왜 인류 가운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자는 없었느냐? 왜 항상 형벌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시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보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는 것이냐? 나는 일찍이 여러 차례 인류에게 형벌을 ‘베풀었다’. 하지만 사람은 보기만 할 뿐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때에도 ‘연구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임한 것이 무자비한 심판뿐인 것이다. 이것은 그저 내 사역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켜 나를 사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우주 아래에서도 왕권을 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나라의 왕이자 우주의 머리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다음 단계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 선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시작하고, 전 우주에 나의 행정 법령을 공개할 것이다. 나는 형벌의 방식으로 이방에서 내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즉, ‘무력’으로 모든 이방인을 대할 것이다. 물론 이 사역은 선민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과 함께 진행된다. 나의 백성이 땅에서 왕권을 잡을 때가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복되는 때이자 내가 안식하는 때다. 그때 비로소 나는 정복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고,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감춘다. 내게 정복되어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직접 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말세에 태어난 자의 복이자 내가 정한 복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다. 내 모든 사역은 전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어떤 사역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독립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과거의 사역이 오늘의 토대가 아니겠느냐? 과거의 말씀이 오늘날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과거의 단계가 오늘의 기원이 아니겠느냐?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칠 때가 바로 온 우주의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이고, 온 천하의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며, 내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빛이 없는 땅에서 살고, 또 환경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생활로, 역대 그 누구도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역사상 유례없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상황이고, 함축적인 뜻을 담고 있다. 나의 날이 이미 전 인류에게 다가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으니 누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더러운 바벨론 성은 결국 종말의 날을 맞이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며 하늘과 땅이 모두 새롭게 변화했다.

내가 만국 만민 앞에 나타날 때 하늘의 흰 구름이 일렁이며 나를 엄호한다. 땅 위의 모든 새가 지저귀며 나를 위해 기쁘게 춤추고 땅의 분위기를 띄운다. 그리하여 땅의 만물은 활력이 넘쳐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운무 속에 있을 때 사람은 나의 얼굴과 나의 두 눈을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때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에 풍문으로 나에 대한 ‘역사 기록’을 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 그저 반신반의했다. 내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얼굴은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광활한지, 아니면 녹색 초원처럼 한없이 넓은지 아무도 몰랐다. 사람은 오늘날 운무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말로만 듣던 내가 ‘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느꼈다. 또, 내 ‘행적’ 때문에 나에 대해 약간 ‘감탄’했다. 하지만 사람은 구름 사이로 나의 일부를 봤을 뿐 여전히 나를 모른다. 이에 내가 팔을 내밀어 사람에게 보여 주자 사람은 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내 손에 죽을까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은 ‘감탄’에 약간의 ‘경외’를 더했다. 사람은 주의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몹시 두려워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관찰’에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 내 손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내 모든 행사를 보고 나서야 사람은 내게 약간 호감을 느끼고, 점점 내 앞에 와서 나와 왕래한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 사람은 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더는 사람으로부터 숨거나 감추지 않는다. 나는 온 우주 아래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육에 속한 자라면 나의 모든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릴 것이다. 내가 돌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벌에서 벗어나 영적인 고통도, 육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민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나 왕권을 잡음으로써 온 우주 위아래에 시체 냄새가 사라지게 하고, 나의 맑은 향기로 전 세계를 채울 것이다. 나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깨어나고 있고, 땅의 모든 것이 준비를 마쳤으며, 더 이상 땅의 ‘생존’의 날은 없다. 내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6일

제30편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패역과 연약함을 취합하고 정리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사람의 연약함을 직접 살펴보고, 사람의 패역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인간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의 온갖 풍상고초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사람의 차이점 아니겠느냐? 분명한 차이 아니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의 사역을 해낼 수 있겠느냐? 설마 내가 피조물과 같은 부류겠느냐? 사람이 예전에 나를 사람과 ‘같은 부류’로 나눈 것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니더냐? 내가 왜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져야 한단 말이나? 어째서 인류는 계속 나를 저버리고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이냐? 내 마음은 더없이 슬프나, 사람이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찌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의 일을 자신의 종신대사처럼 여긴 적이 없다. 그래서 모두 방금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정신이 흐리멍덩한 것이다. 내가 부를 때 사람은 그저 ‘꿈속’에 있기에 나의 행사에 대해 줄곧 아무것도 모른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다. 하나님나라의 축가가 울려 퍼지자 그제서야 몽롱한 눈을 뜨지만 마음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있다. 내가 채찍으로 세상을 내리칠 때도 사람은 그저 조금

관심을 가질 뿐이다. 마치 사람의 운명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조금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나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사탄에게 묶여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만유 위에서 다니고 만유 가운데서 생활하며 또 만인의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사람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고, 나를 ‘비범한 자’ 또는 ‘측량할 수 없는 자’로 여기게 되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졌다. 나는 셋째 하늘 위에 누워 온 우주의 사람과 사물을 관찰한 적이 있다. 내가 편안히 잠드니 사람도 나의 ‘휴식’을 방해할까 봐 모두 조용해졌고, 내가 깨어나니 나의 환심을 사는 일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땅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지 않느냐? 오늘날 하늘의 나와 땅의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이가 있더냐? 하늘의 나를 높이 보지 않는 이가 있더냐? 땅에 있는 나를 낮보지 않는 이가 있더냐? 어째서 사람은 늘 나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놓는 것이냐? 어째서 사람은 늘 나를 두 가지 태도로 대하는 것이냐? 땅에 있는 성육신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만유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니더냐? 하늘에 있는 내가 오늘날 땅에도 있지 않더냐? 어째서 사람은 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이렇게도 크단 말이냐? 이 문제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지 않느냐?

사람은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음성을 발할 때 늘 거기에 ‘조미료’를 넣고 싶어 한다. 그들의 후각이 나보다 더 예민한 양, 아니면 아주 강한 맛을 좋아하는 양,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 양, 사람은 ‘수고스럽게’ 나의 사역을 ‘보완’하려고 한다. 내가 고의로 사람의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나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순결케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부족함이 너무 많으므로 나는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이로써 나를 만족게 할 것을 ‘건의’한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나를 알고 있을 뿐 이 사실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래를 황금으로 여기며 아끼는 듯하다. 내가 일깨워 주면 그중 일부를 버리지만 그 대신 금과 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에 남아 있는 것들을 계속 즐긴다. 그로 인해 사람은 늘 내 앞에서 겸손하고 인내할 뿐 나와 합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관념이 너무 많은 탓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더는 나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도록 그들의 소유와 어떠함을 전부 ‘빼앗아’ 멀리 던져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사역 때문에 사람은 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내가 두 번째로 사역을 끝낸 후 자신을 ‘지옥’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내가 또 ‘방식을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내가 사역을 끝내면 자신이 의탁할 곳을 잃게 되지 않을까, 나에게 재차 버림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람은 항상 낡은 관념으로 나의 새

사역을 가늠한다. 나는 사람이 나의 사역 방식을 파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 주었다’ 말이나? 사람의 낯은 관념이 바로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기 아니더냐? 내가 사람에게 말할 때면 사람은 자신이 ‘내 마음에 들까 봐’ 두려워하며 늘 나의 시선을 피한다. 그래서 사람은 나의 ‘검열’을 ‘받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관념 때문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도 사람은 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냐? 설마 내가 사람에게 옆드려야 한단 말이나?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왔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 임했으며, 사람들 가운데 와서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전부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나는 간곡하고 애달프게 말했거늘, 누가 나의 어떠함과 소유를 보았더냐? 설마 내가 아직도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고 있단 말이나? 어째서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냐? 사람의 사역이 ‘바쁘기’ 때문이냐? 사람은 ‘훌륭한 재목이 되고자 애쓰는데’ 내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냐?

사람은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니 쉽게 접촉할 수 없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니 함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내 앞에 내놓지 못한다. 설마 나의 요구가 너무 높은 것이냐? 사람이 너무 ‘연약한’ 것이냐? 어째서 사람은 항상 나의 요구 기준을 멀리서 ‘눈을 들어 보기만’ 하느냐? 정녕 그 기준에 이를 수는 없단 말이나? 나의 요구는 사람의 ‘체격’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사람의 분량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은 나의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버림받았는지 모르고, 또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눈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마치 내 몸에 가시가 잔뜩 돌아 혐오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쳐졌다. 사람들이 나를 몇 번이나 헐값에 사들였는지, 또 몇 번이나 비싼 값에 팔아넘겼는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 ‘이지경’이 된 것이다. 사람은 지금도 나를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나를 팔아 수억 달러의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사람들 사이의 ‘매개물’이 되고, 사람들의 전쟁에 사용되는 ‘핵무기’가 된 듯하며, 사람들 사이에 체결된 ‘평화 조약’이 된 듯하다. 한 마디로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한 푼 값어치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정용품’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며, 그저 사람을 구원하고 언제나 긍휼히 여길 뿐이다.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사람을 지옥에 밀어 넣으면 내 속이 ‘후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내가 전적으로 ‘지옥’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마치 내가 인신매매를 하는 ‘전문 기관’인 것처럼, 사람을 유괴하는 전문가인 것처럼, 사람을 손에 넣은 뒤 비싸게 팔아넘긴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모두 ‘몰래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의 ‘사랑’이란 말이나?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고, 나는 늘 사기를 당하는 역할만 한다. 내가 너무 성실하고 우직해서인지 사람은 나의 이 약점을 발견한 후로 계속 나를 속이고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함부로 죄를 덮어씌우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실상이다. 어쩌면 너무 ‘과장된’ 말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저 사람들의 많은 ‘양해’를 ‘바랄’ 뿐이다. 내가 사람의 언어에 그리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아마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해 주길 ‘바란다’. 나는 사람의 ‘처세술’에 능통하지 못하고 말하는 방식에 신경 쓸 줄도 모르기에 사람의 ‘초라한’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말도 많이 했을 것이다. 어쩌면 사람이 지닌 병의 근원을 지적하고 병의 증상을 폭로하는 말도 했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조제한 약을 몇 알 먹어 보길 권한다. 나는 사람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약 또한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그리 ‘실제적이지’ 않은 말도 했을 수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동작이 ‘날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인내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계속 나의 말이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1992년 4월 9일

제31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있었던 적은 없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에게 ‘구할’ 때, 사람은 눈을 꼭 감고서 내 행동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도 되는 듯 사람은 늘 내 행사를 귀찮아한다. 마치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늘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 ‘울곤고 공의로운’ 사람을 화나게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인내하며 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내가 인간 세상의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을 경험했고, 비바람 속에서 ‘가정’의 핍박과 인생의 험난함, 그리고 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땅에 왔을 때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 고통받는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내 호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성욕신한 것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란 말이나?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내 사랑이

사람의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단 말이냐? 사람은 내가 땅에서 겪은 고통 때문에 ‘동정’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내 ‘불행한 처지’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다. 하지만 누가 진정 내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내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사람도 한때 나와 깊은 정을 나눴고, 꿈속에서 늘 나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이 어찌 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내 슬픔을 헤아린 적도 있지만 누가 나와 ‘동병상련’했느냐? 땅에 있는 사람의 ‘양심’이 내 슬픈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단 말이냐? 땅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 힘든 마음속 고통을 토로할 수 없단 말이냐? 영과 영은 본래 서로 의지하지만 육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통제를 잃었다’. 나도 사람에게 내 앞으로 오라고 일깨운 바 있지만 사람은 내 부름에 따라 내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그저 말하기 힘든 고통이라도 있는 듯,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 듯 그렇그렇한 눈으로 높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손을 모은 채 하늘 아래에 엎드려서 내게 간구했고, 나는 이를 긍휼히 여겼기에 인간 세상에 내 축복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왔지만 사람은 하늘에 대고 했던 맹세를 이미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패역이 아니냐? 사람은 왜 늘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찔러 다치게라도 했느냐? 내가 사람의 몸을 부서뜨리기도 했느냐? 나는 사람에게 내 심정을 토로하거늘 왜 사람은 늘 나를 피하는 것이냐? 사람의 ‘기억’은 뭔가를 잃어버려 그것이 어디 간 줄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늘 이것저것 빠뜨리기 일쑤고, 전 인류의 ‘삶의 나날’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사람은 없고, 그저 서로 짓밟고 죽이기만 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참상이 벌어졌고, 전 우주 아래는 더러운 물과 진흙 속으로 함몰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내가 만인 가운데 올 때는 바로 사람이 내게 ‘충성을 다할’ 때이다. 이때 큰 붉은 용도 사람에게 ‘마수를 뽐내기’ 시작한다. 나는 ‘초대에 응하여’ 사람이 내게 보낸 ‘초대장’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자리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나를 봐도 아는 체하지 않는다. 내가 고급스러운 복장을 하지 않고 내 ‘신분증’만 지닌 채 사람과 함께 ‘자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얼굴에 고급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쓰지도 않고, 발에는 평범한 ‘집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입술에 ‘립스틱’도 바르지도 않고, ‘인사치레 말’도 할 줄 모르고, 말을 술술 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 마디 한 마디가 사람의 폐부를 찌르자 사람은 내 입에 대해 조금 더 ‘호감’을 가졌다. 이런 차림새만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식전도 없고 지혜도 없는, 시골에서 온 ‘촌사람’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축의금’을 낼 때에도 사람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보지 않고, 무심하게 꾸물대고 성가서 하며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가 손을 뻗자 사람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친다. 사람이 내 모든 ‘하례금’을 받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바로 나를 백만장자로 보고 내가 걸친 남루한 옷을 아래로 ‘잡아당긴’ 후 내 동의도 없이 내게 새 옷을 갈아 입힌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로 인해 기쁘지 않다. 나는 이런 안락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이런 ‘상급 대우’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또 나는 본래 거룩한 집의 출신이기 때문이다. 내 출신이 ‘빈한’하기에 나는 옷을 대령하면 손을 뻗고, 밥을 대령하면 입을 벌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이 내 심정을 이해하고,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내가 하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받아들이길 바랄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론’을 말하거나 사람의 ‘처세 비결’을 이용해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며, 사람의 안색을 살피거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사귄 만한 상대가 아니라 생각하고, 내 입이 ‘말을 안 들어’ 늘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항상 나를 미워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일찍이 인간 세상의 ‘심리학’을 ‘깊이 연구’해 봤고, 사람의 ‘처세 철학’을 ‘본받아’ 봤으며, 사람의 화법을 충분히 익혀 사람의 ‘안색’에 따라 말해 보려고 사람의 ‘어학전문대학’에도 가 보았다. 내가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여러 ‘전문가’도 만나 봤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것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내 노력은 조금의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말은 내게서 ‘반사’되었고, 이로 인해 이 말은 땅에서 끝났다. 사람이 모르는 사이 이 격언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에 의해 ‘반증’되었고, 이 말이 성립되지 않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공손히 사과하는 바이다.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너무 아둔’한 것을 어찌겠느냐? 인간 세상의 화법을 습득하지 못하겠고, ‘처세 철학’에 정통하지 못하겠고, 사람과 ‘사귀지’ 못하겠다. 나는 그저 사람에게 나로 인해 ‘몸 상하지’ 말고, 그래도 인내하며 심중의 화를 누르라고 권할 따름이다. 우리가 서로 왕래하게 된 것을 어찌겠느냐? 우리가 이때에 만난 것을 어찌겠느냐? 우리가 서로 같은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겠느냐?

내 모든 말에는 내 성품이 깃들어 있지만 사람은 내 말 속에서 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글자만 파고들고 있다. 이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 나에 대해 관념을 가지면 내가 사람을 온전케라도 한단 말이나? 설마 땅의 것들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나? 나는 계속 사람에게 내 말을 따라 하도록 가르쳤다. 하지만 사람은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말을 따라 하지 못했으며, 내가 친히 가르쳐도 늘 배우지 못했다. 이때야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또 나에 대한 사람의 ‘열정’과 ‘호기심’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다른 사역을 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의 부족함을 이유로 사람을 모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의 부족함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또 한 차례 사람을 한곳에 모아 나의 다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 주었다. 이때 사람은 또다시 행복에 빠져들었고,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하늘의 구름 사이로 흘러 퍼졌다. 내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자 사람은 문득 새로운 생기를 느꼈고, 더 이상 내게 숨기려 하지 않았다. 꿀의 달콤함을 맛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낡은 물건을 모두 꺼내어 ‘교환’하려고 했는데, 내가 ‘쓰레기 집하장’이나 ‘폐품 매입소’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내게 와서 열렬히 참여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기념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너도나도 와서 ‘믿으며’ 내가 마련한 활동에 참가했다. 이때 사람은 손해를 볼까 겁먹지 않았다. 활동 ‘밑천’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참가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가 ‘기념품’이 없었다면 사람은 경기장에서 퇴장하고 내게 자신들의 밑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자’까지 계산할 것이다. 오늘날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현대화’가 실현된 데다 ‘고위 간부’가 직접 ‘농촌에 가서’ 일을 안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은 순식간에 몇 배로 커졌다. 게다가 사람의 ‘체격’도 갈수록 좋아졌기에 사람은 내게 ‘감탄’의 눈빛을 보내고 내 신뢰를 얻고자 나와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

1992년 4월 11일

제32편

사람이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은 매우 기쁘다. 그러므로 나는 즉시 인간 세상에 복을 내려 사람이 나와 함께하게 한다. 사람은 나를 거역하는 원수가 아닌 내 마음에 합한 친구라 나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내 사역에서 사람은 상급 기관에 종사하는 존재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좀 더 신경을 쓴다. 사람은 본래 나의 사역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양망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속에 내 자리를 예비하였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비한 자리가 있지만 사람은 내가 내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 마음속의 ‘거룩한 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나는 신분이 너무 ‘미천한’ 관계로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람에게 의해 ‘도태’되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높고 큰 ‘나’인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니 사람은 아직도 먼 곳만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서 그리는 그분만을 기다린다. 내가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절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공손히 서서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인 나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 봤다. 나는 사람의 상처는 보지 않고 사람의 온전한 부분을 보며 기쁨을 얻었다. 사람의 눈에 나는 단지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별’이고,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늘날 땅으로 내려온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에 ‘해석’을 덧붙였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볼까 봐 몹시 두려웠던 것이다. 내 ‘형상’에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기에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하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에 있는 나는 식견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적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나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사람에게 비천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라면 분명 인류의 언어에 능통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나는 인류의 언어에 능통하지도 않고, 심지어 때로는 사람의 ‘결핍한 것’을 ‘공급’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나도 ‘죄책감’이 약간 든다. 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에 따라 그 부족한 재료를 넣어 주며 일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가 높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점손’이 드러난다. 사람은 언제나 앞서 걸으며 나를 ‘안내’하기 좋아한다. 내가 ‘방향을 잃을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서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까 봐 몹시 두려워 계속 나를 ‘끌고’ 앞으로 가고 있다. 사람의 믿음에 대해 나도 자못 ‘호감’이 있다. 사람은 나를 위해 침식을 잊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를 위해 한숨도 못 자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다’ 머리가 하얗게 세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이 온 우주를 ‘초월’하고, 역대 사도와 선지자를 ‘초월’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이 뛰어난 기예를 가졌다고 손뼉을 쳐 주지도 않고,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저 내 계획에 따라 일을 할 뿐 어떤 이에게도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내 뜻을 모른 채 나에게 계속 무언가를 간구한다. 마치 내가 사람에게 주는 풍성함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듯, 일종의 공급 부족 상황인 것 같다. 요즘 세대 사람은 다 ‘통화 팽창’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 손에 내가 누리라고 준 것들이 넘치는 상황이 초래됐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은 나를 귀찮아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활은 무질서하게 변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누리라고 준 것을 안고서

자세히 관찰하기도 한다. 과거에 기근을 겪었던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겨우 누릴 만한 것이나마 생겼기에 ‘은혜에 매우 감사하며’ 나에게 대한 태도를 다소 바꿨다. 사람은 계속 내 앞에서 온다. 내가 사람에게 준 것이 너무 많기에 사람은 내 앞에서 내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말’을 한다. 온 우주를 거닐며 산책할 때 나는 우주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땅에 사람들이 뱅뱅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는 한 명도 없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슬피 탄식했다. 순간 사람은 흩어졌고,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 다시는 모이지 않았다. 나는 그 기회에 인간 세상에 왔고,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적합한 사역을 하고, 적합한 사람을 골라 나의 일을 맡겼다. 나는 사람을 내 형벌에서 나오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고,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다. 내 경영 속에 사람의 역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없고, 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단지 사람이 나와 협력할 의지를 갖길 바란다. 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거나 머리 둘 곳을 마련하거나 화려한 옷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내 관심사가 아니다. 사람이 내 뜻을 알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땅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마음으로 나를 맞이하느냐? 누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사랑에는 항상 거품이 섞여 있어 나조차 사람의 사랑에서 거품이 건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 사람에게도 적잖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기묘막측한 자’로 여겨져 내 앞에 설 ‘자격’을 얻었다. 마치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은 이 ‘지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이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도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겠느냐? 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땅에서 나는 사람과 ‘한배를 타고 고난을 같이하고 있다’. 내 ‘신분’ 때문에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이 지경’에 처한 것이다. 땅에는 늘 내가 편히 거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도 나를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몇십 위안의 ‘구제금’을 마련했다. 나는 그제야 발붙일 곳이 생겼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처지가 됐을지 누가 알겠느냐!

내 사역이 완성될 때,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생계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본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의 것’을 사람에게 쏟아부어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나의 시련 속에서 검증을 받고 있다. 내 손이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닿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감탄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미움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이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즉시 채취하여 표본으로 삼는다. 내가 ‘현미경’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성분이 없었다. 수많은 세월, 사람은 나를 속이고 기만해 왔다. 알고 보니 사람의 좌심방, 우심실에는 나에 대한 ‘미움’이라는 독소가 짙게 차 있었다. 그러니 내가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 줘도 사람은 여전히 각성하지 않는다. 사람의 뇌리 속에 이런 것들은 오늘 다시 언급하기에는 불편한 과거의 일인 듯했다. 그래서 사람은 냉랭하게 ‘화학 실험 결과’를 본 후 결과표를 내게 건네고 아무렇지 않게 훌쩍 떠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해요.”라는 따위의 말을 한다. 사람은 경멸하는 미소를 짓고 ‘압박하는’ 눈빛을 희미하게 내비칠 뿐이다. 마치 내게 너무 성실하게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고 암시하는 것 같았고, 내가 사람의 ‘민낯’을 들춰내어 사람의 ‘뱀’을 위반한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사람의 미움이 어디서 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봤을 때 흐르는 사람의 피가 온몸의 동맥을 통과해 곧장 심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듯 굴며 자신의 득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의 ‘사심 없는’ 희생 정신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를 위해 ‘바삐 뛰어다닐 수 있으니’ 이 역시 사람의 ‘충성심’이며, ‘매우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또 사람이 기뻐하도록 ‘칭찬’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람은 ‘편지’를 보고 문득 약간의 불쾌감을 느낀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나의 소리 없는 편지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계속 지도하지만 사람은 내 말을 귀찮아하는 듯하다.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사람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귀를 막는다. 그리고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미워한다. 내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사람이 가진 전부를 들춰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은 밀지는 장사를 했고, 더는 생존의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람의 증오는 더 심해졌다.

1992년 4월 14일

제33편

내 집에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하고, 내가 땅에 있으므로 그 영광이 궁창(穹蒼)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에 크게 기뻐하였고, 환희에 넘쳤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 밤낮없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다진 의지에 즐거워했고, 사람의 패역에 분노하였다. 사람은 본분을 지키는 법이 없으므로 사람에 대한 나의 근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늘 나와 흥정하는 것이냐? 내가 무역 회사의 대표라도 된다는 말이냐? 나는 사람의 모든 요구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건만 어찌하여 사람은 나의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 설마 사람은 사업에 능하나 나는 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늘 감언이설로 나를 기만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늘 ‘선물’을 들고 뒷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설마 이것이 내가 가르친 것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이런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항상 고의로 나를 기만하는 것이냐? 내가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사람은 나를 피조물로 여겼다. 내가 셋째 하늘에 있었을 때 사람은 내가 만유를 주관하는 전능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궁창에 있었을 때 사람은 나를 만유에 충만한 영으로 간주했다. 어쨌거나 사람의 마음에는 나에게 적합한 자리가 없다. 모두 내가 외부 손님이라도 되는 듯 나를 혐오한다. 그래서 내가 표를 들고 지정석에 앉으려고 할 때 나의 자리는 없다고,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이라며 나를 내쫓은 것이다. 나는 성을 내며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사람의 마음은 웅졸하기 짝이 없고, 도량이 몹시 좁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사람과 겸상을 하거나, 땅에서 사람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하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내가 떠날까 두려워하며 끈질기게 나를 ‘붙잡았다’. 나는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처연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은 내가 그들을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기에 내가 그들과 헤어질 때 땅은 삼시간에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눈물범벅이 된 사람의 얼굴을 닦고, 다시 그들을 일으켰다. 사람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람의 ‘참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나 누가 내 마음속 고통을 알 수 있겠느냐? 나의 말 못할 고충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감정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나와 한 가족처럼 지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내 마음속의 슬픔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누릴 것만 욕심낼 뿐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사람은 내 경륜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소리 없이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나는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자리하게 되었다. 나는 육신으로 사람에게 나타났고, 사람은 ‘오래된’ 육에서 살고 있으므로 늘 육으로 나를 대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육체뿐이고, 그 외에는 딸린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기만’ 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보잘것없는 ‘불량품’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의 ‘선물’을 나의 것과 비교하자 사람은 곧바로 나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나의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사람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계속 보여 주었다. 내가 나의 전부를 사람에게 드러냈을 때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다. 조금 기동처럼 내 앞에 똑바로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괴이한 모습을 보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손을 내밀며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기에 나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건넸다. 그러자 사람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듯 이를 끌어안았는데 순식간에 이런 동작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람이 처한 환경을 바꾸자 사람은 곧바로 ‘갓난아기’를 내팽개치고 머리를 감싸 쥔 채 줄행랑쳤다. 사람은 나를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주는, 부르면 달려오는 종업원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재난을 방지하는 수많은 비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계속 ‘양망’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만물에게 주재자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시 그를 기만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일찌감치 ‘남의 권세로 위세 부리는 것’을 일삼는 사람의 속임수를 간파했다. 사람은 모두 ‘이름만 그럴듯한’ 장사를 하며 사기술로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음흉하고 악랄한 수법을 꿰뚫어 보았으나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이유 없이 트집 잡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헤아려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할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사람을 재로 만들어 남겨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사역은 모두 의의 있는 일이므로 나는 경솔하게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이 줄곧 자신의 육을 방종하고, 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며, 심판대 앞에서 나를 기만해 온 것이다. 사람은 모든 ‘형구(刑具)’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다.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그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와 맞선다. 내가 더러운 것을 모두 꺼내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은 텅 빈 두 손을 내게 내보였다. 어찌 이를 ‘본보기’로 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믿음’이 하도 대단해서 ‘감탄스러울’ 지경이다.

내가 온 우주에서 나의 사역을 펼치자 순간 온 우주의 사람이 깨어나 나의 사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사람의 내면을 ‘돌아다니자’ 모든 이가 사탄의 울무에서 벗어나

그것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나의 날이 도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따라서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졌다. 하늘 위의 슬픈 구름은 공기 중의 산소로 바뀌어 이리저리 훑날린다. 이때 나는 사람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복을 누린다. 나는 사람의 행동에 흡족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나의 날이 도래함에 따라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은 다시 삶의 근본을 되찾게 된다. 나는 땅의 만물을 소생시켜 나를 삶의 근원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내가 만물로 하여금 생기를 띠게 하기도 하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기다리고, 나의 행사와 나의 말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만유 가운데에 있는 지고자이나 만인 가운데서 살며, 사람의 행위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음을 나타낸다.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크게 찬미할 때 나는 만유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땅의 모든 꽃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더 눈부시게 빛나고, 풀이 더 선명한 초록색을 띠며, 하늘의 구름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것이다. 내가 음성을 발하니 모든 사람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다. 오늘날 내 나라 모든 백성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생명도 이에 힘입어 성장한다. 나는 모든 선민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사람의 뜻이 조금도 섞이지 않게 한다. 나의 일은 내가 직접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을 할 때 천지 만물도 덩달아 변화하고 새로워진다. 내가 일을 완성할 때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이상 나의 요구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다. 온 땅에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인간 세상에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나라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은 모두 나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내가 사람 가운데서 왕이 되어 생활하자 사람은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 사람이 나에 대해 몹시 치우친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관념은 없애 버릴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 적합하게 사역을 했다.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 사람에게 크게 진노하자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온갖 견해’는 순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따라서 내가 사람에게 나에 대한 관념을 말해 보라고 하자 사람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도 없는’ 듯하였고, 또 마치 ‘검손’한 듯했다. 내가 사람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나를 더 사랑했고, 내가 사람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람은 나와 멀어졌으며, 게다가 나에 대한 ‘견해’만 더 늘어 갔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줄곧 사람의 관념 속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인간 세상에 왔을 때, 나는 사람의 모든 관념을 깨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따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내게는 사람의 관념을 상대할 적절한 방법이 있다. 내가 나의 방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고 하늘에서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니 아무도 조급해하지 말라.

1992년 4월 17일

제34편

일찍이 나는 나의 집에 사람을 초대할 적이 있다. 그러나 나의 부름을 들은 사람은 마치 내가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장으로 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황급히 도망갈’ 뿐이었다. 그래서 나의 집은 텅 비게 됐다. 사람이 줄곧 나를 피하고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일부 사역은 아예 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람을 위해 예비한 잔치를 취소해야 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누리기 원치 않았기에 나도 딱히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무의식중에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내게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내가 어찌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또다시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어 누리게 했다. 사람은 그제야 나의 처사에 감탄했고, 모두 내게 와서 의탁했다. 사람에 대한 내 태도로 인해 사람은 차츰 ‘안심’하고 나를 사랑하게 됐으며, 더는 내가 자신들을 ‘화장터’에 밀어 넣지는 않을까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뜻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본 후에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신중’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간사함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따뜻한 품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이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현 단계에서 사람이 보여 주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어째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째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냐? 정녕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냐? 정녕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냐? 나는 그 어떤 이에게도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사람에게 자유 의지로 선택할 기회를 줄 뿐이며, 그 과정에 참견하지도 않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사람은 모두 내 앞에서 다짐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 내게 ‘검토’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막상 ‘사람의 다짐’이라는 보따리를 열어 보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마구 흐트러져 있다. 하지만 심히 ‘풍성’하기는 하다. 사람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그의 ‘다짐’을 끄집어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나는 일찍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 ‘보따리’를 덮은 뒤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역에 따라 나의 인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짐’이 내 칭찬을 받았는지의 여부에만 관심을 보인다. 나는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말을 했으나, 지금까지도 사람은 내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예측 불가능하고 기이한 일거수일투족에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어째서 사람은 늘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냐? 뇌신경에 자극이라도 받았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말이냐? 어째서 사람은 항상 전방만을 바라보고 행동할 뿐, 자기 스스로 길을 열어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냐? 설마 베드로는 본보기가 있었던 말이냐? 베드로 또한 나의 인도하에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더냐? 어째서 오늘날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 어째서 사람은 앞에 본보기가 있는데도 내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사람이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오늘날 참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를 보며 즐긴다. 비록 새들은 내 앞에서 다짐을 하지도, 말로 나에게 ‘공급’해 주지도 못하지만, 내가 준 ‘세상’으로 인해 누림을 얻는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설마 내가 사람에게 값어치 없는 빛이라도 졌단 말이냐? 어째서 사람의 얼굴은 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냐? 나는 산간에 핀 백합을 보며 즐긴다. 온 산과 들에 꽃과 풀이 가득하지만, 백합은 봄이 오기 전부터 땅에서의 나의 영광에 빛을 더해 준다. 사람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돌아가기 전에 땅에서 나를 위해 증거할 수 있느냐?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느냐? 사람은 내 말에 자신들에 대한 요구가 들어 있는 듯하여, 모두 그 요구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 사람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전혀 내 요구대로 할 수 없기에 사람은 모두 내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 마치 기근이라도 닥쳐오는 양, 사방으로 도망가느라 여념이 없다. 내가 얼굴을 가리거나 몸을 돌리면 사람은 즉시 안절부절못하며 어찌할 줄 모른다. 내가 떠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내가 떠나는 날이 바로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는 날이며, 내가 떠나는 날이 바로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관념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의 관념대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사람의 관념과 합한 적도 없다. 내가 일을 할 때가 바로 사람을 드러낼 때이다. 즉,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이 관념으로 가늠할 수 없게 한다는 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도 내가 하는 일에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어떤 이도 내가 일하는 법칙을 찾아내지 못했고, 어떤 이도 ‘새로운 출구’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족한 점이며, 또한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부분이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말세에만 나의 사역에 새로운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부족한 점이 아니겠느냐?

새로운 사역에 들어간 후, 나는 사람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됐다. 과거의 요구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도 없는 듯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일을 모두 잊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역 방식이란 무엇이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또 무엇이겠느냐? 지난날,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했는지, 내가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했는지는 사람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을 테니 내가 일일이 검사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분량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내심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굳이 내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말할 때 일부 사람이 ‘넘어질지도’ 모르니, 그로 인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추구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말하는 방식은 이미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지만, 나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사람이 그것을 알아챘는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사람에게 내 말의 어조를 이해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사람이 나를 많이 ‘양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 사역이 너무 ‘바쁘기에’ 사역 본부로 직접 가서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나는 지금부터 사람을 이끌어 정식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식에 진입하게 할 것이다. 사람은 나의 모든 말을 통해 내 말이 해학적이고 재미있으며, 풍자적 어조가 특히 강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 관계로 나는 나도 모르게 사람과의 ‘화목’을 망쳤고, 사람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구애받지는 않으며, 나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은 전부 내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자질구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 사람의 부족한 점 때문에 나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끊임없이 말할 수 있다. 흑자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내가 새로운 요구를 하기를 기다린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단, 한마디만 일깨워 주겠다. 나는 말을 할 때, 사람이 식견과 분별력을 키워 나의 말 속에서 하나라도 더 많이 얻어 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과거,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책망과 깨뜨림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내 말의 목적과 근원을 이해하는 기초에서 나의 말을 먹고 마셨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람은 전혀 내 말의 근원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나의 책망과 깨뜨림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사람이 내 말을 먹고 마시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이 기회에 사람에게 요구하겠다. 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시련, 즉 ‘형벌’ 속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단,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이는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내 말은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사람은 또 나와 ‘협력’할 줄 모르니 방법이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새로운 방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도 사람이 들어가는 흐름

속으로 진입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만들기로 했으니 어찌겠느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어찌겠느냐? 이것 외에, 다른 한 가지 요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지만, 그렇다고 첫 번째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내가 말세의 한 무리 사람들에게 한 것은 모두 전례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온 궁창에 떨치기 위해,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마지막 ‘고난’을 겪어야 한다. 나의 뜻을 이해했느냐? 이는 사람에 대한 내 마지막 요구이다. 다시 말해,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큰 붉은 용 앞에서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길 바란다는 것이다. 너희가 정녕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는 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관례를 깰’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기회를 주겠다. 모두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의 대답을, 나에게 보내올 ‘답신’을 기다리겠다. 너희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킬 믿음이 있느냐?

1992년 4월 20일

제35편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일으켜 사람이 나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살도록 했다. 나는 사역을 마칠 때에도 사람들 가운데서 완성할 것이다. 사람이 내 전체 경륜의 대상이고, 나는 사람을 만물의 주인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줄곧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있다. 사람이 나와 함께 오늘날 이 시대에 들어섰을 때 나는 몹시 후련했다. 내 사역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 사람이 어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나는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나 사람이 얻은 것은 보잘것없기 짝이 없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땅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였는데, ‘인간’의 부류에 속하는 자는 전부 나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치 ‘나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의 본무인 듯했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아 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라도 되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되는데로 벌을 내리지 않고, 사람의 분량에 따라 붙잡아 주고 공급해 주었다. 사람이 전체 경륜의 주인공이므로 나는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가르친다. 이는 내가 연출하는 작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빌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냐? 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 줄 수 있건만 사람은 나의 요구대로 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나는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내가 간곡하고 진실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정말로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나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람에게 베풀었으나 나의 두 손은 텅 비어 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심혈을 기울였건만 그 노력이 산속의 구름과 안개처럼 흩어졌다는 말이나? 내가 사람에게 수없이 ‘예방 주사’를 놓아주며 그리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건만 어찌하여 사람은 줄곧 나를 ‘피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병아리를 잡는 것처럼 잡아 죽이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내가 정말 그렇게 잔인하다는 말이나? 사람은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내가 맞느냐? 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으로 삼지 사람의 관념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의 양심은 끔찍이도 혐오한다. 사람이 나를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사람의 양심에 더욱 반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양심을 비판하지 않고, 차근차근 타이르며 가르쳐 왔다. 어차피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나는 끝없는 형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를 사람과 함께 누리고 있다. 나는 손으로 직접 지휘하기도 한다. 누구 하나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모두가 착실히 나의 지휘에 따라 내가 배분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본업’이기 때문이다.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누가 나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누가 내 손안에 있지 않겠느냐? 내 입에서 나온 말과 내 손으로 행한 행사를 누가 찬미하지 않겠고 칭송하지 않겠느냐? 모든 이가 나의 행사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말미암아 내 사역의 흐름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내가 계획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의 행정 법령으로 인해 사람은 모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행정 법령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모두 ‘최전방’에서 도망치는 ‘탈주병’이 되었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사람이 정말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나? 나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일찌감치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기에 이전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을 줄곧 해 온 것이다.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친히 작전 기지에 임하여 사탄과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인 것이다. 오늘날 사탄이 광기를 부리니 내가 어찌 이 기회에 사역의 주안점을 부각시킴으로 나의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사탄의 계략을 나의 부각물로 삼는다고 한 이상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나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나는 이제서야 기쁨과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동분서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바쁘게 지내거나 떠돌아다니며 살지 않는다. 나의 날이 도래했기에 이제부터 나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무탈하게 지낸다. 나는 평생 동안 수없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처럼 땅에서 바쁜 인생을 살았다. 사람은 내가 사람과 동고동락하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여 줄곧 나를

피조물로 간주했다. 사람은 하늘 위의 나를 본 적이 없기에 나에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내가 운명의 주재자이고, 구름 속에서 말을 한 ‘발언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가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쳤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 모두가 세상이 마지막에 접어들었고, 인류가 대청소를 겪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나의 요구를 의식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채 나의 형벌을 받으며 슬피 울고만 있다. 어찌할 도리가 있겠느냐? 말을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들어선 것을 어찌하겠느냐? 어찌하여 말세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냐? 일체의 모든 것은 내가 친히 계획하고 배치한 것이거늘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나는 세상을 창조한 후 지금까지 줄곧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사람과 ‘함께’ 땅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전 세대 중에 나에게 택함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무언의 거절을 당했다. 예전의 사람들은 나를 일편단심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은 사탄에게서 받은 ‘선물’을 가져다 나에게 ‘바쳤는데’, 이는 나에게 대한 모욕이 아니냐? 사람이 내게 선물을 ‘바쳤을’ 때 나는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선물’을 역이용하여 나의 경영에 필요한 재료로 추가하고, 기계로 가공한 후 그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몽땅 불태워 버렸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이 ‘바친’ ‘선물’은 얼마 되지 않으나 나는 이 때문에 사람을 훈계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처음부터 빈손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실제 상황을 살핀 후 세상에 왔을 때,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사람에게 ‘재료’를 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완제품’을 요구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풍파를 겪고 인생을 경험한 후에야 사람에게 적당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전능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온, 심지어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냐? 나는 나를 완전히 아는 이가 땅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였기에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누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동안 계속 구름 속에 은밀히 거하고 있었다. 내가 일찍이 “나는 말세에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시야를 넓히는 행운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내가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사람은 이 같은 은혜를 조금도 모른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사람은 모두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것이냐?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건만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았는데, 누가 나를 알고 있느냐? 이러니 내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마치 사람은 내가 권병을 행사할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총에 장전된 총알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총을 쏘려고 하면 모두 ‘줄행랑’을 친다. 이는 모두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나는 줄곧 사람을 존중해 왔고, 사람을 노예처럼 함부로 죽이거나 사고 팔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지 못하므로 사람과 나는 ‘생사를 함께하는 절친’이 되었다. 나는 줄곧 사람을 사랑해 왔고,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은 없지만 줄곧 나를 의지해 왔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공을 들여 온 것이다. 사람은 본래 내가 땅에서 경영을 하는 ‘밀천’이므로 나는 사람을 애지중지 아낀다. 따라서 내가 사람을 도태시키거나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나의 맹세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무엇으로 흠족하게 할 것이냐? 이는 모든 사람이 달성해야 할 공과이자 내가 사람에게 내는 ‘숙제’이니 모두가 참답게 완수하기를 바란다.

1992년 4월 23일

제36편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안배되거늘 누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누가 쉽사리 이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공기 속에서 떠다니고, 먼지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이로 인해 사람의 얼굴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구름 가운데서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슬픔에 잠겼다. 생기가 넘치던 사람이 어찌하여 오늘날 이런 꼴로 변했단 말이나? 왜 사람은 이를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단 말이나? 어찌하여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것이냐?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다. 왜 사람은 항상 나의 요구를 피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잔인무도하게 대하기라도 했더냐? 내가 막무가내로 굴기라도 했더냐? 왜 사람은 늘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냐? 왜 사람은 항상 나를 증오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궁지로 몰기라도 했다는 말이나? 사람은 나의 형벌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목에 채워진 칼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원수를 보듯 두 눈을 부릅뜨며 나를 노려볼 뿐이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사람의 왜소한 몸을 보았다. 그렇기에 내가 ‘시련’ 속에서 굳게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분량은 바로 이 정도 아니더냐? 내가 그 ‘수치’를 알려 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나? 사람의 ‘키’는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벌레만 하고, ‘가슴둘레’는 ‘뱀’ 굽기만 하다.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닌 분량의 정확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나? 내가 사람을 ‘변변치 않게 만들었다’는 말이나? 사람은 모두 어린아이 같다. 심지어 어떨 때는 동물과 놀면서도 무척 즐거워한다. 또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고양이 같기도 하다. 영의 지배 때문인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몹시 혐오스럽다. 사람이 ‘기생충’같이 살아가기에 나는 ‘인생’이란 두 글자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직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나는 그럴 힘이 없는 듯하여 ‘산속’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인간 세상의 고통을 살필 수가 없는데 사람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압박하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나는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며 사람과 함께 경험을 정리하고 인생을 체험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늘에서 도시 전체를 돌아다녔고, 하늘 아래에서는 열국을 돌아다녔지만, 나를 발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내가 오가고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사람은 내가 흔적도 없이 왔다 간다고 생각한다. 마치 내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형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입으로 ‘자백’한 사실이 아니란 말이나? 이 시점에 이르렀거늘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말이나?

나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불결함과 불의를 말끔히 없애고 내 마음에 합하는 자로 ‘가공’하는 ‘사업’을 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역에는 사람의 협력이 빠질 수 없는데, 사람은 언제나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팔딱거렸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고’를 피하고자 잡아 올린 ‘물고기’를 남김없이 죽였다. 그러자 ‘물고기’는 ‘순종’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늘 숨기 바쁘다. 마치 경이로운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또 전부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부족한 부분에 나의 지혜를 더해 주었다. 또한, 사람이 하도 빈궁하기에 내가 인간 세상에 친히 임했을 때 사람에게 ‘부에 이르는 길’을 알려 주어 사람의 시야를 넓혔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나의 구원 아니겠느냐? 사람을 공홀히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이 무조건적인 베품이란 말이나? ‘증오’가 형벌뿐이란 말이나? 나는 다양한 위치에서 사람에게 설명했으나 사람은 나의 말을 글귀나 이치로 여길 뿐이었다. 또한, 사람은 나의 말이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인 것처럼 ‘떨이’로 팔아 치웠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거센 폭풍우가 산속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일러 주었을 때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다. 몇 명만이 의구심을 가진 채 이사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한 듯한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내가 하늘의 제비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때에야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꿈속에서 놀라 깨어났다. 그러나 이미 때가 되었기에 사람은 모두 홍수에 휩싸였고, 시체가 수면 위에 떠다녔다. 나는 인간 세상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사람의 불행한 처지에 탄식했다. 나는 사람의 운명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셀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치렀건만, 사람은 내가 ‘눈물샘’이 말랐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눈물샘이 마른 ‘괴물’도 사람을 위해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건만, 사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흙 속에서 자기 손안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미련하다. 동굴 속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땅굴 속에 ‘얼어붙은’ 상태로 있다. 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내가 자신들을 위해 좋은 일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에 나를 오늘날 이 시대의 본보기로 삼는다. 그러나 나를 사람 운명의 주재자나 만물의 창조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듯하다. 사람은 ‘이해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이해’라는 두 글자를 충분히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오늘날처럼 좋은 시절에도 나를 사랑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데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의 날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의는 여전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무형물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설마 내가 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나? 어찌하여 사람은 내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냐? 왜 사람은 항상 마음을 가슴 속에 품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평생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나? 왜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늘 되는데로 땅의 먼지 한 줌을 주워 내게 날려 보내는 것이냐?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란 말이나? 이는 마치 의지할 곳 없는 행인을 미혹하듯 집으로 유인해서 ‘흑심’을 품고 ‘몰래 살해’하려는 것과 같다. 사람은 나를 두고도 이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망나니 같기도 하고, 살인이 일상이 된 마왕 같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은 내 앞에서 같은 수법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나도 사람의 계획에 맞설 대책을 마련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찌 이때 사람에게 나의 대책을 선보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모든 부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가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나는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안배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때 사람에게 또 무슨 불평할 거리가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나? 과거에는 사람에게 나의 사역 절차를 알린 적이 없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오늘날,

사역 항목이 다르므로 나는 사람에게 일찌감치 내 사역의 절차를 알린다. 사람이 이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까닭에서인지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알아본 적이 없다. 마치 배가 고파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우다가 위 기능이 약화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튼튼한 체격’을 밑천으로 내세우며 ‘의사’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은 너무 어리고, 인생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마음속에 ‘인생’이란 단어를 새기지 않으며, 이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저 나의 말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노파의 잔소리로 치부하며 질색할 뿐이다. 그래도 어쨌든 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사람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을 생각이 없기에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의 부담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1992년 4월 26일

제37편

지금까지 내 모든 사역, 즉 각 단계 사역에는 그에 적합한 나의 사역 방식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갈수록 깨끗해지고 내가 쓰기에 합당해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사역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사람 수는 적어졌으며, 이는 사람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물론, 오늘날의 사역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자들이 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역 방식의 변화로 또 일부 사람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예정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역 방식 때문에 넘어졌고, 방향을 잃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무정하다고 여기든 너무 잔인하다고 여기든, 사람의 인식이 맞든 틀리든,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말하지 않겠다. 우선 중심 주제를 교체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 모르는 일이 없게 모든 사람을 분명히 이해시키고자 한다. 나는 사람에게 병어리 냉가슴 앓게 하는 대신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확실히 말하여 언젠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형벌 가운데서 진실한 찬미가 우러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느냐?

형벌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나는 사람이 나를 거스르지 않도록 먼저 ‘시대’의 대의(大意)를 알려 주겠다. 즉, 사역에 대해 내가 안배할 것이니 누구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정죄할 것이다. 기억하였느냐? 이런 것은 ‘예방 주사’이다. 새로운 사역 방식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을 깊이 알기 전에는 누구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앞으로 모든 사도는 교회에 편입될 것이니 더는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봐야 큰 성과도 없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나를 속이는 행위이다. 과거가 어떠했던 이제는 모두 폐기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앞으로 ‘사도’라는 이름을 없애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위’에서 내려와 자신을 알게 하겠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 대한 구원이다. ‘지위’는 면류관이 아니라 호칭일 뿐이다. 내 뜻을 알겠느냐? 교회를 이끄는 자는 계속 본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 물론, 이것이 규례는 아니다. 필요할 때는 ‘사도’였던 자와 함께 교회를 순방해도 된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교회들은 진리 교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 연합하여 ‘자신을 알고’, 함께 단결하여 큰 붉은 용을 저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핵심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야 참된 증거가 있게 된다. 과거에 사람들은 자신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는 자신을 얼마나 알았느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내려놓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클수록 형벌 속에서 받는 고통이 더 크다. 이는 사람에 대한 나의 구원이다. 알겠느냐?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가볍고 가치도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교회에서 참으로 자신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밥을 먹지 않고는 민간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종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 속에서 자신을 알게 하고, 형벌 속에서 즐겁게 웃고 노래하게 할 것이다. 정말 나를 만족게 할 자신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앞으로 각 교회의 사무적인 일은 본 교회 내의 적합한 사람이 처리하고 ‘사도’는 교회 생활만 한다. 이것을 두고 ‘생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인간 세상에 형벌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나는 먼저 사람에게 ‘영접 사역’을 하여 모든 사람이 최후에 나를 만족게 하도록 한다. 물러가는 사람일지라도 고통받은 후, 증거한 후에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나의 성품,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나의 성품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써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내 말이 이루어진다. 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즉시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가 감히 손에 쥔 ‘장난감’을 함부로 갖고 놀겠느냐? 사람은 다 순순히 착실하게 내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 외에 또 길이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를 지상에 있게 하면 너는 환호하고, 내일 너를 천상에 있게 하면 너는 찬양하고, 모레 너를

지하에 있게 하면 너는 형벌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내 사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화를 입든 그것은 내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복을 받든 그것 역시 내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예외라도 되느냐? 내 필요를 위해, 내 뜻을 위해 땅에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입으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증오하는 것이겠느냐? 나를 위해 사역하고 내 마음을 만족게 하며, 나아가 자신을 알고 큰 붉은 용을 저버리는 것, 이는 결코 간단한 사역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말한 ‘대가’를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에 대해 내가 먼저 말하지는 않겠다. 내가 사람에게 직접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 후 자신의 행동으로 내 질문에 실제적으로 답하게 하겠다. 이를 할 수 있겠느냐?

1992년 4월 27일

제38편

사람의 경험에서 보면 사람은 나와 함께하거나 나의 말을 길잡이로 삼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을 피해 먼 발치에 있다 떠났다. 나는 인류의 패역을 증오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를 증오한 듯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크나큰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대해 늘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기 때문이다. 사람 가운데 누가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또 누가 나의 증오를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이나? 내가 보기에 사람은 모두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생명체이다. 세상의 만물 가운데 서 있는 진흙으로 만든 상(像)처럼 말이다. 나는 사람의 패역으로 인해 수시로 분노가 끓어 넘친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때 사람은 갑작스레 찾아온 나로 인해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내가 땅에서 그들과 어울려 놀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의식적으로 나를 ‘찾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나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가진 태도로 인해 나는 ‘사람’의 ‘직장’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밝히겠다. 나는 ‘퇴직’을 했지만 ‘사람’의 ‘직장’에서 일한 ‘근속 기간’이 긴 만큼 ‘퇴직 연금’은 한 푼도 적지 않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남은 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 한들 어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마음껏 육체의 정욕을 방종하도록 느슨하게 풀어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리낌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욕으로 진실한 사랑을 얻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내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육의 ‘사랑’이란 말이나? 정말 그렇다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가치 없는 천박한 존재이다! 나에게 인내라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면 나는 일찌감치 사람을 떠났을 것이다. 무엇하리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 때문에 ‘속’을 썩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고자 참고 견디었다.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면 나는 높은 하늘에 올라 만물의 ‘주인’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나는 사람을 그만큼 증오하기 때문이다. 원수를 증오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원수를 멸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하늘에서는 사탄이 나의 원수이고, 땅에서는 사람이 나의 철천지원수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니 나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족을 멸할 것이다. 누가 나와 대적하라더냐? 누가 나를 거역하라더냐? 어찌하여 사람은 옛 성품과 깨끗이 갈라설 수 없는 것이냐? 어찌하여 육은 항상 사람 안에서 커지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증거가 된다. 누가 감히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누가 감히 나의 심판이 ‘감정적’이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본래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떠난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인류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근거가 있다. 사람의 입이 나에게 ‘진심’을 ‘토로’할 때 나는 사람을 ‘처형장’으로 압송했다. 사람의 죄가 벌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맹목적으로 사람을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에 따라 벌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패역으로 인해 절대 나에게 머리 숙여 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마지못해 머리를 숙였을 뿐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바름 죽’을 먹이자 사람의 뱃속 장기가 ‘촬영기’에 뚜렷하게 드러났다. 사람 배 속의 불순물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온갖 오물이 혈액을 따라 흐르고 있기에 몸속에는 독소가 갈수록 늘어났다. 사람은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사람의 몸에는 세균이 증식하여 자리를 잡았고, 모든 이가 그것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야생말처럼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척할 뿐 이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사람은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약 내 말을 좋은 약으로 간주했다면 모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듯 내 말을 따랐을 것이고, ‘좋은 약’이 약효를 발휘하여 사람의 복부 질환을 치료했을 것이다. 사람이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에 나는 ‘억지로’ 사람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듣든 말든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할 뿐이다. 사람이 나의 복을 누리는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겪고자 하니 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이름과 영이 지옥에서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나는 먼저 사람을 징계한 후 사람의 소망을 ‘따름’으로써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명의를 내걸고 나를 모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 거듭해서 사람을 징계한다. 내가 호된 말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 오늘날까지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내가 떠나갈까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냐? 형벌이 두려운 나머지 원망의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냐? 누구의 의지가 오로지 나의 계획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말이냐? 사람은 모두 나를 ‘두뇌 능력’이 없는 ‘신성’의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인성만으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말마따나 ‘하찮은 일에 큰 힘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사람은 ‘선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 나를 ‘사랑’한다. 사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더냐? 자신의 심장을 대하듯 나를 대하는 자가 있더냐? 그래서 내가 인간 세상에 대해 “사람 중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라는 격언을 만든 것이다.

나는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고자 나의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나에 의해 멀리 내동댕이쳐져 망망대해에 빠져 있을 것이다. 내가 사전에 사람에게 실상을 알렸기에 사람이 조금이나마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배의 흰 돛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강도’라도 되는 듯 경계하며 대비를 한다. 사람은 내가 가장집물을 몽땅 훔쳐 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갑작스레 침입할까 두려움에 벌벌 떨며 혼신의 힘을 다해 ‘대문’을 막아 선다. 나는 쥐처럼 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떠났다. 사람은 인간 세상이 ‘큰 재난’을 겪을 것처럼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숨기 바빴다. 나는 이때야 땅의 유령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고, 사람들은 나의 웃음소리에 놀라 섬뜩해했다. 나는 이때야 실상을 알게 되어 웃음을 거두었다. 나는 땅 위의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내 원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나의 연구 사역을 위한 본보기로 삼지 않는 것은 사람이 전부 폐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폐품 덩어리이다. 나는 이때를 틈타 사람을 망가뜨리고 불더미에 던져 태웠다. 사람은 나의 심판, 위엄, 진노에 공황과 자비가 깃들여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연약함에 신경 쓰지 않았고, 나의 공황과 자비를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사람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랴. 모든 이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며, 나의 뜻을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냐? 어찌 내가 공황과 자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공홀과 자비란 말이나?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란 말이나? 사람은 모두 내가 ‘빈말’을 한다고 여기기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누가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에는 나의 공홀과 자비가 존재하지 않으나 나는 언제나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겠느냐? 내가 인간 세상에 거할 때, 사람은 나를 ‘지존자’로 간주하고 있기에 내가 늘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사람이 항상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의 법칙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내 말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측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경륜의 마지막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의 지기(知己)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를 제외하고 만물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1992년 4월 30일

제39편

나는 매일 우주들 위를 다니며 내가 만든 만물을 둘러본다. 하늘 위에는 내가 안식할 곳이 있고, 하늘 아래에는 내가 다닐 곳이 있다. 나는 만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만유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대자연의 주관에 복종하게 한다. 나는 패역자를 혐오하고 분류를 따르지 않는 대적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안배에 따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전 우주의 위아래를 질서 정연하게 다스리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함부로 반항하겠느냐? 누가 감히 내 안배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어찌 나를 배반할 ‘마음이 있겠느냐’? 나는 사람을 다 자신의 ‘조상’ 앞에 분류시켜 놓고 그 ‘조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가족에게 데려가게 하여 다시는 자신의 선조를 ‘배반’하고 내 곁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다. 오늘날 내 영은 온 땅에서 운행하며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번호를 매기고,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각각의 기호를 표시해 그들의 ‘조상’이 그들을 순조롭게 가족에게 데려가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번거롭고’ 내가 계속 그들을 ‘걱정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나도 ‘노동 분배’를 중시하고, ‘분업과 협력’을 중시한다. 이는 내 계획의 항목이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만유 가운데서 적절한 대표자를 선택해 만물을 관리하게 하여 모든 것이 내 앞에 압전히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늘 하늘 위를 돌아다니고, 또 하늘 아래를 다닌다. 사람들이 오가는 광활한 세상을 보고, 땅에 밀집해 있는 인류를 보고, 땅에서 사는 날짐승과

길짐승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끓어오른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물을 만들었고, 일체의 모든 것이 내 안배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높은 하늘에서 웃음소리를 내고, 천하 만물은 내 웃음소리를 듣고 바로 영감을 얻는다. 나의 대업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의 지혜를 ‘사람’ 안에 더해 주어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나를 대표하게 했다.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은 사람이 나를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왜 사람의 마음은 늘 자신에게 속해 있느냐? 사람의 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나? 내가 무조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 내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본래 내게 속하는데, 내가 어찌 내게 속하는 것을 다른 자에게 함부로 줄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만든 ‘옷’을 다른 것에게 입힐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에 나는 마치 비이성적인 정신병자로 비치는 것 같고, 아예 인간 세상의 풍속을 모르는 바보로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늘 나를 ‘온순한 사람’으로 대하지 결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나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기에 나는 화가 나서 인류를 전멸시킨다.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인류’만이 늘 갖은 방법으로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만물의 ‘주재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모든 사람을 ‘큰 용광로’에 던져 넣고 ‘연단’시킨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자세히 보니 사람은 모두 불사름 속에 있고, 불의 위협에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이는 내 사역의 수단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겸손한 척’하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체험’을 말하려 하지 않고 서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내 지혜의 결정체이다. 내가 만세 전에 오늘날의 일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잡아당기는 줄에 매인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용광로로 들어간다. 모든 사람은 불의 공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사람은 서로 ‘공격’하고, ‘기뻐하며 뛰어다니고’ 용광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운명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내가 불길을 건드리자 그 불이 순식간에 커져 하늘로 치솟으며 마치 내 옷자락을 용광로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화염의 불씨가 자꾸 내 옷자락에 붙는다. 사람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나를 보고 있으며, 나는 즉시 불기운을 따라 용광로로 들어간다. 바로 그 순간, 불길은 훨씬 커지고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나는 불 속에서 ‘한가로이 거닌다’. 불꽃은 아주 활활 타오르지만 나를 해칠 뜻이 전혀 없다. 내가 재차 몸에 걸친 옷을 불꽃에게 건넸지만 불꽃은 멀찍이 나를 피한다. 바로 그때, 환히 비치는 불빛 속에서 사람은 나의 본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활활 타는 용광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모습에 사방으로 달아나고, 용광로 안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한다. 불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의 연단 속에 있는

인자를 보게 되었다. 인자가 몸에 걸친 옷은 평범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발에 신은 신발은 수수하지만 사람의 큰 부러움을 산다. 인자의 얼굴은 불 같은 광채를 발하고, 눈은 번쩍번쩍 빛이 난다.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인해 사람은 인자의 본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된 것 같다.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자는 온몸에 ‘백의’를 걸치고 있고, 양털처럼 하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늘어뜨려져 있었다. 특히 가슴의 금띠는 이글거리는 광채를 발하고, 발에 신은 신발은 사람을 우러러 ‘탄복하게’ 한다. 인자가 신은 신발이 불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 신기하게 여긴다. 이따금 느껴지는 은근한 통증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인자의 입을 보게 되었다. 불의 연단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은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인자의 아름다운 음성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인자가 입에 날 선 검을 ‘문’ 짓을 보게 되었다. 인자는 음성을 발하는 대신 검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다. 사람은 불의 포위 공격 속에서 고통을 참고 있고, 호기심 때문에 계속 인자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인자의 손에 있던 일곱 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자는 땅 위가 아니라 용광로 안에 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일곱 별을 없앴 것이다. ‘일곱 별’은 그저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 뿐이기에 그때 일곱 별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 대신 인자의 각 부분에 할당된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일곱 별의 존재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난감하게 하지 않고, ‘인자’의 손에 있던 일곱 별을 없애고 ‘인자’의 몸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때야 사람은 나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내 영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땅에서 높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어 더 이상 나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 않으며, 나도 더 이상 사람의 모욕을 참지 않는다. 내가 사람과 함께 큰 용광로에 들어갔기에 사람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의 존재를 의식한다. 그래서 정금은 모두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점차 나에게로 모인다. 이때가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로, 나는 각종 ‘금속’을 모두 부류대로 나누어 그것들이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도록 한다. 그때야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한다….

사람에게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용광로에 던져 넣고 태운다. 하지만 사람을 불살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누리도록 그 속에서 정금으로 정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정금이지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수술대’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그들을 해부한 후 수술대에서 바로 ‘암살’이라도 할 것처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인류 중의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깊이 동정하는 것이다. 나도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건강하고 장애가 없다면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허비하며 수술대에 오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음식 위생’에 부주의한 것을 어찌겠느냐? 건강법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을 어찌겠느냐? 지금에 와서 내게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사람에 대한 나의 ‘동정심’을 표하고자 나는 사람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간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 어찌겠느냐? 그래서 나는 직접 ‘메스’를 들고 사람을 ‘수술’한다. 이는 후유증을 막기 위함이다. 사람에 대한 나의 ‘충성’ 때문에 사람은 고통 속에서 눈물로 나에게 대한 감사를 표한다. 사람은 나를 ‘친구’가 어려울 때 ‘서슴없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 은혜에 더욱 감격하며 병이 나으면 내게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성의 표시’에 신경 쓰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 사람 몸에 칼을 댄다. 사람의 몸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칼이 움직이니 사람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수술대 위에서 쇼크를 일으키지만 나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한다. ‘수술’이 끝나자 사람은 위험 상태에서 벗어났다. 내가 사람에게 풍부한 영양을 보충해 주니 부지중에 사람 안에 영양 성분이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나는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마주한다. 사람은 건강을 회복한 후에야 내 본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고, 나를 더욱 사랑하며 나를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결합이 아니겠느냐?

1992년 5월 4일

제40편

사람은 내가 하늘을 무너뜨리기로 할 것처럼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다. 또한 나의 행사를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는 듯 늘 나의 행사에 대해 어리둥절해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에 죄를 지어’ ‘세상’으로 쫓겨 날까 봐 몹시 두려워 늘 나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한다. 나는 사람의 약점을 잡지 않고 사람의 부족함을 상대하여 사역하였다. 그랬더니 사람은 떨 듯이 기뻐하며 나에게 의지한다. 내가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대하듯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사람은 나를 멀리한다. 이는 무엇 때문이냐? 사람은 세상의 ‘공평성과 합리성’ 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람에게 ‘요구’하겠느냐?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느냐? 사람은 모두 나를 ‘거렁뱅이’로 여긴다. 내가 사람에게 요구를 하면 ‘남은 밥과 반찬’을 들고 와 ‘맛보게’ 하면서 나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한다. 나는 사람의 추한 몰골과 괴이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사람을 떠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거절한 것을 거두어들였다가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사람을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람의 ‘양심’은 지금도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후세의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비밀의 언어’에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여’ 얻은 ‘과학적인 연구 성과’이거늘 어찌 내가 함부로 삭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의 호의를 ‘저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옥신각신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성과 합리성’이 아니겠느냐? 나는 오늘날까지 줄곧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해 왔다. 그러나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고, 낯선 행인 대하듯 한다. 심지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이유로 나를 몹시 증오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내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헐뜯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기에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람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한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입을 열어야 사람은 조금이나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히 넓은 세상의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나는 또 이를 종합하여 “사람은 의지력이 부족한 관계로 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만들었다.

사람이 꿈속에 있을 때 나는 열국을 돌며 내 손안의 ‘죽음의 기운’을 인간 세상에 퍼뜨렸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즉시 활력을 잃고,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인류 중에 살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여기저기에는 시체가 널리게 되었다. 생기가 넘치던 생명체들이 즉시 자취를 감추었고, 땅에는 시신의 악취가 진동하여 질식할 지경이었다. 나는 즉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떠났다. 나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삶의 터전이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곳이 바로 내가 사람을 위해 예비한 슬픔도 탄식도 없는 복받은 땅이다. 거기 산골짜기에는 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온갖 새들이 지저귄다. 바람이 살랑이고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가운데 하늘과 땅이 안식에 들어간다. 반대로, 오늘날 여기에는 사람의 시체가 나뒹군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손에 쥐었던 온역을 쏟아 내자 사람의 시체가 썩어 문드러졌고, 피와 살로 형성되어 있던 사람의 몸이 분해되었다. 나는 즉시 사람을 멀리 떠났다. 나는 두 번 다시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다시 인간 세상에 오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전체 경영의 마지막 단계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나는 두 번

다시 인류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보고 실망했다.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누가 ‘살려고’ 왔으나 ‘죽지’ 않은 적이 있더냐? 내가 사람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사람은 큰 소리로 통곡했다. 확실히 내가 창조주이기는 하나 나는 사람을 죽게 하는 ‘권력’만 있을 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 나는 이에 대해 사람에게 사과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나는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미리 귀띔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빈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사실이 임해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말한다. 나는 사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나의 말을 손으로 받쳐 들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바란다. 이는 사람의 그릇된 ‘속셈’이 아니냐? 이 때문에 나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양심을 저버려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이상적인 경지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에 사역이 완성될 때 사람을 사지로 몰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사람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 어찌겠느냐? 복받겠다는 욕심을 부렸으니 어찌겠느냐? 사람이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놓였겠느냐? 사람이 내게 ‘충성’했고, 나를 오랫동안 따르는 동안 공적은 세우지 못했을지라도 그간의 노고를 감안하여 ‘비밀 정보’를 조금 알려 주겠다. 나의 사역이 사람을 불구덩이에 밀어 넣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지금 일찌감치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자는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위해 ‘부(富)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떠나고 싶은 사람은 일찌감치 떠나라. 형벌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늦을 것이다. 이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은 모두 양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이때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사람이 정말 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생각을 따를 뿐 사람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내가 어찌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하려던 일을 중단하겠느냐? 나는 전체 경륜 속에 사람의 모든 체험을 추가적으로 안배한 적이 없으며, 오직 나의 원래 계획을 따를 뿐이다. 예전에 사람이 나에게 ‘헌신’하였으나 나는 사람을 차갑게도, 따뜻하게도 대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걸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대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득의양양해하거나 기뻐 날뛰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처형장으로 압송한다. 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자백’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인류에 속하는 감정적인 동물이란 말이나? 나는 내게 정이란 게 없다고 사람에게 몇 차례나 알렸으나 사람은 나의 말을 빈말이라고 생각하며 웃을 뿐이었다. 내가 “나는 세상의 처세 철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말한다. 사람이 이런 생각에 묶여 있으니 나는 사람에게 어떤 어조와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찌 할 방도가 없으니 직설적인 말투로 사람에게 말할 뿐이다. 무슨 뽕족한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화법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오랫동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를 실행한다’는 구호를 외쳐 왔지만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공허한 글귀를 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는 ‘말과 사실을 병행시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이 나를 ‘본받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절머리가 난다. 왜 사람은 항상 배은망덕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에게 준 것이 너무 적다는 말이나? 왜 사람은 항상 내 뒤에서 몰래 사탄을 섬기는 것이냐? 이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주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자 투잡을 하며 ‘두 배의 월급’을 버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지출’이 과한 것이 원인이었다. 마치 사람은 ‘살림’을 할 줄 모르는 듯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사람이 나의 ‘공장’을 떠났으면 한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밑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모두를 대하며,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말하겠다. 내 ‘공장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비’를 줄 테니 당장 떠나라. 나는 이런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며’ 억지로 붙들고 있지 않는다. 설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의 뜻에 맞는 ‘직원’을 찾지 못하겠느냐? 나를 너무 얹보지 말라! 사람이 다른 곳에 ‘취직’하고자 계속 나를 거역한다면 나는 강요하지 않고 환송할 것이다. 어쩔 도리가 있겠느냐! 나의 ‘규정과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을 어찌하겠느냐?

1992년 5월 8일

제41편

나는 일찍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사업을 했으나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말로 사람에게 하나하나 나타내었으나 사람은 그래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계획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관계로 내 경영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자 그 기회를 틈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왔다.

따라서 사람은 그것들의 희생양이 되었고,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려 온몸이 더러워졌다. 나는 이때야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탄식했다. 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냐? 내 형벌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냐? 내가 일부러 사람의 적극성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한단 말이냐? 사람의 말은 심히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사람의 ‘행동’은 꼴사납기 그지없다. 내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왜 늘 수포가 되는 것이냐? 내가 ‘개에게 나무에 오르라’는 식으로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내가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이냐? 내 모든 경륜에서 나는 여러 ‘실험용 밭’을 개척했으나 지형이 열악하고 수년간 빛이 들지 않아 지형이 계속 변하며 땅이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이런 땅을 무수히 ‘버렸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땅이 계속 변하고 있다. 언젠가 땅이 진짜로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되면 나는 즉시 그 땅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사람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내 ‘인도하에’ ‘형벌’을 받고 있다. 그게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일부러 사람을 형벌하러 온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늘에 있을 때 나는 인간 세상에 오면 사람과 하나가 되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격의 없이 친밀하게 지내게 하리라 계획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은 나와 접하기는커녕 내 ‘형벌’ 때문에 나를 멀리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사람이 멀리한다고 해서 ‘흐느끼지’ 않는다.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사람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연기자’다. 나는 사람이 내 아래에서 ‘슬그머니 도망치게’ 만들 자신도 있고, ‘타지’에서 내 ‘공장’으로 돌아오게 만들 자신도 있다. 이때 사람이 또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갈대가 아니냐?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이런 결함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 안에 내 영양분을 더할 뿐이다. 사람의 사지에 힘이 전혀 없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사람에게 영양이 결핍한 것을 어찌하겠느냐? 나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의 ‘짜늘해진 마음’을 감화한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겠느냐? 사람은 진정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나는 내가 택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 집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드나드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모두 나를 찾아 사업 상담을 하려는 듯 내 앞에서 수속 절차를 밟고 있으니,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야 했다. 심지어는 인간 세상의 떠들썩한 분쟁을 처리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처신을 잘하고, 항상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내 집에서 언제까지 어린애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살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나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식료품점’이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나의 심정을 모르고 있다. 모두가 의도적으로 나와 농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이에 정신이 팔린 개구쟁이 같기도 하여 ‘해야 할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내가 내준 ‘숙제’를 아직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선생님’을 뵈 낫이 있겠느냐? 사람은 왜 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금까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왜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무쌍한 것이냐? 마치 6월의 날씨처럼 어떤 때는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고, 어떤 때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광풍이 몰아치는데, 왜 사람은 그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줄 모르는 것이냐? 내가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사람은 장마철에 우산을 챙길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우매함’으로 인해 몇 번이나 큰비에 젖어 온몸이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범벅이 됐었는지 모른다. 마치 내가 일부러 사람을 희롱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람은 늘 하늘에서 내린 ‘비’에 ‘습격’당한다. 어쩌면 내가 너무 ‘잔인’하여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늘 덜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람 가운데 진정 내 사역의 목적과 의의를 알게 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스스로에게 혼란을 주고, 형벌을 가하고 있다.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형벌하는 것이란 말이나? 사람은 왜 늘 사서 고생을 하느냐? 왜 늘 화를 자초하느냐? 왜 나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일을 찾아서 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준 것이 아직 적단 말이나?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처녀작’을 발표했다. 내 작품이 너무 ‘감탄스러워’ 사람은 내 작품을 받쳐 들고 자세히 연구했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내 작품은 파란만장한 놀라운 소설 같기도 하고, 낭만적인 산문시 같기도 하고, 정치 강령에 관한 자유 토론 같기도 하고, 경제 상식을 다루는 잡지 같기도 하다. 그 내용이 풍부하니 사람 사이에서도 이론이 분분했고 아무도 내 작품의 ‘순서’를 정리해 내지 못했다. 사람의 지식과 재능이 매우 ‘출중’하긴 하지만 내 작품 하나가 모든 영웅호걸들을 진땀 빼게 만들었다. ‘피와 눈물은 흘러도 머리는 숙일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숙여 내 ‘작품’에 굴복했음을 인정했다. 사람은 경험과 교훈으로 내 작품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서(天書)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내가 권하노니 너무 과민 반응 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일상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내 작품 속에 있는 ‘생활 백과사전’에서 ‘생활의 비결’을 찾고, ‘인류의 종착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늘의 비밀’에서 ‘나의 뜻’을 찾고, 그다음 ‘사람의 길’에서 ‘사람의 생활 기술’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이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내 작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책값’과 함께 추가로 ‘수수료’도 내어 주겠다. 나는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책의 작가로서 많은 독자가 내 작품을 사랑해 주길 바랄 따름이지만,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다. 그러니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앞길을 그르치는 짓은 하지 말라고 권한다. 만약 그런다면 심성 착한 내가 어찌 그토록 큰 치욕을 견딜 수 있겠느냐? 내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내게 소중한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 내 ‘저술’을 촉진하고, 사람의 지적에 따라 내 ‘저술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면 우리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이롭지 않겠느냐? 내가 맞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저술 수준’을 ‘향상’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사이의 우의를 증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사역을 방해하지 말고 내 말이 모든 가정에 퍼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말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내 사역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사람이 내 말의 ‘생명편’에서 인생의 격언이든, 인간 세상의 오류든,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든,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사람들에 관련된 ‘비밀’이든 뭔가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역시 ‘오늘날 사람의 추문’을 볼 것을 권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최신 비밀’을 봐도 좋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더 이롭다. 그리고 ‘인기 화제’ 장르도 많이 보아라.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더 이롭지 않겠느냐? 내 ‘제안’을 참고해서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다. 그런 다음 본 후의 느낌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시 상태에 따라 처방을 내리고 사람의 병을 철저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내 제안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사람이 내 작품을 참고 자료로 보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

1992년 5월 12일

제42편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새롭게 진입한다. 그들은 나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내 나라의 길을 걷는다. 나는 사람과 격의 없이 지내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에 대한 내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어떤 말은 사람에게 적잖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내 말을 많이 들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리 고상하고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모두 내 진심 어린 말이다. 인류는 본래 내 친구이기에 나는 이제껏 사람 가운데서 내 사역을 펼쳐 왔고, 사람도 내 사역을 방해할까 두려워 온 힘을 다해 나와 ‘협력’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은 몹시 즐겁다. 이미 내가 사람을 일부 얻어 내 ‘기업’이 더 이상 불황을 겪지 않게 되었고,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내 ‘전문 시장’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래도 분별이 있는지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다’. 따라서 내 전문

시장에 ‘신제품’이 생겼고, 그래서 영계에 내 ‘제품’을 사러 오는 수많은 ‘고객’이 생겼다. 이로부터 나는 영광을 얻었고, 내 말은 이제 빈말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이미 승리하고 돌아왔고, 모든 사람이 나를 축하하고 있다. 나에 대한 감탄과 내 발아래에 무릎 꿇었음을 표하기 위해 이때 큰 붉은 용도 ‘축하’하러 왔으니 나는 이를 영광으로 여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승리를 거뒀고 사람을 감탄케 하는 수많은 일을 했다. 일찍이 많은 사람이 나를 축하하며 나를 위해 찬미와 춤을 바쳤다. 가슴 벅차고 잊기 힘든 장면이었으나 나는 웃음을 내비친 적이 없다. 그때는 사람을 정복하지 못했고 일부 창세와 비슷한 일만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나는 보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이미 사람을 정복했고, 사람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지금의 사람은 이미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나는 내 모든 사역을 사람에게 배로 나타내어 내 모든 영광이 지음 받은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게 하고자 한다. 이를 사역 원칙으로 삼으려 하니, 나와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어나 나의 영광이 궁창에 충만할 수 있게 노력하여라. 지금이 바로 원대한 계획을 펼칠 때이다.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 주는 사람들은 내게 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일이 잘 ‘돌아가게’ 모든 것을 동원시킬 것이다. 하늘의 새는 하늘에서의 내 영광이요, 땅의 바다는 땅에서의 내 행사요, 만물의 주인은 만물 가운데에서 나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나는 이 땅의 만유를 내 경영 밑천으로 삼아 만물이 번식하고 번창하고 생기를 뿜어내게 할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나는 마지막 시대에 땅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기로 정해 두었다. 내 사역이 끝날 때, 즉 내 모든 행사가 궁창에 나타날 때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 내 모든 행사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내 행사가 ‘심판대’ 앞에서 증명되게 하여 온 땅에 있는 사람이 내 행사를 공인하고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벌인 적이 없는 공사를 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행사를 하나하나 나타내어 내 지혜와 기묘함, 난측함이 사회 각계에서 인정받고 검증되게 할 것이다. 특히, 땅에 있는 모든 ‘집권당’ 앞에서 그들이 내 행사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내 행사가 ‘판사’의 심리와 ‘변호사’의 ‘변호’를 받게 함으로써 내 모든 행사를 인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굴복의 의미로 고개 숙이게 할 것이다. 이로써 내 행사가 사회 각계의 인정을 얻게 되면, 그때 나는 비로소 땅에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감추지 않고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절정에 이를 때가 곧 내 사역이 막을 내릴 때이니, 나는 만국의 백성을 모두 정복하여 맹수는 내 앞에서 순한 양이 되도록 길들이고, 큰 붉은 용은 땅에 있는 사람처럼 내 앞에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땅에 있는 모든 대적자를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요, 내 놀라운 행사이다. 사람은 나의 인도에 따라 대자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할 뿐, 자기 생각대로 정할 수는 없다! 누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대자연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그것들이 ‘법칙’ 속에서 생존하게 했다. 그리하여 땅에는 봄이면 따뜻하고 가을이면 서늘한 것과 같은 규칙이 존재하게 되었다. 땅의 꽃들이 겨울에 지고 여름에 만개하는 것은 모두 나의 놀라운 손길 때문이다. 겨울에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기온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요, 바다가 포효하는 것은 내가 해수면의 사물을 침수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배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로써 사람의 ‘자연경제학’은 내 말로 인해 모두 무너졌다. 사람은 더 이상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만물의 주재자’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의 머리오, 만물의 주인이요, 만인의 인도자다. 이를 어느 누가 쉽게 ‘페인트’로 가릴 수 있겠느냐? 허상이 진리의 존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이냐? 어렵게 얻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일을 다시 시작했으니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계를 계속 ‘돌릴’ 것이다.

나는 내 말 속에 여러 가지 ‘조미료’를 넣는다. 그래서 나는 마치 사람의 수석 요리사 같기도 하다. 사람은 조미료를 얼마나, 어떻게 넣었는지를 모르지만 먹기는 아주 맛있게 먹는다. 모든 사람이 ‘요리 접시’를 받쳐 들고 내가 만든 ‘요리’를 맛보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늘 내가 직접 만든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먹고 싶어 한다. 사람이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고, 나를 최고의 양념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체면을 크게 중시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첼밥통’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설’ 기회가 있도록 기회를 보아 ‘주방’을 나온다. 이래야 내 마음도 편하다. 나는 사람이 나를 높게 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 사람 마음속에서 지위를 갖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아무렴 내가 그 정도로 억지에 막무가내이겠느냐? 께찰 자리나 원하는 것 같으냐? 그렇다면 왜 굳이 이토록 큰 공사를 시작했겠느냐? 나는 다른 사람과 명리를 다투고 싶지 않다. 나는 땅의 명예와 이익을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처럼 다투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기술’로 밥벌이를 한다. 나는 그런 양심 없는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먼저 일한 다음 ‘수고비’를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과 합리이다.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는 말이다. 나는 사람 사이를 오가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사람은 흥정하길 좋아해서 값을 너무 높게 부르거나 너무

낮게 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내 ‘본업’을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사람이 왜 본분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자기 분량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자기 분량이 몇 그램인지, 아니면 몇 냥인지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아직도 나를 거짓으로 속인다. 내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말이 산속 메아리로 울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내가 말하는 근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세 번째 격언을 이렇게 정리하겠다. “사람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아직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내 말을 먹은 후 소화제를 먹었는데 약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 그래서 내 말은 사람에게 잊힌 대상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은 사람에게 잊힌 뒷방이 되니 나는 이에 탄식한다. 내가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거늘 왜 사람에게서 확증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들인 공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해서란 말이냐? 이 일에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내 행정 법령으로 모든 사람을 정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엄한 아버지가 되어 전 인류를 다스릴 것이다!

1992년 5월 15일

제43편

내 행정 법령 때문인지 사람은 내 말에 ‘꽤 흥미를 느낀다’. 만약 행정 법령으로 다스리지 않았다면 사람은 놀란 맹호처럼 으르렁거릴 것이다. 나는 매일 구름 사이를 다니며 온 땅에 퍼진 인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행정 법령으로 이들을 가뒷 두었고, 따라서 전 인류에게 질서가 잡혔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행정 법령을 계속 집행한다. 그 후로 땅에서는 내 행정 법령으로 인해 다양한 형벌을 받게 되고, 사람은 형벌이 임함으로 인해 크게 울부짖고 또한 이리저리 도망간다. 이때 땅의 나라들은 순식간에 멸망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경계가 사라지고, 땅과 땅 사이에는 구분이 사라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사라진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상 교육’을 시작하여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도록 한다. 내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사람은 연합하게 된다. 나는 내 행사를 하늘 가득히 나타내어 땅의 모든 것이 내 권세 아래 쓰러지게 하고, 나의 ‘세계 통일’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 나는 이 염원을 이루어 사람이 땅에서 더는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고 하루빨리 적합한 종착지가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인류를 생각하고 있다. 전 인류가 하루빨리 평온하고 행복한 땅에서 생활하도록, 전 인류의 삶이 더 이상 처량하지 않도록, 또한 이 땅에서 내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이다.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땅은 내 영광이 나타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서는 나의 성을 정비하여 하늘 위아래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이다. 나는 하늘 위아래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땅의 만물을 하늘의 모든 것과 연결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자 마지막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나의 이 사역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말라! 이방에서 하는 나의 사역을 확장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이다. 아무도 내가 하려는 일을 짐작하지 못하므로 사람은 미망에 빠졌다. 내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바쁘다 보니 사람은 기회를 틈타 ‘장난치기’ 시작한다. 사람이 기회를 틈타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는 먼저 사람을 내 형벌 속에 두어 불 못의 ‘훈련’을 받게 한다. 이것은 내 사역의 순서이다. 나는 불 못의 ‘세력’을 빌려 이 단계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역을 전개하기 힘들다. 나는 전 우주의 사람이 내 보좌 앞에 돌아와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심판을 통해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을 통해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이로써 자기 족속에 귀속시켜 모든 사람이 다시는 나를 거역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유형의 이름대로 가지런히 정렬할 것이니 아무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한다! 나는 전 우주 위아래서 새로운 일을 했다. 전 우주 위아래의 사람은 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시야가 트였다. 오늘날이 바로 그렇지 않느냐?

나는 열국의 백성들 사이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 사역의 첫 부분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내 계획을 망쳐 다시 시작할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방에서 하는 사역의 절차는 하늘에서 하는 내 사역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다. 나는 이때 인간 세상에 안개가 가득 덮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눈을 갑자기 흐리게 만들어 황량한 사막에 있는 양처럼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였다. 광풍이 노호할 때 사람의 외침은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버렸다. 풍랑 속에서 사람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이나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아무리 힘껏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사람은 하늘에서 ‘구세주’가 뚝 떨어져 자신을 끝없는 사막에서 구해 주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든 ‘구세주’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결국 사람의 희망은 부서졌고, 타올랐던 ‘믿음의 불꽃’은 황량한 사막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에 꺼져 버렸다. 사람은 인적 없는 불모지에서 쓰러져 더는 ‘햇불’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사람의 의식은 혼미해져갔다…. 나는 이때 사람 눈앞에 오아시스를 보여 주었다. 사람은 크게 기뻐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 사지에 힘이 빠져 오아시스에 있는 탐스러운 과일을 봐도 가서 딸 힘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내장된 것’을 다 소모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건네주었지만 사람은 그저 거짓된 웃음을 지을 뿐이다. 사람의 모든

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기의 흐름을 따라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눈은 핏발투성이였다. 그렇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자상함 같은 애정의 눈빛을 보낸다. 사람은 갈라진 입술을 자꾸 오물거리는 것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나는 사람에게 물을 건네지만 사람은 고개를 저을 뿐이다. 사람의 이런 거듭되는 행동을 보고서야 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저 간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뭔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인간 세상의 풍속을 모르기에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람 생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사람은 그제서야 기쁨과 안도의 미소를 보이며 내게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소원이 모두 이뤄진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더 이상 근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땅 위의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공허함을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이 땅에서 탄식은 사라지고, 전 인류 생존의 날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나는 사람의 일을 적절히 안배한 후 내 사역을 한다. 사람이 늘 내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사람의 일을 주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일은 너무 자질구레하고 번거롭다. 사람은 아량이 너무 작아서 개미조차 놓아주지 않는다. 마치 개미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의 설명을 더는 상대하지 않고 또다시 떠났다. 사람의 눈에 나는 ‘주민’의 ‘가정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주민위원회’이다. 사람은 내 앞으로 올 때 늘 ‘자신의 이유’를 달고 오는데, 씹씹거리며 내 앞에서 자기의 ‘남다른 경험’을 말한다. 게다가 자기 해명까지 보탠다. 그 평범치 않은 모습은 다음과 같다.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데 땀이 ‘주입’되면 그 ‘먼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바로 ‘땀’과 결합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얼굴은 훨씬 ‘풍부’해져서 해변의 모래사장처럼 종종 ‘발자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죽어서 떠도는 영혼의 머리카락처럼 전혀 윤기가 없어 마치 ‘지구본’ 위에 곳곳이 세워 둔 밀짚 같다. 사람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몹시 화가 나 얼굴에서는 계속 ‘김’이 피어오르고 있다. 마치 땀이 ‘끓어 오르는 듯’ 말이다.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았더니 사람의 얼굴에는 태양처럼 ‘화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서 김이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이지 사람의 노기가 사람의 얼굴을 녹여 버릴까 봐 걱정되지만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쯤에서 나는 사람에게 화를 적게 내라고 권한다. 그렇게 해 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화를 내는 바람에 ‘지구’ 위의 밀짚이 태양의 화염에 거의 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달’도 붉게 변했다. 나는 사람에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 화를 적게 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하지만

사람은 내 충고를 듣지 않고 늘 내 앞으로 와서 ‘고자질’을 한다. 이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 설마 내가 가진 풍부함이 사람이 감상하기에 부족하단 말이나? 내가 준 것을 받지 않을 것이냐? 내가 화끈에 탁자를 엮었더니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멋들어진 이야기들을 늘어놓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내가 자신을 ‘구치소’에 데려가 며칠 구금시킬까 봐 심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화낼 때 기회를 보아 몰래 달아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짜증이 난다. 왜 사람의 ‘마음속’은 그리도 복잡한 것이냐? 내가 사람에게 장착한 ‘부품’이 너무 많단 말이나? 왜 늘 내 앞에서 주절거리는 것이냐? 내가 ‘민사 분쟁’ 처리 ‘고문’이라도 되느냐? 내가 사람에게 오라고 했더니? 내가 ‘사또 나리’라도 되느냐? 왜 민간의 일을 늘 내게 보고하는 것이냐? 나의 사역이 너무도 많으니 사람은 나를 방해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길 바란다.

1992년 5월 18일

제44편

사람은 내 사역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사역을 위해서 침식을 잇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람에게 적절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사람에게 적잖은 은혜와 축복을 내렸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탈취한 후 바로 떠나 버렸다. 마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베푼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의 관념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지 못하고 꾸물대고 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람에게 항의적인 말을 꺼내면 사람은 온몸을 벌벌 떨면서도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려 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그래서 앞만 바라볼 뿐 진짜 사정을 내게 알리지 못하고, 마치 입에 ‘딱지’가 붙은 것처럼 늘 버벅댄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잔인한 ‘자본가’라도 되는지 사람은 늘 나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 사람은 내가 자신에게 실제 상황을 캐물을까 봐 몹시 두려워 바로 종적을 감춰 버린다. 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친구’는 성심껏 사랑하면서 마음이 바르고 곧은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이로 인해 탄식한다. 왜 사람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냐? 왜 나는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이냐? 내가 인류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나? 사람은 내게 정상인이 가진 요소가 부족한 듯 항상 나를 산속 야인처럼 대한다.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큰소리를

치고, 나를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 한바탕 꾸짖으며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듯 나를 가르치려 든다. 사람 기억 속의 나는 이성도, 교양도 없는 사람이기에 사람은 내 앞에서 늘 ‘교육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부족함을 이유로 사람을 형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며 제때에 ‘구제금’을 받게 해 준다. 사람은 항상 벗어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계속 내게 부르짖기 때문에 나도 때를 맞춰 ‘보급용 식량’을 보내어 모든 사람이 새 시대의 대가족 속에서 살게 하고, 대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나는 사람 가운데서 업무 시찰을 하면서 사람의 결함을 적지 않게 발견했고, 이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 시대에도 사람 중에는 매우 빈곤한 자들이 있기에 나는 ‘빈곤 지역’을 적절히 보살피며 그들이 더는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내가 베푸는 은혜를 최대한 누리게 해 주는 것이다.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도 모르게 형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큰 손을 벌려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와 이 땅에서 내 은혜를 누리는 행운을 주었다. 땅에 있는 것들 중 허무하고 무가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인간 세상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인간 세상에는 많은 명승고적이 있고 감상할 경치도 있지만, 내 발길이 닿는 곳은 모두 진작에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그때야 나는 땅의 처량함을 느끼게 되었다. 알고 보니 지상에 생기는 이미 사라지고 온통 죽음의 기운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사람에게 어서 이 고해의 땅을 벗어나라고 했다. 내가 본 것은 모두 허무의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생기를 내가 택한 사람에게 넣어 주었고, 땅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아시스가 생겼다. 사람은 모두 땅의 생기 있는 것들을 향유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향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늘 땅의 것을 보물처럼 아끼기만 하고 땅의 허무함을 보지 못하기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땅에 왜 생기가 없는지 모르고 있다. 오늘날 나는 온 우주를 누비고 있다.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밀천으로 여기지만, 한 번도 생기의 출처를 찾지 않았다. 내가 준 것을 본전으로 갖고 있을 뿐 아무도 생기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자연 자원을 이용할 줄도, 개발할 줄도 모르기에 모두 찢어지게 가난하다. 나는 사람들 속에 거하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람은 지금까지도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이유로 사람은 내게 적잖은 도움을 주었지만, 내가 사람과 적절한 우정 관계를 맺지 못해서인지 나는 여전히 인간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낀다. 내 눈에 인류는 결국 허무한 존재이지, 그중에 가치 있는 진품(珍品)은 없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은 어쨌든 ‘허무’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는 사람이 이 때문에 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 나는 원래 이처럼 솔직하고 입에 발린 말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내 말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 그래도 내 생각을 많이 알길 권한다. 사람이 ‘허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사람이 노력을 들여 이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 실제로 인생을 체험하며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으니 말이다. 나는 사람의 열의를 꺾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내 말을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나는 사람을 위해 항상 바삐 보내며, 오늘 같은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사람은 여전히 내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것 같다. 사람은 종일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또 깊은 생각에 빠졌고, ‘사람에게는 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에 대한 연구 사업에 착수하였다. 나는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해부하여 대체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길래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지 보고 싶었다. ‘칼’의 영향으로 사람은 두 눈을 꼭 감고 내가 손대길 기다린다. 사람은 이때 완전히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불순물을 적잖게 찾아냈다.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자기 외의 것은 매우 적지만 자기 자신의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사람의 마음은 큰 저장고 같았고, 그 안은 매우 풍부하여 없는 것이 없었다. 이때야 나는 왜 사람이 늘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지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내가 도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사람을 떠났다.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왜 ‘낮 두껍게’ 사람의 미움을 사야 하겠느냐?

이유는 모르겠으나 나는 늘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나도 모르게 이러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항상 나를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며, 전혀 나를 존귀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아끼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가 곧바로 집 밖으로 내쫓아 나를 대중 앞에 ‘내놓는다’. 나는 사람의 이런 비열한 행위를 증오하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양심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총칼’을 쥐고 나와 싸우며 내 말이 현실과 다르다고, 내가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이런 포악한 행위 때문에 별하지는 않는다. 그저 나의 ‘진리’로 사람을 설득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 후 조용히 물러설 뿐이다. 나는 사람과 겨루지 않는다. 그렇게 해 봐야 아무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본분을 지키고자 하니 사람도 나와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길 바란다. 이렇게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서로 감정이 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거늘 굳이 다투면서 서로 나빠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간의 명예에 좋을 것이 없지 않느냐? 몇 년간 이어 온 ‘친분’이고 ‘오랜 관계’인데

불쾌하게 끝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사람이 어떤 영향이 생길지 유념하고, 사리를 구분하여 행동하길 바란다. 지금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만 해도 사람이 평생 이야기할 화제로 충분하다. 그런데 왜 사람은 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냐? 사람의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냐? 사람의 언어가 풍부하지 못한 탓이냐? 왜 사람은 늘 병어리처럼 말을 하지 못하느냐? 내 됴됨이를 누가 모르느냐? 내가 하는 일도 사람은 다 안다. 다만 사람은 자기 잇속을 차리기 좋아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말이 있다면 사람은 우위를 점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교할 줄은 모르고, 누가 더 많이 얻어 냈는지만 비교한다. 사람의 지위는 누릴 만한 것이 없으나 사람은 그것을 몹시 아끼는 데다 심지어 최고의 보물로 여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형벌을 받을지언정 지위의 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내린 사람에 대한 ‘평가’에 부당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딱 맞는 딱지를 달아 준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는 사람이 이를 경계로 삼길 바란다.

1992년 5월 21일

제45편

나는 내 집에 남겨 둘 알짜를 골라내고 있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 집을 장식하고 내 집을 더없이 풍성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이로 인해 기뻐다. 하지만 나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속셈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고 다른 부분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의 속셈을 이용해 내 사역을 완수하려고 한다. 나는 만유를 움직여 나를 위해 힘쓰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내 집이 더 이상 처량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인간 세상에서 살펴보니 육에 속한 자는 모두 혼미하여 내 존재로 인한 축복을 느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사람은 복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른다. 내가 전 인류를 오늘날까지 축복하지 않았다면 인류 가운데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사람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내 축복이요, 내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본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주 땅에서 생존할 밑천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가 계속 사람을 돕고 있기에 사람은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내 앞에서 있게 된 것이다. 사람은 인간 생존의 비밀에 대해 결론 지은 적이 있으나 그것이 내 축복임을 정확히 알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세상의 불공평함을 욕하고, 못마땅한 생활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 축복이

아니었다면 누가 오늘을 볼 수 있었겠느냐? 사람은 편안하게 살지 못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포근하고 따스한 환경 속에서 산다면, 훈훈한 ‘봄바람’이 사람 마음속에 불어와 온몸을 더없이 편하게, 아무 고통 없이 만들어 준다면 어느 누가 원망하며 죽겠느냐? 나로서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 사람의 속임수가 너무 많아서 실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반항’하면 사람은 내게 냉담해지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내 ‘반항’이 사람의 영혼을 건드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득을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을 ‘괴롭히는’ 나라는 존재를 증오한다. 사람은 내 말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며 춤추고, 내 말 때문에 말없이 고개 숙이고, 내 말 때문에 목 놓아 운다. 사람은 내 말 때문에 절망하고, 내 말 속에서 삶의 빛을 얻고, 내 말 때문에 전전반측하며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말 때문에 사망을 바삐 뛰어다닌다. 내 말은 사람이 음부에 떨어져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누가 내 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말을 인류에게 주었다. 이는 나의 말로 인해 인류의 부족함이 보완되고 인류의 삶이 비할 데 없이 풍성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늘 사람의 언행을 자세히 관찰한다. 나는 사람의 표정과 동작에서 많은 ‘비밀’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남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비법’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만날 때 접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처세 비법’이다. 여기서 사람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늘 사람을 꾸짖지만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사람은 내게 죽음 당하길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처세 비법’에서 사람이 죽음의 화를 당하리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불행을 당할 때 약간 좌절할 뿐이다. 사람은 내 말 때문에 큰 소리로 간청했다. 하지만 사람의 간청에는 늘 나를 비정하다고 원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사람에 대한 나의 진실한 ‘사랑’을 찾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내 엄한 말 속에서 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니 사람은 나의 말로 인해 늘 실망한다. 내 말을 보면 ‘사신(死神)’을 본 것처럼 공포에 부들부들 떨니 나는 이로 인해 불쾌해진다. 왜 죽음 속에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사람과 죽음이 전원지간이라도 된단 말이냐? 왜 사람은 항상 죽음이 두려워 근심하느냐? ‘평범치 않은’ 일생의 경험 속에서 겪은 죽음이 아직 적단 말이냐? 사람은 왜 항상 나를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이로 인해 나는 “사람은 순종하는 요소가 너무 적어서 항상 나를 증오한다.”라는 네 번째 인생의 격언을 도출해 내었다. 나는 사람의 증오 때문에 늘 떠난다. 왜 굳이 고생하겠느냐? 늘 사람에게 미움을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뻔뻔스럽게 사람의 집에서 살아야 하겠느냐? 나는 내 ‘집’을 챙기고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은 또 미련이 남아 나를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가 떠나면 더 이상 삶의 의지처가 없어질까 봐 몹시 두려워하며 목 놓아 운다. 사람의 간청하는 눈빛을 보니 내 마음은 약해진다. 이 세상 넓고 큰 바다 위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모두 더러운 물에 온몸이 흠뻑 젖었고, 바다 세력에 집어삼켜졌다. 나는 사람의 패역을 증오하지만, 또 전 인류의 불행한 처지를 동정하기도 한다. 사람은 결국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사람이 무력해진 틈을 타서 사람을 물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 아무렴 내가 그들이 잡은 지푸라기마저 뺏을 정도로 잔인하겠느냐? 내 마음이 그렇게 독하단 말이냐? 내가 사람에게 취하는 태도 때문에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시대로 진입했고 나와 함께 평범치 않은 나날을 보냈다. 오늘날 사람은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나의 친근함을 배로 느끼고 있으며, 활력 넘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람의 삶에 생기가 돌고, 더 이상 방랑자처럼 멀리 떠돌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와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사람은 모두 나를 의존하고 있다. 내가 모든 면에서 사람을 생각해 주고, 늘 세심하게 보살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바람에, 비에, 별에 조금도 시달리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내 품속에서 산다. 사람은 행복 속에 살며 나를 자애로운 어머니로 여긴다. 사람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연재해’의 습격을 전혀 견디지 못하고, 늘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풍랑의 시련 속에 두니 사람은 계속 ‘흔들렸고’ 반항할 능력도 거의 없었다. 사람의 신장이 너무 작고, 체력도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로 인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는 시련을 겪고 있다. 사람이 너무 허약하여 바람도, 별도 견디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왜 사람은 늘 내가 주는 시련에 부닥치면 목 놓아 우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이란 말이냐? 내가 일부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라도 하는 것이냐? 왜 사람의 귀여운 모습은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은 언제나 나를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사람은 늘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내게 손잡고 가 달라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끌고 갈까 봐 늘 겁낸다. 사람의 일생은 모두 내가 이끌고 온 것이 아니냐? 사람은 험난한 일생에서 갖은 풍파를 견디고 불공평한 일들을 적잖게 겪었다. 이중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이 있기라도 하더냐? 왜 사람은 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내 호의는 늘 오해받는 것이냐? 왜 이 땅에서 내 사역을 순조롭게 전개할 수 없는 것이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계속 사람을 피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몹시 슬프다. 왜 나의 다음 단계 사역이 사람에게서 통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나는 침묵하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왜 나는 항상 사람의 결함 때문에 제약받아야 하는 것일까? 왜

내 사역은 항상 막히는 것일까? 나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에게서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다. 사람은 나를 뿔속 깊이 원망하거나 더없이 사랑하면서, 늘 차가웠다 뜨거웠다 비정상적인 변덕을 부리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하나님인 나로서는 사람의 이런 변덕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람의 정신은 늘 비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노라면 사람의 비정상성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무의식중에 사람이 가진 비밀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사람의 배후에는 책략가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사리에 맞는 일을 한 것처럼 늘 당당하고 떳떳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늘 어른인 척하며 ‘꼬마’를 달래듯 하는데, 사람이 허세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크게 진노하게 된다. 사람은 왜 이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느냐? 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느냐? 설마 내 말이 없어지기라도 했던 말이나? 내 말이 사람의 원수라도 된단 말이나? 왜 사람은 내 말을 보면서 내게 원망을 품느냐? 사람은 왜 내 말에 늘 자기 생각을 더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너무 억지를 부린 것이냐? 내 말에 담겨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92년 5월 24일

제46편

내 말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이 일을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나 사람의 운명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데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늘 내 일거수일투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내 태도를 보고도 전혀 애모의 정이 생기지 않는다. 마치 일찌감치 감정을 벗어 버림으로써 ‘내 마음을 만족게 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나는 또 침묵한다. 내 말이 되새겨 보고 깊이 진입할 가치가 없단 말이나? 나에게 ‘실체가 없어서’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란 말이나? 왜 사람은 항상 나를 ‘특별 대우’ 하느냐? 내가 병원 특실의 ‘환자’라도 된단 말이나?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나?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잘못되었단 말이나? 오늘날 나는 온 우주에서 또 새 사역을 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모든 사람이 내 집에서 ‘이사를 하게’ 하였다. 사람이 늘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꾸 내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내가 연 ‘호텔’에서 사람이 나를 제일 성가시게 한다. 사람은 늘 말썽을 일으키고 늘 나를 실망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치욕당해 늘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과 대화하며 어서 내 집을 떠나라고, 내 집에서 공밥을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만약 남고 싶다면 고통을

받고 내 채찍질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내가 사람의 행위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완전히 깜깜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넘어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줄곧 내 앞에 ‘우뚝 서’ 있으며,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머릿수만 채우고 있을 뿐이다. 내가 사람에게 요구할 때 사람은 깜짝 놀란다. 오랫동안 마음씨 착했던 하나님도 무정하고 의리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 밖이라 사람은 할 말을 잃는다. 이때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증오가 더 커진 것을 보았다. 사람이 또 원망하는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늘 땅을 원망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말 속에서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통해 “사람의 일생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비통하고 공허하며, 나에 대한 증오로 멸망을 자초한다.”라고 인생의 의미를 정리했다.

사람의 말 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람의 말을 ‘실험실’로 가져가 화학 분석을 했을 때 현미경을 통해 사람의 말에 포함된 요소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이때 나는 다시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진료 기록’을 보여 주었다. 사람은 그것을 봤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고, 속으로 통회했으며, 심지어 당장이라도 개과천선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마음이 급했다. 나는 사람의 다짐을 보고 몹시 기뻐고, ‘땅 위에서 사람 외에 또 누가 나와 고락과 환난을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며 행복감에 빠졌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떠나자 사람은 ‘진료 기록’을 찢어서 땅에 버리고 손을 털며 떠났다. 그 후의 나날 속에서 나는 사람의 행위 중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얼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의 다짐은 내 앞에 수없이 쌓였다. 나는 사람의 다짐을 보면 염증을 느낀다. 그 다짐 속에 내가 누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사람의 다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을 보고는 냉담해졌다. 그 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 내 앞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고, 내게 거절만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정신적 지주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의 ‘열의’는 사라졌으며, 나도 더 이상 날씨의 ‘뜨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평생 적잖은 고통을 받았고, 오늘날 나에게 죽다 살아날 정도로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얼굴색이 어두워졌고, 사람의 그 ‘활발한’ 모습도 사라졌다. 사람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이다. 나도 사람이 형벌 속에서 연단받는 가련한 모습을 차마 볼 수는 없지만 또 누가 사람의 참패 상황을 만회할 수 있겠느냐? 누가 사람을 힘든 인생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왜 사람은 늘 고해의 심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느냐? 내가 일부러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라도 했단 말이나? 사람은 늘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나는 전 우주에

“하늘 위아래 온 만물 중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라는 탄식의 소리를 발했다. 지금까지도 나는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나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바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자신의 운명을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사랑은 내게 주지 않는 것이냐? 설마 내가 사람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나? 사람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면서 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냐? 사람의 사랑은 왜 늘 숨어 있는 것이냐? 사람은 오늘날까지 내 앞에 서 있거늘 왜 나는 한 번도 사람의 사랑을 보지 못한 것이냐? 설마 사람에게 이 요소가 부족한 것이냐? 내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우려가 있단 말이나? 잘못 사랑했다가 돌이킬 수 없을까 무서운 것이냐? 사람의 내면에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기에 나는 사람을 마주할 때 늘 ‘겁과 두려움’을 느낀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문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분발하여 바짝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나라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닫고 사람을 문밖에 세워둔 채 ‘통행증’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사람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여태 활짝 열려 있던 문이 왜 오늘 갑자기 닫혔는가 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땅 위를 서성이기도 했다.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가짜 통행증’을 꺼내 내게 건넬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불터미에 던져 버렸다. 이에 사람은 활활 타는 ‘자기의 심혈’을 보며 낙담했다. 또,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어서 머리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모습이 가련하다고 해서 사람을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누가 멋대로 내 계획을 망칠 수 있겠느냐? 후천적인 축복이 사람의 열의로 얻을 수 있단 말이나? 사람의 생존 의의가 바로 내 나라에 멋대로 들어가는 데 있단 말이나? 내가 그리 비천하냐? 내 엄한 말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진작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늘 나를 증오한다. 내 존재가 사람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가 없었다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좋은 시기에 빨리 내가 있는 곳에서 나가 살길을 찾고, 아직 젊었을 때 빨리 ‘기술’을 배우라고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늙을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중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가난’ 속에서 살지 말고 일찌감치 떠나라고 권한다. 나중엔 후회하면 늦는다. 생각을 넓게 가져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나는 또 사람에게 누구도 축복을 얻지 못했을 때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일러 준다. 나는 사람과 쓸데없는 설전을 벌일 시간이 별로 없으니 사람이 이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귀에 거슬리겠지만 약이 될 나의 충고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다. 사람은 패기가 없고, 언제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자신의 ‘불순한 마음’만 주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게 적잖은 말을 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사람이 내 충고를 듣지 않으니 이후에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내 입장을 알리겠다. 앞으로 죽든 살든 스스로 알아서 하여라. 이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길 바란다. 나는 속수무책이니 말이다. 기왕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우리 여기서 ‘이별’하도록 하자.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할 이야기도 없고 논의할 일도 없을 것이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자.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말라. 나도 더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일이다. 나중에 이런저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두자. 그러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 제 갈 길을 가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나쁠 것 없지 않느냐? 나는 사람이 잘 고민해 보길 바란다.

1992년 5월 28일

제47편

사람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사람과 내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상(理想)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사람이 내 말에서 자양분과 영양분을 얻고, 나의 모든 풍부함을 얻게 한다. 나는 사람을 곤란하게 한 적이 없지만 사람은 늘 내게 가차 없다. 사람은 무정하고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부족한 면으로 인해 나는 사람을 깊이 동정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노력을 들여 사람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의 모든 풍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따를 것을 봐서라도 절대 사람을 박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를 따를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약해져 그들에게 내 사역을 차마 착수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왜소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늘 말하기 힘든 괴로움이 생긴다. 하지만 누가 이 때문에 관례를 깰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때문에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겠느냐? 나는 내 모든 풍부함을 사람에게 내려 마음껏 누리게 했지 이 일에서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자비롭고 선한 면모이다. 나는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충분히 즐겨 싫증을 느끼게 되는 그때, 나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 모든 사람이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는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바닷물로 사람을 집어삼켰었고, 기근으로 사람을 통제했었고, 해충 재해로 사람을 위협했었고, 폭우로 사람을 ‘적셔 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 설마 내 앞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겠느냐? 내 안에 있으면 재난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나? 땅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 중에 스스로 즐기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자가 몇이나 있더냐? 육신의 공허함을 벗어난 자가 있더냐?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 또한 있더냐? 내가 인류를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육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자는 없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이처럼 공허하고 염증 나는 인생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의 체험을 놓고 볼 때, 육으로 사는 사람이 나를 누리는 것을 밀천으로 삼을지라도 세상의 풍습과 인정을 떨쳐 버린 자는 없었으며, 계속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내가 인류를 철저히 멸망시키면 그때는 그 누구도 땅에서 살면서 땅의 ‘박해’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때가 되어야 내 대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말세에 성육신하여 이루고자 하는 사역은 사람이 육으로 사는 공허함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그 후에 땅에서는 인류가 사라진다. 더 이상 땅이 공허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 육체의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과 사물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고, 땅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도 않는다. 자기에게 적합한 종착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은 모두 미소를 보일 것이고, 나도 더 이상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이고, 평화 조약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땅에서 살고, 사람도 땅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와 사람은 함께 기거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누림을 느끼며, 이로 인해 이유 없이 떠나려 하지 않고, 내게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한다. 내가 어찌 땅의 처량한 광경을 보면서 수수방관할 수 있겠느냐? 나는 본래 땅에 속하지 않지만 인내심이 있기에 마지못해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문 것이다. 사람이 계속 간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땅을 떠났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내 도움이 불필요해졌다. 모두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떠먹여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 함께 ‘성공 축하연’을 열 생각이다. 그다음, 사람이 아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불쾌하게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원한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우의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사람이 내 ‘유전’을 계승할 수 있길 바란다. 내 생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나를 잘 만족게 하며, 내 말을 삶의 토대로 삼길

바란다. 나는 속으로 계속 사람을 걱정하고, 계속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사람과 함께했고,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복을 누렸다. 나는 사람과 함께 기거하고 생활했다. 사람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영원히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마음과 뜻이 통했다. 내가 사람과 함께한 장면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함께한 세월 속에는 즐거운 이야기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쳤고, 또 다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런 기초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며, 우리 사이에 왕래가 끊긴 적은 없었다. 오랜 교제 속에서 사람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도 사람에게 누릴 것들을 많이 주었고, 사람은 계속 내게 배로 감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누가 헤어짐의 순간을 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에게 대한 정이 깊고, 나도 사람에게 계속 정이 샘솟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어느 누가 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요구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거처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의 다른 부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만날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땅에서 나를 만족게 하길 바란다. 하늘에 있는 내 영은 언제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창세부터 나는 말세에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한 무리의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또한, 말세에 이 땅에 본보기를 만든 후 내 거처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예언했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만족게 할 때는 내가 요구한 것이 이뤄진 때요, 그때부터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옛정을 나눌 것이다. 그다음 우리는 헤어진다. 나는 이 사역에 착수하여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을 알게 한다.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내가 너무 무정하다고 여기거나 너무 의리 없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적합한 안식처가 있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나? 사람은 나를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부르짖을 의향이 없단 말이나? 사람은 예전에 나를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냐? 우리 부자가 빨리 만나도록 해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지금은 원하지 않는 것이냐? 나는 땅에서의 직분을 이미 다하였는데,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러면 좋지 않느냐? 더 나은 사역 성과를 위해, 우리 서로의 이로움을 위해 아픔을 참고 이쯤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나는 사람에게 많은 말을 했고, 하는 말마다 사람의 마음을 찢어 슬퍼하며 눈물 흘리게 하였다. 여기서 사람에게 사과하니 나를 미워하지 말고 양해해 주길 바란다. 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난 세월 우리 사이에는 말다툼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다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의의 다리가 놓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울인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냐? 우리는 이를

누림으로 여겨야 한다. 과거 나의 '과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 나도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겠다. 앞으로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기만 한다면 하늘에 있는 내 영이 위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다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 마지막 요구에 대해 나를 만족게 할 의향이 있느냐? 나는 사람이 뭔가 하길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이에서 불쾌했던 일들은 지워 버리고, 사랑만 영원히 남게 하자. 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사람도 나를 사랑하며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이 우리 사이의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소중히 하여 우리 사랑이 인간 세상에 널리 퍼지고 영원히 전해지길 바란다. 우리가 재회할 때에도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애정'이 길이 남고 모든 사람이 이를 미담으로 널리 칭송하게 하자.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내 당부를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1992년 6월 1일

부록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부분적인 말씀에 대한 해석)

제1편

“아무도 내 말의 근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목적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영의 인도가 없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5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시련을 준 이유가 바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안점이며, 하나님 지혜의 핵심 포인트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자. 그동안의 시련, 곧 하나님이 모든 패괴된 사람을 모질게 때리고 죽이고 베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 건축만 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첫마디에서부터 몇 개월 사이에 거두어야 할 당위적 결과를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다. 한 번에 핵심을 찌른 것이다! 이 몇 개월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즉, 모든 이를 시련을 통해 순종할 수 있게 하였고,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뼈아픈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였다. 또한 사람은 희망이 부서질수록 자신을 더 잘 알게 됐고 솔직해졌으며, 고난의 연단이 클수록 자신의 패괴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 준 것일 뿐, 자신은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사람의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숨김없이 긍휼의 말씀을 주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몇 달 뒤에 할 사역의 방식이 오늘날 시작되었으며, 모두에게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줬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전에 늘 “백성이란 호칭을 얻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였다. 따라서 이 말씀은 봉사자로 불렸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은 조금도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은 빈말이 아니며,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이루어진다.

모든 이가 크게 비통해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람 내면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실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소생시켰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이는 ‘아들’이란 호칭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병을 지킬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또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더 확실히 믿게 하였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이 이상(異象)에 대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존재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또 처음부터 쪽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교회를 정결케 하는’ 첫 부분의 사역이 끝났음을 직접적으로 알렸다.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다. 나의 사역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뒤이어 다음 단계 사역에 대한 청사진, 즉 교회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나라의 삶이 시작됨을 보여 주었다. “지금은 교회 건축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성공적으로 건축될 때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땅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교회라 부른다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상상하는 비현실적인 ‘하나님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제 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하나님나라를 건축하고 교회 건축이 마무리될 시점이건만 어찌하여 모든 사람의 모임을 계속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냐? 예전에 교회는 하나님나라가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었는데, 교회 없이는 하나님나라를 논할 수 없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는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 이행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성육신 하나님이 열어 놓은 것이다. 그가 하나님나라시대를 열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나라가 정식으로 임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백성이란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나라시대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의 모임을 계속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상 인성으로 일을 하였고, 하나님 자신도 증거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나라시대가 인간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즉,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영은 아직 정식으로 내가 입은 육신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자신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내가 신성으로 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가 신성으로 하는 말과 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나라시대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백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주로 신성으로 일하고 말하기에 사람은 전혀 간섭할 수가 없고, 또한 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이에 따라 사람이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다. 이 또한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고 앞 단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데 뿌리를 내려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나님의 이 같은 행사는 심판 시대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연결점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것이다. 몇 개월 동안의 연단이 없었다면 나의 신성은 역사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몇 개월 동안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의 사역을 위해 길을 열 수 있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역이 멈춰 있었던 것은 다음 부분으로 더 깊이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사역에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해 왔음을 알게 된다.

인성의 제약으로 인해 내 다음 단계의 사역에 장애물이 설치된 것이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고난과 연단으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고,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사람은 모두 내가 그들에게 부여해 준 호칭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봉사자’가 아닌 ‘백성’으로 부르자 모두가 기뻐 날뛰었다. 이는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부분을 잡아 말썽한 것이다.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고, 불순물이 섞인 일부 사람들의 충성심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온갖 추태를 꼬집어 내었다. 따라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다는 말이나? 시련 속에서 불평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다는 말이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패역과 불충불효(不忠不孝)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를 찾는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물러가기 직전, 또한 모든 사람이 내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기를 기대하다가 실망할 때 나는 구원의 소리를 발하여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는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심’이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므로 ‘진심’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패괴된 인류를 비꼬는 것으로, 모든 이에게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심하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음속의 원망이 오롯이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한다. 모두가 ‘충성심’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 마음속으로 몰래 ‘나는 여러 차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두려워 다들 하는 대로 건성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지. 일말의 희망도 없을 때 천천히 물러나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백성이라고 부르시다니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시란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오해를 피하고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의 다양한 심리 상태를 꼬집었다. 그러자 의심의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기뻐하던 사람들이 눈에서 입으로, 나아가 마음까지 진정으로 탄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뇌리에 더 깊이 박히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더 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근심을 털어 주고자 “...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늘날에 이른 이상 더는 과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고, 미래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였다. 이렇게 긴박하고 조화롭고 짜임새 있는 표현은 효과가 더 좋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이 지난날의 실망감에서 벗어나 다시 광명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행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이란 호칭을 얻었고, 마음속의 의심을 몰아냈으며, 다양한 심리 상태를 통해 스스로를 알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며 만감이 교차하였다. 하나님은 이 편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모습을 남김없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수준으로 내면 깊은 곳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들춰낸 것이다. 설마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직접 계시해 주는 다음 부분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사람이 현실을 거슬러 내가 인도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을뿐더러 괴로움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아니냐? 이를 통해 이 행정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고 빛 비춤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한층 더 성숙하고 진중해졌다. 마치 온갖 시련을 겪고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때서운 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자연에 초록빛 생기를 더해 주는 듯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또다시 미궁에 빠진 듯 어리둥절해한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상당히 빨리 바뀌므로 10명 중 9명은 자신의 패괴 성품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다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갔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을 해소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몇 개월 동안의 사역 상황에 처해 있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고, 허공에 떠 있던 마음은 무거운 돌이 땅에 떨어지듯 제자리를 찾았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사람은 모두 독선적인 존재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더없이 충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자 일부러 ‘진심’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다음 단계의 사역을 위해 길과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제3편

지금은 은혜시대나 긍휼의 시대가 아닌 모든 백성들을 드러내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고 신성이 직접 일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3편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이해한 모든 사람을 영계로 이끌어 갔는데, 첫머리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니 곧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 사람이 ‘봉사자’란 이름으로 시험을 받았다면 오늘날에는 시련을 받는 즉시 정식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게다가 사람은 과거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또한, 말씀과 사람, 영과 사람을 불가분의 하나, 즉 하나의 입, 하나의 마음, 하나의 행동, 하나의 근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창세 이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가장 높은 요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마음과 힘을 쏟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거를 지킴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따라서 너희가 백성이라고 불리는 만큼 과거와는 다르다. 너희는 나의 영이 발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이에 순종해야 한다. 나의 사역을 바짝 따라와야 하며, 나의 영과 육신을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영과 육신은 본래 하나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직접적으로 알렸다. 모두가 성육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위의 말씀에서 “영과 육신은 본래 하나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를 힘주어 강조했다. 사람이 영과 육신을 분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다시 위의 말씀을 행정 법령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뒤이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행정 법령을 거스를 경우 일어날 결과를 숨김없이 알렸다. 즉, “그러면 손해를 볼 것이며 자신이 빚은 쓴잔을 자신이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쓴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한참을 곱씹기 때문이다. ‘쓴잔’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말씀의 심판을 받는 것’부터, ‘하나님나라에서 제명되는 것’ 혹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는 것’, ‘육체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악령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영에게 버림받는 것’, ‘육체가 숨을 거두어 음부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 몇 가지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쓴잔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쓴잔’은 위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정도를 의미한다. 더 확실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분리하거나, 말씀과 사람, 또는 영과

그가 입은 육신을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커져 갈 것이다. 또한,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서 눈이 가려질 것이다.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바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 즉 재난 속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그 어떤 사람과도 화합하지 못하고, 악령이 들리거나 머리가 없는 파리처럼 아무 곳이나 부딪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는 못한다. 말 못 할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입을 열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괴롭기 짝이 없다. 하루 종일 흐리멍덩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정 법령 또한 위협해 온다. 이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감히 ‘교회’를 떠날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안팎으로 받는 협공이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등을 돌릴 때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쓴잔이 비워지면 그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누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과거와 다른 시기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로써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 과거에 하나님은 봉사자에게 전혀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내재된 생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명이 언급된 후에야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본 후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치고, 몰래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족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찢어 쪼개면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마음을 놓지 못한다. 말씀이 간곡하고 뜻깊으며,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도 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본 사람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어미를 다시 만난 어린양처럼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 눈물을 펄펄 쏟는다.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렇게 오랫동안 담아 온, 말 못 할 고통을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하고자 한다. 시련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상 신세를 진 환자 같다. 이들은 방금 무언가에 자극을 받은 것처럼 정신적으로 예민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다음 단계 사역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의 연단을 통해 내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 여기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은 봉사자 역할을 할 때에도 하나님 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란 호칭의 진실성을 강조하여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풀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말씀을 본 후 혹은 ‘백성’을 드러내기 전의 여러 가지 태도를 수차례나 언급했겠느냐? 단지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겠느냐? 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생명에 결여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본받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위한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면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속의 불쾌감을 떨쳐 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하자 하나님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다시 백성에게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말한다. 너희 역시 매 순간 내 앞에서 자신을 알아 가야 한다. 오늘날은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만 자신을 이길 수 있다. 나의 말을 중심축으로 삼아야지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은 그중에서 ‘나의 말’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의 말’을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의 이 같은 행사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행할 사역의 핵심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건성으로 흘려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에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이 아멘을 외치며 순종하던 모습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저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바로잡고자 또다시 땅에서 사람에게 새롭고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 사항을 본 후에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아량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사람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고, 나를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는 내가 손바닥 보듯 훤히 알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여러 차례 사람을 격려했다. 짧지만 의미 깊은 이 몇 마디의 말씀으로 사람은 큰 깨달음을 얻어 즉시 실망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의 연약한 부분에 비추어

말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행동이 하나님을 뵈면 면목이 없는 것임을 깨닫고 수없이 통회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어투로 이 같은 말씀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기보다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느끼게 되었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영계에서 묵묵히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했을 뿐 사람에게 영계의 실상에 대해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영계의 교전 상황을 언급하니 사람은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영계의 교전 상황이 모두를 영 안으로 데려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사역의 첫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자 사람이 영계에 들어가는 데에 실마리가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행할 사역은 영에 충력을 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행한 하나님 영의 놀라운 일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이가 사탄의 어리석음과 본성을 환히 꿰뚫어 보도록 하는 데에 있다. 사람은 영계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사탄을 꿰뚫어 본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에 다다르자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의 훈련에 속도를 내겠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영계의 실상을 알려 주겠느냐? 내가 거듭 너희를 일깨우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등과 같은 질문들을 한 것이다. 그러자 사람의 머릿속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투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교회 건축 과정에 사람에게 했던 요구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영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비밀을 여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지 않으실까?’와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찬다. 그렇게 잠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사역의 절차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사탄의 시험을 겪어 본 뒤로는 사탄을 진심으로 혐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시련이 닥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탄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나아가 사탄을 저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너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주렁주렁 달린, 그것도 변질되지 않는 열매이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내비쳤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했던 수차례의 요구 중에서 이번 요구가 가장 온전하고, 중심이 되며, 단도직입적이다. 나는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다 완전한 신성의 역사로 옮겨 왔다. 그러므로 과거의 알아듣기 쉬운 말에 대해서는 굳이 풀이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내 말을 깨닫고 실제적인 면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의 신성이 권세를 잡고, 인성이 개입할 여지는 조금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백성이 내 말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 내가 한 말을 통해서만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는 내 말의 목적을 헤아리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내가 한 말을 받아들여 나를 더 깊이 알게 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살아 낼 때이며, 육신에서의 내 사역이 완성되고, 내가 육신에서 온전히 신성으로 살아가는 때이다. 이때는 모두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열매’이다. 이는 하나님이 교회 건축에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더 확실히 설명하는데, 바로 “온실 속의 꽃은 무수한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고, 모든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사탄의 간계처럼 너저분해져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다. 교회 건축 시기에도 하나님이 친히 사역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므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사탄의 간계처럼 너저분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하신 일을 두고도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냐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새롭고 올바른 출발점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게 할 수 있다는 계시를 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강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의 핵심이자 6천 년 경륜의 결정체이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의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한 일을 알게 됨으로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제4편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변한 후 자신의 처지를 잊고 만족감에 들떠 모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난번 말씀을 통해 백성에게 아주 큰 요구를 했다. 즉,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 있는 이 단계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긍정적인 상황에 처할 때 즉시 사람에게 문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질문했다. “나에 대한

사랑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는 않았느냐? 나를 향한 충성심이 순수했느냐? 나에 대한 인식이 참되었느냐? 너의 마음에 나의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등과 같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여기에서 앞부분은 두 마디 훈계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문이다. 특히 “나의 음성이 너희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느냐?”라는 질문은 매우 적절하여 참으로 사람 마음 깊은 곳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들추어내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은 그간 하나님을 섬겨 왔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는데, 자신에 대한 관용, 독선, 거만함, 자만심, 자기만족,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마치 이러한 그물 속에 생포된 물고기처럼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언제나 절제하지 않고, 정상 인성을 갖춘 하나님을 수차례 기만했으며, 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봉사자로 불리기 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호랑이처럼 열정이 넘쳤다. 생명을 어느 정도 중시하기는 했지만 마치 노예처럼 건성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했다. ‘봉사자’를 드러내는 기간에는 부정적이었고, 뒷걸음쳤으며, 근심에 싸였고, 하나님께 불평했으며, 낙담했다. 이렇게 다채로운 그동안의 일들이 머리에 맴돌았으며, 심지어 잠을 설쳐 낮에는 정신이 다 몽롱했다. 마치 하나님에 의해 두 번째로 도태되어 음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단지 사람에게 난해한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질문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예전에 오늘은 오늘이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더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질문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아라. 어찌하여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 말씀의 근원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할 리가 없다. 일단 이것은 차치해 두고 위에서 언급한 ‘어찌하여’에 대해 설명하겠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며, 말씀을 하는 데에는 목적과 의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의 핵심과 관계가 있다.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아 오랜 습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먼저 사람에게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인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더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말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각기 다른 정도로 다양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예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에 조금이나마 진실함을

답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0.1%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크나큰 구원을 베풀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큰 붉은 용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에게 점령된 자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사람은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의 마음에 100%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과거의 ‘봉사자’와 오늘날 ‘백성’의 모습을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에 사람은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른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낮이 뜨거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질문 자체에만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질문에서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충성도와 인식 정도, 즉 차마 입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딱한 사람의 실제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분량은 너무도 작고, 하나님에 대한 앎은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는 불순물과 불결함이 많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한몫 챙길 기회만 엿보고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참뜻은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두고자 질문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는 과거에 사용한 모든 이를 모질게 때리고, 찌고, 죽인다 등과 같은 폐부를 찌르는 표현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어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너희 중에 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나는 네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무미건조한 말씀을 사실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자. 내용은 동일하고 말투만 상이한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면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이 첫 번째 말투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예술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비천함과 고귀함의 차이만 있을 뿐 내가 쓰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계속 아래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금도 느슨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뼈아프게 뉘우칠 때 또다시 “만약 나의 이런 질문을 듣고도 깨닫는 바가 없다면 이것은 네가 한몫 챙길 기회만 엿보고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예정한 시간에 도태되어 두 번째로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경고의 말이다. 이것을 흘려듣는 자는 누구든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저갱에 빠졌던 예전의 상황을 떠올렸다. 즉, 재난이 그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그들을 다스리며,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우울하고, 고민하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누구에게도 마음속의 슬픔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차라리 육이 소멸되는 것이 나을 듯했던 상황들... 이런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니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시려 온다. 자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걱정이 커지고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행정 법령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된다. ‘백성’이란 표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란 생각이 들자 편안했던 마음에 근심이 깃든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사람을 치고, 이로부터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여 사람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가 더욱 헤아릴 수 없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올라설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계시고 한 점의 오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더욱 여긴다. 나아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를 향해 한층 더 매진하고 감히 물러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교훈을 얻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내 말을 거역하여 회복의 흐름에서 버림받고 도태되었다. 결국 육체가 사라지고, 영체는 음부에 떨어져 지금까지도 중벌을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나 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어겼다. ... 또 어떤 이는...” 이런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실질적인 경고를 하고, 역대로 하나님이 해 온 일에 대해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영계의 일부 실상도 묘사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영원토록 지옥의 상징으로 전락하며, 사탄의 화신이자 모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은 위의 말씀만으로도 크게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므로 하나님께 있어 이 부분은 부차적인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계의 정보를 일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내가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영계의 문을 통해 각양각색의 영을 볼 수 있다. 음부에 있는 영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있는 영도 있다. 또한 일부는 불 못에 있고, 일부는 무저갱에 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면 위의 분류는 외적인 모습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그의 형벌로 다스려지는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탄에게 묶여 있는 영도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황의 경중에 따라 형벌받는 것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다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직접 형벌하는 자의 영은 아예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환골탈태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 즉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 중의 원수는 땅의 일과 관련이 있다. 땅에 있는 온갖 악령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탄의 종이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행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천고의 죄인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들은 나를 직접 대적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였다. 뒤이어 이런 영의 향후 결말에 대해 “이들은 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심판받을 대상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또한,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먼 상태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짚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실제 사례(바울의 일)를 들어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그의 경고에 대한 인상을 더 깊게 각인시켰다. 사람이 바울의 일을 이야기로 간주하고 자신을 방관자로 치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수천 년 전 사람들의 행적을 여기저기 떠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이 평생 동안 겪은 체험보다는 바울의 최후와 결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인, 그리고 그가 어떻게 파국을 맞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울의 아름다운 소망을 강한 어투로 부정하였고, 그가 영계에서 처한 상황을 콕 집어 “하나님께 직접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사람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종잡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또다시 설명하고(말씀의 다음 부분), 또 다른 측면의 문제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든 나(육신을 입은 나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영, 즉 나의 신성임)를 대적하는 자는 육체에서 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데다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의 예를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말씀이 관계가 없는 듯한 두 가지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절묘한 부분이다. 이로써 사람은 바울의 행적에서 깨우침을 얻고, 연결된 앞뒤 문장에서 바울을 통해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자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려는 성과이다. 다음으로 사람의 생명 진입에 도움이 되고 깨우침을 주는 말씀을 하였다. 이 부분은 너도 이해하기 쉽다고 느낄 것이니 내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정상 인성으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이미 나의 진노와 위엄과 ‘겨룬’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성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신성으로 직접 말하고 일해도 여전히 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보게 될 사람들이 일부 있다. 게다가 심판 시대에 하는 두 번째 주된 사역은 모든 백성이 내가 육신으로 하는 행사를 직접 알게 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이 나의 성품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 정상 인성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에서 행하는 신성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의 결말도 예언했다. 여기서 설명할 만한 것은 사람들이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이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가진 뜻,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 사역을 사람에게 알린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임을 설명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사람은 병상에서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을 때 자신이 죽지는 않을지, 병이 완쾌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신경을 쓸 뿐, 살이 찌지 않을지, 치장하는 데 필요한 그럴듯한 옷이 있는지는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가 백성임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금씩 요구를 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린 것이다. 사람은 며칠 동안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경영 절차에 대해 물어볼 기력을 되찾으므로 이때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인 만큼 더 엄격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이제 백성의 신분이다.’라고 분석한다. 이는 정확한 분석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조금 깨닫자 하나님은 다시 영계에 들어가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람은 또다시 매복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련의 질문 앞에서 모두가 머리를 굽적이며 어쩔 줄 몰라 한다.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을지도 알 수 없어 한다. 그야말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말씀이 무척 심오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내가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너의 머리도 가벼워질 것이다. 간단하니 더는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질문을 통해 사람의 충성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택하되 처음과는 확연히 다르게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 통하므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도 사람은 마음이 다소 가볍다. 질문을 하나씩 읽어 보는 것도 좋다. 이는 예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 아니더냐? 이 간단한 몇 개의 질문에는 매우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는 “너희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묘사이다. “너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양처럼 여겨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끌고 다니도록 맡길 수 있느냐?”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작성한 ‘서약서’도 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내게 맡겨 쓰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요구하는 실재가 아니란 말이나? …”와 같이 사람에 대한 요구도 있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오해하거나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더는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진입하여 내 말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란다.”와 같이 사람에 대한 권면과 위로도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가 내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고 세운 뜻과 같이, 더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와 같이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의미심장하여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잊히지 않는다. 마치 컷가에 걸린 방울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간략하게나마 뜻을 해석하였으니 참고하여라.

제5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를 했지만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 또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깊이 생각하고, 의지를 다지며, 실행의 길을 찾을 기회를 주었다. 그리하여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일과표를 만들고, 계획을 짜 놓았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경륜을 더 빛내고, 하나님의 경륜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자신의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늘 이런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했다. “내 영이 발한 음성이 곧 내 모든 성품의 발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사람은 굳게 결심할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랐고, 하나님이 요구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었는데, 그때에 오래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얼른 사람의 마음에 부어 주었다. 말씀의 어투가 다소 딱딱하긴 했어도 사람은 몹시 달게 느껴졌고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았고, 다른 세상에 이른 듯하였으며, 또 사람 상상 속의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아 세상일이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전처럼 외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고 일을 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역) 그 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람이 바랐던 것이 이루어져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여 말씀했다. 즉, 사람의 열정과 마음에 자리 잡은 종교 의식을 조금도 남김없이 그리고 가차 없이 모두 일축시켰던 것이다. 바로 “너희는 정말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느냐?”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이다. 사람은 결심을 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이 한 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라며 궁리하기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고도 내 백성이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사리는 더더욱 분별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즉각 반성하여 깨닫고, 마치 감전된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어 가슴 속에 숨기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다. 게다가 “이런 자는 언젠가 내 집에서 도태될 것이다! 고참티를 내며 자신이 ‘나를 굳게 증거했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듣고는 마치 사자를 본 듯 두려워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은 마음은 흰하나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사람이 생각하던 ‘계획’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온갖 추태를 이미 본 듯하다. 마치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아름다운 꿈이니, 행복한 가정이니, 미래에 대한 비전이니 이러한 것들이 2000년에 4대 현대화를 실현한다던 말처럼 공담이 되고, 모두 허무맹랑한 SF 영화로 남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의기소침해진 사람의 추태 말이다. 이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요소를 얻는 것으로, 사람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 자리에 서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호칭을 잃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여 계속 두 손으로 자신의 감투를 꼭 안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별별 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감안하여 사람의 소극적인 태도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심판의 말씀을 질문의 말씀으로 바꿈으로써, 사람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불행 중 다행이야. 하나님이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 돼. 거기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니 계속해서 충성을 다해야겠다!’라는 예전의 각오를 다시 되새길 기회도 준 것이다.

다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오늘날 모든 것은 ‘실행의 실제’에 진입할 것이다. 더 이상 너를 이전처럼 입만 놀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요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증거를 지키고 있지만, 예전에는 말씀의 실체가 끝난 후 아무도 ‘실행의 실제’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 이로써 “내 사역은 내가 직접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는 신성으로 역사하는 참된 의의와 관련이 있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아간 후에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많은 이들이 말씀의 실제만 중시하고, 오늘날의 실행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본질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점은 오늘날에는 하나님나라를 건축하고 있으므로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하나님의 안배에 기계처럼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과거를 언급할 때마다 오늘날의 실제 상황에 대해 말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는 말씀하는 방식으로, 전과 후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게 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오늘날과 과거를 비교하게 함으로써 앞뒤를 뒤섞거나 혼동하지 않게 한다. 이는 사역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일면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날마다 자신을 인식하고, 이를 날마다 배워야 할 공과로 삼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사람이 깨달았는지의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갔다. 사탄의 행위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사람이 이를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영계는 뒤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안식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땅의 사람은 하나같이 바빴다. 저마다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세상을 누비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나 내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남은 힘을 바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니와 이들은 숨 쉴 기운조차 없었다.” 하나님은 사람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을 외면하고 영의 위치에서 말씀하였으며, 몇 마디의 말씀으로 인류 전체의 대략적인 삶을 그대로 드러냈다. ‘세상을 누비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는 말씀에서 인류의 삶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처럼 몰락한 제국의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헛사는 것이 된다. 세상에 오느니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말이다. 사람은 큰 붉은 용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 속에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 ‘배은망덕’을 하나로 묶어 대조시킴으로써 사람에게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어투에 담긴 책망, 구원, 호소뿐 아니라 조금씩 묻어나는 슬픔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은 후 자신도 모르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슬픔에 구애받지 않았고, 인류 전체가 파괴되었다고 해서 백성에 대한 징계와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화제를 오늘의 이

상황까지 이끌었고, 사람에게 그의 행정 법령에 담긴 위엄을 널리 알려 그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킨 것이다.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쇠뿔도 단김에 빼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기의 헌법을 반포하였다. 헌법의 각 조항을 세심하게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 많이 읽도록 하여라.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역대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다. 이는 사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사람을 얼마나 파괴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무감각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항상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부족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격과 경험, 이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로 인해 반복해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영계에서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탄은 사람을 깊이 파괴시켜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자신의 계획에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망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전체가 그를 알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중의 일부만 대표로 선별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에 버릴 폐품이나 불량품으로 삼을 뿐이다. 사탄은 몇몇 사람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멍청한 놈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나는 얼굴을 가려 이 세상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행사가 해야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사람의 생각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일일이 형벌을 내린다면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간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사실이 임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자격과 경험은 물론, 이성과 식견도 부족하다는 점을 봐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나의 형벌 속에서 멸망되거나 파멸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땅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계속 관용을 베풀 것이다.”라는 말씀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제6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들었을 때 모두 어안이 병병해하면서 하나님이 영계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말씀을 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사람을 치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또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또 ‘방식’을 바꾸셨단 말인가?’라는 관념과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극력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한동안 진행되고, 성령이 교회에서 크게 역사하며, 사람마다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방식에 진입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일에서 허점을 찾아낼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 중에 누가 내 수중에 있지 않더냐? 누가 나의 인도에 따라 행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대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모두에게 충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적극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절대로 내가 말한 ‘허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의심을 품지 말라. 그 주된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도록 일깨우는 데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 안의 일에 세심해야 하고, 내 말을 중시해야 하며, 진정으로 나의 영과 사람, 그리고 나의 말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자마자 또 어안이 병병해졌다. ‘어제 본 것은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용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영 안의 일을 언급하니,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왜 계속 바뀔까? 게다가 왜 분리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라고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비현실적이란 말인가?’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하나님의 영과 육신을 분리한다면 육체의 속성과 같은 육체, 즉 사람들이 말하는 산송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으로 된 육신은 본래 영에서 나온 영의 화신이다. 즉,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과 사람을 분리시킨다면 그 심각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은 사람으로 불릴지라도 인류에 속하지 않고, 사람의 속성도 없다. 그 육신은 하나님이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고, 더 실제적인 하나님임을 더욱 잘 설명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실증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를 끝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경로를 알려 준 후, 또 화제를 문제의 다른 면으로 돌렸다.

“나는 만유 위에 서서 온 우주의 모습을 살핀 적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니며 인간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보았다.” 이는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화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었다. 왜 인간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 보았다고 했을까? 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다닌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영이자 성육신한 사람이다. 영은 사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만유 위에 서서 온 우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주 공간과 땅끝까지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안배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영이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강생했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영의 존재로 인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고, 거하며,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한다. 그러나 내적 본질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과는 결코 같지 않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리지만 복으로 인해 영을 잇는 것도 아니다. 영과 사람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서로 분리할 수도 없으며 서로 떨어진 적도 없다. 사람이 영의 화신이고, 영에서 왔고, 형상이 있는 영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는 영은 결코 초월할 수 없다. 즉,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영은 육신을 떠날 수 없다. 만약 육신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오직 영이 육신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야만, 사람들에게 실제의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그의 뜻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과 육신을 사람에게 따로 소개한 후에야 사람의 눈먼 것과 패역을 모두 지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다닐 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육신에 은밀히 거하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여 사람에게 보여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지 못한다고 탓하기도 했다. 그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보여 준다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저 직접 사람에게 죽으라는 저주를 내리자마자 사람이 죽어 버리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바로 복종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의식 속에서 영원히 그의 존재를 믿을 수 없고, 진실로 그를 믿을 수도 없다. 게다가 사람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의의의 한 면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막연한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들 가운데서 권세를 잡게 된다. 그것은 사람이 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사탄과 마귀가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내가 권세를 거두어들인다고 하겠느냐? 왜 내가 성육신한 의의가 너무나 많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성육신할 때 바로 권세를 거두어들였다. 다시 말해, 신성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점차 실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사탄의 자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지난날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탄의 형상으로 여겼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또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의 추한 몰골과 같은 것들도 폭로할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0.1%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씀했다. 이것이 사람에게 요구한 가장 높은 기준이다. 그 말씀에는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더욱이 실제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낮다고 여길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 너무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설마 이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아니란 말이나?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다음에 언급할 베드로의 사례와 연관시키면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막연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실제의 하나님을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왜 특별히 베드로의 부모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마라고 밝혔을까?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의 부모’는 ‘막연한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의 부모를 사례로 든 의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베드로의 기도에만 관심을 쏟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기도를 입에 달고 살면서 한시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연한 하나님과 베드로의 인식을 서로 대조하지 않았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부모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까? 왜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자신을 다그쳤을까? 왜 베드로는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았을까? 베드로는 모든 긍정적인 사물은 사탄의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자 직접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베드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이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베드로는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것을 중시했다고 하겠느냐? 이를 통해 역대의

사람들이 실패한 주원인이 오직 ‘믿음’과 ‘사랑’만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실제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여 여전히 막연한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다. 왜 하나님은 ‘옴의 믿음’만 여러 번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는 하지 않고 게다가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했을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는 옴의 말에서 그에게는 믿음만 있고 인식은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부모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나의 자비와 긍휼을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은 ‘왜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까? 하나님을 직접 알 수는 없을까? 왜 긍휼과 자비만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련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오직 막연한 하나님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실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의 막연한 하나님을 제거하게 하려는 데 있다. 사람들이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하나님의 본래 모습만 알았다면, 사탄의 모든 행위를 간파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늘 말하는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평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의의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말한 사례의 진실성을 더욱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긍휼과 자비를 강조하여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가 은혜시대임을 실증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해치고 파괴시키기만 하는 악마의 추악한 몰골을 충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시련을 겪은 사실도 전반적으로 열거하고, 실제 상태도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느 정도 깨닫게 했다. 즉,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엄과 진노도 있으며, 또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시련을 겪은 후 체험한 것을 알려 준 것은 옴의 입에서 나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는 이 말의 진실성에 더욱 들어맞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정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역대의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 지난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 자신을 다그침으로써 얻은 성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은 모두 ‘열매’라고 칭함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중의 하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했던 기도를 통해 그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욕에 티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로소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0.1%의 자리만 차지하겠다.”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관(器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이미 사탄에 의해 깊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본질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사탄에게 침식되었다는 이 두 가지 선행 조건하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각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직 말씀에만 공을 들이고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런데 왜 0.1%에 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기관을 만들어 주지 않은 데서 시작해야 한다. 만약 그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100% 알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손금 보듯 환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천성으로 인해 즉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나서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사탄이 바로 그렇게 타락했음).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철저히 해부했기 때문에 사람의 혈액에 물 분자가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조차 훤히 알고 있다. 하물며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의 본성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잘못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할 때도 아주 정밀한 어휘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 사실과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모순되지도 않고, 아무런 관련도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례를 열거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읍 같은 사람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알 수 있었을까?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말하는 것일까? 정말 사람의 타고난 자질이 좋기 때문일까? 사람이 이것을 알기란 쉽지 않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것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목적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람의 협력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계의 실제 사정이므로 사람은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자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점유하게 된다. 이것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가 땅에 강림한 것이라고 하고,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모범과 본보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그가 모범이자 본보기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은 영계에서 일어난 전쟁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역사하면서 사람을 집어삼킴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게 하여 증거를 잃게 하려는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먼저 본보기를 하나 만들어 사람의 마음속에 최소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비록 사람이 내 마음을 만족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완전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고, 나를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사례로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즉, 사람에게 침투한 사탄의 모든 세력을 0.1%의 자리로 짓누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사례를 들었다. 시작 부분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영계의 실제 상황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창세 이래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일을 할 것이고, 역대로 사람이 들은 적이 없는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육신을 입은 나를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오늘날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의 겉면만 볼 수 있을 뿐 영계의 실정은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이것이 나의 경영 절차이지만, 사람은 오히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정신이 흐린 탓에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설마 이것이 사람의 비천한 면이 아니란 말이나?”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은 영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바로 상술한 바와 같다.

베드로의 일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일에 대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온 우주의 궁창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땅의 만물과 하늘의 만물이 모두 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설마 너희는 방관자가 되어 사탄 세력의 부추김을 받기 원한단 말이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인식을 보고 매우 큰 깨우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은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또한 사람에게 영계 전쟁의 실제 상황을 다시 한번 더욱 확실하게 알려 주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더욱 신중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이번에 잃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에게 이번과 같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몇 가지 경고를 함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게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베드로의 인생에 관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개해 준 본보기로서, 널리 알려진 화제의 인물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고 후세 사람들이 칭송하게 하였을까? 물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고, 그의 일평생 체험은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은혜시대로 돌아가 그때의 풍습과 인심, 그리고 그 시대의 베드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유대의 평범한 농가에서 다섯 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요 화젯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의 부모는 그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의 유대인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농업, 공업, 상업 등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났다. 그런 사회 환경의 영향하에 베드로의 부모 역시 고등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시골 사람이긴 했지만, 지금의 일반 대학생과 대등한 수준의 상당히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 베드로가 그런 우월한 사회 조건에서 태어났던 것은 그의 복이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총명하고 영리하여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입학한 뒤에 학과 공부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었기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부모는 그렇게 총명하고 영리한 아들을 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므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 베드로의 학업을 뒷바라지했고, 그가 두각을 나타내어 당대의 사회에서 말단 관직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열네 살이 되던 고등학교 시절에 베드로는 수업 과목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해 몹시 염증을 느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역사(歷史)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과 사물에 대해서는 더욱 혐오감을 느꼈다. 그 뒤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베드로는 인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사회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부모의 고심에 양심으로 보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고, 모두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공명과 재물을 다투느라 자신의 일생을 망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처한 사회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은 지식이 쌓일수록 사람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마음속 세계가 더 복잡해지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은 갈수록 공허해진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여가 시간에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가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교인이었다. 베드로는 종교계에서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렵듯이 느낀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 집에서 멀지 않은 한 회당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모는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베드로는 공부에 열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의 감독하에 마지못해 고등학교를 마쳤다. 베드로는 지식의 바다에서 물으로 헤엄쳐 나오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로부터 베드로를 교육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베드로는 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일곱 살이 된 베드로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고 종교 예배에 참석했다. 베드로에게 기대가 컸던 그의 부모는 그런 ‘불효 자식’을 낳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을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베드로의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베드로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이 주리고 목말랐으므로 비 온 뒤의 죽순처럼 빠르게 성장해 갔다. 오래지 않아, 베드로는 ‘운 좋게’ 종교계의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의 바람은 너무도 간절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날로 빈번해지면서 거의 온종일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만족스러운 행복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는 그들 중 대부분이 입으로만 신앙하지,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불현듯 발견했다. 마음이 울퉁고 순수했던 베드로가 어찌 그런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금수같이 비열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의 베드로는 너무나 순진한 나머지 여러 번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노회한 종교 관원들이 어찌 열의가 넘치는 젊은이의 선한 권고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때야 베드로는 인생의 진정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실패를 맛보았다.... 1년 후, 베드로는 회당에서 나와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열여덟 살이 된 베드로는 한 차례의 좌절을 겪은 후 성숙해지고 많이 노련해졌다. 젊은이의 치기(稚氣)는 베드로에게서 이미 사라졌고, 젊은이가 가진 천진난만성은 그가 겪었던 좌절에 무정하게 가려졌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어부의 삶을 시작했다. 그 뒤로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도 그가 전하는 도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생계로 삼으면서 곳곳에서 전도했다.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전하는 도에 매료되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의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늘 사람들에게 타인을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일에서 천지 만물의 주재자에게 간구하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지 양심을 속여 가며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늘 베드로가 전한 도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고, 그에게서 격려를 받았으며, 게다가 종종 통곡하며 눈물도 흘렸다. 당시에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탄복했는데, 그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당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게다가 그 역시 당시의 사회에서 종교계의 박해를 받았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2년을 홀로 살았다. 베드로는 2년간의 평범치 않은 체험을 통해 식견을 많이 넓혔고, 지난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때의 베드로는 열네 살 때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같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2년 동안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고, 사회의 온갖 실상도 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점차 종교계의 온갖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당시 성령의 역사 동향은 베드로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는 예수 역시 사역한 지 여러 해가 되었을 때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역할 때에도 당시 성령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와 만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전도하면서 역대 성도들에게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얻었다. 물론 당시에 베드로 역시 예수에 관한 일들을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그저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천국의 그 인물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랐을 뿐이었다.

황혼이 드리워진 어느 저녁나절, 베드로는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그곳은 당시에 말하던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서 가까운 곳임). 손에 낚싯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낙조에 비친 수면은 피로 물든 망망대해 같았고, 수면의 석양빛은 짙지만 침착하고도 진중한 베드로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그는 사색에 잠긴 것 같았다. 그때 한 줄기 미풍이 불자, 베드로는 문득 자신의 삶이 고독하다고 느껴져 갑자기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바다에 이는 물결은 계속해서 빛을 반사했는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유대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너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구나.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베드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쥐고 있던 낚싯대를 물속에 빠뜨렸는데, 곧 물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베드로가 황급히 몸을 돌리니 눈앞에 한 남자가 자기 배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깨까지 드리워진 머릿결은 낙조에 황금빛으로 살짝 물들어 있었고, 보통 키에 회색 옷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유대인의 차림새였다. 황혼이 드리우는 저녁나절이라 회색 옷은 살짝 검게 보였고, 얼굴에는 윤기가 조금 있어 보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뵈고 싶어 여러 번 찾아다녔어도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마음속 그

성자라는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배 위에 엎드려 “당신은 혹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가 아니시나이까? 제가 당신의 내력을 들은 적은 있지만 당신을 뵈는 적은 없나이다. 당신을 따르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나이다.”라고 했다. 그때 예수는 이미 선실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일어나 내 옆에 앉거라!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왔고 오로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나는 곳곳에서 나의 마음에 합하는 자를 찾으러 왔는데, 너는 원하느냐?”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나이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어찌 따르고 싶지 않겠나이까?”라고 답했다. 베드로의 말에서는 종교적 관념이 잔뜩 묻어났지만, 예수는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부성애가 생겼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그에게서 사람에게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일 년을 따르자 예수는 베드로를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뽑았다(물론, 이것은 단지 예수의 마음속 일이니 사람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음).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베드로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베드로는 특히 예수가 전하는 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주었고, 그에게 매우 충성했으며,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는 예수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온유한 말씀,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었고, 다방면으로 예수를 본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낡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았다. 그때에야 베드로는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어떠한을 받아들여 본보기로 삼았다. 베드로는 삶 속에서 예수가 자신이 한 것만이 옳다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을 자랑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 일에서 예수의 어떠한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모든 것은 베드로가 본받을 대상이 되었다. 베드로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예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자를 찾은 적이 있는데, 천지 만물의 기묘함을 보고서야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참된 사랑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제 눈으로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본 적도 없었나이다. 오늘날, 저는 저 자신이 전능자의 눈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스러움을 찾아냈는데, 어찌

오늘의 이 경지에만 국한된 것이겠나이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베드로에게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지극히 순종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다. 예수가 베드로를 데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늘 겸손하게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다고 교만한 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후로, 늘 슬퍼하며 혼자 몰래 울었다. 하지만 ‘불행’의 날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간 뒤에 혼자 배 위에서 울었고, 그 일로 인해 절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에게 “당신은 가신 다음에도 다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보살펴 주실 수 있나이까? 저희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이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너무 유치하고 사람의 관념도 잔뜩 묻어 있었지만, 예수는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사랑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말이 경우에 맞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죽은 뒤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있느니라. 너는 내 영이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리하여 예수는 부활 후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의 관념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차려 준 풍성한 음식을 거절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는 부활한 뒤에 종종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40일이 지나 승천한 후에도 베드로에게 세 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성령의 사역이 곧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나타났다.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더욱이 전도의 생애를 보냈다. 베드로는 말년에 베드로전후서를 썼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 역시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밀천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에 알맞게 공급해 주었다.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격려를 받아 왔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모든 일에서 예수를 본받겠다고 뜻을 세웠고, 예수 역시 베드로에게 응답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53세가 되던 해(예수와 헤어진 지 20여 년 되던 해)에 예수는

그에게 나타나 그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베드로는 그 후 7년 동안 자신을 알아 가는 삶을 살다가 7년 후의 어느 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평범치 않은 일생을 마감했다.

제8편

하나님이 영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 그의 어조는 전 인류를 겨냥한 것이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 그의 어조는 그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이를 겨냥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삼자(사람들이 말하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는 그의 말씀을 사람에게 직접 지시해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해설자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마치 하나님의 입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는 전 인류가 적잖이 놀란다.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진실로 너무 작고, 나에 대한 믿음 또한 초라할 정도로 보잘것없다. 내가 직접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세상일을 모두 아는 듯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하며 공리공론을 늘어놓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진면목과 사람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삶을 짚어 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감히 공리공론을 늘어놓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리공론은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을 꾀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두 공리공론을 늘어놓는다고 한 것이다. 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한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것들을 확실히 짚어 주지 않을 경우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속내를 확실히 짚어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함부로 저지를 것이며, 심지어 ‘하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우주 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나의 뜻에 맞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시시각각 찾는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뒷부분에 나온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본격적으로 울린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영이 땅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고 한 이상, 온 우주 세계에 또 크나큰 변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들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였다’는 이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각 종교와 각 교파, 각 분야, 각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 세계 중, 영계에서의 큰 움직임이다. 종교계 전체가 크게 진동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전에 말씀한 ‘지진’의 또 다른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천사들이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며, 정해진 사람들이 목양을 받을 것이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내 구원의 범위에서 물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그러나 정식으로 시작된 것은 아님). 그러므로 세상의 이 큰 움직임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해 하나님나라의 예포가 정식으로 울릴 때, 즉 사람들이 말하는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매번 사역을 회복시킬 때, 이 단계(전환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전환 단계에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흐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은 창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역을 회복시키고 역사 방식을 전환할 때마다 나타난 유사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분량이 너무 작아 결국에는 급류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지 못해 탈락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사람의 낡은 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초가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종교 관념이 크고 그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며, 옛것을 고수하다 보니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이 관념을 내려놓기 힘들어한다. 특히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상(異象)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 주로 하나님나라 건축은 교회 건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건축 시기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탄복을 금치 못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안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으나 그 단계에서는 육신의 하나님이 사람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알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육안으로도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도, 무턱대고 믿는 상태에서도 아닌,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탄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건축에서는 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을 얻고 그로 인해 추구하고 모색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단계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지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영계의 교전 상황이 곧바로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의 내면에만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니 아무도 당황해할 필요는 없다. 사탄의 시험에는 몇 가지 상태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 말씀을 포기하며 소극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적극성을 꺾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무리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간파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그는 계속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예배하지만 이상이 모호하다. 경계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그의 소극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버렸으며, 그로 인해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진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악령 역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여러 번 언급했겠느냐? 또 왜 욥도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적을 중시하게 되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본보기들을 없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믿음이 컸던 욥도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본받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아 간 실행의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목적은 그것을 참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먼저 사탄의 한 가지 시험 방식을 예언했다. “그러나 나의 말에 냉담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간계를 예시하여 사람에게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이러한 시험으로 노략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했다.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충고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일부 사람은 분명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제9편

사람의 상상 속에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0.1%’만을 요구했다. 이 사실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고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해 더더욱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깨우침과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3월 1일 바로 그날, 모든 사람은 또 우왕좌왕하며 머리만 긁적였다. 백성에게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새하얀 눈이 되라고 했는데, 그럼 ‘새하얀 눈’은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일까? ‘떠다니는 구름’은 또 무엇을 가리켜 한 말일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내포된 의미를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모두 짙은 안개 속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찾게 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헤아리기 어려운 이 몇 가지 어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며, 눈앞에는 흩날리는 눈송이가 아른거리고, 머릿속에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연상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백성에게 떠다니는 구름이 되지 말고 새하얀 눈이 되라고 했을까?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새하얀 눈’은 대자연을 아름답게 물들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농경지에도 유익하다. 큰 눈이 내리고 나면 모든 병균이 새하얀 눈에 뒤덮이게 되고, 또한 공간 전체가 삼시간에 생기 왕성해진다. 마찬가지로 백성이 된 자는 성육신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 사실에 있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정상 인성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 큰 눈이 대자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일면이다. 나중에는 백성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큰 붉은 용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땅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영광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고,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곳곳에서 편히 지내며 즐겁게 일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늘 새롭게 펼쳐지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현 단계에 존재하는 각종 전염병, 즉 사탄의 패괴 성품을 — 불의, 교활함과 간사함, 사욕과 악한 정욕 등의 이런 병균을 — 모두 소멸시키고, 이에 따라서 하늘, 땅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큰 눈이 내린 뒤’의 진정한 의미이다. 떠다니는 구름이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부화뇌동’하는 부류처럼, 사탄이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즉시 날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본질마저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떠다니는 구름이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할 수 있다. 이 부류는 언제 어디서나 사로잡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사탄이 삼켜 버릴 먹잇감이며, 게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봉사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정상인의 본질도, 실질적인 사용 가치도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 조금 깨닫게 되었지만 그 뒤로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화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로 인해 난감해졌다. “나는 본래 거룩한 곳에서 왔으므로 이름만 있고 본질이 없는 연꽃과는 전혀 다르다. 연꽃은 본래 진흙에서 온 것이지, 거룩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백성에게 요구한 뒤에 하나님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말씀했을까? 혹시 그 속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일까? 확실히 그 양자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들바람을 타고 푸른 잎 사이에서 하늘거리는 연꽃의 모습은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 주며, 너무나 사랑스럽다. 정말 당장이라도 헤엄쳐 가 한 송이를 꺾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흙에서 왔고, 이름만 있을 뿐 본질은 없다고 말씀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연꽃을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그의 말씀에서는 혐오감까지 어느 정도 느껴진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이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더럽지 않다”는 말로 인해 연꽃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는 너무도 좋아서 거의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듯 묘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연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다.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하늘 꼭대기에서 땅바닥까지의 거리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므로 필요한 영양분도 진흙에서 온다. 다만 연꽃은 변장으로 스스로를 꾸밀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 호강을 시켜 준다. 수많은 사람이 연꽃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았을 뿐, 연꽃 안의 생명이 불결한 데다가 더럽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꽃에는 이름만 있고 본질이 없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조금의 거짓도 없는 완전한 사실이다. 오늘날의 백성도 이와 같지 않더냐?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흡족해할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환심을 사고 자신을 과시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의 패괴 성품이 들어 있고, 뱃속은 불순물로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불순물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일편단심으로 순수한지를 물었다. 수많은 사람이 봉사자 시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입으로는 소극적인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몰래 하나님을 대적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행동까지 보조가 맞았다. 입으로 음탕한 말을 뱉고, 손짓을 해 대며, 극히 방탕하여 큰 붉은 용의 본색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야말로 큰 붉은 용의 자손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충성스러운 봉사자’의 자리에 서서 ‘충성스러운’ 백성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 정말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하긴, 그들은 본래 진흙에서 났으니 본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진실하고 참되므로 그의 육신이 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본질의 일면이다. ‘육신’이 형상 있는 영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과 ‘사람’의 육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차이점은 주로 영에 있다. 형상이 있는 영이라는 것은 신성이 정상 인성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정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고 인성의 제한을 받지도 않음을 가리킨다. ‘영의 형상’이란 완전한 신성을 가리키고, 또한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입은 육신에서 하나님의 본래 성품과 고유한 형상을 완전히 살아낼 수 있다. 즉,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까지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성육신’은 사람의 관념 속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실재를 살아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영으로 실체화한 것이 아니라 신성이 직접 나타나는 데 그쳤다. 또 정상 인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완전하고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성육신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막연한 하나님의 색채를 어느 정도 띠고 있었으며, 사람의 관념 속 하나님이였다. 이것은 두 차례 성육신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전 인류의 언행 하나하나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즉, 마음과 생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여다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사람의 가슴으로 향하였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칼에 사람의 생각을 찔렀다. “사람은 나의 영을 ‘알기도’ 하지만 거스르기도 한다. 나의 말은 모든 사람의 추악한

몰골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짚어 냄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빛에 드러나게 했고, 나의 감찰 속에서 쓰러지게 했다.”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쓰러졌지만 그 마음은 감히 내게서 멀리 떠날 수 없었다. 피조물 중에 그 누가 나의 행사로 인해 나에게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全智全能)을 더욱 잘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봉사자의 위치에 있을 때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전부 지적해 내게 된 것이다. 즉, 한 차례의 ‘거래’가 ‘실패’로 끝나 속으로 생각했던 ‘수십만’이나 ‘수백만’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행정 법령과 하나님의 위엄, 진노로 말미암아 낙심했을지라도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지난날의 ‘실행’은 전부 없던 일로 취급하며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도리어 자기 뜻대로 자기 자신과 여러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즐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 세상의 실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누가 나의 말로 인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움의 정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다. 솔직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본성’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손에서 놓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사탄에게 저주를 내렸고, 또 한 번 그것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했다. ‘사탄이 극도로 미쳐 날뛰고 기고만장한 시대’는 하나님이 땅에서 정식으로 크게 사역하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어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한다. 즉, 사탄이 미쳐 날뛰수록 하나님의 날은 더 다가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이 미쳐 날뛰다고 말씀할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날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다.

하나님은 왜 “저마다 ‘나를 등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이 한 일과 행동, 그리고 말을 육신을 입은 내가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러 번 언급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슬퍼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모두 뒤에 있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바짝 쫓아갔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고 더 이상 방종하지 말며, 더 이상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 번 일깨워 주면 어쨌든 도움이 된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

마음속의 비밀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나는 갇은 고초를 겪었으며, 인간 세상의 고통도 겪어 보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고난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도록 할 수 없었고, 더욱이 그 어떤 즐거움도 육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냉대하거나 믿음을 잃게 할 수도, 나를 저버리게 할 수도 없었다. 설마 나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고난도 즐거움도 없는 것에 제한되어 있겠느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에는 확실히 내포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냉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느니만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받은 고난도 수포가 되고, 누리는 복도 헛된 것이 되며, 그들 자신의 죄에 더해지게 된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마 나를 향한 사람의 사랑이 고난도 즐거움도 없는 것에 제한되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다. 세상 사람 중에 고난도 즐거움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거듭 말씀했다. “진정으로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또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했을까? 그것은 모순일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일정한 목적을 이룬다. 사람의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100% 사역하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 마음의 ‘0.1%’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운 면이다. 너희는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육신에서 직접 비밀을 밝히고 내 뜻을 분명히 보여 줄 때, 너희는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음성만 들을 뿐 그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슬프다. 육신에 거하면서도 육신 본연의 사역을 행할 수 없으니 말이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무감각해졌으니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에 거하는 신성의 본래 모습을 밝힌 것이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다 보니 하나님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사람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만 신성을 나타낸다. 이 단계 사역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성은 원래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발휘한다. 여기에서, 앞으로 행하는 사역에서는 사람의 회복 상황에 근거하여 점차 신성을 나타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성’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분량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데는 목적과 의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두 나의

진노로 멸망한다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사탄에게 패괴된 후 하나님은 일부 사람을 얻어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계획했지, 사람을 모두 멸하거나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조금 범했다고 해서 즉시 없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 방식과 사역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형벌과 심판을 행하고 매를 들며,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다. 이렇게 하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람을 만든 의의를 더 크게 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부 말씀의 실정이다.

추가

제1편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언급한 막연하고 공허한 이치가 아니다.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거나, 사람의 육으로 이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내 집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말이냐? 누가 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이냐? 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정말 스스로에게 내 마음을 만족게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 사람은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본 적이 없고, 나의 뜻을 살핀 적이 없다. 누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베드로가 그랬느냐? 바울이 그랬느냐? 요한이 그랬느냐? 야고보가 그랬느냐? 누가 나에 의해 입혀지고, 점유되고, 쓰임 받은 적이 있느냐? 첫 번째 성육신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신이 인간 세상의 고통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그가 완전히 형상으로 실체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나의 뜻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의 신성이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을 통해 막힘없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육신에서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 인성이 신성을 옹호할 수 있으므로 나는 자신을 낮추고 감추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단계에서는 신성이 직접 일을 해도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정상 인성처럼 생활하고 행동할 뿐이기 때문이고, 처음 성육신했을 때처럼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으로 사역하고 말을 하기 때문이다. 비밀을 열어 주긴 했으나 이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음성이 천둥을 방불케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니며, 내가 걸으면 하늘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내

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사탄에게 수치심과 실패를 안길 수도 없을 것이다.

정상 인성의 옴호 아래 나의 신성을 드러낼 때 내가 온전히 영광을 얻고, 나의 대업이 완성된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육신한 주요 목적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으로 한 내 신성의 행사와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상인이 먹고, 입고, 자고, 살고, 행하듯, 정상인이 말하고 웃듯, 나 역시 그러하다. 또한 나는 정상인의 필요가 있고 완전한 신성의 본질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이지 않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또한, 이를 통해 내 사역의 핵심이 어느 부분인지, 내가 어느 단계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상 인성을 통해 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육신의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내 사역의 핵심이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게는 사람의 생명과 인간적인 면이 있었던 적이 없다. 사람의 생명이 나의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내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억누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의 음성과 영의 뜻을 드러낼수록 사탄을 더 모욕할 수 있으며, 정상 인성으로 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크나큰 모멸감을 안길 수 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신성이 말하고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승리했고, 완전히 영광 얻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것은 사탄이 나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어찌지 못하고, 사람의 육에 사탄의 자질을 보태기 어려우므로 나의 뜻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기묘한 행사와 본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다. 즉, 나는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지 않으며, 형상이 없지도 않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구름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지만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육신이다. 많은 이들이 나와 교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이를 원한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신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하나 ‘사람’의 외양에 가려져 있으므로 사람은 모두 나를 ‘경원시’한다. 나를 공홀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위엄과 진노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의 모습은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럴수록 내 성품의 모든 부분이

더욱 잘 드러나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육신으로 한 나의 행사를 통해 나의 기묘한 행사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이하거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적인 실제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지우고, 실제적인 나를 알게 해야 참된 내가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된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진귀하게 여겨지는 초자연적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내가 입은 육신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게끔 한다. 그러나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것으로 나의 증거에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고, 마음 편히 ‘육신에 있는 나’를 알아 갈 수 있다. 또한, 더욱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나를 알고, 사람의 좋은 행실이 섞이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모두 나의 신성이 직접 일을 한 효과로, 사람에게 나의 신성을 더욱 잘 알게 한다. ‘신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고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신성으로 말하고, 일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지 인성으로 하는 일언일행을 중시하지 않는다. 나는 신성으로 생활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 인성에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거나, 머무르고 싶지는 않다. 나의 뜻을 알겠느냐? 인성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가 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완전한 신성으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이가 나의 본래 모습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제10편

교회 건축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나라 건축에 관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언급할지라도 교회를 건축할 때의 말씀하는 방식으로 언급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 건축에 관한 일이나 일부 방식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항상 새로운 ‘하나님 자신’의 함의이다. 이전에 했던 것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전의 일은 모두 기원전에 두었고, 오늘날의 일은 모두 기원후에 놓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건축은 하나님나라 건축의 전제이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서 왕권을 잡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교회 건축은 오늘날의 작은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사역은 주로 하나님나라 건축에 있다. 교회 건축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예비해 놓았다. 때가 무르익으면 사역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는 어쨌든 지난 시대와 다르다. 이 시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나와는 상관없이 없으며,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확실히,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지, 사람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못한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모든 사람을 반죽음될 정도로 ‘들볶을’ 수 있겠느냐? 설마 사람이 안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나? 왜 “내가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한다”라고 했겠느냐? 설마 전체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이나? “땅에 임하여 친히 사역한다”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여 역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많은 사람에게 육안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하므로 사람이 영적으로 자세히 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 눈으로 영의 운행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육신과 사람의 육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게 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공간과 온 우주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깨우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성육신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오직 신성으로 직접 역사해야만,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역사해야만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 건축의 본질인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차례 성육신했느냐? 설마 여러 차례란 말이나? 왜 하나님은 수차례 “나는 지난날 세상에 임하여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했지만, 성육신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 번 성육신해서 사람에게 한 번도 알게 한 적이 없단 말이나? 그 말씀 자체의 함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는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 기회가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알게 할 수 없었거니와 성육신의 의의도 완전하게 갖추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육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은 다만 죄가 없는 육신으로 한 가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더욱 성육신이라고 칭할 수 없다. 오직 오늘날 내면에 완전한 신성을 갖추고 있지만 정상 인성으로 가려져 있고 아울러 사람에게 그를 알도록 하는 실제의 하나님 자신만을 완전히 성육신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의의는 오늘날 말하는 성육신의 의의의 일부분이지 완전한 함의가 갖추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의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다.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두 차례의 성육신에 비추어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나라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입은 육신은 본격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나라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에서 왕권을 잡은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교회 건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때의 사역은 정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에야 비로소 하나님나라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행한 것은 오늘날의 것을 사전에 체험한 것일 뿐 전혀 실상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진정 신성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자신이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사람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한 것에는 문자적인 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도 있다. 이것이 ‘실행의 실제’ 한 측면의 의의이다.”라는 이 표현은 상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서술한 후 뒤이어 하나님은 전 인류의 대체적인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했고, 이에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있다. 하지만 또 모두가 나의 심판과 시련 가운데도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 인류의 삶의 법칙과 원칙은, 삶이 행복할 때도 있고, 좌절을 맛볼 때도 있으며, 더욱이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순간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쓴맛도 단맛도 보지 않는 일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사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모든 성품도 볼 수 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은 저마다 이 아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느라 바쁘지만, 자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위하다가 오히려 일생에 해를 끼치거나 일생을 망치기까지 한다. 욕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자신을 위해 활로를 찾았다. 시련 속에서 굳게 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사람의 탐욕과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련 속에서 굳게 서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쓰러졌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고 엄격히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내 불사름의 눈빛에 쓰러졌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나라 건축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나라의 예포는 아직 정식으로 울리지 않았다. 지금은 예언일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온전케 되고, 땅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바로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릴’ 때이다. 지금은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의 나라는 공중누각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 날이 눈앞에 이르렀고,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꾸러진다. 하나님 계획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천사 역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있고, 성육신한 하나님 또한 친히 전쟁터에서 원수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곳이다. 중국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 손에 멸망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게 조금의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질수록 큰 붉은 용이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백성이 성숙해지는 것은 원수가 멸망할 징조이다. 이것은 ‘겨름’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번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관념’, 즉 큰 붉은 용의 추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일깨움으로 사람의 믿음을 불려일으킬 뿐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나 내가 친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그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언제나 낙심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몰래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그의 새 사역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그의 오늘날의 새 사역을 시작했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서 그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 그를 배반했던 전 인류가 다시 그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들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기회를 빌려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가 사역하는 방식으로, 의심할 바 없이 사람에 대한 구원이자 사람에게 베푸는 일종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드러낸 사람의 본모습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여 사람은 모두 몸 둘 바를 몰라 하고 아주 부끄러워하였다. 말씀할 때마다 사람의 일부 추한 물골을 얼마간 지적하여 사람에게 안락함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 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자신을 알아 가는 일을 낚은 과제로 여기지 않게 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잠시라도 지적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방종하고 자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은 내가 준 칭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자’란 칭호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성’이란 칭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모른다. 그 누구도 나를 속이지 말라. 내 눈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갑자기 괴로움을 느끼며, 지난날 했던 일들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몸이 따라 주지 않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힘이 얼마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본 후 얻게 된 성과이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탄이 극도로 미쳐 날뛰다고 말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옛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사탄의 모든 행위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사람에게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방종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또 일부 사람이 계속해서 거역할 것이라고
예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과거를 버리고 오늘날을 추구하라고 경종을
울려 주었다. 사람은 모두 귀신이 들리는 것도, 악령에게 점령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많은
비밀을 열어 주어 ‘눈 호강’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네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한들 또 어찌겠느냐? 설마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해지기라도
하겠느냐? 그렇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작은 창고’를 가득 채우려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을 겨냥하여 “눈 호강을 시켜 주기를”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이 여전히 순결하지 않음을 뜻한다. 하나님이
비밀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말
타고 꽃구경하는 식으로 대충 훑어볼 뿐, 자세히 체험하거나 음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누구도 천방백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그저 얼렁뚱땅 넘어간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는 말씀은 왜 지난날과
다를까? 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만 사용했을까?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아무렇게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않는다”에서의 ‘면류관’, “그 누가 내 말의 정금(正金)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에서의 ‘정금’, 그리고 이전에 말씀한 “사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다”에서의 ‘가공’ 등의 이런 어휘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왜
이렇게 재미있고 해학적이며 뜻깊게 말씀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타낸 것이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종 갈피를 잡지 못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숙하게 느껴졌다. 그러므로
해학을 조금 곁들이고 명사도 몇 개 더 보탠다면 말씀의 분위기가 살게 되고, 사람의 긴장
또한 어느 정도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게 될 것이다.

제11편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한 말씀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칙을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배경 또한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비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침울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꿰뚫어 볼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행운이며 복이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교만하고 독선적일 것이며,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이다.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모두 속으로 탄복을 금치 못하고, 진심으로 수긍하는데, 그것은 ‘모방품’이 아니라 조금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이자 진실한 심경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마치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듯하다. ‘이건 십중팔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난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분명한 것 같아! 더는 의심해선 안 되겠어. 그랬다간 언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 몰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야!’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말씀으로 지탱해 주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은 다 물러갔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전체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을 유지시키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이 아니란 말이나? 정말 사람의 언변이 뛰어나다는 말이나? 사람의 재능이 출중하다는 말이나? 절대 아니다! 해부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무슨 형인지 모르고, 자신에게 몇 개의 심장이 있는지, 몇 개의 머리가 달렸는지 모를 것이다. 모두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지만 그 ‘앎’에 대적하는 뜻이 들어 있다는 것은 어찌 모른단 말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는 내 영의 감찰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를 면밀히 성찰해야 하며, 더욱이 나의 놀라운 행사를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무 목적도, 근거도 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옹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까지도 놓아주지 않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분석하였거늘, 하물며 오늘날의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슨 느낌 말이지? 하나님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느낌을 운운할 수 있겠어? 게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꼭 어떤 느낌인지를 말해야 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다른 ‘느낌’은 없어.’ 사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들과 백성들이 모두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때, 나는 본격적으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을 시작하였다”라는 부분이다. 이 말씀은 영계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개괄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단계에 영계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가, 이 말씀으로 인해 약간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 사역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하는 사역도 다르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아들과 백성들을 구원한다. 즉, 천사가 목양하는 아들과 백성들이 책망과 깨뜨림을 받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유와 관념을 벗어 버리고 세속적인 냄새를 없애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발할 것이며, 그 내용은 모두 다르겠지만 목적은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보면 마치 일부 사람을 겨냥한 듯하지만, 사실은 전 인류의 본성을 짚은 것이며, 인정사정없이 직접 사람의 골수를 찢어 사람의 모든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한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정식으로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전 우주를 향해 내 영의 음성을 발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는 천지 만물 중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나의 말로 정화하여, 더는 더럽고 음란한 땅이 아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전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하나님나라의 앞날을 펼쳐 보였다. 하나님이 “전부 아름다운 열매이고, 모두가 부지런한 농부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것은 훗날 전 우주에서 일어날 일이지, 중국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관념 속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사유는 점점 더 사람에게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대로 믿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의식 속에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은 실제 하나님의 지위를 의식 속에만 두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저 빈말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면 큰 진보가 있지만, 실제 하나님 자신과 대조해 보면 차이가 매우 컸다. 왜 하나님은

늘 “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날마다 모든 이의 내면에서 운행한다”라고 말씀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수록 사람은 오늘날 실제 하나님 자신의 모든 행사를 대조해 보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실제적으로 실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육신의 시각에서 인간적인 언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물’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의 ‘나’와 실제의 ‘나’의 형상에 대해 거듭 말씀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은 마음속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실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고 접하기를 더욱 원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수록 사람이 알아 가는 데에 더 이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의 관념에 따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 가라고 요구한다면 사람은 정말로 난처해하지 않고, 오히려 쉽고 즐겁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는 영원히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전 우주에서 왕권을 잡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셈이며, 따라서 “나는 이미 권세를 되찾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빈말로 남게 된다.

신성으로 직접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하나님나라가 정식으로 인간 세상에 임하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한다는 것이지,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서 형성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나라의 건축이지, 하나님나라가 형성될 때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늘 “만물이 침묵한다”라고 말씀했겠느냐? 설마 만물이 모두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나? 정말 큰 산이 침묵했다는 말이나? 그럼 왜 사람은 그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겠느냐?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겠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씀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특정 환경에서 행하므로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봤을 뿐이다. 하나님이 일할 때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림할 때에는 천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주시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사실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에 사람은 일부 문자적 의미를 통해서만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며,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관념을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은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의 백성에게는 큰 붉은 용의 독소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붉은 용의 본성이 그들을 통해 더 많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며, 큰 붉은 용의 독소에 관해 조금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게 사람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사람의 진보에 더 이롭다.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붉은 용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 한다. 마치 ‘큰 붉은 용’이라는 몇 글자가 그들에게는 치욕스럽게 느껴져 누구도 그것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 단계 사역의 중점을 너희에게 두었다. 이는 내가 성육신으로 중국에 온 또 다른 의의이기도 하다”라고만 말쑤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로 큰 붉은 용 자손의 전형적인 대표자들을 정복하러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중국에 온 의의이다.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했을 때, 천사들 역시 사역하며 목양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쑤는 사실 천사들이 만민 중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세상에 임했다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신성의 역사와 천사들의 목양이라는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뜻이다. 그 후 하나님은 천사의 목양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그중 “모든 아들과 백성들은 시련과 목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상(異象)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쑤를 놓고 많은 사람은 ‘이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풍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이상’이란 사람이 상상한 대로 초자연적인 일을 뜻하지만, 사역의 내용은 여전히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알아 가는 데에 있다. ‘이상’은 천사가 사역하는 방식이다.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특이한 꿈을 주어 천사의 존재를 느낄 수만 있게 하고 볼 수는 없게 하는 것이다. 아들과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빛 비추는 것이며, 거기에 책망과 깨뜨림도 추가되지만, 설교의 형식은 매우 드물다. 물론, 사람과 사람 간 교제는 예외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각 나라의 상황이다. 하나님 말쑤의 내용은 모두 인류 전체의 생활상을 폭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로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을 겨냥하여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택한 후 그것을 모델로 삼아 사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서, 혹은 비쳐지는 빛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역이용당한다. 사람의 다양한 형태는 각양각색의 그림과 같다. 하나님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려 왔고, 또 오늘날부터 장래에까지 그리는데 그림의 내용은 전부 사람의 추태이다.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데 마치 눈이 멀어 슬퍼하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즐겁게 웃고 있고, 어떤 이는 큰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며, 어떤 이는 험난한 산길을 걷고 있다. 또 어떤 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야를 헤매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치 고두리에 놀란 새처럼 산속 야수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갖가지 추태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사실적이고 생동한 그림들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은 참혹하여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거나, 혹은 모퉁이 송연해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의

행위는 모두 다 추태이다. 설령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지라도 여전히 추태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서로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호의’를 잘 베푸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제나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경험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늘 마음에 두듯 항상 그렇게 자상한 것은 아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큰 붉은 용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제한을 받으며 울분을 참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말한다면, 사람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단 한 명도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고, 모두 처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원칙 때문에, 더욱이 큰 붉은 용의 본성 때문에, 또한 중국이 큰 붉은 용의 나라이고 성육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울분을 참으며 큰 붉은 용의 모든 자손들을 정복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큰 붉은 용의 자손을 영원히 증오한다. 즉, 큰 붉은 용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증오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것을 감찰하는 존재 또한 없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간 일만 해도 그렇다.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살며시 인간 세상에 왔다가 표연(飄然)히 떠나간다. 누가 나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에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영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기관(器官)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갈 때 “태양이 불타듯 뜨겁고 달이 밝고 맑다”라고 말씀하였다.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일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태양이 불타듯 뜨겁고 달이 밝고 맑다”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관념에 맞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념을 정확하게 적중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하여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영 안이 조금 환해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간 것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그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가면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야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주의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제2편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고 일상을 함께하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품어 온 ‘호기심’을 마음에서 내려놓았다. 과거 사람이 하나님을 안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신 것인가? 하나님도 식사를 하실까? 하나님은 보통 사람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께 있어 모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듯 쉬운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모두 하늘의 비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말보다 월등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에서 빛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의문들이었다. 이는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성육신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막연하게 생각한다. 실질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영원히 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체험 속에서 나의 행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육신했기에 사람이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고 아직도 하늘에나 영계에 있었다면 모두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또한, 내게 옆드려 경배하고,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나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이나? 어떤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나?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깨달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깨달음이다.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 가운데서 드러나며, 나는 언제나 빛을 비추고 깨우침을 준다. 또한, 나는 신성으로 직접 일하므로 머리로 무언가를 걸러 내거나, ‘조미료’를 더할 필요가 없다. 신성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 내가 친히 하지 않았더냐? 예전에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을 언급했건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알아도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 신성의 지배를 받는 인성으로 사역할 때에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이 아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이를 ‘성령’의 역사라고 불렀다. 신성으로 직접 일할 때에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통제되거나, 사람이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정곡을 찌르며, 단도직입적이므로 이 단계의 사역은 더욱 순결하고 빨리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빨리 깨닫는다. 또한, 내가 하는 말도 늘어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힘써 추구하도록 한다. 사역의 효과, 사역하는 방식과 성격, 사역의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므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추상적이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일하고, 하나님나라가 임함에 따라 ‘일곱 배로 강화된 영’도 역사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진입하고 끊임없이 강화된다. 모든 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성육신한 모든 의의가 드러난다. 사람이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현재의 사역 방식, 사역의 절차, 어투 등 여러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일곱 영의 말씀’이 뜻하는 바이다. 예전에도 음성을 발한 적이 있으나 그때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였으므로, 소설의 머리말이나 목차처럼 본질은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발하는 음성이야말로 ‘일곱 영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영의 말씀’이란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뜻한다. 즉, 신성으로 직접 말씀한다는 의미이다. 음성을 발하여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신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는 순간이다. 즉,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계의 모든 비밀과 실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예전에는 인성의 제한을 받았다고 하겠느냐?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늘의 비밀을 밝힐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관념에 초점을 맞춰 과거에 비밀을 밝히지 않은 것을 인성의 제한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 사역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나는 신성으로 직분을 시작하면서 비밀을 밝혔다. 예전에는 모든 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해야 했고, 내가 한 말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비밀을 밝히기 시작해서부터 사람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신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곱 영의 말씀’이 뜻하는 바이다. 예전에도 음성이 보좌에서 나왔으나 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것은 신성으로 직접 발한 음성이 아니며, ‘일곱 영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제12편

만인이 주시할 때, 만물이 모두 새롭게 바뀌고 소생할 때, 모든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짐을 넘겨받아 중임을 맡고자 할 때,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서방까지 환히 비추었다. 이에 온 땅이 그 빛으로 인해 크게 놀랐고, 그때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때에 하나님은 땅에서 새 사역을 시작하여 전 우주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다.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는 바로 내가 음성을 발하기 시작할 때이다. 번개가 번쩍이면 온 하늘이 환해지고 모든 별들이 변화한다.” 그러면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는 언제겠느냐? 천지가 어두워질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이 세상을 보지 않을 때이자 세상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려 할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로 이때, 모든 사람은 극도로 당황하여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이는 천둥소리와 번개 빛을 두려워하고, 더욱이 폭우의 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진노한 하나님이 자신을 치기를 기다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인다. 즉, 세계의 동방에서 하나님 자신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행하고 신성으로 온 땅에서 왕권을 잡기까지, 이는 동방번개의 빛줄기로 계속 전 우주를 밝게 비추는 것이다.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전 우주를 밝게 비출 때이다. 지금은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때이니, 성육신 하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고, 또한 신성으로 직접 말씀한다. 하나님이 땅에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는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 즉 보좌에서 음성이 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일곱 영의 말씀’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그때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하는데, 시간의 길이에 따라 비치는 정도도 다르고 비치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이 바뀔에 따라, 즉 아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사역이 달라짐에 따라 번개는 갈수록 그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결과 전 우주 아래가 모두 밝게 비추어져 악당과 쓰레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의 결정체로, 하나님이 누릴 열매이다. ‘별들’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아들과 백성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기에, 또한 피조물이기에 ‘별들’로 불린다. ‘변화한다’는 것은 신분과 지위의 변화를 가리킨다. 즉, 땅의 사람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으며,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해 왕권을 잡게 되고, 내면의 ‘독소와 불순물’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결케 된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된다. 이런 것이 그 말씀에 담긴 의미의 일면이다. 하나님의 빛줄기가 온 땅을 밝게 비출 때, 하늘과 땅의 만물은 제각각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변화하고, 태양과 달도 새롭게 변하고, 땅의 사람도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행하는 사역으로, 놀랄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물론 택한 백성 이외의 사람들은 가리키지 않음)을 구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심판할 때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침대에 쓰러지고, 또는 땅에서 쳐 죽임을 당해 죽음의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발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을 알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두꺼비처럼 위로 쳐다보며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것이다. 사람은 정말로 사탄에 의해 심하게 타락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추악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는데, 사람은 그 묘사를 보고 자신의 본디 모습과 대조해 볼 수 있었다. 사람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뇌 분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훤히 아는데, 하물며 사람의 추악한 몰골이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전 인류가 말끔하게 정리된 듯하다. 동방에서 비치는 이 빛줄기에 모든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난다. 그들은 눈이 부셔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말씀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처리’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은 내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산속 동굴 안으로 피난 가는 동물 같지만, 그 어떤 존재도 내 빛 속에서 말살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했다. 사람은 모두 비천하고 저급한 동물이다. 사탄의 수중에서 생존하는 것은 깊은 숲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만물은 하나님의 불사르는 불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탄 세력의 ‘보호’를 받는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 ‘잇힐’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드러내는 온갖 괴이하고 이상한 모양이 또다시 하나님의 붓끝으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와 심리에 따라 말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심리학에 정통한 것 같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심리학자 같기도 하고, 또 내과 수술 전문의 같기도 했다. 그가 ‘복잡’한 사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천상의 경계’가 있는 듯하고, 또 어찌면 ‘초하’ 양쪽에서 서로 바라보는 듯했다. 양측은 서로 바라보기만 했다. 즉, 땅에 있는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만 했지 자세하게 연구할 기회가 없었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만 남게 되었다.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지만, 또 ‘하나님’의 ‘매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할 기회가 없었다. 아리따운 아내가 올곧은 ‘남편’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아낄 줄 모르는 천한 놈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아리따움’과 ‘자존감의 상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증오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가 절로 솟구쳤으며, 상처라도 받은 것처럼 사람에 대한 희망이 일찌감치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또 “나의 날이 또 한 번 전 인류에게 다가왔고, 또 한 번 인류를 불러 깨워 새로운 시작을 열어 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 인류를 정복하고, 큰 붉은 용을 사로잡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의 본뜻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단지 큰 붉은 용의 자손을 정복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큰 붉은 용을 물리치고 큰 붉은 용과 싸워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 땅에서 왕권을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하고, 하나님이 대성공을 거두고,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땅에서 영광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마지막의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하나님은 절로 호기로운 마음을 나타냈다. “내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내 심장의 박동에 따라 산도 흥겹게 뛰고 물도 즐겁게 춤추며, 파도는 바위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킨다. 내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체험하고 보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나라의 앞날은 아름답고, 하나님나라의 왕은 승리자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 한 점, 피 한 방울도 없는 신성함 그 자체인 온몸에서는 신성한 빛이 환하게 빛난다. 사람의 뜻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고 온몸은 공의와 천상의 기운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맑은 향기를 풍긴다. ‘아가’의 사랑하는 자같이 그 어떤 성인(원문: 衆聖)보다 아름답고, 옛 성인(원문: 古聖)보다 위대하며, 모든 사람의 본보기이고, 사람이 비교할 수도 바로 볼 수도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모습, 그리고 형상은 그 누구도 갇출 수 없고, 아무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입술로 쉽게 찬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흘러넘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담긴 비밀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끝없이 말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새롭게 바꾸고 철저히 변화시킨다는 이 일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방식과 표현을 달리하며 몇 번이고 말씀했다. 하지만 말씀할수록 그 정도는 깊어졌다. “나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패역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여러 차례나 이렇게 말씀했겠느냐? 설마 하나님은 사람이 싫증을 느낄 것을 염려하지 않았단 말이나? 사람은 그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색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자신에 대한 반성은 언제나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자신을 알게 하고, 또 자신을 통해 사람의 패역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을 없애려는 것이다. 사람은 ‘말끔하게 정리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자 마음이 갑자기 긴장되어 근육마저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이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반성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결심을 내리자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로 삼아 사람에게 큰 붉은 용의 본질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직접 영계를 접촉하게 되었고, 의지가 작용하니 열정 또한 따라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이 더 돈독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에 더 유리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어느새 지난날을 되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지난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막연한

하나님을 믿어 왔고, 그동안 마음은 늘 해방되지 못했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삶은 규칙적이지 못했고, 믿기 전과 매한가지인 것 같았어. 삶이 여전히 허무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고 믿지 않느니만 못한 것 같았어. 오늘날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부터 천지가 다 바뀐 듯했고, 삶에 광채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되었지. 실제 하나님의 오심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영적으로 평안해졌어.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듯하지 않았고, 더 이상 목표 없이 추구하지도, 허공에 주먹질하지도 않게 되었지. 오늘날의 삶은 참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이야. 앞으로는...’ 사람은 생각할수록 즐겁고 흐뭇해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불타올랐다. 그리하여 어느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우의’가 돈독해졌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하기가 더 쉬워졌다. 더 이상 ‘핍박이나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사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사람의 본성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도에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후의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직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고, 오직 동방번개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 나라의 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사람의 마음을 개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의 절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은 바로 사람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을 정복하여 거두려는 성과가 아니냐?

사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의 본뜻은 글자의 표면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 일부러 사람의 생각과 주의를 돌릴 뿐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은 해석해 줄 가치가 없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어 오늘날의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람의 열정도 다른 상태를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 따라 또 경고의 말씀을 해 주었다. 즉, 백성에게 헌법을 반포한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만 나에게는 손금 보듯 흰하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지만 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밝은 빛을 좇는 사람들일 뿐이다.” 확실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도 찾아낼 만큼 극히 적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또 ‘사람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말끔하게 정리된 후의 나라임을 뜻한다. 지금 하나님은 또 모든 ‘위험물’에게 경고를 했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사역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모두 하나님나라 밖으로 완전히 내칠 것이다. 하나님은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이 원칙에 따라 일한다. 보고 싶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자를 온갖 방법을 써서 말끔하게 정리하여 후환을 없앨 것이다. 그것이 ‘쓰레기를 없애 철저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정 법령을 공포할 때는 사람에게 그의 기묘한 행사와 내적 소시를 소개할 때이다. 그러므로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산속에 수많은 맹수가 있지만 내 앞에서는 모두 양처럼 순하고, 바닷속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함이 깃들어 있지만 나에게는 땅 위의 만물처럼 모두 흰히 드러나 있다. 또 하늘에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있지만 나는 그 경지에서 곳곳을 다닌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만물보다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 사람 관념 속의 지옥처럼 ‘끝없는 비밀로 가득한’ 듯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사정을 손금 보듯 환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물 중에서 사람은 맹수보다 더 흉포한 동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감히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정복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마음속 생각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여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눈앞의 자그마한 벌레로 볼 뿐이다. 말 한 마디면 정복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칠 수 있으며, 손쉽게 형벌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징죄할 수 있는 존재로 말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강림한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빛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온 세상이 거대한 검은 숲에 뒤덮인 듯 모든 사람이 숨이 막힐 정도이다. 모두가 형세를 바꿔 보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검은 숲을 뒤집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나서야 문득 깨닫게 되면서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문하는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사람은 빛 속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를 보았다. 오늘날 너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느냐? 나는 큰 붉은 용의 광폭함이 극에 달했을 때, 육신에서의 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은 영계의 실제 상황을 속이지도 않고, 사람 마음속의 실제 사정도 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에게 수차례 주의를 주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나는 백성들에게 성육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나의 행정 법령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태될 위험이 있다. 온 힘을 다해 자아를 다루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버림받는 대상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바울처럼 직접 나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을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병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일을 재차 언급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형벌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다졌던 자신의 결심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게 할 수 없었음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더 통회하고, 실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오랜 세월 사람은 줄곧 나를 기만했고 나를 나그네 취급 했다. 사람은 수없이...” 사람에게 형벌받은 실제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하나님은 ‘수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실제 상황을 나열해 주었다. 그것은 죄의 증거라 그 누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으로 여기며 사용하는데, 가정 ‘필수품’이라도 되듯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얼굴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는 더더욱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필요할 때나 끌어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쪽에 버려두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꼭두각시’ 같아 자신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내가 성육신한 이 일로 혼비백산하여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전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전 인류를 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 될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상관하지 않고 성육신할 때 천지를 뒤집었더라면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란 새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싫어하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면 고생을 잊고, 복받으며 살면서도 복을 모를 때가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늘날은 쉬이 온 것이 아니니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위해 오늘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며, ‘높은 곳에 오르면 주인도 몰라보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복받으며 살면서도 복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수차례 주의를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두 점잖아지고, 과시하지도 오만하지도 않게 되었으며, 사람의 본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람에게 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모두 형벌받을까 두려워 더 이상 무엇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제13편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모든 자손을 증오하며, 큰 붉은 용은 더더욱 증오한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게 된 근원이다. 하나님은 큰 붉은 용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유황불 못에 던져 모조리 태워 버릴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손을 들어 큰 붉은 용을 친히 멸해 버리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증오심이 사라질 것 같았다. 큰 붉은 용의 집에 있는 자는 모두 짐승이고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노를 억누르고 이런 말씀을 했다.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고 모든 아들들, 즉 내가 택한 전 인류의 선민 중에서 너희는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큰 붉은 용과 결전을 펼쳤다. 그리고 계획이 끝날 때에 큰 붉은 용을 멸하여 큰 붉은 용이 계속 인류를 파괴시키지도,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꿈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불러 깨우고 있지만, 모든 백성은 수면제를 먹기라도 한 듯 계속 혼미한 상태에 있다. 잠시라도 일깨우지 않으면 다시 잠이 들어 지각을 잃어버린다. 또 모든 백성은 전신의 2/3가 마비되기라도 한 듯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모르고, 심지어 무엇을 입고 먹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여기에서 큰 붉은 용이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의 추악한 몰골은 중국 각지에 두루 퍼졌고, 심지어 사람을 진저리나게 하여 더 이상 이 부패하고 속된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큰 붉은 용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솟구치는 분노 속에서 사람을 일깨워 주고 있고, 사람은 날마다 분노 어린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스스로 밥을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의 ‘양심’은 오래전에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얼음장’으로 변질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일깨우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냉동’ 상태나 ‘동면’ 상태에 있기라도 한 듯 말이다.”라고 말씀했다. 사람은 모두 동면에 들어간 동물이 겨울을 나는 것처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의 현재 상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빛 속에서 성육신 하나님 자신을 알기만 요구했을 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거나 생명이 얼마나 많이

성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더럽고 불결한 큰 붉은 용을 물리치기에 충분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문자적 의미만 이해할 뿐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세차게 출렁이는 파도’라는 말만으로도 모든 영웅호걸들을 찢절매게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세차게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아니겠느냐? 바로 세찬 파도가 출렁일 때가 아니겠느냐? 사람은 패괴로 말미암아 그 누가 세차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살지 않겠느냐? 즉, 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난을 쏟을 때,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일렁이는 먹구름’이 아니냐? 사람 중에 재난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장대비와도 같고, 돌풍과도 같아 사람을 이리저리 날려 보내기도 한다. 사람은 모두 평평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난측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또 말씀으로 전 인류를 인도하고 정결케 하며,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전 우주의 깨끗함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은 공허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로소 생존의 길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할수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였다. 사람은 그 물음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하나님의 연이은 질문만 해도 사람이 한동안 생각해 보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다른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겉면밖에 모르는데, 마치 닭 껍질만 보고 닭고기는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다니 사람의 복이 너무 작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관념을 보면 저마다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무엇을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사탄의 형상이라고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네가 믿는 것은 사탄의 형상일 뿐,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은 너무 놀라 멍해졌다.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자신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사람은 순간 허무함을 느꼈다. 그러나 또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했는데, 그때부터 또 어리둥절해졌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사람은 새로운 빛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어 케케묵은 지난날의 것을 부인할 수 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관념의 자리를 없애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하는 데에 더욱 유리하다. 그래야만 성육신한 의의를 이루어 사람에게 육안으로도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계의 상황을 수차례 알려 주었다. “사탄이 내 앞에 올 때 나는 그것이 미쳐 날뛰다고 물려서지 않고, 그것이 흥측하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한다.” 사람이 이 말씀에서 이해한 것은 현실의 상황일 뿐, 영계의 실제 상황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성육신하니 사탄은 갖은 방법으로 참소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물려서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역사하며, 사람에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물려서게 하고 심지어 방향을 잃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며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효과로 말미암아 사탄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 더욱 미쳐 날뛰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날이 온다면, 사탄에게 잡혀가겠느냐, 아니면 나에게 얻어지겠느냐?”라고 일깨워 주었다. 사람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모두 신중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역 방식에 들어선 지는 오래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나라의 생활에 대해 여전히 환히 알지 못한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밝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를 준 다음, 하나님나라 생활의 본질을 소개해 주었다. “하나님나라의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했기 때문에 땅에서 셋째 하늘의 생활을 실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자 하나님이 이룬 것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어 하늘의 생활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땅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할수록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임을 더욱 증명한다. 그러므로 “나의 처소는 내가 은거하는 곳이다. 하지만 나는 또 나의 처소에서 원수들을 물리쳤고, 나의 처소에서 땅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또 나의 처소에서 사람의 모든 언행을 관찰하면서 전 인류를 살피며 지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실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실제로 육신에서 살고 있고 인생을 체험하며, 실제로 육신에서 전 인류를 알아 가고 인류를 정복하며, 실제로 육신에서 큰 붉은 용과 결전을 벌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몇 마디 평범한 말씀에서 핵심을 짚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그저 빠르게 지나쳤을 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훌륭하게 전환되었다. 바로 “사람은 모두 흥미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이 한 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서술하던 데에서 전 인류를 묘사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서슬 퍼런 빛’이란 그 부분은 동방의 번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방식에 진입한 다음, 방향조차 분간하지 못해 모두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더욱 몰랐던 것이다. ‘강렬한 빛에 맞은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방식에서 탈락된 사람,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감내하지 못해 또다시 무저갱으로 던져진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강력하게 드러내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기관총을 보기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었는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중에 그 누가 이런 상태로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 누가 나의 빛 속에 있지 않겠느냐? 네가 군센들 혹은 연약한들 어찌 쏘아지는 나의 빛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다면, 설령 그가 연약할지라도 변함없이 형벌 속에서 빛을 비취 주고 깨우침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며,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더더욱 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오늘날의 이 경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하나님의 큰 능력 덕분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병, 즉 하나님 말씀 안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낼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 하나님의 실재를 더 확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밝은 등불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단서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이 바로 그러하지 않느냐?

위에서 말한 내용들이 바로 사람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이 아니냐?

제14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무엇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저 말씀의 겉면만 ‘소중히 여길’ 뿐, 말씀에 담긴 진실한 의미는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지만 사람이 감미로운 그 맛을 진정으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의 떡으로 배를 채우는 식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운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기도 한다. 단지 사람에게 섬세한 면이 너무도 없다 보니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진실로 알지 못할 뿐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지금이 하나님나라가 완전히 실현된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언한 일은 하나님이 이룬 일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하나님나라가 아직 땅에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사람이 변화하고, 사역이 진전되며,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임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나라가 땅에서 점차 형체를 갖춰 간다. 즉, 땅에 차츰차츰 완전히 임한다.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과정은 땅에서 신성으로 사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역대로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을 시작하여 온 땅을 다시 조정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변화, 미국의 정변, 이집트의 변화, 소련의 변화, 중국의 전복 등 전 우주 아래에서 일어나는 크나큰 변화들이다. 전 우주가 안정되어 정상으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사역이 완성될 때이다. 즉, 하나님나라가 땅에 임할 때이다. 이것이 “세상의 각 나라가 분열될 때는 내 나라 건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출 때이기도 하다. 즉, 내가 형상을 바꾸어 전 우주를 마주할 때이다.”라는 말씀의 참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기는 것 없이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풍성함을 전해 주지만,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보처럼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이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목수생처럼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기라도 한 듯 그야말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밀가루 독 안에 든 쥐처럼 눈만 깜빡였다. 확실히, 사람의 에너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람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은 불에 탄 종이 재나 마찬가지로 가치가 전혀 없을뿐더러 용도 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으로 “나는 사람에게 갈수록 감춰진 존재가 되었고, 갈수록 심오하여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충분히 실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순리에 따라 사역하며, 또한 사람의 수용 기관(器官)에 근거해 사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이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관념에 완전히 부합하였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과 거의 같거나 차이가 전혀 없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실제’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목적이지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정시킨 다음 자신이 땅에서 행할 진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작 단계에서 사람은 모두 지난날의 생각이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게 되자 그 즉시 하나님을 ‘달리 대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실제적인 하나님도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처럼 다가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육신은 겉모습만 있고 본질은 없으며, 영의 화신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영으로 변하여 훌쩍 떠나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꺼내면 그에 대한 생각을 다듬는다. 그리고는 그가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며, 사람들 가운데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많은 해석과 설명을 곁들이기까지 한다. 사람이 어리석고 식견이 너무 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대적했거나 나의 행정 법령을 범했다고 생각했어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드러낸 사람의 추한 몰골과 내면세계는 조금도 빛나감이 없이 모두 적중하였으며, 심지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드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사역 원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과 일을 통해 사람에게 지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듯했고, 하나님에게서 더 ‘보배로운 것’을 발견한 듯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거나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머릿속 상상일 뿐,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중시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성품의 단면’에 대해서는 손금 보듯 환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서 ‘자잘한 흠’을 잡는다. 사람은 모두 부정적인 일은 중시하면서도 긍정적인 일은 중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행사를 경시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고 말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높게 요구하며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고, 인생도 체험하고 있다면서 왜 우리의

실정을 모를 때가 많으냐고 말했다. 설마 하나님은 정말 숨은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때는 막연하거나 초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제적인 상태에 따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옛 성품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말씀했다. 즉,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며, 모든 사람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했다가도 한 무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한다. 혹은 사람에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하며, 사람의 장기를 해부하기도 하다가 치유해 주기도 한다.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끝없는 세계의 모든 곳을 두루 다닌 듯하게 했다가 또 너도나도 매력을 발산하는 화원으로 들어간 듯하게 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쇠붙이가 자석을 쫓아가듯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진입한다.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중시하지 않으니 나 역시 사람에게 많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 모든 백성은 또 무저갱에 던져지기라도 한 듯, 또다시 급소를 찢리기라도 한 듯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게 미움받고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을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상심하여 눈물을 흘렸다. ‘가까스로 무저갱에서 기어올라 왔는데, 다시 무저갱에 떨어진다면 가망이 없겠어. 인간 세상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인생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도 다 겪었어.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세상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며, 인간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무저갱에 떨어진다면 더없이 헛된 일생을 산 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쓰라렸다.) 오늘날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다면 차라리 일찍 죽느니만도 못하지... 에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지금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으로 하자. 내 운명이 이런 걸 어찌겠어?’ 사람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한 목적에 더 가까워졌고,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서 사상 투쟁을 한바탕 벌인 후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모질게 말씀할수록 사람의 내면세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상처라도 건드린 것처럼 심하게 건드릴수록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 녹초가 되었고, 심지어 살아갈 자신감마저도 잃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가장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때에야 하나님께 진심을 바칠 수 있었다. 사람은 본성에 따라 한 가닥 희망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자연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찾는다. 사람은 본성이 원래

독선적이어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다 얹잡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할 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자신과 더불어 즐기며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역시 없다.”라고 말씀했다. 말을 꺼내고 나니 가슴이 시리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인간 세상에 온 하나님을 전력으로 대적하면서 나라 밖으로 쫓아냈다. 하나님은 사방을 떠도는 고아 같기도 했고, 또 국적 없이 세상을 떠도는 사람 같기도 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돌아온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돌아온 하나님을 보았을 때, 웃음 가득했던 얼굴엔 삼시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마치 폭풍우가 곧 휘몰아치기라도 할 듯, 하나님이 사람의 집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듯,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에게 축복은 주지 않고 재해만 주기라도 한 듯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저주하기만 했다는 인상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찔찔맞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 적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성도 없고 도의도 모르며,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정’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정했으며, 이른바 ‘공의’를 취하여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했다. 수많은 세월, 사람은 언제나 그랬으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사람의 무계가 깃털 몇 개의 무계밖에 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천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설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망치는 짓이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나? 사람은 모두 음녀처럼 스스로를 우롱하고, 자신을 임의로 다른 자의 손에 넘겨주어 유린하게 했다. 그럼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해 주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이 장악하게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더러운 부분이 아니냐? 나는 인간 세상의 생활을 겪어 보지 않았고, 인생을 진정으로 체험해 보지도 않았어도 사람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다. 심지어 사람을 몸 둘 바 모를 정도로 해부할 수 있고, 나아가 두 번 다시 자신의 수작을 과시하지 못하고 두 번 다시 자신의 정욕을 방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달팽이가 껍질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처럼 두 번 다시 자신의 추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허물은 바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용모와 추악한 몰골을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혐오한다. 사람 간의 관계가 비정상이고, 서로 정상적인 대인 관계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한 주목적은 그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전 인류 가운데서 권세를 잡아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룬다.

제15편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할 때 언제나 정곡을 찌르고 숨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첫마디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근원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 가기만 할 뿐 하나님을 ‘해부’하지는 못했다. 마치 하나님을 거스를까 매우 두렵고, 사람의 ‘진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기라도 할까 봐 매우 두려워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먹고 마시지, 적극적인 측면에서 먹고 마시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모두 ‘겸손과 순종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이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던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진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중시하라고 한 목적을 진정으로 파악한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교회 생활을 체험하지 않아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새로운 방식에 진입한 관계로 모든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교회에는 여전히 시체 냄새가 풍기고 있다. 사람은 약을 먹은 후에도 혼미한 상태에 있는 듯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했고, 죽음이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듯 큰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정확히 아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교회를 건축할 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깊이 뿌리박혀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바로 앞 단계에서 말씀하던 방식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이 자만하여 자신의 처지를 잊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채찍질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사람은 무저갱에서 5개월 동안 연단을 겪었지만, 사람의 실제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종했으며, 그저 하나님을 경계하는 마음만 어느 정도 늘었을 뿐이다. 이 단계에 와서야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연관 지어 보면 앞부분의 사역은 오늘날을 위해 준비를 한 것이고,

오늘날에야 모든 것이 본격화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람의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분리하기 ‘좋아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를 얻어 언제나 구속받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이 나서 깡충거리는’ 새로 묘사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실제 상태로서,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고 헤매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또한 기껏해야 그런 것뿐임을 알 수 있다. 사탄이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중시하라고 요구하지만, 사탄은 온 힘을 다해 망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말씀을 중시하라고 일깨워 준다. 이것이 바로 영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절정 부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탄이 파괴하려는 것은 사람을 통해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에는 눈에 띄는 본보기들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사탄이 사람에게서 파괴하는 것에도 눈에 띄는 표시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 갈수록 타락하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며 심한 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 교회의 실제 상황이고, 영계의 실제 사정이며, 영계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에게 하나님과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이 점유하도록 할 수 있다면 “내 앞에서 내 품에 안긴 듯, 내 품의 따스함을 느꼈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으며, 사람이 일어나 협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즐겁고 가뵤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더냐? 이 한 가지에 모든 영웅호걸이 찢쩍대 정도란 말이냐? 전쟁터에 내보낼 장수를 수놓는 방에 앉혀 바느질을 시키기라도 한 듯, 그 ‘영웅들’은 난감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그 부분에서 사람을 가장 심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내적 상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너희 중에 그 누가 내 앞에서 눈같이 깨끗하고 옥같이 순결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숨기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흡족게 하지 않고, 자신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한쪽에 내버려 두어 한편에서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화려한 옷이 생기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를 감상할 뿐, 깊은 곳에서 우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흡족게 하지는 않는다. 또 사람은 지위가 생겨 호사를 부릴 수 있게 되면 ‘지위’에 기대 누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은 지위에 서서

큰소리를 친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거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점령되었을 때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함께함을 부인했을 때이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삼자라도 된 듯,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빼앗아 가 외로움을 느끼게 할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본뜻대로라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할 수 없다. 설령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사랑’ 가운데서 밀어내지 못한다. 땅의 것은 모두 헛되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사람 사이의 감정일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은 다 무(無)로 돌아갈 것이다. 땅의 사람에게는 저마다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애지중지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인식 정도가 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할지라도 사람은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중시하지 않고, 꽃으로 여겨 바라볼 뿐 열매로 여겨 직접 맛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전혀 모른다. “사람이 정말 날 선 검의 예리함을 봤다면, 모두 쥐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듯 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아연실색하고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 역시 그 상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나는 하나님나라에서 입으로 음성을 발할 뿐만 아니라 발로 본격적으로 곳곳을 누빈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며 전 우주 아래에서 그의 사역을 대규모로 펼쳤다. 다시 말해, 곳곳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표징을 볼 수 있다. 사탄은 각국을 분열시켜 하나님의 경영을 망치려고 계락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분열을 이용하여 전 우주를 재정돈한다. 그러나 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하지만, 사람은 알아차린 적이 없다. 사람은 영계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새 사역을 보지 못한다. “온 우주 아래에는 나의 영광으로 온통 새롭게 되어 마음을 즐겁고 후련하게 해 주는 기쁨의 광경이 나타났다. 사람이 상상했던 하늘 밖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탄의 방해가 없고,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일도 없었다.”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그리스도 나라의 기쁨의 광경을 예시한 것으로, 사탄 세력의 침입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만 존재하는 셋째 하늘의 모습을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자신이 땅에서 역사할 때의 상황을 사람에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즉, 하늘은 새 하늘이고, 그에 따라 땅도 바뀌며, 하나님 자신이 인도해 주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더없이 행복한 모습을 말이다. 사람은 사탄을 사람의 ‘포로’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신성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도로 인해 사탄의 간계는 무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사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소멸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 밖의 하늘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 “혼란한 상황이 나타난 적이 없고 온 우주가 분열되는 일도 없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영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한 증거이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상징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진지하게 상고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말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는 못별 위로 높이 뛰어오르며 작열하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단번에 없애 나의 손안에서 함박눈이 펄펄 내리게 했다. 하지만 내가 의지를 바꿀 때는 또 모든 눈이 녹아 강을 이뤘다. 순식간에 하늘 아래는 꽃피는 봄날이 찾아왔고, 땅의 산과 물에는 푸른 기운이 널리 퍼졌다.”라고 말씀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음성을 발하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이 깨어난다. 하지만 온갖 재난이 닥치면 사람은 다시 인간 세상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모두 죽음을 찾아가고, 차디찬 얼음 구덩이에 놓이게 되며, 큰 눈의 추위에 얼어붙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땅에는 따뜻함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파괴되었기에 갈수록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며, 교회의 많은 사람이 큰 붉은 용에게 한입에 삼켜지게 된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면 그에 따라 사탄의 방해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온 세상에는 봄기운이 충만하며, 인간 세상에는 따뜻함이 두루 퍼지고 생기가 넘쳐난다. 이것이 전체 경륜의 모든 절차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밤’이란 사탄이 미쳐 날뛰는 절정기를 가리키며, 그 시기가 바로 밤이 되었을 때이다. 지금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니더냐? 사람은 모두 하나님 빛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밤의 어둠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 땅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 역사의 절차로 말미암아 그 역시 ‘동분서주’하면서 모두 ‘자신에게 적합한 종착지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땅은 여전히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하나님이 전 우주에 공개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산에 충만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 질서 정연해지며, 체계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말하기도 하고 내일을 예시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내일의 토대이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 놓인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 곳곳에 하나님의 그림자와 하나님 영의 역사가 있는 듯하다. 확실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탄의 모델들을 정복하고, 최종적으로 또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역할 때, 영 또한 육신과 협력하여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행사는 온 땅에 두루 미치고, 하나님의 영은 전 우주에 충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단 하나님의 사역 절차로 말미암아, 악을 행한 자는 아직 징벌받지 않았고 선을 행한 자 역시 아직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사가 온 땅에 있는 자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거하고, 만유 속에도 거하며, 더욱이 만인 가운데 거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실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직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사람에게서는 “사람에게 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착각이 생겼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중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100% 확신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모두가 60%의 의심과 4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람의 실제 사정이다. 지금 사람은 모두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실재를 믿으려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실재를 믿지 않으려니 마치 뭔가가 벗어나지 못하게 움아매는 양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믿지 않자니 만에 하나 사실이기라도 하면 또 놓쳐 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이것이 사람의 모순된 심리다.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영, 그리고 내 전체 경륜을 위해 그 누가 자신의 힘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고, 또 “오늘날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한 때이다. 그 누가 나를 위해 두려움 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나님이 육신으로 직접 신성의 사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성육신이 아닌 ‘사역자’를 통해 사역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큰 붉은 용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왕권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없으므로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해야 한다. 육신이 바뀐다면 영원히 이번 단계의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다. 육신과 육신이라도 그 의의와 본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말씀을 글귀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이 영의 작용인지, 아니면 육신의 기능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사람이 한평생 구체적으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은 계속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이미 오래전에 영적인 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로도 눈 호강을 할 수

있었다. 영과 영이 서로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모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또 접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며 두려워할 뿐이었다. 이는 모두 영의 매력이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토로하고 싶어 한다. 사실, 사람에게에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다만 사탄의 방해로 무감각하고 어리석으며 가련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진심을 밝혔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의 깊은 곳에서 나를 그리워했다. ... 사람은 나의 ‘실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제 상태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자연히 바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의 역할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미를 드리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영의 깊은 곳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하나님과 사탄을 혼동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는 사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초점이다.

제16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풍성하며, 너무도 기묘하고 측량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지상하며 절세의 걸작이다. 하지만 사람은 결함이 너무 많고 머리로 지나치게 ‘단순한’ 데다 수용 능력까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마치 정신병자같이 배가 고파도 먹을 줄 모르고, 목이 말라도 마실 줄 모른 채 고향만 질러 댈다. 영혼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토로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본의(本意)에 따라 정상 인성으로 살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며, 사탄이 수천 년 동안 부려 온 간계를 간파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기관(器官)도 없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시험을 받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깨닫지 못한다. 정상인은 교활하고 간사한

성품이 없으며,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독단적이지 않고, 속되거나 부패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게 한다. 사람들은 화목하게 함께 살며, 모두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간다. 땅에는 조화의 기운이 충만하고 사탄의 방해가 없으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근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천사처럼 단순하고 활발하다. 하나님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한다. 지금은 캄캄한 밤이니 모든 이가 더듬으면서 찾고 있다. 칙흑 같은 밤이라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으스스 떨려 온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 보니 사람의 애곡 소리가 담긴 울부짖는 서복풍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운명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마치 당장 삶의 희망을 잃을 것 같고, 당장 죽음이 닥칠 것 같고, 사람의 마지막 날이 눈앞에 이른 것 같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바로 연약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이다. 그들은 애곡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하소연한다. 이런 까닭으로 아들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던 천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는 육신에서 사탄에게 우롱당해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사역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보좌에 오를 때가 바로 아들들과 백성들이 땅에서 왕권을 잡을 때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천사가 땅에서 누리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천사의 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게 되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게 된다고 한 것이다. 땅에 있는 날에 셋째 하늘의 복을 누린다고 한 말의 참뜻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매우 많다. “언젠가 사람은 나를 가슴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천사는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통에 빠져 있었다. 불쌍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염원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성을 지녔지만, 땅에서는 뜻처럼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분씩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다. 비록 사람들도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폭로하는 사람의 추악한 모습은 모두 영계에 있는 사탄의 본래 모습이다. 사람은 본래 무고하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드러나는 모든 패괴된 추한 모습은 사탄이 영계에서 저지르는 소행이자 영계의 실태를 녹화한 것과도 같다. “지금, 사람은 자격을 얻었으니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되고,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고 똑같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저지른 소행이다. 사탄은 사람의 관념과 육안을 이용해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사람에게 이 상태를 단도직입적으로 알려 주어 그로 인해 해를 입는 것을 모면케 한다. 모든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만 볼 뿐 하나님의 영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영이 이 육신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여긴다. 영이 오늘날 육신이 되어 실제로 사람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의복과 육신’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며, 아무도 하나님을 영이 성육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람의 상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매우 ‘정상’적이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려진 이면에 하나님의 다른 한 측면의 깊은 의의가 깃들어 있음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가리기 시작하자 세계는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은 사람이 잠든 사이에 세상에 내려왔고 본격적으로 영을 세계 각 곳에 보내어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형상을 지니고 성육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땅에서 사역을 하고, 영의 사역도 동시에 시작되었고 땅의 모든 사역 또한 본격적으로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2천 년간 줄곧 하나님의 영은 전 우주 아래에서 사역했지만,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 시대를 곧 끝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친히 사역한다. 이는 말세에 태어난 사람의 복이다. 뜻밖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깊은 물의 표면 전체가 혼탁해졌을 때, 나는 세상의 괴로움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의 영은 세계를 주유하고, 만인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나 나는 또 내가 입은 육신을 통해 전 인류를 정복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조화로운 협력이다. 결국 사람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며, 천지 만물은 땅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사람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긴다. 또한 땅에 있는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의 사역을 행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서 역사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육신에 거하는 단계의 최고 기준 사역에 진입하여 신성으로 사역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사람은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땅의 하나님이 실제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공허한 글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관념을 가진 채 하나님을 알아 갈수록 글귀만 말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감탄’한다. 또한, 사람이 글귀를 말할수록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며, 사람의 본질을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요구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이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초자연적이지 않지만, 여태껏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만 아득히 펼쳐진 하늘 위에서, 세차게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잔잔한 호수의 수면 위에서, 혹은 공허한 글귀 속에서 찾을 뿐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다가설 수 없는 높은 존재라 생각하고, 더 위대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다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협력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머리 숙여 죄를 자복하며, 겸손과 순종을 강조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또 새로운 종교 속으로 빠져들었다. 즉, 교계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종교의식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는 반드시 사람의 소극적인 상태를 적극적인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갈수록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여러 차례의 말씀에서 산과 물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했겠느냐? 거기에도 예표의 의미가 있단 말이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신을 통해 그의 행사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의 그의 능력도 알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실제 하나님의 행사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하늘에 모시고,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을 땅에 모셔올 수 있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육신으로 인류를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초월하여 전 우주 위아래를 거닐 수 있다. 이렇게 할수록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더욱 잘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하는 사역의 진실성, 즉 거짓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되고, 오늘의 실제 하나님이 영의 화신이며 사람과 같은 육신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만 내가 진노하면 그 즉시 산이 갈라져 무너지고 땅이 뒤흔들리며 물이 마르고 사람은 재난에 삼켜진다.”라고 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면 이내 다시 하나님의 육신과 결부시킨다. 그러므로 영계에서의 사역과 말씀을 직접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이어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와 근원을 헤아릴 수 없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 별들은 나의 존재로 인해 당황하여 허둥댄 적이 없고 오히려 나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사역한다.” 이것은 하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좋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한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황하여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사역하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다. 반면 땅의 사람은 패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어둠 속에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더욱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하늘 위가 밝을수록 하늘 아래는 더욱 캄캄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 점점 온 인류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서 다망했던 하나님의 6천 년 사역이 곧 끝나게 되며, 땅 위의 만물은 막바지로 접어들어 머지않아 하나님의 손에 일일이 제거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은 인간 세상의 패괴를 더 잘 실감할 수 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더 방종한다. 심지어 세계의 참상을 되돌리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 탄식하며 실망한다. 그래서 사람이 파사로운 봄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려 버린다. 이 때문에 사람은 거세계 출렁이는 파도에 떠다니며 아무도 저 멀리 있는 구명정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본래 연약한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이 아무도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 우주를 향해 음성을 발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한다. 그제서야 사람은 세상이 바뀌고 난 후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현재의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단계에 있다. 앞에 놓인 길이 너무 처량하고, 사람의 앞날은 ‘무한’하여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은 분투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저 한고조(寒苦鳥)처럼 대충대충 살아갈 뿐이다. 그 누구도 진지하게 삶을 추구하거나 인생을 알고자 애쓴 적이 없다. 대신 어느 날 구세주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와 세상의 참상을 되돌리게 되면 그때 진지하게 살겠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실제 상태이고 모든 사람의 심리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현 단계 심리를 겨냥하여, 이후의 새로운 삶을 예언했다. 이것이 바로 희미한 빛이 점점 비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친 뒤의 승리의 열매이다. “내가 만인 위를 거닐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옛 모습을 지닌 사물도, 옛 상태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나는 보좌 위에서 안식하고 온 우주 위에 눕는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모든 선민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 오랜 고난에서 자유를 얻은 천사는 “얼굴은 사람 마음속의 거룩한 자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 천사가 땅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온 땅에 널리 퍼지니, 이로부터 하늘을 땅으로 끌어오고 땅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 고리이고, 하늘과 땅은 더 이상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온 세계에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있을 뿐 먼지도 더러움도 없다. 모든 만물은 새롭게 변하며, 어린양처럼 하늘 아래 푸른 초원에 누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린다. 푸르름이 오자 생명의 기운이 발산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는 다시 시온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이는 바로 사탄의 실패를 알리는 표징이며,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다. 만민이 이날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기념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안식할 때는 땅에서 사역을 끝낼 때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때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화목하게 지내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다!

비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도다!

제17편

사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들어 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이 알려 준 천상의 일, 혹은 영계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실상이야말로 비밀이라고 착각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똑같이 대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비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비밀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나를 속이는 전문가이다.”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틀렸고 다 엉망진창인 존재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사람의 실제 상태인 것이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사람 스스로도 잘 모른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은 젓 먹는 아기와 같다. 자신이 왜 젓을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 오직

어머니만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아기가 굶어 죽거나 배 터져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의 심판을 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뜻깊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상상했던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위인’ 같거나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천자’ 같거나 무고한 사람을 살육하는 ‘망나니’로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게 느낀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그의 사역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품 역시 사역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행할 직분은 겉으로 무엇을 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실행의 길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친다. 이것은 주요한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내 음성은 우레와 같아 사방을 비추고 온 땅을 밝혔으며, 사람은 천둥 번개 속에 쓰러졌다. 천둥 번개 속에서도 강한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은 내 빛에 놀라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나님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만인은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천둥 번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나? ‘빛’이 가리키는 것은 또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심리를 꼬집고, 말씀으로 사람의 추태를 묘사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옛 본성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모든 백성을 온전케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아니겠느냐? 전 우주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쳐 주지 않고 산성이 되어 주지 않았다면, 전 인류는 진작에 멸망하여 사라졌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칙이자 6천 년 경륜의 사역 방식이다. 이로써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마자 놀라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황급히 달아난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도망자’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사람들이 멀리 달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추태에 대해 묘사한 한 장면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점차 혼몽 속에서 깨어난다. 마치 과거에는 모두가 ‘치매’에 걸렸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접했음에도 사람들은 치매의 후유증이 남은 듯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실제 상태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 빛에 ‘마음이 움직여’ 바로 환각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내 빛이 땅에 임하는 날이 이미 왔음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씀의 현실 속 장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빛의 출현에 어리둥절해했다”라고 말씀했다.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정말 바늘 끝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탄복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쌓아 가기 시작한다. 이로써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더 실체화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대부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빛에 찔려 눈을 다치거나 빛에 맞아 진흙 가운데 쓰러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에(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패역으로 인해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빛에 찔려 눈을 다쳤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이미 사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 다음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자는 모두 사탄에게 점령된 자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진흙 가운데 쓰러졌다”라고 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엉망진창이라 이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없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생각하는 바도 서로 다르다. 온 땅의 사람은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파괴되어 생기가 없고 시체 냄새만 가득 풍긴다. 온 땅의 사람은 전염병 병원 속에서 살지만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없다. 사람은 땅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웬지 자기 눈앞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억지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힘이 사라진 지 오래고, 그저 보이지 않는 희망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자기 머리를 맡기고 인간인 척하며 땅에서 되는데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모든 사람이 ‘혼세마왕’의 후손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참상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우주를 향해 “내 영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온 땅에서 그의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사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종 재앙을 내림으로써 마음이 강박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서 구원에 활용한 방식은 여전히 각종 재난이다. 운명으로 정해진 자는 모두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최후에 이르러서야 “크고 작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승강이’가 벌어진 적이 없어 셋째 하늘처럼 평온한” 국면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전 인류를 정복하고 선민을 얻는 한편, 각종 재앙을 통해 모든 패역한 자식들을 정복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규모 사역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땅에서 원하는 나라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룰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의 정수이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하늘의 동태를 살피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느냐? 사실상, 사탄에 의해 이미 5,900여 년간 파괴되어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지경인 요즘 사람들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면 사람은 이것을 전혀 해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는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기회가 있다. 너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글자 그대로만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다음 사람에게 영을 주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없어 땅에서 하늘의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람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사탄은 바로 당황하여 황급히 도망갈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부르짖음에 따라 언제든지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면 사람은 내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이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 마음대로 ‘노닐’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늘 통하면 사탄은 교란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사탄의 교란이 없으면 사람의 생활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는 아무 방해 없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기회가 생긴다. 이러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늘 사람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했는지, 게다가 왜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 적합하게 요구한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고혈을 짜내’ 나를 즐겁게 하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했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리둥절해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체 기관도 없을뿐더러 사탄에 의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한다. 사람의 이런 진지한 모습,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이런저런 사람의 추태가 가장 우습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노는 데 정신이 팔린 듯하고, 어떨 때는 꼬마 아가씨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개가 쥐를 잡아먹는 듯하다. 이런 다양한 추태를 보면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수록 더 난장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저 만물을 침묵하게 하는 하나님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 보여 준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혀 주어도 사람이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땅을 거닐며 곳곳에 내 향기를 뿌리고, 내 그림자를 남긴다. 곳곳에는 내 음성이 울려 퍼진다. 사람은 다 어제의 아름다운 광경을 그리워한다.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나라가 형성될 때의 모습이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예언했다. 이를 모두 모으면 하나님나라를 보여 주는 한 폭의 완전한 그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만화 같은 이야기로 여긴다.

수천 년간 사탄에 의해 패괴되면서 사람은 늘 흑암 속에 살았다. 그래서 사람은 흑암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없고, 빛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빛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내가 온 것에 질색하며 찾아온 빛을 몰아낸다. 내가 하늘에 있는 적이라도 되는 양 사람은 내게 ‘경계’의 눈빛을 보낸다.”라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이해 못 할 노릇이다. 사람은 흑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빛이 없는 여건에서 행했던 것이다. 즉,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 사람은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새 빛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을 이용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충성심’으로는 기쁨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빛’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다. 이는 현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사람을 ‘학대’하거나 홀대한 것도 아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껴 보려 한 사람은 없다. 오히려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을 멸할까 봐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6천 년 동안 계속 따뜻함으로 사람의 진심을 얻어 가며 차근차근 타이르고 있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고 있다. 하지만 인내하다가 어느 날이 되면, 즉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되면, 더 이상 어머니처럼 인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합당한 응보를 내릴 것이다. 이 때문에 나중에 “바다 위에는 사람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는” 반면, “물이 없는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웃고 노래하면서 내가 준 약속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별받는 자와 상받는 자의 종착지를 대비한 것이다. ‘바다 위’란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을 형벌하는 무저갱이자 사탄의 종착지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한 ‘편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지만 사람은 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자기 일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서 늘 사람에게 ‘요구’한다. 또한,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실행해야 할 길을 가리키며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태도를 밝혔다. “내 손이 사람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함부로 가지고 논

적은 없다. 나는 사람이 쏟는 심혈을 헤아리고, 사람이 치르는 대가도 이해하고 있기에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서 형벌을 내리거나 나쁜 것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저 계속 사람에게 공급하고 베풀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낀다. ‘확실히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른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한 적도 있어. 가끔은 원망도 했었지.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내 생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가끔 난 장난감 취급하면서 함부로 다뤘잖아. 정말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난 왜 이렇게 못나게 구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람은 당장이라도 스스로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떤 이는 코끝이 찡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리를 헤아려 말씀하기에,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이 몇 마디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나라가 땅에 형성될 때 일어날 하나님 사역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하나님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재난도 당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을 시작할 때, 즉 만민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땅의 사역을 모두 끝낼 것이다.’ 그때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형벌을 받고, 거룩한 자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나라의 아들들과 백성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 성품의 발현이다. 두 번 다시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을 것이다.

제18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 성품의 일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으로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알 수 있는 것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사람의 능력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한다 해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바로 “번개 속에서 모든 동물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빛을 받아 사람도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 파괴된 옛 세상아! 드디어 더러운 물에서 무너지고,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라는 말씀처럼 말이다.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담겨 있다. 사람은 이 말을 알고는 있어도 이 말씀의 함의를 이해한 적은 없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에 속한다. 즉, 악령에 속한 자는 모두 동물에 속한다. 이로부터 교회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면, 인위적인 훈계, 채찍질, 직접적인 출교나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또

누가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빛 비춤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며, 뱃속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현미경’의 투시로 똑똑히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종 영들은 부류대로 나뉘고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데, 천사에 속한 영도 점점 더 많은 빛 비춤과 깨우침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의 거룩함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얻을 성과에 근거해서 한 말씀이다. 물론 지금은 아직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은 맛보기일 뿐이지만, 이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모든 사람이 점차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물에 잠겨 진흙이 되었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멸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번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때면 온 세상은 이로 인해 갖은 재난을 겪는다. 이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하늘 위에 서서 보면 땅에서 온갖 재앙이 전 인류에게 나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에 서서 살펴보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처럼 땅에서 각종 현상이 보인다. 곳곳에서 불물이 마구 움직이고, 곳곳에서 용암이 흐르며, 산이 이동하고, 곳곳에 섬뜩한 빛이 번쩍이며, 전 세계는 불 속에 잠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하나님이 심판할 때이므로 육에 속하는 자는 모두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 사람 간의 싸움으로 세상을 멸할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벌의 요람 속에서 ‘자각적으로 즐기게’ 하면 된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하나 통과해야 한다. 이때가 지나가면 온 우주 아래는 다시 신성한 빛으로 빛나고, 전 인류는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서 안식하며 매일 전 인류를 축복한다. 하늘 위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니라 창세 이래 없었던 생기를 회복한다. ‘6일’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은 모두 안식에 들어간다. 온 우주 아래는 더 이상 혼탁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새롭게 바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고, 하늘은 더 이상 처량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불의가 있었던 적도 없고, 사람의 정이 있었던 적도 없으며, 사람의 모든 파괴 성품이 있었던 적도 없다. 사탄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늘 위의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지혜와 하나님의 존엄을 가지고 있다. 각각 하늘에 있고, 땅에 있다는 차이 때문에 하늘에 있는 백성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영’이라 불린다. 이 두 가지 표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 ‘사람’이라고 하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자를 가리키지만, ‘영’은 결코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다. 최후에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에 있는 영의 속성으로 변화시켜 더 이상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은 전 우주 위아래에 두루 미친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함의이다. “땅은 본래 하늘에 속하고,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다. 사람의 거룩함과 거듭남으로 인해 하늘은 더 이상 땅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고, 땅은 더 이상 하늘을 향해 침묵하지 않는다.” 이것은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한 말씀이다. 이 상황에 이르면 ‘천사’들은 또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원래 상태를 회복하여 더 이상 육으로 인해 하늘의 위아래 두 곳으로 갈라져 있지 않는다. 땅에 있는 ‘천사’와 하늘에 있는 천사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인간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늘과 땅은 간극 없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나라가 실현된 아름다운 광경으로,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이자 모든 사람과 영이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사람은 이를 전혀 모른 채 온 땅에 ‘쓰레기’가 널려 있든 말든(쓰레기는 시체를 가리킴), 그저 ‘흰 구름을 탄 구주 예수’가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오길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계야! 어찌 땅에 있는 내 권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다. 땅의 백성이 만들어짐에 따라 종교계가 무너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권병’의 진정한 함의이다. 하나님은 “나의 날에 어느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내게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마음속으로 몰래 내게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했다. 이는 종교계의 멸망으로 초래된 결과를 말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와 순종하며, 더 이상 흰 구름이 내려오길 기다리며 하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복된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몰래 내게 부르짖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모두 정복되는 것, 종교계의 결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이다. 인류 가운데 가장 패역한 종교계 인사를 모두 ‘쓰러뜨려’ 더 이상 자신의 관념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거듭 예언하며 여러 측면을 말하고 또 여러 시각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여러 상황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의 수용 능력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 속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만 사람은 투시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전히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 어리둥절해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육의 최대 결함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무감각해진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이를 거듭 지적한다.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모두 사탄의 추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엄할수록 사탄은 더 창피를 당하고, 사람의 마음은 속박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의 사랑을 더 일깨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다. 사탄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사탄을 간파했기 때문에

사탄은 감히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점령하지 못한다. 이로써 천사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때에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사의 본래 면모가 드러난다.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의 자리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고, 사람에게 버려지지 않는다. 나의 대업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라는 말씀이 상술한 내용의 함축된 의미이다. 사람은 사탄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을 못 낸다. 늘 세상의 것에 얽매여 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해 “인생의 값은 시련과 세상의 험난함, 인간사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늘날 나의 빛 속에서 살면서 지난날의 불공평함 때문에 울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이 순간 함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마음속으로 문득 인간 세상의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살면서 뭘 누려 본 적이 없어.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 오늘날까지 쭉 인생을 겪으면서 뭘 얻어 보기는커녕 고생을 많이 했으니 정말 허무해! 지금은 사탄에 의해 이 지경까지 파괴되었어. 에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죽을 날이 왔을 때 난 평생 헛산 거 아니야?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일깨워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참으로 불쌍하게 말이야!’ 여기까지 생각하니 망설임이 생긴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얻게 되면 난 또 어떻게 인생을 ‘겪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기도 중에 훌쩍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다. 이 말씀을 보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매일 각 부류 사람의 상태를 폭로한다. 어떤 때는 사람 대신 역울함을 호소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환경을 이겨 낼 수 있게 도와준다. 어떤 때는 사람의 ‘변화’를 알려 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사람이 실제로 겪은 체험을 지적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부족함과 결점을 지적해 준다. 어떤 때는 또 사람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알려 주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들어 보았고, 고난 중에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관한 하소연도 들어 보았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내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험난한 길에서 활로를 찾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이는 긍정적인 인물에 대한 서술이다. ‘사극’에는 매회마다 긍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도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부정적인 인물의 추한 모습도 드러냈다. 이렇게 ‘반역자’를 통해서 ‘정의로운 자’의

겪이지 않는 충정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부각시킨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측면에서 사람의 본래 모습을 폭로하여, ‘반역자’는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게 하고, ‘정의로운 자’는 ‘격려’ 속에 계속 충성을 다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기도 하며, 옛일을 회상하기도 하고, 통곡하면서 죄를 자백하기도 하며, 뭔가를 모색하거나 구하기도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도 그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심지어는 제삼자가 그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땅에서 언쟁이 사라졌다. 내 말이 선포됨에 따라 새 시대의 각종 ‘무기’도 회수된다.”라는 말씀을 보아라. ‘무기’라는 두 글자만 해도 하루 동안 네 ‘웃음거리’로 삼기에 충분하다. 무의식중에 ‘무기’만 떠올려도 몰래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는 이것 때문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것 같느냐?

네가 웃을 때 잊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라. 또한, 잊지 말고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아라. “사람은 모두 정상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삶에 진입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처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환경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 궤도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회의 실제 모습이다. 모든 사람을 즉시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너무 급해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모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영의 역사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사람의 불의로 인해 적절히 ‘교육’하여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방식이자,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길이다. 하나님은 그 뒤에 사람의 또 다른 상태를 지적했다. “만약 내가 주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득이하게 그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무저갱에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 사람에게 불평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음을 꺼내어’, 사람의 마음이 일곱 색깔 중 어느 색깔인지 하나님께 보여 주게 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계속 사람에게 요구하고, 사람의 추한 모습을 폭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분량’이 너무 작고, ‘체질’이 너무 약해 ‘운동’을 더 해야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진노’한다. 언젠가 하나님이 사람의 원래 모습을 모두 폭로하면 사람도 완전해지고, 하나님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더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도 더는 사람을 ‘교육’하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사람은 ‘독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사람에게 ‘모조품’이 아직 많으니 몇 번 더 검사하고, 몇 개의 ‘관문’을 더 설치해서 사람이 모든 ‘관문’에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여전히 모조품이라면 바로 몰수해서 팔지 못하게 하고, 이로써 그 밀수품들을 모두 폐기해 버린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19편

사람은 하나님을 한없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존재로 상상하는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너무도 높고 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을 깨뜨렸다. 사람의 모든 관념을 없애고 ‘무덤’ 속에 묻어 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에 대해 마치 죽은 사람을 대하듯 마구 정의를 내렸으나 ‘관념’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하였고 멈춘 적이 없었다. 사람은 육적인 이유로 인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고, 또 사탄이 땅에서 한 행위로 인해 ‘체험’ 중 여러 가지 관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자연적인 형성’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사역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만 있었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오늘날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측량하기는 더욱 어렵다. 마치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다. 따옴표가 붙은 단어가 절반이나 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할 때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말을 멈추면 사람은 다시 자신의 ‘경영’을 시작한다.” 여기에 따옴표를 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해학적으로 말할수록 사람이 더 흥미를 갖고 그의 말씀을 보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람이 훈계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해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리둥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따옴표가 없는 단어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주목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많은 말씀에는 중복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제삼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항상 새롭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사람이 그저 ‘소비자’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생산자’가 되라는 것이다.”라는 말씀 중 ‘소비자’와 ‘생산자’는 예전에 했던 일부 말씀들과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이 단조롭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해학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에 대한 요구가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목적과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해학은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람이 박장대소하며 긴장을 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5천 년 동안 묶여 있던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시는 속박을 받지 않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쓴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이용해 먹이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달면서도 쓴맛이 나고, 쓰면서도 단맛이 난다.

“동방에서 한 줄기의 희미한 빛이 비치자 온 우주의 사람들이 동방의 빛을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더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동방의 빛이 시작되는 곳을 보려고 나섰다. 하지만 사람은 능력의 한계로 아무도 그 빛의 근원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온 우주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아들과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이방인들에게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심경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어느덧 사람은 삶이 무의미하고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람은 미래를 추구하지도, 내일을 위해 생각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으며, 지금 이 ‘젊은’ 시절에 더 많이 먹고 마시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의는 모두 ‘귀신’에게 도둑맞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서로 바쁘게 뛰어다니며 ‘알려 줄’ 뿐이다.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의 모든 해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고, 이제야 나의 날이 인간 세상에 조금씩 다가왔음을 알았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은 푸른 잎처럼 “내가 땅에 있을 때 자신의 몫을 바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중국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발한 후에도 ‘옛 병이 도진’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므로 나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들 중 도태될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하나도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통과해야 ‘합격’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쓰레기 더미 속의 폐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실제 상태를 거둬서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상태를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을까?’라며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신비롭게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이 연약한 관계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위대하지도 않지만 천하지도 않다. 사람에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가장 실제적인 내적 상태가 아니겠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은 추구하면 존재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사람의 진심이다. 사실, 모든 ‘무신론’자는 물론, 땅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애매하고 모호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은 땅에서 각 나라의 경계를 이루었고, 물은 땅 사이에서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공기는 땅의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물질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자 사람은 ‘설마 하나님이 또다시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것인가?’라고 의아해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창조편, 경영편, 멸세(滅世)편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때는 뚜렷하고 어떤 때는 모호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그의 말씀 안에 있다. 다만 사람이 분별할 줄 모를 뿐이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사람은 믿음이 넘친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준 약속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다. 쓰기에 합당한 자는 남기고, 합당하지 못한 자는 하늘에서 내린 재앙에 파묻힌다.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고, 큰 산이 무너질 때 사람을 파묻을 것이다. 맹수가 굶주릴 때 사람을 통째로 삼켜 버리고, 바닷물이 세차게 불어날 때 사람을 수몰시킬 것이다. 세상에서 서로 잔인하게 죽일 때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난 재해로 인해 모두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특별 대우’다. 이후에도 그들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나라에 남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내 빛의 인도를 받아 어둠 세력의 압제를 깨뜨릴 것이고, 반드시 어둠 속에서도 빛의 인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등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할수록 사람은 더욱 자신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추구할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한다. 사람을 일정한 정도로 폭로하고 나면 하나님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축복하는 어조로 최고의 성과를 거둔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면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람은 모두 거래를 좋아하고 장사에 능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포착하여 말씀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님’(원문: 秦國)은 또 무엇을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원래 뜻에 따라 보면, 시님은 땅에서 사탄이 패괴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천사’의 집합이다. “흔들림 없이 굳셀 것이다.”라는 말은 천사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온 우주 아래에 ‘시님’을 세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님’의 본뜻은 땅에 있는 모든 천사의 집합이고, 여기에서는 ‘땅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땅에 있게 될 나라는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시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나라’는 땅에서는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본질은 ‘시님’이다. 그러므로 시님의 의미와 연결시켜야 “반드시 온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이 빛나게 할 것이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등급을 보게 된다. ‘시님’ 사람은 모두 왕이 된 사람으로서 땅에서 형벌을 다 받은 ‘만백성’을 다스린다. 땅 위는 모두 ‘시님’ 사람이 관리하므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그저 대체적인 윤곽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나라, 즉 시님에 남게 되며, 땅에 있는 사람은 천사와 서로 말이 통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천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며, 사람은 육안으로도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도 수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제20편

하나님은 전 인류를 창조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인간 세상의 고통도 알고, 인간 세상의 즐거움도 알기에 매일 전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연약함과 패괴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전부 다 무저갱에 처넣거나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서 법칙을 알아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즉시 ‘공홀’과 ‘자비’로 어조를 바꾼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홀’과 ‘자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또 바로 어조를 바꾼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생닭처럼 먹을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중복된 것이 없고, 한 번도 ‘어제’의 말씀 원칙에 따라 말씀한 것이 없다. 심지어 어조도 다르고, 말씀 내용도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니 사람은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성품의 발현이다. 말씀의 어조와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사탄을 미혹시켜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독을 탈’ 기회를 없애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행사가 기묘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벙벙해져 거의 자기 집 문도 못 찾을 정도가 되거나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침식을 잊어버리는 헌신’을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계속 사람에게

노하고, 몰아붙여 진심을 내놓게 한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느슨하게 한다면 사람은 바로 ‘순종’하여 게을러진다. 이것이 사람의 비천한 점이다. 달래면서는 갈 수 없고 ‘때리거나’ ‘끌고’ 가야 한다. “내가 본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곤장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른 사람의 부추김에 내 앞으로 온 자들이고, 전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거나 시간을 할애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나 리더의 사역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진작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역대 이래 사도와 선지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의 말씀에서 전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개괄하는 데 특별히 신경 썼다. “사람의 삶에는 열정과 인간다운 면이 조금도 없으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의 삶이 부질없고 가치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한을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 등의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이런 류에 속한다. 하나님이 왜 인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놓고 인간 세상의 삶의 공허함을 드러냈겠느냐? 더구나 왜 모든 사람의 일생을 “충충히 왔다가 충충히 떠나간다”라고 정리했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신성의 삶 이외의 모든 것을 혐오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전 인류를 창조했지만 전 인류의 ‘삶’을 참으로 마음에 들어 한 적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저 사탄의 패괴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인류를 멸하거나 구원하여 땅에서 공허하지 않은 삶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의 항목이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 안에는 늘 소망이 있다. 그런 까닭에 무고한 죽음을 ‘기꺼이 바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오직 말세의 이 사람들뿐이다. 현재의 사람은 여전히 만회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땅 아래로 내리누르면 사람은 즉시 공기가 부족해 생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내가 멸할까 심히 두려워 내게 크게 부르짖는다. 사람은 모두 내가 영광받는 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모든 사람의 상태이다. 모두 ‘진공’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산소’가 부족해 호흡 곤란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의식 안에 있는 ‘소망’을 이용해 전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모두 ‘출가하여 중이 되고’ 이로 인해 멸종하여 끝을 고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약속이 있었기에 사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이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 번째로 다가올까 봐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를 모른다. 인간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만, 용기 있게 죽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한을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인간 세상의 실제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좌절하여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실현’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집안의 갈등으로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애지중지하는 것’에 마음이 걸려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로 충격을 받아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죽으려니 달갑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갖가지 모습이다. 망망한 인간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속시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만 ‘때울’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술선수범’하여 죽었다가 다시 와서 살아 있는 자들에게 ‘죽는 것의 속시원함’을 ‘즐기는 법’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사람은 다 이렇게 천박하고 뻔뻔한 데다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사람들을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영들이 육신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영들이 땅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나라에서 복을 누릴 기회는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정해 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영들이 말세에 육신에서 살도록 안배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을 얻고자 이들을 ‘시님(원문: 秦國)’에 안배했다. 이들 영의 본질이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 안에 나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없단 말이나?”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실, 사람이 육으로 살 때는 영계의 일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이 간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나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이 간단한 말씀에 하나님의 복잡한 심리가 묻어난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진노와 심판에 따른 슬픔 속에 있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사람은 산속의 야만인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나의 곁으로 헤엄쳐 와 육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바닷물에 삼켜질 위험에서 벗어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리는 것으로, 대세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 사역의 완성의 표징이다.

하나님나라가 완전히 땅에 임할 때 모든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보좌에서 즐기며, 수많은 별 사이에서 생활한다. 천사는 나에게 새 노래와 춤을 바치며, 더 이상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에 눈물로 얼굴을 적시지 않는다. 내게 더는 천사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영광받는 날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날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교란으로 인해 분주하지 않고, 세상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며, 사람은 안식을 누리며 산다. 해, 달, 항성 등 하늘의 ‘별들’이 모두 바뀌고, 하늘과 땅의 산수도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도 변했으니 만물도 모두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최종 목적이자 최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 주요 목적은 사람에게 그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모른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고 안배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개입하길 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라 해도, 혹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 해도 모두 하나님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이길 바라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개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매우 조금이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히 예민한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 개입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불사름의 불길이 즉시 그 사람에게 임해 그를 불 속의 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멋대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은사자들은 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은사’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특히 증오하며,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사역에 쉽게 개입하는 데다 사람들에게 발각되지도 않는다. ‘은사’가 가려 주기 때문이다. 모든 은사자들은 역대 이래 굳게 선 적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항력이 없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 피와 살을 가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지만, 사탄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정욕 때문에, 또는 사랑 때문에, 혹은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사람 간의 비정상적인 관계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생기 넘치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지 죽음에 잠식당한 사체(死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나라의 보좌에 앉은 이상 온 땅의 사람을 지휘해 나의 검열을 받게 할 것이다.”와 같은 말씀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 위에 있을 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피와 살을 가진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치욕스러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충고한다. 즉,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에서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제21편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동물 세계의 동물처럼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서로 평범치 않은 왕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원숭이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서로 욕신각신한다. 그러기에 전체 인류가 보이는 모든 언행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 때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다.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재난의 위협 속에서 산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욕신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본질에 따라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 누가 멸망의 대상인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마지막 단계에서 점차 드러날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은 ‘변화’하고, 그 후에는 원래 모습이 드러난다. 알 속에 있는 것이 닭인지 오리인지는 껍질이 깨지면 분명히 드러난다. 껍질이 깨지는 때는 땅에서 재난이 끝나는 때이기도 하다. 여기서 ‘닭’인지 ‘오리’인지는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밝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 마음속의 계획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가련하고 빈곤한 인류야! 왜 나를 사랑하면서도 영의 뜻은 따르지 못하느냐?” 사람의 이런 상태 때문에 반드시 이런 ‘책망’을 거쳐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증오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선포했다. “온 인류의 패역자야! 너희는 반드시 나의 발아래에서 멸망하고 나의 형벌 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내가 대업을 이루는 날 인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패역자의 추한 물골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욕신으로 전 인류에게 말씀한다. 또한 영계에서, 즉 전 우주에서 사탄에게 말씀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6천 년 계획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 어떤 일은 반드시 그가 직접 하고, 직접 봐야 이루어진다. 사람의 상상처럼, 누워 있을 때 만사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상은 사탄이 사람의 내면을 교란하여 초래된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 면모를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자신의 실재를 숨김없이 나타낸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일부 설명은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입만 열면, 혹은 슬쩍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사탄을 단숨에 없애지 못하시는 겁니까?”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잘못된 말이고,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할 때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승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때로는 무력을 쓰고, 때로는 전술을 쓰며 직접 조금씩 무너뜨려야 하는 것과 같이 과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이 최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약소국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 싸우기도 전에 패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황당한 소리다. 강대국은 필승하고, 약소국은 필패하지만 강대국이 직접 약소국을 ‘점령’하는 과정을 거쳐야 강대국의 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이 그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측면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사람의 관념이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지 자신의 실재를 알게 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늘을 경건하게 경배한 적이 있음에도 “사람의 행위는 ‘하늘’을 조금도 감동시킨 적이 없다. 만약 내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면 인류는 모두 내 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달려서’ 상대할 마음도 거의 없고, 사람에게 어떤 희망도 품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은 이미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눈물범벅이 되도록 우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마음’을 내놓고 내게 있는 풍요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사람이 그렇게 ‘경건’해도 나는 사람의 ‘들끓는 열정’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함부로 주지는 않았다. 사람은 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면 사람은 즉각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단순히 겉으로만 알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본성을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이 우둔할수록 하나님의 풍자가 강해져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추한 ‘역’에 빠져들고, ‘연검(軟劍)’에 찔려 자신을 알아 가게 된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칭찬하고, 또 ‘모든 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늘 하나님이 사람을 비꼰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자꾸 떨린다. 이것은 사람의 양심에 불결한 곳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또, 울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VTR’에서 재생되고 있지만 그것을 끝 수 없기에 마지못해 ‘참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역자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큰 붉은 용 자손의 본성을 누가 모르겠느냐? 다들 앞에서는 양처럼 순종하고, 뒤에서는 늑대처럼 잔혹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말씀을 공급할 때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말을 영 안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공 기물처럼 아무렇게나 쓴 후 아무 때나 원래 있던 자리에 던져 버렸다.” 왜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드러내겠느냐? 이는 사람의 옛 성품이 늘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태산처럼 수억 수만 명 사람의 마음에 ‘우뚝 솟아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언젠가 ‘태산’도 ‘우공’에 의해 결국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시로 요구하고, 수시로 경고하고, 또 사람이 삶에서 드러내는 본성을 수시로 지적한다.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 나는 구름 속에 숨는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악인의 손아귀에서 부림을 당할 뿐 내 모습을 찾지 못한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가 거의 없다. 사람이 찾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악한 자의 손 아래에서 살고 악한 자의 지시대로 행한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은 보던 책(원문: 書面文)을 제쳐 놓을 때 바로 하나님을 책과 함께 ‘제쳐 놓는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일을 하며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또 책을 집어 들 때면 문득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사람의 ‘기억 없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높아진다. 말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역은 끝나고,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음성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끝내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원칙이다. 절정에 있을 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멈추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불필요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

제22편과 제23편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지, 왜 마음이 늘 자신을 저버리는지, 왜 원하는데도 이루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로 인해 모두가 또 한 번 죽고 싶을 정도의 비통함에 빠져 있지만 또 두렵기도 하니, 이 모순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의기소침할 뿐이다. 사람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몰래 날 버리신 건 아닐까? 어쩌면 다른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 하나님은 나만 깨우쳐 주시지 않나 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늘 방해가 있고,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는 걸까?’ 사람은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티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댔 뿐이다. 사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참뜻을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사람의 결함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 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역의 교접점(交接點)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빛 속에 살지만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빛의 본질도 모르고, 빛의 출처도 모르며, 빛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더 모른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대로라면 사람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의 육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중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을 자신의 상태에 견주어 스스로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기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나라가 실현되었을 때도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인솔해야 한다. 그저 사탄의 교란이 없어져 정상인의 삶을 살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목적인데, 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고유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본뜻에 의하면 ‘육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고, 영계의 일을 볼 수 없으며,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될 수 있으나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의 본질이다. 물론 이는 인류의 삶이 무질서로 인해 엉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할수록, 또 명확하게 말씀할수록 사람은 더 분명히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빛 속에서 살게 되면서 “빛으로 인해 성장하고, 빛으로 인해 어둠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자 예전에 늘 말했던 “죽음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사는 것”이다. 시남(원문: 秦國)이 땅에 실현될 때, 즉 하나님나라가 실현될 때,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근도, 전염병도, 지진도 없을 것이고, 사람은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모두 평온한 환경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상적인 왕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 천하는 대혼란에 빠져 있고, 각국 내부에서는 점차 정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람은 점점 변화되고, 각국 내부는 조금씩 와해된다. 견고하던 바벨론의 기반도 마치 공중누각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뜻이 바뀌면서 부지불식간에 세계에 크나큰 변화가 발생하고, 각종 조짐이 수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왔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의 사역 절차로, 반드시 열국을 사분오열시키고, 옛 소돔을 다시 한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기울어지고 있도다! 바벨론이 마비되고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다. 사람은 안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들은 현재 정세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그저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언젠가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올라 온 땅을 비추어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회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그것은 이전 형세를 만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바꾸기 위함임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이는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현재 최대 관건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에게 ‘지위’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실제 상태는 “내가 하나님나라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람은 나를 하나님나라의 왕으로 대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구세주’처럼 대한다. 그래서 내가 은덕을 베풀길 바랄 뿐 나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지금 관건은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모두 없애 사람이 아무 요구 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거지처럼 ‘간청’하고, 많은 사람이 ‘자루’를 가져와 내게 벌리며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대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 하는 사람의 ‘욕심’을 집어낸 것이다. 사람은 모두 굶주린 늑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활하고 탐욕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욕심’을 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거듭 요구한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도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모두가 때로는 자신에게 기대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대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진실한 사랑과 믿음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천사는 언제나 아들과 백성들 사이를 오간다. 천사는 천상과 지상을 분주히 오가고, 매일 영계로 돌아갔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이것은 그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아들과 백성들은 매일 목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점차 변화한다. 하나님이 형상을 바꾸는 날이 오면 천사도 땅에서의 사역을 정식으로 끝내고 천계(天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모든 아들과 백성들은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람은 변화하고, 아들과 백성들은 날로 성숙해지고 있다. 대조적으로 모든 ‘패역자’ 역시 큰 붉은 용 앞에서 변화하고 있다. 사람은 더 이상 큰 붉은 용에게 충성하지 않으며, 귀신은 더 이상 큰 붉은 용의 안배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신을 위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땅의 나라가 어찌 멸망하지 않겠느냐? 땅의 나라가 어찌 무너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하늘이 삼시간에 내려앉았다.... 인류의 결말을 예시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여기에서 예시한 각종 불길한 조짐이 바로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의 예시이다. 지금 사람은 머지않아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 같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또 벗어날 방법이 없기에 모두 실망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나는 매일 하나님나라의 ‘안방’을 꾸민다. 이제껏 내 ‘작업실’에 갑자기 뛰어들어 와 내 사역을 방해한 자는 없었다.”라고 말씀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 전 우주 아래에서 다음 사역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움직임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내 ‘작업실’에 갑자기 뛰어들어 와 내 사역을 방해한 자는 없었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성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 해도 끼어들 수는 없다. 한번 물어보겠다. 네가 전 우주의 모습을 꾸밀 수 있겠느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선조’를 거역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전 우주의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게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멋대로 날뛰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세상의 쓸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과거에 사탄이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할 때마다 방해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 사탄은 하찮은 재주마져 이미 바닥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스스로 실체를 드러내게 하여 모든 사람이 사탄을 알게 했다. 이것이 “내 사역을 방해한 자는 없었다”는 말의 실제 사정이다.

교회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매일 ‘수술대’ 위에서 해부 사역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사람은 ‘실직’, ‘해고’,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버림’, ‘감정’이 없다 등과 같은 풍자적 표현에 ‘들볶여’ 말도 못 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했다.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부터 밖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했겠느냐? 일부러 사람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얼굴에 찌어 내지 못할 진흙을 묻히고 있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기범’처럼 매일 죄상을 털어놓고 있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파괴되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은 온몸 구석구석, 심지어 골수까지 사탄의 독소로 꽉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밝힐수록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사람 몸에서 사탄을 인식하고 사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사탄을 볼 수 없는 데다 모든 것이 실제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 즉 사탄의 형상을 폭로하여 사람에게 실제 사탄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육신에서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또 사탄을 형상화하여 사람이 모든 사람의 몸에서 실제 사탄을 알게 한다. 앞서 언급한 각종 상태는 사탄 행위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의 원수는 합할 수 없고 서로 적대적인, 서로 다른 ‘세력’이다. 따라서 마귀는 결국 마귀이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인 것이다. 물과 불이 합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한 부류는 천사의 영이었다. 또한 부류는 영이 없어 마귀의 영에 점령되었기에 이 부류를 마귀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천사는 결국 천사이고, 마귀는 결국 마귀이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리켜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고 한다. 그래서 천사가 땅에서 왕이 되어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거처로 돌아가고,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원수는 잿더미로 변한다. 사실,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근원은 다 그 본질에 있다. 천사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무저갱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마귀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들의 본질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기회를 틈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안배해 놓은 것이다. “나는 비바람 속을 걸었고, 또한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해를 보내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것이 내 경륜의 절차 아니겠느냐? 누가 내 계획에 한 획이라도 더한 적이 있더냐? 누가 내가 계획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체험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유로 사람에게 뭔가 감추지 않으며, 오히려 실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나 또한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해를 보냈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에서 수많은 해를 보내면서 온갖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육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육신에서 신성으로 사역할 수 있고, 또 모든 비밀을 밝힌 후에야 형상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초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이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 마디 한 마디 분명히 이해해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사명이다!

제24편과 제25편

이들간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그 이들간의 말씀은 하루에 해야 할 말씀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량을 이틀로 나누어 말씀했다. 즉, 그 이들간의 말씀은 하나의 총체적인 말씀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틀로 나누어 말씀함으로 사람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었다.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본분을 이행한다. 천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도 ‘협력’하고 있고, 모든 사탄의 영 또한 ‘협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볼 수 있는데, “나의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또 모든 사람을 멸찍이 피해 가기도 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삶 속에 나에 대한 사랑과 증오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형벌로 모든 사람을 위협하여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에, 또 천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형벌’할 뿐 결코 행정 법령으로 형벌하지는 않는다. 이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천사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천사 이외의 사람 역시 각 부류대로 나뉘는데, 사탄에게 속한 온갖 악령은 모두 형벌을 받고, 영이 없는 사람은 모두 아들과 백성들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기에 일찍이 하나님은 “설마 나의 날이 왔을 때가 사람이 죽을 때라는 말이나? 하나님나라가 모습을 갖췄을 때 설마 내가 사람을 몰살시키겠느냐?”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전 인류의 결말을 드러내는 말이다. 하나님이 올 때가 바로 ‘전 우주의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때이다. 하나님이 만인 앞에 나타나는 목적이 바로 형벌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임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자 땅의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땅에 임했을 때, 칠혹 같은 어둠이 땅을 뒤덮고 있었으며, 사람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겉핥기 식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이 고통의 연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연단에서 벗어날 때가 바로 형벌받기 시작할 때이며, 또한 하나님이 만인 앞에 나타나 사람에게 직접 보여 줄 때이다. ‘성육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은 이미 재난에 빠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이 큰 붉은 용에게 내린 징벌이자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하늘 아래 녹색 물결이 펼쳐질 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모든 사람과 사물은 점차 하나님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가 되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에서 사역하지도, 땅에서 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설마 육적인 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단 말이나? 어떤 사물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부모겠느냐? 남편이겠느냐? 아내겠느냐? 자매겠느냐? 고통의 연단이겠느냐? 양심의 느낌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 버릴 수 있단 말이나? 사람이 사람에게 빚지는 일,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나? 사람이 메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나?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단 말이나? 누가 삶의 강자냐? 누가 ‘나’를 떠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듭 자아 반성 하라고 했겠느냐? 왜 하나님이 “누구의 ‘고충’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더냐”라고 했겠느냐?

지금 온 우주 아래는 칠혹 같은 밤에 빠져 있고, 사람은 무감각하고 우둔하다. 하지만 시젯바늘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지구, 태양, 달의 운행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사람은 그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자기 최후의 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긴다. 사람은 자신의 ‘죽을 때’를 위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죽음’의 날에 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헛산 것이 될 테니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는 것은 각국의 내정을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정변이 일어난다. 이로써 온 우주의 사람을 동원시켜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곳이 바로 시범지이다. 내부는 이미 와해되고, 내정은 심히 혼란스러우며, 다들 자기방어를 하며 ‘달나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자신이 빚은 쓴잔을 자신이 마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란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땅을 떠나는 때이다.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나라에 ‘체류’하지 않고, 즉각 땅에서의 사역을 끝낼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니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투에서 하나님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말을 전부 말했지만 다른 것은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나는 사람에게 작지 않은 권병을 주어 산속의 초목, 숲속의 동물, 수중의 물고기 등 지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만물의 주인으로 예정했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에 사람과 금수의 구분이 없고, 산과 물이 어지럽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일생은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분주하며, 또 공허와 기쁨이 뒤섞여 있다.”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사람의 삶이 무의미하고, 또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과도 어긋난다. 그래서 온 세상이 혼탁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제야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준 권병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정식으로 만물 앞에 주인으로 나타나며, 또한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기에는 한참 멀었다.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서 ‘부당 이익을 챙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내가 사람에게 한 일들이 모두 사람에게 무익했다는 말이나?” 등등 일련의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물으니 일부 사람은 서지 못했다.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것이 공허하다. 그렇기에 이들을 비롯해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의 사람들은 모두 땅의 공허함을 알고 나를 찾으며,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재림하여 공허한 옛 시대를 끝내 주길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재앙에 빠질까 두려워한다. 온 종교계는 곧 황폐해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실체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막막하다고 느낀다. 각 분야의 인사도 흩어지고, 각 나라와 각 교파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결국 모든 것이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고,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고, 사람도 원래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향해 수없이 ‘부르짖었거늘’ 내게 자비심을 베푸는 자가 누가 있느냐? 과연 인간성을 갖추고 사는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람은 비록 육체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성’이 전혀 없다. 설마 동물의 왕국에서 태어나기라도 했단 말이나?”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이다.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자 말세 사역에서 얻고자 하는 성과이다. 하나님이 갈수록 사람의 본질을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곧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출수록 사람은 갈피를 못 잡고 더 헤매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말세에 한 일에 더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도 경계하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다.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을수록 신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날은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제26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앞에 닥친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인 것 같기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본 모든 이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또한, 가랑비가 내리고 낙엽이 날리는 것처럼 세상이 다소 쓸쓸하게 느껴졌다.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기라도 한 듯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모두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모든 이가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길한 느낌이 든다. 오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공표되고 온 우주에 공표된다면 모든 이가 앞드려 한바탕 통곡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나는 온 땅을 감찰할 것이며, 공의, 위엄, 진노, 형벌로 세상의 동쪽에 나타나 만민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형벌의 고통을 거쳐 각기 부류대로 나누어질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절차이며,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인도할 때는 그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시대를 끝낼 때에야 사람에게 그의 참된 공의, 위엄, 진노, 형벌을 보게 한다. 또한, 반드시 형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 위엄, 진노를 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세에 반드시 성육신해야 하는 것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결말을 알린 후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사역을 사람에게 모두 드러낸다. 일례로 “지난날의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세상 위에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섰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 백성으로 인해 생존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이다!”, “가증스러운 애굽아! … 어찌 나의 형벌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란 말씀을 하였다. 하나님은 대립되는 두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얻게 된 결과를 일부러 사람에게 드러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선민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 변화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때 모든 선민들도 온전케 된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상징이다. 이에 반해 애굽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집결지이다. 애굽이 몰락할수록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들은 더욱 패괴된다.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결말을 알림으로써 모든 이의 종착지를 드러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애굽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애굽이 몰락하는 날이 곧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만민을 형벌하는

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머지않아 발생할 일이고, 하나님이 곧 이를 일이다.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지만 이 역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나에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소행을 쉬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했겠느냐? 게다가 하나님은 왜 친히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성육신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형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상인의 모습으로 육신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이 주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상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기에 그의 육신을 본 모든 이를 다 형벌받는 대상에 포함시켜 큰 붉은 용의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주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주된 이유는 육신으로 큰 붉은 용과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 그것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다. 영으로 싸우는 것보다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싸우는 방식으로써 그의 행사와 전능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성육신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어 형벌을 받게 하고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게 했는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든,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한 번으로 영원히 사람을 정죄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성품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일관적이지 않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몹시 증오하다가도 또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낸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하나님은 왜 “천사는 결국 천사이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며, 마귀는 결국 마귀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했겠느냐? 아직도 모르겠다는 말이나? 설마 하나님이 잘못 기억하고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끝없이 넓은 세계’가 아닌 자신들의 ‘종족’에 따라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역시 더 이상 공동으로 생활하며 한술밥을 먹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졌던 원래의 계획으로,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눈 후

‘각자 자신의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완전히 변화시켜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행하는 목적으로,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끝마치려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누가 바꿀 수 있단 말이나? 설마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단 말이나?

과거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의 법칙을 찾아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아주 빨리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거짓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형벌하고, 행정 법령을 반포할 것이라고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과거에 모든 이에게 반포한 헌법은 그들의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근원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예정 여부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행정 법령은 특별하다. 이는 “모든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비로소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를 경계하지 않는 것이다. 온 우주에 공표하는 행정 법령을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냐? 설마 이들이 온 우주의 사람을 대표하기라도 한단 말이나? 하나님이 뒤늦게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었던 말이나? 이들의 목숨이 두 개라도 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사람을 형벌할 때, 즉 온갖 재난이 닥칠 때,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에 변화가 생긴다. 재난이 종식될 때 해와 달도 변하게 되는데 이를 ‘과도기’라고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올 재난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낮과 밤이 바뀌거나, 일 년 내내 해를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몇 달 동안 계속 땡볕이 내리쬘거나, 그믐달이 줄곧 온 인류를 ‘향해’ 있다든지,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몇 차례의 주기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에 따라 새롭게 변하게 된다. 하나님은 마귀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안배하는 것을 특히 중시한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마귀에 속하는 자는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이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봉사’하도록 이용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상관하지 않는다. 잘한다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냉대’할 뿐, 이들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처럼, ‘바닷물과 바위가 마르고 닳아도 변치 않으리라’는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본질은 언제 어디서든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분류하기만 하고, ‘쉽사리’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품행이 좋았던 적이 없다. 줄곧 교란하고 방해하며 불복했다. 하나님이 일하거나 말씀할 때마다 계속 끼어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마귀 얘기만 나오면 치솟는 노기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영은 본래 하나가 아니므로 서로 통하지 않으며, 떨어져 있고 엇갈려 있다.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땅의 상태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만물은 ‘일곱 인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사람은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백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고, 모든 사람의 열의에 불을 지피기 위해, 더욱이 정점에 있을 때 사역을 끝내기 위해 사람의 뱃 속에 ‘기를 넣어 주려는’ 듯 일련의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로써 모든 이를 풍요롭게 한다. 이들은 실제 분량이 없기에 실제 상황을 따른다. ‘기를 받은’ 자는 ‘우량품’이고, 받지 못한 자는 쓸모없는 불량품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이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의 목적이다. 특히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냐? 하늘의 나는 땅에 올 수 없단 말이냐? 땅의 나는 하늘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말이냐?”라는 이 몇 가지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닿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듭해서 조건을 추가하여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있으나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깨운다.

“사람은 모두 내 말에 노력을 쏟으며, 나의 겉모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오히려 내 말에 의해 격추되어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한 일과 관련하여 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성과를 얻지 못할 때 자신을 부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지배에 맡긴다’. 그리하여 조금씩 진심을 드러낼 때 각기 부류대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천사’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도 원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단계에 이를 때 그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다. 하나님은 아들과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모든 이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신경 쓴다. 이 말의 참뜻을 알겠느냐?

제27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절정에 도달해 있다. 즉, 심판 시대의 두 번째 단계가 이미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최고 절정은 아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었다. 풍자나 유머가 담기지 않았고 때리거나 꾸짖지도 않았으며, 어조가 부드러웠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옛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심판 시대의 사역을 계속하는 한편 다음 단계 사역의 길을 열어 나감으로써 모든 사역을 서로 이어 놓는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옛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고질병이 도진다’고 말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사람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했다. 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조금은 마음이 동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주요 목적은 최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쓰러뜨린 후 “나는 나의 행사를 나타내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실패 속에서 나를 알게 하는” 것이다. 현 단계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 뿐이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 행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쯤에야 사람은 하나님의 최저 기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붉은 용에 의해 극도로 파괴된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식이며, 반드시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많은 교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차이가 아니란 말이나? 하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지 않으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한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라면 말씀을 끝낸 때가 하나님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때이다. 하지만 이번 사역은 예전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이 형상을 바꿀 때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사탄의 모든 참소와 적대 세력의 모든 방해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역한다. 또한 이때 땅의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비록 예전에 형상을 바꿀 때의 전조(前兆)를 말씀한 적이 있지만,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이 일을 망각하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안팎의 협공, 그리고 외부의 재난과 하나님 말씀의 불사름과 정결케 함으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애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의 ‘업무’로 인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예전의 인식과 추구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을 똑똑히 알게 될 때, 사람은 모두 실패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게 된다. 그때서야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사람이 생존하는 근본이 된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해진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고질병이 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물음표가 많다. “왜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느냐? 왜 사람은 흠탕물이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늘 늪지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 어째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묻겠느냐? 예전에 하나님은 직접 지적하고 폭로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였으나, 사람이 크나큰 상처를 입은 뒤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질문에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한편 실행의 길을 찾게 된다. 사람은 차려 준 밥을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대로 말씀하고, 사람에게 묵상할 만한 화제를 제공하여 묵상하게 한다. 이것이 질문하는 하나의 의미인 것이다. 물론, 일부 질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내가 사람을 잘못 대했던 말이나? 내가 길을 잘못 가리켜 주었던 말이나? 내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기라도 한단 말이나?”와 같은 질문이 바로 그렇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의 관념을 명확히 지적한다. 사람은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옳은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다고 여긴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열국도 산산이 부숴 버릴 것이거늘 하물며 사람의 가정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열국은 이로 인해 흔들리며 사람의 심리는 점차 변한다. 가정에는 부자, 모녀, 부부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진다. ‘큰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가정생활은 관행이 깨진다. 그리하여 사람 마음속의 가정 관념은 갈수록 희미해진다.

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사람과 옛정을 나누었겠느냐? 물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근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 때 누가 마음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기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종하며 절제함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 사람은 너무나도 비천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지금까지도 빠져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이리의 아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것의 위협과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였다. 사람이 육체에서 사는 것은 굶주린 이리의 아가리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늘 자신과 타협하며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일깨울수록, 사람은 마음이 더욱 편안하고, 더욱 하나님과 접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간격과 거리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온 인류는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느라 줄곧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가 나타날 때 동방이 밝게 비춰진다. 그 후 온 우주를 밝게 비추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였다. 즉, 하나님이 형상을 바꾼 뒤에 동방이 먼저 밝게 비춰지고 동방의 나라가 먼저 바뀐다, 그 후 남에서 북의 경로를 따라 새롭게 바뀐다. 이것이 순서이며,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순서에 따라 사역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날을 보게 될 때 모두가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통해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를 통곡하고 눈물 흘리게 하며 마음에 이내 그늘이 드리워지게 한다. 그로부터 모든 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매우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며, 땅에서의 하나님 사역이 완성할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이것이 대세의 흐름이다. “내 마음속의 노여움이 솟구치면 근심과 슬픔도 급격히 커진다. 사람의 행위와 언행이 내 눈에 불결하게 보일 때 나는 분노가 저절로 생겨난다. 마음에는 인간 세상의 불공평함이 한층 더 느껴져 더욱 슬퍼지고, 당장 사람의 육체를 끝장내고 싶어진다. 왜 사람은 육체 속에서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 설마 육체의 ‘기능’이 이렇게 크단 말이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사람에게 똑똑하게 보여 주었다. 셋째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땅의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천사가 악기를 연주하며 나를 찬양할 때,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일면서 내 마음은 순간 매우 슬퍼지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또 “나는 세상의 불공평을 없애고, 온 땅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역을 하여 사탄이 다시는 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원수가 다시는 제멋대로 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땅에서 왕이 될 것이고, 나의 보좌를 땅으로 ‘ 옮겨 와서 ’ 원수가 내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슬픔으로 인해 마귀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졌다. 그래서 미리 마귀의 결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줄곧 백성과 함께 모여 낡은 시대를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동요하기 시작한다. 즉,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은 제왕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래지 않아 세상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각 나라 지도자는 모두 사방으로 달아나지만 결국에는 자기 백성에 의해 단두대에 오르게 된다. 이것이 마왕의 최후 결말이다. 결국,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고 관문을 넘어야 한다. 오늘날, ‘현명한’ 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고 이 기회에 손을 떼고 그만둠으로써 재난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을 형벌하는 것이다. 설마 이들이라고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시작이지만 때가 되면 온 우주 아래가 전란으로 어수선해질 것이다. 땅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지도자가 없고, 온 땅은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흩어진 모래알같이 된다. 사람은 모두 자기 생명만 소중히 여기고 그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뜻대로 각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사의 나팔 소리’는 예시이며, 사람에게 울리는 경종이다. 나팔 소리가 다시 울릴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래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형벌이 조금도 남김없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자비한 심판이며, 형벌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여 각종 상황을 헤쳐 나가고, 천사도 그들에게 나타나 몇 달 안에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들은 큰 붉은 용의 독소를 벗어 버리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인도 아래 수월하게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 온 우주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때가 왔도다! 나는 나의 사역을 펼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오직 ‘하늘에서’만 ‘왕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땅에서 왕이 되어 권병을 모두 거두어들였다. 따라서 온 인류에게 더 이상 인류의 정상적인 삶이 없으리라는 것을 예시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주 사람에게 “때가 왔도다”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라로 돌아오는 날,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진다. 어느덧 온 우주 아래의 사람이 반항하게 되고, 온 우주 아래의 각 나라가 하늘의 별들처럼 추락하여 순식간에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한 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제28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이번 사역 방식을 더욱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돌아서게 된다. 모든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다. 또한, 하나님이 계속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의 모든 말을 먹고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 사람의 분량은 내 뜻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사람의 간청은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효과를 보게 된다. 나는 인류가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간청’할 때에 축복한다.”와 같은 말씀을 적잖이 하였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표면적인 뜻만 이해할 수 있을 뿐 완전히 소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추구할 목표를 주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경솔하지 않고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야 사람에게 추구할 믿음이 생긴다.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본성을 상대로 말씀한다. 지금 대다수가 간청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지 ‘진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 또한 다음의 말씀과 같다. “사람은 내 입을 ‘화수분’으로 여긴다. 사람은 내 입에서 국가 기밀이든, 하늘의 신비든, 영계의 움직임이든, 인류의 종착지든 뭔가를 얻길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 공급을 얻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내면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 ‘영양 보충’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정신적 지주’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관념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소극적인 상태에 빠졌다. 또 사람의 눈이 너무 ‘봉건적’이라서 말할 때나 일할 때 힘이 없고 무슨 일이나 건성으로 대충 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빨리 만회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갈 셈이냐? 앞으로의 일을 안다고 한들 사람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일부 말씀을 보고 ‘반응’을 보이지만, 나머지 말씀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나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람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모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모두가 ‘약’의 작용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은 왜 사람에게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한 것이 바로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은 할 일이 있는데 사람은 왜 행할 길이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아니냐? 사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너희는 정말로 큰 붉은 용을 증오하느냐?”라는 말씀

속의 ‘큰 붉은 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했느냐?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듯 여러 차례 묻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사람이 아직도 큰 붉은 용의 본성을 모르고 깊이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어찌 할 일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어디 있겠느냐? 설마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건성으로 한 것이겠느냐? 그러면 큰 붉은 용이 실패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일을 시작했고, 큰 붉은 용이 사는 곳에서 형벌의 시작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신성으로 하는 사역을 두고 한 말씀이다. 오늘날의 사람이 앞서 형벌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은 시작 단계 사역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모두가 재앙의 형벌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형벌을 겪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투를 바꾸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며 그 후 모두 형벌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형벌을 겪고 나면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온 땅에서 나를 영원토록 찬미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 절차이자 하나님의 계획이다. 게다가 백성들은 큰 붉은 용을 형벌하는 수단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바깥세상에도 정식으로 재난이 시작된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 ‘내부’에서는 사람이 형벌을 받고, ‘외부’에는 재난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형벌을 받을지언정 재앙은 피하고 싶어 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정도로 진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나를 누릴 때가 큰 붉은 용이 ‘형벌받을’ 때이다. 큰 붉은 용의 민중이 일어나 그것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으로, 이는 내가 백성을 온전케 하는 방식이자 모든 백성의 생명이 자랄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왜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냐?

각국 정세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하나님의 채찍이 땅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땅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물은 포효하고, 산은 무너지고, 강은 붕괴된다’는 것은 땅에서 채찍질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땅의 가정은 모두 ‘파탄’ 되고, 땅의 나라는 ‘분열’ 되며,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을 것이다. 땅의 모든 옛 모습은 나에 의해 깨질 것이다.” 이는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상황이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말씀의 형벌을 받고, 이방인이 재난을 겪은 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 관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는 시님(원문: 秦國) 사람이 될 것임을 예시한다. 그러기에 더 이상 ‘부부가 함께 모이는’ 날도, ‘모자가 재회하는’ 때도,

‘부녀가 만나는’ 시간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사역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로 이 사역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참에 ‘감정’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사람에게 ‘밝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는 하나님이 형벌로 전 인류의 모든 ‘가정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땅에서 마지막 부분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인류의 최대 약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사람은 모두 ‘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다. 왜 감정을 떨쳐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양심의 기준보다 높단 말이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감정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감정은 하나님의 원수다. 설마 하나님이 이를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나?

제29편

사람이 하는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지만 일부는 하나님이 명확히 지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오늘날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전히 많은 일이 숨겨진 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은 공개해야 하고, 어떤 부분의 일은 사람이 잘 모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온 일이 그렇다. 하나님이 어떻게 왔는지, 어느 순간에 왔는지, 혹은 왔을 때 천지 만물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의 일은 사람이 잘 몰라야 한다. 이것 역시 실제 상황에 근거해 말씀한 것이다. 사람의 육이 영계와 직접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왔다고 명확히 말씀해 주거나 “만물이 소생할 때 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날을 보냈다.”라고 해도, 나무에 대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다. 설사 사람이 정말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신선처럼 하늘에서 날아와 인간 세상에서 환골탈태했다는 식으로 상상할 뿐이다. 사람의 사유로는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고, 영계의 실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질만 봐도 사람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은 본래 다른 것이 없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에게 본받으라고 하거나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일은 수포가 되고,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와 어떠함을 조금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사역에서 나타낸 것, 즉 하나님의 본래 면모,

신성을 두고 한 말로, 주로 신성한 성품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역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이루려 하는지,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지 등과 같은 일을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자랑할 만한 점, 즉 사람에게에는 본받을 만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육신이 매우 평범하고, 육신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인간 세상에 온 지 오래되었지만, 사람은 계속 알아차리지 못했고, 계속 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 “내가 우주 땅끝을 두루 밟을 때 사람은 반성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앞드려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광받는 날이요, 내가 돌아오는 날이요, 또한 내가 떠나가는 날이다.”라고 했다.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본래 면모가 사람 앞에 나타나는 날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때문에 사역을 지체하지 않았으며, 그저 해야 할 사역을 계속했다. 그리고 심판할 때는 사람이 육신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죄했다. 이는 하나님이 현 단계에서 하는 말씀의 골자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내 경륜의 마지막 부분을 전개했다. 만약 또다시 경솔하게 구는 자가 있다면 언제든 ‘무자비한 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놀랍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이 모든 것이 사역의 절차인 것이다. 한편, 외국의 백성과 아들들은 교회에서 한 행위에 근거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사역함과 동시에 모든 천사도 나와 같이 ‘결전’을 벌이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천사처럼 내 앞으로 돌아와 순종하고, 내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않고, 나를 배반할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 우주 사역의 동태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온 땅에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차이점으로,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한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은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나뭇가지가 말라비틀어지고 낙엽이 지며 가을바람에 황토 먼지가 흩날리는 처량한 광경을 또 한 번 본 것만 같다. 또한 사람에게 곧 대재앙이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곧 황무지로 변할 것만 같다. 영이 예민한 건지 마음이 늘 언짢다. 조금 편만한 기분이 들다가도 이내 또 슬픔이 섞인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은 모두 깨어나고 있고, 땅의 모든 것이 준비를 마쳤으며, 더 이상 땅의 ‘생존’의 날은 없다. 내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소극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흥이 깨질 수도 있고, 영적인 느낌을

몹시 중시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 바보처럼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느낌을 중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임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중시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진 지위, 네가 처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안배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고난을 받든 복을 누리든 어찌 하나님의 손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것인데 누가 이로 인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형벌의 방식으로 이방에서 내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즉, ‘무력’으로 모든 이방인을 대할 것이다. 물론 이 사역은 선민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과 함께 진행된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온 우주 아래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는 하나님 사역의 절차로, 사역은 벌써 이 정도까지 진전됐으며,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난으로 일부 사람을 처리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온 우주를 형벌할 때 하나님이 정식으로 만민 앞에 나타나고, 그 나타남으로 인해 사람을 형벌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칠 때가 바로 온 우주의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이고, 온 천하의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일곱 인의 내용이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곱 인 안에는 재난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일곱 인을 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시련은 사람이 받는 형벌을 말한다. 형벌로 한 무리 사람을 얻어 정식으로 하나님이 주는 ‘합격증’을 받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과 백성의 유래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앞으로의 체험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 만약 참된 생명이 있다면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생명이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람에게 성과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말세에 해야 할 사역이고,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지 이어 나가는 사역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즉,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생활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상 유례없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나의 날이 이미 전 인류에게 다가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성 몇 개를 멸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처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과거에 소돔을 멸망시킨 적이 있지만, 오늘날의 소돔은 과거처럼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먼저 정복하여 심판한 후, 마지막에 영원한 별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사역의 순서로, 마지막에는 지난날 세상을 멸했던 절차에 따라 오늘날의 소돔을 멸해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은 본격적으로 소돔을 정죄하는 날이지, 나타남의 방식으로 그것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고,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감춘다.”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의 소돔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곳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형벌하는 것이다. 아직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느냐? 땅에는 하나님의 본래 면모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대체 하늘의 어느 층에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기에 사람은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그것은 필시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는 때이자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오늘날 신성으로 하는 말씀을 직접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인류의 말일이 이미 도래하여 더는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예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인 앞에 나타날 때 사람이 받을 ‘시련’의 전조(前兆)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기는 하나 늘 대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지금 사람은 흑한 속의 참새와 같아, 빛 독촉하듯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듯하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빛을 졌기 때문에 자신의 말일이 이미 왔음을 느낀다. 이것이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심리는 내 눈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실제 상태이다. 어쩌면 약간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적절한 어휘 자체가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의 말씀이든, 오늘날의 말씀이든 모두 사실로 이루어져 사람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모두 눈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느냐?

제30편

하나님 말씀에서 요체를 조금 파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도 자신의 느낌을 믿지 못하며, 모두 소극적인 상태에 빠질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계속 희비가 교차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근심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모든 사람이 날마다 삶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커다란 세 개의 산에 머리가 내리눌린 것처럼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온종일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정도 기뻐한다 해도 겉모습만 그럴 뿐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한 듯한 느낌에 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의

공허함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시간이 없거나 먹고 마실 줄 모르는 것이다. 아무도 평안하고 밝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늘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로 인해 사람의 삶은 항상 흐리멍덩하다. 하나님은 늘 사람의 연약한 점을 겨냥해 말씀하고 사람의 급소를 찌른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어조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말이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산소가 없는 ‘달’에서 살게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본성을 들추어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 사람의 본질을 들추어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조와 깊이를 더한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사람은 부지중에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높디높은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하는 목적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쓰러뜨려’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역의 절차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큰 붉은 용을 정복한다고 생각한다. 즉, 교회에 열기가 넘치게 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념이 없어지게 하거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보자. “사람은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니 쉽게 접촉할 수 없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니 함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그로 인해 사람은 늘 내 앞에서 겸손하고 인내할 뿐 나와 합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관념이 너무 많은 탓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본질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지옥의 자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를 발하거나 직접 사람을 정죄하거나 마지막에 사형을 판결하여 경영 전체를 끝마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차분히 사람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뿐이다. 마치 한가한 시간에 점사점사 사역을 끝마칠 수 있어서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겉보기에는 사역이 조금 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과거의 사역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사람 수를 늘리거나 사람을 제거하거나 드러내는 사역은 너무 자질구레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는 그저 해야 할 말씀만 하고는 몸을 돌려 훌쩍 사라져

버린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끝냈을 때의 장면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꿈속에서 ‘동분서주’했고 꿈속에서 목 놓아 외치기도 했지만, 마음속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없기에 “마음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나면 사실의 진상을 보고 “알고 보니 그랬구나!”라며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다. 하나님나라의 축가가 울려 퍼지자 그제서야 몽롱한 눈을 뜨지만 마음에는 약간의 우울함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영은 해방된 적이 없고 후련함을 느낀 적도 없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이 철저히 완성될 때 모두 ‘해방’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치 멀리 항해를 나갔다가도 언제든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이 모두 자기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인간 세상의 불공평함도 느끼지 않으며,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전 인류의 상태가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사탄에게 묶여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육신에서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의 여러 가지 실제 상태는 일단 차치하고, 하나님이 아직 사람에게 밝히지 않은 비밀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눈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마치 내 몸에 가시가 잔뜩 돌아 혐오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에 가시가 잔뜩 돌아나 있는 불품없는 사람의 본모습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사람은 그저 온몸에 가시가 뾰뾰이 돌아난 불품없는 고슴도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형화한 말로, 사람의 모습에 고착제를 뿌린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사람의 모습이 가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우주 아래에 우뚝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사람과의 일전을 준비했다. ‘대수학 대학교수’가 사람들에게 사실을 열거해 보여 주듯 예증, 반증 등 온갖 사실적 증명으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감복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담담히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진 것이다. “한 마디로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한 푼 값어치도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가정용품’인 것이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을 느끼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푼 값어치도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의 ‘실제 상태’를 연결시켜 스스로를 정죄했다. 이것이 바로 실상 아니겠느냐? 너에게 자신을 인식하라고 한들 네 입에서 “정말 죽어 마땅해!”라는 말이 튀어나오겠느냐?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실상이니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그저 아주 적절한 실례 중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해하고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말했을 때,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품자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기를 기다렸던 자신의 패역을 깨달았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을 겨냥해 ‘하나님’이 사람의 처세술과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로써 사람이 이 말씀을 실제 하나님과 대조해 보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즉 그것이 사람에게 대한 품자임을 깨닫게 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실상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모습을 폭로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의 원래 의미에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품자, 조롱, 조소, 증오가 일관되게 담겨 있다. 마치 사람의 모든 행위가 뇌물을 받아 법을 어기는 짓이고 사람이 음녀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할 때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자신의 실상이 모두 폭로되어 다른 사람을 볼 낮이 없어질까 봐 매우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말씀을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할수록 하나님은 따가운 눈빛으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사람이 저지른 추악한 일들을 터놓고 모조리 말씀한다. 이것이야말로 공평무사함이고 청렴함이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방식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돌연 심장이 발작하고 혈압이 올라간다. 협심증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뇌출혈’이 일어나 당장이라도 저세상으로 가서 조상을 만날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의 반응이다. 사람은 모두 오랫동안 고생한 환자들로, 온몸 구석구석 병에 걸려 있다. 심장부터 시작해 심장과 통하는 모든 혈관, 대장, 소장, 위, 폐, 신장 등이 전부 병에 걸려서 전신에 건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할 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정도까지 사역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온몸이 병균투성이고 또한 연로하여 죽을 날이 이미 가까워졌으며, 이는 전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상태에 대해 말한 것일 뿐,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사람의 병의 근원을 찾는 중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될 때는 땅에서 하는 사역이 완성될 때가 아니다. 이 단계의 사역이 완성되면 이후의 사역은 육신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칠 때가 바로 온 우주의 사람이 형벌을 받을 때이고, 내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이며, 온 천하의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육신에서 사역을 끝마칠 때는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가 아니다. 이때의 ‘절정’은 이 단계의 사역을 놓고 말한 것일 뿐, 전체 경륜의 절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높지 않다. 그저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하여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해 기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일이 달라짐에 따라 소속 ‘직장’도 달라진다. 지금은 땅에서 사역하는 단계이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일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므로 ‘중앙’으로 옮겨 일해야 한다. 해외를 방문한다면 출국 수속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때는 고향을 떠나 외국에 가게 되겠지만 그것도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겁니다.”라는 사람의 말처럼, 이것이 바로 앞으로 가야 할 길 아니겠느냐? 일찍이 누가 이런 삶을 누렸더냐? 각지를 두루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외를 방문’할 수도 있으며, 시골로 내려가 지도하고 대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고위 기관 사람들과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수도 있다. 필요할 때는 직접 지옥의 삶을 맛볼 수도 있고, 그 후에는 다시 돌아와 하늘의 복을 누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냐? 각국을 두루 돌아다닌 사람이 있더냐? 사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조금은 알 수 있다. 단지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지연되게 만든 것이다.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기에 지금의 사역이 사람에게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자연히 사람의 속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느냐? 설마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말이나? 모든 말씀에는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할 때 다른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화처럼 함축된 의미가 아주 깊다. 간단한 말씀에도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문제를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함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점 아니겠느냐?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31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주요 맥락은 전 인류의 패역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 인류의 불순종, 불복, 불공정,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사람의 모공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분이 가득 차 있고, 모세 혈관에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성분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이 깨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고, 영원히 벗어 버릴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병균이 사람 안에 퍼져서 백혈구가 적혈구를 삼키게 되고 그 결과 전신에 적혈구가 부족하여 결국 백혈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실제 상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에 모든 사람은 내면에 큰 붉은 용 독소의 표본, 본보기를 최소한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단계 사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알라’, ‘자신을 부정하라’, ‘자신을 버리라’, ‘자신을 죽이라’는 주 맥락에 따라 말씀했다. 이는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주요 사역으로, 이번 사역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철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나 또 사람이 예감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사람의 감각은 매우 예민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낀 사람일수록 시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어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 이는 사람이 이제껏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사람이 가장 진입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조를 모른다는 데 있다. 이 비결을 터득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가지 원칙을 따른다.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것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념을 드러낸다. 또, 영의 입장에서 사람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의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을 경험하고, 비바람 속에서 ‘가정’의 핍박과 인생의 험난함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할 때 집사가 하인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촌극 같기도 하여 사람을 낮 뜨겁게 만들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게 만든다. 이때의 사람은 흡사 관아에 끌려가 중형을 받으며 자백하는 것 같다. 백성에게 하는 말씀은 동란을 일으킨 대학생이 중앙 내부의 추문을 폭로하는 것처럼 가차 없다. 모두가 비꼬는 말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한다. 사람에게 암호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실상을 꼬집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다 실재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제적이지 않다. 이것이 사람의 부족한 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제적이지 않다면, 일체의 모든 것은 공허해지고 환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로 인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 우주를 초월하면 사람의 지위와 신분, 나아가 이 몇 개의 어휘조차 공허한 것이 아닌 실체가 될 것이다. 이 점을 확실히 알겠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았느냐? 단지 지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위의 실제’를 살아 내는 것, 이것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모든 사람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결코 공허한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하는 것이 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도 되는 듯 사람은 늘 내 행사를 귀찮아한다.”라는 등의 말씀들을 했겠느냐? 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실제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람은 관념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열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즘 사람은 하나님을 한입에 몽땅 삼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왜 내 사랑이 사람의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라는 등의 말씀들을 했다. 이것들은 사람 내면의 지하자원이 아니냐? 캐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중에 생기는 폐단으로, 마땅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로, 사람에게서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사람은 돼지처럼 기억력이 부족하고 늘 향락을 탐하므로 사람의 기억상실증 상태에 따라 약을 처방해야 한다. 즉, 많이 말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귀에 대고 자세히 들려주고, 보청기를 달아 주는 것이다. 어떤 말씀은 한 번 들려준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삶은 늘 이것저것 빠뜨리기 일쑤고, 전 인류의 ‘삶의 나날’은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있으면 보고, 여유가 있으면 듣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둔다. 오늘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일 말하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린다.”라는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상, 지금의 실제 상태를 짚어 주고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하면 그 당시에는 통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질병이 재발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일깨워 주면 또다시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사역하고 말할 때 사람의 이런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이런 본질을 놓치고 사역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실수가 될 것이다. 모든 사역에서 ‘사람의 관념을 겨냥 말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깨달음을 더해서 교제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길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용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 사람의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충분히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얘기한 “하나님은 초대에 응하여 땅에 와서 자리하였다”라는 말씀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32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피해서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하고, 하나님은 전혀 사람의 행위를 다시 상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의 분량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또한, 사람의 관념을 겨누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뜻에 따라 사람을 피해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다. 갖가지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상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본래 목적은 사람에게 말씀 속에서 어떤 요령이나 비결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역 방식 중의 하나이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밀에 관한 것이나 베드로, 바울, 욥에 관한 일들을 조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이 마땅히 해내야 하며,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분량을 고려하면 이는 이미 최절정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효과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닌데 왜 그리 많은 말씀을 했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한 형벌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공격으로 사람은 고통을 더 받았다.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책망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었으며 ‘봉사자’는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모두가 누리게 된 것 같다. 사실, 모든 사람은 실제 사정에 따라 연단 속에서 더 무거운 형벌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내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차츰차츰 높아진다.”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봉사자’를 무저갱에서 끌어올려 더 무거운 형벌인 유향불 못으로 던져 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고통이 더 커졌다고 한 것이다.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더 무거운 형벌이 아니겠느냐? 더 높은 경지에 들어선 후 사람은 왜 행복해하기는커녕 근심하겠느냐? 왜 사탄의 손에서 구원되어 큰 붉은 용에게 넘겨졌다고 하겠느냐? “마지막 부분의 사역은 큰 붉은 용의 집에서 완성한다.”라는 말씀을 아직 기억하느냐? “최후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 큰 붉은 용 앞에서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느냐? 큰 붉은 용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어찌 그것의 ‘면전’에서 증거할 수 있겠느냐? 누가 자신을 죽인 후 “나는 악마와 싸워 이겼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육을 원수로 간주해 자살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상처는 보지 않고 사람의 온전한 부분을 보며 기쁨을 얻었다.”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을 그가 말씀할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왜 그가 사람의 위치에서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여 사람의 관념을 일축했겠느냐? 그렇다면 왜 그런 고생을 하겠느냐? 뭐하러 부질없는 일을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에는 실제적 의의가 있으며,

성육신의 사역을 완성한 후 육신을 ‘단번에 일소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 준다. 왜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고, 금 가운데 순금은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의 본질은 어떤 뜻이냐? 사람의 육안으로 보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혹은 육에는 흠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 되고, 사람은 아예 해결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하늘의 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것만 같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사람의 눈에 나는 단지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별’이고,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늘날 땅으로 내려온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단어에 ‘해석’을 덧붙였다.” 기왕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다양한 위치에서 사람의 관념을 드러냈겠느냐? 설마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냐?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냐?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비한 자리가 있지만 사람은 내가 내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 마음속의 ‘거룩한 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나는 신분이 너무 ‘미천한’ 관계로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람에 의해 ‘도태’되었다.”라는 말씀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너무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낼 수 없어’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였다. 사람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바로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실제 의미가 아니겠느냐? 정말 평생 푹푹하게 굴다가 순간 멍청하게 구는구나! 너희가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관념 속의 하나님’을 없애라고 하는데, 너희는 ‘관념 속의 하나님’을 없앴느냐?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는 사람에게 소극적이 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알아들었느냐? 성육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상상하는 “지극히 높고 큰 ‘나’”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나서 대략적인 개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것이 인류에게 부족한 점이다.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최종 목적은 사람이 ‘육신으로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께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느낌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부족함은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기초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을 겨냥 말씀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다. 이래야 이론과 실체가 서로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래야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을 잘 알아가게 할 수 있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증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행한다. 즉, 사람의 관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매우 좋은 것이다. 이 순간 어찌 찬미하지 않겠느냐? 어떤 처지가 되거나 어느 날이 되면 너는 정말 베드로처럼 시련 속에서 마음 깊이 우리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베드로처럼 사탄의 손아귀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고, 육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다’는 진정한 뜻이다. 이는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말로 ‘신성이 나서서 일을 하고,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얻은 결실이며, ‘영이 육신에서 나와’ 얻은 결실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느냐? 과거에는 실재를 중시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진짜 실재를 아는 것이냐?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가 높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검 손’이 드러난다. 사람은 언제나 앞서 걸으며 나를 ‘안내’하기 좋아한다. 내가 ‘방향을 잃을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서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갈까 봐 몹시 두려워 계속 나를 ‘끌고’ 앞으로 가고 있다.” 이 간단한 말씀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근원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어떤 관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았느냐? 날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다음 단락 첫마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 “... 하지만 사람은 내 뜻을 모른 채 나에게 계속 무언가를 간구한다. 마치 내가 사람에게 주는 풍성함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듯, 일종의 공급 부족 상황인 것 같다.” 이 말씀에서 너희 내면에 있는 관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도, 추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과거의 일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 ‘마지막 시대의 베드로 정신’을 길러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낼 자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베드로를 본받고’ 최종적으로 큰 붉은 용에게 수치를 주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단지 사람이 나와 협력할 의지를 갖길 바란다. 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거나 머리 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했다. 세상에는 90년대의 레이핑 정신을 기르지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독특한 베드로 풍격’을 창조하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정말로 노력해 이를 수 있겠느냐?

“온 우주를 거닐며 산책할 때 나는 우주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땅에 사람들이 뻥뻥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는 한 명도 없었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슬피 탄식했다. 순간 사람은 흩어졌고,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 다시는 모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상당히 난해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큰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왜 자신의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며 슬피 탄식하시냐고 말이다. 이것은 모순이냐? 글자 그대로 보면 모순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아마 너는 “내가 한 말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영계에서 사탄을 대상으로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각종 관념이 생겨 땅에서 ‘하나님이 슬피 탄식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에 대해 모두 말했을 때 사람은 극력 저항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자신에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념을 가지는 자는 모두 그의 원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사람이 어찌 ‘흠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특히 오늘날 형벌이 임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며, 그들을 형벌한 후 ‘한꺼번에 쓸어버릴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 말씀과 같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내 형벌에서 나오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경영 속에 사람의 역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없고, 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지로 몰고 자신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과정을 통해 또 사람을 형벌한다. 그런 다음 사람을 통해 자신의 행사를 나타낸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의 어조에 형벌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의식적으로 진입하지 않았고,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뭐라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나는 나의 집에 사람을 초대할 적이 있다. 그러나 나의 부름을 들은 사람은 마치 내가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장으로 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황급히 도망갈’ 뿐이었다. 그래서 나의 집은 텅 비게 됐다. 사람이 줄곧 나를 피하고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일부 사역은 아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했다. 사람의 사역의 실수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요구를 선명히 내세웠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이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덧붙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에게 행한 또 다른 사역’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급한 ‘한꺼번에 쓸어버린다’는 말씀은 일단 거론하지 않겠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에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도 적잖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말씀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방식이 너무 많아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 중 사역에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사실은 적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만 많아지게 되었다. 사람은 관념으로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워 사람이 아예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입을 대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은 내 음성에 항상 양념을 더하려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화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의 구상은 하나님도 거의 ‘달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제약 요소로 인해 말씀 중 일부분에 ‘직설적인’ 표현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게다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흡사 영계를 꿰뚫고 사탄의 소행을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얼굴에 깃든 수심이 더 짙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왜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결말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33편

솔직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일이나 사람에게 베푼 것, 그리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많이 받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100개를 주고 1개를 요구하건만 이것이 지나친 요구란 말이나? 하나님이 괜한 트집을 잡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사람은 흔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올무에 빠지곤 한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잠시라도 무거운 책임을 추가로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진흙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법이 없고, 계속 부정적인 이유를 들며 스스로와 타협한다. 너는 정말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이나? 너는 정에 얽매이거나 자신의 취향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나? “어찌하여 사람은 늘 나와 흥정하는 것이냐? 내가 무역 회사의 대표라도 된다는 말이나? 나는 사람의 모든 요구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건만 어찌하여 사람은 나의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슬프게 탄식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선별적으로 사역하는 것만 보았을 뿐,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은 나의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겠느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시종일관 가리는 것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마음속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두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나며, 변덕은 죽 끓듯 하다. 열정이 끓어넘칠 때에는 땅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릴 듯하다가 식으면 땅의 물을 죄다 얼려 버릴 정도다. 이는 사람의 ‘기능’이 아닌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냐? 내가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되었건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쓰는 격언이나 여기서 사용해도 적합할 듯하다. 내가 사람의 행위를 부인하려고 일부러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본무처럼 생각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만 있다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길든 저는 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것입니다. 사역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보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는 기꺼이 부족함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진실하고 뜨거운 ‘충성심’이지 배은망덕하고 ‘악랄한 마음’이 아니다. ‘흥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인식했느냐? 너희는 시종일관 ‘세상을 돌아다닌다’. 사계절이 봄 같은 ‘쿤밍(昆明)’에 있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추위가 뿔속을 파고들고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남극’에 가 있다. 다 이러한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정신과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다. “내가 사람의 ‘선물’을 나의 것과 비교하자 사람은 곧바로 나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나의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몽땅 꺼내어 분석하였기에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까닭에 사람은 아직도 ‘오래된 육’에 대해 잘 모른다. 사람은 의대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고고학자도 아니므로 이러한 신조어가 난해하다고 느끼는데, 그제서야 조금이나마 복종한다. 사람은 ‘오래된 육’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래된 육’은 맹수도 아니고, 원자 폭탄처럼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없지만 사람은 속수무책인 듯 꼼짝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오래된 육’을 다룰 방법은 있다. 사람이 대책을 고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온갖 괴이한 모습’이 수시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전부를 사람에게 드러냈을 때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보았다. 소금 기둥처럼 내 앞에 똑바로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괴이한 모습을 보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손을 내밀며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기에 나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건넸다. 그러자 사람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듯 이를 끌어안았는데 순식간에 이런 동작을 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는 ‘오래된 욕’이 하는 행동이 아니더냐? 오늘날 깨닫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이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경솔하게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람이 줄곧 자신의 욕을 방종하고, 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며, 심판대 앞에서 나를 기만해 온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분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엄연히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하겠느냐? “사람의 ‘믿음’이 하도 대단해서 ‘감탄스러울’ 지경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상황에 맞게 사람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일깨움이 없이도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발휘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싫증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다. 온 우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형벌을 겪은 후 내면의 영적 상태가 바로잡힐 때 모두가 환난을 벗어난 것처럼 속으로 기뻐한다. 이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으로 얻으려는 성과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오늘날까지 진행되면서 아들들과 백성들이 형벌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사람 안에 불순물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큰 용광로에 들어가 연단한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람은 모두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곱 영의 말씀’에서 예언한 내용이다. 사람이 반감을 품을 수 있으니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그의 신묘한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람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누구도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나의 모든 사역에서 사람이 이룬 것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과 같다. 너는 이 말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제35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모든 이가 형벌을 받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과 나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필요한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에 따라 붙잡아 주고 공급해 주었다. 사람이 전체 경륜의 주인공이므로 나는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가르친다.”, “... 그러나 나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양심을 비판하지 않고, 차근차근 타이르며 가르쳐 왔다. 어차피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인즉,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다 멸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땅에서의 사역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으며 그가 하는 일은 전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난감처럼 다룬다고 하신들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나이까? 사람에게 어찌 그럴 자격이 있겠나이까?”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이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정말 이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몇천 년 전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건만 첨단 기술이 가득한 현대에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가 없는 것이냐? 도대체 ‘역사(歷史)’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냐, 후퇴하고 있는 것이냐? 나도 잘 모르겠다. 과학이 발달한 것인지, 후퇴한 것인지 현재까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것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사람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늘 아직도 이를 모르는 것이냐? 너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너의 취약점이자 사탄이 공격해 오는 급소임을 확실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였겠느냐? “내가 간곡하고 진실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정말로 할 수 없다는 말이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었겠느냐? 이는 사람의 내면에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도 많아 그중의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거늘 이런 말까지 내가 따로 설명을 해야 하겠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사람은 사탄에게 점령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점령당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는 사람의 모습이고, 육의 부속물이므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상태에 빠졌고,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둔 함정이다. 이때가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이다.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빠져 있으므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이 이러하지 않으냐? 그런데도 사람은 어찌하여 “오늘날 사탄이 광기를

부리니 내가 어찌 이 기회에 사역의 주안점을 부각시킴으로 나의 큰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일깨움을 주는 말을 한 즉시 교회 사람들이 형벌을 받기 시작했다. 두 달 동안의 사역에도 사람의 내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자신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의 상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형벌 시대에 들어선다고 말씀하자 사람은 곧바로 ‘나는 대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지, 형벌 속에서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형벌하실지는 더더욱 모르겠어.’라며 고뇌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모두 형벌을 두려워하지만 어찌지 못하여 ‘잠자코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굳게 서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사람은 실제로 형벌이 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한 고통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벌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이므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입 아프게 많은 말씀을 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은 이들을 실제로 형벌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취한 듯하다. 이는 사람이 병아리 한 마리를 붙잡아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확인할 때의 상황과 같다. 사람의 대수롭지 않은 행동에 병아리는 주인이 자신을 잡아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놀라 팔딱거린다. 병아리가 아직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이다. 몇십 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병아리가 먹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괜히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사람은 줄곧 나를 ‘피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을 병아리를 잡는 것처럼 잡아 죽이기라도 한다는 말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심 없는’ 기여이자 헛된 대가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취약점이다.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알지도 못하건만 어떻게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양을 잡아도 다 자라지 않은 양을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얻겠느냐? 사람은 ‘예방 주사’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금식을 하며 배를 끓고 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신에 대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에야 형벌을 시작한다. 그래야 사람이 진심으로 인정하며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하냐? 밥하는 것을 강요당한 아이처럼 모두가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모두가 마음속으로 ‘에휴! 어쨌거나 형벌이 임하면 죄를 인정하자! 별 수 있겠어? 눈물이 나도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러야지 어찌겠어? 이

길로만 걸어온 나를 탓해야지. 에휴! 운명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지 않느냐?

“누구 하나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모두가 착실히 나의 지휘에 따라 내가 배분한 ‘본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형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형벌을 말이다. 사람은 모두 어수선했던 시대를 피해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더냐? 사람이 정말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이나?”라는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사람은 화가 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는 사람의 본질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사람에게에는 도저히 방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의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열고자 인간 세상에 온 것이다. 모든 이가 병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은 조급해지고, 입은 헐었으며, 배는 부풀어 올랐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 속의 가스가 팽창하여 압력이 커졌고, 결국 사람은 모두 복부 파열로 숨졌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때에 사람의 난치병을 고쳐 주었다.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병은 치료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자 일부러 세상에 온 것이다. 사람이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처리한 것이다. 사람의 담력이 너무도 작기에 먼저 시범 사례를 보여 주었다. 모두가 앞사람의 예를 확인한 후에야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친히 작전 기지에 임하여 사탄과 생사를 건 싸움을 벌인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결전이므로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다. 이는 정해진 것이다. 결국에는 영이 승리하므로 육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 의미를 알겠느냐? 하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는 간단한 말일 수도 있고, 복잡한 말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사람은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은 복이다. 그러나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자신을 위해 계산하고 계획하는 사람과는 달리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약점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몹시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항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를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러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사람을 더 엄격하게 대한다. 사람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 그는 전혀 상대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깊은 생각에 빠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깨닫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서둘러 해야 할 일이자 새로운 공과이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애써 넘어야 할 산이다. 알겠느냐? 아직도 더 설명을 해야 하느냐?

이전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택함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두 무언의 거절을 당했다. 예전의 사람들은 나를 일편단심으로 섬기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은 사탄에게서 받은 ‘선물’을 가져다 나에게 ‘바쳤는데’, 이는 나에게 대한 모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느냐? 이는 “은사는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한 말씀과 같은 경우이다. 역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전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은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그의 일을 해 왔다. 그래서 은사에 의지한 자의 섬김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기에 “나는 사탄의 계락을 나의 부각물로 삼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가 있는 사람의 섬김을 사탄이 준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것이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를 ‘모욕’이라고 말씀했다. 이는 근거 없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선물’을 역이용하여 나의 경영에 필요한 재료로 추가하고, 기계로 가공한 후 그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몽땅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놀라운 점이자 사람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다. 사람은 왕권을 잡을 자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은사가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줄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위트니스 리, 위치만 니의 생각이나 소망이 한 줌의 재로 스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부각시키는 모든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를 조금씩 거두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될 때 이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말로 인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순리를 따르기를 바란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알겠느냐? 이는 사역의 순서이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완제품으로 ‘가공’할 때 그의 모든 뜻이 나타나며, 따라서 그를 위해 힘만 쓰던 선물들은 내쳐진다. 하나님이 즐기는 것은 완제품이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바치는’ 풍성한 선물이 아니라 완제품이다. 모든 이가 지정석에 앉을 때, 즉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마귀도 ‘자신의 자리에 앉고’, 천사 역시 예외 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이때야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미소가 떠오른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의 육과 영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며, 영, 혼, 육의 최종 종착지이다. 이 또한 ‘사람’의 본뜻이 담고 있는 의미이다. 이를 자세히 따져 볼 필요는 없으니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알겠느냐?

제36편

하나님이 지금부터 사람을 형벌한다고는 하나, 형벌의 본뜻이 사람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은 나의 형벌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목에 채워진 칼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원수를 보듯 두 눈을 부릅뜨며 나를 노려볼 뿐이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나는 사람의 왜소한 몸을 보았다. 그렇기에 내가 ‘시련’ 속에서 굳게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형벌의 실제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 주었으며, 사람이 형벌 속에서 실제로 서지 못한 것처럼 사람의 추태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계 기록을 깨고 합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은 궁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궁지로 몰기라도 했다는 말이나?”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잔인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상의 고해에서 건져 낸 후 “나는 모든 ‘사고’를 피하고자 잡아 올린 ‘물고기’를 남김없이 죽였다. 그러자 ‘물고기’는 ‘순종’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아니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음의 고해에서 또 다른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갔고, 모든 사람을 ‘단두대’에 세웠으며,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왜 다른 아들과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손길은 어째서 이토록 ‘무자비’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늘 숨기 바쁘다. 마치 경이로운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또 전부 ‘시골’에서 태어나 ‘도시’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사람은 모두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아닐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우리를 조금도 너그럽게 대해 주시지 않고 점점 더 옥죄시는 걸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런 생각을 다 털어 버리므로 사람은 더 생각할 기회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을 모두

드러내므로 사람은 관념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을’ 뿐이다. 예전에는 이들을 큰 붉은 용의 후손이라고 했다. 사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들이 바로 큰 붉은 용의 화신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궁지로 몰아 죽이면 큰 붉은 용의 영은 분명 더 이상 이들에게 역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것, 즉 큰 붉은 용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에 죽음으로써 보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목적이다. 사람이 목숨을 내던지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느냐?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도, 사람을 어찌지도 못하는 것이다. 비록 ‘육체’를 정의할 때 사탄에 의해 파괴된 육체라고 했지만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를 바치고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때 육체는 또 다른 역할을 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반드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고한 육체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한 것 아니겠느냐? 설마 사람이 개척한 ‘새로운 길’이라도 된단 말이나?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모진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으니 어찌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 ‘경복’할 만한 일 아니겠느냐? 아직 저물지 않은 옛 시대와 도래하지 않은 새 시대가 교차하는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또 무슨 다른 일들을 생각한단 말이나? 하나님은 왜 “사람은 ‘이해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이해’라는 두 글자를 충분히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나?

최근 들어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의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의의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사실조차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일치고, 그가 계획한 경영 항목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며, 그저 모든 사람이 ‘의사의 당부’를 따라 진정한 인생을 깨닫도록 요구할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마음속에 ‘인생’이란 단어를 새기지 않으며, 이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저 나의 말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노파의 잔소리로 치부하며 질색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용품으로 간주하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두가 진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천박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사람은 이 결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오랜 혐오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신단 말인가? 이는 우리를 애꿎게 꾸짖으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분석을 해 주면 사람은 전부 혀를 내두른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인의 말에 알랑거리는 삼살개처럼 굽실거린다. 또한, 자격이 없음을 실감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개과천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즉시 양에서 늑대로 탈바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며, 언제나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뒷전으로 미룬다. 사람은 이러한 작태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실이 임할 때 팔이 밖으로 굽는, 배은망덕이라고 불리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외도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거짓도, 과장도 없는 완전한 사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분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기에 도리어 사실을 축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안팎에 있는 것들을 전부 빠짐없이 뚜렷하고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사탄의 본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는 온전히 꿰뚫어 보지 못할 뿐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멈추지 말고 이 공과를 계속 배워 나가라고 말한다. 사람이 스스로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를 일깨워 주고자 한다. 우선 하나님이 한 말씀을 살펴보자. “사람은 오늘날처럼 좋은 시절에도 나를 사랑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데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의 날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나? 하나님이 형벌이 아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만큼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겪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빈말 아니겠느냐? 설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단 말이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여러 번 “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 때에야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꿈속에서 놀라 깨어났다. 그러나 이미 때가 되었기에 사람은 모두 홍수에 휩싸였고, 시체가 수면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씀했겠느냐? 왜 “사람이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떠올렸다”라고 말씀했겠느냐? 정말로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이겠느냐? 사람은 이 같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껌등으로 흘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적지 않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지나치게 경솔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 같은 결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처럼 눈물샘이 마른 ‘괴물’도 사람을 위해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건만, 사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일깨우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제 세계 동향 같은 예언 대신 일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먼저 예언하겠다. 사람에게 스스로를 알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것이 무슨 말이겠느냐? 어떻게 알라는 것이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죽도록 ‘괴롭힐’ 때 삶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인생이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에 염증을 느끼지 않더냐? 사람은 인생이란 애달프고,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꿈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관계로 사람의 일상은 여전히 공허하고 가치가 없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때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여전히 육으로 산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은 헛되기 짝이 없다. 사람은 삶의 우여곡절을 거쳐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며, 두 손은 굳은살이 잔뜩 박인 노인이 된다. 많은 대가를 치르지만 얻은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으로 사는 사람 모두가 헛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줄곧 언급해 온 인생의 본모습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 말을 꺼리지 않으며, 원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주거나 이해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이와 상반되는 말씀을 하기도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음’의 분위기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면 하나님이 ‘공성계(空城計)’를 써서 짐짓 ‘사람을 미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고 미망에 빠져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알아차린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그 누구도 형벌의 위협 속에서 출행량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고 풀어 주려 하지

않으니 어찌겠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협 아래에 놓여야 비로소 순리를 따를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안배가 아니라면 사람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겠느냐?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느냐? 인생이 헛되다 하나 큰 탈 없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자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죽으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셋째 하늘의 삶을 누리던 ‘별’ 이라면 땅에서 사는 것이 저승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하늘의 별이란 말이나? 이것은 나도 ‘확실히 모르겠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찾게 된다면 그에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동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란다. 다만 충고의 말을 한마디 하자면, 그 누구도 ‘영웅’을 자처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겠느냐?

제38편

사람의 본래 속성, 즉 사람의 본래 모습을 봐서는 오늘날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 수 있다. 육의 본질에다 큰 붉은 용에 의해 지금까지 파괴되어 온 것을 감안했을 때, 하나님 영의 인도가 없었다면 사람이 어찌 오늘날까지 설 수 있었겠느냐?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과 대업을 하루빨리 이루고자 사람을 사랑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평생을 바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격이 없고, 따라서 죽음이 헛된 것임을 너에게 고한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고, 땅의 개미의 죽음처럼 한 톨의 값어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위한 죽음을 몹시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나저나 사람의 육신은 본래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땅에서 일단락을 고해야 한다. 이는 아무도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내가 모든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자연의 법칙’이기에 하나님이 어느새 인류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다.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는 인류의 패역을 증오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인류를 증오한 듯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크나큰 동정심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 대해 늘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 혹은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 찬미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그때 사람 안의 불결함과 불의를 깡그리 잊은 듯하다. 사람의 독선, 자만함, 불순종, 불복종, 모든 패역을 깨끗이 잊은 듯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어떠함’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이 ‘비슷한 처지인’ 만큼 나 또한 사람으로 인한 제약을 피하고자 즉시 그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뭐하러 그 고생을 하겠느냐?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 집안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어찌 내 권세로 사람을 억누를 수 있겠느냐? 나는 권세로 사람을 억누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사람이 항상 나와 다른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나는 여전히 사람의 연약함을 피하고 있다. 어찌할 도리가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직장’에서 ‘퇴직’하겠다면 ‘퇴직 연금’까지 요구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내가 사람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은 거역하지 않았느냐? 언젠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엄한 말씀을 할 것이다. 아마 오늘날은 하나님이 나를 보아 이 정도로만 말씀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나처럼 ‘유치원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조곤조곤 타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육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다소 너그럽게 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마음껏 육체의 정욕을 방종하도록 느슨하게 풀어 준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거리낌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정욕을 방종한다”, “육으로 산다”라고 했겠느냐? 솔직히 이런 말씀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알면서도 묻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너희를 일깨우고자 한다. 하나님이 왜 “나는 사람이 나와 협력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은 왜 사람의 본성이 변하기 어렵다고 했겠느냐? 하나님은 왜 사람의 본성을 증오하는 것이냐? 도대체 사람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본성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이냐? 이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사람에게 새로운 과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늘 ‘본성이 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사서 고생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사실 사람에게 임하는 시련이나 시험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공과이다. 하나님의 본뜻대로라면 사람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협력을 할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쁘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단지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 자식으로서 근검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평범한 옷을 걸치는 것을 꺼리고, 스스로를 위한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가 길러 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다. 마치 먼 훗날 큰돈을 벌면 효도할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를 통해 사람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효심이 전혀 없고, 모두가 ‘불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말이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실이 아닌 허튼소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본받아’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효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사탄이 나의 원수이고, 땅에서는 사람이 나의 철천지원수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니 나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족을 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덕에 보답하기는커녕 ‘거슬러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효심’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니냐?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가 길러 준 은혜에도 보답하지 않으니 땅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탄과 한 핏줄이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사탄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족을 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앞에 엎드린 종을 불러 인류를 관리하도록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역하였다. 거역하는 사람 역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사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옛 성품과 갈라놓을 깨끗이 갈라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수차례나 “사람의 패역으로 인해 나는 사람을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며 사람을 일깨웠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반복했겠느냐? 하나님이 정녕 그렇게 무정하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나는 인류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유로웠던 나날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 자가 있느냐? 아무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성으로 대하지 말라. 그러면 너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더 간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실행하는데도 잘못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땅의 사역이 끝났음을 선포하기 전에는 아무도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말고, ‘손을 떼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길잡이’나 ‘길을 여는 선구자’가 되지는 말라. 지금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이른 듯하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형벌과 죽음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무엇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 설마 집 안의 큰 옷장이 되게 하였느냐? 그것은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거라면, 사람이 육신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번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처형장’으로 압송했다. 사람의 죄가 벌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다. 이때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처형장에 들어서게 했느냐? 왜 그들을 위해 ‘사정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럼 사람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의 효과는 주로 사람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아버지’가 돈을 벌었는데 ‘어머니’가 ‘협력’하지 않거나 살림을 할 줄 모른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리더들은 지금의 교회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머니’가 집 안의 ‘물건’을 모두 망가뜨린다면 이런 가정의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겠느냐? 고아 같지 않겠느냐? 거지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모두 나를 ‘두뇌 능력’이 없는 ‘신성’의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인성만으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찮은 일에 큰 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상황에서는 신성으로 음성을 발할 필요가 없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 중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라는 격언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사람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마지못해 머리를 숙였을 뿐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는 망원경과 같은 말씀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은 또 다른 경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는 누차 타일러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내가 떠나갈까 두려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냐? 형벌이 두려운 나머지 원망의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두 마디 말씀에 대한 답이다. 사실 지금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태한 상태에 처해 있다. 마치 과로하기라도 한 듯 하나님의 사역은 아예 상대할 생각이 없고, 모두 자기 육체를 위해 계획하고 타산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지 않느냐?

제39편

우리의 생명이 더 왕성해지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을 더 말해 보자. 특히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오늘날의 형벌 시대에 이르렀으니 더욱더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고 ‘단체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번호를 매기고,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각각의 기호를 표시해 그들의 ‘조상’이 그들을 순조롭게 가족에게 데려가도록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이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조상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조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놀라운 점이다. 만유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사탄이 사람을 교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해 자신을 위해 힘쓰게 한다. 이 점은 사람이 껴뚫어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바로 “그래서 나도 ‘노동 분배’를 중시하고, ‘분업과 협력’을 중시한다. 이는 내 계획의 항목이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결심한 일,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역을 끝냈을 때만 사람이 알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사람이 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들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을 하여 일체의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진정으로 사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나는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며, 만유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대자연의 주관에 복종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다. 너희가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것에 어떤 고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봐도 좋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들의 조상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이 모두 나와서 ‘연기’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을 통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바로 이 법칙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은 각자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활용해 역사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유를 움직여 자신을 위해 힘쓰게 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이다. 이것은 다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과 연결된다. 어떤 사람의 내면에 마귀적인 성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하겠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으면 귀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 어떠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에 협력할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과 ‘분업과 협력’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지 생각해 보았느냐?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같은 이상(理想)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나라로 가는 길에서 함께 전진할 수 있길 바란다. 굳이 불필요한 관념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왕 그렇다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봐야 누구에게도 무익하다. 사람의 일생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 의미 없는 공허한 인간 세상에서 살려고 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다급히 와서 또 다급히 가는데, 만약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한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해도 네가 죽을 때 기쁨과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소극적으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더 좋은 실천이 아니겠느냐? 순전히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극적이 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그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얼굴에 몇 개의 ‘참호’가 늘어났다. 지형의 균열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지층의 이동으로 지상의 ‘구름’이나 ‘함몰’ 부분이 부지불식간에 위치를 이동한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사람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형벌 속으로 인도했지만 이런 종류의 말씀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피해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단계의 사역을 바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은 일찌감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을 너희가 얼마나 파악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건대 하나님의 사역은 예전처럼 분명하게 단계별, 시기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역 방식이 바뀌는 것 같다. 거의 3일에서 5일에 한 번 바뀌고, 5일 동안에 두 가지 사역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알아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볼 틈도 없이 하나님이 바로 자취를 감추니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늘 “나는 사람을 떠난다”와 같은 종류의 말씀을 했겠느냐? 사람이 이 말씀에 약간 주의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결코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떠하냐? 이해하였느냐? 그러니 사람이 늘 성령의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은 늘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는 지경이 되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깨어나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평범한 말 몇 마디에도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들볶였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날 나는 모든 사람을 ‘큰 용광로’에 던져 넣고 ‘연단’ 시킨다. 내가 높은 곳에 서서 자세히 보니 사람은 모두 불사름 속에 있고, 불의 위협에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형벌은 진작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나서야 알고 중시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정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이 형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이 원자탄이라는 존재를 알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 만들기 시작하면 조금 관심을 갖고, 현실로 나타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광로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야 사람은 조금 알아차렸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잡아당기는 줄에 매인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용광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보자. 사람이 사실을 자백하는 일은 하나님이 형벌이 시작된다고 말씀한 후의 일이겠느냐, 말씀하기 전의 일이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형벌을 거론하기 전에 사람이 이미 자백을 시작했고, 형벌은 하나님이 거론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제40편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은 하나님 손안의 장난감과 같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눌러 만드는데와 같다. 하나님이 원하는 굵기로 만드는데 수타면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손안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귀부인이 시장에서 구입한 페르시아 고양이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깨달음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를 쥐어짜거나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손쉽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과 말씀은 매우 정상적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한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완전히 인정하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깜짝 놀란다. 이는 어찌 된 일이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사람에게 역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난측함은 모두 한정된 것이 된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도 이런 식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떻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씀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그 원인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 사실은 어쨌거나 사실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매우 뚜렷하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역사하기 위해 엄청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인재를 하찮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오랫동안 역사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역사한 적이 없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과 원칙은 사람에게 알려진 적이 없었다. 사람은 줄곧 이를 이해하지 못하다 오늘날에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서서 밝혀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람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밝혀 준 것이다. 너희가 셋째 하늘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나님이 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 지쳐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거나, 식사를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수많은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한 것은 아닌지,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초안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말씀을 끝마친 후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은 이와 완전히 반대된다. 위의 내용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람의 ‘양심’은 지금도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슬퍼할 때 사람이 이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수 있다면, 이는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이 양심의 원래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 없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나는 너희가 양심이 없는 폐품이 아니라 양심이 있는 부류였으면 한다. 이 말은 어떠하냐? 사람에게 와닿느냐? 가슴에 바늘이 꽂혔는데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시체에 바늘을 꽂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져’ 잘못 보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이는 결국 사람의 결함 때문이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겠다.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겨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어떠냐? 그렇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추한 몰골과 괴이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사람을 떠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거절한 것을 거두어들였다가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했다. 왜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아직도 ‘소달구지 기술’을 논하는 것이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나님이 군소리를 반복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할 일 없이 한가히 있기 때문이란 말이나? 하나님도 사람처럼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라도 한다는 말이나? 늘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사람은 다 언제나 귀에 대고 말을 해 줘야 하는 천박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은 건망증에 걸리기라도 한 듯 오늘 일러 주어도 내일이면 바로 잊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일도 한두 번 알려 줘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최소한 세 번은 말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10~20번이나 말해야 한다. 그러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일했다는 말이나? 내가 사람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전성으로 대하고 있다. 자기 한 몸을 보양하는 데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애타하는 마음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나? 어쩐지 맨날 아무 걱정도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만 보인다 했다. 이러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 내 말이 다소 모질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너 혼자만의 감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를 슬프게 했느냐? 이는 자업자득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네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굴고, 병을 앓거나 괴로워하는데, 이는 어찌 된 일이나? 설마 네가 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혼자 속으로 불쾌해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온종일 울적해하고, 육의 고통에 시달리니, 자업자득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벌에 구애받지 말고 벗어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동춘루이(董存瑞)와 같은 이러한 ‘자기 희생 정신’은 참으로 오랫동안 ‘본받을’ 만하구나! 너는 글귀와 이치를 논할 때 부끄럽지 않으냐? 자신을 알기는 하느냐? 자신을 내려놓기는 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느냐? 미래와 운명을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알 수 없을 정도로 묘한 존재라고 말씀한 것도 당연하다. 사람 안에 발굴되지 않은 ‘보물’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오늘 ‘시야를 넓혀’ 보니 사람이 실로 ‘대단하긴’ 하구나! 나는 산수를 모르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까지도 정확히 세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일쑤이다. 나의 ‘불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할 때마다 늘 마음 같지 않게 빈손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송구스럽다. 그래서 나는 결산 보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다. 나도 사람이 왜 이렇게 모질게 굴어나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이를 두고 포복절도를 하다니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부러 나를 비웃다니 정말 ‘양심’이 없구나!

제41편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느냐? 명확히 이해했느냐?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너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냐? 이것들을 명확히 이해했느냐? 만약 이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행한 것은 모두 헛수고이자 허무한 것이 된다! 이 말이 네 마음을 움직였느냐? 소극적으로 물려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느냐? 미련하게 협력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냐? 이상(異象)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구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나는 일찍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사업을 했으나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말로 사람에게 하나하나 나타내었으나 사람은 그래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계획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느냐? 그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보았느냐?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본 취지’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한없이 넓은 바다 위에서, 공허한 이치가 담긴 글귀 속에서 추구할 뿐이라고 말씀했다. 대체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너희 자신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이러한 것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큰 붉은 용에게 치욕을 주기 위한 것이냐? 큰 붉은 용에게 치욕을 준 다음에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산속에 은거한단 말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원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원하겠느냐? 혹은 사람이 가진 거액의 재산을 원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한 이유가 사람을 사탄을 물리친 증거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용졸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고작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냐?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가세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은 항상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한다. 예전에 하나님은 “1년에 4개의 계절이 있고, 한 계절은 3개월이다.”라고 말씀했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마음에 새겼고, 늘 1년에 4개의 계절이 있고 한 계절은 3개월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1년에 몇 개의 계절이 있느냐? 한 계절은 몇 개월이냐?”라고 물을 때면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4개의 계절이 있고, 3개월이라고 대답한다. 사람은 이 방식을 법칙으로 정하여 하나님에 대해 정의한다. 이제는 ‘1년에 3개의 계절이 있고, 한 계절이 4개월’인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사람은 실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매사에 법칙만 찾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법칙’을 그대로 하나님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 참으로 눈이 멀었다! 이제는 ‘겨울’이 없고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지 모른다. 1920년대 사람처럼 아직도 교통이 불편해서 걷거나 나귀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거나 아직도 등잔불을 켜다고 생각하고, 혹은 아직도 원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사람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냐? 왜 오늘날에도 계속 공홀과 자비를 거론하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 많은 노파처럼 늘 과거를 말하는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 있느냐? 지금은 지금일 뿐이다. 이삼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사람은 모두 ‘시류’를 따라가거늘 왜 그리도 생각이 막혀 있느냐? 오늘날이 형벌의 시대에 공홀과 자비를 논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느냐? 하나님께는 공홀과 자비밖에 없단 말이냐? ‘밀가루와 쌀’ 시대인 오늘날에도 왜 항상 ‘기울이나 쓴나물’을 올리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압박한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반항하면 하나님께 ‘반혁명’의 딱지를 붙인다. 하나님은 원래 공홀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들은 자가 있었더냐? 사람은 너무도 그릇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결실을 보지 못한 듯 사람은 늘 내 말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모욕당해 왔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느냐? 너희가 늘 하나님의 공홀과 자비 속에서 살고자 하니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잘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혼자 똑똑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품’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부질없는 것이다!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거나 명확히 짚어 주지 않는다면 말이다.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다면 이것으로 이미 요구를 충족시킨 것인데 또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이냐?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연약함을 이유로 내 공황을 베풀지는 않는다.”라는 명확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 무엇을 연구하고 탐구하겠다는 것이냐? 최소한의 역학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밑천으로 로켓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그건 허풍쟁이가 아니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밑천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높여 주었을 뿐이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도 모른 채 그를 ‘모시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다 자기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과거를 잘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다음 자신을 알아보거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많이 드러내 보였다. 하나님은 “나는 이때야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구름 속에서 탄식했다. 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냐? 내 형벌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냐? 내가 일부러 사람의 적극성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한단 말이냐?”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알게 되었느냐? 속셈과 목적이 정말 없어졌느냐? 스스로 점검해 보았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인식해 보는 것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형벌 사역은 어떤 결실을 보았느냐? 정리해 보았느냐? 결실은 아마 미미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는 진작 큰소리쳤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으며, 그중 얼마나 많은 말씀이 실현되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물거품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실현된 말씀은 거의 없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본뜻은 모르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온 말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면 지금처럼 작은 분량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치우치거나 그릇되거나 교만한 것들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음에도 사람은 왜 늘 흘려듣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장난치려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냐? 사람에게 ‘희, 노, 애, 락’이라는 극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웃기고 울리다가 공연이 끝나면 무대 밖에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무슨 결실이 있겠느냐? “내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왜 늘 수포가 되는 것이냐? 내가 ‘개에게 나무에 오르라’는 식으로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내가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이냐?”라는 하나님 말씀은 모두 사람의 실제 상태를 두고 한 말씀이다.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살펴보는 것도 좋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땅이 계속 변하고 있다. 언젠가 땅이 진짜로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되면 나는 즉시 그 땅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확실히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즉시 버릴 것이다”라고 한 말씀은 미래의 일이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그 틈을 타 들어오면 이때 ‘땅이 다른 성질로 변하게 된다’. 이때의 사람은 이미 변질된 상태이다. 하지만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개량한 땅에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에 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초기에 열악했던 땅이 개량을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 시기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점차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에 대한 프롤로그다. 앞으로의 사역은 더 복잡하다. 각기 부류대로 나눌 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끝날 때 회의장은 엉망진창일 것이다. “사람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연기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좇대가 없다. 사람에게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연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이 결함을 상대로 다음 사역을 하여 모든 사람이 이 결함을 바로잡도록 한다. 사람은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에 좇대 없는 갈대가 된 것이다. 만약 사람에게 분량이 생기게 된다면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일부 악령의 역사를 통해 일부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써 이들이 악마의 행위를 간파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선조’를 알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악마와 철저히 결별할 수 있고,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자기 선조까지 버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물리치려는 본뜻이 여기에 있다. 즉, 모든 사람이 큰 붉은 용의 진면목을 알 수 있도록 그 가면을 완전히 찢어 버리고 그 본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이토록 많은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유를 움직여 하나님을 위해 힘쓰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았느냐? 이런 것은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준 숙제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 낼 수 있느냐? 생각해 봤느냐? 이런 것이 네가 교제할 화제가 되었느냐? 이 단계 사역에서 반드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현재 뜻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가 된다. 사람은 진입할 수도, 해낼 수도 없으니 모두 빈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한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아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느낀다.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를까 봐 두려워한다. 오늘날 언급한 먹고 마시는 방식을 몇 가지나 찾아냈느냐?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두 먹고 마실 줄을 모른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날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방식을

찾아냈느냐? 그렇다면 너는 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신 다음 또 어떤 경로를 통해 ‘독후감’을 말할 것이냐?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상태에 따라 처방을 내리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야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앞서 말한 문제들은 어떻게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냐? 이것은 너희가 실제 행동으로 성령께 협력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만약 적절히 협력한다면 성령은 크게 역사할 것이요, 적절히 협력하지 않고 멍하게 있으면 성령은 역사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누가 했건 이 말을 너희에게 적용한다면 가장 적합하다. 어쨌든 먼저 자신을 알아야 상대를 알 수 있고, 결국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든 너의 온 힘을 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기쁨과 위안의 미소를 내비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설사 그때가 네가 죽는 때라 할지라도 눈을 감을 때 웃음소리를 내며 미소를 보여야 한다. 너는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네 마지막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지만 너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흠족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네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미리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사람에게 불평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제42편

오늘 말씀에 있는 변화를 모두가 알아차렸는지 모르겠다. 아마 뭔가 알아차렸지만 확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12일에서 15일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알게 된 것이 뭐라도 있느냐? 4월 2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주로 어떤 사역을 하였느냐? 왜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망이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느냐? 오늘은 왜 ‘하나님나라 백성의 추문’ 코너를 찾아볼 수 없겠느냐? 4월 2일과 4일에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며칠간 사람의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여기에는 분명 풀기 힘든 수수께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180도 달라진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 먼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 말씀의 서두를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또 새로운 시작에 들어섰고, 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형벌이 막바지에 치달았음을 알 수 있다. 형벌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뒤처지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시간을 다잡아 형벌 시대의 사역을 잘 체험해야 한다. 이는 사람의 사역이니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형벌 시대를 보내면 하나님은 다음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 나는 이제껏 사람 가운데서 내 사역을 펼쳐 왔고 ... 지금 내 마음은 몹시 즐겁다. 이미 내가 사람을 일부 얻어 내 ‘기업’이 더 이상 불황을 겪지 않게 되었고,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날 하나님은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이 보기에 아직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사역은 이미 끝난 것이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일도 복잡하게 보는 경우가 흔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그리 높지 않으니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사람의 관념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드러나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높아서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요구 기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탄에 의해 수천 년간 파괴된 인류는 치료된 후에도 후유증을 겪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늘 이토록 ‘대단한’ 요구를 하고 조금도 관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워한다. 그러니 많은 일을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형벌하는 행위이자 자업자득이요, 생고생하는 것이다. 사람이 받는 고통 중 거의 99% 이상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은 자는 하나도 없으며, 다 자업자득이다. 물론 형벌도 예외가 아닌데, 다 자신이 만든 고배를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벌의 본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을 저주하지만 그것이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요, 일부 사람을 축복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식언만 하는 하나님으로 보일 것이다. 조금해하지 말라. 어쩌면 이 말이 조금 지나칠 수는 있다. 하지만 소극적이 되지 말라. 내가 한 말은 그래도 사람이 받는 고통과 어느 정도 관계된 것이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께 ‘선물’을 자주 드려라.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물하는’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냐?

앞날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곧 끝나니 너희는 앞날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을 것이다.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나 자신을 높이고 으스스대며 높은 위치에 서기 좋아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사람의 앞날이 대체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진짜 고통의 바다에 빠져 살게 된다면, 혹은 곤고한 연단 속에 살게 된다면, 혹은 각종 형구(刑具)의 위협 속에 살게 된다면, 혹은 만인에게 버림받아 하늘을 보고 탄식하며 살게 된다면, 아마도 앞날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 궁지에 몰려서야 낙원을 찾는 존재이고, 지금까지 안락한 환경에서 단꿈을 포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실제에 부합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 아직도 살아서 들림 받고 싶으냐? 아직도 육의 몸에서 형상을 바꾸고 싶으냐? 너희들의 생각이 다 같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느낌이 든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미련은 내려놓고, 현실을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한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받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면서 스스로는 어떠하냐? 설마 다른 사람은 단념시키면서 자신은 복을 구하겠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복받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몰래 바라다니 대체 무슨 인간이 그러냐? 정말 사기꾼이로구나! 그렇게 하면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느냐? 빚진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건 사기범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속말을 유도해 놓고 자신의 속내는 전혀 말하지 않다니, 정말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천박한 존재로다!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꾸짖지 않더냐? 자존심에 걸리지 않더냐? 정말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이제 보니 다들 수준도 안 되면서 머릿수만 채운 남곽 선생(南郭先生)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바친다’”라는 말씀에서 ‘자신을 바친다’ 부분에 따옴표를 사용한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손금 보듯 환히 알기 때문에 사람의 사기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꼬리를 드러내지 않고 얼굴도 발개지지 않고 심장이 쿵광대지 않아도 밝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눈은 투시경처럼 사람의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화학 분석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의 혈액형이 무엇인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은 모방할 수 없다. “내가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거늘 왜 사람에게서 확증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들인 공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협력이 너무 적어서, 바꿔 말하면 사람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긍정적인 요소를 보기가 어렵다. 간혹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겨우 몇 억분의 일밖에 안 되는 듯하다. 그런데다 불순물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확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사람의 패역 때문에 하나님의 어투는 무정하다. 하나님은 사람과 옛정을 나누지 않지만, 사람은 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늘 옛정을 꺼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어제를 오늘로 여기지 않고, 오늘로 오늘의 사람을 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은 양심 없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사람에게 알려 준다. 어쨌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떠하냐? 수긍하고 더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주제 밖의 이야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을 하러 왔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니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고 다 보길 바란다. 어떠냐? 그러길 원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곧 바뀔 거라는 최신 소식을 흘렸다. 그러니 이것을 주제로 주요 화제를 논해 보자. 오늘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한 것으로, 다음 단계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에게 할 사역을 거의 다 했으니, 이제 ‘진노’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 내 모든 행사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내 행사가 ‘심판대’ 앞에서 증명되게 하여 온 땅에 있는 사람이 내 행사를 공인하고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다.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다음 사역의 주요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선 ‘정권’을 잡은 집 지키는 개들을 모두 승복시켜 더 이상 지위 쟁탈이나 암투를 벌이지 않고 스스로 역사(歷史)의 무대를 떠나게 할 것이다. 이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 일으킨 각종 재앙과 기근을 통해 이뤄지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큰 붉은 용의 나라는 여전히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형벌로만 존재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큰 붉은 용의 나라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땅에 있는 ‘하나님나라’(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바로 사실이 임하니 모든 사람이 꺾어야 하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다. 바로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원대한 계획을 펼칠 때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앞으로는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재난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은 눈앞의 일에 허덕이느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은 시절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물리칠 것이고,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도 끝날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하여 큰 붉은 용의 나라를 철저히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전 우주의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다음 전 인류를 멸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사역 절차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의 평화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없다. 육으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있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직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느냐? 생각해 보았느냐?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랑할 것이냐? 그건 빈말이 아니냐? 지금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분주히’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현 단계 사역이 곧 끝난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관건이다. 하나님의 요구가 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애타기 때문에 지금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음 단계 사역의 주요 사항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면 미리 이런 말씀을 하겠느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니 너희가 자기 목숨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또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느냐? 그건 너무 눈먼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합당한 분이냐? 사람은 아꼈 가치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염려치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죽이기라도 하겠느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임무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일을 앞자리에 두어라. 그런 다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을 기다려라. 너의 계획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뤄 주는 것이 되고, 모두 실현되길 바란다.

제44편과 제45편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가장 심오한 공과를 사람에게 알려 준 후 ‘일곱 영 말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공허함을 알게 하여 사람 내면의 진실한 사랑을 끄집어내게 하였다. 현재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공과는 끝이 없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기꺼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냐? 사람이 대세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육을 증오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의 내면에는 진실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느냐? “나는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지 못하고 꾸물대고 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에서 ‘진실한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나?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했겠느냐?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 진실한 사랑인지 답안지에 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어 준 숙제인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는 이 사역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이 사역에서 영광을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땅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무리될 때에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지시했다. 만약 마무리될 때에 사람에게 죽음을 준다면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사탄은 또 어떻겠느냐? 땅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불러일으켜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권세로 사람을 괴롭혔다고 말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나님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사역을 마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사역이 곧 끝날 때가 되자 ‘하나님 사랑하기 열풍’을 일으켜 ‘하나님 사랑하기’를 뜨거운 화제로 만든 것이다. 물론, 그 ‘사랑’은 남편에 대한 현숙한 아내의 사랑처럼, 베드로의 사랑처럼 불순물 하나 없는 순수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욕,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예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다.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는 것’, 너희는 이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

불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가 한 것과 대조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느냐? 예수의 십 분의 일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오를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탄을 모욕할 정도가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없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느냐? 정말 모든 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의 베드로를 생각하다 오늘날의 너희를 보면 실로 하늘과 땅 차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가 많으냐, 마귀를 사랑하는 요소가 많으냐? 이것은 반드시 저울의 좌우 판에 올려서 어느 쪽이 올라가는지 재 봐야 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는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자격이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땅에서의 체험이 사탄에게 치욕을 주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과감하게 예수에게 그 사역을 완수하게 한 것이다. 이는 예수가 받은 고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체험해야 한다. 이를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사랑하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사정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점이 얼마나 있는지, 너 자신에게 가증스러운 점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아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천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세계 기록을 깨는 선구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설마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이만한 것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만한 것도 해내지 못한단 말이나? 이것도 못 한다면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46편

그토록 많은 말씀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상태를 밝히거나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의 말씀은 예전과 다르게 비꼬거나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앉아서 사람과 이야기한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오늘날 나는 온 우주에서 또 새 사역을 하여 땅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고, 모든 사람이 내 집에서 ‘이사를 하게’ 하였다. 사람이 늘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꾸 내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새롭게 출발하다’란 또 무엇이나? 예전에도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에게 떠나라고 권하는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이런 말로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다른 어투로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담이겠느냐, 거짓이겠느냐? 과거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시련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봉사자’ 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준 시련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 후부터 수백 번의 시련을 겪은 베드로의 일례를 통해 사람은 늘 ‘이것은 하나님이 준 시련이다’라는 오류에 빠졌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실로 임한

것이 거의 없어서 사람은 하나님이 준 시련을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을 사실로 임할 일이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일부러 말씀으로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고 여겼다. 사람은 모두 ‘희망은 없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남아 있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후에도 열심히 따르고 있으며,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다. 사람은 이런 착각 속에서 따르고 있고,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감히 단정 짓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부분적인 증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여 자신을 위해 힘쓰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착각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사람의 불완전한 마음가짐을 이용해 자신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나는 이미 일부 사람을 얻었다.”라고 말씀한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탄은 사람의 속셈을 이용해 방해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속셈을 이용해 봉사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가짜 통행증’을 꺼내 내게 건넬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불더미에 던져 버렸다. 이에 사람은 활활 타는 ‘자기의 심혈’을 보며 낙담했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함의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움직여 힘쓰게 하므로 사람의 여러 생각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놀랍고도 지혜로운 부분으로, 말씀과 방식을 결합하여 사람을 어리벙벙하고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한 말은 시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은 “하지만 나는 또 사람에게 누구도 축복을 얻지 못했을 때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일러 준다.”라는 말씀을 꺼냈다. 하나님 말씀이 진담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정확히 짐작할 수 없으나 이 기회를 통해 사람을 안정시키고 떠날 마음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언젠가 저주받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미리 했던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 “듣기 싫은 말이 좋은 말이다”라는 사람의 말처럼 말이다. 지금 사람은 성심성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진담인지 거짓인지 구분 못 할 말씀에 모두 정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이 “내 대업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사람이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길 바란다. 나는 속수무책이니 말이다.”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한 그토록 많은 말씀의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따라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이에는 할 이야기도 없고 논의할 일도 없을 것이니,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자.”라는 말씀 역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쨌든 하나님은 이처럼 ‘이치를 따지지 않고’ 사탄 앞에서 이미 이 부분을 증거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원망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한 말씀이 있기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울분을 삼킨다. 하나님과 사탄의 교전은 완전히 사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자주권이 없는 철두철미한 꼭두각시이고, 하나님과 사탄은 막후의 조종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 자신을 증거하고자 할 때는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하여 봉사하게 했다. 또한 사람이 사탄의 우롱을 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증거가 끝났을 때는 사람이 고통받도록 한쪽에 내버려 두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사람을 집어 들고 유용하게 썼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소나 말처럼 사람은 신체 자주권이 없었다. 말하자니 조금 슬프기도 하나 자주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 전능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느냐? 설마 아직도 권세를 좀 잡아서 자신의 자유를 찾고 싶은 것이냐?

어찌 됐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결국 다른 존재다. 이런 기초 위에서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네 사랑을 중히 여기든 여기지 않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연단을 받았지만 그 사역은 어디까지나 어제의 일이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까? 아직까지 이것은 비밀이다. 그러니 사람은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이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노래할 뿐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답이고, 모두 이루어진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

제 3 부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1992년 6월~2014년 8월)

내용 소개

제3부의 말씀은 총 네 부분으로, 그리스도가 1992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포한 것이다. 그중 반 이상은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설교의 녹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글을 다듬거나 교정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역시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가 친히 쓴 말씀이다(그리스도는 말씀을 쓸 때 중간에 생각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단숨에 써 내려갔으며, 전혀 수정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 온전히 영의 말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편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원래 순서에 따라 나열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 사역의 절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절차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가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1’의 앞부분에 실린 ‘길’ 8편은 그리스도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한 말씀으로, 언뜻 보기엔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보살핌과 이해가 가득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시각으로 말씀을 하였기에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으며, 생명 공급을 해 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에서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계속 일종의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있었으며, ‘죽음의 시련’이라는 공포도 지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며, 사람은 유향불 못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봉사자’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며, 처음 난 송아지처럼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비로소 사람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더 많은 생명 공급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된 목적은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사람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사람의 인정과 신뢰를 얻는 한편, 사람에게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덟 편의 ‘길’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사람에게 준 당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책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후에야 정식으로 이번의 생명 공급과 진리 선포 사역을 시작했으며,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 절차에 관하여’ 등등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 갔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고심을 보여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생명 공급이기에 진리의 깊이가 뒷부분보다 좀 얇은 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지, 맹목적으로 일하거나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며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사역과 진입’ 1~10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 편의 말씀을 서두로 삼았다. 그 후에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2’ 부분이 나왔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자질에 대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다짐하였고 더는 하나님의 신분이나 본질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식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행한 사역의 실정에 대해 교제하고, 성경의 실상을 밝히는 한편, 성육신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하였다. 사람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역사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람이 얻게 된 것이 역대 사도나 선지자들보다도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면면과 세세하기 이를 데 없는 관심, 그리고 보살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동시에, 사람의 낡은 관념과 잘못, 그리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나아가 앞으로 사람이 가야 할 길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사랑일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이미 남김없이, 그리고 요구 없이 모두 사람에게 주었다.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몇 편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성경은 사람과 수천 년을 함께했고,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했으며, 심지어 말세에 이르러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몹시 증오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틈이 성경의 실상과 그 기원을 낱알이 밝혀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사람은 성경의 글귀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정죄하고 가늠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의 본질과 구성, 그리고 그 결점을 설명한다고 해서 성경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경을 정죄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 적절하고 올바른 설명을 덧붙이고, 성경을 본래 자리로 되돌렸으며, 성경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 정확한 견해를 갖고, 더는 성경을 숭배하거나 방향을 잃는 일이 없게 했다. 즉, 성경에 대한 맹신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배라고 착각하고, 성경의 실제 배경이나 결점에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 후에야 거리낌 없이

그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몇 편의 말씀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 주려는 진리는 바로 어떤 이론이나 사실도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성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오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지워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만 해석했다. 하지만 잊지 말라. 사람은 성경을 떠받드는 것 외에도 참으로 많은 그릇된 것들을 떠받든다. 사람이 유일하게 떠받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성경을 일례로 모든 이에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다시 극단으로 치닫거나 미망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깨우쳐 주었을 뿐이다.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얇은 데에서 시작해 차츰 깊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도 사람의 외적 행위와 방식에서 패괴 성품으로 부단히 심화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을 — 사람의 본질을 — 겨냥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3’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발하여 사람의 본질과 신분,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등 사람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 가장 심오한 진리와 본질적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물론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3’의 내용은 사람에게 공급한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1’의 진리보다 더없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떻게 해야 온전케 될 수 있는지, 인류의 이후 종착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일 등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이러한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한 가장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종착지 등을 다루고 있음). 하나님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념과 상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길, 생명으로 여겨 더 이상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태도로 이 말씀들을 읽는다면, 이런 말씀이 그에게는 무자천서(無字天書)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어떤 의혹도 품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4’는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에 이어

선포한, 다른 유형의 신성의 말씀이다. 이 부분의 말씀에는 모든 기독교 교파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면과 가르침, 그리고 폭로가 들어 있다. 예컨대,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도 담겨 있다. 그 예로,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훈언 3칙’, ‘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부류 사람들에게 대한 폭로와 심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말씀 중 잊히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역의 서막이 곧 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 깊이 있는 것, 배반을 드러낸 내용이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기 위함이다. 즉, 네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따랐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상대적인 성품 변화만 있을 뿐 절대적인 생명 성숙은 없기 때문이다. ‘배반 1’과 ‘배반 2’가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진실하고 선의 어린 경고였다. 적어도, 사람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신에게 심취해 있을 때, 이 두 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악행을 삼가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편의 말씀 이후,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네 생명이 얼마나 크든, 네 체험이 얼마나 깊든, 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든, 네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너의 본성은 시시각각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을 명심케 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사람의 천성임을 알려 주려 했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내치고 정죄하기 위한 이유로 삼기 위해 이 두 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두 편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본성을 알게 함으로써, 사람이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려 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거나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말이다. 이 두 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린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심을 이해하길 바란다. 어쨌든 이 말씀들은 전부 에누리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포했는지를 사람이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남겨 둔 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이 적절하다고 여길 때 선포한다면, 그땐 너무 늦지 않겠느냐? 가장 적절한 그때는 대체 언제겠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위치에 서서 이 네 부분의 말씀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때는 풍자의 방식으로, 어떨 때는 직접 공급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또 어떨 때는 엄한 말로 질책하는 방식으로 말씀했다. 요컨대 여러 방식을 모두 채택했는데, 그 목적은 사람의 다양한 상태와 입맛에 맞춰 주기 위한 것이었다. 말씀할 때 섰던 위치 또한 말씀의 방식이나 내용에 맞춰 계속 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떨 때는 직접 ‘나’, 즉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어떨 때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찌어찌한다고 말씀하며, 또 어떨 때는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선포한 말씀은 그가 섰던 위치와 무관하게 전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자 진리이며,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1

(1992년 6월~1992년 10월)

길 ... 1

사람은 일생 동안 어떤 좌절을 겪을지 모르고, 또 어떤 연단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일에서, 어떤 이는 진로에서, 어떤 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또 어떤 이는 결혼에서 고통을 받지만, 오늘날 우리 이 무리 사람들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좌절을 겪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자, 우리 모두의 발아래 놓인 길이다. 이로써 우리는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했고, 정식으로 인생의 서막을 열고 인생의 바른길에 들어섰다. 이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정상인이 가는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성전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엄과 권병, 위엄을 지닌 사람으로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의 경륜을 핵심으로 여기며, 내세에 백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금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을 원한다. 또한, 나는 내 육신의 미약한 힘을 다해 하나님이 땅에서 영광의 만분의 일이라도 누리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자,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이다. 나는 이것이 육신에서 살고 감정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남겨야 할 ‘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내가 밟고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는 나의 이 견해가 육신에서 남기는 나의 마지막 유언이 되길 바라며, 또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다른 관념이나 생각을 품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기에 내 마음은 몹시 슬프다. 어째서 육신의 본질은 이런 것일까? 과거의 내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정복 사역으로 인해, 나는 지금에야 사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나아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최저 요구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을 바라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단단히 다짐했다.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중용된 사람의 고백이다. 앞으로 나는 이것을 길 삼아 하나님이 맡긴 중임을 완수할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후의 ‘길 끝’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끝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오늘까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회복의 흐름에 들어선 후부터 점차 성령 역사를 위주로 하는 지방 교회가

생겨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방 교회에서 역사하셨다. 이때 생겨난 교회가 몰락한 제왕 가문에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문에 지방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뿌듯하셨다. 하나님은 중국에 지방 교회를 세우신 후, 이 희소식을 세계 각국 지방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할 바 없이 설레었다. 이는 하나님이 중국에서 계획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제1막이었으며, 그 어떤 사물, 어떤 사람도 함락하지 못한 귀신의 성에서 착수한 첫 단계 사역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겠느냐? 이 회복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순교하고 마귀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는지 모른다. 지금 와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니 비분이 차오른다. 하지만 어쨌든 고난의 날들은 모두 지나갔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 덕분이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순교한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으로 벅차오른다. 솔직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진흙탕 속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기 원한다. 혹자는 나에게 “당신의 지위라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 오히려 기뻐하시는 겁니까?”라고 묻는다. 나는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이것은 내가 추구하고, 단연코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 대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의아한 눈빛을 하고 의구심을 품지만, 나는 내가 선택한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다짐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후회하거나 번복해서는 안 되며, 이것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찍이 율법시대에 언급된 규칙이자 제도라고 생각한다. 내 체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고, 실제 체험은 더 미미해서 고매한 견해 같은 것은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 실제 체험은 매우 적다.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나 나, 이 사람을 맹신한다. 내게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을 바로잡았으면 한다. 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추구하고, 하나님 믿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에게 경배받을 수는 없다. 그저 본보기 역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지만,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나 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영의 영광을 육신에 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심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일의 전말이다.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 비춤을 얻었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은 모두 구원 사역이고, 다른 불순물은 섞여 있지 않다. 혹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항상 성령이 구원 사역만 하셨으며, 다른 사역은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성령이 중국에서 행하신 사역은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명확해졌다. 하나님은 왜 도처에 마귀가 횡행하는 이 땅에서 출로를 개척하고 역사하셨을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골자가 구원 사역임을 알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주로 정복 사역이다. 처음에는 예수를 부르짖었는데(어떤 이는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성령 역사의 절차라고 말한다.), 이는 은혜시대의 예수 안에서 나오기 위함이었다. 즉, 일부 사람들을 먼저 선택한 다음, 다시 거르기 위함이었다. 그다음 중국에서 처음에는 위트니스 리를 부르짖게 했는데, 이는 성령이 중국에서 행하신 두 번째 부분의 회복 사역이자, 사람을 택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역이었다. 먼저 사람을 모은 후에 목양할 목자를 기다리면서 ‘위트니스 리’란 이 ‘이름’을 들어서 힘쓰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은 ‘능력’이란 이 이름을 증거할 때였고, 그전까지는 예비 단계였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계획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친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능력’이란 이 이름을 증거한 후였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신에서의 행사를 시작하셨다. ‘능력주’라는 이름을 빌려, 순종하지도 복종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을 제압한 것이다. 그로 인해 사람은 모두 얼마간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사람이 스무서너 살이 되어 성인의 모습을 띠게 된 것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제 겨우 정상인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봉사자의 시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성 사역의 단계로 넘어온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신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알고 증오하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저주하여 죽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이른 것이다. 중국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 불결한 땅에서 몇 년을 예비하셨지만 사람은 지금의 차원에 이른 적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이 오늘날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명확히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확실히 신성으로 직접 행하는 사역이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행하는 사역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음란한 땅의

사람들에게서 지금 같은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부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큰 능력 덕분이다. 이러한 사역의 성과는 어디에 가져가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경솔히 단정 짓거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길 … 2

하나님이 중국에서 행하는 사역 순서와 사역 단계, 그리고 사역 방식에 대해 형제자매들이 어느 정도 요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되짚어 보며 요약하여 형제자매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뿐이지, 이 사역 이외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형제자매들이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나는 이 말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내 분량이 작은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생명 체험이 너무나 적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지만, 나는 늘 이것이 그저 객관적인 원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물도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교제를 막을 수는 없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제가 형제자매들과 같은 이상(理想)을 갖고 힘써 싸우며, 당신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내 결심이다. 하지만 이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육신을 가진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나는 일찍이 나와 동행하는 형제자매들과 여러 차례 이렇게 교제했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메시지로 남겨 주었다. 사람들이 나의 이 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나는 이 말에 주관적인 노력이라는 면은 물론, 객관적인 이론이라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열정이 얼마나 큰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떤 이는 이 말을 보고 관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는 ‘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지? 게다가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인 ‘길’과는 아무 연관도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에 그다지 큰 매력이 없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늘 이 말이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도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깊이 헤아려 보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제안을 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여기든,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심리 동태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줄곧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전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운 좋게도 성령의 이런 사역을 얻을 수 있다니, 나는 그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친절함과 존경스러움, 사랑스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이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이렇게 낙후하고 보수적이고 봉건적이며 미신적이고 타락한 무산 계급 제국이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얻을 수 있다니, 우리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나는 영적 눈을 떠서 이 사역을 본 형제자매라면 모두 이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시각 너는 기쁨의 춤을 추며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느냐? 네 마음속 노래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네 다짐을 보여드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여긴다. 이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의 내적 자질과 우리가 태어난 출생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굴욕을 참고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 안 된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지고지상하며 얼마나 존귀한지를 인식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여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대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내 이 말은 여전히 모호하니 사람들은 글귀상의 도리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고 어리석으므로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인 모든 형제자매에게 공을 들여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한 대가와 들인 노력과 바친 정력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나는 우리 이 무리 사람들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형제자매들이 이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을 통감한다. 나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소유와 어떠함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크게는 삶 속에서의 처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작게는 모든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며, 말이나 일의 가상으로 덮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탄복할 것이다. 단, 여기에는 비이성적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너무 무례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차 없이 말 그대로의 짐승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개돼지처럼 가장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다. 어쩌면 내 말이 너무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 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여 그 개돼지와 같은 불결한 것들을 저주한다. 또한 나는 형제자매들이 그로 인해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사실이 어떠하든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나?

큰 붉은 용의 제국은 수천 년을 보내며 오늘날까지 타락해 왔다. 줄곧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저주를 내리고 진노를 품었으며, 그 후에는 형벌을 내렸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나라는 늘 인종차별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낙후된 상태이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각종 더러운 귀신의 집결지이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며 군림하고, 결국에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까지 더럽혔다. 생활 습관, 풍토와 인심, 사람의 사상과 관념 모두가 뒤쳐지고 고루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각종 관념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며, 사탄을 공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가장 뒤쳐진 모습이다. 하나님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하기 이를 데 없으며,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한 채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래와 소망조차 없다고 선포했을 때, ‘뜨거운 여름날의 교회’는 즉시 ‘얼어붙은 겨울날의 교회’로 바뀌었다. 사람의 본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종전의 믿음과 사랑, 힘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원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원망할 엄두는 못내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나라에 없고 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일까? 형제자매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아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길 바란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 영원불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나의 소망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나와 함께 이 불결한 땅에 태어난 형제자매들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느껴진다. 그렇기에 큰 붉은 용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았고, 우리가 앞날을 탐하고 연연하게 만들었으며, 우리를 꺾어 내 소극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다.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미혹시켰으며, 오늘날까지 패괴시키고 짓밟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게 했고, 마음은 크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사지에 힘이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큰 붉은 용의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큰 붉은 용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며, 당장이라도 완전히 멸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 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번거로움만 더해 드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나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다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가는 길이며, 나 곧 피조물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자 거쳐야 할 인생이다. 이는 내 마음속 말이니,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 말을 본 후 격려받았으면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므로, 나는 찬란하고 눈부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며, 마음속에 후련함과 기쁨을 느낄 것이다. 너는 이렇게하기를 원하는가? 너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인가?

동아시아의 병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자,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이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나 형벌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미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사탄에게 수천 년간 속박당한 사람들은 줄곧 사탄의 권세하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언제나 힘겹게 모색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 과거에는 모두 향을 피우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탄을 공양했고, 가정과 세속의 얽매임이나 사회적인 교제 등이 사람을 꼼짝 못 하게 몰아매 벗어나기 힘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사회 환경에서 어디를 간들 의미 있는 인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소연하는 것은 전부 고난스러운 인생뿐이다. 다행히 하나님이 이 무고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 살게 하셨고, 우리가 즐겁고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더 이상 무슨 낮췄으로 하나님께 사치스러운 요구들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은가? 만족하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면서 많은 조소와 비방, 그리고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이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됐든 우리가 누리는 복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망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으며 자기도 모르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부족함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다. 병 때문에 수없이 고통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게 되었다.... 너는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누리고 있었다. 설마 조금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나?

길 ... 3

나는 삶 속에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 않고 평안을 찾기 때문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것은 선결 조건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당신의 영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을 전부 당신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저의 영이 당신께 감동을 받아 마음과 영으로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이 다시 한번 저희의 영을 감동시켜 저희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신다. 오직 영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지고지상함, 그리고 위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직역: 가시는) 길이다. 너는 이런 생활을 해 보았느냐? 성령의 삶을 체험해 보았느냐? 너의 영은 하나님께 감동받았느냐? 너는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았느냐? 네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돌려 드렸느냐? 네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성령의 삶을 직접 체험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쉽 없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면 너는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성령께 감동받고 처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의 두 눈을 뜨게 하여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오롯이 당신께 바치길 원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또 제 마음이 당신 앞에서 인정받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잊기 힘든 기도였다. 나는 깊이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며 눈물 흘렸다.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기도이자, 내 첫 번째 소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너는 이런 체험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성령은 너에게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어느 정도 이런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이 그 기억을 잊었을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이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바로 성령이 가시는 길이자,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하시는 첫 단계 역사는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자이다. 이는 하나님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사역하시는 동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행하신다. 만약 누군가 한 번도 감동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면 이는 그 부류의 사람이 회복의 흐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감동받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 어쩌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내 작디작은 요구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다. 또한,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루빨리 끝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안식을 얻으시는 것이 내 작은 소망이다.

나는 하나님이 한 귀신 성에서 그분의 사역을 전개하시는 이상, 반드시 전 우주의 수많은 귀신 성에서도 사역을 전개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단계 사역은 매우 특별한 정복 사역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발하고 친히 일을 하셔야만 정복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전 우주 아래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시험적으로 행한 다음에 전 우주 아래에서 이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더 큰 사역을 하실 것이며, 전 우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각 종교, 각 교파의 사람들이 모두 이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므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받아들이길 원하느냐? 나는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여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전 우주 위아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일생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서원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목표가 없다면, 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할 때 푸른 하늘과 잿빛 땅만을 보게 될 텐데,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아름답지 아니하겠느냐? 어쩌서 항상 스스로 고민을 찾아 헤매고 답답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는 했느냐? 하나님은 또 너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을 했지, 입으로 대충 말하고 넘어간 적은 없다. 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위로해 드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영이 위안을 얻으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마음이 귀하다고는 하나, 사랑은 더욱 귀하다. 나는 내 마음속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내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시고, 내가 바친 사랑에 만족하시기를 바란다. 너는 네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리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것으로 생존의 밑천을 삼길 원하느냐? 내 체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삶이 즐거워지고,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되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진다. 또한,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같이 생각된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것이냐, 아니면 무한한 힘을 지닌 것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언제나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 사람의 사랑은 몹시도 얻기 힘든 것이며, 또한 너무나 적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전 우주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역대 이래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돌려 드린 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베드로가 그중 한 명이였다. 그러나 예수가 친히 인도해 준 그런 베드로도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생을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조건 속에서 전 우주의 사역을 한 범위 내로 축소하셨다. 즉, 큰 붉은 용의 나라를 시범으로 삼아 모든 정력과 심혈을 한곳에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역의 성과를 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데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 두 조건하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전 우주의 사역 항목을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중국인에게로 가져와 사랑의 정복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후, 다음 단계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역 범위에 중심도 생기고 범위의 경계도 생기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전개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고 적지 않은 심혈을 기울이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복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달리 서양인들도 우리의 출생지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천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 아니겠느냐? 항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만 하던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이 서양인에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복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나는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 친근함을 한층 더 느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는 하나, 그분은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역의 중심을 일부러 이

땅으로 옮기셨다. 나는 그로 인해 위안을 받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낀다. 사역의 주역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대제사장처럼 내가 직접 영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섬길 수 있으니, 이는 나의 복이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정말 더없는 기쁨이며, 경축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축복하고 높여 주시어 거름 더미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현재 내가 가는 길이다. 그러나 나는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도 아닌 듯하다.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 다짐하며, 한시바삐 내가 가야 할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나의 이 권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이다. 아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에 대해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길을 확인했으면 계속 걸어 나갈 뿐,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굳게 다짐하리라.”라는 말을 하고 싶다.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일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틀릴 리 없지 않느냐! 거기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계산이 있을 리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을 살펴보셨을 거라 믿는다!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다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세운 것이냐?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내 말에서 크든 작든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내 깨달음이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도록 우리가 서로 거리감이 없이 마음을 나누었으면 한다. 이것이 내 마음속 말이다. 자, 오늘은 내 마음속 말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형제자매들이 계속 노력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

길 ... 4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자 높여 주심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란다. “모든 영광을 지고지상하신 하나님 당신께 돌려 드립니다! 또한 당신께 택함 받고, 얻어진 우리를 통해 당신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말세에 우리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의 전 우주 사역의 모델이자 표본이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과 말씀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의 백만 배가 넘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친히 이렇게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역대 성도들도 받지 못한 크나큰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지막 세대가 복이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원망을 하거나 우리에게 다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무도 받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고생과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는가? 나는 이에 대해 깊이 실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서 하시는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또 어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이것을 밀천 삼아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으며, 그저 이것으로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자 할 뿐이다.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마음으로 서원하길 원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동정녀가 되어 제단에 올려지고, 게다가 양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체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자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이다. 나는 이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길 원한다. 너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내 맹세가 많은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내 느낌이지만 하나님은 젊은이들을 매우 중히 여기시는 듯하다. 내 편견일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항상 젊은이들이 전도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달리 공을 들이시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식견과 지혜가 부족하고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혈기로 가득 넘쳐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에게서 젊은 사람의 순수함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들은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인다. 비록 젊은이들이 ‘교만’, ‘무모’, ‘저돌’이라는 몇 가지 단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이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고루하고 낡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서 무한한 광명과 젊음의 열정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물론 나이 든 형제자매들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흥미를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이 든 형제자매들에게 사과하는 바이다. 어쩌면 나의 이 말이 지나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의 경솔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내가 너무 젊어서 말하는 방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든 형제자매라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어디까지나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처세 경험이 있고 일 처리가 안정적이며 웬만해선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장점이 아니겠느냐?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흐름에 공개적으로 대적한 수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사람들은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종교 관념이 너무 강했으며, 모든 면에서 진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조해 보고, 언제나 지난날에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 보았다. 그들이 그릇된 부류가 아니겠는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역에

쓰겠는가? 성령의 역사 방식은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그런데 옛것만을 고집한다면 언젠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어느 단계의 역사든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런데 낡아 빠진 것으로 사람을 가르친다면 이는 사람을 망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체하지 않겠는가?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언제쯤 완성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이런 말을 듣고 관념이 생기거나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급해 말기를 바란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말이다. 이것은 오직 사실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몇몇 큰 인물, 명망 있는 목사나 성경 해석가들을 방문하여 이 흐름을 그들에게 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언컨대,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성경을 꺼내 들고 너와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계시록을 풀어 보라고 할 것이다. 네가 거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분명 너를 거부하며 너를 가리켜 거짓 그리스도이자 잘못된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너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울 것이며 너를 숨 막히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의 전개를 막지는 못한다. 얼마 안 가 성령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이는 대세의 흐름이고,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전 우주 아래에서 막힘없이 잘 행해질 것이라 믿는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우리가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빛 비춤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전 우주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때가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나와 동행했던 자들과 헤어지는 때이기도 할 것 같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한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대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날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일생을 바치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서 언제나 막힘없이 진행되길 원한다. 나의 이 다짐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우애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 연결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거리감 없이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달콤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이것이 틀림없이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또한 형제자매들이 나와 더욱 가까워져 우리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중국에서 행하시는 사역에 절차가 많기는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면 경우 없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맡은 역할은 다양한데,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참으로 우습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연극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갖가지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생생한 연기를 보여 줬다. 하나님의 펜 끝에서 각양각색 사람들의 모습이 빠짐없이 그려졌으며, 사람은 누구나 많은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조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은 경우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한 것이다. 이로써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극이라고 했지만 이 연극이 실생활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대’의 총연출자인 하나님께 있어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사역을 완성해 가는 역할을 맡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얻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누구든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겠느냐?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의 이 많은 말을 통해 깨닫고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얻으실 거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이 가는 길은 모두 다르겠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 주신 길을 가기를 바라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 저의 영 또한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를 원하느냐?

길 ... 5

과거,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알지 못했고, 성령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농락하곤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을 알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 내 개인적인 실제 경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을 증거했기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증거를 인정한 것 같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믿는 것은 이 사람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도 아닌, 자신의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 둘 것은 있다. 분명한든 불분명한든,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모두 성령 덕분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내가 말했던, 성령이 사람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실례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 방식이자 성령이 가는 길이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믿는지에 관계없이 성령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어 모두 자신의 마음속 하나님을 믿게 하였다. 너도 그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냐? 너는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아니냐? 네가 몇 번이나 벗어나려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강력한 생명력이 너를 끌어당겨 이 흐름에서 떨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매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너는 늘 오열하고 흐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떠나 보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으며, 또한 땅의 유령에게 혼을 빼앗긴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 후, 너는 또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왔다.... 너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느냐?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젊은 형제자매라면 “맞습니다! 그런 체험을 정말이지 많이 해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나는 늘 젊은 형제자매들을 내 지기(知己)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모두 애티가 나고 단순하며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마치 이 사람들이 전부 내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지기들을 한데 모아 우리의 이상(理想)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혈육처럼 거리와 간극 없이 친해지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희에게 적합한 환경을 주시어 저희의 마음속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성이 없는 이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마음속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서 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루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하루빨리 이루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희들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셔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사역이 조속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어떤 규례도 당신의 사역을 막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라고 간구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이와 같다. 너는 성령이 가는 길을 보지 못했느냐? 나이 든 형제자매와 접할 때면, 나는 항상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그들에게서 사회에 찌든 모습들이 보이고, 그들의 종교 관념, 처세 경험, 대화 방식, 말의 내용 등은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한다. 이들은 마치 ‘지혜’로 가득한 것 같지만, 나는 항상 이들을 멀리 피한다. 나는 처세 철학이 극히 적어서 이들과 접할 때마다 비지땀을 쏟을 정도로 피곤해진다.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숨조차 쉬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좋은 해결법을 지시해 주셨다. 어쩌면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멀리 피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들과 접하라고 하면 나는 그 분부에 따를 것이다. 사실, 이들 자신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혜’와 관념, 처세 철학이 사람을 너무도 질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수하러 온 것이지, 이들에게서 처세 경험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완수하기를 구하라. 나머지는 너와 무관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 나는 늘 인간 세상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고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일로 몇 번이나 마음이 심란하고 인류를 증오했는지 모른다. 좀 단순하면 좋으련만 어째서 사람은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똑똑한 척할까? 나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맡긴 사명의 바탕에서 사람과 접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몇 번 있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나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지키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정중히 이야기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일까? 설마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영문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나?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은 내 마음속 수수께끼가 된 것 같다. 사람은 어째서 항상 성령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수호하는 것일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역겨운 생각이 든다. 성령이 가는 길은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에만 주의를 기울이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종종 그로 인해 슬픔에 잠기곤 하며, 마치 그것이 나의 짐이 된 듯싶다. 성령계서도 그로 인해 걱정하시는데, 너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진입하게 하는 자로서 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뜻을 핵심으로 하길 원하며, 당신의 뜻을 찾길 원합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자유 세상으로 인도하사 영을 통해 당신과 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을 불려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그 영이 계속 우리를 깨우쳐 우리 모두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해 달라고 말이다. 내가 가는 길은 성령이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길을 가는 것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로 인해 나의 부담은 더욱 커져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할 때가 바로 우리가 헤어지는 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의 작용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 같지만, 나는 이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기보다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내 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는 더더욱 감격해 마지않게 될 것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이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옵시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의 행사를 보며,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시다!”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진정으로 영의 인도하에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진리의 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의 관념에 따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완벽히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며, 여기에 사람의 뜻은 조금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그의 행사를 나타내려는 사역 계획이자,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 사역이다. 너는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냐? 그중 한 명이 되고 싶으냐? 너에게는 성령께 온전케 되어 영적인 삶을 누리려는 의지가 있느냐?

현재 핵심 사역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기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진리와 이상(異象), 그리고 삶에서 다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우선 형제자매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단계 사역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네가 갖고 있던 이전의 관념을 없애 버려야 한다. 즉, 과거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보물들을 지킨다면, 성령은 너의 생명을 그런 대로 유지시킬 수 있을 뿐, 너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성령은 추구하지 않거나 진입하지 않거나 계획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버린다. 이런 자들을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더 많은 ‘신에 부대’가 일어나 하나님과 협력하고 함께 이 사역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지기들을 예비해 주어 내가 세상 끝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사이에 더 많은 사랑이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성황을 이뤄 하나님이 더 많은 젊은이를 얻으시기를 원한다. 또,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함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거리 없이 친밀해지기를 바란다. 우리 사이에 더는 간극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뜻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다시 말하고 싶다. “노력하자!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싸우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길 ... 6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경륜에서 살아남은 행운아다.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덕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큰 붉은 용의 나라는 멸해 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찌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웠거나 또 다른 부분의 사역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직은 나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다. 나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하실 사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을 향해 이같이 간구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를 향해 감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더 뚜렷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게 하는 길이 곧게 뻗은 순탄 대로가 아니라 가파르게 굽이지고 울퉁불퉁한 길처럼 느껴진다. 게다가 하나님도 험난한 길일수록 우리의 사랑을 더 극명하게 보여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또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험난하고 순탄치 않은 길을 많이 걸었으며, 크나큰 고통도 감내하였다. 때로는 가슴 찢어질 정도로 슬퍼서 크게 소리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걸어왔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참으며 걸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일진대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복받는 것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따라

그들의 길로 가고 싶지 않다. 오로지 충성을 다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는 다른 이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 솔직히,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웬지 나는 이 부분에서 매우 예민한 것 같다. 나는 항상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하는지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라 그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열성적인 형제자매들은 나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서 우리를 더 많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우정이 더욱 소중해지기를 바란다. 오로지 우리가 이 일에서 모호하지 않고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탕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중국 땅에서 여러 해 사역하시는 기간에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심혈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셨다. 나는, 모든 사람을 바른길로 이끌려면 먼저 모든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첫 번째 난관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중화 민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파괴되면서 각종 ‘독소’가 계속해서 발전했고, 마치 전염병처럼 도처에 만연했다. 사람들의 관계만 봐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이토록 빈틈없이 봉쇄된, 독소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성격, 생활 습관, 품행부터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전부 썩을 대로 썩어 있으며, 나아가 사람의 지식과 문화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죽을죄로 정해졌다. 하물며 사람이 가정과 사회에서 배운 갖가지 경험들은 또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다 판결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하도 많이 섭취하여 익숙해진 나머지, 큰일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래서 깊이 파괴된 곳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비정상적이다. 사람은 서로 암투를 벌이고 서로를 노리며 잔인하게 죽이고 있어 마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의 도시 같다.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불안하고, 도처에 유령이 활개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나는 사람과 접촉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늘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의 성품이 다른 이의 ‘존엄’을 건드리게 될까 봐 몹시 두려웠고, 그 더러운 귀신들이 함부로 대할까 봐 속으로 항상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지켜 달라고 간구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비정상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눈에 담았고

마음으로 증오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장사’를 할 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가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했다. 중국 땅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사탄의 패괴 성품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쓸 만한 부분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모두가 성령의 역사뿐이다. 성령만 사람을 배로 감동시켜 역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알맞게 발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에다 사람의 협력을 더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으며, 시종일관 오직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켜야만 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하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사역에 맞먹는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환골탈태시키고,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아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취할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종종 이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한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이 이들을 배로 감동시키사 무감각하고 우둔한 이 환자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는 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굽어보사 저희 마음을 오롯이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더러운 땅에서 벗어나고, 일어나 당신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시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아무튼, 나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으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나는 충심으로 최선을 다해 완수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건네지 않은 임무라면 절대 참견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이가 하는 것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나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관점이다. 어쩌면 이것은 내 성격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형제자매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설마 너는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는 말을 잊었던 말이나? 혹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경영의 한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준 사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이 사역을 잘할 자신도, 의지도 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이기적’일지도 모르겠으나 나는 모든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공평무사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두 번째 위엄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 나는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겠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서로 다른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네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다.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고 싶어 하면서 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모두 드렸다. 부모니 형제니 자매니 동료니 하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 다짐에 의해 멀리 내팽개쳐졌으며, 내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세술로 가득 찬 사람이 보기에 나는 감정 없는 냉혈 인간 같을 것이다. 나의 사람됨과 일 처리,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 마치 나란 사람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든 된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하며 속으로 몰래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다른 이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소하고 놀릴지라도 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였다. 마치 이 세상에는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 같았다. 외부 세력들이 계속 나를 압박하며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의 감동 또한 급격히 상승했다.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제가 어찌 당신의 뜻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귀하게 보시고, 정금처럼 여기시는데, 제가 어찌 어둠의 세력을 뚫고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당신 위해 평생 고난받길 원하고, 당신의 사역에 제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게 합당한 안식의 땅을 주사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위해 다 내놓겠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거늘 어찌 제게 숨기십니까?” 이때의 나는 산속의 백합화처럼 바람에 따라 향기를 내뿜었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늘은 슬피 울었고 내 마음도 계속 눈물지었다. 이때 내 마음은 더욱 아프고 괴로운 듯했다. 모든 세력과 사람의 집중 공격은 마치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 이 더러운 땅에서는 당신의 사역을 펼칠 수 없단 말입니까? 다른 이들은 어찌하여 핍박하는 자가 없는 지지받는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날개를 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어찌하여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까?” 나는 이로 인해 며칠을 통곡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슬퍼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찌면 하나님의 직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속을 끓였고, 숨 돌릴 기회조차 없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나는 여전히 기도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더 큰 사역을 펼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역이 전 우주로 확장되어 세계 각국, 각 교파를 향해 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제 마음도 평안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저를 안식의 땅에 거하게 하사 제가 당신의 일을 함에 방해받지 않게 해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생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소망이다. 어찌면 형제자매들은 나를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인정한다.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교만’뿐이 아니더냐? 그래서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어찌면 너는 나에게서 젊은 사람의 모든 성격을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다른 젊은이들과 다른 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침묵과 평정심이다. 나는 이것을 화제로 삼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것은 내 마음속 이야기이므로 형제자매들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서로 마음속 이야기도 해 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적도 살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속삭인 이야기도 들어 보자. 또 우리 마음속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있는 호방한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자. 과거를 잊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길 ... 7

우리 모든 사람의 실제 체험에서, 우리는 더 탄탄하고 실제적인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천고 이래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 열어 주신 것으로, 수만 년을 거쳐 우리 세대에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인들이 끝내지 못한 노정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노정을 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든 재앙을 당하는 것이든 간에 그 밖에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없다. 여기에 내 의견을 더해 보겠다. 너는 다른 곳으로 도망갈 생각도, 판 출구를 찾을 생각도 말고, 혹은 지위를 탐하거나 독립 왕국을 세울 생각도 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헛된 꿈이다. 만약 네가 내 말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네게 어리석게 굴지 말고, 많이 생각하며, 잘난 척하거나 옳고 그름을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땅의 열국은 모두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네 계획 또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는 자들은 모두 부서질 대상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으니 나중에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미리 너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대단하다고도, 불운하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산산이 부서지고 싶지 않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사역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빛을 얻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무리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사역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이 길의 끝까지 인도하심으로써 땅의 사역을 끝내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늘 ‘멀리 내다보고’ 끝없는 욕심만 부릴 줄 알지, 현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래서 모두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도망가려고 하며, 광야로 나아가 하염없이 떠돌아다니고 싶어 할 뿐,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인생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누리는 것 말고 또 무엇을 원한단 말이나? 솔직히 말해서, 아름다운 가나안의 땅 외에는 모두 광야이다. 사람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 해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녀가 아니겠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잃는다면 너는 평생 안타까워하며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고, 빈주먹을 쥔 채로 회한에 차서 죽음을 맞이할 텐데, 너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른 이에게 비웃음당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른 이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느냐? 너는 자존심을 걸고 잘해 볼 생각은 없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된, 광명정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너는 정녕 조금의 각오도 없는 사람이냐? 다른 길이 가기 싫다고,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까지 가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가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있겠느냐? 네 ‘재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늘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과 땅이 모두 바뀔 수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네가 하나님께 맞설수록 하나님은 더욱 위엄 있는 성품을 나타내고, 무거운 형벌로 너를 ‘손봐’ 주신다. 반대로 네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도 너를 더욱 사랑하고 지켜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 도구와 같아서 네가 순종하면 아무

일 없지만, 불순종하고 주제넘게 나서며 수작을 부리면 하나님은 그 즉시 성품이 바뀐다. 마치 흐린 날의 태양처럼 너에게 자신을 가리고 진노만을 보여 준다. 또는 6월의 날씨 같기도 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수면이 푸르른 물결로 출렁이는 듯하다가도 순간 급류로 변하여 거센 파도가 일기도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할진대 너는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많은 형제자매들이 체험 과정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낮에 성령이 역사할 때면 믿음이 넘쳤지만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너를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으면 너는 밤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방향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하나님 영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시면 마치 베드로가 갑자기 주 예수를 본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 놓고도 잊었던 말이나?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네게 모습을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너의 의로 인해 너에게 나타나고, 너의 죄로 인해 너에게 진노하며 너를 떠나간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오순절 강림이 있는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할 또 다른 사명이 있음을 너는 모르는 것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 알 뿐, 네가 여태까지 믿어 온 예수가 이미 다른 이에게 사역을 맡겼음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의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시 육신을 입고 땅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오늘날 너희가 모두 이 흐름 속에 있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너희는 누리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땅에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늘날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눈을 감은 채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즉, 너희는 무작정 발이 가는 대로 걸어가며, 이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증거하신 사람을 감히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은 너의 지난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정죄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네가 믿는다고 하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실 것 같으냐? 너는 하나님을 네가 분풀이하거나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냐?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나타날 때면 오늘날의 네 모든 행동으로 네가 의로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정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온 ‘형제자매’라는 말에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탄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시겠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아무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참된 깨달음이 있다면 관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는 우리의 주 …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말을 너는 막힘없이 술술 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다면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우리는 역대의 사람들이 끝까지 걷지 못한 길을 이어 가고 있으며, 게다가 수천 년 전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만유에 충만하심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전부 우리 이 세대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나? 이 길은 성령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이끄시는 길이고,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열어 주신 길이다. 너는 수천 년 전의 예수가 네 눈앞에 또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쁘지 않단 말이나? 누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단 말이나? 나는 늘 우리 이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하지만 나는 또,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쳐 주고, 우리가 더 큰 깨우침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번이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보니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만하며, 의지가 없고, 육적인 것을 좇거나 명리를 다투며 자신을 높이 세운다. 그러니 내 마음이 비통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도 지각이 없는 것일까? 내가 한 일이 조금의 성과도 없단 말이나? 네 자녀가 불효막심하고 양심이 없으며 이기적이라 한 번도 네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다고 하자. 또 성인이 되어서는 너를 집 밖으로 쫓아낸다면 그때 네 심정이 어떻겠느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자식을 키울 때 쏟아부은 심혈과 대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사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하는 일 중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를 징계하시고, 온전케 하시어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바람은 당신께서 이들을 갑절로 감동시켜 주사 하루빨리 영광받으시고, 이들이 당신께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속히 당신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형벌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도, 늘 사람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며, 그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한다. 나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길을

찾아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온전케 될 것이다. 그것은 흥가분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말라.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미래와 운명이 네 손에 쥐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늘 여기에서 벗어나 세상의 길을 가려고 했으나 왜 그럴 수 없었느냐? 너는 어째서 여러 해 동안 갈림길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이 길을 택한 것이냐? 오랜 세월 떠돌아다니다가 오늘날 왜 네 뜻과 달리 이 문으로 들어온 것이냐? 그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성령이 너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체험하게 하시든지를 보아라. 솔직히 말해서, 화를 당하더라도 이 흐름 속에서 당하게 하실 것이다.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오늘날은 이 흐름 속에서 겪게 할 것이며,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잘 알겠느냐? 그런데 너는 또 어디로 가려느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행정 명령이다. 너는 하나님이 이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사역하는 과정에서 쉽게 노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분의 계획을 어지럽히려 한다면 그분은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끼듯 그 즉시 안색을 바꾸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며 하나님께 온전케 되라고 충고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리한 사람이다.

길 ... 8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과 접촉하고 함께 사신 지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알게 되었을 것이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식견이 적지 않게 늘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원숙해졌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도 거의 이해했고, 사람의 온갖 성품도 아주 다양하게 드러냈다. 내가 보기에 사람의 온갖 모습은 하나님이 표본으로 삼을 만큼 충분하고, 사람의 심리 활동도 하나님이 참고할 만큼 충분하다. 이것은 아마도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면이자 사람이 하나님과 무의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하나님이 연출한 이 연극을 생동감 넘치게 하고 형상화한다. 나는 이 연극의 총연출로서 형제자매들에게 말해 줄 것이 있다. 우리 각자가 연기한 뒤에 느낀 바를 말해 보고, 극 중의 삶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얘기해 보자. 우리가 새로운 형식의 좌담회를 열어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개개인의 연기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음 연극에서 더 수준 높게 연기하고 가장 자신 있는 연극을 공연하여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말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말고 중시하기를 바란다. 한 편의 연극을 잘 연기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랜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들어가 실제적으로 온갖 삶을 체험해야만 무대에 올라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너희가 낙담하지도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연출한 연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타오르는 불꽃처럼 냉담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너희에게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모두 참고, 서둘러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며,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도 교란하지도 말기를 바랄 뿐이다. 이 부분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나의 사역이 완성되면, 나는 너희의 공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보고할 것인데. 이러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의 바람을 이루어 주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힘든 시기이므로 너희는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은 내가 연출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혹시 어느 날 내가 적합한 ‘부서’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를 난처하게 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오늘날 내가 하는 일을 너희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나의 사역을 행하기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성과를 거둘 수도 없고 너희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가 ‘고생’을 해야 한다. 언젠가 나의 이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 역시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다 들어줄 것이며, 너희의 생명에 유익하기만 하다면 나는 너희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지금 나는 중책을 맡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없고, 나의 사역 계획을 망칠 수도 없다. 나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모두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며,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분의 화를 돋우어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 나는 오로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신경 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가 며칠 더 참고, 그 누구도 조급해하지 말기를 권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든지, 무엇을 보려 하든지 모두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모두 완성해야 한다.

이 단계 사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의 그 어떤 단계의 사역과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실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인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믿음, 사랑,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갓은 연단을 통해 욕보다 더 큰 믿음을 갖추려면 사람은 커다란 고통과 온갖 시달림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큰 믿음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맡은 것이 바로 이 사역이므로 형제자매들이 나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니 나는 이 현실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지 말고, 식견을 많이 넓히며, 이런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너희의 생각은 너무도 유치하고 단순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너희의 상상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분의 계획은 망가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을 위한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할지 말지 내 스스로 안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연출을 맡았다. 너희는 내가 혼자 안배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동안 사역한 후에 사람의 많은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사람은 나에게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너희 모두 이런 생각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내가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하는 사역을 설명해 줄 수밖에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상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깨달은 이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보든 나는 항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므로 내가 해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말씀 사역을 하러 왔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역하고 연극하는데, 다른 것은 내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 내게 다른 일을 시켜도 나는 할 능력이 없다. 내가 설명했으니 너희가 어떻게 보더라도 무방하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일깨워 주고 싶다. 하나님의 사역은 너희의 상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을 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사람의 관념에 잘 맞아 떨어질수록 무가치하고 정말 무의미하다. 너희는 모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이 일에서는 이렇게 한 마디만 할 것이다.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분석해 보거라. 나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겠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나 저렇게 하실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보게 된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사람의 관념에 따라 한 것이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 절차와 사역하는 법칙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실 것을 몰랐겠느냐? 왜 소수의 사람들만 오늘날의 실재를 알겠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법칙에 억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네가 예수의 형상과 사역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과 대조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예수에게 억지로 맞춰 본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냐? 예수 또한 하나님이 말세에 무슨 사역을 행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완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만 알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사탄에게 점령된 인류에게 알려 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리석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알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지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사역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처리해야지,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재 사역 안에 있는 것만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전념하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평범하지 않은 1년간의 체험에서 적지 않은 것을 얻었으므로,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는 길은 나의 사역이자 임무이며 또한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놓으신 것이며, 우리가 오늘날까지 함께 올 수 있는 인연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크나큰 복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지만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길이길이 이어질 것이다. 환호성이든 웃음소리든 아니면 슬펐든 눈물을 흘렸든 모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자! 어쩌면 너희도 내가 사역할 날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너희와 늘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옛정은 여전히 한결같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나면 너희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어쨌든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여관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다니며 사역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오로지 우리의 지난 일들로 우리 사이에 우정의 꽃이 피어 나기만을 바란다.

이 길은 내가 개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길이 쓰든 달든 다 내가 이끌어 준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모두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무리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성과를 보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것은 마땅히 축하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단지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중책을 맡지 않고 하나님도 늘 근심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잘 협력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역을 잘 행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분투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냐? 그동안의 생애에서 우리는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온갖 어려움을 다 체험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개개인의 연기는 기본적으로 합격이다. 어쩌면 너희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더 좋은 사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 역시 나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거의 다 했다. 나는 너희가 언제든지 충성하고 나의 사역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오직 한 단계의 사역만 행하러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해져야 하므로 나에게 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아마 내가 행한 일이 사역의 일부일 뿐이며 여호와도, 예수도 대표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수많은 절차로 나뉘기 때문에 너희는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내가 사역할 때 너희는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마다 다르고,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고 되풀이되지도 않는다.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알맞은 사역을 하시며, 사역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러므로 네가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보아야 한다. 어쩌면 어느 날 나의 사역이 바뀔 수도 있지만 너희는 가야 할 길을 계속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수가 있을 리 없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은 실수하실 리 없고 그분의 사역 또한 실수가 있을 리 없다. 단지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옛 사역이 폐기되고 새 사역이 시작될 뿐이다. 그러나 새 사역이 임했다고 해서 옛 사역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릇된 논리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고 단지 전과 후로만 나뉜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지침이니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너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육적인 평안이나 잠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설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최고조에 달해 더 이상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 지경에 이른다 하더라도 네가 추구하는 그 ‘사랑’은 불순한 사랑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용해 자신의 무료한 삶을 충실하게 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자는 안락을 탐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고, 정신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에 속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느냐? 너희 가운데 대다수의 사랑은 모두 앞에서 언급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기껏해야 현상 유지나 가능할 뿐, 영원불변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도 없다. 이런 사랑은 피고 시든 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한 후, 누군가 너를 앞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내 쓰러지고 말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너의 생명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너는 여전히 흑암 권세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탄의 결박과 농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하고, 결국 영과 혼과 몸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게 된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지 못한 자는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즉, 사탄에게 돌아가 유황불 못에 던져져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얻어진 자는 사탄을 저버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나라 백성의 유래이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느냐? 지금 너는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냐?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야심과 관념을 갖고 추구했으며, 자신의 소망을 위해 추구했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차치해 두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길을 찾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사탄 권세의 결박에서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실행의 길 말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흐리멍덩하게 믿으며 대세를 따른다. 그래서 줄곧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또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사람에게 어려움과 결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진정한 삶의 체험 속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며, 사람의 부족한 점을 하나둘씩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점점 깊어지게 됨을 뜻한다. 이를 통해 너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깨우침을 얻으며, 점점 더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빛 비춤과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씩 벗어나 생명이 점차 자라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다. 너의 실제 체험을 살펴보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앞에서 말한 것들과 대조해 볼 때, 너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이 맞느냐? 너는 어떤 일에서 사탄의 결박과 권세에서 벗어났느냐? 네가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너와 사탄의 관계는 아직 단절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고 유일하며 순결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매우 깊다고 말하면서도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에 불순물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 절차에 관하여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번 사역 절차는 이미 끝난 것 같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매질, 연단을 겪었으며 봉사자의 시련과 형벌 시대의 연단, 죽음의 시련, 부각물의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 등등의 절차를 거쳤다. 사람들은 어느 단계에서든 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다. ‘봉사자’ 단계의 시련처럼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거두려는 성과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했다. 하나님 사역의 속도를 볼 때, 지금의 이 속도라면 사람은 아예 따라갈 수 없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사역의 절차들을 사람에게 보여 주는데, 모든 절차에서 반드시 사람이 상상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실로 그에게 얻어질 사람을 온전케 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할 때 어떤 몇 개의 절차를 거치는지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 절차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정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절차가 끝난 것이지,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 절차가 사람들에게 확실히 다 보여졌으니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 사역 절차는 더더욱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십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관념은 곳곳에서 방해가 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일축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 빠르다고 여긴다. 아직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희미할 뿐인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 버린 것이다. 단계마다 이러하다 보니, 많은 이가 하나님이 사람을 농락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역하는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주마간산식으로 사역한 다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진지하게 반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사람은 미처 따라갈 수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며, 대충대충 넘어가서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대충대충 하는 것에 만족할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표를 찌르고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사역 방식을 취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낸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그의 지혜로움을 더 잘 깨닫게 하고, 그의 공의와 위엄,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지금 정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했다.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폭로, 심판, 형벌을 거쳐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시련과 연단(봉사자와 같은 시련들)을 겪어야 하며, 또한 죽음의 시련을 견뎌야 한다. 다시 말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시련 속에서 진실된 찬미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되고 단순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이자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오직 생명 진입만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근본이다. 늘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앞날을 그르칠 뿐이다. 너는 현재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각각의 사역 방식에서 너는 얼마나 얻었느냐?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모두 너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진입해야 하는 것들이다.

패괴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사람은 계속 흑암 권세의 그늘에 살고 있다.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사탄에게 가공된 성품은 점점 더 패괴되고 있다. 사람은 늘 사탄의 패괴 성품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독선적이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등 사탄에게 속하는 모든 성품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전부 불순물이 섞인 사랑이자 사탄의 사랑이기에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성령에게 직접 온전케 되고 책망받고 깨지고 훈계와 징계, 채찍질, 연단을 받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네 어떤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요, 그릇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천사장이다! 사람의 천성은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천성을 벗어 버린 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만족케 하며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거쳐야 사람이 살아 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육으로 사는 자 중에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성품과 살아 내는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살아 내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사람의 성품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하나님이 정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은 또 사탄의 가공을 거쳤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다 사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 그런 성격이 있다며, 자신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 사탄의 패괴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성령을 모욕하는 자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그저 정복 사역일 뿐이다. 그렇기에 사람이 지닌 사탄의 수많은 패괴 성품이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그렇기에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형상, 즉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고 육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것들을 살아 내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탄을 대변하는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설령 누군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정도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살아 내고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과 하나님은 본질이 다르기에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 낼 수 없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 내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사탄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지금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사탄의 발현이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사람이 바로 사탄의 화신이므로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통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은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도구로 쓴 것뿐이다. 역대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 자발적으로 노력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물이란 무엇이나?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은 다 긍정적인 사물이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은 모두 사탄의 가공을 거쳤으므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받는 의지, 공의, 순종 그리고 낮춤과 감춤만이 하나님을 직접 대변한다. 이것은 그가 죄짓는 본성을 지니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사탄의 가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단지 죄 있는 몸의 형상만 지녔을 뿐, 결코 죄를 대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모든 행사, 일언일행,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이루기 전까지(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포함) 모든 것이 직접 하나님을 대변한다. 예수의 예로 증명된 것이 있다. 바로 죄짓는 본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사람의 '죄'의 일면은 사탄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령의 역사 부분도 성령의 지배라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놓고 말했을 때, 사람의 죄와 성품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령이 사람에게 행한 역사를 보면,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했기에 사람이 진리를 살아 낼 수 있었다. 성령의 책망과 징계를 받은 뒤에 진리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한 요소만 있고 사람이 협력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할 때, 너는 어떻게 전력으로 협력하며 너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겠느냐?

반드시 없애야 할 종교적 섬김

하나님은 전 우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를 섬길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을 예정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섬기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하는 원칙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까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실제로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과 접촉하여 사람이 그의 행사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한다. 오늘날 너희가 온 좋게 실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무한한 복이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높여 줌이다. 하나님이 그를 섬길 사람을 택하는 데는 언제나 원칙이 있다. 사람의 상상대로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늘날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패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란 불가능하다. 너의 성품이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성품은 여전히 사탄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너의 섬김은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 준다. 이는 사탄의 본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너는 타고난 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며 완전히 자기 취향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결국 너의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더욱 완고해지고 패괴 성품이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내면에는 네 개성을 위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들과 네 성품대로 섬기면서 정리된 경험이 형성될 텐데, 이는 사람이 경험으로 얻게 되는 교훈이고, 또 사람의 처세술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바리새인과 종교 관원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각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말세에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른바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부류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개성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언제라도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 또 여러 해 동안 종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농락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훈계하고 통제하며, 회개하거나 죄를 자백한 적도 지위의 복을 포기한 적도 없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야 말 것이다. 이런 자들은 관록과 경험을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바울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온전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섬김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낡은 것과 고루한 고정 관념,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고수하는데, 이는 섬김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일생은 이로 인해 망가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허리가 끊어질 만큼 고생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칭찬은커녕 도리어 너를 가리켜 악을 행한 자라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종교 관념이 없고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온전케 할 것이니,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끝없는 풍부함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의 기묘한 사역과 보배로운 말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종교 관념이 있거나 관록을 내세우는 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성령을 통해 온전케 될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사람에게 순종하려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갈수록 패역해지고 간교해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나이를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는 종교 관원들은 완전히 제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원치 않는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자신의 취향대로 사역하며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며 섬겼느냐? 이는 너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너는 종교 관원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케 된 신생아에 속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께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 해 동안 섬기면서 너의 생명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느냐? 너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낡은 종교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사람은 낡은 종교 관념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네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섬기는 모든 이를 온전케 하며, 쉽게 도태시키지 않는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이전의 종교적 행위와 규례를 버리고, 과거의 종교 관념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것들을 고수하며 이를 보배로 여긴다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말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각오를 다지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전에 행한 일이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전에

행한 일이 분명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직접 행한 것일지라도 오늘은 절대 고수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이니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하나님은 사역하고 말씀할 때 과거의 낡은 것들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자신이 이전에 말씀한 것일지라도 고수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이전의 것들을 고집하며 내려놓지 않고 억지로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네 일생이 이 낡은 것들에 의해 망가지길 원하느냐? 이 낡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작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섬김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순종은 조건부 순종이자, 개인의 앞날을 전제로 한 순종이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그저 장래와 운명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그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고, 자기 위안이며 자아도취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실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네 본심이 정말 이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높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만약 네 본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의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표정이 적절하여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더라도, 너의 본심과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 양과 같이 순종하면서 마음속에는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을 한 명씩 드러낼 것이다.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벌하고 해결할 것이니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일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으며,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의 빛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어제의 빛을 소중히 여기고 새 사역을 대적한다면, 이런 사람은 순전히 그릇된 높이고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새로운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그저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것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 내면에 여러 가지 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만들어 냈으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념이자, 자신의 상상 속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가 너의 상상 속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날 실제로 사역하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너의 믿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 설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어 잠시 누리게 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실천했다고 할 수 없다. 성령은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씩 도태시킬 것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모두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도태될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의 순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조금 느낄 뿐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의 현재 사역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통해, 생활 속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순종, 경건함, 사랑과 인내는 모두 표면적인 것에 그칠 뿐 온전케 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린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해도 알팍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거나 참된 인식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할 때, 또는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넘어진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쌓은 넓은 경험, 또는 성경을 원칙으로 한 각종 규례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모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바라겠느냐? 이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만족과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것을 일컬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는 애굽의 바로이고, 악을 행하는 자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이러한 섬김을 원하겠느냐? 너는 하루빨리 회개하고 네 주제를 좀 아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방해나 교란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림이나 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접해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만 조금씩 정상적인 영 생활이 이뤄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며, 종교 인사들의 행위와 같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저 하나님 역사의 부각물, 즉 하나님 집의 장식품처럼 숫자만 채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을뿐더러 온전케 될 가치도 없으며, 전형적인 산송장이므로 성령이 쓸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들은 전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파괴된, 하나님께 도태될 대상들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의 취할 만한 부분은 활용해 쓰고, 취하지 못하는 부분은 온전케 하고 변화시킨다. 만약 네가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다면, 너는 성령께 쓰임 받을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령을 통해 네 부족한 부분을 메울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더 깊이 진입하여 더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함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며,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올바른 사람임을 설명해 준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다는 전제하에, 성령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의 관건은 네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치고 사용하는 데에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향상하게 만든다.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생명의 성장을 지체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네가 성령의 함께함을 얻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항상 소극적이라면, 성령 빛 비춤을 얻어 자신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일 것이며, 일어나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을 뿐, 성령의 함께함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듯 사람의 소극적인 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모두 이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사람의 영 생활 및 생명 성장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져야만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너는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기에 늘 자신은 부족함이 많고, 깨달아야 할 진리와 체험해야 할 실재가 많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일들이 늘 마음에 걸려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다(하지만 소극적인 상태는 아님).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인해, 즉 하나님 앞에서 지불한 대가와 받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대한다. 하지만 그는 마음대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거나 무조건적으로 더해 주지는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한 측면이다. 많은 사람이 실생활에서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최소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 성품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만 할 뿐, 성령 역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으며, 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성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적절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밖으로 보이는 사랑이나 행위를 중시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영적인 일을 교제할 때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체험하여 얻은 빛 비춤과 깨우침을 사심 없이 다른 이에게 공급해 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 다른 이들이 모두 그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는 외부의 사람과 일, 사물에 좌우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답소를 나눌 때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는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세 철학이 없는 듯 보인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치기(稚氣)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침착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처세 철학이니, ‘정상적인 이성’이니 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아예 통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듯,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뿐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성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제멋대로이든, 정욕과 육체를 얼마나 방종하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시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성령께 온전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령께 온전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만약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든, 어떻게 노력하고 힘을 쓰든, 그것은 모두 사람의 처세 철학에 속할 뿐이다. 너는 사람의 관점과 처세 철학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상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맺어진 것으로, 육적인 왕래는 거의 없으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급하게 된다. 이 모든 행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기초 위에서 이뤄지며, 사람의 처세 철학으로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또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는 네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가운데서의 네 위치는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네가 접한 사람 중 너와 관계가 가장 좋은 자들은 누구냐? 너와 관계가 가장 나쁜 자들은 누구냐? 너와 사람들의 관계는 정상적인가? 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느냐? 너와 모든 사람의 관계는 너의 처세 철학을 통해 유지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냐?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영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져 지각을 잃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이런 자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못한다.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인식한 후 벗어 버리게 한다. 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지에 이르면 영 안의 모든 미세한 감동까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작은 깨우침과 빛 비춤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하면 성령계 온전케 되는 길에 차츰 들어서게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수록 네 영은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지며, 성령의 감동을 더욱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갈수록 정상적이 될 것이다. 사람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기초로 이뤄지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육적인 관계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모두 정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너의 영에 감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늘 너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중시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찾고 구하는데도 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편견을 갖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이는 네가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정상적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덮어 가리는 행위이다. 설령 네가 인식을 좀 말할 수 있을지라도 의도가 불순하다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좋아 보일 뿐,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육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다. 그때는 네가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하든 그것이 처세 철학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된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정상적인가? 그것은 어떤 기초에서 맺어진 것이냐? 너의 처세 철학은 얼마나 되느냐? 벗어 버렸느냐? 만약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사람이니, 결국 사탄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은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너희가 지나온 노정은 여전히 너무 짧다. 너희는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뒤쳐져 있으며, 너희들의 분량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의 자질과 패괴된 천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항상 건성으로 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너희의 가장 큰 단점이다. 성령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만약 계속 이런 상태로 나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가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전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추구하지 않고, 잘 협력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았거나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경솔해서 성령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마땅히 이를 즉시 바로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요 화제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란, 영 안에서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식을 얻는 것이다. 또한, 눈앞에 펼쳐진 길을 분명하게 알고, 진리에 점차 진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여 치우치거나 그릇됨 없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내려면 조화로운 협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실행의 길을 찾아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협력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행의 길을 확실하게 알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연목구어(緣木求魚)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사람을 위해 근심을 덜어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너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가는 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두 건성으로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기도하곤 한다. 그래 놓고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는 가정사와 육적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은 하나지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늘 외적인 것에 있기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을 평온히 하려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는 모두 자기만의 영 생활 시간을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피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져야 한다. 사람마다 영 생활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영적인 감동이 깊은 얕든 다 기록해야 하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가량 진실한 영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루의 삶이 충실해짐을 느끼고 마음은 밝아질 것이다. 그런 영 생활을 매일 해서 네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면, 네 영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며, 너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더 잘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은 너를 곱절로 축복할 것이다. 너희의 영 생활은 의식적으로 성령의 함께함을 얻기 위한 것이지, 규례를 지키고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진실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진실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가 잘 협력할수록, 그리고 네가 기울이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네 마음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완전히 얻고, 그 누구도 네 마음을 흔들거나 빼앗아 갈 수 없게 되면,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다. 네가 이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너에게 나타나 네가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 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네 협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곧 “나와 협력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곱절로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길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바른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너희의 모든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흠족게 해야 한다. 영 생활은 온 힘을 다해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일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소극적이 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노력하여라! 영 생활이 많아질수록 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점유되어 항상 이런 일들을 유념하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런 후에는 영 생활을 통해 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한다.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체험하여 깨달았는지 조금도 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속 말을 털어놓고 심정을 토로하는 훈련을 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할수록 너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네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 끌릴 것이다. 그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친근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매일 이런 영적 수양을 하고 항상 유념하며 그것을 네 평생의 큰일로 여겨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유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 감동받은 것이라고 한다. 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점유된 것 같고, 네 마음속에 늘 네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면, 그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네 안에 살아 계신 것이며, 네 마음속에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온전케 된 사람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이해한 것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너에게 성령의 깨우침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다만 작은 은혜를 받아 잠시 누릴 수 있을 뿐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누려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에 만족하고, 재앙도 화도 없는 안락한 생활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같이 살며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에 만족한다. 또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 속된 생각이다. 설령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여 영적으로 큰 누림이 있고 아주 평안할지라도 네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고 마시든 영적인 평안과 즐거움만 느낄 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없이 달콤하여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전혀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살아 낼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기도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도 없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얻는 것은 사람의 육체나 사람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얻어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육체는 모두 육에 속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얻어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썩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만일 사람의 육체를 얻어 사람의 육체만 이 흐름 속에 있게 한다면, 명목상으로는 사람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받아들여 사람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 내면에 만들어지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 진리를 살아 내게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자,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다.
2.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빛 비춤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는다.

4.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자격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영광이 있다.

5. 세상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탄복하며 부러워한다.

6. 죽음의 모든 제약을 이겨 냄으로써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 점유되어 새롭고 활기찬 영 안에서 살면서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7. 하나님 영광의 날의 도래를 본 것처럼 일생 동안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을 품고 산다.

8.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얼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와 같다.

9.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

10. 모습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며 육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얻었느냐? 하나님은 너를 얼마만큼 온전케 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아무렇게나 온전케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고 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뚜렷한 효과도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모습을 바꾸는 일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 일과 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희들 안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고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추구해야 하고, 너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수록,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에 진입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저 죄를 짓지 않고 관념과 처세 철학, 사람의 뜻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내적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모든 일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온전케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다. 날마다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얻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체험하면 너는 크게 변화할 것인데,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자연히 꿰뚫어 보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이 가르쳐 줄 필요 없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침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게 되고, 모든 체험에서 세부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인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체험은 너무 단편적이고 적은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우 좁은 범위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이 많이 부족해진다.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서 체험할 줄 알아야 하고, 너희에게 임하는 모든 일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임할 때마다 너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이로움을 얻어야 하고,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찌 되었든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사람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된다(이것은 체험상의 편차다). 이 방법에 따라 체험한다면 너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면서, 실행할 때 쉽게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앞날이 매우 밝다.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는 매우 많다. 다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며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행할 때마다 편차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만 국한되어 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육적인 평안을 얻기만 바랄 뿐 더 많고 더 높은 깨우침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늘 겉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사람의 사역, 사람의 섬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순물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람 내면의 본질과 사람의 뒤떨어진 사상을 볼 때 여전히 육적인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조건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아직도 속되고 부패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을 전혀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믿는 것처럼 대충대충, 진성으로 대하며 그날그날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고자 노력하여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얻음으로써 오늘날 하나님 집에서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만일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깨우침 받기를 추구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자격과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너는 정말 모든 일을 참답게 대하는 사람이나? 너는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느냐?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았느냐? 네가 믿는 이는 진정 예수 맞느냐? 너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에 거하는 지금의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았느냐?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들이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는 예수의 이름만 믿을 뿐 예수의 영은 결코 믿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너무 유치하다. 너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왔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네가 여러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밥’을 헛되이 먹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숭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낮 뜨겁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면목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느냐?

악인은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감찰을 거쳤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일 처리 원칙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기에 의롭다 칭함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들이기에 의롭다 칭함 받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온전케 함을 받아들여 그에게 얻어진 사람은 모두 의인이고, 그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아 낼 수 있으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으로, 너희 모두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바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규정하면서 그를 영원히 변치 않는 조각상인 양 완전히 성경 안에 국한하고 유한한 사역 가운데 고정해 놓는다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정죄했다는 의미이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정화된 우상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오직 메시아라고 불려야만 하고, 또 그렇게 불려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조각상(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섬기고

경배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의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리하여 죄 없는 예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뿐더러 기어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고불변의 존재로 생각하며 성경 한 권에 기대어 하나님을 규정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파악한 것처럼 말이다. 인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터무니없고 교만하며, 모두가 과장해서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든,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을 전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늘 못마땅해할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고정 관념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에 완전히 어긋나고 천편일률적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다. 잔혹한 인류야!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암투를 벌이고 명리를 다투며 싸울 것이냐? 하나님은 많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한 채 모두 가정과 자녀, 직업, 앞날, 지위, 허영, 재산, 먹고 입는 것, 육체를 생각하느라 급급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남을 억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잔인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정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의인이라 칭함 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나 의인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의인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의 옷차림새, 너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를 낱낱이 살펴보아라. 너희가 매일 꾸는 꿈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의로움’이란 타인에게 재물을 베풀거나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흠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행한 모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이다. 뭇이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를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가 당시에 행한 일을 두고 의롭다 칭한 것뿐이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롯은 하나님을 보았기에 자신의 두 딸을 두 천사와 바꾸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행한 일이 다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회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아무리 잘 행하고, 겉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영화롭게 할지라도,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날에야 네가 정상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이 말한 의로움은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의 행위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었을 때, 사람은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지 오래되었건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며 속이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뒤쳐진 것 아니겠느냐? 마치 유다처럼 말이다. 유다는 예수가 오기 전에 늘 거짓말을 하고 형제자매를 속였으며, 예수가 온 후에도 그 버릇을 못 고쳤다. 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해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았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도 유다처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2천 년 전 은혜시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비극이 재현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다수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자들은 모두 유다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네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나 사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썩은 물이 가득 고인 시궁창이다. 지금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너희는 내가 조금도 모를 거라고 여긴다. 오늘날 나의 영이 나를 위해 주관하고 증거하건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너희 마음속 엉킴한 수작과 꿩꿩이를 내가 전혀 모를 거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이나? 이전에는 너희가 속박받을까 봐 줄곧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람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끝없이 욕심을 부렸다. 너희가 서로 알아보아라. 나는 그 누구도 책망한 적이 거의 없고 그 누구도 쉽게 훈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속셈과 관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여기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완전히 눈먼 자라 하겠다! 나는 너를 폭로하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까지 패괴되는지 지켜보겠다. 너의 잔피가 너를 구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너를 구할지

지켜보겠다. 나는 지금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보응하는지 보아라. 지금은 너와 잡담할 여유도 없고 너 하나로 인해 더 큰 사역을 그르치고 싶지도 않다. 너 같은 구더기는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 네가 어느 정도까지 방자하게 굴지 지켜보겠다. 이런 사람은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기를 바란다. 이것은 웃기는 일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 몇몇 일부는 정직하기에 나는 한결같이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만 하고, 이후에는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진실한지,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닌지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며, 몹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의 생명 또한 나날이 성장한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적으로 이를 자신의 일로 삼고 대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할 마음이 없다’는 결심을 해야지,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생명 체험은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너희의 주관적 노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너희는 모두 자신에게 ‘생명 체험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상태가 비정상적이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정상이며, 마땅히 바로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와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심지어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성령의 함께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어느 정도까지 무감각해지면 너는 또다시 사탄에게 끌려갈 것이며, 심지어 무슨 일이든 다 저지르게 될 것이다. 재물을 탐하고, 형제자매를 속이고,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마작을 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도 징계받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몰래 독립을 꾀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할 것이다. 더 심한 자는 남녀 관계에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버린 자로,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 역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갈수록 파괴되고 죄악의 손길이 점점 더 멀리 뻗어 나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는 결국 이 도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며, 죄를 따라 사탄에게 끌려갈 것이다. 만약 네가 성령의 함께함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발견했다면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성령의 함께함을 느낄 수 없게 되면, 너는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셈이다.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며, 도태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상태가 성령의 함께함만 있고(죄를 짓지도, 방종하지도, 눈에 띄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기도해도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도 명확한 깨달음이나 빛 비춤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귀찮고, 생명 또한 성장하지 않으며,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빛 비춤이 없는 것) 더욱 조심해야지, 자신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더는 자신의 성미대로 행해서도 안 된다. 성령의 함께함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네가 이런 상태에 처했다면 되도록 빨리 돌이켜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마셔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많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본분을 이행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가장 연약할 때야말로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하기 가장 쉽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로 끌려갈 것이며, 결국 네게서 성령의 함께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너를 깨우쳐 주고, 너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성령이 네게 역사하도록 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되돌리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다가 성령의 함께함을 잃게 된다면,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이 없는 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이 있을지라도 네 상태는 하루 이틀에 회복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떨 때는 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한다. 이것은 전부 사람이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정상적으로 체험하지 못해 성령께 버림받은 것이다. 설령 되돌린다 해도 하나님의 최신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일락천장한 것처럼 생명 체험에서 멀리 뒤흔겨진 때문이다. 그러니 생명이 위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회개하면 늦지 않았다고 말해 주고 싶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많이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이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면 너는 열 번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가 하루에 두 시간 먹고 마신다면 너는 네 시간, 나아가 여섯 시간 먹고 마셔야 한다. 또한, 다른 이가 두 시간 찬양을 듣는다면 너는 적어도 반나절은 시간을 내서 찬양을 들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야 한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실행해야만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추구하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세심하지 못해 영적인 일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며, 성령의 함께함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텅빈 열정만 있을 뿐,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영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성령 역사의 동태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 또한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추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이 자라려면 핵심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무슨 사역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흠족게 해야 한다. 어리석게만 믿을 뿐, 영적인 일과 생명 성품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 면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면 체험할 수 없으며, 실행의 길도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는 모른다면, 이것은 영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실행 면의 부족한 점이 아니겠느냐?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언제 체험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성장하겠느냐? 전부 공허한 외침이 아니겠느냐? 너희들 중에는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모두가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참된 체험을 하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해야 한다.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진리들을 알아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알 것인지와 관련된다.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절대복종하고, 어떠한 원망, 판단, 분석과 그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양처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모두는 90년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일말의 원망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래야만 90년대 베드로의 품격으로 사는 것이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종교 인사들은 성경을 받쳐 들고 곳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교에서 심도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여러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구절로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빈곤 지역’의 사람들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중보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형제자매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처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며 턱없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급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또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먼저 진입하고, 먼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진실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를 섬길 때 너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한다. 네가 이 실제에 진입할 때, 너의 체험은 더욱 깊어지고 더 실제적이 된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한다. 이 효과에 도달한 후에야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고, 또한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일편단심 충성하는 자여야 한다. 사람 뒤에서 한 일이든 사람 앞에서 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으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항상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중임을 맡고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생각하며, 전망과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설사 아무런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기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비록 육체는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기가 될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되는 때이다.

예수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완수하고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기이자 하나님 자신이다(사실, 그는 하나님이 증거한 하나님 자신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일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소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소서. 사람이 연약하긴 하나 당신께서 어찌 그것까지 헤아리시나이까? 당신 손안의 개미와도 같은 사람이 어찌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이까? 저의 마음은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원컨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소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칼로 에는 듯 아프고 괴로웠으나 마음속에는 일말의 후회도 없었다. 그는 계속 어떤 큰 힘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곳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형상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사망, 지옥과 음부는 그의 앞에서 위력을 잃고 그에게 패하였다. 그는 33년의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당시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흠족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개인의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 완수하게 한 것이다. 그는 그 중임을 완수할 자격과 권리가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낙담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였기에 그 크고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시대에 행한 인류 구속 사역 실상의 일부이다.

너희도 만약 예수처럼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여 너희 육을 저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중책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너는 내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지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네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나? 너는 사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고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많은 사람들은 내 뒤에서 지위의 복을 탐하고,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탐하며, 늘 육체가 편하지 못할까 걱정하기에 급급하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공밥을 먹거나 나의 말로 형제자매를 훈계하고, 높은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속박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끝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떠들어 대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지기라고 한다. 이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나? 만약 네가 마음 자세는 바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공짜로 밥을 먹고 항상 육적인 안락만을 탐하며, 하나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도모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간교하게 형제자매들을 기만하고, 사람들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마치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훔쳐 먹고 포도원을 짓밟는 것과 같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신의 생명과 교회에 대해 부담이 전혀 없는 네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자를 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너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임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을 행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처럼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어려우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면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면 가차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막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이 기회에,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음으로 두 가지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너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는 자로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에 의해 진정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섬기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예전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예전의 구태의연한 방법을 바꾸어, 네 안에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결국 유다와 같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며, 그의 모든 사역 역시 실제적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진리는 실제적이다.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모두 헛되고, 존재하지 않으며, 확고하지 못하다. 지금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사람이 실제에 진입하려면 실재를 찾고 인식한 다음, 실재를 체험하고 살아 내야 한다. 실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말이 실제적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으며, 사람의 관념은 줄어든다. 실재를 체험할수록 실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또 실재를 갖출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며, 육을 더 증오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은 실재를 갖출수록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가까워진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은 바로 실재가 있는 사람이자 실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며, 실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사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협력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수록 성령 역사를 더 얻게 되고, 실재를 더 갖추게 되며, 하나님의 깨우침을 더 얻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현재의 성령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지금 실행해야 하는 길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게 되고, 기존의 종교 관념과 낡은 관행을 더 잘 벗어 버릴 수 있다. 지금은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실재가 있을수록 진리를 더 명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실재는 모든 글귀와 이치, 나아가 모든 이론과 지식을 압도한다. 실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급해하는 법이다. 네가 언제나 실재를 중시한다면, 너의 처세술과 종교 관념, 그리고 타고난 개성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실재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 성령은 그런 자에게 역사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이내 공허함을 느끼고,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성령은 네가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찾고 기도할 때 역사하며, 네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때 비로소 역사한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직 글귀와 이치, 공허한 이론만 있다. 또한,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영체로 바꿔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해 주기만을 바란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으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기다릴 뿐이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명확하게 알며 나아가 진리에 진입해 진리를 실행하려면 실제로 훈련하고, 찾고 구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가 갈급해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너를 감동시키고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더 많은 깨우침을 얻고 실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니, 이는 네 생명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려면 먼저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실제임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야 너의 생명이 자랄 수 있다.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고, 관념에 빠진 채 상상 속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실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반면, 막연한 것과 이치를 추구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고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먼저 실재를 알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이 너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깨우치고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성령이 사람에게 행하는 실제 역사를 진실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은 실제에 근거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실제적이고,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체험하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늘 편차가 생기고 힘겹게 느껴진다. 이는 전부 사람의 관념으로 초래된 것이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늘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좋다고만 생각할 뿐 진입하는 길은 찾지 못한다. 성령 역사에는 원칙이 있다. 바로 사람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역사하며,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성령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선 안 된다. 사람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다가갈수록 성령도 더 역사한다. 사람의 실제적인 협력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만 실제적인 체험이 만들어지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인식도 생겨난다. 이렇게 조금씩 체험해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성령의 감동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협력하는 만큼 사역하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어떤 성과를 거두시는 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달려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온 힘을 다해 찾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해. 이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실재를 중시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체험한 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늘 이전에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을 종합하고 역대 성도들의 장점을 받아들였다. 이 점을 통해 베드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알 수 있고 해낼 수 있으며, 또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전부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보좌에 오르는 것, 의의 면류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지위, 사람을 훈계하는 것, 자격을 내세우는 것, 성령의 감동 등 외적인 것들을 중시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모두 비현실적인 것들이며, 그중 많은 것이 공상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초자연적인 것, 예를 들면 성령이 어떻게 감동을 준다거나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거나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거나 평소에도 훈련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등의 말은 전부 비현실적이다.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평온해지며, 외부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것을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며, 사악한 세상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은 전부 비현실적이다. 지금 모든 것은 현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실제적이다. 그러니 너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기 위해 매진하고,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과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우쳐 주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더욱 실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베드로처럼 ‘앞사람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귀로 듣고 눈으로 관찰하며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실제에 진입하는 기초이다. 지금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노래하고, 찬미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등의 실행은 정상적인 영 생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 모두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이란 생생하고 활기찬 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기도와 찬양, 교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등등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방식이 아니라 효과가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성과가 있든 없든, 참된 인식이 있든 없든, 겉으로 보이는 과정만 중시할 뿐, 그 성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종교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나라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규례를 지키는 것에 속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찬송해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이 실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규례와 의식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 삼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육체를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행동할 뿐이다. 그러한 종교적 의식과 규례는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규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으며, 날마다 새로운 일과 실제적인 사역을 한다. 삼자교회의 사람들처럼 매일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식전 기도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등의 제한적인 것만 실행한다면, 그런 실행은 아무리 많이, 또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 사람이 규례 속에서 살면서 행위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규례와 관념에 점령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고, 사람은 계속 율법의 통제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상적인 영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현재 하나님이 하려는 일에 대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옛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실행이 생명 성장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도는 듣기 좋은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성통곡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여 범사에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빛에 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극적으로 되지도, 게을러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 행위만 중요시할 뿐, 생명의 성장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치우친 것이다. 새로운 빛은 받아들이지만 실행법을 바꾸지 않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종교 관념과 결합해 받아들인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 관념을 떼도리이지, 순전한 오늘날의 빛이 아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실행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으며, 형식만 바꿨을 뿐 내용은 그대로이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행해도 그것은 외식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매일 사람을 인도하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낯아 빠지고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견해와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네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만 열정적이고 바쁠 뿐, 행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고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새로운 실행법에 따라 실행하지 않으며, 더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옛것을 고수하고 제한적인 새 빛만 받아들일 뿐 실행법이 그대로라면, 그런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종교 바리새인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날마다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인식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진리를 더 밝히 깨닫고, 범사에 실행의 길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로운 문제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생겨 네 전 존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게 되고, 자신이 뒤처질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렇듯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진입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향상심이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깊은 인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치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진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더 참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허황된 글귀상의 도리나 초자연적인 느낌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어떤 큰 인물도 숭배하지 않게 된다. 이런 자는 정상적인 영 생활에 진입한 사람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더 큰 생명 성장을 위한 것이고, 영 안에서

생기가 넘치고 침울해지지 않기 위한 것이며, 늘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사람에게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고, 영이 날마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실행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을 따르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빛을 좇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훈련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도 그의 정상적인 영 생활을 제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규례를 찾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실행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네가 이것을 규례로 여겨 지킨다면 너의 생명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하니 너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잡고 너는 성령의 흐름에서 도태된다면, 이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막힘없이 이뤄져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함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교회 생활과 실생활에 관하여

사람은 모두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실생활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느냐?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는 길이다. 사실, 교회 생활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 중 한계가 있는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환경은 실생활에 있다. 즉, 내가 말한 실제 연습과 실제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정상 인성을 가진 삶을 살며,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언어 지식을 함양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식견과 이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차츰 진리를 밝히 알아 가야 한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반드시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했겠느냐? 교회 생활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생활 속에서

실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전에 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일만을 이야기했을 뿐,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훈련하거나 진입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는 날마다 쓰고 듣고 읽으며, 밥을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하나님, 제 안에서 저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축복과 깨우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게 깨우쳐 주실 것이 있다면 지금 알게 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제 생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한다. “하나님, 이 음식은 당신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당신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는 이 그릇과 같습니다. 사용한 그릇을 물로 씻듯,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저도 씻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물이시며, 당신의 말씀이 바로 제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잠들기 전에 또 중얼거리다. “하나님, 하루 동안 저를 축복해 주시고, 무사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꿈속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매일 이렇게 생활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서의 진입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기도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이는 사람의 예전 삶이자 낡아 빠진 삶이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실제적인 훈련이 없어서 실제적인 변화도 적으며,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다가갈 뿐이지 더 심도 있는 인식은 없다. 간단히 방 청소할 때의 모습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방이 매우 더러울 때, 한쪽에 꿇어앉아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의 이 방처럼 더럽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과 깨우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방 안에 앉아 중얼거리며 한참을 기도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다스러운 노파 같다. 이런 영 생활은 해 봤자 조금도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 외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현실에서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실제 생활이나 현실적 어려움과 관계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변화할 수 있다. 실생활이 없다면 사람은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헛수고이며, 실행의 길이 없으면 전부 헛일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기도는 사람 내면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사람을 철저히 바꿔 놓지는 못한다. 사람의 독선과 교만, 오만 방자함, 파괴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써,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들은 도는 만세와 만대의 어떤 시기보다 높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다시 말해, 실생활에 하나님이 없고, 변화된 새로운 삶이 없으며, 실생활에서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두 지옥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는 확실히 치우친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인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정상 인성을 갖추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며, 진입과 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조금씩 훈련을 해서 천천히 진입해야 하고, 조금씩 찾고 모색하면서 올바르게 진입하여 실제적인 진리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다음은 실물과 실제 사실 그리고 실제 환경을 통해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환경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자신의 자질 부족을 깨닫고,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입하고 훈련을 해야 실체가 생기고,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실체가 있어야 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실물과 실제 사실, 실제 환경이 있어야 한다. 교회 생활에만 의존한다면 진정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하면 사람의 낡아 빠진 행태와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게으름이나 의존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에게 생활 능력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상인의 모습이 대체 어떤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날 사람은 모두 말하고 교제하는 것에만 치중했으며, 심지어는 다 ‘연설가’가 되었다. 그러나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심오한 이론을 추구하는 데에만 심취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뀌야 한다. 특정한 일과 사물,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진입하고 훈련하되, 명확한 목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본질부터 바뀌야 한다. 사람의 본질과 생활, 게으름, 의존성, 노예근성에 집중해서 사역해야만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다.

교회 생활도 한 면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나, 핵심은 역시 실생활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생활이 없으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은혜시대 예수의 사역을 들어 말해 보자. 예수가 과거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세운 것도 다 실생활 속의 실례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날 때였다. 배가 고프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안식일에는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예수는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했다. 당시, 그는 수많은 실제 일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식을 주고 변화를 주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이며, 이렇게 해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실제 일이 없으면 도리상으로만 인식한다. 즉, 머리로 이해하고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럼 훈련을 통해 지혜와 식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저 듣고 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커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실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체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훈련이 빠져서는 안 되고, 실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여러 면을 중시해야 하며, 다양한 면에서 진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식적 소양, 표현력,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인간으로서의 상식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등 인성과 관련해 갖춰야 할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인식한 후에는 모두 진입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인식만 하고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제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했지만, 실재를 살아 내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도 매우 알팍한 것이다. 네가 약간의 깨우침과 성령의 빛 비춤만을 얻었을 뿐, 실제 생활에서 진입이 없고, 심지어 진입 자체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고 도리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품은 예전과 같으며, 기존의 자질 또한 조금도 향상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러면 네가 언제쯤 진입할 수 있겠느냐?

교회 생활은 그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생활로, 사람의 삶 속에서 극히 적은 일부의 시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만약 사람이 실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처럼 정상적으로 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가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또한 범사에 진리에 따라 행하는 실생활 속에서 살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평온해지는 것, 찬송하고 춤추는 것을 훈련하는 실생활 속에서 산다면, 이런 생활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삶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몇 시간 안 되는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상태만 중시할 뿐, 그 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한 듯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할 때만 성도의 생활에 진입할 뿐, 이 시간 외에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활은 전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하려면 실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실생활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을 저버리며,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범사에 사람으로서의 원칙과 상식, 규범을 배워야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네가 도리상의 인식만을 중요시하고 종교 의식 속에서만 생활할 뿐, 실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실생활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실제에 진입할 수도, 자신에 대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언제까지나 눈멀고 무지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단기간 내에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며, 틀린 관념이나 도리를 바꿔 놓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옛 성품과 모든 옛 생활, 사람의 뒤쳐진 사상과 정신적인 면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 생활만 중요시해서는 사람의 낡은 생활 습관이나 오래된 생활 방식을 바꿔 놓을 수 없다. 사람은 어쨌든 실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살아 낼 것을 요구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에 진입하려면 모든 것을 실생활로 향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생활에 진입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생활 속에서 정상 인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실패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실생활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는 말은 인간성이 있어 보이나 귀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며, 입술에만 진리가 있을 뿐 이론으로 사는 사람이다. 실생활 속에서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진입하는 훈련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패역, 어리석음, 비정상적인 인성, 연약한 면 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너의 실제 상태와 실제 어려움에 결부해야 한다. 그래야 너의 인식이 실제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 성품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했으니, 사람은 반드시 실생활에 진입해야 한다. 변화를 얻고 싶다면 먼저 실제 생활에 들어가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 만약 네가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전부 무시하고 그저 영 안의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것은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한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에게 실생활에 진입해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체험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라는 것이다. 이는 전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로 길을 인도하는 데 있다. 나머지는 사람이 훈련하고 진입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진입의 길에 따라 실생활 속으로 진입해야 하며,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진정한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생활이다!

각자의 역할을 다함에 관하여

오늘날 이 흐름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얻게 된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각기 다른 역할에 따라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너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부분이나 두 부분밖에 안 되지만 온 힘을 쏟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은 처세 철학이 적지만, 지혜와 식견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사람의 지혜와 식견을 온전케 하여 채워 줄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성품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 변화받아야 한다. 젊은 사람은 종교 관념과 처세 철학이 적어 어떤 일에서든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이것은 인성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취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은 사리에 어둡고 지혜가 부족한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통해 너희의 분별력이 강해져 영적인 일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점차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나이 든 형제자매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취할 만한 부분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처세 철학과 종교 관념이 많고, 일 처리에 여러 가지 규정이 많다. 또 항상 교조적이고, 기계적이며, 융통성이 없다. 이런 것은 취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침착하고, 성품이 안정적이며,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는다. 깨닫는 것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너희들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절대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순종하면서 따르고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온전케 될 수 있다.

젊은 형제자매든 나이 든 형제자매든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알아야 한다. 젊은 사람은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또 서로의 장점을 취해 단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서로를 섬겨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와 나이 든 형제자매 사이에 우정의 다리를 놓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젊은 형제자매들은 나이 든 형제자매들을 무시하지 않고,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독선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조화로운 협력이 아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너희 세대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는 모두 오늘날 너희의 행위에 달려 있다.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다.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 어떤 시련이나 재앙이 닥치든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에 지금과 같이 절정에 이르거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성령이 전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역대에 거의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계시는 없었다. 너희에게 하는 말과 너희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 모두가 절정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시련이나 형벌 속에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역사가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많은 사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고, 그가 반드시 너희를 온전케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새롭게 깨달았다면 예수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소극적이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 너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선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말라. 일을 처리할 때는 찾고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취약점을 알게 되어도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종교 관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찬송할 수 있는 등등이다. 요컨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소극적인 상태로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것이 첫째이다. 거기에 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에 관하여

성령의 특별한 지시나 인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은 전혀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섬김과 목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의 사역을 위해 분주히 오가며 교회들을 목양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에게서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사역하며, 또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은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목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당시 상황에 쓰기에 적합한 부분을 많이 찾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을 했다.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성령이 쓸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사역한다.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한편,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온전케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선민을 이끌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사람이자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려는 사역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더 많이 충족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직접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임 받는 사람을 일으켜 이런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는 ‘통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집에 있는 어떤 일꾼이나 사도와는 다르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일꾼이나 사도들과 사역의 본질, 그리고 쓰임 받는 배경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역의 본질과 쓰임 받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킨 자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며,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신성으로 역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성으로 협력하는 사역이다. 반면, 다른 일꾼이나 사도의 사역은 그저 각 시기에 교회에 대한 다방면의 지시를 전달하고 실시하는 것이거나,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일부 단순한 생명 공급 사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일꾼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 지정된 자가 아니며, 또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로, 한동안의 배양과 훈련을 거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쓰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진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선발된 자들이므로 일부는 리더가 된 후 실체가 드러났고, 또 어떤 이는 많은 악행을 저질러 결국 도태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어느 정도 자질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며, 성령이 미리 예비하여 온전케 한 사람이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인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사역 면에서는 성령이 지배하고 주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을 인도하는 길에 오차가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역에 책임을 질 것이며, 언제든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실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성품 변화를 위한 것이다. 그의 목적은 너희가 깨닫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인간적인 언어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깨닫고, 무엇을 실행하라고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이해 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이나 사람의 각종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다 짚어 내며, 밝은 달과 같이 구석구석 다 말씀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사람은 많은 문제들을 다 깨닫고 이해했으니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 측면의 진리를 세부적으로 체험하고 상세히 탐색하며 찾아야지, 더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대로 계속 나아가다가는 공짜 밥만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 90년대의 베드로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 속에서 참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더 많고 큰 깨우침을 얻고, 자신의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을 글귀상으로만 이해할 뿐, 실제 체험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글귀만 될 뿐이다. 네가 죽은 글귀만을 붙잡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실제 체험으로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이 너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오직 체험으로만 수많은 진리의 영적인 뜻을 찾아낼 수 있고, 체험으로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풀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하더라도 네게는 그저 공허한 글귀나 도리에 불과하며, 너의 종교 규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실체가 되겠지만,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셋째 하늘에서 온 전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실상,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이자, 하나님께 얻어지는 과정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살아 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실제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생각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잔치에 가서 잔칫상에 어떤 맛난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속에 담아 두기만 할 뿐, 직접 맛보지는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진리와 사람에게 아주 이롭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들어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자양분이자 영양분으로, 정상 인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진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너희의 생명은 더 빨리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수록 진리는 더욱 명확해진다. 너희의 분량이 커지면 영계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진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 의미를 깨닫는 데 만족하고 도리적인 글귀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할 뿐, 실행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작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라”라는 말의 실재를 갖출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생명과 분량이 생길 거라고 여겼다면, 네 인식은 치우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실행했을 때에야 참되게 깨닫는 것이다. 너는 ‘진리는 실행했을 때 깨닫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할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진리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을 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네가 어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 언뜻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저 진리의 글귀를 갖췄을 뿐, 진리의 참뜻을 갖춘 것은 아니다. 진리의 겉껍데기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고는 할 수 없다. 진리의 참뜻은 모두 체험 과정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체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체험 과정에서 진리의 감춰진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며, 체험이 깊어져야 진리의 함의를 포착하고 진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천하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네게 진리가 없으면 많은 종교 인사들을 탄복시키기는커녕, 네 가족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갖추지 못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 같겠지만, 진리를 갖추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다. 그때는 누구도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무너뜨릴 순 없다. 진리가 있으면 천지를 뒤집어엮고 산을 밀고 바다를 뒤엎을 수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한낱 버려지로 인해 무너지는 성처럼 허술할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현재 관건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며, 더 많은 진리의 참뜻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도달해야 할 경지이다. 다른 이에게 너의 글귀에 순종하기만을 강요하지 말고, 네 실행에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사람과 마주치든, 진리가 있어야 굳게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살게 하지, 죽게 하지 않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 같다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네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실재가 있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침체된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지고자 한다면 도리를 갖추고 높은 도리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현재 진입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기간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밝히 알려 준 후에는 너희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실행할 때, 하나님은 다시 깨우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일의 순서는 바로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하게 하지 사람을 치우치게 하는 요소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행했음에도 아직 성령 역사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어린아이뿐이다. 네 마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까지 모르겠느냐? 어째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있겠느냐? 어째서 네가 실행하면 성령의 깨우침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도 감정적으로 일하는 면이 있겠느냐? 네 마음가짐이 정말 올바르고 또 협력도 했다면, 하나님의 영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일부 사람은 늘 일어나 따로 깃발을 날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기만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때는 마음가짐이 올바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많은 진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는 33년 반의 삶 속에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았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만 헤아렸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이다. 그가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의 교훈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따랐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예수의 사례를 통해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예수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었겠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슬퍼하며 기도를 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을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 고난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은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교제 중에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교회 생활을 개선하지 않고 예전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냐? 왜 새로운 생활 방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90년대 사람이 고대 황제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느냐? 너희는 역대에 유래가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지만, 교회 생활은 여전히 큰 전환점을 맞지 못하고 있다. 형식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많은 지역의 교회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보다 훨씬 꿰뚫고 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회의 예배에 대해 손바닥 보듯 밝히 알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이렇다 할 진보 없이 말 그대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이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목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불처럼 뜨겁지만,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얼어붙은 얼음 같다. 실제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몇 없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자도 거의 없다. 그들이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진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도 몇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을 때는 모두 눈물이 그렁그렁하지만 말씀을 내려놓으면 시시덕거리며, 말씀을 떠나면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발한 음성을 보배처럼 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만 조급해할 뿐, 말씀을 외울 때는 힘겨워하며, 말씀을 실행할 때는 말총으로 두부를 들어 올리듯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말씀을 볼 때는

기운이 넘치지만, 말씀을 행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린다. 사실 이런 말을 이렇게 입 아프게 거듭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역에 걸림돌이 되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나로서는 부득불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는 것을 좋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웬만큼 실행했다고, 계시가 절정에 이르렀으니 너희도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너희는 자신이 무엇을 바탕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는구나! 현재 상황을 들어 말하자면, 너희의 예배는 결코 올바른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올바른 영 생활이 아니라 떠돌고 흥얼거리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엄격히 말해, 거기에는 실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더 분명하게 말하겠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실체가 있겠느냐?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늘 사역하던 자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늘 순종하던 자는 고개 숙인 채 말이 없으니 훈련받을 기회는 조금도 없다. 사역하는 사람은 호언장담하며 비실제적인 말만 가득 늘어놓고,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듣고만 있을 뿐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전부 과거의 실행뿐이다! 오늘날 네가 순종할 수 있고,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임했기 때문이지, 네가 체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들을 오늘날 감히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뚜렷한 결실을 맺어 사람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날 네가 거둔 성과 중 네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알려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깜빡거리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많은 실제 체험으로 너에게 공급해 주는데, 어째서 너는 남이 차려 놓은 밥을 먹기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비교적 좋은 사람들에게 직접 검증을 해 보아도 좋다. “당신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실행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당신은 베푸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더 많습니까? 불순한 마음가짐이 생길 때, 옛 자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이 몇 개의 질문으로도 찢쩍떨 것이다. 많은 이가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니 욕을 버리는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커져 가도 내버려 둔다. 모두가 죄를 이기지 못하여 계속 죄에 빠져 살고 있다. 지금 이런 지경인데 자신이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만약 네가 모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솔직히 너희에게는 옛 자아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 아무런 가치 없는

‘마음에서 우리나는’ 통회를 해서 뭐하겠느냐? 그것이 네 생명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알아 가는 것은 너희의 본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에 기반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고 보기 좋은 옷으로 여겨 입기만 한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실행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마디 정도 개인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은 빛 비춤일 뿐, 본인이 직접 실행한 부분이 없고, 본인이 체험해서 얻은 깨달음도 없다. 나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분석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네가 어찌 사탄에 대한 승리를 운운하겠느냐? 어찌 이겼다는 간증을 입에 담느냐? 어찌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 낸다고 하느냐? 전부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오늘날 하나님이 감상이나 하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입으로는 옛 자아를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타산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어째서 마음과 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많이 교통해 쫓는데도 공허한 글귀가 되었으니, 비통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성령 역사의 방식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성령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만 말하고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한다면, 너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극도의 고통을 받은 것은 죄인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 집에 눌러앉아 공짜 밥을 얻어먹지 말고 속히 나가라. 뚜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제하기 어려워한다.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운운하느냐? 무슨 낮쪽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작을 부리니, 음험하고 악랄하며 몹시 간교하다. 설령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내릴지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낮이 뜨겁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홀로 판 살림을 차리는’ 수작을 부리면서도 두렵지 않더냐?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앞날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느냐? 네게 앞날은 진작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늘 무슨 더 큰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냐?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네 본성이 되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천하를 두루 누빌 수 있겠느냐? 누가 너에게 탄복하겠느냐? 네 진상을 아는 사람은 모두 너를 멀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말해, 말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말할 때는 성령 역사가 있지만 실행하지 않을 때는 성령 역사가 없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어찌 앞날을 논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기만 했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얻은 것은 말뿐인 마음이지 진리를 실행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너의 실제 분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느냐? 네 앞날이 암담한데 초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게 이미 실망했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더 많고 새로운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낡아 빠진 것들이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기다리겠단 말이냐?

쓰임 받기에 합당한 목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너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많은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협력하며 섬기는 자는 더욱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생기는 많은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많은 체험이나 진입법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이는 사람의 체험이 너무 단편적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품이 변화될 수 없다. 성령 역사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역사로 이뤄지는 성과를 알지 못한다면 악령 역사를 구분하기 어렵다. 악령의 역사와 사람의 관념에서 나온 것은 반드시 폭로해야 하며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실행상 치우친 부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어려움 등 많은 것 역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짚어 주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사람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야지,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람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과 성령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알며, 그 근원을 포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협력하며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많은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체험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너는 네가 체험한 대로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네가 글귀만 이해했다면 사람들을

글귀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체험했다면 그대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재로 이끌어 진입하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 말씀 속의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일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이끌어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며, 네가 이끄는 사람들도 이상(異象)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초자연적인 느낌을 중시하면서 그런 것을 찾고자 하면, 네가 이끄는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느낌을 중시하며 찾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네가 실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하는 것에 치중한다면, 네가 이끄는 사람들 역시 말하는 것에 치중하고 실행은 조금도 하지 않을 것이며, 성품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겉으로만 열심일 뿐,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끄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이끄냐에 따라 병사(兵士)가 달라진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개인의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깨우침이나 하나님 말씀의 인도, 또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나 말씀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평소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며 받아들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는 모두 너희가 실재에 진입하는 길이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 방식에 진입한다면 매일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환경이 좋은 나쁘든, 시련을 겪든 시험을 당하든, 사역을 하든 안 하든, 또는 개인 생활을 하든 단체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언제든지 모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된다.

체험에 관하여

베드로의 체험에는 수백 번의 시련이 있었다. 현재 사람들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안다고는 하지만 그 참뜻과 상황까지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시련을 통해 사람의 의지를 단련하고,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며, 사람의 각 부분을 온전케 한다. 이 시련은 성령이 은밀하게 하는 사역으로,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사탄의 시험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실 많은 시련은 시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 역사의 원칙이자 법칙이다. 만약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시련을 하나님의 점증으로 여겨 그대로 흘러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한 결코 사탄이 손을 뻗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100%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일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으면 많은 일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릇되게 깨닫지 않을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일을 치우침 없이 다각도로 바라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지 모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원칙이 무엇이고 사탄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면 실행의 길이 없을 것이다. 열정으로 추구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체험 방법은 로렌스처럼 분별력 없이 그저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일 뿐, 무엇이 사탄의 역사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등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지, 현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 가야 할지, 하나님의 긍휼과 위엄, 공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태와 어떤 시대를 대상으로 말한 것인지 등 일련의 일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사람이 많은 이상(異象)을 체험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 생명은 물론 체험조차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어리석게 늘 하던 대로 순종하고 인내할 뿐이니, 이런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위에서 말한 이상을 네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네가 멍텅구리임을 의미한다. 언제나 이스라엘에 우뚝 서 있는 소금 기둥 같으니 그야말로 쓸모없는 폐물인 셈이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무턱대고 순종하기만 하고, 언제나 자신을 인식하며, 언제나 자신의 처세술로 새로운 일들을 처리하고, 언제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천대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인 양 참고 견디기만 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니, 조금의 분별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줄도,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여 줄 줄도 모르니 이런 자는 체험이 없는 사람에 속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다 못해 결국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고도 감히 일어나 정죄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명백히 성령의 역사인데도 감히 일어나 순종하지 못하고, 악령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여기며 조금의 반항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절대 하나님을 위해 중임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러한 체험 방법은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은 확실히 적지 않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며, 또 때로는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의 결점을

보완한다. 이 밖에도 어떨 때는 성령이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비한 환경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없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령은 사람의 말과 행동, 처신을 통해 사람이 과거에 몰랐던 수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며, 많은 일과 사람을 꿰뚫어 보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과거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알게 된다. 네가 세상을 접한다면 점차 세상에 분별력이 생겨, 죽기 전에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동안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식견이 늘 것이며, 네 분량은 점차 커질 것이고, 많은 영적인 일들을 더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과 소유를 받아들여 너의 생명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네가 세상에서만 돌아다닌다면 너는 자기 능력만 믿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쓰겠느냐? 너에게 ‘내가 볼 때는’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갈수록 네 체험은 점점 더 많아진다. 만약 네가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처세 철학을 배운다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이다.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또한 정상적인 영 생활이 없으니 장애인과 같을 것이며, 혼자 죽어라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이는 네 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고,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일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묻는다. 많은 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중얼거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이런 방법으로 유지할 뿐,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거나 체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전혀 모른다. 다시 말해, 되새김이나 묵상, 또는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 뿐, 평소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 이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강도나 짐승이 하는 짓들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할 것이고, 모든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에 점유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지경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한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도의 기준이다.

새 시대의 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진리를 갖춰야 한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하든, 어떻게 하려고 하든 간구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모르고, 소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치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재는 별로 없다. 이는 치우치고 그릇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듯 치우치고 그릇된 모습은 너희에게서 수없이 나타난다. 지금은 너희가 ‘봉사자’ 같은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다른 시련 연단마저 생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한다. 너희가 실행해야 할 많은 것들은 너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서 다해야 할 많은 본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다. 성령이 해야 할 것은 성령이 하면 된다. 사람은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지켜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해야 할 것이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듯 마땅히 계명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지금이 율법시대는 아닐지라도, 율법시대의 말씀과 유사한 수많은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성령의 감동에만 기대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을 대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지켜야지 방자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말할 때는 분수를 지키고, 일을 하거나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증거를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어투와 그 말씀의 목적을 흉내 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대적해서도 안 된다.’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각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특별히 율법과 유사한 수많은 규례를 정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통해 사람의 성품을 통제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찾아낸다.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약시대의 말씀은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을 어느 정도 통제함으로써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지금이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여전히 많으며, 지난날의 규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더 적합한 실행법이 많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령 역사와 관계되지 않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율법시대의 수많은 규례들이 폐지된 까닭은 그런 율법들이 당시의 사역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규례가 폐지된 후, 당시의 상황에 맞는 수많은 실행법이 정해졌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규례들이 되었다. 이 규례들은 오늘날의 하나님이 오자마자 폐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또한 오늘날의 사역에 알맞은 수많은 계명을 정했는데, 그것은 규례가 아니라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훗날에는 규례가 될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오늘날의 사역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너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 훗날에 어떻게 되든, 오늘날 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켜야 할 더욱 좋은 실행 방식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오늘날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즉, 네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음탕하고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온갖 감언이설로 눈앞의 하나님의 신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반항과 대적은 물론, 반박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며, 악인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입과 혀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말해 하나님께 혐오받지 않도록 너의 발걸음을 경계해야 한다. 남이 너를 비웃지 않고 마귀가 너를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전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모른다 할지라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단지 구하면서 교제해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유한 지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오직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서서는 안 되며,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할 때는 모두 사람의 위치에 서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책이니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니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장기간 음성을 발하여 말씀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보고 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길 뿐 어느 누구도 실행을 중시하지 않았고,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너희들의 섬김이 아주 어렵고 번거로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전, 네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대상이다. 그런 것은 모두 성심성의껏 지켜야지, 족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오로지 계명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쨌든 성령이 이렇게 하고 있으므로 거스르는 자는 그 누구든 징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기에 네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네가 오늘날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너를 징벌할 것이다. 성령의 ‘관할 범위 내’에서 거스른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네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착실하게 지켰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오늘날의 하나님 계명을 거스른다면 그는 너를 징벌할 것이고 너를 죽을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데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각 교계와 각 분야, 각 나라와 각 교파도 모두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은 성령이 지금 행하는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된다. 큰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다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가 사람들에게 정한 계명이기 때문이다. ‘길 ... 7’에서 예수가 너를 의로운 자로 정할지, 죄인으로 정할지,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누구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율법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은혜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열납하지 않았다. 네가 이 점을 꿰뚫어 본다면 선불리 죄짓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맞서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맛이 어땠느냐? 달콤했느냐, 아니면 씹쓸했느냐?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니 시치미 뿔 필요 없다.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기분일지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대적한다. 그렇게 대적하고 나면 마음이 칼로 에는 것처럼 아프지 않더냐?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친다. 비록 네 몸은 요행히 죽음을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느냐? 특히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험에 빠져들면서 뭐든 개의치 않게 된다. 죄악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온전케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솔하게 대한다면 너에게는 재앙뿐이다. 즉,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느 순간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다. 이런 계명은 사람마다 중요시해야 한다. 이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끝장을 보려 할 것이다. 이런데도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 실행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루는 사역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지난날 하나님이 말씀했듯,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였으며, 하늘에서 양식과 물, 만나를 내려 사람들에게 누리게 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친히 먹고 마실 것을 내려 사람에게 누리게 하고, 친히 저주를 내려 사람을 형벌한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사역을 전부 하나님이 친히 행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은 사실이 임하기를, 또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과 자양품을 내렸지만 그것을 아는 자 또한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천년하나님나라의 활기찬 광경 역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왕권을 잡는다는 말은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이 아니라면 땅에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소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온 우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 우주의 사역은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나 레이저로 하나님이 발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양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행사이다. 한 가지 명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현하러 오고, 땅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중단했으니, 사람은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예전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굶주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종교계 전반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기에 모두가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니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아니겠느냐? 언젠가는 환갑에 가까운 목사도 전보를 보내 생수의 원천을 찾고 구할 것이다. 연로한 육신을 끌고 와서 한때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이 사람에게 경배할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것이다. 이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끓을 것이며,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얻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나라도, 그런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은 땅에서 나아갈 길이 있게 된다. 반면, 장사를 하든, 과학 연구를 하든, 교육이나 공업에 종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을 두루 다닐 수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바로 이러하다. 하나님은 ‘길’(‘길’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킴)로써 온 우주 위아래를 통제하고, 인류를 다스리며 정복한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더 큰 전환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통제하므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니,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세의 흐름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양분을 얻고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 사람이 아편을 하면 힘이 생기지만, 아편을 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고 온몸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날의 사람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힘이 생기고, 보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진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면 즉시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것이며, 하나님이 땅에서 왕이 된 증거이다.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싫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떠나지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아무리 패역해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위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왕권을 잡을 때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역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며, 그 누구도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집집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전 우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역을 전 우주로 확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확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드러내는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으로 인해 모든 악인이 형벌을 받고 모든 의인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칭송할 것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땅에서 사람이 생생하게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이 육신 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은 육신에서 말씀하고(구약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발한 것과는 다름) 그것을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역주: 천년왕국시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로 나타냄으로써 말씀과 사실이 조금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 된 크나큰 의의이다. 즉, 육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말의 진정한 함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영을 대신하여 음성을 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한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얻으려는 생각은 깨끗이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나타낸 권병으로서 모든 사람이 믿고 복종하게 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전문가나 교계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 모두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복종할 것이며, 누구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려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이 아니라 친히 발한 음성으로 온 우주 위아래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면 모두 탄복을 금치 못하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해 요란하게 떠들어 대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땅에 왔다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실, 굳이 내가 짚어 줄 필요도 없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왔다는 뜻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 생각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이자 천년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즉 말씀이 땅에서 천 년 동안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나타내고,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된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의도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해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의혹을 품거나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을 위해 타산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고, 실령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다음에 그에 따라 실행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하고,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교회를 교란하는 일을 하지 말고,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이롭지 못한 일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광명정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상이 된 것이다.

일을 할 때면 항상 자신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 올바르지 못한 속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며, 네 모든 행동이 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감정이나 개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 처리 원칙이다. 작은 일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분량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진입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책망, 훈계, 징계, 연단이 너에게서 당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앞날을 생각(육적인 것을 생각함을 가리킴)하지 않는다면, 또 생명 진입에 부담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한다면, 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영적 노정에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라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네가 온전케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을지는 모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에 달려 있다. 어쩌면 너에게 연약하고 패역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의 관점이 옳고 마음가짐이 바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그 관계가 육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라면, 네가 얼마나 노력하든 전부 헛수고이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이 올바른지만 본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대체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위해 믿는지, 왜 믿는지 등을 꿰뚫어 보고 관점을 바로잡아 실행할 수 있다면, 너의 생명은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치우쳐 있다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 봤자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야 육을 저버리고, 기도하고, 고통받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형제자매를 돕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등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 될지는 네 마음가짐과 관점이 올바른지에 달려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고 시계를 보는 것처럼 관점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해결해야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어떤 이들은 내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대적하는 일을 저지른다. 이는 교활하고 간사한 태도이고, 이런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전형적인 사탄의 화신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려 온 자이다. 내 사역과 내 말에 순종해야 옳은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네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하든 전부

광명정대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빛 속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가짐과 관점을 바로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이 마련해 준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 그리고 실제의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의견대로 결정하지 말고, 범사에 진리를 찾으며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생명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싶다면 네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되며, 사탄을 좇아서도,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줘서도 안 된다. 사탄이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

너는 사탄의 종이 되고 싶으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 되기 위해서냐? 너는 하나님께 얻어져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으냐, 아니면 무가치하고 공허한 인생을 보내고 싶으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죄악과 사탄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어떤 말과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드느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을 바로잡아 올바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수시로 자신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을 성찰하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해 성령의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가늠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하고,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진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 실제 체험에 진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자신을 저버릴 수 있으며,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수많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탄의 수많은 간계를 꿰뚫어 보고 사탄의 음모를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길로 가야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실제 체험에 더 깊이 진입하여 더 많은 성령 역사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는 것은 대부분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너는 마땅히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얻기 힘들고, 육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으며, 영적 싸움이 없으면 사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조목들을 실행하여 확실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너의 관점도 바로잡힐 것이다. 너희는 현재의 실행에서 ‘떡으로 배 불리려는’ 관점을 버리고, ‘모든 것이 성령께 달려 있으므로 사람은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성령이 역사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사람은 육적으로 절제할 필요 없고, 협력할 필요도 없어. 성령의 감동만으로 다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성령 역사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의지도 없으면서 성품 변화나 성령 역사,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이것을 바로 ‘스스로에게 여지를 주고, 사탄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다. 네가 자신에게서 사탄의 모습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찾고, 지난날의 행실에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도 찾게 된다면, 너는 사탄을 저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새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따지지 않고, 지나치게 통회하지 않으며, 일어나 하나님께 협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 것이다.

네가 이러한 말들을 다 본 뒤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네 관점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거나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모가 이루어지는 것, 곧 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며 관점이 비뚤어진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든 꿈쩍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없으며, 마음속으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영이 없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보고 깨달았다면 실행해야 한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든, 육적으로 연약하거나 거역하고 대적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네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지 못한다. 현재 네가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다. 네가 언제나 말씀을 보고 나서 변화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네 삶이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고 정상임을 뜻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과오에 근거해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네가 깨닫고 이해하여 더는 거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상태는 정상이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생각하여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 집의 사역에 이로우니까?’ 기도하든, 교제하든, 대화하든, 일하든, 다른 사람과 소통하든 모두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마음가짐도 생각도 살피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은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판단할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판단할 수 있다면 너의 관점은 올바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자 인생의 대사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그때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정상 관계를 수립했다는 뜻이다. 이는 육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른 내적 상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얻고, 말씀의 성과가 너에게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너는 올바른 방식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성령의 현재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과거의 낡은 실행법을 고수하지 말며, 지난날의 행실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오늘날의 역사 방식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정상이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실제를 좀 더 중시하여라

누구나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의 근본 취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갖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나 경륜을 상대할 마음조차 없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찍이 이룬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무리들을 택하였는지, 그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무리들에게서 이루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무리들을 일으켰고, 또 오늘날까지 역사하며 온갖 시련으로 온전케 했으며, 무궁무진한 말씀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힘쓰는 존재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행한 이 큰 사역에서 그 사역의 의의가 실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는 사역을 너무 간단하게 보아선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보여 준 것만으로도 너희가 목상하고 알아 가기에 충분하다. 너희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때 비로소 더 깊은 체험을 할 것이고, 생명도 성장할 것이다. 지금 사람이 깨달은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도 미흡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부족함이자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응당 거둬야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령은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너무 얇고, 다들 하나님 집의 사역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겨 행하려 하지 않으며, 언제나 대충 넘기고 공밥만 먹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시류에 영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사역’한다. 오늘날,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온몸의 힘을 다 썼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사람은 해야 할 본분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해야 할 말씀을 다 했지만 사람은 그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여 한참 뒤쳐졌다. 걸음걸음 따르지도 못하고 어린양의 뒤를 바짝 쫓지도 못했다. 또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행해야 할 것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해내지 못했으니 잔치에 참석한다는 말 역시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수포가 되어 사람 스스로의 상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사람은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부 하나님 자신의 행사와 말씀에 기대고 있을 뿐,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적다. 모두가 쓸모없는 폐물과 같으니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수천수만 번 말씀했으나 사람은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육을 저버리고 관념을 내려놓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분별력과 식견을 기르는 것, 마음속 사람의 지위를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워 버리는 것, 자신의 불순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감정에 따라 일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말할 때 하나님의 이익과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 집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 개인의 육적인 누림을 내려놓고 이기적이며 낯은 관념을 버리는 것 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한 이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감동시킨단 말이나? 하나님의 눈에 패역한 자식이 된 주제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려고 손에 든단 말이나?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밥을 먹는단 말이나?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최소한의 본분조차 이행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능력을 다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상가가 아니냐?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재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너희는 더 현실적인 공과를 배워야지, 그럴싸한 고담준론 따위를 늘어놓아선 안 된다. 인식한 것을 말할 때 보면 하나같이 고매하지만, 여전히 실행의 길은 없다. 실행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실제적인 공과를 배운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누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식한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진짜 분량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타고난 총명함과 재능에 불과하다. 네가 길을 가리킬 수 없다면 전부 허사이고, 쓸모없는 폐물이다! 실제적인 실행의 길을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식 아니겠느냐? 자신의 실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여 공과를 배우게 하거나 실행할 길을 갖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가짜 아니겠느냐? 모조품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그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일 뿐, ‘사회주의 실현의 기여자’는 되지 못한다. 실재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것이다. 실재가 없는 자는 폐물이자 산송장이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가’이므로 하등의 참고할 가치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론을 떠드는 입을 다물고 좀 진실되고 참된 것, 실용적인 것을 말하라고 권하겠다. ‘현대 예술’을 공부하고 현실적인 것을 말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고 봉사 정신을 가져라. 말할 때는 현실을 직면해야지, 쓸데없이 부풀리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특별한 시선을 받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할 때는 ‘예술성’에 신경 쓰고, 행동할 때는 공평하게 하며, 일을 처리할 때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말에는 실재가 있어야 하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양심적이어야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위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 실재와 많이 연관 짓고, 교통할 때는 현실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며,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많이 ‘참고’, ‘양보’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관용’을 배워라. 그릇된 생각이 들 때는 욕을 버리는 것을 많이 실행해라. 사역할 때는 실제적인 길을 많이 말하되, 너무 높은 것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적게 누리고 많이 기여하며, ‘공평무사’한 봉사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양심적인지를 잘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날마다 고심하며 말씀하니 그것을 많이 되새기고 잊지 말며, ‘오래된 책력’은 되도록 덮어라. 많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더는 흐리멍덩하게 굴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되 식전을 키워라. 죄악의 손이 뻗어 나올 때는 움크려 너무 멀리 뻗지 말라. 그래 봤자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만 받을 뿐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무기로 늘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라.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많이 교제하고, 생명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라. 말은 적게 하고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여라.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은 적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하여라.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많이 얻어라. 사람의 뜻에서 난 성분을 더 많이 없애라. 인간의 방식이 여전히 너무 많다. 피상적인 방식과 행위는 혐오감만 불러올 뿐이니 더 많이 제거하여라. 심리 상태는 너무나도 혐오감을 들게 하니 많이 고쳐라.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의 자리가 적지 않다. 하나님께 더 많은 자리를 드리고, 억지를 부리지 말라. ‘전’은 본디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공의를 많이 행하고, 감정에는 적게 연연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욕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실재를 많이 말하고 인식은 적게 말하여라. 그러지 못할 바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행의 길을 많이 말하고 무가치한 큰소리는 적게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부터 실행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 사실,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다. 먼저 진리를 실행한 후에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역사의 절차이자 방식인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너의 뜻에 따라 역사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의 부족한 부분에 맞춰 역사하겠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부 헛수고이다. 어째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힘을 적잖게 들였는데도 인식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길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너는 인식이 있으면 진리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견해가 아니냐? 네가 백사장의 모래만큼 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다 한들, 그 안에 실제적인 길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허세가 아니겠느냐? 전부 남을 해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론이 고매할수록 실재가 없기에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이론이 고매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고 대적하게 된다. 고매한 이론을 보배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은 화근일 뿐, 아무런 쓸모도 없다! 어떤 이가 최고의 이론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실재가 조금도 없을 수도 있다. 그 자신이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에

실행의 길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 뿐, 정상 궤도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적어도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봉헌한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늘 비현실적인 큰소리만 치면서 합당하지 못한 수작으로 다른 이를 속박하여 네게 복종시키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점점 더 흐리멍덩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규례가 생겨 사람들이 너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전부 사람의 부족한 면인데, 실로 골치 아픈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말하되,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가져다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너의 교제에서 다른 사람이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네게 실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네가 말을 어떤 식으로 하든 다른 사람을 실행으로 인도하고 실행할 길이 있게 해야 한다. 인식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길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한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실행할 길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너무 멀리 뒤흔쳐져서도,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따라가며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성령 역사를 얻고, 진입할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많이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역하는 사람은 말을 분명하게 하고, 따르는 사람은 고난받고 순종하는 것을 많이 중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똑똑히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치우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사역 방식에 진입하는 것은 너희가 응당 실행해야 할 일이자, 제일 먼저 진입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하나님 집의 사역을 하는 것은 너희의 직책이고, 오늘날의 사역 방식에 진입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며, 오늘날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너희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연관되어야 한다. 계명을 지키면서도 진리 실행이 되고, 진리를 실행하면서도 계명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계명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한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서로 연관되며 모순되지 않는다. 진리를 실행할수록 계명의 본질을 더 잘 지킬 수 있으며,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이해하게 된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킨 후에야 진리를 실행할 수 있었으며, 그래야만 성령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그저 올바른 행동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점차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아야 계명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그렇기에 계명만을 지키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이고, 진리가 없이 계명만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계명은 율법이 되어 네 생명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구약의 율법처럼 너를 단단히 묶아매어 너는 성령의 함께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실행해야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기 위함이다.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더 많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때 계명에 내포된 실제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한 목적과 의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규례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다. 너는 생명이 자라는 만큼 계명도 지킬 수 있다. 비록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계명의 본질은 오직 생명 체험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완벽해. 이제 들림 받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너무 지나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진취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며,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 하는 억설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진리만 실행하고 실제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런 사람은 다리 한쪽이 없는 불구자와 다름이 없다. 또한, 마치 규례를 지키듯이 계명만 지킬 뿐 진리가 없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눈 한쪽이 없는 불구자와 같다. 계명을 잘 지키고, 실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면 진리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제 분량도 생긴 셈이다. 그것은 실행해야 할 진리를 실행하면서 계명도 지킨 것이니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는 사람의 생명 체험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큰 줄기이다. 사람은 체험할 때 계명 준수와 진리 실행을 동시에 진행해야지,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고 연관성도 있다.

새 시대의 계명이 반포되었다는 것은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오늘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하나님 사역의 새로운 기점이자, 6천 년 경륜 중 마지막 부분 사역의 시작이다. 새 시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경지에 들어갔음을 상징한다.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예수가 유대 민족 가운데서 사역했듯, 하나님이 땅에서 더 실제적인 사역, 더 큰 사역을 더 많이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이는 이 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더 큰 사명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실제 공급과 양육, 보살핌, 붙들, 보호를 받고, 더 실제적인 훈련과 말씀의 책망 및 깨뜨림, 나아가 연단까지 받게 될 것임을 뜻한다. 새 시대 계명의 의의는 참으로 깊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땅에 나타나고, 땅에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육신으로 그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예고하며, 실제의 하나님이 땅에서 더 실제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대상을 온전케 할 것임을 예시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성육신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올라 크게 높임 받고, 만국 만민은 크게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사실을 실현할 것임을 말해 준다. 새 시대의 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사람이 본분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계명이 상징하는 의미는 사실상 매우 깊어서 한두 마디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새 시대의 계명은 여호와가 반포한 구약의 율법과 예수가 반포한 신약의 규례를 대체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더 깊은 공과이며,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새 시대의 계명은 실제적 의의의 일면을 지니며,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교차점이다. 새 시대의 계명은 옛 시대의 모든 실천 방식과 규례, 예수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있던 모든 실천 방식을 종결지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되도록 더 실제적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으며, 이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기점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시대의 계명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지,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건성으로 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새 시대의 계명은 사람이 오늘날 실제의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다시 말해, 영의 본질에 더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로 나타날 때, 사람을 죄와 의로 판정하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한다. 계명은 알기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필요하며, 사람의

타고난 총명함이나 영리함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새 시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는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도 있는 공과이다.

진리 실행은 생명 성장의 노정이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론만 있을 뿐, 실제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사람의 분량을 가늠하는 표징이다. 너의 진리 실행 여부는 너의 분량 유무에 직결된다. 만약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며, 감정적이고, 육적인 것을 좇는다면, 계명 준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가장 깊은 공과이기 때문이다. 시대별로 사람이 진입하고 인식해야 할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또 시대마다 서로 다른 계명이 진리와 함께한다. 사람이 실행하는 진리와 준수하는 계명은 시대와 관련이 있다. 시대마다 모두 실행해야 할 진리가 있고, 더욱이 지켜야 할 계명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포한 계명에 따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 이뤄야 할 목적과 성과도 달라진다. 계명은 진리를 위해 존재하며, 진리는 계명을 수호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진리만 있다면 하나님 사역의 변화는 언급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계명과 결합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느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람 또한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시대 사람들이 실행했던 많은 진리는 실행할 수 있지만, 새 시대의 계명은 얻지도,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낡아 빠진 방식으로 살고 있는 원시인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방식이 없다. 게다가 그들은 새 시대의 계명을 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없다. 그것은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속 빈 달걀과 같다. 그러면 영이 없는 것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새 시대에 진입하지 못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옛 시대의 진리만 있고 새 시대의 계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오늘날의 진리를 실행하지만, 오늘날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들이 실행하는 진리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진리 실행은 반드시 오늘날의 성령 역사 방식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즉, 오늘날의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며, 이것을 떠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 역시 새 시대의 계명이 반포된 실제 의의이기도 하다. 계명을 잘 지키려면 최소한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계명의 원칙을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킴에 있어 함부로 지키거나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되고, 근거와 목적, 원칙이 있게 지켜야 하며, 먼저 이상(異象)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네가 오늘날의 성령 역사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 역사 방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일도 자연히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네가 새 시대 계명의 본질을 참으로 꿰뚫어 보고 잘 지킬 수 있을 때면, 그때 너는 온전케 된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실제 의의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새 시대 계명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실행해야 할 진리도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며, 계명 준수를 통해 이뤄야 할 성과도 점점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진리 실행과 계명 준수를 동시에 실천해야 하며, 누구도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시대에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계명과 함께 발맞춰야 할 것이다.

실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 하나님에 대해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실제 하나님 자신을 구성하는 것은 영, 사람, 말씀이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진정한 함의이다.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은 알지만, 영의 역사와 영이 육신에서 행한 것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실제 하나님의 몸에서 행한 사역은 모른 채 영과 말씀만 중시하며 영 앞에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네가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며, 성령 역사의 법칙과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말씀이 영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아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접하는 영의 선포와 관련된다.

영의 선포는 어떤 면이 포함되어 있을까? 때로는 인성으로, 때로는 신성으로 사역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영에 근거한다. 영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사역과 신성을 통해 하는 사역,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다양한 상황에 따라 영의 사역 역시 다르다. 인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영이 인성을 지배하여 사역하고, 신성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신성으로 사역할 수도 있다. 인성 사역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육체적 요구를 만족시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왔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접촉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신성 사역은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끌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영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음을 진실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 생명의 성장은 주로 신성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성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성품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다. 거기에 인성의 사역, 즉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목양, 붙들, 공급이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언급한 실제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실제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의 사역과 생활도 있고 완전한 신성의 사역도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에 이른다. 또한 인성의 사역과 신성의 사역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지므로 인성에서든 신성에서든 다 말씀한다. 인성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적인 언어는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고,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는 자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신성으로 사역할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 하지만 신성 사역에는 공급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고, 인성의 취향과 무관하고 인성의 제약이 없다. 또한 정상 인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은 같지만, 이는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성 사역만 받아들인다면 한쪽 범위에만 국한되기에 오랜 시간 책망과 훈계, 징계를 거쳐야 약간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함께함이 없는 자는 고질병이 재발하게 된다. 이는 신성 사역을 통해 그 폐단과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완전해지게 해야 한다. 장기간의 책망과 훈계가 필요 없이 긍정적인 면으로부터 공급하고, 말씀으로 모든 결점을 보완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모든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사람의 생활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배하여 사람의 속셈과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하는 실제 사역이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의 인성 앞에서 순종하고, 신성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정상 인성을 통해,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인성의 사역을 지배하고,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너는 하나님이 인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실제적 의의이다. 네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하나님의 각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으니 신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중시하지도, 인성의 사역을 지나치게 경시하지도 않을 것이요, 극단으로 가지도, 길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실제 하나님의 함의는 신성의 사역과 영의 지배를 받는 인성의 사역을 육신을 통해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인성에서 하는 사역은 과정 단계가 있다. 먼저 인성 부분을 온전케 함으로써 인성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해 교회들을 공급하고 목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일면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성 사역의 원칙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인성 사역에 대해 쉽게 관념이 생기지 않는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영은 틀릴 리 없고 모두 정확하다. 하나님은 실수할 리 없다. 신성의 사역은 인성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성으로 하는 사역 역시 정상적인 인성이 하는 것인지를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기에 마치 정상인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주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육신을 통해 하나님 영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실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앎은 너무 단편적이고, 성육신의 의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포하는 것이 참으로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 즉 어떤 원칙에 따라 인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고, 신성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이 사람을 경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 알아야 할 점이다. 사람은 육신을 통해 영의 본질을 알게 되고, 영이 육신으로 하는 신성의 사역과 인성의 사역을 알게 되며, 육신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지배하는지, 어떻게 육신에서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게 된다. 바꿔 말해서, 육신을 통해 하늘에 계신 영을 알게 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사람의 고정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영의 신성 사역과 인성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계시와 목양을 받고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 이것이 영이 육신에 온 실제 함의인데, 주로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내면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 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실제 하나님의 행사 등에 대해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금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에 온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 이 몇 가지를 반드시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의 분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너희는 생명 체험 속에서 차츰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꿰뚫어 보고 뚜렷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영의 사역 원칙을 파악하고 실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자 실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육신의 실제적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음을 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선포로 사람을 정복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명을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넣어 사람을 그의 어떠함(인성의 어떠함이든 신성의 어떠함이든)과 그의 말씀의 본질로 채워서 그의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 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다루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드러내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한다. 실제 하나님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더러운 땅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께 얻어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실제 하나님을 뜻대와 본보기로 삼아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따라 실행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간극 없이 그가 말씀한 대로 실행하고, 그가 요구한 것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이 네게 요구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은 네게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네가 실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큰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으로 영의 사역을 하고 사람의 뜻대가 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보여 줌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주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형의 영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그를 살아 낸 사람이요, 그에게 얻어진 사람이요,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음성을 발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저 공허한 이론으로 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실체가 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주로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을 위해 뜻대를 세우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만지고, 볼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설임 없이 한번 쪽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체가 있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명이 되고, 너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비로소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네게 진정 인식과 실제 분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검증을 견디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억지로 만들어 낸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실제와 생명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봉사자의 시련’을 예로 들어 말하겠다. ‘봉사자’에 관한 이론적인 인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들어 보면 인식한 깊이도 얕지 않아 서로 경기장에서 경쟁하듯 말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큰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간증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어찌 됐든 사람이 살아 낸 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인식한 것과 일치한 구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실제 분량도 생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인식한 것을 실제에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분량은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기 그지없고, 실제는 너무도 적어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부분이 너무 적고, 모두 강제로 살아 낸 것이기에 나는 사람에게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시련이 임하기 전에 한 말에 불과하다. 언젠가 갑자기 시련이 임하면 사람이 한 말과 실제는 또 한 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여전히 사람에게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다. 네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임해 네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면, 그것은 너에게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나타나기 전까지,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준엄한 검증이며, 크나큰 시련이다. 너는 이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늘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사람에게 선택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때는 항상 진상을 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네가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너에게 실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너는 정녕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있느냐? 큰 시련이 닥쳐 왔을 때 정말 굳게 설 수 있느냐? 누가 “절대 걱정 마세요.”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누가 “어느 누가 의심할지라도 저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시련을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는 늘 큰소리를 친다. 이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결점이 아니라, 현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너희들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몇 곳을 찾아가거나 일부 형제자매를 방문한다면, 너희는 분명 수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의심도 없는 듯 얘기할 것이다. 내가 만약 “오늘날의 사역이 진정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확신하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너는 분명 “조금도 틀림없는 하나님 영의 사역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대답한 후,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며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실체가 없으며, 자신이 뭔가를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시련 속에서 똑바로 서지 못한다. 교만하고 자신을 크다 하는 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말은 누구보다 잘하지만, 실행은 제일 형편없다. 그들은 몹시 작은 일에서도 곧바로 의심하거나 나갈 생각을 하며 실체가 전혀 없다. 그저 종교보다 높은 이론만 갖추었을 뿐,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한 실체는 갖추지 못했다. 나는 이론만을 말하고 실체가 없는 사람을 가장 혐오한다. 평소에 사역할 때는 누구보다 크게 외치지만, 실체가 임하면 바로 주저앉으니, 이것이 실체가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가 쳐도 굳게 서서 의심하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굳건히 서서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진실로 인식과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흘러가는 대로 따르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운 것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말할지라도 너에게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공허한 글귀를 너무 일찍 외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알고 있느냐? 나중에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베드로가 했던 일을 반복하는 역할을 맡지 말라. 그런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실제 분량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지만 사실이 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친히 형벌하지 않았다. 그러자 혹자는 이러한 시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죄악의 손을 점점 더 크게 뻗친 것이다. 이런 시련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슨 더 큰 시련이니 실제니 하는 것을 운운한단 말이나? 이는 전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 아니냐? 실체는 네가 있는 척한다고 생기는 것도, 인식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네 실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에 달린 문제다. 알겠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실체를 말로 할 수 있는 걸로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무 간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또 생명 진입에 대해 말씀했겠느냐? 왜 변화에 대해 논했겠느냐? 실제에 대해 공리공론을 늘어놓기만 한다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나라의 정예병은 실체를 말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소리만 치는 사람도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좌절이 와도 굽히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한 실재이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한 실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다고 해서 실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대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람이 이론 성과가 없다. 누구나 베드로가 받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더구나 베드로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 살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실재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실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것은 궤변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말로,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말을 없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깨닫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으로서, 실제적인 인식은 물론, 실제 분량도 없다. 그런 자는 식견과 실재가 없는 사람에 속한다. 즉, 하나님 말씀의 본질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방인’에 속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재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이방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살아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실재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살아 내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실재는 너무 얄팍하고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비천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너무 많은 것이 결핍되어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대대적인 검증 사역을 하여 누가 인식만 말하고 길을 가리키지 못하는지, 누가 쓸모없는 폐물인지 알아볼 것이다. 앞으로 명심하여라! 공허한 인식을 말하지 말고, 오직 실행의 길과 실재만을 말해라. 실제적인 인식에서 실제적인 실행으로 옮겨 가고, 실행에서 실제적인 살아냄으로 옮겨 가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말도, 소위 실제적인 인식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 너의 인식이 길이라면 얘기해도 되겠지만, 길이 아니라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말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몇 마디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다른 이의 부러움을 사려 한다면 그것은 네 야심이 아니겠느냐? 고의로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겠느냐? 체험한 후에 인식을 말한다면 그것은 허풍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체험 과정에서는 수많은 일을 이겨 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을 버리지도 못하며, 늘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낮췄으로 이론이니 인식이니 하는 것을 거론한단 말이냐?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무슨 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말한단 말이나? 후안무치하구나! 허풍을 떨고 큰소리를 치는 게 본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 언제든 식은 죽 먹기처럼 술술 말을 꺼내며, 실행 과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꾸미니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수작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은 잘 모르고 분별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지하게 대하므로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아마 형제자매들은 모두 너를 옹호하고 네 인식에 칭찬을 늘어놓으며 탄복을 금치 못하겠지만, 네게 실체가 없다면 성령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네게서 흠을 잡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너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몹시 힘들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실행의 실제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이냐? 실제의 길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이냐? “큰 도리나 무가치한 큰소리는 적게 해야 하는데, 가장 좋기는 지금부터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잊은 것이냐?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이나?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안다는 것은 주로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주요 직분이 무엇인지, 그가 땅에 와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이 땅에 와서(말세를 가리킴) 본보기를 제시한 후 떠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보기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제시한다. 즉, 각지에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이다. 말씀만 함으로써 땅이 말씀의 세계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이상(異象)을 환히 알게 한다. 말세에 성육신으로 땅에 온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한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율법시대를 끝내고 낡은 것들을 모두 폐하였다. 예수는 와서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다.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냈다. 그는 와서 주로 말씀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빛 비춤과 깨우침을 줘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버린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단계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러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사람 마음속에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으니 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육신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이번에 와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속량받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수가 이미 그 단계 사역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와서 은혜시대를 끝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모든 관행을 폐하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와서 주로 그의 실재를 나타낸다. 예수는 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권능을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 약간의 예언으로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게 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지금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예수가 왔을 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으며, 하나님이 이번에 온 것은 그가 이번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그는 늘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일 뿐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모두 설명해 주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알려 주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함을 모두 나타내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고지상함을 보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지고하지만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감춤 수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영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며, 또 어떤 말씀은 제3자의 위치에서 한 것이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모두 말씀을 통해 사람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정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이 무리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 속에 빠져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에는 사람에게 관념도 시련도 없었다. 예수가 행한 많은 일들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했기에 사람은 모두 그를 따랐고, 그에 대한 관념도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기에 이들을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이 바로 이 환난을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과 사랑, 고난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모두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행위와 태도에 근거해 말씀하고, 현재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근거해 말씀한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늘날 진입하고 실행하며 깨달아야 할 것만 말씀한다. 오늘날 만약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돌아온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고, 악령이 예수를 모방하여 행한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그 뒤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온 것처럼 말이다. 만약 메시아가 한 명 더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가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시대에 이름은 하나뿐이며, 모든 이름은 다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항상 예수와 같아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가 행한 것과 똑같이 말세에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의도, 가치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만 행한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칠 때마다 악령이 곧이어 모방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방식을 바꾼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면 악령이 이를 모방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같지 않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며, 병을 고치지도 않겠느냐? 만약 예수가 율법시대와 똑같은 사역을 했다면, 그가 은혜시대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가 율법시대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누구도 그를 핍박하지 않고 옹호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여전히 예수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오직 말세에 다른

부분의 사역을 행하여 그의 경륜 중 일부를 대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이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영의 위치에서 말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제3자의 위치에서도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돌려세우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다. 하나님은 주로 이 사역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사람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임을 알게 하고, 사람 마음속의 예수 형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사람을 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내면에서 오래되면 우상에 속하게 된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하고, 약간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을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부 사역만 행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일부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패괴 성품을 폭로하며, 사람의 종교 관념, 봉건적인 사상과 낡은 사상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심판하며, 형벌하고, 온전케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말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 나타냈다. 사람의 자질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사역했던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보았다.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 주면 사람은 거기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역하여 사람의 앎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제로 너의 종교 관념을 대체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이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일부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든가, 소돔을 멸할 수 있다든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가 등등 이런 것들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이러한 삶을 얘기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이적과 기사를 보기만 기다리고, 대재난이 언제 오는지만 기다린다. 그렇다면 네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대재난이냐? 대재난이 내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대재난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냐?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했을 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모두 바르지 않다!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 된’ 이 사실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에서 실제로 사역하여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접하게 하며, 그의 실제 행사를 보게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는 시대별로 구분된다는 것도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 준다. 이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 시대에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나타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거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역하는 시대가 다르기에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와 사역 절차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행사 역시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에 행하는 실제 사역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앎이 생기며, 그러한 앎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단계 사역에서 주로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지 말라. 볼 수가 없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은혜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말세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말세에 초자연적인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너는 단지 정상인과 똑같은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행사를 나타내고, 한 시대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나타내며, 각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행사의 일부만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가 나타내는 행사 또한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욱 견실하고 진실하게 믿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며 전능하여 측량할 수 없기에 그를 믿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 너의 관점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악령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을 혼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역과 말씀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지, 그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나서야 그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앎으로써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식을 쓰며,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재를 깨닫고 그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앎으로써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앎으로써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네게 행한 모든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높여 주심이자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 사역의 중점을 이 사람들에게 두었다. 너희에게 모든 심혈을 다 쏟았으며, 온 우주의 영의 사역을 거두어 모두 너희에게 쏟아부었다. 그래서 너희가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 즉 그의 선민에게서 너희에게로 옮겨 왔고, 그의 계획에 담긴 근본 취지를 너희를 통해 모두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너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란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 모두 이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그 진정한 함의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그것의 잔혹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에게 이뤄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사역을 펼치므로 그의 모든 사역이 강력한 저지를 당하게 되며, 그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데, 이 역시 ‘고난’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받는 고난, 사람의 자질, 이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탄 성품으로 인해 정결케 하고 정복하는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영광을 얻고, 그의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는 의의이다. 즉,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복 사역을 하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더러운 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더러운 땅에서 영광을 얻고, 더러운 땅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가 했던 그 사역처럼, 그를 핍박하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는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 영광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사역하는 곳, 그의 육신이 사역을 행하는 곳에서 영광을 얻으며, 그곳에서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경영이다.

몇천 년에 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육신을 입고 행하는 사역은 두 부분이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세에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무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너희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사람이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한 부분은 너희에게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영광 중의 한 부분을 모두 너희에게 베풀어 이어받도록 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자 일찍이 정해 놓은 계획이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이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한 이 큰 사역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일찌감치 큰 효과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특히 ‘하느님(원문: 上帝)’을 믿고 받드는 서방의 선교사들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가 그 단계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이 단계의 사역을 다른 곳에서는 완수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지하고 국가도 인정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너희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더 큰 난관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척, 부모, 친구, 동료, 그 누구도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지 않을’ 때, 너희는 아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의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너희가 받은 것은 역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받은 것보다 많으며, 심지어는 모세와 베드로보다도 많다. 복은 하루 이틀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너희는 연단받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한 수많은 진리를 갖추어야 한다. 정의를 바라보며, 굽히거나 흔들리지 말고, 죽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지를 갖고,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며, 패괴를 치유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지배에 따르고, 원망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너희에게 무언가를 받아 낼 것이고, 또 너희에게 합당한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이치에 맞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왜 그렇게 늘 높은 기준과 엄격한 요구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해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더러운 땅에서 극심한 해를 입은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매하고 식견이 없으며 비이성적인 많은 이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더 이상 대적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도 겪어 보지 못한 고통을 감내했고, 사람 대신 수없이 많은 굴욕을 당하였다. 그런데 더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지연될 것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의 사역과 영광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든 대가를 불사한다. 이것이 바로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어야만 비로소 그의 사역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얻는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손길 역시 선민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의 영광도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계획 역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이미 파괴되고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을 변화시키고, 창조된 후 사탄의 손을 거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담이나 하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빛이나 각종 동식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을 정결케 한 후 다시 얻어 그의 소유물, 나아가 그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사탄을 저주하여 무저갱에 던져 버리는 사역도 아니다. 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에 행하는 사역의 실상이므로 너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과 다르고, 그 기묘함과 지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번 사역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아니라 그가 창조한 만물을 변화시키고, 사탄에 의해 더럽혀진 만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담긴 모든 의의이다. 여기까지 보고도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는 진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분별력이 너무 부족한 까닭에 실생활 속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꿰뚫어 보지 못해 어떻게 실행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체험이 너무 얇고, 자질이 부족하며, 진리를 깨닫는 정도 또한 한계가 있어 실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줄 모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생활은 생활일 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다들 이렇게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개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종교 관념에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 변화가 생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잘못된 관점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저 종교의 오래된 규칙에 따라 믿고, 생활과 처세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처세 철학에 따라 행한다. 열 사람 중 아홉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새사람이 되려는 자는 아주 드물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대하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

예수를 믿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금방 믿었든 오래 믿었든 사람들은 모두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기량을 펼치며, 기존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만 더했을 뿐, 성품 변화는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전혀 커지지 않았다. 사람이 추구하는 바 역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믿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순종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정한지 거짓인지 모르겠고, 믿는 등 마는 등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어리병병하게 죽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오늘 실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상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저 복만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깨우침과 개인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이 가장 참되어 아무도 그 사랑을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너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체험을 통해, 너의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너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날 때면, 너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살게 된다.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야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개개인의 책무이다. 너희는 현재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탄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마땅히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말하고 일할 때 하나님 집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병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생활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사람의 실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적잖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는 매우 하찮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이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두 천사장의 후예가 되어 날이 갈수록 파괴될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정결 과정을 거쳐 개인의 많은 속셈과 목적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전혀 쓸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을 사람에게 전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들이 말하듯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네가 그저 인식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인식에만 머물러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너는 살아 내는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네가 그저 도리만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일일 뿐이다. 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실행하고 살아 내야만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인식을 말할 수 있지만 죽을 때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이 한평생 헛되이 살았다고, 부질없이 살았다고 한탄한다. 그저 도리만 알았을 뿐, 진리를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줄 몰랐고, 외적으로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진실로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왜 오늘의 기회에 자신이 좋아하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느냐? 왜 꼭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생전에 진리를 위해 고통받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설마 죽을 때 평생의 여한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란 말이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사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일에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줄곧 엉뚱한 데 마음이 쏠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는 않고, 언제나 육체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녀 결국에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고뇌와 어려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괴롭힘이 아니겠느냐? 육체의 패괴가 아니겠느냐? 너는 그저 입만 놀리면서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뭔가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농락하지 마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일곱 우레가 크게 울리다 —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갈 것을 예언하다

나는 이방에서 사역을 확장하고, 전 우주 아래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의 뜻은 별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깃들어 있으며, 모두가 나의 지배에 따라 내가 나누어 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또 다른 세계로 인도했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뒤 내 원래 계획 중 다른 한 부분의 사역을 시작해 사람이 나를 더 깊이 알게 했다. 우주 전체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침 내가 사역하기 좋은 때이기에 나는 분주히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의 새로운 사역을 행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므로 나는 새로운 사역을 가져와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했으며, 내가 도태시키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을 버렸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한 단계 사역을 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바람 속에서 흔들리다가 그 바람에 따라 소리 없이 날려 갔다. 이것이 내가 하는 ‘키질’이며, 내가 바라는 바이자 나의 계획이기도 하다.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느새 ‘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서둘러 내쫓지 않고 적당한 때에 흩어지게 한다.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생명의 기원이 되었으며, 따라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무화과 열매와 백합의 향기를 얻는다. 사탄이 사는 땅, 먼지에 속하는 땅에는 순금이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모래뿐이기에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 너희는 내가 얻으려는 것은 제련된 순금이지, 모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악한 자가 어찌 내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여우가 나의 낙원에 기생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것들을 쫓아내지만, 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른다. 내가 이 기회에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가야 한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내게 봉사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은 복을 얻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몸을 돌려 영광의 얼굴을 ‘이방인’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서 살면서 스스로 심판하게 하는 한편,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사람이 모두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나의 사역을 확장한 뒤였다. 나는 사람에게 내 뜻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나의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사람이 나를 바짝 따라 나의 사역에 협력하고, 온 힘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께 하게 했다.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 역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나의 영광을 다른 세계로 옮겨 간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또 후회하면 ‘믿음’에 속한 더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 준다. 이것이 나의 사역 원칙이다. 영광은 가나안을 떠날 때도 있고 선민을 떠날 때도 있으며, 더욱이 온 땅을 떠날 때도 있다. 따라서 온 땅이 어두워져 빛을 잃고, 암흑으로 뒤덮여 가나안 땅에조차 태양이 비추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모두들 가나안 땅의 향기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한다. 내가 새로운 하늘땅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칠혹같이 어두운 온 땅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고 온 땅이 그 빛을 따르게 된다. 나는 온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빛의 위력에 힘을 얻게 하고, 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할 것이며, 내 영광이 다시 열방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 왔고, 이미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동방으로 가져왔음을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동방에서 나왔고, 은혜시대에서 오늘날로 옮겨져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떠났고 또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왔다. 동방의 빛이 점점 밝아 올 때 어두웠던 온 땅이 조금씩 밝아지면 사람은 그제야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에서 새롭게 떠올랐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강림’했다가 이스라엘을 떠난 내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강생’할 수는 없다. 나의 사역은 전 우주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번개는 동방에서 나서 서방까지 번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방에 강림하였고, 동방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온 땅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음성을 발하여 전

우주를 통제할 것이다. 이때 가나안을 제외한 온 땅은 광명이 없고, 사람은 모두 굶주림과 추위에 위협받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영광을 주었다가 거두어 갔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을 동방으로 데려왔으며, 모두에게 ‘빛’을 주어 다시 빛을 만나고, 빛과 사귀고, 더 이상 빛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했다. 나는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빛을 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의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일찍이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왔음을 보게 하고, 뭉게뭉게 떠 있는 흰 구름과 주렁주렁 달려 있는 열매를 보게 할 것이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의 ‘선생’과 사람이 간절히 바라 왔던 메시아를 보게 하고, 역대 왕들에게 핍박받았던 나의 전모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의 사역을 행하고,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나의 모든 영광과 모든 행사를 말세의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또 내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 내가 흰 구름 타고 오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과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전 인류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로써 내가 이미 영광을 동방으로 옮겨 왔으며, 유대에는 더 이상 영광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말세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주 전체에서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동방에서 끊임없이 우레 같은 음성을 발하여 각 나라와 교파를 뒤흔들었으며, 나의 음성으로 사람을 오늘까지 이끌어 왔다. 나는 사람을 나의 음성으로 정복하여 모두를 이 흐름 속으로 빠지게 하며, 내 앞에 복종시킨다. 이는 내가 이미 온 땅에서 영광을 거두어 동방에서 새롭게 비추었기 때문이다. 누군들 내 영광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돌아오기를 갈망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의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빛을 따라오지 않겠느냐? 누군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지 않겠느냐? 또 누군들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누군들 위대한 능력자를 흠모하지 않겠느냐? 나의 음성은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나는 선민을 향해 더 많은 음성을 발할 것인데, 큰 우레처럼 산천을 뒤흔들 것이다. 나는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해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귀한 보물로 귀히 여긴다. 번개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번쩍인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측량하기 어려워하며, 또한 나의 말로 인해 기뻐한다. 모두 갓난아기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경축한다. 나는 음성을 발해 모든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가운데 들어가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나는 영광을 비춤으로써,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오게 하여, 번개가 동방에서 나타났고 또한 내가 동방의 ‘감람산’에 강림했고 땅에 왔음을, 나는 더 이상 ‘유대의 아들’이 아니라 동방의 번개임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여 사람을 떠났다가 다시 영광을 지니고 인간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만세 전에 사람들이 경배했던 자이고, 만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던 ‘아기’이며, 더욱이 영광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나의 보좌 앞으로 데려와 내 영광의 얼굴과 내 행사를 보여 주고,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는 내 뜻의 전부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이고 절정이며, 내 경영의 근본 취지이다. 바로 모든 나라가 예배하게 하고, 모든 입이 인정하게 하며, 만민이 신뢰하게 하고, 만민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과 쓰임 받는 사람의 본질적 차이

하나님의 영은 땅에 임하여 찾고 또 찾으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 왔고, 하나님은 역대로 많은 사람을 사용해 그의 일을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끝내 합당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어 갔다. 결론적으로 전부 사람을 통해 일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사역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사람에게 전개하였고, 오늘날까지 계속 사역해 왔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현현한 적이 없고, 또한 형태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실제 의의를 알게 하는 이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현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뼈와 살, 형태와 모양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 가운데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깊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육신에만 거한다면 사역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일부분 사역을 하고,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직분을 이행한다. 예수처럼 정상 인성으로 일부분 사역을 하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육신을 벗어나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영계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너희는 ‘길 ... 5’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완수하기를 구하라. 나머지는 너와 무관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이 말씀에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땅에 임하여 신성의 사역만을 행한다. 이는 하늘의 영이 성육신 하나님에게 준 부탁이다. 그가 와서 하는 일은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뿐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을 하는데, 기본 목적과 사역 원칙은 사람에게 공급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 생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주요 직분은 영을 대표해 말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육신으로 현현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선포할 뿐, 사람의 사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즉, 인성 사역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땅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항상 사람을 통해 사역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은 직접 신성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영의 음성을 발하며, 영을 대표해 사역할 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통해 사역을 하는 것인데, 어째서 역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했겠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육신으로 사역하고, 예수 역시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양자는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역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람의 처세 원칙을 알고 있었다. 또한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부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재능이 출중하고 천성적으로 총명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은사인 재능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했다. 즉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발휘시켜, 그들의 장점을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생각도, 사유도 없으며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다. 심지어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것도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처세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늘날 땅에 임한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는 사람의 뜻이 섞여 있지 않으며, 사람의 사유도 없다. 그는 직접 영의 원 뜻을 드러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한다. 즉, 영이 직접 말씀하고 신성이 직접 사역하므로, 사람의 뜻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직접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사유나 생각이 없고, 사람의 처세 원칙도 모른다. 만약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하나님 자신만 사역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땅에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온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인성에서 하나님의 신성 사역에 협력하게 해야 한다. 즉, 인성 사역으로 신성 사역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신성의 사역을 직접 접할 수 없다. 예수와 몇몇 제자들처럼 말이다. 예수는 세상에 있을 때, 낡은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정했으며, 수많은 말씀을 했다. 그 사역들은 모두 신성으로 행한 것이었다. 반면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이 후에 한 사역은 모두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시작 사역을 하여 은혜시대를 이끌기 시작하였다. 즉, 새 시대를 인도하고 옛 시대를 폐했으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반드시 신성 사역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는 땅에서 그가 해야 할 말씀을 다 하고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 사람들을 떠났다. 그 후에 사람의 모든 사역은 전부 그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그가 말씀한 진리에 따라 실행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위해 사역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예수만 사역했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어도 사람은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신성으로 사역하기에 신성의 말씀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석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뒤의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 이후의 사역을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갖고 있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통해 말씀하고 사역하여 신성 사역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 또는 더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보충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인성으로 양육하고 목양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진리 실체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신성의 사역만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접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상인을 통해 이 사역이 완전해지게 하고, 많은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게 해야만 사람의 사유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몇 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을 ‘번역’하여 풀어 주는 것이다. 즉,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바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어쨌든 소수이고, 사람의 이해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 이런 방식을 택한다. 신성의 사역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접할 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 그 말씀들을 확실히 전달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인성 사역만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새로운 기점을 열지 못하고 그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며 옛것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할 말씀과 사역을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서 끝내고, 그 뒤에 사람들이 또 그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고 체험해야만 사람의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 신성 사역은 하나님을 대변하지만, 인성 사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즉, ‘성육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각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친히 말씀을 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사람을

새로운 기점으로 인도한다. 그의 말씀이 끝나면 하나님이 신성으로 하는 사역도 끝난 것이다.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인도에 따라 생명 체험에 진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여 사람에게 새로운 기점을 열어 준다. 이때가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그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인성에서 신성의 사역을 할 뿐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상 인성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 다르다.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정상 인성’은 아내와 남편, 자녀 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으로 정상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생각하는 ‘정상 인성’이란 정상인의 생각과 정상인의 생활이 있고, 정상인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 ‘정상’의 범주에 사람들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있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상 인성’은 인성이 없고, 감정이 없다시피 하며, 마치 육신에 필요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정상인의 외형을 갖추고 정상인의 모습을 지녔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상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던 예수처럼 말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정상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꼭 갖추야 하는 것들의 일부만 갖추는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생활 법칙과 정상인의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갖추야 할 것들이다. 혹자는 성육신 하나님께 아내와 자녀, 가정이 있어야 정상 인성을 갖춘 것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그렇다면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께 아내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남편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자녀가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무계한 논리가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돌 틈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역시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 인성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다. 예수에게 부모와 형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갖추야 할 정상 인성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신성을 대표해 사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없었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그리고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신성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상인’이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만이 신성 사역을 할 조건을 갖추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아내나 남편,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신성 사역을 할 수 없다. ‘사람’에게 필요한 정상 인성만 갖췄을 뿐,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 인성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흔히 사람의 인식과 판이하게 다르며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에는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으며, 사람의 관념과 크게 다르다. 이 단계 사역은 전적으로 신성이 개입해 사역하고, 인성은 조연의 역할만 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친히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직접 말씀이 육신(완전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 되어 자신의 사역을 한다. 또한, 이번에 성육신한 것을 기회로 사람에게 새 시대를 열어 주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을 알려 주어 모든 사람이 그가 말씀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끝난 것이므로, 그는 사람을 떠나고 사람과 이별할 것이다. 더 이상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에 거하지 않고 사람을 떠나 다른 부분의 사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 완성해 나갈 것이다. 단, 그것은 인성에서 행해진다.

성육신 하나님이 항상 사람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는 더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육신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육신을 벗어나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형상을 지니고 사역한다. 땅에 온 하나님은 정상인처럼 죽을 때의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역이 끝나면 사람을 떠난다. 그에게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없다. 그는 사람의 나이 계산법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단계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끝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차서 언젠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야 떠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는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해야 할 사역만 하지, 정상인의 삶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세상의 풍파를 겪는 등 정상인의 갖가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고, 육신에 임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상인의 생활을 하지는 않고, 그저 하나님 경륜의 한 부분을 완성한 후에 사람을 떠날 뿐이다. 그가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정상 인성을 온전케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신성으로 직접 사역하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며, 그의 직분을 이행한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수명과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단계 사역을 끝내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이 얼마나 유지될지, 땅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전부 영의 사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 인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예수는 육신에서 33년 반 동안 살았다. 육신의 수명만 보자면 죽을

수 없는 나이였고 떠나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사역이 끝나자 육신도 거두어들이니, 육신은 영을 따라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을 때 이러한 사역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성육신의 인성은 주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땅에 온 이유는 정상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상인의 삶을 산 후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신성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뜻도, 혈기도 섞여 있지 않으며, 사회성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사람의 사유나 관념은 물론 처세 철학과도 관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의 실제 의의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주된 이유는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번잡한 과정은 없다. 그는 정상인의 체험을 갖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해야 하는 사역에는 정상인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나머지는 그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번잡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 그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성육신한 의의도 따라서 없어지게 된다. 이 단계의 사역이 끝나면 그가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이 끝나고 육신의 직분은 전부 이행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육신에 거하며 사역할 수는 없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해야 하므로 그때는 육신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야 그의 사역이 전면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더 잘 전개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의 계획에 따라 사역한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역을 끝냈는지, 그는 손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가 예정한 길로 인도하므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어쩌면 이후의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하여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영이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실제에 더 잘 진입하여 실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를 사역이자,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니,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봐야 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란 무엇이나? 흑암의 권세란 사람을 미혹하고 패괴시키고 결박하고 통제하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의 기운을 지닌 권세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너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게 되고, 따라서 마음을 완전히 드리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때 너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의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즉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불신자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낡은 규례와 죽은 글귀에 빠져서 살고, 막연하고 어두운 삶 속에서 살게 될 뿐, 하나님께 완전히 정결케 되지도, 얻어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면 삶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을 뿐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어떤 일로 속박을 받으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결박되어 죽음의 분위기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 준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를 끊어 놓거나 당을 짓는 자들은 더더욱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자, 사탄에게 결박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늘 지나친 욕망을 품으며, 이익만을 얻으려 하고 성품의 변화는 전혀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진리 실행에서 언제나 참답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욕을 만족시키는 자 역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며 죽음이 드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 교활하고 간사한 수작을 부리고, 하나님을 무성의로 대하거나 기만하고,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는 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 성품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도 모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먼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네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냐?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됨이 솔직하지 못하고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며, 겉으로는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음험하고 교활하며 하나님께 조금의 충성심도 없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전형적인 예이자 독사의 부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자신을 위해 계책을 세우고, 독선적이고, 잘난 척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자는 사탄을 사랑하고 진리에 반하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언제나 자신과 가정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 헌신하지 못하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풍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은 그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부담을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빛 비춤이 없으며, 그로 인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사탄과 더러움에 물든 자이며 흑암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만약 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싶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면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빛 비추며, 믿음을 더해 주는 것은 모두 순간적이다. 사람이 마음을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 역사는 바로 사라지고 만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성령의 함께함과 성령의 역사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사탄에게 묶여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패괴 성품에 빠져 살면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는 없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요구한 상태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요구한 범주 안에서 살지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너는 분명 사탄의 패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토대와 삶 속의 실체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네게 역사할 것이다. 그때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얼굴빛 속에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영적 상태에 있게 된다. 올바른 영적 상태 가운데서 사는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전제 조건이다. 올바른 상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론할 여지도 없다.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말에 기반해야 한다. 내 말에 따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흑암 권세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바른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실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과 실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진리에 깊이 진입하고 사역에 더 깊이 진입하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은 점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패역 행위도 없어질뿐더러 과거의 관념과 패역을 더욱 증오하게 되며,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러날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육적인 것과 패역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의 관념과 처세 철학, 그리고 자신의 속셈과 타산뿐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고, 사람의 내면이 그의 말씀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유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말씀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저 사탄에게 점령당한 구더기에 불과하다! 너 스스로 가늠해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느냐? 너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점유되지 않았다면, 너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 점유되었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사탄에게 통제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점유되고 있느냐? 네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뤄진 것이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을 받아 부정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순전히 방해만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몇 번이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또 몇 번이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게 요구한 것 중, 어떤 것들이 네게서 이뤄졌느냐? 어떤 것들이 네게서 허사로 돌아갔느냐? 너는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어째서 사람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하겠느냐? 정상 궤도에 진입한 사람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을 들여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인류는 줄곧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수천 년이나 사탄에게 결박당해 왔기 때문에 이 진입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오늘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흑암 권세에 속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빛 속에서 사는 것인지에 대해 분별하면 진입하기가 쉽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조금씩 벗어날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람 자신의 몫이다.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종교 의식이 아닌 실재를 중요시해야 한다

너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행동함에 있어 규례가 아닌 원칙을 지키고,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모든 행동은 규례가 아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이들은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다른 꿈꾸이를 부린다. 이들이 종교 바리새인과 다를 바 있겠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들은 어떤 일에 맞닥뜨렸을 때 기꺼이 진리를 실천하며, 양심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모든 일을 지혜로이 해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칙 있게 일한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온종일 울상을 짓고, 능청스럽게 불쌍한 척 연기를 하니 정말 못 봐줄 노릇이다! “왜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 마디도 못 하면서 말이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겉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줘야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무성의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모두 위선자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감동이 없음에도 울음을 터뜨리려 한다. 이들은 종교 의식과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그것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나 슬픔의 눈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자들이 발전성이 있겠느냐? 어떤 자는 겸손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얌전한 척 말한다. 또 어떤 자는 순한 양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춰 아무 힘도 없는 양 행동한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정말 그렇단 말이나?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은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놓는다. 또한, 정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인격과 존엄성을 갖추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새 신자들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 한동안 훈계와 깨뜨림을 받아야 한다. 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는 사람이다. 네가 매일 여기저기 복음만 전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데에만 급급해하면서 정작 자신은 규례와 도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종교 인사에 속하며 외식하는 사람이다.

종교인들은 함께 모이면 “자매님, 요즘 어떠세요?”라고 묻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수가 없네요.”라고 따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몇 마디, 몇 자의 말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힌 더러운 것을 뱉어 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장 혐오스럽고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그들의 본성은 모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실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교제한다. 거기엔 솔직함만 있을 뿐 거짓도, 체면치레도, 꾸밈도 없고 세속적인 규율도 없다. 하지만 겉면의 열정이 많고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은 누가 찬송가를 부르면 춤추느라 밥술의 밥이 다 타 버린 것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함과 존귀함이 없고 너무나 경박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재가 없음을 보여 준다. 반대로 영적인 생명의 일을 교제할 때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말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가 죄스러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표면적인 열의나 행동이 아닌, 실재에 진입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적인 좋은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욕을 의미한다. 외적인 행위는 제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의 성품만을 의미할 뿐, 생명을 의미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도 없다. 네가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공급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것이라 여기겠지만,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너는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기호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성격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너의 습관은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것들이다. 하나님께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 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만 행동을 취하는 것은 네가 누구보다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좋은 행위만 있을 뿐 실재가 없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종교 인사이다! 외적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가식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데는 원칙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지 않으면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생명 성장을 통해 큰 붉은 용을 저버리고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큰 붉은 용을 더욱 증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람이며 종교인에 속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가야겠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바탕으로 알아 가야 한다. 치우쳐서도 그릇되어서도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궤변은 전부 종교 관념에 속하며, 편파적이고 그릇된 이해이다. 종교 인사들은 예전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꼬집어내어 지금의 하나님 말씀과 맞춰 보는 것에 가장 능하다. 과거에 성령이 깨우쳐 준 것들을 고수하며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기니, 방해하는 섬김과 낡은 실행이 되었고 완전히 종교 의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인식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이런 인식은 종교 관념이며, 이런 실행은 외식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이란 과거의 낡아 빠진 것(하나님의 과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이 직접 깨우쳐 준 빛 포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며,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종교 관념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 내면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섬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종교 관념이 있는 사람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한 걸음 뒤쳐지게 되면 그 후로는 차이가 점점

별어지게 된다. 그런 종교 관념이 사람을 몹시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자신의 과거 말씀과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시키는데,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단 말이나? 하나님의 과거 말씀을 고수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빛을 고수하며 현재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종교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머리로 가늠할 필요 없이 바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바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했든 현재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날의 사역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 역시 ‘잊어버려야’ 한다. 현재는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이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너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종교 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새로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생기면 그에 따라 시대에 뒤쳐진 낡은 사역이 있게 마련이다. 이 낡은 사역과 새로운 사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한 단계씩 이어진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므로 낡은 것은 당연히 도태시켜야 한다. 일례로, 오랜 세월 사람의 실행과 관례적인 견해에 다년간의 경험과 교훈이 더해져 사람의 마음에는形形色색의 관념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의 본모습과 고유의 성품을 사람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 학설까지 더해져 사람의 관념은 더 쉽게 형성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각종 고정 관념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적 인식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 인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새롭기에 규례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변화와 새로움을 낳는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발현이자 고유의 사역 원칙이고, 그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역 수단이다.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없으며, 사탄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는 규칙이 없는 듯하나 주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와 크게 다르다. 사람은 낯고 익숙한 규례와 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낯으면 낯을수록 더 좋아한다. 아무리 두드려도 꿈적하지 않는 돌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로 어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많은 새 사역과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낯아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백발이 성성한 하나님을 좋아할 뿐, 새로운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나아가 더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6천 년 가까이 새로운 사역을 행한 오늘날, 이러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관료와 그 부인들은 여전히 낯아서 곰팡이가 핀 그 옛날 책과 신문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경영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비록 적대적인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의 ‘입장’이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의 ‘발’은 언제나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패배하는 대상이며, 하나님은 모든 패장의 가장 큰 ‘원수’이자 패배했거나 패배하지 않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승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점차적으로 많은 관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의 관념이 꼭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역 외의 산물을 무더기로 만들어 낸다고 해서 칭찬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사람의 고정 관념과 낯아 빠진 경건한 신앙에 극도로 반감을 품으며 그런 고정 관념이 생긴 날을 거들떠볼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관념들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념은 사람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그 발원지는 사람의 사고와 머리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역의 원뜻은 본래 새롭고 살아 있는 것이지 낯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시대별, 단계별로 나누어진 것이지 영원한 것이나 한 번 이루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낯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잡고 놓지 못한다면, 이는 네 머리가 트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일리가 없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가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순종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가 피조물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모두는 네가 초래한 것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고통과 화근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는 너에게 고정 관념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네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너는 사리 분별을 못 한 채 연구나 분석에만 매달린다.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너의 패역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이다. 작디작은 일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과거에 준 것들 중 극히 일부로 하나님을 공격하다니, 이것이 패역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아예 없으며, 자신의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말과 글을 제멋대로 뽐낼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곱팡이가 핀 고정 관념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더 무가치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합당한 사람이자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종교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종교 관념을 내려놓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섬김이 방해가 되고 교란이 된다. 계속 고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만 보더라도 많은 방식과 사역이 성경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예전에 행한 것과는도 부합하지 않는다. 네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려면 먼저 종교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네 안에 뿌리박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방식은 너의 종교 관념이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네 안에 뿌리내렸다면 너는 진리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네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는 관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관념이 없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다.

몇 가지 질문으로 너 자신을 경계하여라.

1. 네가 아는 것들이 너의 섬김에 교란이 되지는 않느냐?
2. 네 일상생활에 종교적인 관행이 얼마나 있느냐? 겉으로만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네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겠느냐?
3. 너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종교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4. 기도할 때 종교 의식을 없앨 수 있느냐?
5.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6.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에는 종교 관념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고통받는 복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시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람의 본래 자질, 사람의 모든 행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면 사람은 이런 연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지난날,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했었다. 오늘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높여 줌과 긍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말세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복이다. 너희는 체험하였느냐? 사람이 어떤 면에서 고통을 받고 좌절을 겪는지는 사람이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의 시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다. 잘 알겠느냐? 그래서 네가 받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복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예전에 원망의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네가 얼마나 원망했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이 도래하였으니 어제의 일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는 사랑할 수 없다가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노하여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는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지 못하고, 당신께 죄스러운 마음이고, 당신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심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하여 형벌과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거두고 온전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양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예전에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은혜와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과 심판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며,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양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 양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의가 생기지 않는다. 네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할 뿐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기지 않는다. 양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느냐? 이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너희의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으니 어쨌든 죄만 짓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양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마음 깊은 곳의 진실한 느낌을 말한다. “저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다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따를 겁니다. 그분이 저를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저는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꼭 그분을 얻고야 말 것입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평생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거나 양심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왜 예전에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기를 바라옵니다.”라고 했을까? 왜 사람의 양심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수긍할 수 없다면 네가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아라. 잠시

불타오르던 열의가 얼마 가지 못하고 사그라질 것이다.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면 기도할 때 타오르던 열의가 금방 사그라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나? 양심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울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진실로 느낄 때 너의 영이 하나님께 감동된다. 그리고 이때야 네 양심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사람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감동받고,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고무받은 후에야, 다시 말해 이를 체험한 후에야 효과적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일 뿐이다.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에 죄송하지 않을 정도’의 사랑으로는 전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얻을 때, 즉 실제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사랑할 만한 분이고 사랑할 만한 요소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나? 네가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할 수 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 다른 것(가정, 돈, 남편, 아내, 자녀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네가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추구한다면,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만약 네가 아직도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늘 ‘언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 집은 언제쯤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상태에 빠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너와 매우 가까워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적 상태에 있다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말해 준다. 네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항상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만약 많은 사물이 네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네 마음이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당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된다. 우매하고 비이성적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 집의 이익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성품의 변화에 마음을 쓰며 마음이 완전히 올바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교회 명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일한다. 이런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교활하고 간사하다. 그가 한 많은 일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이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려면 첫 단계로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의도는 없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신의 불순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실행 길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지위의 복과 안락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이 꼭 순결하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애모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길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린 후 생명 체험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의 성품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식도 차츰 깊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약간 사랑한다 해도 이는 자발적인 것도, 참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육에서 비롯된 것은 참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감정적인 작용의 산물일 뿐이다. 이는 일시적인 감동에 불과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애모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취향과 개인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는 자발적인 참된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맹목적으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나 해야 할 본분을 좀 이행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이런 사람은 성품이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순결한 것은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지에서 비롯되는 차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자발적인 것임을 증명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분’을 완수한다거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피조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느끼면 자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생명 진입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정체되어 있다면 더 깊이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울무에 걸려들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죄스럽다고 느끼게 한다. 또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벗어 버리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너희들은 모두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 그럼 너는 지금 표면적인 행동을 버렸느냐? 표면적인 행동을 버리고, 방해하지 않으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만 하면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냐? 표면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너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표면적인 행동이 나오는 근원은 무엇이냐? 너의 모든 행위는 네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이냐? 자격을 갖춘 백성이 되고자 함이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네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표면적인 행동을 중시하면 네 마음은 늘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네가 항상 표면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성품이 변화할 수가 없다! 생명이 성장할 때까지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온전케 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믿음과 의지에만 의존한다면 모든 행동이 열정에 불과할 것이다. 즉,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연단과 심판을 겪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 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생명 상태에 비춰 보고, 내가 언급한 문제와 연계하여 실행의 길을 찾아야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기도의 실천에 관하여

너희의 일상생활을 보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다. 예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대충대충 건성으로 했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 지금껏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너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었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기도는 천천히 훈련해야 한다.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도 기도할 수 없고, 평소에 작은 예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큰 예배에서도 기도할 수 없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려 해도 할 말이 없고, 설령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입술만 놀리는 것에 불과하다.

진실한 기도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교제하면 그가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있는 것 같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며, 마음이 환해지고 그가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져 특별히 격려받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 기도를 듣는 형제자매들도 기쁨을 누린다. 네가 그들의 속마음과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다. 진실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너의 기도가 결실을 맺었다는 증거다. 너는 이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 너의 진실한 내적 상태와 성령이 하는 것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게 요구한 것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 말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려고 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당신을 거역해 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오스러울 만큼 패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허송세월했으니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당신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저에게 역사하사 빛 비취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 앞에서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고, 사탄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증거, 당신께서 승리하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네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면 성령도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며, 늘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의 다짐을 열납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 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얻어진다면 최종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너희에게 기도는 실로 너무나 중요하다. 네가 기도하여 성령 역사를 얻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도 솟아난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네가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진심을 털어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네가 격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네 말이 진실하지 않으며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네가 기도를 마친 뒤에 기쁨이 찾아온다면 네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역사했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부족하면 너는 육으로 살게 되고, 사탄에게 잡혀서 살게 되며, 진실한 기도가 없으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규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잠을 조금 적게 자고, 조금 적게 누리더라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한 뒤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열납될 것이다. 네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실천하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왕래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서 증거를 누리실 수 있도록,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저를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흡족게 하며 당신을 제가 추구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가 이런 부담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너희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 기도를 소홀히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 훈련을 잘해야 한다.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에 대한 참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당신 앞에서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속박받지 않고 당신께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저를 온전히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에게 어떤 시련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제 앞길이 밝든 어둡든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죽음에도 구속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만사 만물이 당신 손에 있듯이 저의 운명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일생도 물론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든 없든,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하여라. 네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조금씩 생길 것이다.

어떻게 진실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짐을 포함해 자신의 실제 상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늘 평온히 할 수 있게 지켜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미워하고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기도의 의의는 무엇일까?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이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과정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동받는 기관(器官)이 없다는 뜻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즉 하나님께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다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깨우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의해 빨리 온전케 될 수 있다.

기도는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할까?

사람이 기도를 실천하고 그 의의는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로 결실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외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말을 따라 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으로써 감동받아야 하는 것이다. 기도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더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기도를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요구에 부응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인식이 더해져 하나님이 밝혀 준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기도를 하고 나면 의지와 믿음이 생기고, 인식과 실천의 길이 생긴다. 그래야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기도야말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지에 진입한 것이다.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다음과 같다.

1. 맹목적으로 마음대로 몇 마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속에 부담, 즉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2.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한다.
3. 기도는 상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현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한다.
4. 단체로 기도할 때는 중심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현재 사역이 바로 그 중심이어야 한다.
5. 누구든 대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다.

개인의 기도 생활은 그 바탕에 기도의 의의와 상식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만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된 인식과 하나님 말씀의 실제 체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 생활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묵도,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 등등 이처럼 목적 있는 영적 교감은 모두 정상적인 영 생활에 진입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상태가 나아지고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든, 묵도를 하든, 큰 소리로 외치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하나님이 너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함으로써 네 생명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말한다면, 하나님도 사람에게 역사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활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원한다. 사람이 진심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그에게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과 패역한 성품을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야 하나님도 너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기도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계속 평온히 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어찌면 네가 한동안은 더 새롭고 높은 인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 상태가 퇴보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에도 이르지 못했다면 너의 영 생활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로 인해 너는 본래 가지고 있던 이상(異象)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며 너의 다짐 또한 사라지게 된다. 네 기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의 여부는 네가 영 생활에 진입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실재에 진입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기도를 시작할 때 너는 첫술에 배부를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입을 여는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가 사람의 기도를 이루어 주는 것은 모두 때가 있다. 그는 때로 너의 믿음을 검증함으로써 네가 그에게 충성하는지 살펴보기도 한다. 기도할 때는 믿음과 끈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성령의 감동을 찾지 못하면 쉽게 실의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안 된다! 너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찾고 모색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때로는 네가 실천하는 길이 잘못되었거나, 개인의 마음가짐과 관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의 영이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네가 충성스러운지 보려고 할 수도 있다. 요컨대, 훈련하는 동안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 네가 실천하는 방법에 치우친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네가 진심으로 구하고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를 그 실제로 인도할 것이다. 때로는 네가 진심으로 기도해도 큰 감동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감찰하고 있음을 믿고 굳은 의지로 기도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간사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수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너의 성품이 점차 변화될 것이다. 진정한 영 생활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생활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과정은 사람의 성품이 변화하는 과정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생활은 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의식이다. 항상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영 생활에 들어간 사람이다. 사람의 성품은 기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잘 순종하게 되며, 사람의 마음 또한 점점 정결케 되고 성품도 점차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이니 앞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해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너에게서 긴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 너는 진취적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추구하는 사람임을 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된다. 너는 이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긴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너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직면하게 될 갖가지 사실 앞에서 너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여태까지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실제에 진입하는 것과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라면 모두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 즉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하면서 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것.

2.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

3.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4. 하나님께 얻어질 것.

5.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

이 다섯 가지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나의 말은 모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진정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입의 첫걸음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이 다섯 가지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영 생활에 관련된다. 예전에는 영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영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생활이 영 생활이겠느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내고, 성령이 비추는 현재의 빛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생활이 바로 영 생활이다. 네가 만약 현재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단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다.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성령의 현재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진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운이 나지 않고 늘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지금 너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느냐?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성령의 흐름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상태를 벗어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대세를 따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진취성이 없고 추구하는 기준도 매우 낮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이는 단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 추구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부합한다.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불신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 외에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과 높여 줌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된 인생을 찾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잘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 덕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 눈을 열어 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영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면에 힘이 넘치며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것이고,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정녕 저희를 예정하고 택해 주셨군요. 저는 당신의 영광에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며, 저의 일생과 평생의 정력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참된 순종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너는 이런 체험이 있었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결코 사탄이나 육적인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얻어야겠다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죽어도 여한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내면에 힘이 넘쳐흐를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힘인지는 너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너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의 생명에는 변화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얻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굳건한 편이다. 그런 사람은 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가정이나 세상, 짐, 미래 따위를 멀리 던져 버리고 평생의 정력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았느냐? 만약 네게 이러한 체험이 없고, 이런 기도도 없었다면, 그것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영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혹자는 “제 기도는 당신의 말처럼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저는 당신의 말처럼 그렇게 몹시 큰 감동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묵상하거나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고, 마음도 하나님께 감동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너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다. 그때, 네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게 된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해 봤을 것이다. 다만 그 깊이가 다를 뿐이다. 어떤 이는 “저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교제만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제를 들으면 격려를 받는다. 만약 격려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뜻한다. 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그에게 의지가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무관하며, 그는 깨우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없는 사람이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다음은 보고 너 자신을 평가해 보아라.

1. 너는 성령의 현재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나?
2. 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였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3. 하나님의 말씀이 네 내면에 뿌리내렸느냐?
4. 네 실행은 하나님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냐?
5. 너는 성령의 현재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6. 네 마음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낡은 관념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나?

너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내면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었느냐? 과거의 패괴 성품이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해, 어떤 것을 생명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생명이 없다고 하는지 알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네가 교제하는 내용도,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원한다. 과거에 네가 깨달은 것들이 아무리 순수하고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의 진입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와 만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오늘날까지 따라오지는 못했다. 그러니 이는 말세 사람들의 복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에 발맞추고, 하나님의 자취를 좇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 안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받으며 아무리 많은 길을 달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섬김은 전부 육적인 것과 관념에 속하는 섬김이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종교 관념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상상에 따라, 관념에 따라 섬길 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는 섬김이지, 관념적이거나 육적인 섬김이 아니다.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관념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방해이자 교란이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현재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최신 말씀에 따라 진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사람의 관념과 패역,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 수 있다. 또 섬기는 과정에서 성품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참도를 찾은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도태된 사람은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등 돌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관념 속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졌다.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기회와 성령의 최신 인도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선대에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추구하고 마음가짐에도 달렸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예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최신 사역을 얻은 사람은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오늘날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며,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어째서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늘날 역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으므로 천상천하, 만세와 만대에 너희보다 복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소극적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힘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

오늘날,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 연단은 물론, 하나님이 준 사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을 때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 하는 사역과 베풀어 준 복, 그리고 너희에게 더해 준 모든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종교인들은 너희와 비교가 안 된다. 비록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도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으로 인해 너희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더더욱 자신을 바쳐야 하며,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높여 줌으로 인해 더 힘을 내야 하고, 분량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준 자리에 굳게 서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게 이런 각오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이 곧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며, 성령이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것이 곧 성령 역사의 동향이다. 현재 성령 역사의 동향은 무엇이나?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영 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먼저 마음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말씀을 추구하거나 연구하거나 나아가 대조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만약 예전의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 서적, 혹은 다른 설교집을 보고 싶어 하고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혐오한다. 성령의 현재 빛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여 하나님과

교제해라. 또 네가 어떤 기준에 이를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다져라.

3. 성령의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해라. 과거의 낡은 논리와 도리를 고수하지 말라.

4.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라.

5. 성령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해야겠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대적하였으니 실로 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패역하여 늘 당신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당신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저를 심판하고 형벌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에 따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맡겨 주신 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 원하오니 제가 백성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항상 깨우쳐 주사 제가 모든 행동으로 사탄에게 수치를 주게 하시고, 제가 당신께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해 봤을 것이다. 간혹 예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모든 사람의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를 다지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성령 역사로 얻은 성과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네가 계속 과거의 것을 고수한다면 성령은 네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성을 알겠느냐?

너희는 성령이 현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몇 가지는 성령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려는 것들이다. 즉, 성령이 가는 길로서,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이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진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요구한 목표를 향해 추구해야 한다. 너에게 이러한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켰고 또한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생명 진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이고, 그다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를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다. 현재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목표를 갖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목표를 두고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협력하는 요소가 없고, 진입할 목표를 세워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력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혼자 어찌겠어요?”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며 정상적이다. 네가 자발적으로 찾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네가 추구하지도 진입하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너는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즉, 남편, 아내, 자녀, 돈이나 재물 등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가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모든 사람과 일, 사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것임을 믿게 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성령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느냐? 정상인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는 정상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너는 기초조차 다져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은 성령의 현재 역사의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말, 즉 성령이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지금 성령이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성육신한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가 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의 말씀, 곧 그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성육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든 알아 가는 것이든 모두 그의 말씀에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알아 가고 하나님을 만족케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점차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백성으로 굳게 서서 증거하는 실행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때,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예전에는 은혜와 평안, 기쁨을 구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얻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갖추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태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어떻게 백성의 증거로 굳게 설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일상생활 속에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라.

1. 너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믿느냐?
2.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임을 믿느냐?
3.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4. 너는 하나님이 맡겨 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 준 일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5. 너의 행동은 모두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한 것이냐?

이상의 문제를 통해 현 단계에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가는 길을 따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성령이 가는 길에 대해 밝히 알고 있느냐? 지금 너는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성령의

최신 빛을 따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바라느냐?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자마자 네 내면에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겠다는 다짐이 선다면, 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다짐도 추구하는 목표도 없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지 못했음을 뜻한다.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감에 따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높아졌다. 높아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전에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생명을 추구하며,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얻어지고 온전케 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높아진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사람에 대한 요구는 예전보다 더 쉬워졌다. 하나님은 사람이 봉사자가 되는 것도, 죽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백성이 되라고 요구할 뿐이다. 그러니 쉬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지금 말하고 있는 생명 진입은 예전보다 훨씬 명확해졌다. 예전에는 모두 아리송하여 진리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알아듣는 자,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고 성품이 변화된 자는 모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 만약 네가 죽은 것이라면 생명이 없을 테니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너를 백성으로 높여 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높임 받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모두 생명이 있는 사람임을 의미한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실행 길은 아주 간단하다. 네가 실제 체험 가운데서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다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네가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고 추구한다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네 성품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성령의 현재 말씀에 따라 변화된다. 네가 늘 과거의 낡은 체험과 규례를 고수한다면 네 성품은 변화되지 못한다. 성령이 오늘날 한 말씀이 모든 사람을 정상 인성의 삶으로 진입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외적인 것에만 치중할 뿐, 실제에 대해 어리벉벉하고 참답게 대하지 않는다면, 너는 성령 역사를 따르지 못한 사람이자,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네 성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네가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네게 참된 인식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는 너희가 과거에 이해한 것과는 다르다. 과거에 이해했던 성품 변화는 남을 쉽게 판단하던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저 한 가지 측면의 변화일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성품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고난과 연단, 또는 책망과 훈계, 징계를 겪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거나 기만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성품에 다소 변화가 보인다.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심판, 징계와 책망을 겪은 사람만이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침착하며 진중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을지라도 관념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말한 성품 변화란 주로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즉, 육신이 고난받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며 육적인 취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도 성품 변화의 일면이다. 지금은 모두 성품 변화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벗어던져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품 변화의 참된 모습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예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뤄진다고 했지만, 사람은 사실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네가 이 단계에 진입해 체험하면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시련을 위해 기초를 닦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너는 그의 말씀에 진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겠다고 말씀하면 형벌을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 시련을 받으면 된다. 늘 하나님의 최신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너는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진입할수록 더 빨리 온전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진입하라고 거듭 교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추구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의 실제 속으로 진입해야만 성령이 너에게서 역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방식에서 너희는 모두 경기 참가자인 셈이다. 마지막이 되면 너희가 겪은 고난이 가볍든 무겁든 모두 ‘기념품’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입해야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의 일방적인 사역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너는 오직 그의 말씀 속으로 진입하는 것에만 집중하여라. 그러면 생명에 더욱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은 너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단계 역사에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며,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형벌 시대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사역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연단을 받지 못했으며, 형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고 정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없이 확실하니 사람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몸부림치면서 앞날과 운명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게 되었다. 그 결과 헤치고 나오니 성품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형벌을 겪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 사역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정복이자 구원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전부 증오가 아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형벌 시대에 연단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형벌 시대에 진입한 사람들은 비록 연단을 받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은밀히 역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 성품이 변화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적극적이고 종일 즐거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연단을 받지 못해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성품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길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고, 이렇게 온전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새로운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한 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것으로는 절대 안 되므로 반드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 번 감동받으면 마음의 의지가 불타오르며 추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생명 성품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결한 것들(독선, 오만, 관념 등)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저 적극적으로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부정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도 벗어 버려야 한다. 즉,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불결한 것들을 전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너에게 어떤 불결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 시시각각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라. 사람의

종교 관념, 속셈, 기대, 독선, 교만 등은 모두 불결한 것에 속한다. 하나님이 폭로하는 모든 말씀에 대조하여 자신에게 어떤 종교 관념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으로 인식해야 그러한 것을 벗어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로 성령의 현재 역사의 빛을 따를 때이니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교 관념이 튀어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리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종교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전통적인 신학 이론들이 나와 방해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는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만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없다. 성령의 현재의 빛을 추구하는 한편, 자신에게 어떠한 관념과 속셈이 있는지, 무엇이 사람의 독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네가 알아야만 벗어 버릴 수 있다. 과거의 모든 행실을 저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오늘날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품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사람의 실행도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겠느냐?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길이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명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것은 다음 단계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 다음 단계에는 전 우주에서 더 큰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향후 하나님 역사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며, 다음 사역의 표본이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이것을 목표로 추구한다면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추구하는 목표가 높을수록 더 온전케 될 것이며, 진리를 추구할수록 성령이 더욱 많이 역사할 것이고, 추구하는 힘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 내면의 상태에 따라 온전케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저 육적으로 평안하고 재앙만 없으면 된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무저갱에 내려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이루어 준다. 하나님은 네가 추구하는 것에 맞춰 이뤄 줄 것이다. 지금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느냐? 지금 네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기 위함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가늠해 봐야 한다. 네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 마음으로 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는 성령이 가는

길이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은 추구해야 들어설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기를 갈망할수록 성령은 네 내면에서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네가 추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물러날수록 성령은 역사할 기회가 없기에 차츰 네게서 떠나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며 쓰임 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주 만유에게 하나님의 행사가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것과 만물 가운데서 너희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에서 너희로 인해 증거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가장 복받은 세대임이 증명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현재 모든 사람이 우선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기 위한 진입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외적인 일에서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2.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린다.
3.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되새긴다.

먼저 기도에서 시작하여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일이 바빠도, 무슨 일이 생겨도 매일 정상적으로 기도하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영 안에 특별한 누림이 생기고, 주위 사람과 일, 사물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평소에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도 외적인 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분량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하면 빛을 얻을 수 있고,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달음이 치우치지 않게 된다. 평소에 마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외적인 일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너의 마음이 깊이 평온해지면 정념(靜念)의 단계에 이르러 어떤 환경에 있든 내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다가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마음속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는 기도할 때보다 더 낫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것이다. 네가 앞에서 말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기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 후에야 성령의 감동과 빛 비춤,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영 생활의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하여 일정한 깊이를 갖게 되면 자신을 저버리고 증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이 평온해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증오하거나 저주하거나 저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성과이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당장 진입해야 할 공과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지지 못한다면 누군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네 마음이 뺏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말이라도 하면 네 마음이 뺏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네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어떤 외적인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측면에서 진입이 있다면 소극적인 상태나 사람의 관념, 처세 철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 생각 등 부정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늘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에 점유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벗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롭고 긍정적인 것들이 너를 점유하면 낡고 부정적인 것들은 자리를 잃을 것이니 그 소극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네가 힘써 억제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지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며 누리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이 너에게서 역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고, 너의 마음을 얻으려 하므로 그의 영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네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을 흡족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신경을 쓰고, 진리를 많이 교제해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게 되면 그런 종교 관념이나 독선적이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흡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외의 것들은 너도 모르는 새에 하늘 끝 저 멀리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첫걸음이다. 만약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든 영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평소에 묵상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네 내면에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에 대해서도 진실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릴 수 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수록 빛 비춤도 더 많아질 것이며, 자신의 패괴 성품과 부족한 점, 진입해야 할 것, 자신이 해야 할 역할, 부족한 면 등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에 깊이가 생기면 영 안의 비밀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현재 네게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정수와 본질, 어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행의 길을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영 안에서 평온해지는 것에 깊이가 부족하면 성령의 감동이 좀 있고, 내적으로 힘이 좀 있으며, 약간의 누림과 평안만 있을 뿐, 더 깊은 것들은 찾을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온몸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내 음성을 듣기 힘들고, 내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 깊이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외적으로 힘을 쓰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점유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담컨대 모두 절제함이 없이 제멋대로 구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영적 교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세상에 연연하는 허황된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온전케 하고 만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주 적고, 바깥일에만 정신없이 바쁘며, 생명 진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로, 발전 전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고 네게 인식을 더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수록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더 잘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모두 경건함과 믿음이 필요하며, 그래야 온전케 될 수 있다. 영생활에 진입하기 위한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영적인 훈련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한 사람임을 의미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은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온해진 사람이다. 네 마음을 바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일은 접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하지 말거나 멀리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의 생명에 더 유익하다. 지금은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시기이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시기이다. 바로 이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일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럴 때 너 자신을 바치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자신을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진실로 마음을 바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가망이 있다. 너는 어떤 일을 마주하든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 책망과 훈계를 받든, 좌절과 실패를 맛보든, 네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네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환난과 고통, 핍박이나 갖가지 시련이 닥치든 네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해야 한다. 이것은 전부 온전케 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고,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을 치우침 없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갈 자신이 생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평온히 할 때 얻게 되는 성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실행의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행에 원칙이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고 실제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 의지가 없다면 이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니, 이것이 마음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질 수 없다면, 이런 자는 짐승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실행법을 잘못 인식해 밥때가 되어도 밥을 하지 않고, 일할 때가 되어도 일을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기도하고 묵상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은 밥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일과를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정상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하거나 밥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하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실행 길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해야 한다. 조건이 되면 전념해서 기도하고, 조건이 안 되면 손으로는 일을 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을 때는 그리워해라. 즉, 처한 환경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진입하는 것이다. 혹자는 일이 없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일이 생기면 마음도 그와 함께 사라지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확한 체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이며, 외부의 사람, 일, 사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지만, 교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지 못해 잡생각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진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점차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온전케 되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수록 부담을 갖게 되고, 부담을 가질수록 체험은 더욱 풍성해진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은 이 부담을 너에게 더해 주며, 너에게 맡겨 준 일에서 너를 깨우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이 부담을 더해 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면 이 방면의 진리를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형제자매들의 생명 상태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네게 준 부담이다. 그러면 네가 평소에 기도할 때 늘 이 부담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네게 더해지면,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담을 너의 부담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먹고 마셔도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둘 것이다. 너는 속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이 자유를 얻고 영 안에서 누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는 교제할 때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도 주로 이 방면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실행의 길이 더 잘 보인다. 이는 너의 부담으로 생긴 성령의 깨우침이자 빛 비춤이며, 너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이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느냐? 만약 네게 부담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이다. 반면,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응당 하나님께 더 많은 부담을 달라고, 더 큰 사명을 맡겨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실행 길이 더 있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이 준 부담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부담을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잘 온전케 될 수 있다. 혹자는 일어나서 협력하며 섬기라 해도 싫어하는데, 그런 자는 게으르고 안락을 탐하는 사람이다. 네가 일어나 협력하며 섬길수록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된다. 너의 부담과 체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온전케 될 기회 또한

많아진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도 많아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있다. 성령이 너를 감절로 감동시킬수록 너는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할 때가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온전케 되고 얻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태만하게 굴며 자신의 육체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자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눈먼 사람이다. 네가 이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부담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수록 하나님이 네게 더 많은 부담을 더해 줄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놓치게 되니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한 참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사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고 하기보다는 너 자신의 생명에 부담을 갖는다고 말하는 게 옳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생명 진입에 대해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해했느냐? 네가 속한 교회가 엉망진창인데도 전혀 애타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도 본체만체한다면 이는 부담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지금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해야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 만민에게 드러난 후에 생각하려 해선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케 될 좋은 기회다. 만약 네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처럼 평생의 한으로 남아 후회하며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만민에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형벌하지 않아도 후회로 인해 너 스스로 자신을 형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못 믿겠거든 기다려 보아라. 어떤 자들은 바로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이 말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싶으냐?

만약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찾지 않고, 온전케 되기 위해 앞다투어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온전케 될 가장 좋은 기회이자, 최적의 시기이다. 이때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남으로 기회를 놓치고 나면 늦고 만다. 네 의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도록 애써도 온전케 될 수 없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협력해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수 없다. 어떤 이는 입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의 부담을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실행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그런 부담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길이 있으면 단계별로 한 걸음씩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부담을 가진 부분이 온전케 되면 또 다른 부담이 더해지고, 생명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너의 부담 또한 더 커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만 부담을 지려고 하는데, 얼마간 지나서 실행할 길이 없으면 부담도 사라진다. 너의 부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해서 완전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많은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춰야 하며, 진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부담이 생겨난다. 그런 부담이 생겨야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담만 가지고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해도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실제에 진입해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길 ... 4’에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한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이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온전케 되기를 바라며,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으니 백성의 자리에 서라고 했다. 당시 너희도 이 일을 나누면서 백성의 기준에 맞게 진입하는 길에 대해 교제했다. 그러므로 당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나와 긍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성령 역사의 흐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고, 너희 모두가 만세 전에 예정된 백성이고,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너희는 모두 “하나님, 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고, 이는 당신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을 만족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자 성령이 너를 감동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흐름이었다. 지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훈련을 하여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현시점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정상적인 영 생활을 유지하고, 참된 체험을 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목적은 너희의 모든 언행과 마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시켜 너희가 하나님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고,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섰다면,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너의 생각, 불순한 의도가 바로잡히면 육적인 것을 위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바뀌고, 불순한 의도가 생겨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된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네가 기도 훈련을 통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면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따라 온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따르고, 매번 기도를 하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평온히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고 마실 때 현재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현재 하나님 역사의 동향과 성령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이는 곧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너는 아직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며, 먹고 마시는 방법과 원칙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현시점에서 하는 사역을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하나님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지금 진입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영 생활도 정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이나 육의 질병, 또는 형제자매들이 너를 멀리하거나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등의 어떤 시련이 임해도 너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네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어떤 이는 너무 약하고 의지가 없어 작은 일만 생겨도 훌쩍거리며 소극적이 된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의지와 각오가 필요하다.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증오하며,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으니 다음에 같은 일이 오면 반드시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래야 옳은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육을 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네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도 모른다면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육을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바르지 못한 마음을 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육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얼른 뉘우치고 옳은 길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 측면에서 돌파하고 훈련하여 진입해야 한다. 네 마음가짐이 올바른지는

너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며,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핵심이므로 이것을 잡아야 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까지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은 명실상부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정죄받을 것이다.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오늘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을지라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치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후에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려면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고 주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실행할수록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길에 더 빨리 들어설 수 있다. 너는 기도를 통해 기도로 온전케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살아 내어 온전케 될 수 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차츰 온전케 되어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길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에 진입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육을 버리며, 형제자매들과의 빈번한 교제를 통해 너의 체험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단체 생활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대예배에서든 소예배에서든, 모두 체험하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온전케 되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키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탄의 패괴 성품과 불순한 의도를 벗어 버리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즉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사탄이 패괴시킨 부분은 점점 적어진다. 그러면

너는 실제 체험을 통해 차츰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지금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바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확신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마음속에 참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며, 온전케 될 대상이자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늘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으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온전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은 것이냐? 네 마음가짐이 옳으냐? 네 마음가짐이 옳다면 하나님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가짐이 옳지 않다면 이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기도할 때 나, 이 사람은 네 눈앞에 없지만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 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네가 이 육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네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사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에게 이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 곧 이 사람을 믿는 것이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다.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향한 기도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육신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감찰을 통과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든, 형제자매와 대화하고 교제할 때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일을 처리할 때든 마땅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네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마음가짐이 바르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한 일을 열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진심을 다해 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구해라.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가 결실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짓을 고하지 않고 네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맹세해라.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맹세합니다. 당신의 영이 언제나 제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언제나 저를 돌보며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행동이 당신 앞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배반한다면 제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저주하사 금세에도 내세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에게는 이렇게 맹세할 용기가 있느냐? 이렇게 맹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너희에게는 이러한 의지가 있느냐? 진실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맹세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갖추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네가 품은 의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네가 기도하고 실행한 것에 따라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정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를 온전케 하는 과정에 있다. 네가 진정으로 온전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대역무도한 일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맹세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때 네가 침륜되든 형벌을 받든 그것은 모두 네가 자초한 일이다.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대로 실천해야 한다. 맹세하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너는 침륜의 대상이다. 네가 말했으니 하나님은 네 맹세대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기도를 마친 뒤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한다. “큰일 났어!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할 기회도, 나쁜 일을 할 기회도, 세상을 탐하고 연연해할 기회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있으니 앞으로 틀림없이 침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한 일을 하나님의 영 앞에는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육신 앞에는 내놓을 수 없다면 이는 아직 하나님의 영의 감찰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더냐?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또 누구더냐? 그들은 하나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은 사람이라며 둘을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냐?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하나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너를 잘 대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잘 대해 주겠느냐? 네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성육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보아라. 네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너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모든 마음가짐과 반응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등의 영 생활, 나아가 협력하며 섬기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실행해야 너의 생명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과정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너는 더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방종함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수록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육을 저버릴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것은 사람이 실행해야 할 길이라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더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을 수 있다면 너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반역자다. 그는 내면에 너무 큰 야심을 품고 있고, 패역한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싫어한다. 이런 자들은 온전케 되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고 마시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관념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극명한 패역과 대적이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파다. 하나님의 감찰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며 버리고 떠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또한,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너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시험해 보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 실행의 길을 알려 주었지만,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에게 달렸다. 믿지 못하겠으면 실행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은 너에게 더 많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너의 실제이자 생명 공급이 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네게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네게 축복을 내리고 네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너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은혜를 베풀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거나 너의 가정에 평안을 줌 베풀어 주는 데 그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실제로 삼아 하나님을 흠족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얻어 온전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추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은혜시대 사람이 추구하던 것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 지금은 추구하는 기준이 더 높아져 더 실제적이고 높은 것, 사람의 내면이 필요로 하는 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역대에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사역을 한 적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이렇게 높은 요구를 한 적도 없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뜻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너는 이것을 중점 삼아 추구해라. 네가 열심히 뛰어다니든, 헌신하든, 역할을 수행하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은 육적인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나 생명 진입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가장 눈먼 자다. 생명의 실재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자도 가장 눈먼 자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일은 사람의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이 자랄수록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 네가 한동안 추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며 결코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다. 성령은 각 단계마다 역사할 때 너에게서 얻고자 하는 결실이 있다. 그러나 네가 현 상태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성령은 바로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되겠느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늘 허기를 느껴 항상 찾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성령은 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일수록 더 실제적인 것을 교제할 수 있고, 진리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생명이 더 빨리 자라며 더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집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진다

성령 역사는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내일의 계시는 오늘보다 더 높으며,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듯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도태될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낡은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 새 시대에는 새 사역을 한다. 특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더 새로운 사역을 더 빠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어느 단계의 사역도 영원불변한 사역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더 새롭고 더 높은 사역을 한다. 그의 사역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실제적이고, 행할수록 점점 더 사람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하게 된다. 사람은 오직 이런 사역을 체험해야만 최종적인 성품 변화에 이를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므로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 또한 점점 높아진다.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해진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은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을 깨서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더 높고 실제적인 경지에 진입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높은 영역에 진입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본성이 패역하고 고의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빠르고 거센 이 단계 사역에 의해 모두 도태될 것이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사역에서 너희는 모두 순종하기를 배우고 관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하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세심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성령께 버림받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에게에는 낯은 규례와 율례가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리하여 모두가 이성을 잃었고, 득의양양해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위험해진다. 네가 그저 간단한 사역과 말씀에만 순종하고 더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옛것을 지키는 사람이므로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네가 이 기간의 사역에 잘 순종했더라도 다음 기간의 사역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단계로 올 때 네가 따라왔다면 다음 단계로 갈 때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종일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내가 새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과거의 견해를 고집한다면 너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네가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반드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므로 너희가 내 말대로 한다면 성령이 곧바로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나는 새 빛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너희 모두를 현재의 빛 속으로 인도한다. 네가 현재의 빛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은 즉시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누군가 인정하지 못하고 “저는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게 이제 길이 없으며 메마르고 생명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빛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더욱이 교회에서도 역사하는데, 누구에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 네게 역사한다면 너는 체험할 것이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면 너는 빨리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의 빛을 따를수록 생명은 더 자란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너는 따라야 한다. 네가 체험하는 가운데 그의 체험을 실제로 경험하면 더 높은 것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길이고, 생명이 성장하는 경로이다. 너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길에 이를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을 통해 너로 하여금 얻게 하고 깨달음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앞날이 어둡고 암담하다는 뜻이다. 네가 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모든 일에서 계시를 얻을 수 있다.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든 네가 그의 인식에 따라 체험한다면 그것은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그 체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남의 말을 흉내 내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이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얻은 빛 비춤과 깨우침에서 실행의 길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뒤에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 깨달은 것을 말한다면 자신의 생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과를 배워 너의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가장 빨리 성장한다.

성령은 너의 실제 체험을 통해 너를 깨우쳐 주고, 또 너의 믿음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너는 진정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면 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앞에서 한 것이든 뒤에서 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진리를 실행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앞에서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간사한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고, 침륜의 자식이자 멸망의 자식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 영의 감찰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성품 변화에 주력해야만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하며, 아무 원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단정 짓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바로 너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마음가짐이 옳기 때문에, 네가 한 일이 옳든 그르든 용감하게 내놓아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형제자매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고 진입한다면 네 생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믿고 안 믿고는 거론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고 너의 관념대로 따르게 한다면, 너는 가장 패역한 사람이며 불신파다. 이런 사람이 어찌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가장 패역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항상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기꺼이 순종하거나 자신을 낮춘 적도 없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대단하다고 여기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도’에 대해 가장 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보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가보로 삼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우러러보는 아둔한 이들을 가르친다. 교회에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굴복을 모르는 영웅 세가’로, 대대로 하나님 집에 얹혀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직책으로 삼고, 한 해 또 한 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 가며 자신들의 신성불가침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서 ‘거물’이 된 그들은 시대마다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다. 이 악마의 무리가 연합하여 나의 사역을 허물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산 귀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게 절반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전력을 다해도 그중 일부만 얻고서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천사장의 후손들은 어떻겠느냐?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얻어질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와서 정복 사역을 하는 목적은 그저 정복을 위한 정복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의와 불의를 드러내기 위해 정복하고, 사람에게 징벌을 내릴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정복하며, 또 악인을 정죄하기 위해 정복하고, 더욱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정복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데, 온전케 된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사역이다. 하지만 패역한 행위로 가득한 자들은 모두 징벌받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떨어져 영원히 저주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역대로 ‘위세와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

대단한 영웅 세가'의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고 냉대받는 '나약하고 무능한 겁쟁이 세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게 된다. 말해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산물이 아니고, 성품 변화는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에는 실제적인 행동과 살아 내미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표면적인 것에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은 본래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하나님의 사역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아첨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온전케 된 사람이며,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옳은 사람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반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위장하는 사람이고, 독사의 독을 지닌 사람이며, 누구보다 음험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 못된 패거리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냐? 악인은 어쨌든 악인이므로 결국에는 그 징벌의 날을 피할 수 없고, 선한 사람은 어쨌든 선한 사람이므로 결국 사역이 끝날 때 전부 드러날 것이다.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악인은 없고, 악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인도 없다. 내가 사람을 억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진입이 있다. 언제나 새롭고 높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단계마다 더 심화되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교제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또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깨우침을 얻고, 낡은 규례 속에서 살지 않는다면, 뒤처짐 없이 항상 새로운 빛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바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겉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높아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으므로 사람도 날마다 새로운 진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한 만큼 이루므로 네가 따르지 못하면 뒤쳐진다. 기도가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마셔야 하며, 더 깊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고, 관념과 상상을 점차 줄여야 한다. 또 일을 판단하는 능력도 강화해야 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 생각과 주관을 가져야 하며, 영 안의 일들을 깨달음으로써 외부의 일을 꿰뚫어 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글귀와 도리만 말할 뿐 실체가 없고 실행의 길이 없으면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새 신자에게는 어찌어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신자에게도 실제 체험이 생기면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겠느냐? 새로운 깨우침이 없으면 사역할 수가 없다. 새로운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모두 체험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경험이 없다. 생명을 공급하는 이 일에서 전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폐물이고 식충이다. 사실, 이런 사람은 사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에 불필요한 많은 번거로움을 더한다. 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다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교회에서 나가 줄 것을 청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념이 겹겹이 쌓여 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소극적인 말을 퍼뜨리며, 심지어는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함부로 소란을 피워 분별없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이런 산 귀신, 악령은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회에서 썩 물러가라. 네가 오늘의 이러한 사역은 두렵지 않다 해도 내일의 공의로운 징벌까지 두렵지 않겠느냐? 교회에는 빌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늑대들도 많다. 그들은 모두 악마의 우두머리가 보낸 마귀이며, 무지한 어린양들을 집어삼키려는 악한 늑대이다. 소위 ‘사람’이라는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생충이 되고 제물을 게걸스럽게 잡아먹는 좀 벌레가 될 것이다. 비열하고 무지하며 비루하고 비천한 이 구더기들은 언젠가 곧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이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대를 열고, 말씀으로 사역의 방식을 바꾸며, 말씀으로 전체 시대의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말씀 시대에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각기 다른 위치에서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을 보게 한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며 도태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 시대에 말씀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고, 사람의 본질을 알며,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시대에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이루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키고 사람에게 시련을 준다.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된 것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지를 진동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고정 관념, 그리고 옛 성품을 변화시켰으며, 온 세상의 낡은 면모를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하며 사람을 구원한 분은 오직 오늘날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로부터 사람은 말씀의 인도 아래에서 살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으로 살게 되었다. 또한 말씀의 세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과 사역은 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옛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말씀으로 온 우주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구원하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옛 세상을 끝낸다. 이렇게 해야 전체 경륜의 모든 부분이 완성된다. 전체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이적이나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양분을 얻고 공급을 받으며, 인식을 얻고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 말씀 시대의 사람은 육체적 고통도 겪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 참으로 크나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무작정 찾을 필요도, 무작정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공급을 받고, 그가 친히 행하는 사역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역대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고, 얻을 수 없었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그것은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영의 위치에서 말하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행의 길을 찾지 못한다. 사람이 깨닫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역마다 성과도 서로 다르다. 또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해야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영의 위치에서만 음성을 발한다면 이 단계의 사역은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는 말씀의 어조를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하나님의 사역은 새로운 방식에 들어섰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역 방식과 말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사역 방식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천년하나님나라시대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말씀 시대로, 다양한 말씀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각각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일단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서면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시작할 것인데, 생명의 실체에 진입하게 하고 정상 궤도로 이끌어 준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사역 절차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심화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사역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역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와 생명을 떠나지는 않는다. 사역 방식의 변화는 사역의 형식과 말씀할 때의 위치가 바뀌는 것일 뿐, 결코 사역의 주된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말씀의 어조와 사역 방식의 변화는 모두 상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일 뿐, 말씀의 어조가 달라진다고 해서 사역의 근본 취지나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 추구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오직 생명을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이 참된 추구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로, 네가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는지를 알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들어갔는지,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 실체가 되었는지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결국에는 모두를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하고, 각자에게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만약 네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네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네가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 시대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고자 한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고, 진리를 실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실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말씀을 실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겠느냐? 현재 많은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매우 답답해하며, 매일 말씀을 봐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성령은 사람에게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네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어둠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답답해할 것이다. 이는 네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성령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이는 성령이 너를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시대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이니, 뒤쳐진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제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좋다고 느껴지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행할 길을 잃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식과 동력이 된 것이다. 예전에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한 바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에게서 이 사실을 이루고자 한다. 과거에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온전케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과 광명, 그리고 실행할 길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님나라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므로 생명 추구에 있어 성급히 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며, 모든 사역에는 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수가 성육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데에도 33년 반이나 걸렸는데,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역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말씀과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니 서둘러 결실을 맺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후, 실제로 실행하여 인식과 식견, 분별력, 지혜를 키운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보고 인식하며, 체험하고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금할 게 뭐 있느냐? 분량이 어느 정도 자라면 실행할 수 있다. 네댓 살 된 아이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효도하지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자신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실행하되,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일단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을지 등은 상관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 보면 틀림없이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도 원칙이 있으니 무턱대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네가 인식해야 할 것, 즉 이상(異象)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실행해야 할 것, 즉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는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즉 네가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네가 말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평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화제로 삼아 자신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기만 하면 성령이 빛 비춤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도 협력해야 한다. 네가 진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입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게 빛 비춤을 줄 수 없다. 시간이 나면 잡담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삶을 채워야 경건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교제의 깊이가 얕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처음부터 깊을 수 있겠느냐! 얕은 곳을 거쳐야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법이다. 훈련을 통해 너에게 있는 성령의 빛 비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한동안 모색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원칙에는 인식에 관한 것과 진입에 관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인식에 관한 것일까? 이상에 관한 내용(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섰는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성육신이란 무엇인지 등등은 다 이상에 해당됨)이다. 어떤 것이 진입해야 할 길일까? 사람이 실행해야 하고 진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된다. 단, 이상에 관한 것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자주 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진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지, 육을 버릴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은 다 실행이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먹고 마실 줄 알고 핵심을 짚을 수 있으면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다. 즉, 어떤 문제를 내놓든 교제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것을 짚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 실제적인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핵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싫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싫증을 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진입한 사람의 먹고 마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또 사람에게 더없이 도움이 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성령이 준 것, 즉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은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싫증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사람은 실제에 진입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체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사람을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네가 즐겨 본다면 깨우침을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도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았겠느냐?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대충 보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할 리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실제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든 한가하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시련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존의 토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세끼 끼니 챙기듯 먹어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겠느냐? 네가 지금 이해하든 못 하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진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행하고,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많겠지만, 2~3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하루 이틀 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많은 경우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봐도 글자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한동안 체험하고 나면 그제야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였으니, 네가 가능한 한 먹고 마시면 시나브로 이해하게 될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깨우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깨우침은 흔히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네가 갈급해하고 찾을 때, 성령이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성령의 사역 원칙은 네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른 태도를 가지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깨우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는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요, 머릿수만 채우는 남곽 선생(南郭先生) 같은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량도 없는 것이므로 시련이 닥치면 너는 틀림없이 쓰러질 것이다. 그때면 네 진짜 분량이 드러날 것이다. 평소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시련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한다. 실제 분량이 있는 사람과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서고 어떤 사람은 도망쳐 버리는 것이겠느냐? 그 분명한 차이는 실제 분량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길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이 진리를 알고, 그들에게 이상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자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실행하지 않고, 참답게 대하지도 않는다. 참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지 못한 사람은 실제 분량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는 그 즉시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한다. 열마를 깨닫든 네가 가져야 할 관점은 먹고 마시고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는 상관치 말고 오로지 먹고 마시기만 해라. 이것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너의 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실행하는 실제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다른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이끌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게 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이끄는 사람의 책임이다. 나이가 많은 적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이 실제에 들어선다면 하나님나라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공급한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입한 것은 또 얼마나 되느냐?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의 실제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얕든,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든, 너는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해야 하며, 먹고 마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하며 그의 말씀을 살아 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인 것을 내놓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소한 간증과 쓸모없는 것, 외적인 것들만 말하고 실제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을 전혀 찾지 못한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셔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는 않고 하늘나라에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것이다. 어찌 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앞으로는 각 나라 각 교파, 각 종교 각 분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손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할 것이므로 안팎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것이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안팎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곧 천년하나님나라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역을 이루고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다. 네가 실제 체험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도 납득할 것이다.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낸 실체가 없다면 누구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말씀 실재를 살아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네가 온전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 앞으로 하나님은 각 종교와 각 교파에 더 많은 말씀을 할 것이다. 먼저 너희들 가운데서 말씀하여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는 이방을 향해 음성을 발함으로써 그들을 정복할 것인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탄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폭로를 통해 사람은 패괴 성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패역한 성품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권병을 띤 말씀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하나님의 빛 속에 사람을 정복한다. 하나님이 현시대에 하려고 하는 것과 사역의 전환점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네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한편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본인 또한 실제로 체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실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사역은 모두 시대에 따라 다르다.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도 달라진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같은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또한, 그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기에 날마다 새 말씀을 한다. 너는 오늘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자 본분이다. 실행을 할 때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낸다. 영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또는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다. 그가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관념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항상 같은 위치에서만 말씀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규정하도록 하나님이 놔두겠느냐?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거기에는 그의 목적이 있다. 만일 하나님이 늘 영의 위치에서만 말씀을 한다면 네가 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때때로 제삼자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공급함으로써 네가 실제에 진입하도록 인도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적합하다. 어쨌든 모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니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여전히 하나님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어떻게 사역하든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어도 하나님은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본질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사역 방식을 통해 성과를 내고, 사람이 그를 더 잘 알게 한다. 그의 사역 방식은 하나하나 다 사람이 그를 알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든 그 목적은 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어떨 때는 한 가지 사역 방식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사람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니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역 절차이므로 너희 모두 순종해야 한다.

지금은 실제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논하겠다. 천국에 가는 것도, 왕권을 잡는 것도 아닌, 오직 실제에 진입하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논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된 것이다. 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데다 종교적 관념까지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한다.

이렇게 많은 사역 방식을 체험하고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눈이 멀어도 단단히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하나님임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오늘날 교회에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가 하나님이 맞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그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가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를 믿는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너는 어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보았느냐?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호와가 참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설령 많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없어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도망가려 한다. 도망가려면 서둘러 가라,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한번 도망가 보아라, 갈 수 있는지 보자. 도망갔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지배한다. 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체험해 보아라. 네 마음대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배하므로 너는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 법령이다!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 보아라! 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육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 밥도 먹고 옷도 입을 수 있겠지만,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정신적 압박감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큰 고통이다. 정신적으로 시달림과 학대를 받으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 압박감으로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으면 전혀 견딜 수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없어 소극적이 되었지만, 아무리 소극적이 되더라도 감히 도망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는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너를 달래지 않는다. 생명은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두 바리새인이다! 지난날, 바리새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편안함만 탐하고 즐기는 자들이다!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의심의 태도를 갖고 있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안다면 도망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사실, 앞으로도 이적과 기사를 볼 생각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지만, 현 단계에서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은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다. 이런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시련 속에 빠지게 되며, 심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한다. 네가 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키고 체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며, 특히 예수가 했던 사역은 하지 않는다. 둘 다 하나님이고 육신을 지녔지만 그들의 직분은 전혀 다르다. 예수 또한 땅에서 일부 사역을 행하고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사역은 주로 무엇이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전 인류를 속량했다. 즉, 전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이 사역을 이뤘으며, 궁극적으로 이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명확히 알려 주었다. 예수가 온 것은 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전 인류를 속량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었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가져왔다. 그러므로 예수가 떠난 후에 사람들은 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도록 다른 사역들도 하고 말씀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직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3년 반 동안의 전도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비한 것이었다. 예수가 몇 차례 기도한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었고, 정상인의 생활을 하며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한 것도 주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그에게 맡긴 것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이룰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들이 말씀의 책망과 연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서 공급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그의 사역과 행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를 형벌하고 연단하므로 네가

받는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말씀으로 사역한다. 말씀이 너에게 임한 뒤에야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여 고통을 받거나 달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실제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행한다. 사실로 너를 형벌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으며, 그들은 육체적 형벌도 받지 않고, 고통도 별로 없다. 하지만 그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연단하면 너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더냐? ‘봉사자’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 던졌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무저갱에 떨어졌을까? 그저 말씀으로 사람을 연단시켰을 뿐인데, 사람은 무저갱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오직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볼 수 있고, 그의 말씀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볼 수 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는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한다. 그러므로 사실이 필요 없이 말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온 주요 목적은 이 사역을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그의 큰 능력과 지고지상함, 낮춤과 감춤을 보게 하며, 그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떠함과 소유는 다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의 지혜와 기묘함도 다 그의 말씀 안에 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방식을 보게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행해진 하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들춰내거나 책망하는 것이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며, 설사 저주할지라도 말씀의 저주에 그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 시대에서는 그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적을 보려고 하지도 말라. 그래 봤자 소용없다! 그런 이적들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오늘날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는 말씀으로 너를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너를 양육하며,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으로 사실을 대체하여 그의 실재를 알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꿰뚫어 보았다면 쉽게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소극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인 것에만 신경 써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실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큰 이적이자 확실한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증거이자,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다. 이런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성장한 때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하기만 하는 것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말씀 시대라서 사람의 믿음과 의지, 협력이 필요하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공급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야 사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기간에는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가 육신에 거하는 단계에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아닌 육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의 사역이 끝나고, 땅에서 해야 할 말씀을 다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직 땅에서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면, 그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한 말씀은 한 면으로는 생명의 공급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예언이다. 즉, 앞으로의 일과 해야 할 일과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에도 예언이 있다. 그는 생명을 공급하면서 예언도 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는 사실 간에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말과 사실이 병행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 뒤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은 말씀 뒤에 온다고 말할 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세에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말씀만 하는 것이니, 다른 일은 그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은 먼저 이 말씀들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가 전 우주에서 영광을 받을 때는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해야 할 말씀도 다 했으며,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 되는 때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땅에 와서 말씀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의 말씀에서 그의 어떠함을 보게 하며, 그의 지혜와 모든 기묘한 행사를 보게 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정복한다. 장차 하나님 말씀이 각 종교, 각 분야, 각 나라, 각 교파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이 권병과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마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말씀은 율법시대에 한 말씀과 전혀 다르고, 은혜시대에 한 말씀과도 다르다. 은혜시대에는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만 언급했다. 성경에서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떤 고통들을 겪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것은 모두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성육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정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을 한다.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는 말씀만 할 뿐, 사실이 임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본질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자, ‘말씀’이 ‘육신’에 온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 되었도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이룰 것인데, 이는 전체 경륜의 마지막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그의 말씀을 다 육신으로 나타낼 것이다. 오늘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등과 같이 마지막에 해야 할 사역들을 모두 분명히 말씀한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전에 반포한 행정 법령과 법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하는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이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며, 백성들과 아들들은 어떻게 나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애굽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한다. 앞으로 이 말씀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해야 할 일, 말세에 성육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수행해야 할 직분을 모두 말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 말씀들은 모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의 실제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적과 기사 보는 것을 중시하는 자들은 다 버림받을 것이고, 모두 온전케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사람은 이 사역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고, 이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함이나, 아니면 생명을 얻기 위함이나? 예수도 그 당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도 네가 부인할 수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만 하므로, 네가 완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너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믿는 것이냐? 너는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오늘날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나, 아니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나, 아니냐?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의 실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를 믿으려 하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며, 늘 이적과 기사를 보고자 하는데, 이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니겠느냐? 네가 굳게 설 수 있는지는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시련 속에서 더 굳게 설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적과 기사에 눈을 돌릴수록 제대로 설 수 없고, 시련 속에서 쓰러지게 된다. 이적과 기사는 토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실체야말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를 성과도 알지 못한 채, 온종일 흐리멍덩하게 보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만을 원하며, 그 후에야 제대로 믿으려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추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으로 여기고, 천국에 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진입하기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추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종교적 믿음법을 없애야 한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추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 하며, 육적인 안락함과 앞날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종교적 믿음법이다. 이런 믿음법은 막연한 신앙이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생명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를 알고 진실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조물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 구원이요, 온전케

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로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 패괴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의 온 마음을 얻고 너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하거나 육적인 것을 위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는데, 그런 뒤에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목적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의 실체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매사에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네가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베드로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베드로의 풍격을 갖게 되면,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 얻어졌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전 우주 아래에서 사역을 행한다.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해 왔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이적과 기사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시대에 일부 말씀을 했고, 은혜시대에는 또 예수가 많은 말씀을 했다. 그 뒤에는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가 선포한 계명에 따라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이끌었으며, 예수가 한 말씀과 원칙들에 따라 체험하게 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억압하여 믿게 하거나 복종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낼 수 없고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양한 뒤 사람이 순순히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다양한 사역 방식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연단하든, 책망하고 훈계하든, 공급하든, 여러 위치에 서서 말씀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 기묘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한다. 말세에 하나님이 시대를 끝내려 할 때 사람이 온전케 되면 그때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관념도 갖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지금의 너는 패괴된 사람이므로 아직 순순히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네가 이적과 기사를 볼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사람을 벌할 때이고, 세상을 바꿀 때이며, 시대를 끝낼 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목적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체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겠느냐? 동방에서 얻는 한 무리의 이긴 자들은 대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얻어진 이 사람들은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 온갖 연단을 겪고 나서야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냐 기사도, 어떤 이적도 본 적이 없으며, 대단한 도리나 이치를 말할 수도 없고, 높은 깨달음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실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실제적인 사역이다. 예수의 시대에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했다. 그가 온 목적은 주로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그의 직분 범주 내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이적과 기사들은 모두 사역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 일이고 부가적인 것이었으므로 결코 시대 전체의 사역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구약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역이므로 그는 절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다. 일단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실제적인 사역을 교란하게 되므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고는 도리어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 사람이 진실로 믿는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 안에는 종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말세에 온 목적은 사람 내면의 모든 종교 관념과 초자연적인 것들을 없애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하며,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지금 네가 실제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진리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 지금 너는 진리를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나? 악령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 그럼 그것들 역시 하나님이란 말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추구해야지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실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실제에 대해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식한 것을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실제이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급선무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이해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운 점 또한 전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실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무슨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별일이 없을 때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만 신경 쓰면 된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는지, 어떤 반응이 생겼는지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실제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실질적인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너의 하루 중 하나님께 바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육적인 것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너는 네 몸과 마음, 그리고 너의 모든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놓으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육적인 것이나 가정,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야 하며,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원칙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적인 사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에게 탄마음을 품거나 거역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믿으면서 늘 그를 누리려고만 하고 그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며, 입으로만 그를 사랑한다 말하고 마음으로는 거역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감언이설로 기만 행위를 하는 사람을 혐오한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대역무도한 사람이고, 천성적으로 몹시 교만한 사람이다. 특히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교만한 사람이자, 천사장의 충실한 후계자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토대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할 부분을 진심으로 찾는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가 행하는 것이 너의 생명에 유익하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면에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을 채워 생명 성품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한 것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는 것은 너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실제 행동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는 것이다. 네가 이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면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실체에 진입하는 시작이다. 먼저 이 훈련을 해야 나중에 더 깊이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 늘 언제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네 성품이 변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생각하든 다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재 시련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한 마디 하겠다. 모르면 적어도 판단은 하지 말라. 언젠가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찾고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체에 진입한 사람이다. 사람은 패역으로 인해 실제 하나님에 대해 늘 관념을 가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실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크나큰 시련이기 때문에 네가 굳게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 온 ‘실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시련이다. 네가 여기에서 굳게 선다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게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여기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오직 영만 믿을 뿐, 하나님의 실체는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허사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영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허튼소리 아니겠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실제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영의 본질을 지키는 것, 즉 영 앞에서 영의 감찰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성육신한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육신 앞에서도, 영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만약 네가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안다면, 즉 이 시련 속에서 굳게 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하고 경건하게 이야기하며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라고 말한다. 이 말이 맞느냐? 그러면 네가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도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밝히 알아야 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진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된다. 네가 ‘실제’에 대해 알고 이 시련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면, 이는 너에게 굳센 증거가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해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은 주로 네게 실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와 관계된다. 네가 정말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증거한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얻어졌음을 뜻한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판단도 비방도 하지 않으며, 관념도 다른 속셈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경시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전혀 관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증거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입하라고 요구하는 실체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실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패괴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그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네가 정복되어 그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되며, 그것을 통해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역을 끝마칠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관념이 없다면, 즉 네가 그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너는 잘 증거한 것이다. 언젠가 네가 실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고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졌다고, 즉 온전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네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은 너에게는 시련이다. 만약 네 관념에 맞는다면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의 관념에 맞지 않기에 너는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너에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겪고 있다. 그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다. 네가 실제의 말씀과 음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관념도 전혀 가지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실제적일수록 더 참되게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의 실재를 아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실제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육신 기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사람의 상상처럼 판단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에게 그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생존의 토대로 삼고 절대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실행하여 그의 마음을 만족케하기를 요구한다.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구는 그의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의 정상적인 면과 실제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으로 역사한다. 그러기에 그가 취한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에게 크나큰 시련이자 어려움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정상적인 인간적 모습을 없애 버릴 수는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계신 ‘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외형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한데 그의 정상적인 인간적 모습을 없애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그는 어찌 됐든 육신의 입장에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행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한다. 그런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아직까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다. 이것 외에 다른 최상의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련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육신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은 바꿔 놓을 수 없다. 하늘의 하나님조차 그의 행사에 간섭하지 않으니, 사람은 더욱 그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비록 실제적이고 정상적이지만 그는 틀림없이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임무를 그에게 맡겼으니 그가 어떻게 하든 너는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인성을 지니고 있고 너무나 정상적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특별히 예비한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보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인성으로 살기 원하면 인성으로 살고, 신성으로 살기 원하면 신성으로 산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그러니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로 인해 그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그를 ‘하나님’의 ‘위격’에서 밀어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존엄이 있다. 이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를 줄 수 없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말이나? 하나님에게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라. 서로 ‘포용’하면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리가 생길 리 있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도 용납하지 못해서야 아량이니 도량이니 하는 말을 어찌하겠으며, 어떻게 대장부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나 자잘하기 그지없는 일을 크게 부풀려 처리하니, 침소봉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이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인성으로 사역하지만, 그가 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하는 사역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만 본다. 이렇게 큰 사역은 보지 못하고 하필이면 하나님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만 보며 물고 늘어지니,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날 땅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는 땅의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겉모습이 어떤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자신이다. 너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순종해야 한다. 이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사람의 순종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 조금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오늘날 얻으려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의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도, 막연한 생각에 빠져 살아서도, 성육신 하나님을 난처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안배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지, 인류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온 마음을 땅에 온 하나님께 바치며,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 그들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법을 모르며,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면과 실체를 ‘문제시’하지도 않는다.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약속과 축복을 내리는 존재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늘 하늘의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땅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기묘하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땅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아주 정상적인 데다 사람의 사유를 뛰어넘는 경천동지할 행사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정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말씀할 뿐이다. 또한, 천둥을 치며 음성을 발하지도 않고 비바람을 불러오지도 않지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화신이며, 확실히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상상에 부합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여겨 높이 받들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는 비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패역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다.

온전케 될 사람은 모두 연단을 겪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실천하며 네 본분을 다 이행해야 하며, 그뿐만 아니라 네가 체험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책망, 징계, 심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줄만 알 뿐, 하나님이 언제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지 느끼지 못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번 연단에서 바른 입장을 견지했다라도 거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과는 끝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상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면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받는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반대로 받는 연단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도 더 적게 나타난다.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큰 고난을 받을수록, 많은 시달림을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더 갖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큰 연단과 고통을 받고 많은 책망과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책망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인식이 매우 얇은 관계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분을 누리게 하십니다.”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 책망과 징계를 겪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더욱 가치와 의의가 있고, 네가 헤아릴 수 없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더욱 너를 정복하고 얻을 수 있으며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이렇게 연단하지 않고 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하였고 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세에 이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특별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에게 큰 사역을 행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순결해지며, 하나님이 큰 사역을 행할수록 사람이 그의 지혜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깊어진다.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말세에 끝나겠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면 끝이겠느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은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다. 네가 온전히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측량할 수 없고 네 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네 관념에 어긋날수록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네 관념에 부합하면 의미가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몹시 기묘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기묘할수록 너는 더욱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가 아주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역만을 행하여 사람을 정복하고 끝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얼마간 연단을 받지만 이는 네 생명이 자라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너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네가 연단을 조금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하나님의 행사가 실로 기묘하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연단(봉사자 시련, 형벌시대)을 겪은 후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참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람이 소중히 여길 만하다는 의미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네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한 사역이 가치가 있겠느냐? 나는 네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행사는 실로 기묘하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사랑스러우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한동안 체험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이 네게 한 사역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음을 말해 준다. 훗날 네가 외국에 나가 전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도 기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너의 이 말 속에 실제 체험이 들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증언이다. 또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은 실로 지혜롭고, 너에게 한 사역이 너를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네 마음을 정복했으며, 그는 실로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를 사랑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이 모두 증언이다.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해 준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야말로 참된 증거이다.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길 만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보배롭고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도 있으며,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우러나온다면 그때는 너에게 증거가 있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멀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연단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지혜롭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말의 실재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보배로울 것이고 너의 체험도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지, 이것이 네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너는 그 사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주든, 너를 책망하든 징계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너에게 자신의 행사와 사역을 행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실제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있느냐? 실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너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려면 너의 체험과 인식, 네가 치른 대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너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기를 갈망하며, 너의 입으로 증거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해야 한다. 네가 정말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복을 받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너는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그를 만족케 할 것인지,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혜를 어떻게 증거하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것이 모두 지금 네가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단지 하나님께 온전케 된 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증거하고, 그의 요구를 실제로 충족시키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받든, 눈물을 흘리든, 근심으로 슬퍼하든 모두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고난받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냐? 오늘날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복을 받거나 나중의 앞날과 운명을 위한 것이냐? 마음가짐과 동기, 추구하는 목표를 바로잡아야지, 너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는 복을 받기 위해, 왕 노릇 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흡족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한다면 너는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전자를 택한다면 너는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행사를 전 우주에 공개하고, 전 우주에서 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맡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지, 왕이 되어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주 궁창에 가득 나타내 모든 이가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겠느냐? 너에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 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겠다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너에게 이런 원동력이 있다면 그 어떤 소극적인 것, 수동적인 것, 육적인 나태함, 육적인 관념, 처세 철학, 패역한 성품, 감정 등도 모두 쉽게 버릴 수 있다.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사람이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실행의 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것은 다 정상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옴이 비록 연약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게 된 모든 것은 여호와가 베풀어 준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이도 여호와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시련을 겪든 그의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네가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연단을 받든,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가 그렇게 사역함으로써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며, 또한 사람의 의지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할 때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일에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고, 네가 관념을 내려놓지 못할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며,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모를 때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너는 이러한 주관을 갖고 굳게 서야 한다. 옴이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했다. 다시 말해, 네가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지만, 네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너를 온전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네가 바라는 것을 베풀어 준다. 너에게 믿음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능은 더더욱 볼 수 없다. 네가 실제 체험 중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 네 안에서 너를 깨우쳐 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네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네가 하나님께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니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체험 속에서 그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받을 수 있고, 그의 행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연단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란 무엇이나? 바로 사람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과 맞지 않아 이를 수 없을 때, 갖춰야 하는 참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믿음이다. 사람은 고난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고, 연단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연단도 온다. 이들은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계속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케

하고, 깊은 곳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지난날, 너에게 왕권을 잡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를 사랑하고, 너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를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고난이 임하니 하나님에게 실망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언제든지 생명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진실한 믿음이자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다들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다지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임한 연단이 네 관념에 어긋나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냐? 너는 지난날 욕의 행적을 여러 번 보았다. 그것을 지금은 잊은 것이냐? 믿음 안에서만 참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네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생기고,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욕을 버리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고난받겠다는 각오, 믿음, 인내, 순종 등 모든 것을 갖춰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연단이 닥칠 때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만 알아서도 안 된다.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습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갖고 예전의 사랑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차라리 자기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고통을 참으며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지언정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믿음이다. 너의 실제 분량이 어떻든, 너는 우선 고난받겠다는 각오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욕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고난받고 개인적인 이익에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고 또 스스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스스로 통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너를 온전케 한다. 네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온전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줄만 알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쓰는 것은 너를 연단하여 고통받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게 하나님의 행사와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상 하나님의 형벌도 두려워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심판한 것도 체험할 수 있다면, 너는 전면적으로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 사역도 하고 형벌 사역도 했으며 말씀으로 너를 책망한 적도 있지만, 너를 깨우쳐 주었고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네가 소극적이 되어 연약해졌을 때도 너를 염려하였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너에게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또는 육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편안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너의 관점은 바르지 않은 것이며, 너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묘함과 난측함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인식을 통해 네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요구와 소망, 관념을 없애야 한다. 이런 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을 갖추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요구한 성품으로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격 없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 그의 행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옳은 관점이자 네가 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서 행하는 기묘한 행사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실제 사역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체험을 통해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네 안의 불결하고 불의한 것을 벗어 버리고 너의 옳지 못한 속셈을 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바로 열의가 생겨나고, 연단받는 것을 보면 바로 열의가 사라지는 이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수많은 종교 관념을 버리지 못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놓지 않고, 육적인 복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너의 육과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이는 전부 관점이 바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육적인 이익만 추구할 뿐,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종교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는 전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겠다는 마음과 자기를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성품이 변화될 수도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시련이 닥쳤을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 지어 그 시련을 대했느냐? 소극적인 자세로 대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연단을 알려고 했느냐? 시련과 연단을 통해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 커졌느냐? 너는 연단을 받을 때 육의 시련과 연관 지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사역을 참답게 대할 수 있겠느냐? 육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육의 시련을 통해 어떤 일깨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편안한 환경에서 육체를 만족시키고자 하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진정 육을 위하지 않느냐?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느냐? 너는 연단을 겪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실로 증거하는 것이겠느냐? 실제 하나님이 너에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는 어째서 늘 떠날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냐? 너희 중 많은 이가 자신을 위한 타산을 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것은 모두 패역이 아니냐?

연단 사역은 주로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었을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앞날에 대해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는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게 된다. 사람이 죽도록 힘든 지경에 이르러 죽음의 맛을 보기 전까지는 이 연단이 끝나지 않는다. 봉사자의 단계에서도 연단은 극한에 이르지 않았다. 육은 극한의 연단을 받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수준까지 연단을 받아 희망도

의지할 곳도 전혀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연단이다. 봉사자일 때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온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계속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한다면, 이 길 끝에서 너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욥의 시련을 겪는 동시에 베드로의 시련 또한 겪게 된다. 욥이 시련을 받을 때 굳게 서자 마지막에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났다. 굳게 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생긴 것이다. 어째서 “나는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지만 더러운 땅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네가 성결하게 되고 굳게 서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있는 것이지,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떠나거나 원망하고 굳게 서지 못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욥처럼 시련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저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증오할 수는 있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으며,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네가 어느 정도로 연단을 받아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며, 관념도 갖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수많은 관념과 선입견이 있고, 사심, 잡념, 사사로운 요구, 육적인 이익이 많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이 닥쳤을 때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 있으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굳게 선 것이다. 만약 네 가정이 평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누릴 수 있으며 아무도 너를 핍박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한 너에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를 연단할 수 있겠느냐? 연단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닥쳐야만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많은 일을 역이용하고, 또 사탄의 수많은 행위, 참소, 교란과 미혹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해 네가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분별하게 하고 나아가 사탄을 증오하고 저버리게 하는 것이다.

너는 많은 실패를 겪고 연약함을 수없이 체험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소극적이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든, 연약해져서 넘어지든,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시련을 주는 것이지만 네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된다. 사람은 두 가지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나는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전자는 성령의 빛 비춤을 받아 자신을 알고 증오하고 통회하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되고, 굳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 한다. 반면 후자는 자신을 알기는 해도 소극적이고 연약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께 큰 죄책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보완하여 다시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련이다. 고통을 받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쳐 주고 양육해 줄 것이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아예 자포자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 닥친 것이다. 욥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것이었고, 사탄이 욥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었다. 비록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욥에게 임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욥을 시험한 것이었지만 욥은 하나님 편에 섰다. 만약 욥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시험에 빠졌을 것이다. 사람은 일단 시험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연단 겪는 것을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이상(異象)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탄이 너를 참소하고 이상에 대해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너는 세부적으로 체험하며 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관념이나 많은 속셈이 생기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실행 방법이 있는지 등을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안다면 분량이 있다는 의미다. 겉으로만 열정이 있다면 참된 분량이 아니므로 전혀 굳게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알아야, 또 언제 어디서든 체험하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목양자들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른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체험할 줄 모르고, 일이 닥쳐도 처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모르고, 영 생활을 할 줄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너의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너에게 내면에 누림을 잃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고 어둠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연단이다. 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때로 네가 거역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는 아주 세밀하다. 사람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아주

또렷하게 감찰하고 사람이 속으로 느끼게 한다. 네가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문제가 생기다 보면 성령 역사에 대해 차츰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번의 징계를 통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알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된다. 어떤 때는 네가 거역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징계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답게 대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깨우쳐 준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흐리멍덩하게 믿고 지나친 일을 많이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뚜렷한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사명을 버리고 사업하러 떠나도 징계가 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전케 되기도 어렵다. 많은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연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따라가야 하며, 최소한 떠나지 않고 베드로의 0.1%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용 가치가 없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베드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들에게 징계하고 깨우쳐 주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벗어 버릴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람은 금은보석이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도 네가 여전히 모래나 돌이라면 너라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하는 사역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한데, 한 무리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을 도태시킬 것이다.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 분명 일부 불신파나 악인들이 도태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 소수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때 모두 드러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역사를 통해 드러나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모두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 사람들이고, 온전케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져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정복된 사람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할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란 실제로 체험하여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마음을 점유하면 사람은 자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면 ‘봉사자’ 단계에서 사역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려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정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전케 하는 사역, 도태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그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 두 사역은 동시에 시작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해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복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정복된 사실이다. 그러나 연단은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연단 없이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단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한 무리 사람들을 얻는다. 예전에 말한 열 가지 복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땅에서 형상을 바꾼다는 것은 모두 온전케 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온전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 수 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네게 행한 것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는 모두 네가 배워야 할 공과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행한 것과 보여 준 것은 모두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를 진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나아가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받게 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클수록 사람은 더욱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더욱 의미하며, 사람은 마음으로 더욱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공과는 무엇으로 도달하게 되느냐? 만약 고난과 연단,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 긍휼만 베푼다면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보잘것없고 비열하고 천박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비록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극도의 비통에 빠질 때도 있지만, 체험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이 실로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토대로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없고, 사람의 본질은 더더욱 인식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듭된 심판과 연단을 통해야만 사람이 연단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평안하거나 물질적 축복만 받았다면, 하나님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은혜의 사역을 하며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 축복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 긍휼만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은 체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았다. 그러나 한동안 체험한 후에는 그의 은혜와 자비, 긍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파괴된 것들을 들춰내지 못하며, 사람의 파괴 성품을 벗겨 버릴 수 없고, 사람의 사랑과 믿음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한 단계 사역일 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그의 공의 성품을 통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공의, 진노, 위엄과 심판, 저주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주로 심판의 방식을 택한다. 어떤 이는 어째서 심판과 저주를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은 죽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건 정죄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묻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죄다. 비록 엄한 말씀으로 가차 없이 사람 내면의 것들을 전부 들춰내고, 사람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육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한다. 사람의 육은 죄에 속하고 사탄에게 속한다. 육은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야 하며, 게다가 온갖

방법으로 연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육을 정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저주의 말씀에 속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며,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로는 성령이 내면에서 너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얼굴을 가리며,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역사하지도 않으며, 소리 없는 형벌로 너를 연단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할 때 주로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의 성품이 바로 공의이자 진노, 형벌, 심판임을 증거한다. 즉,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구원한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느냐? 심판과 위엄, 진노와 저주가 들어 있다. 지난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사람을 완전히 무저갱에 버리지 않는 않았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믿음을 연단했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했지 전부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육의 본질은 사탄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말씀대로 사실이 임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가 너를 저주하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게 하고, 네 육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가 너를 형벌하는 이유는 너를 각성시켜 네 내면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사람이 형편없고 자격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위엄, 진노는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너희에게 나타내는 공의 성품은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은 전통 관념에 근거해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하나, 너무 단편적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요 방식이 아니다. 병에 걸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이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진리를 몰랐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매우 많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게 했고, 사람을 오늘날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교회 건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봉사자’ 단계의 사역을 하여 사람을 무저갱 속으로 빠뜨렸다. 봉사자 그 당시의 말씀은 모두 저주의 말이었다. 너의 육을 저주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저주했으며,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주했다. 그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위엄이었다. 곧이어 하나님은 또 형벌 사역을 했고, 죽음의 시련을 주었다. 사람은 그러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 심판과 형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도 보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나타내는 성품은 전부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그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사람의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본래 모습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분량에 맞춰 조금씩 사람에게 공급해 주어 그에 대한 인식이 사람 내면에 점차 생겨나게 했다. 사람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없이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 이래 행한 첫 번째 저주 사역으로, 사람을 저주하여 무저갱 속에 넣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접할 수 있었다. 사람은 모두 봉사자의 시련을 통해 드러났고, 자신의 충성심이 형편없고, 분량이 너무도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흡족게 하겠다는 것은 말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봉사자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지만,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단계 사역이 몹시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사람의 생명 성품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봉사자 단계 전에 사람은 생명 추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사역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 시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봉사자 단계의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지극히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으며,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람의 분량이 몹시 보잘것없고,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 것은 한 가지 성과를 얻기 위함이었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가 사람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저 말씀의 저주였을 뿐, 사실이 임한 적은 없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사람의 패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저주의 말씀 역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저주도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연단을 주었고, 사람 내면의 부족한 것들은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온전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엄한 말씀이든 심판과 형벌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에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너희에게 이런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적으로 고통을 조금 겪었지만, 늘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행복이다.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되든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이 전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을 겪지 않아 늘 겉으로만 행하고, 겉으로만 열성적일 뿐, 성품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방자하고 오만한 것들이 많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성품이 많이 안정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것 역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에는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언젠가 네 성품이 변화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지극히 지혜로웠다고 느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다. 그가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지, 저주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은 밝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로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너는 인생을 알고, 너의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이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진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은 알지 못해, 고난받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시 기뻐하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하다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몹시 괴로운 마음에 죽고 싶어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는 의지가 없고 나약하며 무능한 겁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그를 사랑할수록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네가 그를 사랑하면 갖가지 고난이 네게 임하겠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주변 환경도 평화로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늘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분량으로 인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아 사람이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연단을 받고, 또한 자신의 내면에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인해 연단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이 닥칠 때면 너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얻으셨다. 그러니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네가 하나님을 만족게 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욱 축복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의지도 굳세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근심과 슬픔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실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이 위로를 받아 편안하고 든든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고, 네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안배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든 네 뜻에 부합하지 않고 눈에 거슬릴 것이며,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압박을 느낄 것이며, 늘 하나님께 원망을 품으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 많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네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기 위해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행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흡족게 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식어도 너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 분량이다. 너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련이 임했을 때 굳게 설 수 있는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연약해지지 않는지, 형제자매들이 너를 버려도 네 입장을 굳게 지킬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에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 다만 사람이 영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랑스러움을 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너무나 작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 왔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너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솔직히 말해, 너는 어쩔 수 없이 바른길로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과 크나큰 구원이 너를 바른길로 인도한 것이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닫게 되며,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묘한 사역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고난의 연단을 더 많이 체험해야만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자 한다면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하고 대가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공과로,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는 공과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기만 할 뿐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 봤자 헛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생을 헛사는 것이요, 네 일생은 가장 미천한 일생이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족케 한 적이 없다면, 네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수고 아니겠느냐? 바꿔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겉으로 무엇을 하려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재미있어하지만, 진리 실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에 부딪히든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일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닥쳐 고통을 겪어야 할 때, 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육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방법을 찾고 네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서 특별히 너를 깨우칠 것이요, 네 마음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일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선 자신을 내려놓고 육을 가장 천한 것으로

여겨라.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은 더 큰 욕심을 낼 것이다. 이번에 만족시키면 다음에 또 다른 요구를 하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욕을 더 사랑하게 된다. 욕은 항상 사치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어 늘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라고 그 안에서 즐기길 바란다. 먹고 입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태함 등등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욕망은 더 커지고, 나날이 방종해질 것이다. 그러다 어느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욕은 관념이 더 깊어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받들며, 하나님의 사역도 의심하게 된다. 네가 욕을 만족시킬수록 욕의 연약함은 더 많아져 늘 아무도 너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리 엄하십니까? 왜 언제나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시죠?”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이 욕을 지나치게 만족시키고 지나치게 사랑하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더없이 적절하고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네 패역을 저주하고 네 불의를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때로 하나님이 너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환경을 조성해 단련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해도 너는 늘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크게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몹시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욕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늘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모호해져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조금도 굽어살피지 않고, 사람의 고충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며, 언제나 너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고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때면 너는 원망의 말을 쏟아 낼 것이다. 네가 이렇게 욕의 연약함을 헤아릴수록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이며, 네 내면은 패역한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욕을 저버려야지, 헤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남편(아내), 자녀, 미래, 결혼, 가정 따위는 없어! 내 마음속엔 오직 하나님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해. 욕을 만족시키면 안 돼.’ 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 늘 이런 의지를 갖고 진리를 실행하며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조금만 힘써 노력해도 해낼 수 있게 된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길에서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보고 주워 품 안에 넣었더니 뱀이 깨어나 농부를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의 욕은 뱀과 같아 본질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 네가 욕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가 곧 목숨을 잃는 때이다. 욕은 사탄에 속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 들어 있어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호강하길 원하며 안락한 생활을 탐내고, 초조해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어느 지경까지 욕을 만족시키다 보면

종국에는 욕에 삼켜지고 만다. 다시 말해, 네가 이번에 욕을 만족시켰다면 욕은 다음에도 네가 만족시켜 주길 바란다. 욕 안에는 늘 사치스러운 욕망과 새로운 요구가 있으며, 네가 욕을 생각하는 기회를 틈타 욕을 더욱 아끼며 욕의 안락 속에서 살게 한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너 자신을 망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일지는 욕을 어떻게 저버리느냐에 달렸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또 너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 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려 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욕을 저버리려 하지 않아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너는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욕을 생각한다면, 너는 천천히 사탄에게 잠식될 것이고, 생명도 영적 감동도 없다가 언젠가 내면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살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더 이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 겉으로 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고생할 필요도,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이 뛰어다닐 필요도 없으며, 사치스러운 생각과 개인의 이익, 자신의 계획, 관념, 속셈과 같은 사람 내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인성, 사람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풍습 및 외적인 행동과 사람의 열의 등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실행해 성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주로 사람 내면의 마음가짐과 관념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만 다스리려 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네가 즐기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쉽게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관념에 관계되는 것이면 내려놓기가 힘들다. 여기에는 욕을 저버리고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렇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때는 네 마음가짐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에 부딪히면 네 내면의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을 가로막는 관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네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 네 관념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입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욕을 저버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욕을 저버리려 할 때 네 내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사탄은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고 욕의 관념대로 육적인 이익을 지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사람 안에서 빛을 비추고 깨우쳐 줄

것이다. 그때는 네가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사탄을 따를지를 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실행하라 할 때는 주로 사람 내면의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다스리려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준다. 그래서 모든 일의 뒤에는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실천할 때마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 사람의 육이 평온무사한 듯 보여도 사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차례 격렬한 싸움과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겨우 승패가 나뉘니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노릇이다. 사람의 내면에 잘못된 마음가짐이 많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많은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때면 늘 이면에 큰 싸움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때 뒤에서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게 된다. 싸움이 있기에 사람은 고통받고 연단을 받는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싸움이 임했을 때, 네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하면서 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진리를 실행할 때 사람 내면의 것이 모두 옳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될 필요가 없고, 싸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이 쓰기에 부적합한 구석이 많이 있고, 육적인 패역 성품도 많기 때문에 육을 저버리는 공과를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받게 된다는 그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길 원합니다. 온갖 고통을 끝까지 견뎌 당신의 마음을 흡족게 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큰 좌절을 겪어도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릴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굳게 설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 때마다, 연단과 시련,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때마다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서는 전부 검증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분주히 다니는 것 등도 얼마간 대가를 치르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자 응당 이행해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든 모두 헛수고이다! 다시 말해, 내적 변화야말로 외적 고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를 실행했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적 성품에 변화가 없다면 외적으로 받은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받은 고통에 하나님의 확증이 없다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너의 대가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네게 변화가 있는지에 달렸고, 네가 진리를 실행하고 자신의 속셈과 관념을 저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했는지에 달렸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녔다 해도, 단 한 번도 자기 속셈을 저버린 적이 없고 외적인 행위와 외적인 열정만 추구하며 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은 전부 허사가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말이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내적으로 괴로울지언정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네가 고통을 참고 포기하길 원하고, 고통을 감내하여 하나님을 만족게 하길 원하며, 내적으로 고통받을지언정 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흡족해할 것이다. 따라서 네 내면도 위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치르는 대가로, 하나님은 이런 대가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네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허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싸울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사탄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고, 그러면 굳게 선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겉으로 보면 마치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같고, 사람의安排나 방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과 일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내기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욕이 시련을 받았을 때, 그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었지만 욕에게 닥친 것은 사람의 행위요, 사람의 방해였던 것과 같다.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뒤에는 사탄이 하나님과 한 내기가 있고, 싸움이 있다. 예를 들어, 네가 형제자매에게 편견이 생겨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자니 내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다. 이때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말할까, 하지 말까?’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그래서 일이 임할 때는 늘 싸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네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너의 실제적인 협력과 네가 실제로 받는 고통을 통해 네게 역사한다. 결국 너는 내면에서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역시 네가 하나님과 협력한 결과이다. 어떤 일을 하든 일정한 심혈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실제로 받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게 한다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은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 공허한 구호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과 싸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겠느냐? 일이 닥칠 때마다 네게는 그것이 큰 시련이자 하나님께서 네 증거를 필요로 하는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 봤을 때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그런 일이 닥치면 너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자요, 진리도 생명도 없는 쪽정이임을 보여 줄 것이다! 일이 닥칠 때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 할 때이다. 지금 네게는 큰일이 닥치지 않아 별로 크게 증거한 것이 없겠지만, 일상의 사소한 부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형제자매들이 탄복하고, 가족이 탄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탄복하게 해라. 언젠가 이방인이 와서 네 모든 행위에 탄복하며 하나님이 행한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면, 너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네게 식견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자질이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이들은 가장 기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다. 네가 큰 사역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고정 관념을 내려놓지 못해도 너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실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도 너는 자신의 실제 분량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너는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없는 것이다. 사탄 앞에서 증거하지 못하면 사탄은 너를 비웃고, 노리개 취급하고, 항상 너를 농락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친다 해도 지금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앞으로의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다면, 너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장차 어떤 큰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앞의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며,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너희는 뭔가 큰 사역을 할 수도 없지만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을 만족케 하며, 강인하고 힘 있게 증거함으로써 사탄을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 비록 육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사탄에게 수치를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네가 항상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네 앞에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너는 굳게 설 수 있다. 너는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은 네가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네가 평소에 진리를 실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련에서 반드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우매하고, 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른지에 달려 있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일도 놓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만족게 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진심을 하나님께 바쳐라. 밝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여 형제자매가 너를 버리더라도 육적인 즐거움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라. 네가 늘 이렇게 실행한다면 큰 시련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은 사람의 어떤 내적 상태에 초점을 두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내면의 패역 성품에 초점을 둔다. 사람의 내면에는 수많은 불순물과 외식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시련으로 사람을 정결케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련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반면, 지금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시련은 네게 시험이 되어 너는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 뜻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분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 잘 만족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가고 싶다면, 지금 반드시 기초를 잘 다져야 하며, 매사에 진리를 실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실행하면 내면에 토대가 생길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더해 줄 것이다. 언젠가 정말 시련이 닥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매우 슬프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비통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은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 그러나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시련이 닥쳤을 때 네 사랑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시련은 시험이 되고, 너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너에게 작은 시련이 왔을 때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큰 시련이 닥쳤을 때도 설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여기며 득의양양해한다. 하지만 그때 깊이 진입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위험해진다. 하나님이 지금은 더 큰 시련 사역을 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너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것이다. 네 분량이 너무 작아 큰 시련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시련이 임할 때 쓰러지고 만다. 늘 자신의 분량이 작다는

것을 인지해야 발전이 있다. 시련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분량이 너무 작고, 의지가 너무 약하며, 실제적인 것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시련 속에서 필히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련이 닥쳤을 때 네 관념에 맞지 않으면 설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너의 육에 무엇을 가져다주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내면 사람의 육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바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한다면 필히 그의 모든 성품을 네게 나타낼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성품을 사람에게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말세에 하나님은 그가 예정하고 택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고,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자신의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든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완전히 바치고 싶다면, 반드시 많은 고통과 환경의 시달림을 겪어야 한다. 너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야 결국 마지못해 하나님께 진심을 돌려 드릴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드러나며,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순결하게 만드는 것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를 간략하게 논하다

너희는 천년하나님나라(역주: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異象)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천년하나님나라가 땅에서 천 년 동안 계속된다면, 교회에 있는 나이 많고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천년하나님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희는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밝히 알지 못하다 보니 적지 않은 연단을 받았다. 사실, 천년하나님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도래하지 않았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에서 천년하나님나라는 그저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말씀한 ‘천년하나님나라’ 때에는 사람이 이미 온전케 된 상태다.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거룩한 자같이 시님(원문: 秦國) 땅에 서게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람이 온전케 된 때, 즉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한 자가 된 그때야말로 천년하나님나라가 도래한 때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정결케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더욱 온전케 된다. 네 내면의 더러운 성분과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성분, 육에 속한 것 모두가 제거되고 정결케 됐을 때,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거룩한 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는 천년하나님나라에 있게 된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오게 되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전화나 통신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활용하게 될 것이며,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 사람이 온전케 된 후의 일이다. 지금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연단하며, 깨우쳐 주고 인도하는 때이다. 이때는 하나님나라시대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이므로 천년하나님나라시대와는 아직 관련이 없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사람이 이미 온전케 되어 사람 내면의 패괴 성품이 전부 정결케 된 때이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역의 비밀을 전부 밝혀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각 시대에 행한 사역과 매일 행한 사역, 그리고 사람 내면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영계에서 행한 사역, 영계의 움직임을 모두 사람에게 알려 줄 것이다. 그때야말로 진정한 말씀 시대이며, 지금은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사람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하면 땅에서 천 년 동안 살 수 없다. 육체는 필연적으로 썩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사탄에게 속하는 육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땅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너는 아직 꿰뚫어 볼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체험하는 것은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천년하나님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한 편의 예언에 속한다.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과 비슷하며, 하나님이 이후의 일을 지금 예언한 것이다. 이후에 하나님이 할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과는 또 다르다. 이후에 하는 말씀은 시대를 인도하는 말씀이며, 지금 하는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연단하며,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후의 말씀 시대는 지금의 말씀 시대와는 다르다. 지금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국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 내면의 더러움을 정결케 함으로써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하는 말씀과 이후에 하는 말씀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훈련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며, 정결치 못한 것들은 전부 제거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토대가 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며 사람의 내면에서 늘 깨우치고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되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한다. 너의 내면에 부족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깨우침을 얻는다. 이후에 하는 말씀은 전 우주의 사람을 인도한다. 지금은 오직 중국에서만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는 전 우주를 향해 하는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년하나님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전 우주를 향해 음성을 발한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비밀들을 알게 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천년하나님나라시대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을 말한다. 유대에서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중국 대륙으로 옮겼다.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 너희에게 자신의 다른 한 부분 사역, 즉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이 수많은 고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게 한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다. 그가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 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그를 만족케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을 온전케 했을 때가 바로 천년하나님나라시대이다.

예수는 땅에 와서 33년 반 동안 살았다.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를 얻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와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고통도 견뎌 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모욕과 비방, 그리고 크나큰 고통을 견디며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을 얻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영광의 일부만 얻었을 뿐이다. 예수는 온갖 고통을 견뎌고,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일부만 얻은 것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또 한 부분의 영광이 있다. 그것은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단계 사역에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했지만, 그 단계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단계에서 예수는 주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크나큰 고통을 견뎌 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사탄 앞에서 한 단계의 증거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중국에 성육신하게 되었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얻은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수많은 정복 사역을 행하고 너희가 굳게 선다면 그의 이 단계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의 일부이며, 너희는 이것만 볼 뿐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 못했고,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도 못했다. 너희는 아직 이 영광을 완전하게 보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너희가 더 이상 그를 떠나지 못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이룬 성과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실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많은 교회의 형제자매가 힘이 솟구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위력이 지극히 크고 말씀의 위력도 비할 데 없으며, 말씀이 권병을 지니고 중국 대륙이라는 이 귀신의 성에서도 그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 사람은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앞드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배롭게 여길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앞날과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을 모두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완성되면, 중국 대륙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일단락된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이 모두 온전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한 두 번째 부분의 영광이 동방으로 옮겨졌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동방에 가져왔다는 것은 그가 이미 동방에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려고 하는 이상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중국에서 이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는 너희를 온전케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지금 너희의 퇴로를 모두 막아 버렸다. 즉, 사람의 마음을 이미 정복한 것이다. 너는 가고 싶어도 가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얻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직 영광을 완전히 얻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아직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육체의 연약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정적인 것들을 수없이 벗어 버리고, 또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이다. 특히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사역하는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 갈 좋은 기회다.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인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이상(異象)이자 토대이다. 사람에게 이런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고, 공허한 도리 속에서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는 훗날 도태될 대상으로, 공밥을 먹는 사람이다. 네가 어느 단계의 사역을 체험하든 그에 따른 큰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새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새 사역은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없고 사람의 사고로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목자의 목양이나 이상에 대한 목자의 교제 없이는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고, 새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무(無)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히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이는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점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 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상을 아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을 아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아는 것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첫걸음이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가장 깊게 믿을 때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네 ‘믿음’

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체가 없고 순결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차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조금씩 성품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믿음도 점점 진실해진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직접 사역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알고 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역을 마칠 때 거둘 최종의 성과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를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 인류가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추구하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경외와 순종도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지만, 어느 측면을 알든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고정 관념에 너무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은 사람이 알기 아주 어려우며,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나 행동 하나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많은 사역을 했고, 사람의 관념이 치유받기 힘든 많은 말씀을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계속 사역하고 계속 말씀해 왔다. 수많은 ‘용사’가 쓰러졌지만 그는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새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는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끊임없이 택하고 있다. 그는 쓰러진 ‘영웅호걸’을 전혀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 그의 새 사역과 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그의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느냐? 그는 왜 늘 사람을 도태시키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겠느냐? 왜 항상 이런 방식을 택하겠느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로 인해 그에게 얻어지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사역 원칙은 그의 현재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역하고, 과거 사역에는 순종하나 현재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태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은 체험하고

*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역) ‘하나님을 아는’ 이 단계 사역은

고난받고 참되게 순종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없고, 또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 필요한 체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거나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요소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그에 대해 더 새롭고 깊게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앎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고, 은혜시대에 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이상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게 된 후에야 예수에게 행해진 영의 많은 사역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체험으로는 완전하게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하나님 사역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니라.”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사도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리스도로 여기지는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가 그에게 물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따르길 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에서 그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자신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았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한 후, 그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수많은 행사와 사랑스러움을 보았고, 예수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없이 많다는 것을 보았다. 예수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었고, 예수가 하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많은 지혜와 신성의 사역을 보았다. 베드로는 체험 속에서 자기 자신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행사를 중요시하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수없이 발견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행한 사역에는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있었고, 예수가 한 말씀과 행한 일, 교회들에 대한 목양, 그리고 예수가 한 사역은 일반인과 달랐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마땅히 배워야 할 많은 공과를 배우게 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예수에게 평생 동안 충성하고 주를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토대가 되었다. 베드로도 관념을 조금 가지고 있어 초기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예수는 떠날 즈음에 베드로에게, 자신이 와서 하려는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반드시 시대에 버림받을 것이고, 더러운 옛 시대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또한 자신이 온 것은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역을 마치면 자신의 직분도 끝나게 된다고 말이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했고, 예수와의 이별을 몹시 아쉬워했으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뒤에서 통곡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었다. “내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셨는데 가시면 또 언제 저희와 만나시리이까?” 베드로의 말 속에는 불순물이 있지 않느냐? 관념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예수가 한 부분 사역을 완성하러 왔고, 예수가 떠난 후 영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영은 자신과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보낸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 자신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을 관찰하고 세심하게 체험하기만 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무엇을 이상으로 여겼느냐?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자 바울이 물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예수가 말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한 후 40일 동안 나타난 것과 예수의 생전 가르침을 이상으로 여겨 끝까지 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생명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 네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패괴 성품을 다스리는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얼마나 큰 구원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체험이다. 네가 단순히 진리를 실행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진정한 함의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근본 취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언젠가 너는 예배당에서, 오회파(懊悔派)에서, 생명파에서 경건한 사람을 수없이 만날 것이다. 그들의 기도에는 ‘이상’이 있고, 생명 추구에는 감동과 말씀의 인도가 있다. 또 그들은 많은 일에서 인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들이 모두 옳게 행동하고 있고, 모두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지만 아쉽게도 믿는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어리석은 관점 아니겠느냐? 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하겠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생명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실재, 하나님이 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너의 그런 체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예수 그 단계에는 어떻게 했고 이 단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은혜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 단계에는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너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얼마 동안 체험해서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의 절차를 알 수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마음을 놓고 대담하게 앞길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걱정하지 않고 연단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봐야 한다.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사람을 연단하고 사람의 고정 관념을 돌려놓는다. 너희가 받은 고통과 너희가 겪은 연단, 내면에서 받은 책망, 체험한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그지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 과거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통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온전케 되든, 연단을 받든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자 오늘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상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앎을 기반으로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사람은 훈계와 연단을 겪을수록 힘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역 절차가 많을수록 더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체험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상반되며, 모두 사람의 사유로는 이를 수 없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에 있어, 모든 면이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연약할 때 음성을 발하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네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네 고정 관념을 깨 네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해야 네가 패괴를 벗어 버릴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신성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기도 한다. 너는 하나님이 한 모든 사역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정상 인성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하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아무리 정상적이라 해도 순종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네게 실제 체험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어떤 관념도 없이 끝까지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역하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또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그의 말씀은 너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수 있지만, 그는 또 자신의 위엄 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네가 그를 증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사고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패괴가 있는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어 사람을 몹시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그가 사람의 패괴 성품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그의 증거와 그의 경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공개적인 현현으로 그를 알게 하고, 성품 변화를 이루며, 그를 힘 있게 증거하게 한다.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변화된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도 없다. 사람의 성품 변화는 사람이 이미 사탄의 속박과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역의 모델과 표본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한 요구는 바로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사역을 알라는 것이요, 사람의 고정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모든 사역과 사람을 정복하는 모든 행사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증거야말로 정확하고 실제적이며,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과 형벌, 책망과 훈계를 겪고 그를 알게 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탄에 의해 패괴된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하고, 성품 변화로 그의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그를 증거하게 한다. 그는 사람의 입에 발린 찬양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부류가 그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성품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의로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 간 과정

베드로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에게 사랑스러운 점과 본받을 점, 공급받을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함과 사랑스러운 점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베드로는 20세부터 6년 동안 예수를 따랐는데, 그 기간 동안 줄곧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저 예수에게 감복하여 따르기를 원했을 뿐이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날 따르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라는 분이 가장 큰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그는 늘 예수를 찾아가고 싶어 했고, 기회를 보아 예수를 만나길 원했다(당시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예수를 사모하고 앙망하게 되면서 언젠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럼 예수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 예수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른 것이지, “갈릴리 해변으로 가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자가 있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수는 어떤 사람에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시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고 다닌다는 것을,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는 곧바로 그 사람을 따라 갈릴리 해변으로 갔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후 바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예수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했다. 그는 영에 대해 조금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기에, “당신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는 예수가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따른 후 예수가 하는 사역과 말씀에 관심이 생겼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겼다. 베드로는 예수가 친근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여 그와 접촉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으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예수가 한 일과 말씀, 행동, 표정 등 예수의 모든 생활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다. 그는 예수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한 인성을 지닌 것 같았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 관용이 넘쳤으며, 그가 행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는 예수에게 위대한 외형이나 비상한 인성은 없어도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의 행동이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 예수가 행하는 일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와 접촉하면서 예수의 성격도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는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했으며,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말쑥하지도 않았다. 일상에서도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선망을 자아내는 그의 성격이 표출되었다. 예수는 언행이 솔직하고 대범하며 쾌활하고 침착했지만 사역할 때는 존엄을 잃지 않았다. 베드로가 본 예수는 때로는 말쑥을 아끼고 때로는 유창하고 막힘없이 말쑥했다. 때로는 아주 기뻐했는데, 그럴 때면 흰 비둘기처럼 기운차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슬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 온갖 고생을 겪은 어머니처럼 슬퍼하였다. 때로는 용맹한 전사가 적을 무찌르는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 포효하는 사자처럼 분노하였다. 또 때로는 환히 웃었고 때로는 슬피 울며 기도하였다. 예수가 어떻게 생활하든 베드로는 그를 끝없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베드로는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에 즐거워했고, 예수가 우울해하는 모습에 비통해했으며, 예수가 노여워하는 모습에 전전긍긍했다. 예수의 긍휼과 용서, 사람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들은 전부 베드로가 예수와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차츰 알게 된 것이었다.

베드로는 매우 이성적이며 총명함과 영민함을 타고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며 어리석은 일도 적지 않게 했다. 처음에 그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다. 그는 “모두가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당신은 8살이 되어 철이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나이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셨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나는 모르니라. 내가 지극히 평범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으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정상인이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하는 사역은 내 아버지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나의 모습, 즉 나라는 사람과 이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변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내가 영으로부터 왔으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비범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라고 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 후 예수가 수많은 사역을 행하며 가르쳐 주고 붙들여 주고 목양해 주자 베드로는 비로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는 30세가 되던 해에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에 대해 알려 주었다. 즉, 자신은 한 단계의 사역을 하러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할 것이라고 알려 준 것이다. 또한 베드로에게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며, 부활한 후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슬퍼했고, 언제나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와 더욱 가까워졌다. 한동안 체험한 후 베드로는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함임을 깨달았으며, 예수가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이런 인식이 생기자 성령이 비로소 그의 내면에서 깨우쳐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요한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모세이시나이다.” 예수가 다시 누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누가는 “당신은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한 여인에게 물으니, 그 여인은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선지자이시나이다. 누구도 당신보다 정확히 예언하지 못했고, 누구도 당신보다 많이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셨으며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나이다. 우리는 땅에 있고 당신께서도 우리와 함께 땅에 계시지만, 당신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며 결코 이 세상과 땅에 속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성령이 그의 체험을 통해 깨우쳐 주었기에 베드로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성령의 깨우침을 얻은 후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에 더욱 감복하고 예수를 더욱 사랑스럽게 생각했으며, 예수와 헤어지기 아쉬워하였다. 그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베드로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자 몹시 기뻐 “주여! 부활하셨나이까!”라고 외치고 울면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 드렸다. 예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였음을 알았지만 그 안의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잡은 물고기로 요리를 해서 올리자 예수는 거절하지도 별다른 말씀을 하지도 않았으며,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않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부활 이후의 예수가 부활 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 단계의 사역을 마침으로써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났으며,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마신 쓴잔을 너도 마셔야 하느니라(이는 예수가 부활 후에 한 말임). 내가 간 길을 너도 가야 하느니라.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느니라.”라고 알려 준 바 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은혜시대에 성령 역사는 매우 은밀하여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다. 때로는 정도가 심해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다. “하나님, 저에겐 목숨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제 목숨이 당신의 손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인간은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고 인간의 사랑과 마음 역시 보잘것없지만, 당신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리라 믿나이다. 인간의 육체는 당신께 열납될 수 없지만 저의 마음은 열납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는 이런 기도를 올리며 격려받았다. 특히 “제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지만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충성을 다해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위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제 이런 마음을 감찰하실 것이라 믿사옵나이다.”라는 기도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그는 “저는 평생 그 무엇도 바라지 않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 바람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저는 주님과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지냈어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 이 점이 가장 죄스럽나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나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더욱 죄스러울 따름이옵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면에서 “저는 진토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제게는 하나님께 바칠 충성스러운 마음밖에 없나이다.”라고 기도했다.

베드로에게는 절정에 이른 체험이 있었다. 그때 그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가 내면에서 여전히 그를 격려하며 그의 앞에 한 번 나타났다. 베드로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낄 때, 예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너는 전에 나와 함께 땅에 있었고 나 역시 너와 함께 땅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예전에 함께 하늘에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은 영계에 속하느니라. 이제 나는 영계로 돌아갔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에 너 역시 땅에 속하지 않지만 너는 땅에서 네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너는 종이 되었으니 네 본분을 다해야 하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에 위안을 얻었다. 당시 그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그는 “저는 너무 파괴되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앞에 나타나 “베드로야, 내 앞에서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 내가 한 말들을 정말 잊었느냐? 예전에 나와 함께 세웠던 뜻을 잊었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는 그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이미 알려 주었으니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 또한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했던 말을 잊은 것이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내게는 나의 일이, 네게는 너의 일이 있느니라. 네가 네 일을 마치는 날 우리는 분명 같은 경지에 있을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위안을 받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 고통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깨우침을 받게 되었다. 예수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특별히 베드로 앞에 나타나 그를 깨우쳐 주고 인도하며, 그에게 수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일 때문에 가장 후회했겠느냐? 예수가 그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하지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다르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대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한 그 말의 뜻을 알고 “주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예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땅에 거하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땅에 온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는 예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나이다.”라고 한 이 말을 늘 후회하고 통곡했으며,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는 이 일로 더욱 후회하며 슬퍼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역과 자신의 현재 분량을 생각하며 자주 예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후회하고 죄스러워했다.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반드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저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게는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제 목숨과 육체는 보잘것없나이다. 제게는 오직 믿음과 사랑밖에 없나이다. 당신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제 믿음과 사랑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에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라고 한 말씀에 특히 격려를 받았다. 후에 베드로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예수는 “베드로야, 잊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니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먼저 갔을 뿐이니라. 너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라. 이를 정말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두 번 말했거늘 기억 못 하는 것이냐?”라고 일깨워 주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잊지 않았나이다!”라고 답하니, 예수는 다시 이렇게 말씀했다. “전에 나와 하늘에서 즐거운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동안 함께했느니라. 너도 나를 그리워하고 나도 너를 그리워하느니라. 피조물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한 약속을 잊었느냐? 너는 땅에서 내가 맡긴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니라. 언젠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곁으로 데려올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더 큰 격려와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당신이 제게 죽으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든, 당신의 이전 약속대로 이루시든 이루지 아니하시든, 당신께서 앞으로 어찌하시든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지킨 것은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제자 몇 명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 정말 유치한 질문을 던졌다. “주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어 당신께 여쭙보고 싶나이다.” 예수가 “무슨 질문인지 해 보아라!”라고 말하자, 그는 “율법시대의 사역은 당신이 하신 것이나йка?”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 아이는 너무 어리구나!’ 라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예수가 일부러 “그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모세가 한 일이니라.”라고 대답하자, 베드로는 “아!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베드로는 속으로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오시더니 율법을 모두 폐하신 거였어요. 당신께서 하신 일이 아니어서 그렇군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는 베드로가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는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도 말을 아끼며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한번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도 자리에 있었다.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은혜시대에 구속 사역을 하시고, 전 인류를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인류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는 결코 규례에 얽매이지 않느니라. 그분은 율법에서 나와 은혜시대로 나아가실 것이니라. 그분은 전 인류를 속량하고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나아가려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느니라. 그분은 본래 여호와로부터 오셨느니라. 모세가 행한 사역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것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사역에 따라 율법을 세웠느니라.”라고 설교하였다. 예수는 이 말씀을 마친 후 다시 “은혜시대에 은혜시대 계명을 폐한 자들은 화를 입을지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며, 반드시 불길이 그들에게 떨어질 날이 있으리라.”라고 덧붙였다.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간 느끼는 바가 있었다. 한동안 체험하는 중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목양하고 붙들어 주는 사역을 행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그날 예수가 했던 설교를 떠올리고, 또 고깃배에서 예수께 던졌던 질문과 예수의 대답, 그리고 예수의 웃음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 후 성령이 깨우쳐 주자 그는 비로소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되었으나 과정이 있었다. 그의 질문과 예수의 설교, 후에 예수가 그에게 특별히 해 준 교제와 목양을 통해 그는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도움이 되었다. 예수는 왜 온전케 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했겠느냐?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다른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르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예수께 온전케 되는 표본이 되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람의 모든 깨달음과 생명 진입은 베드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다 이 요구와 이 길에 따라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왜 지금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겠느냐? 베드로가 겪은 것을 너희도 겪어야 하고, 베드로가 체험을 통해 얻은 성과가 너희에게도 나타나야 하며, 베드로가 겪은 고통을 너희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너희가 가는 길은 베드로가 간 길이며, 너희가 겪는 고통은 베드로가 겪은 고통이다. 너희가 영광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 때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이다. 길은 똑같으며 이 길에 따라 온전케 되겠지만 너희는 베드로보다 자질이 부족하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패괴된 정도 역시 다르며, 또한 유대는 유구한 고대 문화를 지닌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

베드로는 상당히 지혜로우며, 무슨 일을 하든 매우 예리했고 정직했다. 그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14세 때는 사회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학업을 쌓는 한편 회당에 드나들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고 언제나 예배드리길 원했다. 당시는 은혜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뿐, 예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베드로는 14세 때 종교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했고, 18세 때는 종교계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한 후 종교 내부의 혼란한 실정을 보게 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종교계 고위층들이 교활하게 거짓을 일삼고 암투를 벌이는 것에 극도로 염증을 느꼈다(당시에 성령이 그렇게 행했다. 그를 온전케 하려고 특별히 그를 감동시켰고, 특별한 사역을 행했다.). 그래서 18세 때 회당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부모가 그를 핍박하면서 신앙을 금지하자(그의 부모는 마귀, 불신파에 속했다) 결국 베드로는 집을 떠나 곳곳을 떠돌며 고기를 잡는 한편 전도를 했다. 그는 2년 동안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 이제 너는 베드로가 간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간 길을 분명히 보았다면 지금의 사역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불평을 터트리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의 그때 심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는 몹시 괴로워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좋은 미래나 복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세상의 명예나 복, 부귀영화를 좇지 않았으며, 그저 가장 의미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종종 예수께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나이다. 비록 입으로는 당신을 믿는다고 떠들었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저는 그저 당신을 앙망하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했을 뿐 당신을 사랑하지도 진심으로 믿지도 않았나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며 뜻을 세웠고, 언제나 예수의 말씀에 격려를 받으며 이를 동력으로 삼았다. 한동안 체험한 후, 예수가 베드로에게 시련을 주자 그는 예수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너무도 그립고 뵈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나이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언제쯤에야 제가 필요하겠나이까? 언제쯤에야 저를 데려가시겠나이까? 언제쯤에야 당신의 얼굴을 다시 뵈 수 있나이까? 저는 더 이상 육체에 살길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거역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전부 바치길 원하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나이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으나 예수가 그에게서 무엇을 온전케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시련을 받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온전케 하여 한 알의 열매로 만들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온전케 한 후의 결정체로, 난 그것을 누릴 것이니라. 너는 정말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네게 하라는 일을 하였느냐? 내가 한 말을 살아 났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으나 나를 살아 났느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일을 떠올리며 불평을 멈추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는 다시 기도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을 떠난 적이 있고, 당신도 저를 떠나신 적이 있나이다. 우리는 이별했던 때도 함께했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그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셨나이다. 저는 여러 번 당신을 거역하고 여러 번 당신을 슬프게 했나이다. 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당신이 제게 행하신 사역과 제게 맡기신 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제게 행하신 사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당신께서 더 잘 아실 것이옵니다. 저를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옵고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사탄이 이렇게 저를 우롱하고, 저 역시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으나 당신께서는 그런 이유로 저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런 것들로 저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저는 제 일생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바람이나 계획도 없사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행하길 원할 뿐이옵니다. 저는 당신의 쓴잔을 마시고, 저 자신을 당신의 지배에 맡기길 원하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시련이 임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희가 베드로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너희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베드로 역시 진실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었다. 너에게 정말로 베드로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너도 반드시 예수께 온전케 될 것이다.

연단을 겪어야 참된 사랑이 생기게 된다

지금 너희는 모두 시련과 연단을 겪고 있다.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사람은 연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미하게 되고, 연단 속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단을 많이 겪을수록 육을 더 잘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어째서 연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연단으로 거두려는 성과는 어떤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연단 사역에는 어떤 의의가 있겠느냐?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연단이 아주 좋은 것이고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이고, 연단 속에서 내적으로 고통받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육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흠족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괴롭고 고통이 심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제 내면은 어둡지만 저는 당신을 흠족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안에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이 심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이것이 연단 속에서의 실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연단이 너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야 한다.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너는 연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상적으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통도 점점 더 빈번해질 것이다. 네가 늘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며, 성품도 점점 변화되고 인식도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너에게 하나님의 시련이 닥칠 때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때 너는 욕과 베드로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연단을 거친 사랑이라야 약하지 않고 굳건하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시련을 주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면, 너의 사랑은 순결해질 것이고, 너의 믿음도 실질적인 믿음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과거의 이상(異象), 사랑, 의지도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수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이는 사탄의 역사에 속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얼른 기도하고 얼른 돌려세워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연단 속에서 가장 쉽게 사탄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연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의지를 북돋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내놓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든 계속 진리를 실천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교통하기를 찾고 구해야 한다. 이럴 때, 네가 수동적으로 대응할수록 더 쉽게 소극적이 되고 더 쉽게 후퇴하게 된다.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어쨌든 네 마음은 옳은 것이며 독선적인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너를 오해할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거나 잘 대해 주길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거나 지지해 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며 양심이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하고 높여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당신을 흡족게 해 드릴 수 있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저는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어리석고 자질이 부족하며 눈멀었지만,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와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실패하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실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너에게 또다시 그런 일이 닥치면 신중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기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가 이 성공으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성령의 함께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네게 그렇게 역사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실천을 통해 체험하는 가운데 길이 생기게 된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네 안에는 성령의 함께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임했을 때 진리를 실천한다면 비록 마음은 조금 괴롭겠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성령이 너와 동행할 것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힘이 생기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는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으며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네가 행한 것을 내놓고 보여 줄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것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이 연단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고통받으면 사람의 생명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구원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수백 번의 연단을 겪었고, 욥도 여러 차례 시련을 겪었다. 너희도 하나님께 온전케 되려면 수없는 연단을 겪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연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오직 연단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야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우리나라에게 할 수 있다. 사람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내면에 시련이 없고 진실한 연단을 겪지 않고서는 마음이 항상 밖에서 떠돌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 연단을 받으면 너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 낼 수 없음을 알게 되며, 자신에게 패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련 속에서만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련은 사람을 더욱 온전케 할 수 있다.

베드로는 평생 수백 번의 연단을 받았으며, 수많은 고통의 단련을 받았다. 그런 연단은 모두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토대가 되었고, 그의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단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초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길에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에게 가장 잇기 힘든 일이 되어 주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단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랑이 불순물과 사람의 기호로 점철된다. 그런 사랑에는 사탄의 뜻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흡족게 할 수 없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 자신의 뜻은 전혀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모든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비록 연단을 받기 전에 수많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런 진리를 다 실천할 수는 없다. 사람은 연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진리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으로 그런 진리에 내포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런 진리를 실천한다면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때의 실천에는 개인의 뜻이나 사람의 패괴, 사람의 감정이 적어진다. 그때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는 사람이 입으로 안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깨닫는다고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연단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사람의 사랑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정과 뜻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진리로 섬기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지만 사람이 패괴 속에서 살면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하나님께 너무 열성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냉담해지고,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미워하게 된다. 패괴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이런 극단 속에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내가 이 일에 대해 누차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 일의 중요성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모두 스스로를 우롱하는 신앙 속에서 살게 되었고, 자기 생각에 따라 만들어 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상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 역대로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람에게 점점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절대적이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막연해졌다.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도 점점 불순물이 섞이게 되었다. 사람의 영적 상태와 행위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사람이 사탄에게 점점 더 심하게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더 많이, 더 크게 해야 했다. 사람은 하나님께 점점 더 높은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모두 진리가 없는 패역 속에서 살게 되었고, 인성이 없는 삶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패역과 대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최대한으로 너그럽게 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사람의 거짓 정성에 속아 사람을 다시 보게 된 적도 없고, 사람이 봉헌한다고 해서 사람의 깊은 정에 ‘보답’한 적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分別이 없지 않다. 누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누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는 다 알고 있다. 그가 사람의 일시적인 충동에 흥분하여 그 연유를 모를 리가 없다. 반대로 그는 사람의 본질과 행위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다. 그에게는 그의 존엄이 있고, 그의 주장이 있다. 또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대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적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맞추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고 증거하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연단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훈계와 책망을 겪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진실하게 사랑하거나 증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한 측면의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단의 사역을 하고, 이로써 사람의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연단은 진리를 구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므로 어쨌든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성품을 알기가 쉽지 않다. 진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람이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지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 주고,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공개하는 한편, 연단 속에서 사람에게 더 많은 깨우침을 주고, 더 많이

실질적으로 책망하며 훈계한다. 이렇게 사실과 진리를 대조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참되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사역에는 그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는 무의미한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리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연단은 사람을 그의 앞에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멸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연단 속에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속셈과 낡은 관점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연단은 실제적인 검증이자 실제적인 훈련이다. 오직 연단 속에서만이 사람의 사랑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종교적인 신앙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를 줄만 알 뿐, 하나님을 진실로 흠모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따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은 그저 재난이 닥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탄’할 뿐이다. 사람의 경외와 감탄에는 사랑이나 진실한 흠모는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사람은 다 체험 과정에서 진리의 구체적인 부분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밀들을 찾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면서 복을 받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으며, 다 개인적인 타산과 추구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실한 믿음도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랑할 하나님이라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그의 사역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그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실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은 아주 많지만, 사람이 그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실제로 접촉하지 못하면 그의 사역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너무나 많은 거짓과 상상이 섞이게 된다.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사람이 직접 본 것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땅에 올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몇천 배는 실제적이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사랑은 조금도 실제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뜻으로 가득하다. 땅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사랑은 모두 실제적이다. 설령 그것이 아주 미미한 사랑일지라도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실제 사역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런 인식들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얻는다. 베드로처럼 말이다. 그가 예수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그의 충성심 역시 예수와의 접촉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임하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실재를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은 실제와 임하는 사실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부를 온전케 하는 것은 인도하고 길을 여는 사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고, 이상(異象) 부분에 대한 인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써 실제 실행에 길이 생기고 이상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며,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즉시 실제에 진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게 된다. 하나님은 매사에 너를 인도하여 네게 실행할 길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이 모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고 진실로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제에 깊이 들어가고 실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사랑이요 구원이며, 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사람 안의 것을 연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공급하는 한편, 실생활에서

환경을 마련해 주어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신다면, 실제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삶 속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실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실생활에서 길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너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실행할 길도 전혀 없으며, 뭐가 뭔지 몰라 때로는 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라 착각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도움 없이 현실 속에서 모색하기만 하면 실행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모색하고 구하면서 실행해야 할 것을 발견하고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찾아 하나님과 진실하게 협력하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생활에서 길이 생기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족게 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축복하여 즐거움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게 한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내면이 매우 밝아지며, 마음이 환하고도 편안해질 것이다. 또한 양심이 위안을 얻고 참소받지 않으며, 형제자매를 봐도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하며,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난을 받고 진리를 실행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렀으며 간곡하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면서 계속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고만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일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은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실제적인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도 환해지고 내면이 매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아주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너는 자신이 치른 대가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심혈을 기울인 뒤에는 내면이 특히 밝아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시련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네가 항상 이렇게 진리를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앞에서 수정처럼 투명하다고 느낄 것이다. 많은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일도 저 일도 실행하기 쉽다고

느끼고, 이 일도 저 시험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느끼며, 모든 일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어 매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이상(異象)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생활에서 진리를 실행해야 하고,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는 마음과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그런 고통을 받고 난 뒤에는 성령 역사를 얻게 된다. 실생활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진리를 실행할수록 진리를 갖추게 되고,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진리를 실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항상 이렇게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네게 그의 사랑을 조금씩 보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 사역을 행하시는 지혜가 있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나이다. 더욱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온전케 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 사람이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아주 많나이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당신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겠나이까? 당신께서는 사랑스러운 면이 더 많이 있나이다. 실생활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과 당신의 영이 제 안에서 감동시키고 저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이런 것들은 더욱 사랑할 가치가 있나이다.”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려면, 실생활에서 모색하고 구해야 하며 기꺼이 육을 버리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나태하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탐하지 않으며,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니, 다음번에는 힘을 좀 쓰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해야지, 육을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성육신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실제로 접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영은 실생활에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그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게 하고, 그의 징계와 채찍질,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늘 이렇게 체험한다면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 된다면, 너는 가책을 받고 자신을 뒤흔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기초가 생긴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 체험하지 못했다. 단지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고 날마다 너를 인도하니,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 된다고만 말할 뿐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식이 너무나 얕박하다. 많은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 기초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심기만 했을 뿐, 아직 싹이 트지 않았고 열매는 더더욱 맺히지 않았다. 지금 너는 어느 정도까지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떠밀어 이 정도까지 오게 한 지금에야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언젠가 어느 정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더러 가라고 해도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들딸, 가족, 부모, 그리고 육적인 즐거움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과 같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체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고 네 생존의 토대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네가 그 정도까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누린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된 분량이요 실제 생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가고 싶은 가지 싫든 다 가야 하기에 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곧 너의 생명이므로 네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두어 간다면 생명을 빼앗긴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곧 너의 생명이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까지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뿐인 순결한 사랑이다. 계속 체험해 어느 날 네 생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도하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된 후에는 세상을 잊고 아내나 남편, 아들딸을 잊으라는 것은 괜찮아도 하나님을 잊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너의 참된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책망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네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실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 아니겠느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사역하여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형벌하거나 죽게 하겠다고 말해도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실제 체험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고, 입장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상 관계가 있다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실행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즉, 사람이 살아 내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이 정도까지 체험했다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살아 내는 것이 있어 일거수일투족은 다른 사람의 탄복을 자아낸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겉면의 차림새는 평범하지만 매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이 있다.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고 실재를 나눌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섬기는 많은 일에 대해 알 수 있다. 대범하게 말하고, 단정하고 올바르며, 다툼을 벌이지도 방종하지도 않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고 굳게 설 수 있다. 무슨 일을 처리하든 믿음직하고 침착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겉면의 행동이 중년처럼 성숙하고 진리가 있어 모두가 탄복한다. 이런 사람은 간증이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외적인 성품도 안정된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에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증오한다. 그가 예배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 내는 것은 사탄이다.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으며, 성령 역사가 전혀 없으므로 언행이 다 사탄을 대변한다. 네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주위 사람이나 일 그리고 사물에 늘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면, 또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네 안에서 수시로 깨우쳐 줄 것이다. 교회에는 ‘감독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따라 배우며 모방한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죄를 혐오하지 않으며, 사탄에게 속하는 것들을 증오하지 않고 역겨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것들로 가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말하고 일할 때는 분수를 알아야 하며,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상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고, 이전에 받은 고통과 이전에 실행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며, 앞으로의 길에서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상(異象)을 토대로 한 사람이고,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그가 살아 내는 것은 진리이고, 증거하는 것 또한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글귀와 상상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한다. 그의 사역과 말씀에서 그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한 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게 한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가 선동해서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사랑할 만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행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찬미가 우러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모의 마음이 우러나오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걱정이 일어나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사모의 마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또 감정적인 충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증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실재를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실재가 있으며 실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동적인 것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할 만한 분이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하를 두루 다녀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왕권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같은 삶의 의미를 갖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또 모두 똑같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고, 공통된 의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를 두루 다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전 우주를 횡단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것이다.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자신이 해야 할 사역, 말씀하는 직분을 이행하고 있다. 그가 친히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역하는 목적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직 말세에만 이런 사역을 하고, 말세에만 성육신으로 이처럼 대규모의 사역을 한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위대한 하나님에서 자신을 낮추어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사역을 전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전혀 망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계획해 놓았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성육신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는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을 직접 보고자 하고, 또한 그가 온전케 한 사람이 그를 증거하는 것을 직접 보고자 한다. 온전케 될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이들을 얻고, 이들이 그를 위해 하는 증거를 얻으며,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는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목적은 자신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악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에 의해 온전케 될 극소수의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가 한 사역과 말씀, 그가 열어 준 비밀, 그의 심판과 형벌은 모두 이 극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는 악인들 때문에 성욕신한 것이 아니며, 그들 때문에 크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말하고, 진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온전케 될 사람들 때문에 성욕신하였고, 그들을 위해 그의 약속과 축복을 베풀었다. 그가 말한 진리, 진입, 인간적인 삶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악인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고자 한다. 그러나 사역상의 필요로 악인들도 잠시나마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악인이다. 이들은 다 온전케 될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을 자들이다. 반대로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오롯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도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진리는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라는 말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한 말이며, 온전케 된다는 말 역시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혜가 있고 인성이 있다는 것도 모두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본성이 너무 악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저 이치와 글귀이고, 텅 빈 이론에 불과하여 그들의 생명 진입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모두에게 온전케 될 기회를 준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 네가 자신의 패괴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므로써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이러한 것 전부가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 네 안에서 계속 인도하고 빛을 비취 줌으로써 네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며, 식견을 넓히고 분별력을 키우게 한다. 상태가 좋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상태에 결부시킬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네 안에서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고 네가 긍정적인 면에서 깨닫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태일 때 너는 연약하고 소극적으로 변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네게 빛을 비취 주어 실행의 길을 찾게 한다.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 결과는 네가 체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인지에 달려 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더욱 실질적인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수 없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너는 예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였고 보호였음을 깨닫게 된다. 시련에 직면하는 순간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가 부족해지며, 찬양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시련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으로 사람의 패괴 성품을 다루며, 또 다양한 일을 통해 사람을 드러낸다. 사람을 책망하는 한편 사람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모조리 파헤치고 밝힌다. 수많은 내적 상태를 폭로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폭로를 통해, 또한 책망, 연단, 형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매우 실제적임을 알게 한다.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90년대의 베드로 품격, 욥보다 큰 믿음일 수도 있다. 또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아 보좌 앞에 서거나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를 위해 굳건하고 힘 있게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든 결국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네가 의인이 되고자 하든, 베드로의 품격과 욥의 믿음을 추구하든,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자 하든, 다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즉,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모두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며 실제 체험을 통해 실행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패역한 성품을 벗어 버리고, 정상적인 내적 상태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고 옳은 사람이 되어 올바른 동기로 매사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자라나기 위함이다.

네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질적인 일, 즉 주위에 임하는 사람, 일, 사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트랙을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은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네게 행한 하나님의 사역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와 위대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 하나님이 네게 행한 수많은 사역을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더럽고 패괴된 사람들에게 사역하며 이들을 온전케 한다. 또한 성육신하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목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극도로 패괴된 사람들에게 크나큰 구원 사역과 정복 사역을 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큰 붉은 용의 심장부에 와서 가장 패괴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은 성육신하여 받는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나큰 수모를 받은 것,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감추어 평범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육신을 입고 육신의 형상을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그가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고, 정상 인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 실체화되었다. 그의 영은 더없이 높고 위대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그의 영이 하는 사역을 한다. 너희 각자의 자질, 식견, 이성, 인간성, 삶을 놓고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을 받게 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크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이 높고, 사람은 비천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한다.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공급하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까지 한다. 자신을 한없이 낮춘 하나님은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크게 찬미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추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게 하려고만 할 뿐 그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성령의 내적 깨우침과 빛 비춤을 간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밑거름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체험하다 보면 열의는 곧 사그라진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예전에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다반사였을지라도 지금은 체험하면 할수록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책망과 깨뜨림,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나면 크게 성장하게 되고,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적어지며, 생명 성품에도 변화가 조금 생긴다. 또 연단을 많이 겪게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 즉, 취할 만한 부분을 통해 깨우침을 줌으로써 실행의 길을 열어 주고, 모든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이 해방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로써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을 알려고 하며, 진리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또한, 네가 연약해지거나 소극적이 될 때 너를 더 깊이 깨우쳐 스스로를 더 잘 알게끔 하고, 자신을 더욱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신이 실행해야 할 것을 더 잘 실행하게끔 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다. 평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설령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양심이나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으로 바로 돌려세울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은 모두 자신의 실제 상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깨달을 때 변화한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사람은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깊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람이 얻은 것으로, 사람 자신이 거둔 성과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잡히고, 이상(異象)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육신, 말씀, 사역에 대해 확신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말씀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방해하든, 자신의 주관을 세우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더욱 잘 실행한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증거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다.

분별과 순종을 중시하고, 통찰력을 중시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일이 닥칠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고 깨우침을 준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항상 사람이 무감각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겠느냐? 이는 사람의 영이 죽어서 영적인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사람의 영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영적인 일을 꿰뚫어 보고,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사람의 영이 소생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일에 직면할 때 즉시 반응할 수 있고, 설교를 듣거나 일이 일어났을 때도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외적인 일에는 생각이 잘 돌아가지만, 실제에 진입하는 것이나 영적인 세부 내용을 언급하면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 이해한다. 이는

모두 영이 무감각하고 어리석으며,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모습이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짚은 말씀을 들으면 재빨리 적어 두고, 실행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조하면서 자신을 반성할 수 있고, 설교 교제 내용을 듣거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인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덥석 받아먹는 것처럼 말이다.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주어도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곧바로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 일에서 인도해 주었는데 오늘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너는 당연히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실행하고 체험하다 보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영 안의 어떤 상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지를 알고, 핵심을 파악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체험할 줄 아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실행 측면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실행할 마음이 있더라도 섬김이나 삶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해 일이 닥칠 때마다 멍하니 있는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늘 교제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분별력도 생긴다. 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분별력도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접하고 어떤 사람을 내쳐야 하는지 등의 일들은 늘 교제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많은 일을 꿰뚫어 보게 되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성령의 징계가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책망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환경의 마련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내적 깨우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패역한 성품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자신의 패역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등의 일들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면 기반이 다져진다. 그러면 일이 닥쳤을 때 합당한 진리로 대조하고, 합당한 이상을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으며,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네 삶에 하나님의 깨우침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며, 그를 살아 내고, 그를 증거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또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아는 것과 자신의 실행, 인식을 중시하면 일이 닳았을 때 깨우침과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범사에 실행할 길이 생기고,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진리를 갖춘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방해되는 일이나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는다. 진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깨달음과 실행의 길을 얻으며, 성령 역사를 얻을 기회, 온전케 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영 안의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성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것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이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저버려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실제 실천 과정에서 늘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성령에게서 나왔다고 여기고, 악령에게서 온 것들을 성령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가끔은 성령이 안에서 인도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일까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성령의 깨우침이다. 그러므로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실제 체험 과정에서 체험을 할 수 없고, 체험 중에 분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악령은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온 것이냐? 무엇이 성령의 인도와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이냐? 성령이 사람에게 행하는 역사의 법칙을 찾아내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제 체험 속에서 식견을 키우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탄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순종하고 추구함에 있어 흐리멍덩하지 않으며,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고 올바르게 깨우쳐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게 해 준다. 또한, 사람에게 믿음과 의지를 심어 주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기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수동적인 것도, 강제적인 것도 아닌 자발적인 태도로 진입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요, 기꺼이 순종하며 자신을 낮춘다. 내적으로 고통스럽고 연약할지라도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순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뜻도, 사람의 생각도, 나아가 사람의 기대나 속셈도 섞여 있지 않다.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사람의 내면은 매우 성결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는 삶을 산다.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데다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사람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지고, 인간성은 갈수록 정상이 된다. 미련한 협력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해를 위한 것도,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래서 정상인의 생활 법칙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고, 정상인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에 맞춰 사람의 내면을 깨우치고 인도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정상인의 필요에 맞춰 인도하고 깨우치며, 사람의 필요에 맞춰 공급하고, 사람의 결핍함과 부족함에 맞춰 적극적인 면에서 인도하고 깨우친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실생활에서 사람을 깨우치고 인도하기에 사람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적극적인 상태에 있고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격려를 받는다. 또한, 어떤 일을 마주하든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일에서 너는 하나님이 배우라는 공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소극적이거나 연약해지지 않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길 바라게 된다.

성령 역사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네가 우매하든,分別력이 없든, 성령이 역사하면 내면에는 믿음이 생긴다. 또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협력하기를 원한다. 눈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놓여 있든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몰라도 소극적이거나 태만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에 속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사람은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일을 이겨 내지 못할 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 단계에 속한다. 당시에는 이겨 내지 못해 연약해지고 불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너의 소극적인 면이 너의 정상적인 체험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너를 어떻게 공격하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기도할 때면 예전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을 만족게 하고 육을 저버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런 힘은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성령 역사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사탄에게서 온 역사는 어떠하냐?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이상(異象)에 대해 모호해지고, 정상적인 인간성을 잃고, 일할 때 불순한 의도를 품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면에 늘 참소가 있고, 그러한 참소와 생각이 늘 내면을 교란하여 생명 성장에 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상 상태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 다시 말해,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른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도망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눈을 감지 못한다. 악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상이나 생명 진입의 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언제나 무언가에 방해받고 통제받아 마음을 평온히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의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가라앉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 역사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사탄의 역사로 인해 드러나는 모습은 입장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굳게 증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사람,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가 무너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향상하고자 하지도 않게 된다. 뒷걸음치고, 소극적이 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며, 죄가 커져 가는 것을 방치하고, 죄를 증오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제멋대로 굴고 하나님이 준 감동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위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서 비롯된 일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느냐? 사람의 상태가 정상이면 영 생활과 육적 생활이 정상이며, 이성도 정상적이고 질서 있게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체험한 일이나 얻게 된 인식은 성령의 감동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깨달음이나 얕은 인식을 얻는 것, 또는 어떤 일에서 충성하거나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있는 것은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임).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매우 정상적이라 사람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깨우쳐 주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이해가 느리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역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정도로 역사한다. 감동을 주거나 깨우침을 주며, 믿음과 힘을 준다. 또한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고, 육적인 쾌락을 탐하지 않으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런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하도록 감동을 준다. 이러한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성령은 버리고 떠난다. 사람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삐뚤어진 마음가짐, 나태하고 육체를 방종하며 진리를 배반하는 마음과 같은 이런 것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내면이 어둠에 빠져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께 버림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한다. 사람이 내적으로 계속 힘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면 보통 어떤 일이 임하든 그것은 다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마주치든 다 하나님의 안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너의 상태가 정상일 때, 그리고 성령이 크게 역사할 때, 사탄은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기본으로 뒷받침되면 일체 모든 것이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옳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도 충분히 그 생각을 따르지 않고 저버릴 수 있다. 이는 전부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상황에서 개입하느냐? 너의 상태가 비정상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을 때, 내면이 메마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먹고 마셔도 별다른 깨우침이나 빛 비춤을 얻지 못할 때 사탄이 쉽게 내면에서 역사한다. 다시 말해, 성령이 떠나고 네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많은 일이 사탄의 시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동시에 사탄도 역사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교란한다. 하지만 이때 성령 역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은 모두 이를 이겨 낼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긴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 내면에는 여전히 패괴 성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면 사람은 자신의 패역과 속셈, 불순물을 쉽게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패역과 패괴 성품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점차 벗어 버릴 수 있다. 성령은 매우 정상적으로 역사하므로, 역사하는 동안에도 사람은 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며, 알 수 없는 많은 일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괴롭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매우 정상적이며,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사람의 상태가 바뀌고 본질적인 것들도 벗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분량 또한 전과 같다. 다만 성령의 빛 비춤과 깨우침이 있어서 적극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사람의 내적 상태가 정상으로 바뀌며, 변화가 빨라질 뿐이다. 사람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주로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체험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품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에 있어 관건은 이러한 일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잘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나 사탄의 역사는 퇴보적이고 소극적이다. 또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며, 노래하고 싶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적극성도 없어지게 한다.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은 강요가 없이 매우 자연스럽다. 네가 따르면 편안하고,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가책이 든다. 성령의 깨우침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방해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며, 네게 자유를 주고, 일할 때 실행의 길을 열어 준다. 또한,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한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네가 하는 수많은 일을 방해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태만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원치 않게 하고, 영 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너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너의 정상적인 영 생활을 교란하지도 않는다. 많은 일이 당시에는 분별이 안 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해지며,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느낌이 생기고,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점차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불분명한 것들은 당시에는 분별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시 분별하면 된다. 어떤 일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일이 성령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실히 분별한 후에 체험에 들어가면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간혹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내면의 어떤 생각으로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다. 이는 네 상태가 나쁠 때도 어떤 생각은 성령에게서 비롯될 때가 있으며, 네가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사탄에게서 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네가 언제 적극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겠느냐? 한동안 소극적인 상태로 있을 때 성령은 네게 온전케 될 기회와 감동을 주어 그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

성령 역사란 무엇이고 사탄 역사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체험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나 체험에 비춰 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의 체험에 원칙과 관련된 진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 자신의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하면 사람과 일을 분별할 수 있으며, 힘들지 않게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바른 마음가짐과 기꺼이 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원칙과 관련된 이런 말씀은 네가 체험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너의 체험은 사탄의 방해로 가득할 것이며, 어리석은 깨달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며, 사람의 체험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늘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자 교회를 교란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전부 출교되고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수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행이 불신자처럼 제멋대로이고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며, 전형적인 악마이다. 교회에서 독설과 악담을 퍼뜨리는 자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간질하며 당을 짓는 자는 마땅히 출교시켜야 하겠지만, 사역의 시대가 다르므로 그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도태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은 모두 파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저 성품이 파괴된 것에 그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 성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이미 극도로 악독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언행에서만 사탄의 파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영락없는 사탄 마귀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며,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의 털을 쓴 이리들은 언젠가 모두 쫓겨날 것이다.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는 가차 없이 내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사탄과 손을 잡은 자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야지, 자신의 성미대로 행하거나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도처에서 위세를 부리거나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패역한 행위이다. 집안에 가법이 있고 나라에도 국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행정 법령이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행정 법령은 사람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사람을 치는 하나님이다. 설마 사람이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나?

교회마다 교회를 교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다 사탄이 위장하여 하나님 집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특히 외식에 능해서 내 앞에서는 더없이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는데, 꼭 마치 능글맞은 개 같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또 추한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을 보면 공격하거나 배척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아첨하고 치켜세우며,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날뛰다.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이런 ‘불량배’와 ‘앞잡이’들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몰래 못된 짓을 하고, 서로 눈짓하면서 아무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독액이 많은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신망이 두터운 자가 깃발을 날린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구 날뛰면서 부정적인 것과 죽음을 퍼뜨리며,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하다. 그들이 그렇게 교란을 하면 교회에는 죽음의 분위기가 드리운다. 교회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아 자신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반대로 교회를 교란하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자들은 교회에서 마구 날뛰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사탄이 권세 잡고 마귀가 왕 노릇 하는 곳이다. 만약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왕들을 내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향후 마땅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조차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제거될 것이다. 만약 어떤 교회에 진리를 실행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교회를 철저히 차단해 다른 교회와의 왕래를 끊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망을 묻어 버리고 사탄을 내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불량배들이 존재하고 또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작은 파리들’까지 따르고 있는 경우, 교회의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불량배들의 속박과 통제를 끊어 버리지 못한다면, 최종 결과는 그런 멍텅구리들도 다 도태되는 것이다. 작은 파리들은 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태시킬 것이다! 사탄에 속하는 자는 사탄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필히 진리를 구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모조리 멸망하라!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네가 마귀라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진취적이지 않은 자는 늘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정적이고 게을러지기를 바란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질투하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이들을 늘 미혹하려 한다. 그런 자들이 퍼뜨리는 것은 너를 타락시키고 뒷걸음치게 하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 내면이 어두워지게 한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육을 사랑하게 하며, 자신과 타협하게 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무성의하게 대하는 자는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런 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행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까지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 또 그는 죄를 사랑하고 자신을 증오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런 자에게 미혹된 사람은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진리 실행까지 방해하면서 분별없는 자들을 전부 자기 앞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그의 마음속 우상을 믿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사탄을 믿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네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우상임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네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은 모독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니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신물이 날 정도로 들었으니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 마음속 우상이나 너희 가운데 있는 불량배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죽음의 말을 들으면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손이자 도태될 대상이다. 교회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꼭 사탄의 편에 선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탄의 종이라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진리가 아닌 쪽에 서고, 비상시에 단 한 번도 진리의 편에 선 적이 없으며, 진리를 위해 일어나서 변론한 적도 없다. 그들에게 정녕 분별력이 없는 것이냐? 그들은 어째서 꼭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냐? 어째서 단 한 번도 진리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정말 그들의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한 일이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충실한 후손임을 말해 주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냐? 그들의 언행과 표정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들이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자신을 위해 평생 분투하는 그 작은 마귀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전부 눈앞에 훤히 드러난 사실이 아니냐? 네가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눈에 담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약간의 눈짓만 해도 즉시 따르는 것이냐? 이는 어떤 문제이냐? 나는 너에게 분별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너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불량배인지 아니면 우두머리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너의 세력이 커 봤자 그것은 사탄의 힘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너의 명성이 높아 봤자 그것은 네 주변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뿐이다. 네가 지금까지 출교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출교 사역을 하는 때가 아니라 도태 사역을 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너를 출교시키는 것은 아직 급하지 않다. 너를 도태시키고 징벌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누구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도태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자 기꺼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는 자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진정으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간교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의 종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그런 사람은 몹시 악독하다.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더 전형적인 사탄의 상징이자, 구제 불능이다. 그들도 물론 도태될 대상에 속한다.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과 고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남겨 두지 않는다. 단, 지금은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드러내고 도태시킬 것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겠다. 사탄이라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편에 설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도를 들을 자격도, 진리를 증거할 자격도 없다. 진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교회를 교란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유보하겠다. 사역이 끝날 때 그들을 하나하나 드러낸 후 도태시킬 것이다. 진리를 공급하는 기간에는 일단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진리를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 준 후에는 사람을 도태시킬 것이다. 그때가 곧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잔꾀로 인해 악인의 손에 멸망할 것이고, 악인에게 속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으며 악인을 따르고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인들이 퍼뜨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진리를 등지고 악인을 따라갔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멸망의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은 전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 중에는 ‘왕’ 행세를 하는 자가 있고 부화뇌동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은 모두 같지 않느냐? 그들이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무슨 핑계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악행이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더냐? 그들의 패역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더냐? 진리를 행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진리로 인해 구원받고 온전케 될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리로 인해 자멸할 것이다. 이는 진리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다. 나는 진리를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되도록 빨리 교회를 떠나라고 권한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 특히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교회의 불량배들은 더 빨리 떠나야 할 것이다. 사악한 이리의 본성을 지닌 자들은 바뀌지 않으니, 더 이상 형제자매들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교회를 떠나는 편이 낫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말이다. 부화뇌동하는 자들도 지금 이 기회에 반성하고 악인과 함께 나갈 것인지, 남아서 성실히 따를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나는 너희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 한다

지금 성령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형제자매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나?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소극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끝내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해 독립적으로 생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영 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힘 있게 추구하며 실행하려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고, 지난날에는 강요에 밀려 하나님을 따랐다. 또 지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이 건성으로

대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산만하고 예전처럼 힘 있게 추구하려는 마음도 없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내면에 힘이 없는 것 같고, 과오를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께 죄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며, 통회할 줄도 모른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으며 일시적으로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자는 누구보다 어리석은 바보다! 그들은 때가 되면 모두 버림받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형벌받을 것이다. 많은 이가 생명 진입, 이상(異象), 진리의 실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진입하려고 하지 않으며, 나아가 깊이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를 망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성령이 역사할수록 내면에 더욱 믿음이 생기고,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심오함을 느낀다. 또 깊이 진입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고 느끼며, 마음이 편안하고 환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없다고 해도 진리를 추구하고 더 깊이 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실제 체험 속에서 범사에 참답게 대하며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가 있다. 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감추고 말씀도 하지 않으며 음성도 발하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실천해야 할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연단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단계에서, 믿음이 없어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망친 것이며 나중에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진입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힘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진리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너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네가 지금 비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불거리나 얻으려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이나 움직임이 있는지 보면서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은 늘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할 뿐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한다.

왜 그렇겠느냐? 바로 복을 바라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소극적이고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매질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소극적이고 나약해지는 것은 마음가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며,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사람이 소극적이고 나약해져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모두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연단을 주는데, 연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또는 말씀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추구하며, 설령 하나님이 너를 원치 않는다고 해도 계속 따를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선 것이겠느냐? 사람이 실제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실제 분량이 없는 것이기에 정말 큰 시련이 닥치면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발하지 않거나 그가 하는 일이 너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저앉고, 하나님이 계속 너의 관념에 따라 역사하고 너의 뜻을 충족시켜 줄 경우에는 일어나 힘 있게 추구할 수 있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 사는 것이냐? 나는 많은 사람이 순전히 자신의 호기심으로 살아갈 뿐, 진실로 추구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진리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든, 호기심에 의지해 사는 자든 모두 위험한 소인배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호기심을 품고, 늘 외국 상황이 어떤지, 이스라엘은 어떤지, 애굽에 지진이 나지는 않았는지 등 뜬소문만 알아본다. 항상 이렇게 새롭고 기이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또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와서 아름다운 꿈이 실현되고 사치스러운 욕망이 충족되기만을 바란다. 이런 사람은 실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관점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근본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흡족케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징벌받는 대상이다. 징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에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번 단계 사역을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며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겉으로 보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측면의 이상이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해도 의심하지 않는다. 너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려는지 모를지라도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그를 추구한다면, 그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며, 사람을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어떤 시련을 주든,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에게 적합한 결말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한 모든 일과 모든 행위에 따라 그에 맞는 보응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내팽개치지 않는다. 성령은 이 단계에서 연단의 사역을 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연단을 준다. 과거 죽음의 시련이나 형벌의 시련 사역에서 연단은 다 말씀으로 임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우선 하나님이 현재 하는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연단을 하든 음성을 발하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의 관념을 타파하며, 사람의 관념을 벗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특정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는 무슨 일이 있든 절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사람에게 약속도 주고 축복도 준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태될 것이다. 이는 네가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어떻든 간에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종착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었지만, 사람이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지금 너는 사람을 연단하고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실제 체험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진입해야 할 것을 찾고 네 부족한 부분을 찾아 네 실제 체험과 결부시켜 진입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실천할 부분을 찾아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한 측면이다. 교회 생활 역시 중단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영 생활이 있어야 하며, 현재 자신의 모든 내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든 너는 정상적인 영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영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진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는 영 생활을 멈추지 말고 네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두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이 성령이 하는 역사지만 상태가 정상인 사람에게는 온전케 되는 것이고, 상태가 비정상인 사람에게는 시련이 된다. 성령이 하는 이 연단의 사역에 대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잘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분량이 작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에 연단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하든, 어떤 변화를 주든 사람은 최소한 영 생활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영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이 별로 없거나 매우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규례적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생명에 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영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늘 너의 관념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따르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든 사람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사람에게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역사를 얻기가 어렵다. 네가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 기존의 충성심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더 깊은 인식이나 더 높은 이론 또는 더 많은 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원래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더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것까지 모두 거두어 간다. 사람의 마음은 늘 안락을 탐하고 이미 있는 것을 누리려고만 하며,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한다. 이는 사람의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조금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 진입과 성품 변화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례적으로라도 지켜야 한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를 잃지 말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도 진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영 생활이다. 늘 구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기초로 분별력과 실제 진입을 추구한다면,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내적 상태가 정상이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아주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너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 사역이 아무리 좋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너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없으면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관념과 너무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 많은 사역과 말씀은 사람의 관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자신이 본 것과 체험으로 얻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끈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든, 결론적으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그 수많은 사역이 모두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람이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왔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두려워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하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간증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힘 있게 증거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든 너는 믿음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로,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포위 공격 아래에서, 그러니까 흑암 세력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고 원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때는 잘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때 물러선다면, 이것이 정결한 것이겠느냐? 참도라고 확신했다면 끝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케 하려고 이 땅에 왔음을 알았다면 마땅히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혹여 마지막에 네게 나쁜 결말을 주더라도 네가 계속 따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킨 것이다. 거룩한 영체, 정결한 동정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진심이 곧 정결함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정결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실천해야 하는 바이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때는 예배하고 교제하며, 찬송을 불러야 할 때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욕을 버려야 할 때 욕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으며, 시련이 닥쳤을 때 굳게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전에 받은 고난과 내린 결심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매 단계 사역에는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길이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것은 사람이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책망,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는 것은 사람이 협력하고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다.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음성을 발하지 않아도 사람에게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원래 있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너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보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검증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도 네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누릴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때는 매우 힘이 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어둠에 빠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더라도 자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진리를 실천해야 할 때 진리를 실천하면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원래의 이상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할 때 추구하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고 예배에서 설교할 때는 힘이 나서 듣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느새 힘이 빠지고 뒷걸음질 친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기 주관도, 증거도 없으며 이상도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데,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치면 너는 징벌 속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관이다. 네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한 것을 진심으로 지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하나님의 당부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자기 주관과 증거를 지키면서 계속 승리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모든 시련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굳게 설 수 있다면, 네가 바로 이긴 자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지금의 시련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욱 서기 힘들다. 작은 고난만 받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빈털터리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도 흩어져

버린다. 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실체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늘 겉으로 분주하고 열성적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 그 역시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연단을 받을 때는 적극적인 면에서 진입해야 하고, 배워야 할 공과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대조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배워야 할 공과가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연단 속에서 진실하게 추구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연단 가운데서 많은 일이 임하면 너는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원망하며 자신의 육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자기 안에 패괴 성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은 자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길을 가려면 앞으로 믿음이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사람의 크나큰 믿음, 욕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 없으면 겪어 나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쳐 이 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저 교회에서 몇 사람이 나가고, 며칠 전까지도 잘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일이 닥치면 너는 영문을 알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도 전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굳게 설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로 사람에게 연단을 준다.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은 아직 적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치면 어떤 곳에서는 교회 사람 전체가 나가고 너와 사이가 아주 좋던 사람까지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도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지금은 네게 임한 시련이 작기에 간신히 굳게 설 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일들이 너에게 연단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더 심각할 경우에는 하나님도 너에게 빨리 떠나라 하고 종교인들도 와서 너를 자기편으로 끌어당길 텐데, 그래도 네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보기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시련이다. 아직은 시련이 작지만 어느 날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믿지 않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계속 나아갈 수 있겠느냐? 네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시련은 더 커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와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연단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단계에는 사람 수가 많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런 연단을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책망, 징계, 시련, 형벌, 저주 같은 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느 교회의 상황이 매우 좋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힘 있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네 마음도 고무되겠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모두 나가 버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네가 굳게 설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연단한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방식이 아닌 사실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연단해 전혀 불평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도 끝날 것이다.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것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역사하지 않고 모습을 감추는 것은 더더욱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할 때는 네가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었을 때야말로 네가 구하고 모색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훗날의 결말이 어떻든 종착지가 어떻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 성령이 사람 내면에 역사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한 일에 다른 마음을 품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언제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어느 단계 역사든 사람은 크나큰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 그래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 수 있다. 체험하지 않고 모색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반드시 체험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체험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알 수 있다.

너는 살아난 사람인가?

폐괴 성품을 벗어 버려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온전케 된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네가 예언이나 비밀을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드러내고 살아 내는 것에 사람의 면모가 보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된 후 사탄에 의해 폐괴되어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변화되면 죽은 사람과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되살려 사람을 소생시킨다. 영이 소생하면 사람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란 영이 없는 시체, 영이 이미 죽어 버린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면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룩한 자란 바로 살아난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음에도 사탄을 이긴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의 선민들은 큰 붉은 용의 잔인무도한 박해와 기만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고,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을 깨우려면 사람의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 조금씩 사람의 영을 불리일으켜야 한다. 언젠가

사람이 살아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탄 대로처럼 순탄해질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에 살아 내는 것에 짙은 죽음의 기운이 묻어난다. 사람에게에는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고,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나 행동거지에서도 죽음이 묻어나며, 대부분 죽음을 살아 내고 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이 사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고, 너희 중에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방에 신속히 복음을 확장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으며, 산 사람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은 사람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음의 그늘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해낼 수 있겠느냐?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사탄에게 점령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형벌을 겪지 않고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산 사람의 증거이지 죽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다. 그는 산 사람이 그를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지 죽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이며, 영 안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한, 진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들은 진리와 대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비천하고 비열하고 악독하고 야만적이고 교활하고 음험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산송장으로, 숨만 쉬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고 배반할 뿐이다. 죽은 사람은 언제나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산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모든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 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은 사람이다. 또한 자신을 바치며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 있고,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한 사람이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으며, 사탄의 도구, 사탄의 포로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증거를 잃게 되었고, 유일하게 그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인류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되찾고 직접 그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사탄에게 끌려간 사람을 빼앗아 오려면, 사람을 부활시켜 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되찾아 그의 빛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며, 극도로 무감각해진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대적과 패역만 존재할 뿐 충성심은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산 사람은 영이 소생한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며, 진리와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이 구제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 진리를 전혀 살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교회의 돈을 훔쳐 쓰고, 하나님 집의 밥을 공짜로 축낸다. 이런 사람은 모두 구제 불능의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깊이 파괴되어 죽은 사람, 구제 불능의 사람, 완전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본성이 지나치게 악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수의 사람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거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복 사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성품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 없었다면,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사탄과 죽음에 속했을 것이고, 여전히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들이 기꺼이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덕에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아 그의 징벌과 저주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다. 사람은 스스로 구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아 빛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자신의 간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징벌 속에 떨어진다. 사람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갈망과 충성심 덕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롭기에 산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 속에 남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산 사람을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 그의 축복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게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내친다. 죽은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며, 영원히 사탄에게 귀속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확신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육신이 직접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육신과 영이 본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의 육신이 잘못된 일을 할 리 없고, 그의 영이 잘못된 일을 할 리는 더욱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명도 더하거나 빼는 일 없이 살아난 사람을 전부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나지 못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동굴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

사람은 수천 년의 패괴를 겪고 나서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해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歷史)는 모두 ‘사기(史記)’에 기록되었고, 심지어 사람의 패역한 행위는 사람 스스로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패괴되었고,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갈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배반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이성이 원래의 기능을 잃었고, 사람의 양심도 원래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한다. 내 눈에 보인 사람은 모두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독사다. 사람이 내 앞에서 얼마나 가련한 척을 하든 나는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흑과 백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성이 이렇게 무감각함에도 여전히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비열한 인성을 가지고도 여전히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싶어 한다. 이런 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왕 노릇을 하겠느냐? 이러한 인성으로 어떻게 보좌에 오를 수 있겠느냐? 정말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모두 제 주제도 모르는 소인배로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우선 거울을 찾아 자신의 추한 몰골을 비춰 보아라. 네가 왕이 될 재목이냐? 너는 복받을 만한 오관을 가졌느냐?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진리를 조금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앞날을 생각하다니 참으로 망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에 물들었고, 봉건 예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 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뒤쳐진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저속한 풍속과 생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침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심하게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더 악랄해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반면에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마음껏 쾌락을 찾아 즐기고, 진흙탕에서 마음껏 자신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설령 진리를 듣더라도 실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미 나타난 것을 보아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부패한 인류가 어떻게 빛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 본성, 정신 면모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의 성품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의 파괴된 성품의 근원은 사람이 이미 사탄에게 해를 입고 사탄에게 짓밟혀 사람의 사상, 도덕, 식견, 이성이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이 이미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하나님이 만든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선 사람의 사상, 식견, 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진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심하게 파괴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심하게 파괴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지 못하고, 이성과 식견이 더 부족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사람은 양심이 무감각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사상이 진부하고 정신 면모가 뒤쳐지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했으며, 이성과 양심이 건전하고, 인성이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이성과 양심, 인성이 무감각해지고 전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성품도 짐승처럼 변해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대적하고 거역하기만 한다.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은 곧 사람의 이성, 식견, 양심의 발현이다. 사람은 이성과 식견이 건전하지 못하고, 양심이 극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이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식견을 바꾸지 못하면 성품 변화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도 말할 나위가 못 된다. 사람은 이성이 건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정상적인 이성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이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에 대해 일편단심이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이성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하나님에 대해 관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 양심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인 줄 뻔히 알면서도 뒤에서 판단하며, 순종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요구하기만 한다. 이처럼 이성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패역한 행위를 통회하지도 못한다.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성이 조금은 회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성이 더 건전하지 못하다.

사람의 파괴 성품이 드러나는 근본 원인은 사람의 무감각한 양심, 악독한 본성과 건전하지 못한 이성에 있다. 사람의 양심과 이성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이 줄곧 무감각한 상태에 있고, 사람의 이성이 한 번도 건전했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세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문전 박대 하며, 하나님의 육신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이 비천하다고 여긴다. 사람에게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잔혹하게 대할 수 없고,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이렇게 악독하게 대할 수 없으며, 정말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육신 하나님께 이같이 ‘감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온 것을 욕하거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쩌면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님이 온 것을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싫은 기색 없이 계속 자신의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조금도 환영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의 성품은 극도로 악독해졌고, 사람의 이성은 극도로 무감각해졌으며, 사람의 양심은 이미 악한 자에게 짓밟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심은 진작에 사라져 버렸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준 이처럼 많은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혐오하고,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조차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기름을 짜내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수십 배나 많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다. 사람은 이런 양심과 이성을 가졌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너무 많고 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는 우유 두 그릇 값의 금화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내가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 이보다 몇 배 넘는 숙박비를 요구한다. 너희는 이런 인성과 양심을 갖고도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 정말 비열한 소인배들이구나! 사람의 이런 인성과 양심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은 기거할 곳 없이 곳곳을 떠돌게 된 것이다. 정말로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를 경배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이것은 이성이 건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사람의 본분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조건을 내건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조건만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만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밥을 지어 주면 품값을 요구하고, 나를 위해 다리품을 팔면 수고비를 요구하며, 나를 위해 사역하면 사역비를 요구하고, 나에게 빨래를 해 주면 세탁비를 요구하며,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하면 몸보신 비용을 요구한다. 말하는 자는 강의료를 요구하고, 책을 배부하는 자는 책 배부 비용을 요구하며, 글을 쓰는 자는 원고료를 요구한다. 심지어 내게 책망받은 사람은 내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명예 훼손 배상금을 요구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혼수비와 청춘을 바친 대가를 요구한다. 또한 닭 잡은 사람, 요리를 만든 사람, 국을 끓인 사람 등 다 그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의 고상하고도 위대한 인성이며, 너희의 그 따뜻한 양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너희의 이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같은 인면수심의 무리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구원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이런 짐승들을 위해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는 날은 바로 너희가 죽는 날이고, 어둠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며, 광명이 너희를 버리는 날이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처럼 짐승보다도 못한 무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일하는 데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너희의 인성과 양심이 이러하니 나는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고, 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으며, 너희의 비열한 행위는 나를 너무 역겹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나는 이렇게 흉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날이 올 때, 나는 나를 크게 진노하게 했던 이 패역한 자식들에게 영원히 불사름의 불을 쏟을 것이고, 예전에 나를 욕하고 저버린 이 짐승들에게 영원히 징벌을 내릴 것이며,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지냈지만 나를 믿지 않고 모욕하고 배반한 그 패역한 자식들을 영원히 나의 분노의 불길로 태울 것이다. 나를 분노하게 한 모든 사람을 나의 징벌 속에 내던질 것이고, 나와 동등해지고 싶어 하며 나를 전혀 경배하지 않고 내게 순종한 적이 없는 짐승들에게 나의 모든 분노를 쏟을 것이며, 내 입에서 나온 말의 비밀과 나의 보살핌을 누리고 나에게서 물질적인 누림을 다투었던 짐승들을 나의 채찍으로 칠 것이다. 나는 내 지위를 빼앗으려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나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투는 자는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별 탈 없이 평안하고, 점점 더 큰 욕심을 내며 내게 요구하고 있지만, 분노의 날이 오면 더는 내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가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입으로 진흙을 씹게 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만간 이 빛을 너희에게 모두 ‘되갚을’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비열한 인간들이 정말로 사치스러운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정이 있어서도, 사람이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더냐? 이성이 건전하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가 있더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사름 당한 이가 있더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 사람 중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집 밖으로 쫓겨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살게 된 이가 있더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중에 빈털터리가 된 이가 있더냐?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일생의 정력을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너희 같은 이런 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너희는 자신이 인류 중의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인성이 가장 비천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존칭’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를 늑대의 아비나 어미, 늑대의 자식이나 손자, 늑대의 후예, 늑대의 민족이라고 한다. 너희는 자기 신분을 알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며, 스스로를 상등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인류 가운데 가장 악랄한 한 무리의 비인류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의 이성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너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늑대’라는 호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저주와 징벌의 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출생이 비천하고, 본래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본래 한 무리 굶주린 늑대이고, 한 무더기 잡동사니나 쓰레기다. 내가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처럼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거역한다면 나는 나의 사역을 그만둘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너희에게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옮겨 가서 사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나는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마음에 합하길 원하느냐, 아니면 나와 적이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해야 할 것들이다. 현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사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행사,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는 전체 종교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다. 언젠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사를 보고, 하나님의 어떠함과 소유를 알며, 또한 그의 풍성함, 지혜, 기묘함 그리고 사람에게 행한 모든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고 매우 풍성하다고 말한다. 만유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풍성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나?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왜 종교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마귀의 부류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다 눈먼 자들이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의 패괴 성품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歷史)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초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사람의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이 정해 준 율례를 준수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예를 들면, 율법시대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여호와의 제물을 훔쳐 먹는 자, 여호와가 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돌에 맞아 죽을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는 자는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서는 달라졌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더욱 정확하고 실제적이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앙망하는지에 따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무했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해서 믿든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 행하는 행사를 보게 되었다. 그때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진심으로 순종한 경우에는 정죄받지 않았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셈과 행실에 근거하여 정죄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정죄한다면 아무도 노한 하나님의 두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그들의 불복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허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고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체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사 방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주 많으며, 비록 그러한 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얼간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므로 정죄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을 갖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나,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역을 체험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인 것이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므로

정죄받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쓸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도태될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비천한 자이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여기고, 또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멋대로 전하는 자는 가장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며,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체험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증거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위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 관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너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계속해서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것이다. 너희의 본성이 너무도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는 충성심과 순종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공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너희는

영망진창인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능마저 발휘하지 못하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충성심과 양심, 순종, 의지도 없고, 꺾어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좋은 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으면서 너희가 무슨 낯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차라리 빨리 눈을 감으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더 이상 심려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삶에 분투 목표도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사람임에도 일말의 양심도, 인격도, 신용도 없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돈을 욕심내며, 하나님의 제물을 먹는 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 없이 대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대하며, 하나님의 작은 요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데도 너희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쓸모없는 열간이로 전락했다. 이것이 개보다도 못한 짐승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동물 중에 너희보다 더 악독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이나?

높은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나 장로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사탄의 동맹이다. 그러나 높은 강단에 서지 않고도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는 하나님을 더 대적하지 않느냐? 더더욱 사탄과 결탁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아는 사람도 설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틀릴 리 없다. 다만 사람의 추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말종들은 목사나 장로보다 더 음흉하고 악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는 천태만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다.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다 탕감해 준다. 사람이 진리를 구하고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함으로 인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 전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든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후에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서(史書)’에 기록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지존 무상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정으로 알고, 옛 성품에 변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적이 있지만, 네가 성육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며, 네가 행해야 할 진리를 실천하고, 너의 본분을 이행하며, 네가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킨다면, 너는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게 하려는 사람이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사람이다. 반대로 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패역 행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협력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너와 같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확실히 징벌받을 대상이지 온전케 될 대상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게 될 것이다. 네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로 남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너는 일찌감치 떠나는 편이 낫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야만적인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육신이 제거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결국에 화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따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하겠다. 뭘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꼭 이 길을 가야만 하겠느냐?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더냐?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맞설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2

(1992년 11월~1993년 6월)

사역과 진입 1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선 후 지금까지도 많은 일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이 해야 하는 많은 사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가지 원인은 사람의 체험이 편향되며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사람을 그 정도까지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에게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다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너희는 자신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모호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은 너희의 부족한 점이며 더욱이 모든 종교계 인사의 커다란 허점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허점’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병’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뒤집는 것처럼 어려워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버림받았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무참하게 고통받다 죽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머금고 억울하게 죽었더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잔인무도하게 박해당했더냐.... 이런 비극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탓에 일어난 것 아니더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들은 단순히 종교계만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너희와 그들의 공통점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감히 이 흐름 속에서 개인적으로 상상하는 사역을 거창하게 행하고, 개인적인 요구와 사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부탁한 사역을 한다. 많은 이가 제멋대로 허튼짓을 하고 하나님의 지위는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이런 것이 모두 사람의 ‘사심’을 충분히 보여 주고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기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음을 보여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재능으로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더냐?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높여 줌에 불과하다. 사람 자신에게 어찌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고 그의 말씀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긴다면 이는 망신을

자처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깨달은 것이 너무 적다. 최고의 이론가나 언변이 뛰어난 연설가도 하나님의 풍부함을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보다도 낮게 생각해야지, 하늘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가 진입해야 할 길이다. 자신을 누구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 굳이 그렇게 대단하게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그렇게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긴 생명의 여정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너희가 본 것은 하나님의 팔뿐이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너희가 진입해야 할 것을 더 많이 발견해야 한다. 이는 너희의 변화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끝이 없는 사역이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너희는 영원히 갓 태어난 아기이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너희는 어쨌든 하나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만족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두고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너희는 영원히 결투장의 패배자다. 사람의 육체는 승리한 적이 없다. 오직 성령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에게 쓸 만한 부분이 생긴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미천하다. 비록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사람만이 사탄의 온갖 수단에 파괴되어 자주권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더러운 땅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죽을 만큼 농락당하며, 인간 세상의 술한 풍파와 고난을 겪는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실컷 우롱한 후에 사람의 운명을 끝낸다. 그리하여 사람의 일생은 복잡하게 얽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사탄에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유린당한다. 오늘날 사람은 더욱 지치고 활기가 없어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 없다면 사람의 체험은 영원히 불완전할 것이고, 사람의 진입은 영원히 공백일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한 이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의(仁義)와 지조가 있는 많은 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위해 한동안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위에 서서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진입을 논하겠느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매몰시켰다. 그렇기에 역대에 사역한 사람들 중 진입한 사람이 아주 적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사람은 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서 오랜 세월 은밀하게 거했고, 오랜 시간 동안 안개 속에서 살피보았으며, 수많은 낮과 밤 동안 셋째 하늘에서 살피보았다. 또 오랜 세월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수많은 겨울 동안 만인 위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모습을 나타낸 적 없이 침묵했으며 조용히 떠났다가 소리 없이 돌아왔다. 누가 그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겠느냐? 그는 사람에게 말쑤한 적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부탁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왜 모르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했지만 사람은 아직도 그를 알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 진입이 너무나 얇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전혀 없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또한 너무 복잡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심혈과 사역이 모래 속에 파묻힌 금처럼 한 가닥의 빛도 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자질과 마음가짐, 관점에 극도의 염증을 느낀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둔감하며 부패하고 속되고 노예근성은 너무 강한 데다가 연약하고 의지력도 없는 그들을 소나 말처럼 끌고 가야 한다. 그들은 영적인 진입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진입에 아무 관심도 없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으려는 의지도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것이 말처럼 쉽겠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부터 진입하고, 너희의 사역과 진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 가는 것이다.

사역과 진입 2

너희의 사역이나 진입은 너무나 형편이 없다. 사람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 중시하지 않고, 생명 진입은 더더욱 건성이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진입해야 할 공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너희가 체험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거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사역 방면과 관련하여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이런 공과를 배워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 이래, 사역하는 사람을 ‘일꾼’, ‘사도’라고 불러 왔다. 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사역’은 비단 ‘일꾼’, ‘사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모든 이를 상대로 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진입을 위해 이와 관련된 진리에 대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사역이라 하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옳긴 하지만 아주 단편적인 인식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많이 섬기고 공급하는 것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의 관념 속 사역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일치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역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입도 매우 단편적이 되었다. 너희는 모든 측면에서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에서부터 진입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이다. 사역이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내는 것과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역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람의 책임이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의 진입이 곧 너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과정에서 진입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길 줄 알며, 사람을 돌보고 공급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사역이자 너희의 진입이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이다. 많은 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곳곳에서 설교하는 것만을 중시한 나머지 개인의 체험을 망각하고, 영 생활에 진입하는 것을 간과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봐 온 이가 사역과 설교를 진입할 것으로 여기면서도, 개인의 영적 체험은 중요하게 진입할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령 역사로 인한 깨우침을 밀천 삼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며, 설교할 때면 사명감으로 가득 찬 채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성령의 음성을 쏟아 낸다. 이때, 사역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영적 체험인 양 득의양양해하며 자신이 한 말이 개인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자신의 체험은 입 밖에 낸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성령이 역사하면 청산유수처럼 즐기게 말을 늘어놓는다. 네가 이렇게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네 실제 분량이 생각했던 것만큼 작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성령이 이와 비슷하게 몇 차례 역사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이미 분량이 생겼다고 확신한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곧 자신의 진입이고, 자신의 어떠함이라고

착각한다. 늘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 개인의 진입에 해이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져 개인의 진입을 전혀 중시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타인을 돌볼 때에는 네 분량과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네 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네 체험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체험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너희의 진입을 핵심 공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함이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하나님 사역의 성과를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너희는 반드시 사역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자격이 있다. 즉, 모두에게 성령께 쓰임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사람이 말한 것과 깨달은 것이 전부 사람의 분량은 아니라는 점이다. 너희는 오직 사역하는 과정에서만 너희의 부족함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많은 성령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며, 더 잘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인도를 자신의 진입으로 여기고, 게다가 자신에게 원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면 사람의 분량은 발전이 없다. 성령은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일 때 깨우쳐 준다. 이때 사람은 흔히 자신이 얻은 깨우침을 자신의 실제 분량으로 착각한다. 성령의 깨우침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역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불현듯 어떤 진리에 눈을 뜨게 된다. 사실 사람이 깨달은 것은 성령의 깨우침일 뿐 자신의 실제 분량은 아니다(물론 이 깨우침 역시 사람의 협력과 관계가 있다). 사람이 다시 한동안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비로소 진실한 분량이 드러나고, 그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의 사심, 잡념, 탐욕 등이 모두 쏟아져 나오니 말이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많은 이가 이런 체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서야 예전의 깨우침이 자신의 실재가 아닌 성령의 일시적인 빛 비춤이었고, 사람은 그저 빛 비춤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이 사람을 깨우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전후사연 없이 분명하고 명확한 경우가 많다. 즉, 사람의 어려움을 계시에 연관시키지 않고, 직접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를 다시 성령의 깨우침에 연관시키면 사람의 실제 체험이 되는 것이다. 미혼인 한 자매가 교제 때 했던 말을 예로 들어 보겠다. 그녀는 “우리는 부귀영화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금슬 좋은 부부가 누리는 복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순결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뿐입니다.”라는 말에 이어 “사람이 결혼을 하면 부담이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가정, 배우자를 걱정하면서 마음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요…”라는 말을 했다. 그 자매는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입으로 뱉는 듯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이야기하는 양 말에 힘과 깊이가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형제자매들이 같은 각오를 가지기를 바랐다. 이때의 각오와 감동은 오롯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자매 역시 나이를 몇 살 더 먹었을 때, 그녀는 자신과 동갑인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모두 남편이 생긴 것을 보았다. 또 아무개가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도시에 가 살면서 취업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다 그 친구를 만나자 부러운 마음이 솟구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이 넘치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도시인의 분위기를 풍기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시골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모습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온다. 자신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집도 직업도 없는 데다 적잖은 책망을 받았다. 나이는 중년에 접어든 지 오래고, 청춘은 한바탕 꿈이라도 꾸 것처럼 어느덧 사라졌다. 오늘날까지도 어디에 몸을 의탁해야 할지 모른다. 이때 그 자매는 제 정신이 아닌 듯 만감이 교차한다. 덩그러니 혼자가 된 것 같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지난날 다졌던 각오와 하나님께 했던 굳은 맹세를 떠올리며, 어찌다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지 혼자 생각에 빠진다. 저도 몰래 눈물이 흐르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 그때, 하나님과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날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눈앞에 떠오르고 그날의 맹세가 귓가에 맴돈다. ‘하나님은 내 유일한 지기(知己)가 아니시던가?’ 그 장면에 자매는 이미 목메어 울고 있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모두 당신께 드렸습니다. 제 일생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평생,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던 그녀는 그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닫고, 자신은 일찌감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런 충격을 경험한 후 그녀는 그 일을 훨씬 성숙하게 대하게 됐고, 그때의 성령 역사는 사람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후로는 체험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진입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마치 상처가 진입에 크나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곧바로 그날의 눈물을 떠올린다. 하나님과 헤어졌다 다시 상봉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틀어질까 두려워하고, 너와 하나님의 ‘감정’(정상적인 관계)을 해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바로 너의 사역과 진입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너희의 진입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무엇이 너희의

진입인지를 알아야 한다. 또 성령 역사를 너희의 진입 속으로 끌어들여 성령의 온전케 함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너희에게서 성령 역사의 본질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알고 자신도 알게 된다. 또한, 여러 차례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며, 수많은 훈계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에게 참된 사랑을 갖게 된다. 따라서 너희는 고통, 채찍질, 환난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것은 너희에게 성령 역사만 있고 자신의 진입이 없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임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진입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이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사람의 열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진입을 위해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역과 진입 3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겼고, 사람의 진입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람의 자질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거의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사람의 자질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다. 사람의 사상과 도덕이 부패하고 교양이 없는 것, 봉건적 미신이 사람 마음을 심각하게 점령한 것, 타락하고 문란한 생활 방식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각종 폐단을 일으킨 것, 거의 98%의 사람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극소수일 정도로 교육 수준이 얇은 것, 이러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봉건적인 미신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고 불명확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기개’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악영향과 봉건사상을 남겨, 조금의 자유도 없이 움아매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패기도, 의지력도, 진취심도 없이 소극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노예근성에 깊이 젖어 버렸다. 이러한 객관적 요소들은 사람의 사상적 풍모, 개인의 이상(理想)과 도덕, 성품을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물골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공포의 암흑세계에 갇힌 것처럼 누구도 벗어날 생각을 못 하고, 이상적인 세상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현실에 안분지족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힘껏 땀 흘려 일하며, 안락하고 원만한 가정, 부부간 사랑, 자녀의 효도, 즐거운 노년과 편안한 여생 등을 꿈꾸면서 말이다. 사람은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무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저 어두운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아귀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중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가 있더냐?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을 쓴 자가 있더냐? 흑암 권세에 점령당한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고질화되었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날 맡긴 일에 대해 신경 쓸 생각조차 없다. 어찌 됐든, 나는 사람이 내가 한 말들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歷史)이기 때문이다. ‘역사’란 곧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추문’이니, 굳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을 보면서 깨닫고 분발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하기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전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더욱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소망이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모두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오늘날 사람 같지도 않은 몰골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정신적 면모를 변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사상, 도덕과 교육이 중요하고, 지식 습득 훈련은 그다음이다.

사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사람의 자질과 하나님의 요구 기준 간에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바라볼’ 뿐, 그것을 이행할 힘이 없다. 사람의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습득은 하나님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깨닫기만 하는 것은 완전한 대책이 아니다. 먼 곳의 물로는 당장의 갈증을 풀 수 없듯, 설령 사람이 자신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려는 의지가 없고, 더욱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발전의 길’에 도달할 수도 없다면, 그러한 깨달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내가 말하는 핵심은 진입이다. 이것이 주요 의제이다.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삶은 언제나 무미전조하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거나 예배하는 등 몇 가지의 단조로운 영 생활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렇다 할 즐거움이 없다고 느끼곤 한다. 이런 영적인 활동은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탄의 파괴 성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사람은 때로는 성령의 깨우침을 얻기도 하지만, 고유의 사상, 성품, 생활 방식과 습관이 여전히 내면에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미신 활동을 가장 증오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한 채, 그러한 미신 활동이 하나님이 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날까지도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이 치르는 결혼 피로연, 혼수, 축의금, 축하 파티 등 결혼과 관련된 허례허식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말, 죽은 이를 위해 장례식에서 행하는 모든 무의미한 미신 활동들을 더욱 혐오한다. 예배일(종교계에서 지키는 안식일 포함)도 하나님은 혐오한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인지상정적인 왕래나 세속적인 교류를 더욱 혐오한다. 모두가 다 아는 ‘설날’이나 ‘크리스마스’ 역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닌데, 명절 기간 동안 마련하는 여러 가지 진열품이나 놀이(대련(對聯), 폭죽, 등롱, 성찬,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경축)는 더 사람들의 우상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사용하는 떡, 포도주와 세마포는 이보다 더한 우상이라 하겠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용대두(2월 2일)’, ‘단오절’, ‘중추절’, ‘납팔’, ‘양력설’ 등 전통 명절과, 종교계의 ‘부활절’, ‘세레일’, ‘예수 탄생일’ 등 말도 안 되는 명절들은 전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 전통이 된 것으로, 사람의 풍부한 상상력과 ‘교묘한 구상’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 마치 빈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전부 사람을 가지고 노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다. 사탄이 때를 지어 거하는 곳일수록, 진부하고 낙후된 곳일수록 봉건적이고 케케묵은 풍속이 더 심하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톱톱 얹어매어 움썩달싹할 수 없게 한다. 종교계의 수많은 기념일들은 언뜻 독창적으로 보이며, 마치 하나님의 사역에 다리를 놓아 줄 것 같지만, 이는 모두 사탄이 사람을 얹어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형의 밧줄이자 사탄의 간계라는 걸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실 하나님은 한 단계의 사역을 끝내면, 당시 그가 사용했던 도구와 ‘풍격’을 흔적도 없이 전부 없애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자’들은 여전히 형상이 있는 물질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언뜻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문밖으로 내쫓고 ‘사탄’을 집 안에 모셨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들은 ‘예수의 초상화’, ‘십자가’, ‘마리아’에서 ‘예수의 세례’, ‘예수의 만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천주’로 여겨 경배하고 말끝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니 가소로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나?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혐오하는 이와 비슷한 말과 행동들이 수없이 많이 전해 내려와 하나님의 앞길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으며, 나아가 사람의 진입에 더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사탄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파괴시켰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위트니스 리의 이론’, ‘로렌스의 체험’, ‘워치만 니의 개론’, ‘바울의 사역’ 등이 이미 사람의 내면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 사역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돼 버렸다. 사람 내면에 ‘개인주의’, ‘이론’, ‘법도’, ‘규칙’, ‘제도’ 따위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봉건 미신적인 색채까지 더해져 사람을 약탈하고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은 마치 감동적인 신화를 다룬 컬러 영화와 같아 뜬구름처럼 허황되고, 상상만 해도 심금을 울리며, 눈이

휘둥그레지게 한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이 와서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의 이러한 미신적 색채를 다루고 없앴으로써 사람의 정신적 면모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조상들의 유전을 이어받음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시작하고 친히 끝내는 것이다. 영적 위인들의 유전을 계승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과거 어느 한 시대에 행한 대표적인 일을 이어받을 필요도 없다. 사람은 이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늘날 독특한 형태의 말씀과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할 리가 있겠느냐? 사람은 오늘날의 흐름 속에서 ‘조상’들의 유전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길의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연월일을 증오하듯, 사람의 그런 작태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뱃속까지 중독된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사상과 도덕관을 바꿔 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종교 의식, 종교 활동, 연월, 절기 등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이러한 봉건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람의 농후한 미신 색채를 깨끗이 없애야 한다. 이러한 것도 다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포함된다.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세속적인 것에서 나오게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규례 속에서 나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진입하는 데 있어 관문과도 같다. 비록 너희의 영적인 체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것들이 바로 너희의 진입과 하나님에 대한 앎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물’이 되어 사람을 그 속에 가두어 마음대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 성경 속의 수많은 구절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진입 과정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늠하며, 하나님이 행하는 이 단계 사역의 근거와 발원지가 성경인 것처럼 군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면 사람은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면, 초조함에 식은땀을 흘리며 하나님 사역의 근거를 찾으려 든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몹시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깐깐하게 따져 순종하며, 건성으로 알아 간다. 또한 항상 과거의 것들을 반만 남겨 놓고 반은 버린다. 이것을 진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의 서적을 보물로, 하나님나라의 대문을 여는 ‘황금 열쇠’로 여겨 끌어안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현재 요구는 들은 채 만 체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똑똑한 전문가들’은 왼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에 다른 이의 ‘명작’을 들고 있다. 마치 ‘명작’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의 근거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려는 듯하다. 또한 ‘명작’과

결부시켜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군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 가운데 많은 ‘연구원’들은 오늘날의 최신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연구 성과(하나님의 사역, 말씀, 생명 진입의 길을 가리킴)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자력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세 치 혀에 의지해 곳곳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진입은 곧 쓰러질 듯 위태위태하며, 하나님의 요구와는 창세 때부터 현재까지의 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말처럼 그리 쉽겠느냐? 사람은 자신의 반은 과거에 남겨 놓은 채 반만 현재로 가져오고, 반은 사탄에게 건넨 채 나머지 반만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듯하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떳떳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것 같다. 사람의 내면세계는 너무나 음험하다. 사람은 미래를 잃는 것도, 과거를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며, 사탄에게 밋보일까 봐 겁내면서 또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오늘날의 하나님을 거스를까 봐 두려워한다. 사람은 사상과 도덕 수양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분별력은 더더욱 형편없으며, 오늘날 사역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사람의 봉건 미신적 사상이 너무 뿌리 깊어 이미 오래전부터 미신과 진리,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부류로 취급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마음이 없다. 마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확실하게 알 수 없기에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 앞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올바른 사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생긴 결과로, 사람의 진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람은 참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늘 관심이 없고, 사람(예를 들어, 사람 마음속의 위인)이 하는 일에는 낙인이라도 새겨진 듯 ‘게이불사^[1]’한다. 이것들은 전부 사람이 진입해야 할 최신 과제가 아니더냐?

사역과 진입 4

만약 사람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입할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은 우후죽순처럼 하루가 다르게 자라날 것이다. 현재 많은 이의 분량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모두 생명을 전혀 중시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표면적인 일들을 중시하거나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한다. 목표도 없이 막막하게 사역하며,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사역하는지는 더더욱 모른 채 그저 ‘자신을 낮추고 감출’ 뿐이다. 사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1] 게이불사(鍥而不捨):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사람이 고집스럽게 옛것을 고수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킴.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의지력에 기대 타인의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인다. 마치 마권찰장^[1]하며 어깨를 펴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금 많은 이가 기형^[2]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진입의 발걸음이 절망^[3]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많은 이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경하는 ‘무릉도원’이고, ‘자유의 경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걸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많은 이의 장단점을 이번 말씀의 주요 화젯거리로 삼지는 않을 것이니 모든 형제자매들이 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하나님은 중화 대륙, 즉 홍콩이나 대만 동포가 말하는 내륙에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왔을 때, 하늘 위아래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은밀히 재림한 참뜻이기 때문이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생활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는 이가 없다. 어쩌면 이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번에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영이 얼마나 대단한 기세로 역사하든 하나님은 시종일관 내색하지 않으며,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이 단계의 사역은 천계(天界)에서의 사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눈으로 보았지만,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이 단계의 사역을 끝내면 모든 사람은 긴 꿈에서 깨어나 태도가 일변할 것이다^[4]. 하나님은 “이번에 육신으로 온 것은 호랑이 굴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바 있다. 즉, 하나님은 이번 사역을 육신으로 행하고, 그것도 큰 붉은 용이 군거하는 곳에 강생하여 행하기 때문에 더욱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땅에 온 것이다. 하나님이 직면한 것은 총칼과 몽둥이요, 시험이요, 살기등등한 사람들이므로, 언제든 죽임 당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진노를 지니고 왔다. 그러나 그가 온 이유는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구속 사역에 이어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 단계의 사역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천방백계로 시험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을

[1] 마권찰장(摩拳擦掌): 한바탕해 보려고 단단히 벼름을 이르는 말, 여기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쓰임.

[2] 기형(畸形): 여기에서는 사람의 진입이 빗나가거나 체험이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을 가리킴.

[3] 절망(絕境): 여기에서는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을 가리킴.

[4] 태도가 일변할 것이다[一反常態]: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것을 가리킴.

낮추고 감추었지,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한 적이 없다. 예수가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일 뿐, 온전케 하는 사역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반만 완성되었다. 구속 사역을 끝낸 것은 전체 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 새 시대가 시작되고 옛 시대가 지나가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부분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과거에는 말세에 성육신할 것이라고 명확히 예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더 은밀하게 육신으로 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만인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동틀 무렵에 땅에 와 육신에서의 생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순간이 도래했음을 모른다. 어찌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이가 깨어 기다릴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미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더 순조롭게 사역을 펼치고, 보다 나은 사역의 성과를 거두며, 더 이상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봄잠에서 깨어나는 동틀 녘에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하나님은 땅을 떠남으로써 땅에서 떠돌며 기거했던 생애를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하고 친히 말해야지, 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고 땅에 와 친히 사역을 행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시대의 수천 배에 달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붉은 용이 군거하는 곳에 내려와 자신의 사역을 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빈궁한 백성, 거름 더미 속의 사람을 구원(원문: 救贖)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나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극악무도한데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늘 묵묵히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잔혹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하늘의 아버지가 맡긴 더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할 뿐이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깨달은 자가 있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담을 아들보다 더 잘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은 항상 걱정하고, 땅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늘 간구하며 애태우는데, 어느 누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선택할 수 없이 하늘과 땅에 갈라져 있어 항상 멀리서 바라보고 영 안에서 서로 따른다. 인류야! 언제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냐?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본래 서로를 의지하거늘, 이들을 하늘 위아래로 갈라놓아야만 하겠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 아버지도 아들을 그리워하거늘, 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고대해야만 한단 말이나?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지는 않으나 수많은 낮과 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는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아들의 빠른 귀환을 위한 것이건만, 세상 끝과 바다 끝을 떠돌고 있으니 언제쯤 재회할 수 있겠느냐? 상봉하는 날 영원히 함께할지라도 어찌 수천 번의 밤낮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떨어져 지내겠느냐? 땅에서의 수십 년은 하늘에서의 수천 년과 같거늘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땅에 온 하나님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파에 시달린다. 하나님은 본래 죄가 없거늘 어찌 사람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적어도 너무나 적으니 어찌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는 이는 거의 하나도 없다. 사람은 자질이 형편없기 짝이 없고, 영 안이 몹시 둔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야만성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늘 마음을 놓지 못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크나큰 시험을 무릅쓰고 땅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영광을 가득 안고 그의 뜻을 숨김없이 다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이들을 온전케 하기로 결정했기에 고난이나 시험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만 해 나가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다.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인류의 행복과 더 나은 생존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무릅쓰고 왔으며, 또한 진노와 위엄을 지니고 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날 때는 이미 영광을 얻었으므로 영광과 귀환의 기쁨으로 가득한 채 떠날 것이다. 땅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어떻게 저버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의 사역만 행할 따름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천만년의 역사(歷史)가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땅에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세상에서 수없이 버림받고 비방당했다. 하나님을 반겨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이 수천 년의 고초를 겪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패역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워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기로 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와서 조롱, 비방, 핍박, 환난,

십자가의 고통, 사람의 배척 등을 더는 겪을 수 없을 정도로 겪었다. 또 육신으로 온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갖은 고난을 겪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젓히고 눈을 감은 채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직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의 육신 앞에서 죽도록 참회하고, 그에게 거역하지 않기를,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다. 하나님은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했건만 사람은 무사태평^[1]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조차 쓰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 사역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는 ‘무계지언^[2]’이 많겠지만, 이는 사람의 진입과 크나큰 관계가 있다. 나는 그저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진입에 대해 말했을 뿐이나, 이 두 가지 모두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사람의 생명에 더더욱 도움이 된다. 양자는 상호 보완^[3]적이고 유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게 한다. 오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한층 더 개선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부담을 더 잘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한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 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살아 내미 하나님의 사역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 세계의 동방에서 영원히 빛나게 함으로써, 온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하고 만인이 우러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해야 할 더 좋은 진입이다.

[1] 무사태평[高枕無憂]: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중에 두지 않음을 가리킴.

[2] 무계지언[無稽之談]: 사람이 말씀의 근원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것을 꼬집는 반어적인 표현.

[3] 상호 보완[相輔相成]: ‘사역’과 ‘진입’ 두 가지를 결합하여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사역과 진입 5

지금 너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의 정상 궤도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있고, 또 다른 시대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이 흑암의 옛 시대를 벗어나도록 인도하고, 사람이 육적인 것에서 빠져나와 흑암 세력과 사탄 권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한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내일을 향한 사람의 더 힘찬 발걸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육신에서 온 심혈을 기울여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사람이 고대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도록 하고 있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과 함께한 날은 이미 오래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름답고도 짧은 시간을 영원한 추억으로, 땅에서의 보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이미 사람에게 드러났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또 사람은 늘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언제나 원래의 기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과 관념, 정신적 면모는 여전히 옛날 식이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의 정신적 풍모가 여전히 고대 원시 인류와 같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것과 자신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른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와 사람의 생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정체되게 만들었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자질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다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생명이 조금이라도 자라기를 바란다면 너희 삶의 세세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너희의 생명 진입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너희의 공허한 마음과 무미건조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안부터 밖까지 철저히 탈바꿈시키며, 진정으로 향상되고 자유롭고 초탈한 삶을 얻게 해야 한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활기를 얻고 영적으로 소생하여 ‘산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너희가 접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보면, 활발하고 생생한 모습을 가진 자가 거의 없다. 다들 고대 유인원처럼 어리석고 둔하여 이렇다 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접한 형제자매들 중에는 더 나아가 산속 야인처럼 거칠고 야만적이고, 제멋대로인 데다 사람으로서의 상식도 전혀 없는 자들이 있었다. 많은 젊은 자매들이 영리하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빼어난 외모를 지녔지만, 치장은 ‘보통이 아니다’. 얼굴을 덮은 머리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고 이목구비는 단정한데 꾸며 놓은

머리카락은 혐오감을 일으키며, ‘소년범’ 수용소에 있는 최악의 수용자 같은 기괴한 느낌을 준다. 초롱초롱하고 커다란 두 눈은 물속에 잠긴 ‘에메랄드’ 같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이 두 눈을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나타난 한 쌍의 ‘등불’처럼 유난히 부각시킨다. 게다가 가끔 이글거리는 눈빛을 번뜩여 모퉁이 송연해지게 하고, 또 누군가를 일부러 피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계속 갖가지 방법으로 ‘현장’을 떠나려 했다. 마치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살인범’처럼 말이다. 또 계속 이리저리 슬슬 피하는데 마치 조상 대대로 노예였고, 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아프리카 흑인^[1] 같았다. 사람이 이런 행동부터 옷차림, 치장까지 개선하려면 몇 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다.

수천 년간 계속된 중국인의 노예 생활은 사람의 사상, 관념, 생활, 언행을 일말의 자유도 없이 속박해 버렸다. 영을 가진 산 사람은 수천 년의 역사(歷史)에 시달려 영이 없는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도살용 칼 아래에서 살고, 많은 사람이 동물의 굴 같은 곳에서 살며, 많은 사람이 소나 말이 먹을 법한 음식을 먹는다. 또 많은 사람이 ‘저승’에서 텅굴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외모는 원시 인류 같고, 사람이 쉬는 곳은 지옥 같으며, 곁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령이 따라다닌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고등 ‘동물’인 것 같지만, 실은 더러운 귀신과 함께 기거하고 함께 생활한다. 다스리는 자가 없기에 사람은 사탄의 매복권 안에서 살고, 그 속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산다기보다 ‘저승’에서 살면서 귀신을 상대하고 마귀와 왕래한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 사실, 사람은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러운 귀신이 군거하는 곳에서 살면서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람의 침대는 사람의 시체가 편히 잠든 곳이자 사람의 ‘안식처’ 같다. 사람의 집으로 들어서면 썰렁하고 적막한 정원이 나오고, 찬 바람이 불어 마른 나뭇가지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거처방’의 문을 여니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문틈으로 살짝 들어온 한 줄기 빛에 방 안이 더욱 음산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방 안의 쥐는 향락을 즐기고 있는 듯 연신 기괴한 소리를 낸다. 방 안의 모든 것을 보니 막 관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던 방처럼 역겹고 무섭다. 방 안의 침대와 이불, 볼품없는 작은 궤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작은 의자 몇 개가 살풍경스럽게 놓여 있으며, 벽에는 거미줄이 가득 걸려 있다. 책상에는 거울과 나무 빗이 놓여 있는데, 거울 앞으로 다가가 손이 가는 대로 초 하나를 집어 들고 불을 켜면 거울에 가득 쌓인 먼지가 사람의 얼굴을 무덤에서 막 걸어 나온

[1] 아프리카 흑인[非洲黑人]: 하나님께 저주받아 조상 대대로 노예가 된 흑색 인종을 말함.

것처럼 ‘단장’시킨다. 빛의 양면에는 머리카락이 가득하다. 이 모든 것이 막 죽은 사람이 사용했던 것처럼 낡고 초라하다. 나무 빗을 보니 마치 옆에 시체 한구가 누워 있는 듯 피가 돌지 않는 이 머리카락에서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다. 한 줄기 찬 바람이 문틈을 뚫고 들어오자 마치 유령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다시 이 ‘거처방’ 안에 머무는 것 같다. 방 안에 한기가 엄습하니 순식간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듯하다. 이때 벽에 걸린 잡다한 물건, 침대에 흐트러져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이불, 구석에 있는 식량,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작은 궤, 바닥에 있는 장작과 흙 같은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 죽은 자가 사용한 듯한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것 같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방 안의 이 모든 것은 조금의 생기도 없는 듯 습하고 차갑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저승, 지옥 같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무덤 같다. 칠을 하지 않은 작은 궤, 작은 의자, 문과 창문은 사람을 위해 상복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위해 묵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이런 저승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날이 밝고 수탉이 울면 ‘무덤’에서 몸을 내밀어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땅을 한 번 살피본 후 곧장 하루의 활동을 시작한다. 해가 서산에 걸릴 때 피곤한 몸을 끌고 ‘무덤’으로 돌아와 배를 채우면 이미 황혼이 된다. 사람은 내일 다시 ‘무덤’에서 나와 일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도깨비불 같은 등을 끈다. 그러면 달 아래로 작은 산 같은 무덤이 곳곳에 널린 모습만 보일 뿐이다. 가끔 ‘무덤’에서 리드미컬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모든 사람이 ‘숙면’에 들었고, 더러운 귀신과 유령도 조용히 쉬고 있는 것 같다. 먼 곳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도 수시로 들려오는데, 이렇게 으스스한 밤에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면 더 모골이 송연해지고, 소름이 끼친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며 죽음과 환생을 반복했는지, 유령과 교제하는 이 인간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르고, 세상과 몇 번이나 이별했는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다. 이런 ‘인간 지옥’에서 사람은 아무 불만도 없는 듯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산다. 이미 오래전에 저승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기거하는 이런 곳에 큰 관심을 보인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친구, 동료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 세상은 악당 패거리^[1] 천지다. 사람의 고유한 본질은 이미 오래전에 소리 없이 종적을 감추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습에는 다 더러운 귀신 같은 느낌이 조금씩 있고, 나아가 사람의 행동은 더러운 귀신의 지배까지 받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사람의 겉모습은 더러운 귀신과 완전히 똑같아져서 마치 모두가 더러운 귀신에게서 태어난 것 같다. 더구나 사람은 자기 조상을 몹시 추대하고

[1] 악당 패거리[狐朋狗黨]: 여기서는 인류의 패괴와 인간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없음을 가리킨다.

옹호한다. 누가 알았겠냐만 사람은 진작 사탄에게 유린당해 산속의 침팬지처럼 변했다. 두 눈은 간청의 빛을 띠고 핏발이 가득 서 있으며, 그 희미한 빛에는 사탄이 남긴 악의가 섞여 있다. 주름투성이 얼굴은 갈라진 소나무 껍질 같고, 입은 사탄의 가공을 거친 듯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며, 귀 안팎은 더럽게 얼룩져 있다. 허리를 굽힌 채 두 다리로 힘겹게 몸을 이끌고, 바짝 마른 두 손을 리드미컬하게 앞뒤로 흔든다. 사람은 꼭 장작처럼 바짝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산에 사는 곰처럼 뚱뚱한 것 같기도 하다. 안팎의 치장이나 옷차림은 고대 유인원 같다. 이런 ‘유인원’들은 오늘날까지도 현대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진화^[1]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너무도 뒤떨어졌다!

사람과 동물은 함께 무리 지어 살면서 화목하게 지낸다. 한 번도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고, 설전을 벌인 적도 없다. 사람은 동물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배려하며, 동물도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로지 이타적으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사람의 생존을 위한다. 겉보기에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상당히 조화롭고^[2] 화목하다^[3]. 더러운 귀신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완벽한 결합 같다. 그래서 사람과 땅의 더러운 귀신은 훨씬 더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한다. 사람은 더러운 귀신과의 관계를 끊을 듯 끊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도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사람은 매일 ‘염왕궁’에서 향락을 찾고, ‘염라대왕’ (사람의 조상)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지금 사람은 이미 온몸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저승에 오래 머물다 보니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래서 사람은 빛을 보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초조와 불안을 느끼며 여전히 저승으로 돌아가 유령과 함께 살길 원한다. 사람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계속 묘지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봤을 때, 나는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눈앞에 서 있는 자가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녀의 험클어진 머리와 때묻은 얼굴뿐이었고, 이를 드러낸 웃음에는 흉악한 이리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또 막 무덤에서 나온 유령이 이승 사람을 본 듯 어색해하는 모습이였다. 사람은 계속 잇새로 약간의 웃음기를 쥐어짜지만 그 모습은 음험하고 악랄해 보였다. 그녀는 내게 웃으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또 할 말이 없는지 어쩔 수 없이 한쪽에 서 있었는데, 그것이 미련하고 우둔해 보였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니 ‘중국 노동

[1] 진화(進化): 여기서는 유인원에서 현대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며, 풍자적 의미를 갖는다. 사실 ‘고대 원숭이가 직립보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은 없음.

[2] 조화롭고[融洽]: 여기서는 풍자적으로 쓰였음.

[3] 화목하다[和諧]: 여기서는 풍자적으로 쓰였음.

인민의 위대한 형상'을 본 것 같았다. 그러자 그녀가 한층 더 증오스럽게 느껴졌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말하는 '염제(염라)와 황제(대왕)'의 자손의 형상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내가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한마디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몹시 어색한 듯 말을 꺼내면서 고양이와 두 발을 밟는 것처럼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뭔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때서야 나는 그 사람의 손이 조금 전까지 '쓰레기'를 주운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듬지 않은 손톱에서는 하얀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가늘고 긴' 손톱 밑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으며, 손등은 방금 털을 뽑은 닭 껍질 같아 더 역겨웠다. 손바닥을 가득 채운 잔주름에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노동한 대가가 온통 스며들어 있었는데,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흙 같은 것이 '향긋한 흙냄새'를 풍기는 것만 같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지닌 고난의 정신이 귀하고 칭찬할 만한 것임을 상징하는 듯했다. 놀랍게도 고난의 정신을 잔주름마다 깊이 박아 놓은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옷은 동물의 털가죽과는 크게 달라 보이지만,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사람은 더없이 '존귀'하나 사람의 몸값은 여우의 모피보다 못하고, 공작의 깃털 하나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사람의 옷이 이미 오래전에 사람을 개돼지만도 못할 정도로 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짝 끼는 작은 윷도리는 허리 중간까지 내려오고, 닭의 창자처럼 좁은 바지통은 사람의 추한 모습을 백일하에 완전히 드러냈다. 게다가 짧고 좁은 바지는 마치 그녀의 발을 동여매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며, 그래서 그녀의 발이 더 이상 구사회의 '전족한 발'이 아닌 큰 발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 같다. 사람의 옷차림은 너무 서구적이지만 또 너무 천박하다. 내가 그녀를 접했을 때 그녀는 계속 수줍어하며 얼굴을 붉혔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당해 사람을 볼 낫이 없는 양,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먼지가 불공평하게도 전부 사람 얼굴에 내려앉은 것처럼 사람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였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참새의 껍질 같았고, 사람의 눈 역시 참새의 눈처럼 작고 메말라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말할 때는 계속 더듬거리고, 또 계속 감추려고 해서 혐오스럽고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말끝마다 이런 자를 '민족의 대표'라고 치켜세우니 우습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구하여 저승,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역과 진입 6

사역과 진입은 본래 다 실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진입을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본모습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에 진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가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이루는지 알지 못하며, 왜 크나큰 수모를 감내하면서까지 육신으로 임하여 사람과 영육을 함께하는지도 모른다. 또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세 계획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입에 늘 미온적이고, 얼버무리기^[1] 일쑤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에 크나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사람은 마치 사람이 장애물이 되더라도 한 듯,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밝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이야기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온갖 치욕을 감내하며,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이 말세에 얻을 지기(知己)가 되도록 말이다. 나는 형제자매 모두가 전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집의 거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빨리 편히 쉴 수 있게 하기만을 바란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좌우명으로, 이 말을 사람의 진입을 위한 등대, 그리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지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육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사람은 그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송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 아니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은혜시대에 셋째 하늘로 돌아갈 때,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땅에는 예수가 젖던 십자가, 그의 몸에 감싸졌던 세마포, 그가 썼던 가시 면류관, 그가 입었던 자색 옷(유대인이 그를 희롱하며 사용했던 물건들)만 남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역은 한바탕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잠잠해졌고, 그 후 예수의 제자들은 곳곳의 교회에서 양육하고 목양하며 그의 사역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사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했고, 또 세례받게 했다. 사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막과 실제 상황을 전하여

[1] 얼버무리기[含糊其辭]: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뚜렷한 인식이 없음을 의미함.

사람들이 절로 ‘예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게 했으며, 또 곳곳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이때부터 은혜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시대에 예수가 한 일 역시 사람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다만 시대가 다른 관계로 많은 표현과 실행들이 오늘날과 크게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즉, 전부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조금의 차이도 없다. 그런 사역과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기에 지금의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를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역이 끝날 무렵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단계의 사역 계획, 즉 말세에 성육신하는 일을 시작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성육신 사역을 끝냈고, 온 인류를 속량했으며, 음부의 열쇠를 손에 넣은 것 같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철저히 완성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의 사역 중 작은 부분만 완성됐을 뿐이다. 그는 인류를 속량했을 뿐 정복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탄의 추한 몰골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육신한 몸은 죽음의 고통을 겪었으나 이는 내가 성육신한 모든 목적이 아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의 사역 중 일부만 완성했을 뿐 모든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성육신의 사역을 잇는 두 번째 계획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육신으로 왔다. ‘성육신’이란 영광을 지니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영광을 지니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에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의 힘은 근소신미^[1]한 데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병과는 거리가 멀기에, 다만 육신의 직분을 이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완성할 뿐이다. 다른 사역은 하지 않고 오직 일부분 사역만 완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오는 순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함의이다. 시험을 무릅쓰고 왔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사역만을 완성하기 때문이며, 게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만 부를 뿐, 모든 영광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온 목적은 한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깨에 짊어진 사명을 모두 완성할 때 아버지는 모든 영광과

[1] 근소신미(謹小慎微): 육신의 기능이 보잘것없어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지나치게 신중함. 여기에서는 육신의 어려움이 많아서 사역이 몹시 제한되어 있음을 가리킴.

신분을 그에게 준다. 이는 ‘하늘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성육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경지에 있으니 그저 영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며 지켜보지만 아들은 아득히 멀리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 육신의 능력은 너무도 미약하여 언제든 죽음의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또다시 범의 아가리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탄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그를 넘긴 것이다.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더럽고 음란한 땅의 사람에게 맡겨 그를 ‘어른으로 키우게’ 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치에 맞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인류 가운데서 하는 마지막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 단계 사역을 완성했을 뿐이다. 육신이 서로 동떨어져 있고 또한 완성할 사역이 다른 관계로 예수 역시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성경 해설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세에 또 성육신한다는 것, 즉 말세에 다시 육신으로 와서 육신의 두 번째 부분 사역을 행한다는 것을 아무도 명확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일찍이 육신에 숨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야 이 사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에 대한 더 명확한 예언은 없으며,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의 그 많은 예언서에도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즉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고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은혜시대의 몇천 배에 이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육신했다고 말씀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은 시남(원문: 秦國) 땅, 즉 세계의 동방에서 이긴 자들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많은 곳에 예언해 둔 바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하는 곳은 틀림없이 시남 땅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큰 붉은 용이 꼬리를 들고 있는 곳에서 큰 붉은 용의 자손들을 얻음으로써, 그것에게 완전한 패배와 수치를 안겨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이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완전히 깨우고, 그들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와 큰 붉은 용을 버리게 할 것이다. 또한 꿈에서 깨어나 큰 붉은 용의 본질을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흑암 세력의 억압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 세계의 동방에 굳게 서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승리한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마친 사역을 다시 큰 붉은 용이 꼬리를 들고 있는 곳으로 가져온 것이며, 떠난 지 2천 년이 되었을 무렵 또다시 육신으로 와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이은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시 육신으로 새 사역을 펼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단지 몇천 년이 흘렀고, 사역의 장소와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오늘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입은 형상은 예수와 확연히 다르나 그 본질과 근원은 결국 하나이고, 하나의 기원을 지닌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지도 모르나, 사역의 실상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아무튼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사역이 천편일률적이거나 서로 방해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수는 유대인의 모습을 취하였고, 유대인의 옷차림을 하였으며, 유대인의 음식을 먹고 자랐다. 이는 정상인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아시아인의 모습을 취하고, 큰 붉은 용 나라에서 자랐다.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각각의 이점을 두드러지게 하여 하나님이 성육신한 참된 의미를 더욱 완전하게 한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인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육신은 ‘인자’로 불리고,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단계 사역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죄인을 속량해야 하므로 반드시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했다(십자가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저주와 형벌은 죄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목적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람이 죄를 자복하게 했다. 즉, 하나님은 온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육신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육신으로 모든 죄인을 바꿔 온 셈이다. 이는 예수가 사탄 앞에 ‘속죄 제물’로 건네져 사탄에게 짓밟힌 무고한 인류를 하나님께 돌려 달라고 ‘간청’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속 사역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 이는 필요조건이자 아버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때 맺은 ‘조약’이었다. 그래서 예수가 사탄에게 넘겨진 후에야 그 사역을 끝낸 것이다. 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공전의 성황을 이루었기에, 사탄 역시 무언가 요구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고 무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시대의 예수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염원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란 말이나? 하나님이 성육신하는 것도 규례를 적용해야 한단 말이나?

많은 이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려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을 찾고자 한다. 사고의 회로가 끊긴 사람이, 하나님이 더 이상 성경 안에서 ‘사역’하지 않고 성경 밖으로 ‘뛰어나가’

오래전부터 계획했으나 사람에게 알린 적이 없는 사역을 즐거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너무도 비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겨우 조금 이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높은 곳에 서고 고급스러운 ‘휠체어’에 앉아 하나님의 사역을 고찰한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공허한 말을 늘어놓으며 이것저것 하나님을 가르치려 든다. 많은 ‘어르신’이 돋보기를 쓰고 수염을 쓸어내리며 평생 보아서 누렇게 변한 ‘오래된 책력’(성경)을 펼친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계시록을 펼쳤다가, 다니엘서를 펼쳤다가, 또 널리 알려진 이사야서를 펼쳐 보기도 한다. 검은 글자가 빼곡히 적힌 책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묵독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굴린다. 그러다 갑자기 수염을 쓸어내리던 손길을 멈추고, 수염을 잡아당긴다. 이따금 수염이 뜯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이상한 행동은 ‘왜 저렇게 세게 잡아당기지? 왜 화를 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다. 다시 ‘어르신’을 보니 그의 양미간이 떨리고 있고, 하얗게 센 눈썹은 깃털처럼 눈꺼풀에서 2cm 떨어진 곳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 우연인 듯하지만 또 제법 잘 어울린다. ‘어르신’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곰팡이가 핀 듯한 책장을 응시하더니 몇 번 반복해서 읽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다. 누군가와 인사말^[1]을 주고받는 듯하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여전히 ‘누렇게 변한 책력’에서 맴돈다. 그가 갑자기 보고 있던 페이지를 덮고, 바로 ‘다른 세상’을 펼친다. 몹시도 조급한^[2] 동작이 다시 두려움을 자아내고 당황스러운 느낌을 주는 듯하다. 구멍에서 나온 쥐는 그가 침묵할 때 ‘활개 치고’ 돌아다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에 혼비백산하여 쏜살같이 구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멈추었던 ‘어르신’의 손이 다시 위아래로 움직이며 ‘수염을 쓸어내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책상 위에 놓는다. 문틈과 열린 창문 사이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무정하게 책을 덮었다 펼치며 형용할 수 없는 처연함을 자아내는 듯하다. 이때에는 책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만 들릴 뿐 만물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다. 그는 방에서 뒷짐을 진 채로 서성이면서 이따금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또 움직이며 수시로 ‘고개를 내젓는다’. 입으로는 “오! 하나님이지요! 당신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다. 그러다가 다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이지요! 누가 당신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발걸음은 어찌 이리 찾기가 힘든 것입니까?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때 ‘어르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두 눈을 감은 채 난감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려는 듯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1] 인사말[寒暄]: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추태를 비유함.

[2] 조급한[倉促]: 여기서는 다급한 심정으로 성경을 찾아볼 때의 ‘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함.

짓는다. 정말이지 ‘어르신’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불행히도’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의 ‘오래된 책력’이 ‘누렇게’ 변한 것을 어찌겠느냐? 그의 수염과 눈썹이 흰 눈처럼 무정하게 얼굴 곳곳에 난 것을 어찌겠느냐? 마치 그의 수염이 그의 경력을 나타내는 듯하다. 그런데 사람이 ‘오래된 책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정도로 어리석은지 누가 알았겠느냐? ‘오래된 책력’이 몇 장이나 된다고 하나님의 행사를 정말로 남김없이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단 말이나? 사람은 교문작자^[1] 식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려 하면서 이로써 생명에 진입하려고 한다. 이것이 어찌 말처럼 그리 쉽겠느냐? 이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릇된 논리가 아니겠느냐?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사역과 진입 7

사람은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비단 영적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을 아는 체험에 그치지 않으며, 더 큰 결핍은 성품의 변화임을 깨달았다. 사람은 인류의 역사와 고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의 육이 몹시 패괴된 데다 무감각하고 또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목적은 천만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기 위함이며, 이 기회에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즉, 사람의 ‘인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 방법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되돌리는 한편,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바꾸고자 함이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방식이고, 정복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목적이다. 사람이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사상을 타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현재의 간절한 뜻이다. 모두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체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라. 너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위로해라. 형제자매 중 그 누구도 이를 행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번에 육신으로 온 것은

[1] 교문작자(咬文嚼字): 여기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글귀만 파고들며, 성령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궤변만 늘어놓는 전문가를 풍자함.

초청에 응하여 온 것이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추어 온 것이다. 즉,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를 공급하고자 온 것으로, 사람의 자질과 교양이 어떠하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온전케 되고 사상과 관념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서 바라는 유일한 염원이다. 사람에게 천성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나쁘든, 과거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사람이 마음속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바꾸고, 인류의 본질을 인식하여 사상적 면모의 변화를 이루길, 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다.

수천 년의 고대 문화와 역사적 지식으로 사람의 사상과 관념, 정신적 면모는 물샐틈없이 밀봉되었으니, 호추부두^[1]와 같다. 사람은 십팔 층 지옥에서 살며, 하나님에 의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봉건사상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억눌려 질식당하고, 반항할 여력이 없어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는다... 지금까지 아무도 정의와 공평을 위해 싸우거나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봉건적 예교(禮敎)의 가혹한 학대와 속박에 시달리며 개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구타를 당해 늦가을의 낙엽처럼 시들었으며, 누렇게 뜨고 바싹 야위었다.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기억을 잃고, 인간 세상이라 불리는 지옥에서 속절없이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고대하는 종말의 날이 ‘편히 누리는’ 날이기라도 한 양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지옥과 함께 파멸을 맞고자 한다. 봉건적 예교가 사람의 삶을 ‘저승’으로 이끌어 사람은 더더욱 반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온갖 압박 속에서 한 걸음씩 저승으로 추락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과 생면부지의 사이가 되어 얼굴을 마주하면 계속 피하기에 급급하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 적도, 본 적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한쪽에 고립시켰다. 기나긴 인생 여정이 펼쳐지는 내내 하나님은 줄곧 기다려 왔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한 번도 사람에게 퍼붓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침묵하며 사람이 개과천선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과 함께 세상의 고난을 겪었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으나 사람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 호추부두(戶樞不蠹): 문의 회전축은 좀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늘 움직이는 것은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음을 비유함. 여기서는 완고하고 고루한 사람의 지식, 문화, 정신적 면모를 풍자함.

묵묵히 인간 세상의 쓰라린 아픔을 감내하며, 자신이 가져온 사역을 행할 뿐이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인내하며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사람 앞에서 소리 없이 그들을 돌보며,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필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고대 문화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몰래 훔쳐 마왕과 그 자손에게 넘겼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은 사람의 사상과 관념을 또 다른 패역의 시대로 끌어갔으며, 사람이 ‘서경(書經)’의 편자를 더욱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한층 더 깊어졌다. 어느덧 마왕은 사람 마음속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내쫓고, 득의양양하게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때부터 사람은 추악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고, 마왕의 물골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마왕의 사악한 독은 하루하루 사람 안에서 퍼져 나갔고 사람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사람은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마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마왕에게 사로잡혀 행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어린 마음에는 오래전에 ‘무신론’이란 암세포가 심어졌다. “과학과 기술을 배워 4대 현대화를 실현하자.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이론을 교육시키고, 말끝마다 “우리의 근면한 노동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꾸려 가자.”라고 외쳐 대며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이에 동참하여 조국에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마왕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앞에 오게 만들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공로(하나님이 손으로 온 인류를 받들고 있는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으며, 게다가 뻔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자신은 쥐처럼 책상 위로 ‘뛰어올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경배하게 한다. 이 악당들아! 입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바람은 자연법칙에 의한 변화이고, 비는 안개가 찬 공기를 만나 응결되어 작은 물방울로 맺힌 후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진은 지형의 변형이 초래한 지각의 흔들림이고, 가뭄은 태양 표면의 핵자가 깨지고 갈라지면서 공기의 습기가 사라진 현상이다. 이것이 자연 현상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일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며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고대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고, 지금의 세계는 약 억만년 전의 원시 사회가 교체되며 형성된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두 손에 달려 있다.”라는 등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논리를 외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상을 벽에 걸거나 책상 위에 봉안하고 경배하게 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간주하고, ‘사정없이’ 하나님을 지계(地界) 밖으로 밀어내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마왕 노릇을 하려 드는구나. 실로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이 마왕의 원수이고,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빼

사무치도록 증오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내쫓고 자신은 범망 밖에서 노닐고자^[1] 한다. 이 마왕들아! 어찌 그것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여 뒤죽박죽, 엉망진창^[2]으로 만들어야 그만둘 태세다.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려는 듯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려들며, 고의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점점 강한 압박을 가하는구나. 추악한 몰골은 이미 오래전에 낱알이 드러났고^[3], 진퇴유곡^[4]의 처지에 이르렀건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하며, 하나님을 통째로 집어삼켜야 마음속의 원한이 풀릴 것처럼 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살시키고 근절해야 금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어찌 그것이 계속 미쳐 날뛰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을 패괴시켜 하늘해(원문: 天日)를 모르게 만들었고, 아둔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이성을 상실하게 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그것을 쳐부수고 불태워 후환을 없앴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하루빨리 공전의 성황을 이루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악한 무리는 인간 세상에 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불안을 조성하며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사람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온몸이 산산조각 나게 한 다음 사람의 시체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걸었지만^[5],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느냐! 십자가는 결국 극악무도한 마왕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속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를 마귀에게 던졌다. 하나님은 일찍이 승리하였으며, 더 이상 인류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사탄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다. ‘오랜 문화유산’이니 소중한 ‘고대 문화의 지식’이니 ‘도가 학설, 유가 학설’이니 ‘공자의 경전, 봉건적 예교’니 하는 것들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현대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발달한 공업, 농업, 상업은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고대 ‘유인원’이 가져다준 봉건적 예교만을 강조하면서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며 오늘날까지 사람을 해쳐 왔다. 게다가 사람을 통째로 집어삼키려^[6]

[1] 범망 밖에서 노닐고자[逍遙法外]: 여기서는 마귀가 미쳐 날뛰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의미함.

[2] 엉망진창[狼藉遍地]: 여기서는 마귀의 행동이 난폭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음을 가리킴.

[3] 낱알이 드러났고[暴露無遺]: 여기서는 마왕의 몰골이 하나님에 의해 폭로된 것을 의미함.

[4] 진퇴유곡[焦頭爛額]: 마왕의 추악한 몰골을 비유함.

[5] 모든 것을 걸었지만[孤注一擲]: 마귀의 음흉하고 악랄한 술수를 비유함. 여기서는 풍자적으로 쓰였음.

[6] 집어삼키려[吞噬]: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은 마왕의 잔혹한 행위를 가리킴.

한다. 사람은 봉건적 예교의 가르침을 받고 고대 문화의 지식을 물려받아 크고 작은 마귀로 물들어 버린 지 오래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오심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독살스러운 기운이 잔뜩 올라와 있으며, 하나님을 육지에서 몰아내려 한다. 손에 칼을 쥔 채 진을 치고 하나님을 ‘말살’하려 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마귀의 땅에는 우상이 널려 있다. 온 땅의 상공에 종이를 태우고 향을 피우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여 숨 쉬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마치 독사가 뒹굴며 일으키는 썩은 흙냄새 같아서 구토를 유발한다. 또한, 머나먼 지옥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듯한 악귀의 ‘독경’ 소리는 사람을 몸서리치게 한다. 알록달록한 우상이 빼곡히 진열된 땅은 주지육림의 세상으로 전락했다. 마왕은 음모를 실현한 듯 섬뜩한 웃음을 멈추지 않는데,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마귀에 의해 파괴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는 것 역시 깨닫지 못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욕보이고 암살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허물고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마귀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인간 세상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추악한 몰골을 폭로하는 것을 마귀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망치는 것을 마귀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악에 반친 마귀가 하나님이 땅에서 그것의 정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어찌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겠느냐? 추악한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나니 울 수도 웃을 수도 없고, 언급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추한 영혼은 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 공모자^[1]들아! 그것들은 속세에 내려와 쾌락을 추구하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염량세태를 초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다. 사람을 농락하여 성결했던 본래의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고 사악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에 군림하고 세상을 호령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사람을 철옹성처럼 둘러싸 가둔다. 이렇게 많은 죄업을 쌓고, 화를 야기하고도 벌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나? 잡귀와 요괴가 세상에서 잠시 횡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혈을 물샷틈없이 차단했으니, 정말이지 극악무도하다. 이러할진대 어찌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이 크게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심히 가로막고 대적하니, 패역이 너무도 심하구나! 크고 작은 잡귀조차

[1] 공모자[幫凶]: 흉악한 일이나 나쁜 짓을 돕는 사람으로, 악당 패거리와 같은 부류임.

호가호위하며, 덩달아 풍파를 일으키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한다. 패역한 자식들아! 그것의 염라대왕이 현재 ‘왕’이라고 새겨진 보좌에 오르기라도 한 듯 여유만만해하며^[1]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구나. 진리를 찾고 정의를 따르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개돼지 같은 짐승들이 역겨운 파리 떼를 이끌고 거름 더미 속에서 의기양양해하며 못된 수작을 부리고^[2], 자신의 ‘염라대왕’이 가장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며 우쭐한다. 자신이 역겨운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개돼지 같은 아비 어미에게 기대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구나. 보잘것없는 파리가 자신의 아비 어미는 이빨고래^[3]만큼 크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보잘것없이 작고, 아비 어미는 자신보다 수억 배나 큰, 더러운 개돼지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지 못한 채 개돼지의 ‘썩은 냄새’를 믿고 곳곳에서 횡포를 일삼으며, 후대를 번성하겠다는 헛된 생각에 빠져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초록색 날개를 달고(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가리킴) 잘난 체하며, 여기저기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뽐낸다. 또 자신의 더러움을 슬그머니 사람에게 내던지고, 오색찬란한 날개로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었다는 듯 득의양양해하며 참하나님의 존재를 핍박한다(종교계의 실상을 가리킴). 파리가 날개는 아름답고 매혹적일지 몰라도 배 속은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고, 온몸은 독을 가진 균으로 들끓는, 작디작은 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파리는 개돼지 아비 어미에 기대어 횡포를 부리고, 미쳐 날뛰다(여기에서 횡포란 하나님을 핍박하는 종교계의 관계자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참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치 유대 바리새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 큰 붉은 용의 나라, 자신의 소굴로 되돌아와 또다시 핍박을 시작하고, 수천 년 동안 해 온 일을 이어 나가는 듯하구나. 이 인간쓰레기들은 결국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수천 년이 지난 후의 더러운 귀신은 더욱더 ‘교활하고 간사해진’ 듯하다. 속으로 늘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온갖 술수를 쓰며, 수천 년 전의 비극을 자신의 고국에서 ‘재연’하려 한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다 못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뻔했고, 당장이라도 셋째 하늘로 되돌아가 그것을 멸해 버리고 싶을 정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알며, 그가 혐오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여유만만해하며[悠閑自得]: 여기에서는 표정이나 태도가 오만하고 무례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함.

[2] 못된 수작을 부리고[興妖作怪]: 여기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곳곳에서 횡포를 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가리킴.

[3] 이빨고래[齒鯨]: 여기서는 작디작은 파리가 ‘개돼지’를 ‘고래’로 생각한 것을 풍자함.

이는 사람의 진입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의 진입이 빠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만족을 얻으며, 마왕을 꿰뚫어 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 하나님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

사역과 진입 8

하나님의 말세에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크나큰 상처를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죄악에 깊게 물들어 해를 입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 즉, 사람의 영을 일깨움으로써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 사람의 생명과 체험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는 차치하자. 사람의 마음이 일깨워질 때,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큰 붉은 용의 해악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본직 사역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날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기 시작할 때이다. 그때 하나님의 직분,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사역이 전부 끝나고, 사람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 그러니까 사람의 ‘직무’를 이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인식한 후에 너희가 진입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야만 더 잘 진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속량해 온 사람들, 여전히 흑암 세력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마귀가 군집한 땅에서 철저히 구원하고 천고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붉은 용을 완전히 뭉개 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시바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또한,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원한을 ‘남김없이’ 발산하게 하고, 곰팡이가 슬어 버린 독균(毒菌)을 깨끗이 없애며, 소나 말 같은 삶에서 벗어나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고, 더는 큰 붉은 용에게 마구 유린당하거나 함부로 부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더 이상 이 패망의 민족에도, 극악무도한 큰 붉은 용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더는 그것의 부림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의 ‘소굴’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부서져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 선 너희는 이 노예 왕국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어둠의 사회를 뼈에 사무치도록, 이가 갈리도록 증오했다. 당장이라도 이 극악무도한 옛 뱀을 두 발로 짓밟아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의 과거도, 그것이 다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역대로 쌓인 죄업의 대가를 하나하나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원흉^[1]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없애 버릴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불결의 땅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더럽고 도처에 참상이 난무해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횡포와 협잡을 일삼고, 사시이비^[2]한 언행과 악랄한 수법으로 이 마귀의 성을 무참히 짓밟아 시체가 즐비하고 썩은 내가 온 땅의 상공을 뒤덮게 했다. 게다가 경계가 삼엄^[3]하니 누가 바깥세상을 볼 수 있겠느냐? 마귀는 사람의 온몸을 꼼꼼히 묶고 두 눈을 가렸으며, 입을 단단히 막아 버렸다. 수천 년 동안 횡행한 이 마왕이 오늘날에도 마귀의 성을 이토록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 마치 난공불락의 ‘마귀 궁전’ 같다. 그리고 이 집 지키는 개들은 하나님이 그것의 빈틈을 노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면 ‘안락’의 땅을 잃을까 두려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귀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어디에서 누려 봤겠느냐? 인간 세상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지극히 은밀하게 성육신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어두운 사회에서 마귀는 잔인무도하다. 사람을 죽여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는 마왕이 어찌 사랑스럽고 선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강림을 손뼉 치며 반기겠느냐? 그 개만도 못한 노예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확대하고 극히 잔인하게 굴며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횡포와 약탈을 일삼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양심을 내다 버리고, 무고한 인류를 유혹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 고대의 계승자니, 경애하는 지도자니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세상을 농락해 어둠으로 밀어 넣었다! 무슨 종교 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지지하더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린 자 그 누구더냐? 조상 대대로 노예로 부림 받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노예로 부린다. 그러니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고의 원한이 마음에 맺히고, 만고의 죄악이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그러니 어찌 증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원한을 갚고,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없애 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계속 미쳐 날뛰고 제멋대로 발광해

[1] 원흉[罪魁禍首]: 본문에서는 ‘늑은 마귀’를 가리키며, 극도의 증오를 나타냄.

[2] 사시이비[捕風捉影]: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허무맹랑한 것을 근거로 삼음을 비유함. 본문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해치는 수단을 가리킴.

[3] 경계가 삼엄[戒備森嚴]: 여기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해칠 때 매우 악랄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꼼짝도 못 하게 통제하는 것을 가리킴.

보라고 해라! 이제 때가 왔다. 사람은 그 마귀의 추악한 몰골을 벗겨 버리기 위해 일찍이 온몸의 힘을 모아 준비하였고 모든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가를 치렀다. 속임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 떨쳐 일어나 이 악마를 저버리도록 말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물샷틈없이 가로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갖가지 수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와 합법적인 권익이 어디에 있느냐? 공평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따스함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간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강제로 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땅에서 마음대로 노닐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머리 둘 곳도 없게 쫓아가 죽이려는 것이냐? 인간 세상의 따스함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세상의 환영은 또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냐? 어두운 사회와 궁지에 몰린 집 지키는 개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고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골육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본 체도 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우정을 거절했다. 어찌하여 그리도 양심이 없는 것이냐?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 너희는 억울함을 계속 참겠단 말이냐? 어찌하여 가슴에 천고의 원한을 품지 않고 마왕의 ‘배설물’을 채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겠느냐? 누가 그것을 안 적이 있더냐? 짙은 미신 색채가 사람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겠느냐? 미개한 교육 수준은 경박하고 또 터무니없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얼굴을 맞대고 하나하나 말해 준다 한들, 떠먹여 준다 한들, 사람이 어찌 이해하겠느냐? 어떨 때는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애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토록 ‘유구한^[1] 고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식’이 뜻밖에도 이러한 폐물을 육성했다! 그따위가 무슨 고대 문화, 귀중한 유산이란 말이냐! 전부 쓸모없는 폐품들이다! 오래전부터 썩어 문드러져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그것들을 더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법을 가르쳤고, ‘차근차근 진행되는^[2] 국가의 교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거역하게

[1] 유구한[悠遠]: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됨.

[2] 차근차근 진행되는[循循善誘]: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됨.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상당히 힘들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때 단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을 난처하게 했다. 땅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발걸음은 너무나 험난하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미숙함, 무지함,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도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은 마치 ‘종이호랑이’ 같아서 감히 건드리지도, 언짢게 하지도 못한다. 가볍게 부딪치기만 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혹은 쓰러지고 길을 잃는다. 사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옛병이 도지거나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거나 혹은 ‘개돼지’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 그것들의 몸에 있는 오물을 즐기는 것 같다. 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거의 걸음마다 시험이며, 하나님은 거의 매번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며 사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곡하고 뜻깊으며 악의가 없지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더냐? 누가 완전히 복종하기를 원하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만 할 뿐이다. 사람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초조해하며,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있다.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늘 진퇴양난이고 밤낮으로 사람의 연약함과 패역, 미숙함, 유약함 등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는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더냐? 이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겠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늘 사람의 죄를 증오하고, 사람의 짓대 없음과 유약함을 미워하지만, 또 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사람의 앞으로의 길을 생각한다. 또한, 사람의 언행을 보며 긍휼이 가득 하지만 또 분노로 가득 차기도 하고, 늘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 무감각해졌는데 굳이 그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약한 사람들은 이미 의지력이 없는데 굳이 그들에게 분노를 쏟을 이유가 있겠느냐?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굳이 그들의 패역을 훈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협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사람은 결국 연약한 존재이니 어쩔 수 없이 분노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사람이 천천히 반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는 극도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늙은 마왕’에게 짓밟혔으면서도 조금도 지각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누가 진지하게 대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초조해하거나 갈급해 하지 않으며, ‘늙은 마귀’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음부와 지옥에서 살면서 ‘바닷속 궁전’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고, ‘큰 붉은 용’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은총^[1]’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귀’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육체의 뛰어난 ‘기에’

[1] 은총(恩寵): 여기에서는 목석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풍자함.

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불결하고 천박한 머저리들! 비참한 불행을 맞닥뜨리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어두운 사회에서는 언제나 화불단행^[1]임에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를 후대하는 것과 노예의 성품은 언제쯤 벗어던질 것이냐?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냐? 이러한 압박과 고난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겠느냐? 설마 언젠가는 흑암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왜곡된 정의와 진리를 되찾아 오고 싶지 않단 말이냐? 진리를 저버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겠느냐? 억울함을 기꺼이 참아 넘기겠느냐? 기꺼이 노예가 되겠느냐? 기꺼이 망국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하겠느냐? 너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기개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존엄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진정 너의 일생을 ‘큰 붉은 용’이라는 마왕을 위해 기꺼이 간뇌도지^[2]할 것이냐? 너는 진정 너의 이번 생을 그것에게 시달리다 마감할 것이냐? 깊은 물은 혼돈하고 어두우며, 백성은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어느 누가 빛을 볼 날이 있겠느냐? 미약하기만 한 사람이 어찌 이 잔인한 폭군 마귀와 겨룰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하루빨리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냐?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압제를 받게 되면 결국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텐데 굳이 총총히 왔다가 총총히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하여 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남겨 하나님께 바치지 않느냐? 천고의 원한을 모두 잊은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고, 혹은 싫어하지도 흥미를 느끼지도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사실이 그릇된 이치가 되지는 않는 법이니, 누구도 사실에 어긋난 것을 말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이번에 성육신한 이유가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즉, 그가 아직 완성하지 않은 사역을 끝내고, 이 시대의 막을 내리고 심판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고해의 세계에서 구해 내어 철저히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유대 여정’은 끝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친히 인간 세상에 강림했다. 큰 붉은 용의 나라에 조용히 임한 것이다. 사실, 유대 국가의 종교계는 오래전부터 예수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 놓았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예수’가 아버지의 두 번째 명을 받고 못다 한 제2단계의 사역을 하기 위해 벌써 인간 세상에 돌아왔음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주목할 때, 그는 오히려 사람들이 당황스럽도록 완전히 시대가

[1] 화불단행(禍不單行): 본문에서는 큰 붉은 용의 땅에 태어나 빛을 볼 날이 없음을 가리킴.

[2] 간뇌도지(肝腦塗地):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됨.

바뀌어 버린 다른 세상에 강생했다.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사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의 차림새와 전체적인 면모 또한 환골탈태라 할 수 있을 만큼 변했다. 그러니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의 몸에는 어떤 흉터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예수에게 여호와의 형상이 조금도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의 예수에게서는 이미 당시의 ‘풍채’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의심 많은 ‘도마’는 그가 부활한 예수가 아닐 거라고 늘 의심하며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의혹’에 휩싸여 착실히 그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역을 하러 왔다는 것을 불쌍한 ‘도마’가 어찌 알겠느냐? 어째서 반드시 ‘못 자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못 자국’이 예수의 표식이기라도 하단 말이냐? 그가 사역을 하러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인데, 어째서 수천 년 전 유대인의 꾸밈새와 차림새를 하고 와야 하단 말이냐? 육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라도 하단 말이냐? 그것은 누가 ‘정해 놓은 논리’냐? 하나님의 사역이 어째서 반드시 사람의 상상에 부합해야 하단 말이냐?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효과만을 중시하며,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어떤 규율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밝히 알겠느냐? 사람의 관념과 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일을 크게 만들지도, 호들갑을 떨지도 말고 착실하게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결국 형벌에 처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명렬전모^[1]’였던 네가 형벌에 처해지는 자들과 같은 행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자기 껍데기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 너의 좁은 식견으로 정말 영원에서 영원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겠느냐? 너의 얽박한 체험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전부 꿰뚫을 수 있겠느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그가 하는 사역이 어찌 네 예상 범주 안에 있겠느냐?

[1] 명렬전모(名列前茅): 본문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풍자함.

사역과 진입 9

유구한 ‘민족 전통’과 ‘정신적 품모’는 너무 일찍 사람의 순결하고 어린 마음과 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인성’이라곤 전혀 없이 무자비하게 사람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마귀들의 수법은 극도로 잔인하다. 마치 ‘교육’이나 ‘육성’이 마왕의 ‘전통적인’ 살인 수법이 된 듯, 마귀는 ‘깊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영혼을 완전히 숨긴 채, 양의 가족을 쓰고 사람을 속여 신임을 얻어 낸 후, 사람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전부 삼키려고 꾀한다. 불쌍한 인류가 어찌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 마귀의 땅이며, 자신을 키워 준 자가 자신을 해친 원수인 줄 알겠느냐? 그럼에도 사람은 전혀 각성하지 못한 채,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신 뒤 ‘키워 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 한다.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 아직도 자신을 키워 준 ‘국왕’이 바로 원수임을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땅에는 죽은 자의 유골이 깔려 있고, 마귀는 기뻐 날뛰며 ‘저승’에서 계속 사람의 육체를 삼키고 있다. 사람의 시체를 자신과 함께 순장시키려고 마지막에 남은 만신창이가 된 일부 사람들까지 다 삼키려고 망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마귀를 원수로 대하기는커녕 도리어 성심성의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타락한 민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와서 모든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겠느냐? 이미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뜯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생지옥에 내려와 하늘 끝까지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궁상맞은 인간 세상을 원망한 적 없고, 사람의 패역을 질타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크나큰 치욕을 참으면서 자신이 친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찌 지옥에 속할 수 있겠느냐? 어찌 지옥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는 전 인류를 위해서, 인류 전체가 하루빨리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치욕과 억울함을 참고 땅에 내려와 친히 ‘지옥’과 ‘음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나? 무슨 이유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나?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하나님을 마주한단 말이나? 하늘의 하나님은 가장 더럽고 음란한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사람의 박해^[1]와 억압을 감내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반항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으며,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한 마디 없이 가르침, 깨우침, 책망, 말씀의

[1] 박해[摧殘]: 여기서는 사람의 패역을 폭로함.

연단, 일깨움, 권면, 위로, 심판, 폭로 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을 할 뿐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비록 사람의 앞날과 운명을 거두어 갔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서 사람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의 생존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이 고난과 칠혹처럼 어두운 흑암 세력의 압제에서 사람을 구해 내려고 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불처럼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기대로 얻은 것은 뜻밖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냉혹하고 무정한 눈동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의 훈계와 욕설, 그리고 냉소와 조롱, 비방과 폄하, 사람의 비웃음, 유린과 저버림, 사람의 오해와 원망, 소외와 회피, 기만과 공격, 쓰디쓴 결과뿐이었다. 따뜻한 말솜은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1]’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전반측하며 아버지와의 이별보다 천배나 더한 고통을 참아 내고, 사람의 공격과 ‘깨뜨림’, ‘훈계’와 ‘책망’을 참아 내야 했다. 하나님이 ‘낮추고 감춘’ 대가로 얻은 것은 사람의 차별^[2], 불공평한 시선과 대우였다. 하나님의 묵묵한 인내와 포용으로 얻은 것은 인정사정없이 하나님을 밟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스러운 시선이였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보기 드물게 똑똑해져’, 사람 눈에 만만해 보이고 사람들이 깔보는 하나님을 만인의 발아래 깔아뭉개고는 마치 ‘왕 노릇을 하려는’ 듯, ‘대권을 독차지하여^[3]’ ‘수렴청정’하려는 듯 스스로를 높이 추켜올리고, 하나님에게는 고분고분 순순히 ‘무대 뒤의 감독’ 역할을 맡겨 반항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마지막 황제’처럼 분장시켜 자유라곤 전혀 없는 ‘꼭두각시^[4]’ 역할을 맡게 했다. 사람의 작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 또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1] ‘차디찬 시선과 손가락질’,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원래 문장은 ‘사나운 눈초리로 못사람들의 질타에 맞서고[橫眉冷對千夫指], 머리 숙여 기꺼이 어린아이의 소가 되다[俯首甘爲孺子牛]’라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음. 앞 구절은 사람의 ‘행위’를, 뒷 구절은 하나님이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을 가리킴.

[2] 차별[歧視]: 본문에서는 사람의 패역 행위를 가리킴.

[3] 대권을 독차지하여[獨攬大權]: 사람의 패역 행위, 즉 자신을 추켜올리는 한편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고통받도록 통제하는 행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한 표현. 원뜻은 큰 권력을 혼자 틀어쥐고 있음을 의미함.

[4] 꼭두각시[傀儡]: 본문에서는 이 어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롱함.

‘건의’를 한단 말이나?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더냐? 계속되는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더냐?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하였고,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하나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가슴 가득 기쁨을 안고 인간 세상에 와서 사람이 그에게 아주 작은 온정이라도 베풀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도록 사람의 위로를 얻지 못했고, 돌아온 것이라고는 설상가상¹⁾ 식의 공격과 괴롭힘뿐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탐욕스럽고, 사람의 욕망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얻으면 둘을 갖고 싶어 하고, 무리한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약간의 자유도, 일말의 발언권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울분을 참으면서 묵묵히 사람의 조종을 받아야 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고,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늦추지 않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금의 관용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를 ‘가르치고’, ‘질책하고’, ‘혼낼’ 뿐이다. 마치 하나님이 길을 잘못 들까 봐, 하나님이 땅에서 막무가내로 굴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할까 봐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항상 이런 식이니, 하나님이 상심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하나님은 ‘성육신’한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고통과 치욕을 감내했는데, 사람의 가르침까지 받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인간 세상에 와서 마치 음부에 갇힌 것처럼 일말의 자유도 없고, 또 아무 반항 못 한 채 사람의 ‘해부’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예수’에게는 정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굴욕이며, 이 풍진세상에 임하여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매우 평범한 육신을 취한 것은 더더욱 큰 치욕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고통받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인류를 위한 일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생각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그는 유대 족속에게 버림받고, 죽음 당하고,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늘과 땅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수천 년 전의 비극이 또다시 유대 족속과 비슷한 족속 가운데서 재연되고 있으니, 사람은 다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무슨 밀천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단 말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사람이 아니더냐? 어째서 사람은 항상 정의를 향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것이냐? 어째서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하는 일에

[1] 설상가상(雪上加霜): 본문에서는 이 어휘로 사람의 비열한 행위를 더 두드러지게 함.

관심이 없는 것이냐? 사람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공평함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대변한단 말이냐? 사람의 ‘정의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얼마나 있느냐? 사람은 모두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1], 언제나 흑백을 가리지 못하며^[2], 정의와 진리를 갈아뭇개고 불공평과 불의를 높이 들어 올리며, 밝은 빛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서 환락을 좇는다. 진리와 정의를 찾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빛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발로 하나님을 짓밟고 자기 자신을 높이 추켜올린다. 사람은 모두 비적^[3] 같으니 무슨 이성이 있단 말이냐?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누가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겠느냐? 전부 흉악무도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고, 미친 듯한 환호성을 멈추지 않았으니, 모두가 닭이나 개 같은 부류다. 무리를 지어 독립 왕국을 세우고, 곳곳에서 바람 잘 날 없이 일을 만들며, 무턱대고 미친 듯이 짓어 대고 있다. 닭도 울고 개도 짖으니,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시끌벅적’하다. ‘부화뇌동^[4]’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튀어나와서는 자기 조상들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 떠받들고 있다. 닭이나 개와 같은 자들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은 모두 개와 닭 같아 한 마리가 짖으면 백 마리가 따라 짖는다^[5]”라고 말씀한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처럼 ‘기세 드높이’ 오늘날까지 해 왔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지, 정의가 있기는 한지, 하나님이 발붙일 곳은 있는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과 더러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전혀 그렇게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며, 모든 이익과 보물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던져 주는 것은 그저 잔배냉적^[6]뿐이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인류냐! 사람은 인정사정없이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몰래 훔쳐 먹고는 하나님을 뒤에 내버려 둔 채 그의 존재를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짓밟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1]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明珠暗投]: 본문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탄적인 것으로 비하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가리킴.

[2] 흑백을 가리지 못하며[黑白混淆]: 진리와 허상, 정의와 추악함이 섞여 있는 것을 가리킴.

[3] 비적[土匪]: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식견이 없음을 가리킴.

[4] 부화뇌동[吠影吠聲]: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추고 시류를 좇는 자를 가리킴.

[5] 한 마리가 짖으면 백 마리가 따라 짖는다[一犬吠形，百犬吠聲]: 부화뇌동[吠影吠聲]과 같은 뜻.

[6] 잔배냉적[殘羹冷炙]: 먹다 남은 음식. 하나님을 억압하는 사람의 행위를 가리킴.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한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떠받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도 거들먹거리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불의’를 ‘심판’한다. 입으로 ‘하 나 님 께 죄스럽다’고 말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께 ‘관용’을 보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억압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물품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준 음식을 입으로 씹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통째로 삼키려는 듯 냉혹하고 무정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주시한다. 진리를 보고도 ‘사탄의 간계’라고 우기고, ‘정의’를 보고는 그것을 ‘자기희생’으로 둔갑시킨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어여함’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사람의 타고난 자질’을 보고는 ‘진리’라고 우긴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는 “오만 방자하다”, “거만을 떨며 잘난 척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을 보고는 굳이 그에게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로 끌어다가 사탄의 더러움에 물들어 버린 ‘피조물 자리’에 앉히려 든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면서 기어이 ‘사람의 글’이라고 말하고, ‘영이 육신 된’ ‘성육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기어이 ‘사탄의 후예’라고 우기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춘 것’을 알면서도 “사탄이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 폐물들아! ‘집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짐짓 흑백을 전도하다니. 사람의 세력과 포위 공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빛을 볼 날이 허용되겠느냐?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음으로 밀어 넣으며 얼굴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니, 의로움이 어디에 있단 말이나? 사랑은 또 어디에 있단 말이나? 하나님의 곁에 앉아 하나님을 자신의 무릎 아래에 두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게 하고, 자신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게 하며, 자신의 모든 지시를 따르게 하고, 자신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노발대발^[1]하며 울화통을 터뜨린다. 이렇듯 흑백이 뒤집어진 흑암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이 비통해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근심하지 않을 리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번 사역을 펼치는 것이 천지개벽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느냐? 사람의 행위는 참으로 ‘풍부하다’.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적셔 보양하고’, 사람의 그 ‘생수의 근원’은 또 거리낌 없이^[2] 하나님과 ‘겨루면서’ 양립하지 못한다. 게다가 서슴지 않고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 또한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그것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밥 취급하며

[1] 노발대발[怒髮衝冠]: 격분하여 제정신이 아닌 추태를 가리킴.

[2] 거리낌 없이[毫不顧忌]: 여기서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가리킴.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외진 곳에 치워 놓고는, 누가 주목할까 봐 심히 걱정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사람을 황홀한 경지로 이끌고 사람을 얻을까 봐 겁낸다. 그래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사들을 겪은 후 다시 하나님과 아귀다툼을 벌이기 시작한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비판 투쟁’ 대상으로 본다. 마치 하나님이 눈엍가시라도 되는 듯, 어떻게든 불 속에 집어넣어 캄그리 사라질 때까지 단련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복절도하며 기뻐 날뛰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연단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불결한 불순물들을 몽땅 태워 없애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치에 들어맞는 것이고 ‘하늘’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이런 폭력적이고 비열한 행위는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추악한 몰골뿐만 아니라 추악하고 더러운 영혼도 드러내며, 불쌍한 거지의 모습까지도 나타낸다. 곳곳에서 횡포를 부린 뒤에는 가련한 모습을 하고 하늘의 용서를 구하며, 극도로 불쌍한 아침꾼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언제나 방심한 틈을 타서 허를 찌르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임기응변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도 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맞설 뿐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한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이 보는 눈이 없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힌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몰래 악랄한 수단을 쓰고,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며, 눈을 부릅뜬 채 호시탐탐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적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뿌연 안개를 걷어 내고 사실을 밝혀 자신을 ‘호랑이 아가리’에서 구해 주고 원통함을 풀어 주기를 바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역대에 수많은 사람이 맡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자기 자신이 맡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어찌 자신의 행함이 이미 오래전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고, 자신의 깨달음이 진작 바닷속에 잠겨 버렸다는 것을 알겠느냐?

누가 진리를 받아들인 적이 있더냐? 누가 하나님의 강림을 기쁘게 맞이하였더냐? 누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즐겁게 바랐더냐? 사람의 행위는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하나님의 전을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럽혀 놓고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고칠 수도 없게 된 듯하다. 그래서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신의 ‘언행이 또다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봉헌하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지만, 사람은 또 어째서 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뒷전으로 한 채 사심 없이 자신의 ‘심혈’을 봉헌하는 것이냐? 사람의 공평무사한 봉헌 정신은 귀하기 이를 데 없지만 사람이 어찌 자신이 토해 낸 ‘실’이 하나님의 어떠한 대신했을 수 없음을 알겠느냐? 사람의 호의는 물론 귀하고 얻기 힘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1]’을 삼킬 수 있겠느냐? 너희 모두는 스스로의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무정한 형벌과 저주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위엄 있는 말씀과 공의로운 심판이 항상 사람과 ‘친밀하게 붙어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연단하는 것이겠느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연단 속에서 진입한 것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정녕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진입에서 어떤 공과를 배웠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당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며, 사람의 진입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하기만을 바란다.

사역과 진입 10

인류는 지금까지의 발전을 통해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진입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사역 또한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룩했고, 현재 인류의 진입은 사람이 상상조차 못 했던 경지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함에 따라 사람의 ‘진입’^[2] 역시 최고 경지에 다다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류나 우주 만물에 항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극한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을 억압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으니 공의가 나타날 때도 되었다. 그러니 어둠이 계속 대지를 덮고, 흑암이 계속 만민을 덮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인류의 불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찰하면서 참을 만큼 참아 왔다. 그러나 오래전에 벌써 무감각해진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행사를 살폈더냐? 누가 눈을 들어 먼 곳을 보았더냐? 누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더냐? 누가 전능자의 손안에 있었더냐? 인류는 모두 초목개병^[3]이다. 초목과

[1]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無價之寶]: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리킴.

[2] 사람의 ‘진입’: 여기에서 ‘진입’이란 올바른 생명의 진입이 아닌 사람의 패역을 가리킴. 즉, 사람의 부정적인 행실과 작태를 가리키며,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함.

[3] 초목개병(草木皆兵): 놀라서 당황할 때,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뜻. 본문에서는 사람의 비정상적인 인성 생활을 풍자하며, 귀신과 함께 사는 인류의 추한 삶을 가리킴.

지푸라기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오로지 성욕신한 하나님을 무참하게 괴롭혀 죽일 줄밖에 모르는 것들을 말이다. 인류는 이미 초목과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가장 뛰어난 재주^[1]’는 있다. 바로 하나님을 무참하게 괴롭혀 죽인 뒤 ‘속이 후련하다’며 쾌재를 부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쓸모없고 무력한 졸병들이다! 끝없이 이어진 인파 속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에게 ‘반하여’ 물샷틈없이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으며, 조급한 나머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2] 하나님을 포위하여 움짱달짝 못 하게 만든 사람들은 손에 별의별 무기를 움켜쥐고 마치 원수라도 보듯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찢어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어째서 사람은 하나님과 철천지원수가 되었는지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설마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과 원수라도 졌단 말이나? 설마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전부 사람에게 무익하기라도 하단 말이나? 사람에게 상처라도 줬단 말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포위망을 뚫고 셋째 하늘로 돌아가 사람을 다시 저승으로 던져 넣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경계하고, 안절부절못하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땅에 엎드려 기면서 손에 든 ‘기관총’으로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을 조준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하나님의 온몸과 몸에 걸친 것까지 전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일망타진’할 생각인 듯하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러 눈을 감은 채 어물쩍 넘어가며, 나의 존재를 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나의 ‘심판’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경계를 늦춘 틈을 타서 조용히 떠나가 더는 사람과 높고 낮음을 ‘겨루지’ 않는다. 인류는 가장 비천한 ‘동물’에 속하니, 나는 더 이상 인류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오래전에 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몸 누이는 곳으로 거둬들였다. 인류가 이처럼 거역하는데, 나의 귀한 은혜를 더 누릴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나는 나를 적대시하는 세력에게 나의 은혜를 헛되이 베풀어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가나안 땅의 부지런한 농부들에게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겠다. 다만 하늘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사람이 늙지 않고 하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더더욱 바란다. 늘 푸른 ‘송백’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영원히 하늘과 함께하면서 다 같이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기 바란다.

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사람과 함께 보냈고, 같은 시기에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았지만, 사람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늘 사람을 이끌어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을

[1] 탁월한 재주[一技之長]: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사용.

[2]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火上澆油]: 본문에서는 사람의 추태를 풍자하는 의도로 사용됨.

인도하며, 항상 인류의 운명을 위해 일을 마련할 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누가 깨달았더냐? 누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갔더냐? 나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사람의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사람은 너무 ‘구식적’이고,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차려 놓은 잔칫상에서 허겁지겁 먹을 줄만 알 뿐, 그 외의 일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며’,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인류는 너무 인색하며, 인간 세상은 너무 소란스럽고 처량하며 위험하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날에 승리로 거둔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과 함께 누리고 싶지 않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낸 복이나 누리라고 해라.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인류에게 억지 미소를 강요하겠느냐? 세상 구석구석을 봐도 온기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산천 여기저기를 봐도 봄기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 사람은 전부 물속에 있는 물체처럼 따스함이라곤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 같고, 심지어 몸에 흐르는 피까지도 쫄쫄 언 얼음처럼 ‘가슴 시리게’ 하니, 온기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무사태평이었고, 그 누구도 후회한 적 없었다. 잔인한 폭군은 두 번째로 인자를 ‘생포^[1]’하여 형장에서 총살함으로써 마음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데, 이렇듯 위험한 땅에 내가 남아 있어 본들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나? 내가 남아 있어 봤자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건 전쟁과 총검, 끝없는 후환뿐이다. 내가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은 싸움일 뿐 화평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마지막 날은 틀림없이 전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인류의 종착지는 반드시 총검이 난무한 전쟁 속에서 무너질 것이다. 나는 이 전쟁의 ‘즐거움’을 사람과 ‘함께 즐길’ 마음이 없다. 나는 사람의 옆에서 피 흘리는 희생을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미 사람에게 버림받아 ‘풀이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인류의 전쟁을 지켜볼 마음이 없으니, 사람끼리 마음껏 싸우게 내버려 두고, 나는 편히 쉬면서 편히 자겠다. 마귀더러 인류의 마지막 날을 함께하라고 해라!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사람은 모두 나를 환영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기다린 적 없으니, 나 또한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수밖에 없다. 인류의 종착지를 인류에게 주고, 내 모든 풍부함을 인간 세상에 남겨 두며, 내 생명을 인간 세상에 쏟아붓고, 내 생명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 사람에게 영원한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 또한 내 모든 사랑을 인류에게 남기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내 모든 것을 전부 사람에게 베풀어 우리의 그리움과 사랑의 선물로 삼겠다.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소중한 선물로 삼았으면 한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인류에게

[1] 생포[生擒活捉]: 산 채로 잡는 것. 본문에서는 사람의 포악하고 비열한 행위, 즉 하나님에게 잔인무도하게 굴고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요구만 하는 것을 가리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또 무슨 원망을 한단 말이나? 나는 이미 생명의 전부를 사람에게 남겨 줬고, 인류를 위해 묵묵히 ‘사랑의 아름다운 땅’을 가꾸고 있으며, 한 번도 사람에게 그 어떤 합리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언제나 인류의 안배에 순종하고, 늘 인류에게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극히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진입은 몹시 빈약하다.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업’을 보면,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사람의 진입은 얼마 되지도 않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빈궁하고 눈먼 사람이 ‘고대의 무기’를 손에 들고 현대의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고, 직립보행도 못 하는 ‘원시 유인원’은 알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도 수치심조차 모르고 있으니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한단 말이나! 사족 보행하는 ‘유인원’들은 두 눈이 시뻘게져서는 고대 석기를 들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원시인 격투 시합’,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시인과 하나님 간 최후의 날 격투 시합’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반쯤 직립보행이 가능한 오래된 원시인들은 더욱 득의양양해하며 솜털이 촘촘한 얼굴에 살의를 띤 채 앞다리를 치켜들고 있다. 아직 완벽한 현대인의 모습으로 진화하지 못했기에 두 발로 섰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는데, 얼굴에 이슬처럼 잔뜩 맺힌 땀방울이 그들의 절박한 심리를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경기 링 위에서 사족 보행하고 있는 완전한 오래된 원시인, 즉 그들의 동료가 굶고 굶픈 사지로 공격을 막아 낼 힘도 없는 것을 보고는 더욱 초조해져서 안절부절못하며 뺨을 긁적거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링 위의 ‘영웅’은 어느새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사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오랜 세월 네 다리로 땅을 딛고 다니던 잘못된 자세가 순식간에 바로잡혀 더는 반항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이때부터 ‘가장 오래된 유인원’은 지상에서 자취를 감췄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래된 유인원’이 이렇게 순식간에 가 버리다니, 어째서 이렇게 빨리 이 아름다운 인간 세상을 떠난단 말이나? 왜 동료들과 다음 ‘계책’을 상의하지 않았단 말이나? 하나님과 겨루는 비책을 남기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다니 아쉽기 짝이 없구나! 그렇게 늙은 유인원이 자손들에게 ‘고대의 문화 예술’을 물려주지도 못한 채 그대로 조용히 가 버리다니,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불러다 애뜻한 정을 나누지도 못한 채, 돌판에 유언을 새기지도 못한 채, 하늘해(원문: 天日)를 분별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고충을 말하지도 못한 채, 사경을 헤매는 시체 곁으로 자손들을 불러 “링에 올라 하나님과 겨루지 마라”라는 말을 남기지도 못한 채 두 눈을 감았다. 굳어 버린 사지는 곧게 뻗은 나무줄기처럼 영원히 ‘숯아’ 있었다. 마치 원한을 품고 죽은 것처럼.... 순간, 링 아래에서 박장대소가 터지고, 반쯤 직립보행하던 ‘원시인’은 단단히 화가 나서 손에 영양(羚羊)이나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때 쓰던, 오래된 원시인의 무기보다

발전한 ‘석창’을 들고 분노하며 성큼성큼 링 위로 올라오는데, 마치 승산^[1]이라도 있는 듯했다. 마치 무슨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석창’의 ‘위세’를 빌려 겨우 ‘3분’ 동안 직립 자세를 유지했다. 확실히 세 번째 ‘다리’가 ‘위력’이 크긴 크나 보다! 그렇게 크고 둔하고 굵튼 반 직립 원시인을 3분이나 지탱해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어쩐지 ‘늙은 원시인’이 위풍당당^[2]하고 오만 방자하다 했다. 고대 석기는 칼자루, 칼날, 칼끝까지 구전한 것이 과연 ‘명불허전’이다. 옥에 티라면 칼날에 광택이 전혀 없어 너무 아쉽다는 것이다. 링 위에 선 고대의 ‘작은 영웅’은 경멸의 눈빛으로 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다른 이들은 전부 무능한 아랫사람이고, 자신은 영웅호걸이라도 된 듯 속으로 링 아래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법인데, 어째서 너희는 물러서 있느냐?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보면서도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단 말이나? 눈앞에 국난이 닥쳤는데 어째서 너희는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가 즐거워진 다음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나라가 패망하고 민족이 몰락하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겠단 말이나? 정녕 망국의 치욕을 감내하겠단 말이나? 이 쓰레기들아!’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링 아래에서는 시끌벅적했다. 그것의 두 눈은 마치 불이라도 뿜을 듯^[3] 시뻘썩었다. 마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자멸시키지 못해 한스러워하고, 통쾌하게 하나님을 죽이지 못해 한스러워하는 듯하다. 그것이 자신의 ‘석기’가 아무리 명불허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몇 번의 공격도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가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에 바로 휘청이더니, 두 눈은 벌써 ‘떨어’ 버렸다. ‘조상’ 쪽으로 나가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오래된 원시인’을 꼭 끌어안고 울음소리조차 못 내고 패배를 인정했고 더 이상 반항할 엄두도 못 낸다. 불쌍한 ‘유인원’ 둘은 쌍으로 링 아래에서 죽어 버렸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사람의 선조’가 공의로운 해가 나타난 날에 어이없게 죽다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큰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다니, 수천 년을 기다려 온 ‘원시인’들은 뜻밖에도 복을 얻는 날에 그 복을 음부로 가져가 마왕과 ‘함께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 어리석도다! 왜 그 복을 이승에서 ‘아들딸’과 함께 누리지 않은 것이냐? 참으로 고생을 자초하는구나! 너무나도 무가치하도다. 고작 그따위 지위와 명예, 허영을 위해 ‘죽음의 화’

[1] 승산[胸有成竹]: 본문에서는 풍자적으로 사용되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실제 분량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

[2] 위풍당당[威風凜凜]: 본문에서는 풍자의 의미로 쓰임.

[3] 뿜을 듯[迸發]: 본문에서는 하나님에게 ‘패배한’ 사람이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추태를 가리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정도를 의미함.

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남보다 한발 앞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의 자식이 되다니, 참으로 불필요한 대가였다. 이렇듯 ‘민족적 기개가 넘치는’ ‘조상’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여’ 스스로를 지옥에 단단히 가두고 ‘무능한 후배들’을 지옥문 밖으로 밀어내다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이런 ‘민족의 대표’를 또 어디에서 찾겠느냐? ‘자손들의 안녕’과 ‘후손들의 태평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고, ‘민족의 대업’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했으며, 일언반구도 없이 음부로 들어갔다. 이런 민족적 기개를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죽음도, 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일은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면서 전쟁터에서 온몸을 던져 싸웠으나 그것의 ‘헌신 정신’으로 얻은 것은 그저 ‘천고의 한’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의 고통이니 안타까울 뿐이구나!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은 왜 항상 사람에게 버림받고 비방당하는 것이냐?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때를 잘못 맞춰 오기라도 한 것이냐? 하나님이 장소를 잘못 고르기라도 한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허락 없이 스스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냐? 솔직히 따지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온 것은 본래 아무 잘못이 없거늘 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냐?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귀뿔을 해 주었다. 아마 사람들이 잊었을 수도 있다! 하긴 사람을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천하의 일조차 잘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영계의 일은 어떻겠느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사람의 ‘오래된 원시인 조상’을 링 위에서 죽게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과 땅은 서로를 용납할 수 없으니 돌로 된 유인원의 머리가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환갑이 넘은’ ‘늙은이’가 하나님이 나타난 날에 죽음을 맞이했으니 정말 궁상맞기 그지없구나. 이렇게 큰 복이 임했거늘 ‘복도 없이’ 떠났으니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담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은 각 교파와 교단을 뒤흔들었고, 종교계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하나님의 나타남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누구인들 양모하지 않겠느냐? 누구인들 하나님 뵙기를 고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온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 모두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지난날 하나님은 사람과 만남의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나눴고, 이제 또다시 인류와 만나 옛정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에서 떠나간 이후로 줄곧 종무소식이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회할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다 오늘날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2천 년 전의 오늘, 유대인의 자손인 바요나 시몬은 구주 예수를 만나 음식을 나누고 오랜 세월 그를 따르면서 깊은 우정을 나눴으며,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슴 깊이 사랑했다. 어둡고 차가운 말구유에 강생한 노란 머리의 갓난아이가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었음을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자신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지, 그를 특별하게 여긴 이는 아무도 없었다.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예수’를 사람이 어찌 알아볼 수 있었겠느냐?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당시 유대인의 아들로 여겼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언제나 그를 향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고, 오로지 그가 백만장자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 또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반항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만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고, 일관되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묵묵히 사람에게 따스함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으며, 나아가 새로운 실행을 알려 줌으로써 사람을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 주었다. 사람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그를 부러워하고, 그의 ‘출중한 재능’을 높이 살 뿐이었다.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가 얼마나 큰 굴욕을 참음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눈먼 인류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고충을 헤아려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리아가 그의 ‘생모’라고는 하나, 인자한 주 예수의 마음의 소리를 그녀가 어찌 이해했겠느냐? ‘인자’가 참아내야 했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누가 알아주었더냐?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서 얻어 낸 뒤에는 냉정하게 그를 뇌리에서 지워 버리고, 또한 문전 박대 했다. 그는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아다녀야 했다.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수많은 나날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길고도 짧은 고난의 33년 인생을 보낸 것이다. 사람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집으로 초대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 내고자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고, 그의 ‘공헌’을 받은 후에는 즉각 그를 문밖으로 밀어냈다.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공급받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가 베풀어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를 대적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누가 베풀어 주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여전히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람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고, 그가 해 주는 밥으로 배를 채우며, 그가 개척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를 저버리려 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자신과 같은 부류의 노예를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고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유다가 그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더냐?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선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더냐? 예수가 하늘에 속한 비범한 분이라는 걸 정말로 보았더라면 사람이 그를 산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숨이 끊길 때까지 24시간 동안이나 매달아 놓았겠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냐? 사람은 끝을 모르고 탐욕스럽게 하나님을 누릴 줄이나 알지, 한 번도 그를 안 적이 없다. 하나님을 얻으면 돌을 원하면서 ‘예수’가 자신의 지시와 부름에 완전히 복종하기만을 원했다. 머리 돌 곳도 없는 ‘인자’에게 일말의 온정을 베풀 이가 있었더냐? 그와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자가 있었더냐? 그를 생각해 준 자가 있었더냐? 그의 고충을 헤아려 준 자가 있었더냐?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를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밀치고 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광명과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인간 세상의 고난을 체험한 2천 년 전의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꿈꿨지만 가지고 있다. 설마 ‘예수’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란 말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사람은 벌써 다 잊었던 말이나? 수천 년 전부터 쌓인 원한을 끝내 쏟아 내려고 하는구나. 유대인 같은 자들아! ‘예수’가 언제 너희에게 적의가 있었느냐? 어찌하여 그리도 그를 증오한단 말이나? 그가 한 수많은 일과 수많은 말씀들이 설마 다 너희에게 무익하기라도 하단 말이나?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산 채로 그를 삼키려 드느냐? 그는 너희에게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쳤고, 세상의 영화, 인간 세상의 따스함, 사랑과 모든 복과 즐거움은 한 번도 누려 보지 못했다. 그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야박했다. 그는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려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을 전부 너희에게 바쳤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바쳤다. 그런 그에게 누가 온정을 베풀었더냐? 누가 위안을 주었더냐? 사람은 모든 압력을 그에게 가했고, 모든 불행을 그에게 주었으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체험을 그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모든 불의를 그에게 덮어씌웠으나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가 누군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더냐? 보답을 요구한 적이 있더냐? 누가 그를 체휼했었느냐? 정상적인 사람치고 낭만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자가 있느냐? 오색찬란한 청춘을 가져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가족의 온정을 느껴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친구와 친척들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다른 이의 존중을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따뜻한 가정이 없는 자가 있느냐? 절친한 벗의 위로를 받아 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가 어찌 누려 봤겠느냐? 누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을 주었더냐? 누가 그에게 일말의 위안이라도 주었더냐? 누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인성의 도덕을 베풀었더냐? 누가 그에게 관용을 보였더냐? 누가 그와

고난의 날들을 함께 했더냐? 누가 그와 인생의 힘든 삶을 함께 했더냐? 사람은 한 번도 그에 대한 요구를 느슨하게 한 적이 없으며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서 받아 내려 요구했을 뿐이다. 마치 그가 인간 세상에 온 이상, 반드시 사람의 마소 역할을 해야 하고, 단상 아래 선 죄인이 되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대로 포기하지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높이 평가하지도 않을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엄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들어야 요구를 느슨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요구치를 낮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오를 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비극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입에 침이 마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해부하고 잔인하게 괴롭혀 죽음으로 몰아가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법’이 아니더냐? ‘유대인’은 어디에나 다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육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육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에서 비롯되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겠느냐?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인간 세상에 진리가 어디에 있더냐? 진정한 공의는 또 어디에 있더냐?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버린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어찌 빛이 인간 세상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을 용인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공명정대한 봉헌 정신이 아니더냐? 사람의 정정당당한 진입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사람의 진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사역과 진입을 결합시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다하며, 모든 성의를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영광을 받음으로 끝날 것이다!

사역 이상 1

요한은 예수를 위해 7년 동안 사역을 했고, 예수가 왔을 때는 이미 길을 닦아 놓은 상태였다. 그 전에는 곳곳에서 요한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 전역에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불렀다. 당시 헤롯왕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감히 죽이지 못했다. 백성들 가운데서 명망이 높은 그를 죽였다가

백성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요한이 백성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의 기반이 다져지자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믿고 따랐다. 요한은 예수가 직분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를 위해 7년이나 길을 닦았으므로 가장 큰 선지자 중 하나인 것이다. 예수는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야 정식으로 사역하기 시작했다. 요한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길을 닦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 성육신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까지의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성육신한 하나님을 위해 길을 닦았고, 그렇게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선지자가 되었다. 요한은 예수가 세례를 받기 7년 전부터 천국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한 사역이 훗날 예수가 행한 사역보다 더 크다고 여겼지만, 어쨌든 그는 선지자에 불과했다.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의 마을에서 사역하고 말을 했다. 이는 당연히 유대 백성, 특히 가난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행한 것이다. 그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그저 유대 평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해 적합한 사람과 사역할 장소를 예비할 뿐이었다. 그렇게 길을 닦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펼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친히 나서서 사람이나 사역할 장소를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적합한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 예비했다. 예수가 사역을 하기 전에 요한은 이미 그 사역을 끝내 놓았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역하러 와서 곧바로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정돈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직분을 이행하러 온 것이며, 그 외의 일은 그와 전혀 관계가 없다. 요한은 성전과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 예수가 사역할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 요한이 사역한 7년간,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 7년간 그가 행한 이적은 별로 많지 않다. 그의 사역은 길을 닦는 것으로,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사역과 예수가 해야 할 사역은 그와 전혀 무관했다. 요한은 단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이전에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개척하긴 했지만, 그는 단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자, 준비 사역을 행하는 선지자에 불과했다. 요한은 결코 예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었다. 예수는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요한이 예비해 놓은 길을 이어 갔지만, 예수의 사역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으며, 그가 행한 사역은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컸다. 예수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예비할 리는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표하여 사역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역한 기간이 얼마나 되든 요한은 선지자일 뿐이었고, 길을 닦는 자에 불과했다. 예수가 3년 동안 행한 사역은 요한이

행한 7년의 사역을 뛰어넘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사역의 본질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가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때였다. 그때, 요한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과 장소는 예수가 쓰기에 충분했으며, 예수가 3년간의 사역을 행하는 데도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마치자 예수는 곧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이 했던 말은 모두 폐해졌다. 요한이 행한 사역은 단지 과도기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한 말은 잠시만 쓸모 있는 것이었지, 사람이 더 새롭게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도 초자연적인 사역이 아니며, 과정이 있었다. 모든 것은 사물의 정상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 예수는 마지막 반년에 이르자 자신이 정말 그 사역을 행하러 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 직분을 이행한 기간은 3년 반이었고, 정식으로 사역한 것은 2년 반이었다. 처음 1년은 사탄의 참소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험도 있었다. 예수는 사역을 해 나가면서 많은 시험을 이겨 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최후의 반년이 다가오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다. 그제야 그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신분이 공개되었다. 그 후에 예수는 자신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며, 자신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온 구세주임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는 마지막 반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행하려는 사역을 공개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때였고, 그렇게 해야 할 사역이었다. 예수가 당시에 사역할 때, 일부 사역은 구약 성경이나 여호와와 율법시대 말씀,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통해 일부 사역을 행하였다. 당시 그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으며, 그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훈계하였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패역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가 행한 것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의 수많은 사역은 성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예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말은 물론, 심지어는 성경 속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단지 속량하기 위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말씀을 하여 사람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으며, 그가 행하는 사역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할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도, 인류를 정복하기 위한 사역도 아니라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는 그저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인류에게 말씀의 원천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이방의 사역, 즉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였다. 비록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사역했으며, 옛 선지자의 예언으로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역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성경 속 옛 선지자의 예언을 바탕으로 사역한다면,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구약에는 너희 중국인들의 패역과 죄업은 물론, 너희의 그 죄악의 역사(歷史)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 속에서 맴돈다면, 너희는 영원히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인들의 유한한 역사(歷史)로는 너희가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심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말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歷史)에 따라 너희를 심판한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번 단계의 사역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정복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더 하여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경 구약의 사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에 불과했다. 그는 그것으로 한 시대를 개척하고, 한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겠느냐?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이 실행한 율법이나 그들이 지켰던 계명과 다른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이다. 완전케 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실제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그는 규례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행하고 더 융통성 있게 행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때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말했듯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며, 율법을 바꾸기 위해 온 것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사역은 완전히 지금 상황에 맞춰 행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했던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니더냐?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계명에만 국한되지 않는,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명과 율법이지, 그것들을 폐한 것이 아니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너희는 당시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남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죽은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는 것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하는 동안, 비록 이전의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너희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높아졌다. 폐해였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전의 계명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사람의 어떠함이 되었다. 예를 들어, 금주와 금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과 너희의 분량, 그리고 지금 행하는 사역에 근거하여 다시 새로운 계명을 정하는 것이다. 새 시대의 계명을 반포하는 것은 옛 시대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초로 더 높이 끌어올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국한되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한다면, 심지어 여호와가 정한 율법을 외우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는 몇 가지 계명을 지키거나 수많은 율법을 외운다고 해도 너희의 옛 성품은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어 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간단한 몇 가지 계명이나 수많은 율법은 너희가 여호와의 행사를 깨닫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외우기만 해도 여호와의 행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호와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몇 가지 계명들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바치게 하거나 너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음부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는 정복 사역은 오로지 너희의 패역과 옛 성품만을 겨냥한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예수의 타이르는 말씀은 오늘날의 이 엄한 심판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엄한 말씀이 없다면 수천 년 동안 거역해 온 너희, ‘전문가들’을 정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서 효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 심판의 위력은 당시 율법의 위력을 훨씬 뛰어넘었다. 너희에게는 간단한 율법의 제약보다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 너희는 시초의 인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파괴된 인류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오늘날 사람의 실제 상태와 자질, 그리고 실제 분량에 근거한 것으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너희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관념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해 보아라. 계명이 규례더냐?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정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너희에게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금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규례더냐? 규례가 아니다! 그것은 정상 인성에 따라 요구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규례가 아니며, 전 인류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 정한 십여 개의 계명도 규례가 아니라 정상 인성이 있으려면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 사람들이 갖추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에 규례에 속하지 않는다. 율법이 규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규례란

의식과 형식 또는 사람의 그릇된 실행법을 말한다. 또한 사람에게 무익한 각종 규정이고 사람에게 유익함도 의미도 없는 방법이다. 그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규례이다. 그런 규례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사역 이상 2

은혜시대에 전한 것은 회개의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만 말할 뿐,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케케묵은 말이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 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당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사역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예수가 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가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고 몇 년 후, 마태가 그를 족보에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의적인 많은 사역을 했다. 그때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 반면, 이 단계의 정복 사역은 반드시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사역하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수가 이전에 행한 사역이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비밀을 모두 열어 모든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말세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고, 사역을 끝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네가 여호와와 율법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6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가 6천 년 경륜의 모든 의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알게 할 것이며, 그가 한 수많은 말씀의 의도, 나아가 성경에 대한 네 맹목적인 숭배까지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다 깨닫고 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왜 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났겠느냐? 그 단계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말씀도 끝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사역 또한 모두 끝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만 끝나는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다르다. 예수는 그 단계의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않았고 밝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예수의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떠났다. 그 단계 사역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으로,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달랐다. 이 단계 사역은 주로 마무리를 하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말씀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낼 수 없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으면서도 옳다고 여기고,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사역을 철저히 끝내고 마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한다. 사람 내면의 관념과 속셈, 잘못된 이해 방법, 여호와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등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단계의 사역은 끝난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천 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의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파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파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유대인이 왜 대적하고 거역했겠느냐? 바리새인은 또 왜

대적했겠느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느냐?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에도 사람은 왜 그를 믿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패역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지 중국인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다. 또한 정복한 후에는 본보기와 표본으로 세워 참고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어째서 늘 너희를 가리켜 내 경륜의 부속물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패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패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쳐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우주의 사역이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를 본보기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패역이면 패역, 대적이면 대적, 더러움이면 더러움, 불의면 불의가 다 있으며, 이들의 패역은 온 인류의 패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정복의 모델로 삼는 것이다. 물론 정복한 후에는 표본과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인은 가장 성결하고 패괴된 정도가 가장 얇은 인류였기에 그 지역에서 천지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인류의 조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역의 발원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그들은 가장 성결했고, 모두 여호와를 경배했으므로 그들에게 사역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경에는 두 시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인에게 한 말씀과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가 유대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이름은 왜 거기에 없겠느냐? 그것은 처음 두 부분 사역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인은 선민에 속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며, 패괴된 정도가 가장 얇은 인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으며, 제사장 옷을 입거나 제사장 화관을 쓰고서 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한 대상이었다. 그들은 온 인류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하며, 성결한 자와 의인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한다. 욥, 아브라함, 롯 또는 베드로, 디모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인으로, 가장 성결한 표본이자 본보기이다.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나라이며, 그곳에서 배출된 의인 역시 가장 많다. 그들에게 사역한 이유는 이후에 온 땅에서 인류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행적’과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행한 의로움을 기록하여 은혜시대에 이스라엘인 이외 사람들의 표본과 본보기로 삼았고, 그들이 행한 것으로 수천 년의 사역을 오늘날까지 유지했다.

창세 이후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사역의 발원지이자 근거지가 되었다. 예수는 온 유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는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동안 유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사역을 중국으로 옮겨 왔지만, 이 범위 안에서만 행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결코 사역을 따로 시작하지 않는다. 중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후에 할 사역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수가 행했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예수가 구속 사역을 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잇는 사역을 한다. 구속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번 단계에는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역은 이전 사역과 다르며, 중국은 더더욱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구속 사역을 하자 사람은 모두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과 영국, 러시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중국은 왜 그렇지 않겠느냐?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다. 이 마지막 사역을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이유는 사역을 끝내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여호와를 주라고 부른다. 지난날 그들은 여호와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모두 주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호와의 영은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거나 음성을 발하였고, 구름 기둥과 음성으로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영이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사람을 인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구름과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기에 오직 이스라엘인만이 여호와를 계속 경배해 온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어쨌든 여호와와 그들 가운데서 근 4천 년 가까이 사역했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인간 말종들은 이제서야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복음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봉건적이고 반동적인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자신들의 조상인 부처를 등지는 대역무도한 인간 말종이라고 여긴다. 더욱이 많은 봉건적인 자들은 ‘중국인이 어떻게 서양인의 신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조상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잊었으며, 창조주라는 말은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더 믿었다. 즉, 대자연은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인류가 누리는 맛 좋은 음식은 모두 대자연이 준 것이며, 사람의 생사존망에는 모두 법칙이 있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과학이 인류를 주재할 수 있겠느냐? 무신론 정부가 집권하는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우며 저항도 극심하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 않더냐?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여호와의 사역과 대조해 보고는 결국 맞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왜 맞지 않는다고 여겼겠느냐? 하나는 예수가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그에게 ‘죽보’를 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죽보를 써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누가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마태가 몇십 년 일찍 그를 위해 죽보를 써 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안 그렇겠느냐? 사람이 죽보를 보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핍박할 수 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죽보가 너무 늦게 써졌다.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성경에는 두 단계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다. 즉, 하나는 여호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사역이다. 대예언가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예언해 두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성경에 ‘말세 사역’이라는 부분을 추가해 두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랬다면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를 참으로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사야와 다니엘이 말세의 사역을 전부 예언해 두지 않은 것이 한스럽고, 신약의 그 사도들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죽보를 미리 나열해 두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애석하구나! 너희가 곳곳에서 근거를 찾고 ‘말들의 파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맞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난처하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히 역사한단 말이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어찌하겠느냐? 변함없이 따를 수도 없고 의심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영악한 자들’이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뒤따른다. 어렵구나! 지난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예언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쉽지 않았겠느냐? 당시 요한이 하나님나라 삶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본 것은 이상(異象)이었을 뿐,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실한 사역이 아니었다. 애석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잘 사역하던 하나님께서 왜 중국으로 왔는지, 왜 굳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사역하면서 지내야 하는지도 통 영문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지도 않고 게다가 갑자기 형벌과 심판을 내리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으로 성육신했을 때, 사람에게 모든 실상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만, 설마 그것을 잊은 것이겠느냐? 왜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이겠느냐? 지금 성경이 66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말세 사역을 모두 예언한 책이 한 권 더 있었다면, 사람은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 이사야와 다윗마저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때와 지금은 4천여 년이란 거리가 있다. 예수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아주 조금만 언급했을 뿐, 완전하게 예언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 네가 이전의 사역을 오늘날로 가져와 대조한다면 어찌 맞출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그 단계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오늘날로 가져와 봐야 서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맞출 방법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네 자질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이 다 부족한데, 네가 그들과 대조가 되겠느냐?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며, 이전의 율법시대, 은혜시대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어쨌든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정해진 틀에 맞춘다고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는 예수의 그 시절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느냐? 설마 그가 그런 시절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서른 살이 되었겠느냐? 너는 아는 것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 함부로 의견을 말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이로울 게 없다! 성경에는 예수가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또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행한 3년 반 동안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그 시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 그는 사역을 하지 않은 정상인이었을 뿐이다. 예수가 서른세 살까지 살았는데 청년 시절과 유년 시절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단번에 서른세 살 반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은 다 상상을 초월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물론 성육신한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지니지만, 직접 사역할 때는 불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은 오늘날의 사역과 심지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까지 의심의 태도를 취한다. 두 차례의 성육신 사역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다. 물론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그 차이는 클 것이다. 네가 어떻게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정상 인성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파악은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하고 있다. 마태가 기록해 두지 않았더라면, 너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 생애의 ‘행적’을 알려 주고,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삶의 실상을 알려 주기라도 한다면, 너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연약하실 리 없고, 정상 인성이란 것은 더더욱 없으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거나 심지어는 고함도 지를 것이다. 너는 예수를 모르기에 나에 대해 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너는 예수가 너무 신비로워 전혀 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그 누구도 사실과 어긋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나의 말은 추측도 예측도 아니며, 실상을 마주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더욱이 지극히 낮은 곳에도 은밀히 거할 수 있다. 그는 네가 머릿속에서 그려 낸 분도 아니고, 누군가가 구상해 낸 개인의 하나님도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사역 이상 3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려는 사역과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와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사역을 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를 위해 사역했다. 구약 율법시대의 종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예수라 불렸으며,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니 사람이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적용하는 것은 규례에 얽매이고 낡은 것을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말세가 이미 도래했음은 너희도 알 것이다. 설마 예수가 다시 온다면 여전히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지난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왔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자신이 다시 올 것이며, 갔던 그대로 올 것이라고 했다. 예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예수가 어떻게 갔는지 보았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해서 설마 다시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예수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 있을 텐데, 그를 계속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로만 불려야 한단 말이나?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새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이냐? 한 ‘사람’의 형상과 특정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가 된단 말이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고 새 이름으로 불린다. 시대가 다른데 어찌 같은 사역을 행하겠느냐? 그가 어찌 낡은 것을 지키겠느냐? ‘예수’란 구속 사역을 위해 취한 이름인데, 말세에 재림해서도 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느냐? 또다시 구속 사역을 하겠느냐?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인데도 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겠느냐? 사역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시대를 바꾸고,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한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며, 시대성을 띤 하나님의 성품만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만 대변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적합한 이름 하나를 택해 한 시대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 여호와의 시대든 예수의 시대든 모두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했다. 은혜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으며, 예수는 이미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어찌 또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가 어찌 또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너는 예수가 단지 나사렛 사람의 모습일 뿐임을 잊었느냐? 너는 ‘예수’가 인류의 구속주일 뿐임을 잊었느냐? 그가 어떻게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말세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떠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가 어찌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또다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그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온다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리 있겠느냐? 세상의 그 누가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오직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말인즉,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영원히 바뀔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예수는 자신이 갔던 그대로 온다고 했다. 너는 그 말의 진의를 아느냐? 그가 너희에게 알려 주기라도 했단 말이나? 너는 단지 그가 흰 구름을 타고 갔던 그대로 온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안다면 “말세에 인자가 올 때는 인자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하늘의 사자들도 모르며 모든 사람 또한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영만 아시느니라”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인자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알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는 당시에 어떻게 말했느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였다. 그날이 와도 인자조차 알지 못한다. 인자라 함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인자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예수는 떠난 그대로 올 것이지만 올 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미리 알려 주겠느냐? 그가 오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황당한 소리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올 때마다 이름은 물론, 성별과 형상, 그리고 사역도 바꾼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므로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왔을 때 예수라고 불렀다 해서 이번에도 그대로 예수라고 불리겠느냐? 이전에 왔을 때는 남성이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남성이겠느냐? 이전에 은혜시대의 십자가 사역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사람을 속량하여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겠느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렇다면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영원불변함을 뜻한다. 그의 이름과 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이 사실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다. 너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의 6천 년 경륜이 끝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하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의 사역이 영원불변하다면, 그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가 영원불변하다면 왜 두 시대의 사역을 했겠느냐?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그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다 그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었기에 사람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자신의 성품을 조금씩 나타냈다. 그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시대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성품도 끊임없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역하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전부 단계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 그를 알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특정한 성품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의 성품 역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특정 성품, 즉 자신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나타낼 때,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내지, 한 시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다’는 말은 그의 사역을 두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는 말은 그의 고유한 소유와 어떠함을 두고 한 것이다. 어찌 됐든 너는 6천 년 사역을 어느 한곳에 고정해 두거나 케케묵은 말에 묶어 놓아서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의 사역은 한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사역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일 뿐 사탄이 될 수 없으며, 사탄은 영원히 사탄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공의, 그리고 위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영원불변하지만,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심화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역을 하며, 피조물에게 그의 새로운 뜻과 성품을 보여 준다. 사람이 새 시대에 새로운 성품의 발현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놓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느냐? 가령 성육신한 하나님이 단지 남자라면, 사람은 그를 남자로 규정하고 남자의 하나님으로 대하지, 결코 여자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성별이니, 하나님은 남자들의 머리라고 여길 것이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불공평한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모두 자신과 같은 남자뿐일 테고, 여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세에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하여 더 많은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때의 공훈과 자비가 아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는 이상, 그 사역에는 새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만약 영의 역사라면 성육신하지 않고 영이 직접 천둥소리로 말할 테니, 사람은 그를 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영의 역사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육신을 통해 그의 모든 성품을 발현해야만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형체를 지니고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람이 그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접하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접해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자 여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역을 완성하게 되고, 성육신의 모든 사역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같은 사역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지금이 말세인 만큼, 그는 말세의 사역을 하고, 말세에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려고 한다. 말세라 함은 또 다른 시대를 말한다. 예수는 “그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재앙을 겪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온역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것은 낡은 은혜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임을 말한다.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존재이고, 그의 성품은 영원히 공훈과 자비이며,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누구든 다 구원하고 또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역에 끝이 있겠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가 이미 은혜시대를 끝냈는데, 말세에 또 다시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는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에 온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때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다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시대를 끝낼 수 있겠느냐?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며, 온갖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말세가 되었으니 만물은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눌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의 패역과 불의는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결말은 오직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통해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별악하며, 그리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한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파괴되었고 사람의 패역은 너무나 심해서, 오직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악을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은 모두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성품을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은 모든 새 시대의 사역을 위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는 말세에도 여전히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 없이 사랑하기만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죄를 사해 주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영은 언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성품으로 언제 사람들을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기만 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 사랑해 주고, 그 누구든 아껴 주고 감싸 준다면, 공정한 판결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말세에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인류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을 더 새로운 경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의 공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전체 경영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은 매우 분명하다.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이고, 말세는 말세이듯,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말세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불사름과 심판, 형벌, 진노, 그리고 파멸로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킨다. 마지막이라면 시대를 끝내는 것 아니겠느냐? 시대를 끝내려면 반드시 형벌과 심판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예수는 사람이 계속 생존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잘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계속 타락하여 음부나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음부, 지옥에서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말세가 도래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멸절하고 인류를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인류의 패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는 시대를 끝낼 수 없고, 6천 년 경륜을 완성할 수도 없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에는 시대마다 그 자신이 나타내는 진정한 성품이 있고, 그의 이름과 사역 모두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사역을 했고, 땅에서 첫 단계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땅에서 하나님이 사역할 근거지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그 근거지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점차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밖으로 사역을 확장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한 첫 성지이다.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은 이스라엘 전역이었고, 그것은 율법시대에 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바로 은혜와 자비, 긍휼, 포용, 인내, 겸손, 사랑 그리고 관용이었다. 그가 와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이유는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였다. 그는 자신의 긍휼과 자비에 따라 반드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으며, 그것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인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했고, 그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과 함께했다.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해야만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지극히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다시 말해, 은혜시대의 사역은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불렸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을 행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의 사역은 끝이 났다. 이것이 예수가 한 모든 사역이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했으며, 말세에는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정복하고 얻으며, 마지막에는 시대를 끝낸다. 각 시대와 각 단계의 사역에서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처음에 구약 율법시대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과 비슷했다. 최초의 인류는 여호와가 처음 만든 인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가 인류,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땅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관(器官)은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가 직접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를 직접 알 수 없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무엇을 바쳐야 그를 경외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람은 여호와가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피조물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인류를 아무도 이끌지 않고, 직접 인도해 주지도 않는다면, 인류는 영원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인류,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많은 총명과 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땅에서 생활했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인류를 창조하는 여호와의 사역은 전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반만 완성되었다. 여호와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 사람에게 그를 경외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지는 주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과 보편적인 법칙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7일간의 일을 완성했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껍데기만 있었을 뿐, 사람으로서의 실체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어떻게 그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므로 인류가 생겨났음에도 여호와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다. 여호와는 또 인류를 그의 앞으로 철저히 인도하여 땅에서 무리 지어 살면서 그를 경외하게 하고, 그가 인도한 후에도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즉, 여호와의

창세 사역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인류를 창조한 이상, 그들을 인도하여 땅에서 수천 년을 살게 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해야 했다. 또한,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으로 그들의 모든 활동을 하게 해야 했다. 그렇게 되어야 여호와와 사역이 모두 끝나는 것이었다. 그는 인류를 창조한 후 바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야곱 시기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구성되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여호와가 땅에서 정식으로 인도하는 인류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역사하는 특정 장소가 되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에서 정식으로 역사하는 첫 무리로 정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사역의 발원지로 삼아 더 큰 사역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그에게서 난 땅의 사람이 모두 어떻게 그를 경외하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것은 이방의 족속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한 것은 이방의 족속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 되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율법과 계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여호와와 도를 경외해야 하는지도 가장 먼저 알았고, 또한 여호와와 도를 알게 된 인류의 조상이자 여호와께 선택받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다. 은혜시대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악으로 타락하자 그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책망의 말씀이 뒤따르고, 사람을 죄에서 철저히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말세에는 사람이 지금의 이 지경까지 타락했으므로 심판과 형벌로 이 단계의 사역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시대의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려는 사역, 그리고 서로 다른 형상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고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은 그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의 각 시대 사역을 대표한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는 사역이 모두 똑같고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로 불려야 하며 여호와로 불리는 존재만이 하나님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식할 것이다. 혹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으며, 예수 외에는 여호와나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예수라고 불려야 해.’라고 생각한다. 너의 이런 생각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떤 범위 내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행한 사역과 불린 이름, 그리고 그가 지닌 형상과 그가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지금까지 어떤 규례도 따르지 않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이지만 예수이기도 하고 메시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의 사역이

단계적으로 바뀔에 따라 그의 이름도 변하지만, 어떤 이름도 그를 완전하게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불린 이름은 모두 그를 대표할 수 있고, 각 시대에 그가 행한 사역은 모두 그의 성품을 대변한다. 말세가 도래했는데도 네가 본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이고, 또한 예수의 모습으로 흰 구름을 타고 와서는 “너희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되 제 목숨을 아끼듯이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인내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예수가 이전에 했던 말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은혜시대의 사역이 아니겠느냐? 전하는 것도 여전히 은혜시대의 도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그것은 예수가 행한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누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지금 이 수준에 그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그의 능력은 그게 전부라 새 사역도 없고 능력도 다다랐다고 느낄 것이다. 2천 년 전에도 은혜시대였고, 2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혜시대의 도를 전하면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건가? 전에는 정말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아실 뿐, 다른 건 하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은혜시대에 국한하고,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여길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풀이되겠느냐?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며,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너희의 상상이나 전해 들은 풍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늘날에는 바리새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아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 너희밖에 없다. 그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은혜시대에 각처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한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였고, 바리새인과 접촉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위해서였다. 그가 바리새인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권세를 잡은 자들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가 어찌 정죄당할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배반당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예전에 바리새인과 접촉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였으며, 오늘날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시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단계의 성육신 사역과 의의가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른데, 행하는 사역이 어찌 완전히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지닌 예수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해 전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만 불러야 하고 더 이상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야말로 모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많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그중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전부를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만, 이 많은 이름조차도 그의 모든 성품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을 개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는 그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대함, 존귀함, 기묘함, 측량할 수 없음, 지고지상함, 거룩함, 공의로움, 그리고 지혜로움 등 몇 안 되는 한정된 어휘로 개괄할 뿐이다. 참 많기도 하구나! 한정된 이 몇 개의 어휘로는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람이 본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조차 묘사해 낼 수 없다.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다!’와 같이 마음속의 걱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지어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이와 같은 언어 표현은 절정에 이르렀지만, 사람은 아직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주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또 어떤 이름도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단어 하나와 특정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고정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것처럼 위대하고 거룩한데, 너는 그가 시대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친히 사역할 때, 시대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사역을 개괄하고, 시대적 의의를 지닌 특정한 이름으로 그의 해당 시대의 성품을 대변한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인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했거나 하나님을 직접 본 많은 사람은 특정한 이름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듯하지만 모순도 심한 것 같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을 개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누군가 나에게 “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알려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름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개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따지고 드느냐? 이름 하나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굳이 머리를 싸매 가며 궁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도, 예수로도, 메시아로도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로 ‘창조주’이다.

그때가 되면, 그가 땅에서 불렀던 이름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가 땅에서 하는 사역이 끝나면서 그의 이름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물이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왔는데, 그가 아주 적합하기는 해도 완전하지 않은 이름으로 불릴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지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오직 예수로 불러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다. 단지 사역을 하고 인류를 경영해야 했으므로 한두 개, 혹은 더 많은 이름을 취했을 뿐이다.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택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인 네가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수용 능력과 인류의 언어에 따라 불리지만, 사람이 이 이름을 개괄할 수는 없다. 너는 단지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참으로 지혜롭고 너무나 위대하시며, 더할 나위 없이 기묘하고 신비롭고 전능하십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더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다. 네가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다. 그러한데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세가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역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그의 이름도 바뀌어야 한다.

전 우주 위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인데, 육신 하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육신의 형상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천이나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계가 없다. 당시에 예수가 왜 그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그려 영원히 전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왜 사람들에게 예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의 특정한 육신에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의 영이 육신에 임한 후 육신에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영이 육신에서 발현하는 것이며, 영이 육신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오롯이 영을 대표한다. 육신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만 육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형상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과 의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성육신하는 목적은 단지 영이 역사하기에 적합한 거처를 찾아 육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사람이 그의 행사를 보고 그의 성품을 깨달으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묘한 사역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성품을 대표하고 그의 사역은 그의 신분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모습이 그의 형상을 대표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사람의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의 핵심은 바로 그의 이름과 사역, 성품, 그리고 그의 성별에 있으며, 이로써 그 시대의 경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성육신한 모습은 단지 그 당시의 사역을 위한 것일 뿐 그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성육신한 하나님에게는 특정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에, 그는 적합한 가정을 택하여 그의 모습을 결정한 것이다. 모습에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면, 그와 비슷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예수의 초상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배하려고 그렸다. 당시에 성령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 초상화를 오늘날까지 전해 온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원뜻에 따른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람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초상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사람은 영원히 그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개괄할 수 없다. 그저 그의 성품으로 그의 형상을 대신할 뿐이다. 그의 코와 입, 눈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어떠한지, 너는 이러한 것들을 개괄할 수 없다. 지난날 요한은 계시를 받아 인자의 형상을 보고서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점이 나오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느니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그가 묘사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피조물의 형상이 아니다. 그가 본 것은 물질세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이상(異象)에 불과하다. 요한이 이상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은 피조물의 형상에 속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표할 수 없다. 여호와와 인류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다. 이렇듯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네가 인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개괄해 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크며,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기묘하여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는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고 성령이 행하려는 대로 사역했지, 구약 율법시대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에 따라 사역하지는 않았다. 예수가 와서 한 사역은 여호와와 율법을 따른 것도, 여호와가 정한 계명을 따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근원은 하나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을 대변한 것이자 은혜시대를 대변한 것이었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여호와를 대변한 것이자 율법시대를 대변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한 분의 영이 서로 다른 두 시대에 행한 사역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하고,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도 인도했다. 신약의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시대를 이끈 것이었다. 만약 네가 예수는 여호와와의 사역을 바탕으로 사역했을 뿐,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지 않고 완전히 여호와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으며, 또한 여호와가 행한 사역과 이사야가 말한 예언에 따라 사역했다고 말한다면, 예수는 성육신이 아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면, 그는 율법시대의 사도나 일꾼에 불과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없고 다른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이는 성령은 반드시 여호와를 위주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호와가 아니라면 성령이 더 새로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예수는 여호와와의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사역을 했다고 여긴다면, 예수는 성육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선지자이나? 이런 논리대로라면 은혜시대는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를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은 구약 율법시대만 대변할 뿐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가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전개해야만,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한 사역에 따라 하지 않고, 여호와와 닮은 규례대로 하지 않으며, 어떤 규례에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와서 스스로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지만, 사람은 시대를 여는 사역도 시대를 끝내는 사역도 행할 수 없다. 예수가 와서 여호와와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수는 와서 여호와와의 사역을 끝냈고 여호와와의 사역을 이었으며, 그 자신의 더 새로운 사역을 전개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임을 증명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한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 단계 사역을 했다.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안에서 했고 다른 한 단계의 사역은 성전 밖에서 했다. 또한 한 단계의 사역에서는 율법으로 사람의 생활을 인도했고 다른 단계의 사역에서는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 전혀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이 곧 구시대와 신시대의 구분이며, 틀림없는 두 시대이다! 그들이 사역한 장소와 내용, 그리고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은 곧 신시대와 구시대를 가리킨다. 예수가 와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성전 안에서의 여호와 사역이 이미 끝나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하게 되면 되풀이되는 것이다. 오직 성전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절정에 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성전에서 나오지 않고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히 성전의 바탕으로 머물러 새로운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도 않았고, 성전 밖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인도하며 자유롭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의미했다. 그는 성전 밖의 사역을 하고자 했으며, 성전 밖의 더 새로운 사역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그는 오자마자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을 끝냈다. 비록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는 한 분의 영이 두 단계의 사역을 행한 것이며,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진 것이었다. 이름과 사역의 내용이 다르기에 시대 역시 다르다. 여호와가 오면 여호와의 시대이고, 예수가 오면 예수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한 번 오게 되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그 단계의 새로운 길이 하나의 이름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함을 의미한다. 역사(歷史)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끊임없이 발전한다. 6천 년 경륜을 끝내려면 반드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원뿐만 아니라 더 새로운 사역과 더 큰 사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낡은 것을 지킨 적이 없고 규례도 지키지 않지만, 그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뿐더러 시시각각 행하고 있다. 너는 성령이 행하는 사역이 영원불변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호와와는 왜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그를 섬기라고 했겠느냐? 예수가 왔을 때, 사람은 그를 대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다윗 집안의 사람이나 대제사장, 대군왕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성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 아니더냐?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다시 와야 하고 말세에도 여전히 예수라고 불러야 한다. 또한 흰 구름을 타고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임해야 한다. 그러면 사역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이 낡은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관념이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의 표면적 의미와 사람의 상상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성령 역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그렇게 어리석거나 멍청할 리도 없다. 그의 사역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너희가 흰 구름을 타고 와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그를 보고, 그의 손에 난 못 자국까지 확인한 후에 그가 바로 예수임을 알아볼 것이다. 또 그는 다시 너희를 구원하여 능력이 매우 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고 흰 돌을 하나씩 준 다음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며, 천국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사역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념을 깨면서 사역하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모두 사탄에게서 온 것 아니냐? 사람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행한다면 사탄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과 같은 부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피조물은 이미 사탄에 의해 이 지경까지 파괴되어 모두 사탄의 화신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의 방식에 따라 행한다면 사탄과 한패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대로 행하지도, 너의 상상대로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흰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한 것은 그가 친히 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인 것은 맞지만, 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성령이 너에게 깨우쳐 주고 빛을 비취 준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설마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직접 지시했다는 말이나? 성령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네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냐? 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념과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가 한 말일지라도 네가 그 말을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느냐? 네가 감히 그의 말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의 말도 감히 해석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느냐? 예수가 높으냐, 아니면 이사야가 높으냐? 예수가 높다면, 왜 그가 한 그 말씀들을 모두 해석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너에게 미리 알려 줄 리 있겠느냐? 피조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늘의 사자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는데,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이 단계의 사역까지 세 단계 사역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의 완전한 경영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시대를 펼치는 분이자 시대를 끝내는 분이다. 3단계 사역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에 틀림없다. 3단계 사역을 따로 갈라놓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금 너는 첫 단계부터 지금까지 행한 사역이 의심할 바 없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경에 관하여 1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하겠느냐?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이다. 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느냐? 이후에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을 확장하려면,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에 대한 인식을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역을 확장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낡은 종교 관념과 믿음법을 해결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탄복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세월 사람이 전통적으로 믿어 온 방식(세계 3대 종교 중 기독교의 믿음법)은 성경을 보는 것이었다. 성경을 떠나면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떠나면 사이비이자 이단이라는 것이다. 다른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성경 해석이 밑바탕이 된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책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다. 성경이 생긴 후,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 버렸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보다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기 시작했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게 되어 버렸다. 이처럼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게 되었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이는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게 보며,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보기도 한다. 성령 역사가 없거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책이 사라지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 문구가 없어진다면 생명이라도 잃는 줄 안다. 그래서 사람은 주를 믿으면서부터 성경을 보고 외우기 시작한다. 성경을 잘 외울수록 주를 사랑하고 믿음이 크다는 것을 더 잘 증명할 수 있으며,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한 형제자매라고 한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근거로 주에 대한 충성심이나 믿음을 가늠해 왔다. 많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덮어놓고 성경 구절을 풀이할 수 있는 단서만 찾고 있다. 사람은 단 한번도 성령 역사의 동향을 좇은 적이 없다. 그저 고생스럽게 성경만 연구하고 조사할 뿐, 성경 밖에서 성령의 더 새로운 역사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성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감히 성경을 떠나지 못한다.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데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견해에는 수많은 이견이 있었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2천 개가 넘는 교파가 형성되었다. 사람은 모두 성경에서 명인들의 해석이나 더 심오한 비밀들을 찾아내려 하고, 성경을 탐구하려 한다.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의 배경이나 예수가 유대에서 했던 사역의 배경, 혹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내려 한다.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은 ‘탐닉’과 ‘믿음’ 뿐이고, 성경의 실상과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까지도 사람은 성경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을 느끼며, 성경에 더욱더 ‘탐닉’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진다. 지금, 사람은 성경에서 말세 사역의 예언을 찾고자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하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성경을 숭배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경의 예언, 특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사람이 성경을 이처럼 맹신하고 신뢰하게 되면, 성령 역사를 찾으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사람의 의식 속에는 다음과 같은 관념이 존재한다. ‘오직 성경만이 성령 역사를 이끌 수 있고,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발걸음을 찾을 수 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사역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일체 모든 사역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른 책이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하늘의 사역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시대를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있다.’ 사람에게 이런 관념이 생기자 성령 역사를 찾는 일은 무의미해졌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난날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로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발걸음은 모두 성경에 ‘통제’되었고, 최신 사역을 확장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져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성경의 유명한 장절과 문구, 그리고 수많은 예언으로 초래된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의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 머릿속의 ‘불가사의’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따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람이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에서 성경을 떠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믿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 생각하기도 어렵고,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이 더 새로운 사역을 확장하는 데에 난관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면, 너희는 복음을 순조롭게 전할 수 없고, 새로운 사역을 증거할 수도 없다. 오늘날 너희는 성경을 보지는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우호적이다. 다시 말해,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너희의 많은 관념은 여전히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다. 너희는 성경의 근원과 이전 두 단계 사역의 실상을 모르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자주 보지는 않아도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6천 년 경륜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그들을 납득시켜 그들이 이 흐름이 바로 참도임을 인정하고, 또한 오늘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람이 개척한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한 진리의 길임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한 후에 구약 성경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사람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예수가 와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후에는 예수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성경을

보고 있다. 성경은 한 권의 역사책이다. 물론 그 안에는 선지자의 예언도 어느 정도 들어 있다. 선지자의 예언은 결코 역사(歷史)가 아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는 예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만 있는 것도 아니며, 바울이 쓴 서신만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성경이 몇 부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구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은 말라기로 구약 성경 전체가 마무리된다. 구약은 여호와가 인도했던 율법시대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율법시대의 모든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다. 다시 말해,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모두 구약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구약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그를 위해 예언하게 함으로써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가 행하려는 사역을 예언했다. 여호와가 일으킨 그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이상(異象)을 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호와에게서 계시를 받아 예언을 기록했다. 그들이 행했던 이 사역들도 다 여호와와 음성을 선포하고 여호와와 예언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여호와는 그 당시 사역할 때 성육신하지 않고 영으로만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수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자신의 사역을 했으며, 그들이 묵시를 받아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족속의 사람에게 알려 주도록 했다. 그들의 사역은 예언을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여호와가 알려 준 말씀을 모두 기록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을 일으킨 것은 예언을 하기 위함이었다. 즉, 사람들이 여호와와 기묘함과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이후에 행할 사역이나 당시에 아직 행하지 않은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런 예언서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매우 다르다. 예언서는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 즉 여호와로부터 이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 말, 또는 기록해 놓은 말이다.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호와가 사역을 마친 후에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책들은 여호와가 일으킨 선지자의 예언을 대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사야서, 다니엘서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언은 사역을 하기 전에 한 말이다. 예언서 이외의 다른 책들은 사역을 마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때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와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하고 많은 말을 했다. 그들은 은혜시대의 일이나 말세에 세상을 멸하는 일을 예언했는데, 이는 바로 여호와가 앞으로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 이외의 책은 모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주로 여호와가 지난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게 된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함으로써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곳에서 살았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땅,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이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부터 땅의 사람을 정식으로 인도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뿐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역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이 인류의 발원지였기 때문이다. 최초에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가 없었던 데다가 여호와도 다른 곳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다.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땅에서 행할 다른 사역,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그 선지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시 사람이 여호와의 역사를 체험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창세기는 인류가 생겨난 후에 나온 책으로, 모세가 율법시대에 기록한 것이다. 오늘날 너희 사이에서 생긴 일을, 일이 끝난 후에 후세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다. 후세 사람이 보기에 네가 기록한 것은 지나간 시대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그저 역사(歷史)로 취급할 것이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고, 신약에 기록된 것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했던 사역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두 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실제 기록이다. 구약은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므로 한 권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신약은 은혜시대 사역의 산물이지만,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면 그 또한 시대에 뒤쳐진 책이 된다. 그러므로 신약 역시 한 권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약의 내용은 구약만큼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록된 일도 많지 않다. 여호와가 한 수많은 말씀은 모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의 말씀은 4복음서에만 일부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예수가 행한 사역도 매우 많지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 적은 이유는 예수가 한 사역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땅에서 3년 반 동안 행한 사역과 다른 사도들이 한 사역은 여호와가 행한 사역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므로 신약의 내용이 구약보다 적은 것이다.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구약은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했던 사역, 나아가 여호와와 창세 사역까지 기록한 책으로, 여호와가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와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로

끝난다. 구약은 하나님이 행한 두 가지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을 창조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반포한 사역이다. 그 사역들은 모두 여호와가 행한 것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역이며, 전반 사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약은 여호와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은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예수의 이름을 위주로 이루어진 사역이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가 행한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부분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율법시대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게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살 수 있게 인도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여호와가 땅에서 처음으로 택한, 그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가 처음으로 친히 인도해 준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바로 여호와가 택한 첫 번째 선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율법시대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역사했다. 제2단계의 사역은 신약 은혜시대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대 족속에게 행해졌다. 이렇게 사역 범위를 좁힌 이유는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이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대 전역에서만 사역하였으며, 그것도 3년 반 동안만 사역했다. 그러다 보니 신약에 기록된 분량은 구약에 훨씬 못 미쳤다.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주로 4복음서에 기록되었다. 은혜시대의 사람이 간 길은 생명 성품의 변화가 가장 얇은 길이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그 서신들에 기록되었다. 당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다(물론, 바울이 형벌을 받을 대상이든 화를 입을 대상이든, 그가 했던 사역은 성령이 지시한 것이었고, 그는 당시 성령이 쓰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베드로도 성령이 쓰는 사람이었지만,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지는 않았다. 바울의 사역에 사람의 불순물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 당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볼 수 있다. 그가 이끈 길은 옳고, 정확하며, 성령이 가는 길이였다.).

네가 율법시대의 사역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도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을 봐야 하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네가 말세의 사역에 대해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 인도를 받아들이고, 오늘날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라 성경에 미리 ‘기록’ 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따로 중국에서 다시 선민들을 택했고, 이들에게 사역하며 땅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즉, 은혜시대의 사역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사역은 이전 사람이 가 본 적 없는 길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도이며, 아직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최신 사역이다. 그렇기에 행한 적이 없는 사역은 역사(歷史)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현재고,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다시 더 크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행하여 이미 이스라엘의 범위와 선지자의 예언을 뛰어넘었음을 모르고 있다. 이는 예언에 없는 새로운 사역이고, 이스라엘 밖에서 행하는 더 새로운 사역이며, 사람이 꺾뚫어 볼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다. 이런 사역이 어떻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을 그 누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누가 관례를 깨는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이 사역을 오래되어 곰팡내 나는 책에 기록해 놓을 수 있겠느냐? 현시점의 사역은 역사(歷史)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오늘날의 새 길을 가려면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나 역사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길을 잘 갈 수 있고, 새로운 경지와 새로운 사역에 진입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성경 밖에 또 다른 사역이 있는지, 왜 성경에서 더 새롭고 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 더 큰 사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다. 너는 이전 사역과 새로운 사역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성경을 보지는 않아도 분석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역에 진입하기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도 힘들어진다. 더 높은 도가 있는데 굳이 낮고 시대에 뒤쳐진 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 새로운 말씀과 사역이 있는데 굳이 케케묵은 역사(歷史) 기록 속에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새로운 말씀이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사역임을 증명한다. 옛날의 기록이 너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시점의 사역이 아니라 역사(歷史)라는 것을 증명한다. 최고의 도는 바로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면, 이전의 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모두 사람에게 추억의 역사(歷史)로 남고, 아무리 참고할 가치가 있을지라도 옛 도에 그친다. 옛 도는 ‘성서’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역사(歷史)이고, 새로운 도는 ‘성서’에 한 쪽도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현실이다. 이 도는 너를 구원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너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성경에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역사책에 속한다. 네가 구약 성경을 은혜시대에 가져다가 먹고 마시거나, 구약시대에 요구한 것을 은혜시대에 가져다가 실행한다면, 예수는 너를 버리고 정죄할 것이다. 예수의 사역을 구약의 틀에 맞추는다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지금 네가 신약과 구약을 한데 묶어 먹고 마시며 실행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너를 정죄할 것이고, 너는 오늘날의 성령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구약도 신약도 모두 먹고 마신다면, 너는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다! 예수 시대에, 예수는 당시 성령이 그에게 하는 사역에 따라 유대인들을 인도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했다. 예수가 행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따라 말씀한 것이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든 예수는 상관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지도 않았다. 예수는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회개의 도를 전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두 글자는 구약의 그 많은 예언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는 성경을 근거로 사역하지 않았을뿐더러 더 새로운 길을 펼쳤고, 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는 성경을 참고하여 전도한 적이 없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적은 율법시대에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 그의 말씀의 권병과 능력 역시 율법시대에 아무도 닿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오로지 자신의 새로운 사역만 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구약 성경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그의 사역은 오히려 구약 성경을 넘어섰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다 예수의 가르침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일부러 성경과 ‘싸움’을 하거나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펼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러 왔을 뿐이며, 그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가져다주었을 뿐이다. 예수는 구약을 해석하거나 구약의 사역을 수호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사역은 율법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은 성경의 근거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하지 않았고, 구약 율법시대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지도 않았다. 그는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든, 그것이 자신의 사역과 부합하든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든, 어떻게 정죄하든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만 계속하였다. 많은 사람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를 정죄했을지라도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예수가 하는 사역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착오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규례에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도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야 한단 말이나? 성경이 크겠느냐, 하나님이 크겠느냐? 왜 하나님이 꼭 성경에 근거해 사역해야 한단 말이나? 설마 하나님 자신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나?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이냐?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그 계명들에 따라 실행했다고 한다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 주고 수건을 쓰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겠느냐? 그런 것은 모두 구약에 없는 계명 아니더냐? 예수가 구약대로 하고자 했다면, 왜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가 안식일의

주인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냐?

신약시대에 예수가 한 사역은 새 사역을 개척한 것이었다. 예수는 구약시대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고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했던 말씀에 맞추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역을 했다. 그는 더 새로운 사역, 율법보다 더 높은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가 이룬 것에 따라 수많은 규례가 깨졌다. 안식일에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말까지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였다. 하지만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 예수가 한 그 사역들은 여호와가 구약시대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한 사역은 구약 율법을 뛰어넘었으며, 구약 율법보다 더 높아졌다. 그는 구약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은혜시대에 이미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런 규례들을 깨뜨렸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고수하며 예수를 정죄하였다. 이는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교계도 성경을 고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거룩한 책이므로 반드시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느 때에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므로 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언제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너무 그릇된 자 아니겠느냐? 예수가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이겠느냐? 예수가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이나? 누가 그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의 깨닫는 능력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알기는커녕 갈수록 관념이 많아져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에 의해 끝장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죽었을 것이다.

성경에 관하여 2

성경은 신구약 전서로도 불린다. 너희는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구약’을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여호와가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애굽의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세운 언약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언약’은 문 인방에 바른 ‘양의 피’를 증거로 삼았다. 여호와와 그것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면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가 남겨 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는 그때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우양을 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언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애굽의 사람과 가축은 모두 여호와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우양을 죽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예언서에 애굽 백성을 중하게 벌한다고 예언된 것은 모두 여호와가 세운 언약 때문이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의미이다. 여호와는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모든 가축을 죽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남겨 두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라면 모두 귀하게 여겨 그들을 전부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사역하려 했고 또한 그들과 ‘양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 그때부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않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그의 선민이라고 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율법시대의 모든 사역을 펼치고 그의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열어 놓으려고 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와 사사들을 택해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려 했다. 여호와는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자신이 택한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별도로 사역하지 않겠다고 그들과 약속하였다. 여호와가 세운 언약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의 선민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적합한 사역 범위와 대상을 택하여 자신의 시대 전체의 사역을 펼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의미이다. 전체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의 창세기를 제외한 다른 책들은 모두 언약을 세운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간혹 이방 족속의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전반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다. 율법시대에 기록된 책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라 불렸다. 이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명명된 것이다.

신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그를 믿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에서 명명되었다. 예수의 약속은 사람이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며, 그것으로 예수에게서 구원을 얻고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체 은혜시대에 기록된 책은 모두 약속을 맺은 이후에, 그리고 약속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벗어나지도 않고 약속의 범위도 넘어서지 않는다. 그것은 다 주 안에서 체험한 형제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에 그 책들 또한 약속에서 명명되어 ‘신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두 ‘언약’은 율법과 은혜, 두 시대에만 해당될 뿐, 마지막 시대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말세의 사람들에게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임시적인 참고용으로만 쓰일 뿐, 사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 그러나 종교 인사들에게는 여전히 성경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해석만 할 뿐, 성경의 유래는 전혀 모른다.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성경은 완전히 옳은 것이며, 오차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먼저 성경은 옳은 것이고, 틀림없이 정확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연구하고 살펴보기 시작한다. 오늘날 이 단계의 사역은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지 않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복 사역을 행하는 이 일은 언급된 적이 없다. 이것은 가장 새로운 사역이기 때문이다. 사역하는 시대가 서로 달라 예수 자신도 말세에 이 단계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말세의 사람이 또 어찌 성경에서 이 단계의 사역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대개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그들은 현실 배경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논리만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누구도 감히 성경을 해부하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엄두를 낸 사람도 없었다. 이 책은 ‘성서’였으며,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겨 수천 년 동안 계속 숭배해 왔고, 또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아 그 누구도 성경의 실상이 이런 것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배로 삼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그 경건한 신자들은 아무도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라고 충고할 것이다. 그러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할 것이다. “오, 인자하신 구주 예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저희는 다 죄 있는 사람들이니 저희에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토록 ‘경건’한데 어찌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네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몹시 놀랄 것이다. 더군다나 성경에 인위적인 불순물과 사람의 관념이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허점을 발견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경에는 개인의 체험과 인식도 있고, 성령의 깨우침도 있으며, 사람의 머릿속 사유에서 나온 불순물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전혀 간섭하지 않지만, 정상인의 사유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정상인의 사유를 벗어난다면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게 되며, 사탄의 역사에 속하게 된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잃은 것이고, 사탄의 역사를 행한 것이며,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성령이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형제자매들이 “이 일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그 사람의 분량을 보고 “된다!”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그래, 정상이다. 아주

정상이다!”라고 한다. 그러다 누군가가 “제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하자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라고 했다. 나는 “네가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며, 너는 마음가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어떨 때는 그때의 사역이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형제자매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없자 나를 찾아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해도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보고 된다고 말해주었다. 성령 역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원 뜻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정상인의 사유와 연약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 실제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예 통제 불가능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나의 요구에도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나의 말이 애매모호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에는 모두 적당한 범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의 상상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분량을 갖추라고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사역하는 원칙이지 하나님이 사역하는 원칙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역사하고, 사람의 원래 자질에 근거해 역사한다. 복음을 전하는 원칙도 이리하다. 너는 순리대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네가 진리를 분명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야 상대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제서야 성경을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단계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누가 관례를 깰 수 있겠느냐? 누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성경 밖에서 따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전통 관념과 봉건 예교(禮敎)가 너무도 심각하기에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도, 용기도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사람은 이미 죽은 성경 글귀 몇 마디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점령당했는데 어찌 성경을 포기하겠느냐? 그들이 성경 이외의 도를 어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실상과 성령 역사의 원칙까지 모두 분명하게 설명하여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종교인들은 모두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성경에 국한하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성경에 관하여 3

성경의 기록이 모두 하나님이 친히 발한 음성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전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사실 기록일 뿐이다. 거기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기록도 있고, 역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쓴 체험과 인식도 있다. 사람의 체험에는 사람의 견해와 인식이 섞여 있기 마련이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수많은 책들 중 어떤 것은 사람의 관념이나 편견, 그릇된 이해 방식에 속한다. 물론 대부분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서 비롯된, 올바른 깨달음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완전히 정확하게 말했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일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얻은 인식이나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하다.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나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이 했던 예언은 성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예언자에 속하는 그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묵시를 받은 그들은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왜 그들에게 묵시를 주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고, 선지자는 반드시 그 선민들 가운데서 사역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받은 계시는 사실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성령이 그들의 입을 빌려 그런 말씀을 한 이유는 후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간파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한 것, 성령이 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것으로 성령 역사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은혜시대에는 예수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사역을 했으므로 더 이상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선지자겠느냐, 아니겠느냐? 예수도 물론 선지자이다. 하지만 예수는 사도의 사역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었으며, 각지에서 전도하며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과 그가 대표하는 신분은 달랐다. 예수는 와서 전 인류를 구속했고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예수는 선지자요, 사도요, 더욱이 그리스도이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라 말할 수는 없다. 예수도 그 단계에서 많은 예언을 했기에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한 단계의 사역을 한 데다, 그의 신분 역시 이사야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예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왔고,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예수의 몸에 임한 것으로,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묵시하거나 여호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었다. 이 점만으로도 예수가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예수는 구속 사역을 했고 부차적으로 예언도 했다. 예수는

선지자이자 사도이며, 더욱이 구속주이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예언만 할 수 있었을 뿐,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는 없었다. 예수는 사람이 행한 적 없는 많은 사역을 한 데다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일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런 것들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도 적지 않은 말을 했는데, 왜 그들은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높이지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성령이 지시한 것이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는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꼭 성경을 부인하고 한쪽에 내팽개쳐 둔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늘 네가 믿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실상과 구성, 그리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지금 사람들은 늘 성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경이라고 여긴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만큼만 말씀했고, 성경에 있는 그만큼의 말들은 모두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신구약 66권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묵시한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는 사람의 치우치고 그릇된 이해 방식으로,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역사(歷史)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에는 사람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쓴 서신은 사람이 한 일이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이 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준 것으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며, 여러 교회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이다. 바울은 성령을 대표하여 말할 수 없는 데다가 선지자도 아니었고, 요한이 본 이상(異象)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그 편지들은 당시에베소,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등의 여러 교회에 써 보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들에 써 보낸 편지이지, 성령이 묵시한 것도, 성령이 직접 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서신은 다만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쓴 여러 교회에 대한 권면과 위로와 격려이자 당시 그가 했던 많은 사역에 대한 기록일 뿐이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써 준 것이고, 또한 당시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의 권유를 듣고 예수가 전한 회개의 도를 행하라는 것이기도 했다. 바울은 당시의 교회든, 그 이후의 교회든 모두 그가 써 준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말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해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또 그는 단지 설교하거나 일깨워 주고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감과 연관 지어 말했고, 그런 말로 그들을 붙들어 준 것에 그쳤다. 당시 교회들의 사도로 사역한 바울은 예수가 쓴 일꾼이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에 대해 책임지고,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며,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이었던 바울의 말은 모두 옳았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성령의 말씀도, 하나님도 대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만일 사람의 체험에 대한 기록과 사람의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특히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 그렇다. 바울은 그 당시 각 교회의 상황과 실제 상태에 근거해,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려고 편지를 써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울 본인이 져야 할 책임감이자 성령이 그에게 더해 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당시 교회들을 이끄는 사도였으므로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 권면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바울의 신분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을 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다. 바울이 한 말은 성령의 말씀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바울은 피조물일 뿐,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과 예수의 신분은 다르다. 예수의 신분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예수와 동등하게 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이는 완전히 모독에 속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서신 기록을 ‘성서’와 ‘천서(天書)’로 삼아 엮드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이나? 이러한데 바울이 교회들에 써 보낸 편지에 자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한 바울 자신의 뜻이 섞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인식에 따라 교회에 편지를 썼다. 예를 들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와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견해는 서로 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견해가 성령에게서 비롯되었겠느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교회에 대해

*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직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책임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편지는 그들의 분량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들의 공급과 붙들어 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단, 그것은 사람이 사역하는 면만 의미할 뿐, 절대적으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네가 바울의 서신을 성령의 말씀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릇된 자이다. 이는 모독에 속한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다른 서신은 근대 영적 인물의 전기에 해당하며, 그것은 위치만 니의 책이나 로렌스의 체험 등과 같이 사람이 쓴 영적 전기와 동일시할 수 있다. 단지 근대 인물들이 쓴 책은 신약 성경에 편성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같다. 그들은 다 성령께 한동안 쓰임 받았던 인물로,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의 첫머리에서는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는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가 낳았다고 나와 있다. 그것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윗의 자손도 아니라는 말이지만, 족보의 기록은 예수와 요셉을 억지로 엮어 놓았다. 족보의 뒷부분에는 예수가 강생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온다. 그러나 족보에는 분명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는 예수를 위해 쓴 것이기에 요셉 세대까지 42대 인물을 기록한 후, 뒤이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한다. 그 말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앞뒤가 모순되지 않느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분명 요셉 가문의 인물들이다. 그것은 요셉의 족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가리켜 예수의 족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이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마태가 쓴 족보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주 황당한 말이다! 이렇듯 너는 이 책이 온전히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계실 경우 족보가 필요하므로 예수를 아브라함 가문의 제42대 인물 자리에 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도 황당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땅에 왔다고 해서 어찌 족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족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나열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사람과 본질이 다르다. 그런데 네가 어찌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당시 여호와와의 사역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께 인정받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을 뿐이다. 그가 어찌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의 족보는 누가 써 준 것이더냐? 예수 자신이 쓴 것이더냐? 예수가 친히 그들에게 “나를 위해 족보를 만들라.”라고 했더냐?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당시 예수는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 또한 해석해 주지 않았다. 예수가 떠난 뒤, 제자들은 곳곳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그 단계의 사역을 위해 서신과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 신약 복음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20~3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모두 구약 성경이었다. 즉, 은혜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 구약 성경이었다. 신약 성경은 은혜시대에 비로소 생긴 것이다. 예수가 사역할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 후세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기록하여 그제야 4복음서가 생겨났고, 거기에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계시록 책까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고 3백여 년이 지난 뒤, 후세 사람들이 다시 그 원고들을 골라 하나로 편집하면서 비로소 신약 성경이 생겨났다. 신약 성경은 당시 사역이 끝난 후에야 생겨난 것이지 미리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행했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곳곳의 교회에 그 많은 서신을 써 보냈다.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서신을 함께 모으고,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가장 큰 이상(異象)에 대한 기록을 맨 마지막 책으로 묶었다. 그것은 말세에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이다. 그 순서는 모두 사람이 배열한 것으로, 지금의 말씀과는 다르다. 지금은 사역하는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이다. 또한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이 직접 영에서 비롯된 말씀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는데, 이는 사람이 기록한 순서와는 다르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그들의 지식수준과 자질에 근거한, 사람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기록 방식이나 인식이 다르므로 기록한 내용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겨 숭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왜 오늘날의 하나님 사역을 찾지 않느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일 뿐, 성경이 아니다. 사람은 수천 년간 성경을 읽어 왔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네가 성경을 숭배한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두 단계의 사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일들이다. 심지어 ‘예수’란 이름마저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다. 그런데 네가 오늘날에도 계속 성경을 본다면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신약 성경에는 유대의 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원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당시 예수가 불린 이름과 그가 한 말은 모두 사람의 언어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던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냐? 그것은 단지 예수가 유대에 성육신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유대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 오늘날 하나님은 육신으로 중국에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모두 중국어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언어의 근원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람이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영이 직접 발한 음성과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조금도 없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관하여 4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참도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사람은 성경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역사(歷史)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두 단계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즉 창세부터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신약 4복음서에는 예수가 땅에서 행했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행한 사역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더냐? 지난날의 일이 오늘날에는 모두 역사(歷史)에 속한다. 그것이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역사일 뿐이다. 역사는 현실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만 알고 하나님이 현재 행하려는 사역은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 역사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歷史), 즉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함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네가 죽은 글귀나 도리, 역사(歷史)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현시점의 뜻을 구해야 하고, 성령 역사의 동향도 찾아야 한다. 네가 고고학자라면 성경을 봐도 무방하겠지만, 고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현시점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성경을 보면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일부 역사 및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여호와가 자신을 대적인 자들을 어떻게 불살랐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너는 그저 하나님의 지난 사역을 이해하는 데 그칠 뿐이다. 성경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므로 너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보살핌과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긍휼과 자비가 충만했지만 불사르는 불길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歷史)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을 기록한 역사책에 속한다. 그 안에는 많은 옛 선지자의 예언과 여호와가 당시에 사역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성스럽다’고 여긴다(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모두 여호와에 대한 사람의 경외심이자 하나님에 대한 앙모의 마음이다. 사람들이 그 책을 그렇게 칭찬 이유는 단지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경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천서(天書)’라고까지 했다. 사실, 그 책은 사람의 기록일 뿐이지 여호와가 친히 명명하거나 지도하여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 책에 대한 사람의 존칭일 뿐, 여호와와 예수가 함께 논의한 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 그 책은 여호와가 기록한 것도, 더욱이 예수가 기록한 것도 아니며, 많은 옛 선지자, 사도, 예언자들의 기록을 후세 사람들이 수집하여 편찬한, 사람이 매우 거룩하다고 여기는 고서(古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이 많이 있어 후세들이 이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책을 더욱더 ‘천서’라고 여겼다. 거기에도 신약 성경의 4복음서와 계시록까지 더해지니 그 책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어떤 책보다 각별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감히 그 ‘천서’를 파헤치려 들지 않았다. 이는 다 그 책이 너무나 ‘신성’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왜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실행해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는 것은 성경을 혐오하거나 성경의 참고할 만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고유한 가치와 기원을 너에게 분명히 밝혀 주어 네가 캄캄절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대한 사람의 견해가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내가 행하려는 사역까지 가로막아 앞으로의 사역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이익은 없이 폐단만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어디까지나 너에게 성경의 본질과 실상을 알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지 말라거나 가치 없는 책이라고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견해를 가지라는 것이고,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하지만, 그 책에는 옛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던 원칙과 근대 사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체험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사람의 참된 깨달음과 인식이다. 그런 것은 모두 참도를 추구하는 현시대의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도는 모두 역대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체험했던 생명의 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우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성경을 보려고 한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무척 많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사람의 견해는 그 어떤 영적 위인의 저서에 대한 견해와도 같지 않다. 성경은 신구약시대에 여호와와 예수를 섬긴 사람들의 체험과 인식을 수집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책에서 많은 깨우침과 빛 비춤, 그리고 실행의 길을 얻을 수 있었다. 성경이 영적 위인들의 그 어떤 저서보다 훌륭한 까닭은 그들의 모든 저서가 성경에서 소재를 취했으며, 그들의 체험 역시 모두 성경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성경을 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영적 위인의 책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이 숭배하는 것은 여전히 성경이다. 사람이 보기에 성경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다룬 일부 책들이 수록되어 있고, 사람은 그 책들에서 공급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책들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자 구시대의 책이다. 그 책들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한 시기에만 적용될 뿐, 영원히 남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발전하므로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시대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들은 은혜시대에만 적용될 뿐, 마지막 시대인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은혜시대의 신자들에게만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하나님나라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공급해 줄 수 없기에 아무리 좋아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창세 사역이나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이 아무리 좋아도 시대에 뒤처지고 흘러간 것처럼 말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영원히 창세 사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십자가 사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십자가 사역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사탄을 물리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해도 사역은 어디까지나 사역일 뿐이고, 시대 또한 어디까지나 시대일 뿐이다. 사역은 어느 한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시대 역시 영구불변할 수 없다. 창세가 있으면 반드시 말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생명의 말씀’, 즉 ‘사도 서신’과 ‘4복음서’를 오늘날로 가져오면 모두 역사책이 되고, 오래된 책력이 된다. 그런 오래된 책력으로 어찌 사람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들어가겠느냐? 그 오래된 책력이 아무리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 있다 할지라도 모두 시대에 뒤쳐진 것 아니겠느냐? 모두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그 오래된 책력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 오래된 책력은 너무 ‘케케묵어’ 너를 새로운 사역으로 이끌 수 없고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것은 너를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진입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낡은 교회당 안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퇴보한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사역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이 했던 일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를 골라 넣거나 삭제했을지라도 성령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지만 책망하지도 않았다. 성경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역사(歷史)이고 또한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역사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과 일, 그리고 사물의 다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과 일, 사물이므로 그 어떤 예표적 의미도 없다. 물론 이사야와 다니엘 등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나 요한이 이상(異象)에 관해 쓴 서신은 제외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았고, 고대 문화와 관련된 지식도 상당히 풍부했으므로 그들의 글은 현시대 사람들의 글보다 뛰어났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 또한 본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행사를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으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 그랬기에 그렇게 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의 행사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지,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다. 당시 그들이 여호와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보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존재 또한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그를 찬미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보지 못했으므로 그를 찬미할 줄도, 경배할 줄도 모르며, 더욱이 글을 써서 찬양할 줄도 모른다. 너희에게 여호와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으라고 해도 지어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역시 그의 사역을 보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질이 향상된다면, 너희도 다윗처럼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성경도 알고 역사(歷史)도 알지만, 지금 성령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네가 ‘역사(歷史)’를 더없이 훌륭하게 배웠을지라도, 지금 성령이 행하는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것에 진입해야 하죠? 당신은 생명을 잘 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너는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 그럼 아는 것이 뭐냐고 물어 오면 너는 “저는 육을 저버리고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또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오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역사(歷史)도 조금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얻은 것이 고작 그것뿐이더냐?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겨우 그 정도라면, 너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분량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수준에 전혀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 적고, 너희의 분별력 또한 너무나 부족하다. 다시 말해, 너희의 믿음은 너무나도 얇다! 진리를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아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행 1

예전에 사람의 체험에는 치우친 면이 많았으며, 나아가 황당한 면도 있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사람의 체험은 여러모로 치우쳐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한다. 일례로 식사와 복장은 현대인의 방식을 따르면 된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도 되고, 현대 예술을 배워도 좋다. 여가 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기념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독서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 누려 마땅한 삶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할 것이라는 착각에 스스로를 단속하며 이를 기피한다. 사람이 실행하는 것이라고는 규례를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제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의 왕래가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머리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눈으로는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사람이 스스로 내린 결론과 스스로 정한 규례일 뿐이다. 네가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모르고, 자신이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올바른 실행의 길을 찾을 수도 없다. 네가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 하고,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을 얻을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실행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최종 효과도 상관하지 않고 치우친 면이 없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자기가 만든 방법에 따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너의 실행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칙도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상 사람의

이성이나 양심은 더욱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의 인침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쉽게 자기 길로 행하게 된다. 이러한 실행은 규례를 지키거나 고의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자신을 단속하고 제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너는 이러한 실행이 대부분 불필요한 형식이나 의식이라는 것은 모른 채, 온전히 실행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실행했음에도 성품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새롭게 깨달은 것도 없고 진입한 것도 없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을 되풀이하고, 야만성을 드러낸다. 심지어 이성적이지 않거나 비인간적인 일, 의문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때도 많다. 이런 사람을 성품이 변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 말씀 시대에 접어든 까닭에,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도를 적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측면의 진리와 실행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사람이 나서서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삶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찾고 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 주었다. 결혼에 관해, 세상적인 것에 관해, 생활, 의식주, 인간관계에 관해, 섬김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육체를 저버려야 하는지 등등, 너희에게 일러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기도하며 찾을 필요가 있느냐?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아직도 그리하고 있다면 어리석고 무지하여 괜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자질이 형편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쓸데없는 기도에 매달린다. 진리 실행에 있어 너에게 의지가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는 생명의 성장에 손해를 준다. 기도로 찾고 구한 후에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육체의 욕구와 금전을 탐내며 “하나님, 육의 평안과 돈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처럼 돈을 버는 것은 당신 뜻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기도가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굳히고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강요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찌면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음성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패역이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끌어들여 독립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는 두려운 마음도 없이 태연하게 물어보는 기도를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이 세속적인 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세상을 좇지 말라고 하시는 당신의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무슨 기도란 말이나? 너희는 분별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사탄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말해 주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성품,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멋대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찾고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진리를 교제해야 한다. 평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취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알아 가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며 구한다면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전에는 그렇게 구하면 응답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이 조금 있었다. 그때는 은혜시대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렇게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왔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기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역사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면서 성령의 역사 방식도 바뀐 것이다. 지금은 예전보다 기도를 적게 하지만 하나님이 땅에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이 너무도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몇 마디의 말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패역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리도 깊이 패괴된 것입니까?”라고 고백을 하기도 한다. 그때의 심정은 당장 뺨이라도 때리고 싶고, 눈물이 글썽거리며, 마음은 후회스럽고 괴롭지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에 맞는 것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몹시 사랑한다고 느끼고, 특별한 느낌이 들 것이다. 명확한 말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깊다고 느끼며 이런 상태를 적합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도와 교제는 올바른 것이다.

지금은 모색하고 구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도 이것이 영원히 기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역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사람의 편견일 뿐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함께 생활하며 사람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땅에 온 이상 반드시 사람의 분량에

적합한 생명과 현실적인 도를 주어 누리게 할 것이다. 절대로 사람의 모든 실행 방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모색하고 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말씀과 사역으로 그 과정을 대신했고, 이로써 사람을 막막하고 어두운 삶에서 밝은 빛이 보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사람이 실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짚어 주고 말해 주며,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사역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알려 준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가 떠난 후 그래 왔던 것처럼 모색하고 찾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색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할지 모색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몰라 땅에 엎드려서 구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입고 쓰는 면에서 더 이상 금식 기도하며 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정복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 힘쓸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몰라 밤낮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실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 나는 일찍이 많은 말을 하였으나 너희는 전혀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은 사람을 감동시켜 기쁨을 누리게 한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게 되는 특별한 누림이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너무도 아름답고, 당신의 형상은 위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쳐 평생 동안 헌신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라고 기도하는 날이 간혹 있다. 이는 성령이 주는 누림으로, 깨우침이나 빛 비춤이 아니라 감동이다. 이는 자주 할 수 있는 체험이다. 출근하는 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되어 적합한 곳을 찾아 마음속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 때로는 공적인 장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의 출신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렬해진다. 또한 그것은 다 하나님이 높여 준 것이자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언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고 느낀다. 그 사랑은 웬지 알 듯하면서도 형용하기 어렵고, 너무도 깊어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럴 때에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조차 잊고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오묘하시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이 모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굉장히 자주 경험할 것이다. 이 모두는 오늘날 성령이 네게 준 삶이며, 지금 네가 살아야 할 삶이다. 이는 네 삶을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형용하기 어렵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는 삶이다. 그 감정은 진실로 우러나는 것이며 더더욱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속으로는 알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그것은 표현력이 떨어지거나 말이 어눌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네가 살아야 할 삶이다. 물론 너의 다른 삶도 헛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감동이 네 삶의 즐거움이 되어 항상 성령의 감동을 누리고 싶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이런 감동은 육을 초월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가거나 세계를 일주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직접 맛보게 하는 것이며, 오늘날 하나님이 사역하는 의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색하며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므로 모색하고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그가 직접 알려 주었으므로 더 이상 모색하며 구할 필요가 없다. 그가 인도하는 길이 곧 진리의 도요, 그가 알려 준 것과 사람이 받은 것이 곧 생명과 진리이다. 길, 생명, 진리를 얻었거늘 여기저기에서 계속 찾고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령은 동시에 두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할 말을 다 했음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마시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은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맹인이 더듬더듬 길을 찾듯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한다면 내가 하는 말씀 사역은 헛수고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끝났음에도 사람의 자질이 형편없어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교회 생활이나 서로의 교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과거 은혜시대에는 성육신했어도 말씀 사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성령이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유지했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일을 했고, 지금은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한다. 즉,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자주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거나, 책망 또는 징계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다. 반면 지금은 이런 경우가 드물다. 성령은 시대별로 한 가지 사역만 한다. 만약 동시에 두 가지 사역을 한다면, 즉 육신은 육신대로 사역하고, 성령은 또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역을 하며, 영의 역사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육신이 하는 말씀이 뒷전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진리, 길,

생명이란 말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리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全智)전능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기에 절대 잘못할 리가 없다.

이전에 사람들은 치우치게 체험하는 부분이 많았다. 원래는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전가했다. 어느 자매의 경우 집에 손님이 찾아와 찢빵을 준비했다. 그러나 찢빵을 찢다 망치자 그는 ‘이건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하나님이 내 허영심을 치시는 거야. 난 허영심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한다. 사실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들뜬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허둥대다 밥을 태우거나 반찬을 짜게 만든다. 이는 마음이 들떠서 벌어진 일인데도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라며 책임을 미룬다. 사실 이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느냐? 많은 일이 사람의 실수로 어그러지는데, 이는 성령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밥을 먹다 혀를 깨무는 것과 다를 바 없건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보통 네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에 징계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야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다. 사람은 지금 깨달은 진리만으로도 행하는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돈을 횡령하거나 흥청망청 쓰면서 어떻게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하는 순간에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나고 나서 잘못인 줄 알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면 본인이 잘 안다. 사람은 다 자신의 기호가 있어 진리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과 타협한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확실한 책망이나 징계가 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주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지금 교회에 돈을 횡령하거나,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거나, 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왜 아직도 무탈하겠느냐? 사실 그들도 그런 짓을 할 때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책도 받는다. 그로 인해 형벌받고 연단받을 때도 있지만, 너무도 뻔뻔하기 그지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음을 하는 경우, 그 당시에는 다 아닌 줄 알지만 정욕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성령도 더 이상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성령의 징계나 책망이 없었고, 육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후에 무슨 책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 다 저질러 버렸는데 무슨 징계가 따르겠느냐? 이는 뻔뻔하고

인성이 없음을 드러낼 뿐이니 저주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성령은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는다. 네가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저지른다면 그날이 올 때 너와 그 악한 자를 함께 징벌하는 수밖에 없다. 너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결말이다! 오늘날, 양심적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징계를 잃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잘못된 일을 할 때 알기 마련이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만 느껴도 불안해지고, 마음속으로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결국 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심각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성령의 징계와 형벌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을 저지른 때에는 잘못인지 아닌지를 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진리를 깨닫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 보라!

모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팽개치고 항상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얘기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분별력이 있는 것도 좋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 쉽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되므로 이 역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인 것에 속하므로 이 부분만 중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만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너는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부분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 네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네가 알아야 하는 이도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다.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와 온갖 악령의 역사만 알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오늘날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도 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냐? 긍정적인 부분에 진입하는 것을 전혀 중시하지 않고 파악하지도 못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냐? 부정적인 ‘교재’는 적지 않으나 긍정적인 부분에는 한 발자국도 진입하고 있지 못하니 네 분량이 어떻게 커질 수 있겠느냐? 사탄과의 싸움만 중시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의 진입은 너무 진부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야 현재의 사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행하려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날 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진입하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체험하며 인식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등을 깨닫는 것이다. 이를 중시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금 진입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사람을 분별하는 것만 중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는 사탄이고 누구는 악령인 것을 분별하여 악령에

대해 100% 분별이 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악령이 역사하는 행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이 단계 사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완전히 새롭게 진입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인식을 얻음으로 새로운 진입이 있어야지, 모르는 척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진입을 위해 자신의 체험과 인식에 깊이를 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가장 새로운 진입과 가장 정확한 체험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 또한, 너는 새로운 사역과 진입 속에서 과거에 진부하고 치우친 것에 속한 너의 실행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분별해야 하며, 어떻게 진부하고 치우친 실행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에 진입할지를 구해야 한다. 이 모두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진입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입과 예전의 진입이 어떤 차이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써 예전의 낡은 실행 방법과 전통적인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실행과 새로운 사역에 진입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너 자신의 분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보다 진리 실행과 생명 진입을 깨닫는 데에 힘써야 할 때이다. 너 자신에 대한 인식이 너의 실제 분량인 것은 아니다.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체험하여 인식을 얻고, 또한 예전의 생각이나 실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너의 진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너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너희는 많은 일에서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른다. 어떤 일을 하면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음이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다. 너는 먹고 마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원칙을 파악했으므로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고 불안해진다. 물론 사람이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아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날에 한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원칙을 깨닫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른다면 성령도 책망하지 않는다. 성령이 책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너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그르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느끼는 것은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지만 진리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간혹 너는 양심에 참소를 받은 것 같지만 이는 사람의 양심에 의해 가지게 되는 느낌일 뿐, 성령이 깨우침을 주거나 빛 비춤을 준 것이 아니며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의 이름, 그의 증거, 그의 사역에 관계된 악행을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으나 이것도 정해진 선이 있다. 일반적인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원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실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빵을 찌다 망친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일들은 네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자주 있지 않았더냐? 스스로 성령의 징계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극소수 특별한 상황은 제외). 이는 오롯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은 후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이는 성령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다. 성령이 사람의 사고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일 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어난 반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네가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서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네 인식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반응일 뿐, 성령의 깨우침이나 빛 비춤과는 무관한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깨우침을 주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인식이 있고, 사람의 참된 진입과 참된 상태를 알게 되고, 현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람에게 대한 요구를 깨닫게 된다. 또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핍박과 환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를 흘리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고 역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 순간 이렇게 감동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예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중에 크게 감동을 받거나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을 얘기하면 굉장히 새롭다고 느껴지고,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역사이다. 네가 리더일 경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의 문제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은 특별히 깨우쳐 주고 빛 비춤을 준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답고 섬세한 자세로 사역에 임하게 한다. 이 모두는 성령의 역사이다.

실행 2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영적으로 살기’ 위한 과거의 훈련은 지금의 실행과 비교하면 간단한 영적 훈련에 속한다. 이는 사람이 생명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행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실행 방법이자, 하나님을 믿는 초급 단계의 실행이다. 만약 늘 그것에만 의존해 산다면 사람은 개인적 느낌이 많아져 오류를 범하기 쉬우며 진정한 생명 체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저 영적 훈련을 하여 마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작은 세상에만 머물러 있을 뿐,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사는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 아무 때나 “오! 주 예수여 아멘!”이라고 외치며 거의 날마다 같은 삶을 산다. 이것은 항상 영적으로 살기 위한 과거의 실행이다. 너무 속되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는 묵상하고, 진리를 실행해야 할 때는 진리를 실행하며, 본분을 이행해야 할 때는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면 오히려 매우 자유롭고 해방받는데, 이는 고리타분한 종교 선생처럼 기도하거나 식사 전에 감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실행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실행한다면 그것은 너무 뒤쳐진 것이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역이 높아졌다.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실행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실생활에서 사람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한 정상 인성이다. 정상 인성에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에 한 말씀이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대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실생활에 함께하게 하는’ 것의 실제 의미이다. 지금 사람이 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자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 지식을 배우고 독해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상인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실행이자 생명 성품이 변화하는 첫걸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탄력 있게 실행한다. 작업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묵상하여 지금 알아야 할 진리와 실행 원칙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정상 인성의 생활이 있어야 하고 진리의 진입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행이다.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주로 정상 인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실행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간단하게 실행한다! 또 사람에게서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의 분량에 맞춰 실행하게 한다. 만약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로 대하고, 믿는 사람이면 믿는 자로 대하는 것이지 사랑이나 인내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채소 사러 시장에 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하나님, 오늘 어떤 채소를 살지 저를 도와주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장사꾼이 시든 채소를 준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아야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채소를 고르면 안 되니까요.”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여긴다. 결국 시든 채소를 사고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당신께서 열납하시면 시든 채소도 저는 먹을 겁니다.” 이런 실행이 그릇되고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항상 영적으로 살기 위한 과거의 훈련은 예전의 은혜시대에 했던 사역과 관련이 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은혜시대의 모든 신자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때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옷을 사도 기도하고, 예배 통지를 받을 때에도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러 가도 될까요? 제가 가길 바라신다면 저에게 편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제가 가지 않길 바라신다면 가다가 넘어지게 해 주세요.” 기도로 간구하지만 기도한 후 마음이 편치 않자 결국 가지 않는다. 어떤 자매는 예배하러 갔다 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데, 기도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예배하러 가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배에 한 번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 사람의 우매함으로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적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실행법은 너무 편협하고 그릇되며, 또한 매우 막연하고 개인적 느낌과 생각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이다. 예배 통지가 오면 갈 것이지 이런 일에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냐? 오늘 옷을 사야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옷을 사야 하는데 나가도 될까요? 제가 외출했을 때 다른 형제자매들이 오면 어떡할까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이 바로 가면 된다. 형제자매들이 올까 봐 가지 않고 기다렸더니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은혜시대에도 이렇게 실행하면 그릇되고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과거의 그 방식대로 실행한다면 사람의 생명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외부의 압박을 참고 견디면서 분별없이 일관되게 순종하고 인내했었다.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도 얻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억제하고 제한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살아 내지 못한 까닭에 오랫동안 실행해도 생명의 변화가 없었다. 사람은 그저 인내와 겸손, 사랑과 용서를 중시하는 것밖에 몰랐으며, 성령의 깨우침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정상적인 인성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기에 더 이상 예전처럼 찾거나 모색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내가 짚어 준 내적 상태에 따라 자신을 반성하고 비취 본다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요구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실정을 알려 주겠다. 너는 그저 내 말에 따라 행하면 된다. 나는 정상인의 필요에 따라 너에게 요구한 것이며, 이미 말로 너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너는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드러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전부 해방받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실행하고 체험한 것에는 규례와 의식이 너무 많았다. 작은 일을 해도 기도하며 찾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은 한쪽에 제쳐 두고 보지도 않으며 한사코 구하기만 했다. 결국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식사하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은 일에서 네가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처리해 달라고 한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하찮은 일까지 내가 상관해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정상 인성과 이성 어디로 간 것이냐?” 가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속박받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적 상태가 아주 좋으면서도 작은 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때로 네가 잘 체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바로 휘말려 들어 소극적으로 변하고 마음도 어두워진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소극적이 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형벌의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할 것이다. 사람은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늘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한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너 스스로 그런 내적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그런 고통은 정말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많은 일에서 어리석고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관념과 상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누군가는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이 소극적인 것을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냐고 한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사람의 관념에 빠져 있으니 성령도 역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주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든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내 일을 할 뿐, 그때 네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내적 상태에 꼭 맞춘 것이므로 네가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도 성령의 역사에는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형벌 시대, 죽음의 시련 때, 사람들이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도 나의 사역을 막지 못했다. 네가 소극적이 되어도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계속한다. 네가 한 달간 멈추고 추구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사역한다.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지금 무엇을 하든 성령 역사를 막지 못한다. 어떤 소극적인 상태는 사람의 연약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 이르지 못하고 그 요구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소극적이 되는 것이다. 형벌 시대에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 사람은 자신이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매우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과 같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자신의 육체와 부족한 자질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 너무 늦어서 온전케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에 속한다.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게 속하여 패역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더럽기 그지없는데, 그것은 불결한 것이다. 사람은 육적인 것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육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매우 증오한다. 사람이 사탄의 더러움과 파괴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더러움과 파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아귀다툼, 간사함, 교활함 같은 것들은 모두 사탄의 것이며, 이런 사탄의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틀릴 리가 없으며, 모두 사람을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너의 믿음이 육체의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파괴된 육체에 통제당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너는 여전히 더러운 것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네가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자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구원이자 더욱이 심판, 형벌, 저주 등 여러 가지다. 너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과 형벌, 그리고 저주도 있다. 내가 말을 하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위하고 있다. 말을 하는 것은 사역의 방식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 준다. 너의 육은 죽어도

영과 혼은 남게 된다. 만약 사람에게 육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오늘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또 사람을 극도로 증오하기도 하고 또 지극히 사랑하기도 하는 것은 다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너의 관념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말세가 도래하면서 각국이 불안정하고 정치가 혼란하며, 기근, 전염병, 수해, 가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인간 세상에 재난이 있고 하늘도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세상은 화려하기만 하다.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기술과 사악한 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만약 네가 진취적이지 않고 꿈도 없고 참도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너는 이런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 것이다. 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가장 낙후되고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튼 곳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악한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가장 많고 사당이 가장 많다. 또한 더러운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는 곳이기도 하다. 너는 그것에게서 태어났고, 그것에게 교육과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것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각성한 후에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역이 매우 의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여 결국 너희를 완전히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역이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얻는 ‘전리품’이다. 너희들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교회 생활도 점점 더 좋아지고 큰 붉은 용도 점점 무너지게 된다. 이것은 모두 영계의 일이고 영계의 싸움이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역이 대단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역을 하여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며 빛의 인솔과 인도가 있으면 너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먹고 입는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의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들은 단지 ‘조상의 유산’과 ‘민족적 기개’만 누릴 뿐 그 어떤 인간미도 없다! 너희들의 차림새와 언행은 모두 그들과 다르다. 궁극적으로 너희는 불결한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늘 신중해야 한다. 더러운 땅에서 살아도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며, 크나큰 보호를 받았다. 이 황토의 땅에서 너희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더러운 육체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된 것이 아니냐? 네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너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작은 고난을 마땅히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오히려 베드로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마귀의 옷을 입고, 마귀가 주는 밥을 먹으며, 마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충성하면서 마귀에게 짓밟혀 온몸이 더러워졌다. 네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참도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는 바른길을 추구하고, 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큰 붉은 용 나라에서 펼쳐 일어난 너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성육신의 비밀 1

은혜시대에 요한은 예수를 위해 길을 닦는 사역을 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했을 뿐이다. 요한이 주의 선구자이기는 했지만 성령께 쓰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예수는 사역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전에 그가 어떻게 믿었든, 연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모두 직분을 이행하기 전 정상 인성의 생활이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기름 부음을 받자) 바로 능력이 따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권능을 행하며 능력과 권병을 가졌던 것은 직접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하고, 영을 대신해 사역하며, 영의 음성을 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요한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며 대표할 수도 없다. 요한이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했다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사람의 뜻이 많았을 수도 있고 치우친 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었다. 요한의 잘못과 그릇됨은 그 본인을 대변하지만 그가 사역한 부분은 성령을 대변한다. 그렇다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마 그의 치우침과 그릇됨까지도 하나님을 대변하겠느냐? 사람을 대변할 때 치우침과 그릇됨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데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령은 함부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높이 받드는 자라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요한의 경우도 성령이 증거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길을 닦는 자라고 성령이 밝힌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령이 요한에게 행한 사역은 상당히 적절했다. 예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 길만 닦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요한의 길 닦는 사역만 수호했으며, 그 외에 다른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며 길을 닦는 선지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런 사역은 성령이 수호했다. 요한의 길 닦는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은 모두 수호하였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자처하며 자기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면 성령은 그를 징계했을 것이다. 요한이 한 사역이 아무리 크고 또 성령의 수호를 받았을지라도 그의 사역은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성령이 요한의 사역을 수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에게 부여한 능력은 길을 닦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역은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길을 닦는 요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가 중요하기는 해도 사람이 하는 사역을 성령이 허락하는지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날 요한은 아주 크게 증거되었고, 그가 한 사역도 매우 크지 않았더냐? 하지만 요한이 한 사역은 예수를 넘어설 수 없었다. 요한은 그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일 뿐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 사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가 길을 닦는 사역을 끝낸 뒤에는 성령이 더는 그의 증거를 수호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역이 그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떠났다.

악령이 들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고 말았다.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탄을 대표했고, 성령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무리 대단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외쳐 대도 그들은 피조물이며, 사탄에 속한 존재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굳이 외칠 필요가 있겠느냐? 높이 치켜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위나 어떤 존칭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 자신 아니었더냐? 성육신 하나님 아니었더냐? 설마 그가 증거된 후에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있지 않았더냐? 네가 새 길을 열지 못하면 영을 대표할 수 없다. 영의 사역과 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영이 하는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함, 난측함, 사람을 형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다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자처해도 허울만 있을 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 사역을 행하며, 또한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네가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님이든 그리스도든 자매든 어떻게 불러도 괜찮다.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영의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변한다. 그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 사람이 그에게 붙인 호칭으로 그의 사역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고 영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영이 인정하는 존재이다. 네가 새 시대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옛 시대를 끝낼 수도 새 시대를 열 수도 없으며, 새 사역도 하지 못한다면, 너를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없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비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을 직접 대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을 직접 하나님의 경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의 경영’을 뜻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그가 자신의 경륜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역이며 커다란 경영과 관계된 일이다. 반면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개인의 체험을 공급하고 앞사람이 개척한 길을 이어 다른 체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른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급하는 것은 다 개인의 체험이나 영적 인물의 영적 저술이다. 성령께 쓰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6천 년 계획 중 큰 경영과 관계된 사역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다른 각 단계에 성령이 세운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이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뿐이다.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적합한 길을 예비하거나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경영 사역의 한 부분을 이어 가는 것뿐이다. 그들은 경영 안에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없고,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의 옛 시대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할 뿐, 하나님 자신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사역과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대를 여는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이나 깨우침을 받아서 하는 사역이다. 그들의 사역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이 없고 영의 사역을 대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가 한 사역은 모두 길을 인도하는 것으로, 새 길이든 옛길이든 모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지방 교회를 회복시켰든 세웠든, 결국에는 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전부 은혜시대에 예수와 다른 사도들이 다 하지 못했거나 심화시키지 못한 사역이었다. 그들의 사역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례를 받고,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 등은

모두 예수가 사역할 당시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을 회복하여 행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역은 다 성경을 지키고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진전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성경에서 새 길을 발견하고 더 훌륭하고 현실적인 실행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을 뿐,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말세에 하나님이 하려는 더 새로운 사역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들이 계속 옛길을 가며 새로워지지 않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실행을 고수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니,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지켰다. 나아가 “자매는 설교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라는 전통 관념을 고집하였다. 그들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이끌어 간다면 성령은 영원히 새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규례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며 사람을 자유롭고 아름다운 경지로 인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바꾸는 이 단계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하고 친히 말씀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지금 이 흐름 밖에 있는 성령 역사는 모두 정지되어 있고, 한때 성령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다르고, 그들의 신분이나 대표하는 대상도 다르다. 이는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똑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도 몇몇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고 옛 시대의 사역들을 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 나타내려는 성품과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저 옛 시대의 사역을 폐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대변하는 새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낡은 방식을 얼마나 폐하든, 또는 새로운 방식을 얼마나 가져오든, 그들은 사람을 대표하고 피조물을 대표할 뿐이다. 반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역할 때는 공개적으로 옛 시대의 방식을 폐한다고 선포하지 않고 시대를 열 것이라고 직접 선포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자신이 하려는 사역을 행한다. 즉, 직접 자신이 가져온 사역을 선포하고, 자신이 본래 하려던 사역을 행하며, 자신의 어떠함과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의 성품이 과거 시대와 다르고 그의 사역도 과거의 시대와 다른 것 같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역을 이어 가고 더 심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새로운 사역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사역은 사고나 연구를 거쳐, 또는 다른 사람이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인식을 심화하고 실행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 다른 사람이 도출한 결론을 기반으로: (직역) 다른 사람의 기초에서

하는 사역의 본질은 ‘정해진 대로 착실히 따르고’,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가는’ 것이다. 즉,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척한 길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요한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처럼 약속으로 태어났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았고 수많은 사역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에 속한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는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도 매우 큰 일을 했다. 그가 앞에서 길을 잘 닦아 놓은 후에야 예수님이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한 것에 해당하며, 그가 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바지한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이 길을 닦아 놓은 후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더 새롭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했다. 요한은 시작 사역만 했고, 더 많은 새 사역은 전부 예수님이 했다. 요한도 새로운 사역을 했지만, 그는 새 시대를 여는 자가 아니었다. 요한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의 이름 역시 사자가 지어 주었다. 당시에 누군가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사가라라고 하자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지시했다. 예수님의 이름도 성령이 지시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약속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인자였다.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는데 어쩌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단순히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는 자였기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겠느냐?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은 시작일 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반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냈으며 구약 율법도 완전케 했다. 그는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했다. 요한은 길만 잘 닦아 놓았을 뿐이다. 비록 그 역시 큰 사역을 하고 많은 말을 했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데 그쳤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생명과 길 또는 더 깊은 진리를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다. 요한은 큰 선지자(엘리아)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장소를 준비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예비하였으며, 은혜시대의 길을 연 선구자였다. 정상인의 겉모습만 봐서는 결코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 더구나 요한도 매우 큰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약속한 자였고, 성령이 그의 사역을 수호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사역을 통해 각자의 신분을 구별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구별할 수 없고, 사람 또한 무엇이 성령의 증거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고 사역의 성질 또한 같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수님은 시작, 후속, 종결,

성취의 몇 단계 사역을 했지만 요한은 시작하는 사역만 했다. 예수는 처음에 회개의 도를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마지막에는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으로써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완성했다. 예수는 또한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 점은 요한과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사람들에게 은혜시대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은혜시대에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과 가야 하는 길은 전부 그의 입에서 나왔다. 또한 마지막에 그는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요한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한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직접 하나님을 대표한 것이다. 사람은 약속으로 태어나고, 영으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의 수호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이런 설에 따르면 요한도 하나님이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등도 모두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몹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예수도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정상인으로서 성령이 하는 대로 따랐다. 그 당시 예수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했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성령은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규례와 율법들을 폐한 것은 직분을 시작한 후의 사역이었으며, 그의 말씀에 권병이 가득하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그가 정식으로 직분을 시작한 뒤의 일이었다. 예수는 직분을 시작한 후에야 시대를 개척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성령이 29년 동안 그의 몸에 은밀히 거했다. 그 29년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의 신분은 없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가 사역을 하고 직분을 이행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던 상관없이 그는 자기 계획에 따라 사역했다. 직접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 사역한 것이다. 당시 예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당신은 가장 큰 선지자이고 우리의 훌륭한 의사이니이다”라고 대답했고, 또 어떤 이는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니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온갖 대답이 다 나왔다. 그를 요한이나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예수가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분을 공개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알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하나님을 대변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하기 위해 왔지, 자기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한 후로 예수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알게 되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때가 되자 사역을 시작했다. 네가 그에 대해 알든 모르든 예수는 계속 변함없이 사역을 했을 것이며, 설령 네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하고, 때가 되면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사역을 하고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왔다. 사람들에게 자기 육신을 알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지금의 이 단계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네게 이상(異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 사역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거나 사역을 잘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을 지금의 사역과 맞추려 하나, 맞지 않자 이 단계 사역을 부인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 눈먼 것 아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제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할 수 없다. 4복음서를 모두 합쳐도 100장이 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일, 금식에 관한 것, 기도에 관한 것, 아내를 버림에 관한 것,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들을 세운 것 등등 얼마 되지 않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보배로 여기고 지금의 사역과 대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평생 행한 사역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이 그 사역들 외에는 다른 사역을 못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예수가 땅에 머문 시간은 33년 반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땅에서 33년 반을 살았다. 하지만 그중 직분을 이행한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 인성의 생활을 했다. 예수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의 성경 강의와 다른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보고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가 열두 살 때 회당에서 선생들에게 질문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옛 선지자의 예언,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을 질문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몰랐고, 또 분명히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성격에 특별한 부분이 조금 있었을지라도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그의 지혜도 점점 자랐는데, 정상 인성의 생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서른 살의 생활을 했으며, 사역을 마친 뒤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정상인의 생활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또 그는 하나님이므로 밥을 먹지도 않고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또한 그를 쉽게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는 이상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사람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성인(聖人)이기 때문에 양치질이나 세수를 하지 않아도 깨끗할 거라고 여긴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관념 아니겠느냐? 성경에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의 인성 생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정상 인성이 없었으며, 그가 서른 살 이전에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가 스물아홉 살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스물아홉 살 이전의 인성 생활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성경에 그 부분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그 기간의 생활은 신성으로 사역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상 인성의 생활이었으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직분을 이행해야 하는 날까지 정상인의 생활을 유지했을 뿐이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이었지만, 정상 인성이 성숙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명 성장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성경에는 이 성숙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예수가 세례를 받기 전의 기간은 은밀한 단계였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행한 모든 사역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속량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사역이다. 이 사역의 시작은 곧 은혜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즉, 그 사역은 은혜시대 사람들이 은혜시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 사실이다. 몇몇 일들의 기록에 작은 오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일’은 완전히 사실이다. 다만 사람이 기록한 것에 오차가 있을 따름이다. “예수님은 평범한 정상 인성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수 있었나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수가 40일간 시험을 받은 것은 이적과 기사로, 정상인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40일간 시험받은 것은 성령 역사에 속하는데, 그에게 초자연적인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고 해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성령이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가 이적을 나타내고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이 그의 몸에 내려오기 전까지 예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초자연적인 면이 전혀 없었다. 성령이 그의 몸에 임했을 때부터, 즉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초자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는 정상 인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게다가 성육신 하나님께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하므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이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또한 모두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가 행한 것과 말한 것은 사람이 알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왔는데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천국의 비밀을 땅으로 가져왔으니 사람이 깨달을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기묘하고 지혜롭다. 이것이 모두 초자연적인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너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것이라도 전부 정상 인성에서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다 인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이 아니다. 예수가 그때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천사도 보고 사자도 보았으며, 또 여호와가 발하는 음성도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일 아니더냐? 물론 지금 어떤 악령도 초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것은 악령이 모방하는 것으로, 지금 성령이 하지 않는 역사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 많은 자들이 이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는 모두 악령이 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은 그런 사역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이 행한 것을 나중에 모방하는 것들이야말로 악령이다. 지난날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은 모두 초자연적인 사역이었다.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과 모방, 사탄의 방해에 속한다.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악령에 속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를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자연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너는 그가 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닿을 수도 없다. 사람은 그가 한 사역을 행할 수 없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당신처럼 평범한데, 당신이 아는 것을 저는 왜 모를까요? 당신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는데 어떻게 제가 모르는 일을 알고 있나요?” 이는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을 아무도 모르고 성경 해석가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요?” 이러한 것도 다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는 기이한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알고 있으며, 전혀 힘들이지 않고 말씀을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 아니겠느냐? 그가 행하는 것은 육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주를 초월했으며, 육체의 사유로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고 사람의 두뇌와 이성으로는 전혀 생각해 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는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 알고 있고, 땅에 있어도 셋째 하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은 ‘이것은 셋째 하늘의 말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다 정상인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일 아니냐? 지난날 예수가 40일간 금식한 것은 초자연적인 일 아니냐?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다 초자연적인 일이고 다 악령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예수를 정죄하는 것 아니겠느냐? 직분을 이행하기 전에 예수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았고, 그도 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글을

알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하면 영이 육신에 은밀히 거하지만, 정상인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고가 성숙하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후에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성이 성숙해져야 직분을 이행할 수 있다. 정상 인성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직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예닐곱 살에 직분을 이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왜 성육신하자마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그의 육신이 가진 인성이 성숙되지 않았고 육신의 사고와 정상 인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상식을 갖추어 육신에서의 사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역을 담당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 성장해야 한다. 예수가 일고여덟 살 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은 모두 그를 신동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누가 믿고 복종할 수 있었겠느냐? 일고여덟 살 아이가 강단에 서면 강대상보다도 키가 작을 텐데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정상 인성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사역을 담당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역은 성숙되지 못한 인성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사역할 때도 원칙이 있다. 그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춘 전제하에서만 아버지를 위해 사역을 담당할 수 있고 아버지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는 유년 시절에 오랜 옛날의 일들을 전혀 몰랐고, 회당에 있는 선생들에게 물어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만약 예수가 말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사역하기 시작했다면 착오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잘못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에 그는 사역할 수 있게 된 뒤에야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사역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는 스물아홉 살이 되었을 때 상당히 성숙해져 있었으며, 그의 인성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그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닦으며 7년 동안 예비해 놓은 후였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친 후 투옥되었고 모든 집은 예수가 짊어지게 되었다. 만약 예수가 스물한두 살에 그 사역을 했다면, 인성이 너무 부족한 데다가 막 청년기에 들어선 때라 모르는 일도 많아 방향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요한이 일정 기간 사역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가 사역을 했다. 예수는 사역할 때 이미 중년이었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정상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의 성육신 하나님에게도 정상 인성이 있다. 비록 너희 중 나이 많은 자에 비해 성숙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성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의 사역이 예수 때와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당시 예수는 왜 열두 사도를 택했겠느냐? 모두 그의 사역을 수호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당시 그의 사역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였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였다. 예수가 당시 사역에 따라 열두 사도를 택한 것은 예수의 뜻이자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다. 예수는 열두 사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후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서 전도했다. 하지만 오늘날 너희들 가운데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데는 많은 원칙이 있으며,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사람은 늘 자기 관념을 가지고 대조하거나 하나님께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식이 순전히 관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하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말씀이 육신 된 이상 육신을 초월하여 사역할 수 없고,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물거품이 되고, 나아가 ‘말씀’이 육신 된 의의가 아예 없어진다. 더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영)만 알 뿐, 그 외에는 육신 본인조차 모르고 하늘의 사자도 모른다. 이렇듯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더없이 정상적이며, 또한 확실히 ‘도’가 육신 되고 ‘말씀’이 육신 된 것임을 더 잘 나타낸다. 그 육신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시대를 여는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까? 피조물은 대신할 수 없단 말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물론 새 시대를 여는 동시에 옛 시대도 끝낸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그가 직접 사역을 전개했으므로 옛 시대를 끝내는 것도 그가 직접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증거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사역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으면 당연히 옛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 옛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만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영원히 낡은 시대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사탄의 낡은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시대를 한 번 이끌어 주면 사람은 어느 정도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기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이긴다. 시대를 끝내는 일을 창조된 인류에게 맡긴다면 사람이나 사탄의 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사역이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열어 놓은 시대에서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야만 사탄이 완전히 굴복할 수 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이 오직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각자 본분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를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사역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사탄을 물리치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시대를 열고 나면 더 이상 친히 인간 세상에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은 본격적으로 새 시대로 들어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하고, 피조물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이는 모두 사역의 원칙이므로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 그는 사역을 전개하는 분이자 사역을 끝내는 분이며, 사역을 계획하는 분이자 사역을 경영하는 분이고 나아가 사역을 이루는 분이다. 성경에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이자 곡식을 거두는 자이니라.’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그의 경영과 관계된 이 모든 사역은 그가 직접 행한다. 그는 6천 년 경륜의 주재자이며,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하거나 그의 사역을 끝낼 수 없다.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이상 온 세상이 그의 빛 속에서 살도록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전체 시대를 끝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룰 것이다!

성육신의 비밀 2

지난날, 예수는 유대에서 공개적으로 사역했지만,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과 말씀은 은밀하기에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모두 폐쇄적이다. 이 말씀과 이 형벌, 심판은 너희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모른다. 이 사역은 모두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으로, 오직 너희에게만 열려 있고 이방인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곧 온전케 될 것이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이 사역은 참으로 은밀하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밀히 감추어져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고 자유롭게 하지만,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지,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이 철저히 폐쇄적인 것은 그들이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알게 된다면 정죄하고 핍박하기만 할 뿐, 믿지 않을 것이다.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낙후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역을 공개한다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 단계의 사역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사역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더 큰 위험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역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예수 때처럼 기세 높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겠느냐?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나는 벌써 온몸이 으스스리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적과 기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비밀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도 은혜시대의 예수처럼 사역한다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밀하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역에도 유익하다.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 즉 은밀한 사역이 끝날 때, 이 사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국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중국에 왔고 그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쇠락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국에서 친히 사역하여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가 친히 사역하는 동안 자신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뿐,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지,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반드시 그가 친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사역해야 한다.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난다. 앞으로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만민에게 나타내는 것은 그의 공의 성품과 모든 행사일 뿐, 그가 두 차례 성육신할 때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그의 성품으로만 드러날 뿐, 성육신의 형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은 일부 한정된 사람들, 즉 육신으로 사역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은 은밀한 사역이다. 이는 예수가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을 뿐 유대인 외에는 그 어떤 족속에게도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는 사역을 완성한 후 인간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일찌감치 떠났고, 그 후에도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역사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면 그는 인간 세상을 떠나며, 그 후에는 육신으로 있었던 동안 행한 것과 비슷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후의 사역은 모두 성령이 직접 한다. 그 기간에 사람은 그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의 형상을 보기가 어렵다. 그는 결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영원히 모습을 감춘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대, 특정 시간,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 가운데서 행해진다. 그 사역은 오직 성육신한 기간의 사역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시대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한 개 시대에 행하는 사역만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형상이 만민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 만민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성품이지, 하나님이 두 차례 입은 육신의 형상이 아니다. 또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의 형상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반드시 땅을 떠나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하러 온 것일 뿐 그의 형상을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두 차례 성육신을 통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본 적 없는 다른 어떤 족속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는 두 번 다시 유대인에게 공의로운 해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감람산에 올라 만민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본 것은 오직 예수가 유대에 있었을 때의 초상화뿐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사역은 이미 2천 년 전에 끝났으므로 그는 다시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유대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유대인의 형상으로 이방의 다른 어떤 족속에게 나타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성육신한 예수의 형상은 요한이 보았던 ‘인자’의 형상이 아니라 유대인의 형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가 유대인의 형상을 지니고 이방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성육신’의 사역은 시대를 여는 사역이고 한정된 몇 년간의 사역이므로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예로, 예수의 유대인 형상은 유대에서 사역한 하나님의 형상만을 대표할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사역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 시대를 끝내고 인류를 멸하는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사역을 끝낸 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에게 영원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부터 이방의 충성스러운 신자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벽에 붙여 놓은 예수의 초상화만 보았는데, 그 초상화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앞에 나타난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그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두 차례 성육신한 형상을 지니고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그가 공개한 성품과 행한 사역으로 도달한 것이지 예수의 현현을 통해 이룬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공개할 때는 성육신의 형상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공개한다는 뜻이다. 그가 한 사역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의 성품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성육신하여 행하려는 사역의 의의다.

두 차례 성육신의 사역이 끝나면 그는 이방의 각 족속에게 그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만민이 그의 형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냄으로써 옛 시대 전체를 끝낼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그리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예수는 유대에서만 사역했고 오늘날에는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육신의 사역에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의 형상을 통해 짧게 사역할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영세의 사역을 하거나 이방의 만민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유대에서만 하거나 너희들 가운데서만 하는 것처럼), 그 범위 안에서 행한 사역을 통해 다시 사역 영역을 확대한다. 물론 확장하는 사역은 그의 영이 직접 행하며, 그때는 그가 입은 육신의 사역이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는 것이지, 전 우주 아래의 구석구석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의 영은 육신으로 한 사역을 통해 그 후의 사역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유한한 범위에서 하는 시작 사역이며, 그 후에는 그의 영이 그 사역을 이어 나갈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대해 역사한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시대를 이끌어 가고 새 시대를 열며 또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땅에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걸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인간 세상의 온갖 고초를 몸소 체험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며, 친히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아니다. 그의 사역은 단지 새 시대를 시작하고 옛 시대를 끝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시대를 시작하고 시대를 끝내며, 친히 사역하는 방식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가 친히 행하는 모든 사역은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 우선 육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 모든 영광을 얻고, 2천 년 전체 사역의 ‘서막’을 연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 주며 평안하고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어쨌든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인의 일생을 살 수 없다. 즉, 지극히 평범한 정상인처럼 세상에 상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는 정상인이 갖추고 있는 정상 인성 중 아주 작은 부분만으로 인성의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가 정상 인성을 가진 것은 단지 정상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지, 정상인처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먹고 입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러니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상 인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뿐이다. 즉, 육신이 하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 그의 육신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 사역을 할 뿐이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의 육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높이 받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사역하는 지혜와 그의 모든 권병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뛰어난 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선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너희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도 그의 정상 인성을 널리 알리거나 증거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성과 어찌함을 선전하며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그가 지닌 신성의 어찌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때 자신의 어찌함을 소개함으로써 탄복과 복종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행하는 사역(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만으로 사람을 정복한다. 그는 사람을 탄복하게 하거나 숭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경외심을 느끼거나 그를 측량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할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네가 그의 성품을 보고 그를 경외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며, 이는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 시대를 열어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의 사역은 모두 인성이 정상적이고 사람을 탄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행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은혜시대에 2천 년의 사역을 육신을 입고 있던 33년 중 3년 반 만에 끝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는 언제나 2천 년, 또는 전체 시대의 사역을 몇 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 시간을 끌지 않고 날짜를 연장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랜 기간의 사역을 가장 짧은 몇 년 안에 단축해서 완성할 뿐이다. 그가 몸소 사역하는 것은 오직 새로운 길을 열고 새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의 비밀 3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은 무엇을 세우거나 어떤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성육신할 때마다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 뿐이다. 지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섰으며 하나님나라의 훈련에 진입했다. 이 단계에 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또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부 사역을 완성할 뿐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을

만물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낸 다음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직분을 완수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즉, 땅에서의 사역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하나님은 땅에 와서 사역할 때,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그 밖에 그의 직분과 무관한 일은 거의 간섭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할 뿐이며, 특히 사람이 해야 할 사역에는 더욱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그의 해당 시대와 그의 직분에 관련된 사역만 하며, 그 외의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을 더 많이 갖추지 않고, 사교적인 기술을 키우지도 않으며, 그 밖에 사람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갖추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것들에 아무 관심도 없다. 오직 직분 내에 있는 사역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육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보이며, 더욱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많은 것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생활 상식이나 사람으로서의 처세 원칙 같은 것들은 그와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너는 성육신 하나님에게서 비정상적인 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인성을 통해 정상적인 인성 생활과 정상적인 이성을 유지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외의 것들은 오직 사람(피조물)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다. 그는 전체 시대를 겨냥해 사역하는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을 겨냥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상대로 사역한다. 이것이 그가 사역하는 방향이자 원칙이다.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절대 관여할 수도 없다. 성육신할 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사역을 가져올 뿐,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70~80년이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도 전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관념만 키우고 사람의 관념과 사상을 더 굳어지게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설마 너희는 “나는 정상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상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잊은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오직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짧다. 그가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을 훌륭한 교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온 자체가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단지 사람이 그가 하는 사역을 모르기에 그에게 강요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 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육신을 육성하여 그 육신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은 육성된 것이 아니라 ‘도’, ‘말씀’이 ‘육신’ 되어 지금 본격적으로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도 하지만, 모두가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려는 사역, 나아가 그의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 할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네 상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오직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다. 이는 사람의 기능과 크게 다르므로 양자를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역을 하려면 오랜 시간 양성되고 온전케 된 후에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매우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세의 원칙과 법칙을 많이 알고 사람의 지혜와 윤리 지식도 많이 배워야 한다.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추 필요가 없다. 그는 사람을 대표해 사역하거나 사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물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 하며,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사역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인성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는 직분을 이행해야 할 때 자신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며,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고 있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예수가 사역할 때도 그가 대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역만을 해 나갔다. 그러한 것은 그가 해야 할 사역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거나 알리지 않고 그저 자신을 따르게만 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낯춤이었으며, 또한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알 방도가 없었고, 설령 사람이 알아본다 해도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성육신한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육신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하고 그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다 끝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크게 알리지도 않고 묵묵히 지낸다.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를 어떻게 따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한다. 그의

사역은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가 사역을 끝낼 때가 되면, 사역은 반드시 끝나고 종결된다. 아무도 이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가 사역을 끝내고 떠난 뒤에야 그의 사역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가 사역할 때의 뜻을 사람들이 완전히 알게 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 시대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육신의 직분이 끝나면 다른 한 부분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맡겨서 행하게 된다. 이때는 사람이 자신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 주었으므로 사람 스스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이 일부 사역을 한 뒤에 성령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그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단계 사역에서 성육신 하나님이 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가 무엇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이자 사람의 관념이며, 더욱이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사람의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며, 사람의 분별력을 훈련시키기 위함도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경배하게 함으로써 큰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일부러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그의 성육신은 언제나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의 상상과 달리, 더 큰 사역과 더 큰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땅에서 살피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렇게 큰 중임을 짊어지고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육신은 부득이한 일로, 거기에는 모두 특별한 의의가 있다.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절대로 쉽게 인간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땅에 온 것은 그의 경영과 그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이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한 그는 시대를 대변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육신을 입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으며, 더욱이 전 인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경영, 그리고 전 우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알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했다면 어째서 세계를 일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곳을 택해 머무르며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시작했다. 이 육신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시대 전체를 대변하고 또 시대 전체의 사역을 전개했다. 그는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과 관계되는 큰일이고, 하나님이 땅에 와서 행하는 한 단계 사역의 의의이다. 지난날, 예수는 땅에 와서 일부 말씀과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의 생명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끝낸 뒤에 떠났다. 오늘날도 내가 하려는 말을 다 하고 너희에게 알려 주어 너희가 모두 이해하게 되면 이 사역은 끝나게 된다. 너희의 생명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누군가 이 사역을 잇고, 이 말씀을 이어서 땅에서 사역해야 한다. 그때는 사람의 사역과 사람의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사역하여 직분을 이행하고 한 단계 사역을 완성하는 시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역과 다르다. 사람은 예배와 좌담회를 좋아하고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사람들의 회의를 제일 혐오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편하게 대화하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자유로우며, 너희 역시 자유롭게 해 준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며, 규례와 같은 너희의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다. 나는 규례를 가장 혐오한다. 그것은 사람을 감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게 제약하면서 오로지 너만 똑바로 바라보게 만든다. 나는 너희의 그런 예배 방식을 가장 혐오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혐오하는 것은 대예배다.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모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런 생활은 사람에게 구속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식과 규례는 너무 많아서 너희더러 사람을 이끌라고 하면 규례 속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너희의 인도로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점점 종교적 색채가 짙어지고 사람의 관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지치지도 않는다. 열흘이 넘도록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영이 자유로워지는 생활이 아니라 대예배이자 사람의 회의다. 모든 것이 회의다! 나는 너희의 사역자 모임, 대예배, 소예배를 모두 혐오하고 전혀 관심도 없다. 내 사역에는 원칙이 있다. 나는 예배에서 ‘설교’하고 싶지 않고, 대중 앞에서 무엇을 크게 선전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를 불러 모아 며칠씩 ‘특별 예배’를 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고지식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의식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염증이 나며, 너희의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너희가 그럴수록 나는 더 혐오감을 느낀다. 나는 너희의 그런 의식과 규례에 아무 관심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나는 다 혐오한다. 너희가 잘 계획하지 못했거나 너희가 너무 비천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런 생활을 싫어하고 더욱이 그런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하려는 사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지난날 예수는 사역할 때, 한 지역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성을 떠나 그들이 알아야 할 도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예수는 보통 그렇게 사역했다. 예수가 대중 가운데서 사역한 것은 매우 드물다. 너희의 요구대로라면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인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사역을 해야 하고, 앓을 때도 설 때도 걸어갈 때도 말을 해야 한다. 계속 사역만 해야 하고 ‘운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적인 요구더냐?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내가 사역하는 것도 너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나의 직분을 이행하는데도 너에게 감시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내가 사역을 많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의 사역은 끝났다. 4복음서에서 예수가 했던 말씀들을 보아라. 모두 적지 않더냐? 당시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도 길어야 몇 분이면 끝났다. 그는 말씀을 마친 뒤 아무런 해석도 해 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다. 기껏해야 회당의 사람끼리 서로 의논했을 뿐이며, 이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그 외의 사역은 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은 내가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말해야 한다면서 많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 너희는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모두 눈이 멀었다! 모두 짐승이다! 사리를 모르는 것들이다! 너희는 관념이 너무 많다! 너희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 너희는 인성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너희는 ‘강연자’나 ‘설교자’는 모두 하나님이고, 기꺼이 ‘말씀’을 공급해주는 자는 모두 너희의 ‘친아비’라고 생각한다.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비범한 외모’를 가진 너희가 일말의 이성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하늘해(원문: 天日)를 알고 있는지 말해 보아라! 너희 개개인이 모두 탐관오리 같은데 어떻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시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자가 너희 중 몇이나 되느냐? 그것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누가 열어 준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계속 나에게 그 억지스러운 요구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낮 뜨겁지 않느냐? 내가 해 준 말이 아직도 적단 말이냐? 내가 한 사역이 아직도 적단 말이냐? 너희 중에 진정으로 내 말을 보물처럼 여기며 아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모두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기만한다! 너희의 작태가 너무도 비열하고 역겹구나!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말씀과 사역을 바라는 것이 너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 호강을 하고 시야나 넓혀 보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적잖은 말을 해 주었으니 너희의 삶은 진작 변화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아직도 고질병이 도지고 있단 말이냐? 설마 누가 중간에서 내 말을 가로채 너희가

얻지 못했던 말이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희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쓸모없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그저 시야를 넓히거나 볼거리를 얻고자 할 뿐 생명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너희에게 묻겠다. 내가 너희를 마주하며 한 말을 너희는 얼마나 실행하였느냐? 너희의 행실은 전부 사람을 속이는 수법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 중 구경꾼 같은 자들을 혐오하고, 너희의 호기심에 심한 혐오감을 느낀다. 참도를 추구하거나 진리를 사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다 내가 혐오하는 대상이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은 그저 호기심이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진리의 존재를 찾거나 생명의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길을 탐구하려는 마음이 없다. 너희에게는 이런 바람이 전혀 없으며, 너희는 ‘하나님’을 장난감 삼아 연구하고 감상할 뿐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은 아주 작지만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그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한다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희는 생명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마라! 호기심을 생명 추구의 근본으로 삼지 말고 또한 그것을, 내게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핑계로 삼지 마라. 이는 다 너희가 가장 잘 쓰는 수법이다! 다시 한번 너에게 묻겠다. 내가 너에게 진입하라고 한 것을 너는 얼마나 진입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이해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실천했느냐?

각 시대의 사역은 다 하나님이 직접 시작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특별 집회’를 열어 주는 것도 아니며, 어떤 단체를 설립해 주러 온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러 왔을 뿐이다. 그는 사역할 때 그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인식하든 상관없이 그는 오직 자신의 사역을 할 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 단계의 사역이 있었다. 여호와 때부터 예수 때까지, 율법시대부터 은혜시대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특별 집회를 연 적이 없고, 인류 전체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세계 사역 특별 집회’를 열어 자신의 사역을 확장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합당한 때 합당한 곳에서 전체 시대의 시작 사역을 하고, 이로써 시대를 열고 인류의 삶을 인도할 뿐이다. 특별 집회는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을 소집해 절기를 함께 보내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하고, 특별 집회를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혐오한다. 이제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성육신의 비밀 4

너희는 성경의 실상과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갖추지 못한 것들이다. 그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 네가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면 그들은 너와 성경을 놓고 따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그 말씀은 이루어졌나요?”라며 예언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을 따른다. 또한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성경을 파헤치며 네게 해석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성경과 맞춰 보지 말고 먼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성령 역사인지 진리로 대조하고,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성령 역사로 검증합시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인간은 참견해선 안 됩니다. 성령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만이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또 하나님 자신만이 그 일곱 인을 떼 수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도 저도 하나님이 아닌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감히 그 말씀을 해석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와도, 요한이 와도, 엘리야가 와도 감히 그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다 어린양이 아니니까요. 오직 어린양만이 그 일곱 인을 떼 수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지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칭하는 짓을 저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은 그 누구도 감히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해석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역사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습니까. 저는 여호와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약간만 알 뿐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어 조금밖에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해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작은 두루마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양만이 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양 말고 누가 또 펼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린양이 아니고, 저 또한 감히 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일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거나 따지지 말고 성령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원칙이 무엇이고 본질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봅시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특히 종교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하고 성경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네가 큰 방향을 잡은 뒤 그들과 성경의 죽은 글귀를 파헤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과 생명과 진리만을 말한다면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제정한 율법,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준 원칙, 율법시대에 사역한 내용, 율법을 제정한 의의, 그리고 그가 행한 사역이 은혜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마지막 단계에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너희는 모두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율법시대의 사역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은혜시대의 사역이며, 세 번째 단계는 말세의 사역이다. 너희는 이 몇 단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3단계 사역이다. 각 단계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고, 6천 년 경륜 사역은 몇 단계에 걸쳐서 했는지, 이 몇 단계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각 시대의 사역은 대표성을 지닌다. 너희는 여호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째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은혜시대에 예수는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각 단계 사역과 각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대표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율법시대에는 어떤 성품을 나타냈는지, 은혜시대에는 어떤 성품을 나타냈는지, 마지막 시대에는 또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너희가 알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다. 6천 년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부 나타냈다. 은혜시대에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율법시대에만 나타낸 것도 아니며, 말세에만 나타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심판, 진노, 형벌을 대변한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율법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 없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대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세 단계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며,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시대를 나누어서 행한 사역이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마무리 사역이고, 율법시대의 사역은 시작 사역이며, 은혜시대의 사역은 구속 사역이다. 6천 년 경륜이라는 이 사역의 이상(異象)은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해 줄곧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말세에는 말씀 사역만으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를 열었지만 그것이 모든 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말세는 그저 말세이고 하나님나라시대일 뿐, 은혜시대나 율법시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세에 6천 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보여 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여는 것이다. 이런 비밀은 어떤 사람도 열지 못한다. 사람은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해도 글귀를 아는 데 그칠 뿐이다. 성경을 보고 진리를 얼마간 깨닫거나 글귀를 조금 해석하고 유명한 장절을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그 글귀 속에 담긴 뜻은 영원히 풀지 못한다. 사람이 본 것은 죽은 글귀이지, 여호와와 예수가 사역한 현장이 아니며, 또한 사람은 그 사역들의 비밀을 풀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6천 년 경륜의 비밀은 가장 신비롭고 은밀하며, 사람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그가 직접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거나 풀어 주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수수께끼’요, 영원히 닫혀 있는 비밀이 될 것이다. 종교계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역시 오늘날 이렇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6천 년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의 예언보다 더 신비로운,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비밀이며, 역대의 선지자도 측량하지 못한 것이다. 이 비밀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야 열리며, 이전에는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고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종교계 인사들은 이 비밀에 정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상이며, 사람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또 가장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은혜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예수가 행한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다. 또한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째서 율법을 제정해야 했는지, 어째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어째서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오늘날에야 이런 일들을 밝히게 된 것이다.

말세 사역은 3단계 사역 중 마지막 단계 사역이자 새 시대의 사역으로, 전체 경영 사역을 뜻하지는 않는다. 6천 년 경륜은 3단계 사역으로 나뉘는데, 어느 단계든 한 부분만 대변할 뿐, 세 시대의 사역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변할 수는 없다. 또 그가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호와는 사람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고 계명을 반포했으며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게 했다. 그가 한 사역은 율법시대만 대변한다. 그가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만 하는 하나님,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 제단 앞에만 있는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율법 아래의 사역은 한 시대밖에 대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사역만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다. 만약 은혜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율법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공홀과 자비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지 않고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속량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하는 분이라고, 그는 거룩하고 무고한 분이며,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분이라고만 알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일부만을 대변한다. 율법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는 성품이 있으며, 이번 단계를 대변하는 또 다른 성품도
 있다. 이 3단계 사역을 종합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나타나며, 사람은 3단계 사역을
 알아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알게 된다. 3단계 사역 중에 어느 한 단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
 너는 3단계 사역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류를 속량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전부 사람이 규정한 것이다.
 은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속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말씀 사역을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공홀히 여긴 적이 없이 형벌과
 심판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세의 사역은 여호와가 했던 사역, 예수가 했던 사역,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밝혀 주고, 나아가 인류의 종착지와 결말을
 드러내며,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끝낸다. 말세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반드시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다 열어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다. 사람은 6천 년 경륜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의 경영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사역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이 그저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규정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비밀을 밝히는 하나님이고 어린양이며, 일곱 인을 떼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꼭
 그렇다고 규정짓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된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성육신해서 이적과 기사는 나타내지 않고 말씀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예수가 성육신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으니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6천 년 경륜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이
 지금에야 끝나게 되었다. 모든 사역을 사람에게 일일이 나타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뒤에야 사람은 그의 모든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된다. 이번 단계 사역을 완성했을
 때면,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모두 밝혀졌을 것이며, 사람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모두
 알게 했을 것이고,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인류의 종착지도 모두 알려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단계에 하려는 모든 사역이다.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받는 길이지만, 실행하는 것과 오늘날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은 율법 아래 사람이냐 은혜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 오늘날 사람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 다르며, 율법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요구와는 더더욱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율법 아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구했더냐?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충분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았고, 누구도 여호와와 율법을 어길 수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안식일이 되어도 평소처럼 일한다. 예배를 해야 하면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하며, 조금도 통제받지 않는다. 은혜시대 사람들은 세례받고 금식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발을 씻어야 했다. 지금은 이런 규례들을 모두 폐했고 사람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깊어지고 사람의 진입도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예수가 안수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다 했는데 안수를 해서 뭐 하겠느냐? 말씀으로 직접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때는 안수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성령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역의 성과를 거둔다.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으니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바로 그의 뜻이고 그가 하려는 사역이다. 그가 한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알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안수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실천하면 된다. 어떤 이는 “안수를 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받을 분깃이 있도록 안수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는 다 과거의 낡은 실행 방법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성령은 무턱대고 역사하거나 규례에 맞추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역사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새 사역이 동반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이 다 그렇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중복된 적이 없다. 은혜시대에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역을 적지 않게 행하였다. 오늘날에도 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은혜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누구든 지극히 선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발전하여 형벌과 심판으로 사람의 패역과 사람 내면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없앤다. 과거에는 속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사람이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어야만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다. 이번 단계는 형벌과 심판, 말씀의 채찍질, 말씀의 징계와 폭로로 사람 내면의 불의한 것들을 드러낸 뒤 구원받게 하는, 속량보다 더 깊어진 사역이다. 은혜시대의 은혜는 이미 사람이 충분히 누렸고 체험했으므로 더 이상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역은 시대에 뒤떨어졌기에 이제는 하지 않는다. 지금은 말씀의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이 심판과 형벌, 연단을 받아 성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내가 한 이런 말 때문이 아니겠느냐? 모든 단계의 사역은 전 인류의 발전 상황과 시대에 따라 행한다. 이는 다 의미 있는 사역이며,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훗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변화는 은혜시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얻은 변화보다 훨씬 크다. 은혜시대에 안수 기도를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지만 사람 안의 패괴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없애는 사역은 없었기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죄짓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사람 안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죄는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사함을 받은 것이지, 사람 안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며,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패괴된 옛 성품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하며, 죄성을 완전히 벗겨 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여 성품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과 생명의 도,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빛 비춤 아래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고,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하며,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가 사역할 때, 예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했다. 사람은 줄곧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고, 대선지자이자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인자한 주님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소경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사탄의 패괴 성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 버려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육체의 평안과 즐거움,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것, 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외에도 선행을 하고 경건한 겉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합격선에 들어선 신자였다. 그런 신자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생명의 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죄를 짓고 자복하기만을 반복할 뿐, 성품이 변화되는 길은 없었다.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였다.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단계 사역이 끝난 후에 또 한 단계의 심판과 형벌 사역이 있는 것이다. 이 단계에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실행할 길을 얻게 한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죄성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사함을 받은 기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을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십자가 사역이 끝났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파괴 성품이 아직 존재한다.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의 파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사람이 적합한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이전 단계의 사역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도 더 크다. 지금은 말씀으로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더 철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육신은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실히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때 직접 영의 방식과 영의 신분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직접 사람을 구원한다면 사람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의 외형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여호와의 구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피조된 사람이 되어야만, 즉 그의 ‘도’를 그가 입으려는 육신에 채워야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도’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직접 그의 도를 듣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도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비로소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면, 사람은 모두 죽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힐 것이다. 첫 번째 성육신은 죄에서 사람을 속량했다. 이는 예수의 육신으로 사람을 속량해 온 것, 즉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사람 안에는 여전히 사탄의 파괴 성품이 존재했다. 두 번째 성육신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이 되지 않고, 죄에서 속량해 온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히 성결해질 수 있다.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말세에 하나님은 인류의 패역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여 인류를 완전히 얻고 정결케 한 뒤에야 구원 사역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3단계 사역 중 두 차례만 성육신으로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이다.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는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사역이고, 나머지 두 단계는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창조된 사람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를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직접 하늘에 간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육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뿐이다. 사람은 이 육신을 통해야만 모든 진리와 도를 깨닫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람의 죄를 충분히 벗겨 버릴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전부 끝나게 되었다. 그가 두 번째의 성육신 후에 또다시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모든 경영이 끝났으며, 말세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그가 택한 사람들을 완전히 얻었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육신으로 되돌아와 사역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말세 사역에서 말씀의 위력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위력을 넘어섰으며, 말씀의 권병은 이적과 기사에 권병을 능가하였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패괴 성품을 다 들추어냈다. 너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어도 말씀으로 들추어내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권병 아니겠느냐? 이는 모두 오늘날의 말씀 사역으로 얻은 성과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그친다. 하지만 사람의 육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며,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사탄의 패괴 성품이 남아 있다. 즉,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에 속하고 더러움에 속한다. 오직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얻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사람을 속량해 온 것은 그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정결케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괴된 사람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 있고 대적과 거역이 남아 있다. 다만 속량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수 있다. 사람이 속량받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많은 독소가 사람 안에 심어져 있었다.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고,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것은 그저 속량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비싼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 온 것이다. 하지만 사람 내면에 있는 독성은 제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심판하고 형벌하는 이번 단계의 사역으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럽고 파괴된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주어진다. 오늘날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말씀의 심판과 형벌, 연단으로 파괴를 벗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사실 이번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자 두 번째 구원 사역이다. 사람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지는데, 이는 말씀으로 연단하고 심판하고 들춰내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관념, 속셈 또는 개인적인 소망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속량되어 죄 사함을 받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과오를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을 과오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육으로 살며 죄를 펼쳐 버리지 못하면 계속 죄를 짓고 사탄의 파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사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많은 사람이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한다. 이러면 속죄 제물이 사람에게 영원히 유효할지라도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이는 구원 사역을 반만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여전히 파괴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원망했고, 생명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파괴 성품 아니겠느냐? 너는 형벌받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높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보다도 더 높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을 내치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리겠습니다! 큰 붉은 용을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크게 외쳤지만 결국 형벌 시대가 오자, 사람의 파괴 성품은 또 드러났다. 사람은 외치지도 않았고 의지도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파괴로, 죄보다 더 깊고, 사탄이 사람 안에 심어 놓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죄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본성을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심판을 통해 성과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그때부터 차츰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외친 것은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이다. 오랜 심판과 형벌로 사람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다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너는 봉사자가 되기 전까지 크게 외치지 않았더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됐어!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거야! 누구나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있다고!”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을 주자 더 이상 외치지 않았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든 저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외쳤다. “누가 내 바울이냐?”라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그는 “제가 바울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욥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욥의 믿음을 갖추겠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주십시오!”라고 했다. 하지만 봉사자의 시련이 닥치자 그 즉시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할 뻔했다. 그 후 사람 마음속의 불순물도 차츰 줄어들었다. 이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두 말씀으로 이룬 성과다. 그것은 심지어 예수가 지난날 이적과 기사를 나타냄으로써 얻은 성과보다도 크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말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병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기적을 보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며, 말씀의 심판은 더더욱 하나님의 권병을 대변하고 전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이 지금 도달한 것, 즉 지금 사람의 분량, 인식, 사랑, 충성심, 순종, 그리고 깨달음까지,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심판으로 얻은 결실이다. 네가 충성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말씀을 통해 이룬 것이다. 이제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확실히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비밀이고 또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이 없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승복하게 되어 더는 연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말씀 속에서 쓰러지고 말씀의 심판 아래 엎드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한다면, 사람은 모두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속에 엎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사람을 폭로하지 않아도 모두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영원히 말씀의 심판으로 자신의 패괴를 깨달아 구원받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 주어 귀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성과를 내는 것이지, 영으로 나타나 사람을 ‘놀라 쓰러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이면서도

비범한 사역을 통해야만 사람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옛 성품을 완전히 들추어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성육신의 실제적인 사역이다.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심판함으로써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야말로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이자 성육신의 의의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말씀으로 얻은 사역 성과를 나타내고 영이 육신에 왔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방식을 통해 그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육신은 평범한 정상 인성을 지닌 외형이지만, 말씀으로 얻은 성과를 통해 그가 권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그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주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선포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그의 말씀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어떤 흑암 세력도 그의 권병을 능가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 사람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된 그의 육신과 그의 권병, 그리고 그의 말씀의 심판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가져온 사역 또한 그가 지닌 권병이다. 성육신한 이유는 육신도 권병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사람이 보고 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든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영이 직접 행하는 사역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성과도 뚜렷하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외형은 권병을 지니고 있지 않아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지만 그의 본질은 권병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그의 권병을 볼 수 없다. 사람은 그가 말씀하고 사역할 때도 그의 권병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 그의 이런 실제적인 사역은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권병을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거스를 수 없는 그의 일면과 그의 진노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는 은밀한 권병, 은밀한 진노, 공개적인 말씀을 통해 말씀의 성과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어조와 말씀의 준엄함, 말씀의 모든 지혜로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권병이 없는 듯한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성육신의 또 다른 측면의 의의이다. 즉, 더 실제적으로 말씀하기 위함이고, 말씀의 실제로 사람에게서 성과를 얻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 하지 않는다면 전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죄악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은 육에 속한 피조물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다르며, 그 성질 또한 달라서 하나님의 영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맞는 구석이 없고,

‘수교’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람이 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이 되어 그의 원래의 사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고 피조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며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지극히 높이 올라 영이 될 수 없을뿐더러 지극히 낮추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한다. 첫 번째 성육신 때처럼 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을 속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직접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속죄 제물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위아래를 몇 번 왕복해야지’, 사람을 하늘로 올려 보내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을 친히 해야 했다. 매번의 성육신은 다 몹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중 한 단계라도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수모를 감내하며 성육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말씀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수많은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사역을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을 얻고, 지금까지 사람이 풀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되며, 역대 선지자와 사도가 한 사역과 사역의 원칙을 알게 된다. 또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고, 사람의 거역과 대적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본질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과 모든 말씀을 통해 영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한 사역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성품도 알게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6천 년 경영 사역을 알게 된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이다. 과거에 네게 어떤 관념이 있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예수의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이번 단계 사역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한 말씀은 역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사역을 능가한다. 선지자가 한 예언일지라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선지자가 한 말은 예언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당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도 아니며, 또 사람에게 진리를 베푸는 것도 비밀을 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베풀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번 단계에서 한 말씀에는 예언도 있고 진리도 있지만, 그 말씀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은 여호와와 사역이었다. 그가 한 사역은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었고, 땅에 사역의 발원지를 마련하기 위한 시작 사역이었다. 당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으므로 첫 단계 사역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어야 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려 준 것은 인류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일으켜 예언을 하게 했다. 그들은 여호와와 인도를 받아 예언을 했지만, 이는 그저 하나님 사역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첫 단계 사역에서는 말씀이 육신 되지 않았으므로 선지자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을 효유했다. 예수가 사역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 말세에 하는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역대에 행한 적이 없다. 비록 이사야, 다니엘, 요한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한 예언은 지금 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말은 예언에 그쳤지만 지금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니다. 내가 모든 말을 예언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이 모두 내가 떠난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말씀 사역은 예수 시대에 한 적이 없고, 율법시대에도 한 적이 없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한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이지만 말씀에도 차이가 있다. 여호와가 한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더냐? 그는 사람이 땅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 그 말씀이 생명과 영적인 일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 여호와가 말씀한 것을 각 지역에 효유했다고 하겠느냐? ‘효유’라는 두 글자는 분명히 알리고 직접 지시한다는 뜻이다. 여호와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그를 경외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쳤을 뿐, 비유 같은 것도 없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었고 심판하거나 형벌한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는 그저 인도하기만 했다. 여호와는 모세를 시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라고 일러 주면서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주워 담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면 썩어 버리니 그날 먹을 양만 넉넉히 거두라고 했다. 여호와는 사람을 꾸짖거나 사람의 본성을 들추어내지 않았고, 사람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여호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와 율법을 반포해 백성들을 이끌어 주기만 한 것이다.

복음을 확장하여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역을 알고 또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각 단계 사역의 실상과 본질, 그리고 사역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네가 교제하는 것을 듣고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이해하고, 세 단계 사역 간의 연계성과 차이점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모두 듣고 난 뒤 세 단계 사역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전부 한 분의 영이 행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그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사역했고, 사역 내용도 말씀도 다르지만, 사역의 원칙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두 번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지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모두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수는 예전에 왔을 때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말이다. 설령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왔더라도, 즉 당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어도 똑같이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단계의 사역은 남자가 하게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사역은 어느 단계든 모두 의의가 있으며, 두 단계의 사역은 중복되지도, 서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예수는 사역할 당시에 독생자라고 불렸다. 독생자의 ‘자(子)’는 남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독생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역의 필요에 따라 예수와 성별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매우 자유롭지만, 모든 단계에 다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두말할 필요 없이 말세에 성육신한 것이 마지막이며, 그는 자신의 모든 행사를 보여 주기 위해 왔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여자가 아닌 남자일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것이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자여야만 하고, 여자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권병이 있으며, 그 권병은 남자만 담당할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남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할 뿐, 여호와가 처음에 만들었던 남자와 여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자는 마땅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하며,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와 율레이자 법도이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다만 인류(남자와 여자)가 여호와와 권세 아래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규를 지키며 질서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남자와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조된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별에 따른 규칙을 만든 것이다. 여호와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은 육신 또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됐을 뿐이지,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의 두 차례 성육신 또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의 생각대로 결정되었다. 즉, 파괴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당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에게 여호와가 했던 말씀을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에 적용한다면, 예수 또한 마땅히 사모해야 할 아내를 사모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겠느냐? 또한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부터가 크나큰 잘못 아니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한 것이 잘못이라면, 아내를 맞이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은 예수 또한 사람의 말대로 오늘날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일을 평가한다면, 은혜시대에 성육신한 주 예수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아담에게 한 말씀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예수를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로 본다면,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을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평가는 너에게 이성이 없음을 뜻한다. 여호와가 두 차례 입은 육신의 성별은 뱀에게 유혹당한 적 없는 남자, 여자와 관련된다. 즉, 뱀의 유혹을 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로 두 번 성육신한 것이다. 예수를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와 ‘아담’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 둘은 성질이 전혀 다른 남자다. 예수가 남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여자의 머리일 뿐, 모든 남자의 머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는 모든 유대인(남자와 여자 포함)의 왕이 아니더냐?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여자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머리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자 머리이다. 너는 어째서 예수의 성별을 여자의 머리라는 상징으로 규정하느냐? 그것은 모독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파괴되지 않은 남자이며, 그는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주님이다. 그가 어떻게 파괴된 아담과 같은 남성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취한 육신이다. 네가 어찌 그를 아담의 남성성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도 모두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남성성을 예수에게 더했을 리 있겠느냐? 오늘날의 성육신은 예수와 성별은 다르나 성질은 똑같은 성육신의 또 다른 사역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하나님은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하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여자는 가장 더러운 존재이자, 인류의 파괴를 초래한 기원이니, 하나님이 여자로 성육신할 리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또한 “여자는 언제까지나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고, 직접 하나님을 대변할 수도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모독하겠느냐? 잘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추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말이다. 네가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게 알려 주겠다. 지금까지 네가 보고 체험한 것으로는 내 경륜의 천분의 일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도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굴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과 인식은 예수가 행하는 사역에 1초도 이용될 수 없다! 너의 체험은 얼마나 되느냐? 여태까지 네가 본 것에 네가 평생 듣고 상상한 것을 더해도 내 한순간의 사역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흠잡을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개미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네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은 개미 배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도 적다! 네가 체험이 많고 관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지껄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체험과 관록 또한 다 내가 한 말에서 비롯된 것 아니더냐? 설마 그게 너의 성실과 근면의 대가라 생각하느냐? 너는 오늘날 나의 성육신을 보았기에 그렇게 풍부한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내가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너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렇게 많은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관념 또한 그로 인해 생긴 것 아니더냐? 만약 예수의 첫 번째 성육신이 없었다면, 성육신에 대해 네가 알거나 했겠느냐! 너는 첫 번째 성육신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방자하게 두 번째 성육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더냐? 너는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무엇을 따지는 것이냐? 네가 이 흐름에 들어와 성육신 하나님 앞에 온 이상 네가 연구하는 것을 그가 용납하겠느냐? 네가 네 집안의 가족사를 따져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가족사’를 따져 보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너는 눈이 먼 것이 아니냐? 화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예수가 행한 그 단계의 사역만 끝내고 말세의 사역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관념에 사로잡힐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뿐이기에,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임한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은 속죄 제물이 된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을 위해 정사를 메고 전 인류를 구속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온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여기며, 심지어 어떤 이는 예수를 여호와와 아들이자 그의 독생자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크게 자리 잡은 관념이 아니고 무엇이냐? 만약 마지막 시대에 이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전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여자보다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여자는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자를 미워하며, 여자를 구원할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호와에게 지음 받고 또 똑같이 패괴를 거친 여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가 여자를, 즉 하와를 만든 것부터가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여자는 영영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세의 이 사역은 여자만이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만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성육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더욱 어리석은 자이다!

지금 하는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자, 전체적인 6천 년 경륜에 포함된 사역이 앞으로 발전한 것이다. 은혜시대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앞으로 나아가며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은혜시대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율법시대 사역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은 고리에 고리가 맞물리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을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느냐? 예수의 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계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앞 단계의 구속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역 또한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사역은 율법시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가 이룬 사역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세워진 것이지, 이 단계 사역이 따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종합해야 비로소 6천 년 경륜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은 은혜시대 사역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역에 연관성이 없다면, 어째서 이 단계

사역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겠느냐? 어쩌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사역을 하고 또한 이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와 하나이기에 친히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전부 앞 단계 사역의 기초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걸음씩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같은 영에서 왔다. 육신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영은 하나이며, 사역의 내용과 담당하는 사역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서로 다른 모습의 육신을 취한 이유는 시대가 다르고, 사역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직분이 다르기에 가져온 사역도 다르고, 사람에게 보여 주는 성품 역시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보고 깨닫는 것 역시 예전과 다르다. 이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두 육신은 성별도, 모습도 다르고, 같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이다. 둘의 육신은 어떤 혈연관계도, 육적인 관계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시기에 입은 육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둘 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혈통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한 사람은 유대어를 쓰는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어만 쓰는 여자임). 이 때문에 둘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자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다. 둘은 하나의 영, 그러니까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의 겉모습은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 똑같은 인성을 지녔을 뿐, 육신의 생김새나 출생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자의 사역이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들의 영이 그들의 전 존재를 지배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육신은 같은 혈통이 아니다. 여호와와 영이 예수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의 영 또한 여호와 영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의 영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과 예수 역시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 그러나 둘의 근원은 하나이다. 이는 둘의 영이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도, 사람을 형벌하거나 저주하는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멸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 또한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직접 하는 것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더냐? 그는 사람에게 올법과 계명을 반포할 수 있을뿐더러,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그들을 이끌어 성전과 제단을 쌓게 했으며,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그의 권세 아래에 두었다. 그의 권병으로 인해 그와 이스라엘인들은 땅에서 2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인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켰다. 이는 모두 그의 권병과 전능으로 행한 사역이었다. 은혜시대에 이르러 예수가 와서 타락한 전 인류(이스라엘인에 국한되지 않음)를 속량했다. 그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사람의 눈에 비친 은혜시대의 예수는 자비로 가득했으며, 늘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는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죄에서 완전히 속량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시기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즉, 그는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영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지니고 있었고, 인내할 줄 알았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었다. 예수를 따른 은혜시대의 사람들은 범사에 인내와 사랑을 강조하고, 계속 고난을 받았으며, 다른 이가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도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다르다. 이는 예수와 여호와가 비록 영은 하나지만, 행한 사역이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사역은 시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것이었다. 인류의 땅에서의 생활을 펼쳤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파괴된 이방의 인류를 정복하고, 중국에 있는 하나님 선민만이 아닌, 전 우주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을 한다. 네가 보기에는 중국에서만 사역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역은 중국 밖에서도 확장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왜 계속 참도를 찾겠느냐? 그것은 영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하는 말은 전 우주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미 받은 진행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일을 해 왔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했다. 각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각기 다른 성품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그가 하는 각기 다른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자 목자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에게 심판이자 형벌이며, 저주이기도 하다. 그는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2천 년 동안 이끌었고, 파괴된 인류를 죄에서 속량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는 그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그의 권세 아래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그는 전 우주의 사람들 속에 있는 불결하고 불의한 것들을 모조리 깨끗이 불사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자, 지혜롭고 기묘하며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전 인류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불사르고 심판하며 징벌할 것이다. 또 온전케 될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연단, 시련을 주면서도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며 말씀으로 공급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것이다. 그리고 도태될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내리며 그에 따른 보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더냐? 그는 어떤 사역이든 할 수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한참이나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 강의 물을 마실 것이라는 등등의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더냐? 너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너는 그에 의해 속량되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예수 자신이 한 사역이었다. 너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했느냐? 너는 겉으로만 경건해 보일 뿐, 그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그를 나타내는 것이더냐?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전부를 보지 못했다면, 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천국의 문에 들어갈 자격 또한 없다.

하나님은 영이지만, 육신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그는 영광의 몸이기도 하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인들, 즉 유대인들은 보았다. 그는 처음에 육신을 취하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다시 영광의 몸이 되었다. 그는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며, 곳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그는 여호와일 수도 있고, 예수일 수도 있으며, 메시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공의이자 심판과 형벌이며, 저주이자 진노와 공휼과 자비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를 대변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공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공휼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그가 정말 공휼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이라면 어째서 말세에 또 시대를 끝내려고 하겠느냐? 또한, 왜 그렇게 많은 재난을 내리려 하겠느냐? 사람의 관념과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람을 공휼과 자비로 대해 모든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마지막 때 지진, 온역, 기근 따위의 큰 재난을 내려 하나님을 원수 대하듯 하는 사악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어째서 인류에게 그러한 재난이 임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며,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너는 그가 확실히 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너는 그가 예수의 육신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너는 그가 영원히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수가 성육신한 사실이 있는 뒤부터 사람은 하늘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이 있고 심지어는 영까지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하늘에는 이런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다고 여겼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하나님에게는 세 부분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부분이다. 오직 이 세 부분이 합쳐져야만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고 한다. 성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성자 또는 성령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관념적으로 성부나 성자는 단독으로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합쳐져야만 하나님 자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여긴다. 지금까지도 모든 종교 신자, 나아가 너희 가운데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의 일에 대해 언제나 흐릿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인식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종교적 관념에 심하게 물들었고, 종교적 전통 관념을 너무 깊이 받아들여 매우 심각하게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일에서도 전해 내려온 독소에 중독되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 사람의 전통 관념이자 그릇된 인식 방법이다. 수많은 세기(世紀)를 거쳐 오면서 사람은 모두 머릿속 관념으로 상상해 내고 또 사람 스스로 만들어 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뜻’을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해석한 자들도 서로 위격이 다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애매모호해하며, 분명하게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구조’에 대해서 어리둥절해한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 대부분 이치나 문자적으로는 통할 수 있었지만, 그 내포된 뜻을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운 좋게 하나님의 처소를 유람하면서 하나님의 침상에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도대체 몇만 세대 또는 몇억 세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고유한 구조는 도대체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조사할 내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부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고, 성자의 나이와 성령의 나이는 또 얼마나 되었는지, 그들은 각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분리되고

또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등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일들을 조사해 내지 못했기에 사람은 모두 ‘추측’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열성적이고 경건한 모든 종교 신자에게 사실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유람한 다음 전 인류에게 ‘조사 보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에게 이런 관념이 있다고 해서 사람만 탓할 수는 없다. 성부인 여호와 자신이 인류를 창조할 때 성자 예수를 곁에 두지 않은 탓 아니겠느냐? 그들이 당시에 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좋았을 것이다. 탓하려면 세상을 창조할 때 한순간의 실수로 성자와 성령을 곁에 불러 놓지 않고 혼자 사역한 여호와 하나님을 탓해야겠구나. 그들이 동시에 사역했다면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만 있고 은혜시대에 예수의 이름이 없었거나 여전히 여호와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인류에 의해 분리되는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 모든 것에 있어 여호와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탓하려면 수천 년 동안 줄곧 이렇게 역사하면서 여호와라 불리기도 하고 예수라 불리기도 하며 또 무슨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여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게 한 성령을 탓해야 할 것이다. 성령 자신이 형체도 모양도 없이 역사하고, 더욱이 예수 같은 이름도 없으며,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이 그저 천둥 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면, 이런 사역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람의 관념은 쌓여서 산이 되고 또 모여서 바다가 되어 오늘날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전에 여호와와 예수,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성령, 이 세 분에 대해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날 ‘전능자’ 한 분이 더 추가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하니 그가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어느 위격에 해당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분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는데만 평생을 들여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날 한 분이 더 추가되어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믿어 왔느냐? 나는 정말 너희에게 탄복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만 해도 너희가 감당하기 버거울 텐데, 오늘날의 사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건실하게 믿을 수 있다니 말이다. 너희에게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도 않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 혼자서 ‘네 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아 하다니 너희는 이것이 이적이라고 생각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큰 이적을 나타낼 줄은 정말 몰랐구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는데,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주 위아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구가 성령이라는 이런 학설도 없다. 이것은 모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 그릇된 논리 또한 ‘근원’이 있고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 너희 인간들의 머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너희의 구상 역시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합당하고 교묘하여, 심지어는 그 어떤 사탄도 깨부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전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릇된 논리라는 것이다! 너희는 사실의 진면목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저 추리와 상상만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일련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신뢰를 편취하고, 누구보다 어리석고 생각이 없으며 이성도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어 그들이 너희의 위대하고 저명한 ‘전문가 학설’을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생명의 도이냐? 모두 허튼소리이다! 합당한 말이 하나도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왔다. 심지어 너희는 한 세대 한 세대 지나며 더 세밀하게 나누다가 공개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다시 합칠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세밀하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내가 일찌감치 이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언제까지 미쳐 날뛰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나누어 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너희의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뿌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내가 한발 늦게 왔더라면, 너희는 예수와 여호와, 이 ‘두 부자(父子)’를 이스라엘로 쫓아내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일부라고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지금은 말세다. 겨우 오늘날까지 기다려 내가 친히 이 단계 사역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 자신’을 나누는 너희의 사역을 제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눌수록 더 심해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을 너희의 상위에 놓고 섬겼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너희의 수법, 즉 ‘하나님’을 나누는 수법이다! 너희는 아직도 나누고 있느냐?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어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느냐? 너희가 온종일 기도하는 분은 첫째 하나님이냐, 둘째 하나님이냐, 아니면 셋째 하나님이냐? 너희가 온종일 믿고 있는 분은 도대체 어느 하나님이냐? 아버지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아니면 영이냐? 말해 보아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사실 너희가 믿는 것은 모두 너희의 ‘머리’이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 너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해 보아라. 그렇지 않느냐?

삼위일체설에 따라 세 단계 사역을 따져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 분인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 삼위일체인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부는 무엇이냐? 성자는 무엇이냐?

성령은 무엇이나? 성부가 바로 여호와이나? 성자가 바로 예수이나? 성령은 또 무엇이나?
 아버지는 영 아니더냐? 아들의 본질 또한 영 아니더냐? 예수가 행한 사역은 성령이 행한 것
 아니더냐? 당시 여호와가 행한 사역 또한 예수의 영과 같은 한 분의 영이 행한 것 아니더냐?
 하나님께는 영이 몇이나 존재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주장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면, 영이 세 분인 것이고, 영이 세 분이면 하나님도 세 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참하나님이 아닌데, 그러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성경에 ‘성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의 위격 또한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이다. 네가 말한 성부, 성자가 존재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
 또한 모두 성령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 하나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고, 만유를 초월할 수도 있다. 그의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기도 하고, 무소부재 하는 영이기도 하다. 그는 육신에 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전 우주의 위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 그 누구도 제멋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
 오직 하나이며 위격도 하나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네 말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도 세 분 아니겠느냐? 성령은 성령대로 다르고, 성자는 성자대로
 다르며, 성부 또한 성부대로 다르다면, 그들의 위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한 하나님의 각 부분이 되겠느냐? 성령은 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성부는 더욱 영이다. 그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적도, 성육신한 적도 없으며
 바로 사람 마음속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또한 필연적으로 영이다. 그렇다면 그 영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영과 성령의
 관계겠느냐? 그들 두 영의 본질은 같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성령을 도구로 삼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성자와 성령은 또 무슨 관계겠느냐? 영과 영의 관계겠느냐,
 아니면 사람과 영의 관계겠느냐? 이것은 모두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다! 그들의 영이
 하나라면 세 위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한 영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격이 다르다면 강한 영도, 약한 영도 있을 수 있으며, 절대 영이 하나일 수 없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설은 가장 그릇된 말이다! 이런 말은 바로 하나님을 나눈 것이다. 세
 조각으로 나뉜 하나님은 각각의 지위와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해 보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는 성부이나,

성자이나, 아니면 성령이나? 어떤 사람은 그들이 함께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류를
 속량한 것은 성령이나, 성자이나, 아니면 성부이나? 어떤 사람은 성자가 인류를 속량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자의 본질은 또 누구이나?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아니더냐? 육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한 것이다. 너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모르느냐? 그의 내면은 성령이다. 네가 어떻게 말하든 그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과 한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성자라는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한 분의 영이 행한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행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이나? 바로 성령
 아니더냐? 예수에게 역사한 분은 성령 아니더냐? 성령(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행한 사역이 하나님 자신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단지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을 입었고, 피조물의 외형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일지라도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예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인자’가 된 것이다.
 인자라고 한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킨다(남자든
 여자든, 결국엔 다 사람의 외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너희가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부른 것이다.
 너희가 외웠던,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아직 기억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또 그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만큼, 너희와 평등한 위치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자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사람(하나님의
 아들)으로 여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 또한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예수가 땅에서 얼마나 큰 권병을 가졌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성령(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자이자 땅의 피조물 중 하나였다. 그는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하늘의 영)을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그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영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위치에 섰을 뿐이지
 위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위격이라는 그런 그릇된 논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육신의 제한을 받는 인자였으므로 영의 권병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세 번 기도한 것과 같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는 그저 유대인의 왕이자 인자, 그리스도였을 뿐, 영광의 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야 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다 성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가 너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뒤부터 너희는 모두 ‘성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말해 보아라.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킨다면 예수의 ‘아버지’는 또 너희에게 무엇이냐? 예수가 떠난 뒤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단지 예수가 육신으로 있었던 몇 년 동안만 적용될 뿐이며, 그 밖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때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론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천고에 보기 드문 그릇된 논리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또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한 만큼 ‘우리’는 둘 이상이고, ‘우리’라고 말씀한 만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위격’이 다를 것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성부는 어떤 모습이나? 성자는 어떤 모습이나? 성령은 또 어떤 모습이나? 설마 세 형상으로 있다가 합쳐진 형상에 따라 오늘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사람의 형상은 도대체 성부를 닮았느냐, 아니면 성자를 닮았느냐, 그도 아니면 성령을 닮았느냐? 도대체 어느 위격의 하나님을 닮았느냐? 사람의 이런 말은 결코 옳지 않고 통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을 여럿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는 세상 창조가 끝나 인류가 생긴 다음이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모세가 성경을 쓸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런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세도 전혀 몰랐다. 구약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이 없고, 오로지 유일한 참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는 내용만 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고 해서 이름 하나가 위격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위격이 있지 않겠느냐? 구약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율법시대에 행한 시작의 사역으로, 있으라 명하면 생기고, 세워지라 명하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여호와는 단 한 번도 그가 성부로 사역하러 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성자가 인류를 속량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한 적도 없다. 예수가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전 인류를 속량하러 왔다고만 했지, 성자가 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행할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사역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하여 대표하는 신분 또한 달라진 것이다. 사람은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라고 여기지만,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느니라. 나와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사람이 아들을 본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라고 했다. 어떻게 말해도, 결국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두 한 분의 영이고 위격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면 복잡해지는데, 위격이 다르다고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관계라고도 한다. 사람이 위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물질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의 상상이다. 조금의 참고할 가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네가 그에게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그에게 성부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총책임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영이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영이라고 말할 것이다! 네가 다시 성자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자는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면, 마리아에게서 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본질 또한 영 아니냐? 그가 한 사역도 성령을 대변하지 않느냐? 여호와는 영이고 예수의 본질 또한 영이다. 말세라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영인데, 그들에게 또 무슨 위격의 차이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위치에 서서 영의 사역을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위격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그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예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이었다. 여호와가 행한 제1단계 사역에서 그는 성육신하지도,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사람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높고 크든 그는 영이고, 처음에 사람을 만든 하나님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 그는 구름 속에서 사람에게 말쑤했지만 그저 영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오고, 성육신으로 유대에 임해서야 사람은 처음으로 성육신한 그의 형상이 유대인의 형상임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라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으로 친히 잉태되었으므로 강생한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 영의 화신이라는 말이다. 당시에 사람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전용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성령과 분리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예수이자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사역을 행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영과 하늘의 영, 그리고 여호와와 영은 모두 하나이다. 성령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며 일곱 배 강화된 영이자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라고도 불린다. 하나님의 영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고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도 있으며,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있고, 더욱이 전 인류를 정복하거나 멸할 수도 있다. 이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지, 그 어떤 위격의 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전능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는 주이고, 그리스도이며, 또한 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며, 전 우주 위에도 있고 만인 가운데에도 있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관자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혼자 행했다. 하늘에서 행한 사역이든 육신으로 행한 사역이든 모두 그의 고유한 영이 행한 것이다. 하늘의 피조물이든 땅의 피조물이든 모두 그의 전능한 손에 지배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므로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하늘에서 영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다. 그가 사람 가운데서 육신으로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의 이름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며, 모든 것이 다 그의 영의 직접적인 선포이다. 십자가에 달려 전 인류를 속량한 것은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고, 말세에 각 나라와 지역에 알리는 것 역시 그의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다. 어느 때든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고 유일한 참하나님,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 자신이라 불린다. 위격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설은 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총 6천 년이며, 사역이 서로 다른 관계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대는 구약의 율법시대이고, 두 번째 시대는 은혜시대이며, 세 번째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이다. 각 시대에서 대표하는 신분은 모두 다른데, 그것은 다만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역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행했다. 두 번째 단계인 구속 사역은 유대에서 완성했다. 당시 예수는 구속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가 되었다. 이것은 모두 사역의 필요로 인해 정해진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은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한다. 그는 이방인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여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진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다. 서는 위치는 다르지만, 사역의 성질과 원칙은 모두 같다. 너는 그들이 사역하는 원칙과 사역의 성질을 보고, 모든 사역은 한 분의 영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이고, 성령은 성령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로 합치겠느냐? 성부와 성령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겠느냐? 원래 둘이었다면 어떻게 합치든 여전히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합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부분이 함께 모여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 아니더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전체가 되기 전까지는 두 부분 아니겠느냐? 한 분의 영은 하나의 본질이므로 두 영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세계의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성부는 한 분의 영이고, 성자도 한 분의 영이며, 성령 또한 한 분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영을 마치 세 잔의 물처럼 하나의 전체가 되게 합친다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이것은 순전히 그릇된 해석이다! 이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 아니겠느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겠느냐? 그들은 성질이 다른 세 부분 아니더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으로, 단지 다른 위치에 서서 그 자신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영의 위치에 서서 그가 입은 육신을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 예수는 그가 입은 육신이지 하늘에 있는 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해하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들의 영이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느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아래로 분리된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여전히 하나이다. 어찌 됐든 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다. 시대의 다름과 사역의 필요성, 그리고 경륜 절차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를 부르는 호칭 또한 달라졌다. 제1단계의 사역에서는 여호와라고만 부를 수 있었으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목자였다. 제2단계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을 주님, 또는 그리스도라고만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하늘의 영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어떻게 독생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성육신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단지 하늘과 땅에 있는 차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기도했다. 그는 정상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의 위치에 서서 “나의 외형은 피조물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땅에 왔으므로 하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의 위치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본분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여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육신의 위치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단지 영이 입은 육신일 뿐, 본질은 여전히 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왜 기도하지?’라고 여길 수 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성육신한 하나님,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지, 하늘에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고, 그 세 분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유일한 참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능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야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시지. 성자가 오셔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영께 기도하신 거야.”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기도했다. 그것은 육신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육신에 거하면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연약함이 따르고, 육신으로 사역하면 많은 방해로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 번 기도했다. 세 번 기도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기도한 적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할 때도 기도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배 위에서도 기도했다. 또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떡을 떼 때도 기도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때도 기도했다. 그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가 기도한 대상은 영이었다. 그는 육신의 위치에서 영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 단계 사역에서 예수는 성자로 보인 것이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가 가져온 것은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의 형벌과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의 직분은 바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넘겨질 일도 없으니, 곧바로 사역만 하면 된다. 지난날, 예수가 천국이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가 하는 것은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기에 더 이상은 새로운 시대가 없다. 그런데 다음 단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말에는 모순되는 점이 수없이 많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이다. 만일 추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옳다고 여길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말들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 모두 불순물이 있으며, 사람의 뜻이 너무 많다. 이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다. 그것은 모두 논리와 사유에서 나왔으며, 진리에 상반된다. 너의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인 네가 한눈에 다 간파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꿰뚫고 있겠느냐? 네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는 뭐라고 설명을 하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느냐? 네가 무엇을 근거로 해석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네가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해석하느냐? 너는 아직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네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랄 뿐이다. 역시 가벼운 것이 좋다. 주의 짐은 가벼우니 말이다.

실행 3

너희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독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가 이끌어 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영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진실한 체험에 들어가고 참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굳게 설 수 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환난과 시련에 대해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이들은 환난을, 어떤 이들은 징벌을 겪게 될 것인데, 이는 더 무거운 징벌이며 사실로 임하는 것이다. 네가 오늘날 경험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겪을 시련을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기에 최소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의 상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사역하는 리더나 일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언짢아한다. 교회 사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영 생활도 소홀히 하며 아무런 부담 없이 한고조(寒苦鳥)처럼 그날그날 되는대로 살아간다. 사실, 내가 행하는 이러한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 단지 정복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온전케 될 가치가 없으며, 아주 일부만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오직 정복만을 위해 이런 사역을 하신다면, 나도 그냥 대충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로 어떻게 되겠느냐?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복을 하시든 온전케 하시든 나는 이 단계 증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정복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이자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사람은 이 부담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너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네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은 네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지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정복되고 참으로 깨닫는다면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대업은 완벽히 이뤄진 것이다. 너희가 이를 수 있는 경지는

이 정도이며, 더 높은 것을 요구해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되고 자질이 향상될 것이며, 영적으로 깊은 인식이 생기고 생명이 성장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구제 불능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장차 너희 중 일부를 정복하고 일부를 도태시키며 일부는 온전케 하고 또 일부는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는 환난을 겪고, 어떤 이는 징벌(천재와 인재)을 겪으며, 어떤 이는 도태되고, 또 어떤 이는 살아남는다. 이것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으로, 한 부분 사람이 한 부류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도태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들은 자질이 너무나 형편없기에 바울처럼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품은 자도, 옴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도 매우 드물다.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충성심을 가진 자도 너희 중에는 거의 없다. 너희는 실로 가련하다!

나는 지금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측면만 다루고 있다. 어쨌든 너희는 이번 증거를 잘해야 한다. 만약 너희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섬기겠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장자나 아들의 명분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네 생명의 성장과 관계없이 너는 오늘날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 철저히 승복하고 관념을 버려야 한다. 네가 생명을 추구할 재목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어쨌든 너는 철저히 승복해야 한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지만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자기는 믿음이 모호하니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형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이 형벌받거나 멸망될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저는 온전케 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모든 훈련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정복되어 간증이 생긴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사역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외국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중국으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전케 되지 못하면 외국인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진입 정도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끝내야 한다! 너희 때문에 전체 사역을 지체할 수는 없다. 내가 행하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사역이니 너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너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분수를 모른다! 너희에게는 온전케 할 만한 가치도, 발굴할 잠재력도

거의 없다! 앞으로는 사람이 지금처럼 나태하고 자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더라도 우주 전체의 사역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끝낼 것은 끝내고 도태시킬 자는 도태시킬 것이다. 물론 온전케 해야 할 대상,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러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기다리지 않겠다! 결국 정복된다면 너에게도 간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너희에 대한 요구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 나는 사람의 분량이 이를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증거하기를 요구할 뿐 사람이 상상하는 것만큼 뛰어난 최고 수준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너희 중국인들은 그런 수준의 요구에 절대 부합하지 못한다.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너희도 보았겠지만, 대적하지도, 거역하지도 말고 뒤에서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일은 삼가라고 명백하게 짚어 주며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래 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고 사람은 돌아서면 변했다. 어떤 자들은 몰래 대적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나와 맞서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뒤에서 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 잔꾀가 너의 인격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늘 겉으로는 순종하고 속으로는 판마음을 품으며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에 대한 경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깨달음이 네 스스로 하느님(원문: 上天)께 부르짖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아무 쓸모없구나! 너는 네 '선행'이 하느님을 감동시켜 하느님이 특별히 네게 사람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일 수 있는 언변의 은사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비이성적이구나! 너의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 네가 누구의 밥을 먹고 자랐는지 모르느냐? 정말 양심도 없구나! 심지어 너희 중 어떤 자들은 4~5년간 책망받았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너희의 본성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테니 버림받는 날이 오더라도 불만을 갖지 말라. 어떤 자는 섬김에 있어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여 많은 책망을 받았다. 어떤 자는 재물을 탐하여 적잖이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자는 이성 간에 선을 긋지 못해 많은 책망을 받았다. 어떤 자는 교회를 돌보러 가서 게을리하고 육체만 돌보며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아 역시 많은 책망을 받았다. 어떤 자는 어디에서도 간증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하며 제멋대로 못된 짓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고의로 죄를 범하여 여러 번 주의를 받았다. 또 어떤 자는 예배에서 글귀상의 도리만 들먹이고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했지만, 진리의 실체라고는 조금도 없이 형제자매와 다투며 옥신각신하여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너희에게 많이 해 주었으니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많은 이가 이러한 책망을 1, 2년만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3, 4년, 또 어떤 이는 10여 년을 겪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책망을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 돼지 근성을 가진 것 아니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너를 억울하게 대했던 말이나? 너희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사실대로 말해 주마. 그럴 일은 없으니 꿈에서 깨어나라! 오늘날의 사역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너와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날 봉사자의 시련을 겪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하나님께 정복되려면 반드시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며 기꺼이 봉사자라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멋대로 굴거나 건성으로 하지 않아야 명실상부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느냐? 그때 각 부류의 사람이 모두 드러났고, 보여 준 모습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자는 원망을 했고, 어떤 자는 관념을 펴뜨렸으며, 어떤 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자는 또 교회의 돈을 함부로 썼다. 형제자매끼리 암투를 벌이며 무절제 사태가 벌어졌다. 딱 한 가지 칭찬할 점이 있다면 다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점이였다. 이를 통해 사탄 앞에서 증거했고,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어 오늘날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의 사역은 네가 상상한 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네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 상관없이 바로 끝이 난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그렇게 하시는 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사실대로 말해 주겠다. 내 사역의 중점은 오늘 너를 정복하여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다.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지,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는 나를 끌고 갈 생각일랑 버려라. 오늘날, 내가 사역하여 너를 구원하는 것이지, 네가 사역하여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깨달은 것은 온전케 되지 않은 역대의 그 누구보다 높다. 시련에 대한 인식이든 또는 믿음에 대한 인식이든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보다 높다. 너희가 깨달은 것은 모두 환경의 시련을 겪기 전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실제 분량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모든 깨달음이 실천에 앞선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만을 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삶에서 보여 주는 행동은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불순물도 너무 많다. 많은 이가 평안과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익이 없으면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입을 비쭉거리니, 너의 말이 어찌 너의 실제 분량을 대표하겠느냐? 아이의 질병, 가족의 입원, 농작물의 수확 감소, 가족의 핍박 등 평소에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가정의 변고, 즉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너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너를 속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조롱했다고 원망한다. 너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서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온종일 이런 일들에 빠져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희의 실제 분량은 너무나 작아서 그야말로 병아리만큼도 되지 않는다. 사업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원망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병아리가 죽거나 외양간의 소가 병들어도 원망하고,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집에 돈이 없어도 원망한다. 접대하며 본분을 이행하고 싶는데 돈이 없어도 원망한다. 너의 뱃속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으며, 기약 없이 부정적인 상태로 지낸다. 지금 임한 이런 일들은 너의 미래나 운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어났을 일들이다. 그러나 너는 이 일들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는 하나님이 너를 도태시켰다고 우긴다.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정말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오늘날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욕과 같은 시련을 준다면 단 한 명도 굳게 서지 못하고 다 넘어질 것이다. 너희와 욕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의 재산 중 반을 빼앗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거둬 간다면 길거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욕할 것이고, 얼마 안 되는 네 생계의 길을 막아 버리면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할 것이다.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말로 염포를 놓았느냐며 너희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너희는 참된 깨달음이 없고, 참된 분량 또한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는 시련이 큰 것이다. 아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데 진정한 깨달음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의 천 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참되게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너는 자신의 분량과 실행을 참답게 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실행 4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평안과 희락은 네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너는 평안과 희락을 하루 종일 기쁘게 보내는 것, 온 가족이 우환 없이 지내고 아무런 슬픔 없이 언제나 즐겁게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사람 생명의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게다가 급여가 인상되거나 아들이 막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일들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런 평안과 희락은 성령의 함께함으로 생긴 참된 것이 아니라 너의 욕이 만족을 얻음으로 생긴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한다. 오늘날은 은혜시대가 아니며, 떡으로 배를 불리는 시대가 아니다. 어쩌면 너는 집안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한없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든 성령의 함께함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함께함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사람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며, 네게 필요한 것을 채워 부족함을 보완하면 된다. 항상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거나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이해함으로 기뻐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때로는 어떻게 체험해야 할지 모르는 일에 직면하거나, 교제하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몹시 애가 탄다면 그것도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생명 체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태다. 너는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성령의 함께함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사유, 이성, 인성이 모두 정상적이다. 성격은 예전과 같으나 내면에 평안이 깃들고 외적으로 성도의 품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성령이 함께할 때, 사람의 생각도 정상적이다. 배가 고프면 밥이 생각나고,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나는 등등이다. 이러한 인성의 정상적인 현상은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라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에 속하며,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성령이 함께하면 욕에서 거의 벗어난 것처럼 배고픔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정이 있다는 것도 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이 함께할수록 사람은 더욱 정상적이 된다. 즉, 어떻게 먹고 입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다 버리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인간성을 전혀 잃지 않으며, 굉장히 이성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되새기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성을 잃은 것이고, 이러한 상태는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상인의 이성을 갖고 있다. 즉,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는 때가 있다. 반면 성령의 함께함은 일반적으로 언제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성, 생각, 상태가 정상적이면 분명 성령의 함께함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 비정상적이면 인간성도 정상적일 수가 없다. 지금 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분명 성령의 함께함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은 다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리더나 일꾼이라고 하자. 교회에서 공급하고 양육을 할 때, 어떤 말씀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교제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형제자매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는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다가 성령의 깨우침으로 유난히 자신의 체험에 잘 비취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데,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다. 때로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와 잘 결부시키고, 내 말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언제나 성령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언제나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이다. 또한 언제나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현실적이다. 이는 그에게 성령의 함께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성령의 감동이 따르며, 시시각각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그런 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악령이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어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겠느냐? 악령이 들린 사람은 육의 연약함이 없이 무엇이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감정이 없고 고통에 강해 힘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육을 초월한 것 같다. 이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악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자를 보면 부러워한다. 또한 하나님을 정말 열성적으로 믿고, 믿음이 굳건하며, 연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악령이 역사하는 현상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적인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이다.

굳게 서서 간증한다는 것이 무엇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대로 따르겠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가지도 않는다. 그저 이 단계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뿐이다. 이는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정복된 간증조차 할 수 없다. 정복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따르고, 생명을 추구한다. 실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는 법이 없고 지금까지도 허송세월하면서 따르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정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복된 것에도 기준이 있다. 따르는 사람이라고 다 정복된 것은 아니다. 너는 자신이 오늘날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도 전혀 모르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누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잡아 주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따른다고 할지라도 간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대체 참된 간증이란 무엇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간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정복된 간증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케 된 간증이다(물론 이것은 미래에 더 큰 시련이나 환난을 겪은 후의 간증을 말함). 즉, 네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의 간증을 하는 것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을 간증하는 것이다. 즉, 연이은 형벌과 심판의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복된 간증이다. 지금은 정복되는 기간(너는 지금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육신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주된 사역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과 형벌로 정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네가 정복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렸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네가 각 단계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는지, 이 모든 사역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지에 달렸다. 끝까지 따른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한번 또 한번 반복되는 형벌과 심판에 기꺼이 복종하고, 네가 체험하는 단계별 사역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정복된 것에 대한 간증이다. 정복되었음을 간증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다. 네가 세상 사람이나 집권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간증은 사탄과 모든 원수를 —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하여 더 큰 사역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육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마귀와 원수, 즉 모든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모든 원수를 —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거나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복됐다는 것은 그가 곧 ‘도’가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영’이 ‘말씀’이 되었으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믿을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중요한 간증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인성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진리의 성령’이 ‘육신’에

실체화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진리, 길, 생명이 모두 육신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확실히 땅에 왔으며, 영이 육신으로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사역을 통해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었고, ‘도’가 ‘육신’ 되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란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오늘날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이것이 너의 가장 좋은 간증이다. 이러면 네가 단순히 성육신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도, 진리의 도임을 깨달았기에 진정으로 그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예수가 한 단계 사역을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본질적 의미만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하므로 둘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므로 성육신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이라는 증거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말씀이 육신 되었다’는 말의 함의를 이룬 것이다. 또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의 의미와 더 깊게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까지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그의 말씀은 그와 함께하였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내어 그의 모든 말씀을 보게 한다.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너는 이런 것을 밝히 알아야 한다. 육신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과 말씀, 육신과 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간증이자 모든 이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두 번째로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이자 마지막 성육신이다. 즉, 말씀이 육신 된 의의를 완전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말씀이 육신 된 의의를 알아야 한다.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다른 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것이자 어김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간증은 네가 온전케 될 수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다. 즉, 네가 성육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해한 다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 냄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베드로의 풍격’, ‘요의 믿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어 정복되고 온전케 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간증이고, 궁극적으로 온전케 될 사람이 해야 할 간증이다. 이는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 해야 할 간증으로, 이 두 단계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요구하는 간증은 세상 사람이나 어느 특정 인물 앞에서 간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요구한 기준에 완전히 합치할 수 있는지에 근거한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실행 5

은혜시대에 예수가 얼마의 말씀을 하고 한 단계의 사역을 한 것에는 모두 배경이 있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상태와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말씀하고 사역한 것이다. 또한 예언도 조금 했다. 그는 말세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역사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그 시대에 자신이 해야 할 사역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성육신한 하나님이 행할 사역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에 관련된 사역만 했을 뿐이며, 그와 관계가 없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그는 어떤 느낌이나 이상(異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역을 하였다. 그를 이끌어 주거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며, 그가 행한 사역은 전부 그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해야 할 사역으로, 성육신할 때 지니고 온 모든 사역인 것이다. 예수는 오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만 사역했다. 즉, 영이 직접적으로 역사한 것이기에 사자가 나타나거나 꿈을 꾸거나 큰 빛 비춤을 받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느낌에 따라 사역을 한 것이 아니기에 편하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사역할 때 모색하거나 추정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눈으로 본 것을 소재로 아주 수월하게 일하거나 말했으며, 때에 맞춰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구하고 모색하며 사역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기반으로 더 생각해 보거나 그대로 따라 하고, 나아가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공급해 주며,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사역에서 깨달음을 얻어 교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따라 현재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몇천 배는 더 자유롭게 사역한다. 심지어 사람의 눈에는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뜻한 대로 행한다.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새로운 사역이다. 그러나 너는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느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날이 곧 이를 것 같고,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들에게는 몹시 중요했지만, 사실 사람의 느낌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종반에 다다른 느낌 혹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 받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바울은 달려야 할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말까지 했다. 바울은 그런 느낌을 편지에 담아 교회들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기에 성령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 말을 했을 당시 바울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음을 느끼지 못했고 가책을 받은 일도 전혀 없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정당하고 옳은 것이며, 성령이 준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착각이다. 사람의 내면은 착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당시 하나님은 이를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성령이 하는 대부분의 역사는 사람의 느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성육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암흑 시대나 사도와 일꾼이 없었던 시기가 아닌 이상 성령은 사람의 느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시기라면 성령은 사람에게 특별한 느낌을 준다. 일례로 사람에게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는 기도를 하는 즉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항상 무언가를 누린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 말씀의 인도가 있을 때는 사람의 영이 밝아지고, 일할 때 실행의 길이 있게 된다. 물론 마음은 예외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위험한 일에 직면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진다. 이는 온전히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받는 느낌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은 두려움을 초래하므로 사람은 긴장하고 위축된다. 이는 인성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

사람은 오랫동안 늘 자신의 느낌으로 살아왔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 하고(하고 싶은 일을 평안한 것으로 여김), 평안을 느끼지 못하면 하지 않는다(하기 싫거나 혐오하는 일을 평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순조로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사실, 그것은 사물의 자연법칙으로, 아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임), 순조롭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며 잘 풀리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사람의 이런 느낌은 정확하지 않다. 느낌을 따르면 많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 예를 들면, 진리를 실행하는 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이며, ‘호사다마(好事多磨)’라는 사자성어처럼 긍정적인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를 것이다. 실생활 속에서 사람은 느낌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갈팡질팡하고 많은 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느끼는 대로 일하고 말하는데, 큰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 성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바울이 생각했던 ‘의의 면류관’ 같은 경우, 오랜 세월 아무도 그의 느낌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게다가 바울도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사람의 느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당연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서로 다른 환경과 사물을 접하면 다양한 느낌을 받기 마련이다. 게다가 사람은 논리에 따라 일련의 공식을 도출해 내어 그것으로 많은 느낌이 형성되게 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논리와 추론에 빠져 자신의 느낌을 삶에서 기댈 수 있는 대상이나 삶의 정신적 지주로 삼게 된다. 그 예로 바울의 ‘의의 면류관’이나 위트니스 리의 ‘공중에서 만나리’를 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느낌을 거의 간섭하지 않으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오늘날 내가 각 부분의 진리를 분명하게 일러 주었지만 너는 아직도 느낌을 찾고 있으니 막연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확실한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개인의 느낌을 믿다니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 아니겠느냐? 결국에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나?

오늘날 성육신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실제적으로 한다. 이는 네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사실이 임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실이 임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나님이 친히 사실을 드러낸 후에야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 과거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착각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이고, 자신이 머지않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니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도 이런 느낌 때문에 7년을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날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랐고, 내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번번이 빗나가기만 할 뿐 적중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정말 성령이 준 느낌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사람의 느낌은 정확하지 않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나 내적 상태에 따라 풍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특히 사유가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오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특히 지식과 이론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은 세상과 지낸 시간이 오래다 보니 상상력이 누구보다 풍부하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 편을 내주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강렬한 느낌에 흠족해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뭔가를 느끼고 상상하게 되며 또한 그런 것을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리둥절해하거나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율법시대에도 느낌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사자를 보았으며, 꿈을 꾸었으므로 그들의 느낌은 지금의 사람들보다 정확했다. 지금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할뿐더러 사자도 보지 못하므로 느낌이 틀릴 때가 많다. 지금 사람들은 몹시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대로 하는데, 성령이 책망하는 일도 없고, 마음도 몹시 편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의 교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은 사자가 나타나거나 꿈을 주는 일이 거의 없고, 하늘에 '징조'가 보이는 일도 전혀 없다. 그런데다 성령이 곱절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도 않고,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진리를 찾지 않아 실행할 방향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면 절대 개입하지 않으며, 사람이 야단법석을 떨어도 내버려 둔다.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언젠가 너는 우왕좌왕할 것이다.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욕심으로 사역할 따름이다. 사람의 '세상'을 피해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하며, 사람의 '사역'에 관여하는 법이 없다. 그는 오늘 네가 일을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며, 내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상을 내리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일로, 성령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결코 내가 일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말을 했고, 사역도 많이 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전혀 없었겠느냐? 온전히 성령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일개 피조물로,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 그는 베드로이지 예수가 아니다. 그들은 본질도 다르다. 베드로가 성령의 보내심을 입었을지라도 그는 어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바울 역시 수많은 말을 했고, 교회들에 많은 서신을 써 보냈으며, 그중 일부가 성경에 수록되기도 했으나 성령은 아무런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 당시 바울은 성령께 쓰임 받고 있었기에 그는 체험 중에 얻은 것이 있었고, 또 그 얻은 인식을 써서 주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해 주었다. 예수도 거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 성령이 왜 저지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불순물이 좀 섞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게다가 그렇게 한 것이 교란이나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사역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한결 쉽다.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가 섞여 있다 해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게다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어느 정도 체험하면서

진리를 조금 깨달으면, 머리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면이 줄어든다. 체험을 많이 하면 그런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니 방해하는 경우도 줄어든다. 즉, 사람의 생각, 논리, 추론 모두가 뒤집혀 비정상적인 느낌이 줄어드는 것이다. 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두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여 사람이 생각에 지장받지 않고, 더 이상 느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사람의 실제 분량도 자란 것이다.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더 이상 공허하고 막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착각하는 일도 없게 된다. 이때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의 실제 분량이다.

정복 사역의 실상 1

인류는 사탄에 의해 너무 심하게 패괴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증거가 따랐지만 사람이 패괴되자 영광도 증거도 사라졌다.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증거와 영광을 되찾아 오므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피조물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 단계에 하려는 사역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인류를 정복하겠느냐?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을 통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고, 폭로, 심판, 형벌과 무자비한 저주로 철저히 인정하게 한다. 또 사람의 패역을 폭로하고 사람의 대적을 심판하여 인류의 불의와 더러움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킨다. 주로 이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말씀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정복하는 경로이다. 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말씀의 매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겠느냐? 너는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정복될지는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직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신 것을 기초로 자신의 패괴와 더러움, 패역과 불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실행해야 하며, 또한 이상(異象)도 갖춰야 한다. 네가 어떤 선택도 없이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정복된 것이며, 그것도 말씀으로 인해 정복된 것이다. 인류는 왜 증거를 잃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인류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세상을 좇는다.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바람, 사치스러운 요구가 너무 많고, 늘 욕에 신경 쓰며 육적인 것을 고려할 뿐, 하나님을 믿는 길을 찾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한사코 사탄만 위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증거를 잃게 되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 것이다.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손꼽을 정도로 적다. 사람은 무엇보다 앞날을 걱정할 뿐 생명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뒤에서 판단하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일단 차치할 것이며, 이 부류의 패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는 빛 속에서 살면서도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후회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영영 사라질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 네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직 현재의 사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우주의 사역이 전개되면, 즉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여 온전케 된 사람은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다. 쓰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패역한 자식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성령 역사가 조금도 없으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징벌 속에 떨어져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에서 네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생명이 성장한다면 너는 쓰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잘 무장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 사역에서 너를 쓰고 싶어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테니, 그때 가서 무장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면 네가 어디 가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역 기회를 찾겠느냐? 네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직접 받겠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지도 않고 음성을 발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한 말씀만 보고서 어떻게 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후의 생활이 어찌 지금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때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생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복을 주어도 누릴 줄 모르고 복 가운데서 살면서도 복인 줄 모르니, 고생할 팔자인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은 대적하고, 어떤 이들은 거역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짓, 저런 짓을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른 그 짓거리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본질을 모를 리 있겠느냐? 구태여 계속 나와 맞설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 생명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더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믿는 것 아니더냐? 지금 나는 그저 말로써 정복 사역을 할 뿐이다. 정복 사역이 끝나면 너의 결말도 드러날 텐데, 굳이 내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의 정복 사역은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다. 왜 지금의 형벌과 심판이 바로 마지막 날의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라고 하겠느냐? 이것도 꿰뚫어 보지 못했느냐? 왜 마지막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이겠느냐? 바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형벌과 심판의 정복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본모습을 드러낸 후 각기 부류대로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인류를 정복한다고 하기보다는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고 하는 편이 낫다. 다시 말해, 사람의 죄를 심판함으로써 각 부류의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악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정복 사역 다음은 상선벌악의 사역이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즉 철저히 정복된 사람은 전 우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 사역 가운데 놓일 것이고,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놓여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는데, 악인은 악으로 돌아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며, 의인은 선으로 돌아가 빛을 얻고 영원한 빛 속에서 살게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결말도 눈앞에 드러났다.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뉠 것인데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을 때 드러나고, 또 전 우주의 정복 사역(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정복 사역 포함) 가운데서 드러난다. 모든 인류의 결말은 심판대 앞에서, 형벌 가운데서, 말세의 정복 사역 중에서 드러난다.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것은 사람이 원래 속했던 부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한 부류, 즉, 남자와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람의 부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사람이 수천 년간 파괴되면서 부류가 생겼을 뿐이다. 어떤 부류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악귀의 권세 아래, 어떤 부류는 생명의 도를 추구하여 전능자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점점 부류가 생겼고, ‘사람’이라는 대가족이 각각의 부류대로 나뉘어 저마다 서로 다른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능자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패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의로운 심판이 각 부류 사람의 진면목을 숨김없이 들춰내 모든 사람은 빛 속에서 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이미 태초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하늘해(원문: 天日)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의 내면은 사탄의 여러 가지 독소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합한 종착지가 생겼고, 모두가 저마다 지닌 서로 다른 독소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되었다. 즉, 오늘날 정복된 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다. 사람의 결말은 창세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한 부류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통틀어 ‘인류’라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았으며, 어둠이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에는 각종 사람, 즉 남자, 여자의 통칭인 ‘인류’라는 이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종 사람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조상에게 이끌려 그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남자와 여자(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장 오래된 시조), 그 인류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와 인도를 받으며 땅에서 생활한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다. 이스라엘 온 땅(최초의 대가족)에서 갈라져 나온 각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와 인도를 잃게 되었다. 처음 난 인류는 인간 세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 오늘날까지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의해 패괴되었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도 모른다. 오늘날에 이르러 심하게 패괴되고 중독된 사람들, 즉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그들을 패괴시킨 더러운 귀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적합한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구원받고 정복된 사람의 결말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최선을 다해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마비되어 구제 불능이 된 사람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사람을 형벌하는 무저갱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너의 결말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에야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태초에 인류를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만 만들었고(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인류는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느냐? 만약 네가 처음부터 사탄의 후예였다면,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 때 사탄과 같은 부류의 사람도 만들었다는 말이나? 그가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그가 사람을 만든 것은 그의 증거를 위해서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가 일부러 사탄의 자손과 같은 부류를 만들어 자신을 대적하게 할 리 있겠느냐? 여호와가 그렇게 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그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 중 일부를 가리켜 결국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가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다. 설령 너를 구원한다고 해도 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사탄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공의롭게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가 구제 불능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너를 사탄의 화신으로 정한 다음 사탄에게 주어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복 사역의 실상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의 인식이 너무 단편적인 것이다! 마지막 때의 정복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심판으로 사람의 타락을 들춰내고, 이를 통해 사람이 회개하고 분발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감각하고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심판으로 사람 내면의 패역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인생의 바른길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런 패괴를 벗어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삼켜질 구제 불능인 자다. 이것이 정복의 의의다. 정복은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결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좋은 결말이든 나쁜 결말이든 다 정복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사람이 구원받는지 저주받는지도 정복 사역에서 드러난다.

말세에는 정복을 통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한다. 정복은 말세의 사역이다. 즉,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말세의 사역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각기 부류대로 나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는,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은 전 우주에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사역의 시작이다. 이후에는 각 지역, 각 민족도 다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기 부류대로 나뉘게 될 것이고, 모두 심판대 앞으로 돌아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이 형벌과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각기 부류대로 나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부류에 따라 나뉜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이 왔고 온 천지가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생존이 끝나는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패역한 행위가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너희의 마지막 날이 다 눈앞에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을 보지 못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마지막에 선행에 대한 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냐? 너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여 저주받는 사람이냐? 너는 빛 속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음부에서 살고 있느냐? 네가 마지막에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행위와 너의 마음은 대체 어떠하냐? 지금 내가 너를 정복함에 있어, 너의 행위가 악인지 선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 얼마나 포기했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깊이 경배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결말이 과연 어떨지,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나는 인류를 만들고 또 너를 만들었을 뿐,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주지 않았고, 일부러 너희로 하여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해서 나의 징벌을 받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너희의 행동이 너무 비열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럼 너희의 결말 역시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결말은 너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네가 더 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너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것도, 일부러 너를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가

되어 심하게 고통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것은 전부 너의 죄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 자신의 선이나 악은 너에게 가장 좋은 심판 아니겠느냐? 너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중국의 하나님 선민들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이 사람들의 패역한 성품을 모두 드러내고 추악한 모습을 다 들추어낸다. 이것을 배경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후 전 우주를 정복하는 다음 단계 사역을 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함으로써 전 우주 사람들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는 인류의 패역자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각물이 되고 봉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따라오는 사람은 쓰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왜 부각물이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지금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너희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이고, 또 너희는 인류 중 패역자의 대표이자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너희를 정복하는 이 말씀들을 외국으로 가져가 외국 사람들을 정복할 텐데, 네가 얻지 못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전 인류의 패괴 성품, 사람의 패역한 행위, 사람의 이런 추한 모습과 면모가 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각 나라와 각 교파의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본보기이고 선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러 너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제대로 추구하지 않아 구제 불능이 된다면 완전히 봉사만 하는 존재, 부각물이 아니겠느냐? 나는 예전에 나의 지혜는 사탄의 간계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왜 그 말을 했겠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사역하는 실상 아니겠느냐? 네가 따라오지 못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면, 부각물에 속하지 않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는 많은 고난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생명의 일에 대해 조금도 모르며, 형벌과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생명을 얻지도 못했다면, 공사를 점검할 때 불 같은 시련과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불이 닥치면 너는 송두리째 재가 될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없고, 정금의 성분이 전혀 없으며, 예전의 패괴 성품이 변함없고, 부각물이 된다 해도 좋은 부각물이 될 수 없다면, 너를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을 할 때 한 푼의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노아와 소돔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구원 사역이 끝났을 때 네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인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 너는 대적하고 거역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니, 무거운 형벌을 받을 대상 아니겠느냐? 오늘날 너에게 분명히 알려 주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난이 닥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믿는다 한들 너무 늦은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는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데도 원치 않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형벌의 날까지 이럴 것이냐? 지금 나는 네 이전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고, 한 번 또 한 번 너를 용서해 주며, 너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본다. 지금 말하고 사역하는 이유는 너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고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너는 진입하지 않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며, 은혜를 모른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그 징벌과 공의의 보응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었다. 꼭 복만 얻은 것은 아니다. 다윗처럼 기쁨과 환희를 얻었을 수도 있고, 모세처럼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을 얻었을 수도 있다. 욥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는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가 베풀어 준 복도 얻었고, 재앙도 입었다. 하지만 복을 받든 화를 입든 다 복이 있는 일이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이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날 너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행사는 더더욱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볼 수도 없고 더욱이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화와 재난, 모든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네가 오늘날 여호와의 행사를 볼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 너는 믿음으로 인해 정복되었고, 또 정복됨으로 인해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믿게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인해 이런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너는 이런 형벌과 심판으로 인해 정복되고 온전케 된다. 오늘날의 이런 형벌과 심판이 없었다면 너의 믿음은 모두 부질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한들 실체가 없는 텅 빈 글귀이기 때문이다. 네가 이런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야만 너의 믿음이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며,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이다. ‘믿음’ 때문에 많은 심판이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알차고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 너는 심판 가운데서 비로소 피조물의 종착지를 알게 되었고, 창조주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었다. 또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팔을 보게 되었으며, 인생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생의 바른길을 얻었고, ‘사람’의 참뜻도 깨닫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전능자의 공의 성품과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되었으며, 사람의 근원과 전 인류의 ‘불후의 역사’도 알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가운데서 인류의 조상과 인류가 패괴된 기원을 알게 되었으며, 희락과 위안을 얻었다. 또한 끝없는 채찍질과 징계도 받았고, 창조주가 지음 받은 인류에게 하는 질책의 말씀도 듣게 되었다. 너는 이러한 정복 사역 가운데서 축복은 물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화도 입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인해 너의 믿음도 커지지 않았더냐? 네가 얻은 것이 매우 많지 않더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도 직접 체험했다. 어쩌면 너는 자신이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벌과 전능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만날 기회도 영영 놓치고, 또 인류의 기원도 영원히 알지 못하며, 인생의 의미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령 너의 육체가 멸망하고 영혼이 이탈한다고 해도 너는 창조주의 모든 행사를 알지 못할 것이고, 더욱이 창조주가 인류를 만든 후에 땅에서 이처럼 큰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창조된 인류로서, 너는 그렇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떨어져 영원히 징벌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떠난다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오늘날의 심판을 떠난다고 해서 이 고난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땅’을 떠나면 고통에 시달리거나 마귀에게 해를 입지 않겠느냐? 견디기 힘든 나날이 닥치지 않겠느냐? 오늘날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훗날의 고통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장차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바라는 무릉도원이겠느냐?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면 훗날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기회와 축복을 네가 이후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재앙이 임할 때 찾을 수 있겠느냐? 모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화목한 가정이 네 훗날의 영원한 종착지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피조물인 네가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이고, 또한 네가 본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복은 너의 믿음에도 가장 이롭고 너의 생명에도 가장 이롭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정복된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당장 진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일은 조금만 알면 된다. 일부 심오한 비밀의 말씀은 생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금 보기만 하고

연구하지 마라.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밀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등은 볼 필요가 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예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케 되어야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실행에 관한 것이자 또한 알아야 할 점이다. 너는 이 말씀대로 추구하고 진입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왔다.”라는 말을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형제자매들과 모여서는 “하나님께서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시간이 6천 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또 수만 년이라고 하시죠?”라며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연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수만 년 동안 했든 수억 년 동안 했든 네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피조물인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좀 보면 그만이니, 이상으로 삼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무엇에 진입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여 깨달아야만 정복될 수 있다. 위의 말씀을 봤으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은 몹시 애타며 급해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복하고 영광과 증거를 얻으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분께 완전히 정복되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이다. 너희 모든 사람은 정복의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는 깨달아야 진입할 수 있고, 이 단계 사역에 인식을 갖게 되며,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다.

너는 왜 부각물이 되기 싫어하느냐?

정복되는 대상은 부각물이다. 사람은 온전케 된 후에야 말세 사역의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다. 온전케 되기 전에는 부각물이자 도구, 봉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철저히 정복된 사람은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표본 모델이 된다. 별것 아닌 걸로 보이는 이 몇 개의 ‘호칭’ 때문에 사람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너희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종종 별것 아닌 호칭 하나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불쾌해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소한 호칭일 뿐이지만, 너희는 생각과 의식상에서 이것을 그저 사소한 호칭이 아닌, 너희의 운명과 관련된 큰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 때문에 큰 손실을 야기하곤 하는데, 그야말로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짓이라고 하겠다. 또한 너희는 작은 호칭 하나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도망가 버리기도 한다. 이것은 다 너희가 생명을 너무 경시하고 너희 자신에 대한 호칭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위에 대한 너희의 관념으로 인해 영 생활에서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주 복잡하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터지곤 한다. 너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분명 실생활에 존재한다. 그저 일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너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 적이 있다. 못 믿겠다면 한 자매(형제)가 삶 속에서 겪은 다음의 작은 이야기를 보아라. 이 사람이 너 자신일 수도 있고, 네가 잘 아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만약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너 자신의 체험일 것이다. 말 한 마디, 마음과 생각 하나까지 전부 이 이야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 믿지 못하겠다면 읽어 보도록 해라.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작은 체험이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그는 형제자매들을 훈계하기 시작했다. “다들 양심도 없네요! 어째서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겁니까? 어째서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몹시 애태우며 조급해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지네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싶고, 당신들을 섬기고 싶지만 지금은 힘이 딸리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 늘 죄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한다.) 이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저를 더욱 감동시켜 주시며, 당신의 영이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협력하기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한대도 기꺼이 원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크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모두 춤추고 노래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나타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사역을 진실로 믿고 당신의 부담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정말 그에게 부담을 더해 주었다. 그 뒤로 그는 누구보다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온종일 보고 쓰고 들으며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영적 상태 또한 더없이 좋아져 마음속에 항상 힘이 넘치고 부담을 느꼈다. 가끔 연약해지거나 실패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이렇게 한동안 체험하면서 그는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찬양도

매우 빨리 배우게 되었다. 요컨대, 영적 상태가 무척 좋아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회의 일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해져 형제자매들을 질책했다. “이것이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인가요? 어찌하여 조금의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죠?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제가 하죠...”

부담을 갖고 있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할수록 그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간혹 난관에 부딪히고 소극적으로 변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겨 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상태가 아주 좋을지라도 일부 어려움으로 인해 연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또 얼마 안 가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연약함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분량이 실로 작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했다. 게다가 자신에게 다른 생각이나 선입견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했다. 이는 전부 성령이 정상적으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상태이다. 한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사역은 바뀌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새로운 사역 절차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에게 요구를 한 것이다. “... 나는 너희를 미워하기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축복한 적이 없다. 아니, 너희를 축복할 생각도, 온전케 할 마음도 없다. 너희는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교활함과 간사함 때문에, 너희의 부족한 자질과 낮은 지위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안중에 둔 적이 없으며, 마음에 둔 적도 없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사역한다. 나의 손과 형벌은 줄곧 너희를 떠나지 않았으며, 나는 언제나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에 너희에 대한 내 분노는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있지만, 너희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지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오직 혐오하기만 할 뿐, 다른 태도도 생각도 없다. 나는 그저 너희를 통해 나의 지혜와 큰 능력을 부각시킬 뿐이다. 너희는 나의 부각물에 불과하다. 나의 공의가 너희의 패역을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내 사역의 부각물, 그리고 부속물로 삼았다...” 그는 부각물, 그리고 부속물이라는 말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대가를 치렀는데도 부각물이 된다니, 부각물이라면 힘쓰는 자 아닌가? 전에는 봉사자가 아니라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보니 봉사자의 꼬리표를 떼어 버리지 못했구나. 봉사자라면 생명이 없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많이 고생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구나! 부각물이 된 후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 빠졌다.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보자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다. “여러분도 버겁겠지만 저도 버겁네요!

저는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에휴! 뭘 어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으시는 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니 소극적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저도 왜 이런지 기도도 하고 싶지 않네요.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도저히 힘이 생기질 않네요. 몇 번이고 기도했지만 정말 기운도 안 생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도 않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릴 부각물이라고 하셨어요. 부각물이라면 힘만 쓰는 봉사자잖아요? 바로 그런 부각물이라고 하셨어요. 아들도, 백성도, 아들들도 아니고 장자는 더더욱 아니죠.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부각물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꼬리표가 붙었는데 우리에게 좋은 결말이 차례지겠어요? 부각물은 희망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아들이나 백성이란 온전케 될 희망이 있겠지만, 부각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힘만 쓰는 사람 안에 생명을 넣어 주실 리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아들이자 백성이죠. 제가 소극적으로 변했고 연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는 마세요.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소극적으로 굴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부각물이 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두렵네요. 어쨌든 저의 의지도 이만큼뿐이네요. 어차피 전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저를 따라 배우지 말고 저를 교훈으로 삼아서 얻는 게 있기를 바래요. 전 그냥 죽어 버릴까 봐요!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각물이 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래요. 어쨌면 부각물이 하나님께 인정받을지도 모르니...” 형제자매들은 그를 보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변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식어’ 버렸어요? 왜 비정상이 된 거죠?”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저를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속으로는 뻔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부각물이 안 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나쁜 일을 저지른 건 없어요. 어쨌면 하나님께서 부각물을 피조물로, 그것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피조물로 바꿔 주실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가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따르면서 부각물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나아가지 못하겠으니 여러분은 저에게 구속받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따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극적인 모습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

그렇게 한동안 체험했지만 그는 부각물이 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내 사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의 실상과 본질, 그리고 이루려는 성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너는 내 사역의 목적과 지혜에

대해서도 모르며, 내 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부각물이 된 것으로 인해 뒷걸음질 치는 것뿐이다. 지위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크구나! 바보 같은 것아! 지난날 나는 네게 수많은 말을 하며 너를 온전케 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잊은 것이냐? 부각물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자 그는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각물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 먼저 사람을 정복한 후에 온전케 하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하지 않더냐?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하지 않더냐?” “그렇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은 사역의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더냐? 내가 한 말은 네 필요에 맞춰 사역하고 말한 것 아니더냐?” “당신은 사람의 필요에 맞춰 사역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네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형벌 또한 너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저를 위해서라뇨! 저는 당신의 형벌 때문에 죽기 직전입니다. 더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걸요. 당신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저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저를 위해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온전케 하시는거녕 오히려 저를 부각물로 삼으셨으며, 여전히 저를 형벌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증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네요.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은 그냥 마음의 분풀이를 하려는 것이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ल요. 지금까지 당신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형벌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기에 계속 순종하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각물’이라는 호칭을 얻을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제게 부각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셔야겠습니까? 하나님나라에서 문지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줄곧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했지만, 결국에는 두 손이 텅 비고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각물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무슨 낫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전에 심판의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인식한 것이 없느냐? 너는 참으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 부각물이라는 호칭 또한 말씀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설마 부각물에 관한 말씀 또한 일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겠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따라야 하겠느냐?” “어떻게 따를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각물입니까, 아닙니까? 부각물도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부각물이라는 이 명칭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부각물도 힘 있는 증거를 한 후에는 온전케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보기, 하나님의 지기(知己)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사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지금 부각물이라는 이 지위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도 변할 수 있다. 부각물이냐 아니냐가 네 운명과 관계되지는 않는다. 관건은 네가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저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제가 또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환난,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어야 한다. 특히 부각물과 같은 말씀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각물과 같은 형벌이 또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환난을 겪고 나서 당신께 온전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부각물보다는 나으니까요. 부각물이라는 이름은 정말이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부각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각물이 어때서 그러느냐? 나쁠 것 없지 않느냐? 부각물은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더냐? 내가 부각물에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하면 너는 복을 누릴 것이다. 사람의 호칭은 나의 사역에 따라 변하는 것 아니냐? 호칭 하나에 너는 이렇게까지 속앓이를 한단 말이냐? 이런 부각물이 되는 것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는 따르겠느냐?” “당신은 저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게 당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너는 끝까지 따를 생각이 있느냐? 너 자신을 바칠 생각이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각물도 당신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당신께 온전케 될 수 있으며, 그 후에 당신의 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신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도 가지며, 당신이 누리시는 것을 저도 누리고, 당신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 환난을 겪고 온전케 된 후에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누릴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알려 주어도 너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부각물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정복되고 나면 성공한 부각물, 정복된 표본 모델이 된다. 물론 정복된 후에야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다.” “표본 모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 즉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표본 모델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많다. 너희 4~5천 명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이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정복될 것이다.” “그럼 다섯 고을, 열 고을은 넘겠네요!” “조급해하지 말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나 생각하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온전케 해 주겠다.” “저를 어느 정도로 온전케 해 주시고, 제게 어떤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얼 그리 조급해하느냐! 내가 온전케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신실한 자임을 잊은 것이냐?” “당신은 분명 신실하십니다. 다만 오늘은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다가 내일

가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 같은 자는 절대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등 말씀하는 방식이 늘 바뀌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처럼 믿기도 힘들습니다.” “너는 도대체 자신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바친단 말입니까?” “너의 미래와 소망을 바쳐야 한다.” “그런 것들은 모두 내려놓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부각물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싫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서 부각물이라는 이 꼬리표만 떼어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제게 부각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쉬운 일 아니겠느냐? 내가 네게 달아 준 것이니 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단계를 체험한 후에야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 너 같은 사람일수록 더 부각물이 되어야 한다. 네가 부각물이 되기를 두려워할수록 나는 네게 더 부각물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반드시 엄한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한다. 패역한 사람일수록 힘쓰는 대상이 되는 법이다. 그런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데도 어째서 부각물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는 이 오랜 세월 당신을 따르며 많은 고난을 받았고, 당신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며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나이가 짝 찼지만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일 때 당신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대학에 갈 기회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부각물이 되라니, 저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렇게 고생한 결과가 당신의 부각물이 되는 것이라니, 제 동창과 또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지금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냐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당초 저는 당신을 믿었기에 어떤 대가든 모두 치렀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어도 저는 당신을 따르면 언젠가 빛 볼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 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저를 부각물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낮은 지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줘도 됩니다! 당신의 제자가 못 되어도,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당신을 따르면서 가정까지 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각물이라는 호칭을 얻다니요. 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버렸고, 어떤 부귀영화도 포기했습니다. 지난날, 누군가 제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스타일도 참 훌륭한 고위층 인사의 자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역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하나님나라로 이끌고 온전케 해 줄 것이니,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게 각오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선물도 수차례 보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때 제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을 놓쳤는데 괴롭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로 며칠이나 밤잠 못 이루며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할 때면 성령은 언제나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느냐?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라는 당신의 말씀을 떠올리기만 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없이 감동을 받았고, 설움에 잠겨 눈물을 흘린 것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대로 먹고 입지 못한 건 둘째 치고, 이 어긋난 결혼만 봐도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셈입니다. 이걸 봐서라도 부각물로 삼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당신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 결혼을, 제 인륜지대사를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반려자를 찾아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최고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두 손이 텅 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더러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따른 이후 늘 고난을 받았지 좋은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육적인 누림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바친 모든 대가를 다 합쳐도 당신의 복을 누리기엔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오늘 저희에게 부각물이 되라고 하시는 건 너무나 처사입니다. 저희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아들딸을 버린 사람도 있고, 일자리를 버린 사람도 있으며, 아내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누림을 모두 버린 저희에게 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이 모든 대가가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도 보지 못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의 신분이 미천하고 자질이 떨어진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희에게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언제 따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저희를 냉정하게 내치며 부각물의 ‘대우’를 하시는데, 그러시고도 속이 편하십니까? 저희가 치른 대가로 겨우 부각물밖에 얻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제게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것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 앞에 부각물의 이름을 내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찌 제 입으로 저 자신이 부각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에게도, 예전의 그 남자에게도 떳떳이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부각물이라니요. 아! 참으로 가슴이 시럽니다!” (무릎을 치며 울기 시작한다.) “설령 내가 지금 네게 부각물이 아니라 백성의 호칭을 준다고 한들, 네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위를 줄 테니 가서 사역하라고 한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체험해 오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고도 너의 과거를 들먹이다니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구나! 너는 대가만 치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설마 내가 얻으려는 사람에 대한 조건을 말해 주지 않았단 말이나? 내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과거사를 들먹이다니!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란 말이나! 고난을 겪은 것은 너 스스로가 원한 일이 아니었더냐?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냐? 너는 내 요구에 부합했느냐? 네 머릿속에는 오직 복받을 생각밖에 없다니, 정말이지 염치도 없구나! 내가 언제 네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조건을 내밀지 말고 매사에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좋은 일은 적고 나쁜 일이 많을 것이라고 네게 미리 말해 줬다. 그것을 잊은 것이냐? 나는 이런 말을 적지 않게 했다. 고난을 감내하려거든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어라. 나는 강요하지 않으니 선택은 네 자유다! 그러나 나는 계속 이렇게 사역해 나갈 것이다. 나는 너 한 사람의 패역 때문에 내 모든 사역을 그르칠 수 없다. 네가 순종하기 싫어해도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있다. 모두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나! 아무것도 겁내질 않으니! 내게 조건을 따지다니, 죽고 싶은 것이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너 자신을 위해 명리를 다투지만, 내 사역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너는 눈이 먼 것이냐? 내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보지도 못했을 것이니,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성육신하여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냐? 모르는 게 무엇이나? 너는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그 많은 사역을 하고도 원망이나 듣는 나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내가 행한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현재 사람의 분량을 보면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오늘날 내가 너를 부각물이라고 부르면 너는 부각물인 것이고, 백성이라고 부르면 너는 백성인 것이다.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면 너는 바로 그런 존재다. 이것은 모두 내 말 한 마디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한 마디가 너를 이토록 분노케 한단 말이나? 내가 네게 크게 실례했구나! 지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저주를 받고 돌아가야 좋겠느냐? 생명의 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위와 호칭에만 연연하는구나. 네 생명은 어떠하냐? 네가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나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 자신의 분량과 내가 실행한 것들을 보아라. 오늘날까지도 조건을 따지고 앉았으니 이것이 바로 네 의지와 맞바꾼 분량이나? 네게 인격이 있기는 하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냐? 내가 잘못 행한 것이냐? 너에 대한 내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며칠만 부각물이 되라 하는데도 꺼려 하면서 네게 무슨 의지가 있다는 것이냐? 모두 나약하고 줯대 없는 폐물들이다! 너 같은 사람은 지금 징벌해도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이런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 절차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너희의 추구에는 개인의 관념, 기대와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다. 현재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지위에 대한 너희의 마음과 사치스러운 욕망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한 기대와 지위, 관념은 모두 전형적인 사탄 성품을 대변한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탄의 독소가 사람의 사상을 쏙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종일관 사탄의 그 유혹을 벗어던지지 못하여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맞게 마련해 주셔야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보다도 지위가 높고 앞날이 밝아야 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셔야 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잖아.’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생존의 토대가 된 사상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쏙먹어 사람을 간사하고 나약하며 비열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람은 끈기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거만하게 변했다. 자신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흑암 권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는 더더욱 없다. 사람의 사상과 삶은 썩어 문드러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관점 또한 추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그야말로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사람은 모두 나약하고 무능하며 비열하고 연약하다. 흑암 권세에 대해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못하고, 광명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쫓아낸다. 현재 너희의 사상과 관점도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상 복을 받아야 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 너희 내면에 자리 잡은 건 1~2년의 일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되었다. 너희는 장삿속이 아주 발달했다.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지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채 계속 바둑바둑 ‘추궁’하고 있다. 게다가 매일같이 관찰하며, 언젠가 지위도, 명예도 모두 잃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은 안락을 탐하는 마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판하면 너희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깨닫게 되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높여 주심을 누렸다고 말할 것이며, 지위가 없는 것은 너희의 출생이 미천하기 때문이고, 지위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높여 주심과 베풀어 주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높여 주신 덕분이다. 또한 직접 하나님께 정결함과 불사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덕분이다. 역대 이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정결케 함과 불사름을 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며,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속에 있는 패역을 드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준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든 모압의 후손이든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요구가 없다. 너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제게 지위가 있든 없든 저는 이제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제 지위가 높다면 그것은 당신의 높여 주심이고, 제 지위가 낮다면 그것 또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저는 어떤 선택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살게 하셨으니 저는 당신의 권세에 오롯이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지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피조물일 뿐이니깐요. 당신께서 저를 무저갱에, 유향불 못에 넣으신다고 해도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쓰셔도 저는 피조물이고, 당신이 저를 온전케 하셔도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온전케 하지 않으셔도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자, 당신께서 지으신 인류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저를 만드셨고, 오늘날 또 저를 당신의 손안에서 지배하시니 저는 당신의 도구, 당신의 부각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만사 만물이 다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너는 지위 따위를 중시하지 않고 해방을 받게 된다. 그래야 너는 담대하게 추구해 나가고, 너의 마음이 그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 사람은 거기에서 풀려나면 어떤 염려도 하지 않게 된다. 현재 너희 대다수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늘 지위에 묶여 있고, 자신의 앞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늘 말씀 책을 뒤적이면서 인류의 종착지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앞길과 종착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또한 ‘내 앞길은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없애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각물이라는 말씀만 하셨어. 그렇다면 앞길은 대체 무엇일까?’ 라고 늘 속으로 궁리한다. 너희는 앞길과 운명을 내려놓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현재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이 단계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는 못했다. 지위가 높아지면 열심히 추구하고, 지위가 낮아지면 추구하지 않으니, 지위의 복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겠다. 어째서 많은 사람이 늘 소극적이 되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황급히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지를 확인한다. 지위와 신분, 이 두 가지를 너희는 가장 앞자리에 놓고, 이상(異象)은 그다음이며, 자신의 진입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비로소

현재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먼저 부각물이라는 호칭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뒤적거리다가 부각물의 꼬리표가 떨어졌으면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부각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괴로워하며 그 순간 힘이 다 빠져 버린다. 네가 이렇게 추구할수록 얻는 것이 없다. 지위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망을 받고, 더 큰 연단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도 무가치하다! 많은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만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얻을 수 없다. 너는 자신의 변화와 진입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사치스러운 욕망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가까이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너를 하나님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 기회에 세상으로 돌아가 한바탕 크게 하고 싶은 일을 벌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헛되이 시간만 보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굳이 너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있겠느냐?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엇인들 누릴 수 없겠느냐? 재물과 미인, 지위, 허영, 가정, 자녀 등등 이 모든 세상의 산물이 전부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아니더냐? 무엇 하러 여기에서 편히 쉴 곳을 찾아 헤매느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거늘, 네게 어찌 안락한 곳이 있겠느냐? 아무렴 그가 네게 안락하고 좋은 쉼터를 마련해 주겠느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오늘날 네가 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심판과 진리의 가르침뿐이다. 너는 내게서 안락을 얻을 수 없고, 오매불망 바라는 안락한 거처도 얻을 수 없다. 나는 네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지 않는다. 네가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나는 네게 모든 생명의 도를 줄 것이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누리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갈 것이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안락을 탐하는 개돼지 같은 자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

두 번째 정복 사역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가

봉사자 단계 사역은 정복 사역의 첫 번째 단계였고, 지금은 정복 사역의 두 번째 단계이다. 정복 사역에서 왜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겠느냐? 앞으로를 위해 기반을 닦기 위함이다. 지금은 정복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할 것이다. 지금은 주로 정복 사역을 하지만 온전케 하는 초기 단계로서 사람의 인식과 순종을 온전케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과 순종

역시 정복 사역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앞으로의 환난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며, 다음 단계 사역의 확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얻어지는 때이다. 현재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정복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즉 철저히 정복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에서 굳게 서기 어렵다. 정복되기만 했을 뿐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단계의 증거만 한 셈이다. 온전케 되는 것이야말로 최종 목적이다. 온전케 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사람과 같다. 앞으로 환난이 닥치면 사람의 실제 분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의 순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저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품이 더욱 돋보이도록 부각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든 저주하시든 심판하시든 상관없이 저희는 늘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네게 그저 인식이 조금 생겼음을 의미할 뿐, 그 인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네 인식이 실제적인지에 달렸다.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정복 사역으로 얻은 성과이다. 그러나 온전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환난이 닥치면 알 수 있다. 그때면 하나님에 대한 네 사랑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순결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너는 “우리는 부각물이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괴 성품에 대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도,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네게 진정 이러한 체험과 인식이 있다면 된다. 지금 너는 수없이 많은 말을 인식 없이 내뱉으며 “우리는 부각물입니다”, “봉사자입니다”, “우리는 정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것입니다” 등의 공허한 구호를 외친다. 그러나 외친다고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네가 분량 있는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참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 인식은 점증을 받아야 한다.

너는 마땅히 그동안 하나님이 했던 말씀들을 많이 보고 또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조해 보아야 한다. 영락없는 부각물일 것이다. 확실하다! 지금 네 인식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 네 마음과 생각, 처신, 언행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 않더냐? 너희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폭로한 패괴 성품 아니더냐?

너의 마음과 생각, 속셈, 그리고 네가 드러내는 패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거룩함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똑같이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조금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고, 똑같이 더러운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그는 이성과 식견을 갖추었다. 그는 더러운 것을 혐오하며, 너의 언행과 너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더러운 것까지 모두 발견하고 짚어 줄 수 있다. 오늘날, 네가 지닌 낡은 것들, 교양도 식견도 이성도 없는 모습과 낡아 빠진 생활 방식들을 하나님은 전부 폭로하며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기에 사람은 그의 거룩함과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너를 심판하고 형벌하여 인식하게 한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훤히 꿰뚫고 있기에 네게서 마귀의 본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짚어 줄 수 있다. 그는 너희들 가운데서 생활하며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를 드러낼 수 있으며, 사람의 패괴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사람의 처세 철학이나 간사함, 교활함은 모두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람의 육적인 왕래를 증오한다. 그는 사람의 처세 철학은 모르지만 사람이 드러낸 패괴 성품은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폭로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침을 주는 사역을 한다. 또한 이러한 것을 통해 사람을 심판하며, 그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보여 준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 인해 사람의 각종 패괴 성품과 사탄의 모든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너를 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부각시키는 역할만 하게 해도 너는 스스로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된다. 그것은 네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드러낸 것을 대상으로 말씀하며,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다 폭로한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람에게 있는 더러움 한 점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나아가 사람 마음속의 더러운 생각이나 그의 뜻에 맞지 않는 언행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존재의 더러움도 남김없이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럴 때 너는 비로소 그가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며, 사람에게 존재하는 아주 작은 더러움까지 그가 극도로 혐오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왜 늘 화만 내십니까? 왜 사람의 연약함을 봐주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을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리도 매몰차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패괴되었는지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한다. 그는 죄를 혐오하며 증오하기에 네게 조금이라도 패역이 있으면 그것을 극히 혐오한다. 네가 패역한 성품을 보이는 즉시 그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의 성품과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에 너 자신을 비춰 본다면 비록 그가 사람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누리며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일상을 보낼지라도 사람과는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각물의 의의 아니겠느냐? 사람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각하고, 어둠으로 빛의 소중함을 부각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러 너희를 부각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역의 결과가 나와야 사람의 패역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가 부각물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지닌 공의로운 성품의 자연적 발로를 알게 될 기회도 생긴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패역으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았지만, 또 그 패역으로 인해 부각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베푸는 크나큰 은혜를 얻었다. 너희의 패역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부각시켰으며, 너희 또한 패역으로 인해 이토록 큰 구원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이다. 비록 너희가 수차례 나의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는 과거의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한 큰 구원을 얻었으니 이 사역은 너희에게 크나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각물’은 너희에게 있어서도 그 가치가 크다. 너희는 부각물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이런 부각물이 되는 것이 값지지 않겠느냐? 그 의의가 크지 않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고 더러운 땅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기에 부각물이 될 수 있었고 크나큰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누가 너희같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겠느냐? 또 누가 너희를 걱정하겠느냐? 성육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또 언제 그 누구도 얻은 적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성육신으로 임하여 너희를 걱정하지 않고 또 너희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진작에 타락해 음부에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자신을 낮추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킬 자격이 주어졌겠느냐? 너희가 부각물이 된 것도 다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임하여 이 크나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도 다 내가 성육신한 덕분 아니더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너희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자신이 깨닫지만도 못한 인간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형벌과 심판을 받는 이유도 육신을 입고 행하는 나의 사역을 부각시키는 데 있지 않더냐?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없이 합당하다.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대로 부각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생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너희는 단지 부각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덕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 부각물 역할을 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며,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은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이다. 너희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오늘날에 얻은 깨달음이나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큰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존속이다. 비록 내가 ‘부각물’이라는 형식을 빌려 너희를

정복했지만, 너희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모두 너희를 얻고자 함이며 너희를 정복하는 것이자 더 잘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부각물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패역 때문에 부각물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누구도 얻지 못한 복을 받게 되었다. 오늘은 너희에게 보여 주고 들려줄 것이며, 내일은 너희에게 얻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이어받게 할 것이니, 이런 부각물은 무엇보다 값진 것 아니겠느냐? 현재의 정복 사역은 너희의 패역 성품을 부각물로 사용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형벌과 심판의 절정은 너희의 불결함과 패역을 부각물로 사용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두 번째 심판과 형벌이 임할 때에도 역시 순종한다면 공의로운 성품은 전부 너희에게 공개되고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정복되는 사역이 끝나는 시점은 너희가 부각물로서의 본분을 완수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일부러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봉사자 역할을 통해 첫 번째 정복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다음은 너희를 부각물로 세워, 다시 말해 너희의 패역을 부각물로 삼아서 두 번째 정복 사역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첫 번째 정복 사역에서 다 나타내지 않은 공의로운 성품까지 전부 공개하여 너희가 이 모든 공의로운 성품과 모든 어떠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역사의 지혜와 기묘함, 그리고 흠 없는 거룩함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의 성과는 각기 다른 시기의 정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서로 다른 수준의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심판이 절정에 달할수록 사람의 패역 성품을 더 잘 드러내고 정복의 성과를 더 잘 거둘 수 있다. 모든 공의로운 성품은 전부 이러한 정복 사역에서 나타난다. 정복 사역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서로 시기와 수준이 다르며 그로 인한 성과 또한 당연히 다르다. 즉, 사람이 순종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모든 사람을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복 사역이 끝나야(두 번째 심판이 최종 결과를 거두어야) 더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생명 체험의 정상 궤도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판은 곧 정복을 뜻하며 정복의 형식이 바로 심판과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가장 낙후되고 더러운 곳에 임해야 그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전부 드러낼 수 있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느냐? 바로 사람의 죄와 사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혐오,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증오를 통해 드러난다. 오늘날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고 사람의 패역을 저주하려는 데 있다. 사람의 간사함과 교활함, 사람의 언행 등 그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심판받아야 하며, 사람의 패역은 정죄받아야 한다. 심판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사람의 패역을 저주하며 사람의 모든 추한 면모를 밝혀냄으로써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낸다. 거룩함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상징으로, 그의 거룩함이 곧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오늘날 이런 말들을 하는 배경은 다 너희의 패괴 성품을 빌려 말하고 심판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사역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부각시킬 수 있다. 만약 네게 패괴 성품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네게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패괴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이 너무나 더럽고 패역한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지도 않고 너의 불의로 인해 너를 형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런 존재는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지 않을뿐더러 사람과 똑같이 더럽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너를 심판하는 이유는 너의 더러움 때문이며, 오늘 내가 네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너의 패괴와 패역 때문이다. 너희에게 위풍을 떨거나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땅에 태어난 너희가 더러움에 너무 많이 물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말이지 인격도 인간성도 잃어버렸으며,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난 돼지와 다름이 없다. 바로 너희의 이러한 점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또 너희는 바로 이러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패역을 보고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며, 사람의 더러움을 보고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가 바로 흠 없이 거룩한 존재이자, 또한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것을 좇는 자라면 그에게는 거룩함의 요소도, 공의로운 성품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불의를 심판할 자격도,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아니겠느냐?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더러운 전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자신뿐이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또 어찌 사람의 죄를 볼 수 있겠으며,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면 그가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사람이 패괴 성품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심판해야 사람에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그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드러내면 그 어떤 존재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더러운 것은 모두 그에게 심판을 받으니 그의 이러한 성품이야말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어찌 명실공히 부각물이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은 오늘날의 사역과 크게 다르다. 여호와와 그들의 생활을 이끌어

주었을 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형벌과 심판으로 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고, 패괴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인은 여호와에게 무조건 순종했다. 제단을 세우라고 하면 즉시 제단을 쌓았으며, 제사장 성의를 입으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목자와 같았다. 여호와는 그들을 목양했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꼴을 먹였다. 여호와는 그렇게 그들의 생활을 인도하고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시기가 아니었다. 당시의 인류는 처음 난 인류였기에 패역과 대적이 매우 적었고 더러움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각시킬 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오늘날 하나님은 더러운 땅에 사는 자들이 드러내는 더러움에 따라 심판하며, 그의 어떠한은 모두 심판 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왜 심판을 하겠느냐? 죄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심판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인류의 패역을 혐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노할 수 있겠느냐? 그가 조금의 혐오도, 반감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패역을 보고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면, 사람과 똑같이 더럽다는 의미가 된다. 그가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더러움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가 혐오하는 것은 모두 그에게는 없는 것들이다. 만약 그에게도 대적하고 거역하는 면이 있다면 자신과 똑같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를 혐오하지 않을 것이다. 말세의 사역을 계속 이스라엘에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가장 어둡고 낙후된 중국이라는 곳에서 말세 사역을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어두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이다. 너희는 이제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너희 가운데서 계시는데, 그가 너희의 더러움과 패역으로 부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크게 높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사실, 너희가 바로 중국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크게 높여 주었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나타나 모든 거룩한 성품을 보여 주었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어 너희가 부족함 없이 모든 복을 누리게 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체험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했다. 가장 더러운 너희가 이토록 많은 은혜를 누렸으니 복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높여 주심 아니겠느냐? 누구보다 지위가 낮은 너희는 본래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너희를 높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수치스러움에 자신을 형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를 징계하지도 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 육은 무탈하겠지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너는 지금의 말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형벌한 적이 없다. 비록 말은 엄하게 했지만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일깨워 주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나?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모두 알아듣고 그 말에 고취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이 복은 부각물이 되었기에 얻은 것임을, 부각물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복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부각물입니다.”라고 하면 듣는 이는 “전형적인 부각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네가 “하나님의 사역과 크신 능력을 부각시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성품은 우리의 패역을 통해 부각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세 사역의 봉사자이자 부속품, 그리고 도구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계속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사역을 이루고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의 모델이자 표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든 더럽든 어쨌든 우리는 당신들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정복되는 것을 기회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과 패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약속과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토록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부각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또 그들이 “그러면 모델과 표본이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너는 “우리는 가장 패역하고 가장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사탄에 의해 극도로 패괴된 존재이며 가장 뒤떨어지고 비천한, 육에 속한 자들이지요. 또한 사탄에게 이용당한 전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복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깨닫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하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시기에 우리는 정복된 인류의 모델이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해라. 이것이 바로 너의 가장 훌륭한 간증이며 최고의 체험이다.

정복 사역의 실상 2

너희는 예전에도 왕권을 잡길 바랐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왕권을 잡고 우뚝 서고 싶어 한다. 지금 생각해 보아라. 네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너무 비이성적인 일 아니냐? 너희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적인가? 정상 인성조차 갖추지 못한 너희가 너무 가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저 정복되고, 증거하고, 자질을 높이고, 온전케 되는 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 다른 것은 거론하지 않겠다. 순수한 진리에 염증을 느끼며, 늘 정상 인성과 자질 향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케 되기 어렵다. 지금 너희가 진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하기만 하면 너를 도태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중국 대륙에서 이토록 많은 사역,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까지 했는데 도중에 그만둘 수 있겠느냐? 아무렴 사람을 무저갱으로 끌고 가겠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과 너희가 진입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 성품 변화, 어떻게 해야 정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지막 단계의 증거를 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너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비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내려놓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는 어떻게 해야 정복되는지, 또 정복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네가 정복되었다고 말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너는 앞날에 희망이 있든 없든 끝까지 따르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두 가지 증거, 즉 죽기까지 순종했던 욥의 증거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베드로의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욥과 같아야 한다. 욥은 물질적인 것을 다 잃고 육체에 질병의 고통이 임했어도 여호와와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욥의 증거이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는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소망이나 사치스러운 생각들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추구했다. 네가 이런 기준에 도달해야 증거했다고 할 수 있고, 정복된 후에 온전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질과 지위를 안다면 또 무슨 앞날이나 소망을 추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날 온전케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야 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한 거야. 우리의

* 너는: (직역) 한 방면으로는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더러움을 벗어 버리고, 부정한 것과 사탄의 권세를 떨쳐 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야.’ 너는 이러한 인식을 갖춰야 한다. 물론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저 정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따를 수 있으면 이룬 것이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정복되었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아직도 패역한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고, 사람의 실제 분량 또한 너무 작다. 사람은 소망과 앞날이 있을 때 힘을 내지만 조금의 소망도, 앞날도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소극적이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하면서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정복에 대해 계속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정복하는 동시에 온전케 하는데, 너를 정복하는 한편 너를 기본적으로 온전케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차이는 사람의 변화 정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정복되는 것은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복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된 것은 아니며, 사람이 완전히 얻어졌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 사람이 정복되면 성품이 어느 정도 변화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얻어진 사람의 변화에는 훨씬 못 미친다. 지금 하는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역, 즉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될 수 없다면 너는 온전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수도 없다. 형벌과 심판의 말씀을 조금 얻을 수는 있지만 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다. 그런 너는 도태된 사람이니, 식탁에 차려진 산해진미를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 것과 같다. 그것은 너무 가련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복되는 것이든 온전케 되는 것이든 다 너의 변화 여부와 너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으로 네가 얻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단지 변화된 정도와 순종 정도를 두고 하는 말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도를 두고 하는 말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오늘날 네게 바라는 것은 철저히 온전케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 너는 정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형벌과 심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따를 믿음을 가져야 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온전케 하는 과정에서 정복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늘날, 네가 온전케 되기를 추구해도 좋고, 외적인 인성 변화와 자질 향상을 추구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고 이로운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네가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더러움을 떨쳐 버리게 해 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또한 네가 그 일들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더러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궁극적으로 네게 어떤 간증을 하라는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룩해질 수 있고 더 이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고, 사탄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지 않으며, 전능자의 손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간증이요, 사탄과 싸워 이긴 증거이다. 네가 사탄을 저버릴 수 있으며 네가 살아 내는 것에는 더 이상 사탄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요구한 것, 즉 사람에게 요구한 정상 이성,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식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정상적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해야 할 간증이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더러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우리에게 대한 정복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심으로 얻은 성과이지, 우리 자신이 홀륭해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그분께 정복되고, 그분을 증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받았으며,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또 너는 겉으로 살아 내는 것에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하며, 이성적으로 말하고, 정상인의 모습을 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가 너를 보고 “이건 큰 붉은 용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매가 자매답지 못하고 형제가 형제답지 못하며 성도로서의 품위가 하나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쩐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시더니, 그 말이 틀림없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셨지만 당신들이 살아 낸 것은 당신들이 이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증명해 주는군요. 또한 당신들 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탄을 저버릴 수 있으니 이는 당신들이 철저히 정복되었음을 말해 주네요.”라고 말한다면, 정복되고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모압의 후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모압의 후손은 버림받고 저주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으로 쫓겨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하게 파괴된 사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증오하며 우리의 조상을 저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철저히 저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조상을 저버려야 합니다!” 큰 붉은 용을 저버린다는 과거의 말은 지금은 주로 사람의 옛 조상을 저버린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이 정복되었다는 한 가지 증거이다. 네가 오늘 어떻게 진입하든 상관없이, 이 부분의 증거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자질이 너무 떨어지고, 정상 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으며, 반응이 너무 느리고 둔한 데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무감각하고 우둔해졌다. 비록 한두 해 만에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에게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탄 앞에서도 한 측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증거는 오늘날의 정복 사역으로 얻은 성과이자 앞으로 따를 사람들의 표본, 모델로서 훗날 열방에 널리 전해질 것이다. 중국에서 행한 사역은 열방에 널리 전해질 것이다. 모압의 후손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함의 후손이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말하는데, 큰 붉은 용의 자손과 함의 후손은 상징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함의 후손은 상황이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저주받았어도 노아의 후손이지만, 모압은 본 뿌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음란함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비록 둘 다 저주를 받았다고는 해도 그 지위는 여전히 다르다. 그래서 모압의 후손이 가장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정복되면 이는 무엇보다 큰 설득력을 갖는다. 말세에 하는 사역은 모든 규례를 타파한다. 네가 저주받은 자든 징벌받은 자든, 내 사역에 이롭고 지금의 정복 사역에 도움이 되면, 모압의 후손이든 큰 붉은 용의 자손이든 상관없다. 네가 이 단계 사역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사역을 철저하게 행할 수만 있으면, 이는 성과를 낸 것이다. 네가 큰 붉은 용의 자손이든 모압의 후손이든,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만든 존재이다. 너는 피조물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것은 너의 본분이다. 물론 오늘날 창조주는 우주 전체를 향해 사역한다. 네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결국 너는 피조물 중 하나이다. 너희, 모압의 후손들 역시 신분이 비천할 뿐 피조물의 일부이다. 오늘날의 사역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행해지고 우주 전체를 향하는 이상, 창조주는 사람과 일, 사물을 임의로 선택해 사역할 수 있다. 그는 네 과거 출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네가 피조물이기만 하다면, 또 네가 그의 사역에 — 정복과 증거에 —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너에게 자신의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전통적인 관념을 깬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이방인, 특히 저주받은 비천한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조상이 저주받았으니 후손도 영원히 저주받아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관념, 하나님은 거룩하므로 이방에 임하거나 사역하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더러운 땅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 말이다. 이런 관념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의해 모두 깨졌다.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의 주재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이 단계 사역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열방에 널리 전할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큰 증거가 중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정복한다면 마귀들이 굴복할 수 있겠느냐? 마귀는 정복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민들에게 이 단계 사역의 최종 성과를 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피조물이 정복된다. 모압의 후손은 가장 뒤떨어지고 패괴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정복된다면, 다시 말해 가장 심하게 패괴된 사람,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정복되어 모두가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복된 증거이다. 너희가 비록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살아 낼 수 있고, 베드로의 증거와 욥의 증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장 큰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런 자질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도 아니고,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헌신할 의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뒤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자질과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의 후손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인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게 해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의지가 있다면 네가 이미 정복된 증거가 있음을 말해 준다.

정복 사역의 실상 3

정복 사역으로 얻으려는 성과는 주로 사람의 욕이 거역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사상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욕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정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사상, 의식, 이성, 즉 너의 모든 정신적 면모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정복된 것이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사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아무런 관념도 불순한 의도도 없어지고, 정상적인 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오직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정복된 자이다. 많은 종교인이 평생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십자가를 졌으며,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고난을 받고 인내했다! 어떤 이는 죽는 날 아침까지도 금식했고, 평생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옷도 입지 않았으며, 고난받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육을 버릴 수 있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정신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 관념, 정신적 면모, 나아가 그들의 옛 성품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전통적 관념 속의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그들의 열정과 인성의 좋은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다. 무작정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고난만 받았을 뿐 전혀 분별할 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내거나 타인에게서 들었거나 혹은 글에서 찾아낸 전설 속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풍부한 상상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았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담당하고자 했다. 그들의 섬김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얼마나 고난을 달게 받았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섬김의 관점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연단,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또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구주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구주에 대해서는 전설과 풍문만 들었을 뿐 구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섬김은 소경이 제 아버지를 모시듯 두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섬긴 것에 불과했다. 그런 섬김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 누가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두 인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타고난 천성과 기호대로 섬겼는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즉 늙어서야 깨달았다. 그러니 어떤 책망도 훈계도 받지 않고 인도자도 없는 소경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오늘날, 너희 많은 사람의 섬김도 소경의 섬김과 같지 않느냐? 심판을 받지 않고 책망 훈계를 받지 않으며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자들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의 사상, 인생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진정한 수확이 조금도 없다면, 너의 섬김은 영원히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이상(異象)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없다면 너는 정복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따르는 것도 고난받으며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평생 고난도 받고 감옥살이도 했으며, 언제나 참으며,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중시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버림받으며 슬한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는 했지만 정복되지 않았고 정복된 증거도 없었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에게 존재하는 낯은 사상, 낯은 관념, 종교적인 행실, 인위적인 인식,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듬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내면에 새로운 깨달음이 조금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는 진실하고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도 잘못 이해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오직 자기 관념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즉 하나님에 대해 새롭고 참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과 고유한 성품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봉건 미신 사상에 좌우되고 여전히 사람의 상상과 관념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정복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많은 말은 모두 네가 인식해야 할 것들이다. 이런 인식으로 너를 이끌어 정확하고 더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이며, 또한 네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내면의 낯은 관념과 진부한 인식 방법을 다듬으려는 것이다. 네가 제대로 먹고 마신다면 너의 인식 방법은 많이 바뀔 것이다. 또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 너의 관점은 바로잡힐 것이다. 네가 한 번 또 한 번의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의 낯은 사상이 점차 바뀔 것이고, 너의 낯은 사상이 철저히 바뀌면 그에 따라 너의 실행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의 섬김도 점점 바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의 삶을 바꾸고 인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관념을 바꿀 수 있다면, 너의 천성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얻은 성과, 즉 사람의 변화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몸을 처벌종시키거나 인내하며 고난받아야 하는 것만 알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며, 더욱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면, 그렇게 실행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욕을 단속하거나 허튼 생각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하려는 사역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적극적인 면에서 인식을 갖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진리와 이상을 완비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의 책임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여 더 큰 빛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는 그런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하고, 너희의 본성, 본질, 너희의 진부한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특히 과거 너희의 그릇된 실행과 인위적인 행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너희가 변화하려면 먼저 사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먼저 너희의 사상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운 사상이 너희의 언행과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너희 개개인에 대한 요구다. 맹목적으로 실행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마라. 마땅히 기초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지,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지금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진입해야 할 것은 너희의 삶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거의 낡은 관점들과 너희의 사상, 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너희의 삶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너의 인식 방법이 바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담긴 진리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내면의 인식 방법이 향상되면, 네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것이다. 지금 사람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실제적이다. 그것은 도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복 사역 중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이자,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변화이며, 사람이 정복된 후에 나타나는 성과이기도 하다. 너의 사상이 바뀌고, 정신 면모가 새로워지고, 너의 관념, 속셈, 과거의 논리적인 추리가 모두 뒤집히고, 네 안에 깊게 뿌리박힌 것들을 벗어던진 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 네가 말하는 증거가 높아지고 너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것들이다. 또 이는 과거에 알지 못했고, 사람이 접할 수 없었던 것이며, 영의 진정한 역사이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너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오늘날 비취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너는 모세, 베드로, 바울이나 성경에 대한 관점 혹은 견해를 전부 높이 받들었다. 지금 다시 너에게 성경을 높이 받들라고 하면 받들겠느냐? 너는 성경 속에 사람의 기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두 단계 사역에 대한 사람의 기록이며 역사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인식 방법이 바뀐 것 아니겠느냐? 지금 다시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에 대해 논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라니요! 그것은 요셉의 족보이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너의 인식 방법, 즉 너의 견해는 달라졌고, 그것은 종교계 원로들의 인식보다도 높다. 누군가 그 족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수님께 족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자손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육신은 마리아에게서 났으나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데, 그분께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땅에 계셨지만 인류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족보’를 분석해 그 실상을 속속들이 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누군가 성경을 대조하면서 “옛날 예수님께는 족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하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네가 그에게 가장 실제적인 인식을 말해 줄 수 있다면, 너의 인식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사실, 예수는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브라함과도 더욱 관계가 없다. 단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 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도 아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역을 위해 한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단지 이스라엘에서 먼저 한 단계 사역을 한 다음 이방의 사역을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끼워 넣고 다윗의 자손 중에 끼워 넣었다. 성경에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세에 하나님이 이방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날 하나님이 유대에 성육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역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성육신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왜냐하면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임). 이방에도 하나님의 선민이 있지 않더냐?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을 끝낸 후에야 이방(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족속을 ‘이방’이라고 칭한다.)으로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방에도 하나님의 선민이 있지만, 그때는 이방에서 역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것은 앞의 두 단계 사역을 모두 이방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했기 때문이다. 이방에서의 사역은 오늘에야 시작되었으므로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금 너는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이런 일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견해를 가져야 하며, 지금의 하나님과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 모두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역대 성도들의 인식보다 높다. 네가 오늘날의 사역을 체험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친히 발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 추구하며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특히 정복 사역을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최종적으로 너에게서 작은 변화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 너의 믿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복 사역은 너에게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럼 너도 내쳐진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모든 정복 사역이 끝날 때, 너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만들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의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성육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정복 사역에서 아무런 인식도 얻지 못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옮겨 와 부득이하게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다. 네가 계속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한 사역이 너에게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다. 결국 너도 마태처럼 나에게 족보를 하나 써 주고 알맞은 ‘조상’과 정통 뿌리를 하나 찾아 준다면, 두 차례 성육신한 하나님께는 족보가 두 개나 있게 될 텐데, 그럼 큰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내게 족보를 찾아 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인 너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을 이토록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오늘날 너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며,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고, 영국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미국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며, 하늘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인 동시에 땅에 있는 만물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든, 이방의 모든 족속이든 모두 한 분의 하나님 손에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유대 땅에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또 큰 붉은 용이 파리를 틀고 있는 중국 땅에 강림했다. 그가 유대에서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지금은 너희 가운데 강림했으니 너희의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했었고, 유대 땅에 태어났었으며, 다시 또 이방에 태어났지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은 그가 만든 인류 전체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백배로 좋아하고 이방인은 천배로 미워하겠느냐? 이것은 모두 너희의 고정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피조물 중에 누가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다윗 집안만이 하나님의 출생지가 될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탄생시킬’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어떤 이방 민족도 여호와와 사역을 직접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고한 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계속 이스라엘만 주시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으니 계속 하늘만 쳐다보지도 말고, 더 이상 하늘에 있는 너의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너의 관념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립’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더욱이 이렇게 더럽기 그지없는 너희가 친히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방에 친히 강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는 시내산이나 감람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방인(이스라엘 외의 사람)은 모두 그가 미워하는 대상이므로 친히 그들에게 사역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던 관념이다. 오늘날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이런 관념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친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시내산도 아니고 감람산도 아닌, 과거에 인도한 적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과 모든 이방인에게는 이런 관념이 생겼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할 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 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모습을 지니고 유대인의 특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형상과 비슷하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이방인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의 속죄 제물이시다.’ 라고 생각한다. 그저 두 단계 사역을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족속에게는 이처럼 많은 관념이 생겼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방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백지상태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고, 그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 특히 자신을 따른 제자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지금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 설마 이것이 꿈이란 말이나? 너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지 않더냐? 너희는 아직도 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정복된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느냐?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선민 아니겠느냐? 너희의 신분도 이스라엘 사람의 신분과 같아지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너희를 정복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역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모두 그를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어떠한든, 결국엔 순종하며 오늘날까지 따라왔다. 마지막에 이 단계 사역이 끝날 때야 사람은 철저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진정으로 정복된다. 지금은 그저 정복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사역이 끝나면 사람은 철저히 정복될 것이다. 아직은 안 된다! 설령 사람이 모두 인정할지라도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람이 말씀만 보고 사실을 보지 못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사실, 즉 말씀이 이루어져야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수 있다. 지금 사람은 예전에 들어 본 적 없는 수많은 비밀을 듣고 정복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사람은 모두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안심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은 모두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할 것이며, 마음에서 우러나 철저히 인정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바로 이렇다. 말씀이 일일이 이루어지고 사실이 임하고 또 누군가 화를 입는 것을 보아야만 마음에서 우러나 철저히 인정하게 된다. 너희는 유대인처럼 늘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사실이 임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든가, 구름 기둥 속에서 너희에게 말을 한다든가, 내가 너희 중의 누군가에게 귀신을 쫓아내 준다든가, 나의 음성이 너희 가운데서 우렛소리와 같이 울린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너희는 항상 이런 사실을 보려고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와서 친히 이적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천지개벽과 같은 사역을 한 후에 ‘이적’도 추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도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정복 사역의 실상 4

온전케 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정복되는 것이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정복되고 싶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온전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겠느냐?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모습을 되찾아 사탄의 패괴 성품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복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기초적인 사역, 즉 사람을 만드는 첫 단계 사역이고,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 사역이자 마무리하는 사역이다.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질 수 없다. 네가 만들어질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를 증거할 수 없을뿐더러 그를 만족케 할 믿음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정복 사역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정복하는 것이든, 온전케 하는 것이든 모두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의 하나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단계 사역을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정복된다’는 말이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사실 정복하는 과정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네가 정복된다고 해도 네 패괴 성품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복 사역을 통해 자신의 비천한 인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패역도 알게 된다. 비록 정복 사역의 짧은 시간 동안 너의 그것이 벗겨지거나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네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하는 것과 온전케 하는 것은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진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겨 냄으로써 사람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복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첫 단계이자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첫 단계이며, 온전케 되는 것보다 낮은 단계의 사역일 뿐이다. 정복된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보다 생명 성품의 변화 정도가 훨씬 낮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사역 단계가 다르고, 사람에게 대한 요구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요구 기준은 낮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요구 기준은 높다. 온전케 된 사람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결정체이자 완성품으로,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정복된 사람은 어떠한가? 그들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과 연단이 모두 사람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이다. 그들은 이제 막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고 인생을 조금 꿰뚫어 보게 되었지만 아직도 모호하다. 다시 말해, 이제 막 인성을 조금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정복됨으로써 나타난 효과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면 옛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생명이 부단히 자라 진리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며,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하게 된다. 특히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명한 인식이 생기면서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진리 추구를 목표로 삼는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 하고, 사람의 독선과 오만함, 방자함에 염증을 느끼며, 분수에 맞게 말하고, 일이 닳치면 분별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심과 순종을 보이게 된다. 형벌과 심판을 겪을지라도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떠날 수 없다고 느끼며, 형벌과 심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평안함, 즐거움, 기복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한순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모두 온전케 된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정복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성육신이란 무엇이겠느냐? 그는 어떤 사역들을 행했겠느냐? 그가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의의는 무엇이겠느냐? 그의 그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행사를 체험하면서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정복된 사람이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육적인 즐거움을 떨쳐 내야 할 때 떨쳐 내지 않으며, 예전처럼 육적인 안락을 탐하고, 형제자매 사이에 선입견이 있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쉬운 실행에서도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네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해도 모두 헛된 것이다. 정복된 사람은 기본적인 변화와 진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겪으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긴다. 비록 더 깊고 세밀한 많은 진리의 실제에 완전히 진입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 너의 육적인 즐거움이나 개인의 지위 등과 같은 얕은 진리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 정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과다. 정복된 사람에게도 성품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옷차림이나 치장, 생활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뀌며, 추구하는 목표도 명확해지고 의지도 높아진다. 정복되는 사역에서도 사람의 생명 성품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변화의 정도가 얇고 기초적이며 온전케 된 후의 성품

변화와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변화가 전혀 없고 조금의 진리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인간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폐물이다! 정복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사람이 정복되기만을 추구한다면 설령 정복 사역에서 성품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날지라도 완전히 온전케 될 수는 없고, 처음에 얻은 진리도 잃게 될 것이다. 정복된 사람과 온전케 된 사람의 성품 변화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복되는 것은 기초적인 변화이자 토대이다. 이런 기본적인 변화조차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인식도 없다는 증거다. 이런 인식은 심판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심판은 정복 사역의 주된 사역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모든 사람은 정복되는 과정을 거친 자들이며, 그 과정이 없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몰래 일을 저지르며, 그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그의 말씀은 인정하지만 네가 해낼 수 있는 것조차 실행하지 않고 그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너는 그를 인정하기는 하나, 그를 경계하는 마음만 있을 뿐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가 행한 사역을 보고,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온적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다. 정복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 높은 진리에 진입하지도, 미치지도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는 당길 원해야 한다. 깨달음이 유한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네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정복 사역으로 인해 나타난 성과다. 가령 네가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치자. 너에게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이끄는 자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재물을 탐내 교회 돈으로 늘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며 사람이 경외할 만한 분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비열한 짓까지 저지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네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냐? 너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양심에 찢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한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잘해 준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형제자매가 너를 혐오한다면 너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느냐? 네가 그를 인정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적절하게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살아 낼 것이다. 실제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너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너는 그를 믿고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그를 믿는 것이냐?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경외심이 있느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슬프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느끼지만 그 후에는 없었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하겠느냐? 내가 언급한 내적 상태들, 예를 들어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무엇이든 빨리 깨닫는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업신여기고, 외모로 판단하고, 착한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 돈을 탐내는 등등 이런 사탄의 패괴 성품이 너에게서 일부 벗겨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네가 정복된 후에 보여야 할 모습이다.

너희에게 하는 정복 사역은 그 의미가 가장 깊다. 한편으로는 한 무리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이기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 무리, 즉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과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한다. 사람에게 공훈과 자비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행한 모든 것은 전부 사랑일 뿐 미움은 전혀 없다. 네가 본 형벌과 심판도 사랑으로, 더 참되고 실제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 앞에서 증거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복음 확장을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을 인생의 바른길로 인도하여 정상적인 인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헛되게 살아간다. 너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이 살아갈 뿐 결코 정상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깊은 의의이다. 너희는 모두 모압의 후손이다.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커다란 구원이다. 너희는 모두 죄악이 넘치는 음란한 땅에 살고 있는, 음란하고 죄악된 사람이다.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형벌과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가장 깊은 구원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참된 사랑이며 악의는 없다. 그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여 반성하게 하고, 이 크나큰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원한다. 그는 친히 만든 사람이 완전히 멸망하길 결코 원치 않는다. 그가 지금 또 너희 가운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더욱 구원 아니겠느냐? 그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큰 사역을 하여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느냐? 굳이 이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며 조금의 악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반드시 심판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는 생활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이 음란하고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으므로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에 속한다. 그는 너희가 더 타락하는 것이 안타깝고, 또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살면서 사탄에게 마구 짓밟히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에 오로지 이 무리 사람들을 얻고 철저히 구원하려고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다.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는 것이 모두 사랑이고 구원임을 보지 못한 채, 그것은 그저 일종의 방식일 뿐이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세계로 돌아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라! 이 흐름 속에서 이 심판과 크나큰 구원을 누리고,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모든 복과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이 흐름 속에서 고분고분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고 온전케 되어라. 너는 지금 심판으로 인해 약간의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가치와 의의가 있다.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연단이고 무정한 폭로이며, 그것은 사람의 죄와 욕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은 사람의 욕을 정죄하여 멸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엄하게 폭로하는 것도 모두 너를 바른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직접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비뚤어진 길로 인도한 적은 없지 않더냐! 전부 네가 정상 인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너의 정상 인성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제 분량에 맞추어 행하지, 너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억지로 지우지는 않는다. 네가 지금은 꿰뚫어 보지 못하여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미워해 날마다 형벌하고 심판하고 꾸짖는 것 같겠지만, 네가 받는 형벌과 심판은 사실 너에 대한 사랑이고 크나큰 보호다. 이 단계 사역의 더 깊은 의의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이 사역을 체험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런 구원으로 위안을 얻어야지, 잘못된 생각에 빠져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겪었으면 너도 이 정복 사역의 의의를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실행 6

지금 많은 이들을 보면 베드로는커녕 바울보다도 이성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자신을 아는 능력은 바울만큼도 안 된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여 빛에 맞았지만 그 후 주를 위해 사역하고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했다. 예수는 바울에게 병통을 주었는데, 그 병통은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떠나지 않았다. 바울이 왜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는 말을 했겠느냐? 사실, 그 가시는 질병이었고,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었다.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고난받으려는 의지가 대단했어도 그 가시를 없앨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라도 지금의 너희들보다는 훨씬 월등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너희보다 이성적이었다. 예수가 그를 친 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고, 예수를 위해 전도하며 고난을 받았다. 그는 무엇에 힘입어 고난을 받은 것이냐? 그는 자신이 큰 빛을 본 이상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고, 더 이상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종교계에서 고위 인사였다. 그는 상당히 유식했고, 은사가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일반인보다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그는 ‘큰 빛을 본’ 후,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를 위해 사역했다. 이것이 그의 이성적인 면이다.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닐 때,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였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즉시 땅에 엎드려 “주여 뉘시니이까?”라고 묻자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바울은 그때 정신을 차렸고, 그제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임을 깨달았다. 또한 ‘나는 순종해야 해. 내가 그분을 그렇게 핍박했어도 그분은 나를 죽이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 고난받아야 마땅해.’라고 생각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지금 또 그의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빛을 비취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고무된 바울은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큰 빛을 보았다. 나는 오늘에야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영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이용하여 역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자. 그 당시 바울은 너희에게는 없는 의지, 정상인의 이성, 스스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지금 너희는 많은 빛 비춤을 받지 않았느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위엄, 진노, 심판, 형벌이란 것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수많은 저주, 시련, 연단이 임했건만 모두 무엇을 배운

것이나? 징계와 책망을 겪으면서 너는 무엇을 얻은 것이냐? 엄한 말씀, 채찍질, 심판이 수없이 임해도 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울만큼의 이성조차 없으니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냐? 바울도 많은 일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빛을 보았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예수가 그를 쳤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빛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주가 속량하고자 하는 죄인들을 많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그의 의지였고, 그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의 질병은 그가 사역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다. 바울은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았다. 또한, 베드로가 겪은 시련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다. 너희가 바울만큼도 이성적이지 못하다면 너무 가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더 큰 사역을 전개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가 당시에 한 사역과 가졌던 의지, 믿음, 충성심, 사랑, 인내, 겸손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의 너희들보다 훌륭했다. 심하게 말하면 너희에게는 정상적인 이성이 없으며, 심지어 양심과 인간성이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많은 경우 너희의 살아 남에서 정상적인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를 알지도 못한다. 바울은 그때 당시 병을 앓았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고 구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병일까?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건만 어찌하여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일까? 예수님이 나를 치셨다면 나는 즉사했을 거야. 그랬다면 그분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많은 빛 비춤을 받을 수 없었겠지. 그분은 나의 의지대로 이루어 주셨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믿음과 의지를 단련한다고 여겼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다. 사실, 그의 병은 예수가 바울을 친 후 남은 후유증으로, 그를 압박하여 그의 패역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너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는 병을 앓거나 큰 시련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너희를 새장에 가두어 놓고 수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인성이 없는 늑대와 진배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고통과 단속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느슨하게 하면 너희를 망치게 될 것인데, 어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은 형벌과 심판, 저주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찌감치 타락했을 것이다. 내가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야만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너희는 바울의 양심과 이성언어 바울처럼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능력조차 없다. 너희에게는 늘 압력을 가하고, 늘 형벌하고 심판해야 너희의 영을 일깨울 수 있다. 너희의 생명에 가장 유익한 것은 역시 형벌과 심판이다. 필요시 사실로 형벌을 가해야 너희가 완전히 수궁하게 된다. 너희는 본성상 형벌과 저주 없이는 머리를 숙이거나 수궁하려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사실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너희의 인품은 천박하고 서퍽어치도 안 된다! 형벌과 심판 없이는 너희를 정복하거나 너희의 불의와 불순종을 억누르기 어렵다. 너희의 옛 성품은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너희를 보좌에 올려 놓는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찌 창조주를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형벌과 저주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너희의 마지막 날이 임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너희의 운명은 몹시 위태롭지 않았겠느냐? 형벌과 심판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교만을 부리고 타락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형벌과 심판이 너희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고, 너희의 삶을 유지해 왔다. 지금도 너희의 ‘아비’처럼 너희를 ‘교육’한다면 너희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 너희는 자제력과 자기 반성력이 하나도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오늘날의 형벌과 심판을 더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달리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 바울은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핍박하고 반대했다. 이것은 고의로 저지른 행동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친 것이다. 처음에 그는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며 예수에게 맞섰다. 그는 크게 거들먹거리며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사역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가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잡아들이는 대신 설교와 강론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바울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빛을 본’ 후에야 깨닫고 몹시 후회했다. 예수가 바울을 친 후 그의 병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플 때 그는 ‘이게 웬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치신 걸까?’라고 생각했다. 그는 줄곧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사역을 적지 않게 행했다. 바울의 방자함과 교만함 때문에 예수가 그에게 이 같은 병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징벌이자 또한 바울의 은사를 이용해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 그를 구원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의 성품이 너무도 교만하고 방종했기에 그에게 ‘가시’를 더한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에 사역을 모두 마쳤을 때

질병은 더 이상 그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나갈 무렵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말을 했던 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너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길 끝까지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를 푸대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거역하고 대적했는지를 논하는 대신 그에게 어떤 배울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자. 바울은 양심이 있어서 ‘빛 비춤’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다. 따라서 바울에게 장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울이 복을 받는 사람임을 의미하지 꼭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분별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뒤에서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군다. 하나님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말씀을 하고, 사람의 실체를 한 겹씩 들추어 결국 그 실상을 폭로하고 나서야 사람은 교만하고 방종하며 기고만장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다소 ‘착실해진다’. 지금 너희의 상태로는 한숨 돌릴 틈도 없도록 계속해서 호되게 때리거나 폭로하고, 조금씩 심판해야 한다. 너희에게는 엄한 형벌과 심판, 징죄와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하며, 행정 법령을 펴는 하나님의 손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마치 율법시대에 아론이 여호와가 늘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것처럼 말이다(아론은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았고,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형벌, 저주, 심판이란 사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행정 법령의 손은 오늘날에도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식으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판단하든, 너희의 육은 별다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안심’해도 좋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대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으니 교회 생활과 성령의 사역만은 방해하지 말라. 생명을 추구하고 싶지 않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당장 가거라! 사역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다만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모두 내쳐질 것임을 명심하여라! 지금은 네가 가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뿐 나머지는 모두 위험한 자들이다! 나는 현재의 사람들을 속박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하니’ 네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나중에 받을 벌이 두렵지 않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해도 상관없다. 너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네가 사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자의 가족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있겠지만 모두 범위와 한계가 있다. 성령은 경솔하게 일하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른 죄와 불의에 근거하여 너희를 대하거나 너희에게 엄격하다면 너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모두가 큰 화를 입을 것이고,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너희가 판단하고, 거역하고, 대적할지라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웃는 얼굴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 아프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처럼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금은 심판대에 오르고, 앞으로는 ‘단두대’에 올라야 한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헌신’할 때이다.

말세의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너는 하나님이 네 육을 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해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한 말씀이 임하여 너의 패역, 대적, 추악한 면모를 들추어내면 너는 숨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댈 것이다. 지금 너희는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악한 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너의 조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네가 가져야 할 분량이자 인성이다. 너는 늘 자신의 미래나 오늘날의 누림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케 되면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를 것이다. 너희를 내 나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너희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줄지라도 마지막까지 너희에 대한 요구는 낮출 수 없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그것은 너희가 정복되든 온전케 되든, 지금은 형벌과 고통을 받고 채찍질과 징계를 받아야 하며,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식으로 추구하든 이 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네가 이 말씀에 대해 참된 깨달음이 있다면 계속 따라도 좋다. 반대로 여기에 미래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떠나도 좋다. 이런 말을 너에게 확실하게 알려 주는데도 네가 정말로 떠나고자 한다면 너는 손톱만큼의 양심도 없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떠나려는 행동 하나만 봐도 너란 사람이 마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네 육과 네가 살아 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긴 하나 너란 사람은 아직도 사탄에게 속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네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추구할지는 네 선택에 달렸으며, 너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한다. 네가 나중에 “저는 양심껏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고,

인간성 있게 사는 것 외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 이상에 대한 것이나 사역의 의의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으니, 오직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조물의 본분을 잘하는 것이죠.”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다. 이는 내가 일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높은 기준, 즉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간증하는 것이다.

실행 7

너희는 인간성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희의 삶은 너무나 천하다. 너희는 인간성이 없고 식견이 부족하므로 정상 인성에 관한 것들을 갖추 필요가 있다. 양심과 이성을 겸비하고 식견을 갖추는 것, 말솜씨를 다듬고 일을 판단하는 법을 아는 것, 청결에 신경 쓰는 것, 정상인의 풍격을 지니는 것은 모두 정상 인성에 관한 지식에 속한다. 이런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다면 너희의 인성은 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너희는 영 생활의 모든 것을 갖추야 한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행한 모든 사역을 인식하고, 그가 한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 너는 그의 안배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피조물의 본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네가 진입해야 할 두 측면이다. 하나는 인성 생활을 갖추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일부 터무니없는 자들은 인성에 관한 것만 갖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자에게서는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다. 그의 말과 말투는 모두 적절하며, 외관상의 차림새도 단정하고 바르다. 그러나 내면에는 갖추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저 표면적인 정상 인성만 갖춘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고 입고 말해야 할지만 신경 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바닥을 쓸고 이불을 개고 청소하는 등의 일에만 열을 올린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이나 형벌, 심판, 시련, 연단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면 그는 아주 사소한 체험조차 말하지 못한다. 그에게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와 사역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라고 질문하면 그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관을 번지르르하게

꾸민다. 자매들은 ‘한 송이 꽃’처럼 치장하고, 형제들은 귀공자나 부잣집 도련님처럼 멋을 내며 먹고 입는 등의 겉면의 것에 치중한다. 그러나 내적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을 정도로 궁핍하기 그지없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밥 빌어먹는 거지들처럼 입고 다니는데, 그런 자들을 보면 딱 동아시아의 노예 상(相)이다! 너희는 정녕 너희에 대한 내 요구를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대체 무엇을 얻었는지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 보아라!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도 너희가 얻은 수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낮부끄럽지도 않느냐?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참도에서 몇 년이나 추구했음에도 너희의 분량은 여전히 이토록 보잘것없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잘난 아씨들을 보아라. 하나같이 꽃처럼 치장하고는 서로 비교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비교한단 말이나? 누가 더 잘 누리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얻어 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모델’이라도 모집하러 온 줄 아느냐? 수치심도 없구나! 너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그 지나친 욕심이 아니더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더없이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러나 제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할지라도 너는 분토 속에서 굴러다니는 구더기가 아니냐? 오늘날 너희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전례 없이 높여 주었기 때문이지, 너희의 그 ‘잘난 얼굴’ 때문이 아니다. 네 출신을 아직도 모르느냐? 생명에 대해 말하면 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앉아서 치장이나 하고, 얼굴에 분칠할 생각이 드느냐?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한량들을 보아라. 온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돼먹지 못하게 행동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혀 단정치 않다. 거기에 사람의 모양이 있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너희 각자가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누구 덕에 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느냐? 네가 입고 있는 옷과 네 손에 들린 수확물, 그리고 너의 그 배를 만져 보아라.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심혈의 대가로 얻은 결실은 무엇이나? 그런데도 여기저기 놀러나 다니고 냄새 나는 몸뚱이를 꾸밀 생각이 드느냐?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나! 정상인이 되라고 했거늘, 지금의 너는 정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그런 주제에 무슨 낮짜스로 내 앞에 서는 것이냐?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육체를 드러내며, 늘 육체의 정욕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성을 보면 네가 바로 더러운 귀신과 악령의 후예가 아니냐? 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을 오래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네가 정욕과 육체를 방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 눈이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느냐? 너희 아씨들이 꽃처럼 단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남자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들이 진정 너희를 이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

한량들이 번지르르하게 멋을 내는 것은 전부 자신의 ‘멋들어진 용모’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것은 또 누구를 위함이나? 여인들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너희를 죄짓게 하는 근원이 아니더냐? 나는 너희 모든 남녀 족속들에게 적지 않은 말을 했지만, 너희가 듣고 따른 것은 극히 적다. 너희는 귀가 먹었고, 눈이 흐려졌으며, 마음은 강퍽하고, 나아가 온몸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구나. 오물 속에서 굴러다니는 너희 구더기들에게 누가 다가가고 싶겠느냐? 명심해라. 너희는 내가 분토 속에서 들어 올린 존재로, 원래 정상 인성이 없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정욕을 과시하라는 것도, 마귀에게 오랜 세월 조련된 그 냄새 나는 육체를 방종하라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원래 갖추지 못한 ‘정상 인성’을 갖추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치장하는데, 더 깊이 빠질까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본디 죄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온몸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도 모른단 말이나? 나아가 그 정욕이 너희의 옷을 적시며 스며 나와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귀신의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너희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 아니냐? 너희의 마음, 너희의 눈, 너희의 입술은 모두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전부 불결한 것이 아니냐? 너는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보다 성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화려한 옷을 차려입으면 너희의 그 더러운 영혼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느냐? 어렵었다! 거짓을 꾸며 낼 생각도, 자신의 용모를 뽐낼 생각도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너희는 서로 정욕을 드러내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영원한 고통과 무정한 채찍질이다! 그런데 서로 추파를 던지며 연애질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너희의 울골음이나? 그것이 너희의 강직이며 절개더냐? 나는 너희들 중 술객 따위들과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젊은 남녀들을 혐오한다. 그러니 가능한 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정상 인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자신의 정욕을 드러내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틈만 나면 언제든지 기회를 이용하려 하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육적인 것이 너무 많고, 정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가 겉으로 보이는 인성 생활은 그럴싸하게 잘 꾸미지만, 생명에 대한 인식을 말해 보라고 했을 때 한 마디도 못한다면 여전히 빈궁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인성 생활이 좋아지면 내면의 생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너의 사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꾸며, 내면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책망과 폭로, 공급을 통해 너 자신과 네 인생,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점차 변화시키고, 그 인식을 순수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사상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정신적 면모 또한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생명 성품의 변화이다. 온종일 하나님 말씀 책만 잡고 읽으라는 것도, 아침부터 밤까지 빨래나 청소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정상 인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또한, 외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는 식견과 이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에 관한 진리를 갖추는 것이다. 생명을 갖추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생에 대한 생각, 특히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추구하는 한 이런 것들을 갖추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상태와 결부시켜야 한다. 즉, 실제 체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실행의 길을 찾고 자신의 그릇된 마음가짐과 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네가 늘 이런 면에서 노력하고 이런 일들에 마음을 쏟으면, 실행의 길이 생길 것이고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야 자신의 생명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핵심적인 것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생명에 무책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핵심을 잡지 못하면 실행의 길도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자신의 상태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 자신의 상태와 연관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패괴되었고 자질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표면적인 것만 조금 알게 된 것이다. 육적인 즐거움과 독선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에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자신의 자질을 높여야 할지,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등등 실제에 속하는 것들을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단지 일부 외적인 것들만 잡아내고 자신이 확실히 패괴되었다는 것만 인식할 뿐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만나 자신의 패괴에 대해 말을 하면, 자신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고 생명에 대해 부담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의 패괴 성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네가 실행의 길을 찾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만약 네가 교회를 이끄는 자라면 너는 형제자매들의 상태를 짚어 주고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당신들은 정말 패역하네요. 뒤쳐졌어요!”라고만 말하면 되겠느냐? 도대체 어떤 면에서 패역한지, 어떤 면에서 뒤쳐졌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 줘야 한다. 즉, 그들의 패역한 상태와 행위, 사탄 성품을 지적해 그들이 진심으로 인정하게 해야 한다. 사실을 말하고, 예를 들어 문제를 설명하며, 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한 패역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고, 실행의 길을 가리켜 줄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이를 이끌 수 있으며, 진리 실체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적지 않은 진리를 교제하고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전부 몇 개의 항목이 있는지 스스로 귀납할 줄 알아야 한다. 정상 인성에 마땅히 갖추어져야 할 몇 가지 측면, 생명 성품 변화의 몇 가지 주요 측면, 이상(異象)에 관해 더 깊이 인식하는 것, 역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법과 체험법 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종교계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겨 숭배한다. 특히 신약의 4복음서를 예수의 네 측면으로 여기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아주 편향되고 그릇된 인식이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꿰뚫어 봐야 하며, 더구나 성육신한 하나님의 본질과 말세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낡은 실행법, 즉 영 안에서 산다느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느니, 참고 견뎌야 한다느니, 권병에 순종해야 한다느니 하는 그릇되고 치우친 실행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실행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리더와 일꾼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의 독선을 내려놓고 남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을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인성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영 생활에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중 어떤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이상(異象)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것이 실행의 길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지금은 마땅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을 키울 시점이다. 늘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젠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너희는 그때 내가 해 준 말들을 떠올릴 것이다. 환난이 오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형제자매들도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대부분 혼자 생활해야 한다. 기껏해야 현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할 텐데, 너희들의 현재 분량으로는 전혀 굳게 서지 못한다. 환난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굳게 서지 못한다. 오직 생명의 도를 깨닫고, 진리를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계속 성장하면서 점차 정결케 되고 변화할 수 있다. 환난을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너는 2~3일 안에 헤어 나올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너는 많은 글귀를 깨달은 것으로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네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핵심을 잡지 못하며, 실행의 길이 전혀 없다면, 그때 미망에 빠져 사탄의 유혹을 견디지도, 연단을 이겨 내지도 못하게 된다. 네게 진리가 없고 이상이 부족하면 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족할 것이고, ‘어쨌든 죽을 것이 아닌가. 형벌을 받을 거라면 끝까지 받자! 형벌을 받든 불 못에 빠지든 할 말은 없어!’라며 자포자기할 것이다. 이런 태도는 봉사자의 시련이 왔을 때와

흡사하다. 그때 어떤 이들은 어차피 봉사자일 뿐이니 생명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흡연과 음주에 빠지고 육체를 방종하며 꺼리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아예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갔다. 상황이 열악해지는 시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라도 해이해지면 바로 다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너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 다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마땅히 진리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행의 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리더와 일꾼의 양육과 목양이 없더라도 너 스스로 실행할 길을 찾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며, 자신이 마땅히 갖추고 실행해야 할 진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계속 사람과 함께하겠느냐? 어떤 이들은 관념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저희를 어느 수준까지 온전케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사역은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참소할 것이니까요.’라고 생각하는데, 명심해라. 내가 말을 끝내면 곧 나의 사역도 순조롭게 완성된다.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면 나의 사역도 끝난 것이다. 사역의 완성이 바로 사탄을 물리친 증거이다. 그러면 대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탄의 참소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내 사역이 끝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복하여 각 방면의 진리를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하고, 자질을 높이며, 안팎으로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땅에서의 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사역은 너희를 정상 인성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자 사람을 새 시대의 삶으로 이끄는 사역이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온 사역은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서 펼치고 전개했으며, 내가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려 주었고, 너희에게 없는 것을 전부 베풀어 주었다. 이 모든 사역이 너희에게는 생명의 공급이며, 또한 너희를 정상 인성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말세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탄을 두고 말하자면, 내가 말씀이 육신 된 것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사역은 현시점의 공급이자 즉각적인 구원이다. 하지만 이 짧고 제한된 몇 년 동안 모든 진리와 생명의 도, 나아가 이후의 사역까지 전부 알려 준다면, 너희는 앞으로 충분히 정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모든 말은 다 너희에게 하는 유일한 부탁이다. 내게 다른 부탁은 없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바로 너희에게 하는 부탁이다. 현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말들에 내포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언젠가 너희는 오늘의 말대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오늘은 너희에게 이상으로 자리 잡히고, 내일은 너희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늘은 너희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고, 앞으로는 너희에게 부탁이 될 것인데, 가장 좋은 부탁이 될 것이다.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너희가 나의 말을 체험하는 시간만큼 길지 않기에 나는 그저 사역을 완성할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기나긴 생명의 여정이 필요하다. 많은 일을 겪은 후에야 생명의 도를 완전히 얻고, 오늘 내가 한 말들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손에는 내가 한 말과 내가 맡긴 사명이 있다. 나는 맡겨야 할 사명을 모두 맡겼으니, 그 결과가 어떻든 말씀 사역은 끝까지 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너를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관념대로 일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하루 이틀 사이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 반드시 생명이 성장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사람의 현재 자질로 어느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하고, 사람의 기본 자질에 따라 적절하게 요구를 한다. 만약 이 사역이 자질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진리 또한 너희에게 주는 것보다 높을 것이다. 또한 더 엄한 말씀, 사람에게 더 많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말씀, 비밀을 더 잘 밝히는 말씀을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하는 말씀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너희에 대한 요구는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자질이 더 높은 사람에게 한다면 요구 또한 그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모든 사역은 다 사람의 기본 자질에 기반하여 한다. 지금 사람을 이 정도로 변화시키고 정복한 것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행한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관념으로 이 단계 사역의 성과를 가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스스로를 너무 높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너희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이었다. 너희를 내가 상상하는 수준까지 만들고, 큰 이상을 본 것처럼 모두 진심으로 탄복하여 땅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적을 보지 않고도 오롯이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치밀하게 살펴본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믿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변화가 생기겠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사라지기까지 한다. 너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완전히 믿지 않으며, 이적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각 부분의 진리를 모두 분명히 말했으니 모든 진리가 다 갖춰졌고, 또한 너희가 보았듯 진리마다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실행뿐이다. 내가 길을 가리켜 주었으니 앞으로는 너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다 현실 상황에 기반한 요구 사항들이다. 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것에 근거해 일을 한다. 실제의 하나님이 땅에 온 것은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사역하지,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사람에게 강요하는 법이 없다. 예를 들어, 네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너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한다. 나는 네게 모든 진리를 명확히 말해 주었으므로 너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받는 핍박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결혼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된다. 이것은 너의 실제 상황과 너 자신의 의지에 달린 일이지, 규정이나 제도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온종일 “하나님의 사역은 현실적이고 우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기에 실제적이다.”라고 외친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 어떻게 실제적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온종일 쓸데없이 말로만 외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떤 규례도 없이 전부 자유롭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몇 가지 원칙에는 어떤 세부 사항들이 들어 있느냐? 어떤 사역이 이러한지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다방면의 체험 간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확실히 깨닫고 인식해야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만약 누군가 네게 “말세에 성육신하여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당신들은 왜 그분을 실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실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실제 사역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또 무엇입니까? 두 분이 한 사역은 각각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모두 증거와 관련된 일이다! 너는 이러한 일들을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 또 어떤 이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이적과 기사를 전혀 나타내시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정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느냐?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사역과 말씀이 모두 이적이 아니냐? 이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렸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에 달렸다. 그는 교회에 가지 않고도

사람의 상태를 밝히 지적했으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 이것이 이적이 아니겠느냐? 말씀만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그 어떤 미래나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이것 역시 이적이 아니겠느냐? 그는 말씀만으로 사람들이 환희 또는 슬픔을 느끼게 하거나 연단 또는 형벌을 받는 차원으로 이끌어 간다. 마음을 찌르는 말 몇 마디가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니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오랜 세월 성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깨닫거나 밝히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해도 낡은 전통적 믿음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땅에 온 하나님이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의 비범한 신성으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중 누가 복종하겠느냐? 네 눈에는 평범한 사람이 사역하고 너희와 함께 생활하는 듯할 것이다. 그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반인의 외형을 하고, 정상 인성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 사역할 때는 신성으로 한다. 정상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즉 하나님 자신이 사역한다는 것이다. 단지 정상 인성을 통해 사역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정상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다. 그가 하는 사역을 사람은 하지 못한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했다면 당연히 비범한 사람이 한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의 비범함이 아닌 인성의 비범함이 아니다. 신성은 인성과 같지 않다.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 또한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다. 네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이 아니며, 초자연적인 일들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극히 실제적으로 교회에 가서 사역하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상태를 짚어 주십니다. 정말 실제적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아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끔 분노를 표출하실 때면 우리는 그분이 분노할 때의 위엄을 볼 수 있고, 웃으실 때면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분은 형상이 있고 뼈와 살이 있으신, 지극히 실제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너의 그러한 증거가 다른 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의 실상과 본질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증거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너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가 어떻게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사람을 진리의 실제 속으로 이끌어 가는지, 따라서 그에 의해 정복되고 온전케 되며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과 너의 모든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한 사역만이 그를

대변할 수 있고, 그의 사역만이 그의 모든 것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으며, 그의 사역만이 그를 증거할 수 있다. 그의 사역과 음성은 직접적으로 영을 대변한다. 그가 한 사역은 영이 한 사역이며, 그가 한 말씀은 영이 한 말씀이다. 그저 말씀으로 된 육신을 통해 선포된 것일 뿐, 사실상 그것은 영의 선포이다. 그가 한 사역과 말씀은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만약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온 하나님이 말씀도,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그의 실체와 정상적인 면, 전능을 인식하라고 한다면 알 수 있겠느냐? 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의 육신의 성질이 어떤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의 사역을 일일이 체험했기에 그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어떤 체험도 하지 못했다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정상 인성의 겉모습은 물론이요, 그가 한 사역과 인도한 길까지 증거해야 한다. 네가 그에게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어떤 면에서 온전케 되었는지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해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어디를 가든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시며, 어떤 이적과 기사도 나타내지 않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라고 외친다면 다른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적과 기사 없이도 당신을 정복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 질문에 “어떤 이적과 기사도 없이 말씀만으로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으로 우리를 정복하신 거죠.”라고 대답한다면, 결국 본질적인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육신한 하나님이 사람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의 신성에서 나온 말씀으로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성으로 이를 수 없는 일이며, 평범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상인 가운데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불가능하다. 그의 신성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에는 비범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높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높을 수 없다. 만약 네가 그보다 높다면 그는 너를 정복할 수 없다. 그가 너보다 높아야 너를 정복할 수 있다. 전 인류를 정복할 수 있는 이는 창조주뿐이다. 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며, 네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의 증거이다. 네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형벌, 심판, 연단, 시련, 좌절, 환난을 겪고 정복되어 육적 앞날과 자신의 속셈, 그리고 모든 육적 이익을 내려놓는다면, 즉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정복되었다면, 너의 생명이 그가 요구한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네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깨닫고 그가 한 일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이는 실제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가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러 온 것은 사람을 정복하기 위함이지만, 그는 또한 사역을

끝마치고 시대를 끝내며 마무리 사역을 하는 자이다. 그는 모든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구원한다. 또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구원하여 그의 피조물인 인류를 완전히 얻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증거이다. 너는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못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복음을 확장할 때가 되면 너는 자신의 인식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얻은 것을 전부 증거함으로써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단계 사역의 의의는 대체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사람에게서 이뤄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성육신한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너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가 행한 사역의 의의와 내용, 본질, 그리고 대변하는 성품과 사역 원칙, 이 다섯 가지 측면을 전부 밝히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진실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다.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심이 서 있다면, 너는 그가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너 자신이 그의 사역을 얼마나 체험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뜻과 인류에 대한 그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써 그를 증거하고, 너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네가 “저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과 형벌은 지극히 혹독하며, 그의 말씀은 정말로 엄합니다. 정말 공의롭고 위엄 있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이 너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네 패역과 패괴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더럽고 패괴된 것들을 정결케 하고 없애 버릴 수 있지 않느냐? 만약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사탄이 너를 매우 심하게 패괴시켰다는 것을 정녕 깨달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전부 현재 너희가 갖추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너희가 상상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본분을 이행하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할 리 있겠느냐? 관건은 성과이다. 네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책을 들고 있을 때는 얼마간 인식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책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글귀상의 도리만 알고 있을 뿐, 체험으로 얻은 인식은 없다는 뜻이다. 너는 지금 핵심을 잡아야 한다. 이는 실체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 관건적인 부분이다! 먼저 다음과 같이

훈련해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 용어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이상을 찾아라. 또, 실행해야 할 부분을 찾아 하나하나 귀납한 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라. 반드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한 편 다 보고 나면 핵심적인 이상 부분과 실행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을 토대로, 그리고 실행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라. 이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행 방법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너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며, 너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거의 중요시하지 않는다. 너희는 일반적으로 나태하고 진취적이지 않으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이는 심지어 원망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 역사의 목적과 의의를 모르고 진리 추구를 버거워한다. 이런 사람은 모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므로 결국에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온전케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다.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려는 결심이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구제 불능이다!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너희가 추구하는 것에 성과가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즉, 너희가 치른 대가와 너희가 행한 것들을 통해 너희의 결말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나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과 너희의 믿음, 너희가 행한 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드러낼 수 있다. 너희들 중 수많은 사람이 이미 구제 불능 상태이다. 이제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므로 나는 어리석게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다음 시대로 인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역도 결국엔 끝이 있는 법이다. 나는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썩어 빠져 영이 없는 시체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을 구원하는 마지막 때이니 그렇게 불필요한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일이 이미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바꾸고 싶다고 바꿔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제, 너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다. 오늘은 이미 때가 도래했으니 너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내일이 되면 너는 내쳐질 것이고, 그러면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설령 내 마음이 약해져 온 힘을 다해 너를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너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뭘 어쩔 수 있단 말이나? 늘 자신의 육체를 위해 계산하고 편안함을 즐기는 자, 반신반의하는 자, 더러운 주술과 사술(邪術)을 부리는 자, 행음하고 추하기 그지없는 자, 여호와의 제물을 훔쳐 먹고 여호와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자, 뇌물을 좋아하는 자, 천국에 가기를 꿈꾸는 자, 거만하고 건방지며 자신의 명리를 위해 싸우는 자, 망령된 말을 퍼뜨리는 자,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자, 늘 하나님 자신을 논단하고 비방하는 자, 패거리를 짓고 독립을 꾀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자, 음란한 짓거리에 빠진 경박한 젊은 남녀와 중·노년 남녀,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의 명리와 지위를 탐하는 남자와 여자들, 죄악에 빠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제 불능 아니겠느냐? 음란과 죄악, 주술, 사술, 모독의 말, 망령된 말이 너희들 가운데서 성행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서 짓밟혔으며, 거룩한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더러움과 패역으로 가득한 이방의 족속들아! 너희의 결말이 어떨 것 같으냐? 육체를 탐닉하고, 육적인 사술을 부리며,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무슨 낮잡으로 살아간단 말이나? 너희들이 이미 구제 불능의 구더기임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육체만 탐닉하는 자들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생명의 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으며, 자신의 지위를 도모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가 아니더냐? 그들을 구원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관록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역했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며,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달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너의 추구에 결실이 있는지에 달렸다. 구원받는 사람은 꽃이 흐드러지고 이파리가 무성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오랜 세월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한들 그게 어쨌단 말이나? 너의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마음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정욕을 탐하는 마음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인간 말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표본이나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본성은 바뀌기 힘들고, 너의 패역은 너무나 많아 구제할 방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도태될 대상이 아니냐? 나의 사역이 끝날 때가 바로 너의 마지막 날이 임할 때가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과 말을 했다. 너희는 그중 얼마나 귀담아들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 사역이 끝날 때가 바로 나에 대한 너의 대적과 대립이 끝나는 시점이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 너희는 늘 내게 반기를 들었고, 한 번도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사역을 하고 너는 자신의 ‘사역’을 하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세웠다. 짐승 같은 너희들은 극력 내게 맞서 왔다! 언제나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데, 너희의 경외심은 어디로 간 것이냐? 속임수뿐이구나! 기만과 모독뿐, 순종과 경외는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호색한들은 늘 요염한 음녀들을 품으로 끌어와 ‘누리려’ 한다. 나는 그런 음란한 귀신들을 절대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처럼 더러운 귀신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한다. 너희의 ‘색정’과 너희의 ‘요염’이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릴 텐데,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더러운 귀신, 악령 같은 너희는 한없이 가증스럽다! 보기만 해도 역겹구나! 그런

천한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이러한 진리와 길, 생명은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죄악과 재물, 지위, 명리, 육체의 쾌락, 남자의 용모, 여자의 요염함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겠단 말이나? 너희의 형상은 하나님보다 크고, 너희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높다. 사람들 가운데서의 위세와 명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너희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천사장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 때가 되면, 즉 구원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반드시 너희 중 수많은 사람이 도태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시체들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 기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온화한 얼굴을 보여 주겠지만, 사역이 끝나고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이 모두 드러나면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결말이 전부 드러나고, 모두가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시대가 지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는 더 이상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실행 8

현재 너희는 각 방면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으며, 실행 과정에 치우치고 그릇된 면이 너무 많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관념과 상상에 기대 살아가며, 늘 실행의 원칙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상 궤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성 생활과 영 생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든 실행할 줄 알며, 다른 이가 늘 붙들어 주거나 이끌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분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후에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혼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진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네가 지금 파악한다면, 앞으로 실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를 바른길로 이끌어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면, 앞으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사람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모두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도이다. 내가 오늘 너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면, 어느 날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너는 이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 실행하고 더 깊이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떤 실행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실행이 치우친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 앞으로 체험할 때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 너희의 관념과 상상, 그리고 실행상에 오차가 있는 부분을 교정해 주고, 실행과 진입의 길을 제시해 주면, 이 단계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사역이 끝나니 너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너희의 분량이 아직 작아서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 속하는 많은 문제점과 깊이 자리 잡은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확실히 짚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너희의 뱃속, 혈관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드러내는 정도에 이르면, 그것을 바로 형벌, 그리고 심판이라고 한다. 나는 나의 사역을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한 후에야 그것을 마무리 짓는다. 너희의 파괴된 본질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파헤칠수록 너희의 인식도 더 깊어질 것인데, 이는 향후 너희가 증거하고 온전케 되는 데에 아주 큰 의의를 지닌다.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사역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형벌과 심판을 통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나의 성품과 공의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형벌과 심판까지도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많은 이가 내 사역의 ‘새로운 것’과 ‘구체적인 것’에 큰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너희는 내 사역이 ‘새롭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직접 실행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실행과 너희가 앞으로 굳건히 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가을철의 낙엽처럼 시들고 빛바래 모든 가치를 잃게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며, 내가 하는 사역과 말은 또한 매우 구체적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의 성품과 자질에 따라 너희를 대해야 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너희의 인식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오늘은 깨닫지 못했어도 내일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장치 내 형벌과 심판의 말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누구든 나를 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자신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유롭게 하루의 시간을 조정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양 또는 설교를 듣고, 영성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흥미가 있다면 찬양 가사를 써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러한 것들은 다 합당한 생활이 아니겠느냐? 모두 인성 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순리를 따를 줄 알아야 한다. 정상 인성 측면에서든 영 생활 측면에서든 성과를 거둔다면 정상적인 생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너는 그저 인성 측면에서만 식견이 부족하고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깨달아야 할 많은 이상(異象)도 갖춰야 한다. 접하는 모든 공과를 배우고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언어 지식을 쌓고 싶다면 길게 잡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수확이 있을 것이다. 인성의 정상 생활에도 갖출 것들이 있고, 자신의 생명 진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시 보고 이해한다면 마음이 훨씬 충실해질 것이다. 이것 역시 너의 수확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다가 얼마간 인식이 생기면 너는 그것을 자유롭게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또한 네게 있어야 하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때로는 어떤 질문이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분별력과 식견, 지혜를 키우고 진리를 좀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이 또한 오늘날 영 생활에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느냐? 영 생활에는 한 가지 실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두 영 생활이다. 영 생활도 있어야 하고 정상 인성의 생활도 있어야 한다. 지금 하는 많은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식견을 키워 주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갖추게 한다. 어떤 것이 식견을 갖춘 것인지, 어떤 것이 정상적인 인간관계인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등등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갖추야 한다. 너에 대한 나의 요구는 모두 정상 인성으로 이를 수 있는 것들이다. 갖추야 할 것을 갖추되 선을 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아무 단어나 다 사용하는데, 이는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아무 책이나 다 보려 하는데 이는 육적인 정욕을 방임하는 행위이다. ‘세계적인 위인’의 전기와 어록까지 공부하고 모방하며, 심지어는 선정적인 책까지 가리지 않고 보니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은 생명 진입의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얼마나 공허한 삶이냐! 자신이 진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입만 나불거리는 모습이 마치 ‘말’로 진입을 대신한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은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자,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루 종일 배만 불리고 무의미한 짓만 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온종일 일하고 먹고 입는 것 외에 대부분의 귀한 시간을 무의미한 일에 빼앗기고 있다. 또는 수다를 떨거나 행락을 즐기거나 잡담을 하거나 꿈에 빠져 사는데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상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천박하고 뒤틀린 삶을 살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 네가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너 스스로를 사탄에게 갖다 바칠 셈이냐? 사람이 안락한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체험을 해 나갈 수 없다. 사람은 안락한 환경에서는 쉽게 타락하나,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욱 기도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사람은 삶이 안락하고 무료할수록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죽는 게 낫다고까지 여기게 된다.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파괴되었으니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에서 이뤄졌으므로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사역은 매우 은밀해서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은 전부 몰랐다. 사람들은 예수가 사역을 끝마치고 그의 사역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에야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가 이미 떠난 후였다. 예수는 와서 한 단계 사역을 하여 일부 사람을 얻고 그 단계 사역을 완성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든 수많은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다. 만약 하나님이 혼자 사역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단계 사역을 철저히 끝낼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끝낸 후에야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 그렇게 사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오직 시대를 여는 사역만 할 뿐, 이어 가는 사역은 사람이 맡아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사역을 하는 시간 또한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며,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사역을 끝마친 후, 너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하게 할 것이다. 즉, 이 사역, 이 복음이 속히 이방 모든 족속에게 퍼져 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너는 미련한 자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런 사역을 체험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세우지 않고 어떤 부담도 가지지 않는다면, 너의 앞날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런 사람은 도태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인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이 협력할 때 어떤 공과들을 배워야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본 너희는 대부분 함께 협력할 때 전혀 공과를 배우지 못할뿐더러 각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말하며 서로 상관하지 않고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 내면의 깨달음을 교제하고 자기 안의 ‘부담’을 털어놓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전혀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니 건성으로 대충 사역하는 것과 같다. 또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교제하면 된다고 여긴다. 너희는 다른 이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자기 성찰은 하지 않으니, 참으로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너희에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독선적인 상태가 적지 않은데, 꼭 고질병이 또 재발한 것 같다. 너희는 서로 완전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교제를 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최근에 너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 등등 이러한 교제는 아예 없다. 예컨대 관념을 내려놓거나 자신을 저버리는 이러한 실행은 너희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리더와 일꾼은 형제자매들이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힘 있게 따르도록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모두가 힘 있게 따르면 그만이라고만 생각할 뿐, 스스로를 알아 가고 저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것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각오와 베드로처럼 살 각오만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어리석은 순종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만 추구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네 각오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너희가 보여 준 모습 아니더냐? 너희는 각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서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너희의 섬김을 지켜봤지만 이렇다 할 성장은 거의 없었다. 특히 ‘조화로운 협력’에 대한 공과는 백지와도 같다! 교회에 가면 너는 네 방식대로 그는 그의 방식대로 제각기 교제를 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니, 아래에서 따르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등을 아는 이는 매우 적다. 너희는 흐리멍덩하여 이 부분의 공과를 어린애 장난처럼 여기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의 진리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잘못을 범한다. 또한, 여러 해 섬긴 사람도 서로 암투를 벌이고 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각자 제 할 일만 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너희의 분량 아니더냐? 너희는 매일 함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어찌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냐?

지난날 이스라엘인은 성전 안에서 직접 여호와를 섬겼으며,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다 (물론 모든 이가 제사장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부만 제사장의 신분이었다). 여호와가 내려 준 화관(여호와가 직접 내려 준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만든 화관)을 쓰고 여호와가 내려 준 제사장 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맨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때 마음대로 하거나 함부로 드나들지 않고 항상 규례를 따랐다. 직접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 누구도 규례를 어겨서는 안 되며 모두 이 규례에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성전 규례를 어긴 자, 즉 여호와의 명을 어긴 자는 여호와가 선포한 율법에 따라 대해야 했다.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두둔할 수 없으며, 아무리 오랜 시간 섬긴 자라도 모두 이 규례를 따라야 했다. 그리하여 제사장 옷을 입은 몇몇 제사장은 이렇게 밤낮없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겼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전혀 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모두 일생토록 제단 앞에, 성전 안에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충성심이며 그들의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그토록 축복해 준 것도 당연하다. 그들은 모두 충성심으로 은총을 입어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보게 되었다. 당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그의 선민들 가운데서 역사했을 때 그들에 대한 요구는 매우 엄격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순종하고 율법의 단속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율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이는 모두 여호와의 행정 법령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 백성들에게 발견된 자는 즉시 제단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시체는 성전 안이나 성전 주변에 놓일 수 없었다. 만약

이렇게 행동한 자가 있다면 그자는 ‘다른 제사’를 드린 것이 되어 구덩이 안에 버려져 죽었다. 물론 이런 사람은 모두 생명을 잃어야 했으니 살아남는 자가 없었다. 심지어 ‘다른 불’을 드린 자, 즉 여호와와 함께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 역시 그가 바친 제물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불사름을 당하니 제단 위에 있을 수 없었다. 제사장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발을 씻지 않은 자는 성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성전의 바깥뜰조차 밟아서는 안 된다. 제사장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제사장 화관을 갖추지 않은 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죽은 자의 시체로 더럽혀진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불의한 자의 손에 더럽혀진 자는 손을 씻지 아니하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자로 더럽혀진 자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고 3개월 동안 해당하는 얘기였다). 또한 여호와와 함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기한이 차야, 즉 3개월이 지나야 정결한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있고, 바깥뜰에서 7일간 섬긴 후에야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와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 여호와와 함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제사장의 모든 복식은 성전 안에서만 갖추 수 있으며 성전 이외의 곳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제사장은 반드시 여호와와 함께 율법을 거스른 죄인을 여호와와 함께 제단 앞으로 끌고 가 백성들에게 처형을 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본 제사장에게 불이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충성심은 극진했다.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와 함께 율법은 매우 엄하기에 감히 여호와와 함께 행정 법령을 쉽게 거스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인들은 여호와와 함께 불을 보았고 사람을 벌하는 여호와와 함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와 함께 불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보살핌과 보호,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그들의 충성심이란 바로 여호와와 함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거역하지 않았고, 설령 거역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똑같이 여호와와 함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 거역한 자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처형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 음란한 죄를 저지른 자, 여호와와 함께 제물을 흠쳐 먹은 자에게는 더더욱 중형을 가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그들(백성들)에게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했으며, 한 명도 예외는 없었다. 음란한 죄를 저지른 자, 즉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사악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어린 부녀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모두 처형을 당했다. ‘머리에 쓰는 것’, 그러니까 머릿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어린 부녀자가 남자를 유혹하여 죄를 지으면 그 역시 모두 처형을 당했다. 제사장(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러한 율법을 어기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고, 한 명도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했다. 이런 자의 친족들은 그가 죽은 후 3년 동안 제단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며,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내려 준 제물도 받을 수 없었다. 기한이 차야 제일

좋은 소나 양을 여호와와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만약 다른 과오가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3일간 금식을 하며 여호와와 은혜를 구해야 했다. 그들이 모두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여호와와 율법이 엄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은혜로 인한 것이었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섬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충성스러우며,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던 것을 반복하는 법이 없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와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있고, 여호와는 오늘날까지 계속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은혜가 되며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며, 어떻게 해야 여호와와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섬김의 '비결', 즉 '경외'다. 오늘날 너희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섬김이 영적 위인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는 충성심과 경외심이 전혀 없다. 너희가 입은 은혜는 적지 않으며, 이스라엘 제사장과 맞먹는다. 너희도 모두 직접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너희가 받고 본 것은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이 얻은 것보다 많고도 많다. 그러나 너희의 거역과 대적은 그들보다 몇 배나 많으며 경외심은 너무나 작다. 그래서 너희가 입은 은혜도 극히 적은 것이다. 비록 너희가 바친 것은 적으나 너희가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고도 많다. 이것이 너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는 아무도 감히 함부로 여호와를 판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내가 현재 너희를 정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어찌 너희가 제멋대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율법시대에 있었다면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경외심이 너무나 작다! 너희는 항상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얼마 내려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너희에 대한 축복의 말이 너무 적고 전부 저주의 말이라고 한다. 너희는 너희의 경외심이 너무 작아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의 섬김이 너무 엉망이라 늘 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거역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축복을 내려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무턱대고 나의 은혜를 내려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미 크나큰 은총을 베풀었다. 만약 이스라엘인이 너희처럼 이렇게 거역했다면 일찍이 그들을 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줄곧 관용을 베풀고 있으니 이것이 은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더 큰 축복을 원하느냐? 여호와가 축복하는 자는 오로지 그를 경외하는 사람뿐이다.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처럼 어떻게 섬기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도록 형벌과 심판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형벌과 심판이 너희에게는 가장 좋은 축복이 아니겠느냐? 최고의 보호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중 누가 여호와의 불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충성되게 섬길 수 있다면 너희에게 늘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항상 기쁨과 충분한 은혜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겠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섬기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섬김을 멈추게 할 것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최소한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실제로 공과를 배워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라면 너희 밑에 있는 형제자매 중 누가 감히 너희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앞에서 너희의 잘못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정말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실제적인 공과를 배우지도 않고 진입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입에 담는단 말이나! 오늘날 네게 교회를 이끌게 하였지만 너는 너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생각을 고집한다. 그러면서 “제 생각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말라고 하였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걸 중시하지는 않는다고요.”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여전히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며 누구도 굽히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섬김에 길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둘은 말은 부분이 서로 다르니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교제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이상(異象)을 교제하고 나는 내 진입을 교제하는 것으로 하죠.”라고 말한다.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는 늘 책임을 지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하며, 모두가 제각기 다른 의견을 말한다. 자신의 지위, 명예, 체면은 매우 신중하게 지키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생명이 더 빨리 성장하도록 자신을 낮추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지는 않는다. 너희는 협력할 때 진리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저는 이 부분의 진리를 잘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체험하셨나요?”라고 하거나 “이 부분에서는 당신이 저보다 체험한 것이 많으니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희는 많은 도를 들었고 섬김의 부분에서도 얼마간 체험을 했다. 너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 배우거나 돕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공과를 배울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이 닥치면 모두 서로 교제하여 너희의 생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자세하게 교제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건성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가서 한

마귀 돌아본 후 함께 모여서 발견한 문제와 사역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까지 모두 교제하고, 자신이 얻은 깨우침과 빛 비춤을 교제해야 한다. 이는 섬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실행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이익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이끌기 위해 조화롭게 협력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 더 좋은 사역의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진입한 사람이다. 협력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도 괜찮다. 간과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교제하여 분명히 알도록 해라. 이러한 교제 후에는 다시 형제자매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한다.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깊이를 더하며 사역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교회의 이익을 지켜야지,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서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이러한 자는 성품이 극도로 악하여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데, 영락없는 사탄이자 짐승이다! 너희 가운데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 심지어 교제 중에 서로를 공격하며 고의적으로 변명 거리를 찾는다. 사소한 일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누구도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며 서로 양심을 품은 채 상대방을 관찰하고 경계한다. 이러한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역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을 생명의 바른길로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 패괴 성품을 주입시키고 있으니, 이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양심이 썩은 자로, 정말이지 너무나 패악하다! 너는 실제로 진입하지 않고 진리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마귀 같은 본성을 드러내다니, 참으로 낯짝도 두껍구나! 형제자매들을 네게 맡겼는데 모두 너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갔으니, 너는 양심이 없는 자 아니겠느냐? 참으로 파렴치하구나!

자질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자질을 높이라는 것은 깨닫는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지를 알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 나를 따르면서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엉터리로 믿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고 어떻게 말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너희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깨닫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며, 상응하는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수많은 말을 너희에게 직접 전할 수 없으니,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사역에는 추가적인 항목이

필요하다. 너희는 깨닫는 능력, 사물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짝이 없고, 생활 수준도 떨어지기에 나는 너희를 대상으로 ‘인간의 자질을 높이는’ 추가적인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해야만 일부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말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너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느냐? 인간 말종이 되어 버리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를 대상으로 하는 나의 사역과 요구를 모르는 것이냐? 너희는 자신의 자질이 나의 요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사역을 그르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너희의 자질과 인격으로는 단 한 사람도 나의 증거가 될 자격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이후 이어질 내 사역의 중임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사실이 못 견디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삶을 충실하게 살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라.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다. 너는 자신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너는 아직 멀었으니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지 마라. 너에게는 인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전부 헛된 것 아니겠느냐? 너희 중에는 내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성 자질에 완벽히 부합하는 이가 한 명도 없으며,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가 몹시 힘들다. 너희는 나를 위해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공과에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더 깊은 진리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입해야지, 두서없이 무작정 달려들어선 안 된다. 가장 얇은 것부터 진입해야 한다.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대강대강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읽어선 안 된다. 평소에 지식을 늘리기 위해 참고 도서들(문법서나 수사책 같은 것)은 읽어도 된다. 하지만 연애 소설, 위인전기, 사회과학 서적들은 유해무익하니 볼 필요가 없다. 네가 진입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 자질을 높이는 목적은 사람의 본질, 신분, 지위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왜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지, 사람이 자질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 언어 지식을 익히는 일은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너희는 왜 자질을 높여야 하는지,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 진입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정상 인성으로 사는 것의 의의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사역을 하려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언어 지식을 배울 때 어떤 분야를 배우고,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알아야 하는 것과 같다. 너희는 언어 지식을 배우라고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에 진입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교회 내부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언어 지식을 익히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언어 지식을 배우는 것 외에는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정상 인성으로 살라고 하니, 방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취사도구를 사는 일 따위에만 골몰할 뿐, 평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실행이 치우친 것이다. 왜 너에게 영 생활에 진입하라고 하겠느냐? 그런 것들만 익힌다면 내 요구에 다다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명 진입이다.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자질을 높이는 것은 너에게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의 영적 생명의 성장과 성품 변화를 위해서이다. 너는 옷을 차려입을 줄 알며, 자신을 꾸밀 줄 알고, 식전과 지혜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날 너에게 사역을 맡기면 그 사역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자질을 높이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자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너의 성품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네가 정상 인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자질을 높여 정상 인성에 걸맞은 이성과 생활을 갖추고 생명 진입이 있어야 비로소 변화와 간증을 논할 수 있다. 어느 날 네가 간증할 때, 인성 생활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인식, 이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야 진정한 간증이라 할 수 있고 너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인성의 외적인 변화만 있고 내적인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내면에 인식과 진리가 있다고 해도 정상 인성으로 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늘 너에게 역사함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니, 너는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네가 매일매일 쓰고 듣기만 하고, 그 외의 생활이 없다면 이 또한 안 될 일이다. 모든 면에 다 진입해야 한다. 너는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많은 자매들이 아가씨처럼 꾸미고, 형제들은 도련님이나 나리처럼 꾸미며, 성도의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질을 높이는 일은 겹해서 해 나가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자질을 높여 봤자 쓸모가 없다. 그러면 배움이 헛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너에 대한 요구 중에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포함시키겠느냐? 앞으로 있을 사역의 성과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 네가 정복된 후에는 체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는 정상 인성을 갖춰 놓고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안 될 일이다. 정상적인 영 생활을 하면서 정상 인성도 갖춰야 할 것이다. 정상 인성 측면의 많은 일은 하다 보면 배우게 된다. 바닥을 청소하는 일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더냐? 식사할 때 젓가락질하는 것도 1시간씩 훈련한다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정상 인성에는 몇 가지 측면이 포함되느냐? 식견, 이성, 양심, 인격, 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정상 수준에 도달한다면, 네 인성은 합격이다. 정상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면 된다. 그리 높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정상인이 갖춰야 할 이성,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추고, 최소한 정상인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목수생(乾木水生)과 같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쓸모없는 말, 쓸모없는 사역은 결코 너에게 하지 않는다. 네 생활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추태들을 반드시 벗어 버려야 한다. 너희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사탄의 독소가 너무나 많다. 나는 네게 그러한 사탄의 파괴 성품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고위급 인사나 유명인,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의미 없는 요구이다. 나는 너희에게 원래 있는 것들에 맞춰 사역한다. 사람에 대한 요구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지식인들이 말하는 방식과 어투를 따라 훈련한다면, 이는 옳은 방법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너희의 자질에 따라 최소한 지혜롭고 격식 있게 말하고, 의사 전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최소한 식견과 이성을 갖추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성품과 네가 드러내는 추태를 벗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들을 벗어 버리지 않고서 무슨 최고의 이성과 식견을 논하겠느냐! 많은 이가 시대가 변했다며, 겸손과 인내를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고, 성도의 품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릇되기 그지없다! 그들에게 어디 정상 인성이 있으며, 그들이 어디에 가서 증거하겠느냐? 식견이고 이성이고 전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일부 실행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고쳐야 하고, 과거의 틀에 박힌 영 생활과 사람의 무감각하고 우둔한 모습들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육체를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떠들어선 안 된다. 정상인의 언행이란 말에 조리가 있고, 맞으면 맞았다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며, 사실에 부합하고 적절하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품 변화에 관해서는, 정상인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제에 진입할 수 없다.

모압의 후손을 구원하는 의의

최근 2~3년간의 사역에서 너희를 대상으로 한 심판 사역은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이

비틀어지며 눈도 휘둥그레지는 등, 자신이 모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모압은 저주받은 후 이 땅에 흠뻑 젖었다. 그의 후손은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너희는 다 그의 후손이다. 그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모압의 집에서 태어난 걸 어찌겠느냐? 나도 너를 붙잡고 여기고 네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너는 모압의 후손이니 나 역시 너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네가 누구의 후손이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저 지위가 낮은 피조물이고 출신이 비천한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이라면 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정복될 대상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아야 하고, 그의 지혜와 전능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모압의 후손인 너는 이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모압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인정하거라! 사실 오늘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을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일이다. 너희를 대상으로 사역하기에 크나큰 의의가 있다. 만약 함의 후손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면 별로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출생이 비천하지 않고 모압의 출생과 다르기 때문이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음란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위가 낮을 뿐이다. 노아가 그들을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기에 신분이 낮아졌을 뿐, 원래부터 천한 출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압은 출신 자체가 천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는 음행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롯은 지위가 매우 높았지만, 모압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나왔다. 롯은 의롭다고 칭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모압은 저주의 대상이었다. 모압은 출신도 지위도 낮다. 설령 저주받지 않았을지라도 더러운 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모압은 함과 다르다.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거역한 까닭에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졌다. 오늘날 이러한 모압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바로 가장 어두운 흑암 속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얻고자 한다. 애초에 그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역의 성과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이렇게 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얻고자 하는 영광이다. 지위가 낮은 이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큰 구원을 받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다. 이 사역이 더없이 큰 의의를 지닌 것은 심판으로 이들을 얻기 때문이다. 심판은 일부러 이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만약 말세의 정복 사역도 이스라엘에서 한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 설령 성과가 있다 해도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으며, 모든 영광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자, 가장 뒤떨어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피조물들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사탄에게 속아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 너희는 전부 마음속으로 우상과 사탄을 경배하고 있으니 가장 비천하고 뒤떨어진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가장 천한 욕을 가졌으며 개인의 자유가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사회의 최하층 사람으로, 신앙의 자유조차 없다. 너희에게 사역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모압의 후손인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일부러 너희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의의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너희를 크게 높여 준 것이다. 이성이 있고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압의 후손인 저를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군요. 저는 정말이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행한 것과 말한 것, 저의 신분과 가치로 볼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누린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신분이 훨씬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얼마나 충성했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백배나 더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되며, 정말로 너무 형편없다.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찾은 적이 있더냐? 언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적이 있더냐? 언제 가정, 부모, 자식을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한 적이 있더냐? 아무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 중 몇이나 희생할 수 있었겠느냐? 모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다. 너희의 충성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행실대로라면 진작에 멸하고 단번에 쓸어버렸어야 한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큰 복을 누린단 말이나?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 너희 중 스스로 길을 개척한 자가 있더냐? 스스로 참도를 찾은 자가 있더냐? 다 놀고먹기 좋아하며 안락만 탐하는 천박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자신이 대단하게 보이느냐? 칭찬할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의 본성과 출생지가 최상으로 변하기라도 한단 말이나?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뱀속까지 모압의 자손이 아니냐? 사실이 바뀌기라도 하겠느냐? 지금 너희의 본성을 폭로한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나? 너희의 노예근성, 너희의 삶, 너희의 인격을 보고도 너희 자신이 가장 비천한 하등 인류임을 모른단 말이나? 그러고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더냐? 너희의 사회적 지위를 보아라. 너희는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 아니냐?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쳤느냐? 욥은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너희는 무엇을 바쳤느냐? 많은 사람이 참도를 찾기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는데, 너희는 그런 대가를 치렀느냐?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이토록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오늘날 너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너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었건만 너희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은혜를 거저 누렸다. 그리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이 참도를 너희 스스로 찾아서 얻은 것이냐? 전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한 것 아니더냐? 너희에게는 본디 찾고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진리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모두 남의 성과를 앉아서 누리며,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이런 진리를 얻었다. 그리고도 무슨 자격으로 불평을 늘어놓는단 말이나? 너는 네 신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느냐? 일생을 바치고 피를 흘린 자들과 비교해 보면 너희에게 불평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이나? 지금 너희를 멸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이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았거나 너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너희는 결코 나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기꺼이 포기하려고 했겠느냐? 누가 이렇게 기꺼이 육체적 즐거움을 내려놓으려고 했겠느냐? 모두 안락을 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좇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도 또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나? 또 무슨 원망이 있단 말이나? 너희가 하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고, 땅에서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사역을 오늘날 너희에게 드러내 보였건만, 이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나?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형벌을 받았고, 형벌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되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형벌과 사람의 더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진귀한 진리 아니겠느냐?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위가 낮을수록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 증명되고, 오늘날 너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이 증명된다. 이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없었다. 너희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크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실하다는 것, 즉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중국인은 하느님(원문: 上帝)을 믿은 적이 없다. 여호와를 섬긴 적도, 예수를 섬긴 적도 없다. 향을 피워 절을 하거나 종이를 태워 부처를 섬기는 등 우상을 섬길 줄밖에 모르며

패역이 극에 달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위가 낮을수록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얻는 것이 더 큰 영광임이 증명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당신같이 지극히 높고 크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땅에 오시다니요?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당신은 저희와 함께 있길 원하십니까? 저희 가운데서 생활하길 원하십니까? 저희의 지위가 이렇게 낮은데 당신은 저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십니까? 또 저희를 표본과 모델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너는 내가 하려는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나의 성품도 알지 못한다. 또 내가 하려는 사역의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인간인 너의 관념과 같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나는 반드시 나의 높은 신분과 지위, 존귀함, 거룩함,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야 한다. 나를 인정하는 곳과 지체 높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높은 지위와 신분이 더해진다면 좋은 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역에 이로움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큰 구원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나를 본 사람이 다 순종하고, 내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희의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땅에 온 목적이 누리기 위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사역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편하고 쾌적한 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나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모든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왔지만 본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역하여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또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강생한다. 거룩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 그는 거룩하다. 세상 만물은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그저 만물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만물은 여전히 그에게 속하고 모두 그의 손안에 있다. 그가 더러운 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러운 곳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극도의 굴욕을 참으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는 증거를 위한 것이자,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지상한 존재임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준다. 그의 위대함과 정직함은 모두가 업신여기는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가 더러운 곳에 강생했다고 해서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위대함과 인류를 향한 참된 사랑을 보여 줄 뿐이다. 그가 이렇게 할수록 인류에 대한 그의 흠 없이 깨끗한 사랑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다. 더러운 곳에 강생했더라도,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은혜시대에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사역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었더냐? 인류가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더냐? 2천 년 전에 그가 죄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구속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그가 또다시 더럽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의 모든 사역은 다 너희, 이 인류를 위한 것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말구유에서 탄생했으며, 오랫동안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겠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마귀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곳에 강생하여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더냐? 그가 한 사역 중에 인류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너희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더러운 곳에 왔다고 해도 그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고, 그가 너무나 큰 고통과 굴욕을 참아 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위해, 너희 운명을 위해 그가 얼마나 큰 굴욕을 참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냐? 그는 높고 대단한 사람들과 돈 많고 세력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비천하고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만 구원한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거룩함 아니겠느냐? 그의 공의로움 아니겠느냐?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해 그는 기꺼이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 모든 굴욕을 참고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기에 거짓된 일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모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냐? 비록 모든 사람이 그가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방하고, 그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조롱해도, 그는 계속해서 이처럼 사심 없이 자신을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다. 그가 참아 낸 고통이 너희보다 크지 않겠느냐? 그가 행한 사역이 너희가 치른 대가보다 많지 않겠느냐? 너희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었고, 마귀들이 무리 지어 사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커다란 보호를 받았다. 너희에게 또 무슨 선택이 있겠느냐? 또 무슨 불평할 것이 있겠느냐? 그가 받은 고통이 너희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그는 땅에 와서 한 번도 인간 세상의 복락을 누린 적이 없으며, 도리어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땅에 온 하나님은 사람의 물질적인 대우를 누리지 않고, 사람이 즐기는 호의호식을 누리지도 않는다. 그는 그런 것들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가 땅에 온 것은 인간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고난받기 위함이다. 그는 고통받기 위해, 사역하기 위해, 또 그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는 대사관이나 고급 호텔 같은 좋은 곳에서 살지도 않고 많은 종을 거느리며 시종들게 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본 것으로도 그가 사역하기 위해 왔는지, 누리려고 왔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느냐? 그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 그가 편한 곳에

태어났다면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의의 있겠느냐?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낼 수 있겠느냐? 관념에
 따른다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사는 이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더러운 저희를 증오하고 혐오하시며, 또 저희의
 대적과 패역을 혐오하시면서 어째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십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니 어디에서든 태어날 수 있는데, 어째서 굳이 더러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매일 저희를 형벌하고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분명히 아시면서
 어째서 저희 가운데서 생활하십니까? 어째서 모압 후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의 이런 인식은 너무도 비이성적이다! 이런 사역만이
 사람에게 그의 위대함과 낮춤과 감춤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모든 고통을 받았다. 이는 인류를 위한 것이고, 더욱이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이다. 만약 야곱의 후손이 이 중국 땅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바로 너희라면,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사탄이
 뭐라고 하겠느냐? 사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지난날 당신을 경외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에게 순종했고 역사적으로 당신을 배반한 적이 없었죠. 그들은 가장 어둡고
 비천하고 뒤떨어진 인류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이 사역에 탄복하겠느냐?
 중국인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뒤떨어진 인류다. 출신이 천하고 인격이 비루하며, 우둔하고
 무감각한 데다가 속되고 부패하다. 또 사탄의 성품이 온몸에 가득하며 더럽고 음란하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사역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이런 패괴 성품을 떨쳐
 버리고 완전히 순종하며 온전케 될 것이다. 이런 사역의 성과만이 피조물 가운데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어떻게 증거해야 하겠느냐? 이런 사역으로
 너희는 부각물이 되었고, 봉사자가 되었으며, 더욱이 구원받을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백성이 되고 나중에는 또 표본이자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사역에서 너희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겠지만 결국 역시 구원받을 대상이다.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소극적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가장 눈먼 자 아니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이런 호칭 때문에
 위축된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인격이 너무도 없구나! 좋은 호칭을
 들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호칭을 들으면 싫어하며 뒷걸음을 치니 말이다. 너는 대체 어떤
 놈이냐? 그리고도 무슨 참도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차라리 일찌감치 그만두거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작은 일에도 위축되다니, 이는 치욕의 상징 아니겠느냐?

너는 네 분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좋겠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천국에 가려는 꿈을 꾸지 마라. 착실하게 땅에서 정복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비현실적이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꿈’은 생각하지 마라! 만약 누군가 “저는 비록 모압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힘써 노력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옛 조상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가 저를 낳고 또 저를 짓밟는 바람에 저는 지금까지 줄곧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비로소 밝은 태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밝혀 주셔서 비로소 제가 모압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 사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탄을 저버림으로써 그것에게 확실히 수치를 안겨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각오와 패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느냐? 너희는 한 명 한 명 모두 사람다운 것 같지만 무너질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 무너진다. 너희는 이 일에 가장 민감하다.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너희는 입을 쭉 내밀었다. 이는 돼지의 성품 아니겠느냐? 자신의 명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다니 너무도 가치가 없구나! 네가 모압의 후손이 되기 싫어도 너는 모압의 후손이 아니더냐? 지금 내가 너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했으니 너는 인정해야 한다. 나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데 그럴 것이 뭐가 있느냐? 너는 큰 붉은 용의 자손이기도 하지 않느냐? 모압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으니 서러우냐? 네 삶을 안팎으로 살펴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음란하고 더럽고 눈멀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것이 모두 너의 성품 아니더냐? 너는 온종일 음란한 곳에서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러면서도 스스로 몹시 성결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다니. 네가 한 일들을 살펴보아라.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더냐? 짐승처럼 인간성이 전혀 없다! 너희는 온종일 동물과 같이 무리 지어 살고, 사악하고 음란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를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인정하고 봉사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너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이는 너의 부모가 너를 낳았으므로 너의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네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과 같다. 설사 네가 계모를 만나 그 집을 떠났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고 네가 원래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 그 사실이 바뀔 수 있겠느냐? 모압의 후손이란 이름은 내가 멋대로 붙여 준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바꿔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묻기에 “네게 부각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는 부각물이 되기도 싫어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부각물과 봉사자는 모두 너희가 아니더냐? 네가 또 무엇을 선택하려 하느냐? 너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더냐? 네가 아무리 다윗의 자손을 자처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더냐? 네가 멋대로 듣기 좋은 단어로 너 자신을 부를 수 있겠느냐? 과거에 말했던 큰 붉은 용의 자손 역시 패괴된 너희가 아니더냐? 봉사자도 패괴된 너희가 아니더냐? 정복된 표본과 모델이 될 자도 너희가 아니더냐? 온전케 되는 길 역시 너희를 대상으로 말한 것 아니더냐? 형벌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라면 나중에 온전케 되는 사람도 너희 중 일부가 아니겠느냐? 아직도 호칭에 연연하느냐? 너희는 너무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작은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한단 말이냐? 너희는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걸 똑똑히 알고 있으므로 너희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오늘 네가 알 수 있으면 된다. 자꾸만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물러날수록 사탄의 후예임이 더욱 증명된다. 어떤 이는 찬양을 들으라고 하면 “모압의 후손인데 찬양을 들으라고요? 안 듣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또 “모압의 후손인데 찬양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희 같은 사람을 혐오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예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로서 네가 음란한 곳에서 태어난 큰 붉은 용의 자손이자 모압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옛 조상과 사탄을 저버려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너희에게 백성의 지위를 주자 너희는 모두 기뻐하며 누구보다 더 환호했다. 하지만 모압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어땠느냐? 모두 쓰러졌다! 너희의 분량은 어디에 있느냐? 지위에 대한 관념이 너무 심하구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등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모두가 도망가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온종일 외쳤던, 하나님을 위한 증거란 말이냐? 이렇게 하면 사탄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는 치욕의 상징 아니겠느냐? 그런 너희를 얻어서 무엇에 쓰겠느냐? 모두 무용지물이다! 너희가 무슨 고통을 당했다고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못살게 구는 것을 낙으로 삼는 줄 안다.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정죄하러 왔고, 너희를 정죄한 다음 멸하면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이는 너희가 눈이 멀었기 때문 아니더냐? 너희가 못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부러 너희를 정죄한 것이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지, 나는 결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다. 정말로 너희를 멸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토록 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로 너희를 멸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거듭 충고하며 너희에게 당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한 뒤에

안식하려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비천한 사람일수록 내게 구원받을 대상이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진입할수록 나의 기쁨은 더 커지고, 너희가 쓰러질수록 나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너희는 늘 어깨에 힘을 주면서 보좌에 오를 생각만 한다.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것은 너희를 더러움에서 구원해 내는 길이 아니다. 보좌에 오르겠다는 환상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내가 너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너는 불쾌해하며 “당신이 저를 무저갱에 떨어뜨리면 저는 당신을 증거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고난받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나와 맞서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이롭겠느냐?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모두 잊은 것이냐?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마음은 너희에게 냉대받고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네가 나를 증거하지 않겠다면 나도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는 나중에 반드시 멸망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에게서 나의 증거를 얻을 수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으므로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결국에는 너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미 어둠 속에 떨어져 있을 텐데,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너 자신을 너무 존귀하게 보지 마라. 네가 나를 따르기 싫어한다는 것은 너라는 사람이 패역하며, 취할 만한 부분이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너의 말재주가 좋은 것도 다 모두 나의 사역이 가져다준 말을 갖췄기 때문 아니더냐? 너에게 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더냐?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 이 모압의 후손들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영광을 얻을 때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모압의 후손들을 택하여 사역할 것이다. 나를 증거하기 싫다면 떠나도 좋다. 나는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중국 땅에서 나의 사역에 적합한 대상을 몇 명 찾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다. 이 땅에 다른 것은 몰라도 더럽고 파괴된 사람은 어디든 널려 있다. 나의 사역은 어디에서 하든 똑같다. 그러니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마라! 네가 아무리 오만해도 음란함에서 태어난 자손 아니더냐? 네 신분을 보아라. 네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느냐? 너를 살려 두는 것만 해도 이미 크게 높여 준 것인데 뭐가 잘났다고 건방을 떠느냐? 만약 내가 시대를 끝내는 사역을 하려 하지 않았다면 너는 일찍이 천재나 인재를 당하지 않았겠느냐? 네가 아직도 이렇게 편히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도 늘 이 일을 따지고 드는구나. 모압의 후손이라는 말을 들은 뒤부터 날마다 입을 쭉 내민 채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으며,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다른 사람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보면 방해하며 힘 빠지는 얘기만 한다. 참으로 간도 크구나! “모압의 후손이 무슨 지식을 배운단 말입니까? 저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짐승이

하는 말 아니겠느냐? 너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너에게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 많은 사역이 다 헛일이었던 말이나? 이 많은 말이 다 헛수고였던 말이나? 네가 개라고 해도 꼬리를 흔들 텐데, 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느냐? 모압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신을 망가뜨렸다. 옷을 입어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지저분해 사람 같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모압의 후손이야.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복받고 싶은 생각은 그냥 헛된 꿈이야. 모압의 후손이 온전케 될 수 있겠어?”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투를 보세요. 만회할 여지가 조금도 없잖습니까! 말씀 속에 사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예전에 한 말을 잊었느냐? 지금 ‘모압의 후손’이라는 말만 기억하느냐? 사실 많은 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 늘 도망칠 생각만 한다. 네가 떠나고 싶다면 나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두겠다. 일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예전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지 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양심을 거스르며 일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모압의 후손 역시 피조물이다. 그저 부각물이 되고 저주를 받았을 뿐이다. 어쨌든 간에 너 역시 피조물이다. 만일 네가 “저는 비록 모압의 후손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있어야겠지요. 그냥 인정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이 흐름 속에서 받을 것입니다. 모압의 후손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의 된 것이다. 끝까지 따라와야지, 중도에 도망가 버린다면 너는 정말 미래가 없으며,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너희에게 너희의 출신을 알려 주면 좋은 점이 있고, 진실을 알려 주는 것이 사역에도 유리하다. 그러지 않으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정복되는 사역 중 일부이고, 사역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절차이며, 사실이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양심의 느낌을 환기시켜 이 크나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위가 낮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이다.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받들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고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지위가 낮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비천한 저희를 업신여겼죠. 가정 환경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수모를 당하고,

자식에게도 무시당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며느리에게까지 구박당하며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떻게 인간 세상의 고난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 죄 속에서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높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저를 이렇게 높여 주셨으니 제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업신여기지 않고 지위가 낮은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먹여 주시며,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설사 형벌을 내리신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형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높여 주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양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지위와 신분을 가졌지만,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며 먹고 입는다. 그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외에 누리는 것은 모두 같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이토록 큰 사역을 하면서 개미나 빈대보다 못한 너희를 오늘날 이렇게 크게 높여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양심이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양심에 참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의 사역이 영광을 얻는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살아 있어도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 보아라.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사람의 내면에 항상 이런 이상(異象)이 존재한다면, 내면이 밝고 편안해질 것이며, 이런 일들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하나님께서 저를 해치시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저를 조롱하시는 것도, 모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말씀은 좀 엄하게 하셔서 제 마음을 아프게 찌르지만 모두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토록 엄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늘 저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로써 저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너에게 진정으로 이런 이상이 있다면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받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 자신이 얻은 수많은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헛들었을 리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도망쳐도 너는 도망쳐선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믿어도 너만큼은 꼭 믿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려도 너는 하나님을 수호하고 증거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해도 너는 그래서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아무리 홀대해도 너는 하나님을 홀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수모를 당했다. 거룩하고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그가 더러운 곳에 왔으니 얼마나 큰 수모를 견뎌야겠느냐?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 역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네가 양심을 어기고 그를 대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낫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이상이 부족하고, 이 사역에 대해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사역하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어리석은 놈들은 미궁 속에 들어가 몇 바퀴 돌며 흐리멍덩해진 것 같다. 네가 하나님 경륜의 근본 취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줄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꿰뚫어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 사역의 지혜와 기묘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모른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앞날이 밝은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만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회적으로 빙빙 돌려서 사역하시는데, 당신의 지혜를 저희에게 직접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에게 추측해 보라고 해도 저희는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빨리 저희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돌려서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너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양심이다. 양심을 중하게 여기고, 대체 누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며,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라. 지금 너는 네가 체험해야 할 생명의 도에 대해 기껏해야 껌데기만 조금 꿰뚫어 보았을 뿐이다. 체험해야 할 진리는 여전히 많다. 완전히 알게 되는 날, 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경솔하게 정의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거룩하시며, 크나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베드로의 체험 —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

베드로는 형벌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 저의 육은 패역한 것이니 저를 형벌하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을 기쁨으로 여기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당신의 심판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나이다. 저를 향한 당신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나이다. 당신의 성품이 나타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고, 또한 당신의 심판을 통해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이 더욱 순결해지게 되어 의인의 모습에 이를 수 있으면, 이러한 심판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나이다. 그 속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직 패역한 면이 많아 당신 앞에 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니 저를 더 많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열악한 환경이든 커다란 환난이든, 당신께서 무엇을 하시든 제게는 모두 귀하나이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깊나이다. 저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당신이 지배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며 알게 된 인식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간증이다. 현재 정복된 이후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나님께 정복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하나님이 저를 크게 높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바쁜 일생을 보내며 자식을 낳아 키우고 세대를 이어 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복되고서야 사람의 이런 삶은 아무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정복된 자가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겠느냐? 본보기와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의지가 없고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반면교사이다. 설령 정복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소극적인 자는 온전케 될 수 없다. 베드로는 온전케 된 후, 즉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무렵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될 수 있다면 당신을 더 순수하게, 더 깊게 사랑하고 싶나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나이다. 바로 당신이 저에게 예비하신 때가 되었나이다. 저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 이 증거를 해야 하나이다. 제 사랑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더 순수해지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음에 위안과 평안을 느끼나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당신께 제 자신을 전부 바치고 제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음에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느끼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사랑스럽나이다. 앞으로 좀 더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을 더 사랑하겠나이다. 살아 있는 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옵나이다. 저는 불의와 죄로 인해 당신의 심판과 형벌, 시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더 많이 보게 되었나이다. 이는 저의 복이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니 말이나이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나이다. 저는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고 싶나이다. 제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 말이옵나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으로 인해 십자가에 오르고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나이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지 못하나이다. 저는 당신이 바라시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없고, 당신께 보답한 것이 너무 적음을 알고 있나이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에게서 받은 사랑에 다 보답해 드리지 못했나이다. 제가 너무 부족하나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죄스러운 마음이 더 드나이다. 제 모든 잘못과 당신께 보답해 드리지 못한 모든 사랑을 그저 이 한순간으로 메울 수밖에 없나이다.’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려면 베드로의 인식과 체험을 갖춰야 한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순결한 사랑을 추구해야 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너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만족하며 소극적이 되어 후퇴해 더 깊고, 더 세밀하고, 더 실제적인 진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적극적인 면에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 너는 실제적인 사랑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타락해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우롱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얻지 못할 진리도, 서지 못할 정의도 없다. 너는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하겠느냐? 이는 모두 네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너에게 이런 의지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개 없는 나약한 자가 되지 마라. 너는 의미 있는 인생과 의미 있는 진리를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건성으로 대해선 안 된다. 일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나가 버리는데,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베드로와 같은 의지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우롱하지 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네 일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더 의미 있게 믿을 수 있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어떻게 해야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정복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온전케 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하고, 항상 자신은 안 된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진리가 어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진리가 어찌 고의로 사람과 맞설 수

있겠느냐? 네가 진리를 추구한다면 진리가 어찌 너를 놀려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정의를 위하여 굳게 선다면 정의가 어찌 너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네게 진정으로 생명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이 너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진리가 없는 것은 진리가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리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네가 정의를 위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정의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정의는 사실을 왜곡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네가 오랫동안 추구하고도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생명이 네게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생명에 대해 양심이 없고 생명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네가 빛 속에서 살면서도 빛을 얻지 못한 것은 빛이 너를 밝게 비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빛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빛이 조용히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치 없는 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게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흑암 세력에 반항할 의지도 없다. 너는 너무 나약하다! 그래서 사탄 세력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려 할 뿐이다. 정복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네가 만약 정복되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건 빛의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다.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형벌과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진심으로 탄복하지만 작은 좌절만 마주해도 견디지 못한다. 분량이 너무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형벌과 심판을 더 많이 겪어 더 깊이 알아야 한다. 지금 너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참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순결한 사랑에는 더더욱 이르지 못했다. 너희는 인식이 너무 얇고 분량도 아직 부족하다. 정말 어떤 환경이 닥치면 증거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진입이 너무 적으며,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대부분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실행할 길이 없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온전케 된 사람은 정상적인 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갖춘 진리가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고 양심의 기준보다 높다. 그런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점이 많아서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았다. 온전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다짐한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며 거래가 없는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든 말든 하나님을 만족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고, 양심적 판단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당신께 사랑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신다면 저도 당신께 돌려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식이 아니다. 온전케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이런 기회와 조건, 자격을 얻은 이상,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같다. 그는 가장 연약해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제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하지만 저의 분량은 너무 작나이다.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제 사랑은 너무도 유한하나이다. 당신에 대한 진심도 너무 적나이다. 당신의 사랑과 비교하면 저는 살아갈 자격도 없나이다. 저는 오로지 이 일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며, 더욱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피조물인 저는 당신을 만족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며,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나이다. 비록 저는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당신의 당부를 잊을 수 없고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 없나이다. 저는 지금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뿐이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은 몹시 괴롭나이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속 사랑을 당신께 돌려 드릴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해야 제 능력을 다해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켜 드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나이까? 인간의 연약함을 당신께서는 전부 아시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사랑에 미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저의 분량이 작음을 아시고, 저의 사랑이 너무 적음을 아시나이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능력을 다할 수 있나이까? 저는 제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나이다. 하지만 지금 저의 분량은 실로 너무나 작나이다. 제게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어 당신께 더 순결한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나아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벌과 심판, 시련, 그리고 더 심한 저주까지도 겪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셨으니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비록 지금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의 사랑과 형벌, 심판을 통해 당신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의 사랑에 만족을 드릴 수 없음을 느끼나이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이나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제 모든 것을 창조주께 바칠 수 있겠나이까?’ 베드로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량이 부족했다. 그때의 베드로는 가슴이 에이는 듯 몹시 고통스러웠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사람은 분량이 작고 양심도 연약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나이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저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 제 모든 것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길 원하나이다. 당신이 저를 심판하시든 형벌하시든, 베풀어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저는 아무 원망도 없나이다. 당신이 저를 형벌하고 심판하실 때 제 마음속에는 늘 원망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순결함에 이르지 못했으며, 당신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사랑에 보답했나이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이다. 저는 지금 저 자신을 더욱 증오하나이다.’ 베드로는 더 순결한 사랑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는 찾고 간구하고 더욱이 자책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으며,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자신이 증오스럽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또 약간 슬프고 우울했으며 소극적이 되었다.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환경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옴의 믿음을 추구했다. 그는 옴이 당시에 그토록 큰 믿음을 가졌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옴은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지금 저는 양심적으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을 조금 돌려 드리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나이다. 제 생각이 너무나 파괴하여 당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기에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기꺼이 바치고,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길 바라나이다.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당신의 음성을 찬미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칭송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당신을 위해 굳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제가 어찌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기를 원하겠나이까? 저는 당신께서 지으셨는데 제가 어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겠나이까? 저는 온전히 당신의 형벌 속에서 살지언정, 그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싶지는 않나이다. 제가 정결케 되고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만 있다면 저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당신의 심판과 형벌에 바치고 싶나이다. 저는 사탄을 혐오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나이다. 저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기를 기꺼이 원하고, 이에 아무런 원망도 없나이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만 있다면 평생 당신의 심판과 함께하여, 이로써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고, 악한 자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여 꽤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했다. 또한 그는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 양심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의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그의 의지는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갈수록 커졌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계속 구했다. 그의 기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 ‘저는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기만 했을 뿐 사탄 앞에서 당신을 증거하지 못했나이다. 저는 사탄의 권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나이다. 저의 사랑으로 사탄을 물리쳐 수치스럽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만족케 하길 원하나이다. 또한 저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사탄에게는 조금도 주고 싶지 않나이다. 사탄은 당신의 원수이기 때문이나이다.’ 그는 이렇게 구할수록 더 감동받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졌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도달한 경지였다. 그는 사탄의 권세를 넘어섰고, 육적인 향락과 기호에서 벗어나 형벌이든 심판이든 더 깊게 체험하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저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우롱을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나이다. 저는 당신의 저주 속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사탄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 괴롭나이다. 당신의 심판 속에서 살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몹시 기쁘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저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나이다. 저는 평생 당신의 심판 속에서 살면서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지언정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나이다. 저는 당신에 의해 정결케 되기를 원하지, 고통받더라도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우롱당하는 것은 원치 않나이다. 저 같은 피조물을 당신께서 쓰시고, 점유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심은 당연하며, 심지어 저주하시는 것도 마땅하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축복하려 하실 때, 제 마음은 기쁘나이다.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나이다. 당신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이나이다. 그러기에 저는 당신을 배반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도 안 되고 사탄에게 이용당해도 안 되나이다. 저는 당신의 우마가 되어야지, 사탄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나이다. 당신의 형벌 속에서 살면서 육적인 복락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당신의 은혜를 잃을지언정 저는 여전히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나이다. 비록 당신의 은혜가 저를 따르지는 않지만,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나이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좋은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나이다. 당신은 늘 위엄과 진노로 저를 대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떠날 수 없고,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 저는 당신의 집에서 살면서 당신께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매를 맞을지언정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고, 육만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바쁘게 살고 싶지도 않으며, 더욱이 육을 위해 살기를 원치도 않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었다. 이것은 온전케 된 자의 체험이고 온전케 된 자의 최고의 경지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귀중하게 여겼다. 이것은 그의 가장 귀한 점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이 나에게 물질적 향락을 누리게 해 주어도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임하면 나는 그것을 은혜와 누림, 축복으로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계속 사탄의 통제를 받고 사탄에게 좌지우지됐을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영원히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노라.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아 내 마음이 위안을 얻지 못하고, 불처럼 타오르며 평안과 기쁨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가 늘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쁨으로 여길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노라. 비록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이 무자비한 형벌, 심판, 저주, 매로 바뀌었으나 그래도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림으로 여길 것이니라. 이런 것이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이노라. 또 내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게 하기 때문이노라. 언젠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내 모든 것과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매우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 삶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어서는 안 되노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이니라. 만약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보살피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 것이며, 더욱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기회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나를 떠나지 않아야만 내가 늘 하나님께 정결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과 공의로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심판이 있어야만 내가 커다란 보호를 받으며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노라. 내가 정결케 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금생의 가장 큰 복이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체험한 최고의 경지였다.

사람이 온전케 된 후에 도달해야 할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것은 인간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 심판과 형벌이 없으면 사람은 모두 사탄처럼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보호이고 가장 큰 은혜야. 하나님이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해야만 사람이 깨어날 수 있고 육과 사탄을 증오할 수 있지. 하나님의 엄한 징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와 자신만의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서 살게 해. 심판과 형벌은 가장 좋은 구원이야!’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있는 한 저는 당신께서 아직 저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알고 있나이다. 당신이 제게 기쁨도 평안도 주지 않고 저를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시며, 수없이 채찍질하시더라도 저를 떠나지만 않으시면 제 마음이 편안할 것이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은 오늘날 저에게 가장 좋은 보호이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나이다. 당신이 제게 베푸신 은혜는 저에 대한 보호이나이다. 당신은 지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은혜는 당신이 보여 주신 공의로운 성품이고, 형벌이요 심판이며, 더욱이 시련이고 고난의 삶이나이다.’ 그가 육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보호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형벌과 심판 속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정결케 되고 성품이 변화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매가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사탄의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빚임을,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좋은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육으로 살면서 정결케 되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점점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대하실 때 저는 기쁨과 위안을 얻었으며, 저를 형벌하실 때는 제 마음에 더 큰 위안과 기쁨이 있었나이다. 비록 제게 연약함과 말 못 할 고충이 있고 또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당신은 제 슬픔이 저의 패역과 연약함 때문임을 아시나이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만족게 해 드릴 수 없어 울고,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슬퍼하고 통회하나이다. 하지만 저는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만족게 해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형벌은 저에 대한 보호이자

가장 좋은 구원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심판은 당신의 포용과 인내를 뛰어넘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저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없나이다. 지금에 이르러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하늘보다 더 높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일 뿐만 아니라 형벌과 심판이라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는 당신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아무도 정결케 될 수 없고, 아무도 창조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나이다. 저는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고 구사일생했지만 그로써 진정 당신을 알고 크나큰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당신의 형벌과 심판, 징계가 저를 떠난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나이다. 사람의 육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이까?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저를 떠나면 당신의 영이 저를 버린 것과 같고, 또 당신께서 더 이상 저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당신이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저의 자유를 빼앗아 가셔도 저는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의 형벌과 심판이 저를 떠난다면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저에게 형벌과 심판이 없다면 당신의 사랑을 잃은 것이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당신의 사랑을 잃으면 저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나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런 어둠,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저와 함께하시면 제가 당신을 보는 것과 같은데 어찌 당신을 떠날 수 있겠나이까?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저의 가장 큰 위안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설령 그것이 당신의 아주 작은 위안의 말씀일지라도 그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이제는 당신을 떠날 수 없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지만 저는 항상 이런 삶이 더 의미 있고, 저 자신을 더 충실하게 하며, 스스로를 더 변화시키고, 피조물이 갖춰야 할 진리에 더 잘 도달하게 한다고 생각하나이다.’

사람은 한평생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누구도 스스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두가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패괴 속에서 살고 공허함 속에서 살며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모두 육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사탄을 위해 그렇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며, 생존의 가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은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진리를 찾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볼지라도 어떻게 해야 사탄 권세의 통제에서 벗어날지 알지 못한다. 역대로 이런 비결을 발견한 사람이나 찾아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사람은 사탄을 혐오하고 육을 혐오한다고 해도 사람을 해치는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더냐?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고, 더욱이 자신을 더럽고 패역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너의 편안함은 너의 패괴로 인한 것 아니더냐? 그 편안한 느낌은 너의 패역에서 나온 것 아니더냐? 사람은 모두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살고 있다. 곳곳에서 유령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육체를 부패시키고 있다.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천당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마귀의 영역이고, 인간 지옥이자 음부이다.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모두 더러운 존재에 속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사탄의 포로이다.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으면 사람은 더더욱 사탄의 이 흑암 권세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드러낸 패괴 성품과 네가 살아 낸 패역한 행위는 네가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되지 않고 너의 성품이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으면, 네 전체가 계속 사탄의 권세에 좌지우지된다. 너의 마음이 사탄에게 통제당하고 너의 생각이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네 전체가 사탄의 손아귀에 좌지우지된다. 너는 지금 베드로의 기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자질을 갖추었느냐? 너는 오늘날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알 수 있겠느냐? 너처럼 나태하고 나약한 사람은 결코 형벌과 심판을 알 수 없다. 네가 육적인 평안과 향락을 추구한다면 정결케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가 살아 낸 것이 사탄이요, 육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결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깊은 생명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겠느냐?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온전케 될 기회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모두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 가고 성품 변화에 들어가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종교의식에 따라 예배만 드린다면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명에 대한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진리의 진입과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다. 온전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사역, 특히 형벌과 심판의 의의, 왜 사람에게 이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형벌 속에서 네가 베드로와 같은 체험과 인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역사를 아는 것, 그리고 성품 변화를 추구한다면 온전케 될 기회가 있다.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복되는 이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정복되어야 온전케 되는 사역을 체험할 수 있다. 네가 정복되는 역할만 맡는다면 그리 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확장될 때 너의 몫을 바칠 수가 없다. 그것은 네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추구하지 않아 실제적인 생명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에서 너는 봉사자가 된 적이 있고 부각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베드로가 온전케 된 길을 따라 추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성품이 변화된 체험도 없을 것이다. 네가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간증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한 단계 한 단계 사역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지요. 그분의 형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임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바로 그분의 심판과 형벌로 보호를 받고 정결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저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저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공의로운 심판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누릴 가치가 있기에 사탄에게 파괴된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심판과 형벌도 있지만 크나큰 사랑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걸 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가는 길이자 말하는 인식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체험하면 반드시 심판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게 된다.

정복된 사람에게는 힘 있는 간증이 없다. 그저 사탄을 수치스럽게 했을 뿐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살아 내지 못한 것이다. 네가 속죄 제물을 얻기만 했을 뿐 두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온전케 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너무 큰 손실이다. 너희는 자신이 진입해야 할 것과 자신이 살아 내야 할 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에 가서도 온전케 되지 못한다면 너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후회막급일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성결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성결했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여호와께 충성하고 여호와를 배반할 줄 몰랐다. 사탄 권세의 방해받지 않았고 사탄의 독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성결한 인류였다.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살면서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육에 점유되지도 않았으며,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지만 나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독사의 독소가 생기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성결했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때의 그들이 바로 진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으며, 사탄에 의해 점점 파괴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최초의 인류에게는 여호와의 생기가 있었고, 패역이 조금도 없었으며, 마음속에 사악함이 없었다. 그때의 사람이 진정한 인류였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짐승이 되었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더러웠으며, 선함도 성결함도 사라졌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탄 아니겠느냐? 네가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도 변화되거나 정결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복되기만 했을 뿐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왜 온전케 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으며, 육적인 향락과 일시적인 안락만을 탐하여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걸어 다니는 송장이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영적인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결해지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진리를 살아 내고자 하지 않고, 소극적인 면에서 정복된 것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 살아가는 성결한 인류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없으며, 시련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진리는 간절히 바라고 찾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너희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얻어질 수도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얻게 된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었으니 나의 이 말대로 실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 말을 실천했다면 나는 이 말을 통해 너희를 얻은 것이고, 동시에 너희도 이 말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커다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정결함을 얻으면 진정한 사람에 속하게 된다. 네가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고 온전케 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송장이자 짐승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가 없기에, 즉 여호와의 생기가 없기에, 너는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이다! 정복된 후에도 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저 아주 작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일 뿐, 네가 영이 있는 산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형벌과 심판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너의 성품이 새로워지거나 변화된 것은 아니므로 너는 여전히 옛 사람이자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니, 정결케 된 사람은 아니다. 온전케 된 사람만이 가치가 있고,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얻은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행사를 보았고, 모세도 여호와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기묘함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말세 성육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기묘함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셨고, 당신들은 또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큰 이상(異象)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마주하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하나님은 실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벌하고 심판하시며, 가차 없이 우리를 폭로하셨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난 뒤 저는 우리가 짐승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는 또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또 어떤 면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 진입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피조물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짐승이 되었습니다. 나귀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창조주의 마음을 만족게 해 드려야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따를 겁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네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너 자신의 체험을 묻는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겪고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도 너 자신의 체험을 묻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말하지 못한다면 너는 현재의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네가 늘 그럴듯한 말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만 할 뿐, 세부적인 체험이 없고 실질적인 인식은 더더욱 없으며 진실한 간증도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불복할 것이다. 소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굴면 너 자신을 해치고 네 생명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면을 극복해 진리를 얻고 진리를 살아 내야 한다. 너의 연약함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너의 결점도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너의 이런 미지근한 마음과 진리를 구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결점이다. 또 너희 모두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 상태에 만족하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나약한 마음이다.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진리 추구를 막는 가장 큰 적이다. 내 말이 너무 심오하다는 이유만으로 순종한다면 너는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니다. 너의 그런

순종은 간증이 아니고 나는 너의 그런 순종을 칭찬하지 않는다. 누군가 너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내면적 본질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분의 본질은 형벌과 심판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나요? 당신은 모르십니까?”라고 물으면 너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참도를 왜곡하게 될 텐데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서 참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너는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진리를 살아 내지도 못한다.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네가 상대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면 상대가 네 말에 반박할 텐데, 그러면 너는 폐물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도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너는 무능한 인간 아니겠느냐? 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단 말이나? 네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진실한 인식이 있는지 물으면 말문이 막혀 묵묵부답이 되거나 사소한 얘기로 대충 얼버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는 둥, 네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높여 주심이라는 둥,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둥 말하는데, 이런 얘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모두 쓸데없는 헛소리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높여 줌이 진리라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나?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아야만 참된 간증을 할 수 있다. 진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역과 많은 말쑤이 네게서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고, 사역을 확장할 때 네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너는 부끄러움에 수치까지 당하게 된다. 그때 너는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우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얕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이 사역 기간에 알려고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추구하려고 해도 늦고 만다. 결국 머릿속에 든 것이 없고 아무런 인식도 말하지 못할 텐데,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볼 낮이 있겠느냐? 지금 열심히 추구하여 최종적으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사람에게 크게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더러운 땅에서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아귀다툼을 벌이고, 서로 짓밟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 사람은 패역이 너무 크고, 관념이 너무 많아 전부 사탄에 속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떠난다면 사람은 파괴 성품이 정결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에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영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가 한 사역은 영이 하는 대로 한 것이다. 오늘날, 이런 사역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너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너의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이고 너는 종교적인 기독교 신자다. 너는 죽은 규례를 붙잡고 지키는 바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너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 멸망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또 사탄의 웃음거리이자 사탄의 노획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앙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추구하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지금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저는 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 못하고,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주 증오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믿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어느 날 이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전부 보게 되면 그때는 후회하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있는 복도 누릴 줄 모르고, 있는 진리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 비록 아직은 다음 단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너에게 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과 무관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과 진리가 모두 네가 알 가치가 없는 것이냐? 형벌과 심판은 너의 영을 깨어나게 할 수 없느냐? 형벌과 심판이 너로 하여금 너 자신을 증오하게 할 수 없단 말이냐?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평안하고 즐겁고 육의 편안함을 조금 얻는 것에만 만족하느냐? 그런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 아니더냐? 구원을 보고도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미련한 사람이고,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이며, 사탄을 즐기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조금도 없기를 바란다. 너는 늘 이런 가치 없는 것들만 추구하고, 정작 생명은 한 톨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각을 진리보다 앞자리에 놓는다. 너는 너무도 무가치한 사람이다! 네가 돼지처럼 산다면 개돼지 따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는 모두 짐승 아니겠느냐? 영이 없는 죽은 자는 모두 걸어 다니는 송장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말했더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적더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했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얻지 못했느냐? 또 무슨 불평이 있단 말이냐? 네가 얻지 못한 것은 육을 너무 귀하게 여긴 탓이 아니더냐? 네 생각이 너무 사치스러운 탓이 아니더냐? 네가 너무

어리석은 탓이 아니더냐? 너는 이 복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은 뒤 평안만 얻고자 한다. 자식에게 병이 없고, 남편에게 좋은 직업이 있고,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고,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너의 우마가 밭갈이를 잘하고,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길 바란다. 네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너는 오직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너의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바람이 불어도 네 몸에는 불지 않고, 모래가 날려도 네 얼굴은 때리지 않으며, 홍수가 나도 네 집의 곡식은 잠기지 않고, 모든 재난이 너와 무관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너처럼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못난 놈에게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짐승 아니겠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참도를 네게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추구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진정한 인생을 베풀어 주었는데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개돼지 따위가 아니겠느냐? 돼지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고 깨끗함을 바라지도 않으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날마다 배불리 먹고 쿨쿨 잠만 잔다. 참도를 베풀어 주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 돼지 같은 삶을 계속하고 싶느냐? 그런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비루하고 저속하며, 더럽고 음란하게 살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으니 너의 일생은 가장 비천한 일생 아니겠느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겠느냐? 계속 그렇게 체험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게 참도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므로 끝까지 따르기만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데, 끝까지 따른 사람을 어떻게 뿌리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운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나의 요구에는 다 적합한 기준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사람은 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는 네가 얼마나 대단한 경력이나 관록을 갖고 있는지 보지 않고, 오직 네가 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인지,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지만 본다. 너에게 진리가 없고 오히려 내 이름을 모욕하며 나의 도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악을 이유로 너를 치고 징벌할 것이다. 그때 네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한 말을 다 지킨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칭찬할 것이다. 너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고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환난을 함께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내지는 못했다. 너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또 너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헌신했는데,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꼭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공의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사람의 뜻이 전혀 없으며, 육적인 것도, 사람처럼 거래하는 것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징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제게 축복을 조금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지켰느냐?” 내가 말한 공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너는 내가 공의로우니 그 누구도 차별할 리가 없으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나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완전히 얻어지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정복된 후 진리를 구해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너는 몇 가지를 해냈느냐? 끝까지 따랐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떠냐? 너는 내 말을 준행했느냐? 너는 내가 내놓은 다섯 가지 요구 가운데 하나만 충족했을 뿐, 그 외의 네 가지는 충족시킬 생각도 하지 않는다. 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을 찾아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추구한다. 나의 공의로운 성품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그저 형벌이자 심판이고 공의로운 응징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공의로운 징벌이다. 나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끝까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반드시 징벌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 사람을 징벌할 때가 되면 사람은 매우 당혹해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를 때 그의 도를 행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동안 고난만 조금 받았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는 않았으니 할 말이 없어. 그냥 형벌을 받자!’라고 할 것이다. 또 마음속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아무튼 나는 끝까지 따랐으니 형벌을 받더라도 너무 무거운 형벌은 받지 않겠지. 형벌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 나를 계속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거야. 어쨌든 난 멸망당할 사람들과는 다르거든. 멸망당할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겠지만 나는 좀 가벼운 형벌을 받을 거야.’ 공의 성품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죄를 순순히 인정한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공의란 바로 거룩함이자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이다. 더러운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상이다. 공의로운 성품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 법령, 하나님나라의 행정 법령이다. 이런 행정 법령은 진리와 변화가 없는 모든 자에게 있어 공의로운 징벌이며,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는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 상선벌악(賞善罰惡)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인류의 종착지가 드러나는 때이자 구원

사역이 끝나는 때이므로 그 후로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한 모든 사람을 응징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온전케 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늘 접촉하는 우리보다 많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중 아무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케 될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공의란 말이나? 네가 정말 진리를 실행했느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정복된 후에도 바로 쓰임 받지는 못한다. 사람을 사용할 때에도, 네가 지금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너는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도태될지 아니면 쓰임 받을지가 정해진다. 정복된 것은 그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의 본보기나 모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부각물에 불과하다. 생명 성품이 변화되어 안팎으로 다 바뀌어야 진정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지금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나? 너는 어느 것에 이르기를 바라느냐? 너는 지금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었느냐?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냐? 너는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겠느냐?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완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한다면 너는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너는 형벌과 심판으로 정결케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나? 네가 정결케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형벌과 심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너에게 하는 사역은 대부분이 형벌과 심판인데, 너는 너에게 하는 이런 사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네가 체험한 형벌과 심판은 너를 정결케 하였느냐? 너를 변화시켰느냐? 네게서 성과를 거두었느냐? 오늘날, 이 많은 사역,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 폭로를 너는 귀찮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너에게 아주 이롭다고 여기느냐? 너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나, 아니면 평안과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이나? 그것도 아니면 형벌과 심판으로 정결케 된 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온전케 됨에 있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느냐? 온전케 된 후에 보인 그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냐, 그를 보지 못해서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환난의 고통을 받은 뒤에 자신의 더러움과 패역, 그리고 주의 거룩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더 순결해진 것은 형벌과 심판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너는 은혜 때문에, 지금의 작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참된 사랑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느냐? 마땅히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보고 난 뒤, 참된 사랑이 생기고, 더 나아가 완전히 탄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베드로처럼 “당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기만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형벌과 심판을 통해 정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정결케 되고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냐? 네가 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너의 일생은 의미 있는 일생이냐, 아니면 가치도, 의미도 없는 일생이냐? 너는 육을 원하느냐, 진리를 원하느냐? 너는 심판을 원하느냐, 편안함을 원하느냐? 너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 어떻게 추구해야겠느냐? 이 길을 대체 어떻게 가야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형벌과 심판이 네게서 결실을 보았느냐? 네게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다!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괴된 옛 성품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더욱이 양심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겠느냐?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이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관념을 고집하고, 네 사역과 진입, 하는 말, 그리고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 이런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받은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그저 인식만 있고 그것을 살아 내지는 못한 사람이겠느냐?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참된 인생을 살라는 것의 조건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기도가 입으로만 한 것이었더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냐? 베드로는 기도할 줄만 알고 진리를 행하지는 않은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추구하느냐? 형벌과 심판 속에서 보호받고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형벌과 심판은 다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더냐? 심판이라 하면 모두 징벌하는 것이더냐? 설마 평안, 즐거움, 물질적인 축복, 일시적인 안락만이 사람의 생명에 이롭단 말이냐? 사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뿐 심판받는 삶이 없다면 정결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변화되고 정결케 되려면 온전케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 너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느냐?

흐리멍덩하게 따르지 말고 사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믿고 있다. 너희는 호기심이 아주 많고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아주 크지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은 너무 작다. 지금 사람들은 열정에 넘쳐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가 와서 그들을 하늘 집으로 데리고 갈 텐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믿어 왔다. 40~50년 동안 믿으면서 줄곧 성경을 읽었음에도 실증을 내지 않았다. 어쨌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에 들어선 지 고작 몇 년밖에 되지 않았으면서 벌써 인내심이 바닥났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지배되어 참도에 들어선 것이다. 너희는 이 단계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오늘날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관념에 반박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내가 폭로한 이런 관념들은 너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다. 성경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너희는 많은 관념이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많은 견해가 있지만 그저 속으로 억누른 채 대세를 따라가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데도 자신에게 관념이 적다고 생각하느냐? 다만 너희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사실 너희는 대충 따르기만 한다. 참도를 구하려고 온 것도,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며, 그저 어떻게 될지 보려고 하는 마음뿐이다. 수많은 낡은 관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운명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밤낮으로 고민하며 내려놓지 않고 있다. 너는 내가 말한 바리새인이 종교계의 원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가장 앞선 바리새인의 대표가 아니더냐? 내가 말한, 성경으로 나를 가늠하는 자들이 그저 종교계의 성경 전문가들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 역할을 맡은 가장 뛰어난 배우들 아니더냐? 너는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는 나의 말이 모두 종교계의 목사를 풍자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모두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의 관념이 적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는 다 무척 영리해져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은 말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는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가장 좋은 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영리하게 배웠구나.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교활한 심리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 일시적인 잔꾀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아주 ‘지혜롭게’ 배웠구나! 또 어떤 이는 내게 이렇게 묻는다. “어느 날 종교계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적을 전혀 행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지금 종교계 사람들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념이 너무 많은 것이다. 내가 말한 종교 관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성경을 해석해 주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세 단계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복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쉽게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넓은 관념들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특히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복종한 적 없는 ‘대장부’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인성이 저열하고 자질이 너무 부족하며 머리도 아둔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관념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천성적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순종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철창에 갇힌 호랑이처럼 자기 능력을 보여 줄 수 없고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호남’의 기개를 품고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무너져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사역이 너희를 쓰러뜨린 것이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해 볼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순종했을 리 없다. 과거에 너희는 모두 들판의 야생 나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는 말은 그저 각 교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념을 일축하는 것도 아니며, 너희의 관념을 일축하는 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또 한 번 사람의 큰 의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더 큰 권병이 없겠느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져 보좌 앞으로 들림 받았는데 그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느냐? 그것은 너무 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간증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한 번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영원히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이 단계 사역이 앞 단계 사역보다 높아야만 시대가 발전한 것이고 말세에 이른 것이며, 또 시대를 끝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이상(異象)을 분명히 알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이 토대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듣기 싫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누가 “당신은 왜 안 듣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는 “이건 제 생명과 제가 실제에 진입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실행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실행 방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사역에 대해 얘기하면 그는

“당신이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니 저는 잠이나 자야겠습니다”라고 한다. 내가 실행 방법에 대해 말하면 받아 적기 시작하지만 사역에 대해 말하면 또 듣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한 가지는 사역의 이상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실행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생명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상이 없다면 너에게는 토대가 없는 것이다. 실행 방법만 있을 뿐, 이상이 전혀 없고 전체 경륜에 관한 사역을 조금도 모른다면 너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자다. 이상에 관한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실행에 관한 진리는 이상을 알고 난 뒤에 적당한 실행 방법을 찾고,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네 상태에 비추어 진입해야 한다. 이상은 토대다. 이를 가볍게 여기면 너는 끝까지 따를 수 없고, 아무리 체험해도 그 체험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넘어지고 실패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큰 이상이 토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실패만 있을 뿐 성공이 없으며, 굳게 설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에게 이상이 없다면 네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에서 네가 이상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믿는 이는 누구냐? 너는 어째서 그를 믿느냐? 너는 어째서 그를 따르느냐? 그저 장난으로 믿는 것이냐? 네 목숨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것이냐? 오늘날의 하나님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인데, 너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깨달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탄탄해졌느냐?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이 흐려진 것을 기회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쉽겠느냐? 너는 오늘날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 네 관념을 얼마나 내려놓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갖추었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항상 따르면 바로 얻을 수 있고, 보면 곧 얻을 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떼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쉬우리라 생각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그를 알고 그의 사역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고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게 온전케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상이다. 항상 은혜를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누리게 하고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목숨을 버리고 따를 수 없다면,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없다면, 결단코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 이상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만약 어느 날 네가 화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따를 수 있겠느냐? 끝까지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쉽게 말하지 말고 우선 지금이 어떤 때인지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너희가 지금은 모두 성전의 기둥인 것 같아도 그때가 되면 너희, 이 많은 기둥은 벌레에 갉아먹힐 것이며, 결국에는

성전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는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너희 자신의 좁은 세상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적합한지 모른다. 너희는 오늘날 사역의 이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마음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낮은 곳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전부를 빼앗아 가는 날, 너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열의가 그때까지 유지되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또다시 나타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다고 해서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운동을 펼치려고 인간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너희 중에는 오늘날의 사역이 하늘의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하는 사역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늘날의 사역은 너희를 출중한 인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인생의 의의와 인류의 종착지에 대해 알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자신이 창조주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네가 깨달아야 할 진리 아니겠느냐? 네가 알아야 할 이상 아니겠느냐?

사람에게 이상이 있으면 토대가 생기고, 토대 위에서 실행하면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진입에 토대가 생기면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너희는 이러한 측면의 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의 진리를 갖추지 않고 실행 방법만 안다면 많이 부족하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며 이 부분의 진리를 글귀 듣듯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 수 없는 말씀이 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조금씩 갖추어라. 영적인 도리라도 조금 깨달을 수 있다면 소홀히 여기는 것보다는 낫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낫다. 이는 너의 진입에 도움이 되고 너의 의심을 없앨 수 있으므로 관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네가 이런 이상을 토대로 삼으면 훨씬 좋아지고 근심이 모두 사라져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는데, 항상 의심하면서 흐리멍덩하게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아니겠느냐? 당당하게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굳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와 사역과 예수의 사역, 그리고 이번 단계 사역에 대해 모두 알게 되면 토대가 생긴다. 너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상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때 가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저는 무슨

말씀이든 다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금 네가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는 지금 네가 갖춘 것이 많아서 종교계 인사와 최고 이론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말을 반박해 굴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럴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얄팍한 체험으로 어떤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진리를 갖추고 진리를 위해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만 하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너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핵심은 네가 이 단계 사역을 과연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적대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종교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음에도 결국 증거할 수 없다면 네가 낮을 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면목이 서겠느냐?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행하게 될 사역은 네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다. 지금은 갖추어야 한다. 지금 진리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성령도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지 않을 때 너는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너는 마지막 구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너희는 마지막 구간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구간의 길은 매우 중요한 길이다. 너는 예전에 적잖이 고난받고, 많은 사역을 하고,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다. 가까스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눈앞의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예전처럼 행동한다면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는 너에게 엄포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체험하면서 식견이 다소 넓어졌고, 분별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섬김의 원칙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예수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가 크나큰 연단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많다고 느꼈으며, 사람이 심히 패괴되었음을 알게 되어 양심에 참소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했으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아는 것이 일천하여 예수를 대적하고 거역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그나마 조금 깨닫게 되면서 크게 가책을 받았다. 나중에는 마음속에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 떠올라도 못 견디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고 또 주님의 거룩함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고, 자신의 생명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뎠다. 가끔 죽을 것처럼 큰 병을 앓기도 했지만 그렇게 몇 차례의 연단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일생을 연단과 형벌 속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체험을 했고, 그의 사랑은 온전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보다 컸다. 그를 본보기로 세운 이유는 그가 평생 동안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의 체험이 가장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지막 구간의 길을 정말 베드로처럼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의 복을 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베드로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인성을 가졌음에도 처음 예수를 따를 때에는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따르는 동안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책망을 받지도 않았다. 예수는 베드로의 그런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 베드로나 다른 사람에게 시시콜콜 따지는 법이 없었다. 어쩌면 너는 예수님이 아무렴 그들의 생각을 몰랐겠냐고 할 수 있다. 분명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는 인류를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겼다. 지금 너희 중에도 다수가 바울처럼 대적하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자신의 제3의 감각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너의 감각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형편없는 정도로 망가졌다. 너는 네 감각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예수를 수차례 대적하였으나 예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가 바울 몸 속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서 그랬겠느냐? 예수는 왜 자신이 부활 승천한 후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대거 잡아들일 때에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쳤을까? 예수의 반응이 더디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럴 권병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냐? 너는 네가 뒤에서 몰래 사역을 허물고 나를 대적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나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어렸을’ 때 예수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도 가책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고도 가책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고 일러 주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 사람의 패역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도 너의 양심은 깨어날 기미조차

없다. 이래서야 어떻게 마지막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너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정복되면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고,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그럼 마지막 구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 환난을 겪는 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고난받을 의지가 있어야 이 구간의 길을 잘 갈 수 있다. 이 구간의 길이 가기 쉬워 보이느냐? 너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자질을 향상하며, 진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 사역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은 네가 가진 믿음과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어쩌면 너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비관하고 낙담하거나, 앞길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과거의 대단한 용사들도 쓰러졌으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너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느냐? 도대체 너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 오늘날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 네가 마지막 구간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지금 너희가 마지막 구간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는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모두 깨달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과 너희에게 맡겨 준 일들에 대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날 가는 길은 내가 인도하는 마지막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는 것 하나뿐이다. 즉, 언제든 행할 길이 있고, 변함없이 자질을 향상하며,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끌어 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다음은 베드로가 경험한 과정이다. 예수가 그를 이끌어 줄 때, 그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항상 아이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예수가 떠난 후에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가 떠나고 난 후에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역시 정상 인성에 맞는 이성과 정상인이 가져야 할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진정한 체험과 추구는 예수가 떠난 후에야 새로이 시작되었다. 그럼 지금 너희는 어떠하냐? 오늘날 이렇게 인도를 받고, 환경과 시련이 임하지 않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너의 분량이 어떤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네가 도대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네가 자신의 본질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빈말이다. 사실이 임해야 너의 인식을 증명할 수 있다. 네가 지금은 깨달음을 얻어 “저는 육적으로 몹시 패괴되었고, 인간의 육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것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환난, 시련, 고통이 닥치면 이를 겪어 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매일 이렇게 따르면서도 겪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기라도
 한다면 더 말이 아닐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소금 기둥이 되고 치욕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는 모두 가능한 일이다. 너는 이 때문에 몹시 애타지 않느냐? 베드로는 그런
 환경과 고통을 겪고도 굳건히 섰다. 하지만 네가 그 환경에 처한다면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
 예수가 땅에 있을 때 했던 말씀과 사역이 베드로에게는 초석이 되었으며, 베드로는 이를
 기반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걸은 길과
 현재 깨달은 진리가 네가 앞으로 굳건히 서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앞으로 굳게
 서기 위한 이상(異象)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겠다. 지금 사람이
 깨달은 것은 모두 도리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알고 있는 전부가 체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새 빛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분량이 그만한 정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말로 너를 오늘날까지
 인도한 것이다. 너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의 지혜를
 따라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즉시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실제 분량이 아니냐? 너희는 어디서부터
 진입해야 할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굳세고 힘 있게 증거할 수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를 해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너희는 모두
 게으르고 미련하다! 너희는 기댔 줄밖에 모른다. 새로운 빛에 기대고, 앞에서 이끌어 주는
 자에게 기댄다. 네가 지금까지 버티며 올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새로운 빛과 최신 음성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참도를 추구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여호와가 어떤
 시련을 주든 아니면 축복을 내리든, 오직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배하며 그를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던 욥과도 다르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정복된
 것이냐? 심판, 형벌, 저주뿐만 아니라 비밀에 의해 정복되었다. 너희는 모두 나귀와 같아서
 깊이 있게 말하지 못하고 심오한 비밀까지 없으면 정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사람이
 설교하고, 일정 기간 같은 범주의 내용으로 설교했다면 너희는 2년도 되기 전에 전부
 흠여졌을 것이고, 따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깊이 진입해야 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도를 추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만 신경
 쓴다. 비밀이나 이상에 관한 것, 또는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베드로의

체험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의 상황 등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점점 더 신이 나서 듣는다. 너희는 이런 이야기들로 무료함을 달래려고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새롭고 신기한 것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해 왔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너희의 볼품없는 분량이 아니냐?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삶이 존재하기나 하느냐? 너희에게 온전케 될 만한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말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냐? 너희는 아직도 이런 말과 사역을 거들떠보지 않고, 따르면서도 기웃거린다. 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항상 끌려 다니기만 한다. 너희 모두 이렇게 걸어왔으며, 이는 순전히 형벌, 연단, 채찍질이 너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온 것이다. 생명 진입의 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너희가 일찌감치 줄행랑을 놓지 않았겠느냐? 너희 모두 하나같이 속물이고, 솔직히, 속에는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비밀에 눈을 뜨고, 다른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마지못해 오늘날까지 따라온 것이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에 뻔뻔하게 대세를 따랐으나 이는 말씀으로 얻은 성과일 뿐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가운데 누가 복종했겠느냐? 누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너희는 일찌감치 떠나고자 했으나 감히 떠나지 못했고, 떠날 용기도 없었다. 너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탄마음을 품은 채 따르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야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깨달은 후에야 진리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미약하기 그지없고, 고난을 감내할 의지가 부족하며, 식견과 이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에게 예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과 사람의 뜻에 해당하는 불순물이 많음을 깨달았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모든 측면에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가 이끌어 주던 시절에도 그의 상태를 짚어 주면,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그 시기 후였다. 당시에 베드로는 실제로 체험한 것이 없어 자신의 분량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씀으로만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할 뿐, 단기간에 너희를 온전케 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사역은 너를 정복하여 마음으로 승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정복이 끝난 다음에야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깨달은 이상(異象)과 진리는 앞으로의 체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의 환난 속에서 이 같은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시련이 임하거나 환난을 겪게 되면 지금 네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나 큰 재앙에 직면하든 저는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욥의 체험을 생각해 보면 너는 오늘의 이 말에 고무될 것이다. 그래야만 너의 믿음을 더 불태울 수 있다. 당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때가 되면 너 역시 모든 이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기를 바라고,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자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형벌, 저주를 위안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 너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굳게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제대로 겪어 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되면 너는 도태되고 징벌받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 실제적인 일들이 닥친 것도 없다. 게다가 나는 너의 부족한 부분에 따라 일일이 공급해 주고 여러 면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다지 고난받은 것도 없으며, 그야말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격이다. 직접 대가를 치른 것도 없고, 자신의 진정한 체험이나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너희의 실제 분량이 아니다. 너희는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큰 수확을 얻지는 못했다. 너희들을 상관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겪어 나가게 내버려 두었다면 너희는 진작에 넓은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앞으로 가게 될 길은 고난의 여정이다. 만약 이 구간의 길을 잘 간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을 겪을 때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바른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처분을 내리든 그의 지배를 따르고, 불평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지 않으니 모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모두 좋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든, 저주하시든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의 분량도 그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금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네가 끝까지 따를 수 있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 큰 환난이 임할 때나, 박해나 핍박, 더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베드로는 어떠했느냐? 그는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언제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시련이 임하자 눈물만 줄줄 흘렸을 뿐 말대로 하지 못했다. 너희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시련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이런 것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늘은 매우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이 잘 맞기 때문이다. 내일 가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 너의 나약함과 무능함은 물론 비열함과 옹졸함도 드러날 것이며, 너의 ‘대장부 기개’는 일찌감치 사라져 없을 것이다. 심지어 책임을 내팽개치고 손을 떼기도 할 것이다. 이는 네가 당시에 인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실제 분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실제 분량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지배를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면 온 힘을 다해 해낼 수 있는지, 목숨을 걸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너는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지금 한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적어도 욕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는 앞으로 닥칠 시련은 욕이 겪은 시련보다 더 크고, 게다가 장시간의 형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겠느냐? 너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고, 깨닫는 능력이 형편없고,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 그때에 이르러 증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웃음거리나 노리개가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상을 지킬 수 없다면 근간이 통째로 무너져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단계의 길이든 모두 가기가 쉽지 않다. 이 일을 가볍게 보지 말라. 마지막 구간의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하여라. 이는 앞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고, 모든 이가 가야 할 길이다. 지금의 이런 깨달음을 허투루 흘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쓸데없는 말로 치부하지 말라. 언젠가는 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쓸모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리를 갓출 때이며, 앞날을 위해 길을 닦아야 할 때이다.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비하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굳건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해 애태워야 한다. 식충이처럼 살지 말고 앞날의 길을 위해 잘 예비해야 한다! 최대한 모든 시간을 아껴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주어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직접 보았다.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생각한 방법대로 반드시 사람들이 다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증거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해야 하겠느냐? 내가 백발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하여 사람의 내면에 참된 깨달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사역의 절차이다. 오늘 교제하고 있는 이상을 온전히 깨닫고 진실한 분량을 갖추면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든 어려움을 이겨 내고 굳건히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다 한 후에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예전에 “성령은 모든 이에게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고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에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환난을 겪는 와중에 누가 누구를 보살필 수 있겠느냐? 모두 자기만의 고통이 있을 것이며, 사람마다 분량이 달라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남편이 아내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부모도 자녀를 챙겨 주지 못하며, 지금처럼 서로 챙겨 주고 붙들어 주는 것과 달리 누가 누구를 챙겨 줄 형편이 못 될 것이다. 그때는 각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즉,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리되면 너희는 참된 리더가 없으니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단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겠느냐?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팔고, 아내는 남편을 팔며, 자식은 부모를 팔고, 부모는 자식을 핍박할 것이므로,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 마지막 구간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너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단계의 사역을 잘 체험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난의 시간은 1년 이내여야지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 된다. 1년 동안 지속되면 다음 단계의 사역을 그르치게 되고, 사람의 분량으로는 또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의 분량은 제한적이기에 환난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나의 일을 끝내고 나면 그다음은 사람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한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자 고난의 여정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너의 의지를 단련시키는 길이다. 너는 자신이 어떤 진리에 진입해야 하는지, 어떤 진리를 갖춰야 하는지, 어떻게 체험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진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갖춰야지 환난이 임한 후 준비를 하면 그때는 늦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이 일깨워 주기를 기다리거나 날마다 꺾가에 대고 말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 자신이 어떤 진리에 진입해야 하고 어떤 진리를 갖춰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쓰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진입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면 네가 못 쓰게 된 물건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무슨 쓸모가 있다는 말이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 역시 자신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자신의 길을 닦는 것이다. 너는 사람이 도달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알아야 한다. 반드시 ‘나는 비록 심히 패괴되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을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셨고, 내가 이를 깨달은 이상 서둘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해. 정상 인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해 드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정상 인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해 드려야 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구간의 길, 즉 지금부터 앞으로 환난이 끝날 때까지의 길은 사람의 참된 분량을 드러내는 시기이자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시기이다. 이 구간의 길이 예전에 이끈 그 어떤 길보다 힘들고 험난하기에 ‘마지막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환난을 겪은 후에는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쓰임 받는 사역을 체험하게 되는 이들도 있으므로 사실은 마지막 구간의 길이 아니다. 따라서 ‘마지막 구간의 길’은 단지 사람을 연단하는 환난과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 하는 말일 뿐이다. 예전에는 행복한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친히 이끌어 주면서 차근차근 가르치고, 직접 먹여 주었다. 형벌과 심판을 여러 번 겪었으나 너에게는 매번 작디작은 매질이었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너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 네 성품도 많이 안정되었으며, 나를 다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사람이 이 구간의 길을 가며 치른 대가나 쏟은 정성은 극히 미미하고, 내가 너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다고 말한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너에게 높은 차원으로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네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왔고, 너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너희는 형벌을 누차 겪고도 내가 기존에 요구한 것을 해내지 못했고, 뒤로 물러나거나 낙담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친히 사역하는 기간이고, 너의 ‘헌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게 될 길에서 나는 더 이상 사역하지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너희가 무료하게 보내지 않게 할 것이고, 공과를 충분히 배울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너의 실제 분량이 다 드러날 것이다. 너희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맺지 못할지는 마지막 구간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다.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식은 죽 먹기라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지하게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떠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린아이가 큰길에서 노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양인 것은 확실하나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 자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얻어야 한다. 스스로를 속이거나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네가 이 구간의 길을 잘 넘기면 나의 복음이 온 우주로 확장되는 공전의 성황을 보게 될 것이며, 너도 나의

지기(知己)가 되는 행운을 누리고, 전 우주로 확장되는 나의 사역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계속 네가 가야 할 길을 즐겁게 갈 것이다.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지금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 구간의 길을 올바르게 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마지막 구간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찾고 구하며, 예비해야 한다. 지금 너에게는 이것이 급선무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3

(1993년 7월~1994년 3월)

너는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는 시대적 의미가 있는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이 각 시대에 나타낸 성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가련하고 가난하고 경건한 그 종교 신자들에게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알려 줄 것이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인물’일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짊어진 중책과 너에게 맡겨진 사명, 너의 책임을 너는 모두 알고 있느냐? 너의 역사적 사명감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냐? 너는 주인 의식이 강렬하냐? 만물의 주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생물과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겠느냐? 너는 다음 단계 사역의 진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목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의 임무가 무척 무겁지 않느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흑암 속에 떨어져 흐느끼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밝은 빛이 문득 유성처럼 내려와 오랫동안 인간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길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 간절히 기대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심한 고난에 빠진 그 사람들은 빛이 가로지르는 날에도 여전히 흑암의 감옥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더 이상 애곡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안식을 취한 적이 없는 그 연약한 영들은 그렇게 참혹한 불행을 겪고 있다. 비정한 밧줄과 굳어 버린 역사(歷史)가 일찍이 그들을 그 속에 가둔 것이다. 그 흐느낌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 근심하는 모습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손수 지은 무고한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어쨌든 인류는 해를 입은 불행한 자들이다. 비록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기는 했지만 일찍이 악한 자에게 해를 입었음을 누가 알겠느냐? 설마 너는 자신이 그 피해자 중의 하나임을 잊은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생존자들을 모두 힘써 구원해 오고 싶지 않느냐? 네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사람을 자신의 골육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평범하지 않은 일생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의미 있는 일생을 살 의지와 믿음이 있느냐?

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바른길과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근본 취지를 꿰뚫어 본다면,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마음에 담아 두며 보배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개돼지보다 못한 자신의 아비 어미를 보살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과 앞날은 소위 현대판 베드로의 ‘아비 어미’가 아니겠느냐? 사람은 그들과 골육처럼 가깝다. 육의 종착지, 육의 장래라는 것이 과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느냐? 육의 내일이 환난과 같은 커다란 풀무 불 속에 있겠느냐, 아니면 불사름 속에 있겠느냐? 사람의 육체가 화를 당할지 고통을 받을지에 관한 이런 문제들(여기서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복을 얻는다는 뜻이고, 고통은 장래의 시련이 사람의 종착지에 이롭다는 의미다. 화는 굳게 설 수 없거나 미혹되거나 재난 속에서 ‘불행히 어려움을 만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영혼이 적합한 종착지가 없음을 의미한다.)이 바로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고할 수 있고 이성을 지닌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느냐? 사람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기는 했지만 늘 이성에 걸맞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모두 멍하며, 맹목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진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아야 하고, 환난 속(풀무 불의 연단 속을 의미한다)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과 불의 시련 속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갈피를 잡아야 한다. 개돼지와 같고 개미나 빈대보다도 못한 아비 어미(육을 가리킨다)를 계속 섬기지 마라. 어째서 굳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온갖 궁리를 다하며 애써 머리를 짜내는 것이냐? 육은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제하고 사탄을 장악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다(원래는 사탄에게 속하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너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육체는 너에게 속한 것이더냐? 육체가 너에게 지배당하고 있더냐? 굳이 육을 위해 모든 마음을 쏟아부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정죄받고,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도록 썩어 버린 너의 육을 위해 애타게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탄의 패거리를 늘 가슴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육 때문에 너의 진정한 앞날과 아름다운 소망, 인생의 진정한 종착지를 망치게 될까 봐 걱정되지 않느냐?

오늘날 가야 하는 길은 힘든 길이다. 그 길은 또한 얻기 힘든 길이며 천고를 통틀어 흔하게 찾아오는 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보았겠느냐? 오늘날의 사역이 봄비처럼 귀하고 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중하지만, 사람이 오늘날 그가 행하는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고 인류의 본질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귀하고 중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육은 본래 인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육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사람은 아무도 꿰뚫어 보지 못한다. 하지만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조주는 창조된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람을 창조할 때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며, 사람에게 붙어넣었던 숨결을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사람의 뼈와 살까지도 거두어 그것을 창조한 ‘주’께 돌려줄 것이다. 또한 인류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꾸는 한편, 본래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유업을 모두 거두어들여 다시는 인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인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임은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인류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의 종착지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처럼 육을 형벌한 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파멸된 육체의 시신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속한 원래 성분이기 때문에 그는 인류를 멸절시키거나 사람의 육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는 않는다. 사람의 육은 사람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부속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찌 사람의 육을 멸절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겠느냐? 지금 너는 진정으로 동전 한 닢의 가치도 안 되는 네 육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냐? 네가 말세 사역에 대해 ‘30%’(여기에서 30%란 오늘날 성령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말세에 하나님이 한 말씀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만 꿰뚫어 보아도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파괴된 너의 그 육을 ‘보살피고’ ‘효성스럽게 공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한 것은 이미 전례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의 고퍡이가 핀 육은 이미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발전시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병어리 같은 말세의 시계가 다시 소리 나게 하고 계속 시침을 따라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자욱한 안개 같은 세상을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네 육이 다시 강산을 뒤흔들 수 있겠느냐? 네 육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기능’을 통해 과연 네가 원래부터 동경하던 인류 세계로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너의 후손이 모두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겠느냐? 이제 알았느냐? 너의 육은 도대체 무엇에 속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는 본뜻은 너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려는 것도, 사람의 육에 안식을 가져다주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또 사람이 미래에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인류가 일찍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의 육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경영의 밑천이지만, 사람의 육은 그저 부속물(‘사람’은 모두 영과 형체가 있지만 육은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즉, 육은 본래 경륜 중의 도구에 불과하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만들고 얻기 위해 사람의 육에 칼을 휘두르고 매질을 하고 끝없는 고난과 불사름, 무자비한 심판, 형벌, 저주, 끝없는 시련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의 내막과 실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육을 대상으로 하며, 적대하는 창끝은 모두 무자비하게 사람의 ‘육’을 향한다(사람은 본래 무고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과 증거를 위함이고, 그의 경영을 위함이다. 그의 사역은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창조한 그의 원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체험한 것 중 90%는 아마 고난과 불의 시련일 것이고, 사람의 육이 바라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나날은 아주 적거나 심지어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육이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행복한 순간은 더더욱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육은 본래 더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이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은 모두 사람의 뜻과 맞지 않는, 마치 정상적인 이성이 없는 듯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맞지 않고’,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원수를 증오하는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고, 6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사탄과 싸우는 사역, 즉 전 인류를 구원(원문: 救贖)하고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끝마칠 것이다!

사람의 본질과 신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일찍이 6천 년 동안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밝히 보았다. 내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악한 자가 보내온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먹었기에 그 죄로 인해 나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 선은 본래 나에게 속한다. 반면 악은 죄로 인해 나를 기만하게 된 악한 자에게 속한다. 나는 인류를 탓하지 않았고, 무정하게 인류를 파멸시키거나 형벌 속으로 밀어 넣지도 않았다. 악은 본래 인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메시아와 여호와를 기다리고 구주 예수를 갈망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어쨌든 피를 내가 인류와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피의 언약’이 되어 젊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었으며, 낙인이나 하늘과 땅처럼 오랫동안

존재했다. 나는 내가 예정하고 택한 후 구속하여 얻은, 악한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슬픈 영혼을 기만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와서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과 맺은 피의 언약을 지워 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는 오래전에 뿔뿔이 흩어진 나의 어린양들을 되찾을 것이다. 사람의 선함에 악한 요소가 조금 더해졌을 뿐, 나는 본래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일찍이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는 불쌍한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원수 같은 악한 자까지 내 집에 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인류와 피의 언약을 맺긴 했지만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경멸하는 마귀와 독사의 후손까지 나의 나라에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행하는 사역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너의 사랑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너는 다윗이나 모세처럼 나에 대해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네가 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누구와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사는 동안 내 사역을 체험하여 풍성한 성과를 얻었느냐? 곳간이 알곡으로 가득 차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느냐? 너는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너의 오랜 시련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는 뭔가 얻은 것이 있느냐?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과를 거두었느냐? 네가 고난의 체험으로 얻은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와 같은 것이더냐, 아니면 치심을 받고 크나큰 ‘빛 비춤’을 입은 바울과 같은 것이더냐? 너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겨자씨나 모래알처럼 작디작은 네 목숨에 대해 설 새 없이 타령을 하거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다. 솔직히 말해, 내가 경영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내가 한때 혐오했다 다시 선택한 사람의 생명을 내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너는 너희의 예전 신분이 무엇이었는데도 확실히 알아야 하고, 너희가 원래 누구의 노예였는지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나는 사람을 경영함에 있어 사탄 같은 사람의 얼굴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태도와 당시 너희를 부르던, 현실적 의미가 담긴 호칭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너희에게 ‘꼬리표’를 붙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일찍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 집의 충실한 종이 되었으며,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오래전에 나의 집을 떠나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하는 사람은 일찍이 내가 예정하고 구속한 인류다. 그러나 너희는 원래 내가 선례를 깨고 인류 가운데에 둔 가련한 영혼이다. 너희는 자신이 다윗의 집이나 야곱의 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족속, 이방 족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하며 너희를 인도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나의 증거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사역할 뿐,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예전에는 이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냐? 나의 사역이 정말 예수처럼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려 죽는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큰 치욕을 견디는 것은 처음부터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혐오스럽고 역겹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닌 개돼지가 사는 곳에 개의치 않고 왔지만, 사실 내가 이 모든 잔인한 치욕을 참아 온 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한 증거를 위해서였다.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알아야 한다. 또한, 너희가 ‘부유한 명문가의 자제’나 인류의 창조자가 아니라 가난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자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인권과 자유가 없으며, 인류의 복과 천국의 복은 처음부터 너희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너희는 인류의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나 또한 너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 믿음을 갖고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본디 내 계획의 일부였을지라도 이는 미증유의 사역이다. 너희는 지위가 비천하기 짝이 없고, 본래 인류의 몫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 아니겠느냐?

내가 구원하는 사람은 원래 내가 일찍이 제도(濟度)한 영혼과 내가 찾아간 적이 있는 선민이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가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 왔으며,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내 ‘피’로 맺은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겼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어린양처럼 오랫동안 나를 찾았다. 그들은 본래 선량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 사랑스러운 어린 천사라고 부른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 같은 굴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나도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본디 내가 만든 자들이고, 내게 속한 자들이므로 나를 잊은 적이 없다. 그들은 너희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희가 스스로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는다. 그들은 비둘기가 하늘에 순종하듯 나에게 순종하며, 나에게 대한 그들의 순종심은 너희를 능가한다. 그들은 본래 야곱의 자손이고, 아담의 후예이며, 나에게 속한 선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오래전부터 그들을 사랑해 왔고, 너희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패역이 너무 많고, 나를 심하게 대적하며, 나를 몹시 얕잡아 본다. 너희는 나를 냉대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작으며, 나에게 대한 미움은 너무나 크다. 너희는 내 사역을 지극히 하찮게 여기고, 내 행사를 더없이 업신여긴다. 그들과 달리 너희는 나의 행사를 사탄처럼 벌건 눈으로 업신여길 뿐, 보물을 보듯 대한 적이 없다. 너희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사랑의 요소는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쯤 나의 사역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냐? 나를 애타게 바라고,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이 너무도 불쌍하구나. 이는 내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비인간적인 세상이다. 너희는 너희의 양심이 오래전에 마비되어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이 나와 사랑스러운 천사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은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더냐? 언제나 나와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더냐? 언제나 나와 함께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며 만찬을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더냐? 오늘날 너희의 소행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너희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아웅다웅 싸우며, 서로 속고 속인다. 서로를 기만하고 숨기며, 수치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 또한, 교활하고 간사하며, 아부에 능하다. 독선적이고 거만하고 교만하며, 산짐승처럼 야만적이고, 백수의 왕처럼 난폭하다. 너희에게 사람의 면모가 있기는 하더냐? 너희는 상스럽고 경우가 없다. 나의 말을 진귀한 보물로 여기기는커녕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성과며 진정한 삶, 아름다운 소망이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느냐? 분에 넘치는 상상이 정말 너를 범의 아가리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너를 구해 낼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나의 사역을 더없이 귀중한 보물로 여긴다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네 운명은 정녕 바뀔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억울하게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냐?

사람의 원래 신분과 가치는 어떠한가

너희는 본디 진흙에서 분리되어 나온 존재다. 어찌 됐건 너희는 더러운 악의 잔당 가운데서 골라낸 자들로, 원래부터 불결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혐오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원래 그것에 속했고, 그것에 의해 유린되고 더럽혀졌으므로 진흙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결코 성결하지 않으며, 일찍이 사탄에게 농락당한, 사람 같지도 않은 자들이다. 이런 평가야말로 너희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 너희는 본디 고인 진흙탕 속의 불순물이지, 진흙 속에서 사는 물고기나 새우와 같은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는 기쁨으로 삼을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툭 터놓고 말해서, 너희는 본래 가장 비천한 하류 사회의 개돼지만도 못한 짐승들이다. 솔직히 너희에게는 이런 호칭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 이는 과장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단순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너희에게 존칭이라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의 식견이나 언행, 그리고 모든 생활과 진흙 속에 있는 너희의 지위만 봐도 너희의 신분이 ‘남다르다’는 것을 십분 증명할 수 있다.

불학무식한 자는 짐승이 아닌가?

오늘날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느냐? 너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간주하고 추구해야 하겠느냐? 너는 오늘날 네게 임한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시련이든, 고난이든, 무정한 형벌이든, 저주이든, 너는 그 모든 것이 임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오늘 너에게 임한 것은 한번씩 되풀이되는 짧은 시련이므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이를 내팽개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너는 조심성이 없기 짝이 없구나! 이 소중한 자산을 눈앞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다니. 되풀이되는 호된 매질에 크게 아파하지 않고, 이를 일시적인 고통으로 치부하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관심 없이 냉담하게 바라보며 어찌다 직면한 한 차례의 난관으로 간주할 뿐이다. 너는 거만하기 짝이 없구나! 거듭하여 밀어닥치는 거센 비바람을 하찮게만 여긴다. 심지어 싸늘하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는 네가 계속 이런 ‘불행’을 겪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기라도 한다는 말이나? 내가 오로지 너의 허물만 들춘다는 말이나? 너의 생각이 내가 말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너의 그 ‘태연한’ 표정과 태도는 너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불만에 가득 찬(원문: 不近人意) 욕설과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끝없는 슬픔일 뿐이다. 너는 시련을 겪는 것이 몹시 불공평하다고 느끼기에 욕설을 퍼붓는다. 시련으로 인해 세상의 쓸쓸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낙담한다. 연거푸 이어지는 매질과 징계를 최고의 보살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이 생트집을 잡거나 합당한 보응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무지하기 짝이 없구나! 너는 무정하게 절호의 시기를 어두운 곳에 봉하고, 되풀이되는 아름다운 시련과 징계를 원수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너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응할 생각도 없다. 네가 잔혹하다고 여기는 이 거듭되는 형벌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구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운명에 맡길 뿐이다. 네가 잔혹하다고 여기는 채찍질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점유하지 못하고 네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너는 ‘잔혹한 형벌’을 금생의 원수라고 생각할 뿐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너는 독선적이기 짝이 없구나! 너는 자신이 비열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법이 거의 없다. 도리어 자신이 더없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내가 항상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말한다. 이 지경에 이르렀건만 너는 도대체 내가 한 말과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이냐? 네가 하늘보다는 약간 낮고 땅보다는 훨씬 높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다. 지구상의 어떤 이성적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군다. 사실 너는 전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하늘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경작하는 농부만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네 인생을 몹시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평판도 알지 못하며, 주제 파악을 못 한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너 같은 도련님이나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가 어떻게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이겨 낼지 몹시 걱정이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도련님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극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거리’에서 부채질을 하며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닐 뿐이다. 불학무식한 ‘인물’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른 채, 잔뜩 화난 모습으로 스스로를 알아 가는 듯하다가도 그 후에는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떠나간 후에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사기를 친다. 아직도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가며 나를 속이다니, 너는 대답하기 짝이 없구나! 곱게 자란 아가씨들은 더욱 가관이다. 나의 급해하는 소리를 듣고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린다. 또한, 누군가를 유혹하듯 몸을 배배 꼬아 대니 역접기 그지없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는 침대에 엎어져 곧 숨이 끊어질 것처럼 끊임없이 통곡한다. 이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미숙함과 비천함을 깨닫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변한다. 두 눈은 낮이 나간 듯 빛을 잃는다. 나를 원망하거나 증오하지도 않고, 그저 소극적인 모습으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불학무식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녀는 나를 떠난 후 다시 시시덕거리며 장난을 치고, ‘은방울 공주’와 같은 ‘웃음소리’를 낸다. 그녀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 인류 중의 불량품과 같은 너희는 모두 인성이 글렀다! 너희는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할 줄 모르고, 사리를 모른다. 참도를 찾지 않고, 참빛을 사랑하지 않으며, 너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른다. 너희는 내가 몇 번이고 되풀이한 훈계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 한가로울 때에 즐기는 심심풀이용 오락 거리로 삼기도 한다. 너희는 언제나 훈계의 말을 자신의 ‘부적’으로 여긴다. 사탄이 참소할 때는 기도하고, 소극적일 때는 늘어지게 잠을 잔다. 기쁠 때는 여기저기를 싸돌아다니기 바쁘고, 내가 책망할 때는 굶질거린다. 그랬다가 나를 떠나자마자 험상궂은 모습으로 깔깔 웃어 댈다.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항상 거들먹거리고, 스스로 득의양양하여 날뛰다. 이렇게 불학무식한 ‘도련님’, ‘아가씨’, ‘나리’, ‘마님’들이 나의 말을 어찌 보물처럼 귀히 여길 리 있겠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내가 오랫동안 말을 하고 사역을 했건만 너는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냐? 너의 속임수가 더욱 그럴듯해진 것이냐? 너의 욕이 더욱 노련해진 것이냐? 내가 나를 더욱 업신여기게 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서 오늘날 너의 작았던 배짱만 커진 것 같구나. 네가 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다. 내가 인자하기 그지없고, 폭력을 동원하여 너의 욕을 제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불손한 말만 일삼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너를 대할 때가 더 많고, 너의 면전에서 대놓고 질책한 적이 거의 없으며, 너의 연약함을 항상 너그러이 헤아려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네가 선한 농부를 대하는 뱀처럼 나를 대하게 된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중을 살피는 인류의 현란하고 능란한 기교에 실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오늘날 네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떨리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너같이 불학무식한 ‘천재’도 결국 자아도취에 빠지는 잔머리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임을 알리고 싶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형벌을 받는 것도 너 자신일 것이다. 나는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며 지옥에서까지 고통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너는 내게 저주받고 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과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어느 때든 사람과 일, 사물에 구애받으며 일하지 않는다. 내가 인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생각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본래 내 경영의 부속물일 뿐 다른 어떤 존재보다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네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해도 너는 네 신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한다고 해도 이것이 너와 내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너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항상 나의 말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같은 절호의 시기에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만큼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나를 기만하는 너의 아침 따위는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이다!

중국 선민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파도 대표할 수 없다

다윗 족속은 본래 여호와와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와의 유업을 얻은 족속이며, 본래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선민에 속한다. 당시 여호와와 이스라엘인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다윗 족속에 속한 모든 유대인, 즉 이 족속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유업을 얻고, 백배를 받으며, 장자의 명분을 받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으며, 전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상류층이었다. 그들은 직접 성전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화관을 쓰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당시 여호와와 그들은 충성스러운 성결한 종이라고 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당시에 모두 주라는 존칭으로 불렸다. 이는 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한 사역이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와 봉한 왕이며,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의 섬김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본래 다윗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는 여호와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본래 다윗 족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이방 족속에 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희의 본성 또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분은 다윗 족속과 다르며, 너희는 내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고 백배를 받을 자는 더더욱 아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족속, 여러 지파로 나뉘었지만 그들 모두 선민에 속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라면 이스라엘은 각 지파로 나누어졌고, 그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의 지위와 모든 사람의 소속 지역이 구분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는 함부로 다윗 족속, 야곱 족속 또는 모세 족속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이는 사실에 어긋나는 말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은 다른 나라에 함부로 남용될 수 없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윗, 아브라함, 이삭 등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 야곱 족속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모두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의 논리로, 여호와에게서 직접 온 것이 아니며 내 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이는 순전히 사람의 터무니없는 말이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연설가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다윗의 자손, 혹은 야곱 족속이라고 하며 심지어 스스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다윗 족속은 여호와가 일찍이 정해 놓은 것으로, 다윗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님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나 식견이 없구나! 사실 이스라엘의 일은 이방과 그 어떤 관련도 없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므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의 일은 오직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방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 이방에서 하는 사역 역시 이스라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방에 대한 것은 지금 말하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을 이방 사역의 ‘예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구습에 얽매이는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이방으로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이방에 대한 말이나 결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전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한 것이나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황당한 소리다. 나의 사역은 종류별로 나뉜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전후 순서에 따라 사역을 구분한다.

너희는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사탄과 더러운 마귀에 의해 패괴되긴 했지만 이 패괴로 인해 지극히 큰 구원을 얻었다. 심지어 욥이 얻은 온 산에 가득한 우양과 막대한 재산보다 더 크고 욥이 시련을 겪은 후에 여호와를 보게 된 복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욥은 죽음의 시련을 겪고 나서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는 여호와가 폭풍 속에서 하는 말씀은 들었으나 여호와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여호와의 성품도 알지 못했다. 욥이 받은 것은 육체가 누리는 물질적인 재산과 온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자녀들, 그리고 천사의 보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보지 못했고, 의롭다고 칭함 받기는 했으나 여호와의 성품은 알지 못했다. 반대로 오늘날의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잠시 빈곤하거나 외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가장 비천하지만 나의 지극히 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시종일관 감추어 왔던 나의 성품과 만세 전의 비밀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이는 처음 보여 준 것으로, 미증유의 사역이다. 너희가 비록 욥에 훨씬 못 미치지만 너희가 받은 것과 본 것은 욥을 훨씬 능가한다. 너희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고통은 욥의 시련과는 같지 않다. 이는 사람의 패역과 대적으로 인한 것이며, 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이자 형벌이며 저주이다. 욥은 본래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의인으로, 그는 악을 행하지도, 여호와를 대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충성했다. 그는 의로움으로 인해 시련을 받았고, 여호와의 충실한 종이라는 이유로 불과 같은 시련을 겪었다. 오늘날의 사람은 더러움과 불의로 인해 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사람은 비록 욥과 같이 우양과 재산, 종, 자녀, 친구들을 잃는 고통을 겪지는 않으나 불의 연단과 불사름을 겪는다. 게다가 욥보다 심한 것은 이러한 시련이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여 가벼워지거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징벌이요, 심판이자 저주이며 무정한 불사름이다. 또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유업’으로, 사람이 받아 마땅한 몫이다. 이는 나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공개된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이 얻은 것은 이미 오늘날 겪는 고통보다 훨씬 많다. 너희가 겪는 고통은 그저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좌절일 뿐이지만 그 고통에 비해 얻은 것은 백배나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정한 율법에 따르면 나를 대적하는 자와 공개적으로 판단하는 자, 그리고 내 도를 행하지 않고 겁도 없이 내게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자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떨어지는 불에 죽거나 선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심지어 그의 가족과 자손 그리고 그와 관련이 있는 직계 친족까지도 나의 저주를 받아 내세에 자유를 얻지 못하며 내 종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또한 내게 쫓겨나 이방에서 떠돌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비해 받는 고통이 이스라엘인이 받았던 징벌에 훨씬 못 미친다. 너희가 오늘날 겪는 고통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너희가 한 행동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만약 이스라엘이었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을 것이며, 일찌감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늘의 불에 태워지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얻은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받은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나? 나는 너희에게 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를 구속할 때의 내 인내심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은 인내의 사역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경영을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인류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욥은 비록 여호와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의인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 오늘날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의 나타남을 저버리고 혐오하고 원망하며 비꼰다. 너희가 받은 것이 적으냐? 너희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냐? 너희의 복이 마리아, 야고보보다도 크지 않으냐? 너희가 대적한 것이 적으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 높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나? 나는 나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인에게 나의 진노를 쏟았을 뿐 너희에게는 쏟지 않았다. 너희가 받은 것은 단지 나의 무정한 심판과 폭로, 그리고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불의 연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내게 대적하고 항변하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람은 모세를 반대했던 고라와 다단 무리만도 못하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고 본성은 너무도 완고하며 옛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이 백주 대낮에 제 몸을 다 드러낸 음녀와도 같다고 말하고, 심지어 ‘차마 듣기 힘들 정도로’ 엄하게 말하여 사람의 본성을 백일하에 드러내도 사람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조금 아픈 척하기만 할 뿐이다. 그 순간이 지난 후에는 산짐승의 왕처럼 포악해지며 아무 지각도 없다. 이러한 성품으로 어찌 자신이 일찍이 욥보다 백배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어찌 자신이 누리는 복이 그 누구도 누린 전례가 없었던 복임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양심이 어찌 징벌과 함께 오는 이러한 복을 감지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내 사역의 모범이 되고 내 모든 성품과 행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너희가 사탄의 해악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역에 항상 반감을 갖고 고의적으로 적대시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진노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너희 중에 내게 ‘순종하는’ 이들이 많지만 ‘고라 무리’와 같은 자들은 훨씬 더 많다. 나는 내 영광을 완전히 받고 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러한 자들을 깨끗이 태워 없앨 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말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기 전에 나를 대적했던 자들, 곧 내가 일찍이 도태시킨 ‘고라 무리’를 깨끗이 태워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불길’과 진노만 보일 뿐 다시는 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는 각종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 주고, 각종 사람들을 분류하며, 각종 사람들의 패역한 행실도 모두 기록한 후 나의 사역을 마칠 것이다. 사람의 결말은 내가 땅에 있을 때 내린 판결에 따라 정해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결말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드러내게 하겠다! 내가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넘길 수 있게 말이다.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됐으나 대부분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흐리멍덩하게 따를 뿐, 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큰 웃음거리 아니겠느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천상의 비밀을 보고, 이제껏 이해하지 못했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수없이 들었지만, 가장 얕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수많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겠어요?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사람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문제도 그냥 흘려보내는데,

하물며 가장 복잡한 ‘하나님’ 같은 문제는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관심을 두지 않는 문제,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야말로 네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문제이다. 너는 큰 흐름을 따르는 것만 알 뿐 네가 갖추어야 할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존엄성을 잃은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인간의 본질과 나의 모든 행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륜의 마무리이자 내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인생의 모든 비밀을 미리 알려 주어 내게서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이는 말세 시대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생명 진리를 반드시 너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갖춘 것이 몹시 적기 때문이다. 어둠이 닥쳤을 때 너희가 또다시 길을 잘못 들어 악한 자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모두 전하여 사역을 끝내려 한다. 너희는 깨닫지 못한 도가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일도 한없이 많다. 너희는 너무 무지하다. 나는 너희의 분량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많다 해도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적 없는 모든 진리를 알려 주고자 한다. 지금 너희의 분량으로 나를 위해 굳게 설 수 있을지 늘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너희를 알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정식 교육을 거치지 않은 우마 부류이며, 너희에게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많은 정력을 쏟아 너희에게 사역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소극적인 요소도 손꼽을 정도로, 겨우 사탄에게 치욕을 주는 간증만 할 뿐이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탄의 독소이니 내 눈에 너희는 구제 불능처럼 보인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나는 너희의 갖가지 표정과 태도를 보고 나서야 너희의 진짜 분량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너희를 염려한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보다 낫거나 오늘과 비슷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작은 분량이 걱정되지 않느냐? 너희는 정말 이스라엘 선민처럼 언제나 나에게 일편단심일 수 있느냐? 너희가 드러내는 것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어린애의 장난기가 아니라 주인의 채찍을 벗어나기 위해 분출하는 우마의 야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본성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약점이자 공통적인 병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유일한 당부는 절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굳게 서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내 사역의 중심이다.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가 꿈에서의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들인 것처럼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결’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으므로 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귀중한 재산을 주었고, 모든 것을 베풀었다. 너희의 지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너희는 그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 그들은 나의 출현을 고대했으나 너희는 나와 함께 좋은 나날을 보내며 나의 풍성함을 누렸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나와 다투고 재산을 쟁탈하려 하느냐? 너희가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나는 너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었지만 너희가 돌려준 것은 가슴 시린 슬픔과 걱정, 그리고 억누르기 힘든 울분이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밍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다. 그래서 모든 분노를 참으며 너희에게 거듭 저항할 수밖에 없다. 나는 수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인류에게 항의한 적이 없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나는 너희의 ‘기만책’만이 가장 유명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명성 높은 옛 ‘선조’가 너희에게 남겨 준 귀중한 유산 같다. 나는 이런 비인간적인 개돼지 부류를 실로 증오한다. 너희는 너무 양심이 없다! 너희의 인격은 너무도 저열하다!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강박하다! 나의 이런 말과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져갔다면 벌써 영광을 얻었겠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불가능하다. 너희에게는 무자비한 매장과 차가운 눈빛, 책임 전가만 있을 뿐이다. 너희의 감각은 지나치게 마비됐고 너무도 무가치하다!

너희는 나의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내게 이로운 사역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모두 알려 주고, 너희에게 없는 모든 것을 내게서 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도 나는 계속 너희에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하고, 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너희가 내게서 이로움을 얻고, 너희에게 없는, 세상 사람이 본 적 없는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사역해도 나를 아는 자가 없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았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본래 사람이 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영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세 단계 사역(창세·속량·궤멸)을 위해 나는 각각 다른 시기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공개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음) 나의 사역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온 것은 구속시대였다. 물론 그때는 유대 족속 가운데 왔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단계의 사역을 친히 한 까닭은 내가 입은 육신을 속죄 제물로 삼아 구속 사역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은혜시대의 유대인이었다. 이것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 첫 번째 사역이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나는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육신에서 목양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하는 두 번째 사역이다.

마지막 두 단계 사역에서 사람들이 접한 것은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이 아니라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또 한 번 사람이 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본 하나님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놀라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낡은 믿음 방식은 예사롭지 않은 나의 거듭된 사역으로 깨어졌고, 사람은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하나님’이란 성령, 그 영, 일곱 배로 강화된 영, 만유를 포함하는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고 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또 남성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한데, 같은 점은 둘 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사람에게서 났으나 직접 영에서 왔다는 것이다. 같은 점은 성육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았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한쪽은 구속 사역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은 같지만 한쪽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구속주이고, 한쪽은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구속 사역을 펼친 사령관이고, 한쪽은 정복 사역을 이루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한쪽은 시작이고, 한쪽은 끝이다. 한쪽은 죄 없는 육신이고, 한쪽은 구속을 완성하고 이어지는 사역을 하는, 본래 죄에 속하지 않는 육신이다. 동일한 하나의 영이지만 각각 다른 육신에 거하고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며, 수천 년의 시간 차에도 하는 사역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둘 다 사람이지만 남자 아기이고, 또 여자 아기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본 것은 영이었고, 사람이었고, 남자였으며, 또한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나에게 늘 짐작하지 못했다. 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꿈 같기도 하여 늘 나에게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네가 정말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나를 요약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예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너의 글재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성을 만들었을 뿐, 자신의 형상대로 여성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네 말대로라면 여자는 다 내가 택한 대상이 아니며, 인류에 속하는 부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영이냐? 하나님은 정말 남자이냐? 오직 예수만이 내가 하려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느냐? 네가 이 중의 하나를 택해 나의 본질을 요약한다면 너는 너무나 무지한,

충성스러운 신자에 속할 것이다. 만일 내가 성육신 사역을 한 번만 한다면 너희가 나를 규정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내가 정말 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접했던 것만으로 정말 나에 대해 확실히 요약할 수 있겠느냐? 내가 육신으로 행한 두 차례의 사역이 모두 같은 사역이라면 너희는 또 나에 대해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너희의 믿음은 아주 진실하지만 너희 중에 나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본 사실을 전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아라. 지금 너희 대다수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좇고, 육을 만족시키고, 육을 탐하고 누리면서 진리는 얼마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본 것을 전부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진정 나의 증인이 될 자신이 있느냐? 나중에 내가 오늘 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없다면 너는 피조물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존재할 의미가 조금도 없고, 사람이 될 자격도 없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내가 지금 배운 것도, 얻은 것도 전혀 없는 연고로, 나의 사역을 확장해야 할 때 어리둥절해하며 말문을 못 열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 너는 역사의 죄인 아니겠느냐? 그때가 되면 심히 후회하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한가하고 무료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할 사역을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절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내가 하는 사역이 길거리 개구쟁이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며, 너희의 기능은 그저 따르고, 순종하고, 변화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왜 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 때부터 내게 너희를 예정해 주었다. 그가 너희를 예정한 것은 나의 사역을 위해서이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로 인해 나를 믿고, 내 아버지의 예정으로 인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결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도를 지키고, 너희에게 가르친 도와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의 본분은 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 본뜻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나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할 뿐 내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옛 뱀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증거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별다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내게 준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은 내 본연의 사역이고, 나아가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창세 때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내가 말세에 그들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또한 내가 인류 중의 패역자를 정복하는 것이 곧 사탄을 물리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 내 원수가 나와 싸울 때,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것의 아들딸, 집지기가 된 충실한 종을 정복할 것이라고 알려 준 바 있다. 정복의 원뜻은 상대를 물리쳐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표현법에 따르면 본래 상대를 철저히 물리치고 쳐부숴 다시는 내게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었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는 정복이란 뜻으로 쓰인다. 너희는 내 본래의 뜻이 인류의 악한 자를 철저히 멸하고 쳐부숴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사역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힐 기운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에는 정복이 된다. 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어떠한지 결론적으로 말해 내 사역은 인류를 쳐부수는 것이다. 인류가 내 경영의 부속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류는 내 원수요,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요, 내게 저주받은 악한 자의 후예요, 나를 배반한 천사장의 후손이요, 일찍이 내게 버림받고 나와 첨예하게 맞서는 악마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전 인류의 상공은 혼탁하고 어두워 맑은 느낌이 전혀 없으며, 인간 세상 또한 칙흑같이 캄캄해 거기서 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고개를 들어도 햇빛을 볼 수 없다. 발밑의 길은 질퍽거리고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며, 도처에 송장이 즐비하다.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죽은 자의 백골이 가득하고, 음산한 모퉁이에는 온갖 귀신이 머물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처에 귀신들이 출몰한다. 더럽기 그지없는 온갖 짐승의 후손들이 서로 참혹하게 싸우고 죽이니, 그 소리가 간담을 서늘케 한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 낙원’ 가운데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겠느냐? 사람은 또 어디에서 인생의 종착지를 찾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사탄에게 짓밟힌 인류는 본래 사탄의 형상을 연기하는 존재이며, 나아가 사탄의 화신이자 사탄을 위해 ‘힘 있는 간증’을 하는 증거물이다. 이런 인류, 이런 인간 말종, 이런 ‘패괴된 인류 족속’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내 증거는 어디서부터 논하겠느냐? 나와 맞서며 인류를 패괴시킨 그 원수는

내가 창조한, 내 영광과 나를 살아 내는 모습이 충만했던 인류를 더럽히고 또 내 영광을 빼앗아 갔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라고는 사탄의 추태로 가득한 독소와 선악과의 과즙을 채워 넣은 것뿐이었다. 태초에 나는 ‘인류’를 창조하였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에게는 형상이 있었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더욱이 내 영광이 함께했다. 그날은 본래 내가 사람을 창조한 영광의 날이었다. 이어서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생겨났다’. 그녀 역시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나의 생기로 충만했고 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아담은 내 손에서 ‘난’ 존재로, 본래 내 형상을 대표한다. 그렇기에 ‘아담’이란 본디 나의 활기가 넘치고, 나의 영광이 가득하며, 형태도 모양도 있고, 영광 생기를 갖춘 나의 피조물이란 뜻이었다. 또한 내가 창조한, 유일하게 나를 대표할 수 있고 내 형상을 지니고 나의 생기를 받은, 영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었다. 한편, 하와는 내가 태초에 정해 놓았던, 두 번째로 지음 받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와’란 내 영광을 이어 가고 나의 생기가 가득하며, 나아가 내 영광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의미이다. 하와는 본래 아담에게서 왔으므로 그녀에게도 내 형상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두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와’란 영이 있고 뼈와 살이 있는 산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류 중에 내 두 번째 증거이자 두 번째 형상이었다.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보배롭고 성결한 존재로, 본래 영이 있는 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인류 조상의 자손을 짓밟고 약탈했으며, 나아가 인간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어 이 ‘후손’들이 더 이상 내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그 악한 자가 사람을 패괴시키고 짓밟는 동시에 나의 영광과 증거, 내가 사람에게 준 생기, 내가 사람에게 불어넣은 숨결과 생명, 그리고 인간 세상의 내 모든 영광과 내가 인류에게 기울인 모든 심혈까지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광명을 잃고, 내가 준 모든 것을 잃었으며, 내가 베풀어 준 영광을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피조물의 주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또 땅에도 내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가 경외하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뜻밖에도 이 가련한 ‘손자, 손녀들’은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영광과 형상, 증거, 나아가 인류가 생존하도록 베풀어 준 생명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악한 자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그 악한 자의 존재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이 모든 영광을 다 그것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말종’이라는 호칭의 유래 아니겠느냐? 이런 인류, 이런 악귀, 이런 산송장, 이런 사탄,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영광은 물론이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나의 증거와 이전에 인류에게 베풀었던, 원래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즉,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은 본래 내 형상과 영광을 지닌 성결한 사람으로, 사탄에게 속하지도 짓밟히지도 않았으며, 오롯이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사탄의 독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손으로 지은 사람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본래 다른 것에 속하지 않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사람을 나의 기쁨과 영광으로 여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오늘날 사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태초에 지은 그런 인류도 아니다. 나는 인간 세상의 내 영광을 빼앗아 올 것이므로 인류 가운데서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을 철저히 정복함으로써 내가 사탄을 물리친 영광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내 증거만을 나의 결정체로,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왔다. 하지만 내가 지은 최초의 인류는 오래전에 타락하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비친 사람은 더 이상 인류라고 할 수 없으며, 사탄에게 잡혀간 인간 말종, 사탄이 거하고 입는, 썩은 산송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전혀 내 존재를 믿지 않으며 내가 온 것도 환영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내 요구에 응대하며 잠시 그것을 들어줄 뿐, 진심으로 나와 고락을 함께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 주며, 비위를 맞춘다. 내 사역을 알지 못하며, 지금의 내 뜻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그날이 오면, 나를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 너희보다 덜 고난받을 것이다. 지금 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욥은커녕 유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불의 날이 오면, 너희의 날은 예수에게 질책받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할 것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족장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며, 불사름에 멸망한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호와가 베풀어 준 물이 솟아 나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나, 여호와를 찬양했을뿐더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욥이 산을 가득 채운 우양과 많은 가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영광의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요한이 인자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말세의 이상(異象)을 보게 된 것은 더더욱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방의 백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계시를 받고, 내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엄한 말에 매를 맞아도 위안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 또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나를 믿어 고난받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지 않더냐? 내 말 속에서 살지 않고 시련의 고통에서 도망친 자들은 모두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더냐?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지는 늦가을의 낙엽처럼 발붙일 곳도 없고, 내 위로의 말은 더더욱 듣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내 형벌과 연단이 없지만, 그들이 바로 천국 밖에서 떠돌고 길거리에서 유랑하는 거지들 아니겠느냐? 세상이 정말로 네 안식처겠느냐? 네가 나의 형벌을 피한다고 세상에서 진정 위안이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잠시의 누림으로 정녕 네 마음속의 감출 수 없는 공허함을 가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네 믿음이 너무 작기에 아직껏 삶의 낙을 찾지 못한 것이다. 너에게 권하노니, 육을 위해 평생을 무의미하고 바쁘게 보내면서 참기 어려운 온갖 고초를 겪느니 차라리 나를 위해 진심으로 반평생을 바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구태여 자신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 형벌을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일시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괴로움과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말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냉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 여호와를 믿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믿기를 바란다. 너희의 믿음이 도마보다 크다면 너희의 믿음 또한 내게 칭찬받을 것이다. 너희의 충성심에 나 또한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날에도 반드시 내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과 악마를 믿었던 자들은 마음이 소돔 성의 백성처럼 강박하여 눈에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들어가고 입에는 악마가 준 제물을 물게 될 것이다. 속임을 당한 마음은 세상을 차지한 그 악한 자에게 이미 점령되었고,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고대의 악마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로 인해 인류의 믿음도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내가 사역을 행해도 사람은 잠시 응대하거나 분석만 할 뿐 전혀 신경 쓰지도 못한다. 이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사탄의 독소에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인류를 정복하는 이유는 사람이 내게 지음 받고 또한 내가 창조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렸음에도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삶의 짐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보았으면서도 저버리고, 온갖 수단으로 나를 ‘물리치려고’ 한다.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대하거나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의 불의를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를 새롭게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싫증을 낸다. 그렇기에 내 사역은 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쳐부숴 철저히 물리친 뒤, 나의 사자들, 나의 영광과 더불어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행실이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내 사역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악한 자가 빼앗아 간 영광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더는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인류가 계속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안거낙엽’하며,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영광을 악한 자의 손에서 완전히 빼앗아 올 것이다. 창세 때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을 모조리 거두어 다시는 땅의 인류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내 영광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내 영광을 사탄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가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영광의 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또한 내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더욱이 나의 영광을 내게 돌려주려 하지도 않으며, 악한 자의 독소를 버리려 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나의 영광이 인류를 떠났을 때 인류가 얼마나 큰 어둠에 빠지게 될지 모르고, 나의 날이 전 인류에게 임했을 때 인류의 날이 노아의 날보다 훨씬 지내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이렇게 나를 기만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모르고, 동이 틀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 망각했기 때문이다. 해가 다시 숨고 어둠이 다가오면 사람은 다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고난의 날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을 잊었느냐? 지금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는 때이며, 또한 나와 더불어 영광의 날을 함께 보내는 때이다. 그러나 내 영광이 이 더러운 땅을 떠날 때, 사람은 어둠 속에서 슬피 울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역하는 영광의 날이고, 또한 인류에게 고난을 면케 해 주는 날이다. 나는 사람과 함께 고난과 고통의 날을 보내지 않으며, 오직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인류의 악한 자를 완전히 쳐부수기만 하기 때문이다.

‘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사람에게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믿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사람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부족함도 너무 많다. 그저 무지몽매하게 나를 믿을 뿐이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데도 ‘집요하게’ 나를 믿고 있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게 내게 간구하거나 아무렇게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결코 내 사역으로 나를 달리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게 매우 ‘탄복’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나의 뛰어난 능력을 몹시 흠모하기도 했다. 당시 유대 백성은 내가 의술이 뛰어나고 범상치 않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많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앙모하고 나의 그 모든 능력을 참으로 부러워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행한 권능을 본 자들은 나를 가까이 따르기 시작했으며, 수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병자를 고쳐 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음에도 사람은 나를 훌륭한 의사로만 생각했고, 내가 많은 말로 당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나를 제자보다 뛰어난 스승으로만 생각했다. 오늘날 사람은 내가 행한 사역의 역사적 기록을 보았음에도, 그 성경 구절에서 나를 병 고쳐 주는 ‘대단한 의사’, 무지한 자들의 ‘스승’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 나를 ‘인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나의 ‘의술’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이미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의아하게도 그렇게 명망 높고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 나를 보잘것없는 의사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 행사가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내 지혜가 높디높아 모든 ‘솔로몬의 자손’을 능가하지만 사람은 나를 그저 하찮은 의사라고 믿고, 또 사람을 가르치는 무명의 스승이라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 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이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 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 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나를 믿으면 이로운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대 족속은 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믿었고 곳곳에서 나를 따랐다. 그 무지하고 식견이 좁은 자들은 그저 내가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나를 따랐다. 그들은 나를 유대 족속 중 가장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그들은 나를 엘리야 또는 모세라고 하고 가장 오래된 선지자라고도 했으며, 또 최고의 의사라고도 했다. 나 스스로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나의 어떠함과 신분을 알지 못했다. 나 스스로 하늘은 본디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임을 알지 못했다. 또 나 스스로 내가 전 인류를 구속하고 속량하리라고 말했을 뿐, 나 외에는 누구도 내가 인류의 구속주임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 그저 나를 인자한 사람, 사람을 공홀히 여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전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일 뿐, 사람은 모두 나를 알지 못했고,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그저 이렇게 나를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나를 기만하고 있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나를 믿지만 나를 증거하지 못한다. 또 내가 드러내기 전에 나를 증거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그저 내가 피조물을 능가하고 모든 거룩한 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사역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부터 현재의 사람들까지, 내 영광스러운 행사를 본 사람은 나에게 큰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증거하지는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만이 나를 증거하고, 내 아버지만이 피조물 가운데서 내게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사람은 내가 창조주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그저 나에게 요구할 줄만 알 뿐,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알게 된 것은 내가 본래 무고하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많은 비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사람이 내게서 이로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창조주임을 믿는 이는 드물다. 그렇기에 사람은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나를 믿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실재가 너무 적고 나를 증거할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참된 믿음이 너무 적고 얻은 것도 극히 적다. 그래서 너희가 ‘증거하는 것’도 몹시 적은 것이다. 게다가 너희들은 아는 것이 너무 적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 ‘나의 행사를 증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너희의 의지가 강하기는 해도 진정 ‘하나님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체험하고 본 것들은 역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너희가 그들의 말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들은 모세보다 많고 다윗을 뛰어넘는다. 또한 나는 너희의 증거가 모세를 뛰어넘고 너희의 말이 다윗보다 훌륭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백배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백배로 갚아야 한다. 인류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는 이는 나이며,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를 증거해야 하는 존재는 너희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본분이자, 너희가 마땅히 나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영광을 주었고, 이스라엘 선민들도 얻지 못한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증거해야 하며, 나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야 한다. 내게서 영광을 받는 자는 나를 증거해야 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는 내가 일찍이 정해 놓은 것이다. 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너희의 복이며, 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의 본분이다. 너희가 그저 복 때문에 나를 믿는다면 나의 사역은 별 의미가 없어지며, 너희 역시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나의 긍휼과 자비, 위대함뿐이었고, 유대인들이 본 것은 나의 인내와 구속뿐이었다. 그들은 내 영의 역사를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의 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너희가 본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많다. 오늘 너희가 깨달은 진리는 그들보다 더 높으며, 오늘 너희가 본 것은 율법시대보다 더 많고 은혜시대를 뛰어넘는다. 또 너희가 체험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만 알고 여호와의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 구속만 알고 예수의 은혜만 받았으며 유대 족속의 형상을 지닌 예수를 본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과 ‘예수의 구속’과 오늘날 내 모든 행사를 보았다. 또한 직접 내 영이 하는 말을 들었고, 나의 지혜를 느꼈으며, 나의 기묘함을 깨닫고, 나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내 경륜의 전부를 알려 주었다. 너희는 자비롭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고, 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또한 내게 진노와 위엄이 가득함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진노를 쏟았던 내가 오늘날 그 진노를 너희에게 내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너희는 하늘의 내 비밀에 대해 이사야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내 사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에 대해 역대 성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나의 진리와 길과 생명뿐 아니라 요한보다도 더 큰 이상(異象)과 계시를 받았다. 너희는 더 많은 비밀을 깨달았고, 나의 본모습도 보았다. 너희는 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았고, 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너희는 말세에 태어났지만 예전 것과 지난 것들을 깨닫고, 오늘날 내가 친히 행한 것까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내 요구는 과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너희도 내게서 매우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역대 성도들을 향해 나를 증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원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했지만, 나는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며, 피조물의 입으로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게 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내 사역을 끝내는 데 있다. 너희는 너희가 왜 나를 믿는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단지 나의 ‘제자’나 나의 ‘환자’, 혹은 천국의 성도가 되기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또 그런 식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헛되이 힘을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런 식으로 나를 믿는 것은 허송세월하고 청춘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괜한 헛수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떠난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 사람의 양약이 아니며, 사람의 마소가 되어 끌려다니거나 죽음 당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여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한다. 너는 내가 구속 사역을 했고 예수였던 적이 있지만, 영원히 예수일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전에는 여호와였으나 나중에는 예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인류의 하나님이자 창조주이다. 하지만 나는 영원토록 예수일 수는 없고 영원토록 여호와일 수도 없다. 나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의사로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인류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과거의 관점으로 나를 믿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 병도 고쳐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라며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나는 내 원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너는 나를 믿는 이상 오직 나의 영광을 얻고 나를 증거할 자격을 갖게 될 뿐 그 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너는 지금 왜 나를 믿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사역하는 목적과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너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진정 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믿기만 할 뿐, 네게서 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나의 증거를 볼 수 없다면, 너는 내가 일찍이 도태시킨 대상일 것이다. 더구나 뭐든 다 알고 있다는 자들은 내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내 집에서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또한 내 사역에서 걸려 내야 할 가라지로서 아무 쓸모도 존재감도 없는, 오래전부터 내게 혐오받은 자다. 나를 전혀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나의 분노가 따를 것이고, 나의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겼으므로 그들에게는 나의 축복이 조금도 없다. 형벌받는 날이 오면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가 맡은 범위의 사역만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밭을 단으로 묶고 가라지도 그 속에 넣어 함께 묶고 있다. 이것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다. 내가 키질을 할 때 그 가라지들을 모두 걸러 낼 것이다. 그다음 알곡은 곳간에 넣고, 걸러진 가라지는 불 속에 넣어 재로 만들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을 단으로 묶는 것, 즉 철저히 정복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 키질을 시작해 모든 이의 결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어떻게 나를 만족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를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의 충성심과 순종이며, 지금의 사랑과 증거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무엇을 증거라고 하는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모를지라도 마땅히 너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너의 유일하고 보배로운 충성심과 순종을 내 손에 바쳐야 할 것이다. 내가 사탄을 물리친 증거는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고, 내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증거 또한 사람의 충성심과 순종에 있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를 믿는 이상 너의 본무는 나를 증거하고, 내게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너는 또 어떻게 내게 충성하고 순종할 것이냐? 너는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뿌리치고 그만둘 것이냐? 너는 내 모든 안배에 순종할 것이냐(설령 죽거나 멸망할지라도), 아니면 내 형벌을 피하려고 중도에 도망칠 것이냐? 내가 너를 형벌하는 것 또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며, 내게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형벌은 다음 단계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고, 앞으로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자신의 생명과 생존의 의의를 가치 없는 한 줌의 흙처럼 여기지 말고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권하겠다. 앞으로 나의 사역이 대체 어떤 것일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사역을 어떻게 전개할지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사역을 체험하는 의의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나를 믿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찌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토록 큰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찌 허물 수 있겠느냐? 내가 시대를 끝내기 위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시대를 열고 사역을 전개하며 더구나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의 사역이 그저 시대를 여는 것이고, 앞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또 앞으로 시대를 끝내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사역은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가치 없고 무의미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알려 주겠다. 너는 내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너 자신을 바쳐야 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일찍부터 바랐던 것이며, 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더더욱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네가 행한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을 직접 보았고, 내가 한 말도 직접 들었으며, 너희에 대한 나의 태도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무엇을 위해 너희에게 사역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사실대로 알려 주겠다. 너희는 내가 말세에 하는 정복 사역의 도구이자, 내가 이방으로 확장하는 사역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너희의 불의와 불결함, 대적과 패역을 이용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 사역을 더 잘 확장하고, 내 이름을 이방으로 전하기 위함이다. 즉,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이름과 나의 행사, 그리고 나의 음성을 이방에

전하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이방 족속들이 나에게 정복되고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애굽의 땅이 아닌 또 하나의 성지를 만들고자 한다. 내가 사역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 나의 정복 사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나의 성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땅에서 밭붙일 곳을 확장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복하는, 이방에 속하는 피조물로 원래 어떤 지위도, 사용 가치도, 쓸모도 없는 존재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만 내가 거름 더미에서 이런 구더기들을 건져 내가 온 땅을 정복한 표본이자 유일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했기에 너희가 다행히도 나를 접촉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너희의 비천한 지위 때문에 너희를 내 정복 사역의 표본과 모델로 택한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며 생활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경영을 위해, 그리고 거름 더미 속의 이 구더기들을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서 말하게 되었고, 나아가 크게 진노하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역사한 것과 다르고,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한 것과는 더더욱 다르다. 나는 크나큰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사역을 하며, 진노와 심판을 지니고 이 인간 말종들을 정복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가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과는 다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역사는 음식과 생수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으며,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역은 선민이 아닌, 저주받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풍족한 음식도, 갈증을 채워 줄 생수도 없으며, 완벽한 물질적 공급은 더더욱 없다. 오직 부족함이 없는 심판과 저주, 그리고 형벌을 공급할 뿐이다. 거름 더미 속에서 사는 이 구더기들은 전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산을 가득 채운 소와 양, 그리고 넘치는 재물과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내가 준 소와 양, 그리고 금은보화를 모두 제단에 바쳤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율법으로 요구한 십일조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 주었으며, 그들은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얻은 것보다 백배를 더 얻었다. 내가 이스라엘에 채워 준 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보다 많고, 이삭이 얻은 것보다도 많다.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 백성들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할 것이다. 내가 축복하고 보살피는 대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내 선민들, 즉 내게서 얻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백성들이다. 그들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초태생의 소와 양을 내 거룩한 제단에 바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 앞에 바쳤다. 심지어는 초태생인 장자까지도 바치며 내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내 화를 돋우고, 내게서 얻어 내려 하며, 내게 공물로 바친 사람들의 제물을 흠치고서도 내게 죄를 지은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은 전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결과와 징벌뿐일 것이다. 너희는 몇 번이나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타오르는 불길을 내려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했으며, 행복한 삶의 터전을 황량한 무덤으로 바꿔 놓았다. 나는 이 ‘구더기들’에게 계속 노할 뿐, 축복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는 다만 내 사역을 위해 전례를 깨고 너희를 높여 주었으며, 크나큰 굴욕을 참고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할 뿐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름 더미에서 텅구는 구더기들과 한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모든 작태와 말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너희의 그 ‘불결함’과 ‘패역’에 조금 ‘관심’이 생겼기에 그것은 내가 말을 할 대상의 ‘집대성’이 되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나의 태도는 ‘동정’과 ‘연민’에 불과할 뿐, 사랑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에게 인내할 뿐이다. 다만 내가 ‘불결함’과 ‘패역’을 ‘원재료’로 골랐기에 너희가 나의 행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이 구더기들에게 나의 행사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억지로 너희에게 역사할 뿐이지,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분노를 지닌 채 어쩔 수 없이 너희들 가운데서 말할 뿐이다. 나의 큰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구더기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진작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이 구더기들과 거름 더미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을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 악귀들이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득의양양하게 나를 대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 사역을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찌 이 구더기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나를 학대하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만약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서 백 명이 일어나 이렇게 나를 대적했다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렸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모두 갈라진 땅 속으로 집어넣어 멸해 버림으로, 다시는 다른 성의 사람들이 반항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것이다. 나는 맹렬한 불이니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내가 만든 존재이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사람에게에는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내 사역과 내 말의 옳고 그름을 분석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나는 창조주이다. 피조물은 마땅히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이치를 따져서도, 나아가 나를 대적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나의 권병으로 내 백성들을 다스리니, 내가 만든 피조물들은 모두 내 권병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너희가 비록 내 앞에서 겁 없이 방자하게 굴고, 너희를 훈계하는 나의 말을 거역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있지만, 나는 오직 인내로 너희의 패역에 대응할 뿐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구더기들이 거름

더미를 뒤집는다고 해서 크게 화를 냄으로 내 사역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가 심히 증오하고 혐오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를 참고 있다. 이는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심해라! 나는 이름 없는 구더기와 똑같이 굴지 않을 것이고, 너와 ‘능력’의 고하를 겨루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증오하지만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거역하면, 너는 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너에게 형벌을 가하는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피조물인 구더기가 정녕 창조주를 당해 낼 수 있겠느냐? 가을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갈 때, 너는 네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내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유린이 따를 것이다. 나에게는 내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 너에게는 네 ‘아비’의 치욕이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참아 왔던 형벌로 너와 함께하고, 너는 만년 동안 패괴되어 썩어 버린 그 육체로 나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인내를 동반한 말씀 사역을 끝마치지만, 너는 내 말에서 화를 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기뻐하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겠지만, 너는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진흙 속에서 살고 죽을 것이다. 나는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너와 함께 더러움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원래의 추태를 되찾아 거름 더미 속을 헤집고 다닐 것이다. 나의 사역과 나의 말이 끝나는 날은 나에게 경사로운 날이 되겠지만, 너의 대적과 패역이 끝나는 날은 너에게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동정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나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패역을 증오하겠지만, 너는 내 사랑스러움을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겠지만, 너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기쁘게 너를 떠나겠지만, 너는 내게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너를 보지 않겠지만, 너는 영원히 나를 갈망할 것이다. 내가 너를 증오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에게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지만, 너는 간절히 기대하며 영원히 슬피 울 것이다. 네가 내게 행한 모든 짓을 통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패역과 대적을 통회하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온전히 내 앞에 엎드려 더는 나를 거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지라도 영원히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창피를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네가 그 방종한 육체로 나를 기만하는 것을 보면서도 경계의 말만 할 뿐, 손을 들어 형벌로써 너를 ‘보살피지는’ 않는다. 너는 네가 내 사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네가 나를 대적하든, 내 돈을 쓰고 나 여호와의 제물을 먹든, 너희 구더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든, 개들처럼 서로 맞서고 공격하든

관심을 갖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물건짝’인지 알기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것 말고는 너희가 서로 간에 총검을 휘두르고 싶어 하든, 설전을 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간섭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인간 세상의 일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내가 너희들 사이의 분쟁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본래 피조물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으므로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삶과 사람들 사이의 무질서하고 정당하지 못한 관계를 혐오하며, 요란스러운 인간 군상들은 더더욱 혐오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는 불의를 알고 있었으며,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활함과 간사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불의가 내가 창조한 만물의 풍성함에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 각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올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너희는 또한 매우 난폭하여 모든 구더기 속에서 제멋대로 활개 치며 안락한 곳을 찾고, 자기보다 작은 구더기들을 삼키려고 망상한다. 너희의 마음은 음험하고 악랄하기가 창해의 깊은 물 속을 떠도는 유령들보다도 더하며, 거름 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위아래의 모든 구더기들을 편안할 틈 없이 방해하고, 서로 살육전을 벌인 후에야 조용해진다. 너희는 자신의 지위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거름 더미 속에서 서로 공격을 일삼으니, 그렇게 싸운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이나? 너희에게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나를 등지고 서로 아귀다툼을 할 수 있단 말이나? 네 지위가 아무리 높아 봤자 거름 더미 속에 사는 작고 더러운 버러지가 아니냐? 설마 날개라도 돋아 하늘을 나는 흰 비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보잘것없는 너희 버러지들이 나 여호와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훔쳐 먹었다. 그런 너희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명성을 주워 이스라엘의 선민이 될 수 있겠느냐? 염치없고 천박한 것들아! 그 제단에 있던 제물은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것으로, 나에게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것은 원래 내가 지배하고 사용해야 하는 제물이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사람들이 내게 바친 작은 산비둘기를 훔쳐 간단 말이나? 너는 유다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너의 밭이 ‘피밭’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물건짝들아! 사람들이 바친 산비둘기가 너, 구더기의 더러운 배를 채우라고 준 것으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은 기꺼이 원해서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은 마땅히 내가 지배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함부로 내게 바쳐진 공물을 훔쳐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역사하는 이는 나 여호와, 곧 창조주이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제물을 바쳤다. 너는 그것이 네가 열심히 뛰어다닌 대가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수치심도 없구나!

너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냐? 어쩌서 내 제물을 훔쳐 먹는 것이냐? 왜 내 주머니 속의 돈을 훔쳐 가는 것이냐? 너는 ‘가룟 유다의 자손’이 아니냐? 나 여호와의 제물은 제사장이 누릴 수 있게 주는 것들이다. 네가 제사장이냐? 감히 득의양양하게 나의 제물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위에 차려 놓기까지 하다니,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구나! 쓸모없는 천것이구나! 나 여호와의 불길이 너를 깨끗이 불태워 버릴 것이다!

육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나의 이러한 경고는 너희의 생존을 위한 것이자 나의 사역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온 우주의 시작 사역을 더 적절하고 완벽하게 행하는 한편, 열국과 열방 사람에게 나의 말과 권병, 위엄, 심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하는 나의 사역은 우주 전체에서 전개되는 사역의 시작이다. 지금을 말세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세’란 한 시대를 의미하는 대명사임을 알아야 한다. 말세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처럼 한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의 몇 년,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말세’는 은혜시대나 율법시대와 다르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사역한다. 이 사역은 이스라엘 밖의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을 정복하여 내 보좌 앞에 오게 함으로써 전 우주 아래의 나의 영광을 우주 궁창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즉,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데, 땅의 모든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할 수 있게 하며, 하늘 위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땅에서 얻은 내 모든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 말세에는 정복 사역을 한다. 백성들을 이끌고 땅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땅에서 수천 년간 겪어 온 고난의 삶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역은 이스라엘에서 했던 사역처럼 수천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몇 년간 사역한 후 두 번째로 성육신하기 전까지 2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과도 같지 않다. 말세의 사람은 단지 말세에 육신으로 다시 나타난 구속주를 접하고, 하나님이 친히 한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세는 예수가 유대에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전개했을 때처럼 짧은 기간으로, 2천 년 동안 지속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세는 전체 시대를 끝내고, 6천 년 경륜을 마무리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인류의 인생 여정을 끝내는 때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인류 전체를 다음 시대로 인도하거나 인류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때가 아니다. 말세가 그런 것이라면 나의 경륜과 사람의 생존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가 계속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악마에게 모조리 잡아먹힐 것이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도 결국에는 악마의 손에

파멸될 것이다. 나의 사역은 6천 년뿐이며,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인류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시간 역시 6천 년뿐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말세에 나는 사탄을 크게 이겨 나의 모든 영광을 되찾아 올 것이며,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고해에서 구해 내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 후로는 다시 땅에 성육신하지 않을 것이고, 만유를 주재하는 나의 영도 땅에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땅에서 인류를 다시 창조할 것인데, 그들은 거룩한 인류이자 땅에 있는 내 신실한 성읍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세상을 전부 멸하거나 인류를 전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정복된, 나를 사랑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남겨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키운 많은 소와 양, 땅의 모든 부요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인류는 장차 나와 함께 영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처럼 더럽기 그지없는 인류가 아니라 내게 얻어진 모든 사람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사탄의 파괴와 방해, 공격을 받지 않는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친 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인류이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정복되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정복되는 자들은 살아남아 영원한 복을 받을 인류이며, 내가 사탄을 물리쳤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6천 년 경륜의 유일한 결정체이자 커다란 열매이다. 그들은 각 나라와 각 교파, 전 우주 아래의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온 자들로서, 민족도 언어도, 풍속도 피부색도 전부 다르다. 그들은 온 땅의 각 나라 각 교파, 나아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한데 모여 완전한 인류를 이루고,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집합체를 이룰 것이다. 나의 구원과 정복을 거치지 않은 인류는 모두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을 것이며, 내 불길에 영원히 불사름 당할 것이다. 나는 극도로 더러운 옛 인류를 멸할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문 인방에 어린양의 피로 표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 두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의 소와 양은 전부 멸했던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정복된 내 가족 중의 사람 역시 내 어린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게 구속함을 받은,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나의 영광이 따르지 않더냐? 내 어린양의 살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바닷속에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더냐? 오늘날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지금 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의 강박함이 내 분노를 쌓고 있다. 너희는 자신의 육체가 받을 고통을 쌓고, 자신의 죄악으로 받을 심판을 쌓으며, 자신의 불의로 받을 내 분노를 더 많이 쌓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 누가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람을 형벌하는 내 두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나 전능자의 두 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도 나 전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와는 이방 족속의 자손인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했던 모든 말을 능가하지만 너희는 그 애굽 백성들보다 더 강박하다. 내가 편안히 사역할 때 너희는 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어찌 나 전능자의 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심혈을 쏟았더냐?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려 준 것을 너희가 언제 청종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나 전능자에게 엎드린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분노를 사는 언행만 일삼는 것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이 강박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슬프고 애타게만 하느냐? 설마 나 여호와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냐? 내가 너희의 패역으로 인해 솟구친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 아니더냐? 하지만 너희는 나 여호와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훔쳐 집으로 가져가서는 이리 굴 속에 있는 이리의 자손들에게 먹인다. ‘백성’과 ‘백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며, 분노의 눈길과 총칼로 서로를 대하고, 나 전능자의 말은 배설물로 가득 찬 변소에 던져 더럽힌다. 너희의 인격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성을 잃고 모두 짐승이 되었구나! 너희의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로 변했다. 내 분노의 날이 닥치면, 지금 나 전능자에게 행한 너희의 악행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희는 이렇게 나를 속이며, 내 말을 청종하기는커녕 더러운 진흙에 던져 버린다. 그렇게 내 뒤에서 행동하면 내 분노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나의 제물을 훔쳐 먹고 나의 재물을 탐낼 때 나 여호와가 두 눈으로 보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 제물을 훔쳐 먹은 곳이 제물이 바쳐진 제단 앞이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어찌 잔머리를 굴리며 나를 기만할 수 있느냐? 나의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는 너희의 죄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의 진노가 너희의 악행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늘 저지르는 악행은 자신의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받을 형벌을 쌓는 것이고, 나 전능자에게 형벌받을 짓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그 악행과 악담이 어찌 나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어찌 나의 귀에 전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나를 거역한 너희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독사 같은 너희의 입술과 혀를 자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의를 위해 내게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불의로 인해 나의 분노를 쌓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나 전능자의 눈에 너희의 언행은 더럽고, 너희의 불의는 끝없는 형벌을 받을 대상이다. 그런데 내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이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대하므로 나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가 내 수중에서 달아나고 나 여호와와 형벌과 저주의 날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모든 악한 말들이 이미 내 귀에 전해졌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불의가 이미 내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를 더럽혔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패역이 이미 가득 쌓인 내 분노를 자극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희 때문에 분노하고 또 인내한 지 오래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내가 거하는 육신을 심하게 망가뜨렸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나는 지금까지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분노가 폭발해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의 악행을 보았음을, 내 아버지가 나의 간청을 들었음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그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사역 중 너희를 위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떠하냐? 나 여호와와 사역을 위해 선한 마음을 쓴 자가 있느냐? 내가 어찌 나의 연약함과 받은 고난을 이유로 아버지의 뜻에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알려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를 위한 내 헌신이 부족한 것이냐? 나는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 이 모든 고초를 기꺼이 감내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가 너희에게 내릴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누린 것이 아직도 부족하더냐? 내 아버지가 오늘날 나를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누리는 것이 어찌 나의 풍성한 말뿐이겠느냐?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누리는 것이 모두 내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의 생명으로 사탄과 싸우며,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베풀어 백배로 얻게 하고 많은 시험을 면케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나의 사역 덕에 많은 시험과 불의 형벌을 면케 되었건만, 너희는 어찌 모르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누리게 한 것임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것이냐?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닥칠 분노의 날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강박한 무리가 여호와와 분노를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너희에게 소리친 적이 있더냐? 너희와 작은 일까지 시시콜콜 따진 적이 있더냐? 또 너희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훈계한 적이 있더냐? 대놓고 질책한 적이 있더냐?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 너희가 모든 시험을 면하도록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내가 나의

권병으로 너희의 육을 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냐? 나에게 차가왔다가 뜨거웠다가 또 미지근하고,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뭔가를 감추곤 한다. 너희의 입에는 불의한 자의 타액이 가득하다. 너희의 혀가 나의 영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가 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혀로 나 여호와와의 행사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너희처럼 미천한 구더기가 나를 모독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패역의 자식들에게 내가 어찌 나의 영원한 복을 내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언행은 이미 너희의 실체를 폭로했고, 너희 자신을 정죄했다. 나는 하늘을 펴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나 외의 어떤 피조물도 함부로 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어떤 존재도 제멋대로 나의 사역과 경영을 교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았거늘, 나에게 잔인무도하게 구는 자들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배반하는 사람을 어찌 사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거역하는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 사람의 운명이 나 전능자의 손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어찌 너의 불의와 패역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너의 죄악이 어찌 나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나는 그 불의한 자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의한 자의 예물도 누리지 않는다. 네가 나 여호와에게 충성한다면 어찌 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자기 것인 양 차지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독사의 입술과 혀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렇게 나의 말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을 사탄, 그 악한 자를 위해 힘쓰는 도구로 삼을 수 있겠느냐? 나의 생명은 거룩한 자에게 누리라고 주는 것이거늘, 그 생명을 함부로 가져다가 노리게 취급을 하고 너희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삼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찌 이렇게 나에게 무자비하며 선인의 도마저 저버릴 수 있단 말이나? 내가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하였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애굽을 형벌하는 내 진노의 날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애굽이 받은 것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 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인내는 본래 너희의 악행을 상대로 예비한 것이고, 너희가 그날에 받을 형벌을 상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뒤 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더냐? 만물이 다 나 전능자의 손에 있지 않더냐? 너희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나를 거역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날은 몹시 견디기 힘들 것이다. 너희는 오겠다고 했지만 온 적이 없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 그와 적이 되지 않았더냐? 예수는 일찍이 너희와 벗이 되었건만,

너희는 메시아와 적이 되었다. 너희가 예수와 벗이 됐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행은 이미 가증스러운 자의 그릇에 가득 찼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너희가 여호와와 매우 친밀하다고는 하나, 너희의 악한 말이 이미 여호와의 귀에 상달되어 그의 분노를 사게 되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그가 어찌 너희와 친밀히 지낼 수 있겠으며, 또 어찌 악행으로 가득 찬 너의 그릇을 불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그가 어찌 너와 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구주’는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은 줄곧 구세주의 강림을 보기를 소망해 왔다. 구주 예수가 수천 년 동안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 왔던 사람들 가운데 흰 구름을 타고 친히 강림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 온 것이다. 사람은 또한 구세주가 돌아와 사람들과 재회하기를 소망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떠난 구주 예수가 다시 돌아와 유대인 가운데서 했던 구속 사역을 또 행하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의 모든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주 예수가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존경스러운 구세주가 되어 사람에게 노하지도 않고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신 짊어지며 심지어 사람을 위해 예전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했다. 예수가 떠난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까지 그를 그렇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갈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은 구주 예수가 기쁨이 넘치는 말세의 어느 날에 흰 구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여 만민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물론, 이 또한 오늘날에 구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망하는 바이다. 온 우주에서 구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강림하여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했던 “나는 떠난 그대로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흰 구름을 타고 하늘 위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유대인의 옷을 입은 채 흰 구름(흰 구름은 예수가 하늘로 돌아갈 때 탄 흰 구름을 가리킴)을 타고 수천 년간 그를 애타게 기다려 온 인류 가운데 강림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 양식을 베풀어 주고 생수가 솟게 하며,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예수가 사람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생활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관념적 생각이다. 하지만 구주 예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관념과 완전히 상반되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강림하지 않았고, 흰 구름을 타고 만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가 이미 강림했지만, 사람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강림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만 있다. 그가 이미 ‘흰 구름’ (여기서 흰 구름은 그의 영광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가리킴)을 타고 말세에 온전케 하려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 강림한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로 가득한 거룩한 구주 예수라 하더라도, 더럽기 그지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떼를 지어 사는 그런 ‘성전’ 안에서는 사역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가 어찌 또 불의한 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불의한 자의 옷을 입고 또 그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에게서 받아 내려는 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사람은 구주 예수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고 속량으로 가득한 속죄 제물이라는 것만 알 뿐, 그가 공의와 위엄, 진노, 심판을 가득 지닌, 권병이 있는 존엄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속주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심지어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을지라도, 구주 예수는 자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호와’란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택한 이름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주하며,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자, 크나큰 능력을 지닌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예수’란 본래 임마누엘을 가리키며,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을 속량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한다. 예수는 은혜시대 사역을 행했고 은혜시대를 대변하지만, 경륜의 일부 사역만 대변할 뿐이다. 다시 말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선민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였고, 그를 위해 제단에 제물을 드렸으며, 성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소망한 것은 여호와의 재현이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주이고, 인류를 죄에서 속량한 속죄 제물이다. 다시 말해, 예수란 이름은 은혜시대에서 비롯되었고, 은혜시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또한, 은혜시대의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름이고, 온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구속 사역과 은혜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고, ‘여호와’란 이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유한 이름이다. 각 시대, 각 단계 사역마다 내 이름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표적 의의가 있다. 즉, 각 이름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대표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존칭이다. ‘예수’는 은혜시대를

대표하며, 은혜시대에 속량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름이다. 사람이 말세에도 구주 예수가 강림하기를 소망하고,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 강림하기를 소망한다면, 전체 6천 년 경륜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속시대에 머물 것이다. 또한 말세가 영영 도래하지도 않고, 시대를 끝내지도 못할 것이다. ‘구주 예수’는 단지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는 분이고, 내가 택한 ‘예수’란 이름은 단지 은혜시대의 모든 죄인을 위한 이름이지 온 인류를 끝내기 위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호와, 예수 그리고 메시아는 모두 나의 영을 대표하지만, 이 이름들은 내 경륜 중의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할 뿐, 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땅의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성품과 어떠함을 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단지 시대마다 나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시대, 즉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나의 이름은 또 바뀌게 된다. 여호와라고도 예수라고도 칭하지 않고, 메시아라고는 더욱 칭하지 않는다. 대신 크나큰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칭하는데, 이 이름으로 전체 시대를 끝낸다. 나는 여호와라고 칭한 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린 적도 있다.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구주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예전에 알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다시 돌아와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이자 나의 모든 성품과 권병, 존귀, 영광을 가득 지니고 땅끝에서 나타난(원문: 興起)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가 바로 말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생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해 같고 불꽃 같으며,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다. 세상의 온갖 것이 나의 말에 심판받고, 불사름 속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최후에 만국은 반드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지기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세의 모든 사람은 내가 바로 돌아온 구세주이고, 온 인류를 정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된 적이 있지만, 말세에는 또 만물을 불사르는 뜨거운 해와 같은 불꽃이자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태양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택하고 이런 성품을 지닌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뜨거운 해이자 불꽃임을 알게 하고, 유일한 참하나님인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구속주만도 아니라, 천지와 바닷속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인 내 본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말세에 강림한 구세주가 여전히 예수라 불리고 그때처럼 유대에서 태어나 사역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 만들었고 오직 그들만 속량하며 이방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겠느냐? 내가 유대를 떠나 이방에서 사역하는 까닭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세에 이방에 나타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방 모든 선민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과 애굽 그리고 레바논은 물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 족속까지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다만 나는 이스라엘을 내 사역의 발원지로 삼았고, 유대와 갈릴리를 구속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방을 전체 시대를 끝내는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을 뿐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의 사역(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했고, 이스라엘 외의 온 땅에서도 두 단계의 사역(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의 사역)을 행했다. 또한 이방에서 정복 사역을 함으로써 시대를 끝낼 것이다. 사람이 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세에 새 시대를 개척했고 새 사역을 전개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주 예수의 강림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나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거짓으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찌 ‘구주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나의 강림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강림이다.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 더러운 옛 세계를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강림하여 그들을 속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가 온 인류를 다시 속량하여 더럽고 불의한 땅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자들이 어찌 나의 말세 사역을 성취하는 인류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는 나의 바램을 이룰 수 없고, 나의 사역을 성취할 수도 없다. 사람은 내가 행했던 사역만 앙모하거나 그리워할 뿐, 내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직 내가 여호와이자 예수라는 것만 알 뿐, 인류를 끝내는 말세의 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망하고 아는 것은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으로, 단지 사람의 육안에만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행한 사역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나의 사역이 언제 끝나겠느냐? 인류는 언제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또 어떻게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근본 취지대로 행하지 사람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다.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은 내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본 취지, 즉 내가 사역하여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역의 종점에 다다르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오고도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헛되이 따라온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는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사역해 왔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항목은 매우 많을지라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에게 술한 심판과 형벌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한 후 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모든 이방에서 내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을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있다. 사람이 내 말을 귀찮아할지라도, 내 사역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다. 내 사역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고, 나의 원래 계획도 무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심판은 사람이 더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형벌은 사람이 더 잘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나의 경영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스라엘 외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처럼 순종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밖에서도 나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영이고, 이방에서의 나의 사역이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과 종착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는 사역에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의 미래 종착지에만 관심을 둔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나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사역이 확장될 때 내가 너희를 분산시키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친 것처럼 너희를 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복음을 온 땅에 널리 전파하고, 나의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이름을 높이 받들며, 각 나라 각 족속도 모두 나의 거룩한 이름을 칭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마지막인 이 시대에 나의 이름이 이방에서 높임을 받게 하고, 나의 행사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 주며, 또한 나의 행사로 인해 내가 전능자로 불리게 하고,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설령 내가 저주한 족속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가장 큰 사역이고, 말세에서의 나의 사역과 계획의 근본 취지이며, 내가 말세에 성취하려는 유일한 사역이다.

수천 년 동안 경영해 온 나의 사역은 말세가 되어야만 사람들 앞에 완전히 드러나 보여질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나는 비로소 내 경영의 모든 비밀을 사람에게 완전히 공개했다. 그리하여 사람은 내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나의 모든 비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관심사인 사람의 종착지까지도 전부 알려 주었고, 5천 9백 년 넘게 감추어 두었던 나의 비밀을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다. 누가 여호와인가?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예수인가? 너희는 내 사역의 전환점이 이 몇 개의 이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어떻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전하고 칭송해야 하는지, 또 지난날 나의 이름 중 어느 한 이름을 부르짖었던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느냐? 나의 사역은 이미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나의 모든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행하였기에 너희를 칠 것이다. 마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다윗 집 목자를 쳤듯이 모두 각 족속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말세에 열국을 산산조각 내고 열국의 백성을 새 나라와 무리로 다시 분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미 열국이 나의 불사름으로 경계가 나뉘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뜨거운 해로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고, 사람이 본 적 없는 거룩한 자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 만방에서 다닐 것이다. 마치 나 여호와가 유대 각 족속 가운데에서 다녔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부터 나는 땅에서 사는 사람의 생활을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그들 위에 있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사람의 생활을 인도하는 하늘의 구름 기둥도 볼 것이다. 나는 거룩한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의 공의로운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온 땅에서 왕이 될 때이고,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인도하여 영광에 들어갈 때이다. 사람은 온 땅 위에 엮드릴 것이고, 나의 장막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 굳게 세워질 것이며, 내가 오늘날 하는 사역의 반석 위에 지어질 것이다. 사람 또한 성전 안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그 제단은 반드시 나에 의해 부서져 새롭게 세워질 것이며, 처음 난 어린양과 송아지는 반드시 그 거룩한 제단 위에 가득 쌓일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오늘날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지을 것이다. 가증한 사람들로 가득한 오늘날의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내가 지은 성전에는 반드시 나에게 충성하는 종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내 성전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내가 크게 영광받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며, 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 임하는 날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성전을 허무는 방식대로 나의 장막을 인간 세상에 임하게 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나의 강림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열국을 산산이 부순 다음 또 새로이 모을 것이다. 그런 후 나의 성전을 짓고 나의 제단을 세워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의 성전에서 나를 섬기게 하며, 이방에서의 내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화관을 쓸 것이며, 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나의 위엄이 그들 위 하늘에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방에서 하는 나의 사역도 그와 같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방식대로 이방에서도 그렇게 사역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내 영이 크게 역사하는 때이자, 내가 이방에서 일을 시작하는 때이며, 더욱이 모든 피조물을 분류하는 때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부류대로 나누어 나의 사역이 더 빨라지게 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내게 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더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보며, 나의 사역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너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너의 아름다운 앞날을 그르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빼앗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며, 더 이상 육적인 안락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망치기만 할 뿐 보호할 수 없을 텐데,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너의 앞날을 망치는 것들이고, 네가 오늘 참고 견디는 고통은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해가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며, 짙은 안개가 사라질 때는 큰 날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나의 날이 이미 인류에게 다가왔을 때인데, 네가 어찌 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뜨거운 해를 견딜 수 있겠느냐? 내게 있는 풍부함을 인류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사람은 그것을 품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던져 버렸다. 나의 날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나의 풍부함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일찍이 사람에게 했던 귀에 거슬리는 충고도 찾을 수 없어 대성통곡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빛 비춤을 잃고 어둠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 내 입에서 나온 날 선 검만 보았을 뿐, 내 손에 있는 채찍과 사람을 불사르는 불길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내 앞에서 교만하고 방종하며, 계속 내 집에서 나와 싸우면서 사람의 혀로 나의 말에 반박한다.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혀 두려움 없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 너희 입에는 불의한 자의 혀와 이가 있고, 너희 언행은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독사와 같아 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내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리를 다투지만,

내가 너희 언행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고, 너희가 내 눈앞에 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전혀 모른다. 사람은 늘 내 손에서 벗어나려 하고 내 눈의 감찰을 피하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언행을 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사람의 불의를 형벌하고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의 언행이 나의 두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뒤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늘 나의 심판대 앞에 있고, 나의 심판은 지금까지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이는 사람의 패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나의 사역은 사람이 내 영 앞에서 하는 모든 언행을 불살라 정결케 하고, 내가 땅을 떠날 때에도 사람이 내게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게 하며, 나의 거룩한 종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 사역을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땅에서 하는 내 사역이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인격은 너무나 비천하다!

너희는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너희와 같은 부류의 자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너희와 한자리에 앉게 하는데, 진작부터 너희 ‘자손’들에게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고 나의 사역을 찾아볼 수 없음은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나? 나의 영광은 동방의 땅에서 서방의 땅까지 비춘다. 그러나 나의 영광이 땅끝까지 퍼져 나갈 때, 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날 때, 나는 동방의 영광을 거둬 서방에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저버린 동방의 어둠의 백성들이 빛을 잃게 할 것이다. 그때면 너희는 심연의 골짜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이 예전보다 백배는 낫지만, 그래도 아직 내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내 영광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예전보다 백배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내 사역의 성과이자 땅에서 사역해 얻은 결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언행과 인격에 혐오감을 느끼며, 내 앞에서 보인 너희의 행위에 극도의 격분을 느낀다. 너희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어찌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찌 내 이후의 사역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여 내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느니, 기꺼이 목숨을 걸겠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지만, 성품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저 교만한 말만 할 뿐, 실제 행동은 형편없다. 마치 입술과 혀는 천상에 있고, 양발은 지상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사람의 언행과 명성은 여전히 불품없기 짝이 없다. 너희의 명성은 망가졌고, 너희의 행동거지는 비천하며, 너희의 말은 저속하고, 너희의 삶은 천박하다. 심지어 너희는 인성마저 저열하다. 너희는 사람에 대해 속이 좁고 무슨 일이든 옥신각신 따지고 들며,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다투고, 그것을 위해 지옥이나 불

못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날, 너희의 이런 언행만으로도 너희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내 사역에 대한 너희의 태도만으로도 너희를 불의한 사람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또 너희의 모든 성품은 너희를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더러운 영혼이라 부르기에 충분하며, 너희가 나타내는 모든 모습은 너희가 더러운 귀신의 피로 배를 채운 사람임을 보여 준다. 천국에 가는 일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현재 너희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게 언행을 검증받지 않고도 너희는 자유로이 내가 사역하고 말하는 성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두 눈을 속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비천한 행동거지와 저속한 말투가 어찌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삶을 더러운 귀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삶이라 규정했다. 너희는 날마다 내 앞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물골을 훔내 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더없이 저열한 작태를 보이는데 내가 어찌 혐오감이 들지 않겠느냐? 너희의 말에는 더러운 귀신의 불순물, 즉 사기와 기만, 아침이 들어 있다. 그것은 사술(邪術)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간사한 짓을 벌이며 불의한 자의 피를 마시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모든 모습이 극도로 불의한데, 어떻게 그런 자들을 의인들이 거하는 그 거룩한 땅에 들일 수 있겠느냐? 너는 그 비열한 행위를 보이면서도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독사 같은 혀바닥이 결국에는 너의 그 멸망의 가증한 육체를 망칠 것이며, 더러운 귀신의 피로 물든 네 그 두 손이 결국에는 네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이 기회에 더럽혀진 두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 기회에 불의한 말을 하는 네 혀를 ‘잘라 내지’ 않는 것이냐? 네 두 손과 혀바닥 때문에 지옥 불에 불사름 당하겠다는 것이냐? 내 두 눈은 만인의 마음을 감찰한다. 나는 인류를 만들기 전부터 사람의 마음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어찌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또 어찌 내 영의 불사름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 입술은 비둘기보다도 선량하지만, 네 마음은 옛 뱀보다도 음험하다. 더 나아가 네 입술은 레바논의 여인처럼 아름답지만, 네 마음은 가나안 사람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레바논의 여인만큼도 선량하지 않다. 네 마음은 너무나 간사하다! 내가 증오하는 것은 불의한 자의 입술과 마음이다. 사람에 대한 내 요구는 거룩한 자보다 높지 않다. 나는 다만 그 불의한 자들의 악행에 혐오감을 느낄 뿐이다. 나는 그저 그 불의한 자들이 더러움을 벗어던지고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나, 그 불의한 자들에게서 구별되고 의인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성결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너희는 나와 같은 경지에서 함께하지만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초에 지음 받았을 때의 모습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너희는 날마다 더러운 귀신의 꼬락서니를 흉내 내고, 더러운 귀신의 작태를 행하며, 더러운 귀신의 말을 입에 담는다. 그로 인해 너희의 온몸은 물론, 너희의 헛바닥까지 전부 그것의 오물로 더럽혀졌으며, 너희 전체가 그 얼룩으로 뒤덮였다. 너희에게는 내 사역에 사용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니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그런데 너희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근심과 고뇌를 느끼기는커녕 환희로 가득 차 자유롭게 살고 있다. 또, 이 오물 속에서 헤엄치면서도 자신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매일 더러운 귀신과 왕래하고, ‘분뇨’와 왕래하는 저질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네가 정녕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너 스스로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은 진작에 그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당했음을 왜 모른단 말이나? 네 인격은 이미 오래전에 그 오물로 더럽혀졌음을 왜 모른단 말이나? 너는 네가 인간 낙원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느냐? 자신이 평생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살아왔고, 그 귀신이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과 일생을 함께했음을 왜 모르는 것이냐? 네 삶이 의의가 있겠느냐? 네 인생이 가치가 있겠느냐? 너는 그 더러운 귀신 아비 어미를 위해 지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녔으면서도, 너를 해한 자가 실은 너를 낳고 길러 준 그 더러운 귀신 아비 어미임을 모르고, 너의 더러움은 그것이 네게 공급해 준 것임은 더더욱 모르는구나. 네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네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것은 너를 형벌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저주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 번도 네게 노발대발한 적이 없이 늘 ‘온화하고 상냥하게’ 대했다. 그것의 말은 네 마음을 적시고 네 정신을 쏙 빼 가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게 빠져들어 기꺼이 그것을 위해 힘쓰게 되었고, 그것의 대변인,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 그럼에도 너는 어떤 원망조차 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 온갖 충성을 다한다. 너는 그것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랬기에 내 사역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랬기에 줄곧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감언이설로 내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이다. 너에게는 다른 타산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나, 전능자의 행사에 대해 얼마간 알고 있지만, 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는 추호도 알지 못한다. 너는 내 형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그저 나를 기만할 줄만 알 뿐, 내가 사람의 범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섬기기로 다짐한 이상,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악을 증오하는 하나님이자, 사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너의 말을 내 제단 앞에 놓은 이상, 나는 네가 내 눈앞에서 도망치는 꼴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말을 내 제단 위에, 내 눈앞에 놓은 후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놀리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함부로 네 그 헛바닥을 움직여 내게 소원을 빌고 서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어찌 나,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를 가리키며 서원할 수 있단 말이나? 너는 네 서언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알려 주겠다. 너희의 육체는 사라져도 너희의 서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의 서원에 따라 그 죄를 정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말만 늘어놓고 대충 넘어가면서 마음으로는 그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분노가 어찌 그 개돼지 같은 놈들의 기만을 용납하겠느냐? 나는 나의 행정 법령을 집행할 것이다. 낡은 틀에 박혀 나를 믿는 그 ‘경건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되찾아 와 순순히 나를 ‘섬기게’ 하고 언제든 내게 도살될 수 있는 내 우마가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의 다짐을 모두 찾아 다시 나를 섬기게 할 것이고, 어떤 피조물도 나를 기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함부로 요구하고 거짓을 입에 담아도 된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네 말을 듣지 못하고 네 행위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네 언행이 어찌 내 눈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기만하는 것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몇 해를 다녔고, 또한 오랜 세월 너희 가운데서 생활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생활했는데, 너희의 비열한 행위가 내 눈앞에서 얼마나 사라졌느냐? 너희의 마음속 말은 내 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너희의 다짐은 내 제단 위에 첩첩이 쌓여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의 봉헌과 헌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너희의 진심은 내 제단 위에 전혀 놓이지 않았다. 나에 대한 너희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한없는 은혜를 얻고, 한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았다.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불길까지 보여 주었으나 차마 너희를 불사르지는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게 얼마나 돌려주었느냐? 너희가 기꺼이 내게 준 것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베풀어 준 음식을 다시 내게 바치는 주제에, 힘들게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느니, 너의 모든 것을 바친다느니 하며 지껄이는구나. 네가 ‘바친’ 것이 전부 내 제단에서 흠쳐 간 것임을 모른단 말이나? 오늘 그것을 다시 내게 바치니 이는 나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전부 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이니, 네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을 내게 바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찌 계속 참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전부 공개하며,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너희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양심을 저버리고 나를 기만하는구나. 나는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다. 너희는 비록 고통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하늘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조금도 봉헌하지 않는구나. 설령 조금 공헌했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내게 ‘장부를 들이대니’, 너의 공헌이 전부 헛되지 않겠느냐? 네가 내게 바친 것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한 톨이지만,

내게 요구한 것은 황금 만 냥이다. 이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사역하지만, 많은 제물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십일조마저도 받지 못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 바친 십일조마저 전부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내 제단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들이 어찌 내 눈에 귀하게 보이겠느냐? 그런 자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혐오하는 개돼지가 아니냐? 내가 어찌 너희의 악행을 귀히 여기겠느냐? 나의 사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쳐서 내 권병을 나타내려 하는 것뿐이겠느냐? 너희의 목숨은 전부 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말로만 너희를 타이르려 뿐, 일찌감치 너희를 쳐서 말이 사실이 되게 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단지 사람을 치기 위해 말하고 사역하겠느냐? 내가 어찌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하나님이겠느냐? 오늘날, 너희 중 몇이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내 앞에 와서 인생의 참길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몸만 내 앞에 와 있을 뿐, 마음은 구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 내 사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려 한다. 나를 멀리하여 형벌과 심판이 없는 극락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냐?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네가 택할 일이다. 오늘의 길은 심판과 저주가 수반되는 길이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심판이든 형벌이든 모두 최고의 선물이며,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율법시대의 사역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땅에서 할 사역의 발원지, 자신이 거할 성지를 인류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 범위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처음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는데, 사역 범위를 줄이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곳이다. 여호와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곳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여호와가 땅에서 사역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당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의의와 목적, 그리고 절차는 온 땅에서 그의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까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점에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그가 온 우주에서 사역하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여 온 우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여호와가 준 생기뿐이었다. 물론 의식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사람에 대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창조주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했다. 규레나 올레가 있는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담의 후손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남편은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건사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인류를 위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밖에 몰랐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생기와 생명만 가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조주를 흠족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그러므로 교활하거나 간사한 마음도 없고, 시기하거나 분쟁한 적도 매우 드물었지만, 창조주인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인류의 선조는 여호와의 것을 먹고 누릴 줄만 알았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도, 여호와가 그들이 경배해야 하는 분인 줄도 몰랐다. 이런 자들을 어찌 피조물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는 창조주이다.”, “그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하며,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다.” 등의 말씀이 빈말이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어찌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탄, 그 악한 자가 “나는 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트집을 잡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것을 모욕하는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인류를 창조한 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시나 인도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부터 노아의 후손이자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을 본격적으로 인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 나아가 여호와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의 생명을 갖추게 하고, 사람을 흙에서 소생시켜 창조된 인류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불태우고 저주할 수 있고 그의 채찍으로 인류를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낮과 밤의 시간에 맞춰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사역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그저 피조물로 하여금 사람은 본래 여호와가 땅에서 취한 흙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여호와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사실은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과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온 나라들과 족속들이다. 그들의 조상 역시 아담과 하와이다.)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복음을 받게 함으로써 온 우주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여호와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지 않고,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했다면, 육적 본성(여기에서 본성이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 즉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킴)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도, 여호와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을 한동안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전 인류는 무(無)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된 천지 만물까지 모두 무로 돌아갔을 것이며, 이 땅은 사탄에게 짓밟혔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가 바라던 ‘이 땅, 그의 창조물 가운데서 설 자리, 즉 성지를 갖는’ 소망은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한 후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그들에게 말씀한 이유는 모두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이유는 단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먼저 사역한 것은 만물을 창조한 것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 그의 경영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인류 창조의 의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는 노아 이후, 땅의 인류의 삶을 2천 년 동안 이끌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 여호화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여호화를 증거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윗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처럼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화를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가 2천 년의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계속 타락해 갔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은 모두 음란하고 패괴되어 마음에 여호와가 없었으며, 그의 도는 더더욱 답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가 행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식견은커녕 이성조차 없던 그들은 그저 숨만 쉬는 기계 같아, 사람, 하나님, 만물, 생명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땅에서 독사처럼 유혹하는 일을 많이 했고, 여호화를 거스르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했기에 여호와는 어떤 형벌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에 정식으로 노아에게 나타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인도해 주었을 뿐이다. 즉, 여호와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날짐승과 길짐승, 그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율법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그 기간은 총 2천 5백 년에 달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기간이 2천 년이었고,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밖에서 동시에 사역한 기간이 5백 년이었다. 두 기간을 합쳐 2천 5백 년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려면 성전을 짓고,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하며, 새벽부터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는 그들이 신발로 여호와와 성전을 더럽혀 성전 위에서 떨어지는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여호와와 안배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와 계시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호와가 말씀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야 하며, 여호와와 때, 즉 여호와와 유월절에 미리 준비해 둔 초태생의 송아지와 어린양을 제단에 바쳐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그들을 단속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가늠했다. 이 밖에도 여호와는 그들을 위해 안식일을 정했다. 자신이 만물을 창조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을 첫날로 정했는데, 그날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미하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는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하여 제단 위의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여호와 제단 위의 제물을 누리도록 했다. 또한 여호와는 그들을 복이 있는 자, 자신과 더불어 분깃이 있는 자, 자신의 선민이라 했다(이것 또한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음).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여호와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는 수많은 계명을 정했고 모세를 통해 그를 따라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포했다. 그 계명은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으로, 애굽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요구였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등을 원칙으로 죄와 의로움을 판단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이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계명을 지켰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고, 제사장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가 인정하는 바였다. 여호와가 계명과 율법을 정한 것은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율법으로 갓 난 인류를 통제하는 것은 앞으로 행할 사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행한 사역을 근거로 첫 시대를 율법시대라 부르는 것이다. 여호와는 수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도하기만 했다. 즉, 그 무지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생활할 줄 알며, 여호와의 도를 깨닫도록 이끌어 준 것이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 대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패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므로 성품의 변화라든가 생명의 성장 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다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단속하고 통제했을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와는 단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자 하늘의 하나님이였으며, 구름 기둥이자 불기둥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뿐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규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사역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지음 받은 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해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많이 베풀어 주고 친히 알려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와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갖춰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의 인도를 받은 인류를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보다 낮게 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은 단지 사람을 인도해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인정하게 한 것뿐이다. 정복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인도해 준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의 전부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한 사역의 배경이자 실상이며 본질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의 수중에서 다스리는 6천 년 경륜의 시작 사역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6천 년 경륜에 더 많은 사역이 생겨난 것이다.

구속시대 사역의 실상

나의 전체 경륜, 즉 6천 년 경륜은 최초의 율법시대, 은혜시대(구속시대), 최후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 총 세 시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나의 사역 내용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탄과 싸울 때 사탄이 꾸민 간계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는 사탄을 물리쳐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 사탄의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또 이는 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고, 추하기 그지없는 사탄의 물골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아가 피조물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다. 즉, 나는 피조물로 하여금 내가 만물의 주재자임을, 사탄은 인류의 원수이자 변절자이고 악한 자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한편, 선과 악, 진리와 그릇된 이치, 거룩함과 더러움, 위대함과 비열함을 뚜렷이 구분하게 하려 했다. 나는 이 무지한 인류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인류를 패괴시킨 건 ‘내’가 아니며, 오직 창조주인 나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에게 누릴 것들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바로 만물의 주재자이며, 사탄은 창조된 후 배반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6천 년 경륜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사역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뜻을 깨달으며, 내가 진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6천 년 경륜의 첫 사역을 율법 사역으로 시작했다. 이는 여호와가 백성들을 인도한 사역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에는 유대의 각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는 은혜시대의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그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한 은혜시대를 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 사역을 완성했고,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열었기에 ‘사령관’, ‘속죄 제물’, ‘구속주’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원칙은 동일한 것이다. 여호와는 율법시대를 열어 땅에서 사역할 근거지, 즉 발원지를 세웠으며 율법과 계명도 반포하였다. 이는 여호와가 행한 두 가지 사역으로, 율법시대를 대표한다. 한편 예수가 은혜시대에 행한 사역은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은혜시대를 열면서 2천 년간 지속된 율법시대를 끝냈다. 그는 은혜시대를 열러 온 개척자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니 뭐니 해도 구속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사역 또한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새 시대를 연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 그때부터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이뤄졌다. 그는 그의 사역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겸손, 인내, 사랑, 경건함, 포용, 긍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가져왔으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온갖 누릴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평안과 희락이었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이었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였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영적인 위로, 예수에 대한 의존감 등 온갖 누릴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은혜시대에 사람은 이미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있었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행하고 그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포용, 인내, 나아가 사람의 죄를 충분히 사해 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는 속죄 제물, 즉 예수만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한다는 것만 알았으며, 그들이 본 것 또한 예수의 긍휼과 자비뿐이었다. 이는 다 그들이 은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가 베풀어 주는 수많은 은혜를 누려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가 베풀어 준 포용과 인내를 누림으로써 속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수의 포용과 인내로 인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을 얻었고, 그가 베풀어 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수가

‘의인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육신한 예수가 심판과 저주의 성품을 지니고 와서 사람이 범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속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며, 영원히 죄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6천 년 경륜은 율법시대에서 정지되고, 그 상태로 6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의 죄는 갈수록 많아지고 깊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를 창조한 의의도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은 율법하에서만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만 인류의 죄는 최초로 지음 받은 인류의 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 줄수록, 사람에게 충만한 공훈과 자비를 가져다줄수록, 사람은 예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더 생기고, 예수가 비싼 값을 들여 사 온 길 잃은 양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반면 사탄은 그 사역에 끼어 들 수 없다. 예수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품속의 갓난아기를 대하듯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했기에, 노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예수는 그들 가운데서 진노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포용해 주었고 나아가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감화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포용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성육신한 예수에게는 감정이 없었지만, 늘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공급해 주며, 도와주고 붙들어 주었다. 그는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한결같이 인내하며 포용해 주었다. 이에 은혜시대 사람들은 그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본 예수의 소유와 어떠함은 공훈과 자비였다. 그는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과오를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는 늘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주었다.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진실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썩은 시체를 살리기까지 하였다. 이를 통해 죽은 자도 그의 손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참으면서 구속 사역을 행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자신의 공훈과 자비, 거룩함을 모두 인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그는 언제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복하지 않았으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회개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사람에게 인내와 포용과 사랑을 갖고, 그가 걸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섰다. 그가 행한 사역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사역은 모두 그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가난한 자를 풍족하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했으며, 눈이 먼 자를 보게 하고 귀가 먼 자를 듣게 했다.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 즉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불러 모아 그들과 동석하며 늘 참아 주었다. 나아가 “목자는 양 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몹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기를 어미 양이 새끼를 사랑하듯 했다. 우매하고 무지한 그들은 예수의 눈에 모두 죄인이었으며,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는 도리어 남들이 무시하는 그 죄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겼다. 예수는 그들을 사랑했기에 제단에 바쳐진 어린양처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그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대로 사용되고 죽임 당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였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긍휼과 사랑이 아닌, 혐오와 반감으로 대했다. 그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그리 많지 않았다. 때때로 훈계하고 질책했을 뿐, 그들 가운데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그는 그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모욕을 받은 후에야 온 인류를 완전히 구속했다.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이다.

예수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계속 죄 속에서 살면서 죄의 자손과 귀신의 후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땅은 사탄이 기거하고 살아가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구속 사역을 행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다. 그래야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어 완전히 얻어질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 단계의 사역이 없었다면, 6천 년 경륜도 전개될 수 없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만 했다면, 사람의 죄는 온전히 사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며 구속 사역의 반만 완수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었고, 그 악한 자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관했다. 그는 사탄의 손에 넘어간 뒤에야 인류를 속량할 수 있었다. 예수는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비웃음, 비방과 버림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머리 둘 곳도 안식할 곳도 없이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온전한 자기 자신, 즉 거룩하고 무고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것이다. 집권자들은 그를 희롱하고 채찍질했으며, 병사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말 한 마디 없이 끝까지 참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서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은혜시대만 대변할 뿐, 율법시대는 대변하지 못하며 말세 사역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본질이며, 인류가 겪은 두 번째 시대인 구속시대이다.

나이 든 자와 젊은 자들에게 전하는 말

내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펼치고,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 사이를 오갔건만 나의 형상과 성품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몹시 드물다. 인류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며, 언제나 경계심을 품고 있다. 마치 모두들 내가 사람을 다른 지경으로 이끌어 간 후 방치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별별 떨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한다. 오늘날에 이르렀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는 사역을 알지 못하며, 특히 내가 사람에게 한 말은 더더욱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다. 즉, 두 손으로 내 말을 받쳐 들고는 끝까지 믿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잊어야 할지 몰라 한다. 또한 실행에 옮겨야 할지,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지 종잡지 못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담대하게 따라가야 할지, 세상과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람의 내면세계는 복잡하기 그지없고 또 간교하기 그지없다. 많은 이가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기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내 앞에 내놓는 것도 몹시 힘들어한다. 나는 너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육으로 살다 보니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요인이 가져온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애를 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육으로 사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 역시 부인하지는 않는다.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는 당연히 너희의 고충을 감안하며,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또한 당연히 너희의 현실적인 분량을 고려한다. 지난날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불순물이 담긴 ‘지나친’ 요구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과 행사에 ‘지나친 요구’가 들어 있던 적은 없으며, 나는 언제나 사람의 본성과 육체, 필요를 감안하여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심해라.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 두노니, 나는 사리에 맞는 사람의 생각과 원래의 본성에 맞서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나의 요구 기준에 대해 당최 알지 못하고, 내 말의 본뜻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심지어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신파다. 또한 상당수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즐겨 듣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구경꾼이다. 너희에게 경고한다. 나의 많은 말이 나를 믿는 자에게 열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나라의 문밖에 서 있는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에 의해 내쳐졌다. 너희는 내게 미움을 받고 버려진 가라지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배웅하고 또 나의 귀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고한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즉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내가 한 말을 ‘믿으며’, 나아가 여호와가 오늘날 다시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기는 한다. 그러나 너희의 태도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데, 마치 수천 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났다가 오늘날 다시 너희 가운데 임한 예수를 살펴보는 듯하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자리한 간사함을 잘 알고 있다. 너희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에 나를 따르고, 또 공허함 때문에 나를 찾는다. 너희의 세 번째 소망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산산조각 날 때 너희의 호기심도 함께 사라진다. 너희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사함은 너희의 언행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는 나에 대해 호기심만 느낄 뿐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을 가려서 하거나, 더욱이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법도 없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너희는 내 말을 그저 근심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허전함을 채우는 데 쓸 뿐이다. 너희 중 누가 내 말을 실행에 옮겼더냐?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냐? 너희는 전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분이십니다.”라고 외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와 합할 수 있더냐? 너희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또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이것이 너희가 내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냐? 너희는 말로는 많은 것을 바쳤다. 그런데 너희가 바친 ‘제물’과 ‘선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상달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너희를 이토록 증오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궁색한 처지로 전락했겠느냐? 음부에서 심문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잔뜩 풀이 죽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구나. 맥없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온통 원망과 악담뿐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을 잃었고, 심지어는 너희가 원래 갖고 있던 믿음조차 모두 잃어버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나의 사역이 너희에게 크나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은 항상 너희에게서 물거품이 되고, 결실이 맺히지 않으며, 내가 온전케 할 대상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거의 희망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서 나의

지기(知己)를 찾고 또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계속 역사할 자신이 없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진 듯하다. 너희가 거둔 그 형편없기 짝이 없는 성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둔 성적은 마치 내가 너희 가운데서 말을 하거나, 너희에게 역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너희의 성적은 역겹기 그지없다. 너희는 항상 철저히 실패하여 가치 있다고 할 만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너희에게서는 ‘사람’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냄새도 나지 않는다. 너희의 상큼한 향기는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냐? 너희가 오랫동안 치른 대가와 헌신은 어디로 가고, 그 성과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냐? 오늘날 나의 사역은 또다시 새로운 기점을 맞이하여 새로이 시작되었다. 나는 큰 뜻을 펼치고, 더 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건만 너희는 아직도 예전처럼 진흙탕 속에서 타락해 있으며, 예전처럼 구정물에서 살면서 원래 겪던 곤경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나의 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더러운 물이 고인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저 나의 말을 알기만 할 뿐 내 말에 담긴 자유의 세계에 들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몇천 년 동안 단단히 봉해져 있던 선지자의 예언서처럼 너희에게 열리지 않은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너희는 이를 알아차리는 법이 없고, 심지어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의 거의 절반이 너희에 대한 심판이고, 성과는 절반에 불과한데도 너희는 모두 냇을 잃었다. 나머지 절반은 삶에 대한 것이나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지만, 너희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언제나 ‘애매하게’ 웃고는 그냥 넘어간다. 너희는 나의 말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행사를 살펴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두가 흑암에 빠져 빛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한다. 또 나아가 너희가 나의 말을 등한시하지 않고 굳게 믿기를 바란다. 나의 말을 이렇게 대하며 대충 넘어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인데, 하물며 너희가 나의 말과 사역에 늘 무관심한 것은 어떨겠느냐? 나의 사역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나는 너희에게 수많은 말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를 대한다면 나는 너희가 얻은 적도 실행한 적도 없는 모든 것을 이방 족속에게 줄 수밖에 없다. 내 손안에 있지 않은 피조물이 어디 있단 말이나? 너희 중의 다수가 ‘연료하여’ 더는 나의 이런 사역을 받아들일 기력이 없다. 항상 한고조(寒苦鳥)처럼 계획 없이 살아갈 뿐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참답게 대하는 법이 없다. 한편, 젊은이들은 허영과 방종으로 가득하다. 내가 하는 사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잔칫상의 진수성찬을 맛보려 하지도 않으며, 새장을 벗어난 작은 새처럼 ‘타향’으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 이런 노인과 젊은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연료자는 나의 말로

노후를 보내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한다. 그래서 오늘날 늘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각별히 좋은’ 것이다. 내 사역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인내심으로 가득하다. 기개 있는 노인처럼 강직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주검 같은 미신의 기운이 감돌지 않았던 적이 있더냐? 그들의 길은 또 어디에 있더냐?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에게 아득히 멀지 않더냐? 그들이 어찌 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의 믿음이 가상하다고 해도 이런 ‘연장자’ 중에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몇이나 되더냐? 내 사역의 참뜻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몇이나 되더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를 따름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음부에 떨어지는 대신 나에게 다른 경지로 인도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너희는 종착지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같으냐? 너희 젊은이들은 기운이 넘치는 어린 사자 같으나 마음속에 참도를 간직한 자는 몹시 드물다. 너희는 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사를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반감을 산다. 너희는 나이가 어린데도 패기가 없는 것인지, 포부가 부족한 것인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너희에게서는 젊은이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패기, 이상, 주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젊은이들은 자신의 주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다. 싱그러운 느낌은 눈을 찔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칙칙한 분위기만 풍길 뿐이다. 또 이런 젊은이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의 진위를 가리지 못하며, 완벽을 기하는 법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 너희에게 남아 있는 종교적인 성향은 나이 든 자보다 더 많고 더 강하다. 심지어 너희는 거만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며, 승부욕이 강하고 몹시 호전적이다. 이런 젊은이가 어떻게 진리를 지니고 있겠느냐? 주관도 없으면서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찌 젊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젊은이의 패기, 생기, 싱그러움, 침착함, 진중함도 없으면서 어찌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리와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장난치고 노는 데 정신이 팔린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젊은이는 간사함과 멸시로 가득한 눈빛을 지녀서는 안 된다.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또한, 이상(理想), 기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앞날에 대해 낙담하거나, 삶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 된다. 오늘날 자신이 선택한 진리의 도를 위해 꾀꾀하게 걸어갈 의지를 지녀야 하고, 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 젊음이는 진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거짓과 불의를 감싸서도 안 되며, 마땅히 가져야 할 주관을 가져야 한다.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과감히 헌신하며 노력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젊음이는 흑암 세력의 압제에 무릎 꿇지 말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의를 바꿔 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역경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허심탄회한 마음과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내 요구이자 권고이며, 더 나아가 모든 젊음이를 향한 위로의 말이다. 너희는 마땅히 나의 말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젊음이는 사리를 분별하고, 정의와 진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실재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지, 이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나를 한 번 마주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고, 진리를 찾고 얻을 기회도 가지기 어렵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이 좋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해 금생에 추구할 바른길로 삼지 않는 것이냐? 또 어찌하여 항상 진리와 정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냐? 어찌하여 늘 사람을 우롱하는 불의와 불결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짓밟고 망치는 것이냐? 어찌하여 나이 든 자들과 똑같이 불의한 자의 행동을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시대에 뒤쳐진 낡아 빠진 것을 따라 하는 것이냐? 너희의 인생은 본디 정의, 진리, 거룩함으로 가득한 것이어야지, 이렇게 빨리 타락하여 음부에 떨어져선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는 모두 완벽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며, 그것을 나에게 바치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제물로 삼아 나의 제단 위에 올려야 한다. 너희는 모두 주관을 가져야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바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반평생을 수고해 놓고 어찌하여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종착지를 찾지 않는 것이냐? 반평생을 고생해 놓고 진리와 삶의 의미를 개돼지와 같은 부모의 무덤에 함께 파묻어 버린다면 너무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일생은 가장 무의미한 일생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진리와 바른길을 찾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의 화를 초래하기까지 한다면, 네 일생은 누구보다 무가치한 것 아니겠느냐? 너보다 운이 좋은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너보다 우스꽝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서 기쁨과 너를 위로해 주는 말을 얻기 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반평생을 바쁘게 뛰어다녀 놓고 내게 깊은 분노를 사서 내가 너를 거들떠보지도, 칭찬하지도 않게 된다면, 네 일생은 헛된 것 아니겠느냐? 무슨 얼굴로 역대에 제도(濟度)한 성도들의 영혼을 보겠느냐? 나를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하다 결국에 죽음을 초래하느니 이참에 망망대해에서 마음껏

즐긴 후 나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 낫겠다. 나는 오늘날 나를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너 같은 사람은 결국 내가 일으킨 큰 파도에 휩싸여 삼켜질 것이라고 일찌감치 알려 주었다. 너희가 정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오늘날 이렇게 나를 추구하면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자신이 있느냐? 네 마음이 강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따르고 추구하면서, 또 이러한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내게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6천 년의 전체 사역은 시대가 바뀔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사역의 변화는 전 세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온 인류의 발전 양상에 따라 이뤄지며, 그렇기에 경영 사역도 점차 바뀌는 것이지,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다. 창세 이전 또는 창세 직후에 여호와가 제1단계는 율법 사역, 제2단계는 은혜 사역, 제3단계는 정복 사역을 하고, 모압의 후손 중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정복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그는 창세 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압 이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롯 전에는 더더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역은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6천 년 경영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창세 전에 ‘인류 발전 연표’ 같은 계획을 미리 세워 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그의 어떠함을 직접 나타내지, 고심해서 계획하지는 않는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치밀하게 계획하며 사역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언 역시 현실의 사역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는 시대의 발전과 사물의 변화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사역을 하며,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사역한다. 그는 각 단계의 사역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나타낸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병을 충분히 나타내기에 그 시대에 그가 되찾아 온 사람들은 다 그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는 각 시대에 행하는 사역에 따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해야 할 사역을 하며,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맞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한 예로, 태초에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아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둘 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몸을 가려 주었다. 그 후 아담에게 말씀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후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오늘날의 인류처럼 살게 되었다. 태초에 그는 인류를 만들 때, 그가 만든 인류가 뱀에게 유혹당하게 한 뒤에 사람과 뱀을 저주하기로 미리 계획해 놓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만물 가운데서 새로운 사역을 했을 뿐이다. 여호와가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역을 한 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여호와는 또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그것은 그가 만든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후 죄악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맞춰 여호와는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 일가를 택해 살아남게 하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줄곧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깊이 파괴되었고, 인류의 발전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다시 말해, 인류의 끝이 다가온 것이다. 태초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실상은 이러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은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을 어떤 한 부류에 속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면서 점차 부류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에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류 가운데서 하는 사역 중 어느 하나도 창세 때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은 없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한 것이다. 한 예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여자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는 그가 전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여호와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에 내가 “나의 지혜는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류가 얼마나 파괴되었든, 뱀이 어떻게 유혹했든 여호와에게는 자신만의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사역을 해 왔으며, 어느 한 단계도 중복된 사역을 하지 않았다. 사탄은 끊임없이 계략을 쓰고,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 파괴되며, 여호와 하나님도 부단히 지혜로운 사역을 행한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이래로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인류를 패괴시킨 그 원수를 물리쳤는데, 이 싸움은 태초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가 그의 크나큰 구원을 받는 한편, 그의 지혜와 전능, 권병을 보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공의로운 성품, 즉 상선벌악(賞善罰惡)까지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까지 사탄과 싸우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는 그가 지혜로운 하나님이고 그의 지혜 또한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만물을 모두 그의 권병 아래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의 만물도 모두 그의 발등상 아래에서 살게 하며, 더욱이 온 인류를 침범한 악한 자들이 그의 형벌 가운데서 쓰러지게 한다. 이 모든 사역 성과는 다 그의 지혜로 이룬 것이다. 인류가 있기 전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지혜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 하늘과 땅, 우주 전체에 그의 원수가 없었고, 흑암 세력이 만물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그를 배반한 후 그는 땅에 인류를 만들었고, 또 인류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탄, 즉 천사장과 수천 년 동안의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격렬해졌지만 어느 단계든 그의 전능과 지혜가 있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만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실체도 보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에도 이처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 너희에게 각 단계 사역의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게 한다.

지난날, 유다가 예수를 판 일을 두고 어떤 이는 이것 역시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은 그 당시에 성령이 현실 상황에 맞춰 마련한 것이다. 때마침 톡하면 돈을 흠쳐 쓰는 유다라는 자가 있었기에 그에게 그 역할을 맡겨 힘을 쓰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예수도 몰랐지만 나중에 유다가 드러나자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만약 그 역할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다로 정한 것 역시 당시에 성령이 한 일이다. 성령 역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행하고, 때에 맞추어 사역을 계획하며, 그때그때 행한다. 어째서 늘 성령 역사는 현실적이며 언제나 새롭고 가장 신선하다고 말하겠느냐? 사역은 창세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당시에 있어야 할 성과를 거두지만, 그 어떤 단계의 사역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네가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은 성령의 새 사역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사역은 사람이 추리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그는 사람에게 현시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때그때 공급한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 또한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그의 사역이 수천 년 전에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도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행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 내적 상태를 보고 꼭 알맞은 말씀을 하니, 그것이 바로 때마침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첫 번째 형벌 시대의 사역처럼 말이다. 형벌 시대가 시작된 후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사람에게 어떤 패역한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긍정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또 어떤 소극적인 상태가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로 소극적이었고 최악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에 맞춰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소재로 취해 더 좋은 사역 성과를 거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에 따라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가 행하는 모든 단계의 사역은 사람의 실제 상태에 따라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는데 그가 주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그때그때 한 것이지, 아주 오랜 옛날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역을 행하는 한편 성과를 보아 가면서 사역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사역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람에게 조금씩 새로운 사역을 보여 주었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에서 이렇게 역사하였고, 또 성육신해서도 이렇게 하였다. 이는 현실 상황에 따라 안배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것이다. 모든 사역은 창세 전에 미리 안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둔 것도 아니다. 창세 이후 2천 년이 지난 뒤 인류가 그 지경까지 파괴된 것을 본 여호와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율법시대가 끝난 후에 은혜시대에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와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도 당시에 그가 본 상황에 따라 세운 것이지 아담을 만들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만 했을 뿐, 여호와와 율법시대에 그 사역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은혜시대가 시작된 직후에야 그 사역을 시작했다. 바로 요셉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성육신하리라고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성육신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사람의 상상처럼 하나님이 창세 후에 성육신의 사역을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인류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또 사탄과 싸우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육신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임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사역은 몇 가지 절차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결코 정해진 한도가 없다. 성령이 육신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의 성과에 맞춰 결정하며,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도 이런 것들에 따라 정한다. 모든 단계의 사역은 성령이 직접

나타낸다. 성령 역사 역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보아 가며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는 계획해 가면서 사역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아침과 저녁이 생기자 마침 하루가 되었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자 또 마침 하루가 되었으며, 그다음 땅과 바다,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하자 또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들어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만물을 다 창조했으므로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내려 거룩한 날로 정했다. 거룩한 날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비로소 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역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아 가면서 행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지도,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으며, 그때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니 여섯 날이 지났다. 만약 그가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면 여섯째 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을 것이다. 그저 그날이 여섯째 날이었기에 일곱째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내적 상태에 따라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영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보아 가면서 말씀하고 사역하며,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면서 그때그때 사역하는 것이다. 내가 행한 것, 말한 것, 너희에게 더해 주고 베풀어 준 것은 모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현실을 떠나지 않으며 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정해 놓았다면 지나치게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6천 년 계획을 연구해 낸 뒤 사람에게 거역과 대적, 교활과 간사, 육적인 파괴, 사탄의 성품과 안목의 정욕, 사적인 기호가 있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파괴시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파괴시키도록 정해 놓은 뒤에 사람에게 사역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설마 사탄이 인류를 파괴시키도록 정해 놓았겠느냐? 인류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가 인류의 삶을 방해하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인류가 거역하도록 어떻게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본래 사탄의 방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너희의 생각은 나의 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너희의 말대로라면 사탄은 배반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인식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히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 또한 영원히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건 한 치 오차도 없는 진실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권병의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천사장이 배반한 것이다. 물론 이 일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배반했든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이 없다. 너희가 사탄은 만능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사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말의 본래 뜻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울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정한다. 다시 말해, 시대에 맞춰 사람을 구원하고 그의 전능과 지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의 사역도 은혜시대 전에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며, ‘첫째, 사람의 외적 성품을 변화시킨다. 둘째, 사람이 형벌과 시련을 받게 한다. 셋째, 사람이 죽음의 시련을 겪게 한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를 체험하고 피조물의 의지를 내보이게 한다. 다섯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한 다음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미리 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대에 이렇게 계획해 놓지 않았으며, 이 시대에 와서야 계획하기 시작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 사탄은 파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들추어 밝힌다. 이것이 현재의 사역이며, 또한 일찍이 창세 이래로 이런 원칙에 따라 사역하였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뱀도 만들었는데, 만물 중에서 뱀은 가장 독한 것이었다. 뱀의 몸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독을 통해 뱀을 이용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했고,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아담도 죄를 지었다. 이로써 그들 둘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 당초 여호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을 모두 한 동산에 두었겠느냐? 그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어째서 뱀을 만들고 또 그것을 에덴동산에 두었겠느냐? 어째서 에덴동산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겠느냐? 일부러 그들이 먹게 했겠느냐? 여호와가 오자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여호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독사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결국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했다. 그들 둘이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 인류가 파괴되어 사악하고 음란해지고 마음에 악과 불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지경에 이르자 여호와는 인류를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그 후 여호와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했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어떤 일들은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천사장이 배반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천사장을 만들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이렇다. 땅이 없었을 때는 하늘에서 천사장이 가장 큰 천사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다스렸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준 권병이었다. 하나님 외에는 천사장이 천사 중에서 가장 컸다. 그 후에 인류가 창조되자 천사장은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더 큰 일을 저질렀다. 그가 배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어 인류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사장이 하와를 유혹해 죄를 범하게 한 것은 땅에서 따로 왕국을 세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천사장이 보니 많은 것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있었다. 천사도, 땅의 사람도 모두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땅의 날짐승과 길짐승, 나무, 숲, 산천 만물을 모두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도 천사장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그때부터 천사장은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또 많은 천사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갖가지 더러운 귀신이 되게 했다. 인류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천사장이 패괴시켰기 때문 아니더냐?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를 패괴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처럼 된 것이다.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 사탄이 배반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사탄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증오하시고 사탄은 또 그분의 원수인데, 어째서 사탄을 만드신 거지? 사탄을 만든 것은 원수를 만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필연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느 정도 살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일이 그 지경까지 전개된 것이다. 그릇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탄이 당신의 원수인데 어째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천사장이 당신을 배반할 줄 모르셨습니까?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다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본성을 모르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할 줄 뻔히 알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류를 패괴시킨 탓에 당신의 6천 년 경륜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말이나? 너의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사탄이 사람을 지금 이 지경까지 패괴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 후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거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분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더더욱 일의 진상과 다르다. 하나님께는 더러움이 없기에 더러움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지금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는 것은 단지 원수를 물리쳐 자신이 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처음에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에게 속했지만 지금은 그를 증오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이 마귀들을 물리침으로써 만물에게 그의 전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땅의 만물과 전 인류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하며,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자신의 행사를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역은 그가 나타내는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모든 피조물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돌아갔으므로 그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전능을 나타냄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려고 한다. 사탄이 없었다면 그의 행사를 나타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사탄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는 인류를 만든 뒤 에덴동산에서 생활하도록 인도했을 것이다. 어쩌서 사탄이 배반하기 전에는 그가 천사나 천사장에게 자신의 행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것일까? 만약 처음부터 천사와 천사장이 그를 알고 그에게 순종했더라면 그런 무의미한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내면에 패역한 성품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탄과 싸워야 하기에 자신의 권병과 모든 행사로 사탄을 물리쳐야 했다.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하는 구원 사역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보여 준 것이다. 오늘날 행하는 사역은 의미 있는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당신이 하신 사역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역들 모두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사탄을 만들어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게 하였고, 또 인류를 만들어 사탄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으면서 어쩌서 또 인류를 증오하고 사탄을 증오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인데 증오하시다니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정말 모순되네요!”라고 말하는 그릇된 자들이 많다. 진상을 알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다니 너무도 그릇되었구나! 하나님이 일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네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원망하기만 한다. “당신이 사탄을 만들고 또 사탄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의 성품을 갖게 했으면서 용서하지 않고 몹시 증오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더니 지금은 또 인류를 증오하시지요. 당신은 사람을 미워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순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늘의 상황이 그렇고, 천사장은 그렇게 배반했으며, 인류도 그렇게 파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일의 자초지종이 그렇다.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천사는 아주 약하고 능력이 없었기에 권병을 주자 교만해졌다. 특히 천사장은 다른 천사보다 높으며, 천사 중의 왕으로 백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여호와 수하에서 천사장의 권병은 다른 천사들보다 높았다. 천사장은 이것저것 하려고 했고, 또 천사를 이끌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했는데 천사장은 자기가 주관한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또 세계를 하나 창조하자 천사장은 자기가 주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내려오려 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반공중으로 쫓아냈다. 천사장이 인류를 파괴시킨 뒤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과 싸웠는데, 바로 6천 년의 시간을 들여 천사장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너희의 상상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가로막으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너무나 터무니없다! 사실상, 천사장이 배반한 후에야 그것을 원수라고 불렀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 세상에 온 뒤 사람을 짓밟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은 사탄과 약정을 하며 말했다. “너를 물리쳐 내가 만든 사람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사탄은 처음에는 굴복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어쩔 수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반공중으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반공중으로 쫓아낸 후 상대하지 않았다. 그 후로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했다. 사탄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력 때문이다. 사탄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반공중으로 쫓겨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탄을 반공중으로 쫓아냈지만 그것의 권병을 빼앗지는 않았으므로 그것은 계속 인류를 파괴시켰다. 반대로 하나님은 갓 창조되었으나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자신의 행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창세 전에 하늘에 창조해 놓은 세계에서 사람에게 그의 행사를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것으로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그 세계에서 살도록 이끌었다. 물론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훗날 하나님이 또 인류를 만든 뒤 천사장이 인류를 파괴시키기 시작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혼란스럽게 되자 그는 비로소 사탄과 싸웠고, 사람은 그제서야 그의 행사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사탄은 반공중으로 쫓겨난 뒤 자기 일을 했고,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사탄과 싸웠으며, 그 싸움이 말세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사탄을 멸해야 할 때가 왔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권병을 주었고, 나중에는 반공중으로 쫓아냈지만, 그것은 굴복하지 않고 땅에서 인류를 패괴시켰다. 반대로 하나님은 땅에서 인류를 경영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킴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 중 어느 단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어느 단계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이 의를 행하게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를 패괴시킨다. 사탄은 줄곧 전 우주 아래에서 사람을 패괴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지만 사탄을 상대하지는 않는다. 사탄에게 아무리 권병이 있다 해도 그 권병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신의 권병을 다 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어떤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저 사탄에게 권병을 조금 주어 천사들을 다스리게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병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권병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쪽에서 사역을 하면 사탄은 한쪽에서 방해한다. 말세에 이르러 사탄의 방해가 끝나면 하나님의 사역도 끝나고,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도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을 인도하며, 그의 생명은 끝없이 흐르는 생수이다. 사탄이 사람을 심각하게 패괴시켰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의 생수가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탄은 끼어들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얻게 된다. 사탄은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승부를 겨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사탄의 모든 흑암 세력과 흑암 권세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으로 하려는 사역이자 성육신한 의의다. 다시 말해,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사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복음이 확장된 후,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역하기 시작해 사역의 국면을 연 후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다. 성육신은 바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하여 사역하기 시작하자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처음에 사탄은 자신의 지혜도 꽤 많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육신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패역을 통해 사람을 폭로하고 심판하며, 이로써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탄의 사역을 훨씬 초월한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나의 사역은 사탄의 계략 위에 세워져 있어 결국에는 나의 전능이 나타나고 사탄의 무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에서 사역하면 사탄은 뒤에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된다. 온몸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내쳐진 뒤에야 크게 깨닫겠지만, 그때는 이미 불 못에 던져져 타 버린 뒤일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어쩔 도리 없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겠느냐?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현실적인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늘 근심으로 슬퍼하며 사탄과 6천 년 동안 싸우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는 인류를 만들지 않고 천사에게 권병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그 후로는 천사가 땅에 와서 일해도 그저 하나님을 따라 한 단계의 사역만 할 뿐,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병을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천사들은 어떻게 일했느냐? 모두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여호와와의 말씀을 전달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천사가 큰 돌을 한쪽으로 옮겨 놓았다. 하나님의 영은 친히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천사는 그저 이런 일을 하며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권병은 갖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에게 권병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한동안 사역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전 우주를 초월하겠다! 나는 셋째 하늘에 서겠다! 우리가 왕권을 잡겠다!” 사역을 며칠 하고 나면 교만해져서 땅에서 왕권을 잡으려 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하며, 만유를 밟으려 하고, 또 셋째 하늘에 서려고 한다. 너는 그저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근데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와서 외치지 않고 묵묵히 사역하며,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떠난다. 그는 한 번도 사람처럼 외친 적이 없으며, 실제적으로 사역한다. 그는 교회당에 가서 “내가 너희를 모두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외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면 떠날 뿐이다. 그러나 종교의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며 또한 높은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며 거창한 얘기만 할 뿐 실제적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자들이며, 천사장의 후손이다!

지금까지 6천 년에 걸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행사도 많이 나타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늘의 만물, 땅 위의 만물, 바닷속의 만물, 더 나아가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여 준다. 또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모든 행사를 사람에게 보여 주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의 지혜를 찬미하게 한다. 땅 위, 하늘, 바닷속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전능과 모든 행사를 찬미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외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고 정복했으며 더욱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증거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찬미하며, 그를 가리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라고 찬미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에 그의 사역이 6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사와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그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 땅의 인류, 땅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하는 사역이다. 하늘과 땅의 피조물은 모두 그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는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해 돌아와 인류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결국에는 인류 전체가 그에게 정복될 것이며,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모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내면에 많은 것들을 품은 채 제멋대로 굴고, 자신의 정욕과 기호를 따르는데, 이는 모두 거역이요, 대적이다. 사람이 육적인 것과 정욕을 위해, 또 자신의 기호와 이 세상과 사탄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이는 모두 더러움에 속하며, 대적이고 거역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 어떤 이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믿고, 어떤 이는 복을 받기 위해 믿고, 어떤 이는 심오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믿으며, 또 어떤 이는 재물을 탐하여 믿는다. 이는 모두 대적이자 모독이다! 사람의 대적과 거역이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는데, 이는 모두 악한 자가 하는 일이고, 사람의 거역과 대적이며, 사탄이 들러붙고 사탄에게 점령된 것이다. 하나님이 얻는 사람은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지금의 사역을 거쳐 구원받고 정복되었으며, 환난의 고통을 겪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얻어져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고 불의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성결한 사람이요, 거룩한 자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너는 틀림없이 도태될 자다. 모든 것은 오늘날을 근거로 한다. 비록 너를 예정하고 택했다고는 하나, 네가 오늘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의 결말이 결정된다.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면 너는 도태될 것이다. 지금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네 앞에 나타내 주어도 믿지 않는데, 나중에 사역이 끝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는 따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후에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너의 태도,

인식과 체험에 따라 네가 죄를 지었는지, 의를 행했는지 정하거나 혹은 네가 온전케 될 대상인지, 도태될 대상인지 정할 것이다. 지금 너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여 네 현재의 행위에 따라 너의 결말을 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냐? 사역은 또 누가 하느냐? 오늘 너를 도태시킬지는 누가 결정하고, 너를 온전케 할지는 또 누가 결정하느냐? 모두 나 자신이 하는 것 아니냐? 말씀도, 사역도 모두 나 자신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또 나중에 너를 도태시키는 것 역시 나 자신의 사역이자 나 자신의 일이다! 너를 온전케 하는 것도, 네가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모두 나 자신의 일이자 나 자신의 사역이다. 여호와가 너의 결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의 결말을 정하는 것이며, 창세 전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정하는 것이다. 어떤 그릇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마 당신의 안목이 부족해 저를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영이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두고 봅시다!” 지난날 예수가 유다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다. 이에 사람은 예수님이 어찌 자신을 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나중의 일이다. 예수는 그 당시에 유다도 괜찮다고 보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한편, 돈을 맡겨 관리하게 했다. 유다가 돈을 훔쳐 쓰는 자인 줄 알았다면 예수는 그에게 돈을 맡겨 관리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예수는 유다라는 자가 교활하고 간사하며 형제자매를 속이는 자인 줄 몰랐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고 얼마 후, 형제자매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가 특하면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쓰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알려 주니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의 사역을 해야 했기에 그를 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유다가 그 역할에 잘 맞았다. 그래서 예수는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인자는 그로 인해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처음에 예수가 유다를 택한 것은 자신을 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유다가 재물을 위해 주인을 파는 인간 말종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예수는 그 상황에서 유다를 택해 이 사역을 한 것이다. 만일 예수의 열두 제자가 모두 매우 충성스럽고 유다 같은 자가 없었다면 예수는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팔렸을 것이다. 그때 마침 뇌물을 좋아하는 유다가 있었기에 그를 통해 이 사역을 이루었을 뿐이다. 이는 아주 단순한 일이다! 예수가 처음에 사역할 때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일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에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는 예수가 결정한 것이자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유다를 택한 것은 예수가 한 일이고, 나중에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성령이 그 상황을 이용해 행한 사역이다. 예수가 유다를 택할 때는 그가 가룟 사람 유다라는 것만 알았을 뿐

자신을 팔 줄은 몰랐다. 너희의 결말 역시 지금 너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너희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창세 이래 정해 놓은 것’에 따라 너의 결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사역은 너의 상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호칭과 신분에 관하여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사역(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즉, 6천 년에 걸친 3단계 사역을 모두 알아야 한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도 네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성경은 무엇이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당시 했던 사역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가 성경의 실상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당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구약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들이 본 것은 전부 구약이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쓴 것이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려면 주로 성경의 실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 즉 여호와가 행한 사역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가 행한 사역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다. 그들은 이 두 단계 사역의 실상을 들어 보지 못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 현재의 성령 역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이 단계의 사역을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성령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높으며, 이 두 가지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네가 먼저 높은 것을 말한다면 그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이러한 성령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고, 이러한 사역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체험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낡은 것들이다. 어쩌다 성령 역사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들이 체험하는 것은 현재의 성령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지금의 뜻도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아 빠진 실행 방식에 따라 실행하며, 거기에는 새로운 빛도, 새로운 것도 전혀 없다.

예수 시대에 성령은 주로 예수에게 역사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되게 여호와를 섬겼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 다만 그들은 당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전의 낡은 실행 방식에 따라 여호와께 충성했을 뿐,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도가 없었다. 예수가 오면서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왔다. 성전 안에서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도와 새로운 사역이 없었으며, 성전

안에서의 섬김도 낡은 실행 방식들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전을 벗어나지 않은 그들에게 새로운 진입이 있을 리 만무했다. 새로운 사역은 예수가 가져왔으며, 또한 예수는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고 성전 밖에서만 사역했다. 하나님의 사역 범위가 진작에 바뀌어 더는 성전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기존의 상태만 유지할 뿐, 새 사역을 가져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종교 인사들도 예전과 다름없이 성경을 숭배하고 있다. 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는 너에게 성경 글귀를 들이밀 것이다. 또한 술한 근거를 찾아내 너를 어안이 병병하게 만들고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도 또 너에게 죄를 덮어씌우며 어리석은 신자라고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모르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라며 너를 깔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왜 당신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동방으로 영광을 가져왔다면, 어째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왜 또 모르는 겁니까? 당신들이 모른다는 건 그분이 알려 주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분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면 어째서 이러한 것들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와의 사역을 아시는데 그분은 왜 모릅니까?” 그들은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 이런 것뿐인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모두 따라왔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며, 이미 3단계의 사역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은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과거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한 사역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도,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달랐으나 호칭은 같았어요. 왜 그들의 신분은 다른 겁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상(異象)이었고, 마찬가지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하려는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요한의 신분은 예수님과 다른 거죠?”라고 물을 것이다. 예수가 한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요한이 본 것은 이상에 속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었다. 요한, 베드로, 바울이 많은 말을 했고,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들의 신분에는 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표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사역은 새 시대의 사역으로, 누구도 한 적이 없었던 사역이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가 대표한 것은 여호와이자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은 어떤 호칭으로 불렸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피조물의 신분을 대변하고 예수 또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보였을지라도, 그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고, 또한 예수나 여호와가 열어 준 시대 안에서 사역한 것이지, 그 밖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구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서를 썼으나,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가 사역하자 하나님의 영은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이제는 너도 알았을 것이다! 과거의 사도며 선지자들은 각종 서신을 쓰고 많은 예언을 했으나, 후세 사람들은 그중 일부만 선택하여 성경에 실었고, 또 일부는 소실되었다. 그들의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째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또한, 어째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고를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수의 말씀과 사역은 어째서 4복음서에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겠느냐? 그것은 기록한 자의 실수가 아니냐? 어떤 이는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쓴 서신과 행한 사역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의 관념이 섞여 있다면, 당신(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까? 사람의 관념이 조금도 없는 겁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이 단계의 사역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선지자들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다.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한 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매를 맞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후부터 성령에게 이끌려 사역하게 된 사람이다. 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가 교회들에 쓴 편지는 전부 예수의 가르침을 잇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올 때는 어떤 이름을 받들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대표해 사역한다. 하나님은 와서 곧바로 사역을 하지, 사람처럼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역하지 않는다. 이 단계의 사역은 개인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소유한 것에 따라 사역한다. 예를 들면, 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 죽음의 시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 등등의 이러한 사역은 전부 과거에 한 적이 없는 사역이자 현시대의 사역이며 사람의 체험이 아니다.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체험이더냐? 전부 직접 영에서 비롯된, 영의 말씀이 아니더냐? 네가 자질이 너무 부족해 명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말하는 실제적인 생명의 도는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여태껏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과거에는 누구도 이 길을 체험하지 못했으며, 누구도 이 실재를 알지 못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지 못했다. 이런 내적 상태를 짚어 이런 것들을 드러낸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오늘날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은 과거의 누구도 이끌지 못한 길이다. 만약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새로운 길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가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 길을 개척한 다음에야 예수가 한 말씀과 이끌어 준 길을 토대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서신들을 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 사람의 체험으로 얻은 인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내가 새 길을 이끌고, 새 사역을 하고 있으며, 요한과 여러 선지자들이 한 말이나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누차 이야기한다. 나는 먼저 체험하고 나서 너희에게 말해 주는 식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너희를 망치지 않았겠느냐? 과거의 많은 이들이 한 말도 인식 수준이 매우 높지만, 그들은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의 인식을 토대로 말한 것으로, 길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체험, 깨달음,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중에는 사람의 관념도 있고, 사람이 종합해 낸 경험도 있다. 현재 내 사역의 성질은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다른 이의 인도를 받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내가 말하고 교제하는 것은 누구와도 다르며, 여태까지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 누가 사역하든 모두 내 말의 기초 위에서 사역한다. 이러한 말씀이나 사역이 없다면 누가 이러한 것(봉사자의 시련, 형벌 시대...)들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인식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간파하지 못하겠단 말이나? 어느 단계의 사역이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너희는 나의 말에 따라 교제를 시작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사역하지, 너희 중 어떤 자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너는 이렇듯 간단명료한 문제를 간파하지 못했던 말이나? 누군가가 생각해 낸 길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사람을 기반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 개척한 길이다. 심지어 예수의 말씀 중 시대착오적인 것까지 많이 폐하였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역이며, 완전히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사역과 말은 모두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새 사역이 아니란 말이나? 당시 예수의 사역도 이러했다. 그가 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과도,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도 달랐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맞을까?’라며 감히 확정하지 못했다. 예수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와서 사람을 가르치며 한 말은 전부 새로운 것이었으며,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한 말과 달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 사람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너희 중 많은 이는 이

단계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두 과거의 영적인 사람들을 토대로 실행하고 진입하는 길을 갔다. 하지만 오늘날, 내가 하는 사역은 완전히 다르기에 너희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과거에 어떤 길을 갔는지, 누구의 ‘밥’을 먹었는지, 누구를 너의 ‘아버지’로 여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와서 새 사역으로 사람을 이끄는 이상,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 내가 한 말대로 해야 한다. 네가 어떤 ‘명문가의 자제’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실행 방식에 따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네 ‘양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고, 너는 마땅히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네가 얻어야 할 몫을 구해야 할 것이다! 네 모든 것은 전부 내 손안에 있으니 너는 네 ‘양아버지’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너를 완전히 주관하지 못한다. 오늘 하는 사역은 전부 새로운 가업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사람의 힘만으로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구제 불능의 눈먼 자이다!

이사야, 에스겔, 모세,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등은 이스라엘 선민의 지도자나 선지자였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느냐? 성령은 왜 그들을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예수가 사역하고 말씀하자 성령은 왜 그를 증거했겠느냐? 왜 다른 사람은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똑같이 사람이고 육신이며, 모두 주로 불렸다. 그들이 어떤 호칭으로 불렸든 간에 그의 사역은 그의 어떠함과 본질을 대변하고, 그의 어떠함과 본질은 그의 신분을 대변한다. 호칭은 그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 반면 그가 나타낸 것과 살아 낸 것으로 그의 본질을 대변한다. ‘주’로 불리는 것은 구약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어떻게 불리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과 원래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본래 사람이며, 다른 이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신분이 없다. 다윗도 열두 지파에서 주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 또한 주로 불렸다. 왜 예수만을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겠느냐? 예레미야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예수도 ‘인자’로 불리지 않았더냐?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을 대표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또한, 그들이 한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더냐? 그런 것이 호칭에 달려 있단 말이나? 예수도 인자로 불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정사를 메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이 점이 예수의 신분과 본질이 똑같이 인자로 불렸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늘날, 너희 중 누가 감히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어째서 에스라의 예언서와 옛 선지자들이 쓴 서적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너희는 어째서 감히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자격이 있느냐? 이밖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를 없애 버렸다. 네가 만약 과거에 기록된 그 책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일부 책들을 없애 버렸겠느냐? 모두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부 남겨 교회들에게 보내어 형제자매들이 보게 해야 하며, 사람의 생각을 섞어 함부로 취사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바울, 요한 등 사람들의 체험에 개인의 깨달음이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의 체험과 인식이 사탄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그들이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당시의 현실적인 체험 배경을 토대로 인식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만약 4복음서가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어째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당시 예수의 사역에 대해 한 말이 다 다르겠느냐? 못 믿겠다면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아라.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한 사실이 다 다르고, 각각 ‘특색’이 있다. 식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도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나 요한의 말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멀고 식견이 없는 자들이다! 4복음서를 잘 보아라. 예수가 마친 일, 예수가 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각기 다 다르고, 각자 자신의 견해가 있다. 만약 저자가 쓴 것이 전부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같고 일치해야지, 어째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느냐?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너의 그 인식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요한이나 누가의 기록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너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마태는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한 사역을 본 후에 개인의 인식을 말하고, 회고록처럼 예수가 사역한 사실의 일부를 기록했다. 너는 그들의 인식이 전부 성령의 계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 외에도 영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그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어째서 그것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냐? 그들도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아니더냐? 너는 오늘날의 사역이 예수가 행한 사역의 기초 위에 나 자신의 견해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역을 배경으로 삼아 나의 인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은 어떤 사역이냐? 내가 오늘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역이냐?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전례가 없던 것들이고, 오늘날 가는 길은 모두 옛사람들이 간 적이 없는 길이며, 역대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이다. 그것을 오늘날에 열었으니 영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과거에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의 사역은 성령 역사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른 이가 닦아 놓은 기초 위에서 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다르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도 마찬가지로 혼자 새로운 길을 열고, 세상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으며, 사람은 마땅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의 사역이 끝난 뒤, 베드로와 바울 등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한 다음, 그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설령 바울이 매우 높은 내용들을 말했다 해도 그것은 예수가 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내와 사랑, 고난받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세례받는 것, 또는 지켜야 할 다른 규례를 전하는 것 등등은 전부 예수가 한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열지는 못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예수는 말씀하거나 사역할 때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성경의 구약 율법의 사역대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은혜시대에 해야 할 사역에 따라 했을 뿐이다. 그는 그가 가져온 사역에 따라 행했고, 그의 계획에 따라 행했으며, 그의 직분에 따라 사역했을 뿐,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각 단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규례를 지키거나 일부러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교란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전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하는 사역의 특이점은 어떤 규례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닌 ‘실무가’로, 매우 실제적으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함으로써 그의 새로운 기원을 열고 새 사역을 시작했다. 물론, 예수의 사역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말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는 사역으로도 구약의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만 오늘은 너와 그 ‘오래된 책력’을 펼쳐 보면서 따지지 않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많고, 너희에게 해야 할 말도 많으며, 이러한 사역과 말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사역은 너희에게 그다지 큰 의미도, 가치도 없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거나 너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역을 할 것이며,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성육신 하나님이 크겠느냐, 아니면 옛 선지자들이 크겠느냐?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것이냐? 이 말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 당시 예수도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구약 성경을 보았다. 그가 세례를 받자 영이 본격적으로 ‘그의 위에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의 신분과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전까지는 마리아 외에 누구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 요한조차 몰랐다. 예수는 29세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끝나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이 그렇게 그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인 29세 전까지는 정상인의 생활을 했다. 식사해야 할 때 식사하고, 잠을 자고, 옷을 입는 등은 변함없었으며,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의 모습이다. 그에게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었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자라며 총명과 지혜도 많아졌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이 말은 단지 그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있었고,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고, 특이한 면이 전혀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시험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다음에는 직분을 이행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또한, 그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권병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거나 그의 몸에 성령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은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상인에게는 정상인의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이다. 성령은 항상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으며, 그가 강생할 때는 다른 사람과 달리 새벽 별이 나타났다. 또한, 그가 강생하기 전에는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해 주었다. 예수가 세례를 받자 성령도 역사하기 시작했을 뿐이지, 성령이 그때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고 한 것은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에 사역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영은 함부로 역사하지 않고 세례의 방식으로 그를 증거했다. 예수가 물속에서 나오자 영은 본격적으로 그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직분 이행과 구속 사역을 시작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즉, 은혜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원래의 육신 그대로였다. 다만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그의 신분을 나타냈을 뿐이다. 또한, 그는 권병과

능력으로 가득해졌다. 이것이 바로 예전과 다른 점이였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다. 즉, 지위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였다.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도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자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만약 성령이 증거하기 전에 예수가 엄청난 사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가 한 사역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증거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육신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성령이 증거한 후에도 그가 예전과 다름없이 사역했다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증거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내어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증거는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또한 그 증거가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한다. 성령이 증거하기 전에 한 사역과 이후에 한 사역이 같다면 성육신한 그의 직분은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도 두드러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한다. 눈에 띄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증거한 후에 성령의 증거를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그에게서 이전과 다르게 지혜와 권병을 나타내야 했다. 물론, 이는 세례의 효과가 아니었다. 세례는 그저 의식에 불과하며, 세례의 방식으로 그가 직분을 이행할 시간을 보여 준 것뿐이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성령은 성령의 증거를 끝까지 책임진다. 예수도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곳곳에서 설교를 듣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별 큰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지 않으면 전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사역을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본격적으로 ‘그의 위에 임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에게 사역할 능력과 권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세례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며,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 자신조차도 어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방해할 리가 없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었음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법칙이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그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그의 사역에 끼어들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초자연적이 아님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영의 안배에 어긋나지 않게, 순서와 절차에 따라 매우 정상적으로 사역한다. 그의 사역에 권병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단지 세례를 받은

후부터였다. 다시 말해, 성육신했다 해도 초자연적인 행동이나 일반인의 성장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진작부터 스스로의 신분을 알고, 세례받기 전부터 곳곳에서 큰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반인과 달리 비범함을 드러냈다면,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뿐더러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도 전개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착오가 생겼음을 말해 주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근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은 전부 세례를 받은 이후, 즉 3년 동안 행한 것이다. 성경에는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일반인을 대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사람들은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 예수는 29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한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초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가 열두 살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그를 찾으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당연히 조금도 특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의 특이함이 초자연적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저 다른 유치한 어린아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는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본질은 특이하고 남달랐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낀 시점은 세례를 받은 이후였다. 그는 33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성령이 그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할 것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32세 때는 실정을 조금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이 하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때가 되자 알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령이 그에게 행한 사역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정이 있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성육신한 인자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째서 그전에는 사역하지 않았겠느냐? 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가 이행할 직분을 말해 준 후에야 근심하며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어째서 그는 요한이 그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후에야 비로소 전에 몰랐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이 하는 사역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도달하기까지 전부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기엔 영이 직접 역사하는 것과는 달랐다.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맞물려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길을 닦는 사람이 없었다면 뒤에 온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뒤에 올 사람이 있었으니 길을 닦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사역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전해 내려오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어질 수 있었다. 길을 여는 자가 없다면 사역은 전개될 수 없고, 하나님은 사역을 계속 앞으로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단계든 어긋나지 않고 전부 순서대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한 분의 영이 하는 일이다. 하지만 길을 연 자든, 길을 이은 자든, 결코 신분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요한은 길을 열었고 예수는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신분이 요한의 신분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와는 예수보다 먼저 역사했다. 그렇다고 여호와가 예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길을 닦거나 잇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의 본질과 대변하는 신분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려는 이상, 그는 반드시 길을 닦는 사람을 일으켜 사역하게 해야 했다. 요한은 처음에 전도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쳤다. 그는 처음부터 이 도를 전했다. 왜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을 한 전후를 따지자면 요한이 먼저 천국의 복음을 말했고, 그다음에 예수가 말했다.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요한이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그가 예수보다 당연히 커야 한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통해 길을 열고 주의 길을 예비했을 뿐이다. 그는 예수를 위해 길을 닦았지만, 예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의 사역 또한 전부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여호와가 길을 이끈 시대였다. 여호와의 사역은 구약의 모든 시대를 대변하며, 이스라엘에서 행한 모든 사역을 대표한다. 모세는 그저 땅에서 그 사역을 지켰을 뿐이다. 그의 사역은 인성 협력에 속한다. 당시 여호와는 음성을 발해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모세를 일으켰으며, 모세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가 친히 지시한 일이지, 모세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 불릴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율법도 정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여호와가 친히 반포한 것으로, 단지 모세에게 전하게 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계명을 정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 시대의 계명을 정했다.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이는 같은 맥락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모세가 한 사역은 시대를 대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길을 연 것도 아니었다. 여호와가 앞에서 길을 이끌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한 것이었다. 그는 그저 쓰임 받는 사람에 불과했다. 예수가 왔을 때, 요한은 이미 길을 닦는 단계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성령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와서 바로 그 자신의 사역을 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어째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겠느냐? 예수는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 자신이겠느냐? 당시 예수가 했던 사역이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었고, 또한 전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의 사역과 예언들도 직접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묵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말씀도, 매우 많은 예언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높은 도를 전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요한이나 이사야, 다윗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다윗 신이나 요한 신이라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의 증거와 그가 담당한 사역, 그리고 그가 이행한 직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나아가 요한과 예수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이 행한 사역을 통해 너는 누가 하나님 자신이고, 누가 선지자에 속하고, 누가 사도에 속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 자신인지는 그들이 행한 사역의 본질과 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확정된다. 네가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하나님인 이유가 그렇게 많은 말씀과 사역을 하고 더욱이 수많은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라면, 요한도 그렇게 많은 일과 많은 말을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못하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저 피조물이라고 불리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과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모세도 그렇게 많은 말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겠죠?”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은 왜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으면서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한 사역이 크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크니까? 사람이 보기에 요한이 한 사역이 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을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라고 반문하여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직접 이끌었다. 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한 사역이다. 모세에게는 그런 영광과 어려움이 없었고, 그는 그 사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일과 예수가 한 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행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사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지는 사역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의문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뿜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역대로 수많은 큰 인물들이 성경을 해석했다고 해서 너는 그들을 전부 어린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해석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저 성경 해석가일 뿐, 그들에게는 어린양의 신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일곱 인을 뿜 수 있겠느냐? ‘어린양만이 일곱 인을 뿜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일곱 인을 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 사역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며, 하는 김에 곁들여 하는 사역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톡톡히 알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굳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6천 년 사역에 굳이 ‘어린양이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를 더해야겠느냐? 그는 새 사역을 하기 위해 왔다. 다만 과거의 사역에 대해 조금 풀어 주어 사람이 6천 년 사역의 실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구태여 많은 성경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하는 사역이다. 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곱 인을 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예수가 말세에 강림한다는 것만 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겠느냐? 너희처럼 이제 막 속량되어 변화의 과정과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너같이 고루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네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겠느냐? 네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강림에 함께하기를 원하니,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에는 한 단계의 과정이 빠졌다. 너는 그저 속량되었을 뿐, 변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속량만 될 뿐, 성결해질 수는 없다. 그리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에서 한 단계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속량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단계의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대단한 전도자, 설교자, 성경 해석가, 그리고 소위 영적인 위인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이 단계의 새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낡아 빠진 것들이 아니겠느냐? 보좌에 오르거나 왕의 분량을 예비하는 것, 자신을 버리거나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인내하거나 모든 일에서 공과를 배우는 것, 겸손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전부 케케묵은 말들의 반복이 아니더냐? 이는 끝만 바꾸는 것일 뿐 속은 그대로이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떡을 떼거나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 무슨 새로운 사역이 있겠느냐? 무슨 발전성이 있겠느냐? 이대로 이끌다 보면 너는 죽어라 규례를 지키거나, 여태까지 해 온 대로만 계속 행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역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전부 고대의 ‘노인’이 물려준 유전이자 유훈임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말과 행동은 전부 노인들의 유언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더냐? 노인들이 임종 때 남긴 당부가 아니더냐? 너는 너희가 하는 일이 역대의 사도, 선지자, 심지어 만유를 뛰어넘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이 단계 사역은 시작되자마자, 위트니스 리를 숭상하며 ‘보좌에 앉아 왕 노릇 하기를 추구하던’ 너희의 작업을 제지시키고, 너희의 기를 죽여 놓았으며, 사람이 이 단계의 사역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너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구제 불능이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낡아 빠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다행히 현재의 사역이 너희를 끌어왔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디로 갔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너는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단 말이나? 어째서 항상 낡아 빠진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성령의 현재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온전케 된 사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사실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조상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심판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고 사람에게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계속되는 심판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 모든 심판은 사람의 운명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여 사람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사람은 인생과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알게 되며, 사탄이 패괴시킨 인류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렇게 형벌하고 심판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를 수 있고, 사람의 영을 불러 깨울 수도 있다. 이런 심판의 목적은 아주 깊이 패괴되고 가장 심하게 속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깨우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영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이 이미 오래전에 죽어 하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며, 더욱이 자신이 죽음의 나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자신의 썩은 시체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죽음의 음부에 떨어진 존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상 만물이 이미 인류에 의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오늘날, 창조주가 땅에 와서 구원 가능한 파괴된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온갖 연단과 심판을 겪었지만 사람은 시종일관 무감각하여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사람은 너무도 타락하였다! 이러한 심판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자비한 우박과도 같겠지만 사람에게에는 가장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고해의 심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을 음부에서 건져 내기 힘들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사람의 영이 사탄에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극도로 타락한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온 힘을 다해 불러 깨우고 심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차디찬 너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다.

너희의 욕, 사치스러운 욕망, 탐욕, 정욕이 너희 몸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너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어 너희는 이 봉건적이고 타락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다. 너희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너희는 이 같은 인생이 고통스럽기 그지없고 이런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삶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다. 그저 이런 실생활에서 벗어나고 영혼을 제도(濟度)하여 하늘나라같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너희는 고생을 겪으며 자신의 현재 삶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이러한 심판과 형벌 속에서 자신이 진입해야 할 인생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육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실제적이지 못한 공상만 품고 있다. 너희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동경한다.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육체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는 것도, 진리를 얻는 삶을 살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진리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 굳게 서는 것이 찬란한 인생이라 생각지 않으며, 그런 인생이 빛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 여기지 않는다. 너희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비록 지금 너희가 이 형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살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육체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너희는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서지 않으며, 더욱이 진리를 위해 살지도 않는다. 너희는

지금 진입할 것을 추구하지 않고, ‘먼 훗날’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괴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가는 하늘에 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너희는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늘 구주가 큰 자비를 베풀어 언젠가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를 데려갈 것이며, 틀림없이 억압을 당한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너의 죄가 적단 말이나? 하늘 아래 고통받는 이가 어찌 너 하나뿐이겠느냐? 너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줘야 한단 말이나?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의 좋은 행위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 그렇다고 너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좋은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압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자도 형벌을 받지 않았더냐? 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께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복수해 주고, 너를 출세하게 해 달라고만 할 뿐, 진리를 거들떠보지 않고 진리를 살아 내길 갈망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통스럽고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에 빠진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원한을 풀어 주고 네 앞에 드리운 길은 안개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너에게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진리를 살아 내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겪은 자들을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 주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사탄의 속임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 주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선함이 있겠느냐? 오로지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어떻게 의로움이 있겠느냐? 선함과 의로움은 모두 진리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니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썩은 시체를 가진 자는 모두 악을 품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진리의 원수가 아니냐? 너희들은 또 어떠하냐?

네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날 수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 거룩해질 수 있다면 너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본성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욕을 저버릴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된 사람이 갖춘 모습이다. 정복 사역을 하는 주목적은 사람을 정결케 하여 진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가장 의의 있다. 너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떨어졌고 게다가 심각한 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너희가 사람의 본성을 깨달아 진리를 살아 내게 하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 단계에서 온전케 하는 사역만 한다면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국가의 사람에게 하든 상관없지만, 정복 사역을 하려면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정복 사역의 첫 단계는 단기적인 것이고, 이를 통해 사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전 우주를 정복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정복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온전케 될 수 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이 오랜 시간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복되는 것은 다르다. 정복 대상의 표본, 모형은 반드시 가장 뒤처지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가장 미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거역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만이 정복된 간증을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은 주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정복된 간증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복 사역을 이곳에서, 너희에게 하게 되었다. 이는 정복된 간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정복된 사람을 통해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한다. 정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형벌, 심판, 저주, 폭로인데 공의로운 성품으로 사람을 정복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의 실제와 말씀의 권병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정복되는 것이다. 온전케 된 사람은 정복된 후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사역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품이 변화되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며, 진리를 충분히 갖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줄 알며,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자신만의 굳센 의지가 있다.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체험을 통해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생긴 사람이고, 정복된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의 참뜻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정복된 후 사람이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순종은 심판을 통해 얻은 성과이다. 그러나 많은 진리의 참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진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기만 할 뿐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에는 형벌도 있고 심판도 있으며 생명 공급도 따른다. 진리 진입을 중시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사람이다. 온전케 된 사람과 정복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진리에 진입했는지에 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하고, 진리를 살아 낸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정복된 사람인 것이다. 만약 정복된 사람이 진리를 찾지 않고, 따르고는 있지만 진리를 살아 내지 못하고, 진리를 듣고 보기만 하고 진리를 살아 내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온전케 된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경로 중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진리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여 온전케 된 것이다. 정복 사역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따라온 자는 정복된 자라 할 수는 있지만 온전케 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온전케 된 사람이란 정복 사역이 끝난 후에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이며, 정복 사역이 끝난 후 환난에서 굳건히 서고 진리를 살아 낸 사람이다. 정복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사역의 절차 및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진입한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 즉 진리가 없는 자는 결국 도태될 것이다.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살아 낸 자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베드로처럼 사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복된 사람이다. 정복된 자에게는 저주, 형벌, 진노의 사역을 하고, 공의와 저주가 임하게 하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면의 패괴 성품을 들추어내어 스스로 알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만든다.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정복 사역은 끝이 난다. 설령 대부분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더라도 정복 사역은 끝이 난다.

온전케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 너의 의지, 끈기, 양심 또 너의 추구를 통해 생명 체험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네가 진입해야 하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길에 필요한 요건이다. 누구나 온전케 하는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온전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온전케 될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며, 여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 온전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로 사람의 추구에 달려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살아 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온전케 하는 사역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 아니다. 반면 정복 사역은 단지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것이 주요한 사역이며, 전례 없는 가장 새로운 사역이다. 이번 사역의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다. 육신의 사역 기간 동안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혜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다. 사람을 얻는 것은 육신으로 거할 때 추가적으로 했던 사역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했던 사역이다. 예수가 사역하러 온 주요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음의 속박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 즉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점차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예수가 사역하는 시기에 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하나였으나 그때는 온전케 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사역을 끝낸 후에 조금씩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온전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단기간 내에 핵심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일 뿐,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완전히 온전케 된 뒤에 사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가 성육신한 목적도 의의도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단기적인 사역을 할 뿐이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나긴 사역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을 그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에 말씀한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따로 사도를 일으켜 오랜 시간 목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의 도를 말씀하여 사람이 깨닫게 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공급할 뿐이지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는 동안 계속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진리를 완전히 얻는 날까지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 온전케 되는 정상 궤도에 올랐을 때는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이 끝나는 때이다. 물론 이때는 그가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세상을 이긴 때이다. 이때에 그는 사람이 진리에 진입했는지, 사람의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의 육신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해야 하는 사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만 완수하고 육신의 사역을 끝낸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뿐이며, 장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단기간의 구원 사역을 한다.

너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내 사역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너희의 자질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온전케 하는 사역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에게 추가적으로 하는 사역이다. 지금 너희에게 하는 사역은 너희의 필요에 따라 한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온전케 될 모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길은 아니다. 다만 너희가 과거에 온전케 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질이 부족한 관계로 너희에게 이 사역을 하는 데에 막히는 부분이 하도 많기 때문이다. 온전케 할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사역을 하기 위해 땅에 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사람의 가정사와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그의 소관도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자질이 내가 원래 요구했던 자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반드시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데, 너희의 지식수준이 너무나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기본 지식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별도의 사역이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반드시 갖추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너희가 온전케 되는 데에 이로운 것이다. 사실 지식수준, 사람됨의 기본 상식, 생활 상식은 너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말해 줄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채워 주기 위한 사역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너희가 나에 대해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질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일부러 이 사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사역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심판으로써 너희를 진심으로 탄복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너희가 진입해야 하는 생명의 도를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말씀으로 너희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지식수준이 어떠한든, 생활 상식이 있든 없든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정복 사역의 성과와 앞으로 온전케 될 것을 위해 추가한 것일 뿐, 정복 사역에 포함된 절차는 아니다. 지금 너희는 자질이 부족한 데다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어리석고 무디며 미련하기까지 하여 너무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자질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마음과 생각이 맑아야 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해야 한다. 만약 네가 공허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모든 일을 다 참답게 대하는 사람, 매우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너는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하는 이런 사역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정복한 후에는 한 무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역도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예비하는 것이다.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에게 정복의 사역만 하고 끝이 난다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의 사역은 앞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나는 정복하는 사역만 하지만 내가 말하는 생명의 도는 앞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예비하는 것이다. 정복 이후 사역의 중심은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정복 역시 온전케 하기 위해 기초를 닦는 것이다. 사람은 정복된 후에야 온전케 될 수 있다. 지금은 정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는 진리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람의 적극적인 진입, 즉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길을 가면서 어느 정도로 체험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결한지,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실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으로서의 상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정복된 후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은 봉사만 하는

존재이며, 결국에는 유황불 못에 떨어지고 무저갱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성품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사용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자 도구에 불과하며 불의 시련을 통과할 수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느냐? 사탄을 도대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너희의 의지는 굳건해졌느냐? 사람으로서의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삶이 변화되었느냐? 새로운 삶이 생겼느냐? 인생관에 변화가 있느냐?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설령 네가 물러가지 않는다 해도 정복만 되었을 뿐 온전케 될 수는 없다. 이후에 너를 검증할 때, 네가 진리를 갖추지 못했고, 인간성도 비정상적인 데다가 짐승처럼 미천하다면 너는 정복만 되었을 뿐이고 정복 대상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해 주인을 보면 두려워 감히 성질을 부리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정복된 나귀이다. 만약 사람이 적극적인 면이 없이 소극적으로 두려움만 갖거나, 모든 일에서 우유부단하고 어떤 일도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또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나 실행 길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네가 아무 가치 없이 사는, 그저 정복된 나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복되었다는 것은 그저 네가 큰 붉은 용을 저버릴 수 있고, 그것의 권세에 굴복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아무런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일 뿐이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다면 네가 하나님께 얻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너는 그저 정복된 나귀에 불과하다. 너에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인간성도 결핍하다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이방의 짐승이나 산송장보다 백배는 우월해야 한다. 그 정도가 된 사람이어야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인간성과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너희가 온전케 되면 그때야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온전케 된 사람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만이 더 힘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지위의 복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모압의 후손은 온전케 될 수 없고 온전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윗의 자손이라면 분명 온전케 될 희망이 있다고 보지만 모압의 후손이라면 온전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에게 이 사역을 하는 의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너희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여 마음에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왜 하필 가장 가치 없는 너희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택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설마 이 사역이 잘못되기라도 했느냐? 순간의 경솔한 판단으로 하게 된 것이란 말이나? 어째서 너희가 모압의 자손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이 아닌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 사역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아무렴 하나님이 생각 없이 사역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하겠느냐? 설마 처음에 너희가 모압의 후손임을 몰랐겠느냐? 너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줄 모른단 말이나? 너희의 ‘관념’은 어디로 갔느냐? 너희의 그 건전한 생각이 균형을 잃었느냐? 너희의 총명함과 지혜는 어디로 갔느냐? 너희가 도량이 넓어서 이런 작은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머리는 앞날이나 운명 같은 것에는 가장 예민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일에는 모두 무감각하고 우둔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앞날이나, 아니면 하나님이나? 네가 믿는 것은 너의 아름다운 종착지가 아니냐? 너의 앞날이 아니냐? 너는 지금 생명의 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얻었느냐? 너는 오늘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하는 것이 너희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부러 너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부러 너희가 형벌을 받게 한 다음 너희를 불 못에 던져 넣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앞날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너희를 멸하고 침륜시킬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느냐? 희망이 없다는 네 말은 너 스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냐? 너의 정신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너 스스로 규정한 것이 효력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멸망의 대상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면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너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뿐, 멸망할 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모압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으며, 패괴된 인류 중의 한 부류일 뿐이다. 예전에 죄에 대해 말했는데 너희가 모두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 죄인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이 아니냐? 죄인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받을 자가 아니냐? 죄인은 모두

멸망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는 자신이 모압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만, 너희도 죄인에 속하는 인류가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겠느냐?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자 너희는 기뻐했고, 큰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환난에서 나온 이긴 자가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자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압에 대해 말하자 너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몹시 괴로워하고 마음이 씹쓸해했으며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했다. 너희는 이 사역을 모압의 후손에게 행하는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높은 지위만을 추구하며, 희망이 없겠다 싶으면 뒷걸음치고, 온전케 되는 것과 훗날의 종착지에 대해 말하면 기뻐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지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신분과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에 온전케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그전에 말했던 온전케 되는 길을 부인했다. 너희가 처음부터 줄곧 이 사역을 하는 의의도 모르고 이 사역의 의의에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분량이 너무 작아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자기의 신분이 너무 낮다는 사실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추구하려는 믿음도 사라졌다. 사람은 그저 은혜를 받는 것과 평안 누리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징으로 삼고, 복받으려는 신념을 하나님을 믿는 근본으로 여길 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적합한 종착지와 무궁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언제든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이 없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라는 성경의 말처럼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 무조건 다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한 구주 예수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사람을 심판하지도 훈계하지도 말 것을 요구한다. 사람이 믿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거역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또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빛을 독촉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항 없이 사람에게 ‘빛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곱절로 갚아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있든 없든 그저 사람이 지배하는 대로 따라야 할 뿐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감추어 온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운 성품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사람에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싫어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키기만 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도망치려 하고,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붓는다. 너희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기묘함을 나타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일시적인 안락만 탐할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점에 머물러 있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위엄을 드러내면 싫어한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분량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보았느냐? 너희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 사실 너희의 낡은 관점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달하지만, 작은 일만 생겨도 음부까지 추락해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마지막 정복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한다면 정복 사역은 무의미해진다. 이 나라의 너희들에게 해야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이 된다. 너희는 가장 비천하고 또 가장 지위가 낮은 인류다. 너희는 이 사회의 최하층 사람이고, 처음에 하나님을 가장 부인했던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류이며, 매우 심한 해를 입은 인류다. 이 단계 사역은 그저 정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희를 선택해 훗날 증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정복의 시작 사역을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그 후의 정복 사역을 펼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 후의 정복 사역은 오늘날 하는 사역의 사실을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복 사역은 그저 모든 정복 사역의 시작이며, 너희는 정복되는 첫 무리이고 정복될 전 인류의 대표이다.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아주 좋은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패역을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너희의 신분도 밝혀 주었다. 그가 말씀하는 목적과 의의는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이 이런 말씀을 통해 계시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그가 한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깨우는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줄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다. 이들이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나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렇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압의 후손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압의 후손인 걸 어찌겠어요? 지난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으니 어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렇게 형벌받아도 마땅해요.” 이런 말이 옳으냐?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은 너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 모두 너 자신을 알게 하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더욱이 너의 몸값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롭고 그의 성품에 따라 한 것이며, 그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자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네가 만약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것과 자신이 패괴되었고 패역하다는 것만 알 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체험할 수 없고 계속 나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거나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6천 년 경륜이 끝나기 전, 즉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온전케 하여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든, 그것은 모두 사람에게 있는 사탄의 옛 성품을 벗어 버리게 함으로써 즉, 사람이 생명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형벌이나 심판, 저주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고, 더욱이 위로의 말씀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무궁한 축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감동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원은 거래적인 구원일 뿐이다. 하나님이 백배로 주는 전제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이름을 빛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친히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모든 긍휼과 자비를 다 베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사탄에게 넘겨줌으로써 전 인류와 맞바꾸는 것이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너희를 구원함에

있어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마지막 때이므로 공홀과 자비가 아닌 형벌과 심판의 방식으로 더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한다. 따라서 너희는 형벌, 심판, 무자비한 매질만 받게 된다. 하지만 너희는 그 무자비한 매질 속에 징벌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아무리 엄할지라도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그저 무정해 보이는 말들뿐이며, 나의 분노가 아무리 클지라도 너희가 받는 것은 여전히 꾸짖는 말일 뿐, 너희를 해치려는 뜻도, 너희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뜻도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냐?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의 공의로운 심판이나 무자비한 연단과 형벌은 모두 구원을 위한 것이고, 지금 각기 부류대로 나누려고 하든 아니면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든, 모든 말씀과 사역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의로운 심판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무자비한 연단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엄한 말씀이나 채찍질은 모두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구원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의로운 심판은 너희의 구원이 되었고, 너희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었으며, 무자비한 형벌은 너희의 크나큰 구원이 되었다. 이런 형벌과 심판 앞에서 너희가 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줄곧 누려 온 것이 모두 구원이 아니냐? 너희는 성육신 하나님의 육신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과 지혜를 알았고, 더욱이 매질과 징계도 여러 번 겪었지만 또 지극히 큰 은혜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느 누구보다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징벌하러 왔다면 너희의 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겠느냐? 죄에 속하는 육적인 너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 단순히 너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성육신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너희 같은 무명소졸을 징벌하러 한다면 말 한 마디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굳이 너희를 정죄한 뒤에 멸망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공홀과 자비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나? 공의로운 성품이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사람을 더욱 온전히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한 말이 엄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에는 모두 구원이다. 나는 말만 했을 뿐 사람의 육체를 징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모두 빛 속에서 살고 빛의 존재를 인식하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매우 이롭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곧 구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형벌과 심판의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에게 사실로 닥치지는 않았다. 나는 사역을 하러 온 것이고 또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말이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모두 너희의 패괴와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 역시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엄한 것은 사역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패역한 성품을 벗어 버릴 수 있다. 말씀 사역의 가장 큰 의의는 사람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리를 실천해 성품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것에 있다. 말씀하는 사역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진리를 천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람이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는 데 말씀 사역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와 비밀을 사람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에게서 참도와 생명을 얻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사람을 징벌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는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하지 않고 각 부류 사람들의 종착지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다 한 후에야 상선벌악의 사역을 하고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을 드러낸다. 징벌받는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에 하나님은 구원 가능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구원한다. 그의 사역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성품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는 모두 징벌받을 대상이 된다. 이 단계의 말씀 사역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도를 모두 사람들에게 열어 주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 성품 변화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사역할 뿐 사람이 조금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거역한다고 해서 사람을 징벌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모조리 징벌받아 음부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목적은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 사역을 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은 거역과 대적,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일일이 징벌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패괴된 사람들만 버리는데, 그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줄 것이며 어떤

경우는 육체를 없애 버릴 것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 따르면서 책망과 훈계를 겪게 될 것인데, 따르는 기간 동안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말씀으로 정복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있어 최대한 너그럽게 대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즉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기회를 줄 것이다.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구원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여지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쉽게 징벌하지 않는 것은 구원 가능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할 뿐, 형벌의 막대기로 치지는 않는다.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사역의 목적과 의의이다.

하나님을 ‘관념’으로 규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지만 사역 방식은 부단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더 전반적으로 알게 되고,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그릇되고 망령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항상 새롭기 때문이다. 그는 옛 사역을 반복하지 않으며, 과거에 한 적 없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사역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가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많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사람에게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보수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면서 규정하기까지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잃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명도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축복은 더욱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고정불변한 것이며,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을 그저 율법 아래의 하나님,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을 낳은 율법과 죽은 규례에 단단히 못 박아 놓았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 예언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새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 가뜰이나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릇된 마음과 스스로를 높이는 패역한 본성까지 지녔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자세히 살피거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만 기다린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예수의 사역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도 은혜시대에 여호와의 사역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했다. 율법시대만 있고 은혜시대가 없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전 인류를 속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율법시대만 있었다면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역사(歷史)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역사(歷史)는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법칙이 아니냐? 온 우주에서 행한 인류 경영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듯 하나님의 사역도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 역시 계속 바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사역을 6천 년이나 지속하지 않는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사역을 줄곧 이어 나가며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사람의 인식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제나 새롭다.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그 핵심은 ‘새롭다’와 ‘놀랍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라는 말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지 사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도 그의 본질처럼 영원불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영원불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 또한 부단히 사람에게 나타나고 공개된다. 한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성품이 변화하고, 인식도 변화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느냐? 부단히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사람의 성품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사역과 내 말의 끊임없는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말이냐? 반드시 사람에게 제한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억지가 아니겠느냐?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했다. 너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지금 너는 그의 능력을 입었느냐? 능력이란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예수는 말세에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이다. 너는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디에 나타나 사역하는지 아느냐?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만 했지 신약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강생할 것이라는 말은 없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 구약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너는 왜 예수를 믿었느냐? 설마 예수를 보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면 계시라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그 정도로 은혜롭게 대해 주었던 말이냐? 너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렸단 말이냐? 너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럼 오늘날의 성육신은 왜 믿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리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사역할 때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알려야 하느냐? 반드시 사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느냐? 이사야는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고 말했을 뿐,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하지 않았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겠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왔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느냐? 이는 이미 했던 사역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새로운 사역을 하면 안 된단 말이냐? 과거의 사역도 바뀌었다. 여호와의 사역은 예수가 이어 갔건만, 예수의 사역은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없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뀔 수 있으면 예수의 이름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머리가 너무 단순한 탓에 그렇게 느낄 뿐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다. 그의 사역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든, 그의 성품과 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식견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너는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예수로 불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율법시대도 끝내고 마지막 시대도 끝내는 이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은혜가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너 자신마저 서지 못할 것이다. 반면, 앞으로 네가 종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그들의 그릇된 논리도 전부 반박할 수 있다면, 이는 네가 이 단계의 사역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가 그들의 그릇된 논리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너를 모함하고 비방할 것이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지난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보았으므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예수를 핍박했겠느냐? 패역한 본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겠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속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고, 오늘날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본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너는 성령의 역사라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면 ‘흐름’이 옳은 것이니 고르거나 선택하지 말고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식견을 넓히려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품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나에 대한 더 많은 근거를 찾아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설사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완전히 내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런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네가 나를 알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해 주지도 못한다. 성경에는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했기에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예수는 완전히 다르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시 예수는 은혜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등등 은혜시대의 도만 가르쳤다. 즉, 예수는 은혜시대의 사역을 한 것이다. 예수는 당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는 은혜시대의 사역만 했을 뿐, 말세의 사역은 하지 않았다. 율법시대에 여호와와 구약 율법을 제정하고 왜 은혜시대의 사역은 하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은혜시대의 사역을 미리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와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여 정사를 뿜

것이라는 예언만 했을 뿐, 은혜시대의 사역을 앞당겨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시대의 사역은 다 일정한 범위가 있다. 그는 해당 시대의 사역만 할 뿐, 다음 단계의 사역을 미리 하지는 않는다. 그래야만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역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그 당시 예수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하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말했다. 말세의 사람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추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는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네가 성경만 받쳐 든다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성경 해석가나 설교자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오늘날 너희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는 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곧 성령이며,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한 말씀이다. 많은 그릇된 자들은 성령의 말씀이라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람이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실, 성령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한 말씀을 가리킨다. 성령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시대에도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사역하려면 반드시 성육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여기면서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모두 막연한 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영원히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한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고 역사하기만을 바라며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한 사역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번째 성육신하였을 때도 사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겠느냐? 또 어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한들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느냐? 그러한 추구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 아니냐? 또한 기만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실제 의미는 무엇이나? 너는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볼 수 있느냐?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기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추구에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지만, 사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네가 추구하는 것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네 고정 관념 속에만 있는 ‘만유 가운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은 조금 막연하게 말하면 사탄이고,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너 자신이다. 너는 너 자신의 지기가 되기를 추구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지기가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독이 아니냐? 그런 추구에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생명의 영일 뿐이다. 그 영은 형상이 없고, 비물질적이며, 사람이 다가설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다. 비물질적이고 기묘하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영을 사람이 어떻게 지기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는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느냐? 이는 성립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릇된 이론이다.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원래 같은 부류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체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창조된 사람은 아예 그의 지기가 될 자격도, 그의 지기가 될 방법도 없다. 어찌면 경건한 신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의 지기가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멍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류’가 아니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할’ 뿐, 보이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추구하기 쉽고,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 있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얻을 수 없다. 막연한 것은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이며, 또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에 온 분이 위대하고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그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가 사역만 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접촉하지 않거나 그에게 정상 인성이 아예 없다면, 보통 사람은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와 접촉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지닌’ 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함께 생활한 덕분에 차츰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때문만이 아니라, 성육신한 그의 실체와 정상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참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가 아니냐? 너는 아직도 하늘의 하나님의 지기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야만, 즉 성육신해야만 사람이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고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본래 영이다. 그토록 위대하고 측량하기도 어려운 존재일진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자격이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임하고 사람과 같은 외형을 갖춘 피조물이 되어야만, 사람은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에게 실제로 얻어질 수 있다. 그는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역하면서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환난을 같이 겪는다. 또한 같은 세계에 살면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모두가 정결케 되고 그의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한다. 사람은 이런 것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실제적이다. 사람이 그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공허한 이치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여전히 막연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사역의 실체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글귀에 얽매인 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세대니, 하나님의 지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대와 모형이니, 베드로의 풍격이니 이런 새로운 용어에 대해 실제에 진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막연함 속에서 추구하고 글귀 속에서 모색하다 보니 이런 말씀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였기에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을 네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지만 아직 그의 지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영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세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다 공허한 글귀가 아니냐? 너는 영을 볼 수 있고 영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모두 빈말이 아니냐? 그런 용어들을 너희가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그런 것을 말한다면 너의 입과 욕망, 그리고 너의 비현실적인 꿈과 너 자신의 관념, 생각만 충족시킬 뿐이다. 네가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지기가 사람이니 하나님도 사람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고, 사람이 된 것이다. 오직 같은 부류만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기라고 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영이라면,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너의 사람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현실을 마주해야지 허무맹랑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의미까지 없어진다. 너의 추구하고 인생은 그저 허망함과 기만 속에서 덧없이 흘러갈 뿐이고, 네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진리와 무관한 그릇된 이치밖에 얻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너를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할 뿐, 네가 생존하는 의미나 가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되면 너의 일생은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는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짐승이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은 추구하지 않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만 숭배한다면, 이것은 더욱 헛된 추구가 아니냐? 네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 잿더미로 변할 텐데, 그런 추구가 너에게 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들만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런 것은 신묘하기 그지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우며, 평범한 사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분석하며, 만사를 제쳐 두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는 망상까지 한다. 또한, 그런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더 자세히 생각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치밀하게 구상하기까지 한다. 이와 반대로, 현실적인 것일수록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심지어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에까지 한다. 오늘날 행하는 나의 현실적인 사역에 대한 너희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것일수록 너희는 더 경시하고, 그것을 알아볼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으며, 아예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는다. 너희는 기준이 낮은 이런 현실적 요구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념에 사로잡혀 그의 실재와 정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은 모두 막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전의 막연한 하나님은 그토록 굳게 믿었으면서도 오늘날의 실재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것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냐? 어제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이 숭배하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땅에서 탄생한 실제적인 육신이기 때문이 아니냐? 결국, 오늘날의 하나님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또 난감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난처하게 하고, 또 일부러 자신들의 허물만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래서 현실을 추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냐? 이전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너는 단지 종교인이거나 경건한 신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육신한 후, 경건했던 많은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적그리스도가 되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원인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진리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공허한 것에만 매달렸다. 이것이 바로 네가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장 뚜렷한 원인이 아니냐? 성육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믿고 사랑하는 분이 정말 육신에 거하는 이 하나님이 맞느냐? 현실을 가장 중요시하고 ‘유달리’ 정상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이 맞느냐? 네가 추구하는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나? 하늘이나, 아니면 땅이나? 관념이나, 아니면 진리냐? 하나님이나, 아니면 신선이냐? 사실, 진리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인류의 최고 인생 격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행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격언은 종합해 낸 것도 아니고 위인의 명언도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인류에게 발한 음성이다. 또한 사람이 이것저것 종합해서 생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인생 격언’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리 실행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요구’의 본질은 가장 현실적인 진리이지, 그 누구도 이를 수 없는 공허한 이치가 아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에 이치만 넘쳐 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면, 너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는 진리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 실체가 없는 이 사람들은 모두 진리를 배반한 자이자 패역한 천성을 가진 자이다!

네가 어떻게 추구하든, 먼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을 이해해야 하고, 그 사역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가져왔는지, 어떤 성품을 지녔고 사람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행하는 사역을 전혀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뜻을 찾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의 지기가 될 수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의 지기가 되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하지도 않다. 명확히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복잡하지 않겠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면 무척 어렵고, 또한 막연한 것만 추구하기 쉽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서야 할 입장도 없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진리도 모른다면, 토대가 없어 똑바로 서기가 어렵다.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애증이 분명치 못한 자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은 모두 서기 어렵다. 하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말씀한 원칙을 아는 것이다. 또한 대세를 따르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에 원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깨우쳐 준 원래의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는 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좌로 치우치고 내일은 우로 치우치다가 결국 실제적인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너의 생명에도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늘 남들을 따라 하기 좋아한다. 남들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기도 성령의 역사라고 따라 말하고, 남들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신도 덩달아 의심하거나 악령의 역사라고 한다. 언제나 부화뇌동하고,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며, 주관이 전혀 없다. 이들은 좇대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자들로, 무지렁이나 다름없다! 너는 언제나 남들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어느 날 또 누군가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하면, 너 역시 꺾어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할지도 모른다. 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의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너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분별이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 아니냐? 어느 날, 또 어떤 멍청한 자가 뜬금없이 그것을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너는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남의 말에 구애받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너를 방해할 때마다 너는 입장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데, 이는 너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체험과 인식이 필요하다. 일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역사를 얻어야 한다. 너에게 체험이 있으면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 정의와 사악, 육에 속하는 것과 진리에 속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길을 잃고 헤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실제 분량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 자신에게 추구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참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과연 그것이 참도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가늠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참도를 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그 도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그 말씀에 진리의 선포가 있는지, 누구를 증거하였는지,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참도와 거짓 도를 분별하려면 몇 가지 방면의 상식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을 믿는 이유도 그 육신이 하나님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 믿는 것은 역시 영을 믿는 것이다. 영과 육신이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그 육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다. 그러므로 참도를 구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으로는 그 도에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진리란 정상적인 인성이 지닌 생명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요구한 것, 즉 모든 정상적인 인성(이성, 식견, 지혜, 사람됨의 상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 도를 통해 사람이 정상적인 인성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말씀한 진리가 정상적인 인성의 실제에 따라 요구한 것인지, 그 진리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지, 가장 시기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진리가 있다면, 사람을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으로 이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람은 정상이 되고, 사람의 인성과 이성이 온전해지며, 사람의 육체적 생활과 영 생활이 질서를 갖추고, 사람의 희로애락이 정상이 된다. 이것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 중 한 가지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역과 진리의 체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수록 가깝게 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것으로 참도인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도가 초자연적이 아닌 현실적인 것인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갖춘다면 그 도가 참도인지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후에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를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또 새 시대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에게 오늘날의 도가 참도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오늘날의 사역을 꿰뚫어 보지 못하여 반신반의하지 않도록 말이다. 심지어 많은 이들은 확신하였음에도 여전히 흐리멍덩하게 따르고 있다. 그런 확신은 원칙이 없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조만간 도태될 것이다. 아주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확신은 3할에 불과하고 의심은 5할이나 된다. 이것이 바로 토대가 없는 모습이다. 너희는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토대가 지나치게 얇은 탓에 분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사역, 비현실적인 사역은 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 파격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 범위를 벗어나는 사역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의 범위 내에 있고, 정상 인성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정상적 필요에 따라 사역한다.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람은 물론 인성도 갈수록 정상이 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 갈수록 인식이 생기고, 갈수록 진리를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사람의 파괴 성품은 갈수록 더 변화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는 본래의 뜻이다. 만일 그 도가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성품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더욱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지 못하며, 심지어 인성이 점점 나빠지고 이성도 점점 비정상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참도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거나 낡은 도일 것이다. 어쨌든 성령의 현실 역사는 아니다. 너희는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참도와 거짓도를 분별하는 원칙과 참도를 찾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만 친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참도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이런 자들이 또 어떻게 참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중요한 몇 가지만 파악한다면, 어쨌든 미혹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분별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 인성에 갖춰져야 할 것이며, 사람이 체험하는 과정에 갖춰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여태껏 따르면서도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르고, 인성과 이성이 여전히 제자리라면, 이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고, 그 추구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너는 여태껏 추구하였지만 조금도 분별할 줄 모른다. 네가 참도를 찾았다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는 얻었느냐? 분별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느냐? 참도의 본질은 무엇이나? 너는 참도 안에 있으면서도 참도를 얻지 못했고, 진리도 전혀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파괴 성품의 변화가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추구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따른 이상 더는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소한 일 때문에 의심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다. 복받기만을 바라고 막연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겠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루빨리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람의 본분의 구별

너희는 하나님 사역의 이상(異象)을 알고 기본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이다. 네가 이런 이상과 관련된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이 어떻게 바뀌든 전반적으로 너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상이 분명해지며, 네가 진입하고자 하는 것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도 목표가 생긴다면, 너의 체험과 인식은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이 되며, 큰 방향을 알게 되어 네가 생명에 해를 입거나 해매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각 단계의 사역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사나흘이나 네댓새가 지나도 돌이키지 못하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일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적극적인 측면의 진입과 실행을 다방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사역 이상에도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정복 사역의 의의, 앞으로 온전케 되는 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려는 것, 그리고 심판과 형벌의 의의, 성령 역사의 원칙, 온전케 되는 것과 정복되는 것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두 이상과 관련된 진리에 속한다. 이 밖에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세 단계 사역이 있다. 또 이후의 증거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이상에 관련된 진리로,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하다. 지금 너희에게는 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그것들은 각각 절차와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박해서 기본적인 진리들도 실행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들도 처리하지 못한다.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성품이 패역한 데다 오늘날의 사역에 대한 인식 또한 너무 얕박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전케 되기가 쉽지 않다. 네가 너무나 패역하고, 자기주장이 강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며, 심지어 가장 분명한 진리마저 실행하지 못한다면, 너 같은 사람은 구제 불능으로, 정복되지 못한 자에 속한다. 너의 진입에 세부적 내용과 목표가 없다면 너의 성장은 느릴 것이고, 너의 진입에 조금도 실체가 없다면 너의 추구는 헛될 것이다. 또한,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 성장과 성품 변화는 모두 실재에 진입함으로써 이를 수 있고, 나아가 세부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수 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깨닫고 진입한다면, 너의 성품은 빨리 변화할 것이다. 지금 너는 실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사역 이상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너는 진입할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그 후에 진입할 수 있다.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진입하게 된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태초에 인류를 창조한 후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할 기반으로 삼았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의 근거지가 되었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율법을 정해 직접 사람을 인도하고 목양함으로써 사람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여호와를 정상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었다. 율법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였다. 그는 그저 처음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목양하기만 했기에, 그가 말씀한 내용은 단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상식이었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는 아니었다.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 의해 깊이 파괴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가 행한 율법 사역은 구원 사역의 첫걸음이자 최초의 구원 사역으로, 사람의 생명 성품 변화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러므로 최초의 구원 사역부터 그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사람과 접촉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했다. 즉, 도구를 통해 사람과 접촉해야 했다. 그리하여 피조물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신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인자와 선지자가 생겨났다. ‘인자’란 여호와를 대변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인자’라 칭함 받았다. 이 호칭에는 여호와를 대변하여 율법을 반포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다. 또한, 여호와가 보살피고 지키며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제사장이라는 뜻과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전적으로 열방과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는 대언자이자 여호와의 사역을 예언하는 사람이다. 인자든 선지자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친히 세운 사람들이자 여호와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직접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가 세웠기에 사역한 것이지, 성령이 친히 성육신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율법시대의 선지자와 인자들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아니다. 그러나 은혜시대와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정반대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행하는 것이므로 다시 선지자와 인자를 세워 그의 사역을 대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람의 눈에 그들의 사역은 본질과 방식 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기에 사람은 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자나 인자의 사역과 혼동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선지자나 인자와 기본적으로 겉모습이 같은 데다가, 선지자보다 더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양자 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에 사역하고 말하는 것이 똑같아도 그 속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은 분별력이 너무 부족해 단순한 문제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더욱 분별하지 못한다. 선지자들과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말과 사역은 모두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의 외형이 피조물의 외형이지만, 그의 사역은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본분은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말이고, 직분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이 사역한다 함은 단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역한다 함은 경영을 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도가 성령께 쓰임 받고, 또 많은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사역하고 말한 것은 그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예언이 성육신 하나님이 말한 생명의 도보다 더 대단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인성이 성육신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육신 하나님이 이행하는 직분은 경영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하든, 사역하든, 아니면 이적을 나타내든 간에, 결국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경영 사역 중의 큰 사역이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행하는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경영 사역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없다면, 즉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이 없어진다면 피조물의 본분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고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창조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결코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고유한 본질인 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영을 하는 것이고,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외형을 갖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사역을 하든 모두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그의 경영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의 인도하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다하게 된다.

사람이 본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원래 있는 것, 즉 사람이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이 된다. 섬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은 단계적으로 체험하고 심판받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므로 본분을 가로막거나 본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섬기는 과정에서 폐단이 생길까 봐 섬김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나약한 자다. 사람이 섬기는 과정에서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본래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며, 속이고 대충 하기까지 한다면,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잃은 것이다. 그런 자는 이른바 ‘둔재’이자 쓸모없는 폐물이다. 그런 자를 어찌 당당한 피조물이라 칭하겠느냐? 겉보기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가 아니겠느냐? 만일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약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피조물의 자리에 설 자격도 없다. 또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보호를 받거나 온전케 될 자격은 더더욱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임을 잃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증오하지 않을뿐더러 하나님의 도가 옳지 않다고 제멋대로 떠들어 댔으며, 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패역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께 매우 죄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다고 떠들어 대며 욕한다. 그런 자에게 어찌 온전케 될 자격이 있겠느냐? 그것은 도태되고 징벌받을 징조가 아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이고 백번 죽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자에게 무슨 온전케 될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패역과 패괴를 증오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너희 대부분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의 앞에서 또 어떻게 너희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느냐? 성심성의를 다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느냐? 너희의 희생은 어떠하냐? 너희가 나에게서 얻은 것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너희는 분별할 줄 아느냐? 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은 어떠하냐? 나를 섬기는 것은 또 어떠하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은 또 어떠하냐? 너희는 가늠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쥐꼬리만 한 양심으로
 가늠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언행이 떳떳하냐? 설마 너희의 그 작디작은
 희생으로 내가 베풀어 준 모든 것에 떳떳하단 말이냐?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아서
 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너희는 나에게 음흉한 속셈과 판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분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너희의 기능이다. 그렇지 않느냐? 설마 너희는 자신들이
 아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찌 피조물이라
 불리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용과 풍성한 은혜를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은혜는 한 톨의 값어치도 없는 너희 소인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라는 것
 없이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 너희 같은 존재들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오직 고난의 나날과 끝없는 징벌만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다면 너희의 운명은 곧 고통이고, 나의 말과 사역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면 너희의 결말은 곧 징벌이다. 그 어떤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삶도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너희가 누릴 몫 또한 없다.
 너희에게 이것은 당연한 결말이며 자업자득이다! 그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은 온 힘을 다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인 양, 손을 내밀어 은혜를
 요구한다. 요구가 무위로 돌아가면 더욱 신의를 저버리는데, 이런 자에게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질이 부족하고 이성 또한 전무하여 경영 사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추호도 이행하지 못한다. 너희의 몸값은 이미 바닥을 쳤다. 이토록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너희가 보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극도로 패역한 것이다. 이런 것들로
 너희를 족히 정죄할 수 있고, 너희의 나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비열함과 용졸함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또 무슨 자격으로 다시 손을 내밀어 요구한단 말이냐? 너희가
 나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며, 나를 굳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의 잘못이고 부족함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잘못이라고 허튼소리를 하며,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원망한다. 이것이 너희의
 충성심이냐? 너희의 사랑이냐? 너희가 이것 말고 또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모든
 사역에 있어 어떤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지극히 큰 관용을 베푼 것인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이유를 따지고, 암암리에 나를
 원망한다. 그런 너희에게 인간미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사람의 본분 이행에 사람의 생각과
 관념이 수없이 섞여 있을지라도 너는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사역하다가 불순한 것들이 섞이는 것은 자질의 문제지만,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과 무관하다.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천직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하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후 온전케 되어 누리는 복을 말하고, 화를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거친 후에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해, 즉 온전케 되지 못해 받는 징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을 받든 화를 입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해서도 안 되고,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본분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변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비로소 충성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네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수록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되고,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본분을 건성으로 이행할 뿐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도태될 것이다. 그런 자는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변화되지 않은, 화를 입을 대상이다. 그들이 표현하는 것에는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은혜시대에 예수 또한 적지 않은 말씀과 사역을 했다. 그는 이사야와 어떻게 다르겠느냐? 다니엘과는 어떻게 다르겠느냐? 그는 과연 선지자냐, 아니냐? 왜 그를 그리스도라 하겠느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더냐? 다 같은 사람이고 다 말을 했으며, 게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모두가 말하고 사역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예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이런 것은 사역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네가 이런 일을 분별할 때는 그의 육신의 속성이 어떠한지, 그의 말씀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지 말고 먼저 그가 행한 사역과 그 사역이 사람에게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당시에 선지자가 한 예언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했다.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받은 묵시는 생명의 도가 아니라 예언에 불과했다. 당시 여호와가 직접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 또한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들은 생명의 도였고, 사람은 그 속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첫째, 예수는 생명이므로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의 치우치고 그릇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셋째, 예수는 여호와와의 사역을 이어받아 시대를 이을 수

있었다. 넷째, 예수는 사람이 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도,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이사야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와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가 행한 사역을 예수의 사역과 대조해 보면, 첫째, 이사야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없었다. 둘째, 이사야는 시대를 열 수 없었다. 그는 여호와와 인도하에서 사역한 것이지 새로운 시대를 열며 사역한 것이 아니다. 셋째, 그가 한 말은 이사야 본인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계시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몇 가지로 이사야가 한 말은 단지 예언이자 여호와를 대신해 행한 하나의 사역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를 완전히 대변할 수 없다. 그는 여호와와 종이자 사역 도구였다. 그는 율법시대에만 사역했고 여호와가 역사한 범위 내에서만 사역했을 뿐, 율법시대의 사역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행한 사역은 다르다. 예수는 여호와와 사역 범위를 뛰어넘어 사역했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나 사역했으며, 십자가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속량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여호와가 행하지 않은 새로운 사역을 했다. 이는 바로 시대를 연 것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말씀들을 할 수 있었다. 예수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고 전 인류와 관련된 사역이지, 사람 몇을 만드는 사역도 아니고 한정된 사람을 인도하는 사역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었는지, 당시에 영이 어떻게 계시했는지, 영이 또 어떻게 사람의 몸에 임하여 역사했는지는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런 사실로는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증명할 수가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영이 행한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너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가 행한 사역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행한 사역을 보면, 첫째, 예수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둘째, 예수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었다. 이것으로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고, 최소한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다. 즉, 예수가 행한 사역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인도하며,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로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대선지자들과 구분할 수 있다.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지식수준이 높은 부류로, 모두 여호와가 인도하던 비범한 사람들이었다. 성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도 식견이 있고 이성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인성이 있는지, 그에게 어떤 남다른 인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에게는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점이 조금도 없고, 대단한 지식은 물론, 이론 수준도 대단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생명과 그가 인도하는 길은 이론이나 지식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삶의 경험이나 가정 교육으로 얻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부 영이 직접 행한 사역, 즉 성육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이 너무 크고, 특히 사람의 관념에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고, 정상적이지만 연약한 인성을 지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그릇된 관념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인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비범한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된 ‘육신’이 아니다. 그가 육신임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성육신한 이상 반드시 정상적인 육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성육신한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선지자와 인자는 이와 다르다. 은사를 갖춘 그들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아주 훌륭한 인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인성을 뛰어넘는 많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겼다. 지금 너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사 이래 모든 사람이 가장 헛갈려 한 일이며, 또한 성육신에 관련된 것은 가장 심오한 일이고,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이 말은 너희가 기능을 다하는 데에도,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경영과 관련된 일이자 이상과 관련된 일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이상, 즉 경영 사역을 알아 가는 데 더욱 이로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 부류의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에 대해 깨닫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말들이 너희에게 직접 길을 가리켜 주지는 않지만, 너희가 진입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지금 너희의 삶에는 이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진입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진입할 동력을 잃게 된다. 그렇게 추구해서 어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과거 두 시대의 사역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하나는 유대에서 행해졌다. 즉, 두 단계의 사역 모두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모두 최초의 선민에게 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다. 또한, 예수가 유대에서

사역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였기에 유대인의 눈에 예수는 유대인의 구속주이며, 오직 유대인의 왕이지 다른 이들의 왕이 아니었다. 또 그는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는 주인이며, 이스라엘에서 그가 속량한 백성은 유대인이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다만 예전의 두 단계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기에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고 예수는 성육신하여 유대에서 친히 사역을 전개하였으니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애굽 사람이나 인도 사람에게는 사역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의 범위 속에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에게만 사역해야 하며,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에게 사역 대상도, 사역 범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엄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 6천 년 경륜은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피조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호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모두 피조물이자 아담의 후손이며, 파괴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다.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인데, 다만 저주받은 피조물도 있고 축복받은 피조물도 있을 따름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취할 점이 많았다. 처음에 그들에게 사역한 것도 그들이 가장 적게 파괴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해 중국인은 많이 부족하며 뒤처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의 사역은 유대에서만 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념과 규례들이 생겼다. 사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고 이방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사역을 확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것이며, 그런 예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언을 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족속과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그는 말한 이상 반드시 행하며, 이는 그의 계획이다. 그는 본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든 유대 전역에서 사역하든, 그가 한 사역은 전 우주의 사역이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오늘날, 그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즉, 이방 족속에서 그의 사역을 하지만, 이것 역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그가 이방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된 때가 아니냐? 이방에서 행하는 사역의 시작은 큰 붉은 용의 국가에서 전개되는 이 사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람의 관념에 특히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역한다는 것과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사역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장 비천하고 무가치하며, 처음에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모든 지위와 가치를 잃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피조물로서 사탄에게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창조주께 버림받는다면 이는 그의 지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압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낙후한 국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부류이다. 이들이 과거의 지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사역은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리는 사역이며, 6천 년 경륜에 가장 이로운 사역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사역하면 사람의 관념을 가장 잘 깨뜨릴 수 있다. 이로써 시대를 열고, 사람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고,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최초의 사역은 유대에서 행해졌고, 이스라엘의 범주에서 진행되었지만, 이방에서는 시대를 여는 사역이 전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사역은 이방 사람들, 나아가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진다. 바로 이 점이 사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증거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전 우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되었고’, 만물의 주인이 되었으며, 생기 있는 모든 것들의 경배 대상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새 사역을 펼쳤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방에서 새롭게 시작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새로운 사역을 펼쳤다. 모압의 후손에게 행한 이러한 사역이야말로 가장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만세와 만대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역을 겪어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들어 본 사람도 없거니와 체험해 본 사람은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측함, 위대함과 거룩함이 말세의 이 사역을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관념을 깨뜨리는 더 새로운 사역이 아니겠느냐? 혹자는 ‘하나님은 모압을 저주하셨고 모압의 후손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제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개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들은 이방의 개일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초에 이들은 이스라엘 범위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으며, 이방으로 쫓겨났으니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들이 패괴된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선택도, 목적도 없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들에게 행하는 사역 역시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다. 노아가 피조물이었듯, 노아의 후손 역시 피조물이며, 하늘 아래 육에 속한 자는 모두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저주받은 피조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경영 사역은 저주를 받지 않은 선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사역을 행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이룬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사역하기 때문에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 사역한다. 그 대상이 저주받은 자든, 형벌받은 자든, 축복받은 자든 상관하지 않는다! 유대인도 훌륭하고 이스라엘 선민 역시 괜찮다. 자질이 뛰어나고 인성 또한 좋다. 처음에 여호와와는 그들에게서 사역을 전개해 최초의 사역을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사역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들 역시 피조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이 단계 사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정복할 수도 없고 모든 피조물을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역의 대상을 큰 붉은 용 국가의 사람들로 바꾼 의의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의의는 시대를 열고 모든 규례와 사람의 온갖 관념을 깨뜨리며, 은혜시대의 사역을 끝내는 데에 있다. 오늘날의 사역을 예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다면, 6천 년 경륜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이방의 큰 붉은 용 국가에서 그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모든 경영 사역을 완전케 하였으며, 모든 경영의 중심 사역을 큰 붉은 용 국가에서 끝냈다. 3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즉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단계의 사역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번 사역은 시대를 열고 예전 두 시대를 끝내는 한편, 사람의 모든 관념과 하나님을 믿는 낡은 방법, 그리고 고루한 인식법을 깨뜨렸다. 하나님은 예전의 두 시대에는 사람의 각기 다른 관념에 따라 사역하였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관념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를 통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것이다. 모압의

후손을 정복함으로써, 그리고 모압의 후손에게 사역함으로써 전 우주의 사람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사역의 가장 큰 의의이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너는 자신의 신분과 가치가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과 약속을 받았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예전 두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다. 만약 말세의 사역마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길 것이며, 전체 경륜 또한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두 단계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에 이방에서 새로운 사역이나 시대를 여는 사역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대를 여는 사역을 먼저 이방, 그것도 모압의 후손에게 행했으며, 이로써 전체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 관념으로 자리 잡은 모든 인식은 하나님께 깨어져 어느 하나 남지 않을 것이며, 사람의 관념과 낡은 인식법은 정복 사역으로 모조리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규례나 낡은 것이 전혀 없으며, 그의 사역은 아무런 매임도 없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도 옳다. 그가 피조물에게 행하는 사역이라면 너는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또한,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의의가 있다. 그는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과 지혜에 따라 사역한다. 그의 사역에 이로우면 그대로 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어렵었다! 그는 사역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사역할 대상과 지역을 선택하지, 과거의 규례나 낡은 공식에 따라 사역하지 않는다. 그는 사역의 의의에 따라 사역을 계획하여 궁극적으로 참된 결실을 거두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지금 네가 이런 점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역은 네게서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13편 서신’을 어떻게 보느냐

신약 성경에는 13편의 바울 서신이 들어 있다. 이 13편의 서신은 모두 바울이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 써 보낸 것들로, 예수가 승천한 뒤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후에 쓴 것이다. 바울의 서신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한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도를 전한 것이다. 물론, 그 도와 증거는 모두 당시 유대 지역에 있던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다. 당시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역사하는 시기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의 서로 다른 사역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 사도를 세워 하나님 자신이 완성해 놓은

사역을 이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을 일으키지 않고 성령이 직접 한다면 사역을 전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에 맞아 쓰러졌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인물이다. 그는 예수의 열두 제자 이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각 지역 교회들을 목양하는 사역, 즉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다시 말해, 그 일은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사실을 널리 알리며 증거했고,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가르쳤다. 그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 한 명이었다.

성경에는 13편의 바울 서신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서신들은 모두 바울이 당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각각 다른 내적 상태에 따라 쓴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며, 사도의 위치에 서서(예수의 종이라는 입장에 서서) 각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가르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은 예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상(異象)에서 직접 비롯된 것도 아니라 그가 맡은 사역으로 인해 있게 된 것이다. 그 서신들은 신기하거나 기이하지도 않고, 예언처럼 난해하지도 않다. 거기에 적힌 말은 그저 서신으로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교훈의 말일 뿐, 예언도 비밀도 아니다. 비록 많은 부분이 사람이 깨닫기 어렵거나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전부 바울의 인식과 성령의 깨우침이었을 뿐이다. 바울은 사도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께 쓰임 받은 종이었지, 선지자는 아니었다. 바울은 여러 지역들을 다닐 때 겐사겐사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질병으로 앓는 동안, 그가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특히 신경 쓰이는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그의 서신을 간직하게 되었고, 후세 사람들이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성경의 4복음서 뒤에 넣은 것이다. 물론, 그들은 바울이 쓴 것 중 가장 훌륭한 서신들을 골라 편찬했다. 그 서신들은 다 교회 형제자매들의 생명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특히 유명한 서신들이었다.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영적인 저작물을 남겨 형제자매들에게 실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도, 영적인 전기를 써서 자신의 체험을 남기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는 책을 써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썼을 뿐이다. 그것은 종의 신분으로 형제자매들을 가르치고, 그의 부담을 형제자매들에게 알리며, 예수의 뜻과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 말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가 한 것은 이런 사역이었다. 그가 한 말은 훗날 형제자매들의 체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많은 서신에서 그가 교제한 진리는 모두 은혜시대의 사람들이 응당 실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서신들을 다 신약 성경에 넣은 것이다. 바울의 결말이 어떠했든 그는 당시 쓰임 받는 사람이었으며,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결말은 그의 본질과 처음에 빛에 맞아 쓰러졌던

것에 근거해 결정되었다. 당시 그가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 역사로 인해 그는 교회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직접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에 서신으로 여러 교회에, 주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경계(警戒)하는 말을 보낸 것이다. 처음에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가 승천한 후,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는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 주의 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핍박하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가 그에게 큰 빛으로 나타난 것을 본 뒤로 주님이 준 사명을 받들어 성령께 쓰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 바울이 한 사역은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고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들처럼 업적을 이루거나 저서를 쓰거나 따로 길을 열거나 성경 외에 따로 길을 찾아 교회 사람들을 새롭게 진입하도록 이끌려 한 것이 아니었다.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직책을 수행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만약 교회에 방해하고 배반하는 일이 생겨 교회 사람들의 내적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그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사역자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사역에 임한다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서, 그리고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합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사역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그가 이끄는 사람들 대다수가 연약해지거나 심지어 실족한다면, 그것은 사역자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교회를 돌보거나 형제자매들에게 자주 편지를 써 보냄으로써 교회에 공급하고 형제자매들을 살피야 했다. 그래야 교회가 그에게서 공급과 목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쓴 서신의 내용은 매우 심도 있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깨우침이라는 전제하에서 그의 개인적인 체험과 부담이 더해져 형제자매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는 다만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서신에는 그 자신의 체험이 섞여 있었다. 그가 한 사역은 사도의 사역을 대변할 뿐, 성령이 직접 행하는 사역을 대변하지는 못하며,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같지 않다. 그는 다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부담과 체험, 그리고 깨달음을 주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공급한 것이다. 바울은 그저 자신의 깨달음과 인식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그의 사역에는 사람의 체험과 교회 사역에 대한 사람의 견해와 인식이 섞이게 됐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 인식을 악령의 역사나 육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저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사람의 인식과 체험일 뿐이다. 내가 한 이 말의 뜻은 바로 바울의 서신이 천서(天書)도, 신성한 것도, 성령의 출구나

말씀도 아니며, 다만 바울이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쓴 편지라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차이를 알려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지만,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본분과 체험을 대변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역을 사람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도 안 되며, 더욱이 사람의 대단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이나 천서로 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모두 윤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13편 서신에 대한 내 분석을 듣고는 바울의 서신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반면, 또 많은 사람이 내 말이 인지상정에 어긋나고, 바울의 서신에 대한 내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바울의 서신을 사람의 체험과 부담의 발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요한이 쓴 계시록처럼 매우 중요해서 가감을 해서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사람의 그릇된 관점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온 관점이 아니겠느냐? 바울의 서신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2천 년의 역사(歷史)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당시에 그가 한 말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이 기독교 최고의 걸작이므로 그것을 해석할 사람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서신들은 영적인 인물의 전기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이나 요한이 본 큰 이상과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비교하자면 요한이 본 이상은 하늘의 큰 이상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예언한 말이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은 그저 사람의 깨달음과 체험에 대한 서술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언도 이상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각 지역에 보내진 서신일 뿐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역자에 해당했었기에 그의 말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의 서신 또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다. 예수가 직접 한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서신들은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서신을 성경에 수록하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했느냐? 나는 단지 서신들에 대해 정확히 해석하고 분석할 뿐, 그 서신이 사람들에게 준 도움과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은 후에 바울의 서신을 부인하거나 그 서신들을 이단, 또는 무가치한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너희의 이해 능력과 식견, 일을 바라보는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말을 너무 편향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해했느냐? 너희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시 바울이 한 사역의 실제 상황과 그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도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울 서신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성경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바울의 서신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후세 사람들에게 숭배받게 되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바울이 행한 사역에서, 일부는 사람의 깨달음에 해당하고 일부는 성령의 깨우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깨달음에 성령의 깨우침이 더해져 그런 말을 써내게 된 것이니 그리 특이한 일은 못 된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체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후에 그는 직접 경험한 것들로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고 공급하였다. 그가 쓴 서신은 생명의 경전도, 한 인물의 전기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며, 더욱이 교회가 실행해야 할 진리나 교회 행정 법령도 아니다. 부담을 지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것을 해내야 한다. 만약 성령이 사람을 세우고 부담을 더해 주었음에도 그 사람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며, 교회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도가 사역 기간에 서신을 쓴 것은 그리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 그가 서신을 쓴 목적은 생명 경전을 쓰기 위한 것도, 영적인 인물의 전기를 쓰기 위한 것도 아니며, 성도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 준 사명을 완수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었다. 그의 사역은 그 자신과 형제자매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사역을 잘해야 했고, 교회의 일들을 마음에 두어야 했다. 그것은 다 그의 직무에 속한 사역이었다.

바울의 서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에 대해서도 너희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서신들을 천서나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바울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쨌든 사람의 사역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또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사역에서 발현되고,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체험에서 체현되고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는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밝힐 필요도,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증거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압제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이지 강요할 일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사람이 따로 체험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동시에 본디 지닌 성품을 나타낸다. 사람의 사역이라면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더더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릴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사역이나 말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거나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반면,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으므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을 사람의 사역이나 본분으로 정의 내려선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과 바울의 서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사람의 교훈과 동등하게 대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은 원칙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본질에 따라 구분이 된다. 절대 사역의 범위나 사역의 단기간적인 효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측면에서 원칙적인 오류를 범한다.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결면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통 사람의 본분으로 여기고, 인간의 큰 사역을 사람의 본분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긴다면, 원칙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자유롭게 서신과 전기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 역사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사유로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탐구해서 밝히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희가 이 원칙적인 일들에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참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너희의 믿음은 막연함으로 가득할 뿐이며, 원칙이 없고 어정쩡할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자의 본질적인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몰지각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역대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쓰임 받은 자가 어디 바울 한 사람뿐이겠느냐? 교회를 위해 사역한 자가 바울 혼자뿐이겠느냐?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붙들어 준 자 역시 바울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들의 사역 원칙과 본질은 사역의 규모와 영향력, 또는 성과에 무관하게 모두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의 각 단계 역사에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사역의 방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본질과 근원은 전부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이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이 말을 보고도 여전히 바울의 서신을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여기고, 어떤 영적 인물의 전기와도 다르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이 몹시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이론 전문가이다. 설사 바울을 숭상한다

할지라도 바울에 대한 친밀감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리의 존재를 반박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내가 한 말이 바울의 사역과 서신을 모두 불사르고, 그 참고 가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어찌 됐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이성이며, 진리와 정의가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이 훗날의 종착지나 일시적인 누림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책망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온전케 되기 위한 것이나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자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자신의 직책을 이행하거나 본분을 완수하는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경지위(天經地緯)이자 사람의 천직이므로 살아가는 이상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그 목적과 속셈은 모두 비슷하며, 또한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숭상하는 대상도 대부분 비슷하다.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고 나아가 1, 2천 명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개인의 앞날이나 훗날의 아름다운 소망을 위해 추구했을 뿐,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경건한 신자들이 수도 없이 자기 울무에 걸려 죽었고, 이긴 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적다. 사람은 패배한 원인이나 이긴 비결을 지금까지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비밀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심혈을 다해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이 가는 길은 앞사람들이 갔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다. 그러니 어떻게 추구하든 간에 그들이 가는 길은 모두 어둠으로 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얻는 것은 쓰라린 결과뿐 아니겠느냐? 과거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자들도 최종적으로 복을 받을지 화를 입을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실패한 사람의 전철을 밟으며 추구하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더더욱 실패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들이 가는 길이 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모두 헛된 길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의 추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국 거기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 아무렇게나 추구한다고 득실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가장 기본은 마음이 정직하며, 완전히 헌신하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일생을 바쳐 참된 믿음을 얻음으로써 모든 진리를 얻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더욱이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를 위해 본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서도 피해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늘 실패한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늘 하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며 자신의 올무에 빠진다.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숭상하는 데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늘 무턱대고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들과 인간 세상의 풍파를 겪은 사람들마저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벌 속에서 죽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비명에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결말, 즉 그들의 죽음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패는 더더욱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진리는 인간 세상에서 온 것이지만, 인간 세상의 진리는 그리스도가 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진리를 공급할 뿐, 사람이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리를 얻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본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이며,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의 종착지나 성패를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피조물이 이행해야 하는 본분과 직접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추구하고 종착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의 결과만 알 뿐, 그들의 성공 비결이나 실패의 원인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의 추구도 대부분 실패할 것이고, 설령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추구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성공할 희망이 있지만, 네가 진리 추구를 위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너는 영영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베드로는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겪은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 그가 간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갔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가짐도 옳았기 때문에

온전케 된 것이다. 그가 간 길은 앞사람이 간 적 없는 새 길이었다. 반면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갔다. 다만 성령이 그를 쓰려고 했고 그의 은사와 모든 장점을 이용해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몇십 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성령께 쓰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가 쓰임 받은 것은 그의 인성이 예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사 때문이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를 쳤기 때문이지, 그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 사역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한 사역은 그의 추구하고 인성을 대변할 수 없다. 바울이 한 사역은 종의 사역을 뜻한다. 즉, 그가 행한 것은 사도의 사역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다. 그도 일부 사역을 했고, 비록 바울만큼 큰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사역과는 달리 자신의 진입을 추구하면서 사역했다. 베드로가 한 사역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도의 자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역했다. 바울도 사역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그저 미래의 소망과 좋은 종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사역하면서 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망과 훈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역에는 그 자신의 체험이 없었다. 그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했다. 그의 사역에는 거래만 있을 뿐 피조물의 본분이나 순종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옛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가 한 사역은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것일 뿐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바울은 온전케 되는 과정도, 책망을 받는 과정도 없이 바로 사역했다. 그의 마음가짐은 오로지 상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베드로는 책망과 훈계와 연단을 거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사역 목적과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베드로는 사역은 그리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와 참된 변화였지, 단순히 사역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역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였다. 설사 그가 협력했다 할지라도 그의 체험에서 온 것은 아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단지 성령이 그에게서 그리 큰 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전케 되는지의 여부는 사역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상을 받고자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며, 더 나아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했다. 겉모습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다. 너는 사역의 양만 보고 그들 중에 누가

온전케 된 것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추구했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으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대로 해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한 사역은 온전케 하는 것이었고, 바울에게 한 사역은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관점이나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둘 다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반면 바울은 성령 역사를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만 공급했을 뿐,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 해 체험하고도 변화가 미미해 거의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였으며, 여전히 과거의 바울이었다. 단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옛 성품, 즉 승부욕이 강하고 이익만을 꾀하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역하고도 자신의 패괴 성품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옛 성품도 벗어 버리지 못했다. 이 옛 성품들은 그의 사역에서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바울은 그저 사역의 경험만 좀 늘었을 뿐이었다. 이 약간의 경험으로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생존에 대한 그의 관점과 그가 추구하는 의의를 바꿀 수도 없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오랫동안 사역했고, 예수를 핍박하던 때의 행위를 다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속 인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을 바치기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훗날의 종착지를 위해 마지못해 사역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고의로 대적한 패역자였으며, 원래부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성격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성령의 뜻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한 사역이나 그가 얼마만큼 바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를 아는지, 진리를 실행했는지, 추구하는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도 예수를 따르면서 타고난 성품을 드러낸 적은 있었지만, 본성을 보자면 그는 처음부터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께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명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했다. 베드로는 비록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시험했지만, 이런 약간의 인성의 연약함은 그의 본성과 무관하며, 훗날 그가 추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또한 그의 시험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라고 증명할 수도 없다. 인성의 보편적인 연약함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너는 베드로만 예외적이기를 바라는 것이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일을 몇 번 했기 때문 아니더냐? 반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숭상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서신을 썼기 때문 아니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작은 일을 분명히 알지 못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겪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체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참된 체험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베드로가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가 직접 선택해 수록한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사람의 뜻에 따라 선택된 것 아니겠느냐? 게다가 서신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결말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의 안목과 취향에 따라 베드로와 바울을 평가하게 되었다. 또 바울은 사역을 아주 많이 하고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다. 사람은 모두 외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더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바울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숭상받는 대상이었는데, 누가 감히 그의 사역을 가볍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그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바울처럼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겠느냐? 기여한 것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먼저 상을 받아야 하고,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대할 때 단지 그의 은사를 빌려 사역했고, 베드로를 대할 때는 온전케 하고자 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들에게 미리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온전케 하거나 사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적으로 기여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과 사람이 원래부터 추구하는 길, 그리고 마음가짐을 본다. 사람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모두 사람의 관념과 안목에 따라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은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가고 올바른 관점으로 추구한다면 너는 베드로처럼 될 것이고, 반대로 실패의 길을 간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어쨌든, 너의 종착지나 성패는 네가 희생한 것이나 치른 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길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본질이 다르고 추구한 목표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보지만,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사람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며 내면의 실제 분량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성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숭상하지, 베드로를 숭상하지는 않는다. 바울이 쓰임 받아 공개적으로 사역한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바울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베드로의 체험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가 추구한 것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베드로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베드로는 책망과 연단을 겪어 온전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겠나이다. 제가 행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만을 원하나이다. 설사 형벌과 심판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사역과 말,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체험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졌다. 반면 바울은 표면적으로만 사역했다. 비록 그도 공을 들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역을 잘해서 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사역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마음속 진실한 사랑과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바울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역하는 것에 치중하고 외적인 사역과 기여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정상인의 체험에 없는 도리적인 것을 중시했다. 그는 깊은 곳의 변화와 진실한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베드로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참된 인식을 갖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실제적으로 살아 내기 위함이었다. 바울의 사역은 예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한 것이자 자신이 얻고자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했다. 그의 사역은 전적으로 형벌과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순결한 사랑을 추구했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추구했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역시 순결했다. 여러 해 연단을 겪으며 예수와 생명에 대한 그의 인식도 높아졌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발적인 사랑이었다. 그는 보수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았다. 반면 바울은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가 사역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마지막에 월계관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최고의 면류관이지 가장 순결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추구했으며, 본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에 붙들려 어쩔 수 없이 추구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추구는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임을 증명할 수 없다. 베드로야말로 본분을 이행한,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기여하면 상을 받아야 하고 또 크게 기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관점을 보면 그 본질은 거래의 성질을 띤 것이지,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즉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사람에게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고 원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선을 넘어 하나님께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종착지는 그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되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사역했는지,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추구한 것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며, 옛 성품을 변화시켜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 것이다. 성공의 길이란 피조물이 원래의 본분과 모습을 되찾는 길, 즉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모든 사역의 근본 취지이다. 사람의 추구에 여전히 자신의 사치스러운 요구와 불합리한 소망이 섞여 있고 성품 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회복의 사역과 서로 어긋나며 틀림없이 성령이 행한 사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추구가 또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바울이 한 사역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속 깊이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행한 사역만 보고 그가 확실히 성령께 쓰임 받았다는 것만 알 수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훌륭하고 그가 행한 사역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단지 개인의 체험만을 중시했다. 가끔 사역을 해도 사람을 많이 얻지 못했으며, 몇 통 안 되는 서신도 이름나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고, 사역이 있기만 하면 가서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역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추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하면 통회했으며, 그 후에 적합한 길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 그는 생활 속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려고 했으며, 자신의 옛 성품을 조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다. 반면, 바울은 외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했을 뿐 생명 진입에서 깊이를 더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체가 아니라 도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겨우 그 정도 사역을했을 뿐이고 교회에 기여한 바도 별로 크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은 어떠했느냐?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은 또 무엇을 위함이었느냐? 베드로가 비록 사역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바울이 한 사역은 교회에 공급하고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생명 성품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네가 그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고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한 사람은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었고, 한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없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긴 까닭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숭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형상을 가졌다.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했고, 한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추구하지 않았다. 더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결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진정한 인성이 없었다.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있었고, 한 사람은 피조물의 이성이 없었다.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의 본질적인 차이다. 베드로가 간 길은 성공의 길, 즉 정상 인성을 회복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회복하는 길이었다. 베드로는 성공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바울이 간 길은 실패의 길이었다. 바울은 겉으로만 순종하고 헌신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흡족게 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연단과 환난, 궁핍한 생활 역시 받아들였으며,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한 것 아니겠느냐? 형벌이든 심판이든 환난이든 너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도달해야 하는 경지이자, 사랑 안에 있는 순결한 요소이다. 사람이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너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이다. 너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창조주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창조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13권은 은혜시대를 2천 년 동안 유지했고요. 4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13권 서신인데, 누가 그와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쓴 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쓴 서신은 모두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는 교회에 유익한 사역을 했지요. 다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기여도를 따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람의 본성을 기준으로 한다. 바울은 생명을 추구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결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세부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면과 연약한 면, 피조물의 패괴 성품에 대해 모두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품의 변화를 위한 실행의 길도 있었다. 그는 이론만 있고 실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변화한 사람은 구원받은 새사람이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합격이다.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천연적인 모습 그대로인 옛 사람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의 추구하고 비교해 보면, 네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지 바울 같은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네가 추구함에 있어 여전히 진리가 없고, 지금까지도 바울처럼 교만하고 거칠게 굴며 허풍을 늘어놓는다면 너는 패배한 인간쓰레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네가 베드로처럼 추구하고자 한다면, 즉 베드로처럼

실행하고 진실하게 변화하고자 하며, 교만하게도 방자하게도 굴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일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본질과 패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패역은 더욱 알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비열한 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크게 통회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조금 해명했을 뿐이다.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온전히 굽히지 않았다.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엎드리기는 했지만, 자신을 마음속 깊이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역하는 것에만 만족했다. 바울은 자신을 알아 가는 것과 자신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입에만 달고 있는 진리로 만족했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것에 만족했으며, 예수의 제자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가 추구한 목표는 그저 훗날의 면류관과 일시적인 사역이고, 풍성한 은혜였을 뿐, 충분한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지난날 깨닫지 못한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인식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형벌과 심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고 변화가 아닌 인식에만 힘썼다. 그가 사역을 한 것은 전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옛 성품이 책망받은 후에 사역을 한 것도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그의 옛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그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속량하지 못하고 그저 당시의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이렇게 옛 성품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 즉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더욱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예수께 열납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과 경외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리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성육신의 비밀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궤변에 능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나 진리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기 싫어한 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과 상반되거나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 혹은 진리를 질투했으며, 위대한 형상을 지니고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좋아했다. 그는 진리만을 사랑하고 참도를 찾는 가난한 사람들과 왕래하기를 싫어했고, 도리만 말하고 지식이 풍부한 종교계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좋아했던 것은 성령의 새 역사가 아니었고, 그가 중요시했던 것도 성령의 새 역사 동향이 아니었다. 그는 일반적인 진리보다 높은 규례와 도리를 좋아했다. 그의 선천적인 본질과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고, 하나님 집의 충실한 종이라고 불릴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패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예수의 종이라고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 들어설 자격이 전혀 없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것은 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한 적이 있지만 가식적이고 불의를 행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를 악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의를 행한 자라고 하면 딱 맞을 것이다. 그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양을 놓고 논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가 한 사역의 질과 본질을 두고 논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사역을 잘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주님의 부담을 생각한다. 아무도 나만큼 주님의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나만큼 깊이 회개하지 못했다. 나는 큰 빛 비춤을 받았고, 큰 빛을 보았으니 누구보다도 깊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바울의 생각이었다. 그는 해야 할 사역을 끝낸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가 싸우고 사역하고 달려온 것은 전적으로 의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었지,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사역을 대충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은 그저 자신의 과오를 만회하고 더 이상 양심에 참소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하루빨리 사역을 끝내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워야 할 싸움을 다 마쳐 자신이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을 빨리 얻게 되기만을 바랐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참된 인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역을 끝내 예수를 만났을 때 사역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사역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역으로 거래함으로써 훗날의 면류관과 맞바꾸려고 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도 하나님도 아닌 오로지 면류관이었다. 이런 것을 어찌 제대로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속셈, 그가 한 사역, 그가 치른 대가, 그의 모든 희생은 자신의 아름다운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소망에 따라 사역했다. 그가 모든 사역에서 치른 대가는 기꺼이 원해서 치른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그렇게 치른 대가가 또 몇 푼의 가치가 있겠느냐? 누가 또 그 깨닫지 못한 대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대가에 흥미를 갖겠느냐? 그의 사역에는 내일에 대한 몽상과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길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가식적인 자비가 너무나 많았고, 그의 사역은 생명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척하며 거래를 한 것이었다. 그런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람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추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설사 고통받고 화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추구다. 바울이 추구한 것에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관념, 자신의 타산과 의도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구한 사람도 아니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따르고자 했다. 비록 베드로가 한 사역이 크지는 않지만, 그가 추구한 마음가짐과 걸어온 길은 옳은 것이었다. 그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진리의 도를 추구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설령 네가 지금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대로 모두 따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떤 환난과 연단도 모두 겪을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생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추구하는 관점이 올바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한다. 네가 많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도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정작 너 자신은 변화가 없고 조금의 간증도, 참된 체험도 없으며, 죽기 전까지도 네가 하는 일에 간증이 전혀 없다면,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겠느냐?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겠느냐? 성령이 당시에는 너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때 사용하는 것은 네가 사역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쓰임 받는 과정에서 점차 온전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네가 얻어지는 것까지 성령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너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가 추구하는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의 문제로, 이는 너 자신이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진입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으니 최소한 제가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는 해 주셔야죠.”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나라에는 더러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오랫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더럽기 짝이 없다면,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가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그 어떤 이에게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아무도 깰 수 없는 하늘의 규칙이다! 너는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내가 온전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자신의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만약 네가 자신의

생명 성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상만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베드로와 바울이 지닌 본질의 차이를 통해, 너는 마땅히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모두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자 해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 너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개인적인 선택과 요구가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야 한다. 너는 지음 받은 사람인 이상 너를 지은 창조주께 순종해야 한다. 너는 원래부터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고, 너의 운명을 지배할 본능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결해지고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는 피조물인 이상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분수를 알아야 하며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조적인 것으로 너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네가 본분을 이행하는 경로이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의 본질을 비교해 보면 네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간 길 중 하나는 온전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도태되는 길이다. 그들 두 사람은 두 갈래 길을 대표한다. 비록 그 두 사람 모두 성령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으며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각자 맺은 열매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참된 성과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의 본질과 행한 사역, 겉으로 드러낸 것과 마지막 결말을 통해, 너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 두 사람이 간 길은 가장 분명한 두 갈래 길이다.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각각 두 갈래 길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전형적인 예로 삼은 것이다. 바울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왜 얻지 못했느냐? 베드로의 체험에서 핵심은 무엇이나? 그는 어떻게 체험해서 온전케 되었느냐? 이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비교해 보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되고 어떤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없는지, 온전케 되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온전케 될 수 없는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의 체험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하게 한다. 그는 만유를 주관하여 만유가 모두 자신의 수중에 있게 한다. 동물, 식물, 인류, 산천, 호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의 만물이든 땅의 만물이든 모두 그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며, 선택의 여지 없이 모두 그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여 만물이 다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며 각각 자기 위치에 있게 한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으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음 받은 사람도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든 만물의 관리자든 관계없이, 또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디작은 사람일 뿐이다. 그저 작디작은 사람이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옳은 추구 방식이다. 네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실행하는 것이 진리이며 얻은 것이 성품의 변화라면,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네가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복이고,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관념 속 진리이며, 성품에 어떤 변화도 없고 육신의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채 여전히 막연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네가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온전케 될지, 도태될지는 너 자신의 추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성공 여부는 사람이 가는 길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

사람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사는 얼마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람의 체험은 얼마만 한 부분을 차지하느냐?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원칙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사역이란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뜻에서 나온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범위 안에 있는 사도나 일꾼, 또는 일반 형제자매들의 사역을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의 사역’은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범위와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성령 역사의 원칙이자 범위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원칙 및 범위와는 다르다.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본질과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원칙이 있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든,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이든 모두 성령의 사역이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이라고도, 일곱 배

강화된 영이라고도 하며, 어쨌든 모두 하나님의 영이다. 단지 시대가 다름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여전히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원래부터 성령의 사역이며,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또한 성령의 사역에 속한다. 쓰임 받는 사람이 하는 사역 역시 성령의 사역이다. 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완전한 발현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지만,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성령의 직접적인 발현이 아니고, 완전한 발현은 더더욱 아니며,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성령은 역사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역사한다. 이러한 역사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며, 시대별, 국가별로 행하는 사역도 다르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과 원칙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든 모두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역사는 모두 원칙이 있으며, 역사할 대상의 본질을 대변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적합한 범위와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과 다르고, 자질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도 서로 다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행해지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대상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이 서로 다르며, 다양한 사람의 내적 상태와 본성에 따라 그가 역사하는 원칙도 다르다.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에 따라 역사하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본디 갖고 있는 자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하는 사역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대상의 본질을 보여 준다. 사람의 고유한 본질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질은 한계가 있다. 성령은 사람을 쓰거나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람의 유한한 자질에 따라 역사하여 사람에게 얻는 것이 있도록 한다. 성령은 쓰임 받는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과 고유한 자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고유한 자질을 모두 발휘함으로써 사역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는 사람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 사역함으로써 사역 성과를 내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게서 하는 사역은 직접 영의 사역을 발현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이는 사람의 은사나 체험, 선천적 조건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는 모두 사람에게 유익하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 있는 데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온전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도 결국엔 도태되고 만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온전케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만 있을 뿐, 사람의 주관적인 협력도, 올바른 추구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는 온전케 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사가 된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직접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다만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사역을 발현할 뿐이다. 즉,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서로 다른 조건을 통해 이뤄지고 온전케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이 시대 전체의 사역과 그 시대 사람의 진입을 대변하지만, 사람의 구체적인 진입과 관련된 사역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이뤄지며, 성육신 하나님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 자신의 직분은 성육신이 하는 사역이며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케 되지,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도, 전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들을 이끄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으며, 이끄는 사역의 일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분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시대 전체를 인솔하는 것이다. 쓰임 받는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는 뒤에 보내심을 받거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솔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을 수호하기 위한 것, 즉 모든 경영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자 그의 증거를 수호하는 동시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 부분의 사역이야말로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없다면, 모든 경영 사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전 인류와 관계된 사역이자 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사역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성령 역사의 모든 동향과 추세를 대변한다. 반면,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는 이후에 이어지는 것으로, 시대를 이끌지 못하며,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성령 역사의 동향을 대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할 뿐이며, 경영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경영 사역의 내용이지만,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쓰임 받는 사람이 이행하는 본분이며 경영 사역과는 무관하다. 신분, 그리고 행하는 사역이 대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의 본질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또한,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대상에게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의 원칙과 범위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과 인성을 대변한다.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을 대변하며,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추리, 사람의 논리는 물론이고, 풍부한 상상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람의 체험은 사람의 사역을 더 잘 대변한다. 사람이 어떤 것을 체험하면 그 사람의 사역에 그런 성분이 묻어나기에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체험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체험을 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의 대부분은 소극적인 성분이다. 그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체험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면에서 길이 있다면, 그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고무시킬 것이고, 사람은 그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사역하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었다면, 그가 교제하는 말에도 늘 소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사람을 가라앉게 하며, 사람들은 그의 교제가 끝난 후 자기도 모르게 침울한 기분이 들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상태는 이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흔히 사람의 내적 상태에 따라 변한다. 성령은 사람의 체험에 맞춰 역사하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사람의 정상적인 체험 과정에 따라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사람은 자신이 본 것과 체험한 것을 교제하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토대로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나타낸다.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이 끝난 후,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과 진입해야 할 것을 찾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사람의 진입과 실행을 대변한다. 물론, 이러한 사역에는 사람의 경험과 교훈, 또는 일부 생각들이 섞여 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든 아니면 성육신을 통해 역사하든, 모두 사역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의 고유한 어떠함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성령은 아무 까닭 없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령은 아무 근거 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성품이나, 낡은 관념, 낡은 사상이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사람이 보고 체험한 것이며,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도리나 관념이라고 해도 전부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크기에 상관없이 사람이 체험한 것, 본 것,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구상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의 사유로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전 인류를 이끄는 그의 사역을 선포하는데, 이는 사람의 세부적인 체험과 무관하며, 그 자신의 경영과 연관된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체험이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이 어떠함은 곧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 사람이 갓출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타낸 어떠함을 토대로 보고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식한 것을 모두 사람의 어떠함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의 고유한 성품과 자질을 토대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람의 어떠함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체험하고 본 것을 교제할 수 있다.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나 사람의 사유로 닿지 못하는 것, 즉 사람의 내면에 없는 것은 교제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상상이나 도리일 것이다. 요컨대 그런 말에는 실체가 조금도 없다. 가령 네가 사회의 일을 겪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제대로 교제할 수 없다. 또한, 너에게 가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가정사를 교제할 때 너는 그가 말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교제나 사역은 그 사람 내면의 어떠함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형벌과 심판에 대한 인식을 교제할 때, 너에게 체험이 없으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인식을 백 프로 확신할 수도 없다. 그가 교제하는 것은 네가 한 번도 체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네가 사고를 통해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그의 인식을 통해 앞으로의 형벌과 심판의 길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너에게 이론적인 인식으로만 남을 뿐 너의 앎을 대체할 수 없으며, 너의 체험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으면서 확실히 옳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너는 상대방의 인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그중의 일부를 근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념을 갖고 마지못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나, 막상 체험하게 되면 너에게 관념을 갖게 한 그 인식이 오히려 너의 실행에 길이 되어 주고, 또한 실행할수록 그 말의 실제 가치와 의의를 더 잘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너는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네가 체험한 일에 대해 네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인식이 진실하고 실제적인지, 어떤 사람의 인식이 이론적이고 무가치한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말하는 인식이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실제 체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너의 체험 속에 진리가 있다면 너의 인식은 실제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너는 체험을 통해 분별력과 식견을 키우고,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상식을 늘릴 수도 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인식은 아무리 높아도 그저 도리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일에는 아주 지혜로울지 몰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 트이지 못한 사람이며,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어떤 측면의 인식을 말하든 그것이 네 어떠함이라면 곧 네가 직접 체험한 것이고 너의 진실된 인식이다. 언제나 도리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어떠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도리 역시 고심을 거듭해 생각해 낸 것이고, 그들의 머리로 심사숙고한 끝에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단, 그것은 그저 도리이자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일 뿐이다! 다양한 사람의 체험은 각자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대변한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할 수 없으며, 각종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떠함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은 영적인 것과 진리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실제 체험이 필요하다. 너는 인성 생활의 상식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또 어떠하겠느냐? 교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실제 체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일꾼이나 사도가 되어 교회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 뿐, 이끄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도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사도의 역할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닌, 생명을 돌보고 사람의 성품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명과 중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아무나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역은 생명의 어떠함이 있는, 즉 진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맡을 수 있는 것으로, 포기할 수 있고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체험이 없고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체험이 없는 사람, 즉 실체가 없는 사람은 실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에게는 이 측면의 어떠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인솔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진리가 없을 경우 도태될 대상이 된다. 네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고난의 삶을 체험했는지, 어떤 일에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체험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에서 연단을 받았고, 어떤 일에서 연약했다면, 그 일에 체험이 있고, 또 그 일에서 길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어떤 이가 결혼에서 좌절을 겪었다면, 그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교제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게 해 드려야 하며, 제 일생과 결혼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 내면의 모든 것과 어떠함은 교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말의 속도나 성량 등 체험과 무관한 일은 사람의 소유와 어떠함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의 좋고 나쁨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뿐, 사람의 체험 유무와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는 없다. 말의 표현 능력이나 기교, 속도는 훈련이 가능한 일이기에 사람의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 너는 네 체험을 교제할 때 네가 마음으로 중시하는 것과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어떠함을 대변하지만,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이를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이 체험한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나의 어떠함이다. 어떤 이는 내가 교제하는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라고만 인정할 뿐,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당연히 내가 체험한 것이고, 6천 년 경영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체험했는데 어찌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꿰뚫고 있고 벌써 다 살펴보았는데, 어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므로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모두 내게서 나왔고,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한 사역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 그 사역은 내 육신이 한 것이 아니지만 영의 직접적인 발현이고, 나의 소유와 어떠함이다. 그러기에 나는 발현할 자격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자격도 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사람이 체험하고 본 것이며,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의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일들만 나눌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말은 영의 직접적인 발현으로, 영이 이미 행했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이 체험한 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그의 어떠함이다. 육신의 본질이 영이고, 나타내는 것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설령 육신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영이 이미 행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후에 육신의 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하는 사역을 보게 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마땅히 진입해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은 붙들어 주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활로와 시대를 열고, 평범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혀 그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가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이끄는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은 전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무익한 사역은 조금도 없다. 진리의 깊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행하든 사람에게는 전부 유익하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그와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이 하려는 사역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한다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사역하면 많은 불순물이 섞이게 마련이고, 이는 성령의 원래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진리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얻는 것도 성령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체험, 또는 사람의 인식이 결합된 것이다.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얻는 부분은

정확한 것이고, 얻는 사람의 체험과 인식은 사역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가 있고, 그들이 그 깨우침과 인도를 기반으로 체험하며, 그 체험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 인성의 어떠함이 결합되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식이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리를 체험한 후에 실행하는 길이다. 사람마다 체험이 서로 다르므로 이 실행의 길도 완전히 같을 수 없으며, 체험한 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이 성령의 깨우침이지만, 깨우침을 받은 사람에 따라 깨우침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행할 때 오차가 작고, 어떤 사람은 오차가 크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틀리게 실행한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이 서로 다른 데다가 고유한 자질 또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한 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진리를 듣고 저렇게 이해하며, 어떤 사람은 치우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의 참 뜻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가 이끄는 사람도 진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 설령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소수일 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자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의심할 여지 없이 치우치고 그릇된 것이다. 그런 자들은 모두 그릇된 자들이다. 철두철미하게 그릇된 자들이다. 따르는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는 오차가 없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고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도 할 수 없다.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있고, 또한 그 길이 매우 실제적이라면, 따르는 사람도 실행의 길을 갖게 된다. 만약 사역하는 사람이 진리 실행에 길이 없고 그저 이론만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실체가 전혀 없게 된다. 따르는 사람의 자질과 본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사역하는 사람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따르는 사람의 진리에 대한 이해 정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 사역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이는 일부분 사람에게만 적용됨). 사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그 사람처럼 된다. 사역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모두 자신의 어떠함이며, 또한 조금도 남기지 않고 나타낸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달성하길 원하거나 혹은 그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이 행한 것에 근거해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해낼 수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은 진입의 방해물이 된다.

책망 훈계와 심판 형벌을 겪은 사람의 사역에는 편차가 훨씬 적고, 사역할 때 나타내는 내용도 훨씬 정확하다. 반면, 천성대로 사역하는 사람의 오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면서 나타내는 것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아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자질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책망과 훈계,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리의 원칙에 부합할 수 없고, 행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천성적인 것과 인위적인 호의에 불과하다. 책망 훈계와 심판을 겪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은 육적인 것과 사람의 사유일 뿐이고, 거기에는 사람의 총명과 선천적인 재능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선천적인 자질에 끌려 그의 앞으로 가게 된다. 그가 나타내는 것에는 사람의 깨달음과 체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본뜻과 어긋나고 오차도 너무 크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 준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이 하는 사역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규례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고, 또한 생명이 점차 성장하고 진리에 더 깊이 진입하게 할 수 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꾼이 하는 사역은 이와 크게 다르다. 그는 어리석게 사역을 하며 사람을 규례 속으로 인도할 뿐이다. 그는 사람에 따라 요구를 달리하지도 않고, 사람의 실제 필요에 맞춰 사역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역에는 규례와 이론이 너무 많아 사람을 실제 속으로 이끌 수 없으며, 생명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실행 속으로 이끌 수도 없다. 그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규례를 지키게 할 뿐이다. 이러한 인도는 사람을 치우치게 만든다. 그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너를 어떻게 인도할지가 결정되며, 그는 너를 그의 소유와 어떠함 안으로 이끌 수 있다. 따르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의 자격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가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역의 효과가 어떠한지, 따르는 사람이 얻은 것이 진리의 원칙에 맞는지, 사람의 변화에 적합한 실행의 길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리석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람의 진입에 관련된 일이다. 네가 누구의 인도에 길이 있고, 누구의 인도에 길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쉽게 미혹된다. 이것들은 모두 너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사역에는 천성적인 것이 너무 많고, 사람의 뜻도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의 어떠함은 천성적인 것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듬어지면서 얻게 된 생명도, 변화를 거치며 갖게 된 실재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원래의 생명은 사람의 선천적인 총명이나 재능을 말한다. 이런 총명이나 재능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온전케 되지 않고, 패괴 성품이 책망과 훈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진리와 거리가 매우 멀며, 사람의 상상과 단편적인 체험 등 막연한 것들이 섞여 있다. 또한, 그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은 총체적인 목표가 없고, 모든 사람의 진입에 적합한 진리가 없으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사람의 패괴 성품, 사람의 사유와 관념은 사람의 온몸에 두루 퍼져 있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실행하는 본능이 없으며, 진리를 직접 깨닫는 본능도 없다. 거기에 패괴 성품까지 더해졌으니 그런 천성적인 사람이 사역을 하면 전부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온전케 된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한 체험이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사역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불순물도 점점 줄어들며, 그의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사역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고 현실적이 된다. 사람 두뇌의 사유는 성령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사람에게는 풍부한 상상력과 합리적인 논리력, 그리고 노련한 처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교정되지 않는다면 전부 사역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역은 가장 정확한 수준에 이를 수 없으며, 특히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범위가 있고 제한적이다. 한 사람은 특정 단계의 사역만 할 수 있을 뿐,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은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규례로 이끌게 된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사람의 체험에는 모두 범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실행하는 길과 깨달은 진리는 모두 특정 범위에 적용되며, 사람이 가는 길이 완전히 성령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은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수만 있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정상 인성의 범위 안에 있으며, 정상 인성의 두뇌 사유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진리 실재를 살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범위 안에서 체험한 것이다. 그들은 다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정상 인성의 삶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지, 정상 인성의 삶을 벗어나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 인성의 삶을 유지하는 기초 위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는 진리를 체험하며, 게다가 그 진리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고, 그 깊이도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그들이 가는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정상 인성의 삶이자,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정상인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상 인성의 체험을 보면, 추구하는 사람이 다름에 따라 성령이 하는 사역도 각기 다르다. 또한, 사람이 체험하는 환경과 범위가 서로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사유가 섞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험에는 서로 다른 정도의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은 각자 개인의 조건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들이 인식하는 진리의 참뜻은 완전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 한 측면, 또는 여러 측면에 국한된다. 사람이 체험하는 진리의 범위 역시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똑같은 진리라고 해도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기에 성령의 뜻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다고 해도, 또 사람의 체험이 성령이 하려는 온전케 하는 사역에 매우 근접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만 할 수 있으며, 그저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인식과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얻은 진리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성령의 대변인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으며,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자격 또한 없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의 사역 원칙이 있고,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체험과 조건을 갖고 있다. 사람의 사역에는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모든 체험이 포함되며, 이 체험은 사람의 어떠한만 대변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어떠한이나 성령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는 길을 성령이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역과 체험은 완전한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흔히 규례에 빠지고, 사역 방식도 제한된 범위 안에 한정되기 쉬워 사람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인도할 수 없다. 따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며, 체험 방식 또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의 체험은 모두 한계가 있고, 사역 방식도 몇 가지로 한정되며, 성령의 사역이나 하나님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의 체험은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은 어떻게 행하든 규례가 없고, 하나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규례도 없이 자유롭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따르는 사람이라도 그의 사역 방식에서 어떤 법칙도 도출해 낼 수 없다. 비록 그의 사역에는 원칙이 많지만,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발전이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몇 가지 인도를 할 수 있어 사람이 언제나 새로운 진입을 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얻게 한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너는 그가 사역하는 법칙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따르는 사람들이 규례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은 언제나 사람의 관념을 피해 가고,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성품의 변화를 얻을 수 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며, 어떤 규례의 제약이나 종교 관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은 사역할 때,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사람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의 기준은 특정 범위에 국한되며, 실행 방법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따르는 사람까지 어느샌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규례나 의식이 형성된다. 만약 직접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지도 않고, 심판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역을 맡긴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종교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한 리더라면 반드시 심판을 겪고 온전케 됨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심판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설령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것만 나타내게 되며, 오랜 시간 인도하다 보면 사람을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규례 속으로 이끌게 된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육과 사유에 부합하지 않고, 사람의 관념에 반하며, 막연한 종교적 색채가 섞여 있지 않다. 그의 사역 성과는 그에 의해 온전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고, 사람의 사유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사역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계의 목사나 지도자들은 은사와 직함으로 사역을 하며, 오랫동안 그들을 따른 사람들도 그들의 은사에 전념되고 그들의 어퍼함에 물든다. 그들은 사람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지식을 중시하며, 초자연적인 것들과 심오하고 비현실적인 수많은 도리(물론 이 심오한 도리는 전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것들임)도 중시한다. 그들은 사람의 성품 변화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설교 능력과 사역 능력 육성, 그리고 지식과 풍부한 종교적 도리 함양을 중시한다. 또한, 사람의 성품 변화가 어떠한지,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어떠한지는 중시하지 않으며,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는 더구나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의 관념을 일축하지도, 들추어내지도 않으며, 더욱이 사람의 부족한 점과 파괴 성품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은사로 섬기고, 종교적 관념과 신학 이론만 퍼뜨리며, 현실과 동떨어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그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인재 양성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신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양성하여 사역을 하도록 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6천 년 사역에서 너는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규례와 격식이 많고, 사람의 생각은 너무 교조적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내는 것도 사람의 체험 범위 안에서 얻은 인식과 체득에 불과하다. 사람은 이러한 것들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내지 못한다. 사람의 체험이나 인식은 선천적인 은사나 사람의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직접적인 목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목양을 받아들일 기관(器官)만 가지고 있을 뿐, 신성의 어퍼함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은 원천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원천 수를 담은 그릇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사람의 본능이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기관과 사람의 본능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잃고,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인식과 체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즉, 피조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잃은 것이자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본능이다. 육신으로 나타내든, 영이 직접 나타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혹은 사역이 끝난 후에 사람이 자신의 체험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는 많은 규례가 있을지라도,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조금도 여지를 두지 말고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

사람은 여러 해를 사역하면 그동안의 사역 경험과 지혜, 법칙을 종합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역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사역하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성령이 언제 사역하고 언제 사역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책임감이 있다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알 것이며, 성령이 사역하는 정상적인 상태와 사람의 생명이 자라는 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오랜 기간의 사역으로 성령 사역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된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사역을 해 온 사람은 매우 노련하게 말을 하고 당황해하지 않는다. 설령 할 말이 없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련하게 사역하는 사람이다. 오랜 기간 사역하고 경험과 교훈을 많이 얻은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역한 데에 따른 폐단이다. 사람이 처음 사역할 때는 사람의 교훈이나 경험이 섞이지 않고, 특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점차 사역을 해 나가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찾을 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지 등 사역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상식을 알게 된다. 시간이 오래되면 이러한 사역의 지혜와 상식에 대해 거의 손바닥 보듯 흰히 꿰뚫게 되며, 사역할 때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 방식을 바꿀 경우에도 여전히 과거에 사역하던 상식과 법칙을 고수하며, 새로운 사역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오랜 기간 사역한 데다가, 성령의 함께함과 인도로 인해 사람의 사역 경험과 교훈은 점점 더 풍부해지며,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내적 상태에 오만함이 섞이지

많은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상당히 만족하고, 자신이 얻은 성령 역사의 상식에 대해서도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얻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들로 그는 스스로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 마치 자신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런 특별 대우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오직 것처럼 오래 사역하고 꽤 사용 가치가 높은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것들은 그가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설령 그가 새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고루한 관념이 다스림을 받고 옛 성품이 심판을 거친 후에야 천천히 바로잡힐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쯤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낡은 관념과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나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가장 곤란한 부분이며,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역사에 대해 알 수 있고, 성령 역사의 동향을 종합할 수 있으며, 사역 경험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과거의 사역과 대조해 새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고 자격 있는 사역자이다. 사람은 보통 오래 사역하고도 사역의 경험을 종합하지 못하거나, 사역의 경험과 지혜를 종합한 후 그것이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되어 과거와 현재의 사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바르게 대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 어려운 존재다! 너희 중 많은 이가 이러하다. 성령의 역사를 오래 체험한 사람은 새 사역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언제나 관념으로 가득 차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반면, 이제 막 사역하기 시작한 사람은 또 사역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가장 간단한 일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너희는 정말 다루기 힘들다! 경험이 조금 있는 자들은 자기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거만하고 우쭐대며, 어린 사람들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자신은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할뿐더러 오랜 세월 모르고 간직한 관념을 내려놓지도 못한다. 어리고 무지한 자들은 성령의 새 사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열정이 꽤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판단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열정은 있으나 너무 우매하며, 성령 역사에 대해 갖고 있는 약간의 인식은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저 사용 가치가 전혀 없는 도리가 될 뿐이다. 너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다. 쓰기에 적합한 자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자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꽤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 아직도 관념을 다 내려놓지 못했고, 여전히 성경에서 찾으려 하며, 막연하게 믿거나 관념 속에서 방황한다. 오늘날의 실제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과거의 관념 속에서 오늘날의 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는 너희가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관념이 잠복해 있으며, 다만 너희가 온 힘을 다해 감추고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너희는 진심으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낡은 관념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다. 너희에게는 처세 철학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우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에 마지못해 대응한다. 너희의 마음은 너무나 음험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새 사역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희 같은 폐물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전 우주로 확장하는 사역을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작태가 너희의 성품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분명 도태될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사람의 사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의 사역에는 사람의 체험 성분이 많고, 사람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의 어떠함은 사람의 어떠함과 같지 않다. 사람의 어떠함은 사람의 체험과 생애(사람이 평생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는 어떤 처세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나타내는 어떠함은 서로 다르다. 네가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두 네가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서는 그의 사회적 이력을 볼 수 없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모두 들춰낼 수 있고,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행위는 더욱 잘 들춰낼 수 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일반인의 본성과 세상 사람의 모든 패괴를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살이를 해 보지 않았지만, 세상살이에 관련된 작은 것까지 잘 알고 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현재나 과거의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는 처세 철학이 아닌, 지혜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함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의 어떠함으로, 사람에게 공개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다. 그가 나타내는 것은 비범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의 고유한 속성과 어떠함이다. 그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천하의 일을 알고 있다. 그는 지식도, 식견도 없는 ‘유인원’들을 접했지만 지식보다 뛰어나고 위인보다 고매한 말씀을 선포한다. 또 인성이 없고 인성의 규칙과 인성 생활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인류에게 정상 인성으로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인류의 비열하고 천박한 인성을 들춰낸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어떠함이며, 육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높다. 그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불결한 사회생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파괴된 인류의 본질을 남김없이 들춰낼 수 있다. 불결한 사회생활은 그의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의 패역을 들춰내기만 할 뿐, 사람에게 처세 경험이나 교훈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사회 조사도, 사람의 가정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그가 사람을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은 그의 육신이 체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패역을 알고 인류의 파괴를 증오했기에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다 사람에게 그의 성품을 공개하고, 그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역은 그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육에 속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가 한 사역을 놓고 보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를 피조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의 어떠함을 놓고 봐도 그를 피조된 인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비인류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으로 분류한다.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육신의 체험을 대변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사역은 그 사람의 체험을 대변한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직접 진리를 선포하지만, 사람은 진리를 체험한 후에야 그에 상응하는 체험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규례가 없고, 시간과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의 사역은 다 자유롭게 이뤄진다. 사람은 조건과 배경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진리에 대한 체험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지, 사람의 사역인지는 대조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이 없고 사람의 사역만 있다면, 너는 사람의 말이 고차원적이어서 아무도 해낼 수 없고, 말투나 일 처리 원칙, 사역할 때의 능숙함과 진중함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너희는 자질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서는 그의 대단한 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정상적이며 실제적이지만, 그것은 또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사람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의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의 체험이나 상상력, 추리력이 아주 높고 인성이 특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탄복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경외와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사역 능력이 있고 체험이 깊으며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며 탄복하지만, 어찌 됐든 경외하지는 않는다. 그저 감탄하고 부러워할 뿐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사람이 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것임을 인지하며 신선함과 놀라움을 느낀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측량할 수 없고 지혜로우며 또 놀랍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가 하는 사역의 비밀이 사람의 사유로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다만 그의 요구에 다다르고 그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 그를 뛰어넘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지만, 그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 사람을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했으며, 그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진전과 시작을 얻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것은 탄복이 아니다. 탄복뿐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경외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끼고, 그가 하는 사역과 말씀을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을 받곤 한다. 충분히 깊게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지혜로움과 기묘함을 느낄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난다. 두려움이나 어찌다 한 번씩 생기는 추앙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형벌과 심판을 체험한 사람은 또 그의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을 느낀다. 그의 사역을 아무리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도 그를 측량하지 못한다. 진실로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사역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사람의 관념을 일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탄복이나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경외와 순종이다. 이렇게 많은 사역에서 진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전부 그에게 탄복을 넘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그에게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외심과 순종을 자아낸다. 그의 어떠함과 성품이 피조물과 같지 않고, 피조물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피조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경외와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체험하고, 또 그에 대해 진실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다 경외심을 갖게 된다. 그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즉 그를 아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르다고는 하나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천성이 패역한 자들이다. 그의 이러한 사역이 이루려는 성과는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경외심을 갖고, 그를 경배하며, 조건 없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역으로 이루려는 최종 성과이다. 이러한 사역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의 패역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그저 탄복하거나 경원시하는 것에 그치고, 사랑이 조금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온전케 될 조건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정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심판을 겪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자는 본성을 고치지 못하는, 극도로 악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도태되고 징벌받을 대상이며, 또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이 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이 받는 고통은 심지어 불의를 행한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 크다.

3단계 사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총 세 단계로 나뉜다. 이 세 단계의 사역에는 창세 사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율법시대의 사역과 은혜시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만 포함된다. 창세 사역은 온 인류를 탄생시키는 사역이지 구원하는 사역이 아니며, 인류의 구원과 무관하다. 창세 때의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뒤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또한 인류가 파괴된 뒤에야 시작된 것이다. 즉, ‘경영’은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창세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아니다. 경영 사역은 인류가 파괴 성품을 갖게 된 후 비로소 생겨났다. 그러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는 세 부분만 포함되며, 네 단계나 네 시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야말로 정확한 설명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경영 사역은 이미 모두 끝났다. 경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류는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없다면 경영 사역은 물론, 3단계 사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타락한 데다가 구원이 시급한 상태였기에 여호와와 창세 사역을 끝내고 율법시대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로써 비로소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인류를 경영한다’는 말은 막 창조된(파괴되지 않은) 사람이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파괴된 인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 경영’에 내포된 뜻이다. 창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은 창세 사역을 제외한 3단계 사역만 포함한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 대해 알려면 반드시 3단계 사역의 역사(歷史)를 알아야 한다. 이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인류가 패괴된 기원을 알고, 나아가 인류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몇몇 규례만을 지키며 하나님의 환심을 살 생각만 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인류가 패괴된 기원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 부족한 부분이다. 실행할 수 있는 일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영 사역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 너는 너무 교조적이다. 3단계 사역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의 실상이자 온 세상에 임한 복음이며, 온 인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복음 전파의 근거이다. 네가 외곬으로 너의 생명과 관련된 간단한 진리만 알고자 하고, 이 가장 큰 이상(異象)과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 너의 생명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사람이 실행만 중시할 뿐,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를 썩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언젠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고 위대하시며 지고지상하신 분이다. 그 어떤 위인도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라며 중요하지 않은, 입에 발린 소리나 하면서 중요하고 실질적인 말은 전혀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며, 또한 진리를 명확하게 교제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내면에 부족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이는 본분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너는 먼저 진리와 깨달아야 할 이상을 갖춰야 한다. 네가 하나님 사역에 관련된 각 부분의 이상과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인식을 갖추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도, 공의로운 심판이나 연단이 임해도 가장 큰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알맞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근본 취지와 사역의 중심, 사람을 향한 뜻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의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가 사역하는 원칙과 사람을 구원하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기간이 아니라면, 또 마지막 사역이나 전체 경륜을 끝내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는 기간이라면,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의 토대여야 한다. 3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다. 3단계 사역은 각 단계마다 목적과 의의가 서로 다르지만 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의 일부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구원 사역을 행한 것이다. 네가 3단계 사역의 근본 취지를 알면 각 단계 사역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장 큰 이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네 믿음의 토대가 된다. 너는 일부 간단한 실행이나 심오한 진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실행과 이상을 결합해야 한다. 실행 부분의 진리도 갖추고 이상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3단계 사역은 전체 경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이 모두 3단계 사역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3단계 사역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도 모르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양한 방식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3단계 사역은 인류 구원 사역을 오롯이 나타내므로 3단계 사역을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과 원칙도 알 수 없다. 한 단계 사역에서 남겨진 규례만을 고수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규례에 국한하는 자들이자 막연한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3단계 사역만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사탄을 물리치고 인류를 얻은 증거이자 하나님이 승리한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발현이다.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의 사역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만 알 뿐이다. 그나마 알고 있는 그 한 단계도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규례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규정하기 쉽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대체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까지 가득 뒤섞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 지혜와 사역의 원칙을 유한한 범위에 단단히 국한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그리한 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이며, 영세까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3단계 사역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최소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사역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앎은 그야말로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도 같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원로 종교가들이 왜 하나님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하나님을 한 범주 안에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알팍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알팍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천 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사리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지껄이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할,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오늘날 3단계 사역의 중요성을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 타고 쫓구경하듯 한다면 나의 심혈이 헛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모두 자신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언변이 뛰어나고, 이치적인 문제는 거침없이 대답하는 많은 사람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다. 너희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언행이 경망스러우며, 옛 성품을 고치지 않는다. 자신의 추구 방법을 바꿔 더 높은 진리를 얻으려 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저 되는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런 자가 어찌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럭저럭 때우면서 길 끝까지 간들 너희에게 또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느냐? 일찌감치 생각을 바꿔 진심으로

추구하든 하루빨리 물러나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시간을 끌어 봤자 밥이나 빌어먹는 기생충이 될 뿐이다. 너희는 그 저속하고 비열한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냐?

3단계 사역은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과 인류 구원의 실제 기록이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3단계 사역을 알아야 하며, 한 단계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앎은 사람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며, 성령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얻은 앎이자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체험한 후에야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앎이다. 이런 앎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개인의 체험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 3단계 사역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구원 사역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역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발견하기 가장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다. 시대가 나뉘고, 사역이 달라지고, 사역의 장소와 대상이 바뀌는 등등은 모두 3단계 사역에 포함된다. 특히 성령 역사의 방식 차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이름, 신분 또는 다른 변화들은 모두 3단계 사역 안에 있다. 한 단계의 사역은 그저 한 부분만 대변하고 한 범주에만 국한되기에 시대의 구분은 물론, 사역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다른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단계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이다. 사람은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이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런 앎은 사람을 설득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으며, 실정에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 설령 네가 아는 것이 많고 게다가 다른 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앎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앎을 칭찬하기는커녕 그를 모독한 죄를 물어 보응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앎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네 언변이 뛰어나 청산유수 같은 말로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산 것을 죽은 것이 되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앎을 얘기할 때면 너는 바로 문외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분도, 네가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할 수 있지만, 적당한 단어로 하나님의 ‘크나큰 은덕’을 함부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실패자의 깨달음이다. 수많은 언어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한바탕 묘사할지라도 그 묘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언어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체험이 풍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설명하는 진리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앎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실제에 있는 것이지, 언어의 교묘함이나 단어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는 인류의 그 어떤 자연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높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개구쟁이 어린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어쩌면 너는 가정이나 사업 또는 결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지만,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는 백지상태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 진리 실행은 큰 난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애로 사항이자, 모든 인류의 애로 사항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사람 가운데 합당한 기준에 달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류의 난제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로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또 답하기를 원치 않는 문제이다. 인류 중 지금까지 이 일을 연구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3단계 사역’의 수수께끼가 인류에게 공개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인재들이 잇달아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게다가 지금 그 사역에 착수하고 있다.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인재가 더 많이 나와 3단계 사역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해, 그들이 3단계 사역을 증거하는 창시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인재, 즉 성육신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온전케 된 사람이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어쨌든 나는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천고에 없었던 사역이고, 인류 발전의 역사에서도 없었던 위업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창시인이 된다면,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영광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 사역을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이 되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성별이나 국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사역이자 이후의 사역이고, 6천 년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려는 최고의 사역이며, 또한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는 사역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각 부류 사람들의 등급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기(知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기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든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 환난이든 연단이든 심판이든 모두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마지막에 거두어야 할 유일한 성과이다. 3단계 사역을 모두 공개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단계 사역은 하나님 경영의 전부이자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 가장 큰 이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려우며, 또한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이상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상이 사람을 오늘날까지 지켜 주었고, 이상은 사람에게 최대의 보호막이 되었다. 너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알아 가야 한다. 3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의 지혜로운 사역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것이 너희의 진실한 분량이 된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앞 두 단계 사역과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단계 사역 중 한 단계 사역만으로는 구원 사역을 전부 완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 이 단계 사역으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 두 단계의 사역 없이 마지막 단계 사역만으로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단계 사역 중 어느 단계의 사역도 단 하나만 가져와서 온 인류가 유일하게 알아야 할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구원 사역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사역이지, 그중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이 하루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과 성품, 지혜는 모든 구원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미리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 성품과 어떠함의 일부를 발현하는 것이지, 매 단계에 곧바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3단계 사역이 완성되어야 구원 사역이 모두 끝나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 가는 것 역시 3단계 사역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단계 사역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 사역에서 발현된 성품에 불과하므로 그 전이나 그 후에 발현된 성품과 어떠함은 대변하지 못한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한 시기나 한 장소에서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인류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 사역은 한 단계씩 하는

것이지 한 단계에서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지혜의 결정체는 어느 한 단계가 아닌 3단계 사역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과 지혜는 3단계 사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단계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3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성품을 알아야 한다. 이 어떠함은 온 인류에게 실로 중요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런 사람은 불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3단계의 구원 사역을 행한 이상, 사람은 이 3단계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춘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개한 것이라면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자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 3단계 사역 중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 사역을 바탕으로 행한 것이지,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을 따로 행한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역의 내용이 크게 다를지라도 사역의 핵심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구원 사역을 점차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단계 사역은 모두 이전 단계의 사역을 폐하지 않은 기초에서 계속 이어진다. 이로써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드러낸 적 없는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언제나 그의 새로운 사역과 어떠함을 공개한다. 원로 종교가들이 극력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가 해야 할 더 새로운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시대, 사역 대상도 언제나 바뀐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이전에 행한 적이 없던 사역을 행하며, 심지어는 사람이 보기에 이전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사역도 행한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사역과 한 가지 실행만 받아들일 뿐, 그것과 대립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사역이나 실행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성령은 언제나 새로운 사역을 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역에 대적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전문가’가 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늘 새롭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인지, 하나님 자신이 행한 사역인지, 사람에게는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견해와 맞으면 받아들이고, 과거의 사역과 다른 점이 있으면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원칙은 다 이런 것 아니었느냐? 구원 사역의 3단계 사역은 너희에게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그야말로 알 필요가 없는 짐으로 여기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알리지 말고 속히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을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 이것이 너희의 관점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한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의미 없는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3단계 사역을 모두 너희에게 공포한 이상, 그것은 분명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3단계 사역이 전체 경영의 핵심인 이상, 반드시 전 우주 아래의 모든 사람이 다 눈여겨보게 될 것이며, 언젠가 너희 모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거나 자신의 관념으로 오늘날의 사역을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너무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관념과 태생적인 교만, 그리고 너무도 패역한 천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감히 공개적으로 성령 역사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며, 또 성령의 새 역사가 있는 사도들을 훈계하고 이래라저래라 불손하게 말하니, 참으로 저급한 인성이요, 이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언젠가 성령 역사에 의해 버려지고 지옥의 불에 불살라질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며 지휘할 생각까지 하는데, 이렇게 비이성적인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찾고 구하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제멋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대적한다. 너의 관념과 옛 성품, 인성, 품성, 도덕 사상은 모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밀 천’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품성이 악랄하며 인성이 저급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다. 관념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자와 성품이 독선적인 자는 성육신 하나님의 원수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네가 관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관념은 영원히 하나님과 적대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앎은 낡은 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기지만, 낡은 앎이 꼭 낡은 관념인 것은 아니다. 관념이란 사람이 혼자 상상하는,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낡은 앎이 옛 시대에서도 이미 뒤쳐진 데다 사람이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앎은 관념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앎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 새것과 옛것을 결합할 수 있다면, 그 낡은 앎은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밑바탕이 된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서 너는 수많은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관념과 옛 성품을 벗어 버리고 새 사역의 모든 안배에 순종해야 할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이 공과에 진입한다면, 너의 삶은 갈수록 깊어질 것이다. 내가 3단계 사역, 그러니까 전체 경륜의 사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앞 두 단계의 사역을 현재에 연결 지어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 3단계 사역은 하나님 한 분이 행한 것으로, 최대의 이상이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3단계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3단계 사역은 시대도,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역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이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 가운데 가장 큰 이상이다.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각 종교 각 교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어떤 것이 성령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 역사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번 단계의 사역이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도 이 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인지, 말씀이 육신 된 것이 사실인지 걱정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하기 위한 실마리가 별로 없다. 따르는 사람이 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면 그 도는 그런 사람에게 일부 효과만 낼 뿐, 100%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 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이 3단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세 단계의 사역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했음을 깨닫는다면 사역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인 이상, 분명 어떤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한 일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임을 확신한다면, 사람의 관념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이 된다. 이상에 대해 불분명하기에,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만 알 뿐, 오늘날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미련을 둔 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수많은 관념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역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앞 두 단계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없다. 그것은 사람이 앞 두 단계 사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또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없기에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든 입증할 수 있는 사실도, 바로잡아 줄 이도 없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대로 대답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입증할 사실이 없었기에 그 상상은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실’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머릿속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 실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백 사람이면 백 가지 신앙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지 귀로만 들었을 뿐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며, 전설과 이야기로만 들었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1년 믿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한평생 믿은 사람 역시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 신앙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은 이미 낡은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에 들어갔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두 관념이자 떠도는 소문이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의 관념이 정확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 이 사역을 마주하면서 오랫동안 지녀 온 관념을 분출하게 되었다. 지난날의 상상과 생각이 이번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건만 사람은 모두 이 관념들을 내려놓기 어려워하고, 이전의 생각들을 뒤엎기도 힘들어한다. 오늘날까지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한 걸음씩 진행되는 이 사역에 대해 관념이 점점 심해져 성육신 하나님과 풀기 어려운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원한의 근원이 바로 사람의 관념과 상상이다. ‘사실’은 사람이 멋대로 펼치는 상상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람이 제멋대로 뒤집으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반면 사람은 관념과 상상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으며, 사실의 정확성과 진실성은 무시한 채 한결같이 자신의 관념만 분출하고 상상의 나래만 펼친다. 이렇게 사람의 관념과 상상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사역과 원수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단계는 고사하고 조금도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와 예수 사역의 정수를 모아 편찬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와 예수가 행한 사역의 사실들을 뒤엎지는 못한다. 이것은 원칙이자 행정 법령이다. 너희는 모두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이번 단계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잘 맞다고 생각하면서 앞 두 단계의 사역은 절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역 원칙은 모두 똑같고, 그의 사역은 어쨌든 다 실제적이며, 어느 시대의 사역에서든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날 이 단계 사역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는 분명 이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3단계 사역을 하나님 한 분이 행한 사역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관념을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다. 전체 경영이 끝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마지막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3단계 사역의 종결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행한 앞 두 단계의 사역과 말세의 사역은 곧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이다. 사람은 많은 사역을 체험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3단계 사역을 받아들일 것이다. 네가 어느 한 단계 사역만 알 뿐, 나머지 두 단계 사역과 과거의 하나님 사역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모든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 깊게 알든 얕게 알든,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두 깨닫고 철저히 인정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이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모든 사교가 사라져 더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늘 3단계 사역을 언급하겠느냐?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발전, 자연의 변모는 모두 이 3단계 사역의 변화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따라 바뀔 뿐,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3단계 사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각 종교 각 교파, 각계의 인사들이 다 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어느 교파에 속하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순종할 것이다. 이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교주도 행하지 못한다. 세상이 몇 개의 큰 종교로 나뉘었다고는 하나 종교마다 교주와 통솔자가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지구상의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국가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지만, 세계 각지의 종교 종류가 얼마나 되든 결국 전 우주의 모든 사람은 한 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종교의 교주나 통솔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이끄는 이는 어느 교주나 통솔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이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 큰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가 얼마나 크든 모두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어떤 종교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발전과 사회의 교체, 자연 과학의 발전은 다 창조주의 안배를 떠날 수 없다. 이 사역들은 어느 한 교주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주는 어느 종교의 통솔자일 뿐, 하나님을 대표하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교주는 그 교파의 모든 인사를 통솔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솔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교주는 통솔자일 뿐이므로 하나님(창조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만물은 창조주의 수중에 있기에 마지막에는 모두 창조주의 수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류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기에 어느 교파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은 분이므로 피조물 중의 최고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인류를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없고, 누구도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없다. 여호와가 인류를 창조하여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으니 마지막에도 그가 자신의 사역을 행하여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한 3단계 사역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고,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3단계 사역의 사실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한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단계 사역이 끝나면 만물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전 우주 위아래에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며 다른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자는 세상을 끝낼 수 없고, 세상을 창조한 이는 틀림없이 세상을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를 끝낼 수도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쌓으라고만 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도, 인류의 주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이처럼 큰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 사역을 행하는 이는 오직 한 분뿐이며, 이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자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원수이다. 사교(邪教)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다. 모든 사역은 다 이 참하나님 한 분이 행하고, 온 우주도 다 이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든 중국에서 사역하든, 영으로 사역하든 육신으로 사역하든, 모두 그 자신이 행한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떤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이상이다.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역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의미까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歷史)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모르며, 더욱이 인류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 누가 전 인류를 다스리는지도 모른다면, 본분 이행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왔고, 땅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래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사람을 인도하며 한시도 사람과 떨어진 적이 없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 피조물인 내가 자신의 역사(歷史)를 모르고,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누가 이끌어 주었는지도 모르며, 하나님이 행한 사역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모른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날 창조주가 또 친히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면서 그의 지혜와 전능, 구원과 기묘함을 보여 주었는데도 결국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아니겠느냐? 사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도태될 대상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3단계 사역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고, 3단계의 구원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지막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그들은 6천 년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최후에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병을 지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사람들 중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절반 혹은 몇 명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너희의 의지와 추구에 달려 있다.

패괴된 인류에게는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그의 사역 대상이 사탄의 영도 아니고, 육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며,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체가 패괴되었기에 하나님이 육에 속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더욱이 사람이 패괴된 대상이기에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구원 사역을 하든 사람을 자신의 유일한 사역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평범한 존재로 육에 속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육신이 되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육에 속하는 데다가 죄를 이기는 능력과 육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 사역해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이 사람의 본질, 신분과는 크게 다르지만 그의 겉모습은 사람과 같다. 그는 정상인의 외모를 지녔고 정상 인성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에게서 정상인과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이 정상적인 외모와 정상 인성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신성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의 육신은 그가 정상 인성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이롭다. 또 그의 정상 인성은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 사역에 더욱 이롭다. 비록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들 가운데서 적잖은 풍파를 일으키겠지만 그것은 그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요컨대, 그가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의 사역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과가 정상 인성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그의 정상 인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의 10배, 수십 배를 훨씬 넘는 것을 얻게 한다. 그런 관념들은 결국 그가 행하는 사역에 모두 파묻히고, 사역이 거두는 성과, 즉 그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그에 대한 관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의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외형은 같아도 본질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그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수많은 관념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육신은 또 사람이 수많은 인식을 얻게 할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육신은 그와 외형이 비슷한 그 어떤 사람이든 정복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형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완전히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르고 환영한다. 만일 하나님이 그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일 뿐이라면

사람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상상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마음대로 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자신만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개이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막연함과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추구하며, 대동소이하여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자 상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사람은 모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것은 ‘인권의 자유’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이 믿는 대상은 모두 자신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며, 사람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 이 재산이 사람에게는 보배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이 사유 재산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있는, 형상이 있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육신이다. 하지만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 형상은 없지만 자유로운 형상이 있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다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 사람에게 관념이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패역 때문도 아니라, 사람의 이 사유 재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재산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믿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도 아니고 더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아닌, 사람 스스로 상상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이유는 전적으로 파괴된 사람의 필요 때문이다. 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대가와 고통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득실과 보답이라는 말이 없다. 그가 얻는 것은 그가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인류를 위해 행한 모든 것과 지불한 모든 대가는 더 많은 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류를 위한 것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에는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과가 훨씬 더 크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영과 같은 위대한 신분을 가질 수 없고, 영과 같은 비범한 행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영과 같은 권병은 더더욱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영이 직접 하는 사역의 본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육신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영의 사용 가치는 육신의 사용 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영의 사역은 우주 전체로 널리 퍼질 수 있고 산천 호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육신의 사역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형상이 있는 육신은 사람의 이해와 신뢰를 더 잘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영의 사역은 매우 신비로워서 평범한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그저 터무니없이 상상할 뿐이다. 반면 육신의 사역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일뿐더러 풍부한 지혜가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역하는 지혜를 직접 깨달을 수 있어 풍부한 상상을 펼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 사역의 정확성이자 실제적인 가치이다. 영은 단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만 할 수 있다. 영의 깨우침, 영의 감동, 영의 인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 줄 수 없고, 말로 분명하게 가리켜 줄 수 없으며, 그저 감동이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뜻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이와 전혀 다르다. 육신으로 사역하면 정확한 말씀의 인도, 명확한 뜻, 그리고 명확한 요구와 목표가 있으므로 사람이 모색할 필요도 없고 상상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추측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명확성으로, 영의 사역과는 크게 다르다. 영의 사역은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만 적합할 뿐, 육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육신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사람이 얻는 인식의 실제 가치는 영의 사역이 지니는 정확성이나 실제 가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파괴된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과 명확한 추구 목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역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역하고 제때 인도해야만 사람의 기호에 맞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사역해야만 사람을 파괴되고 타락한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파괴되고 타락한 옛 성품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영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이지만, 이런 사역은 오직 육신으로만 할 수 있다. 오직 영이 단독으로 역사한다면 사역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육신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해도, 이 육신이 자신의 사역을 끝낼 때면 그와 적대 관계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에게 정복된 증인이 되고, 그와 합하여 헤어지기 힘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육신이 사람의 생존 의의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사람의 생명 성장에 있어 육신이 가진 실제 가치를 알게 되고, 더욱이 이 육신이 사람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와 크게 다르고, 사람이 보기에 그의 실제 신분에도 걸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지니지 않고 본래 신분도 없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한 본래의 의의와 가치다. 하지만 사람은 이 의의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육신을 내려다본다.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 육신의 실제 의의와 가치는 영의 실제 의의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물론 이것은 파괴된 인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역이 그저 감동이나 묵시를 줄 뿐이고, 또 신묘마축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느낌과 위대하고 비범하며 모든 사람이 우러르면서도 닿을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느낌을 줄 뿐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영은 그저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원히 서로 갈아질 수 없는 것 같으며, 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영에 대한 사람의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그저 영과 사람이 같은 부류가 아니고 영과 사람이 절대로 같은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영은 사람이 가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다. 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사역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추구 목표와 명확한 말씀을 주고,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라는 느낌과 자신을 낮추고 평범하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에게는 접촉하기가 상당히 쉽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아득히 멀리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 육신은 사람에게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측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이 육신이 사람과 같은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성품을 변화시키려면 추구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해야 할 필요성으로, 모든 파괴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없애야 하고, 사람에게 파괴 성품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이런

파괴 성품을 알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이 이 사역을 한다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말로 들추어내고 벗겨 버리고 나아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에게 깊이 뿌리박힌 것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실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대신하여 사람이 차츰 깨닫게 해야만 원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지난날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즉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영의 직접적인 인도 때문이 아니고, 나아가 누군가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덕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모습과 사람의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의 관념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부각해야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이 모두 드러난다. 성육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지 않는다면 사람의 관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것으로 부각하지 않으면 막연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역은 누구도 말로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말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풍부해도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여 그의 형상과 어떠함을 모두 알려야만 사람이 그를 더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영 또한 이런 사역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은 파괴된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이자 하나님이고, 정상 인성을 갖춘 사람이자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또한 영과 크게 다르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이는 여전히 성육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영이자 육신이다. 호칭이 어떠하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육신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육신이 하는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할 뿐이다. 영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이면 성육신할 필요가 없고, 육신이 해야 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사역에 필요한 것이고, 또 파괴된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세 단계 사역 중 오직 한 단계 사역만 영이 직접 한 것이고, 나머지 두 단계 사역은 모두 영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영이 행한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도 관련이 없었다. 반면 육신이 행한 은혜시대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사역은 모두 사람의 패괴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육신이 행한 사역은 구원 사역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이다. 그러므로 패괴된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육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 인류에게는 성육신 하나님의 목양, 붙들, 양육, 심판, 형벌이 필요하고, 성육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구원(원문: 救贖)이 필요하다. 오로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지기(知己)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탄이 아니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지 마귀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멸할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가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으므로 반드시 먼저 사람의 육체를 구원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가장 심하게 패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패괴된 육체는 아주 완고하고, 육체의 패괴 성품은 다루기도 변화시키기도 가장 어렵다. 사탄은 사람의 육체를 찾아와 방해하며,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다. 그렇게 해서 사람도 사탄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육신으로 와서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고 사탄과 싸운다. 그 목적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며 그를 거역한 사탄을 물리치고 멸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한편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말씀하고, 육신으로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사람과 더 잘 접촉하고 사람을 더 잘 정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성육신은 말세에 하는 사역을 육신으로 끝내고, 모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며, 그의 경영 전체를 끝내고, 그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끝낸다. 땅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끝나면 그는 철저히 승리하게 된다. 육신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철저히 정복하고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고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므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사람을 패괴시킬 기회가 없다. 첫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사하는 것이었고, 지금의 사역은 정복하여 사람을 철저히 얻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이 하는 사역이자 하나님 자신이 하는 사역이다. 3단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육신이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한 사역이었다. 3단계 사역의 마무리 사역은 영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의 구속 사역 역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한 사역이었다.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핵심 사역은 파괴된 사람을 철저히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경외심을 되찾게 하고 정상인의 생활, 즉 정상적인 피조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경영 사역의 핵심이다. 이 세 단계 구원 사역 중 1단계인 율법시대의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과 큰 차이가 있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의 겉모습만 조금 갖추었을 뿐이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사역은 시작하지 않았다. 1단계 사역을 영이 직접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았을 뿐 더 많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성품 변화와 거의 관련이 없고, 사람을 어떻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는지에 대한 사역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파괴 성품과 관련되지 않는, 극히 간단한 사역만 완성한 것이다. 그 단계의 사역은 경영의 핵심과 그리 큰 관계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과도 그리 큰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사역할 필요가 없었다. 영이 하는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측량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무서워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므로 직접 구원 사역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직접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영의 사역을 사람과 가까운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평범한 정상인이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영의 사역을 대신해야 한다. 이 사역 방식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 세 단계 사역 중 두 단계 사역은 육신이 행한 것이며, 또 이 두 단계 사역은 경영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충하며 완전케 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두 번째 성육신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단계 사역을 성육신의 신분으로 행한 것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이 두 단계 사역이 실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이 없었다면 전체 경영 사역이 정체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역의 중요성은 인류의 필요성, 인류의 타락 상황, 사탄의 거역과 사역을 방해하는 정도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는 사역자의 사역 성질과 사역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역의 중요도를 놓고 볼 때, 사역 방식을 택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하는 것, 성육신하여 사역하는 것, 또는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것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탈락된 것은 ‘사람을 통해 사역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사역의 성질,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성질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육신이 사역하는 것이 영이 직접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영이 사역할지, 육신이 사역할지를 결정할 때의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각 단계의 사역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아니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 의의가 있고 근거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의 실상이다. 특히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하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어려움은 그가 사역할 때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려움이다. 사람은 이런 세밀한 마음과 생각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깨닫기도 어렵다. 사람이 사역할 때는 대체적인 원칙이 있다. 사람에게에는 이것도 이미 상당히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실로 격차가 크다. 하나님의 행사는 위대하고 그의 사역 규모 역시 매우 거대하지만, 이런 사역들의 이면에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세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안배가 많이 들어 있다. 그가 하는 각 단계 사역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에게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영의 사역이든, 성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하나님의 사역 계획이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역하지 않고 무의미한 사역도 하지 않는다. 영이 직접 사역하는 데에는 그의 목적이 있고, 사람이 되어(그의 외형을 바꾸어) 사역하는 데에는 더더욱 그의 뜻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쉽게 신분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될 리 있겠느냐?

육신이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은 사역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마지막에 사역을 끝내는 것은 영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땅에 와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친히 전 인류를 심판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킬지 모르니 누구도 빠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단계의 성육신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통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심판 사역이라 말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패괴는 다 같지 않느냐? 사람의 본질은 다 같지 않느냐?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작은 결점이 아니라 인류의 패괴된 본질,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업이다. 심판 사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오롯이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사역을 대표한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일부 사람에게 친히 하는 사역으로 전 인류의 사역을 대변하며, 그런 다음 점차 확장한다. 심판 사역도 이리하다.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이거나 일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불의,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등을 심판하는 것이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본질이며, 이 심판 사역이 바로 말세의 정복 사역이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바로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세의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 사역이다. 지금 성육신한 하나님이 하는 사역 역시 희고 큰 보좌 앞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이 바로 말세에 전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 육신과 육신의 사역, 말씀, 모든 성품이 그의 전부다. 비록 육신이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우주 전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판 사역의 본질은 모두 직접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다. 단지 중국 선민만을 위해서, 또 몇 사람만을 위해서 심판 사역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사역의 범위가 우주 전체까지 미칠 수 없다 해도, 그가 하는 사역은 우주 전체의 사역을 대표한다. 또한 그가 육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하는 사역을 끝내면 이 사역을 즉시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마치 예수가 부활해 승천한 후 복음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영의 사역이든 육신의 사역이든 모두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행하지만, 우주 전체를 대변한다. 말세의 사역은 성육신의 신분으로 나타나 하는 사역이다. 그 육신의 하나님이 바로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든 육신이든, 결국 심판 사역을 하는 이는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 근거해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근거해 정한 것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관념을 갖고 있더라도 성육신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누구도 “사역은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육신의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역이 다 끝난 이상, 이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역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성육신이 이미 전체 경영 사역을 모두 끝냈으므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이 있을 리가 없다. 사탄의 영을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육에 속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사역은 영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다. 사람 육체의 파괴를 심판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해야만 가장 적합하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만이 가장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심판한다면 여러 면에서 빈틈없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영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없고, 더욱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더 뚜렷하게 보여 줄 수도 없다. 오직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인류의 파괴를 심판해야만 사탄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다. 똑같이 정상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를 직접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본래 거룩하고 남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반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영은 본래 육체를 지닌 존재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영은 본래 거룩하고 육체를 능가한다. 영이 직접 이 사역을 하면 사람의 모든 패역을 심판할 수 없고, 사람의 모든 불의를 드러낼 수도 없다. 심판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통해 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본래 영에 대해 관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사람의 불의를 더 잘 드러낼 수는 없고, 더욱이 사람의 불의를 확실히 들추어낼 수도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이다. 그는 그에 대한 사람의 관념과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패역을 모두 들추어낸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뚜렷한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역은 영이 직접 하지 않고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다가 순종하고, 핍박하다가 받아들이고, 관념을 갖고 있다가 알게 되고, 저버리다가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성과다. 사람은 모두 그의 심판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만 차츰 그를 알게 된다. 또 대적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복되고, 그의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영의 신분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는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자 가장 심오한 사역이다. 세 단계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두 단계 성육신 사역에 있다.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사람이 매우 심하게 파괴된 데다, 특히 말세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이 더욱 힘들고 외부 환경이 열악하며 각 부류 사람들의 자질도 몹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이 끝날 때는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 성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역한 성과로, 이 성과는 영이 하는 사역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세 단계 사역은 육신 중에서 끝나며, 또 반드시 성육신 하나님이 끝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역은 모두 육신으로 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반드시 육신이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육신의 하나님은 사람과 무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의 운명, 그리고 생존과 관계된다.

하나님이 어느 단계의 사역을 하든 모두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인류 전체를 마주한 것이다. 설령 육신으로 하는 사역일지라도 전 인류를 마주한다. 그는 전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의 하나님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범위도,

사역하는 대상도 제한적이지만, 그가 매번 성육신하여 사역할 때마다 택한 사역 대상은 모두 지극히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한’ 한 무리 사람을 택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무리를 택해 사역 대상으로 삼는다. 이 한 무리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선택된 자들이고, 오로지 하나님은 입을 육신만을 위해 예비된 자들이며, 또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사역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근거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다. 사역 대상은 반드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대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예수가 친히 행한 구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중국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근거가 있고, 중국인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정복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근거가 있다. 유대인 가운데서 구속 사역을 하면 구속의 의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중국인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하면 정복 사역의 완벽함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육신으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 보기에는 그저 일부 소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부 소수 사람들 가운데서 우주 전체의 사역을 하고 인류 전체를 향해 말씀하는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끝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한 사역을 널리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과 당부를 남길 수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정확한 뜻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육신으로 한 모든 사역과 전 인류에 대한 그의 뜻을 더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현하게 되었다.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호와와 닮은 모습만 보여 주던’ 시대를 끝내고, 인류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던 시대도 끝냈다. 특히 마지막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 전체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름다운 시대로 인도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하나님,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경륜 사역을 펼치고 인류의 비밀과 종착지를 보여 주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고 경영 사역을 끝내는 하나님, 수천 년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을 인류에게 공개하여 막연한 시대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또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시대와 사탄을 섬기던 시대를 끝내고,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완전히 인도해 들어갔다.

이런 사역은 모두 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여 사역함으로써 거둔 성과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역을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을 찾지 않게 되고, 다시는 막연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한 사역을 확장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육신으로 했던 모든 사역을 각 종교, 각 교파에 전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할 것이다. 또 그의 복음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가 사역한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으로, 뜬소문이 아닌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그가 사역을 확장한 증거이자 사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만일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음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없고 단지 사람의 상상만 있다면 영원히 우주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영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다. 영으로 사역하면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사역한 사실을 남길 수 없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고, 영원히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또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 헛된 것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그 자신의 사역은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역해야만 하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땅에 옮겨 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성육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역을 행하여 이미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이미 큰 노력으로 얻어 낸 성과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 경영 사역 가운데 90%를 완성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더 좋은 시작으로 인도했다. 이 육신은 그의 모든 사역을 총결 짓고 널리 알렸으며, 마지막으로 완전히 보완했다. 이제 다시는 성육신 하나님이 와서 네 번째 단계의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성육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사람처럼 어느 한 시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성육신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전부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은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기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전체 시대에 하는 사역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모두 끝낸 다음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뿐이다. 성육신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다한 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을 맡긴다. 그래야만 그의 전체 시대 사역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사역이 전 우주 각 지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성육신의 전체 시대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의

사역은 새 시대를 여는 사역이며, 그의 사역을 잇는 것은 그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모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 안에 있는 사역이며,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낡은 시대를 끝낼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없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단지 본분 내에 있는 것,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일 뿐이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해 사역할 수는 없다. 오직 성육신 하나님만이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누구도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성육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성육신하여 먼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한 단계의 사역을 한 후, 다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사역을 더 많이 할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을 정복하는 데 있다. 성육신 자체가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그가 한 더 많은 사역 역시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더욱 예사롭지 않아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정복 사역을 한다.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직분을 다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할 것이다. 이 사실은 중국인 가운데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전체가 정복되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성과 역시 전 인류에게서 나타날 성과를 미리 보여 준다. 심지어 그가 앞으로 할 사역은 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사역보다 점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육신의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기세가 대단하지도 않고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도 않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며,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사람이 얻는 것도 모두 실제적인 인식과 진리다. 사역이 끝날 때 사람은 그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관념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중국인에게서 거둔 사역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류 전체를 정복하는 사역의 성과를 뜻한다. 이 육신, 이 육신의 사역, 이 육신의 모든 것은 전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에 가장 이롭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의 사역에 이롭고 앞으로도 그의 사역에 이롭다. 이 육신은 인류 전체를 정복하고, 또 인류 전체를 얻는다. 그의 사역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역이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제한적인 범위만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또 결말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사역하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미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누었고, 인류 전체를 심판했으며, 인류 전체를 위해 적합한

종착지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국에서만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우주 전체의 사역을 모두 해결했다. 그는 인류 전체의 사역이 다 확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씩 말하거나 하나씩 안배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후의 사역을 충분히 앞당겨 완성할 수 있다. 사역하는 이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한한 범위의 사역을 유한한 범위에서 행한 후, 사람에게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게 한다. 이것이 그의 사역 원칙이다. 그는 사람과 한 시기만 함께 생활할 뿐, 전체 시대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 인류 전체가 그의 사역 속으로 한 단계씩 진입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영이 아닌 말씀이 시대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육신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역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설령 사역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대변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며,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권병과 지혜가 가득한지, 그가 하는 사역이 가장 가치 있고 의의 있는 사역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며, 또한 만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사역은 반드시 커다란 의의가 있어야 한다.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가장 심하게 기만당했다. 육체는 극심한 해를 입은 대상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사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대상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도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이며, 사람은 또 구원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성육신으로 사역할 필요성이 크다. 사탄이 사람의 육체를 파괴시켜 사람은 사탄의 화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모두 땅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 사탄과 싸워야 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다.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육신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영계에서의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는 영계에서의 사역을 모두 땅에 실체화했다. 그가 정복하는 대상은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고, 그가 물리치는 대상은 그를 적대시하는 사탄의 화신(물론 이 역시 사람)이며,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대상 역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피조물의 외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했다. 사탄과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그를 거역할뿐더러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사탄에게 해를 입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의 원수는 사람이고, 정복할 대상도 사람이며, 구원할 대상 역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사역이 훨씬 편해져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정복할 수 있고 더욱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다. 비록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지라도 평범한 육신이 아니고 인성만 있는 육신도 아니며,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진 육신이다. 이것이 그와 사람의 다른 점이며, 하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지이다. 이런 육신만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을 철저히 완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은 영원히 공백 상태일 것이고, 영원히 허점일 것이다. 설령 하나님이 사탄의 영과 싸울 수 있고 이긴다고 해도 패괴된 사람의 옛 성품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에 진실로 복종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영원히 인류를 정복할 수 없고 인류 전체를 얻을 수 없다. 땅의 사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끝날 수 없고, 인류 전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경영 사역은 영원히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그의 육신은 권병을 지니지 않았지만 그가 한 사역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가 행하는 사역의 필연적인 흐름이다. 권병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육신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평범해도 그가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육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본질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고, 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그 누구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 육신이 인류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면서 더욱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땅에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패괴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있어 그 어떤 가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보다 더욱 완전하게 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이지만 그가 인류에게 기여한 것과 인류의 생존에 대해 갖는 의의를 논한다면 아주 보배롭다. 이 육신의 실제 가치와 의의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육신은 비록 사탄을 직접 멸할 수 없지만 그는 사역의 방식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쳐 철저히 그의 권세 아래에 굴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였기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사탄을 직접 멸하지 않고 성육신하여 사역하면서 사탄에 의해 패괴된 인류를 정복한다.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패괴된 사람을 더 잘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탄을 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되며 설득력도 더 강하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아 가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본질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땅에서 33년 반 동안 생활했으나, 직분을 이행한 것은 3년 반에 불과했다. 그는 사역을 행할 때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고, 정상 인성으로 33년 반을 살았으며,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언제나 성육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났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정상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신성의 모습은 조금도 없었다. 단지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야 신성이 드러났을 뿐이다. 29년 동안 행한 사역과 모든 생활은 그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자 인자이며, 육신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는 29세 이후부터 정식으로 직분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일컫는다. 즉,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의 형상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육신, 그것도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함의는 육신으로 사역하고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된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삶과 사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의 삶이다. 일반인의 가정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며,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윤리와 법칙, 정상적인 필요(의식주 등), 정상적인 연약함과 정상인의 회로애락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성이 아닌 완전히 정상적인 인성으로 살면서 정상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의 삶이다. 이때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평범한 인성으로 살며, 겉모습에는 조금도 초자연적인 부분이 없지만,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때의 정상 인성은 오로지 신성의 사역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정상 인성이 이미 직분을 이행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정상 인성으로 직분을 이행하는 삶이자,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첫 번째 단계의 삶이 완전히 평범한 인성으로 사는 삶인 이유는 그때의 인성이 신성의 모든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으며, 인성이 성숙해질 때까지, 즉 직분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성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인 이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의 삶은 그저 정상 인성의 삶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삶은 인성으로 사역을 충분히 담당하고 직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이 직분을 이행하는 기간의 삶은 바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삶이다. 만약 성육신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만 행한다면, 육신의 본질은 없어진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의 본질을 위해 존재하고, 인성이 없는 육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성이 없는 사람은 비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육신의 인성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고유한 속성이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성육신 하나님께는 신성만 있고 인성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독이다. 이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성육신의 원칙과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인성의 외형을 지닌 신성으로 살며 사역한다. 다만, 이때의 인성은 오로지 신성이 정상 육신에서 사역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역사하는 것은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이다. 즉,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지 인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신성은 인성에 가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성이 아닌 완전한 신성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단, 역사하는 것은 육신이며, 이 육신을 사람이라고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외형과 본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사람이기에 창조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외형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인성을 지닌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그만이 성육신한 하나님 자신이며, 그 외에는 모두 창조된 인류인 것이다. 똑같이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창조된 사람은 인성 말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은 다르다. 그의 육신에는 인성 말고도 무엇보다 중요한 신성이 있다. 인성은 육신의 외관으로 알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지만, 신성은 쉽게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신성은 인성이 있는 전제하에 나타나며,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비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측량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너희 대다수는 이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다고 하면 그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체이다. 이 결합체를 하나님 자신이자 땅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땅에서 예수의 삶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정상적인 삶이었다. 그는 육신의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역하고 말씀하는 권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병 등 비범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29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가 단지 정상 육신일 뿐이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정상 육신인 데다가 직분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저 그를 정상적인 일반 사람으로 봤을 뿐이다. 당시 일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일반인의 아들이었으며, 전혀 하나님이 입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직분을 이행할 때 많은 이적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는 다 그가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닌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의 정상 인성과 그가 행한 사역, 이 두 가지는 모두 첫 번째 성육신의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이 참으로 육신에 임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었음을 실증하기 위해서였다.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범한 육신이었음을 말해 준다. 그것은 그가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거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전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육신이 하나님의 권병을 지니고 있고, 그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권병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다고 그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 중의 사역이었고, 인성으로 가려진 신성의 발현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적을 보이든, 어떻게 권병을 나타내든, 여전히 정상 인성으로 살았고, 여전히 정상 육신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기 전까지 계속 정상적인 육신으로 살았다.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고,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두 그의 직분이었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정상 인성의 육신을 벗어나지 않았다. 비록 그가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었기에 의식주가 필요했고, 정상 인성으로서의 필요한 것이 있었으며, 정상인의 이성과 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상인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 정상인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이지 비범한 육신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가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으로 완성해야 할 사역, 첫 번째 성육신으로 이행해야 할 직분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육신의 의의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성으로 신성의 사역을 하며, 이를 통해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 된 것, 즉 하나님이 육신 된 것이다. 육신이 하는 사역은 곧 영이 하는 사역이다. 영이 하는

사역은 육신을 통해 실체화되고, 육신을 통해 발현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육신 외에는 누구도 성육신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정상 인성만이 신성 사역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 성육신했을 때 29세 이전까지 정상 인성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며, 말을 떼자마자 천상의 말씀을 하고, 사람의 생각과 품고 있는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육신은 육신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성육신의 의의와 본질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에게 정상 인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임을 증명한다. 그가 정상인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더더욱 그의 육신이 정상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그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육신’된 존재임을 충분히 보여 준다. 하나님은 사역의 필요로 인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육신, 즉 정상 인성을 통해 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의 전제 조건이며, 두 차례에 걸친 성육신의 실상이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적을 보였고, 땅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정상 인성의 모습이 조금도 없었으며, 그에게는 정상 인성의 필요나 연약함도, 사람의 희로애락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의식주도 없었으며, 또한 사람의 상상처럼 초자연적인 두뇌와 비범한 인성만 지녔을 뿐 정상인의 두뇌 사유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도, 정상 인성의 삶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직 정상인이나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상 인성이 갖춰야 할 사유와 정상 인성의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관념이며, 그런 관념은 하나님 사역의 원 뜻에 위배된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있어야 정상적인 이성과 인성이 유지될 수 있고, 정상 인성이 있어야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며,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이 있어야 육신의 모든 생활이 정상적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으로 사역해야 성육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께 오직 육신의 외형만 있고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다면, 그 육신은 인성과 이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합격한 인성은 더더욱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인성이 없는 그런 육신으로 성육신이 이행해야 할 직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사람의 모든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가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인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두뇌의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며, 인성 없이 신성만 있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 어떻게 정상 인성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 인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인이 하는 모든

활동은 두뇌의 정상적 사유에 의해 유지된다. 만약 두뇌의 정상적 사유가 없다면 사람의 활동은 규칙이 깨질 것이며, 심지어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윤리까지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성육신 하나님께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육신은 자격 미달이다. 즉, 정상적인 육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두뇌의 사유가 없는 이런 육신은 전혀 신성 사역을 담당할 수 없으며, 정상 육신으로 해야 하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생활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성육신의 의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본질도 잃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성은 육신 안에 있는 신성의 정상적인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정상 인성과 육신의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켜 준다.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 육신에 정상 인성의 사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해야 할 사역을 영원히 완성할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사역에는 사람의 사유가 섞여 있지 않다. 그는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하고, 사유를 지닌 인성의 전제하에서 사역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두뇌의 사유를 발휘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거하고 있는 육신의 사유가 얼마나 고차원적이든, 그의 사역에는 논리학도, 사고학도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은 육신의 사유를 통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신성의 사역을 인성으로 직접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전부 그가 이행해야 할 직분이지, 그가 머리로 생각해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십자가에 달린 것은 머리로 상정한 것이 아니며, 두뇌의 사유를 지닌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복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육신 하나님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직분이다. 하지만 이 사역은 전부 사람의 뜻이 아닌 신성이 해야 하는 일로, 육에 속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은 반드시 두뇌의 정상적인 사유와 정상 인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가 정상 사유를 지닌 인성으로 사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의 본질이자,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정상 인성으로 살았다. 사람은 그가 하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성육신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은 그저 그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다. 이 지극히 평범한 정상 인성은 하나님이 육신 되었음을 실증하고, 은혜시대는 영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이 사역한 시대임을 실증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육신으로 실체화했으며, 하나님이 성육신한 시대에는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정상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정상 인성과 정상적인 이성,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육신으로 실체화한 것이다. ‘실체화’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통해 신성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화’, 즉 말씀이 육신 된 것이다. 처음 성육신하였을 때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했다. 그가 하는 사역이 속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사람에게 공홀과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 사역은 그가 사람을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할 것임을 예시했다. 은혜시대이기에 그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야 했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은혜시대 은혜의 상징이다. 은혜시대에는 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또는 물질적인 축복이 은혜시대의 상징이자 예수를 믿는 상징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지닌 육신의 본능이었다.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한 사역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종 육신에 거하면서 그런 사역을 행했으며 육신을 초월하지는 않았다. 어떤 식으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든 여전히 정상 인성을 지니고, 인성의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성육신의 시대에 육신이 영의 모든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전부 육신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의 육신이 육신의 본질을 완전히 지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의 육신이 이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아주 가끔 육신을 초월하는 사역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모두 그가 직분을 이행한 후에 나타난 일이다. 그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이나 산 위에서 형상을 바꾼 것이 그 일례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으로 성육신한 의의가 완전해지지 않았고, 일부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육신의 모든 삶이 지극히 정상이었으나, 사역을 시작한 후로는 육신의 외형만 유지했다. 그가 하는 사역은 신성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상적인 기능을 뛰어넘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 만큼 육에 속하는 사람과 같지 않았다. 물론 그도 평상시에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집에 사는 등 정상적인 의식주 활동을 했고, 정상인의 이성과 두뇌 사유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이 보기에 그는 여전히 정상인이었으나, 그가 행한 사역은 아주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사실, 그는 어떤 사역이든 평범한 정상 인성으로 했다. 또한 그가 사역하는 때일수록 그의 이성은 더욱 정상적이었고, 그의 생각은 더욱 맑고 또렷했으며, 모든 정상인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이성과 생각도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다. 신성의 사역은 가장 정상적인 이성과 가장 맑고 또렷한 생각을 지닌 육신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육신으로 신성의 사역을 발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수는 33년 반 동안 세상에 있었다.

그는 33년 반 동안 시종일관 정상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그가 3년 반 동안 행한 직분 사역 때문에 사람은 그가 매우 비범하고, 그전보다 훨씬 초자연적이라고 느꼈을 뿐이다. 사실, 예수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이나 후나 정상 인성에 변함이 없었으며, 항상 똑같은 인성을 유지했다. 다만 직분을 이행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육신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성육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본래 갖고 있던 정상 인성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으로 살아야 하고,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직분을 이행하든 안 하든, 인성은 육신의 근본이므로 그의 육신이 지닌 정상 인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 직분을 시작하기 전, 예수의 육신은 완전하고 정상적이었으며, 정상인의 모든 활동을 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초자연적인 면이나 이적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추구했을 뿐이다. 이는 그의 가장 정상적인 인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전까지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그의 신분은 물론, 그의 육신의 남다른 점도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그는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 자신의 어떤 사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 인성의 외형을 지니고 정상 인성의 이성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행하며, 평범한 인간, 즉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정상 인성이 없다고 여겼으며, 그를 완전하고 정상적인 육신이 아닌 불완전한 육신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행한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정상 인성이 없는 육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성육신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신성 사역이고, 그 사역은 정상 인성의 육신으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에 거하며, 인성을 통해 사역하면서 정상 인성이 가려졌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성육신했을 때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다만 육신이 해야 할 첫 단계의 사역만 마쳤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육신으로 돌아와서 육신의 모든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살아 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를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한 육신으로 나타냄으로써 육신으로 끝내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과 본질 면에서 같지만, 첫 번째 육신보다 더 실제적이고 정상적이다. 이로 인해 두 번째의 성육신이 받는 고난은 첫 번째 성육신 때보다 더 크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육신의 직분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파괴된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는 다르다. 또한, 그 고난은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가장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으로 직분을 이행하기에 그 육신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육신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일수록 직분을 이행할 때 겪는 고난은 더 커진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극히 평범한 육신으로 발현되기에 초자연적인 모습이 조금도 없다. 육신이 정상적인 데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은 초자연적인 면을 가진 육신이 겪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고난은 모두 육신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두 번의 성육신이 직분을 이행하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 성육신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정상적일수록 겪는 고난이 더 크고, 사역을 담당하는 육신이 실제적일수록 사람의 관념은 더욱 심해지며, 감당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실제적인 육신일수록, 그리고 정상인의 완전한 이성과 요구를 지닌 육신일수록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 담당할 수 있다. 예수는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신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즉,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한 것이다. 두 번째의 성육신은 완전한 육신으로 정복 사역을 하며, 사탄을 물리친다. 완전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육신만이 완전한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정상적인 면을 통해 이루는 성과이지, 초자연적인 이적과 계시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이행해야 하는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즉, 영이 육신으로 실체화하여 행하는 사역은 말씀을 하는 것이며, 육신의 기본 사역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드러내며, 온전케 하고, 도태시키는 목적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을 통해 철저히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속죄 사역은 성육신의 초기 사역에 불과하며, 정복 사역을 하는 육신이야말로 성육신의 모든 사역을 보완한다. 성별을 봐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로, 성육신의 의의가 완전해졌으며,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관념도 가지지 않게 된다. 즉, 하나님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으며,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는 남자를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으며, 그에게는 성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성과를 얻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성육신의 사역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능은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정상 인성으로 하는 사역은 이적을 보이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로 입은 육신은 첫 번째의 육신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성육신이 예수의 성육신과 다르며, 성육신이기는 하나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이다. 예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따라다녔다. 이번 성육신에게서는 사람의 병을 고쳐 준다거나 귀신을 쫓는다거나 물 위를 걷는다거나 40일 동안 금식하는 등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이적과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예수가 했던 것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입은 육신의 본질이 예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가뜨리지도, 방해하지도 않는다. 실제적인 말씀으로 정복하기에 이적으로 사람을 탄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성육신의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네가 볼 수 있는, 육신의 하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면도 지니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병도 앓고 의식주 활동도 하는 완벽한 육신이다. 만약 이번 성육신도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누군가에게 죽으라 명해 그 사람이 바로 쓰러진다면 어떻게 정복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혜시대의 사역이자 구속 사역의 첫걸음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했기에 더 이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말세에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이 와서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아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입은 육신이다. 한 번 이룬 것은 영원히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육신의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행한 사역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정복 사역을 평범하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실체화한다. 그는 사람을 위해 병을 고쳐 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며, 그저 육신으로 말씀하고 사람을 정복한다. 이런 육신만이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며,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완전케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고난을 받거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모두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는 마지막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두 번까지일 뿐, 세 번째는 없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로, 두 번째는 여자로 성육신하여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육신의 형상을 완전케 하였다. 게다가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이미 육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냈다. 첫 번째 성육신이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단계에도 정상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의는 첫 번째와 다르며,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가 행하는 사역의 의의 또한 더 깊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의 사역을 철저히 끝내면 성육신의 모든 의의,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이 철저히 끝나므로 더 이상 육신이 해야 할 사역은 없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육신의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쉽게 육신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육신으로 와서 사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육신이자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다! 사탄은 인류를 패괴시키기 위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한다. 사탄은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저갱에서 구원한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역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성과를 얻는다. 이 육신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며, 정상 인성을 갖춘 육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육신에 정상 인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또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에는 반드시 정상 인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의 원 뜻과 어긋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그것은 말씀이 완전히 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 중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구속 사역만 했을 뿐, 사람을 완전히 얻는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두 번째로 성육신한 것이다. 이번 단계 사역도 평범한 육신으로 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한다. 그에게는 비범한 인성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완전한 사람, 완전한 육신으로 사역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범한 면이 조금도 없는 육신이자, 하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이적을 나타내지도, 권능을 행하지도 않으며, 예배당에서 종교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 두 번째 성육신이 하는 사역은 첫 번째 성육신이 한 사역과 완전히 다르며, 심지어는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또한 이번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사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첫 번째에 한 사역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근원이 하나인지 아닌지는 육신으로 하는 사역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육신의 외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3단계 사역에서 총 두 번 성육신하였다. 또한 두 번의 성육신 사역은 모두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으로,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두 육신의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사람의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고, 사람의 사유로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의 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성육신의 근원이 하나인지를 알아보려면 육신의 출생 연대나 출생지, 혹은 육신의 다른 조건들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낸 신성 사역을 봐야 한다. 두 번째의 성육신 사역에서는 예수가 행한 사역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마다 이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길을 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육신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인상을 더 깊게 하거나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육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형상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이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규례를 깨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한 어느 한 단계의 사역도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할 수는 없다. 일부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품을 다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완전하다.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다 표현할 수 없을진대, 단 한 단계의 사역으로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겠느냐? 육신의 사역은 정상 인성에 가려져 있기에 사람은 오로지 신성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 수 있을 뿐, 육신의 외형을 보고서는 그를 알 수 없다. 육신을 입고 온 그는 서로 다른 사역을 통해 사람에게 그의 사역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래야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그의 사역을 일정 범위에 규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성육신의 사역이 서로 다르지만, 육신의 본질은 같고 사역의 근원은 동일하다. 다만 두 번의 성육신은 서로 다른 두 단계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시대에 나타났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의 본질은 같고 그들의 근원도 같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삶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인류의 이익은 물론, 사탄의 간계까지 겨냥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사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역시 고의적으로 사람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하나님의 뜻)은 모두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異象)’이 되었다. 이런 이상도 다 하나님의 경영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다. 반면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사람의 ‘실행’이라고 한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 또는 사람에 대한 그의 뜻과 그가 사역하는 목적, 의의를 말한다. ‘이상’은 또한 ‘경영’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영’은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 즉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역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근거이자 길이며, 게다가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치나 사소한 일만 중시하고 그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등한시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거니와 그의 뜻에 맞게 행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상은 모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목적과 의의를 말한다. ‘실행’이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요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차츰차츰 심화되고 높아진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고, 은혜시대에는 십자가를 져야 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는 그와 다르다. 사람에 대한 요구는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이상이 높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명확해지며, 실제적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이상 역시 갈수록 실제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많은 실제적인 이상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게 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람의 본질과 성품 변화에 더 초점을 둔다.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나라시대에 사역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이전의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많이 공개한다. 즉, 사람이 알아야 할 이상이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시대의 사람이 알게 되는 이상은 전체 경영 사역에서 가장 높은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이 알게 된 이상도 가장 높은 이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도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아졌다. 사람의 실행은 이상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이상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또한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완전해짐을 뜻한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멈추면 그에 따라 사람의 실행도 멈추게 된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전의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거나 아예 행할 길이 없어진다. 새로운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새로운 실행도 없고, 완전한 이상이 없으면 사람에게 완벽한 실행도 없다. 이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의 실행도 높아지지 않는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바뀐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과 체험 역시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바뀐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그의 진노 속에서 죽게 된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오늘날 사람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체험이 얼마나 깊어졌든 하나님의 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에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이상이 있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요구를 제시한다. 그런 이상을 기반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예 실행하지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 사람이 지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는 없다. 또 사람이 제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 사람의 실행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새 이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실행이 없다. 그들의 실행이 진리와 무관한 까닭은 모두 규례와 죽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새 이상이 전혀 없고, 따라서 새 시대의 실행도 없다. 그들은 이상을 잃었고, 또한 성령 역사와 진리를 잃은 것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그릇됨의 후손이자 사탄의 화신이다.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 사역의 이상이 없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함께함을 잃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일단 이상을 잃으면 즉시 음부로 떨어져 흑암 속에서 살게 된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덩하게 따르는 자이고, 성령 역사가 없는

자이며, 지옥에서 사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자이다. 성령 역사와 성육신 하나님, 그리고 전체 경영의 3단계 사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모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자는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을 기반으로 삼은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 협력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異象)에는 수많은 실행의 길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 역시 다 이상에 들어 있다. 예전에는 각 지역에서 특별 예배를 하거나 대예배를 하면, 한 부분의 실행 길만 강조했다. 그런 실행은 모두 은혜시대에 실행해야 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별로 깊은 관계가 없다. 은혜시대의 이상은 기껏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 그 외에 더 큰 이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한 사역밖에 없었으므로 은혜시대에는 사람에게 알려 줄 이상이 더는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것 외에 단순하고도 초라한 실행만 조금 있었을 뿐이다. 이는 오늘날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말할 수 없었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가장 적합한 실행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포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단순한 세부 내용들만 조금 더해졌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은 동일한 시대에 더 새로운 사역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포용하고 인내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실행 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높은 이상이 더는 없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더 많은 이상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요구 역시 유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쉽고 단순한 실행만 조금 했을 뿐, 어떻게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오늘날 더 많은 이상을 말하는 까닭은 오늘날에 더 많은 사역,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보다 몇 배 많은 사역을 행했으며, 사람에 대한 요구 또한 이전 시대보다 몇 배나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사역들의 의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이 사역들에 필생의 정력을 쏟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복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길만 말한다면 사람을 정복할 수 없고, 이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람을 정복할 수 없다. 실행의 길만 말하면 사람의 정곡을 찌를 수 없고, 사람의 관념을

없앨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철저히 정복할 수도 없다. 사람을 정복하는 도구는 주로 이상이다. 그러나 이상 외에 실행의 길이 조금도 없다면 사람은 따라갈 수 없고, 나아가 진입할 수도 없다.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상 속에 실행이 있고, 실행 외에 또 이상이 있다. 사람의 생명과 성품의 변화 정도는 모두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노력에만 기댄다면 변화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상이란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그의 경영을 말하고, 실행이란 사람이 실행할 길과 생존의 길을 가리킨다. 전체 경영에서 이상과 실행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다. 이상을 없애거나 이상만 말하고 실행은 말하지 않는다면, 또는 사람의 실행은 없애고 이상만 있다면 그것은 경영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본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마저도 부인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실행만 요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역은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막연하게 실행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영원토록 온전히 합당한 자격을 갖춘 피조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부분의 내용은 모두 필수적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 즉 이상만 있고 사람의 협력과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경영이라 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실행과 진입만 있다면, 사람이 진입하는 길이 가장 높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진입은 반드시 사역과 이상에 따라 차츰차츰 바뀌어야지 마음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실행의 원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범위가 있다. 이 원칙들은 모두 사역의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경영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실행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다.

경영 사역은 인류 때문에 생겨났다. 즉, 인류가 있어서 생긴 것이지, 인류가 있기 전이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생긴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역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실행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에게 적합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그가 행하는 사역에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의 길이 전혀 없다면) 그 사역을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모든 사역에서 패괴된 인류에게 어떻게 실행하라고 요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이나 지혜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높은 요구를 하든,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생활하든, 사람은 그의 성품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사역을 더더욱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영’이라는 이 사역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에게 얻어진 모든 사람이 그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모든 사역을 뜻한다. 이런 사역을 ‘경영’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와 협력하는 것을 통칭하여

‘경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상’이라고 하고, 사람의 협력은 ‘실행’이라고 한다. 하나님 사역이 높아질수록(이상이 높아질수록) 그의 성품은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개되고, 사람의 관념과는 더 부합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실행과 협력 또한 더 높아진다. 또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관념에 더 부합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대한 시련의 정도와 사람이 달성해야 하는 요구 기준도 더 높아진다. 사역이 끝날 때면 모든 이상이 완벽해지고, 사람의 실행에 대한 요구 역시 모두 완전무결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때가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때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사람에게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사역도 그에 따라 막바지에 이르고, 사람의 실행 역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은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경영 또한 사람의 실행과 협력을 통해야만 완전히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전체 경영 사역의 사역 대상이며, 또한 전체 경영의 산물이다. 하나님 자신의 사역만 있고 사람의 협력이 없다면, 그의 전체 사역의 결정체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는 것 외에도 적합한 사역 대상을 택해 그의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전능하고 지혜로운 사역을 실증해야만 그의 경영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사역으로 사탄을 철저히 물리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 사역에서 사람은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이 성과를 거두고 최종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가진 그 어떤 생물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사람을 경영 사역의 진정한 결정체로 만들려면, 반드시 파괴된 인류의 모든 패역을 벗겨 버려야 한다. 그러려면 시기에 따라 사람에게 적합한 실행을 요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상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경영 사역의 결정체가 된 한 무리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 혼자 행해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역에 적합한, 생기 있는 사람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뤄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사역한 후, 다시 이들을 통해 그 사역을 나타내고, 그의 이러한 증거가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여 사탄을 물리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직접 자신을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진심으로 탄복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에게 행한 사역으로 사람을 모두 정복해야만 피조물 가운데서 자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 계속 사역하고 사람이 협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 또한 영원히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다. 그것은 경영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한 채 혼자 노력하고 추구하고 애쓴다면, 그것은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이다. 성령 역사가 없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곧 사탄이 하는 짓이고, 모두 거역하는 것이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파괴된 사람이 행하는 것은 모두 사탄을 연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사탄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말씀은 이상과 실행이라는 두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이상을 바탕으로 실행과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하며,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와 협력하고 그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그의 전능을 깨달으며 그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바로 경영이며, 이것은 가장 큰 경영이다.

이상(異象)과 관련된 것은 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가리키지만, 실행과 관련된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고, 사람의 실행은 사람 스스로 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그 자신의 직분이므로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 사역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려는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헌신하는 것일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져 굳게 서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사람이 해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전부 끝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모두 사람에게 지시하고 나면, 나머지 사역은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직분 내의 사역만 할 뿐, 그 외의 사역은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길을 여는 사역만 행할 뿐, 길을 닦는 사역은 행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처럼 진리와 관련해 고통받거나 연단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에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생활하든,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사람은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완전히 순종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이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이성이다. 하나님 자신이 행해야 할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체험해야 한다. 전체 경영이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지 못한다면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패역한 탓이지, 하나님이

사역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 놓고 또 무슨 훗날과 앞날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사람의 협력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 한 다음에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실행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야지, 관념을 계속 늘려 가거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사람은 왜 조금도 협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사역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조금도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사역했음에도 너희는 보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자는 모두 침륜될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사람은 왜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사역이 첫째이고, 자신의 경영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이다. 이런 것은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한 말은 이미 너희의 본질을 뺏속까지 짚어 냈고, 사역은 이미 전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도의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관망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하나님이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며, 관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자는 모두 스스로 번뇌를 자초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겠느냐? 어찌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겠느냐? 자신의 충성과 본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적’에만 관심을 두니 정말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자들이다!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모두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을 모두 실행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해야 할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벌받게 될 것이다. 눈에 뵈는 만큼 대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적대시하는 자이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태도를 지닌 자이다. 성령 역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이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이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그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경영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 주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 준다.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실행은 한 단계의 사역으로,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경영을 언급하면 사람의 성품 변화와 관련되고, 사람이 해야 하는 것과 사람의 성품 변화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람의 실행이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뀌고, 또 그의 사역이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전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행이 규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의 실행이 늘 바뀌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실행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 실행이자 비진리의 실행임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행할 길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벌써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져 통제를 받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악령에게 통제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실행이 깊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 또한 발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진입 또한 정체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이다. 전체 사역에서 사람이 계속 여호와와 울법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진전될 수 없고, 더욱이 전체 시대가 끝날 수도 없다. 사람이 계속 십자가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역시 계속 발전할 수 없다. 6천 년 경영은 울법이나 십자가만 지키면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끝나지 않는다. 전체 경영 사역은 하나님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옴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에게서 끝난다.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왜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실행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실행하는 것이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시대에는 그들이 실행한 것도 옳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사역이 바뀌면서 그들의 실행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 사역과 새 빛으로 말미암아 뒤쳐지게 된 것이다. 성령 역사는 기존 사역을 바탕으로 몇 단계나 더 심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존 상태에 그대로 머무른 채 낡은 방식과 빛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3년 혹은 5년 내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2천 년이란 시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새로운 빛과 실행이 없는 것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실수이다. 예전에 성령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고 해서 새 사역의 존재가 부인될 수는 없다. 성령 역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발전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차츰 심화되고 변화해야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 역사를 모르는 자들만이 기존의 사역에 정체되어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패역한 자들만이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한다. 사람이 성령의 새 역사를 따라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실행은 분명히 지금의 사역과 동떨어진 것이고, 또한 틀림없이 지금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더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굳건한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전체 경영 사역 역시 그런 무리에게서는 끝날 수 없다. 지난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과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이 행한 것은 모두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다. 성령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적이고, 옛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사역을 따르지 못하는 자와 오늘날의 실행과 동떨어진 자는 모두 성령 역사를 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적하는 자이다. 그들이 이전의 빛을 지키고 있다 해서 성령 역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실행과 현재 실행의 구별에 대해 말하고, 이전의 그 시대에 어떻게 실행했고 현재 이 시대에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느냐? 늘 이런 실행의 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요구하는 실행 또한 계속 달라진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멈추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빛에 닿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은 늘 자신의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던 사역을 이미 오래전에 중단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성령 역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사역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새 사역을 이루려고 한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옛 사역만 지키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 사역을 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하고 있고, 사람 역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기에 이 둘의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전체 경영의 최종 결과이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성령의 함께함과 징계가 있지만,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는

전부 사탄의 지배를 받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요구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징계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 성령께 버림받게 된다. 성령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흐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 기꺼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깨우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의 징계가 있고 심지어 징벌도 임한다. 어떤 사람이든 성령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 사역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기꺼이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축복을 받지만, 그를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징벌을 받게 된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새 사역을 받아들인 이상, 하나님과 상응하는 협력을 해야지,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 패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이다. 그러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자들이니 성령의 징계나 책망 같은 것은 아예 말할 것도 못 된다. 그들은 온종일 자신의 육체와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로 분석하고 연구해 낸 이치지, 성령의 새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도, 더욱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전혀 없으며, 축복이나 보호 같은 것은 더더욱 논할 수 없다. 그들의 언행은 대부분 지난날 성령 역사에서 비롯된 요구를 지키는 것으로, 이치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이치와 규례들은 그들의 집합체가 종교일 뿐, 선민이나 하나님의 사역 대상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준다. 그들 모든 사람의 집합체는 종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교회라고 칭할 수는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새 역사가 없고,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는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며, 그들의 삶은 전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가 없으며, 더욱이 성령의 징계나 깨우침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들은 모두 생명이 없는 시체이고, 영성(靈性)이 없는 구더기이다. 그들은 사람의 거역과 대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람의 온갖 악행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지금의 뜻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무지한 소인배들이고, ‘신자’로 불릴 자격이 없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의 경영과는 관계가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없다. 그들의 언행은 너무나 역겹고 초라하여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성령의 흐름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성령의 새 사역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은 징계하지도, 깨우쳐 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게 버림받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욕을 좇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사역할 때 고의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슬러 역행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이미 크나큰 패역인데, 하물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역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악행을 언급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몹시도 저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는 것 같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신의 증거와도 관련이 없다고 본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도 관련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현재 사역과도 관련이 없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모욕하고, 사탄을 드러내면서 그 진노의 날을 위해 악행을 쌓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가로막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의 새 사역과 무관한 자들이라면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든 그에 걸맞은 어떤 보응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진노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진작 많은 일들에 관여했어야 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영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노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들이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종교인들은 성령의 함께함과 역사가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제멋대로 날뛰게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까?” 사탄을 나타내고 욕을 드러내는 자들은 모두 무지한 소인배들이고, 그릇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나면 악을 행한 자들은 모두 보응을 받을 것이며, 아무도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을 징벌하는 때가 아니라 정복 사역을 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망치는 짓을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만 그들이 한 짓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징벌을 내릴 뿐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기간에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성령에게 버림받은 자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의 실행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사람은 오직 새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뿐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대상이 있다. 사탄과 관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자격이 전혀 없고, 나아가 하나님과 협력할 자격도 없다.

각 단계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동시에 사람 또한 이를 증거해야 한다. 각 단계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만, 사역의 대상과 온전케 하는 대상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지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한 모든 요구이며, 사탄 앞에서 해야 하는 증거이다. 그 증거는 또한 하나님의 사역 성과를 실증한다. 전체 경영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사람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는데,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함에 따라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진다. 그리하여 경영 사역도 점차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이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더 높아졌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증거 역시 더 높아졌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협력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는다. 사람의 협력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증거이고, 사람이 해야 할 증거는 바로 사람의 실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진실한 증거가 있을지는 사람의 협력, 증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사역이 끝날 때, 즉 전체 경영이 모두 끝날 때,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 종결될 때, 사람의 실행과 진입 또한 절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인내하며 겸손해질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는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요구는 전체 경영에서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사역은 단계별로 더 깊어졌고, 사람에게 대한 요구도 단계별로 더 높아졌다. 전체 경영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 인류는 사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며, 나아가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는 전 인류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 또한 없어지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는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은 더 조화로워질 것이다. 그 협력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모두 끝난 후의 삶이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어둠 속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모든 사역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이상, 단계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야 하고,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참도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다. 글귀나 이치만을 고집스레 지키는 자는 모두 성령 역사에 의해 도태될 자이다. 하나님은 시기마다 새 사역을 전개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시기마다 새로운 시작이 생긴다. 사람은 단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들을 지킨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아무 의심도 없이 바짝 따라간다면, 사람이 어찌 성령에 의해 도태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성령 역사임을 확신하고, 아무 걱정 없이 성령 역사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한다면, 사람이 어찌 징벌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며 그의 발걸음도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늘 바쁘게 보내며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성령 역사를 조금 얻으면 영구불변한 것으로 삼고, 인식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쫓아’ 앞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보면 하나님을 특정한 조각상으로 규정하기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이 본 그 형상대로일 것이고, 예전에 어땠으면 이후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여긴다. 얽박한 인식이 조금 생기면 우쭐거리면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제멋대로 퍼뜨리기 시작한다.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나면 누군가 하나님의 새 사역을 아무리 전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성령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고, 지나치게 옛것을 고수하며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만, 또 절대다수의 사람이 ‘여호와만 믿으면서 예수를 저버리는’ 역할과 ‘메시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예수라 칭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이 모두 한 단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는 모두 사람의 패역이 초래한 것 아니냐? 오늘날의 새 사역에 뒤쳐진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요행을 바라며 하나님이 그들 각자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셋째 하늘로 올려 주어야 하는지, 예수가 어떻게 흰 구름을 타고 와서 그들을 맞아 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 더욱이 예수가 정말 흰 구름을 타고 그들이 상상하는 그날에 올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도 없다. 그들은 저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하나님이 과연 다양한 교파에 속한 하나하나의 ‘작은 무리’를 끌어 올려 줄지 그들 자신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어린양의 발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그 ‘똑똑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발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무런 까닭 없이 중단시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즉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끌어 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편단심으로 충성’할지라도 그들의 언행은 여전히 너무도 역겹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대적하고, 간계를 부리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길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 역사도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옛 사역만 고수하는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새 시대에 버림받으며, 징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가련한 자들 아니겠느냐? 또 많은 사람은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양심’만 따질 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망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사역할 때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신이 행한 사역일지라도 미련을 두지 않으며,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킨다.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경영 사역의 일부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그릇됨 아니겠느냐? 사람의 무지함 아니겠느냐? 복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 복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충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자가 된다. 지금은 율법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나라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역을 과거의 사역과 함께 논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사역을 오늘날의 사역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었고 사람의 실행 또한 바뀌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자가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

하나님나라시대에는 사람을 완전히 온전케 할 것이다. 사람은 정복 사역 후에 연단과 환난으로 들어가게 된다. 환난 속에서 이겨 내고 굳게 서는 자는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그들이 곧 이긴 자이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는 바로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단은 마지막 사역이고, 전체 경영 사역이 끝나기 전에 받게 되는 마지막 연단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 마지막 검증과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 한다.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도, 하나님의 인도도 없지만, 진정으로 정복된 자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굳게 설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간성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이긴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든 이상을 잃지 않으며, 변함없이 진리를 실행하면서 증거를 잃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로 마지막에 대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들은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며 빌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마지막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지막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이 환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크나큰 연단이지만, 혼란을 틈타 묻어가려는 자에게는 철저히 도태되는 사역이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든 하나님에 대한 충정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일단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 육에 불리해지면 즉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런 자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복만 받으려 할 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이런 부류의 소인배들은 사역이 끝날 때 모두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금도 인정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에 있거나 취할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고분고분 순종하지만, 일단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거나 결국 깨지게 되면 즉시 일어나 반항한다. 심지어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던 ‘착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험상궂은 망나니로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난날의 은인을 철천지원수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우환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정복 사역이 끝난다고 해서 대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복 사역이 일단락되었더라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온전케 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해야 비로소 사역이 종결된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는 자는 완전히 도태되는 자이다. 도태되는 자는 모두 마귀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남아 있을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에서 ‘따른다’에 내포된 뜻은 환난 속에서도 굳게 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은 따르는 것을 상당히 쉬운 일로 여기지만, 사역이 끝날 무렵이면 따르는 것에 내포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정복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따르고 있다고 해서 네가 온전케 되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는 자, 환난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절대 서지 못한다.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모두 공사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 낼 수 없다. 그들은 조만간에 모두 쫓겨나겠지만, 이기는 자는 하나님나라에 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인지는 공사의 검증, 즉 시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함부로 내버리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은 진심으로 탄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일과 인정하지 않는 사역은 하지도 않는다.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는 모두 사실로 입증된다. 이는 사람이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밀은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는 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나라에 남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긴 자는 각자의 기능과 증거한 것에 따라 하나님나라에서 제사장이 되거나 따르는 사람이 된다. 환난 속에서 이긴 자는 하나님나라의 제사장 그룹에 속할 것이다. 제사장 그룹이 형성될 때는 전 우주의 복음 사역이 모두 끝날 때이다.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제사장 그룹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으며, 나머지는 아들과 백성들이다. 이는 아무렇게나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단 사람의 지위가 정해지면 하나님의 사역도 멈춘다. 사람이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이자, 하나님이 사역하고 사람이 실행한 최종 결과이며, 하나님 사역의 이상과 사람의 협력이 낳은 결정체이다.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고, 하나님도 처소로 돌아가 안식할 것이다. 이것이 6천 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한 최종 성과이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이며, 이 육신은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육에 속하지 않은, 영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정상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신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그의 정상 인성은 육신으로 하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성이든 신성이든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영이자 신성이기에 그의 본질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그의 사역을 방해할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망치는 일도,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말도 할 리가 없다. 그렇기에 성육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경영을 방해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점이다. 성령 역사의 본질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그의 본질을 육신에 실체화하여 육신이 충분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기간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영의 모든 사역을 대신하고, 성육신 기간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핵심으로 하며, 다른 어떤 시대의 사역도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육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며, 육신으로 온 이상 육신에서 그가 해야 할 사역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든 어쨌든 모두 하나님 자신이므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다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 자체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권병에서 나온 모든 것에 순종할 수도 있다. 영의 사역과 육신의 사역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만물에 대한 권병을 지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 육신 역시 권병을 지니고 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이를 수 없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권병이지만, 그의 육신은 그의 권병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지 않으며, 모순되는 사역은 더욱 하지 않는다. 영과 육신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든 육신이든 모두 같은 뜻을 이루려 하며, 같은 사역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비록 영과 육신이 서로 아무 상관 없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고는 하나 그 본질은 동일하다. 모두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패역의 성분이 없으며,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다. 그는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의 발현이자 모든 사랑의 발현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지,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독선적이거나 자만하는 성분이 없고, 오만 방자하거나 교활한 성분도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다. 사탄은 모든 추함과 악함의 근원이다. 사람이 사탄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된 이유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가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속성만 있을 뿐, 사탄의 속성은 없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생활할 때 사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며 거역하는 일은 더더욱 저지르지 않는다. 육신이 고통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다. 사람에게에는 자신의 선택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는 똑같이 육신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명을 완수한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만 있을 뿐 하나님의 본질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지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직접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경역을 자신의 당연한 본분으로 삼아 이행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다. 이 두 가지 속성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앞날을 위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비록 그가 육신에 거하고 있으나 그의 인성이 육에 속한 사람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에게는 특정한 성격이 있으며, 그 성격 역시 신성의 제약을 받는다. 신성에는 연약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연약함이란 그의 인성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연약함은 신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지만 무한정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와 기한이 있다. 신성의 사역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인성이 어떠한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전적으로 신성의 지배를 받는다. 인성의 정상 생활 이외에도 인성의 모든 활동은 신성의 영향을 받고, 신성에 좌우된다. 그리스도가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사역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 인성은 비록 처세에 미숙하지만 신성의 정상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성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직접적으로 신성에 지배되며, 그에게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이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인성은 신성이 지배하고 사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성이며, 신성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신성의 사역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인성이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며, 그의 신분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다. 그는 그저 하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왔기에 피조물의 외형, 전에 없었던 인성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 이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요,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그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육신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이므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그의 어떠함이다.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렇게 행하였다. 그는 절대로 자신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떠함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하나님을 거역할 리 없고,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요구하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리 없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므로 그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권병을 갖고 있다. 그 권병은 신성이자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어떠함이다. 그 성품과 어떠함으로 그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이 아무리 정상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그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그리스도의 결점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도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자신을 낮출수록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경시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면서 위대한 형상을 한 ‘위인’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숭배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까닭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인성에 가려져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비범한 인성을 지니고 있다면, 아마 누구도 그를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인성도, 피조물의 속성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리스도는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역하지만, 그가 땅에 온 목적은 사람에게 그가 입은 육신의 형상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을 인도하여 새 시대로 진입시키려 온 것이다.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의 역할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육신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하든 육신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모두 정상 인성을 지닌 육신으로 한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모습을 모두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육신이 행하는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이거나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행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퍼뜨리지는 않는다. 그저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할 뿐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성이 없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어떤 육신이 그리스도인지 판별할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거짓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 또한 그리스도에게는 거짓 그리스도의 성분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은 육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지, 사람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사역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그가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본질을 증명한다. 그의 본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신분은 그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본질로 결정된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지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행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는 영과는 다른 육신이며, 영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외형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연약하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든 그의 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육신 하나님에게는 정상 인성과 정상 인성의 연약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기묘함과 측량 불가능함, 그리고 육신의 모든 행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확실히 지니고 있으며, 조금도 공허하거나 초자연적이지 않다. 그가 이 땅에 온 주요 목적은 사역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의 위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인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성이 그의 본질은 아니다. 그의 본질은 신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직분을 행하기 시작할 때 신성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의 인성은 그저 육신의 정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신성이 육신에서 정상적으로 사역하게 할 뿐이고, 사역을 지배하는 것은 오롯이 신성이다. 그가 사역을 완성하면 자신의 직분을 다한 것이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의 모든 사역이며, 사람은 사역을 통해 그를 알게 된다. 그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신성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낸다. 거기에는 인성의 성품이 들어 있지 않고, 사유나 사람의 어떠함 또한 들어 있지 않다. 그의 모든 직분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했던 성품을 완벽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의 사역은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의 성품 역시 아주 자유롭게 나타난다. 머리로 지배하거나 생각을 통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아도 그는 적절한 때에 그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거나 그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절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모두 아주 어리석지만, 무엇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알고 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본인의 속셈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신성은 분명 존재하며, 사람은 육안으로 직접 그의 사역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이 그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사명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이는 모두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역시 그의 본질로 결정된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가 드러내는 것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모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수년간 양육받은 결과도 아니며, 그가 스스로 배우거나 꾸민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의 사역과 말씀을 부정하고, 그의 인성과 그가 지닌 정상 인성의 모든 생활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사실 역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의 형상은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그의 말에는 비범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으며, 그의 사역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천지를 개벽하거나 세상을 뒤흔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이다. 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하지만 이는 분명 존재하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완전히 다하고 나면, 사람은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성품과 어떠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함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을 종합해 보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육신이 아닌, ‘말씀’으로 된 ‘육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땅에서 행하는 사역은 단계마다 대표적인 의의가 있지만, 각 단계의 현실적인 사역을 체험한 사람은 그가 사역하는 의의를 밝히 알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성육신이 행한 몇 단계의 사역은 더욱 간파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거나 보기만 했을 뿐, 정작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의 사역에 관해 어떠한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겉모습과 그의 정상 인성이 사람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떠난 후에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상

인성을 접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사역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저 외형만 볼 뿐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으로 그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겉모습을
 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은 논하지 않고 신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그의 사역이나
 말씀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념이 이전에 비해 반은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될 것이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서 사람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관념이 쌓여 있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친 뒤에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기간에도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가 직분을 다한 후에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이 그의
 말씀을 하나둘씩 체험하는 걸 본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쓰러지지’ 않겠느냐? 사람은 단지 그가 땅에서 사역하는 것만 허락하며, 이것만 해도
 이미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것이다. 그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찌감치 그를
 땅에서 내쫓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사역을 완성한 이후라면 어떻겠느냐? 그를
 처형하고 무참히 괴롭혀 죽이지 않겠느냐? 만약 그가 그리스도라 불리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사역하지 않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사역한다면 사람은 그의 말 한마디, 일말의 사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분을 지니고 사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갖게 된다. 사람은 그의 ‘지위’나 ‘높은 신분’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 없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예 사역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있어도 사람은 그가 자신들 가운데서 순조롭게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낮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그의 지위이지 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날
 그리스도가 ‘2선으로 물러난다면’, 사람이 과연 그를 하루라도 더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 살면서 그가 친히 행한 사역이 몇 년 후 어떤 결실을 볼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하루라도 더 머무르는 것을 사람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그의 직분을 다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도 이미 큰 관용을 베풀고 체면을 봐준 것이다. 그에게 직접 정복된 자들이 그의 체면을 봐줄지라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머무르도록 허용할 뿐이다. 그 이후에는 잠시도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도 이리한데 그리스도에게 정복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사람이 성육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가 정상 인성의 외형을 가진 그리스도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만약 그에게 신성만 있고 정상 인성은 없다면 사람의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의 본질이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의 신성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그가 지닌 정상 인성의 외형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사람 가운데서 사람과 동고동락’하는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람이 그의 존재를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을 아름다운 종착지로 이끌어 간다**

사람은 지금의 사역이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훗날 인류가 어떤 종착지에 들어갈지는 알지 못한다. 피조물로서 너희는 마땅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내가 가라고 알려 주는 대로 가야 한다. 너는 자기 자신을 다룰 수도 주관할 수도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미리 사람에게 어떤 결말이나 아름다운 종착지를 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끌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식으로 사람과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정복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만든다고도 할 수 없다. 어떤 결말로 사람을 통제하여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종착지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훗날의 결말과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좋은 미래 등이다. 사람을 정복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거나 사람을 정복하기도 전에 먼저 적당한 종착지를 주어 추구하게 한다면, 사람을 정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복 사역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복 사역은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빼앗고, 사람의 패역 성품을 심판하고 형벌함으로써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사람과 거래를 함으로써, 즉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래를 빼앗아 충성심을 살펴봄으로써 성과를 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정복 사역의 본질이다. 만약 처음부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준 후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행한다면,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에게 무조건 순종하거나 경배하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맹목적으로 어리석게 순종하거나 무언가를 받아 내려고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복 사역은 사람을 얻지도,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며, 이런 피조물은 조건만 내세울 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는 정복이 아니라 공홀과 복을 베푸는 것이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언제나 운명과 앞날을 마음에 둔 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사심과 탐욕,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을 정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람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먼저 사람의 야심과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인생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생존의 의미를 바꿔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해진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정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정복이고, 그의 영광을 위한 정복이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한 정복이다. 오직 정복만을 위한 정복이라면 정복 사역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을 정복하기만 한 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람의 생사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인류를 경영하는 것도,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을 정복한 뒤에 그들을 얻고 마지막에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하는 것만이 모든 구원 사역의 중심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의 달성이다. 즉, 사람을 인류의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해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응당 가져야 할 미래이자 창조주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역을 한다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만 온전케 할 수 있을 뿐, 영원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와 훗날의 종착지를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이 하는 사역과 다르다. 그는 사람을 창조한 이상 사람을 인도할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상 철저히 구원해 완전히 얻을 것이다. 또한 사람을 인도하는 이상 적합한 종착지로 이끌어 갈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상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가 하는 사역이다. 정복 사역은 사람의 미래를 없앴으로써 이뤄지지만, 마지막이 되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사람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고 운명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적합한 종착지란 하나님이 과거에 없애 버린 사람의 미래와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이지, 사람이 가져야 할 종착지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종착지는 사람이 정결케 된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과 약속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후에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 상상, 욕이 섞여 있지 않다. 또한, 이 종착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안식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종착지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종착지이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주관한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그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그가 사역하는 목적이 이뤄진다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왜 너를 모압의 후손이나 큰 붉은 용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선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피조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느냐? 사람의 원래 호칭과 신분이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사역의 시대와 단계의 차이로 서로 다른 호칭이 생겨났을 뿐, 사실 사람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은 — 가장 패괴된 자든 가장 성결한 자든 — 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복 사역을 하면서 앞날과 운명, 종착지로 너를 통제하지 않으며, 사실 그런 사역을 할 필요도 없다. 정복 사역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운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너는 너 자신을 주관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지낼지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한다. 네가 너 자신의 미래를 알고 네 운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너를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컨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역시 모두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달, 해, 별을 창조했고, 사람을 위해 동물과 식물을 지었으며, 사람을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형벌하고 심판하든 그것은 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설사 사람의 육적인 소망을 빼앗는다 해도 그것 역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사람의 종착지가 모두 창조주의 손안에 있거늘, 사람이 어찌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정복 사역이 끝나면 인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된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땅에서 살겠지만 그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때의 삶은 온 인류가 정복된 후에 얻는 삶이자 인류가 땅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인류가 새롭고 아름다운, 또 다른 경지로 들어갔음을 뜻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땅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삶의 전제는 반드시 사람이 모두 정결케 되고 정복된 후 창조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라고 한다. 인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땅에서 맞이할 삶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사람이 동경하는 삶이자 유사 이래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삶이다. 또한 이것은 6천 년 경영 사역의 최종적인 성과이자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 사역이 끝나고 사람이 완전히 정복되면, 즉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면 인류는 이후의 종착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연단을 겪고 나면 죄성이 없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적대 세력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의 육을 공격하지 못하기에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성결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흑암의 적대 세력을 결박해 놓아야만 사람이 어딜 가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패역과 대적도 사라진다. 사탄이 결박당하기만 하면 사람은 좋아진다. 지금은 사탄이 땅의 곳곳에서 교란하고 있고, 모든 경영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아 이런 상태지만, 사탄을 물리치면 사람은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나오면 공의로운 해를 볼 수 있다. 정상인이 누려야 할 삶을 전부 회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먹고 입을 줄 알며,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 등등 정상인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전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처음 인류가 창조된 후,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그런 정상적인 삶이 있어야 했다. 마땅히 먹고 입는 땅에서의 정상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후 그런 삶은 물거품이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히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사실 사람이 동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 종착지가 없다면 인류는 끝없이 땅에서 타락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그 아름다운 삶이 없다면, 사탄의 운명도, 사탄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도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람을 흑암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친 증거이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 없이 하나님이 인류를 주관하고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제해야만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아직도 더럽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삶을 사는데, 이러면 사탄을 물리쳤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여전히 고해와 인생의 고통,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앎도 보잘것없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고난 또한 사탄이 가져온 것이다. 사탄이 결박되어야 사람이 고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사람을 전리품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없을 때,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지 않았을 때의 목표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거나 크게 쓰임 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역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이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정상인의 삶이 있기 전의 목표로, 그 주된 목적은 정결함을 얻고 진리를 행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는 데 있다. 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 고통과 환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추구 목표이다. 이 추구 목표를 통해 진리를 행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얻는 것은 목표이고,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장차 모든 인류가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이기는 자나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람에게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더 뚜렷한 목표를 갖고 더 실제적으로 추구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막연하게 영생에 들어가기를 추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더 가련하지 않느냐? 목표도 원칙도 없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구하면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고, 언제나처럼 사탄의 권세하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굳이 그렇게 목표도 없이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류가 영원한 종착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므로 더 이상 어떤 목표도 추구하지 않게 되며, 더욱이 사탄의 포위 공격을 당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본분을 이행하고, 형벌과 심판이 없더라도 맡은바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불리게 된다. 맡은 역할만 다를 뿐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구분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에서 질서 있게 살며,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 각자의 본분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인류이다. 그때 사람이 얻게 될 삶은 하나님이 빛 비추고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는 삶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인류는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며, 인류 전체가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6천 년 경륜을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면, 즉 하나님이 땅에서 창조한 인류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뤄진다. 처음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패괴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탄에 의해 패괴된

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 이에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고,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6천 년 경영 사역이 끝나면 비로소 땅에서의 인류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인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과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땅에 인류의 정상적인 삶이 있으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이 성결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과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면서 사람에게 추구하라고 준 목표로, 이 목표는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또한, 너에게 이기는 자, 온전케 된 자,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너의 증거로 사탄을 수치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땅에서 정상인의 삶을 살고 성결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거나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두 똑같은 피조물 아니겠느냐?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된 자가 되라는 것은 다 사탄과 사람의 더러움을 겨냥해 하는 말이다. 이긴 자라면 사탄과 적대 세력을 이긴 사람 아니겠느냐? 온전케 되었다면 너의 무엇이 온전케 되었겠느냐? 사탄의 패괴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 역시 더러운 것들과 사탄을 두고 한 말이지, 결코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오늘날 너에게 온전케 되거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훗날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때는 그것을 추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각 부류 사람들의 결말이 모두 드러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거나 온전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때는 사람의 패역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징벌할 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느니, 누구는 이긴 자고 누구는 온전케 된 자느니, 누구는 장자고 누구는 아들이니 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피조물로서 다 땅에서 살 것이며, 다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살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체험하는 기간, 싸움이 끝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완전히 얻어지지 못한 기간이다. 지금은 바로 과도기이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이기는 자 또는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듯 지위의 구별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런 구별은 사라진다. 이긴 사람은 모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인류로, 지위도 같고 이 땅에서 평등한 삶을 살게 된다. 즉, 모두가 합당한 자격을 가진 피조물로 너와 다른 이들이 받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다. 사역의 시대와 대상이 다르기에 너희에게서 사역하면 너희가 이기는 자로 온전케 될 자격을 가질 것이요, 외국에서 사역한다면 그들이 맨 처음으로 정복되고 온전케 되는 무리가 될 자격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외국에서 사역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기는

자가 온전케 될 자격이 없고, 맨 처음으로 정복되어 온전케 되는 무리가 될 수도 없다. 사역 대상과 시대, 범위가 다르기에 첫 무리, 즉 이기는 자가 있으며, 온전케 되는 두 번째 무리도 있는 것이다. 맨 처음으로 온전케 되는 무리가 나오면 본보기가 되는 표본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똑같다. 온전케 된 순서만 다를 뿐 지위는 동일하다. 장차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고 온 우주의 사역이 끝나면 사람은 지위 고하의 차이 없이 평등해질 것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사역하여 너희를 이긴 자로 만들고 있지만, 만약 영국에서 사역한다면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처음으로 이긴 무리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일 뿐이다. 만약 너희에게 사역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저 사역의 순서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첫 번째니 두 번째니 하는 말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닌 온전케 되는 순서에 불과하다. 어째서 너희에게 더 일찍 알려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이 말을 하겠느냐?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극단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많은 사람이 지난날 예수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한 말에 빠져 늘 흰옷을 입고 들림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너무 일찍 하면 안 되는 말들이 많다. 너무 일찍 말하면 사람이 극단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분량이 너무도 작아서 이런 말들을 밝히 알지 못한다.

인류가 땅에서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사탄의 모든 세력이 결박되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편해질 것이다. 지금은 인간관계니 사회관계니 복잡한 가정 관계니 등으로 사람이 너무나 번거롭고 고통스럽다! 그 속에서 사니 너무 괴로운 것이다! 사람이 정복되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온 우주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정복된 후, 그러니까 사탄이 패배되면, 또한 사탄, 즉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면, 사람은 땅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육적인 관계도, 육체의 복잡한 일들도 없어진다면 사람의 삶은 훨씬 편해질 것이다. 사람의 육적인 관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네가 형제자매와 동등한 관계이고, 가족들과도 동등한 관계라면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이다. 누구를 걱정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사람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천사와 같다. 물론 여전히 육체이지만, 천사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마지막 약속,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베푸는 약속이다. 사람은 지금 형벌과 심판을 체험하고 있다. 너는 이런 체험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헛되이 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나는

사람을 형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을 무저갱에 넣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의 운명과 앞날을 거두어 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러 사람을 무저갱에 밀어 넣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패역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며, 모두가 성결해지면 전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제거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사람이 힘 있게 증거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설령 사람 내면에 원래 있던 것들이 완전히 정결케 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을지라도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방해도 함께 사라진다. 그때 사람은 완전히 정결케 될 것이다. 사람은 그런 삶을 체험한 적이 없다. 사탄을 물리치면 모든 것, 사람 내면의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너희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친다. 너희가 힘 있게 증거하면 그것은 사탄을 물리쳤다는 표징이 된다. 먼저 사람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완전히 온전케 하는 이유는 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을 물리치는 동시에 온 인류가 이 공허한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주 전체의 사역이든 중국에서 하는 사역이든 그 목적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성육신 하나님, 그 정상적인 육신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정복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탄을 물리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다. 어째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늘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하겠느냐? 누구에게 증거하라는 것이겠느냐? 사탄 아니겠느냐? 이 증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역의 결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과 관계된다. 사탄과 싸우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증거하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려 하기에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하라고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며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 경영 사역의 핵심은 사람이며, 사탄은 그저 멸해 버릴 대상이요, 원수에 불과하다. 어쩌면 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성품이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증거는 사람이 아닌 사탄을 상대로 한다. 사람은 증거를 누릴 자격이 없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싸우는 대상은 사탄이고, 사람은 그저 구원받는 대상에 불과하다.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역을 꿰뚫어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모두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지금의 주된 목표는 사탄을 물리치는 것, 다시 말해, 인류를 완전히 정복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후의 증거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네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겠지만, 사실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루어진 사역을 보려고 하지만 나는 보여 주지 않고 이루었다. 사탄이 굴복했고, 완전히 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지혜와 능력, 권병으로 사탄과 싸워 이겼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비록 사람에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없고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나는 이미 사탄을 물리쳤다. 이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말한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일이다. 이는 모든 사역의 한 가지 실상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정복되고 나면 사람은 이 모든 사역이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방식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6천 년 경영 사역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3단계로 나뉜다. 이 3단계 사역은 모두 인류, 즉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과 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구원 사역이 3단계로 나뉘고 사탄과의 싸움도 3단계로 나뉘며, 이 두 부분의 사역은 동시에 진행된다. 사실,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단계 사역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사탄과의 싸움도 단계와 시기를 나누어 진행되며, 인류의 필요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정도에 따라 사탄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싸움’이라고 하면 사람은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상상한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구상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은 3단계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3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는 모든 사역의 실상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며, 사람의 죄를 사해 주고, 사람을 정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등의 몇 단계 사역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과의 싸움은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켜 사탄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나면 수치당한 사탄을

단단히 결박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의 본질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대부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사람을 정복하는 최종 단계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 즉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다. 사람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탄의 화신을 정복하여 창조주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사탄을 저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철저히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정복 사역은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사역이자 사탄을 물리치는 마지막 단계의 경영이다. 이 단계의 사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구원할 수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없으며, 인류는 영원히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영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파괴로 사람은 사탄에게 속박당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사탄은 경영 사역에서 물리칠 대상이 되었다. 사탄이 사람을 점령했고, 사람은 또 전체 경영의 밑천이기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간 사람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 본래 이성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로잡혀 간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에서 벗어나면 사탄은 수치를 당한다. 결국 사람을 빼앗아 오고, 사탄은 패하게 된다. 사람은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남으로써 모든 싸움의 전리품이 되겠지만, 사탄은 싸움이 끝난 후에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도 끝을 맺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탄을 물리치는 것뿐,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떤 악감정도 없다. 형벌이든 심판이든 그의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목표는 단 하나, ‘사탄과 끝까지 싸운다! 꼭 사탄을 이기고야 말 것이다! 사탄을 이길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모든 사역은 사탄을 겨냥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통제되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끝을 내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들을 풀어 주지 않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어지지 못한다.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지도, 사탄과 싸워 이기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6천 년 경륜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율법의 사역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시대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을 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류를 정복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 사역들은 모두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 정도에 따라 한

것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단계 사역이든 다 사탄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다. 6천 년 경영 사역의 본질은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이고,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은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이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6천 년 동안 싸우면서, 즉 6천 년 동안 사역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한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탄이 패하면 사람은 완전한 해방을 얻는다. 지금의 사역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그 어떤 규례에도 속박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통제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역 추세이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분량과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닿을 수 있는 만큼 공급하지, 건목수생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역은 너희의 실제 필요에 맞춰 진행된다. 각 단계의 사역은 다 사람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사실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초래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교란하고 파괴시켜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은 피해자이자 기만당한 자이다. 사탄을 물리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볼 수 있고, 창조주도 피조물을 보며 친히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있어야 할 삶이다. 그러므로 주 사역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라 하겠다. 사탄을 물리치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된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너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를 괴롭히고 이것저것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에게 보여 주거나 너희의 시야를 넓혀 주고, 그가 말한 비밀과 그가 떴 일곱 인에 대해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육신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사탄과 싸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그가 친히 사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친히 사람 앞에 나타나고 사람에게 보게 하는데,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게 하고 막연하거나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자신을 낮출 수도 있음을 알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단순할 리 있겠느냐? 사탄이 파괴시킨 것은 사람의 육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 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와서 사탄과 싸우고 친히 사람을 목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역에 이롭다.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했는데, 그 두 차례 입은 육신은 모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자 사람을 더 잘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대상은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어쨌든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천사는 사탄과 싸울 수 없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사람은 더더욱 사탄과 싸울 수 없다. 천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며, 사람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인간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해야 한다. 즉, 육신을 입고, 그의 원래 신분을 지니고 그가 해야 할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사역하거나 사람이 사역한다면 이 싸움은 영원히 성과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을 맺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와서 친히 사탄과 싸워야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며, 사탄도 수치를 당하고 더 이상 틈탈 기회나 수작 부릴 방법이 없게 된다. 성육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더더욱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하는 사역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며, 사람의 파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싸움에 ‘참여’한다면 그저 참패하여 낭패를 당할 뿐, 사람의 파괴 성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패역한 인류를 정복할 수도 없다. 그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낡은 사역을 하거나 사탄을 물리치는 것과 관련 없는 사역을 조금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 헛수고를 하겠느냐? 사람을 얻지 못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다면 그 사역에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으며,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천지개벽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사탄과 싸우는 사역은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창조주를 만족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즉 새 시대의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사역을 행하며, 이를 통해 시대 전체를 이끌고 온 인류를 위해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시대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탄과의 싸움이 새로 시작되며, 이로써 인류도 더 새롭고 아름다운 경지, 하나님이 친히 이끄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지만, 하나님께 얻어진 사람은 모든 싸움이 끝난 후의 열매이기도 하다. 사탄은 만물을 부패시킨 존재이고, 모든 싸움의 패장이자 싸움이 끝난 후에 벌을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 사람, 사탄, 이 셋 중에서 오직 사탄만이 버림받을 대상이지만, 사탄에게 얻어져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징벌받는 대상이 된다. 앞서 말한 셋 중에서 만물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한편,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하나님께 되찾아진 뒤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사탄은 반드시 패배하겠지만, 사람은 이기는 자도 있고 실패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긴 자에 속하고, 패배하는 사람은 패배자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것으로, 모든 사역의 종결이자 근본 취지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경륜의 주된 핵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주된 이유도 이 핵심과 이 사역을 위함이고, 사탄을 물리치기 위함이다. 첫 번째 성육신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하나님은 친히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첫 번째 싸움의 사역, 즉 인류를 속량하는 사역을 완성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사역한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친히 말씀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역도 곁들여 하겠지만, 그가 친히 이 사역을 하는 주목적은 역시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인류를 정복하여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나님의 이 사역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만약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감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실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만 사역을 한다면 성육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지 않아도 그의 낮춤과 감춤, 위대함과 거룩함을 사람에게 직접 계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람을 구원하거나 온전케 하지 못하며, 더욱이 사탄을 물리치지도 못한다. 단순히 영과 영의 싸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사역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으며, 사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그르칠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깊은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사람의 시야를 넓혀 감동과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어떤 의의도 없다. 네가 이런 인식밖에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이 성육신한 진정한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전체 경륜의 사역을 모두 친히 행한다. 세상을 창조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류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인류를 구속한 두 번째 단계도 하나님이 친히 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끝을 맺는 사역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그가 친히 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속량하고, 정복하고, 얻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대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인류를 얻기 위해, 또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다. 모든 경륜과 사역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행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저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식은 아무런 가치도, 의의도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얕박한 인식이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행해야만 이 사역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다면 그를 대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첫 번째 성육신은 속량을 위한 것, 즉 인류를 죄에서 속량해 정결케 하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복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행한다.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예언뿐이라면 예언가,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켜도 그만이다. 예언만 한다면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사역,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사역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하고, 성육신하여 친히 행해야 한다. 말씀의 시대에 예언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할 필요 없이 이사야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시키면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역은 예언에 그치지 않으며, 말씀 사역으로 인류를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한다. 율법시대에 여호와께는 일부 사역만을 행한 후, 선지자를 통해 약간의 말씀과 사역을 했다. 사람이 그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언가는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을 말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의 사역은 직접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죄와 무관했으며,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여호와께는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모세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려는 말씀과 행하려는 일을 하게 하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했다. 첫 단계 사역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탄과 본격적으로 싸운 것은 첫 번째 성육신 때부터 지금까지이다. 첫 번째의 싸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직접 사람의 생명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되찾아 오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사탄과 싸우는 사역이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행한 사역은 그저 인류가 땅에서 살도록 인도한 것으로,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싸움이나 큰 사역과도 관계가 없었지만, 훗날 싸울 사역을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 두 번째 단계인 은혜시대의 사역은 사람의 옛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해야 했고, 반드시 직접 성육신해야 했다. 그 단계의 사역은 성육신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직접 사탄과 대결하는 사역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 사역을 대신하여 하게 하면 사탄과 마주했을 때 사탄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성육신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자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신분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하여 사탄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사람에게 맡겨 직접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도 사람은 하지 못한다. 예언만으로는 사람을 정복할 수 없으므로 성육신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고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후 얻으면, 이 단계 사역은 끝이 난다. 즉, 대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경영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특히 시대를 이끄는 사역과 새로운 사역을 여는 일은 더더욱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 사람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는 것 등은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려는 사역, 사탄과 직접 싸우는 사역은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다. 사탄과 싸우지 않은 첫 단계 사역에서 여호와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전했고, 또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사탄과 싸우는 두 번째 단계 사역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사역했다. 사탄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성육신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은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며, 사람은 싸워 봤자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아직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힘이 있겠느냐? 사람은 본래 중립적인 존재로, 사탄 쪽으로 기울면 사탄에 속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니 이런 싸움의 사역을 사람이 대신하여 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지 않았겠느냐? 이미 오래전에 황천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기에 사탄과 싸우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사람이 일부 사역을 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구슬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대신하여 할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우기도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탄과 싸울 수 있다.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얻어져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한계가 있기에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하며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사람의 총명과 지혜가 사탄의 계략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겠느냐?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모두 온전케 될 기회가 있다. 장차 너희 모두 그 종착지에 들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너 자신의 일이다.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직하게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 특히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온전케 될 수 없다.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것이다. 조금 우매해도 괜찮다.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온전케 될 수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측면으로 추구하기를 원하는 한, 온전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중 그 누구도 버리거나 도태시키고 싶지 않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자신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네가 분발하지 않는다면, 즉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는다면, 혹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자기 멋대로 하며, 나쁜 짓을 저지르고, 명예와 이익을 다투며,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맺는다면 너는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사람에게 동정받을 가치도 없다! 나는 너희가 모두 온전케 되길 바란다. 아니, 최소한 정복이라도 되어 이 단계 사역이 순조롭게 완성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보고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린다거나 너희에게 희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을 이어가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온전케 될 기회는 있다. 원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성과를 얻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자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에 맞춰 너에게 요구한다. 네가 무지하고 글을 모르면 그런 조건에 맞춰 요구할 것이며, 네가 글을 알면 그 기준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게 요구하고, 네가 접대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네가 접대는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다른 업무적인 사역을 하는 등 한 부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역할에 맞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네가 이르러야 할 세 가지로, 최고의 실천이다.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몇 가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우선 진심으로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일을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나 온전케 될 기회가 있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말에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 세 가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따라오기를, 모든 사람에게 성령 역사와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또 모든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너희 모두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할 때, 너희는 모두 온전케 될 것이며 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며, 장차 살아남아 아름다운 종착지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있었다. 그때 땅에는 인류도 만물도 없었으며,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도 행하지 않았다. 인류가 생겨나고 또 파괴된 뒤에야 하나님은 경영 사역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하지 않고 인류 가운데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하나님은 인류의 파괴로 인해 안식을 잃었고, 또 천사장의 배반으로 인해 안식을 잃었다.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다. 하나님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 역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안식에 들어간 삶이란 전쟁도 더러움도 없고 불의도 남아 있지 않은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탄(적대 세력)의 방해도 사탄의 파괴도 없으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의 침범도 없이 만물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늘과 땅 모두 평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안식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때 땅에는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침범도 없을 것이다. 인류 또한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 더 이상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인류가 될 것이다. 인류가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안식을 잃은 것이지 처음부터 안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물의 활동과 만사의 발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더 이상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바로 사탄이 파멸되고, 사탄과 한통속인 악인들이 모두 징벌받아 멸절되며,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지 않음을 뜻하고,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빛과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는 일도, 불의한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인류가 구원받고 사탄이 멸망하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끝나 더 이상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고, 사람 또한 더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쁜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사람 또한 더 이상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가니, 이것이 바로 전체 경영이 끝난 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을 종착지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종착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은 안식하면서도 전 인류가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할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늘의 유일한 참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살지 않고,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착지에서 살지는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경지에서 살지 못하며,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인도하는 분이고, 인류는 하나님 경영 사역의 결정체이자 인도받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본질과 같지 않다. ‘안식’의 본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하나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더는 땅에서 살지 않고, 더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사람이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편,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더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대적하지도 않고, 처음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과 사람의 삶과 종착지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그러니 경영 사역을 끝낸 하나님과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또한 필연적 흐름이다. 사람이 안식하는 곳은 땅이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은 하늘이다. 사람은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인도하며 안식을 취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이고 사람은 여전히 육신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중에 사람 가운데 와서 나타날 것이고, 사람은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 인도되어 천상을 둘러보고 천상에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사탄은 물론이고 악인들까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은 말세에 일어난 대재난으로 파멸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이 철저히 멸망한 뒤에 사람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없어야 인류가 철저히 구원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만물의 결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과 인류의 발전이 끝나간다는 의미이다. 즉,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의 발전은 이미 끝에 이르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어 오던 생육도 끝이 났다는 말이다. 또한 사탄에 의해 파괴된 현 인류는 더 이상 계속 발전할 수 없음도 뜻한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파괴된 존재가 아니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오면 에덴동산에서 내쫓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 후의 인류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겠지만, 그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인류가 아니라 구원받고 정결케 된 인류일 것이다. 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은 인류이자 거룩한 인류이므로 처음의 인류와는 같지 않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와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탄에게 패괴된 모든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고, 마지막에 심판과 형벌을 받으며 굳게 선 인류이며,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 살아남은 마지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오직 이 무리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말세에 심판과 형벌을 하는 사역, 즉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역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정결케 되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을 거친 후에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들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과 심판 사역은 본질이 인류를 정결케 하고 마지막 안식의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전 인류는 각기 부류대로 나뉘 수도,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사역은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정결케 하는 사역만이 인류의 불의를 정결케 할 수 있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만이 인류의 패역한 것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사역이 끝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케 되어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땅에서 제2의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안식의 날을 맞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과 심판을 거쳐 본모습이 철저히 드러난 후 모두 멸망하여 사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땅에서 생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의 인류 중에는 이 부류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안식의 날을 맞이할 자격도 없다.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징벌받을 대상이자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바 있고 심판과 형벌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쓴 적도 있지만, 마지막 날이 이르면 자신의 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채 도태되고 멸망하여 더 이상 이후의 세상과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악을 행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인류가 안식에 들어갈 때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악을 행한 영혼과 악을 행한 사람들, 의인의 영혼과 의를 행한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이든 영혼이든 구원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마지막 시대의 사역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는지에 근거해 결정된다. 지난 시대의 사람이 악을 행했고 또 구제 불능이었다면 틀림없이 징벌받을 대상이고, 이 시대에서 악을 행하고 또 구제 불능이라면, 그 역시 반드시 징벌받을 대상이다. 각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때는 시대가 아닌 선과 악에 근거한다.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벌하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사역은 말세 정복 사역이 끝난 뒤 행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해

왔다. 단지 사역이 끝난 후에 의인에게 상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줄 뿐, 마지막 사역이 끝날 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 다음 바로 상선별악의 사역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상선별악 사역은 오직 전 인류를 철저히 정결케 하여 온전하고 거룩한 인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단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전체 경영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남겨 둔다면, 전 인류는 계속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더 아름다운 경지로 전 인류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사역이 끝날 때 전 인류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편히 안식하며 지낼 수 있다.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며, 육적인 즐거움과 세상, 재물, 그리고 파괴된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대부분 건성으로 추구하고 있다.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꿰뚫어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더욱 믿지 못한다. 육적인 것이 너무 많은 그들은 심하게 파괴되어 진리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육신 또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즉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는 모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는 고사하고 인성이나 이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미덥지 못한 존재로 보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가장 미쁜 존재, 가장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존재로 여긴다. 그들이 찾는 것은 자극이지, 실제적인 진리나 인생의 참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단지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지,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 아니겠느냐? 그들은 더없이 자신만만해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같이 ‘좋은 사람들’을 멸하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는 건 물론, 큰 상까지 내려 줄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이 어그러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반격을 개시하거나 노발대발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소인배’들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정인군자’가 아니다. 이런 부류가 바로 소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다.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믿지 못하며, 이후 인류에게 닥칠 결말에 대해서는 더욱 꿰뚫어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종착지는 물론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역과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않으며, 내가 요구하는 진리도 실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바로 멸망을 맞이할 대상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껍이나 똑똑하다고, 자신은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악행을 진리로 삼으며 귀하게 여긴다. 이런 악인은 모두 자신만만해서 진리를 이치로 삼고 자신의 악행을 오히려 진리로 여기니, 결국에는 자신의 쫓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얻기가 더 힘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징별받을 대상이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류의 사람이 징별을 받을지 아니면 상을 받을지는 그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봉사한 적은 있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모두 진리가 없는 자들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악을 행한 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징별받을 대상이고, 또한 그 악행에 따라 징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복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육신에 거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자들’은 필히 멸망을 맞이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인정하나 그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결국 다 도태되고 멸망될 대상이다. 또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하면서 그가 선포한 진리도 먹고 마시지만,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그들은 사역이 끝난 뒤에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며,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안식 가운데 남지 못할 것이다. 마귀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런 부류는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너에게 진리가 있는지,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등은 너의 본질에 의한 것이지, 결코 외모나 우발적인 언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멸망 여부는 다 그들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이 행한 일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드러낸 본질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똑같이 사역하면서 똑같이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인성의 본질이 선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대상이고, 인성의 본질이 악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멸망될 대상이다. 인류의 종착지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사역이나 말씀은 모두 그 본질에 따라 적절하게 행해지므로 한 치의 오류도 털끝만큼의 실수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사람이 하는 일에만 사람의 감정이나 뜻이 섞이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이 훗날 인류의 종착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한 말을 믿지도 않는다. 믿지 않거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마귀이다!

지금 추구하지 않는 자와 추구하는 자는 종착지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다. 진리를 알고 실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 속하지만, 참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이자 원수이며, 천사장의 후예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막연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신자 또한 마귀 아니겠느냐? 사람의 양심이 올바른지라도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 마귀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세상을 버리려 하지 않고, 부모나 육적인 즐거움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자 멸망될 대상이다. 성육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전부가 마귀로서 훗날 더더욱 멸망될 대상이다. 믿으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모두 멸망될 대상이다. 살아남는 사람은 전부 연단의 고통을 겪고 굳게 선 사람이고, 진정으로 시련을 겪은 사람이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원수이다. 즉, 이 흐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나 진리가 없는 자들 아니더냐? 복만 받으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더냐? 네가 오늘날에도 이 마귀들과 손잡고 그들을 양심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니겠느냐?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만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이런 부류가 맞이하는 결말은 더욱 비참할 것이다.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다. 네가 원수에게도 양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정의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증오하고 반대하는 자와 네가 오히려 마음이 통해 그들을 사랑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다면 패역 아니겠느냐? 고의로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게 진리가 있겠느냐? 원수를 양심으로 대하고 또 마귀를 사랑으로 대하며 사탄에게도 긍휼을 베풀려고 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만 믿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입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이며, 멸망될 대상이다. 사람이 다른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근거하기에 선행을 하면 의인, 악행을 하면 악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근거한다. 행위의 좋고 나쁨과 말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원수이자 악인이다. 선행으로 훗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으려 하는 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로 장차 아름다운 종착지를 사려는 사람도 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말을 듣고서 그의 결말을 정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 기회에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인 은혜를 받고자 한다. 남아서 이후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고난의 날을 겪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다. 봉사할 기회를 이용해 진리 실행을 면해 보려는 자들은 전부 살아남지 못할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안배할 때는 적합한 기준에 따르지, 언행이나 한 시기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악행에 관용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한동안 헌신했다고 해서 죽음을 면케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은 보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악행을 숨김으로써 멸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진실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한다면,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원히 충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희망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성심을 잃어버리는 자, 즉 한동안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봉사한 적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멸망될 대상이다. 요컨대 악인은 영원까지 살아남을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의인이야말로 안식의 주인이다. 인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사람은 정상 인성을 갖고 살게 되므로 저마다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이다. 사람은 패역과 패괴 성품을 완전히 벗어 버린 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며,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나라의 삶이며, 또한 안식하는 삶이다.

전혀 믿지 않는 자녀나 친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다 사심이 너무 많고 선심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나 친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관 않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한다. 아내나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동의나 역사 여부 등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 ‘인재를 영입한다’. 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 불신파들이 마지못해 따를지라도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와 시련,

성육신 하나님의 온전케 함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의 조건과 실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만들어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 역시 그들에게 지나치게 공을 들일 마음이 없으므로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없이 그저 그들 마음대로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에 결말을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열의와 뜻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뤄지게 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나? 자녀는 무엇을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부모는 또 무엇을 위해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자신의 타산과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느냐? 진정 하나님의 경륜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 이행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멸망의 대상이다. 사람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지 못한다. 사람의 열의와 사랑은 사람의 뜻을 상징할 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지도 못한다. 사람이 이름만 걸고 있는 자들과 거짓으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도, 성령의 역사도 얻을 수 없다. 진심으로 따른다면 자질이 떨어져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질이 아무리 좋아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구원받을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때때로 설교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할지라도 최후의 안식에서 살아남지는 못한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추구하는지 여부는 사람들의 평가와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지, 일정 기간 성령 역사로 인해 그의 성품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등에 달려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점점 변화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순수해질 것이다. 따른 시간이 길든 짧든, 변화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자는 힘을 쓰더라도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가끔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성품의 변화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이다. 하나님나라에는 힘쓰는 자가 필요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전케 된 사람을 보살피는 일 또한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주를 믿으면 온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은혜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일 뿐, 사람의 종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은혜시대 그 단계에만 적용될 뿐이다. 이 말의 함의는 그저 사람이 누릴 평안과 물질적 축복을 겨냥해 말한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이 주를 믿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아니고,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덩달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은 모두 자신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공통적 본질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에는 아예 이런 견해나 규정이 없다. 누군가 마지막에 살아남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고, 살아남아 안식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적합한 종착지가 있다. 그 종착지는 본인의 본질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녀의 악행을 부모에게 더할 수 없고, 자녀의 의를 부모가 공유할 수도 없다. 또한 부모의 악행을 자녀에게 더할 수도 없고, 부모의 의를 자녀가 공유할 수도 없다. 저마다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각자의 복을 누릴 뿐, 그 누구도 다른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공의이다. 사람은 부모가 복을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도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람의 생각이자 일 처리 방법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의 본질에 따라 합당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징벌받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대신해 의를 행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도 부모를 대신해 의를 행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말의 참뜻이다. 그 누구도 자녀를 넘치게 사랑한다고 해서 악을 행한 자녀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다. 또한 그 누구도 자신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의 아내(또는 남편)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은 행정 규정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까지나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다. 거룩한 자는 거룩할 뿐 더럽지 않다. 더러운 자는 더러울 뿐 거룩한 부분이 전혀 없다. 설령 악을 행하는 자의 자녀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의인의 부모가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악인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는 서로 맞지 않는 두 부류로서 본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혈육의 정이 있겠지만, 안식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혈육의 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분을 이행하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본래 원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는 본래 적대되며,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멸망하는 자는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피조물이다. 본분을 이행하는 피조물은 영원토록 살아남겠지만, 그러지 않는 피조물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너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믿지 않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본분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정말 올바른 것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멸망의 대상이다.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육적인 관계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전부 깨질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합하지 않고 서로 적대된다. 안식을 얻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패역한 자들이 모두 멸망하면 땅에는 더 이상 가정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부모가 어디에 있고 자녀가 어디에 있으며, 부부 관계는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육적인 관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본래 합할 수 없으므로 단절될 것이다!

본디 인류에게는 가정이 없었다. 남자와 여자, 두 부류의 사람만 있었을 뿐 국가도, 나아가 가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괴로 말미암아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족 집단을 이루다가 국가와 민족으로 발전했으며, 이 국가와 민족은 또 하나하나의 작은 가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류의 사람은 언어와 경계(境界)에 따라 서로 다른 종족에 귀속되었다. 사실, 세상에 종족이 아무리 많더라도 인류의 조상은 결국 하나이다. 처음에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두 부류만 있었다. 하지만 사역의 진전과 역사(歷史)의 발전, 지형의 변화로 인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조금씩 더 많은 부류로 파생됐다. 요컨대 인류의 종족이 얼마나 많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어느 종족의 사람이든 모두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빚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이 친히 만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어느 부류든 다 피조물에 속한다. 창조된 인류이기에 그들에게 상응하는 종착지가 있으며, 그 종착지는 인류를 안배하는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자도 의를 행하는 자도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마지막에 멸망될 대상이고, 의를 행하는 피조물은 살아남을 대상이다. 이는 두 부류의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패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구제불능이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지만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구원받게 된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로, 그들은 구제불능의 피조물이자 사탄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피조물이다. 악을 행하는 자 역시

사람이고 극도로 파괴되고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똑같은 피조물로서 의를 행하는 사람 또한 파괴된 자이지만 파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파괴된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사역이 끝나면 멸망하는 피조물도 있고, 살아남는 피조물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 사역의 필연적인 추세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 살아남을 수 없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다.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인 만큼, 어떤 자는 남겨지고 어떤 자는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각 부류의 사람이 맞이하는 서로 다른 결말로서 피조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안배이다. 인류에 대한 마지막 안배는 가정과 민족, 그리고 국경을 부수고 나누는 것이다. 사람은 어쨌든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피조물이기에 가정의 구분도, 국경의 구분도 없다. 요컨대 악을 행하는 피조물은 멸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은 살아남는다. 그리하여 나중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과 국가는 물론, 민족까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인류가 바로 가장 거룩한 인류이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은 까닭은 사람이 땅에서 만물을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사람은 본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땅에서 생존하고 땅의 만물을 관리하는 것은 여호와가 사람을 지은 이유였다. 처음에 사람은 파괴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괴된 사람은 더 이상 만물의 관리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은 사람의 이러한 역할과 처음에 지녔던 이성, 그리고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안식 중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 바로 구원 사역의 성과를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더 이상 에덴동산의 삶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 단지 더 이상 파괴된 인류가 아니라 파괴되었다가 구원받은 인류일 뿐이다. 구원받은 이 인류는 마지막(사역이 끝난 뒤를 가리킴)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마찬가지로 징벌의 대상들 또한 마지막이 되면 철저히 결말이 드러나 사역이 끝난 후에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역이 끝나면 악을 행한 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드러난다는 뜻이다. 각 부류의 사람(악을 행하는 자든 구원을 얻는 자든)을 드러내는 이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도태되면 살아남은 사람 또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지, 먼저 한 무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한 뒤에 악인들을 한곳에 두었다가 조금씩 심판하거나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악인이 멸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때 전 우주의 사역이 끝난다. 복을 받고 화를 입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화를 입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한다. 이 두 단계 사역은 동시에 완성된다. 거역하는 자가 있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행으로 화를 입는 것이 드러난다. 악을 행하는 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역의 절차이다. 이 상선벌악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영원히 각자의 종착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간 후 악을 행한 자가 모두 멸망하면, 전 인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각 부류의 사람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뉜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안식이자 인류 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인류가 안식에 들어가야 비로소 마지막 대업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끝나게 된다. 이 사역이 전 인류의 부패한 육적인 삶을 끝내고 파괴된 인류의 삶을 끝내면, 인류는 그때부터 새로운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은 육신에서 살겠지만, 그 삶의 본질은 파괴된 인류의 삶과 크게 다르고, 생존의 의의 또한 파괴된 인류의 생존 의의와 다르다. 이는 새로운 사람의 삶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인류의 삶이자 인성과 이성을 회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검증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로서, 그들의 삶은 가장 의의 있는 삶이다.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사탄 앞에서 증거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멸망하는 자들은 모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들을 멸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걸맞은 종착지이다. 사람이 장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가면 사람이 상상하는 부부 관계나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등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은 모두 각기 부류대로 나뉘고 가정도 깨졌을 것이다. 사탄은 철저히 패배하여 더 이상 인류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에게도 더 이상 사탄의 파괴 성품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패역한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기에 온 가족이 살아남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그때면 과거의 육적인 삶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겠느냐? 사탄의 파괴 성품이 없으면 사람의 삶 역시 더는 이전의 낡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일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잃고 자녀는 부모를 잃을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을 것이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적인 관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면 육적인 관계는 없어진다. 그런 인류야말로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인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류이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류를 땅에 두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였으며,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마지막에 그는 인류를 정복하고 철저히 구원하며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 즉 사람의 원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땅에서의 권병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의 권병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가 되었다. 사람이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기에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역할 수 없었고, 피조물의 경외는 더더욱 받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경배하며 사탄을 마음속 우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지은 의의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의의를 되찾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 파괴 성품을 없애야 한다. 또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오려면 필히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조금씩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마지막에 패역한 자식들을 철저히 멸하는 까닭도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잘 경배하고 땅에서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은 이상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사람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이상 불순물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의 원수가 모두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남기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 자신의 나라이며, 그가 원하는 인류는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가진 인류이다. 파괴된 인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람을 지은 의의는 사라지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은 없어질 것이며, 땅에는 더 이상 그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거역한 원수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영광을 얻을 수 없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인류 가운데의 패역자들을 철저히 멸하고 온전케 된 자들을 모두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의 대업이 이루어졌다는 표징이다. 인류가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며, 자신의 본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땅에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얻고 그를 경배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땅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면, 그는 처음에 사람과 만물을 지은 뜻을 회복하고, 땅에서 가졌던 권병과 만물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 그리고 원수 가운데서 가졌던 권병도 회복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표징이다. 그때부터 인류는 안식에 들어가 정상 궤도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또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더러움과 패역, 애곡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리고 그가 지은 만물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 4

(1994~1997년, 2003~2005년)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꾼 후이다

너는 예수를 보고 싶으냐? 예수와 함께 지내고 싶으냐?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너는 예비를 잘했느냐? 너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냐? 나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재림을 좋은 방식으로 맞이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가 재림할 때 정말로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정말로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 정말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전심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를 주시하고 있는 너희 모두의 진심은 자랑할 만하고, 너희의 믿음은 실로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막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의 재림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으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묻겠다. 흰 구름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임하겠느냐?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먼저 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가 예수에게 매우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그의 성품을 알고 있느냐? 그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자는 내 말이 곤혹스럽다고 여기며 말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모르다니요? 그분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즐겨 입는 옷의 색깔도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네가 이런 문제로 고집을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의 문제들을 교제해 보자. 첫째, 너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이론인지 아느냐? 둘째, 너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아느냐? 셋째, 너는 무엇이 상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사실 예수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의 그 어떤 말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너희는 누구나 다 성경의 기록과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말로 인해 예수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와 함께 지낸 적은 더더욱 없다. 심지어 예수와 잠깐 함께한 적도 없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론이 아니겠느냐?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예수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고, 어떤 이는

예수가 살았던 곳을 직접 방문해 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예수가 입었던 옷을 만져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이론이지 실체가 아니다.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네가 직접 맛보았다 할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육신과 함께 지낸 적도 없다. 그렇기에 네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영원히 실체가 없는 텅 빈 이론이다. 어쩌면 너는 내 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묻겠다. 네가 가장 추앙하는 작가가 있다. 너는 그와 함께 지내본 적도 없는데 그의 작품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성격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겠느냐? 그의 희로애락을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추앙하는 사람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예수에 대한 너의 얕은 상상과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진리도, 실상도 아니다. 악취를 풍기고 육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네가 아는 것이 이러한데,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한단 말이나? 예수는 환상과 육적인 관념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단 말이나?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을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다시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예수를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너무도 쉽게 저지르지 않겠느냐? 너는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정말 너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 있느냐? 너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줄 아느냐? 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지 않을지 모른다면, 나는 네가 이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부리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뭉게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냐?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냐?

너희들의 충성은 입술에만 머물고, 너희들의 앎은 머릿속 관념에만 머물며, 너희들의 수고는 하늘나라의 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 너희의 믿음은 또 어떠하냐? 지금까지도 너희는 이 진리들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어떻게 성령 역사에 진입하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중 한 마디라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죄하기만 한다.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충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찾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 멸망될 부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 지옥의 자손, 천사장의 후손, 영원히 멸망될 부류이다. 어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 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네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네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충고하겠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마라. 또한 제멋대로 전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고, 진리를 듣고도 멋대로 단정 짓거나 정죄하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른 이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본 후, 그 말씀 중에서 단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여겨진다면, 너는 그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네게 자신을 과신하거나 높이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권한다.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에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생각해 보면, 너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과연 진리가 맞는지, 생명이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몇 마디 보지도 않고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라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라며 맹목적으로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지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한다! 너희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맹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미혹될 것이 두려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 번 살펴보고도 이런 말씀이 진리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결국 징벌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게 굴지도, 덤병대지도 말라. 하나님 믿는 일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도 말라. 자신의 종착지와 앞날,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야지, 스스로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말들을 다 받아들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참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와 함께하길 원한다.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와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제자매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성육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너희는 예수의 모습이 어떨지,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할지, 생활 방식이 어떨지 등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만났을 때 너희의 생각은 곧바로 바뀔 것이다. 어째서 그럴까? 알고 싶으냐? 사람의 사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더더욱 사람이 바꿀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신선이나 성인(聖人)으로 여기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를 신적 본질을 지닌 일반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고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나? 지금까지도 너희는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이 그리스도를 뵈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나는 너희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갖추라고 충고하고 싶다! 과거와 현재에 그리스도와 접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여 실패했고,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들이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나? 그것은 너희의 관념 속에 사람들이 양모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바람과 다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기는커녕 아주 보잘것없으며, 사람인 데다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고, 그와 거리낌 없이 지내며, 그에게 막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이미 온 그리스도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고 그의 말씀을 보통 사람의 말로 여기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빛 속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너는 자신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라 여기며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많은 길을 열심히 뛰어다녔고 많은 사역을 행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으므로

자신이 나중에 꼭 면류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람의 패괴 성품과 패역, 대적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때 드러나는 패역과 대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나라하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리스도가 인자이며 정상 인성을 지닌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불경스레 대하고,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패역이 남김없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패역이 모두 파헤쳐졌고,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류의 본성이 다 부각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맹수를 굴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감히 자신이 패역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할 때마다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건성으로 대한 적 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완수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 그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느냐? 그런 날은 또 얼마나 오래갈까? 하루? 이틀? 한 시간? 두 시간? 너희의 믿음은 가상하나 너희의 의지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게 될 때는 너의 독선과 자만이 언행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너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불복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결국 교만함이 나날이 심해져 물과 불처럼 그리스도와 상극이 될 때면, 너의 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의 관념은 감출 수 없게 되고, 너의 불평도 자연스럽게 ‘표출’ 되면서 너의 그 비열한 인성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여전히 자신의 패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는 너무 냉혹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더 나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전히 순종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패역에 이유가 있다고 여기며,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한사코 그리스도에게 너의 뜻에 따라 사역하길 강조하며, 한 가지 일이라도 너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긴다.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와 힘겨루기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 이는 대체 누구이냐? 너희는 어떻게 추구했느냐?

너희는 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있지만 나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은 악과 교만, 패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본성이 너를 망치고, 네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네가 형제(자매)와 접할 때에는 너를

어떠하다고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너의 관념이 수시로 뿌리를 내리고, 너의 교만함이 수시로 싹이 트고, 너의 패역이 수시로 무화과를 맺을 것이다. 너의 그런 인성으로 어찌 그리스도를 접한단 말이나? 너는 진정 그를 언제나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느냐? 너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체가 있느냐? 너희는 마음속의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여겨 경배하고, 보이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대하니 이성이 너무도 없고, 인간성 또한 몹시 저열하다! 너희는 가끔 기쁠 때에만 그를 끌어와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할 뿐, 영원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당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보답을 받는데, 그리스도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사역하면서도 사람들의 사랑과 순종,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는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날 일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네가 하나님을 여러 해 믿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악담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 정직한 말과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음험하고 악랄한 사람이라고 한다. 네가 친지와 친구, 아내(남편)와 자녀, 부모에게 매우 자상하고 충실하며, 여태껏 다른 이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면, 너의 모든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거나 부모와 가족을 세심하게 돌본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여전히 악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간계가 많은 악인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좋은 일을 좀 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다고 여기지 말라. 너는 선심을 쓰는 것으로 교묘하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좋은 일을 좀 했다고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모두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인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네가 패역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책망이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심하게 파괴된 존재이므로 만약 파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언행 하나하나에서 파괴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접할 때 곳곳에서 패역을 드러내어

부지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만하고, 저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처지가 더욱 위험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자가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물론 어렵지만 이는 모두 사람이 패괴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접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아는 진리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너희의 성품을 혐오할까? 왜 너희의 언사를 증오할까?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뱉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란다. 또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사역을 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는 돈과 물질을 요구하고 칭찬해 달라고 하며, 동전 두 닢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열 닢을 내놓고는 축복해 달라고 하며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스러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나?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우습지 않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이성이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나? 이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단 말이나? 너희는 이런 자신이 걱정스럽지 않느냐? 너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의 믿음이 우습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이 터무니없지 않느냐?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네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나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다.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리더나 아들들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백성이나 봉사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에 대한 사람의 충성심에 따라 사람을 각 부류로 나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부류대로 나뉘었을 때, 즉 각 부류 사람들의 본성이 죄다 드러날 때, 나는 그들을 각각 있어야 할 부류에 속하게 하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내 목적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나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불러 모아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모두가 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사람을 부류대로 나눈다.

그런 뒤 그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역하는 절차이다.

현재 나는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사람은 나의 사역을 체험하고 나의 말을 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베풀어 내게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에 행할 길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내 오랜 사역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람이 나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은 입으로만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뿐, 내 입에서 나온 진리는 수긍하지 않고 내가 요구한 진리는 더욱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인정할 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본질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열정 때문에 사람을 혐오한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 나를 기만하기만 할 뿐, 진심으로 나를 경배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은 독사의 유혹을 품고 있으며, 극히 교만하여 천사장의 ‘소리’ 같다. 너희의 행실은 썩어 빠졌고, 너희의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속셈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너희는 모두 내 집의 좀 벌레, 내가 혐오하여 내치는 대상이 되었다. 너희는 전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땅에서 권세 잡는 장관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같이 극도로 파괴되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따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전례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입에는 나를 기만하는 말과 더러운 말,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말과 교만한 말로 가득하다. 너희는 진실한 말로 나에게 간절히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거룩한 말도, 나의 말을 체험하여 나에게 순종하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너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하냐? 너희의 마음속은 욕망과 돈으로 가득 찼고, 너희 머리는 물질로 가득 찼다. 너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내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내게 얻은 돈과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으며, 더 많은 축복이 임하여 더 많고 좋은 물질을 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서 온 진리도 아니라, 너희의 남편(아내)과 아들딸, 그리고 너희가 먹고 입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는지 등이다. 너희가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운다고 해도 여전히 시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겉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생기 없는 산송장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머리가 세도록 고생하면서도 내 사역을 위해서는 털끝 하나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너희는 자신의 육체와 아들딸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하고 머리를 쥐어짜지만 내 마음을 생각하며 조급해하고 근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너희는 내게서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역할 때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따르든 나는 내 절차와 계획대로 사역한다. 그렇기에 너희가 이처럼 나를 거역하더라도 나는 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전부 내 집으로 불러 모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뒤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말에 등 돌리고, 내게 청종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며, 나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죄다 한쪽에 두어 최후의 징벌을 기다리게 할 것이다. 사람은 모두 패괴 성품으로 살고 있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로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리어 패괴와 패역과 기만의 수법으로 나의 신임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모두 극도로 패괴된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며 실행하는 일부의 사람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에 대조해 볼 때, 너희는 자신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결말은 어떠한 것 같으냐?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너는 뭇 만한 이유도 많을 것이고, 사랑도 아주 클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간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만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배반도 거역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무엇을 얻고자, 얼마큼 얻고자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바치고, 고난을 감내할 것이다. 또한 나와 마음을 합할 것이며,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너의 가정과 앞날, 청춘과 결혼까지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배반이다! 너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참된 사랑이냐, 거짓된 사랑이냐? 너는 얼마나 포기하였느냐? 얼마나 바쳤느냐? 내가 너에게서 얻은 사랑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는 악과 배반, 기만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너희의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위해 충분히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나에

대한 사랑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의 언행은 늘 패역과 기만을 띠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를 저버린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나의 신분에 걸맞게 나를 대하지 않고 늘 나를 난처하게 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도 매사에 나를 속이고 기만한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섬기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사건건 내게 반기를 든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바친 것은 많지만 정작 내가 요구한 것들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세히 따져 보면, 너희에게서는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고 이토록 많은 말씀을 공급했는데, 너희가 얻은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내가 불러 모은 이는 패괴된 사람이고, 내가 택한 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자신의 언행을 경계하고 속마음과 생각을 성찰하여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 너희의 사랑을 내 앞에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진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합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이자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땅에서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을 많이 얻지는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내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패괴된 사람은 모두 사탄의 울무에서 살아가고, 자신의 욕, 그리고 사욕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 마음에 합했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모두 막연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거룩하다 칭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도는 나와 상반된다. 그들의 말에는 교만함과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다. 그들은 본래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에서 나의 종적을 찾으며, 내키는 대로 ‘적합한’ 구절을 찾아 하염없이

울조리는가 하면, ‘경 전’으로 삼아 외우기까지 한다. 그들은 내 마음에 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엇이 나와 적대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경’만 읽을 뿐이다. 그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막연한 하나님을 성경에 국한시키고, 여유가 생길 때면 꺼내어 보곤 한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 안에서 내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성경’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며 ‘나’와 ‘성경’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내 존재와 내 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하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의 예언이 없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글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장절로 내 말 한마디 한 마디를 가늠하고,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성경 글귀에 부합하는 길이지, 내 마음에 합하는 길이나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기니,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의 충실한 자손들 아니겠느냐?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 예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찾지도 않으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대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에게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과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을 씌워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글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내 뜻과 내 사역의 절차와 방식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고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성경을 지키는 종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이익과 존엄성, 그리고 성경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인자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성경을 옹호하고, 또 성경의 글귀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라도, 속죄 제물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성경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 그들을 성경 글귀의 앞잡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 밖으로 내몰려 하였다. 또한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완전히 말살하려 하였으며, 성경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악독하고, 그 본성이 나를 이토록 적대시하는데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어도 여전히 나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 나의 진노가 사람에게 닥칠 때면 나의 존재를 더욱 부인한다. 사람은 저마다 글귀와 어우러지고 성경과 합하기를 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와서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는 않는다. 사람은 모두 천상에 있는 나를 앙망하고, 천상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너무도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오직 성경 글귀에 합하기만을 구하고,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기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비천해 보인다.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은 죽은 글귀와 자신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비천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 나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나를 적대시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 또한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거역하는 자는 더더욱 나를 적대시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악한 자의 손에 넘겨 악한 자에 의해 파괴되게 하고, 그들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악한 자에게 넘겨주어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나는 나를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는 무관심하다는 의미이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배반한 악인이자 원수로, 굳이 그 원수를 내 집에서 ‘떠받들’ 리가 없다.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내 집에서 나를 섬기겠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은 나의 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글귀에만 신경 쓸 뿐, 진리와 내 발걸음을 찾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성경에 국한시키고, 성경 안의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인데 그들이 어찌 내 앞에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나의 행사와 나의 뜻, 진리가 아니라 글귀,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글귀이다. 이런 자들이 어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 뜻과 내 성품까지 나타내었건만,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알지도, 믿지도 못한다. 혹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경만 따르며 사는 사람, 율법만 따르며 사는 사람, 십자가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 규례만 따르며 사는 사람, 오늘날 나의 사역을 따르며 사는 사람, 이들 가운데 그 누가 내 마음에 합하겠느냐? 너희는 복받거나 상받을 궁리만 하였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와 적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너희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베풀어 주었지만, 내가 너희에게서 얻은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기만과 교만, 너희의 탐욕과 사치스러운 욕망, 너희의 배반과 불복종,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무성의하게 대하고 속이며 욕되게 한다. 또한 기만하고, 사기 치며, 나의 제물을 강탈한다. 이런 악행들이 어떻게 내 징벌을 피해 갈 수 있겠느냐? 이 악행들은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며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너희는 저마다 내 마음에 합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증거는 또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나? 너희는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여긴다. 또한 너희는 자신들이 더없이 착하고, 동정심도 넘쳐난다고 여기며, 나에게 셀 수 없이 많이 바쳤고, 나를 위해 행한 것도 충분히 많다고 여긴다. 하지만 너희는 그런 생각들을 자신의 행위와 대조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말해 주겠다. 너희는 교만으로 가득 찼고, 너무나 탐욕스러우며, 건성으로 하는 일이 많다. 게다가 나를 속이는 데 탁월하고, 비열한 속셈과 수단이 너무 많다. 너희는 충성심과 진심이 한없이 부족하고, 양심은 더욱 없으며, 마음씨 또한 너무나 악독하여 어떤 사람도 그냥 두지 않는다. 심지어 나에게도 예외는 없다. 너희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문전 박대 한다. 너희의 가정과 자녀, 지위와 앞날, 그리고 누리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 나에게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날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너희는 자녀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지, 나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네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신변 안전, 그리고 너의 가족이다. 네가 행한 일 중에 나를 위한 것이 있었느냐? 언제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나와 내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한 적이 있었느냐? 내 마음에 합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나에게 충성하였느냐? 실제로 나에게 순종하였느냐? 복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나를 건성으로 대하며 기만하고 있다. 또한 진리를 우롱하고, 진리의 존재를 덮어 감추며, 진리의 본질을 배반하고 있다. 나를 이토록 적대시켰으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막연한 하나님과 합하며, 막연한 신앙만을 추구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는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악인과 똑같은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때가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가 어떤 보응을 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려는 너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고 수없이 고통을 겪었지만, 내가 인류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최종에 너희는 오직 나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오직 나만이 인류를 아름다운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을 믿은 지 한두 해만은 아닐 것이다. 그 세월 동안 너는 많은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고, 고난 대신에 많은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다. 또는 고난도 은혜도 받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보았으면 한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일러두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이 대중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을 말씀에서 제외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함의를 깨달아야 한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함의는 모두 너희의 긍정적인 진입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와 달리, 너희의 믿음에 대한 본질을 분석하려 한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신의 진면목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가 경건하고 충성스럽다며 끝없이 과시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 깊은 곳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마다 면류관을 제 머리에 씌우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라는 의미다. 너희는 오만 방자한 본성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었으며,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였다. 또한 너희의 그 추악한 몰골이 드러나면서 너희의 속셈과 생각, 사치스러운 욕망과 탐욕스러운 두 눈도 빛 속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끝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한평생 몸 바치겠다고 외치고, 그가 일찍이 말씀했던 진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끊임없이 되뇌다.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 바로 너희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믿음’이다. 예로부터 사람에게 대한 내 요구는 매우 엄격했다. 네 충성심에 다른 속셈이나 조건이 있다면, 나는 너의 그 소위 충성심을 차라리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저의를 지닌 채 나를 기만하고, 조건을 내밀며 뭔가 얻어 내려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믿음’을 위해, 그리고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감언이설로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진심으로 대했으므로 너희 또한 나를 참된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이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구태여 이러한 고난을 받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왜 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조금도 없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인정하면서 왜 그를 멸시하느냐? 왜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왜 그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느냐? 왜 늘 그의 행적을 캐느냐? 왜 그의 안배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일을 할 때 그의 말씀을 준칙으로 삼지 않느냐? 왜 그의 제물을 강탈하고 흠치느냐? 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말하느냐? 왜 그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느냐? 왜 그를 뒤에서 모독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희의 ‘믿음’이냐?

너희의 언행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분이 드러나고, 너희가 일을 행하는 동기와 목표에는 ‘불신’의 성분이 가득하다. 심지어 너희의 눈빛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다. 너희는 일분일초도 불신을 버린 적이 없었기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배반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육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피가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새긴 발자국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착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반신반의할 뿐 곧장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 늘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그의 말씀도 늘 꺾등으로 흘려보낸다. 또한 편견으로 인해 그가 행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관념을 내려놓기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너희 마음속에 섞여 있는 불신의 요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면서 아직 뒤쳐진 적이 없긴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패역의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그 패역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끼어 있는 불순물이다. 어쩌면 너희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을 보고 자신의 속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존재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억지로 따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력이나 재물은 좋아하지만 심판은 물론, 진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세력파라고 한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력이 있는 교파만을 골라 찾아다니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와 강사만을 찾는다. 그들은 설령 진리의 도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신반의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주시하는 사람은 대단한 목사와 강사일 뿐, 그리스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밖에 없다. 그들은 이렇게 작디작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정복할 수 있고, 이렇게 불품없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또한 먼지와 거름으로 뒤범벅된 이 변변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이라면 천지가 뒤집힐 일, 그야말로 배꼽 잡고 웃을 일이라고 여긴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해 온전케 한다면, 저 대단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관점에는 불신의 요소가 섞여 있다. 어찌 불신뿐이겠는가? 그들은 진정 이치로는 깨우칠 수 없는 짐승들이다. 그들은 지위와 명망, 세력, 그리고 거대한 단체와 파벌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진리와 생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배반자들이다.

너는 높디높은 지위를 가진 저 거짓 목자들을 숭상하지, 그리스도의 낮춤을 앙모하지는 않는다. 또한 세상과 야합하는 저 음탕한 자들을 좋아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과 지혜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너는 제물을 약탈하고 주색에 빠져 사는 저 시체들에 감탄할 뿐, 머리 돌 곳 없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비웃기만 한다. 또한 제멋대로 행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길 원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육체와 글귀, 그리고 통제뿐일지라도 말이다. 지금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해 있고, 그들의 명예와 지위, 세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 너의 마음속에는 높고 큰 형상이 우뚝 솟아 있다. 너는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잊지 못하고, 권세를 지닌 그들의 말과 두 손도 잊지 못한다. 너희 마음속의 그들은 영원히 지고지상한 영웅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네 마음속의 그는 영원히 초라하고 경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권세도 거의 없으며, 너무도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리를 중시하지 않는 자들을 불신파, 진리의 배반자라 한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불신의 요소를 찾아냈느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많이 찾아냈느냐? 네가 진리의 도를 선택한 이상, 모든 심혈을 쏟아붓고, 망설이지도 흔들리지도 말 것을 권고한다.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세상과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에게는 아직도 적지 않은 불신의 요소가 남아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올바른 답을 얻는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만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하며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실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의 마음에서 의심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나 되지만, 믿음은 30%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고 말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관념과 편견이 생길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만 앙모하고 두려워하지, 땅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이 또한 너희의 불신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과거에 사역했던 하나님만 그리워하지,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영원히 섞여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불신의 요소와 해부해야 할 불순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불순물은 너희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는 표시이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표식이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낙인이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 갈 때 눈을 가린 수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얻어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너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모든 것에 이로울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한다

말세의 사역은 각기 부류대로 나뉘는 사역이자 하나님 경륜이 끝나는 사역이다. 때는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 즉 끝까지 그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 자신의 시대로 데리고 들어간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거나 사람의 생활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날에 이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정결케 할 대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받아들인 개개인은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 ‘심판’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말세에 그의 보좌 앞에 온 사람들에게 행하는 심판이다. 어떤 사람은 말세가 오면 하나님이 흰 탁자 보를 씌운 큰 탁자를 하늘에 설치하고 커다란 보좌에 앉아, 땅에 무릎 꿇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죄상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하늘나라로 갈지 아니면 유향불

못으로 떨어질지를 정할 것이라는 등등의 초자연적인 상상을 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상상하든지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의 상상은 단지 사유에서 비롯된 구상이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사람이 듣고 본 것을 곁모아 종합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상상하든 그것은 단지 그림에 불과할 뿐, 하나님 사역의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아주 기이하게 상상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심판 사역이라면 틀림없이 규모가 아주 방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분명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고 땅을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일 수 있겠냐고 생각한다. 또한 심판 사역이라면 하나님은 사역할 때 틀림없이 매우 위엄 있고 위풍당당할 것이며, 심판받는 자들은 분명 대성통곡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장면은 틀림없이 매우 장관이고 가슴 뛰게 할 것이라는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상상한다. 하지만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심판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너는 여전히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꾼 때이다. 그때 어찌면 너는 막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정한 징벌 사역은 깊이 잠든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서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일찌감치 끝났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혐오스럽고도 역겨운 화제들은 더 이상 논하지 말자. 무엇이 심판인지 이야기해 보자! ‘심판’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너는 여호와가 만방에 알린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말씀들은 비록 엄하긴 해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다만 그때의 서로 다른 상황, 즉 서로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일 뿐이다. 그런 말씀들은 말세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과는 다르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 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파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파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만약 네가 이런 진리를 중시하지 않고 항상 회피하려고만 하며, 이런 진리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심판에서 도피하는 사람이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도망가는 꼭두각시, 배신자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눈앞에서 도망가는 반역자들을 어느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더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의 일이다.

심판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해야 한다. 이 사역은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 심판은 진리로 인류를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한다. 말하자면, 말세의 그리스도는 진리로 만방의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만방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언짢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흔히 사람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고 사람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둔다. 사람은 땅에 있는 구더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지고지상한 분이고, 사람의 머리는 썩은 물웅덩이 같아서 구더기만 만들어 낼 뿐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휘하는 각 단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어느 쪽일지는 내가 말해 주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다. 각자 자신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기를 권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냐? 다른 사람은 진리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대세의 흐름이다. 하나님은 너의 '공로' 때문에 심판 사역을 두 번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는 크게 후회할 것이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하늘의 크고 흰 보좌가 너를 '심판'하기를 기다려 보아라! 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부인했지만 예수가 인류를 속량한 일이 우주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룬 사실이 아니더냐? 네가 아직도 예수가 너를 맞이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를 기다린다면, 나는 너를 고집불통에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겠다. 예수는 진리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너 같은 거짓 신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가차 없이 너를 불못에 던져 만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했느냐? 만일 이해했다면 고분고분 심판받기를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그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심판받기만 하고 끝까지 정결케 되지 못하는 자들, 즉 심판 사역에서 도망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의 죄상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겁고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봉사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은 더 무거운 징벌, 게다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반하는 어떠한 변절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징벌받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의 발현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심판 기간 동안 많은 악행을 쌓은 사람을 악령이 득실거리는 곳에 두어 악령이 마음대로 그 육체를 훼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육체에서는 시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다. 하나님은 충성하지 않은 거짓 신자와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일꾼들의 각종 죄상을 일일이 그들의 기록 책에 적어 두었다가 적합한 때에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 속에 던질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들의 온몸을 더럽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동안 봉사했지만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외식한 자들을 악인들 가운데 두어, 악인들과 한 패거리인 오합지졸이 되게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그들을 멸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적이 없거나 작은 힘도 바친 적이 없는 자들을 한쪽에 내버려 두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대를 바꿀 때 모두 멸해 버릴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한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쓴 사람들 속에 넣어 둘 것이다. 이들 중 적은 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봉사조차 제대로 못 한 자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사역해서 얻은 결정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눈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의 행렬에 들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어떨지는 너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길을 택할지는 너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무정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며, 해가 바뀌고 날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하였다. 그는 인간 세상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많은 세대를 지나왔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가 해야 할 사역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오늘날 하는 사역이 과거의 사역보다 많고, 사역의 규모도 더 방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큰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는 각 항목의 사역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큰일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라야 매우 큰 일이나? 물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다 매우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을 매우 큰 일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매우 큰 일을 하였다면, 거기에는 분명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비밀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자.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의 존재를 전혀 용납지 않는 시대에 강생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막지 못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인간 세상에서 33년 동안 생활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인간 세상의 쓰라림을 체험하였고, 또한

비참한 생활도 맛보았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속량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그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속량하였고, 마지막에는 부활한 몸으로 그의 안식처로 돌아갔다. 오늘날 하나님의 새 사역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속량한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데려와 새 구원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번의 구원 사역은 전보다 더욱 철저하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육신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번 사역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친히 역사하면서 사역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새 사역에 진입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통해 하거나 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별로 큰 일도 아니고 사람을 기뻐 환호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그저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 주겠다.

이번에 온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사역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찾을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이 하는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 알게 하는 존재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하늘의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지 않았더냐? 너는 인류의 종착지를 몹시 보고 싶지 않았더냐? 그는 지금껏 아무도 알려 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려 줄 것이고, 또한 네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 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너를 새 시대로 이끄는 인도자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많이 깃들여 있다. 그의 행사는 네가 분명하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가 행하는 사역의 모든 목표를 통해 너는 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세의 뜻을 대변하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불꽃 같은 그의 두 눈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철장(鐵杖)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 사역을 통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사람과 다름없는 하나님, 눈과 코가 달린 하나님,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지가 크게 변하고,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에 빠지며, 인류가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진작에 모든 사람을 지옥에 멸했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죄수이자 영원한 시체임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육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 인류는 큰 재난을 피하기 어렵고, 말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는 더 무거운 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 평범한 육신이 강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고, 이 육신이 존재(원문: 存活)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너희는 진리를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또한 이 육신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옛 시대를 벌써 끝냈을 것이다. 이러함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한데도 너희는 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면, 너는 어째서 이 평범한 사람이 정말로 너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매우 큰 사역을 하였는지 네 운을 시험해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아 일가족 여덟 식구와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만 남기고 큰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해 버렸다. 하지만 말세에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사람을 남겨 둔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심히 파괴된 시대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파괴된 인류인 것은 똑같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두 멸해 버렸다. 하나님을 극도로 상심케 한 지경에 이른 것은 똑같지만 말세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내하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 모르겠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이 말세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말세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덜 파괴되었거나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더욱이 말세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하나님이 멸하기 아쉬워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친히 이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중 일부를 골라 구원의 대상이자 경륜의 결정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하든지, 하나님이 치른 모든 대가는 말세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너희에게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육신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육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 모든 복은 이 평범한 사람으로 인해 얻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만국이 모두 이 평범한 사람에게 경배하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가 가져온 진리와 생명과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소통시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내가 믿고 양모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육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단 말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현이 될 수 없단 말이나? 사람에게 재난을 면케 해 준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사랑하고 붙들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나? 만약 너희가, 그가 입으로 선포한 진리를 저버리고 또 그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너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다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한다. 그는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범하여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느냐? 그의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마음으로나 입으로 탄복케 하기에 부족하냐? 그의 행사가 너희로 하여금 눈으로 탄복케 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가 이끄는 길이 너희가 걸어갈 가치가 없느냐? 과연 어떤 것이 너희에게 그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를 저버리고 피하게 하느냐? 진리를 선포하고 공급하는 이도 이 사람이고, 너희가 행할 길을 주는 이도 이 사람이다. 너희는 아직도 이러한 진리에서 하나님이 사역한 발자취를 찾을 수 없단 말이나? 예수의 사역이 없었다면,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히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볼 기회도, 자격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다 진작에 멸망되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였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어쨌든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역시 이것이다. 말씀이 육신 된 이 평범한 사람이 너희에게 지극히 중요한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행한 매우 큰 일이다.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도를 줄 수 있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갓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본질과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자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 이후 하나님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사역,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수없이 행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숭한 대가를 치렀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자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시시각각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과 생존하는 근본이 되었으며, 또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데 풍부한 자원이 되어 주었다. 그는 사람을 소생시켜 모두가 굳건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했다. 사람은 그의 힘과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는 그의 생명력에 의지해 한 세대 한 세대 이어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치른 적 없는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의 힘은 비범하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의 생명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며, 눈부신 빛으로 반짝인다. 천지가 크게 변해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는 원천이자 만물이 의지해 살아가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늘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땅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원천으로 숨 쉬고 있다. 생기를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활력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병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물이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와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너는 생명을 간절히 원할 수도 있고, 진리를 몹시 얻고 싶을 수도 있다. 어쨌든 너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네가 의지할 수 있고, 네게 영생을 부여하는 하나님을 말이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다면 먼저 영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방금 나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라면 하나님 자신이 곧 영생의 도이다. 그렇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이 두 문제를 나눠 교제해 보도록 하자.

네가 진정으로 영생의 도를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면 우선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너는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요. 설마 당신 집에 계시겠습니까?”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은 당연히 만물 가운데 있다거나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거나 영계에 있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나는 그 대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대답은 완전히 옳은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부 사람의 마음속에만 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인 만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짓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증오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영생의 도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대상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곁, 영계, 그리고 만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위에도 있다. 그러므로 말세가 도래함에 따라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도 새로운 경지로 들어섰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동시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며, 나아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래야만 인류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 줄 수 있고 사람을 생명의 도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사람이 생명의 도를 얻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는 자신의 경영에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해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진리는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치만 인정한다면, 너는 영원히 생명도, 진리의 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진리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도 얻지 못한다. 진리로 인도해 주고 붙들여 주고 공급해 주는 일이 없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글귀와 이치, 그리고 죽음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과 함께 공존한다. 진리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너는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분명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온몸은 상상과 관념을 제외하면 너의 육체, 즉 구린내가 진동하는 육체에 불과할 것이다. 명심해라. 책의 글귀는 생명으로 삼을 수 없고, 역사적 기록은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는 하나님이 현실에서 한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땅에 임하여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한 말씀만이 진리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사역 방식이다. 하나님이 지난 시대에 했던 말씀의 기록을 오늘날에도 고수한다면 너는 고고학자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역사·문화재 전문가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릴 것이다. 너는 늘 하나님이 과거에 사역할 때 남겨 둔 흔적만 믿고, 하나님이 지난날 인간 세상에서 사역할 때 남겨 둔 그림자만 믿으며, 하나님이 오래전 하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 준 도만 믿을 뿐, 하나님이 현재 사역하는 방향이나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현재 선포한 진리의 도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매우 비현실적인 공상가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글귀만 고수하고 있다면 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 다름없다. 너는 너무나 고집스럽게 낡은 것을 지키고 너무나 완고하며 너무나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란 성육신 하나님의 호칭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사람이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가짜다. 그리스도란 땅에서의 하나님의 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완성할 특유한 육신이다. 그 육신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육신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언젠가 모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은 조금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답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네가 진실로 생명의 도를 찾고자 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말세에 인간 세상에 와서 생명의 도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말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영원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네가 역사(歷史)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여 있던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노리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네가 역사(歷史)를 답습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소리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거늘, 네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요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렇게 바랜 지 오래인 네 책의 글귀가 어찌 너를 다른 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 줄 수 있겠으며,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줄 수 있겠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네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 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네 혀를 충실하게 해 주는 구절일 뿐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너는 반성하지 않는단 말이나?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나?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사람을 구원하는 말세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네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하노니,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사실을 외면한 채 함부로 말하지도 말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너는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사역을 했고, 물론 이런저런 말들도 했다. 하지만 늘 나의 말과 사역이 내가 말세에 사역하는 목적을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일이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나의 성품을 통해 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발걸음을 옮겨 나의 새로운 계획과 마지막 사역에 들어감으로써 내 사역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나를 본 모든 사람이 내가 살아 있음에 가슴을 치며 끝없이 통곡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인간 세상에 인류의 마지막 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내 모든 성품을 인류에게 널리 알려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 ‘마음껏 감상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인간 세상에, 만물이 번식하는 땅에 왔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며, 인류를 창조한 후 처음 하는 ‘고백’이다. 나는 너희 모두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나의 채찍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나를 적대시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으니 말이다.

나는 하늘과 함께 내가 하려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가기도

하고, 하늘과 땅 사이를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너희의 감각 기관이 너무 무감각한 탓에 내 사역의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도 언젠가는 내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나는 너희와 함께 생활하고,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 나는 인류가 나에게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고, 더욱이 이런 가슴 아픈 일에서 더 많은 실례를 들어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다만 너희가 자신이 행한 일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대조해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다. 나는 언제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광명정대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희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늘과 땅,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짓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원래보다 더 심해져 지금껏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던 추악한 몰골을 철저히 드러내 놓고 나의 성품을 시험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의 행위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나는 어떤 소식을 파악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며 흥미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사역을 한다. 1분 1초의 어긋남도 없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한다. 그러나 나는 매 단계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 중 일부를 내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침하는 모습을 몹시 혐오하고, 가식적인 노예의 면상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고의든 아니든 내가 역겨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내가 혐오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서 멀리 내칠 것이다. 물론 나의 집에 계속 남아 있는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징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나는 혐오스러운 자들을 나의 집에서 급히 몰아내지는 않는다. 내게는 나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사람을 만드는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말을 확정할 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 그리고 그가 따라온 과정과 원래 지니고 있는 속성, 혹은 그의 최종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나의 기록부에 적어 놓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내 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모두 나의 배정에 따라 각기 부류대로 나뉘어 나갈 것이다.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 기준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징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벌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벌받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갖가지 악행으로 인해 쫓겨나 버리는 것이다. 나의 계획은 시종일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말하는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진정으로 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계획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반대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변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모든 사람이 내게 냉담해져 결국에는 나를 문밖으로 쫓아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너희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미온적이던 데서 반감과 혐오로 바뀌어 결국에는 너희를 징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징벌하는 날이 되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볼 수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속에서 사는 것이 무료하고 답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생활 환경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너희의 악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더럽기 짝이 없는 너희의 행위를 멀리함으로써 너희가 계속 나를 속이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권할 것이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모두에게 이로운 일과 자신의 종착지에 도움 되는 일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다. 악인들이 받는 징벌 또한 내 공의로운 성품의 증거이자, 나아가 내 진노의 증거가 된다. 재난이 닥칠 때, 나를 대적한 모든 자는 기근에 빠지고 전염병에 걸려 슬피 울 것이며, 오랜 세월 나를 따랐지만 온갖 악을 저지른 자들 역시 죄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만년 이래 보기 드문 재난 속에 떨어져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면서 나에게 일편단심 충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손뼉 치며 나의 큰 능력을 찬양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한 마음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 한 번도 베풀 적 없는 즐거움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사람의 선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악행을 극도로 증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면서 나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기를 기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와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던 자들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걸 보며 통쾌해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마침내 나의 날이 왔으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마지막 사역은 사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착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나의 행사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옳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내 성품의 발현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인류를

창조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대자연이 한 것은 더욱 아니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내’가 한 것이다.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재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도 다시는 아름다운 해와 달과 푸르른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음산하고 차디찬 암흑의 밤과 저항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원문: 救贖)이자 희망이며, 나아가 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의지처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나를 잃으면 인류는 즉시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온갖 유령에게 짓밟힐 것이다. 나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을 행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조금의 선행으로 나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을지라도 나는 인간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내고 다음 단계에 전개할 사역을 행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바쁘게 일한 결과가 이미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다. 요컨대, 나는 너희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충분한 선행을 예비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나를 만족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엄습할 재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은 내가 일으키며 또 당연히 내가 지배한다. 너희가 내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행위가 온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다 공허하고, 두려움이나 강인함만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만 내린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너희 개개인의 모든 행위와 태도이다. 그것으로 너희의 결말을 정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 둘 것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 나에 대한 충성심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공화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공화는 여기까지이고, 또 나는 나를 배반했던 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의 이익을 팔아먹은 자와 왕래하는 것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성품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누구든 내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의 관용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나?

지금 너희가 보내는 매일매일은 아주 중요한데, 너희의 종착지와 운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그러므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시간을 확보해 최대의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아마 너희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모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에게 기대한 것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기에 나로서는 너희 개개인의 행동거지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너희 모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지난날 구원을 갈구하던 목소리와 진리를 추구하고 광명을 바라던 마음의 소리도 이제는 끝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내게 최종적으로 보답하는 모습, 또한 내가 전혀 기대한 적이 없었던 모습이다. 너희에게 너무도 실망했기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희는 이대로 순순히 수긍하고 싶지도, 진실을 직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겠다. 지난 몇 해 동안 너희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너희의 마음은 대체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내 질문이 너무 느닷없다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희에 대해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질타를 가하고, 갇은 고난도 감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이라곤 너희들의 외면과 참을 수 없어 하며 마지못해하는 모습이였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걸 내가 전혀 모를 거란 말이냐? 만일 그렇게 여겼다면 이는 나를 진심으로 선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그러니 나는 너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너희 모두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똑똑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너희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자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어찌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기억을 가진 자라면,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답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각자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에 충성하지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충성하지는 않는다. 각자가 주위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너희의 충성심을 폭로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세월 나는 너희 가운데 내게 ‘충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던 지 그렇게 오래되었으면서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한’ 적이 없었다.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들을 싸고돌며, 한순간도 버리는 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에 품고 담아두고 있기까지

했다. 나를 따르면서 심지어 내 말을 듣고 있을 때조차도 너희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너희의 ‘애완동물’에 충성하고 너희의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다소 바쳤다고는 하나, 그것이 너희의 전부를 뜻하지도 않고,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충성함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열렬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자는 자녀에게, 어떤 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자는 금전이나 업무에, 어떤 자는 직속상관이나 지위에, 어떤 자는 여자에게 충성한다. 너희는 자신이 충성하는 것들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번뇌한 적이 없다. 자신이 충성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더 쉽게 가질 수 있기를 더욱더 갈구하였고 또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여태까지 너희는 나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열중하는 모든 것의 끝자리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도 마지못해 마지막 자리에 놓아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자는 그 끝자리마저도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충성하고 싶어질 것들을 위해 남겨 두었다. 그들 마음속에는 나에게 대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너희는 어쩌면 내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한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때 너희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충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었느냐? 그때 너희는 이로 인해 괴로워했느냐?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수고의 대가를 받을 때 진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낙심했었느냐? 너희는 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짜내며 애쓰면서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며 여전히 자녀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기는데, 내게는 어떠하였느냐? 너희는 지금껏 늘 나를 건성으로 대했다. 단지 기억만 할 뿐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기울인 심혈을 느낀 적도 이해한 적도 없이 단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런 ‘충성’은 내가 오래도록 기대해 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증오해 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너희는 여전히 아주 조금만 인정할 뿐 완전히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자신만만하여’ 언제나 내 말을 가려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내게는 그 자신감을 상대할 방법이 있다. 또한, 나는 내 말이 사실을 전혀 왜곡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 각자 앞에 돈을 얼마 놓아두고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진리를 버리고 돈을 선택할 것이다. 그보다 좀 나은 자는 돈을 버리고 마지못해 진리를 선택할 것이고, 그 두 부류 중간에 있는 자는 한 손으로는 돈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참모습이 어떠할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자신이 충성스럽게 대하는 모든 것과 진리 사이에서 너희는 모두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 너희 태도 또한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느냐?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과 같은 모든 정(正)과 반(反), 흑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느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하는 데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에 너무나 놀랐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누그러지지 않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결과가 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구는 너희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모든 날들을 이미 너희 앞에 펼쳐 보였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도 어둡고 사악한 것을 추구하며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너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래도 전자를 택하겠느냐? 나에게 여전히 실망과 고통스러운 슬픔을 안겨 주겠느냐? 너희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도 작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모르겠느냐? 지금 이 순간,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가셔하는 것이냐? 내 날은 이미 너희 앞에 펼쳐졌고, 너희 앞에 놓인 것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번 출발점은 이전 새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옛 사역의 마무리이자 마지막 장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겠다. 나는 너희 모두 이 시작점이 예사롭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머지않은 어느 날, 너희는 이 시작점의 진정한 함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시작점을 지나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하자! 하지만 정의와 불의에 맞닥뜨리면 너희는 언제나 불의를 선택하기에 나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 너희의 과거이다. 나 또한 너희의 과거를 모조리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미래로 과거를 대체함으로써 너희 과거의 어두운 모습을 사라지게 하여 오늘날 참모습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종착지에 관하여

너희는 종착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개개인 모두가 종착지에 관한 일에 특별히 민감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서라도 좋은 종착지를 얻고 싶어 한다. 나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그저 자신의 육체가 재난에 빠지지 않고, 더욱이 자신이 이후에 영원한 징벌에 떨어지지 않으며,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안락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종착지를 언급하면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자칫 부주의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될까 봐 매우 두려워한다. 게다가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굶질거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능구렁이 같던 자들도 종착지를 위해 갑자기 매우 성실해지고 온순해지는데, 그 성실한 모습은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다. 어찌 됐든, 너희의 마음은 다 ‘정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든, 기만이든, 충성심이든 너희 마음속 비밀을 하나도 숨김없이 내게 털어놓았으니 말이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내게 솔직하게 ‘고백’했고, 당연히 나 역시 그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았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최후의 종착지를 위해서라면 불바다라도 뛰어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올 바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무 충성심 없이 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 사람됨의 원칙이 아니고, 내가 심혈을 기울인 사역은 더더욱 아니며, 너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재물, 지위, 가정, 혼인 등등)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두 글자로 너희의 믿음을 개괄하겠다. 그것은 바로 ‘건성’이다. 너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달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성하고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지극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자신의 행한 바 때문이고,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역시 사람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지, 결코 다른 요인의 영향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어떤 일도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해낼 것이고, 매우 진지하게 대할 것이며, 심지어 그 어떤 오차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너희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 부단히 기울이는

노력이다. 심지어 너희는 자신의 혈육 중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나의 육신을 속이는 짓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너희의 일관된 행위이자 처세 원칙이다. 너희는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종착지를 위해서 여전히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충성심이 일시적인 것이고, 성실함도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의 의지와 대가도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 아니더냐? 너희는 오로지 마지막 한 번의 노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름다운 종착지를 쟁취할 생각만 한다. 너희의 목적은 교환하는 것일 뿐, 진리에 부응하는 것도, 더욱이 나의 대가에 보답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머리를 써서 얻으려고만 할 뿐 노력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심 아니더냐? 스스로를 위장하지 마라. 더욱이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식음을 잊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머리를 쥐어짜지도 마라. 결국 너희의 결말은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하되,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말했듯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간직할 만하며 또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 대해 영원히 안심할 수 없고, 너희를 영원히 싫어할 것이다. 너희가 양심에 따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평생의 정력을 바친다면, 내 마음이 항상 너희로 인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초라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종착지와 운명은 둘 다 너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또한 너희와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다. 너희는 경솔하게 일을 하면 종착지가 없어지고 자신의 운명을 망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종착지를 위해 바친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면 그런 노력은 허상과 기만일 뿐 진심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종착지를 위해 노력을 바친 자는 결국 마지막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모두 기만 때문이다. 말했듯이, 나는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아부하거나 열성적으로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나의 진리와 기대를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나의 마음을 극진히 보살피고 나아가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해야 나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있느냐? 설마 너희가 종착지를 위해 행한 온갖 추태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나?

나는 적극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본분을 이행하며 충성을 다하려는 의욕은 더더욱 꺾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과 내면 깊은 곳의 더러운 영혼을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저 너희가 진심을 바쳐 나의 말과 마주하길 바라는 데 있다. 나는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것을 제일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또한 모두 일편단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길 바랄 뿐이다. 물론 나는 또 너희 모두가 좋은 종착지를 갖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최선의 선택을 하여 너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충성심이자 마지막 충성심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유일한 충성심도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사탄이 아끼는 자일 테니, 나도 더 이상 남겨 두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의 부모가 돌보도록 하겠다. 내가 하는 사역은 모두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서 얻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발전하려는 마음이지만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여전히 빈손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느 날 내가 여전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느냐? 계속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평온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무진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으나 낱알 한 알 거두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희망을 가득 품었지만 불쾌한 기분으로 헤어지게 된 자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격노한 자가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적대시되고 기만당한 자의 불타는 복수심을 아느냐? 너희가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사람에게 보응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자신의 종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다만 속임수 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실망할 것이다. 이러한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를 우롱한 것 아니겠느냐? 종착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종착지를 망치는 자는 가장 구제 불능이다. 그런 자가 곤경에 처해 허둥댄들 그 누가 가없이 여기겠느냐? 어쨌든 나는 너희를 축복하여 모두에게 적합하고 아름다운 종착지가 있기를 바라며, 더욱이 너희 모두가 재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훈언 3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무지와 그릇됨, 패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제일 기본적인 진리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결말을 정하기 전에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일들은 너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내 말이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를 위한 것이 아닌, 전 인류에게 선포하는 진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진리의 관점에서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성의를 다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내가 말한 모든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삶 속에서 진리와 무관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추한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리를 짓밟거나 하나님 집의 곳곳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며, 진리의 종이 되라고 특별히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훈언이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너희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시인한 만큼 어디서나 하나님을 안심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흠족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일을 처리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진리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집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흠잡을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다 털어놓으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위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정직하다는 것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 무언가를 보태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매우 쉬워 보이지만 너희에게는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정직한 말을 하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나는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너무도 ‘영악’하고,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에 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사역도 한결 쉬워졌다. 너희는 저마다 탄마음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좋다!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모두 재난 속에 두어 불의 ‘가르침’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는 ‘확고부동’하게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결국, 나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교하구나!’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그때 너희의 심정이 어떨겠느냐? 지금처럼 거들먹거리고 득의양양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짐작할 수 없는’ 모습은 더욱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착실하게 굴며 매우 ‘암전’하지만, 영 앞에서는 매우 흥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위선자이고 ‘사교’에 매우 능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일 것이다. 만약 네가 말에 변명이 많고 쓸데없이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진리를 행하려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게 밝히기 힘든 사적인 일이 많다면, 자신의 비밀, 즉 자신의 어려운 점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광명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며, 흑암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진리의 도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면 늘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일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 집에서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며, 토색하지 않고 묵묵히 근면 성실하게 공헌하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충성된 성도라 할 것이다.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정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솔직하다면, 너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군계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고만 할 뿐 자신을 위하거나 무언가를 달라고 할 줄 모를 만큼 정직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빛 속에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라고 할 것이다. 너는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충성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은 이력이 있는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게는 아직도 패역과 기만, 탐욕, 원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적이 없고, 빛 속에서 살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떨지, 그 핵심은 그 사람에게 정직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순수한 영혼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직하지 않고 마음이 악독하며,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너는 징벌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말로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하나 진리에 부합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진실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기다린단 말이나? 그러고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겨지길 원한단 말이나?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네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너같이 깨끗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용납하겠느냐?

세 번째로 알려 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생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 많은 것이 행정 법령을 거스르는 일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은 그런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을 것이다. 너희는 본성이 오만 방자하며 사실 앞에서 복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반성한 후에 차차 알려 주겠다. 그래도 행정 법령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껄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며, 성령의 함께함과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일을 할 때 원칙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된다. 너의 말과 행동에는 원칙이 없지만,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가 보응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거슬렀다면 너는 분명히 지옥의 자식일 것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몇 번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느냐? 하나님 눈에 너는 이미 속죄 제물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네가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른 것이 한 번이 아닌 데다가 회개하려는 태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얼마간 하긴 했어도, 나중에 책망과 인도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패괴를 발견하고 실제의 정상 궤도에 들어서 지금까지 착실히 행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다. 네가 정직한 데다가 원칙 있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너의 ‘믿음’은 합격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스르기 쉽다. 많은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알지 못할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내포된 뜻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좋은 마음이 종종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심한 자는 하나님 집의 문밖으로 쫓겨나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잃고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집과는 무관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무지한 호의로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진노를 유발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다 양반 나리를 받들던 수작을 하나님 집에서도 부리며 자기 뜻대로 휘두를 망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양이 아니라 사자 같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너는 수많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있다. 그러한 앎은 글귀나 도리가 아니라 너와 하나님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해 주는 보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너의 앎에 실체가 결여되고 진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열심만 가득한 너의 섬김은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훈언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다 너희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이며, 사람의 결말을 정하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부질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며, 쓸모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지도 않다. 무슨 꿈꿨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을 이끌 생각은 더더욱 없다. 어느 날, 너희는 내 말에 담긴 고심과 인류에 대한 공헌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혹은 어느 날, 도리를 깨달아 스스로의 결말을 규정할지도 모른다.

과오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수없이 경고했고, 너희를 정복하기 위한 진리 또한 많이 베풀었다.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풍요로워졌다고 느끼고, 사람됨의 도리도 많이 깨달았으며, 신실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러 해에 걸쳐 거둔 성과이다. 나는 너희의 성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오랫동안 나에게 저질렀던 온갖 패역과 배반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너희 가운데 성인(聖人)이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외 없이 모두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너희의 과오와 패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내가 너희 앞에서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 또한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으나 너희의 미래와 종착지를 위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잔소리하겠다. 너희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나의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믿고, 내 말에서 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의심하지도 말고, 내 말을 손 가는 대로 집었다 함부로 버리지도 말라. 이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하지도 말라. 내가 늘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아 줄 수 없다. 너희는 나와 내 말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고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따라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고하겠다. 내 말을 철학과 연결 짓지 말고, 사기꾼의 거짓말과 연결 짓지도 말라. 또한,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나의 말을 대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자하게 너희에게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타이를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혹은 대성통곡할 수도 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도 있고, 혹은 진리와 생명의 공급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 속에서 살 수도 있다. 한 가닥의 희망도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고, 혹은 빠져리게 뉘우치다 못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너희 중 누구도 이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너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에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영, 혼, 육에는 생명과 진리와 완전 무관한 것들이 가득 뒤섞여 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생명,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도 너희가 광명의 길을 얻는 것이다. 나의 유일한 바람은 너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신의 종착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과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는 행운이 갑작스레 찾아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한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늘에서 떨어질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천국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너희는 모두 자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지막 날에 닥칠 재난과 악한 자를 벌하는 전능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일을 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결작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파괴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인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지나친 욕망과 복을 받으려는 절박한 마음을 버리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과오가 아주 많고, 패역의 사실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너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만약 네가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단잠을 자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너의 꿈은 한낱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선례를 깨뜨릴 리가 없다. 꿈을 이룰 생각밖에 없다면, 영원히 꿈을 꾸지 말고 진리와 사실을 직시하여라. 이것이 너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단계로 이루어질까?

첫째, 너의 모든 과오를 성찰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너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반성하고 살피라.

이는 손쉽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오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외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생각’이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직하며, 행정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쉽게 찾아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조건은 충족시키기 쉽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유일한 요구 사항은 아니다. 어쨌거나 나의 요구를 몰래 비웃지 말고, 이 요구를 무시하거나 얕보지 말기를 바란다. 무심하게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하여라.

둘째, 너의 과오와 패역 하나하나를 그에 상응하는 진리를 찾아 해결하여라. 진리를 실행하여 너의 과오, 패역한 생각과 행동을 대체하여라.

셋째, 꾀를 부리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 되어라.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라(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임).

네가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냈다면 몹시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런 네가 바로 꿈을 이루고 행운을 얻은 사람이다. 너희가 하찮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진지하게 대할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대할 수도 있다. 여하튼 나의 목적은 너희의 꿈과 이상(理想)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너희를 비웃는 것도, 놀리는 것도 아니다.

나의 요구는 몹시 간단하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일은 $1+1=2$ 처럼 단순하지 않다. 너희가 입으로만 떠들거나, 장광설이나 공리공론을 늘어놓는다면, 너희의 청사진과 기대는 영원히 백지상태로 남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헛수고한 너희를 공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상’ 대신 ‘벌’만 내리고, 동정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어쨌거나 오랫동안 나를 따른 노고는 있으니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 집에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너희가 줄곧 손해를 보지 않고 실속만 차리겠다는 원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식으로 알려 주겠다. 네가 고생 끝에 큰 공을 세웠든, 대단한 관록을 가지게 되었든, 나의 곁을 따랐든, 명망이 자자하든, 태도가 나아졌든 관계없이, 네가 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영원히 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너희가 서둘러 온갖 생각을 지우고 나의 요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든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어 나의 사역을 끝낼 것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나의 오랜 사역과 고난이 무(無)로 돌아갈 뿐이다. 나는 나의 원수와 사악한 기운을 풍기며 사탄의 본모습을 가진 자들을 나의 나라, 다음 시대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 너희가 적절한 처신을 하고, 품행이 바르고, 충심으로 본분을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진리와 인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너희의 부족함, 패괴, 패역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너희와 매번 나는 대화로 너희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했다면 내가 말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지는 너희도 잘 알 것이다. 나는 보통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할 것이다. 누군가는 혀가 찌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누군가는 실성하여 온갖 추태를 부릴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빚은 고통을 잔뜩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줄곧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보응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네가 나와 맞서고자 하고 나를 판단하려 한다면, 나 또한 네 입을 썩게 만들 것이다. 그럼 나도 더할 나위 없이 통쾌할 것이다. 어쨌거나 네가 한 일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과도 무관하지만, 내가 행한 일은 모두 진리이며 또한 내가 일을 하는 원칙과 내가 정한 행정 법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덕을 많이 쌓고, 악을 적게 행하며, 여유가 있을 때 나의 요구에 공을 들이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너희가 육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들이는 노력의 천분의 일이라도 진리에 기울인다면(바친다고도 할 수 있음) 자주 과오를 범함으로 입이 썩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과오가 많을수록 네가 좋은 종착지에 이를 기회는 줄어든다. 반대로 과오가 적을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는 늘어난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오를 범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너 스스로 완전히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종착지는 위가 아닌 아래가 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과감하게 잘못을 범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보아라. 네가 성실하게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과오를 용서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역하는 횃수도 분명 점점 줄어들 것이다. 네가 진리를 실행하기 몹시 꺼리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과오가 분명 늘어날 것이고, 거역하는 횃수도 늘어날 것이다. 극에 달할 때는 바로 네가 철저히 멸망되는 순간이고, 또한 복을 받고자 하는 너의 아름다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자신의 과오를 미성숙하거나 우매한 사람의 실수로만 간주하지 말라. 네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자질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라. 더욱이 너의 모든 과오를 단순히 잘 몰라서 한 행동으로 간주하지 말라. 만약 네가 스스로를 잘 용서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는 나약한 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너의 과오가 끊임없이 너를 얹매어 영원히 진리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사탄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게끔 할 것이다. 나의 충고는 변함없다. 즉, 종착지에만 신경 쓰고 너의 숨겨진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오를 중시해야 한다. 종착지만 생각하면서 너의 모든 과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너희가 많은 일을 해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희의 행위와 삶이 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에게 나의 뜻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는 분별력이나 감상 능력이 너무 부족한 탓에 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너희에게 나의 성품과 본질을 알려 주려고 한다. 이전에 네가 얼마나 알았든,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알려고 했든 아니든 너희에게 상세히 알려 줄 생각이다. 언급된 이 문제가 너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이 속에 담긴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뜻에 그리 익숙하지도 않다. 많은 이들이 어렵듯이 조금 알 뿐, 깊이 이해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진리를 더 잘 실행하려면, 즉 내 말을 더 잘 실행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아주 막연하고 위선적이며, 또한 종교적인 색채로 가득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고, 무심하게 넘기거나 얼버무리고, 더욱이 구제 불능일 정도로 모독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너희는 내가 반포한 행정 법령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노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네가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행정 법령을 범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동시에 행정 법령 자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행정 법령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행정 법령 속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하는 말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므로 너희는 신중히 대해야 하고, 더욱이 나의 말을 많이 묵상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해 들이는 노력이 너무 적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이 겉만 번드르르한 말뿐이라 한다. 지금까지 너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서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참으로 너희를 위해 애쓴 나의 마음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너희의 삶 속에 진리가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이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으니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아주 추상적인 문제이고, 또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도 자신의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것 역시 사람의 희로애락과는 다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과 소유가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분을 대변한다. 그런 어떠함과 소유, 본질, 신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 위로, 증오도 있고, 더욱이 인류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에는 명랑함, 활발함 혹은 무감각함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 생명을 다스리는 주재자가 갖고 있는 성품이자 창조주가 갖고 있는 성품이다. 그의 성품은 존귀함과 권세를 대변하고, 고상함과 위대함을 대변하며, 더욱이 지고지상함을 대변한다. 그의 성품은 권병의 상징이자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상징이며,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과 흑암이 압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또 그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음(또한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의 성품은 최고 권력을 상징하며,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도 그의 사역과 성품을 방해할 수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 사람의 성격은 동물보다 조금 우월함을 상징할 뿐 사람 자체는 권병도 없고, 자주적이지도 못하며, 자아를 초월하는 능력도 없다. 그저 나약하게 모든 사람, 일, 사물의 지배를 받는 본질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존재와 탄생, 광명의 존재와 탄생에 기뻐하고, 흑암과 사악이 멸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 자신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광명과 아름다운 삶 때문에 기뻐한다. 그의 ‘희(喜)’는 정의로운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존재를 상징하고, 더욱이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사물의 존재와 교란이 그의 인류를 침해하는 것 때문에 노하고, 사악과 흑암의 존재, 그리고 진리를 몰아내는 일의 존재 때문에 노하며, 더욱이 아름답고 선한 사물에 대항하는 사물의 존재 때문에 노한다. 그의 ‘노(怒)’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더욱이 그가 본래부터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 속에 떨어지고 그가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이 그의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그가 사랑하는 인류 전체가 광명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실에 슬퍼한다. 또 그는 무고한 인류 때문에 슬퍼하고,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며, 선량하지만 주관이 없는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 그의 ‘애(哀)’는 그의 선량함과 긍휼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인자함의 상징이다. 그는 원수를 물리치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멸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또 그는 인류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얻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의 ‘낙(樂)’은 사람의 희열과 달리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즐거움이며, 이는 희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그의 ‘낙’은 인류가 앞으로 고난받지 않음을 상징하고, 또 인류가 광명의 세계로 들어감을 상징한다. 반면 인류의 희로애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의나 광명, 아름다운 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리는 은혜를 위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류의 희로애락은 이기적이다. 그것은 어두운 세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나란히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고지상하고 존귀하며, 사람은 영원히 미천하고 한 톨의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지만, 사람은 모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 힘써 일하지만, 사람은 결코 정의와 광명을 위해 무언가를 바치지 않는다. 설령 사람이 잠시 노력한다 해도 작은 일에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영원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정의와 아름다움, 선함의 시작이고, 사람은 모든 추함과 사악함의 계승자요, 발현자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본질을 영원히 바꿀 리 없지만,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정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나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틀림없이 큰 수확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헤아리기가 몹시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대략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여 내게 보여 주길 바란다. 그러면 나도 마음을 놓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언제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일을 할 때는 그의 말씀에 따르며, 매사에 그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불경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미래에 대한 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를 것이다. 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착실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행정 법령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나는 왜 그분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내 생각에 이런 말씀은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인성은 나보다 뛰어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등의 판단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나는 네가 죄를 많이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영영 사함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는 네가 노여움을 산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그의 육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네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수호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이 점을 간과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벌로 너를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더 높고 아름다운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 자신의 추악한 영혼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더욱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너의 행위는 점점 적어지고,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워지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차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아름다운 경지로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너희가 모두 자신의 운명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너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 법령을 범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위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가 늘 행정 법령을 범한다면, 너희 중에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나의 사역이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 외에도, 걸음을 신중히 내디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나의 더 높은 요구이니 너희 모두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느 날 너희의 행위가 나를 노기충천하게 한다면, 너희를 대신해 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너희 스스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너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다. 사람은 항상 높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시종일관 하늘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 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과 진심은 너희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진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충성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너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더더욱 부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경배하는 하나님, 너희가 앙모하는 막연한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충성심을 지닌 이유는 너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 하나님은 말로만 인정할 뿐이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고, 막연한 하나님과는 눈앞에 있는 듯 가깝다는 의미이다. ‘크지 않다’라 함은 오늘날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별 대단한 ‘능력’도 없는 사람, 그리 위대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작지 않다’라 함은 이 사람이 비바람을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러 경천동지할 사역을 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땅 위의 그리스도에게 충실히 복종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너희는 그를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바꿔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 존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막연한 하나님이요,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는 너희가 밤낮으로 그리면서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은 미미하기 짝이 없고, 그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믿음이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랑이란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앙망하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믿음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를 믿고 있느냐? 사랑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또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의 성품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의 본질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를 믿은 것이냐? 너희가 그를 믿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를 사랑한 것이냐?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오늘날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너희도 적지 않은 ‘피로’의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성과 취향에 대해 더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희와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몹시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나는 너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나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어떤 이의 꾀에 빠졌다는 말을 듣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확실히, 너희는 나의 성품을 모르고, 나의 마음은 더더욱 읽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너희의 오해는 설상가상으로 커지고 있고, 너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리석기만 하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보다는 나에게 잘 보이려 하고 아침을 한다는 게 낫겠다. 너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누구든 자신에게 상을 주는 사람을 따르고, 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는 사람을 믿을 뿐, 그가 하나님이건 아니건, 어떤 하나님이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매우 많으며, 이런 상태 또한 아주 심하다. 어느 날, 너희 중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될지 테스트해 본다면, 아마 내 기대에 부합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는 거리가 매우 먼데,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무엇이나? 너희가 하나님이라 이르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는 나와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또 무엇이나? 너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의 그런 믿음의 결과는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현재 너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아주 많지만,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너희 자신만 손해를 볼 뿐이다. 나는 너희가 문제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의 몫이다.

나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는데, 내 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역시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나는 영원히 인정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더욱 논할 것도 못 된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까지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누구보다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죄 사함을 못 받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속이 좁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정의감이 없지 않을까, 사람처럼 수단이 악랄하고, 음험하고 간교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사악함과 흑암을 좋아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을 한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죄업을 쌓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비위를 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를 받지도,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얻은 인식이더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얻은 수확이더냐?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오해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런 믿음이 너희가 내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너희가 나를 더욱 적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의 사역을 통해 너희도 수많은 진리를 보고 접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전부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 중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는 하나같이 자신이

진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위해 고난받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불의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입을 육신까지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과 인자한 사랑이 없다고 여긴다. 나아가 고상한 품성이나 인자하고 자비로운 본성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성인(聖人)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어둠과 사악이 권력을 잡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아름다운 소망의 정신적 존재이자 사람이 만들어 낸 전설 속 인물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너희 마음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매우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또한 너무도 위대하여 경배하고 앙망할 가치가 있는 분이지만,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역이자 도구일 뿐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과 절대 동등한 분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얘기할 때면 그것은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의 본성과 패괴에 대해 논할 때면 땅에 있는 이 하나님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여긴다.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영원히 하찮고 연약하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언제나 공의로운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전혀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사사로운 마음뿐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혀 교활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한 반면, 땅의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아끼는 데 반해 땅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릇된 인식은 너희 마음에 이미 오랫동안 자리해 왔으며, 너희는 앞으로도 이 잘못된 인식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너희는 불의한 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본다. 또한 악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의 신분과 본질을 평가한다. 너희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전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껏 면류관을 쓴 하늘의 위대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보잘것없어 눈에 띄지 않는 이 하나님은 ‘시중’조차 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죄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을 매우 숭배하고, 위대한 형상을 아주 숭상하며, 비범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을 무척 존경한다. 너희 두 손에 재물을 가득 채워 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고, 무엇이든 너희 뜻에 딱 맞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네가 유일하게 숭배하지 않는 대상은 바로 이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유일하게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도 높이 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유일하게 원치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껏 너에게 한 톨도 주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또한, 네가 그리워할 수 없는 대상은 바로 이

사랑스럽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너의 시야를 넓혀 주지도, 너에게 보물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주지도 못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이뤄 주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를 따르느냐? 너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행위는 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생각엔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너희는 몹시 하나님의 기쁨을 사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나? 너희는 그의 말씀만 받아들일 뿐, 그의 책망과 훈계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더욱이 그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완전히 믿지도 못한다. 이것은 또 어찌 된 일이나? 결국 너희의 믿음은 영원히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속이 텅 빈 달걀과 같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가져다준 것은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뜬구름과도 같은 기대와 희망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그 기대와 희망을 위한 것이지 진리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그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비굴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으로, 아예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믿음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겠느냐? 다시 말해,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결실을 맺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땅의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그런 관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착실하게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을 인정하며, 땅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는 인정할 적이 없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결국에는 악한 자를 징벌하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순종한 적이 없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된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제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느냐? 틀렸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해도 그것은 전부 공허한 외침이며 거짓일 뿐이다. 땅의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더 깊은 인식을 얻는 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그 뒤에 사실을 파악하여 악한 자를 징벌하는 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너는 알아들었느냐? 체험했느냐? 나는 너희가 하루빨리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닫기만을 바란다. 즉,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땅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중을 분간하지 못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소원하다면, 나는 네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거슬렀을 것이며, 너의 결말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는커녕 나쁜 습관이 몸에 배고, 교만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오해가 가중되어 심지어 나를 너의 소꿉친구로 여긴다면, 너는 이미 겉만 병든 것이 아니라 골수까지 병들었으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 더 이상 내게 찾아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간구할 필요도 없다. 너는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죽을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네 목숨을 거두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닌, 상당히 심각한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 왜 진작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말라. 여전히 말했던 대로다. 네가 그리스도, 땅의 이 하나님을 보통 사람처럼 취급하고 함께 지낸다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너는 황천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하는 유일한 충고다.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1

나의 사역은 곧 끝날 것이다. 함께 지냈던 오랜 시간은 떠올리기도 싫은 옛일이 되었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말을 되풀이하고, 씀 없이 나의 새 사역을 진전시켰다. 물론 나의 충고는 내가 사역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다. 충고가 없으면 너희는 모두 잘못된 길에 들어설 것이며, 더구나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이제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끝나 가는 시점에 나는 다시금 충고와 같은 일, 다시 말해 너희가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와 같은 말들을 하고자 한다. 나는 오로지 너희가 나의 심혈을 헛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나의 고심을 이해하며, 나의 말을 사람됨의 근간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그것이 너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든 아니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든 받아들이기 힘겨운 것이든,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제멋대로이고 무관심한 성품과 태도가 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할 것이고, 더구나 나의 미움까지 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의 말을 천만 번 이상 되풀이해서 읽고, 더 나아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모두 주지육림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으며, 나의 말로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에 나는 사람의 진면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바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으며, 나의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이미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라는 말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에게 얼마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의 ‘인정’이 표면상의 동의에 불과할 뿐, 참된 앎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지도 못한다. 그 때문에 너희가 항상 나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로써 너희에게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배반’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에서 언급한 ‘배반’이란 말에 대해서는 너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반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딸은 어머니를 배반한다. 종은 주인을 배반하고 친구는 서로 배반한다. 가족끼리 서로 배반하고 판매자가 구매자를 배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배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요컨대 ‘배반’은 맹세를 깨고, 도덕규범을 위반하며, 세상의 윤리를 저버린,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배반한 적이 있는지를 기억하든 못 하든, 혹은 타인을 배반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든 없든, 결국 너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부모나 친구를 배반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으며, 더구나 나를 배반하고 내가 증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즉, 배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리와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반은 사람의 천성으로, 이 천성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가로막는 천적이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고, 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행위는 배반이며,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관념으로 가득하고 또한 이를 사방에 퍼트리는 것은 배반이고, 나의 증거와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배반이며, 마음속으로는 나를 멀리하면서 웃는 얼굴로 배웅하는 행위는 배반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 너희가 으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너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배반하는 일을 애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고, 더욱이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도 없다.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역해도 너희가 이렇진대, 언젠가 신경 써 주는 이가 없는 날이 오면 산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하는 마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너희가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큰 화를 부른다면 그 뒷수습은 또 누가 하겠느냐? 너희는 몇몇 배반 행위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일 뿐, 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꺼내어 너희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형적인 배반의 표본이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생명이자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생존

원리로, 사람 스스로는 이를 바꿀 수 없다. 배반의 본성처럼 말이다. 네가 가족이나 친구를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네 생명의 일부이자 너의 타고난 천성임을 증명한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도둑질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생명의 일부인 것이다. 다만 남의 물건을 훔칠 때도 있고 훔치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이다. 도둑질을 했든 안 했든, 이는 그가 한 도둑질이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일부, 즉 그의 본성임을 증명한다. 혹자는 그것이 그의 본성이라면 왜 좋은 물건을 보고도 훔치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그가 도둑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척 많다. 예를 들어, 물건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갈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손을 쓸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 물건이 너무 고가여서 물샷틈없는 감시가 이루어졌거나, 그가 그 좋은 물건에 구미가 당기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도둑질이 그의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간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것은 바꾸기 힘든 본성의 일부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한 번의 도둑질에 만족하지 않으며, 좋은 물건이나 적당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남의 물건을 가로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은 어쩌다 주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다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진면목은 당연히 사람의 본성이다. 네가 말을 빙 돌려 하는 사람이라면 네 본성은 교활할 것이다. 네가 매우 간사한 본성을 지녔다면 일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고 손쉽게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네가 악랄한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이 듣기에는 그럴싸해도 너의 행동은 네 악랄한 수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네가 게으른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모두 건성과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들일 것이다. 네 행동은 매우 굼뜰 것이며 또한 상황을 모면하고 진실을 감추는 데 능할 것이다. 네가 이해심이 많은 본성을 지녔다면 너의 말은 아주 합리적일 것이며 네 행동 또한 진리에 부합할 것이다. 네가 누구에게나 매우 충성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너의 말은 분명 진정성이 넘칠 것이며, 또한 착실하게 일을 하여 주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호색하거나 금전을 탐하는 본성을 가졌다면 네 마음은 항상 그런 것으로 가득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사람들이 너를 항상 기억하고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말했듯이, 네가 배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일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너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배반의 본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몹시 역겨운 일이다. 나는 매번 특정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를 상대로 말을 한다. 네가 어떤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일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수는 없다. 결혼에 실패하여 진리 추구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 파탄으로 나에게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린 사람도 있다. 또 일시적인 쾌락과 짜릿함을 즐기고자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절벽에서 구를지언정 광명 속에서 살면서 성령 역사가 주는 기쁨과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돈 욕심을 채우고자 친구의 만류도 뿌리치고 지금도 여전히 길을 헤매며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도 있다. 나의 보호만을 바라며 내 이름 아래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삶에 대한 미련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억지로 내게 조금 봉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인 행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물론 나는 사람의 배반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임을 알고 있다. 나를 배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으며, 오히려 전전긍긍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이런 배반을 어떻게 만회할지, 오늘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생각하고 있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 — 배반 2

사람의 본성과 나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사람의 패괴된 본성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사람의 본성은 사탄에 의해 가공되고 패괴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진리의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며, 광명 속에서 생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질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진리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문제, 즉 배반이다. 배반은 모든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며, 이 문제는 사람에게만 존재할 뿐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혹자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의 생존은 영혼의 반복적인 환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즉, 모든 사람은 영혼이 환생할 때 육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 생명은 육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여 육체의 최후, 즉

영혼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며, 사람의 영혼은 왔다 가고, 갔다 오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전 인류의 생존이 유지되는 것이다. 육의 생명은 곧 사람의 영혼이 지닌 생명으로, 사람의 영혼은 사람 육의 존재를 지탱한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육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육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 유혹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패괴되었는지는 오직 사람의 영혼만이 알 뿐, 사람의 육은 이를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인류는 자신도 모르게 갈수록 불결해지고, 사악해지며, 어둠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나와의 거리가 점차 벌어지고, 점점 더 암담한 날을 보내게 된다. 사람의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 있으므로 사람의 육도 당연히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다. 이런 육, 이런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을 반공중으로 내친 이유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인류라고 다르겠느냐? 이것이 바로 배반이 사람의 본성인 이유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이치를 깨달았으니 그리스도의 본질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육신이다. 하나님의 영은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그러므로 그의 육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고지상하고 전능하며 거룩하고 공의롭다. 이 같은 육신은 오로지 공의로운 일, 인류에게 유익한 일, 거룩하고 빛나며 위대한 일만 할 수 있다. 진리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는 일을 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므로 그의 육신 또한 사탄에 의해 패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과는 다른 본질을 가진 육신이다. 사탄이 패괴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며, 게다가 사탄은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패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과 그리스도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사람만 사탄에게 점령되고, 이용당하고, 해를 입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는 절대 사탄에게 패괴되지 않는다. 사탄은 영원히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나를 배반하는 존재는 오직 사탄에게 패괴된 인류뿐이며,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탄에게 패괴된 영혼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구별되어 사탄의 진영에서 구원받고 오늘의 하나님나라로 인도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육에 뿌리박혀 있다. 즉, 너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본성은 예전 그대로이며, 너희가 나를 배반할 가능성은 여전히 백 퍼센트이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 또한 너희의 본성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는 모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바로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다시 사탄의 권세 아래로, 사탄의 진영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너희는 지금처럼 인간미와 사람의 면모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경우 멸망에 이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고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앞에 놓인 문제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일깨우는 이유는 첫째, 나의 사역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 너희 모두가 빛이 있는 날들 속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내가 헛수고를 하는지 아닌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사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네 육은 평온한 날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육을 지킨다면 네 영혼 역시 분명 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몹시 혐오한다면 네 영혼과 육은 즉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의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나의 말이 너희에게서 물거품이 된다면 나는 노여움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너희를 사탄에게 넘겨 갑절의 고통을 받게 하거나 너희같이 구제 불능인 인간들을 친히 벌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배반의 마음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나를 배반하는 요소가 얼마나 더 있는지 하루빨리 성찰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답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 모두 나를 무성의하게 대해선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과 장난을 치는 법이 없다. 나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옮긴다. 너희 모두 나의 말을 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참답게 대하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실제 행동이지 상상이 아니다. 이제 모두 나의 질문에 답하여라. 1. 네가 정말로 봉사자라면 어떠한 속임수나 부정적인 요소 없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겠느냐? 2. 내가 너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내게 머무르며 한평생 봉사할 수 있겠느냐? 3. 네가 많은 힘을 보탬에도 내가 여전히 너를 차갑게 대한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 있겠느냐? 4. 네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쳤는데 내가 너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나에게 믿음을 잃고 실망하거나 나아가 원망과 욕을 퍼부을 수도 있겠느냐? 5. 네가 줄곧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를 사랑해 왔다고 하자. 그런데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궁색한 삶을 살며, 가족과 친구에게 버림받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때도 나에 대한 너의 충성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6. 네 마음속의 상상과 내가 행한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는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7.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자로 남을 수 있겠느냐? 8. 네가 나의 사역 목적과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때도 제멋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9. 내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한 말과 사역을 귀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10. 나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 한평생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11. 나를 위해 앞으로 너 자신의 생존의 길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위의 질문은 너희에 대한 나의 마지막 요구이니 모두가 답해 주기 바란다. 네가 위의 질문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 중 단 하나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너는 분명 지옥으로 떨어질 부류일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분명 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배반했다 기억할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들의 악행을 응징할 것이다. 위에서 내가 요구한 것들은 전부 너희가 성찰해 봐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나를 대충 속여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나의 요구와 너희가 나에게 한 답변을 대조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에게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간곡한 충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의 권병을 행사하여 남길 사람은 남기고, 상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며, 사탄에게 넘겨야 할 사람은 넘기고, 중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중벌을 받게 하며,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은 멸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날을 방해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 인과응보를 믿느냐? 내가 나를 기만하고 배반한 모든 악인을 징벌할 것임을 믿느냐? 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천천히 오기를 바라느냐? 너는 징벌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징벌받는 한이 있어도 나와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날이 올 때, 네가 웃음과 환호 소리 속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보내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싶느냐? 네가 나를 백 퍼센트 믿는지, 아니면 백 퍼센트 의심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의 모든 행동이 너 자신에게 어떤 결과와 결말을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라느냐, 아니면 나의 말이 하나씩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느냐? 내가 서둘러 떠나 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너는 스스로의 언행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가 떠나는 것도, 나의 말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네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 자신이 왜 나를 따르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냐? 단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복을 받거나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기 위함이라면

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스스로에게 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또 왜 너 자신에게 앞으로 복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나라시대의 선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정 법령

1.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지, 함부로 잘난 체하거나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2.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 사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역을 수호해야 한다.

3. 하나님 집의 재물과 물질, 모든 재산은 사람이 마땅히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그 제물은 제사장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 사람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 누리도록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오직 제사장에게만 베풀어 누릴 수 있게 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은 그 제물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다. 사람이 바친 그 제물(돈과 누릴 수 있는 물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누린다면 제물을 훔쳐 먹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자들은 모두 유다이다. 유다는 주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돈주머니의 돈도 훔쳐 썼기 때문이다.

4. 사람에게에는 패괴 성품은 물론, 감정까지 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며 섬길 때 남녀가 단둘이 함께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출교한다.

5.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되, 범위와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말을 경계하고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6.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너의 의무를 다하며, 너의 직책을 수행하고, 너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바쳐야 할 몫을 바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자격도, 하나님의 집에 남아 있을 자격도 없다.

7. 사역이나 교회의 사무적인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은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야지, 이를 조금이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되,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마라. 옳든 그르든 너와는 무관하니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8.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지, 사람을 높이거나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지위에 두고 네가 우러러보는 사람과 너 자신을 순서대로 그 밑에 두어서도 안 된다. 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자리도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네가 숭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평등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9. 마땅히 교회의 사역을 위해 생각하고 자신의 육적인 앞날은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온 몸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자신의 삶은 부차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할 품위이다.

10.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너의 자녀, 남편이나 아내 또는 형제나 부모 등)을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부족하지 않으니 쓸모없는 자로 머릿수를 채울 필요가 없다. 기꺼이 원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로 데려오지 마라. 이 조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너희는 이 일에서 서로 제약하고 감독하며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마지못해 교회에 들어왔을지라도 책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며, 새 이름을 지어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런 자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 아니니 그런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 철저히 막아야 한다. 마귀가 교회에 침입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면, 너를 출교시키거나 제한을 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앙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숙고해야 한다

너희 삶 속에서의 온갖 행위를 살펴보면, 너희에게 매일 한 편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인식과 받아들이는 능력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실생활 속의 너희는 진리도 없고, 양심과 이성도 없는 분위기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에게는 생존의 밑천은 물론, 나와 진리를 아는 토대도 없다. 너희의 믿음은 그저 막연한 믿음이나 지극히 교조적인 인식,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위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나는 날마다 너희의 행위에서 너희의 속셈과 악한 열매를 살피고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옳긴 적이 없는 그 제단 위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을 올려놓은 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도 이런 인류에게 내 모든 말을 값없이 부어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 마음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역과 구원하지 못한 인류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나의 구원을 받고, 나의 말로 베풀어 주는 진리를 얻길 바란다. 또한 언젠가 네가 두 눈을 감을 때면, 먹구름이 가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음침한 세계가 아니라, 향기가 그윽하고 생수가 솟아 흐르는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각 사람이 날마다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예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거쳐 가야 할 길이며, 내가 각 사람을 위해 예정해 놓은 것이다. 아무도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전례를 깨뜨릴 수도 없다. 나는 많은 말을 했고, 더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했다. 나는 매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본성과 심해지는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많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이 정상 궤도는 각 부류의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설정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각 부류의 사람을 모두 서로 다른 환경 속에 두었고, 그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원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누가 속박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드러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유독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이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죽지 않는’ 결말을 얻기 위해 나의 말을 억지로 읽어 볼 뿐 그대로 실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내 말의 인도와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들을 견디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내 말을 늘 받들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인생의 비밀과 인류의 종착지,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다. 인류는 내 말 앞에서 이런 상태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길 뿐, 내 말을 생존의 토대로 삼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양심도, 생존할 가치도 없는 자들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과감하게 내 말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 그들은 진리는 물론, 내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싫어하기 시작하였고, 내 집에 머무는 것은 더욱 싫어하였다. 그들이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저 종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내 집에 머무를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들의 행위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복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고, 단번에 영구히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는 생각, 심지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을 더욱 부추겼다. 이렇게 나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수록, 그들은 진리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단숨에 하나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더욱이 내 집에서 굶신거리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경영에 협력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음 시대에 멸망되지 않는 일원이 되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리를 실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또한 자신이 심하게 패괴되었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내 집에 머무르며 ‘종’이 된 이유이다. 그들은 ‘인내심’ 있게 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사역 방식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든, 어떤 대가를 치렀든 그들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옛 시대를 폐하는 그날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며, 내 능력과 권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바꾸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서두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며, 내가 증오하는 것을 소망하고 내가 혐오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증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게다가 또 내가 그것을 멸해 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들에게는 모순되는 마음이 있다. 내가 혐오하는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하루빨리 멸하기를 ‘바라는’ 그것이다. 그들이 참도를 떠나기 전에 운 좋게 재난을 피할 수 있고, 한순간에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모두가 바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서 온 모든 것을 싫어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복을 잃지 않으려고 한동안 ‘순한 백성’이 될지도 모르지만, 복을 받으려는 다급한 심리와 멸망되어 불 못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하는 속마음은 지금껏 감추지 못했다. 나의 날이 임박할수록 그들의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재난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욱 안절부절못하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내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바라 마지않던 복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몰라 한다. 나의 손이 일을 시작하면, 그들은 바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선봉이 되려고 한다. 행여 내 눈에 띄지 못할까 봐 두려워 대오의 가장 앞쪽으로 나설 궁리만 하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말들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진리와 무관하며, 그들의 행위가 내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비록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할지라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와 속내가 아주 진실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그들의 행위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거니와 그들이 내 제단에 무엇이랴도 올려놓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면전에서 행한 것이다.

본래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공급해 주려고 했지만, 진리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가

너무도 차가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심혈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으며, 사람들이 내 말을 가지고 곳곳에서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도 않다. 너희의 갖가지 태도 때문에, 또한 너희의 인성 때문에 나는 그저 작은 부분,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말만 공급하여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시범적인 사역으로 삼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나는 내가 한 결정과 계획이 다 너희의 필요에 부합한 것임을 참으로 실증했고, 더욱이 인류를 대하는 내 태도도 옳았음을 실증했다. 너희가 오랜 세월 내 면전에서 행한 행위로 나는 지금껏 얻지 못했던 답을 찾았다. 그 답의 질문은 바로 ‘사람은 진리와 참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쏟은 심혈로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본질이 실증되었다. 또한 사람이 내 면전에서 행한 모든 행위로 진리를 증오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본질도 실증되었다. 나는 언제나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나를 따르는 각 사람은 언제나 내게서 비롯된 말을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내게서 비롯된 ‘제안’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다. 내 태도가 진실했고 내 말이 부드러웠을지라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저마다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내가 맡긴 일을 하면서 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아가 나의 요구도 묻지 않는다. 그들은 다 나를 거역하면서도 충성을 다해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며,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서 나의 진리는 부인되고 버림받는 것이 되었다. 또한 나는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지만 진리, 길, 생명은 아니라고 여기는 제3의 존재가 되었다. 아무도 이런 이치를 모른다. 내 말은 영원불변한 진리이며, 나는 사람의 생명 공급자이자 인류의 유일한 인도자다. 또한 내 말의 가치와 의의는 인류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의 본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 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말의 가치와 인류에 대한 도움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거역하고 반박하거나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시간과 사실이 나를 증거하여, 내 말이 곧 진리이자 길이자 생명이며, 내가 한 모든 말은 옳은 것이고,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실증할 것이다. 나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즉, 나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 나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에서 목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말에 정죄받을 사람이고, 더욱이 내 구원의 은혜를 잃은 사람으로, 내 채찍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4월 16일

하나님은 사람 생명의 근원이다

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이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네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배경이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하늘의 지배와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겨난 후로 계속 이 일을 해 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 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생명이 있든 없든 전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밤이 살며시 찾아올 때,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밤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떻게 왔는지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이 살그머니 달아날 때 사람은 낮을 맞이한다. 사람의 마음은 낮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밤을 몰아냈는지 알지 못할뿐더러 느끼지도 못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교체는 한 번, 또 한 번 인류를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대 배경으로 이끌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각 시기 사역과 각 시대 계획도 이루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이처럼 다양한 시기를 지나왔으나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은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탄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자신을 갇아먹는 사탄과 악한 자에게 몸을 맡겨 이 세상과 사악한 인류의 생존 법칙에 적응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영이 사탄에게 바치는 공물, 사탄의 먹이로 변해 버렸고, 더 나아가 사탄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 사탄의 당연한 놀이터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도리뿐만 아니라 생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은 점점 퇴색되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상대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율법과 법도에 맞서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무감각해졌다.... 하나님은 처음에 만든 사람을 잃게 되었고, 사람 역시 본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슬픔이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람이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비극을 연출해 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 비극의 감독이 도대체 누구인지 대답하지 못한다.

광활한 이 세상에는 상전벽해의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분 말고는 아무도 이 인류를 인도하거나 이끌 수 없다. 또한 그분 말고는 이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예비하는 그 어떤 ‘능력자’도 없으며, 인류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벗어나 광명의 종착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인류의 앞날을 위해 탄식하고, 인류의 타락에 마음 아파하며, 인류가 몰락과 절망의 길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사실에 슬퍼한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자를 찾아간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살피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을 외면하고, 그의 진리를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계속 이렇게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어느 누가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권면하는 것은 그의 손에 전례 없는 재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사람의 육과 영혼이 감내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사람의 육뿐 아니라 영혼까지 징벌을 받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일깨움과 권면이 무위로 그칠 때 그가 얼마나 노할지 알아야 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거나 들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재난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차례만 인류를 창조하고, 단 한 차례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이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가 부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생명체를 세상에

데려왔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생기면서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본 후부터 하나님이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체 하나하나를 밀받침해 주어 ‘어른으로 성장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부모의 길러 준 은혜라고, 사람의 생명의 본능을 밀거름으로 하여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가 자신의 ‘생명’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며, 생명의 본능이 어떻게 기적을 일구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저 음식이 생명 연장의 근본이고, 의지력이 사람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며, 머릿속의 신념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밑천이라고 알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고 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계획한 사역을 할 뿐이다. 그의 바람은 언젠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불현듯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면서 치른 대가와 사람이 마음을 되돌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되는지, 이 모든 비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준 상처와 충격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 사람은 생명이 가져다준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하나님 역시 ‘당연하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망각되고, 갈취당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할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사람이란 생명체가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증오한다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입으로 불어넣은 숨결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있다. 이는 사람의 육이 아닌 생명을 위함이고, 사람의 육이 아닌 그가 불어넣은 생명을 되찾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모두 생과 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된다. 살아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사람은 또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각각의 생명체를 위해 안배한 생명의 여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정과 윤회를 통해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은 끊임없이 지속되며, 육,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의 비밀이자 생명이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많은 이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땅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생명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모든 것에게 공급하고,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이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 주려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위대함과 능력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내가 알려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형태와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든, 어떤 생명체든,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궤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깨닫길 바랄 뿐이다.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 공급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도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와 생명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의 가치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에 다시 한 번 강조하니, 하나님이 네 생명의 근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푸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주었던 것까지 거두어 가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사람에게 곱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03년 5월 26일

전능자의 탄식

네 마음에는 크나큰 비밀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가 빛이 비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왔기에 여태껏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너는 마음과 영을 악한 자에게 빼앗겼다. 너의 두 눈은 어둠에 가려져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못하며, 너의 두 귀는 거짓된 말에 막혀 여호와와 천둥 같은 음성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물소리를 듣지 못한다. 너는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과 전능자가 너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살아서 돌아갈 희망도 없다. 그저 발버둥 치며 달리고 달릴 뿐.... 그 순간부터 너는 악한 자에게 시달릴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전능자의

축복과 공급에서 떨어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 천만번 불러도 너의 마음과 영을 깨울 수가 없다. 너는 악한 자의 손에서 깊이 잠들었고, 그의 꼬임으로 끝없는 나락에 떨어져 방향과 이정표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너는 원래의 순진무구함을 잃고, 전능자의 보살핌을 피하기 시작했다. 악한 자가 너의 마음속에서 네 모든 것을 조종하며 너의 생명이 되어 너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를 마음속의 하나님으로 삼아 섬기고 숭배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사를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너는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 너는 전능자가 낮설게 느껴지고, 그의 근원과 그가 네게 행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그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 전능자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너는 악한 자와 동행해 왔고, 수천 년 동안 그자와 함께 풍파를 겪으며 네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 같이 ‘맞섰다’.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이 파멸에 이르렀음은 더더욱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근원을 망각한 채 오늘날까지 그 악한 자에게 잔인하게 짓밟혀 왔다. 마음과 영이 마비되고 부패한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번뇌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전능자의 존재 여부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너는 오래전부터 악한 자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그를 떠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네 마음속 ‘비밀’이다.

동이 틀 무렵 동쪽에서 샛별 하나가 반짝였다. 지금껏 없었던 그 별은 고요한 별하늘을 밝게 비추고, 꺼져 있던 사람들 마음속의 등불을 환히 밝혔다. 그 등불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었고, 너와 그를 밝게 비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그 철야 속에서 깊이 잠들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얘야, 일어나지 말거라. 아직 때가 이르잖니. 날씨도 몹시 추우니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나갔다가는 칼과 창에 눈이 찢린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아버지만 옳다고 믿고, 그가 너보다 연장자이며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당부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 같은 당부와 사랑으로 인해 너는 세상에 광명이 존재한다는 전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전능자의 구원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더 이상 광명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전설 속 전능자가 강림하는지를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소생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류의 내일과 미래는 네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너는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잃지는 않을까, 가야 할 먼 길의 ‘방향’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워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그와 함께 고난을

견디려고 한다. 막막한 세상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이 세상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너 같은 이들을 줄줄이 길러 냈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잇따라 키워 냈다. 또한, 왜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대거 배출했다. 깊은 해를 입은 인류를 하나하나 살펴본 전능자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상처를 입은 인간의 뻔뻔한 모습을 보았으며, 구원을 잃은 인류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꼈다. 인류는 전능자의 보살핌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며, 그의 감찰을 피하면서 오히려 원수와 함께 심해의 쓴맛을 맛보고자 했다. 전능자의 탄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의 두 손은 더 이상 비참한 인류를 어루만지려 하지 않는다. 수없이 되찾고 수없이 잃어버리며 그는 그렇게 사역을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치고 씁증이 난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더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능자의 오고 감, 그의 슬픔과 실망 또한 알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자의 생각 속에서, 눈 아래에서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인류가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것이 갑작스레 등장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것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아무도 전능자의 행적을 헤아릴 수 없고, 전능자의 생명력이 얼마나 비범하고 위대한지 느끼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비범하고, 인류에게 버려지고도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기에 위대하다. 그는 생과 사의 의미는 물론, 창조된 인류에게 어떠한 생존 법칙이 필요한지도 알고 있다. 그는 인류가 생존하는 근거이며, 인류를 다시 부활시키는 구속자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위해 기쁨을 슬픔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다.

전능자의 생명 공급에서 벗어난 인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류는 의지하고 도움받을 데가 없음에도 여전히 눈을 감고 싶어 하지 않고, 영혼의 지각이 없는 육을 간신히 지탱하며 이 세상에서 되는대로 살아간다. 너는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그 역시 그렇게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간다. ‘오직 전설 속의 거룩한 자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그의 강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는 이 신념은 무감각한 사람에게서는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전능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전혀 지각이 없는 사람을 혐오한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사람에게서 오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찾으려 한다. 너의 마음과 영을 찾아 네게 물과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너를 깨우고, 네가 더 이상 목마름과 굶주림을 겪지 않게 하려 한다. 더없이 피곤할 때도, 이 세상이 처량하다고 조금 느껴질 때도 방황하거나 울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키며 바라보는 그이가 네가 언제 돌아오든 너를 안아 줄 것이다. 그는 너의 곁을 지키며 네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문득

기억을 되찾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방향을 잃고 길에서 쓰러졌다는 것, 언제부터인가 네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 또 전능자가 그곳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을 말이다. 그는 답이 없는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마음과 영을 위해 그가 곁을 지켜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이 지킴은 무기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끝이 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오늘날 너의 마음과 영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2003년 5월 28일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하나님나라의 문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찾는 모든 이를 향해 열려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취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타남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일인가! 하나님의 자취는 또 얼마나 찾기 어려운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다. 아마 너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수차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자취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그 답을 찾았는가?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자취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대답이야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의 자취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 사역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만의 신분으로, 그만의 성품으로, 그리고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강림하여 시대를 열고 시대를 끝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식도, 징조도 아니요, 한 폭의 그림이나 이적, 큰 이상(異象)도 아니며, 종교적 과정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실제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사역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의 경륜의 한 단계 사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의의가 있고, 그의 경륜과 관계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타나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깨우칠 때 ‘나타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매번 나타날 때마다 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그 어떤 시대에 했던 사역과도 다르다.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기존의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더 새롭고 높은 한 단계 사역이자 인류를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의 의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취는 어떻게 찾아야 하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해 보려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영적인 인물이 있는 곳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의 옳고 그름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 두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지 영적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며, 유명 인사를 따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간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찾았다 생각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나타날 리도 없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 사역을 한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을 너의 범주 안에 한정하거나 너의 관념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자취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진리가 아니며 또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찾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네가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국적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초월하여 피조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취를 특정한 범주에 한정 짓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의 깊은 의의와 하나님의 나타남이 갖는 중요성을 사람의 관념과 사유로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너에게 국적과 민족의 관념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그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사유 재산이 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형식이나 국가, 민족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가 계획한 사역을 한다. 어찌면 그 형식은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너는 이 형식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국가와 민족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와 민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의 지혜가 있다. 그는 그의 큰 능력으로, 그리고 그의 진리와 성품으로 그와 한마음 한뜻인 사람들을 얻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따르는, 그가 온전케 하려는 정복된 사람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특정 형식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그가 계획해 놓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유대에서 성육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 없고, 예수의 형상으로 성육신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들의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근거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제멋대로 떠들어 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정죄한다. 그들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또 한 번 자신의 상상 속에 한정 지었다. 그리하여 나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미친 듯이 웃어 대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죄나 모독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너희는 진리 앞에서 경건하지 않으며,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 그저 덮어놓고 연구하며 무심히 기다릴 뿐이다. 그러한 연구와 기다림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볼 자격이 있다. 너의 고정 관념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그의 뜻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럴 리 없다’는 논리를 내려놓아라!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와 고정 관념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일수록 찾아야 할 진리가 있는 법이고, 사람의 고정 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든 하나님이며, 나타나는 지역이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자취가 어디에 있든 그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유럽·미주 사람들의 하나님이자, 우주 위아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라!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의 말씀과 나타남은 공존하며, 그의 성품과 자취는 언제나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나는 너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새 시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주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준 사명과 인류의 정의로운 사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위해 순교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준 하나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인류를 지었으며, 나아가 고대 그리스 문화와 인류 문명까지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류를 위로하고 있고, 또 밤낮으로 보살피고 있다.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하나님의 주재와 떼어 놓을 수 없고,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배치를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배치 아래에 있음을 믿을 것이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인류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인류가 좋은 운명을 원한다면, 또 한 국가가 좋은 국운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종착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짓던 시대를 돌아보자. 인류는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잃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잃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아가 음란이 일상이 되며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모든 것을 뿌리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이성과 인간성을 잃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죽음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불러오게 되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였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들을 수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탁대로 방주를 만들어 각종 생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멸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세상을 멸할 당시, 그 재앙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 8명뿐이었다. 노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며 악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을 멀리하는 의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인류를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순종하며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다. 네가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위와 명성이 대단할지라도, 지식과 재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 주는 일을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위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한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지어 증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가 대통령이든 과학자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네 관직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네 능력과 지식에 의지해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너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네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거나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네가 인류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 하나님의 보호를 힘써 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일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는 네가 인류를 어둠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흑암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인류에게 사회 과학이 생긴 이래, 과학과 지식은 인류의 마음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유리한 여건을 잃게 되었고,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내적 세계는 어둡고 절망적이며 공허하다. 뒤이어 사회 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 사회 과학론, 인류 진화론 등을 발표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진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인류의 머리와 마음에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또한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기록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함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믿음도 아득해졌다. 사람은 더 이상 인류의 존망이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인류의 종착지를 어떻게 주재하고 계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느덧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기대와 멀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다. 지난날 문명이 발전했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이런 원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에 통치자나 사회학자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없으므로 인류 마음속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 담론도 공허의 질곡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과학, 지식, 자유, 민주, 즐거움, 안락으로 사람이 얻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 인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계속 죄를 짓고, 사회의 불공평을 원망한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류의 탐구하려는 갈망과 욕망이 멈추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에, 인류의 무의미한 희생과 탐구는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고뇌를 안겨 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불안에 떨며 인류의 미래와 앞길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을 두려워하고, 공허함을 더욱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네가 이 세상의 자유 국가에 있든, 인권이 없는 국가에 있든 너는 인류의 운명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네가 통치자이든, 통치를 받는 자이든 너는 인류의 운명, 비밀, 종착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영문 모를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도 없다. 사회학자는 인류의 이러한 공통적 현상을 가리켜 사회 현상이라 말하지만,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인은 한 명도 없다.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도 대신하지 못한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정한 사회뿐만이 아니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과 구원을 얻어야만 필요와 탐구욕, 그리고 심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보살핌을 얻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몰락과 흑암으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에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너의 국가는 지금 번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네 국민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 국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국가의 문명은 점점 더 짓밟힐 것이다. 머지않아 그 국가의 국민은 일어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한 국가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강대한 국가를 일으켜 하나님께 저주받은 국가를 상대하게 하고, 지구상에서 그런 국가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존망은 그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국민들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하는 길로 이끄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를 특별히 우대하고 그런 국가를 결집해 세계에서 비교적 정의로운 진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무신론 국가, 참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국가는 자연히 정의 진영의 대립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사역할 곳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의 권세를 행사하는 국가를 얻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국가를 제재하고 단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그저 정의를 행사하거나 비정의를 배격하는 국가만 남아 있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미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국민을 통치하도록 맡기는 통치자도 없고, 국민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당도 없기에 하나님은 모든 국가와 민족, 집권당의 마음속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었다. 세상에 일부 정의 세력이 있다고는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통치는 미약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정치 무대는 혼란스럽고 취약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 것은 태양을 잃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아무리 성실히 일하며 공헌한다 한들, 인류가 정의로운 대회를 수없이 개최한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인류의 운명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두가 화목하게 공존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자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국가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는 국가는 그의 눈에 멸해야 할 국가일 뿐이다.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의 운명은 매우 비참할 것이고, 그 국가는 종착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나 모든 국가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어떤 사람도, 어떤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운명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인류를 번영시킬 것이고, 그를 대적하고 저버리는 인류를 쇠퇴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던 장면을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니느웨 성의 백성이 어떻게 배움을 입고 재 위에 앉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2천 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결말을 돌이켜 보아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세계 각국으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이 살육당하고 온 민족이 유례없는 망국의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저버렸기에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자가 국가와 민족에게 안긴 쓰라린 결과이자 재앙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첫 사역 장소는 독재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무신론의 견고한 보루, 중국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무리의 사람을 얻었으나 그동안 중국 집권당의 집요한 추적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머리 돌 곳도, 몸을 기탁할 곳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역, 즉 음성을 발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중국처럼 하나님을 원수로 보는 국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하나님은 최대한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어떤 국가도,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지하고, 그의 말씀에 대적하며,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망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자를 지옥에 처넣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민족과 국가, 모든

업계의 사람에게 전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며 지고하신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후예가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산 것과 같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도록 말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침없는 거센 파도와 같아서 아무도 그를 만류할 수 없고,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오직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찾으며 갈망하는 자만이 그의 발걸음을 따르고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의 재앙과 응분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경영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낯선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자신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인류의 구원은 아주 모호한 일이자 공허한 말이 되어 버렸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사람이 어떻게 협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경영과 분리될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인류와 하나님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지음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등 사람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오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된 화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단지 복을 받거나 재난을 피하거나 출세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의 경영이 사람에게 아주 심오하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인류의 생명과 삶, 그리고 인류의 종착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행하고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매우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사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경영이 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만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재난을 피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을 언급하면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지루한 문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도 건성으로 대할 뿐 보배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생명의 일부로는 더더욱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그들의 목표와 전혀 무관한 일은 귀찮아하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정당한 목적이며,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현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 그들의 목적과 속마음은 얼핏 들으면 아주 정당한 것 같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청춘을 바치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심지어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취미도 인생관도 바꾸고, 심지어는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까지 바꾸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꿈을 경영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며, 그 길이 얼마나 멀든,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까지 불사한다. 어떤 힘이 그들을 그토록 끊임없이 바치게 하는 것이겠느냐? 그들의 양심이겠느냐? 그들의 위대하고 고상한 인격이겠느냐? 사악한 세력과 끝까지 맞서겠다는 결심이겠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그들의 믿음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충성심이겠느냐? 아니면 단 한 번도 사적으로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는 그들의 희생정신이겠느냐?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심혈을 쏟아붓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기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쳤는지는 차치하자. 그들의 행위만 해도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니, 거기에 사람과 밀접한 이익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우리는 지금껏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즉,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노골적인 이익 관계, 그러니까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다. 피고용인의 수고는 오직 고용인이 주는 품삯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이익 관계에는

애정은 없고 거래만 있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없고 베품과 연민만 있다. 또 이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과 기만하는 것만 있으며,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깊은 골만 있다. 상황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확신컨대, 모두가 복을 받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난감하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자기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등한시한다는 사실이고, 가장 크게 실패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꿈꾸는 종착지를 구상하고,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복과 가장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모든 사람이 비참하고 가증스럽고 가련한 자신의 모습을 알았다 해도, 자신의 꿈과 소망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스스로를 위해 계산하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의 경영을 완성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 몸과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얼마간 헌신하고 빛을 받아 내려는 사람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얼마간 바친 뒤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기대 살아가려는 사람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가 복받는 일에만 관심 있는 냉혈 인간을 증오한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는 기회를 틈타 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더더욱 증오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역하는 틈을 타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기 앞날과 운명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 반감을 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 사역 밖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좋아하지도 않는다.

아득한 우주에 수많은 생명이 번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순환하며, 불변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떠나고, 산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의 역사적 비극을 재연하며 살아간다. 인류는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죽는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이 인류를 창조했는가? 이것이 정녕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가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인류는 수천 년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에 집착할수록 과학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다. 과학은 사람의 육에 일시적인 만족과 짧은 누림을 주었지만, 영혼 깊은 곳의 고독과 적막, 감출 수 없는 공포,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다. 인류는 그저 눈으로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지식으로 심령을 마비시키고 있었을 뿐, 비밀 탐구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다. 인류는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인류의 시초와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한 채 그저 속절없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만 할 뿐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만물 가운데서, 또 하늘 위에서 태고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목도한 적이 없는 분이요, 인류가 안 적이 없는 분이며, 인류가 한 번도 존재를 믿지 않았던 분이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이요,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분이고, 오늘날까지 인류를 인도한 분이며, 나아가 인류가 유일하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며, 우주 만물의 생령을 주재한다. 그는 사계절을 주관하며, 풍상설우(風霜雪雨)의 변화를 조절한다. 그는 인류에게 햇빛을 선사하고, 밤의 장막도 베풀어 주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펴고, 인류를 위해 산과 강과 호수, 그리고 그 속의 생물까지 준비했다. 그의 행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의 능력 역시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의 지혜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의 권병 역시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를 구현하고, 그의 지혜와 권병을 나타낸다. 누가 그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안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만물은 다 그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더욱이 그의 주재하에서 살아간다. 그의 행사와 능력 앞에서 사람은 그가 분명히 존재하며,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 우주를 주관할 수 없고, 더욱이 인류에게 이토록 무한히 많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행사를 알든 모르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너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가 알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사람이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하나님이 곧 이룩할 사실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살고 또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죽는다. 인류는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두 눈을 감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하며 왔다가 가고 갔다가 또 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의 주재를 믿게 하며, 그의 행사를 보게 하고, 또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수천 년 동안 경영해 온 사역이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 그의 경영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영 사역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은 1분 1초나 눈 깜빡할 사이, 또는 1~2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해와 달, 각종 생물, 인류의 양식과 생활 환경 같은,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 경영의 시작이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었고, 그리하여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첫 번째 시대 사역, 즉 율법시대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율법시대가 이어진 수천 년 동안 율법시대의 인도에 익숙해지고 무심해진 인류는 차츰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멀어졌다. 그로 인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보호가 사라졌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단을 지키며 생활할 뿐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을 떠난 지 오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고수하며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는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백성이자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용히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은 사역할 때 항상 한 곳에서 조용히 떠나 또 다른 곳에서 소리 없이 새로 개척한 사역을 하는데, 둔감한 사람이 보기에는 천일야화와도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은 항상 낡은 것을 돌도 없는 보물로 여기고, 낯설고 새로운 것을 보면 원수나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하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만물 가운데서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아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여호와의 율법시대 사역에 이어 하나님은 또 예외 없이 두 번째의 새 사역, 육신을 입는 사역을 시작했다. 즉,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10년, 20년이란 오랜 시간을 보내며 신자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난감하게도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결국 그는 치심을 당했지만 사도가 된 뒤에도 예전 본성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갔다. 그는 사역하는 기간에 많은 서신을 썼다. 불행하게도 후세 사람들은 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받아들였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류에게 성경이 생긴 후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다! 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어리석기에 저지른 잘못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시대 사역 기록에 사람의 서신이나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둔갑시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어찌 몰랐단 말이나? 이것들은 다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니, 다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죄에서(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사역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인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죄가 더 이상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사탄이 사람을 참소하는 빌미가 되지 못했다.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 미리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속죄 제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육신, 즉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사탄에게 잡혀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 사역은 율법시대보다 진일보하고 한층 더 깊어진 하나님의 경영이었다.

하나님의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창조주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어 사탄이 제멋대로 파괴시키게 한 뒤,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단계적으로 빼앗아 옴으로써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을 저버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는 어찌면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찌면 이해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사람이 이것을 신화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나아가 이 우주 궁창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이 물질세계 뒤에 숨어 있는 더 기묘하고 무서운 세계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의의와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의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류를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인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인류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인류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더 이상 사탄을 아버지로 삼지 않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저버린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추함과 거룩함의 차이를 알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탄의 사악함 역시 깨닫는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도 사탄을 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인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의 의의이다. 이 경영 사역에서 인류는 사탄이

패괴시킨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며, 또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산물이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차츰차츰 빼앗아 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더 현실적이지만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역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채찍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면모 또한 사람에게 더 뚜렷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인류는 속량받은 뒤 정식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의 ‘호된 공격’을 받았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와 같은 세례를 ‘누려야’ 했다. 이런 대우를 받자 사람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비싼 대가로 사 온 양인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설마 하나님이 그분 방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드러내시려는 걸까?’ 그렇게 수년을 겪으며 보냈고, 인류는 연단과 형벌의 고난을 통해 풍상고초를 다 겪어 본 사람으로 거듭났다. 비록 과거의 ‘광채’와 ‘낭만’은 잃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됨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람을 구원한 그 고심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차츰 자신의 야만성을 증오하는 한편, 길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을 수없이 오해하며 하나님께 지나치게 바랐던 스스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나간 일은 사람이 참회하는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은 날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우뚝 일어나 전능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줄곧 내 곁에 있었다. 그의 미소와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히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인류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은 늘 처음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사람은 마치 에덴동산에 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더 이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 또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친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경영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허이 스며들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고심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가져다준 도움과 이익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생명의 공급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네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근본 취지는 사탄에 의해 파괴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23일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다니며 한 말씀(속편)

(2013년 10월 17일~2014년 8월 18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어 온 자신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각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한 사역과 너의 모든 행위에 대해 내린 정의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며, 너의 운명을 주재하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는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너는 그가 날마다 너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일을 하는 그의 원칙과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떻게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공급하며, 어떤 방식으로 너를 이끄는지 아느냐? 그가 너에게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어떤 태도로 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대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에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느냐? 그의 희로애락의 이유와 그 뒤에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의 본질을 아느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네가 이해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푼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속에서 사람의 패역과 사탄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깨우침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갖기 시작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련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구원을 느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너는 한 번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한 적도, 하나님을 이해한 적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순종과 헤아림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최소한 너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 적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겪은 적이 없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사람의 패역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네가 지금껏 진실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진 적이 없고, 올바른 인생 목표도 없으며, 여전히 향후 인생길에 대해 막막해하고 방황하며 심지어 주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를 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서 진정으로 공급(원문: 供應與補給)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아직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겪지 못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며, 사람을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어떤 체험도 하지 못하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제 내용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 전무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음은 뻔한 일이다.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인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실천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목적과 근원, 배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알고 체득하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 이것들은 모두 진리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 위해 반드시 체험하고 깨닫고 얻어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얻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차츰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또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된다. 이 이해와 인식은 상상해 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고 실증한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깨달음과 체험, 느낌, 실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내용이 생기게 된다. 이때의 인식이야말로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 느낌과 실증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하고 알아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본질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점차 알고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제적으로 확신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며,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본질적으로 확정하고 알게 된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 속에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더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지 않고, 더는 자기 멋대로 추측하지 않으며, 더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더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항변은 갈수록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반발심과 패역 또한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헤아림과 순종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실제에 가까워지고 깊어진다. 사람은 이러한 사귄을 통해 진리의 공급과 생명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귄 속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며, 동시에 피조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된다. 이러한 사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더 이상 백지도, 구두

약속도 아니며, 맹목적인 추종과 숭배도 아니다. 이러한 사감이 있어야만 사람은 생명이 나날이 자라고, 성품도 점차 변화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막연한 신앙에서 점차 참된 순종과 헤아림, 나아가 참된 경외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또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에서 점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감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인식하게 된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론과 글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고, 전설과 봉건 미신의 색채를 띤 전통적인 참배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원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확신을 제외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막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할진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진정한 경외심은 또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경외를 대체하지 못한다. 네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얼마나 누렸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네가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 못한다. 어찌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독하고 막힘없이 술술 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사람은 아무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어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텅 빈 공백이나 끝없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네가 한때 하나님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은 여전히 비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 또한 공허한 구호나 이상(理想)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며 귀한 보물로 여긴다. 또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준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또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폭로한 말씀에 자신을 비취 본 적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숭상과 신임을 편취하고, 개인적인 경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취하고 도둑질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망상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찾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고 공급하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점점 더 심해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갈수록 과장되어 갔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론적 공급과 인도하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그들의 인생 목표와 사명을 찾은 것처럼, 새 삶을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랑하게 외우는 과정에서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찾은 듯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듯했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고심을 끊임없이 깨닫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도 알게 된 듯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신한 듯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욱 깨달은 듯했으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비범함을 더욱 느낀 듯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인식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마치 그들의 믿음이 증가하고, 고난받겠다는 다짐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진 듯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기 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은 다 그들의 일방적인 상상과 추측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검증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과 분량은 하나님이 준 시련과 검증을 전혀 감당해 내지 못한다. 그들의 의지는 모래 위에 지어진 공중누각에 불과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해 낸 성과에 불과하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공을 들인’ 이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순종인지, 무엇이 참된 헤아림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인지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론, 상상, 지식, 은사, 전통과 미신, 심지어 사람의 도덕관까지 모두 가져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밀천과 무기, 심지어 토대로 삼는다. 그러면서 또 그러한 밀천과 무기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비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는 검증과 시련, 형벌과 심판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비법으로 삼는다.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여전히 종교적 색채와 봉건 미신, 전설과 기괴함, 비밀스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한 정론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정의는 하늘과 하느님(원문: 老天爺)만 믿는 사람들과 찍어 낸 듯 똑같다. 반면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등 진실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들의 인식과 어긋나고, 그 어떤 관계도 연관도 없으며, 심지어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공급과 자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 진정한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알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접하고’ 사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경배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하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로 인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임을 뜻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린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고 공양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정의를 내렸다면,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전혀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의 실제와 진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한들 쓸모없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글귀이므로 그가 얻는 것 또한 필연적으로 글귀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든 심오하든, 전부 사람의 생명 진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진리이며, 사람의 심령과 육체가 생존해 나가기 위한 생수의 근원이다.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일상적인 처세 법칙과 신조를 공급하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과 목표, 방향을 공급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진리를 공급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진리를 공급한다. 그는 사람이 살아 나가기 위한 보장이자 일용할 양식이며, 사람을 굳세어지고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방패이다. 그에게는 창조된 인류를 정상 인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진리의 실체가 가득하고, 인류를 패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진리가 가득하며, 창조된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간곡한 가르침과 권면,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다. 그는 사람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을 알도록 인도하고 깨우치는 길잡이 등불이자, 사람이 모든 정의와 아름답고 선한 것을 구현하고 가질 수 있게 하는 보장이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가늠하는 준척이자, 사람을 구원과 광명의 길로 이끄는 등대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 체험 속에서만 비로소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정상 인성이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피조물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과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인도하며 공급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나타나며 사역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경험과 체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참된 인식과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확실한 산송장이고 의심할 나위 없는 겉껍데기로, 창조주와 관련된 모든 인식은 그와 어떤 관계도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사람은 지금껏 하나님을 믿거나 따른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도, 더 나아가 진정한 피조물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창조주가 누구인지,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 피조물의 직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창조주를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창조주의 뜻과 마음의 소리와 요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헤아려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창조주의 도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어떻게 악에서 떠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것도, 숨고 멀리하고 숭상하고 미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양모하고 숭경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조건도 불평도 없이 경배하고 보답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양모도, 신뢰도, 이해도, 헤아림도, 순종도 없으며, 단지 두려움과 불안, 의심, 오해, 회피, 그리고 멀리함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과 보답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진정한 경배와 복종도 없으며,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미신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악한 일을 멀리할 수도 없다. 반면, 사람이 종사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대적, 비방과 논단으로 가득할 것이며, 또한 진리를 위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어긋난 악행으로 가득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 진실로 따르고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려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야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해야 조건도, 불평도 없이 보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보답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 수 있고, 창조주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창조주를 알아야 진정으로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으며, 진실로 창조주께 경배하고 복종해야 진정 악행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전 과정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의 모든 내용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밀접하면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악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체에 진입해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 형벌과 심판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사람, 일, 사물과 각종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려면 반드시 먼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고통을 감내하려는 의지, 악한 일을 멀리하려는 결심과 용기, 그리고 참된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너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네 마음은 점점 더 순결해질 것이다. 또한, 너의 인생과 삶의 가치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인식과 함께 점점 더 의미를 갖게 되고,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너는 창조주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창조주가 너를 피해 숨거나 얼굴을 가린 적이 없고, 너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네가 밤낮으로 그러도 느낄 수 없었던 그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분명히 너의 곁을 지키고 있고,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으며, 네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 그는 아득한 하늘 끝이나 구름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서 너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다. 그는 너의 모든 것이자 너의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너에게 사모의 마음이 들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며, 가까이하게 하고, 양모하게 하며, 잃을까 두려워하게 하고, 더는 포기하려고도 거역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며, 멀리 떠나거나 숨으려고도 하지 않게 한다. 너는 오직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가 네게 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 그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 복종하기만을 원하게 된다. 너는 더 이상 너에 대한 그의 인도와 공급, 보살핌과 보호를 거절하지 않고, 너에 대한 그의 주재와 안배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너는

오로지 그의 곁을 따르고 그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를 너의 유일한 생명이자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된다.

2014년 8월 18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맺게 될 결실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나라의 축가 1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다’ 찬양을 부르자.

Acc: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입이 나를 유일한 참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다.

1. 모든 백성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며 찬양하고 있다. 모든 입이 나를 유일한 참하나님이라 부르고, 만인이 눈을 들어 나의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했고, 나의 본체는 풍부하고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으랴? 어느 누가 즐겁게 춤추지 않으랴? 시온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향해 경축하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전파하라!

2. 땅끝의 만물아! 어서 깨끗이 씻고 나를 위해 제사를 올려라! 하늘의 별들아!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 궁창에서 내 큰 능력을 나타내라! 내가 귀를 기울여 땅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보니 노랫소리에 나에 대한 경애심이 넘쳐흐른다! 내가 만물이 소생하는 날에 친히 인간 세상에 임하자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들이 일제히 지저귀며, 만물이 기쁨으로 들끓는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나라의 예포 소리에 무너지고, 하나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축가에 부서져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리!

3. 땅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으랴? 나는 땅에 내려올 때 불사름과 진노를 가지고 임했으며, 모든 재난을 가지고 임했다.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물결치고 일렁이며, 하늘 아래에서는 호수와 강물이 세차게 출렁이며 감동적인 무곡을 연주하고 있다. 동굴에서 지내던 짐승이 모습을 드러내고, 꿈속에 잠들어 있던 만백성은 나로 인해 눈을 떴으며, 만민이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도래하였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나에게 바친다!

너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감격과 감동에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나라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상상하기에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과 함께 이후의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느냐? (성결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진다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답은 정답에 가깝다. 모두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해 보거라.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람과 일, 사물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람이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기준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알고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말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무게

너희는 자신이 지켜야 할 도에 대해 나뉘는 인식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나 깨달음이 공허한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는 너희가 평소 실행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너희는 각 부분의 진리에 대해 도리적인 면에서나 진리의 내용적인 면에서나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그것은 지금의 사람들이 진리 추구를 무척 중요시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진리의 각 부분과 이런저런 틀은 분명 일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 진리의 주제와 이론은 너희 마음속에 뿌리내렸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아직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희가 시련에 직면하고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런 진리의 실체가 너희에게 있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까? 너희가 난관을 헤쳐 나가고 시련에서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시련 속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너희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나 너희가 매일 생각하는 이런 일에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약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나? 혹자는 당연히 진리 실행이라고 하고, 또 혹자는 당연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당연히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혹자는 당연히 매일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 싶을 뿐이라고 한다. 맞느냐? 이런 내용들만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지만 막상 일이 닥쳤을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어떤 원망이나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거의 매번 실패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늘 진리 실행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늘 육체적 만족을 바랐고, 제 개인의 사욕을 만족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이 검증하기 전에 너희는 수차례 자신에게 도전해 보고 자신을 검증해 보지 않았느냐?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 없이 자신과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족케 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앞에 놓인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각자의 결말과 종착지이다. 아마도 너희는 이 점을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결말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종착지로 이끄는지 등이 몇 가지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연구해 봤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리저리 찾아보고 고민한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였거나, 혹은 애매한 결론만 얻고 결국 자신에게 어떠한 결말이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그 실제 사정을 알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의 결말은 어떠할지, 자신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전에 어떤 일도 했었고, 어떤 말도 했어.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 그리고 어떤 일은 하나님을 만족케 해 드리지도 못하고 상심케 하기만 했어. 그 일로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신 것은 물론이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셨지. 그러니 내 결말은 미지수일 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말에 대해 불안해한다. “난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100% 확신해. 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자신이 있어. 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가 아주 어렵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자신은 구제 불능이고,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라는 안 된다고 여긴다. 혹은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자신에게는 결말이 없고, 자신은 좋은 종착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결말을 수도 없이 따져 본다. 자신의 앞날과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따져 보고 계획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로 대가를 치르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직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일을 감당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거나 모든 것을 바친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한다. 너희가 어떤 실행 방식을 택하든 그 방식이 중요하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외적인 행위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 실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실행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넘어지고 또 일부 거짓된 리더들이 넘어지면서 저희는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대가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해부했을 때 저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곳곳에서 하나님과 맞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이 닳았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의 마음속에는 진리 실행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식도 있고 기준도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하다니 무척 감동되는구나. 너희의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진리에 대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해석에 근접했다. 이는 너희가 주변의 사람, 일, 사물과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과 너희 눈으로 본 것에 대해 이미 자신만의 진정한 인식, 즉 진리에 근접한 인식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한다. 너희의 말이 완벽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너희의 인식은 이미 진리의 실체에 매우 가까워졌다. 너희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사람의 생각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대가를 치르고 외적 행위가 아주 좋아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외적 행위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고 확정할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흔히 그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있다고 여기느냐? 왜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진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았을 때 영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사람,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에게 미혹된다. 사람들은 글귀 도리를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하는 본질과 원칙, 일을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지 살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인성 본질을 전혀 분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탄복하고 우리러보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숭상하는 우상,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정과 직장을 내려놓고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 참으로 좋은 결말과 좋은 종착지가 있을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런 ‘생각’은 어떤 원인으로 초래된 것이냐?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일로 초래된 결과는 무엇이냐? 먼저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앞에서 언급한 사람의 관점과 실행법, 사람이 스스로 취한 실행 원칙,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 중시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요구와 무관하다. 사람이 중요시하는 것이 깊은 얕든, 글귀의 이치이든 실제이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사람이 진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 원칙을 찾아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도리어 지름길로 가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좋은 행위와 방법을 종합해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진리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바로 사람이 인위적인 좋은 행위로 진리 실행을 대체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항하는 밀천,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맞서는 밀천이 생기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서슴없이 하나님을 한쪽에 제쳐 놓고 자신의 마음속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 사람에게 이런 미련한 행위와 우매한 사고방식, 혹은 단편적인 사고방식과 실행법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알려 주겠다. 그 원인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데에 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혐오하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에게 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를 안다면, 사람에게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몇대로 다른 사람을 숭상할 수 있겠느냐? 또 일반 사람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사람의 견해는 다소 이성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괴된 사람을 함부로 자신의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길에서 제멋대로 몇 가지 간단한 규례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진리 실행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원래 주제로 돌아와 계속해서 결말에 관한 얘기를 해 보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신의 결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까?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사람의 결말이 아직 정해지기 전, 하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여 사람의 결말을 드러낼까?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일부 사람들은 사람의 결말이 무엇인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나뉘는지, 사람마다 각각 어떤 결말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아무 결과도 찾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 아주 조금만 언급되어 있을 뿐 내용이 많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이 드러나기 전까진 그 누구에게도 최후의 결과를 알려 주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종착지가 어떤지 미리 알려 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사람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 사람의 결말을 정하고 어떤 사역 원칙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고 드러내는지,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을지를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너희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럼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정하느냐? 조금 전에 너희가 일부를 얘기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흠족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가 이런 진리들을 실천하고, 스스로 원칙이라 생각하는 것에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저 하나님 말씀의 일부, 설교의 일부, 그리고 자신이 숭상하는 일부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마지막 결과가 어떠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계속 이를 고수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실천해 왔어. 그동안 많은 진리를 깨달았고, 지난날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지. 특히 사상과 관점,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흠족게 해 드렸고 얻은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을 수확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맺는 최종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 이런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해 드리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확신에 차 대답한다. “물론이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상부의 설교에 따라 실천하며, 계속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지금껏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옳바르다면, 결과도 틀림없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어떠하냐? 옳바르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일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행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다다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선 그런 걸 저한테 알려 주신 적도, 명확하게 지시하신 적도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저 쉬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흠족해하실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요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옳바르냐? 내가 봤을 때, 너희의 그런 실천과 생각, 관점에는 상상이 섞여 있고 다소 맹목적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맹목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살아남을 가망이 불투명하고 희박하다는 말인가요? 저희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말하려는 것과 내가 하려는 것으로 너희에게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증오하는지, 어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해 버리는 대상인지 더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모두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주제들에 관한 교제가 참으로 필요하지 않으냐? 나는 너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도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진리를 다 노트에 기록해 두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두며 준비를 해 둔다. 실천할 때가 되면 그 진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수시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혹은 눈앞에 연이어 놓인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도록, 아니면 그 진리들이 너희의 삶에 함께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든 마냥 행하기만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네가 행할 때 그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너의 행함과 생각과 이루려는 결실과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들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너희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할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겨 보는지 모른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 온 누군가의 체험이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맞는지 가늠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말일까? 너희 모두 잔뜩 기대하고 있지만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아마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오랜 시간 입에 달고 살 듯했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이 말을 입이 아닌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이다. 아주 간단한 말 아니냐? 간단하지만, 이 말을 진정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무게 있고, 실천할 가치가 있는, 진리 실체가 있는 생명의 언어이자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해야 할 도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너희에게는 진리가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 생각하고 되새겨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려 의심을 품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할까? 정말 중요할까?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를 요약하는 건 너무 간단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귀결시키는 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중 대다수는 아마 이 말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적어 두긴 하겠지만 마음속에 새겨 둘 생각은 없다. 그저 노트에 적어 두고, 한가할 때 펼쳐 되새겨 볼 뿐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기억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여기고, 적용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 말을 하겠느냐? 너희의 관점과 생각이 어떠하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기에 나는 반드시 말해 줘야 한다. 너희가 지금 이 말에 대해 어떻게 깨닫고 대하든,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사람이 이 말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라는 기준에 이룬다면, 틀림없이 살아남을 것이고, 좋은 결말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너의 결말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너희를 가늠하는지 실상을 우선 알려 주려는 것이다. 나는 방금 이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을까? 너희도 무척 알고 싶어 하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 보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지 검증한다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고 진리를 알려 주었다. 이 진리들은 사람이 지키고 행해야 할 도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도이다. 또한 사람이 삶 속에서, 인생 역정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것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고,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 만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내지 못한다면 그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흠족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결말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너희는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테지만, 많은 사람이 이미 관련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즉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시련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시련을 겪었으며, 어떤 사람은 잡혀가거나 고문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련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재물의 시련에 맞닥뜨렸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시련이 닥쳤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 그는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보려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네게 시련을 주어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할 때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 검증하려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제물을 관리하는 본분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 본분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제물을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너에게 닥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마련한 것이다. 너에게 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은밀히 관찰하며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네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는지 가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은 흔히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려는 것이 무엇이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신 이런 생각만 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으니 소홀히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지! 이걸 하나님의 제물이니까 손을 대선 안 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선 책임을 다했다고 여긴다. 이 시련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만족했을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을까? 너희가 말해 보아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물을 접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틀림없이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근접했지만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이 닥쳤을 때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책임이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이 닥쳤을 때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련으로 여겨야 한다. 일이 닥쳤을 때 네 마음속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니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을지 생각해야 한다. 방금 우리는 제물 보관에 대해 말했다. 제물과 관련 있고 또 너의 본분 및 책임과도 관련 있는 일이다. 그 책임은 마땅히 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이 주어지면서 시험도 따르지 않을까? 당연히 시험이 있다!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되기도 하고 사람의 사악하고 파괴된 성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이 굳게 서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굳게 서는 것 역시 너의 책임과 본분이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작은 일을 굳이 큰 문제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면 우리 곁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일단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검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어떠하냐? 너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 준다. 너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너에게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싶다는 이런 소망이 있다면, 네가 실천해 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라는 이 기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일이나 평소 사람들이 아예 언급하지 않는 일은 작은 일로 여기고 진리의 실천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면 가볍게 생각해 그냥 흘려보낸다. 사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때이다. 또한 너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더더욱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의 곁에서 너의 언행을 관찰하고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저는 왜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네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도를 가장 중요한 도로 삼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에 기반해 사람에게 행하는 미묘한 사역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정말 부주의한 사람이구나! 무엇이 큰일이고 무엇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 일에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다. 이 말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네.) 사람이 보기에 매일 닥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아주 크고 어떤 일은 아주 작다. 흔히 사람들은 큰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막상 큰일이 주어져도 사람의 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한 탓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며, 가치 있는 실제적 인식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가 하면 작은 일은 무시하면서 조금씩 흘려보낸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검증받고 시련받을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사람과 일, 사물과 환경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고 인도하려는 것을 네가 날마다, 더 나아가 매 순간 저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환경을 마련해 너를 은밀히 관찰하고 네 마음과 모든 생각을 감찰한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려고 하는지를

본다. 만일 네가 경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한 번도 참답게 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환경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에게 주어진 사람과 일이 진리나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환경과 시련을 주었음에도 너에게서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에게 수차례의 시련이 주어졌음에도 네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하나님이 준 시련이나 검증으로도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려 준 기회를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흘려보낸다면 그것은 엄청난 패역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또 크게 놀랄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슬퍼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시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에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사람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하나님의 검증을 밀어내고 도피하려 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태도만을 취한다. 어떤 태도일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을 증오하고 버린다. ‘증오와 버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증오’에는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있다. ‘버림’은 어떤 의미일까? 내게 있어서는 ‘포기한다’는 뜻이다. ‘포기’가 어떤 뜻인지 너희는 다 알고 있겠지? 결론적으로 ‘증오와 버림’이란 하나님이 위에서 말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취하는 마지막 반응이자 태도로, 사람에게 크게 혐오감과 반감을 가져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도를 전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내린 최종 결단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한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 알겠느냐? (날마다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방식으로 정하십니다.) ‘다른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간과 지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시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시련하는 것일까?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서, 네가 듣고 보고 직접 겪는 모든 일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시련하는 것이다. 이런 시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을 몇 년간 믿어 왔는데 왜 세계는 시련이 닥치지 않은 걸까요?” 시련이 닥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시련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도 시련이 몇 번 닥쳤지만 정확한 실천의 길을 몰랐었습니다. 실천했다 하더라도 제가 과연 그 시련 가운데 굳게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태인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 말이다. 즉,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드러낸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지를 확정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나? 말로야 쉽겠지만 실천하기도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서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형벌과 심판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체가 있게 됩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쉽게 해낼 수 있으리라 느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지금 너희는 많은 도를 듣고 진리 실제로 많은 양육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 이론과 의식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실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실제로 해내지 못할까?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원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자. (웁기입니다.) 웁을 언급한 김에 웁에 대해 말해 보자. 웁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정복하는 사역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다면 당시의 웁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어떨까? 너희는 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습니다.)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다. 적다! 틀림없이 그렇다!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마주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웁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왜 이 일을 언급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웁은 하나님을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일까? (깊이

패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패괴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일 뿐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평소 ‘깊이 패괴되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에 대해 충성심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도리와 글귀를 곧잘 말한다. 이런 실속 없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실천법이다. 다른 성질의 문제들을 똑같은 답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답을 듣길 원치 않는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일에 대해 너희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나는 여기서 날마다 보고 느낀다. 그래서 너희는 행하고 있고 나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행하고 있을 때 너희는 이 일의 본질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 일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본질은 무엇일까? 왜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못할까? 너희의 답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그것은 여기에 너희가 모르는 근본 원인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너희가 무척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려 주겠다.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여 그의 가족으로 여겼고 그의 사역 대상으로 여겼으며 정복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해 가졌던 태도다. 그러나 당시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을 생소하게 느끼며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에 대해 갈피를 못 잡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고,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대하고 행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점도 없었다. 사람의 관점이란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말한다.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력 저항하고 반대했다. 이것이 처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하나님이 사역한 후,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생명줄로 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기를 원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복할 대상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검증하고 시련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가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할 수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종착지를 얻을 기회가 있음을 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이나마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면적인 도리상의 인식도 조금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 점차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한 도, 선포한 진리,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서서히 ‘익숙’해졌다. 그런 이유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낯설지 않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진리의 도를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역도 무수히 많이 체험했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 그리고 상황의 방해와 저지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흡족게 하지 못했다. 사람은 점점 태만해지고 믿음을 잃어 갔으며 점차 자신의 결말이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사치스러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발전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마지못해 따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은 단지 진리와 그의 도를 사람에게 부어 준 뒤 여러 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방식으로 사람을 시련하려고 한다. 그 목적은 말씀과 진리와 그가 행하는 사역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다. 내 눈에 비친 많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와 글귀와 규례로만 삼아 지킬 뿐, 일을 처리하고 말하거나 또는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를 자신이 지켜야 할 도로 여기지 않는다. 특히 크나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혐오감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차례, 심지어 수백 차례 시련을 준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내는 그 어떤 명확한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결심과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처럼 사람에게 긍휼과 관용, 포용과 인내를 베푸는 대신 극도의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실망’은 누가 초래한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이토록 오랫동안 행한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적지 않은 요구를 했고 사람에게 많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실천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목표에 따라 명확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종합한 말로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즉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해석해 보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대상이자 사역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이자 대립적인 상대로 여겼다는 말이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깨달았느냐?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분명하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냈다. 하지만 너희가 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스스로 종합한 내용들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의식 있게 행한 것이 아니다. 그 내용들은 그저 너희가 어떤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일 뿐이다. 너희는 그런 목적들을 위해 억지로 규례들을 지키는데, 바로 그런 규례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와 더욱 멀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너희가 앞으로의 체험과 시간 속에서 방금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해 필요할 땐 존재한다 느끼고 불필요할 땐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말기를 바란다. 네가 잠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할 때는 이미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범위와 원칙 기준에 맞게 실천했지 제 뜻대로 하지 않았습시다.” 그렇다. 실천 방식은 맞다! 하지만 일이 닳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이 닳치면 어떻게 실천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막상 일이 닳치면 하나님은 공기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불쑥 드러내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자신의 뜻대로 실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하나님의 도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과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위험한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제가 위험한 경계에 있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 왔으니 하나님은 저를 버리실 수 없을 거라고 믿습시다. 하나님은 저를 차마 버리지 못하신테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오십 년간 주님을 믿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저는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오십 년간 저는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시다. 돈, 지위, 향락과 가족의 단란함 같은 것도 포기했습시다. 오랜 시간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재미있는 것도 즐긴 적이 없으며 좋은 곳에도 가 본 적이 없습시다. 심지어

일반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에게 실정을 알려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찌는 존재들이다. 자신의 상상으로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 상상과 규정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대체했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

그 어떤 생각과 결정이 있기 전에 너는 우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결말을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적도, 받은 고통의 양에 따라 정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방법은 사람의 관념에 가장 부합한다. 또한 현금을 많이 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르고 고난도 많이 받는 등 너희가 종종 보게 되는 사람들은 다 너희의 관념으로 볼 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 주고 살아 내는 것은 바로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기준인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희의 관념 속에 있는 기준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모두 사람이 상상해 낸 것이고, 사람의 관념이다. 네가 계속 너의 관념과 상상을 고집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너를 혐오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알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 많은 티를 내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며 논쟁하려고만 들기 때문이다. 너의 그런 행위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구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이런 관점을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요구에 따른다면 아주 좋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행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상상, 관점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다. 매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흠족게 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좋겠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에 곧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상과 관점을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할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 시련을 받는 횟수이고, 둘째는 시련을 통한 결과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

첫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시련이 닥칠 때[주: 이 시련 역시 네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임을 분명히 알게 해 줄 것이다. 너의 분량이 작다면 하나님은 네 분량에 맞고, 네가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을 마련하여 너를 검증한다. 너의 무엇을 검증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너의 태도를 검증한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일까? 당연히 중요하다! 그것도 특별히 중요하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여 사람에게 이런 사역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를 보려고 하고,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당시 네가 깨달은 진리가 많은 적든 하나님이 주는 시련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깨닫는 진리가 많아짐에 따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알맞은 시련을 마련할 것이다. 너에게 또다시 시련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때의 네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발전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왜 자꾸 사람의 태도를 보려고 하시죠?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태도까지 봐서 뭐 합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는 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곁에서 사람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하나 다 살피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 사람의 잘못과 과오, 더 나아가 사람의 패역과 배반 등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하여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 증거로 삼는다. 하나님의 사역이 점차 깊어질수록 네가 들은 진리도 점점 많아지고, 네가 받아들인 긍정적인 사물과 긍정적인 정보와 진리의 실재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시련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그 기간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에 발전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너의 관점과 네가 깨달은 진리 실재가 서로 부합되기를 요구한다.

너의 분량이 점차 커짐에 따라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네가

어릴 때 하나님은 매우 낮은 기준을 설정해 주지만, 너의 분량이 좀 커졌을 때는 그에 상응해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너에게 더 큰 시련이 임하게 할 것이다. 더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과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어진 네 인식과 진실한 경외심이다. 그때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바는 네 분량이 작을 때의 요구보다 더 높고 ‘가혹’할 것이다[주: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혹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기간, 하나님이 이루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저는 본분도 이행하고, 가정과 직장도 내려놓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 아닌가요? 거기다 더 어떻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까? 설마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요? 하나님은 대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사실, 각 단계의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나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나 사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네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입장에 서 있는지를 본다. 네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네가 어릴 때 네 믿음은 시련 가운데 한없이 나약하다. 깨달은 진리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면,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네가 들은 도와 깨달은 진리가 점점 많아지면, 너의 분량도 점차 성장하게 된다. 그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은 네가 어릴 때 요구했던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일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점차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마음이 점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면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시련을 준다. 시련들을 주는 기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어떤 태도도 보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과 태도를 보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태도와 결심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시련을 준 뒤 그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접고, 더 이상 관용도 베풀지 않으며 시련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역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결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결말은 결말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는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닐 수도 있고, 방해와 교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에 대해 명확한 태도와 관점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인내해 주지도,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 주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생애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여러 번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뛰어다녔고 책도 많이 보고 일도 많이 했다. 필기 노트도 열권이 넘고, 글귀와 이치도 많이 이해했다. 하지만 발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나 명확한 태도도 전혀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늘 베일에 싸여 있고 봉쇄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 봉쇄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행했는지는 더더욱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도 얻지 못했는데 이후라고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얻지 못할 대상에게 하나님이 강요를 하겠느냐?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겠느냐? (혐오하여 포기하시고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혐오하여 포기한다. 너희는 그 말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했구나. 아주 잘 알아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따를 때 어리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몰라 인위적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시련이 닥쳐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에 대해 아주 무감각하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시련 속에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한을 주어 그 기한 내에 하나님이 주는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관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관점들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혼쾌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일부 기본적인 진리들은 실천하면서도 큰 시련이 닥치면 이내 도망가고 포기하려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다. 그 결과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달렸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포기한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기 전에 네가 이미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궁색한 모습

또 다른 한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결말은 가장 비참하다. 그들은 내가 가장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류이다. 그들의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가혹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업자득’이다.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바른길을 가지 않아서 일찌감치 결말이 드러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다. 사람의 말을 빌려 하자면, 이런 사람은 가장 비참하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무척 열성적이고 대가도 많이 치렀으며, 하나님 사역의 앞날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상으로 가득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했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에게 아름다운 종착지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어떤 이유로 인해 도망가 버렸다. 이 ‘도망가 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버리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떠났고, 어떤 사람은 살림 때문에 떠났으며, 어떤 사람은 큰돈을 벌러 갔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애를 낳는 삶을 위해 떠났다.... 이런 부류 사람 중 일부는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또 일부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떠돌며 갖은 고생을 하고 나니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위로를 받고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난에서 벗어나거나 구원받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고자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한량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여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지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고 자기의 과거를 포용해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돌아와 본분을 이행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간 재물을 바치는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정할 것 같으냐? 너희가 말해 보아라.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교제를 듣고 나니 아마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말해 보아라. (그런 사람은 죽지 않는 결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오려는 것이지 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고는 돌아와 복을 받으려는 헛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받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그렇지? (네.)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라고 말했다. 그것도 아주 잘 말했다! ‘기회주의자’는 누구나 다 증오한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이익이 없는 일엔 움직이지 않으니 증오해야 마땅하다! 다른 관점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느냐?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이 곧 끝나고 사람의 결말을 정하실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보았거나 어떤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으로 진리를 추구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도중에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설령 정말 통회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참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체험했음에도 다시 세상으로, 사탄의 품속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과 사랑이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와 기쁨 곳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인데 왜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긍휼을 조금도 베풀지 않겠느냐? 조금이나마 긍휼을 베풀면 그에게도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전에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아무도 침륜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양 백 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하나님은 아흔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지금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점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할까? 이 문제는 사실 대답하기 어렵지 않다. 매우 간단하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설명과 추측이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대답들은 근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방금 너희 중 일부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며 확신에 찬 관점을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관점을 보였다.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애매모호한 태도다. 확신에 찬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어져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중립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연약함과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를 용서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도망간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으로선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체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만약 하나님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자신과 하나님의 관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사람을 무한히 사랑하기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고 하면 또 사람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희는 각자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관점은 너희의 생각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또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해 너희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희의 관점이 맞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너희들은 모두 걱정스럽지 않느냐? ‘어떤 관점이 맞는 걸까? 난 잘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더구나 하나님이 알려 주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사랑이잖아! 지난날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 받아들이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금 태도는 어떠신지 잘 모르니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아주 우스운 일 아니냐? 정말 너희를 난처하게 했구나. 이런 일에 대해 너희에게 올바른 관점이 없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너희 교회에 찾아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일이다. 이진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니냐?

방금 얘기한 이 일에 대해 내가 왜 너희의 생각을 물어보았겠느냐? 너희의 관점을 테스트하려 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려 한 것이다. 답은 무엇이나? 그 답은 너희가 말한 관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은 다 추측하고 상상해 낸 것이다. 무엇을 '추측'이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도 옳은지 그른지 모르면서 그런 애매한 관점을 말한다. 이런 사실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나님의 마음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도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해 추측하거나 아무 대답이나 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태도이나? 이는 하나의 사실을 증명한다. 즉,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기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은 너희가 일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를까?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태도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구해 본 적이 있느냐? 교제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을 실증한다. 즉, 네가 믿는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뜻만 되새기고 리더의 뜻만 되새기며, 하나님 말씀 겉면의 도리적인 뜻만 되새길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상황의 본질은 아주 심각하다! 오랜 세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을 보아 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 왔느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기처럼 대하며 믿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느끼지도 의식하지도 못했고,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잠재의식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며 믿어 왔다. 즉,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석으로 대하며 믿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에겐 회로애락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석상 같아서 어떤 일에도 태도나 관점이나 생각이 없고, 사람의 뜻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대한 존재로 여겼다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가 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과 사랑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상상해 낸다. 그렇게 상상해 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상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으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니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잘못, 과오, 패역은 일시적으로 드러난 성품이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관용을 베풀고 인내할 것이고,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므로 여전히 구원받을 가망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믿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 하나님 말씀 책을 보배처럼 여기면서 날마다 보고 읽었겠지만, 막상 진정한 하나님은 한쪽에 방치해 두고 그를 공기처럼, 사람처럼 여겼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목석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일이 닥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너희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과 내면에서 나오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관점이 무엇인지만 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억지로 하나님께 씌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을 준칙으로 여겨 고수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너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태도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각종 오해를 버려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는 악인의 악행을 보면 증오할까? (네.) 그는 우매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슬퍼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제물을 흠쳐 먹는 것을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증오하십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사람이 하나님을 흐리멍덩히 믿으면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 ‘흐리멍덩한’ 태도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아니니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상대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런 자를 경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차갑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한쪽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즉, 깨우침과 빛 비춤,

채찍질과 징계 등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열외로 취급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 자신의 행정 법령을 거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극도로 혐오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 극도로 노한다! ‘노’는 일종의 정서이고 심정일 뿐 명확한 태도를 뜻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서와 심정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말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결말이다! 그렇다면 ‘극도로 혐오’하여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단 상대하지 않고 한쪽에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그 뜻은 무엇이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결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류 사람들에게 결말을 줄 생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정상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느냐?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나쁜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 주겠다.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고, 더 이상 그 어떤 요행심도 품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용을 끝없이 베풀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과오와 패역을 한없이 참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도 그 부류의 사람들을 몇몇 만나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며 통곡하더군요. 평소에도 무척 즐거워하는 걸 봐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감동받거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태시키고 포기하려고 작정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결말은 없어진 것이다. 그가 기도하며 스스로 얼마나 만족스러워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크든 그런 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그를 혐오하여 포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한 그 순간 그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남겨 두었다가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다. 하지만 사람은 그의 본질에 존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잊어버린다. 그에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를 제멋대로 거슬러도 아무 느낌과 반응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에게 긍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원칙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고 진실로

존재하는 분이지, 사람이 상상해 낸 목석이나 어떤 물체가 아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마땅히 때 순간 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태도를 중시하며, 그의 느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강요하여 사람의 방식과 상상대로 사람을 대해 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를 시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심각성을 알았다면 너희 모두 조심스럽게 행하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 부디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권고한다!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말하지도, 일을 하지도 말며, 함부로 딱지를 붙이지 말고, 함부로 결론짓는 일은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리면서 구해야 한다.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행실이다. 네가 우선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이런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무지몽매하고 사리를 모른다고 탓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너의 태도로 인하여 너를 기억하고 인도해 깨우쳐 주거나 혹은 어리고 무지한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와 반대라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며 정의를 내리는 너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고 징계할 것이다. 나아가 너에게 벌을 주거나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 결론은 아마 너의 결말과 관련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일해서도 안 된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속으로 많이 되새겨 보고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네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 이런 원칙에 따라 실천하고, 특히 네가 모르는 일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인도하며 실천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사람이 어떤 행실을 보이든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있을 것이며, 너의 행실에 따라 정확하고 합당한 평가를 내려 줄 것이다. 네가 마지막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은 너의 모든 행위를 종합하여 너의 결말을 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탄복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행한 모든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결말은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 태도는 너희가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를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종착지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20년 넘게 사역하였다. 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너희는 자신의 행실에 대해 다소 모호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의 행실을 확실히 진실하게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전하는 도를 듣기 시작해서부터 점점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본분을 이행하기까지, 사람이 이 기간에 보였던 각종 행실을 다 기록해 두었다. 본분을 이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련이 닥치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등을 하나님은 기록부에 다 기록해 두었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는 아마 무척 흐릿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흐릿하지 않고 매우 분명하다. 모든 사람의 결말, 모든 사람의 운명 및 앞날과 관련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심혈이 들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조금도 등한시하지 않고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해 이런 기록부를 작성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노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 두고 있다. 이 기간 하나님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바로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는 무척 진실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또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결말을 하나님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건지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누가 정한다고? (하나님이요.) 여전히 모르는구나! 홍콩의 형제자매들이 먼저 말해 보아라. 누가 정하느냐? (사람이 스스로 정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한다고? 그 말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냐?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가는 길에 근거해 사람의 결말을 정하십니다.) 객관적인 대답이었다. 너희에게 알려 줘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는 기간 사람에게 기준을 하나 정해 주었다. 그 기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사람의 결말을 가늠한다. 네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따라 행한다면 좋은 결말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이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말을 누가 정하는지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며 아름다운 종착지를 예비해 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대상으로, 위에서 말한 결말과 종착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주는 것들이다. 사역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 사람은 구원받는 대상이다. 구원받는 대상이란 게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 대상의 태도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너는 기준도 모르고 목표도 없다. 기준과 목표가 있더라도 네가 협력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너는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결말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대체 누가 결말을 정하는 건지 알았겠지?

사람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기 좋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한 주제를 교제할 때, 너희는 어떤 사실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지금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인내하고, 계속 사랑과 긍휼을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소위 탕자의 회개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질문을 했을 때, 너희의 대답은 그리 명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의 상징으로 규정해 버린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하든, 어떻게 거역하든 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람을 포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어리고 무지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패역도 긍휼히 여기실 거야.’ 정말 그러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를 한 차례 혹은 몇 차례 느끼고 난 후 그 경험을 하나님을 알게 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을 인내해 주고 긍휼히 여겨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가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 태도의 기준이라고 평생토록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을 가지고 영원히 관용을 베풀어 줄 거라고 규정지어 버린다. 게다가 그 관용이란 기한도 조건도 없고, 나아가 아무 원칙도 없는 관용이다. 이런 인식법이 맞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희는 어리벉벉해지는데,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적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너희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들과 이런 측면의 진리들이 그저 이론과 글자로만 기억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아무도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느끼거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모두 흐리멍덩하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오만불손하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이런 태도로 어떤 상황이 초래되었느냐? 너희는 늘 하나님을 규정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전부를 얻었다고 생각하곤 하나님을 그곳에 규정지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관용과 인내도 베풀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은 속으로 이 말에 반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제가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고 저는 당신을 계속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긍휼과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없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사랑과 인내와 관용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셔야 저는 당신을 따를 것이고,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긍휼이 있어야 저의 패역과 과오가 한없이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 제가 언제 어디서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언제 어디서 당신을 거슬러 노하게 해도 당신은 저에 대해 그 어떤 견해를 가지거나 규정을 내려선 안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 주는 도구나 아름다운 종착지를 가져다주는 이용 대상으로 생각할 때, 너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생생히 살아 있는 하나님을 네 대립 면에 놓고 원수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내 눈에 비친 모습이다. 네가 아무리 말끝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저는 성품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본분을 잘 이행하고 싶습니다” 등등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번지르르 그럴듯한 이론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껏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익힌 규례나 도리, 학설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자연스레 하나님을 자신과 대립하는 편에 놓아두게 되었다. 글귀와 도리는 익혔지만 진정으로 진리의 실제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알며,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참 슬픈 일이다!

나는 동영상에서 몇몇 자매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책을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매우 높이 받쳐 들고 있었다. 한 장면이었지만 내게는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높이 받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책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 전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문제와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마음속에 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던지며 진지하게 파고들 때 너희의 대답은 상상과 추측 일색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운 말투로 반문하기까지 한다. 나는 이런 태도들을 보고 너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많은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왜 슬퍼하는지, 왜 노하는지, 왜 사람을 혐오하여 포기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각종 행실을 보기만 할 뿐 아무런 태도도, 생각도 없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아무런 태도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를 이미 책에서 다 말씀했고, 이미 사람에게 다 나타냈으니 수시로 반복해서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지만 여전히 태도와 관점이 있으며, 사람에 대한 요구 기준이 있다. 설령 사람이 그를 알아 가지 않고 그에게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한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놀랍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사실 이걸 정말 단순한 상황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애매모호한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모르고 있으니 내가 알려 주겠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도망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 확신했으면서도 여러 이유로 인해 아무 말 없이 떠나 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그들은 작별 인사도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마음대로 떠나 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 두고, 먼저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살펴보자.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떠난 그 순간부터 그의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마침표를 찍어 준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건 이미 하나님을 원치 않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를

원하겠느냐? 또한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았고, 과격하거나 악랄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밖에서 놀 만큼 놀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시 돌아올 거야.’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제가 밖에서 상처 입거나, 바깥세상의 어둡고 사악한 면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속으로 계산해 놓았고, 자신을 위한 퇴로를 남겨 두었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혼자만의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철저히 포기했고, 속으로 이미 그의 결말을 정해 두었다. 어떤 결말일까? 그 사람을 쥐들과 같이 분류해 두었다가 그 쥐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종 보게 된다. 누군가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징벌을 받지 않는 상황 말이다. 하나님은 원칙 있게 일을 한다. 어떤 일들은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만 정해 뒀기에 사람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해서 진실한 일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가 보지 못한 일면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생각과 결정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도망친 사람은 참도를 배반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징벌을 내릴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노할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은 위엄과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아무에게나 죽임을 당하는 온순한 양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며,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공기도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거슬러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거슬러 노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한 마디 말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 때문일 수도 있으며, 어떤 악랄한 행위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아주 온화한 행위, 사람의 관점에서나 사람의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땐 넘어갈 수 있는 행위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학설이나 이론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네가 일단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하면 너의 기회는 사라져 버리고, 그에 따라 너의 마지막 날도 다가오게 된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일단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도는 네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시련을 겪고 징계를 경험해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네 마음속 태도와 네가 드러내는 본질이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와 진리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이미 왔다는 소식도 들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도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된 상황이나 흐릿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강요당해 떠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의식과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들은 방향을 잃거나 버려지게 되어 떠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은 양 떼에서 잃어버린 어린양이 아니고, 방향을 잃은 탕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런 상태와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 그들에게 수습할 수 없는 결말을 가져다준 것이다. 이런 결말이 무섭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징벌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거슬러 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더욱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이미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거슬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사람이 참도를 확신한 후 의식이 또렷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는 길을 막아 버린다.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대문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닫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 원칙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영원히 문밖에 버려질 것이다. 너희 중 일부는 아마 성경 속 모세 이야기를 읽어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뒤 250명의 족장들은 모세의 여러 행실과 각종 이유 때문에 불복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에게 불복한 것이냐?

그들은 모세에게 불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에 불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에 불복한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 매우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다! 최소한 글자 자체로 표현된 뜻은 심각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별일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반항하는 말이나 단어가 없고, 모독의 뜻도 없다. 그저 평범한 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큰 노를 불러일으켰을까? 그들의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 몇 마디 말에 나타난 성품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슬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 그들의 최종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 사람의 관점과 태도는 무엇이고, 왜 그의 관점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런 처분을 초래한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배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이다. 성경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는 이 일에 대해 잘 알았겠지?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일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행실을 보인다. 하나님은 사람의 각기 다른 행실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그가 목석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태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태도를 알아 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규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거스르지 않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이로써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글귀의 이치나 이론을 하나님께 씌우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보지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다. 만약 네가 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 보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거야.’ 네가 한편으론 이런 관점을 가진 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한편으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미 위험한 경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진리 실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모르며, 생명과 분량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 얄디얄은 수준의 도리밖에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이다.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직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 기뻐하겠느냐? 마음에 위로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사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공기처럼 여겨 뒷전에 미뤄 두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있고 확실히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는 셋째 하늘에서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시각각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언행을 감찰하고 있으며, 너의 행실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감찰하고 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든 원치 않든 너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 너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있고, 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자신을 하나님 손안의 귀염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매우 총애하고 하나님에겐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고정불변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라. 꿈꾸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대한다. 그는 아주 신중하고 엄숙하게 정복 사역과 구원 사역을 행한다. 이것이 그의 경영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엄격하고 진지한 태도로 대한다.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어르고 달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총애나 지나친 애정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관용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이 아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고, 가엾게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관용에는 그의 기대가 깃들여 있으며, 그의 긍휼과 관용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밑천이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분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규례가 아니다. 인류에 대한 그의 마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점차 바뀌고 달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아마 너는 이 일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여기면서 너의 고정 관념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상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일은 너의 관념과 정반대이다. 네가 자신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는 순간, 너는 이미 하나님을 거슬러 노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네 상상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의 말처럼 일을 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대하라고 일깨워 주고자 한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원칙에 따라 실천하는 법을 배우라고 일깨워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태도에 관한 일을 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올바라야 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실히 구해야 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장난감처럼 여겨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결말을 정하는 과정에서 너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든, 심판과 형벌을 주든 결론적으로 너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의 태도와 인식에 달려 있다. 네가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기억했겠지? 내가 한 말들은 사실이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너희의 내적 상태와 분량을 감안해 나는 더 높은 요구로 너희의 적극성을 꺾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너희 마음을 처량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에 대해 큰 실망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반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흐리멍덩하게 대하지 말고, 가장 큰 일로 여겨 마음속에 담아 두고, 실제와 연결 짓고 실생활과 연결 짓기를 바란다. 입에만 달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일은 목숨과 결부된 일이고,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우스갯소리나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지 마라! 오늘 너희와 나눈 말을 통해 너희가 뭐라도 깨닫고 얻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한 말에 대해 또 궁금한 것이 있느냐?

이런 주제는 다소 새롭기도 하고, 너희의 관점이나 너희가 평소 추구하고 중시하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제하고 나면 내가 한 말들에 대해 너희에게 공통의 인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들은 아주 새롭고 너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너희에게 겁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태도도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그렇게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무턱대고 믿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흐리멍덩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너희가 알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각 부류의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떤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의 요구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그가 요구한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말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너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판단의 기준이 생겨 자신이 이 길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평소 너희가 교제할 때 일부 사람들이 늘 말해 오던 주제만 다루다 보니 교제의 범위가 매우 좁고 내용도 너무 얕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범위 기준과 거리가 멀고 차이도 난다.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도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존 말씀을 그저 숭상할 대상으로 삼고, 의식과 규례로만 삼게 될 뿐이다. 그게 다이다! 사실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 마음을 얻은 적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여긴다. 그것도 솔직한 말이다. 확실히 좀 어렵다! 본분을 이행할 때 사람에게 외적인 일을 하라고 하거나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주 쉽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다 인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된 영역은 사람에게 있어 분명 어려움이 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실제에 진입하는 일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네가 첫걸음을 떼고 진입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다

방금 누가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읊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전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다. 그렇지? 사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다. 당시 읊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재자로 여겼다. 그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창조주로 여겨 경배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도 대적할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첫 번째 원인은, 지금의 사람은 사탄에 의해 심히 패괴되었고, 사탄의 본성이 깊이 뿌리박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의 대립 상대로 여기고 사람의 원수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이처럼 간단하다. 이것도 조금 전 교제할 때 언급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이 원인이 맞지 않느냐? 설령 네가 하나님에 대해 인식이

좀 있을지라도 너의 인식은 어떤 것이냐?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알려 준 것 아니냐? 너는 고작 이런 것과 관련된 이론과 도리만 알 뿐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면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느냐?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실제적인 인식과 체험이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는다면 알 수 있겠느냐?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진실한 인식을 갖추고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얼마나 알고 있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기 전까진 하나님은 너의 원수인 것이다. 또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전까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대립되는 지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사탄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너는 아마 하루 세끼 시중들며, 차를 대접하고 물을 떠다 드리며, 그의 생활을 돌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생기면 사람의 관점은 늘 하나님과 어긋나고, 사람은 늘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이 겉으로는 그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와 마음이 잘 맞음을 뜻하진 않는다. 일단 일이 생기면 사람은 거역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치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대치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대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대립되는 지점에 놓고 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런 본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대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추측과 의심이다. 그런 다음 사람은 재빨리 저항하는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과 대립할 것이다. 이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하나님을 ‘논박’하거나 하나님과 겨루려 들 것이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선택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 가령 하나님에 관한 어떤 유언비어나 비방을 들었을 때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 ‘그 유언비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니 조용히 지켜봐야지.’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 이 유언비어는 진짜일까?’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은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느냐? 배반이 아니냐? 이 일이 닥치기 전까진 그 사람의 관점이 보이지 않으니 그는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은 즉시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립한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립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억제하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그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겠지?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사악하고, 이 인류가 이렇게 사악한데 너는 왜 그들에 대해서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냐? 너 스스로가 그렇게 나쁜데 왜 관념을 가지지 않느냐? 몇 마디 유언비어나 비방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큰 관념과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는데, 너의 분량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모기나 역겨운 파리 몇 마리가 ‘앵앵거렸을’ 뿐인데 미혹되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느냐?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차갑게 무시해 버린다. 아예 상대하지 않는다. 이 무지한 자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그를 필사적으로 적대하려고 하고, 그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일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에게 상처 주는 것을 원하느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내 말은 사실이다!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늘 너희의 흉터를 들춰내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애초에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애써 지키고 보호하는 위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상상해 낸 것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밝히는 편이 좋겠다. 그러면 ‘진상이 환히 드러나지’ 않겠느냐? 참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니 너희 모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은 바뀐 적이 없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처세 원칙과 방식을 지키고 있고, 이방인과 같은 생존

법칙과 신념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취미로만 믿을 뿐이고, 하나님을 정신적 의지처로만 여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은 관심을 가지려고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강렬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입으로만 인정하면서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그 어떤 실제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현명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나요? 본분을 이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 외적 행실이지 사람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실을 보지 않고 사람의 내적 본질만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시죠? 난 이 일을 납득할 수 없고 저 일도 납득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에 나는 이같이 답할 것이다. “너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일이 너와 상관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 흠잡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를 믿기라도 하느냐? 그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느냐? 너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의 행사가 너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너의 위치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네게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있겠느냐?”

훈계의 말씀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괴롭지 않느냐? 듣기 싫거나 받아들이기 싫을지라도 이는 다 사실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태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아 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희는 내 말이 듣기 거북하다고 탓하지 말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고 탓하지도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지 너희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든 모두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기 바라고, 너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의 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흐리멍덩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결말을 정하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언젠가 네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미 내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말을 분명히 해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자신의 결말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태도로 사람들의 결말을 대하고 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가늠 방식이 있고, 자신만의 요구 기준이 있다. 그 가늠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의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제 안심이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안녕!

2013년 10월 17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1

오늘은 중요한 주제를 놓고 교제하겠다.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이자 반드시 접하게 되는 문제이고, 무척 중요하고 절대 피할 수 없으며 벗어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중요함이란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오늘 이 주제는 일단 놔두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를 얘기해 보자.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냐?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이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사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을 매일 체험하니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낮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평생 연구하고 탐구하며 중시하는 주제라 낮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따르고 믿고 추구하는 대상이기에 우리에게 낮설지 않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춘 적이 없다. 그는 사역하는 기간 줄곧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여러 방식으로 말씀의 선포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그 자신과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뜻과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문자로만 보면 이 주제들은 모두에게 결코 낮설지가 않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실제로는 아주 낮설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부 성품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이 낮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대다수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은 대체로 책에 국한되어 있고, 개인의 체험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람의 상상에 국한되어 있고, 눈으로 본 사실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참된 하나님 자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먼’ 것일까? 사람은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약간의 의식이나 느낌만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볼 때, 그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참된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감추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피한 적도 없고, 스스로를 숨긴 적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공개되어 있고,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마주한다. 또한 그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진다. 그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한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며 공급하고 있다. 좋은 환경이든 열악한 환경이든, 각 시대와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의 소유와 어떠한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그의 생명이 쉼 없이 사람에게 공급되고 사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감추어져 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의 결말이 임박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심판받고 정죄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들은 의식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한 하나님과 관념 속의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들은 참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또한 그에게 등을 돌리고 가까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기 좋게 꾸미고 포장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자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 자신은 이들과 무관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관념과 상상,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내린 규정들이다. 일단 이들이 참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와 믿음과 추구하는 것이 정죄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아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깨닫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차라리 하나님이 허구적이고 공허하며 막연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한 바와 똑같아서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없이 채워 줄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고, 축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도록 하며,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담대함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도록 말이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은혜와 축복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시 상상과 글귀상의 말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보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실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정복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마련해 준 환경과 하나님이 배정한 사람과 일, 사물들을 체험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본질을 가장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참된 일면을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히 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 그들이 더 이상

상상과 관념 속에서, 막연한 상태에서 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사람의 체험 과정에서 언제나 필요하고, 사람에게 평생토록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단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자신의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보이는 태도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패권을 다투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심지어 부인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참된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상상과 야심을 충족시키길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집과 생업까지 버릴지라도 악행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저지른다. 심지어 제물을 흠쳐 먹는 자들, 제물을 함부로 쓰는 자들도 있다. 또 어떤 자들은 뒤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떤 자들은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고 높이며 사람이나 지위를 두고 하나님과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식과 수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 사람을 통제할 생각만 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고의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한다. 이런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저는 패괴된 사람입니다. 저 역시 패괴되어 교만하니 저를 우러러보지 마세요. 제가 일을 잘했다 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무척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도 증거하지도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단어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각자가 받는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다. 겉핥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일 것이고, 진리와 실재를 추구하고 자주 하나님 앞으로 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기에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멍해지면서 반발심이 잔뜩 생겨난다. 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주제라고 느낀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에게 무척 유익한 주제로, 그의 생명 체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믿는 근간이고,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며,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새겨듣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 네가 이 주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깨닫든지 간에 결코 이 주제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면서부터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역이었다. 간단한 사역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심화되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 사역을 다량으로 행하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 그는 두 차례 성육신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알기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하나님의 진실한 면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모습이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열납한 의인 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놀랄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참모습을 감추시는 이유는 사람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데에 반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없는데, 보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하나님은 사역을 경영하시느라 매일 바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여력이 없으실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참모습을 보여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취한 일이다. 즉,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이 그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너희는 다 알아들었겠지?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껏 사람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낸 적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한다고 여기느냐? (네.) 이는 분명하다! 하나님 본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본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이것이 인류가 탐구해야 할 문제일까? 아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와 관련된 주제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탐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 주제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왜 지금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감췄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창조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 왔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인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적대적인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껏 인류에게 그의 본체를 나타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춘 유일한 이유이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겠지?

하나님은 경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최선을 다해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본체는 감추어 왔지만, 계속 인류와 함께하면서 인류에게 사역하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본질로 온 인류를 인도하고 있고, 그의 큰 능력과 지혜와 권병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율법시대가 있었고, 은혜시대가 있었으며, 지금의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남김없이 사람에게 나타내 사람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류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인류가 접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완전한 하나님 자신의 발현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서서 사역하더라도, 그는 그의 참된 신분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과 말씀을 한다. 셋째 하늘의 높이에서든, 육신의 위치에서든, 심지어 보통 사람의 위치에서든,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든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어떠한 거짓도, 숨김도 없다. 그는 사역하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낸다. 조금도 남김없이 말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어떠함으로 인류를 인도한다. 이렇듯 인류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율법시대, 즉 인류의 요람시대를 지나왔다.

율법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육신했으며, 그때 성육신 하나님은 장장 33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다. 이 33년 반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긴 편일까? (길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는다. 그래서 33년 반은 사람에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성육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33년 반은 무척 긴 시간이다. 그는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맡았다. 이는 그가 보통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일을 맡아야 함과 동시에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은혜시대에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물론 지금의 사람들은 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 세부적인 사실이 얼마나 기록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 당시 하나님의 사역에는 위험과 고난이 가득했다. 패괴된 사람에게 33년 반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고 고통을 줌 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아무 오점도 없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견뎌 내야 했고, 죄인과 함께 먹고 지내며 생활해야 했다. 이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 그는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것의 주재자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와서 패괴된 인류의 유린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인류를 고통의 세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는 사람에게 정죄당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그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그가 받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한다.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이 단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받은 모든 굴욕과 대가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속량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 대가이고 생명의 대가이며, 그 어떠한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이 있기에 그는 그 고통을 감당하고 이런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떠한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이 있지 않느냐? 인류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시대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제물을 얻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구속되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에 대해 사람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과 뜻에 대해 낯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각 시기에 행한 사역의 내용 혹은 그 사역들을 행하면서 생겨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 뿐이다. 이 내용과 이야기들은 기껏해야 하나님과 관련한 정보나 전설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은혜시대의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과 무척 친밀하게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율법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전무했다.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성육신했다. 이 방식은 첫 번째 성육신과 같다. 이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고, 해야 할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사람의 패역과 무지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다. 이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처음 인류가 생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뜻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의 본질과 성품과 뜻을 감춘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형편없을 정도로 적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본체를 감춤과 동시에 매 순간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에게 그의 뜻과 성품과 본질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눈이 멀고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전혀 보지 못할 뿐이다. 만일 지금의 이런 상황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이 과연 쉬울까? 대답하기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않느냐?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흐릿하기 때문이다. 어렵다는 대답도 옳지 않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사귀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과 어느 정도 마음의 감응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의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다소나마 감성적인 인식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에서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얻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람이 얻은 것은 무척 많다. 하지만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고, 우매하며, 패역하고, 마음에 온갖 속셈을 품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이 잃은 것도 너무 많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 적으냐? 하나님은 그의 본체를 감추기는 했지만 그의 소유와 어떠함과 생명을 전부 사람에게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지금의 이런 상태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적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울인 심혈을 헛되지 않게 하고, 사람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자리를 회복할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이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우선 나는 일부 성경 구절들을 찾아 놓았다. 다음 자료들은 성경에서 발췌한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삼으라고 내가 특별히 찾은 것들이다. 여기서 이 구절들을 함께 나누며 과거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면서 어떤 성품을 나타냈는지, 하나님의 어떤 본질들을 사람이 모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오래된 구절들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사람이

알지도, 들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노아를 언급하는 건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성경 구절들은 오늘 나눌 주제와 관련해 매우 유익하다. 이 구절들은 오늘 나눌 주제의 교재이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내 교제가 끝나면 너희는 내가 이 구절들을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은 이 말씀들을 본 적이 있을 테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일단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본 뒤 다시 구체적으로 교제해 보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선조다. 성경 속 인물을 말하라면 먼저 이 두 사람을 언급할 것이다. 그다음 인물은 노아다.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선조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 너희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 아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소돔이 멸망한 이야기에서 누가 언급되었느냐? (롯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롯을 언급하지 않았다. 누구를 언급했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이야기에서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언급했다. 보았느냐? 다섯 번째 인물은 누구냐? (욥입니다.) 이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는 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겠지? 관심이 많다면 너희는 성경 속 욥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읽어 본 적이 있느냐? 욥이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느냐? 많게는 몇 번이나 읽었느냐? 자주 보았느냐? 홍콩의 자매가 말해 보아라. (전에 은혜시대 때 한두 번 읽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읽은 적이 없느냐?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이 단계 사역에서 하나님은 욥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수차례 언급했는데도’ 너희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너희는 좋은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언급한 욥의 이야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만 만족할 뿐, 욥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하나님이 욥을 수차례 언급한 의도에는 관심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너희는 대체 무엇을 중시하느냐? 하나님이 언급한 이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알아보려 하지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인 것이냐?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니냐? 이는 너희 대다수가 실제적인 것에 힘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급하는 인물과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주목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든 없든, 바로 읽고 이해한 다음 본받으려고 애쓸 것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태도다.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욥의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없으니, 문제를 잘 보여 주는구나.

우리가 방금 언급한 주제로 돌아가 보자. 구약의 율법시대와 관련된 성경 내용 중 나는 주로 몇몇 인물의 이야기를 골랐다. 이 이야기들은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귀에 익을 것이다. 이 인물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사역과 그들에게 한 말씀이 지금 사람들에게도 와닿고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시 어떻게 사역했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구절들을 찾은 목적은 이 이야기들과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와 성품을 알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일면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의 상상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멈추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고 알라고 하면, 너는 막막하고 무력하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고, 이 방법과 경로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진실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절실히 느끼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 이야기들과 성경 구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선별한 구절들이 쓸데없다고 느껴지느냐? 나는 방금 너희에게 언급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너희에게 이런 인물의 이야기를 보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역했고,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떤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통해 알게 하려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사역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결합하여 하나님에 관해 소상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소상한 내용들은 진실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먼저 ‘아담과 하와’와 관련된 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일단 성경을 읽도록 하자.

1. 아담과 하와

1)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

창 2:15~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관련된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관련 있는 이 말씀을 골랐을까? 너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아담의 그림이 떠오르느냐? 상상해 보아라. 너희가 그 입장이라면 너희 마음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장면은 너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걸 감동적이고 따뜻한 장면이다.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데, 양자의 친밀한 관계는 사람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져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 사람은 순진무구하고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염려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사람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당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당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인류에 대한 그의 걱정이 담겨 있다. 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당부이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걱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책임은 무엇일까?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바랐는데,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런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사람을 염려하기 시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만물 중 오직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당부를 한 것이다. 이 당부에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다.

이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절실히 와닿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도 너희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느껴지느냐?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겠지? 그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이 몇 마디 말씀을 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만일 네가 인성이 없는 사람으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네가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너는 따스함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염려를 느낄 것이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것이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은 이 단계 사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의 사람 중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현실적인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교제하자.

2)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다

창 2:18~20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 2:22~23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다’와 관련된 구절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다. 이 말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뒤 아담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느냐? 글자를 알았느냐? 하나님이 각종 생물을 창조한 뒤에 아담은 각종 생물을 보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 주었느냐? 물론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각종 생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어 주어야 할지를 알았을까?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게 어떤 것을 더해 주었냐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위의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었음을 증명해 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너희는 새겨들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이 역시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생물들의 이름을 확정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기에도 내가 꼭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그의 지혜와 능력, 소유와 어떠함도 주었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한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은 열납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 생물의 이름을 고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담이 부른 대로 하나님은 ‘인정’ 해주어 그 생물의 이름을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다른 의견이 있었을까? 없었다. 이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고, 사람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했다.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긍정적인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긍정되고 인정받고 열납된다. 하나님은 아무런 평가나 비판도 하지 않는다. 이는 어떠한 인류도, 어떠한 악령이나 사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을 보았느냐? 사람이라면, 패괴된 사람 혹은 사탄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자신을 대표해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절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세력과 그 지위를 놓고 다투지 않겠느냐? 반드시 다투는 것이다! 이때 패괴된 사람 혹은 사탄이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담이 한 일을 부인했을 것이다. 자신에게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있고 독창적인 견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담이 한 모든 일을 부정했을 것이다. “네가 ‘이것’이라고 부르겠다면 난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저것’이라고 부를 거야. 네가 ‘장 씨’라고 부르면, 난 ‘이 씨’라고 부를 거야. 반드시 내 우수함을 보여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무슨 본성이냐? 교만이 아니냐? 반면 하나님은 어떠하냐? 이런 성품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한 일에 대해 이상한 행동, 반대하는 행동을 보였느냐? 분명히 말하건대 없었다! 하나님이 나타낸 성품에는 고집이나 교만이나 독선이 없다. 이 점을 위의 대목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냈는지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방금 해석한 내용들에 대해 너희는 인정하느냐? 아담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대놓고 “잘했다. 옳다. 찬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다. 그는 아담이 한 일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다. 이는 창세 이후 인류가 하나님의 당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행한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을 대신해 행한 일이자 하나님을 대표해 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지혜에서 비롯된 일로, 좋고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때 아담이 한 일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명히 나타내 보인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부 소유와 어떠함과 지혜를 더해 준 것은 사람이 그를 선명히 나타내는 생명체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또한 그러한 생명체가 하나님을 대표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었다.

3)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창 3:20~21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지어 준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 이는 지음 받은 아담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고를 하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지금 연구나 토론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내가 말하려는 세 번째 성경 내용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는 부분을 살펴보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평생토록 이 속에 어떤 뜻이 내포돼 있는지 모를 것이다. 먼저 너희에게 약간의 단서를 줘 보겠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에덴동산을 떠올려 보거라.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봤다.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었으므로 숨어 버렸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하나님을 뵈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므로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옷을 지어 입혔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인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준 그 옷은 가죽옷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준 첫 번째 옷이다. 가죽옷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고급 옷으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혹자가 너에게 인류의 선조가 최초로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고 묻는다면, 너는 “가죽옷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 가죽옷은 누가 지어 준 것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 준 것이다. 이 부분은 거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방금 나의 묘사를 듣고, 너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지 않느냐? 분명 대략적인 윤곽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에게 인류가 입은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 알려 주려고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은 가족옷에 있지 않다.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나타낸 성품, 소유와 어떠함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으로 아담, 하와와 함께 있었느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분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신분으로 나타났느냐? 홍콩의 형제자매들이 대답해 보아라. (부모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어떤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 (가장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대만의 형제자매들이 말해 보아라.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신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가장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부모의 신분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모두 아주 적절한 대답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창조하여 그들을 동반자로 삼았고, 그들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의식주를 돌보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 신분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그 일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고지상함도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신묘막측함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낮춤과 자비,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책임과 보호만 보았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흡사 자식을 두고 걱정하는 부모와 같았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볼 수도 만질 수도 있는 진실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대한 지위를 가진 자라 자처하지 않고 가족으로 직접 인류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족옷으로 치부를 감추든 추위를 막든 어쨌든 하나님은 손수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옷을 지어 사람의 몸을 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한 것이다. 이 일은 단순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낮춤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안하무인이었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낮춤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 한없이 높이 쳐들었던 머리를 떨구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낮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더한층 느끼게 되었다. 마음속 ‘위대한’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무소불능한’ 하나님은 반대로 아주 미미하고 추하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이 일을 듣고 나서, 너는 하나님이 행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겠느냐? 어떤 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반대다. 그는 하나님이 진실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에 감동받는다. 하나님의 진실한 면을 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존재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비종과 늘 사람 곁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현재와 연결시켜 봐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위해 이처럼 소소한 일을 했고, 사람이 지금껏 감히 상상하지도, 예상치도 못한 일까지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지금의 사람에게 할 수 없을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꾸며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도 꾸며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가 더해 준 것도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행한 일에서, 사람이 하찮거나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일, 심지어 하나님이 절대 할 리 없다고 여기는 아주 미미한 일들에서 진정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스러움이 비로소 나타난다. 하나님은 위선적이지 않다. 그의 성품과 본질 속에는 과장, 가식, 거만, 교만이 없다. 그는 지금껏 큰소리친 적이 없다. 그는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든, 얼마나 느낄 수 있든, 얼마나 볼 수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을 사람이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영향을 줄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진실한 면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더 실감하길 바란다. 그와 동시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추측도, 의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묵묵히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떠한 주저함이나 후회도 없었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보답받거나 얻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이 주제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제해 주시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시 말씀하셨을 때의 심정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더 실감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공허하거나 막연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너희는 지금 명확한 느낌이 없고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명받고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단지 네 마음이 여태껏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을 뿐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교제 방식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관한 주제를 교제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느냐? 어떻게 느껴지느냐? (좋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 것이냐? 왜 감동적인 것이냐? (마치 에덴동산으로 돌아간 것 같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무척 생소하다. 네가 평상시에 상상하고 책에서 본 내용이나 교제에서 들은 것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내용들이나 다름없다. 그저 손으로 만져 보았을 뿐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다.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기본적인 윤곽뿐 아니라 정확한 개념조차도 잡지 못한다. 오히려 무수히 상상만 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본질인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상상으로 도출된 불확실한 요소들은 늘 수많은 의심을 품게 만든다.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알고 싶은 일이 너의 마음속에 늘 모순을 만들고 충동을 일으키며 심지어 때로는 교란을 일으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알고 싶고, 제대로 보고 싶지만 아무리 해도 답을 얻지 못할 때, 이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냐?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이런 일들을 아예 외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존재가 전설이나 꿈이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제멋대로 굴 수 있고, 안하무인이자 유아독존일 수 있으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어떤 뒷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징벌받지 않아도 되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다. 나아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한 말씀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알기 싫어하며, 차라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고, 도태될 자들이다.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 성경 내용들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한 뒤 홍수로 세상을 멸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한 것은 노아의 일가 여덟

식구를 구하고, 그들을 살아남게 하여 다음 시대의 인류의 선조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하자.

2. 노아

1)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다

창 6:9~14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창 6:18~22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 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성경 내용을 통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지금 사람들의 이해에 의하면 그 당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의인’은 완전한 자여야 한다. 완전한 자란 사람의 눈에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자인지, 너희는 아느냐? ‘완전한 자’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자이지 사람의 눈에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다! 사람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을 감찰하고 모든 사람을 감찰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노아가 완전한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할 계획은 노아를 부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 당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계획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것이었다. 왜 세상을 멸하려고 했을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 포 가 땅에 충만한지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세상과 인류가 극도로 패괴될 때 땅에는 한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것은 ‘강포가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강포가 충만'해지는 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이는 모든 분야가 질서 없이 무척 혼란스럽고 관리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하나님이 보기에 이는 이 세상 인류가 극도로 파괴된 상황이다. 어느 정도까지 파괴된 것일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파괴되고, 하나님이 멸해야겠다고 결심할 정도까지 파괴된 것이다. 세상을 멸해야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방주를 짓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 뒤 노아를 택해 그 일을 시켰다. 다시 말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 것이다. 왜 노아를 택했을까? 노아는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행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 그의 사역에 협력하도록 해 그가 준 사명을 완수시키고, 땅에서 하려는 사역을 완성시키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노아를 제외하고 이런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제2의 인물이 있었을까? 분명히 없었다! 노아가 유일한 후보이자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범위와 기준이 지금과 같았을까? 분명 차이가 있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당시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은 노아 한 명뿐이었다. 이 말에는 숨은 뜻이 있다. 바로 그의 자녀와 아내는 모두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로 인해 그의 가족들도 살아남게 하였다. 하나님은 현재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를 당시 노아의 여덟 식구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남겨 주었다. 그들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노아가 없었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당부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세상을 멸할 때 다른 사람은 그저 덕을 보았을 뿐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할 사람은 노아뿐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여덟 식구를 대한 것은 '공평성'을 잃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현재 사람에게 행한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말씀을 감안한다면 노아의 여덟 식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는 그저 하나님이 당시 사역 배경하에서 취한 하나의 사역 원칙일 뿐이다. 비교해 보자면 지금의 사람과 노아의 여덟 식구 중 어느 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더 많을까?

노아가 부름을 받은 일은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기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일까? 분명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시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다해야 할 책임과 본분으로 여겨 완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까? 아니다.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역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었다.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본체를 본 적이 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본 적이 전혀 없었다! 당시 사람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이 성경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노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세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어느 사건 혹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에게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라 계획하고 처리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일과 현상을 대할지를 결정한다. 그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한 대상이 사람뿐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멸하겠다고 하였다. 왜 멸하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이 인류의 패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더러움과 강포, 패역을 대할 때 그의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여기에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 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찬미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살아 있는 존재, 이들의 행위가 심히 패괴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패괴함을 어느 정도까지 인내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바른길을 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가 그저 도덕이 부패하고 사악으로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고 사람에게 광명과 바른길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는다. 인류의 패괴가 일단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내 대신 무엇이 임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노와 징벌이 임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 성품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이 있을까?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한 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이 시대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한 시대가 아니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류 이외에 혈육 있는 자는 모두 하나님 인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매일 너희 주변에서 발생하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직접 경험하는 모든 일들엔 강포가 가득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이와 같은 세상과 시대는 끝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시대적 배경과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인류의 패괴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분노는 그때와 같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상황과 조건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기에 일찍 멸했어야 했다. 홍수로 세상을 멸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비교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 역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으로, 너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할 수 있었다. 이로써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에 앞서 필요한 일을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위해 일련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말하면 모두들 면목도 없고 괴로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큰 재난이 닥칠 거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양식과 재난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잘 협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한 행동은 노아와 비견할 만하지 않나요? 설마 우리의 이런 행동이 진실한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말씀대로 행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상심하시는 건가요? 왜 부를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과 노아의 행위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재난용 식품을 준비한 건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었다. 노아가 한 일과 지금 사람들이 한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지시했을 뿐 많은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아는 명대로 행했지 사사로이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다. 그는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졌던 신념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대함에 있어 그토록 명쾌하고 단순했다. 노아의 본질, 즉 그 행위의 본질은 순종이다. 의심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고 말씀하자 그게 언제냐고 묻지 않았고, 상세한 내용도 묻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명한 대로 그는 일일이 행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하나님을 흡족게 해 드려야겠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노아는 자신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마 후 세상을 멸할 것인지 물어보았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방주를 짓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아니면 노아 스스로 알고 있었느냐? 노아도 몰랐다. 그는 단순하게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했다.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불안해하면서 성급한 행동을 취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대가를 치러 가며 살아남기 위해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을 준비한다. 심지어 재난이 닥쳤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도 잘 예비해 둔다. 정말 재미있는 점은 사람의 두뇌는 중요한 시기가 되면 엄청난 ‘효용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뒷일을 잘 예비해 놓는다. 그 행동은 ‘완벽’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사람과 노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노아 이야기의 기록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부 성품을 보았겠지? 인류의 패괴와 더러움과 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점에 달하면 그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새로운 경영과 계획을 시작하고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여 그의 행사와 다른 측면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의 ‘행함’은 그의 거스를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그에게 권병과 진노가 가득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며, 그가 인류를 멸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한 본질이 더 이상 파괴된 인류가 그의 앞에서 사는 것을, 그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을 용납하거나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그와 적대적이고 온 땅에 그가 구원할 만한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 그는 이런 인류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주저 없이 멸할 계획을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자 하나님의 권세하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응당 감내해야 하는 결과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계획을 완성하고,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그를 아예 따르지 않거나 본래 그와 적대적이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에게 대항하는지, 혹은 인류가 어떻게 그를 비방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는 오로지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경륜 속에서 그가 구원할 대상이 그에 의해 온전케 되었는지, 그가 흠족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가 하면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끔 소소한 ‘징계’를 내려 그의 진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해일,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은 징계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를 잘 따르고 곧 구원받을 사람을 힘써 보호하고 보살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가 온전케 하려는 인류에 대해 엄청난 인내와 관용을 베풀고, 최대한도로 기다린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를 따르지 않고 그와 적대적인 사탄의 부류를 극도로 증오하고 혐오한다. 그는 사탄의 부류가 그를 따르는지, 그를 경배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사탄의 부류에 대해 인내하는 동시에 증오한다. 또한 사탄 부류의 결말을 정하는 동시에 그의 경륜의 시기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이어서 다음 성경을 보도록 하자.

2) 홍수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린 축복

창 9:1~6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성경 내용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왜 이 내용을 골랐을까?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생활한 부분을 발췌하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주제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앞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각자 성경을 살펴보아라.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하나님의 행사를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겠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방주를 지은 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날들을 보냈고, 그의 여덟 식구는 살아남았다. 노아의 여덟 식구 이외의 인류는 모두 멸망되었고, 땅의 생물들도 모두 멸망되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내렸다.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였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려는 것이자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고 약속이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을 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기에 노아가 완전한 자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든 상관없었다. 결국,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으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리하여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뒤에도 하나님을 위해 인류와 각종 생물이 보존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 경륜을 위해 혁혁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바로 노아의 이 모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사람에게 있어 노아의 행위는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노아도 한 일은 없잖아. 하나님이 노아를 남기겠다고 결정하셨으니 그는 당연히 남을 수 있었겠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거지. 사람은 피동적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받은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순조롭게 완수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이런 행위를 아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런 정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노아를 축복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행위와 순종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한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흠족게 해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도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행위의 좋고 나쁨, 순종했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렸는지,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합격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오해이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람의 마음에 순종함이 있는지, 헤아림이 있는지, 하나님을 흡족게 하려는 염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치보다 많이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나 앎, 이런 진리에 대해 너희보다 더 많은 양육과 목양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인의 의식과 사상 속, 심지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관한 개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노아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노아는 이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순종에는 불순물이 없어 검증을 견뎌 낼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순결했고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치상의 인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실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또한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원하고 인정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대상이다.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본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를 조금이라도 등한시하고 의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 어떤 추측이나 시험도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과 파괴된 본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태도가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것과 같은 축복을 받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3) 하나님이 무지개를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다

창 9:11~13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삼다’에 관한 성경 내용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이 무지개가 무엇인지 알고 무지개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성경에 나온 무지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전설로 간주하며,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믿지 않는다. 어쨌든 무지개와 관련해 전후로 발생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했던 일이자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일들은 있는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기록 속에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 전후의 생각이 말씀의 행간에 드러나 있다. 말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해 당시 하나님의 생각이 모두 생생하게 표현된 듯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는, 하나님이 보기에 매우 좋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한 인류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후 홍수로 멸망했다. 이런 한 인류가 순식간에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 당연히 마음이 아팠다! 그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그때 세상을 멸한 것이 무척 마음 아팠던 것이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참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뒤 원래 생기로 충만했던 땅이 어떻게 변해 버렸을까? 인류로 가득했던 땅이 어떻게 변해 버렸을까?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생물도 없이 도처에 물만 있는데, 물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그런 광경이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본의였을까? 분명 아니다! 하나님의 본의는 곳곳에 활기가 넘치고, 그가 창조한 인류가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노아 한 사람만이 그를 경배하고 그의 부름을 받아 그가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걸 적어도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었다. 인류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보게 된 것은 그가 애초에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 정반대의 광경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이었을까? 구름 속의 무지개[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홍수로 세상을 멸했었던 적이 있다고 알려 주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는지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그렇게 세상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을까? 분명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상을 멸한 뒤 땅의 참상을 조금은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장면이 어땠을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지금이나 당시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즉 홍수로 멸망한 뒤의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인류의 패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했지만 그때 홍수로 세상을 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느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 즉 맹세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음을 사람에게 기억하라고 알려 준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 준 것이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멸했을 때 마음이 아팠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고 인류가 사라진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인류가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들이지는 하지만 사람의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과 느낌을 묘사하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리 잘못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것 같다. 최소한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너희가 아주 생생하고 적절하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다시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최소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함으로 인해 느꼈던 아픔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류를 증오했지만 자신이 친히 창조한 인류를 멸할 때 마음이 아팠음을, 차마 버릴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었음을, 견디기 힘들었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노아의 여덟 식구였다. 노아의 협력으로 그가 만유를 창조할 때 기울인 심혈이 그나마 헛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상심한 와중에 유일하게 그의 상처를 메워 준 일이었다. 그런 뒤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노아 가족에게 걸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광경을 보지 않기를 바랐고, 그들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성품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인류를 증오한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적대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근심과 긍휼은 시종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인류를 멸했지만 그의 이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인류가 심히 패괴되어 하나님을 극도로 거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본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칙대로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로 인해 여전히 인류를 불쌍히 여긴다. 심지어 인류가 계속 생존해 가게 하려고 각종 방식으로 인류를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대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깨우쳐 주고 공급하고 도움을 주고 관용을 베풀어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않으며 등을 돌려 버린다. 하나님은 상심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최대한도의 관용을 베풀면서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겠다고 계획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한이 있고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인류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최후의 기회였다. 그러니 인류를 멸하기 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은 대대적으로 깨우쳐 주고 권면하는 사역을 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심하고 괴로워도 인류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보살피고 크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함을 분명히 보았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짓이나 가식, 기만, 불순물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그 어떤 거짓된 수단이나 허상으로 인류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껏 거짓 증거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보여 자신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과시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측면들의 성품은 사람이 사랑할 만하지 않느냐? 사람이 경배할 만하지 않느냐? 사람이 귀하게 여길 만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이런 말을 듣고 난 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속 빈 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빈말에 불과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지고지상함, 위대함, 거룩함, 관용, 사랑 등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본질의 면면은 매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구체화되었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현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구체화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현되었다. 네가 일찍이 그 느낌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세심히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지혜와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영을 일깨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와 사랑스러움과 관련해 나름대로의 경험과 느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 느낌, 혹은 인지 결국 이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을 종합하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언급한 성경 내용에 대한 해석을 결합하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진실하고 더욱 적절한 인식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다 보고 이 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고 나니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또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보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느냐? 만일 너희의 생각에 따른다면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교제하니, 너희는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필요하겠지? 이야기를 읽은 것이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행했던 사역의 진실한 기록이다. 나는 너희가 이 이야기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인물의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보고 이 인물을 연구해 보라는 것도 아니다. 다시 되돌아가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알겠느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 이 구절의 이야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더 알게 되었느냐? 홍콩의 형제자매들이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파괴된 인류가 갖추지 못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대답해 보아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지고지상함과 관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방금 나눈 교제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염려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 이유는 인류가 너무도 사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혐오하셨기 때문에 멸하셨던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의 이야기와 피눈물 흘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그제야 사실 하나님은 인류를 아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류를 멸하신 것이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존재하는 인류에 대한 보살핌과 염려를 바로 이 대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아주 좋다!

계속 말해 보아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전에도 성경을 읽어 봤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해 주시니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걸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끌며 함께 성경을 보시니, 사람이 패괴되기 전, 하나님의 본질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패괴된 후부터 지금의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을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패괴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영원불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본질은 시간이나 사역 장소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든, 인류가 패괴된 후 이 세상을 멸하셨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았고, 또 방금 다른 형제자매들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의 인류에 대한 보살핌과 긍휼도 보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교제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미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확실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이토록 실제적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오늘 교제를 듣고 난 후의 제 느낌입니다.) 아주 좋다! 너희 모두 잘 새겨들었구나.

우리가 오늘 교제한 성경 이야기를 포함해 모든 성경 구절에서 너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거나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표명한 적이 있느냐? 인류를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솔직한 언어로 표현한 기록이 있느냐?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다른 서적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느냐? 답은 분명하다. 없다! 하나님 말씀 혹은 하나님 사역에 대한 실제 기록을 포함한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나 시기에든 그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표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나 다른 어떤 방식의 행위로도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서술한 적이 없다. 이는 사실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일까?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후, 인류가 패괴된 이후든 인류가 그를 따랐던 때든 상관없이 인류를 자신의 절친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인류가 말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여겼지,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스스로는 창조주이고 인류는 피조물이라고 한 이 말씀은 계급이 나뉘어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인류를 위해 한 모든 행사는 이런 관계를 한참이나 넘어서 있다. 인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염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에게 공급하는 일까지, 그의 마음은 이런 것들을 가뭇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공로가 큰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공급하며 베푸는 모든 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으로 조용하고 묵묵히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이 그에게서 얼마나 많은 공급과 도움을 받았든지 그는 사람에게 공을 요구할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로 인한 것이자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나 다른 서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그래서 사람의 감사와 찬미를 받아 내려고 인류를 향해 하나님 자신이 왜 이렇게 행했고, 왜 이렇게 인류를 보살피는지 설명하거나 표현한 부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상심하거나 극심한 아픔을 느낄 때에도 인류에 대한 책임과 염려를 잊지 않고 그런 ‘상심’과 ‘아픔’을 홀로 묵묵히 감내한다. 오히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렇게 인류에게 공급한다. 비록 인류가 자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대해 준 것을 가지고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쪽에서 이 축복은 조금의 아픔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흔히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고, 사람이 한 행위와 사람이 들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받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정확히 말하자면, 없다! 노아를 포함해 인류가 당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런 언약을 세웠는지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거나 지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독립적이어서 사람의 관심과 이해와 헤아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픔도 희로애락도 없고, 괴로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언약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안과 공급과 격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 즉, 사람은 ‘약자’이니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돌봄’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강자’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의 수호자이자 축복자가 되어야 하고,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통력이 굉장해서’ 사람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실을 훤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인도해 빛을 비춰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이 모든 것과 들인 모든 대가에 대해, 성경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요구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없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공급하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의 소유와 어떠한, 은혜와 긍휼과 모든 상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받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인 적은 없다. 또한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쪽에서 원망한 적도 없다. 그는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사람이 깨달을 그날을 기다릴 뿐이다.

여기에서 나는 왜 이런 말들을 할까? 이 말들에서 너희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이나 좋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나,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심 없음이다. 사심 없음이라 하면 너는 자신도 매우 사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네 자녀에 대해 한 번도 대가를 바라거나 셈을 따진 적도 없었고, 부모를 대할 때도 사심 없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최소한 ‘사심 없음’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개념은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심 없음’은 긍정적이고, 사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건 무척 훌륭하다고 여긴다. 만일 너 자신이 사심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아주 위대하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물 속에서나 사람, 일, 사물 속에서나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 없음을 본 사람은 없다. 무엇 때문일까?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람은 물질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공급하고 사랑을 주고 염려하는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 네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네가 보는 것은 너와 혈연관계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를 몹시 아끼는 그 사람이다. 네가 본 것은 너에게 육적으로 유리한 것들이고, 네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질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심 없음이다. 바로 이렇게 ‘사심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의 ‘사심 없음’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심 없음’은 실제적이지 않은 공허한 것이고 불순물이 들어 있다.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사람의 ‘사심 없음’은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사심 없음’은 하나님의 본질이 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심 없음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는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끄덕여 인정하는 수준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일과 사물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심 없음만이 진정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직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고 흠결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의 소위 사심 없음도 진실이 아닌 거짓되고 표면적인 것이다. 그것은 목적과 속셈이 있고 거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검증을 이겨 낼 수 없는 것이다. 추하고 비열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말을 인정하느냐?

나는 이런 주제들이 너희에게 상당히 낯설다는 것을 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여야 너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낯선 문제라고 느끼거나 낯선 주제라고 느낄수록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의 부족한 주제라는 것을 더욱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이런 주제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너희 중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 너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너희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알 수 있든, 결국 내가 말하는 이 주제들은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무척 중요하다. 지극히 소중한 보물이자 생명이며,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말씀들의 인도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도 모른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며, 하나님이 어떤 일로 상심하고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상심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에게 아예 등을 돌린 인류이고, 그를 따르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의 어떤 감정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이다. 이러니 그가 마음 아프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 사역하고 말씀하며, 조금도 아낌없이, 숨김없이 사람과 대면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대해 폐쇄적이다. 자발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없고, 자발적으로 그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고 싶다는 사람조차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으며, 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의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그의 토로를 들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과 경영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곁에서 함께하며 그의 희로애락을 나눌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하나님은 고독하고 고독하다! 하나님의 고독은 파괴된 인류가 그와 대립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려는 사람, 나아가 그를 위해 기꺼이 일생을 바치겠다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생각을 모르고, 그의 성품과 희로애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아 이야기의 결말인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당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음을 보았다. 이 방식은 무척 특별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 것을 일단락 짓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곁으로 봤을 때 ‘언약을 세운’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다. 그것은 단지 문자의 형식으로 양측을 구속하는 일로, 일을 행할 때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상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한 출발점과 의미에 입각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이 진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만일 네가 이 말을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내가 일의 진상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인류는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상상 속 언약을 세우던 하나님은 웃고 있었을 수도 있고, 엄숙한 표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상상 속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인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고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신뢰하거나 신뢰할 만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아픔을 토로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간단한 일을 행하여 지난 인류와 작별했고, 과거의 일을 해결했으며,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두었다. 하나님은 그가 토로할 만한 상대가 되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과 언약을 세워 사람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지개가 나타날 때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음을 상기하게 했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하나님은 이토록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염려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심 없음이 아닐까? 반면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생각할까? 이때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이럴 때 사람은 늘 하나님을 끌어당겨 와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언제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곤경에서 벗어나 빛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정제나 위로제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선 분명 지나친 바람이다.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줘야 한다고 요구한 적이 없고,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이 약간의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울인 심혈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심 없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웠지만 왜 그렇게 했고 왜 언약을 맺었는지 누구에게도 알려 준 적이 없다. 즉, 그의 진정한 생각을 누구에게도 알려 준 적이 없다. 그가 직접 창조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인류를 멸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느낌을 사람에게 알려 주더라도 사람은 그 ‘신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여전히 그의 다음 단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면서 자신은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은 그가 냉혹해서도 아니고, 무감각해서도 아니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약함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이 본래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본질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자 진정한 창조주인 하나님의 신분이 진실로 체현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동정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냐고 말이다. 그런 뜻이 있느냐? (아뇨,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사람이 빈말이나 글귀, 상상으로 묘사해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 속에서 확실하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은 분명 실제로 존재한다. 이는 그림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며, 사람이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꾸며 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알겠느냐? 너희가 알았다면 내가 오늘 한 이 말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내용의 교제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생각 혹은 내가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상상과 인식을 뒤집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양모하던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뒤집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찌 됐든 나는 성경의 이 두 부분 말씀을 통해 너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너희가 돌아간 뒤 다시금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겠다. 안녕!

2013년 11월 4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2

지난번 예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었다. 무엇에 대해 나누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말해 보겠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주제가 너희에게 중요하냐? 너희에게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역이냐, 하나님의 성품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냐? 너희는 이 중 어떤 주제가 가장 흥미로우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 나는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사역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이 셋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자 또한 하나님의

참여와 말씀이 있었던 일이기에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면서부터 인류와 접하고 인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으며, 인류에게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은 인류와 접하면서부터 인류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 본질을 공개했다는 뜻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볼 수 있든 없든,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요컨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와 접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과 본질, 소유와 어떠함을 선포하고 나타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뭔가를 숨기거나 감춘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내보였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그를 알고 그의 성품과 본질을 이해하길 바라지, 인류가 그의 성품과 본질을 영원한 비밀로 간주하거나 하나님을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여기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인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빛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과 나타내는 성품은 그의 뜻과 본질을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든지, 또 사람이 본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본질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인류가 얼마나 느끼고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는 전부 하나님의 뜻, 즉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며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흠족게 하라는 요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더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위장도, 숨김이나 포장도 없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겠느냐? 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 주는 것이 전부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이고 진실한 성품의 면면인데, 왜 사람은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사람은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창조한 사람에게 무엇을 했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동반자나 의지할 대상으로 여겼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 즉,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사람에게 ‘동반자’로 보이는 그 대상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가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는커녕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그가 행한 일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알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때는 인류가 창조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시대의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사람에게 일련의 사역을 하고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등을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개념이 생겼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많이 알고, 얼마만큼 깊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역의 절차와 사역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서로 다른 요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지 않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는 인류가 창조된 초기에는 사람에게 정복 사역을 하지 않았고, 온전케 하는 사역도 하지 않았다. 그리 많은 말씀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사람에 대한 그의 요구는 아주 낮았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 그를 거스르는 일을 해도 그는 모두 용서하고, 따져 묻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에 사람에게 어떤 요구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요구 기준이 아주 낮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 허황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발걸음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후에도 하나님께 참모습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겠느냐?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며, 그럴 엄두를 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참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결과이다.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증거 삼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운 후, 자신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땅에서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점점 더 간절히 원하게 됐다. 특히, 땅에서 흑암 세력과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길 원했다.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창세 때부터 줄곧 기대해 마지않던 일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든 사람과 언약을 세우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계획과 소원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창세전부터 오래도록 바라던 것은 인류 가운데서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 즉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발자취와 사역 발걸음을 따라, 오랫동안 ‘봉인’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면면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고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하자.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람과 언약을 세웠는지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다음 부분의 성경 구절을 나눠 보도록 하자. 성경을 읽어 보아라.

1. 아브라함

1)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다

창 17:15~17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창 17:21~22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도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

창 22:2~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창 22:9~10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이 하고자 결정한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방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에 택한 인물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다. 그가 100세,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려고 했느냐? 바로 성경에서 언급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라는 약속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라는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이 노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는 땅에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농담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이라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몹시도 웃긴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으면서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모르시는구나. 게다가 내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며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며 땅에 엎드려 웃었다. 또 그는 마음속으로 ‘불가능해. 이건 하나님의 농담일 거야. 진짜일 리 없지!’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면 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구나. 참으로 교조적이다! 너희는 이 일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정의하지 않으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한 것 같느냐? 막연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의 믿음이 큰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그의 마음속 생각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하며, 아무렇게나 끼워 맞춘 무책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몸짓을 하나님이 보지 못했겠느냐? 하나님이 알지 못했겠느냐?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일을 바꿀 리 있겠느냐?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계획했을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은 어떤 영향도, 방해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사람의 태도, 더욱이 무지한 태도 때문에 함부로 계획을 바꾸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 창세기 17장 21~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라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행한 일과 말씀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과 택하려는 사람, 그리고 일의 원칙에 대해 사람에게 완전히 이해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분량이 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정상이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는 말씀만 남겼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점차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고자 계획한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예비한 후 곧 떠나갔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계획하든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절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발전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원칙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인식하든 간섭하지 않지만, 사람이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획이나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보았듯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이삭을 태어나게 했다. 실제로 사람의 행위와 태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았더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믿음이나 관념, 상상이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이라도 주었더냐? 그렇지 않다!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 어떤 사람, 일,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가 하고자 뜻을 정한 모든 일은 그의 계획에 따라 제때에 완성되고 이루어지며, 그의 사역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관념조차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거침없이 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전능함의 발현이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응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계획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것은 전체 경륜의 서막에 불과하다. 그 시각,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으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음을 또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고, 사람의 진심만을 원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자.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그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이 일은 지금 보기에든 여전히 사람의 관념과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 이때 하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의 관념에 매우 맞지 않는 것이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은 관념적으로 ‘사람이 믿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고는 아들을 얻자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 이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는 또 그에게 조건 없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느냐?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처사이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이나 약간의 추측은 했지만 그래도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같이 기록되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창 22:3),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창 22:9~10).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보았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전 과정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한때 어리석고 무지했으며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이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참되고 진실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삭, 그의 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려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순종을 보았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는 기이하게 보일 때도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할 때, 이 ‘지배’는 대부분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으며, 이해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자 검증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이다.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 이삭을 바치라는 것 — 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즉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해 참으로 안심했고, 그를 진정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자신의 약속과 앞으로의 경륜을 맡아서 실행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비록 그 일이 시련과 검증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위안을 받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또한 처음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삭의 생명을 가져갈 생각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바로 저지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것으로 충분했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한 일에서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결과에 만족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 보고자 기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냐? 비록 하나님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 사람을 검증한다고는 하나,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심임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었고, 이 ‘무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나는 이미 이것을 바쳤고, 그것을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만족을 못 하시는 걸까? 왜 계속 내게 시련을 주시는 거지? 왜 계속해서 나를 검증하시는 거지?”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너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너에게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진심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지 못했고, 너에게서 위안을 얻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네 시련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고, 이어서 다음 단락,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 보자.

3)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창 22:16~18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 그대로 담은 기록이다. 말씀은 아주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풍성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와 배경,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벅찬 심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기를 희망한다’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치른 대가와 고심도 보았으며, 나아가 이번 경륜 사역의 뒤에서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씀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뜻깊은 말씀이자, 후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와 크나큰 영향을 주는 말씀이다.

사람은 진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크지 않느냐? 얼마나 크더냐? 이 말씀 중 핵심은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구절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의 외아들을 —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 하나님께 돌려 드리려고[주: 여기에서는 ‘바친다’는 말 대신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는 말을 써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내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까지 번성한다는 것이더냐? 성경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더냐? 성경에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조금의 원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대로,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다. 그 중요한 말씀을 너희는 보았느냐? 어쩌면 너희는 주의 깊게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였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 맹세할 때 어디를 가리키느냐? 다 하늘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이 ‘현상’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면 너희는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서 너는 너 자신을 연상해 볼 수 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보통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지 않느냐? 그럴 때 너의 태도는 아주 진지하지 않느냐? 더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진실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며 약속을 주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는 내 말에 순종했으며,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나게 하고, 그 후 그 선민들을 이끌어 그의 사역에 발맞춰 나아가게 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맡기려 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며, 그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러니 이것은 복받은 일 아니겠느냐? 인류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복은 없으니,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그의 경영, 당부와 사역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할 때,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때,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이 과정이 매우 진실하지 않느냐? 더없이 실제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의 소유와 어떠함, 그의 모든 것, 더 나아가 그의 생명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부터 그의 행사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그의 지혜와 권병과 능력을 보여 주리라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는 축복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었겠느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며 맹세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외롭고 슬펐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 그가 계획한 것에 대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 중에 그와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이는 물론이고,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이조차 한 명도 없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얻었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만족을 얻지 못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경영이 비로소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 그가 보고자 하는 사람, 그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주 멀리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때는 하나님 자신 외에 누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며, 무엇을 바라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흥분되는 동시에 또 몹시 무거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이처럼 큰 복을 내렸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며, 자신을 이해하고 진심을 보이는 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같은 진심을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길 것 같으냐? 아마 너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수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그 진심에 하나님은 감동했고, 그것을 귀히 여겼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느냐? 귀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전에 없던 만족감을 느꼈으며,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얻은 기쁨을 느꼈다. 그 ‘만족감’과 ‘기쁨’은 하나님이 손수 만든 피조물로부터 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는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 드린 가장 진귀한 첫 번째 ‘제물’이었다. 이 ‘제물’은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게 기다리던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창조된 인류에게서 받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로 여겼다. 또한 그것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울인 심혈로 얻은 첫 번째 성과를 보았고, 인류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 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를 헤아리기를 바랐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그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경영에 계속 함께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단지 바람이고 생각일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 —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것 — 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과 순종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한 것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진심과 순종을 열납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기(知己)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 되기에 부족했다. 또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조금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외롭고 조금할수록 최대한 빨리 그의 경영을 이어 나가하고자 했고, 한 무리의 사람을 택하고 얻어 그의 경륜과 뜻을 이루고자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은 바뀐 적이 없다. 처음 인류를 창조한 이래, 하나님은 이긴 자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깨닫고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든, 하나님이 고대하는 목표가 얼마나 멀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한 적이 없고, 그것을 포기한 적도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느냐? 아마도 그렇게 실감 나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느껴 보거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또 성 하나를 멸망시켰다. 그 성의 이름은 소돔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성을 멸망시킨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음 몇 단락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 보자.

2.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다

창 18: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창 18:29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0 “아브라함이 가로되 …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몇 구절의 말씀은 내가 성경에서 고른 것이다.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니 온전한 문장을 보고 싶다면 성경에서 찾아보아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원문의 일부 내용은 생략했다. 중요한 단락과 구절만 선별하고 몇 구절을 뺐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우리가 교제하려는 모든 장절과 내용에서 당시 발생했던 사건의 세부적 사항과 사람의 태도는 제쳐 놓고, 당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에서 진실한 하나님 자신을 보았다면 목표에 이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만을 보살핀다

이 몇 구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숫자들이다. 처음에, 여호와와 성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했다. 즉,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50명의 의인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만일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다. 하나님은 그래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 되는지 물었다.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 의인이 20명 있으면? 역시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인이 10명이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성안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었느냐? 10명은 없었지만 한 명은 있었다. 그 한 명의 의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롯이었다. 당시 성안에는 의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이 숫자에 대해 까다롭고 엄격하게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질문했으며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묻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다. 여기에서 10이란 참으로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실제로 소돔 성안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눈에 그 성안 사람들의 죄악과 사악함이 이미 멸해야만 할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명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느냐? 그러한 숫자는 하나님께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성에 의인이 한 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성을 멸할 때 그 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할 생각이었다. 즉,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고자 했든 안 했든,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었든, 그 죄악의 성은 하나님이 보기에 저주받을 곳이었고, 마땅히 멸망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마땅히 살아남아야만 했다. 시대와 인류의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사악한 것을 증오하며, 그의 눈에 보이는 의인을 보살핀다. 하나님의 이 명확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본질의 진정한 발현이다. 성안에는 의인이 한 명뿐이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그 성이 반드시 멸망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시대에 성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것이며,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봐서 인류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중히 여기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그의 앞에 선행을 쌓은 자들을 중요시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교제하거나 하나님의 도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느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 주는 것뿐이었다. 누군가는 그대로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었고 누군가는 믿지 않았다. 이것이 다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의인, 즉 하나님 눈의 의인은 그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종이였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의인이 몇 명이든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의인’이 하나님의 지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기나 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 불렀느냐? 성경에 우리가 본 그 성경 구절까지,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람을 ‘나의 종’이라 칭하였다. 즉, 그 시대의 의인들이 하나님께는 자신의 종,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 호칭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왜 그렇게 불렀겠느냐? 사람에게 어떤 호칭을 붙여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든, ‘완전한 자’나 ‘정직한 자’라고 칭하든, 혹은 ‘종’이라고 칭하든,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다. 그가 사람을 ‘종’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람이 그의 사자를 맞이할 수 있고, 그의 명령을 따를 수 있으며, 그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자라고 확정한

것이다.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일들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칭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일들은 단순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사람에게 단발성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라고 간단하게 지시한 것에 불과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여러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시기도 아직 무르익지 않아 인류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도를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의인’은 3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이 보기에 다 하나님의 종이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종에게 임했을 때 그 종은 나아가 영접할 수 있었고, 그의 지시를 따르며, 그의 말대로 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의 종이 된 자가 행하고 달성해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칭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들을 ‘종’이라 칭한 이유는 그들이 결코 지금의 너희처럼 많은 도를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정직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 ‘종’의 또 다른 의미는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아닐지라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자이자 시행하는 자이다. 이것으로 그 종이나 의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땅에서 사역을 펼치려면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사자가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종들이 담당하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임무’는 하나님께 있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종들이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바람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보살피는 자에게는 크게 공활을 베풀고, 혐오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크게 노한다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소돔 성에 하나님의 종이 10명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성을 남겨 둘 가치가 있었겠느냐? 성에서 오직 롯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이는 그 성에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롯만 구원하고 소돔 성을 멸한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행사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장기간의 감찰과 생각을 거치며,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정이나 판단도 단호하게 내리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는 그 결정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성안에는 의인이 40명, 30명, 20명은 물론이고 10명조차도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안의 의인은 롯 한 명뿐이었다. 하나님은 성에서 일어나는 일과 성안의 상황을 감찰하여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결정은 잘못될 리가 없었다. 하나님의 전능에 비하면 사람은 한없이 무감각하고, 우매하고 무지하며, 근시안적인 존재라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현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숫자는 지극히 단순하며 어떤 문제도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 아니더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더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 부분 성품을 보았느냐? 더 나아가 의인이 10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생각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 의인들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염려하여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성에는 그가 말한 10명의 의인이 없었기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기로 뜻을 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였느냐? 그 성에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성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성을 멸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하나님의 노 아니겠느냐? 그 ‘노’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지 않느냐? 그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발현 아니겠느냐?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질의 발현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이 10명이 안 될 경우, 반드시 그 성을 멸할 것이며, 또한 그 성의 사람들을 엄하게 벌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너무나 더럽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렇게 이 대화들을 분석하는 것이겠느냐? 이 간단한 몇 구절에 크게 긍휼을 베풀고 크게 노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인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관용으로 대하고 염려하는 동시에, 그 성안의 모든 파괴된 자를 마음속 깊이 증오했다. 이것이 크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크게 노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을 멸하였느냐? 불로 멸하였다. 하나님은 왜 불태우는 방법으로 그 성을 멸했겠느냐? 어떤 물건이 불에 타는 것을 볼 때, 혹은 어떤 것을 불태워 버리려고 할 때, 너는 그 물건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왜 그것을 불태우느냐? 더는 그것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것을 포기한다는 뜻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방식에는 포기한다는 의미, 증오한다는 의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불로 소돔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다. 불태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은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그가 노할 때 사람에게 그의 거스를 수 없는 면을 드러낸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푼다. 반면 사람이 심히 패괴되고 하나님을 끝없이 적대시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크게 노한다. 그노는 어느 정도까지 분출될까? 그 사람의 대적과 악행이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분출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노가 사라진다. 즉, 누구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몸과 생각이 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길 원하든 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노는 끝없이 분출된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노할 때, 하나님의 노는 건잡을 수 없이 계속 분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더 이상의 긍휼도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의 일면이다. 하나님이 성 하나를 멸하려고 한 일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은 하나님이 보기에 더 이상 존재할 수도, 남아 있을 수도 없으니 그 성을 멸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하기 전후에 발생한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긍휼을 베풀지만, 악한 것과 죄에 속한 것,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노하며, 그 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는 하나님 성품의 가장 주된 부분이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시종일관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다. 즉,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풀고 크게 노한다는 것이다. 너희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긍휼은 어느 정도 느낀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노를 체험한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찍이 크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중 어떤 이, 또는 어떤 이들에게 크게 노한 경우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해할 것 없다! 하나님의 노는 조만간 모든 사람이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노를 표출할 때,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크게 노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을 혐오하고 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증오하며 더 이상 그 사람의 존재를 참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크게 노하면 너희 중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희 모두에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을 뿐, 아직 크게 노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노가 임하기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노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체험해 보아라. 너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세의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말씀에서만 보았을 뿐, 진정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이 몇 구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의 성품은 교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생겼느냐? 어떤 이해가 생겼느냐? 마지막 이 무리의 사람들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위엄과 진노를 지니고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오직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이룬다.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공급하고 양육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는 줄곧 감춰져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노의 성품을 느낄 뿐, 직접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심판과 형벌의 사역에서 사람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노를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노는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꾸짖고 드러내고 심판하고 형벌하며 심지어 정죄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크게 노한 적은 없으며, 말씀 밖에서는 사람에게 노를 표출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람이 체험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참된 성품의 발현이지만,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어조와 분위기에서 느낀 효과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로 인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았고, 거스를 수 없는 모습도 보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체험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나쁘든,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파괴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줄곧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인내하는 목적은 그가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말씀과 그가 기울인 심혈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위함이다.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에게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19년, 심지어는 20~30년이 지나야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이 끝나기를, 그러한 날이 오기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게 공화를 베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 기간에 극소수의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해서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입증하며,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도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부 성품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사실,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 내내 인내하고 있다. 그는 그의 인내와 생명을 대가로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너희는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지 않는다. 그는 노할 수도 있고 공화를 베풀 수도 있다. 이는 하나님의 주된 두 가지 성품의 발현이다. 더없이 뚜렷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옳은 것과 틀린 것,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증오하는지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직접적으로 구현되어 나온다. 또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 준다.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준다는 말이다. 이런 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에게 감춰진 적이 없으며, 다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다

만일 내가 이런 것을 교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말씀은 아주 적고,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거나 그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 사람에게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나의 교제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완전히 감춰졌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감춰졌다고 생각하느냐?

창세 이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했으며, 사람에게 감춰진 적 없이 전부 공개되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사람이 점점 더 심하게 파괴됨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도 점차 멀어졌다. 서서히, 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소식’을 전부 잃게 되었다.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감춰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사람은 늘 하나님을 피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떨어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 간 것은 아니다. 그저 혼자 간직한 채 하나님께 바치지도, 보여 드리지도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찰하소서.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찰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어기면 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달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신의 앞날과 운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와 다짐을 했든 간에, 하나님이 보기에 네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살피는 것만 허락했지,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으며,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했을 뿐, 각종 간사한 속셈은 다 감춘 셈이다. 너는 네 의도와 타산, 계획을 전부 숨기고, 하나님이 네 앞날과 운명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며 손안에 꼭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에 대한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분이기에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으며,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바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지 살피볼 권리만 있을 뿐, 다스릴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주관적인 의식 안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지배에 맡길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폐쇄적이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마음을 감추고, 감언이설로 허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은 꼭꼭 숨겨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간수하고 싶지,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다 스스로 계획하고 타산하고 결정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참여’와 간섭이 필요치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도 필요치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당부, 요구를 대할 때는 자신의 속셈과 이익,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상태와 처한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자신의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또 자신의 머리로 자기가 나아갈 길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본 사람의 마음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뿐이었다. 즉, 모든 생물과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류밖에 없다. 사람에게에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언어가 있고 생각과 자유 의지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바람을 전부 사람에게 두었다. 그는 사람을 그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 삼고자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을 시작한 후 줄곧 사람이 그에게 마음을 바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채워 주어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줄곧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즉,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 기록되어 있느냐? 지금 시대 이전에 그런 선례가 있느냐? 계속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의 인물인 욥이 행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욥은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자.

너희는 욥이라는 사람을 어떤 이미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누군가는 성경 말을 인용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욥에 대한 평가이다. 만약 너희가 자신의 말로 욥을 평가한다면 그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혹자는 욥은 좋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혹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한다. 또 혹자는 욥을 가리켜 인성이 좋은 의인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모두 욥의 믿음을 보았으며, 그의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욥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갖췄기에 하나님께 그토록 열납되었는지 보도록 하자.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보자.

3. 욥

1) 욥에 대한 성경과 하나님의 평가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1:5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희는 위의 구절에서 어떤 핵심을 발견했느냐? 이 짧은 세 구절은 모두 욥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욥이 보여 준 행동과 태도를 들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음을 모두에게 알려 주고 있다. 이 세 구절의 성경 내용은 욥에 대한 사람의 평가든(욥 1:1) 하나님의 평가든(욥 1:8) 전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인 행동(욥 1:5)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 준다.

우선 첫 번째 구절을 보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는 성경 기록 중 욥을 평가한 첫 번째 말로, 욥에 대한 욥기 저자의 평가이며, 당연히 욥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대변한다. 그 평가는 이렇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음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이 두 평가 중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같다. 이를 통해 욥의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칭찬까지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욥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는 땅에서 유일하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모습

이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자. 위와 아래 이 두 성경 구절 말고 1장 5절을 보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이다. 이 모습은 평소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지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모습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늘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열 때면 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욥은 이 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원문에는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라고 묘사되어 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이 결코 외적인 행동이 아니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일상생활 속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악한 일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늘 아들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들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걱정했음을 말해 준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몇 번을 살펴봐도 진실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은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랬느냐, 아니면 항상 그랬느냐? 원문 마지막 구절에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다. 이는 욥이 가끔, 혹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들여다본 것이 아니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즉, 욥은 항상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항상’이란 하루 이틀이나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태도는 일시적인 것도, 단지 인식상에만 머문 것도, 그저 입으로만 떠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가 그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했으며, 삶의 근간으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욥이 항상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걱정했음을 뜻한다. 이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 도가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욥이 항상 이렇게 행한 이유는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아울러 그는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두려워했다. 이런 것들은 욥이 일상생활에서 보여 준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정상적인 모습들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그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음을 입증한다. 또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구절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의 모든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욥은 항상 그렇게 행했으며, 그의

행동과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았더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늘 그의 마음과 행동을 열납하지 않았더냐? 욥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항상 그렇게 했느냐? 혹자는 하나님이 늘 그에게 나타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하며, 혹자는 욥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욥이 자신의 재산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죄를 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재산을 잃게 될까 두려워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이 다양한 견해들이 다 사실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욥을 열납하고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가 ‘항상 이러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욥이 사탄에게 넘겨져 시험받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 앞에서 보인 그의 모습 때문이었다. 다음의 구절들이 바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이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자.

2) 사탄이 처음으로 욥을 시험하다(가축은 약탈당하고, 자녀는 화를 입다)

(1) 하나님의 말씀

욥 1: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1:1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 사탄의 대답

욥 1:9~11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습니다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욥의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었다

욥기 1장 8절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첫 번째 대화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였느냐? 원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말한 욥에 대한 평가로서,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러한 대화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 욥을 시험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즉, 욥을 사탄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과 평가가 틀림없음을 실증할 수 있고, 욥의 증거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수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경외심을 완전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탄이 곳곳을 떠돌며 하나님의 종, 욥을 늘 감시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무너뜨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경외심이 굳게 서지 못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또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욥을 해하려는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욥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보았으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도 보았다. 하나님은 질문의 방식으로 사탄에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므로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를 리가 없음을 알려 준 것이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사탄은 더욱 화가 났지만 그럴수록 욥을 빼앗아 가고 싶은 마음도 더 강렬해졌다. 사탄은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를 증오했다. 이는 욥기 1장 9~11절에 기록된 바와 같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습니다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독한 본성은 물론, 사탄이 이미 오래전부터 욥을 해하려는 계락을 꾸미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사탄이 순순히 따르게 — 욥을 공격하고 시험하려던 본래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 하려 했다. 즉,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인해 증오했고 분노하여 욥을 공격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을 통해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동시에, 사탄이 철저히 수치를 당하고 패배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더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의심하거나 참소하지 못하게 될 터였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과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감당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 낼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는 욥이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사탄은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욥의 재산이었다.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욥을 참소하였기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허락했다. 여기에서 사탄과 대화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난다. 다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욥기 1장 12절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라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욥을 사탄에게 넘기면서 제시한 조건이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사탄에게 욥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자신 앞에서 보여 준 욥의 정직함과 순전함이 의심할 여지 없이 검증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범위를 제한하였다. 욥의 재산은 빼앗아 가도 되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완전히 사탄의 손에 넘긴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하든 상관하지 않았지만, 욥 본인을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탄은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서는 안 되었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며, 사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욥을 시험하였다. 이에 욥은 가득하던 소와 양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은 이렇게 욥에게 임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욥이 겪은 시험의 유래를 알고 있지만, ‘당사자’인 욥은 그 일을 알고 있었겠느냐? 욥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시련이 임했다는 것만 느꼈을 뿐이다. 그는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으며, 그 시련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욥은 어떤 일이 임하더라도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 욥의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본 것이 무엇이였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이었다. 시험을 받기 전부터 시험을 받을 때까지, 욥의 마음은 줄곧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버리지도, 등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 가장 기쁘고 위안이 되는 부분이었다. 이어서 욥이 어떤 시험들을 받았는지, 또 그 시련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자. 계속 성경을 읽어 보아라.

(3) 욥의 반응

욥 1:20~21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욥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돌려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사탄은 물러갔다. 곧이어 욥은 갑작스럽고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먼저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살해당했다. 이어서 양 떼와 종들이 불에 타 죽었으며, 그 후에는 낙타가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들도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욥이 받은 첫 번째 시험으로, 이 일련의 공격에 그는 고통을 받았다. 이 공격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의 재산과 자녀들만 목표로 삼았으며, 욥 본인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욥은 거액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에서 순식간에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은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거나 똑바로 직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욥은 그의 비범한 일면을 보여 주었다. 성경에는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난 후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 우선, 욥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분노와 증오는 더더욱 없었다. 여기에서 욥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재앙은 결코 우연이나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며, 보응이나 징벌이 임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와 시련이 임해 여호와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거두어 간 것임을 확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욥의 마음은 매우 차분했으며, 정신도 매우 맑았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인성을 지녔기에 이성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보통 때와 다른 냉정함을 보였다. 즉,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다. ‘겹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벌거숭이임을 의미하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가 벌거숭이로 세상에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갓난아기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 대한 욥의 태도는 어떤 피조물도 보여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여호와에 대한 그의 믿음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와 순종이었다. 욥은 하나님이 내려 준 복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간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며, 나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었다.

욥이 보여 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은 인류의 모범이 된다.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은 사람이 갖춰야 할 최고 수준의 인성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거두어 가도 전혀 원망하는 바가 없었으며, 게다가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당장 거두어 갈지라도 원망 한마디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욥의 이러한 모든 행동은 순전하고 정직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욥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선행하기에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을 토대로 욥은 하나님의 인도와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행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과 행실, 태도와 일 처리 원칙을 자신에게 요구하고 규범화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욥은 자신의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실하고 실제적인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악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지킨 ‘순전함’의 유래이다. 욥은 정직하고 단순하며 선량한 인성을 갖췄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악에서 떠난 실제 체험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탄의 이 같은 공격 속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의 시험에서 욥이 보여 준 태도는 무척이나 ‘단순’했지만, 후세 사람들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도 욥의 그 ‘단순함’에 이르지 못하거나, 욥이 보여 준 태도를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욥의 그 ‘단순’한 태도와 오늘날,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명한 ‘절대 순종,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구호나 결심을 비교해 보아라, 너희는 부끄럽지 않느냐?

성경에 기록된 욥의 집에 닥친 이 모든 상황을 접했을 때,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욥이 맞닥뜨린 시련은 ‘끔찍하다’는 말로 표현할 만하지 않겠느냐? 글로 묘사된 내용만 봐도 욥에게 시련이 임했을 때의 장면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떠했겠느냐? 이로써 욥에게 임한 것은 ‘연습’이 아니라 ‘총탄을 사용하는 정규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임한 그 시련은 도대체 누가 직접 가져온 것이더냐? 물론 사탄이 직접 가져온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도 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방식으로 욥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더냐? 그런 적은 없다. 그저 조건을 하나 제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욥에게 임했다. 사람들은 욥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 사탄의 사악함과 추악함, 사람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태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을 해하는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추한 몰골이 그때 낱알이 드러난 썸이다. 사탄은 이러한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회를 빌미로 욥에게 가차 없이, 그리고 미친 듯이 해를 가했다. 그 수단과 잔인함은 지금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전혀 견뎌 낼 수도 없는 정도였다. 욥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굳게 섰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대결을 벌였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 대결에서 욥은 가득했던 소와 양, 그리고 재산 전부와 자녀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사탄과의 대결에서 재산과 자녀를 잃을지언정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키고, 사람됨의 근본을 지키려고 했다. 성경에는 욥이 재산을 잃는 전 과정과 그의 반응, 태도 등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간단명료한 묘사에 욥이 그 시험을 아주 ‘쉽게’ 직면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 장면과 사탄의 악독한 본성을 결부시켜 보면, 성경에 묘사된 구절처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장면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사탄은 이 정도로 인류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해하고 증오한다. 하나님이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분명 사정없이 욥을 사지로 몰았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 눈의 의인이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사탄을 멀리하고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회를 이용해 모든 분노와 증오를 사정없이 욥에게 쏟은 것이다. 이것으로 욥이 육체와 마음, 외적 내적으로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당시의 장면을 볼 수 없으니, 그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욥이 고통받을 당시의 심정을 미미하게 느낄 뿐이다.

욥이 지킨 순전함에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황급히 도망갔다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감찰하고 살펴보았으며, 또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찰하고 살펴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겠느냐? 당연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한 것을 후회했겠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욥이 의롭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악함과 비루함을 드러낼 기회를 주었으며, 욥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사탄,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더냐? 사실상, 욥이 사탄을 이긴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욥이 한 가장 멋진 말, 그가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가 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욥의 태도였다. 이어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고 말했다. 욥의 이런 말들로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은 틀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칭찬한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증언이다. 이처럼 평범한 말 한마디에 사탄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수치를 당해 황급히 도망가게 되었으며, 속수무책이 되었다. 사탄은 욥의 이 한마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랍고 위력 있는 행사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가 권세 잡고 있는 사람의 비범한 매력을 보게 되었다. 또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기 위해 발산하는 강력한 생명력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사탄은 이렇게 패했다. 사탄은 이 사건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지만 욥을 놓아줄 생각은 없었으며, 사탄의 악독한 본성 역시 이로 인해 변하지는 않았다. 사탄은 욥에 대한 공격을 이어 나가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왔다….

이어서 욥이 당한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자.

3)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온몸에 악창이 나다)

(1) 하나님의 말씀

욥 2:3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 2: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

(2) 사탄의 말

욥 2:4~5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3) 욥은 시련을 어떻게 대했는가

욥 2:9~10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 3:3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를 귀하게 여겼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욥 2:3). 이 대화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시련에서 보인 욥의 태도와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가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기 전의 평가와
똑같았다. 즉, 시험이 임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 눈에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지켜 주었으며, 그에게 복을 내린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시험을 겪은 후,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욥의 실제적인 행동에
하나님은 갈채를 보냈으며, 만점을 주었다. 욥의 눈에는 그 모든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을 버릴
만큼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재산이나
자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소중히 여기는 욥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았다. 욥에게는 그 시련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준 복 — 모든
재산과 자녀들 — 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거둬 가는 것을 경험하는 데 불과했다.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음을 씻는 진실한 체험이었으며, 인생을 충실하게 하는 생명의
세례였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과 경외심을 검증하는 한 차례의 풍성한
잔치이기도 했다. 이 시험으로 욥은 부자에서 무일푼의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고, 동시에
사탄으로부터 해를 입었다. 욥은 무일푼이 되었다고 해서 사탄을 증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탄의 졸렬한 행위로 인해 사탄의 추함과 비열함을 보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적대심과 배반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더욱 굳게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다. 욥은 ‘재산, 자녀, 가족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절대로 사탄의 노예나 재산의 노예, 다른 누구의 노예도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맹세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소리였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욥이 이 시험을 통해 얻은 것도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준 시련에서도 그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뜻이다.

지난 수십 년의 인생에서 욥은 여호와와 행사를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 준 복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복은 욥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빳진 마음이 들게 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것처럼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울러 하나님의 행사와 위대함을 증거할 기회가 오기를 바랐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검증하고 그의 믿음을 정결케 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시련이 임하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기에 조금도 태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욥의 일생 중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회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과 경외심이 검증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정결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추구가 있었기에 욥은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순전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욥은 하나님이 내려 준 복과 은총에 더욱 감사했으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더욱 찬양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위대함과 거룩함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때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욥의 경험과 체험을 놓고 봤을 때 그의 믿음과 인식은 이미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룬 상태였다. 즉, 그의 믿음은 커졌고, 그의 순종은 지향점을 얻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한층 더 깊어졌다. 이번 시련은 욥의 마음과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 놓았지만 욥은 이로 인해 만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다. 욥은 이번 시련에서 자신이 얻은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또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성찰해 보는 한편, 묵묵히 기도하며 다음 시련을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이 주는 또 한 번의 시련을 통해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 하나하나와 마음속 생각을 모두 살핀다. 욥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 예상대로 다시 한번 임했던 것이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느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을 하자, 사탄은 속으로 기뻐했다. 하나님 눈에 완전한 사람을 공격할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탄에게는 정말이지 얻기 힘든 기회였다! 사탄은 이 기회를 틈타 욥의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자 했다. 그리하여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여호와와 이름을 찬송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욥을 자기 수중에 넣고 멋대로 우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탄은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숨겼지만 악독한 본성은 억제할 수 없었다. 그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대답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욥 2:4~5). 사탄의 이 말을 본 사람은 사탄의 악독함에 대해 실제적인 인식과 느낌을 갖게 된다. 진리를 사랑하고 사악함을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탄의 이 황당무계한 논리를 듣고 사탄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에 증오심을 느낄 것이다. 또한 사탄의 그릇된 논리에 염증과 역겨움을 느끼는 동시에, 욥을 위해 기도와 축원을 올릴 것이다. 정직한 자가 더 순전해지기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영원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빛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살기를, 또한 욥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편달하고 격려하기를 바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말 속에서 사탄의 악독한 속셈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흔쾌히 사탄의 ‘간청’을 들어주었다. 다만 사탄에게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욥 2:6). 사탄이 이번에는 손을 뻗어 욥의 뼈와 살을 해하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욥의 육체를 사탄의 손에 붙이겠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해야 하며, 그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즉, 그 외에는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욥을 대해도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부리나케 욥의 앞에 이르러 손을 뻗어 그의 살가죽을 치고,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다. 욥은 살가죽의 통증을 느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함과 거룩함을 찬송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사탄은 더 길길이 날뛰었다. 사람을 해치는 쾌감을 느낀 사탄은 손을 뻗어 악창이 난 욥의 살을 움켜쥐고 쏘아 터지게 했다. 그러자 피와 살에

더없는 통증과 아픔을 느껴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온몸의 피부와 살을 문질렀다. 마치 그렇게 하면 육체의 통증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욥은 하나님이 곁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또 한 번 무릎 꿇고 엎드렸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고통을 살피시나이다. 당신께서 어이하야 사람의 나약함까지 생각해 주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욥이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에 욥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사탄은 급하게 손을 뻗어 욥의 뼈를 쳤다. 순식간에, 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느꼈다. 살가죽이 뼈에서 벗겨지는 것 같고, 또 뼈가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다. 수많은 화살이 심장을 뚫는 것 같은 통증에 그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욥의 인내력은 극한에 몰렸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으며, 몸의 살가죽을 뜯어내 통증을 덜어 내고 싶었다. 그러나 욥은 참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몸의 살가죽을 뜯어내지도 않았다. 사탄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욥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이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의 앞에, 뒤에, 좌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아파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으며,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숨겼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미는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때 욥은 눈물을 흘렸다. 몸의 통증은 억지로 참아 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시나이다. 지극히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여리고 무지한데,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이처럼 생각해 주고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당신께서 저를 치시고 오히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시나이다.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 당신께서 생각해 주고 마음에 두시나이까?’ 욥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사탄은 온갖 수를 다 써도 성과가 없자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은 결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욥에게서 나타낼 큰 능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사탄의 퇴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각 인물이 출현함에 따라 더 멋진 장면들이 계속 펼쳐졌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또 다른 모습은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것이다

욥이 사탄의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자, 가장 먼저 그의 아내가 나서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탄의 역할을 하며 욥을 공격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9). 이는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말로, 공격과 참소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유혹과 시험과 꾀방의 의미도 띠고 있었다. 사탄은 욥의 육체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자 직접 욥의 순전함을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욥이 그의 순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사탄은 또한 ‘여호와와 이름을 버린다면 그 모든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되고 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을 통해 욥을 유혹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내의 권고를 들은 욥은 이렇게 질책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10). 이 말은 욥이 오랫동안 쌓아 온 인식이었다. 다만 이 인식에 대한 진실성이 이때 입증되었을 뿐이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권했다. 그 의미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째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불공평한데도 당신은 계속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라고 말하더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왜 당신이 화를 입게 하느냐? 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다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재앙은 사라지리라.’라는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욥의 증거가 다시 한번 나왔다. 이런 증거는 보통의 사람에게 없는 것이며,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말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이번 기회에 욥을 통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증하고자 했을 뿐이다. 아내의 권고를 듣고도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 말은 매우 무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무게를 지녔음을 입증해 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며, 또한 원하고,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이 역시 욥의 증거 중 정수로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욥의 귀함은 그가 시험을 받아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즉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내와 친족들의 권고를 듣고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설사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로써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크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볼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그의 마음과 입은 일치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 참된 욥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이유였다.

욥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오해

욥이 겪은 고통들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준 것도, 하나님이 친히 준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직접 준 것이었다. 그러니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욥은 자신이 평소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행동 원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전부 드러냈으며, 그것은 다 진실했다. 만일 욥에게 시험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을 주기 전에,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너는 그를 위선적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베풀어 주었으니 그가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을 것이다. 또한, 만일 욥이 시련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는 말을 했다면, 너는 욥을 허풍선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으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욥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하며,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욥의 이러한 태도에, 공리공론을 즐기며 글귀만 늘어놓기 좋아하던 자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련을 받아들인 적이 없던 자들은 욥이 지켜 낸 순전함에 의해 정죄받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자들도 욥의 증거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욥이 시련 속에서 보여 준 행동과 그의 말을 두고 혹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혹자는 질투를 하며, 혹자는 의혹을 품었다.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로 욥의 증거에 대해 코웃음 치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욥이 시련 속에서 받은 고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욥이 하는 말을 들었고, 시련이 임했을 때 그가 드러낸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나약함’은 그들이 생각하는 욥의 이른바 순전함 중의 순전하지 않은 부분인 동시에, ‘하나님 안중의 순전한 자’의 흠집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순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 즉 흠도 없고 오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약함이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감정도, 증오도, 과격한 행동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욥을 진정으로 순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욥이 시련 속에서 보여 준 많은 행동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은 사람들의 상상처럼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고 대성통곡하지 않았다. 욥의 그러한 ‘예상을 벗어난 행동’은 그가 사람들의 눈에 냉혈 인간으로 비치게 했다. 그에게서는 눈물도, 혈육의 정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욥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남긴 ‘나쁜 인상’이었다. 이어지는 욥의 일련의 행동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람들은 ‘겉옷을 찢는’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으로 보았으며, ‘머리털을 미는’ 행동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오해했다. 사람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욥의 말 외에 하나님이 칭찬한 그 어떤 의로움도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욥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평가는 그저 몰이해와 오해, 의심, 정죄, 도리적인 인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와 같은 인상을 기저에 깔 사람들은 욥의 의로움에 한층 더 의구심을 품었다. 욥의 행동과 성경에 기록된 그의 태도는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릴 만큼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사람의 상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큰일’을 해내기는커녕, 고작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 장면에 세상 사람들은 놀람을 금치 못했고, 욥의 의로움에 의혹을 품고, 심지어는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욥은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맹세하지 않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욥에게서 본 것은 오직 그의 나약함뿐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는 욥의 말을 듣고서도 무감각한 채로 있거나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 욥의 말에서 그의 의로움을 보지도 못했다. 시련의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이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대체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 이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과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는 원칙 또한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며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이 그저 빈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 역시 소문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나약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나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한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심지어 ‘새롭게

이해'하기까지 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입증되었다.

욥이 받은 고통은 누구도 상상하거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역무도'한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몸의 고통을 줄여 보고자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욥 3:3)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이 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너희는 이 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보느냐? 이 말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느냐? 나는 너희 대부분이 욥의 이 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면 그 어떤 나약함도 보여서는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직면하거나, 심지어 웃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마주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또한 사탄이 욥의 육체에 어떤 고통을 가해도 욥은 마땅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느꼈던 어떤 것도 표현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더 강력한 시련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강직한 자가 마땅히 보여 주고 갖춰야 할 태도라고 말이다. 그러나 욥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뜻은 더욱 없었다.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하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은 자가 없을뿐더러, 욥과 같은 상황을 겪어 본 자도 없기 때문이다. 왜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겠느냐? 하나님이 보기에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욥이 해낸 것을 해낼 수 있는 자 역시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욥처럼 이러한 고통이 임했을 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자 역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의인인 자,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한 자, 사탄으로 하여금 머리를 감싸고 도망쳐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하게 한 자를 칭찬해선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설마 너희의 요구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이냐?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는 욥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도 칭찬했거늘 너희에게 무슨 이견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고 사람은 사람의 겉면을 본다고 나는 늘 말해 왔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살피기에 사람의 본질을 알지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정의한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한 모든 영적 인물들은 그 행동에 아연실색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므로 생일을 비롯해 생명과 육체를 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지, 그것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해이자 생각이었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신성불가침한 것이자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이다. 그런데 욥은 그 ‘관례를 어기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금기를 깨는 행위로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욥의 ‘의로움’에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욥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방종’해져 그런 경거망동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살아생전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으면 하고 저주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사람들이 욥의 행동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 욥의 마음이 진정 어떠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또 욥이 왜 그렇게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실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욥 자신만이 알고 있다.

사탄이 손을 뻗어 욥의 뼈를 쳤을 때, 욥은 사탄의 마수에 걸렸다. 그는 벗어날 수도 저항할 힘도 없었으며, 그의 몸과 영혼은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 ‘극한의 고통’을 통해, 욥은 육으로 사는 사람의 보잘것없음과 무력감, 유약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욥은 하나님이 왜 인류를 염려하고 보살피는지, 그 심정을 절실히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다. 마수에 걸려든 욥은 평범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무력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욥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숨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사탄의 손에 넘기기는 했지만, 또 그로 인해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아파하고, 욥의 상처에 괴로워했다.... 욥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고, 또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더욱이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욥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육에서 오는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더는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참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는 심적 고통까지도 감내해야 했다. 육체와 마음에서 오는 이중의 아픔에 욥은 가슴이 찢어지고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했으며, 참으로 속절없고 무기력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강렬해졌으며, 사탄을 증오하는 마음 역시 그에 따라 더 커져 갔다. 당시의 욥은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랄지언정,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심히 증오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태어난 날도 싫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어졌다. 욥은 자신의 생일과 출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이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더라면”(욥 3:3~4). 욥의 말에는 자신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아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더라면”. 또한 하나님이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죄스러워하는 심정도 담겨 있다.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더라면”. 이 두 마디는 그 당시 욥의 심정을 최대한 표현한 것으로, 모든 이에게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오롯이 보여 주고 있다. 그때, 욥이 원했던 대로 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진정으로 승화되었다. 물론 이 ‘승화’는 하나님이 예정한 결과였다.

욥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눈에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욥은 처음의 시련에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 냈고, 재산과 자녀, 나아가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는 시련을 이겨 냈다.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의 거두어 감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까지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보여 준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련에서 욥이 증거한 것이다. 두 번째의 시련에서 사탄은 손을 뻗어 욥에게 갖은 해를 가했다. 욥은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증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강인함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또 한 번 사탄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가 보여 주고 증거한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열납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욥은 자신의 실제 행동을 통해 사탄에게 선포했다.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바꿔 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외심을 빼앗아 갈 수도 없다고 선포한 것이다. 또한 그는 죽음이 다가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순전함과 정직함을 버리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욥의 의연함을 본 사탄은 겁이 났다. 사탄은 욥의 믿음에 두렵고 간담이 서늘해졌으며, 사탄과 사생결단하겠다는 욥의 기세를 보고 침통해졌다.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앞에 사탄은 속수무책이 되었다. 그래서 욥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짓도 그만두었다. 이는 욥이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욥은 두 차례의 시련 속에서 굳게 섰으며, 순전함과 정직함을 실제로 살아 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의 생존 법칙의 범위 역시 확장될 수 있었다. 그 두 번의 시련을 겪은 후, 욥의 인생 경험은 더욱 풍부해졌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더 성숙하고 원숙해졌으며, 더 강인해지고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욥은 자신이 지킨 순전함의 정확성과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 시련으로 인해 욥은 사람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으며,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이 더해졌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 시련에 욥은 천 리 밖으로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갔다. 육체의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낀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런 모습은 그가 일찍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발현이었다. 욥의 그 ‘자연스러운 발현’은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욥은 자신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잇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때의 욥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데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경지로 자신을 승화시켰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과 경외심을 헤아림과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욥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상처 주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신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눈에 욥은 여전히 똑같은 욥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 그때의 욥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완전함에 이르렀으며, 하나님 눈에 명실공히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사탄을 이겼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섰으며,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 가치를 승화시켰으며, 초월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욥은 의로움으로 인해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시험당했으며, 의로움으로 인해 사탄의 손에 넘겨졌지만, 또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고 굳게 설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욥은 더 이상 사탄에게 넘겨지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빛 속에서, 그리고 사탄의 감시와 해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사람이 되었고, 자유로워졌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욥이 겪은 시련의 전 과정을 알면, 대부분 사람이 욥과 관련된 정보에 흥미를 보일 것이라 믿는다. 특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

욥의 일상생활에서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려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욥이 몹시도 완벽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과 이해이다. 욥이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실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저 문자적으로 책 속에서, 그리고 도리 가운데서 답을 찾는다면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 먼저 욥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그가 삶에서 보여 준 보편적인 모습은 어땠는지 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욥의 삶의 원칙과 인생 목표, 욥의 인성과 품격, 그가 추구한 것에 대해 알아보자. 성경 욥기 1장 3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구절은 당시 욥의 지위와 신분이 매우 높았음을 말해 준다. 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가 재산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욥은 모두가 주목하는 지위와 신분을 지녔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욥에 대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이다. 즉, 욥은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엄청난 재산과 고귀한 지위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정상인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 삶의 질, 사생활의 각 부분이 모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 아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4~5). 이 구절에는 2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욥의 자녀들이 자주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걱정이 된 욥이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 2가지는 두 부류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다. 한 가지는 욥의 자녀들은

생활이 풍족하여 늘 잔치를 베풀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었으며, 물질적 여유가 가져다주는 높은 질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나날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 않고, 이를 위해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겁내지 않았고, 더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욥의 자녀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점은 이러한 일들이 임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된 또 다른 한 가지의 일로, 욥이라는 사람의 인성과 본질, 그리고 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 욥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욥의 자녀들만 항상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다. 즉, 욥은 잔치를 베풀지도, 자녀들과 함께 즐기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는 부유했고, 각종 재산을 소유했으며,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호사를 누리지는 않았다. 그는 부유하다고 해서 좋은 생활 환경에 빠져 살지 않았고, 육체적 쾌락을 탐하지도 않았으며,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욱이 부유하다고 해서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도 없었다. 여기에서 욥은 검소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준 복으로 인해 탐욕스러워지거나 향락을 즐기지 않았으며, 삶의 품격을 중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일을 함에 있어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허세를 부리지 않는 인품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했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즉, 욥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들까지 자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욥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도 대체하지 못했다. 그가 일상에서 행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위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심은 단지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행에 옮겨졌으며,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났다. 욥의 이러한 실제 행동에서 우리는 욥의 정직함과, 정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의 본질을 볼 수 있다. 욥이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는 것은 그가 자녀들의 행동을 지지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싫어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뜻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들의 행위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라고 한 것이다. 욥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욥의 인성에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욥은 죄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들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혈연관계에 연연해 사람됨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 않았다. 또한, 정에 이끌려 그들의 죄에 관용을 베푸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죄를 자백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람을 대하는 욥의 원칙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열납하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악행을 저지르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은 혐오했다. 그의 애증은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 비친 욥의 정직함이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욥이 보인 진정한 인성과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련 속에서 나타난 욥의 인성(시련 속에서 보인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에 대해 알아보다)

위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 전, 욥이 일상생활에서 보여 준 인성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듯 곳곳에서 드러난 욥의 모습을 통해 그의 정직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악에서 떠난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인 인식과 이해가 생겼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일차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욥의 인성과 품격,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추구한 정도에 대해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나온 욥의 말을 통해 욥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어느 정도 갖게 됐을 뿐, 깊이 있는 앎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받아들일 때 욥이 보여 준 인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욥의 진정한 인성을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욥 1:20). 이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욥이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놀라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으며, 소식을 알리러 온 종을 꾸짖지도 않았다. 더욱이 현장에 조사하러 가지도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사실 확인을 해서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잃은 재산을 아까워하거나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죽은 자녀와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욥의 이러한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과 달랐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당혹감을 안겨 주었으며, 또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냉혈 인간’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빈털터리가 된다면, 일반 사람은 괴로움이나 절망감을 느낄 것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재산은 평생의 심혈이자 생존을 위한 근간이며 살아가는 희망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땀 흘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하고, 또 희망이 사라졌음을, 심지어는 미래를 잃어버렸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산을 대하는 모든 정상인의 태도, 그리고 재산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며, 나아가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을 대하는 욥의 냉담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은 욥의 마음을 해석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 보도록 하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풍족한 재산을 주었으니 재산을 잃은 욥이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하나님이 준 재산을 제대로 간수하지도, 보살피지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산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마땅히 현장으로 달려가 물건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 후, 다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어야 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욥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밀천으로 삼는 대신, 자기가 지켜야 할 도를 전심전력으로 지키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복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더 많은 복을 탐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재산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다. 욥은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으며, 복이 없거나 복을 잃었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상심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복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모든 것을 망각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누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일도 없었다. 재산을 대하는 욥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그의 참된 인성을 보여 준다. 첫째, 욥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으며, 물질생활에 대한 그의 요구 기준은 아주 낮았다. 둘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갈까 걱정한 적도, 두려워한 적도 없었다.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태도이다. 즉, 하나님이 언제 거두어 가든, 혹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든 가지 않든, 그는 어떤 요구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기만을 원했다. 셋째, 욥은 본인의 재산을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으로, 즉 그의 확신을 보여 준다. 욥에 대한 이상의 3가지 개괄을 통해 욥의 인성과 그가 평소에 진실로 추구한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느냐? 욥이 재산을 잃었을 때 것처럼 냉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그의 인성, 그리고 그의 추구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욥은 평소 그렇게 추구해 왔기에 하나님이 준 시련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분량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욥의 이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갑작스럽게 떠올라 지어낸 것도 아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보고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만 할 뿐,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욥의 순종은 아주 실제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믿을 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욥은 아주 진솔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욥의 이성

욥은 실제 체험과 정직하고 진실한 인성 덕에,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가장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이성적인 선택은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욥은 정직하기에 만물이 여호와와 주재하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경외할 수 있었으며, 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이다. 그의 완전함은 그를 지혜롭게 바꿔 놓았고, 그를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성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느냐? 문자적 해석은 이성과 생각이 논리에 맞아 터무니없지 않으며, 적절한 언행과 판단, 적절한 규범을 가진 도덕적 기준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욥의 ‘이성적’인 모습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여기서 욥이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한 것은 그의 인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과 관계가 있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주재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할 수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에게 임한 일을 더욱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더 정확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즉, 그의 말과 행동, 일 처리 원칙과 방침은 맹목적이지도 충동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으며, 지극히

규범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임하든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각종 복잡한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잡고 처리해야 할지 알았다.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지도 알았으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와 거두어 갈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이성’이었다. 이러한 이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욥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일가친지들의 권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실제 행동으로 또다시 자신의 진실한 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진실하고 순박하며 위선적이지 않은 욥의 본모습

욥기 2장 7~8절을 보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는 몸에 악창이 난 후 욥의 반응을 보여 주는 설명이다. 그때, 욥은 재 가운데 앉아 몸의 통증을 견디고 있었다. 그를 치료해 주는 이도, 그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는 이도 없었다. 그는 혼자서 기와 조각으로 악창이 난 상처를 긁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욥이 고통받던 기간의 한 장면에 불과하며, 욥의 인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는 관계가 없다. 욥은 이 기간에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심정과 생각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의 행동과 반응은 그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는 앞의 1장의 기록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구절을 보았다. 그리고 2장의 이 구절에서는 이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가 뜻밖에도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전후 두 개의 묘사는 아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대비를 통해 우리는 욥의 본모습을 볼 수 있다. 욥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또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기 신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대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위의 복을 탐하지 않았고, 지위와 신분이 가져다주는 후광을 즐기지도 않았다. 욥의 관심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욥의 본모습이 바로 그의 본질이다. 그는 명리를 좋아하지 않았고, 명리를 위해 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진실하고 순박하며 위선적이지 않았다.

애증이 분명한 욥

욥이 아내와 나눈 대화는 그의 또 다른 측면의 인성을 보여 준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9~10). 욥의 아내는 그렇게 고통받는 남편을 보고는 그를 설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호의’는 욥에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살 뿐이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과 순종을 부인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욥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을 용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도 그럴진대, 다른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고 그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욥은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다. 아내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책망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이는 애증이 분명한 그의 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자, 그의 정직한 인성의 참된 표출이었다. 욥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의감이 있었기에 그는 사악한 풍조와 흐름을 증오했으며, 그릇된 사실과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증오하고 정죄하고 밀어냈다. 또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옳은 원칙과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욥의 선함과 진실함

욥의 다양한 행동에서 그의 인성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일에서는 또 욥의 어떤 인성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음으로 내가 이야기할 주제이다.

앞에서 나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이유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 그 일에서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만일 욥이 마음이 강박하고 사랑이 없고, 냉혹하고 무정하며, 인간성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증오했겠느냐? 다시 말해, 욥이 마음이 강박하고 인간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아파한다고 해서 마음 아파했겠느냐?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답이다. 욥은 마음씨가 착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음이 착했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워했다. 욥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기에 자신의 생일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시련 속에서 보여 준 욥의 모든 행동은 마땅히 본받을 만한 모범일 것이다. 하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일만큼은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양한 평가를 내놓게 한다. 사실, 욥의 이 행동이야말로 그의 인성과 본질을 가장 참되게 보여 준다. 그의 인성과 본질에는 숨김도, 포장도, 사람에게 의한

가공도 없었으며, 그의 이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함과 진실함을 보여 주었다. 그는 넘치는 샘물같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욥이란 사람의 면면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욥의 인성과 본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순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발전한, 실제적인 앎과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그러한 앎과 깨달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긴 것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 간의 관계

비록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고는 하나, 욥을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욥의 인성과 그가 추구한 것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욥은 이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탄에게 넘겨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의문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 질문이 다수의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니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다 그 필요성이 있으며, 평범하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가 사람에게 하는 일들은 모두 그의 경영, 그리고 인류의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행한 일도 예외는 아니다. 욥이 하나님 눈의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해도 말이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무엇을 대가로 삼고 무엇을 목표로 하든, 그가 하는 일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근본 취지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사람 마음에 심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의 근본 취지 중 하나이다. 또 한편으로 사탄은 하나님 사역의 부각물이자 봉사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넘겨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 사탄의 사악함과 추함과 비열함을 보게 함으로써 사탄을 증오하고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사탄의 통제와 참소, 교란과 공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순종, 믿음과

경외심으로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전부 이겨 내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탄의 패배 선언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먹이나 사탄이 삼키려는 대상이 아닌, 사탄이 포기한 대상이다. 그런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경외심을 지녔으며, 사탄과 철저히 결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사탄의 간담을 서늘게 하며, 또한 완전한 실패를 안겨 준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사탄을 물리쳐, 사탄이 완전히 손을 놓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최종 목표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탄에게서 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준 시련과 사탄의 무수한 시험, 공격을 겪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는 자요,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포기하지 않은 자다.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정직하고, 선하고, 애증이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고, 이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탄의 속박, 염탐, 참소, 상해 등을 받지 않으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고 해방받은 자이다. 욥이 바로 이러한 자유인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긴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욥은 사탄의 상해를 겪었지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그는 영원히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상해와 참소를 받지 않으며, 어떤 우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빛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권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파괴할 수 없으며,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것으로, 욥이 자신의 믿음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으로 얻어 낸 것이다. 그는 목숨을 대가로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얻었으며, 진정한 피조물로서 땅에서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할 당연한 자격과 권리를 얻었다. 이 역시 욥이 시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이다.

구원받기 전까지 사람의 삶은 항상 사탄의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통제되기도 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탄에게 구금된 자, 자유가 없는 자, 사탄에게서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과 권리가 없는 자이며, 사탄에게 바짝 쫓겨 맹렬한 공격을 받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존엄성은 물론이고, 행복이나 정상적인 생존 자격을 논할 가치도 없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사탄과 싸워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경외심을

무기로 사탄과 결사전을 벌여 철저히 물리쳐라. 그리하여 사탄이 너를 보면 간담이 서늘해져 도망가게 해라. 그렇게 되면 사탄은 너에 대한 공격과 참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고, 그때 너는 구원받아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사탄과 철저히 결별할 결심만 할 뿐, 사탄을 물리칠 유리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너는 여전히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너는 사탄에게서 오는 괴롭힘으로 기진맥진하여 굳게 서지도, 사탄의 참소와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을 희망은 요원해진다. 마지막 순간, 즉 하나님의 사역이 끝을 알리는 순간에도 네가 여전히 사탄에게 껍 잡혀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영원히 기회도 희망도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얻어지다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공급해 주고 붙들어 주는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뜻과 요구를 모두 알려 주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여 주었다.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을 갖추고,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진리를 얻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예리한 무기이다. 사람이 이러한 장비를 갖추려면 하나님의 검증에 직면해야 한다. 하나님의 검증에는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가 있지만, 그 모든 경로와 방식에는 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협력’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탄과 싸울 예리한 무기를 준 다음, 사람을 사탄의 손에 넘겨 사탄이 그 사람의 분량을 ‘검증’하게 한다. 사람이 사탄이 쳐 놓은 진영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포위 공격에서 살아 나오면 그 검증을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진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탄에게 항복한다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검증하든, 검증의 기준은 그 사람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는지, 사탄의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기를 버리고 사탄에게 굴복하는지 등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사람의 해방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준 무기를 들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 사탄이 완전히 단념하고 포기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 사탄이 사람을 단념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더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참소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그 사람을 해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는 전 과정이다.

욥의 증거가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와 계시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완전히 얻는 전 과정을 깨달은 동시에,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넘긴 목적과 의미도 알게 되었다. 또 더 이상은 욥이 받은 고난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고, 욥이 받은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이에 사람은 더 이상 욥과 같은 시험이 올까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는 시련에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 욥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탄을 이긴 증거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다. 사람들은 욥에게서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경외심을 통해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과 믿음만 있다면, 사탄에게 실패와 수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목숨을 버릴지언정 굳게 서겠다는 다짐과 의지만 있다면, 사탄은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져서 황급히 도망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욥의 증거는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사탄의 참소와 방해, 공격과 상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욥의 증거는 또 후세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사람은 이 계시를 통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해야만 영원히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욥의 인성과 품격, 그가 인생에서 추구한 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욥이 일생 동안 살아 낸 것과 그가 시련 속에서 보여 준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중한 자산인 셈이다.

욥의 증거로 하나님이 위안을 받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욥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아마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너희가 욥과 같은, 혹은 비슷한 시련을 겪게 되면, 즉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시련을 겪게 되면, 시험 속에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치욕과 고통을 이겨 낼 때, 너는 내가 한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 자신이 욥에게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욥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가

되면, 너는 욥이 한 그 멋진 말들이 패괴된 사람,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욥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해내기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것과 인류를 위해 바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교제했으니 너희는 이제 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욥은 진정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맞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고 확답할 것이다. 욥이 한 일들은 사탄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욥이 사탄을 이긴 가장 유력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 근거는 욥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얻은 첫 번째 증거이다. 그러므로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서 희망을 보았으며, 욥으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창세 때부터 욥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처음으로 위안이란 무엇인지,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진정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진정으로 그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보았고 또 그것을 얻었다.

욥의 증거와 욥에 대한 다각도의 설명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 앞에 펼쳐진 길에 대해 계획이 생겼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그동안 우려와 공포로 가득했던 많은 사람이 점차 심신의 안정을 찾고, 조금씩 마음을 놓게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다음의 몇 구절들도 욥에 관한 기록이다. 이어서 계속 보자.

4)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욥 9: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 23:8~9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

욥 42:2~6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었다

위의 구절들에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느냐? 먼저 욥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자. 이 2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5~6).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욥이 전해지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뿐,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 후 그는 삶 속에서,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나? 욥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걷기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사람들과 같지 않느냐?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거나 그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 아니더냐? 하나님은 그와 얘기를 나누지도, 그에게 어떤 명령을 하지도 않았지만, 욥은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으며,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 전말과 과정이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든, 어떻게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다음의 구절을 읽어 보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욥 9:11).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욥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거나 일을 행하거나 사람을 인도한다고 상상하기는 했지만, 전혀 알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임하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임했는지, 어디에 임했는지 알지 못한다.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습을 감춘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구절에 또 욥의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욥 23:8~9). 이 기록을 보면, 욥의 체험에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숨어 있었고, 그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무 말씀을 한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는 늘 하나님이 그의 앞을 지나가거나 그의 우편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그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욥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너는 욥의 이러한 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의로움은 하나님이 과장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의연하게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재를 믿었다. 또한, 하나님께 죄지을까 두려워 항상 번제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사실에서 욥이 얼마나 긍정적인 것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고 실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주재와 능력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또 그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현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는 이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복과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한 성과, 곧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욥은 화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에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룰 중점이다.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바로 앞에서 말한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라는 것이 그의 태도였다. 이 ‘찬송’

에는 조건도 배경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주관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열어 놓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대립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달라고, 무엇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무언가 얻는 게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도 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뭔가를 얻어 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 때문이지, 그 자신의 복이나 화 때문이 아니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은 변함이 없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이 화를 입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사람에게 수시로 임하는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의 발현이며,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욥이 일생을 통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었다. 욥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행실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행실을 중히 여겼으며, 그의 그러한 인식과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 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없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배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다.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말씀하거나, 명령하거나, 가르쳐 주거나, 알려 주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의 말로 하자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깨우침이나 인도,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욥이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러한 행동에 매우 만족했다. 그의 증거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었다. 욥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오한 이론만 떠들어 대며 큰소리치고, 번제만 중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욥의 마음이나 사람됨이 하나님에겐 훨씬 소중했다. 욥은 순결한 마음을 지녔고, 하나님께 숨김이 없었으며, 그의 인성은 정직하고 선했고, 또한 정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성과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와 권병, 큰

능력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 그가 화복을 따지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사람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하며 비이성적인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태도이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욥의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론적 인식이 지금의 너희보다 많은 것 같으나? 당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매우 적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욥이 이론 그러한 성과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한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인성과 추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의 인성과 추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씀했다.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평가와 결론을 내렸을 정도이니, 하물며 지금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는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심과 시련 속에서의 증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았고, 기뻐했으며, 칭찬했다. 사람들 역시 부러워했고, 경탄했으며, 칭찬이 자자했다. 그의 일생은 위대하지 않고 평범했다.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평범한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보통 사람이 얻지 못한 하나님의 도를 얻었고,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주재를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총명하지도, 막강한 생명력을 지니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갖추지 못한 진솔함과 선함, 정직함, 그리고 공평과 공의와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인성과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애증이 분명하고 정의감이 있었으며, 강한 의지와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한 모든 비범한 일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공의로움을 보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총, 보호를 보았으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권병을 보았다. 욥이 일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며, 창조주에게 끌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욕의 추구에 있다. 그는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했으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 하나님에 기뻐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가 되고자 했다. 욕은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추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과 그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없지만, 그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거두어 가는 행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가 지나온 세월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지만,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의 일상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는 데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행사는 만물의 운행 법칙 가운데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주재 역시 사람의 삶 속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행사의 무소부재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범한 나날 속에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비범하고 오묘한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기묘한 안배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숨겨진 모습’과 ‘침묵’은 욕이 하나님의 행사를 체험하는 데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욕의 일생은 평범한 삶 속에서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욕은 평범한 나날 속에서, 만물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지만 만물의 운행 법칙을 주재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사람이 욕과 같은 인성을 갖추고 욕처럼 추구하면, 그와 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고, 욕처럼 하나님의 만물 주재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욕에게 나타나지도,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욕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은 만물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사와 주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큰 능력과 권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은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게 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욕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논리적 추론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물의 법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마음처럼 되지 않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은 욕 혼자만의 특권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에 ‘욕’이란 팻말이 붙어 있어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오직 욥만이 진솔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공평과 공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성과 품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욥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갈 수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도 깨달았을 것이다. 즉, 욥 외의 모든 사람은 진솔함과 선함과 정직함, 그리고 공평과 공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날 수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사지도, 시련에서 굳게 서지도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욥 이외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속박과 굴레에 묶여 있으며, 전부 사탄이 참소하고 공격하고 해치고 삼키려는 대상이다.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이자, 사탄에게 구금된 죄수들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적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욥과 같은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느냐? 악에서 떠난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으로 개괄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실제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에는 본질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어떤 목적과 야심, 저의도 없는 초심을 지닌 자가 있는지 보아라.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본 사람이 몇몇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다. 사람은 생명 체험 과정에서 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있는지 한번 계산하고 따져 봐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고 뛰어다니며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 주실까? 내 선행을 기억해 주실까? 내 결말은 어떤 것일까? 복은 받을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람은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의와 야심을 품고, 하나님께 장삿속을 들이밀며 뭔가 얻어 내려고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자신의 결말을 두고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논쟁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며 하나님께 구두 증거를 구걸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장삿속을 들이밀며,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 내려고만 한다. 심지어 갈수록 심해지고 탐욕스러워진다.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논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임하거나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항상 나약해지고 일을 태만히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화수분이나 만물 상자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큰 채권자로 간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약속을 얻어 내는 것이 생득적 권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반면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해야 할 책임이라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이해이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서부터 사람의 주관적인 추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연결 짓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려고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사람의 본질은 뻔한 것이다.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마음씨가 악독하고 음험하고 간사하며, 공평과 공의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아가 비열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태껏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으며, 사람의 경배를 받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행하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든, 사람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은 시종일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주관하고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다. 그 뜻인즉,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도,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상태다. 다시 욥의 경우를 보자. 그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면서 어떤 다른 의도를 품었느냐? 당시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이후의 결말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더냐? 그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결말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욥은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양자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같은 선상에 놓을 수조차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지라도 욥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 그 어떤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여겼다. 이는 욥이 오랫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도를 지키며 보고 얻은 성과였다. 또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과도

얻었다. 이 두 구절은 그가 살며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고 깨달은 것이다. 또 이 두 구절은 사탄의 시험을 이긴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설 수 있었던 초석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로 봤을 때, 욥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우냐? 너희는 하나님께 욥 같은 시련을 달라고 기도할 다짐이 되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과 비교하면 너희의 믿음은 그야말로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과 참소와 시험을 이기지도 못한다.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느냐? 욥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이 구원받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나니, 이제는 욥과 같은 시련을 받아들일 믿음이 생겼느냐?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는 시련에 대해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욥의 시련이 끝나고 욥에게서 증거를 얻은 다음,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들을 한 무리 혹은 더 많이 얻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내기를 걸며 욥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해쳤던 그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는 일이 반복되는 건 없게 할 생각이었다. 하나님은 사탄이 나약하고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욥에게 했던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제멋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과 상해를 겪은 사람은 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과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재하고 주관하지,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을 함부로 지배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약함을 생각해 주며,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 역시 잘 알고 있다. 사람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늘 사탄에게 우롱당하고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사람이 늘 고난받는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자, 만유를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제멋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마음대로 사람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류를 주재하는 데에 사탄이 끼어드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만유 주재 법칙을 짓밟고 깨뜨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이 크나큰 사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는 6천 년 경륜 사역의 핵심이자 결정체이다. 또한, 하나님이 6천 년 사역에 기울인 심혈의 대가이기도 하니, 하나님이 어찌 이 사람들을 쉽사리 사탄에게 넘기겠느냐?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람은 또 언제나 사탄의 굴레에 묶여, 사탄의 공격과 상해의 위험 속에서 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게 어찌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며, 사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긍휼과 배려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시련과 심판, 형벌,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에 대해서만 공포와 두려움을 조금 느낄 뿐, 하나님의 고심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시련을 언급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의 속내는 종잡을 수가 없으므로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극력 반발하고 저항한다.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 ‘잘못 인도’ 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며,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탄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사탄이 자신들을 해칠까 걱정한 적이 없었고, 사탄에게 해를 입으면서도 사탄에게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반면,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탄의 마수에서 구원하리라는 사실을 믿은 적도 없었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권고하건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신변에 임하는 모든 일을 신중히 대하라. 경솔한 행동,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혈기와 천연적인 본능, 상상과 생각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마련한 사람, 일, 사물을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되, 더 많이 기도하고 구해라. 명심했느냐?

이어서 시련을 겪고 난 후의 욕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5) 시련을 겪은 후의 욥

욥 42:7~9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 42:10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욥 42:17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매한 자를 천하게 여긴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은 욥을 그의 종이라고 언급했다. 욥에게 사용한 ‘종’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욥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은 호칭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호칭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욥이 차지한 비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종’은 욥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 칭’이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내 종 욥’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종’이라는 단어의 함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단어에 내린 정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시련한 후, 처음으로 욥의 행동과 말을 열납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며, 욥의 행동과 말이 정확하고 옳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바스 등 친구들의 정확하지 않은 그릇된 논쟁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도 욥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정확한 인식을 가졌던 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엉뚱하게 추측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염증을 느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욥의 행동과 말을 열납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품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라고 요구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 등 친구들에게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그들은 우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번제를 드려 과오를 만회해야만 했다. 보통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여기서의 번제는 욥에게 드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번제의 차별화된 점이었다. 욥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했기에 하나님께 열납되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시련을 받는 동안 다 드러났다. 그들은 우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 이 ‘징벌’이 바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노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 아니었으며 또한 욥의 순전함을 정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이 그들의 행동은 열납하지 않으나 욥의 행동은 흔쾌히 열납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들에게 사람은 하나님께 열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며,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 눈에 천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두 부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이자 태도였다. 또한 이 두 부류 사람의 값어치와 지위에 대한 해석이기도 했다. 비록 하나님은 욥을 종이라 불렀지만, 이 ‘종’은 하나님 눈의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서 권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과오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종’의 진정한 함의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에’ 이런 ‘특별한 영광’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종’으로 불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이 두 태도는 두 부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 열납되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못해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며, 늘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께 정죄받고, 천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권병을 주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우매함에 따라 그들을 처리하지 않았다. 즉, 그들에게 별도, 어떤 응징도 내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종인 욥이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열납했기에 그들을 용서했다.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할 때 많은 것을 내려 주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병을 주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자격을 부여한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몇 사람의 과오를 기억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준 권병이었다. ‘욥의 기도로 타인이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방식을 통해 그 우매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물론, 이는 또한 엘리바스 등 친구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징벌이기도 했다.

욥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더 이상 사탄에게 참소당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은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말, 또 욥기에 기록된 그 많은 말을 했다.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그 말들을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원망도 의심도 없었으며, 오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기다림이 바로 그의 순종하는 태도였다. 그의 태도와 그가 하나님께 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열납하였다. 그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다. 하나님이 곁에 있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보고자 한 것을 보았고, 듣고자 한 것을 들었다. 욥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눈에 들어왔고, 그의 모든 말은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전부 듣고 보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때 그 시기, 하나님에 대한 욥의 앎과 마음속 생각은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의 배경에 따라 그가 말한 것을 인정해 주었다. 욥의 마음속 생각과 모든 행실, 그가 보여 주고 드러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욥이 시련을 겪는 동안, 그의 마음속 생각과 다짐은 하나님께 결과를 보여 주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뒤이어 하나님은 시련을 거두어 갔다. 그 후 욥은 고통 속에서 벗어났으며, 그의 시련도 그렇게 사라져 다시는 임하지 않았다. 욥은 이미 시련을 겪었고, 또한 시련 속에서 굳게 서서 사탄을 철저히 이겼기에 하나님은 그가 받아 마땅한 복을 그에게 내렸다. 욥기 42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욥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을,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때, 사탄은 물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욥은 더 이상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준 것 역시 더 이상 사탄에게 참소당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

비록 그때의 복은 소와 양, 낙타, 재산 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주고자 했던 복은 그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당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영원한 약속을 주려 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내린 복 중에는 결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그 복은 결말과 관계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욥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에는 매우 적당한 선이 있었고, 하나님은 결말에 대해 선포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결말을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때, 즉 사역을 끝내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 좀 내려 줄 뿐이다. 다시 말해, 욥은 여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보냈다. 이는 그와 다른 이의 차이점이다. 같은 점은 그 역시 정상인처럼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세상과 이별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성경에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욥 42:17)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겠느냐? 하나님은 결말을 선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욥에게도 수명을 정해 주었으며, 욥은 그 수명이 다 찬 후 자연스럽게 세상과 이별했다. 그가 두 번째로 복을 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고통도 더해 주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정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무슨 선고도, 정죄도 아니었다. 욥은 살아생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그가 죽고 난 후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말씀하지도, 논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에는 적당한 선이 있으며, 그 말씀과 행사의 내용, 그리고 원칙은 그의 사역 단계와 사역 시기를 근거로 한다. 하나님이 본 욥의 결말은 어떤 것이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확실히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은 알려 주고 싶지도 않았고 알려 줄 생각도 없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욥은 기한이 차서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일생이었다.

욥이 평생 살아 낸 가치

욥의 일생은 가치가 있는 삶 아니겠느냐?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왜 그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겠느냐?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그의 가치는 무엇이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인류를 대표해 사탄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했다. 그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 이행했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이 볼 때, 욥의 삶의 가치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위안과 기쁨을 안겨 드린 데 있다. 또한, 욥은 살아생전에 겪은 그 시련에서 사탄을 이겼고, 사탄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힘 있게 증거했으며,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위안을 드려 절박했던 하나님께 결과와 희망을 보여 주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본 욥의 삶의 가치이다. 그의 증거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사탄을 부끄럽게 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것이 욥의 삶의 가치 아니겠느냐? 그는 하나님께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 영광을 얻는 기쁨을 미리 맛보게 했으며, 하나님의 경륜이 그로부터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욥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표징이 되었으며, 인류가 사탄을 이겼다는 상징이 되었다. 욥이 일생 동안 살아 낸 것과 사탄을 이긴 그의 위업을 하나님은 영원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그의 순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는 완전무결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행한 사역을 살펴보자.

4. 율법시대의 조문

십계명

제단을 쌓는 원칙

종을 대하는 것에 관한 규례

도둑질과 배상에 관한 규례

지켜야 할 안식년과 3개 절기

안식일에 관한 규례

제사에 관한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준수하라고 지시함)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제사장이 드리는 속건제

제사장이 드리는 화목제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규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녀의 산후 정결 규례

문둥병 검사 기준

문둥병자의 치유 규례

병균에 감염된 방을 정결케 하는 규례

유출병 등 질병에 관한 규례

매년 지켜야 할 속죄일

소와 양을 잡는 규례

쫓아서는 안 될 이방인의 악습(근친결혼 금지 등)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쳐 죽일 것

간음죄 처벌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사람됨의 규례, 성물을 먹는 규례, 생축으로 제사드리는 규례 등)

지켜야 할 절기(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등)

기타 규례(등불 관리, 희년, 토지 무르기, 서원, 십일조 등)

율법시대의 규례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인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율법시대의 이 규례나 원칙들을 다 보았느냐? 이 규례들은 범위가 넓지 않느냐? 우선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단을 쌓는 등의 조문들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과 3개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어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례가 있다. 제사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로,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소제 등을 포함한 각종 제사가 있다. 여덟 번째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규례이다. 이어 사람이 생활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규례, 부녀의 산후 정결 규례, 문둥병 환자의 치유 규례 등 사람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규정이 있다. 이 규례들에서 하나님은 질병에 관한 것까지 전부 말씀했으며, 심지어는 소와 양을 잡는 규례까지도 언급했다. 소와 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 준 규정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었고, 사람에게도 분명 이로웠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안식일, 유월절 등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부 절기, 규례까지 전부 알려 주었다. 마지막 조항을 보자. 기타 규례에 등불 관리, 희년, 토지 무르기, 서원, 십일조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모든 조문들은 관련되는 범위가 넓지 않느냐? 우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관련되며, 도둑질, 배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등등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관련된다. 즉,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경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위해 많은 규례를 정해 지키게 했다. 이러한 규례들은 인류가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상적인 인류의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제단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고, 그다음으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었다. 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정해 주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지 정해 주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이 조문과 규례, 원칙들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람의 생활을 이끌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는 한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질서 있고 규칙적이며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은 먼저 이 간단한 규례와 원칙들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줌으로써, 사람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인류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6천 년 경륜의 시작 부분에 속한 세부 내용들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례와 규정들은 하나님이 율법시대에 인류를 인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다. 이는 율법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행한 사역의 기록이자,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이끌고 인도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급을 떠날 수 없다

이 규례들에서 사역과 경영, 그리고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엄숙하고 진지하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차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역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인류에게 펼쳐 보였으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에게 알려 주었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다음 시대 사람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시대에 이 간단한 사역들을 행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과 세상, 인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아주 모호하고 불분명했다. 설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과 타산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공급을 떠날 수 없었다.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하나님은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인류의 생존 원칙과 생활에 필요한 규례들로 사람을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했다. 이 말씀의 규정과 규례들을 통해 사람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한편,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다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이후의 사역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시대의 이 규례들과 하나님이 행한 사역은 인류 구원 사역의 기초 중의 기초이며, 하나님 경륜의 시작 단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을 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 혹은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했다고는 하나, 그때의 지시와 가르침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조항씩 반포되지 않았으며, 성문화된 규정도, 규례로 정해진 것도 없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율법시대의 규례들을 말씀할 수 있었고, 그 규례들을 실행하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필수적이었고, 그 결과 역시 필연적이었다. 사람은 그 간단한 규례와 조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는 경영 사역의 절차와 하나님이 경륜에서 나타낸 지혜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증거하는 자, 그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자를 얻기 위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며,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알고 있다. 사람은 꼭두각시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행하는 경영 사역의 절차에 따라 한 걸음씩 지금까지 이끌려 왔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모호하지 않으며,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는 그의 절차와 계획에 따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펼쳐 나간다. 이후의 사역이 사전에 사람에게 예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역 역시 엄격하게 그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전개된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구현된 것이자 하나님의 권병이다. 그가 그의 경륜에 따라 어떤 사역을 펼치든 그의 성품과 본질은 모두 그 자신을 대변한다. 이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어떤 시대에 어떤 단계의 사역을 하든,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지, 그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율법시대의 사역에서 정한 규례와 원칙들이 아주 얇고 단순하며, 이해하기도 행하기도 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이 담겨 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규례들에서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염려, 섬세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것과 만유가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 그것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대체하지 못한다. 인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는 사역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명을 주든 규례를 주든, 또는 너에게 진리를 공급해 그의 뜻을 깨닫게 하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의 목적은 사람을 아름다운 내일로 인도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 본질의 일면이 발현된 것이며, 그의 성품과 지혜의 일면이 발현된 것이다. 이는 그의 경륜에 빠져서는 안 될 절차로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또한 사람이 그에 대해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떤 사람, 일, 사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의 경륜에 따라 그의 사역을 행하고, 그의 경영을 계속 해 나갈 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자. 안녕!

2013년 11월 9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 3

지금까지 몇 차례의 교제를 통해 누구나 다 아주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은 이제야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고, 정말로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다.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체험했던 적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식 측면에서든 실행

측면에서든 새로운 수확을 거두었고 인식도 어느 정도 높아졌다. 자신이 과거에 그릇되게 추구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의 체험이 너무 얇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이러한 인식은 단지 일부분의 감성적 인식에 불과하며, 이성적 인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체험 과정에서 조금씩 깊이를 더하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할 때,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품은 어떤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지 등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크게 줄어 들고, 아무리 해도 순수하고 완벽한 믿음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설사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한 적이 있을지라도, 혹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한 것 같은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는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는지, 무엇으로 인해 노하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이다. 너의 믿음은 막연함과 상상, 주관적 소망 위에 세워진 것으로서,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이런 성경 이야기와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각 단계 사역을 행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했던 당시의 초지가 무엇이었는지,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개해 나가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6천 년 경영 사역 기간에 가졌던 모든 구체적인 뜻과 진실한 마음, 그리고 각 시기, 각 시대에 인류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매사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 주는지,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더 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실재와 진실성을 더 잘 느끼게 된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성경의 역사(歷史)를 이해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성경 구절과 성경 속 인물에 대해 잘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시대 사역의 일부 배경을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면면을 이해하여 하나님에 대한 더 실제적이고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한층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한층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 대한 인식은 모두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참된 순종과 경외심이 생기게 함으로써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숭배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도, 부화뇌동하는 자도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도 저버리지도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참된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해 아직도 어렵풋하고 애매모호하고 흐리멍덩하다면 너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싫어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하고,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맹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를 수 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순종과 경외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다. 그가 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검증을 이겨 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교제하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 대해 교제하든, 혹은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담긴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관해 교제하든, 또한 어느 측면에서 교제하든, 어떤 시각으로 교제하든,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진실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사람을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 진실하게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인류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리하고, 창세부터 은혜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들을 행하였는지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경륜 절차를 죽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생기게 된 배경, 기원과 발전 과정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나님이 경영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즉 하나님의 경영 사역의 핵심과 근본 취지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아득하고 고요한, 인류가 없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은 바로 살아 있는 사람, 즉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창조하여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동반자가 되어 주며, 그의 곁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은 그의 말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와 대화할 수도 있는 존재여야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친히 흠을 취해 마음속으로 그리던 첫 번째 살아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살아 있는 존재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살아 숨 쉬는 사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그는 처음으로 가족과 동반자가 생긴 즐거움을 느꼈고, 처음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또 처음으로 염려하는 마음도 느끼게 되었다. 그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위안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생각이나 말씀이 아닌, 손으로 친히 행한 일이었다. 그런 생명체, 살아 숨 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뼈와 살이 있고 형상을 갖춘 데다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꼈고, 진정으로 자신의 책임감을 느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생명체에 대한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서 또한 그 살아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감화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생각이 들면서부터 생긴 일련의 일들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행한 그런 일들로 인해 당시에 즐거움을 느꼈든, 책임감을 느꼈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염려를 느꼈든, 그와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례 없던 외로움과 슬픔을 진정으로 느꼈다. 그는 사람이 그의 사랑과 염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받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그가 사람을 위해 일련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기쁜 와중에도, 사람이 그에게 가져다준 즐거움과 위안은 어느새 여태껏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슬픔과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심정과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아픔으로 변했으며, 아울러 초조함까지 어려 있었다. 그에게는 그런 사람, 그런 인류가 더 이상 그의 말씀을 대답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 그가 일할 때 어떻게 그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런 인류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깨달아 그를 따르는 사람, 그와 한마음 한뜻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행한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금의 인류에게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한 후에도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그의 경영을 전개해 나갔고, 또한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기뻐하는 자를 얻으려고 했다.

이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수로 세상을 멸한 일을 보았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기록에는 노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노아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이 땅에서 그의 분부대로 한 가지 일을 하게 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은 처음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해 버렸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인류 창조 이후 처음으로 인류를 그렇게 극도로 증오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런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로 처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인류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언약은 무지개를 증거로 삼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세운 첫 번째 언약이기 때문에 그 무지개 또한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그 증거는 실물로 존재하며, 그 실물이 바로 무지개인 것이다. 바로 이 무지개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은 항상 윗 세대의 인류를 잃은 아픔을 느끼고, 또한 이 무지개의 존재는 과거에 윗 세대 인류에게 발생했던 일을 하나님께 계속 귀띔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늦추려 하지 않고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계속해서 그다음 단계의 경영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책임자로 택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한 책임자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류 구원 사역을 그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이다. 뒤이어 하나님은 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선민 가운데서 그의 율법시대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또 처음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조례와 법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람이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절기 혹은 일하는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그렇게 구체적이고 규범적으로 정해 주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최초로 일상의 규례와 원칙을 그렇게 상세하고 규범적으로 정해 준 것이었다.

‘최초’,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한 사역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사역이 전대미문의 사역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비록 과거에 인류와 각종 생물과 생명체를 창조한 적은 있을지라도 그런 사역을 한 적은 없었다. 그 사역들은 다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사역으로, 모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경영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또 처음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 내고 의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욥을 선정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탄에게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사례이자, 처음으로 사탄과 내기를 하여,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사탄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처음으로 얻은 사례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 처음으로 얻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얻은 후, 더욱 절실하게 그의 경영을 계속하고, 그가 하려고 했던 다음 단계 사역을 행하며, 다음 단계 사역에 적합한 사람과 사역 장소를 예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여기까지 교제하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진실로 이해하게 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이번 사업을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도, 더욱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라, 계획과 목적, 기준을 갖고 그의 뜻을 담아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이번 인류 구원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든,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든, 인류가 얼마나 나약하든, 인류의 패역이 얼마나 깊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심혈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안배하고, 그가 만들려는 모든 사람과 행하려는 모든 사역을 주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나님은 처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큰 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기울인 심혈과 지불한 대가, 자신의 소유와 어떠한, 자신의 지혜와 전능, 자신의 모든 성품을 남김없이 인류에게 조금씩 나타내고,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가 경영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인류를 그 무엇보다도 중히 여긴다. 비록 그가 그런 인류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고, 또 그런 인류가 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를 거역할지라도, 그는 그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이 여전히 사람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의 말씀의 부르심에 깨어나고, 그의 말씀에 감동을 느끼며, 그가 바로 창조주임을 알게 되어 그의 곁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느낀 듯하다. 하지만 사람의 느낌이나 일부 인식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영원히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시 하나님이 왜 인류를 창조하였는지, 또 어떤 배경하에서 그가 바라는 인류를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어 누구나 다 확실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단계별 시기별 사역은 모두 그의 전체적인 경영 사역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각 단계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경륜 사역의 유래를 깨달은 셈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앎도 함께 깊어질 것이다. 앞에서 내가 언급했던, 하나님이 창세 초기에 했던 모든 일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정보’에 불과하고, 사람의 진리 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네가 체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말한 것들이 한두 개의 정보에 불과하거나 약간의 비밀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이 자랐을 때, 너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자리가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너의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지고 깊어졌을 때, 너는 내가 오늘 한 이 말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어느 정도로 깨달았든 상관없이, 이 일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일과 사역을 생각으로 하든 몸소 하든, 처음으로 하든 마지막으로 하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그의 목적과 생각이 들어 있으며, 그러한 생각과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데 더욱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이해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해하고 인식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라면, 사람이 얻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생명이 네 내면에 만들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너의 경외심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는 성과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 알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면, 심지어 그러한 일들을 따져 볼 생각도, 중요시할 생각도 없다면 내가 분명히 말해 주겠다. 네가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구원은 더더욱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과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겨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음도 생기게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겨보는 과정에서 점차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거래, 하나님께 했던 요구, 혹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욕망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열한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인지 보게 될 것이며, 네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경지에는 기만도 간사함도 없고, 어둠도 사악함도 없으며, 오직 진실함과 신실함, 광명과 정직함, 그리고 공의로움과 선함만 있을 뿐이며, 사랑과 배려, 긍휼과 관용이 충만하여, 너에게 사는 것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 주는 것들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으로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병으로 충만하다. 거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노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너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볼 수 있으며 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반해 네 주위의 사람과 일, 사물, 심지어 너의 가족, 너의 반려자, 네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언급할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으며 비천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위해 더 이상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자신을 낮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높고 큼과 지고지상함을 보게 되고, 더욱이 네가 예전에 별것 아닌 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행사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관용,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포용과 배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너에 대한 사랑과 이른바 ‘보호’ 혹은 너에 대한 걱정 모두 언급할 가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보물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일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참으로 거룩하며, 하나님께는 간사함도, 사악함도, 질투도, 분쟁도 없고, 오로지 공의와 진실함만 있으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동경해야 한다고 말이다. 사람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생토록 배워야 하는 공과이자, 성품 변화와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모든 이가 평생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것이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행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소유와 어떠함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약이나 율법시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내고 은혜시대를 시작하자, 우리의 발걸음도 그에 따라 은혜시대, 즉 은혜와 구속으로 충만한 시대로 들어갔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처음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였다. 새 시대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 있어서나 인류에게 있어서나 모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시작점은 하나님이 또 처음으로 한 새 사역이며, 그 새 사역은 바로 사람도, 만물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일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의 일원이 되어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과 신분을 지니고 그의 새 사역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 새 사역은 그가 이미 율법시대의 사역을 끝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더 이상 율법 아래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율법의 형식으로, 율법의 원칙과 규례에 맞춰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율법을 위주로 하는 모든 사역은 영원히 멈추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새 사역, 새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또 새로운 시작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다음 시대로 인도해야만 했다.

그 일이 사람에게 희소식이 될지 홍보가 될지는 사람의 본질에 달렸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라 홍보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할 때, 율법의 조문과 규례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흔히 지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홍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순수하고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하나님이 처음으로 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생활했으며,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자의 방식과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사역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처음으로 사람의

고정 관념을 깨뜨렸고, 또 모든 사람의 상상을 넘어섰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실익’을 안겨 주었다. 하나님은 구시대를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의 오래된 사역 방식과 사역 ‘스타일’을 버렸다. 더 이상 그의 사자를 통해 그의 뜻을 전달하게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구름 속에 ‘숨어’ ‘우렛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군림하며 사람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식,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 즉 말씀이 육신 되어 인자의 모습으로 그의 그 시대 사역을 펼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에 인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난감해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전례 없던 새 사역을 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새 시대에 어떤 새 사역들을 행했으며, 그러한 새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1. 마 12: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마 12:6~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선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는 구절을 보자.

왜 이 구절을 골랐겠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 구절에서 먼저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안식일임에도 밖으로 나갔고, 게다가 제자들을 이끌고 밀밭을 지나갔다. 더욱 ‘대역무도’한 것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다. 율법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마음대로 외출하지 말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런 행동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에서 생활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많은 비난을 야기했다. 사람이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예수의 행동을 비판했는지는 잠시 차치해 두고, 우선 예수가 왜 하필 안식일을 택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통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이것이 바로 이 구절과 하나님 성품의 관계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세상에 온 예수는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미 율법시대에서 나와 새 사역을 시작했으며, 이 새 사역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안식일에서 벗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사역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에 불과했다. 진짜 큰 사역은 뒤에서 계속될 터였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율법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 율법시대에 정한 규례와 원칙을 깨뜨린 상태였다. 그에게서는 율법과 관련된 그 어떤 행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전부 버리고 지키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을 지나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밖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 행동은 사람의 고정 관념을 깬 것이며, 사람에게 그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사역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새 사역을 가져왔으며, 그 새 사역은 율법과 안식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새 사역을 할 때, 더 이상 옛것에 연연하지 않았고, 율법시대의 규례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지난 시대에 했던 사역에 영향받지도 않았다. 그는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사역했으며, 게다가 그의 제자들은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정상적인 것이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과 말씀들을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이전에 했던 옛 사역을 더 이상 언급하지도, 지속시키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새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즉 그가 사람을 새로운 사역 절차로 인도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이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할 때, 사람이 지난날의 말이나 규례를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칭찬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미 새 사역을 가져왔고, 새로운 사역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새 사역을 가져올 때, 완전히 새로운 형상과 각도, 방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그의 다양한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가 새 사역을 하는 목적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옛것을 지키지 않고 옛길을 가지 않는다. 그의 사역과 말씀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저런 금기가 없다. 하나님은 아무런 매임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 어떤 금기도 없고 속박도 받지 않으며, 그가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전부 자유와 해방이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고, 진실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목각 인형도, 흙으로 빚은 인형도 아니다. 그는 사람이 모시고 절하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이며, 그의 사역과 말씀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전부 다 생명과 광명, 자유와 해방이다. 그에게 진리와 생명, 길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한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인류가 그의 새 사역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한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의 관념에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이 그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사람이 그의 새 사역을 극력 반대하고 대적해도 개의치 않는다. 피조물 중 그 누구도 사람의 이치나 상상, 지식, 혹은 사람의 도덕관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헐뜯고, 방해하고, 파괴할 생각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고 사역하는 데는 어떤 금기도 없고, 그 어떤 사람, 일, 사물의 속박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적대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그의 새 사역에 있어, 그는 바로 영원히 승리하는 왕이며, 모든 적대 세력과 인류에게서 온 각종 사설이나 그릇된 말들은 다 그의 발등상 아래에 뭉개진다. 그가 어느 단계의 새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서 전개되고, 사람들 가운데서 확장되며, 또한 전 우주에서 막힘없이 행해지고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이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떳떳하게 안식일에 나가 사역할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규례도, 사람에게서 온 그 어떤 지식과 학설도 없었고, 그가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사역과 하나님의 도였으며, 그가 행한 사역은 모두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사람을 빛 속에서 살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도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상과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매일 사탄의 속박과 각종 복잡한 규율에 묶여 오늘은 이것을 금기시하고, 내일은 저것을 금기시하며, 자유라곤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마치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 같아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금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박을 의미하고 굴레를 의미하며 사악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일단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시 말해 거짓 신이나 악령을 섬기게 되면 금기가 뒤따라온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며, 오늘은 외출하면 안 되고 내일은 취사하면 안 되며 모레는 이사하면 안 된다. 관혼상제 때마다 항상 택일해야 하고, 심지어 아이 낳는 것도 날을 가려서 낳아야 한다. 이것들을 뭐라 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금기이자, 사람에 대한 속박이며, 사탄과 악령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의 마음과 육을 움아매는 족쇄이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금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너는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금기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는 원칙이 있지만, 어떠한 금기도 없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 길, 생명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아래의 구절을 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6~8). 여기에서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가리킨다. 율법시대에 ‘성전’은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성전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한 예수의 말씀에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는 성육신한 예수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예수만이 성전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느냐? 사람에게 성전에서 나와야 한다고 알려 준다. 하나님이 이미 성전에서 나와 거기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하나님의 새 사역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란 장소를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알려 준 것이다. 하나님은 지고지상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한 것이다. 예수가 봤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차렸을 뿐이었다. 예수는 그 형식을 ‘우상 숭배’로 정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게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만 있을 뿐 하나님은 없었다. 그들은 성전이 없으면 삶터도, 경배할 곳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고 여겼다. ‘삶터’란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 머무르면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란 성전 안에서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떳떳하지 못한 수작들을 은폐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당시에 사람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원인이다. 그들이 성전을 눈가림으로, 제사를 핑계로 삼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 말씀은 현재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고, 현재 상황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비록 오늘날의 사람과 율법시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역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같다. 사람은 지금과 같은 사역의 배경하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본분 이행을 직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과 싸우는 것을 인권 보호로, 자유와 민주 쟁취를 위한 정치 운동으로 여기며,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본분을 자신의 사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종교적 교리로 간주하여 지키는 등등의 행동을 한다. 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과 성격이 같지 않느냐? 다만 2천 년 전의 사람은 형체가 있는 성전에서 개인의 경영을 했지만, 오늘날의 사람은 형체가 없는 성전에서 자신의 경영을 할 뿐이다. 규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규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며,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높다고 칭송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본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일단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찾거나,

자신의 경영과 사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 버려두고 자신이 열중하는 사업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이 맡긴 소임과 하나님의 뜻을 일찌감치 새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2천 년 전 성전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영을 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어서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 실제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면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가 왜 이 말씀을 했겠느냐? 너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너희는 어쩌면 이 말씀의 함의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때의 사람은 율법시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안식일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웠고,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은 다 비물질적임을 알려 준다. 비록 하나님이 네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너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 물질들이 너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너의 진리 추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진리의 내용이므로 그 어떤 값나가는 물질로도 절대 저울질할 수 없고, 그 가치 또한 돈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러한 비물질적 진리는 네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천천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말의 요지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주겠다. 너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 음식은 좋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배만 채우면 배고플 때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안정을 되찾게 되고, 너의 몸도 함께 편해진다. 사람의 배고픔은 음식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여겨질 때 네 마음속의 그 공허한 느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음식물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는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느끼는 그런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품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성품 또한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매우 급하지 않겠느냐? 마음속으로 기갈을 느끼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거리 구경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찾아 얘기를 나누며, 어떤 사람들은 한잠 푹 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거나 혹은 본분 이행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더 애를 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 깊이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네가 마음은 있으나 힘이 따라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갈망할 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때 네게 필요한 것은 배부른 한 끼 식사도, 따뜻한 말 몇 마디도, 일시적인 육적 안락과 만족도 아니라,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아주 조금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나면, 너의 마음은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 만족을 느끼지 않겠느냐? 네 마음이 만족을 느낄 때, 너의 마음은 물론, 너의 전 존재가 진정한 안식을 얻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비유하고 분석해 봤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말씀을 보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이후의 체험 과정에서 내가 오늘 왜 너희에게 이 구절을 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다 진리이고 생명이다. 사람에게 ‘진리’란 사람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자, 사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록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진리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네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것이다.

너희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내적 상태와 결부시킬 수 있느냐? 너는 실생활에서 먼저 자신이 경험한 사람, 일, 사물이 어떤 진리와 관련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진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킬 수 있다. 너에게 임한 일이 어느 측면의 진리와 관련되는지도 모른 채 곧장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비교적 맹목적인 행동에 속하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 너에게 닥친 일들이 어떤 유형의 일인지, 어느 측면의 진리와 관련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체험에 상응하는 진리를 찾은 다음에 그 상응하는 진리에서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진리를

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떤 규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어떤 공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공식 같은 것이 아니며, 규칙도 아니다. 진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며,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피조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자,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다. 너는 체험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체득해야 한다. 너는 어느 정도까지 체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고 진리를 떠날 수 없다. 네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현된 것이고, 진리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자체가 바로 진리이다. 다만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나타내는 것을 진실되게 구현한 것일 뿐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전부 구체화하고 명문화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하게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더욱 직설적으로 알려 준다. 하나님이 선포한 이런 진리의 이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의 발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체험을 통해서도 그 효과에 도달해야 한다. 사람이 실생활 밖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간의 인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도리와 문자적 의미에 국한될 뿐, 진정한 하나님 자신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는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하나님이 일찍이 나타냈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이 있게,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원적으로 하나님의 면면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직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면면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이 한 말씀과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고 게다가 더 전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사람에게 익숙한 성경의 사례나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현재 하나님이 선포한 심판과 형벌의 말씀, 진리들을 한 글자, 한 구절씩 분석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너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속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죽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면, 사람은 지루하거나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언어로 당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구체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당시 심정, 즉 정서 혹은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사람에게 알려 주는 셈이다. 이러한 것을 사람에게 알려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공식도, 전설도 아니고,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더 광범위하게 알고,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또한 하나님이 나타낸 이러한 성품들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인류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느꼈으리라 믿는다!

은혜시대에 예수가 했던 사역에서, 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육신을 통해 나타나며, 또한 인성을 통해 사람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은 인자에게서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며 인성을 지니고 사는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며 신성을 나타내는 모습도 보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발현된 모습을 통해 사람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 반면, 창세 이후부터 율법시대가 끝나는 시점까지, 즉 은혜시대 이전에 사람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은 모두 하나님 신성의 일면이었다. 즉, 하나님이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행하고 말씀한 것, 사람이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참모습에서 발현된 것들이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높고 큰 분이라 가까이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겨 준 인상은 대부분이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였다.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사람에게 너무 신묘막측해서 도저히 종잡을 수도, 알 방법도 없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묵상하거나 체험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주 요원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마치 하늘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느 한 가지 생각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한 일이자 더욱이 아주 요원한 일이었다. 율법시대에 하나님은 일부 구체적인 사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구체적인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했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비물질세계에서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사람이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그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개념을 줄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상이 여전히 ‘가까이하기

어렵고,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체'라는 범위에 머물게 했다. 하나님은 물질세계의 구체적인 물건이나 형상으로 사람에게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을 물질화, 인간화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생김새는 어떤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호와 성격은 어떤지 등등이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의 필요 또한 잘 알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은혜시대의 사역을 행한 것이다. 그 방식은 인성으로도 사역하고, 신성으로도 사역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사역한 기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그가 춤을 추고,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예수는 신성을 대표하는 사역도 많이 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역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발현된 것이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신성이 정상적인 육신에 실체화됨으로써 사람은 그를 보거나 만질 수 있었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사람은 인자의 일거수일투족, 인자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었다. 성육신한 인자는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계의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사람이 본 것은 형상을 지니고 뼈와 살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성육신한 인자는 하나님 자신의 신분, 지위, 형상, 성품, 소유와 어떠함 등등을 구체화하고 인간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인자의 겉모습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인자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완벽히 대변할 수 있었다. 단지 발현되는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인자의 인성이든 아니면 신성이든, 그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이 그 기간에 육신의 방식으로 사역하고, 육신의 위치에서 말씀했으며, 인자의 신분으로, 인자의 위치에서 인류를 마주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을 접하고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지극히 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큼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실제에 대해 초보적으로 알게 되었고, 초보적인 정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행한 사역과 그의 사역 방식, 말씀할 때의 위치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과 다소 다를지라도, 그의 모든 것은 사람이 본 적 없는 하나님

자신을 한 치 오차도 없이 대변하였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어떤 위치에서 말씀하고 어떤 형상으로 사람을 마주하든, 하나님이 대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일 뿐이다. 그는 그 어떤 사람, 패괴된 인류 중의 그 어떤 사람도 대표할 리 없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은혜시대에 예수가 말씀했던 한 가지 비유에 대해 알아보자.

3. 길 잃은 양의 비유

마 18:12~14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은 비유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여기에서 비유의 표현 방식은 인류 언어에 있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인류의 지식 범주 안의 것이다. 만일 율법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다면, 사람은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신분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은혜시대에 인자가 한 것이라 사람에게는 아주 편하고 따뜻하며, 친근하게 느껴졌다. 성육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인성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로 그의 마음의 소리를 표현했다. 이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대변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자 했던 사역을 대변하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은혜시대에 사람을 대한 태도를 대변했다.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다. 만일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에게 행한 사역의 한 가지 원칙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로 당시 사역에 대한 결심과 태도를 묘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우월함’이다. 즉, 그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사람에게 말씀하고, 그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심오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사람에게 해석하거나 ‘번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의 뜻과 그가 하려는 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그는 또 사람의 위치에 서서, 사람의 언어로,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의 언어와 지식으로 말씀하고 사역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하고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하는 데에 금기가 있느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대화 방식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과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뜻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상상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유를 이용했으며, 사람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그 기간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았다. 이 비유는 율법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을 꿈속에서 깨어나게 했고, 또한 대대로 은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을 보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 자신이 말한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냐? 겉으로는 예수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낸 사람일 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느끼게 하고, 또한 이 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 말을 보충해야 했던 것이다. 비록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고, 예수의 낮춤과 감춤을 드러낸 말이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든, 영계에서 사역하든, 사람의 속마음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보충했던 것이다. 이 말은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던 문제, 즉 인자가 하는 말씀에 반신반의하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말씀을 하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는 전제를 추가해야만 말씀이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사람이 그의 말씀의 정확성을 믿도록 할 수 있었으며, 말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평범한 인자가 되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인자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지위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도 알 수 있다. 그의 이 말씀은 사실 사람에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말은 내 뜻이 아닌, 너희 마음속에 자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이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주는 풍자적 의미가 크지 않느냐? 그는 성육신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에 없는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의심받고 버림받는 것을 참아야 했으며, 또한 사람의 무감각과 둔감함을 감내해야 했다. 인자의 사역 과정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과정이자, 사람의 대항을 경험하는 과정이고, 더욱이 몸소 실천하면서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과 본질로 끊임없이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탄과 실제로 전쟁을 했다고보다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이 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과 대결을 펼쳤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대결을 통해 인자는 그의 낫춤, 그의 소유와 어떠한, 그리고 그의 사랑과 지혜로써 그의 사역을 완성하였고, 그가 얻고자 한 사람을 얻었으며,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신분과 지위를 얻어 그의 보좌로 ‘돌아갔다’.

이어서 아래의 두 구절을 보자.

4.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마 18: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5. 주의 사랑

마 22: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구절 중 하나는 용서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은혜시대에 예수가 사역할 내용을 두드러지게 보여 준다.

하나님은 성육신할 때, 한 단계의 사역과 함께 그 시대에 나타내고자 하는 성품과 구체적인 사역 항목도 가지고 온다. 해당 시기에 인자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뤄지며, 그보다 넘쳐 나거나 부족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해당 시대와 관련이 있다. 사람의 방식이나 언어로 표현하든 신적 언어로 표현하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서 표현하든 그의 목적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대한 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여러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의 뜻과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사람이 알고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은혜시대에 예수가 자신이 설명하려는 바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아울러 더 많은 경우에 그는 평범한 길 안내자의 위치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사람이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사역 방식은 은혜시대 이전의 율법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과 훨씬 친근해지고 사람에게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형식과 방식 면에서 훨씬 더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비유가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숫자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시에

이렇게 비유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그의 목적은 사람이 다른 이를 용서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은 어떤 개념이겠느냐?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일을 자신의 책임, 필수 과제이자 ‘도’로 삼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비유에 불과했지만, 이 표현은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비유를 통해 사람은 예수 뜻의 깊이 깨달았으며, 이 말에서 자신이 실행해야 할 길을 찾고, 실행의 원칙과 기준을 얻었다. 또한, 이 비유로 사람은 이해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조건 없이, 횃수의 제한 없이 다른 이를 용서하라는, 용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확실한 이해를 얻었다. 예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그가 정말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란 숫자를 생각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 횃수가 정해져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횃수’에 흥미를 느끼며, 이 횃수의 기원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어 한다. 왜 예수의 입에서 이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이 숫자에 분명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말씀한 비유에 불과하다. 설사 어떤 숨은 의미나 함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에게 대한 예수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씀은 완전한 신성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말씀을 할 때의 위치와 배경을 사람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또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선포된 것이라 육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꿰뚫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후에는 영계에서 벗어나 인성의 각도에서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의 관념 속 상상이나 사람이 삶 속에서 보고 접하는 일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인류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그의 신적 성품과 마음, 그의 태도를 전했다. 그리하여 사람이 이해 가능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요구 기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사역하는 방식과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행하는 사역 방식과 원칙이 대부분의 경우 인성을 통해 이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신성으로 직접 사역해서는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인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다. 방식도 훨씬 유연하고, 형식 면에서도 율법시대를 뛰어넘는다.

이어서 주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직접 신성으로 선포한 것이더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인자가 인성으로 한 말씀이다. 사람만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보살피듯 보살핀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오직 사람만이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없으며, 적어도 하나님의 신성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신조로 삼아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규범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데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나는 인류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 안에 들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그의 성품의 자연스러운 표출이자 발현이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일부러 무언가를 하거나 특정 방식과 도덕규범을 따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는 원래부터 이런 본질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성으로 사역할 때, 인간적인 형식으로 많은 말씀과 진리, 방식을 전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뜻도 함께 전하여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신분과 지위를 대표하는 본질, 그리고 소유와 어떠함을 더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육신한 인자는 최대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성품과 본질을 나타냈다. 인자의 인성은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는 데에 있어 방해물이나 장애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와 창조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이자 다리가 되었다. 이쯤에서 너희는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사역의 성격과 방식 중 일부는 지금 이 단계의 사역과 유사한 부분이 아주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지금 단계의 사역에서도 많은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했다. 또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나 인류의 지식적인 측면의 언어와 방식을 많이 이용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하나님이 일단 성육신하고 나면 인간적인 위치에서 말씀하든 신적인 위치에서 말씀하든, 많은 말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 사람의 말이나 방식을 매개체로 사용한다. 즉, 하나님이 성육신한 때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면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했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인성으로 사람의 지식, 상식, 언어 혹은 표현법을 이해하고 배우며 파악하게 된다. 피조물인 인류에게서 비롯된 이러한 것들은 성육신 하나님께 갖춰져, 그가 육신에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신성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위치에 서서 사람의 언어로 더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정확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고, 이에 사람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 하나님의 육신이 그가 하려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장차 실제적으로 발현될 때이다.

그리고 그때는 인자가 본격적으로 직분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자(使者)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사역을 곧 그만두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 가운데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사역을 할 것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인류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고, 곧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전 인류에게 다가올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은 모두 예수가 강생했을 때 일어난 많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마왕에게 쫓긴 것으로, 온 성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까지 전부 살해당한 일이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사람들 가운데 왔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육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 사역을 사람들 가운데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적어도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직분 이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없이 즐거웠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정상인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의 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의 언어와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언어를 이용해 공급하고 인도하며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또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의 방식으로, 나아가 사람의 시각으로 인류와 사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은 육신 사역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같았으며,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함에 위안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느낀 위안은 실로 참된 것이었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쁨과 위안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때이자 구원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바로 그의 새 사역이 전개되고, 그의 경륜이 앞으로 나아가는 때이며, 더욱이 그의 뜻이 완전한 성취에 가까워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인류에게 행운이자 더없이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소식이었다.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펼칠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이 새로운 사역과 시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때는 이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때이며, 하나님이 최종 효과와 성과를 거둔 때이다. 또한 하나님이 그 성과에 만족해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고 확정하고 얻었으며,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를 만족게 할 수 있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슬픔을 내려놓았으며, 즐거움을 느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새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막힘없이 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을 때, 이미 결말을 보았으며, 이 결말로 인해 만족스럽고 즐거웠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겠느냐? 상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손뼉을 쳐도 되겠느냐? 하나님이 춤을 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도 되겠느냐? 그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마음속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그 노래를 사람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만물에게 들려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심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심정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즐거워해서도, 울거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며, 그 어떤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교제를 통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어느 정도 자유와 해방을 허락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정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최소한 하나님이 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인해 슬퍼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때,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질 것이며,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사람의 상상과 관념, 혹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존재가 되며, 너의 생명이 된 하나님이자 너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러한 바람이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느냐?

이어서 아래의 구절을 읽어 보자.

6. 산상수훈

복에 대하여(마 5:3~12)

빛과 소금에 대하여(마 5:13~16)

율법에 대하여(마 5:17~20)

노에 대하여(마 5:21~26)

간음에 대하여(마 5:27~30)

이혼에 대하여(마 5:31~32)

맹세에 대하여(마 5:33~37)

보복에 대하여(마 5:38~42)

원수 사랑에 대하여(마 5:43~48)

구제에 대하여(마 6:1~4)

기도에 대하여(마 6:5~8)

7. 예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마 13:1~9)

가라지 비유(마 13:24~30)

겨자씨 비유(마 13:31~32)

누룩 비유(마 13:33)

가라지 비유 설명(마 13:36~43)

보화를 감추는 비유(마 13:44)

진주를 찾는 비유(마 13:45~46)

그물을 치는 비유(마 13:47~50)

8. 계명

마 22:37~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우선 ‘산상수훈’에 포함된 항목들을 보자. 이 내용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 있느냐? 확실히 이 내용들은 율법시대의 규례보다 훨씬 수준 높고 구체적이며 사람의 생활과 더 밀착되어 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사람의 실제 실행에 더 가까운 셈이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의 ‘복’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인식, ‘노’에 대한 정의, 간음한 자를 대하는 태도,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이혼에 대한 언급과

규정, 맹세, 보복,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제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실천해야 하는 모든 측면과 관련된다. 일부 내용은 현시대에 가져와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 사람에 대한 요구와 비교하면 다소 얇은 수준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접하게 되는 비교적 기초적인 진리이다. 예수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람의 생명 성품과 관련된 사역에 착수했지만, 이는 율법에 기반을 둔 사역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규제가 진리와 관계가 없겠느냐? 물론 관계있다! 이전의 규례든 원칙이든 아니면 은혜시대의 수훈이든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과 관련이 있고 당연히 전부 진리와 연관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든, 어떤 방식과 언어로 선포하든, 그 기초와 근원, 그리고 출발점은 모두 그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현재 시각으로 볼 때 다소 깊이가 얇을지라도 진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은혜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고, 생명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훈 중에 하나라도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떤 조항이든 다 진리이다. 어떤 조항이든 모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사람됨의 원칙과 범위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저 당시 사람의 생명으로는 그런 것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사람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예수는 단지 이 정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이렇듯 깊이 않은 교훈을 통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과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모두는 당시 사람들의 분량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로선 이러한 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가 전한 도 역시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어서 ‘예수의 비유’에 대한 각 내용을 보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이다. 이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이다. 농작물을 심어 본 자나 성인이라면 가라지가 무엇인지 다 알 것이다.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이다. 겨자가 무엇인지는 너희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도록 해라.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이다. 많은 사람이 누룩은 일상생활에서 발효에 쓰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 아래의 여섯 번째는 보화를 감추는 비유이고, 일곱 번째는 진주를 찾는 비유, 여덟 번째는 그물을 치는 비유이다. 이 모든 비유의 소재는 사람의 생활에서 취했으며, 모두 사람의 실생활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비유는 사람에게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상인이 되어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생활상의 언어와 인간적인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사람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직접 보고 겪었으며, 이 생활 체험들은 신적 언어를 인간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교재가 되어 주었다. 물론, 생활 속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인자의 인성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기도 했다. 그는 사람에게 진리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할 때, 위의 몇 가지 비유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 대한 요구를 알려 주었다. 이러한 비유는 다 사람의 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동떨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예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라지와 누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는 사람이 보화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에 보화를 감추는 비유와 보물을 찾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예수는 평소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예수는 이렇게 인류의 생활과 관련된 행위들을 직접 보았고, 또 그러한 생활을 체험했으며, 모든 정상인처럼 하루 세 끼 먹으며 일하고 쉬는 등 평범한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타인의 생활도 직접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고 보며 예수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삶을 살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갈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인류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예수는 삶의 고단함을 보았고,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가 사탄의 권세와 죄 가운데서 힘겹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친히 인류의 생활을 경험하는 동시에, 파괴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몸소 느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가 사탄과 죄악에 의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참상을 보고 느꼈다. 예수는 이러한 것들을 신성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인성으로 보았느냐? 예수의 인성은 매우 실제적으로 존재했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었다. 물론 그의 본질, 즉 신성으로도 보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본 예수는, 그때 성육신으로 담당하는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육신에서 담당할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그가 직면할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무기력한 인류를 볼 때마다, 율법 아래에서 불쌍히 살며 힘없이 발버둥 치는 인류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아파 왔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더 절박해졌다. 자신이 어떤 곤경에 처하든,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하겠다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담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갈수록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담당할 사역, 즉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를 대신해 속죄하는 사역을 한시바삐 완성하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더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인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쳐 희생하길 원했으며, 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루빨리 그 사역을 완성하고 싶어 했다. 인류의 삶의 참상을 본 그는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더 빨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얼마나 큰 굴욕을 참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새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생존하던 인류의 처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신념뿐이었다. 그의 신념과 그가 하고자 한 일은 다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있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사역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의 마음이었다.

그는 육신에서 사는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정상 인성이 있었고, 정상인이 지닌 감정과 이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즐거움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다. 인류의 삶을 보았을 때, 그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공급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오직 그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있는 육신의 형상이 되어야만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류의 삶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매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아주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소망을 위해, 그는 자신이 하루빨리 십자가로 나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가 인류와 함께 생활할 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의 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가졌던 생각이다. 인류에 대한 성육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드러난 성품은 평범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이더냐?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면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평범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맞닥뜨리면,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분명 그러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성육신 하나님이 겉으로는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또 사람의 지식을 배우고 사람의 언어를 쓰며, 심지어는 사람의 방식과 화법을 빌려 그의 뜻을 표현할 때가 있다고 해도, 그가 인류를 대하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파괴된 인류와 결코 같지 않다. 게다가 그가 서 있는 위치와 차원은 파괴된 인류 중 누구도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진리이므로 그가 입고 있는 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갖추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인성이 나타내는 것 역시

전부 진리이다. 파괴된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육신이 선포하는 것은 다 진리의 공급이자 생명의 공급이며, 이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공급이다. 파괴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몇몇 사람만을 마음에 수용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걱정하는 이도 단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재난이 닥치면 먼저 자기 집의 아이들과 배우자, 부모만을 생각한다. 비교적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고작 어느 친척이나 친한 친구를 생각할 뿐이다. 이보다 더 많은 이를 떠올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람의 위치와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은 육신은 파괴된 인류와 완전히 다르다. 그 육신이 아무리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심지어 사람에게 아무리 멸시를 당해도, 그의 마음과 인류에 대한 태도는 그 어떤 사람도 갖출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다. 그는 언제나 신성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차원에서 인류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마음으로 인류를 대한다. 그는 절대 평범한 사람의 차원이나 파괴된 사람의 관점으로 인류를 대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지식과 규칙, 학설 등을 평가 기준으로 인류를 바라본다. 이런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고 파괴된 인류가 이를 수 있는 범주이다. 반면, 하나님이 인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과 본질, 소유와 어떠함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이 범주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범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과 파괴된 인류의 확연히 다른 점이다. 이 차이는 각자의 본질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고, 본질의 차이는 각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관점과 차원을 결정한다. 너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선포와 발현을 보지 못했느냐? 예수가 행하고 말씀한 것들은 다 그의 직분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경영 사역과 관련이 있으며, 모두 하나님 본질의 선포와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그에게서 얼마간 인성적인 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의 신적 본질과 발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인성적인 면이 정말 인성의 발현이겠느냐? 파괴된 인류가 드러내는 인성은 그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다. 그가 진짜 파괴된 인류의 평범한 일원이라면, 신성의 위치에서 인류의 죄악된 삶을 대하겠느냐? 단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이다. 파괴된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죄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누구나 그렇다. 마치 돼지가 진흙탕 속에서 살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다. 돼지는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잘 먹고 편히 잔다. 돼지우리를 깨끗이 청소해 주면, 돼지는 오히려 불편해하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는 또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더없이 자유롭게 살 것이다. 돼지 자체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볼 때,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더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돼지를 집 안에 두고 기르지 않는다. 사람이

돼지를 보고 대할 때의 느낌과 돼지가 자신에게 가지는 느낌은 영원히 같을 수 없다. 그것은 사람과 돼지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육신한 인자와 패괴된 사람 역시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은 육신만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류와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육신이 받은 고난은 어떤 것이었겠느냐?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의 본질을 몰라 항상 그를 사람처럼 대함으로써 서글프고 억울하게 만들었으니 그 고통이 실로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무고하고 죄가 없음에도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고, 사람과 함께 박해와 비방, 수모를 당하며, 아울러 그를 따르는 자들의 오해와 패역도 참아 내야 했으니 그 고통은 정말이지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너희가 말하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 있어서 진정한 고통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게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겠느냐? 육신을 입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고통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고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마치 아주 큰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기간에 인류에게 본체를 나타내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자신을 낮춰 보잘것없는 육신에 은밀히 거하니 매우 괴로우리라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깊은 동정심을 보인다. 심지어는 종종 이를 소소하게 찬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느끼는 고통과 다르고 거리가 멀다. 너희에게 사실을 말해 주겠다.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든, 하나님에게 있어 위에서 말한 것들은 다 진정한 고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은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단지 성육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은 고통을 말해 보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평범한 정상인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한다. 그럼 사람의 생존 방식, 법칙, 이념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그러한 생존 방식과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왜 혐오하겠느냐? 인류의 생존 방식, 법칙은 무엇이더냐?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세워졌더냐? 무엇을 근거로 삼았더냐? 인류의 생존 방식, 생존 법칙 등 모든 것은 사탄의 논리와 지식,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생존 법칙 아래 있는 인류에게는 인성도, 진리도 없으며, 전부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탄의 논리, 지식, 철학과 정반대이다. 그의 본질에는 공의, 진리, 거룩함 등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체가 충만하다. 이러한 본질을 갖춘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살아가니 그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겠느냐? 고통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거나 느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가 보고 듣고 접하고 체험하며 대면한 것들은 모두 인류의 패괴와 사악함, 진리에 대한 거역과 대적이다. 사람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즉, 그는 패괴된 인류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패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했을 때, 그와 공통된 언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었겠느냐? 인류 가운데서는 찾지 못했다.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교류할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으냐? 게다가 사람이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모두 죄, 그리고 사악한 시류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대할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일을 대하는데 마음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 위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와 함께 생활하는 자들은 패역과 사악으로 가득 찬 인류인데, 그의 마음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통이 대체 얼마나 큰지, 누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신경을 쓴 적이 있느냐? 누가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고통은 더욱 체험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냉대와 무감각은 하나님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어떤 이들은 늘 그리스도의 처지를 동정한다. 성경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이 있어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은 가장 큰 고통이자 그리스도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리하더냐? 하나님은 이를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단 한 번도 육신이 받은 고통 때문에 불평이나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없으며, 사람에게 무언가 보답하고 갚으라고 한 적도 없다. 사람의 모든 것, 즉 패괴된 삶과 사악함, 사탄에게 통제받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죄 가운데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모습을 묵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이 모든 죄악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인류에 대한 혐오는 날로 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참아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은 크나큰 고통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발현되지 못했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위로해 보려고 하는 자도 없었다. 그는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불한 것에 대해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본질 때문에 인류의 사악함과 파괴와 죄악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게다가 극도로 혐오하고 증오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육신은 이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는 보았느냐? 분명 너희 중 그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는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천천히 체험해 보아라!

이어서 아래 구절을 보자.

9.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

1) 예수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다

요 6:8~13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2) 나사로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요 11:43~44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가 행한 이적과 기사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골랐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사이며, 은혜시대에 예수가 행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적과 기사이다.

먼저 첫 번째 구절, ‘예수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다’를 보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떤 개념이냐? 보통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 일반인의 식사량으로 계산해 본다면, 기껏해야 두 사람이 먹기 충분한 양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사람에게 주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몇 사람에게 나눠 주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비해 오천이라는 수는 너무 많지 않느냐? 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봤을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두 숫자의 차이는 너무 커서, 한 사람당 한 입만 먹는다

쳐도 오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하나 행하였다. 그는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을 뿐만 아니라 여분까지 있게 하였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라는 성경 기록처럼 말이다. 이 이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전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는데, 만일 음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을까? 당연히 가능했다! 이것은 이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그 기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대단한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 평범한 일이라면 왜 여기서 굳이 설명하고 있겠느냐? 그것은 이 기적의 뒤에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예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오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자.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더냐? 성경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겠느냐? 분명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그의 이름만 알고 있었고, 일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거나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문으로 알게 된 예수에 대해 단지 호기심이 생겼을 뿐, 그를 따른다고 할 수는 없었고, 더욱이 잘 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예수가 이 오천 명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저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배만 채우려 하는 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겠느냐? 여기서 예수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 및 본질과 관련된다. 한 끼 배불리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오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오천 명 앞에서, 예수님은 그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은혜를 내려 주고 싶었을 뿐, 결코 이 오천 명이 그를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좇아 왔으며, 원하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오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나 기적을 보기 좋아하는 오천 명의 눈을 열어 성육신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을 직접 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 사건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오천 명이 그저 배불리 먹기만 바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상대로 어떤 말씀도, 설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기만 했다. 그는 결코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주재하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시야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필요하다 느낄 경우 누구든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떡과 물고기를 다 먹고 나서도 예수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다. 혹자는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은 보살펴 주지도 지켜 주지도 않으며, 은혜를 내려 주는 일은 더더욱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겠느냐? 하나님은 그가 만든 살아 있는 피조물이기만 하면 누구든 관리하고 보살펴 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안배하며 주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이다.

떡과 물고기를 먹은 오천 명은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예수는 그들과 따지지 않았다. 배불리 먹고 난 후, 예수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예수가 그들에게 어떤 설교라도 했더냐? 이 일이 있는 후에 예수는 어디로 갔더냐? 성경에는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예수는 기적을 행한 후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들에게 뭔가 요구라도 했더냐? 그들을 증오했더냐? 그런 일은 없었다. 예수는 절대 자신을 따를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그는 인류의 타락함을 보았고, 인류가 그를 저버렸다고 느껴 마음이 아팠다. 또한, 그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과 함께할 때 느낀 인류의 우둔함과 무지함은 그의 마음을 아주 슬프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는 빨리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 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더 상대하는 것도, 나아가 그들에게 정성을 쏟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명확했다. 그는 다만 그들을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이다. 즉,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들을 키워 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발현하여 그 사람들을 선대하였으며, 인자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떠한 결과가 생기든 그는 창조주의 신분으로 모든 피조물을 대했으며, 그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었다. 예수는 조용히 일을 하고 나서 또 조용히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의 성품이겠느냐?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사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 없다! 본질을 보았을 때, 예수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인 오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하나님께 적대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절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본질은 확실히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적대감을 자신의 방식으로 녹여 버렸다. 이 방식이 바로 ‘선대’다. 즉, 예수가 그들을 죄인으로 봤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을 선대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용이다. 이 관용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과 염려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너는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류에게 들인 정성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표현이 무엇이겠느냐? 누군가는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박애라고 한다. 이 두 표현 중 ‘박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지 못하다. 이 말은 보통 가슴이 넓고 정이 많은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나는 이 표현을 아주 혐오한다. 이 표현은 대상도 가리지 않고 원칙 없이 무턱대고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의 흘러넘치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다면, 피치 못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뜻이 들어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더 적절한 표현이 두 가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표현은 ‘더없이 크다’이다. 이 표현에는 시적인 느낌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 표현은 ‘광대하다’이다. 내가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는 실제적 의미가 담겨 있다. ‘더없이 크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실물의 부피나 용량을 묘사하는데, 이 실물은 아무리 커도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 존재하기에,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실제적인 개념을 줄 수 있다. 이차원적으로 보나 삼차원적으로 보나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상상할 필요가 없다. ‘더없이 크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해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는 만물이 함께 누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다방면적으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만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양분을 얻어 살아가고, 만물의 생존이 하나님 사랑의 면면을 나타내며, 시시각각 누리는 그 사랑을 헤아리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반면 측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자양분을 주고 공급하는 비밀을 사람이 가늠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는

마음, 특히 인류를 대하는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조주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창조주가 친히 만든 인류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쏟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없이 크다’라고 묘사하는 목적은 사람이 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창조주’라는 말의 실제적 함의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피조물’이라는 호칭의 진정한 의미까지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대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무엇을 묘사하느냐? 큰 바다, 우주 등을 묘사한다. 예를 들면, 광대한 우주, 광대한 바다 등이 있다. 사람은 우주의 광활함과 심오함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끝없이 상상하고 우러러보지만, 그 오묘함과 심오함에 대해 바라만 볼 뿐 닿을 수는 없다. 바다를 생각할 때, 너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의 광활함을 떠올리고, 그 신비함과 포용력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광대하다’라고 묘사한다.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소중함과 깊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사랑의 능력이 무한하고 광대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존엄과 거스를 수 없음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이제 너희는 내가 ‘광대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없이 크다’와 ‘광대하다’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묘사해도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전혀 손색이 없다! 인류의 언어 가운데 오직 이 두 표현만이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묘사에 비교적 근접하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했다면, 이 두 표현을 사용했겠느냐?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희가 이해하고 체험한 것은 아직 입체적인 공간의 차원에는 오르지 못하고 단지 평면적인 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라고 하면, 표현이 궁색해지고 심지어는 알맞은 말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말한 두 표현에 대해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희가 체험하고 이해한 것이 너무 얇고, 범위도 좁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내가 전에 하나님께는 사심이 없다고 말했더니 너희는 그것만 기억했구나. 설마 하나님의 사랑을 ‘사심 없는 마음’이라고밖에 묘사할 수 없겠느냐? 이는 너무 협소한 범위 아니겠느냐?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의 첫 번째 이적과 기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보았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들은 간단한 줄거리로 간단한 현상들만 알게 해 주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줄거리 속에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았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낼 때, 마음의 소리도 함께 표현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그를 알고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람이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와 협력해 그의 마음을 만족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가 행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무언의 표현이다.

이어서 ‘나사로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구절을 보자.

너희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예수가 행한 이 이적과 기사는 위에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했기에 사람은 그의 겉모습과 실제적이고 미미한 면만 보았다. 설령 예수의 성격을 좀 알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본질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이는 전부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사건을 증명하고 사실의 진상을 알고자 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에게 식은 죽 먹기만큼 쉬운 일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특정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본질을 증명할 수 있지만, 두서없이 일하는 법은 없으며, 매사에 계획과 절차가 있다. 그저 합당한 시기와 기회를 찾아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 그의 권병과 신분을 증명할 뿐이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 구절을 보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 나오는데…” 예수는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예수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이것을 이적과 기사라고 해야겠느냐, 아니면 명령이라고 해야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술법이라고 해야겠느냐? 겉으로 보면 이적과 기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시대에 적용해도 이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혼을 부르는 술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악한 요술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서, 이 이적과 기사는 창조주의 권병이 드러낸 매우 평이하고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병이자 능력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권병이 있고, 그 영이 육을 떠나 저승으로도, 혹은 마땅히 가야 할 다른 곳으로도 가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언제 죽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사람과 일, 사물이나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물과 생령은 다 그의 주재하에 있기 때문이다. 만물 또한

그의 말씀과 권병으로 인해 생겨나고 살아가며 또한 소멸한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 역시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창조주만이 지닌 권병이다.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목적은, 바로 사람의 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사람과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고, 알려 주고자 함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성육신해서도 변함없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물질세계와 볼 수 없는 영계까지 주관한다는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은 결코 사탄의 주관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함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지닌 권병의 표출이자 발현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류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만물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방식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고 가르쳐 주는 방식이자, 그의 능력과 권병으로 인류에게 가르쳐 주고 공급해 주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또한, 비언어적 형태로 인류에게 창조주가 만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방식이자, 창조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실제 행사를 통해 알려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언의 방식으로 인류에게 준 가르침은 영구적이고 영원불멸한 것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마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놀라움과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나사로의 부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 일을 잘 아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깨달음과 이상(異象)을 확고히 해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병이 있을지라도,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인류의 생사를 주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지라도, 이는 결코 그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의미 없는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더없이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들이었다. 그는 절대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유일하고 주된 사역 목표나 항목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기에 충분했고, 예수의 신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반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본업에 힘쓴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취지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현 단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엄격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한다. 만일 패괴된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힘을 알리려고 능력을 과시할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 다른 이를 통제하고 집어삼키려는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는 사탄에게서 비롯된 사악함으로, 패괴라고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도, 본질도 없다. 그가 일하는 목적은 과시가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깨우치고 이끌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러한 사례는 아주 적다. 사례가 적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이 유한하거나

그가 행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일은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있으며, 성육신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기적을 보이거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가르침과 공급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더 많이 행하였다.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일은 예수가 직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아주 작은 단편적 사건일 뿐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본질 속에 ‘과시’라는 요소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일부러 자제하거나 환경적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룸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즉, 명령의 말씀에 의해, 권병의 말씀에 의해 만물이 그렇게 생겨났고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한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의 권병과 창조주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병이며, 그 권병은 하나님이 입은 육신에서 나타나고 육신에 실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권병과 능력은 창조주에게 속하며, 창조주가 실체화한 인자에게 속한다. 이 역시 하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실을 통해 사람을 가르쳐 알게 한 내용이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 보자.

10.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의 판단

막 3:21~22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11. 예수가 바리새인을 꾸짖다

마 12:31~32(중국어성경 직역)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말로써 인자를 거스르는 것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마 23:13~15(중국어성경 직역)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가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벌을 받으리라)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데도다”

위의 두 부분의 말씀에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의 판단’이라는 첫 번째 내용을 보자.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막 3:21~22)라고 평가했다. 예수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판단은 다른 사람을 따라 말하거나 터무니없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행사를 직접 보고 듣고 내린 결론이다. 비록 그들이 정의를 견지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그 결론에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을지라도, 예수를 판단하는 그들의 위세는 그들 스스로도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고만장했다. 예수를 증오하는 그들의 광기 어린 기세는 그들의 야심과 그들이 지닌 사악한 사탄의 몰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들이 예수를 판단한 그런 말들은 바로 그들의 야심과 질투,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추하고 악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행한 일의 근원, 예수의 말씀과 행사의 본질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한시라도 지체할세라, 미친 듯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의 모든 행사를 공격하고 비방했다. 심지어 예수의 그 영, 즉 성령이자 하나님의 영을 함부로 비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가 미쳤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입은 육신의 사역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바알세불과 귀신의 왕이라고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모독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본질은 사탄,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본질과 완전히 같다. 그들은 패괴된 인류를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탄의 화신을 대변했다. 그들은 인류 가운데 있는 사탄의 출구이자 사탄의 공범자이며 심부름꾼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본질은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고 하나님과 맞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본질,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 입으로 말한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그들의 행위를 성령 모독죄로 정했다. 그

죄는 다음 성경 구절과 같이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에 내포된 실제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 보자.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있고,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관련 있다. 위의 두 성경 구절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두 구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혹자는 하나님의 노를 보았다고 말한다. 혹자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한다. 사람은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태도와 처리 방식이 담겨 있다. 이 태도와 처리 방식이 바로 “말로써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즉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론을 하나 내놓았고,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준 결과이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마 12:31, 중국어성경 직역),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마 23:13, 중국어성경 직역). 그러나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한 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를 미쳤다고 말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있느냐?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단언하건대 없다. 여기서 ‘없다’라고 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결말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원칙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그를 모독한 자, 그를 대적한 자, 심지어 그를 비방한 자, 그리고 고의로 그를 공격하고 훼방하고 경멸한 자들을 대함에 있어, 못 본 척, 못 들은 척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증오했고,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말을 선포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다. 또한, 그가 장차 그런 자들의 결말을 어떻게 결정지을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마친 후, 실제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사람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나 결정의 원칙을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태도를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원칙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실제로 닥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시 말해, 죄를 선포하거나 결말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닥치는 일을 통해 직접 벌하거나 악행에 대한 보응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닥치는 일을 통해 주는 그러한 벌은 사람의 육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저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 그들이 받는 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말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벌이나 죽임을 당하는 결말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는 긍휼과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그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뜻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방임’의 의미는 무엇이나?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선 한쪽으로 제쳐 놓고 상대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 ‘방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탄이 처리하도록 넘겨주어 하나님이 더 이상 책임지거나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자가 미치거나, 실성하거나, 멍청해지거나, 살거나, 죽거나 혹은 지옥으로 떨어져 벌을 받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의미다. 이는 그 피조물이 창조주와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뜻을 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봉사자로 쓸 수도 있고, 부각물로 쓸 수도 있으며, 또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처리 방식이나 대응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바울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부류에 대해 정한 처리 원칙이자 태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 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건드릴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영원히 사탄에게 넘겨주어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이 사탄의 먹잇감이자 노리개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너희는 욥이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도 욥은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 하물며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져 장악된 자, 하나님의 보살핌과 긍휼, 창조주의 주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경배할 권리와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될 권리를 빼앗겨 창조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자가 받게 될 사탄의 박해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욥에 대한 사탄의 박해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숨마저

사탄에게 넘겨준다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소나나귀로 환생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나 악령에 사로잡히거나 병의되는 등의 경우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사탄에게 넘겨진 후, 일부 사람들이 맞게 될 결말과 말로이다. 외적으로 볼 때, 당시 예수를 비방하고 훼방하고 정죄하고 모독했던 자들은 어떤 결과도 감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하는 태도가 있다. 하나님이 각 부류 사람의 결말에 대해 모두 명확한 말씀으로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이 없다고 해서 결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경우의 결말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않는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본성과 본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를 직접 사탄에게 넘겨주며, 그의 영, 혼, 육을 모두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싶을 뿐이다. 그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누군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더는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고, 그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직접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사탄이 통제하고 삼키고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잃고, 피조물로서의 자격도 다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한 벌이 아니겠느냐?

이상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사함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제 이해가 되었느냐! 이어서 아래의 구절을 읽어 보자.

12. 예수가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한 말씀

요 20:26~29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을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1:16~17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기록은 예수가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했던 일과 말씀이다. 우선, 부활한 후의 예수와 이전의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는 여전히 이전의 예수였느냐? 성경에서는 부활한 후의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이때의 예수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닌 영체였다. 육신의 제약을 초월했기에 문이 닫혔어도 사람들 가운데 올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후의 예수와 육신에서 살았던 예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비록 이때의 영체와 이전의 예수 사이에 형상의 차이는 없었지만, 이때의 예수는 사람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죽음에서 부활해 영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영체는 이전의 육신보다 훨씬 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스러운 존재였다. 동시에 사람은 예수에 대해 더 큰 거리감을 느꼈고, 신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 여겼다. 이런 인식과 느낌은 사람을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던 과거 시대로 데려갔다. 그러므로 부활한 후의 예수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게 하고, 또 그의 존재와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입증하며, 이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그가 육신으로 사역하던 시기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었다. 그래야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과 예수가 인류를 구속한 사역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을 터였다. 한편, 부활한 예수가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사람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은혜시대에 자리 잡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은 예수가 ‘사라지거나’ 혹은 ‘말없이 떠났다고’ 해서 지난 시대, 즉 율법시대로 퇴보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은혜시대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며, 율법 아래 있던 인류도 이때부터 정식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원에 진입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가 사람 앞에 나타난 사건이 지닌 다양한 의미이다.

그는 영체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었겠느냐? 이는 예수가 사람 앞에 나타난 의의와 관련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보통 영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게다가 예수가 부활했을 때는 그가 맡은 사역을 이미 완수한 후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예수가 원래의 형상으로 다시 사람들 가운데 와 그들을 만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의 영체가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현현이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만지게 하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예수가 부활한 후에 말하거나
 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하려고 했던 일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바로 부활한 후의 예수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원래의 예수라는 사실이다. 예수에 대한 도마의 의심은 그때에야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기간에도 줄곧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예수는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계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그는 원래의 형상과 성품, 그리고 육신에 거할
 때 얻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는 부활한 자신의 영체를 보게 하고, 그 영체의 존재를
 만지고 느끼게 해서 도마가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했다. 도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의심하며 믿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도마의
 믿음은 직접 보고 만져 봐야 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예수는 이러한 자들의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을 뿐, 하나님이 보낸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전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 예수는 도마에게 손을 뻗어 그의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한 것이다. 예수의 부활 전과 부활 후, 도마의 의심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는 줄곧 의심하고
 있었다. 예수의 영체가 친히 나타나 직접 몸에 난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는 것 말고는, 도마의
 의심을 해결하거나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 못 자국을 느껴 보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도마는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입은 육신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그때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만나 함께하며 그를 따르고 알아 갈 기회와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케 될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다. 예수의 현현과 이 말씀은 의심 많은 자들의 믿음에 결론을 내렸고 심판을
 행했다. 그는 의심 많은 자들과, 하늘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실제 말씀과 행사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의심을 품은 채 따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되는 날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 대성공을 거둔 날일 것이며,
 그날은 당연히 그들의 의심이 심판받는 날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완고한 의심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강박함으로 인해 그들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단지 그림 속 떡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헛수고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에, 설령 예수의 몸에 난 못 자국을 만졌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도마에게 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즉, 부활한 예수는 당시 33년 반 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한 바로 그 예수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했어도 그의 모든 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몸에 못 자국이 생기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왔지만, 그의 성품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사람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며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이겼음을 알려 주었다. 그의 못 자국이 바로 사탄을 이긴 증거이며, 속죄 제물이 되어 전 인류를 성공적으로 구속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사람에게 그가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며, 구속 사역을 완수했음을 알려 주었다.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현현으로 “나는 아직 살아 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오늘 실제로 너희 앞에서 있기에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다.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수는 또 도마의 일을 통해 후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자 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그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예수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은 복 있는 자임을 알려 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은 은혜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예수의 현현과 그가 도마에게 한 말씀이 후세 사람들에게 준 영향은 매우 크며, 그 의미도 영구적이다. 도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심이 많고 음흉하고 간교하여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능과 주재를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의심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들이 의심 많고 간교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나아가 예수의 존재와 부활을 진실로 믿도록 기회를 주었다. 도마의 사건은 후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메시지로, 도마처럼 의심을 품으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되니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도마처럼 주의 옆구리를 만져 보고 못 자국을 느껴 봐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증하거나 가능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에게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고 요구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믿고 따르는 자는 복되다고 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예수의 아주 작은 요구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훈계였다.

위의 내용은 모두 의심 많은 자들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를 정직하게 믿으며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을까? 이는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대화를 보면, 예수는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다. 이 질문은 예수가 부활한 후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즉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더 높은 기준을 보여 준다. 다그치고 캐묻는 이 말씨는 질문이자, 나아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 대한 요구와 기대였다. 그는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사람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했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예수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았으나, 실은 베드로에 대한 질문을 빌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더 많은 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다. 다만 베드로가 복이 있었기에 그 부류 사람의 대표로 예수가 친히 하는 질문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도마에게 했던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에 비해 베드로에게 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에서는 그의 엄격한 태도와 당시의 절박한 마음이 훨씬 더 잘 느껴진다. 예수는 본성이 간사하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못 자국을 만지게 함으로써 그가 곧 부활한 인자임을 믿게 했고,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예수는 도마를 엄하게 꾸짖지 않았고, 그에 대해 명확한 말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지만,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이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와 결정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예수가 한 이 말씀에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보이지 않는다.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참된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에 대한 예수의 요구 역시 그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 주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못 자국을 만져 보라고 하지 않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질문만 반복했다. 사람을 깊이 반성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예수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책감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예수의 애타고 슬픈 마음을 더 잘 알게 된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한편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염려와 보살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순수하고 정직한 자들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가르침과 엄격한 요구를 깨닫게 된다. 예수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람은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이란 바로 헤아림과 순종이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께 위안을 드리고, 하나님이 증거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이자 본분이며, 또 사람이 평생 행해야 할 도이다.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와 모든 온전케 되는 사람에게 던지는 예수의 요구와 당부였다. 바로 이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가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를 인도하고 격려해 주었다. 또한, 예수가 떠날 때 했던 질문은 베드로가 온전케 되는 길로 가게 해 주는 한편, 주를 사랑함으로써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께 순종하고 위안을 드리며, 주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해 주었다.

은혜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두 유형의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첫 번째는 그를 믿고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며, 은혜시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후에 먼저 가장 의미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도마에게, 또 하나는 베드로에게 말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대변하지 않느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대변하지 않느냐? 도마에게 행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믿으라고 훈계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베드로에게 행한 사역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요구하고 추구할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부활한 예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말씀했으며, 그들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기대를 남겼다. 즉,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지냈던 기간이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영체가 된 다음이든, 인류에 대한 그의 염려와 요구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을 염려했으며, 모든 사람의 상태를 훤히 알고 있었고, 각자의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체가 된 후에도 당연히 육신에 거할 때처럼 각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사람이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으로 있는 동안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부활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시켰을 뿐이다. 그의 현현과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은 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최대의 이상과 원동력이 되었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은혜시대의 사역이 인류 가운데 완벽히 실현되게 했다. 이에 따라,

은혜시대 예수의 구원 복음은 점차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당시의 도마나 베드로이고, 일생 중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만났다면, 그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느냐? 그 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가장 크고 좋은 이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흠족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평생의 에너지를 가장 큰 이 이상을 전파하는 데 쏟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도마와 베드로의 사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후, 친히 인간 세상에서 인류의 삶을 겪었다. 그렇게 인류의 타락과 삶의 실상을 보고 난 후,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기델 곳 없는 인류의 슬픔과 가련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인성과 육신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리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더 염려하게 됐다. 너희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한다’는 표현으로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를 걱정하고 관심을 보이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다. 비록 이 표현이 인류의 언어에서 온 아주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너희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느끼고 음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성품 변화 추구를 바탕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가야 한다. 예수의 현현은 인성을 지니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품었던 ‘항상 마음에 두고 염려하는’ 심정을 자신의 영체, 즉 신성에 실체화하고 옮긴 것이다. 그의 현현으로 인해, 사람들은 또 한 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보살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대를 개척하고 열어 나가며, 또 시대를 종식하는 분임이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남으로써 모든 사람의 믿음을 견고히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확증을 주었으며, 새 시대 사역의 국면을 열었다.

13. 예수가 부활한 후 떡을 먹으며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주다

눅 24:30~32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14. 제자들이 예수께 구운 생선을 드리다

눅 24:36~43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어서 위의 구절을 보자. 첫 번째 구절은 예수가 부활한 후 떡을 먹은 것과 성경을 풀어 준 것에 관한 기록이다. 두 번째 구절은 예수가 구운 생선을 먹은 것에 관한 기록이다.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예수가 떡과 구운 생선을 먹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는 어떤 장면을 연상했느냐? 예수가 너희 앞에 서서 떡을 먹는다면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혹은 예수가 너희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사람과 함께 생선과 떡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주님과 아주 가깝고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졌다면 그 느낌은 맞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부활한 후 사람들과 마주 앉아 떡과 생선을 먹음으로써 얻으려던 효과였다. 만일 예수가 부활한 후 사람과 대화만 나눠, 사람이 그의 뼈와 살을 느끼지 못하고 멀리 있어 닿을 수 없는 혼 같은 존재로 느낀다면 어떠했겠느냐? 사람이 실망하지 않았겠느냐? 사람이 실망감을 느끼면 버려진 기분이 들지 않았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 거리감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느냐? 사람은 틀림없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고, 경원시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되고, 은혜시대 이전의 관계,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사람이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영체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사라지게 한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거할 때 쌓아 놓은 사람과의 거리감 없는 친근한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영체가 두려워 피하려 들거나 말없이 바라만 볼 뿐,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도 못할 것이다.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양망하지 못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사람이 그를 알고 그에게 다가오며, 그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예를 들어 너의 가족과 자녀가 너를 만나도 알아보지도, 다가오지도 않고 늘 너를 피할 때, 그들을 위해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너는 어떤 심정이겠느냐?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프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이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뒤에도 여전히 뼈와 살이 있는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났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셨다. 사람을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은 사람 역시 하나님을 가장 친한 존재로 여겨 주길 바랐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부활한 예수가 떡을 먹으며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준 부분과 제자들이 예수에게 구운 생선을 드린 구절을 고른 이유를 알겠느냐?

예수는 부활한 후, 그야말로 각별히 마음을 쓰면서 일련의 일들을 하고 말씀을 했다.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고, 육신에 거하던 기간에 사람과 쌓은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세심한 보호도 담겨 있다. 그리고 육신에 거하던 기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생활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도 녹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더구나 사람이 부활한 예수는 영체로, 사람이 영원히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사람에게 친근했던 주님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 그는 사람에게 지위의 차이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경원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몹시 어려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체로 나타난다면, 또 한 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길 터였다. 더군다나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너무 높고 큰 존재이고 자신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므로 더 이상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은 죄가 있고 더러우니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다고 오해할 터였다. 사람의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는 육신에 거할 때 늘 했던 일들을 행했다. 예를 들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라는 성경 기록과 같은 것을 말이다. 또한,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기도 했다. 예수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주님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래의 예수라고 느꼈다. 비록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했고, 사람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왔으며, 그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다. 사람들 눈앞에 서 있는 인자는 여전히 원래의 예수였다. 그의 행동과 말씀은 사람에게 참으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변함없이 자비와 은혜와 포용으로 충만했으며, 여전히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였다. 그는 예전처럼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함께 성경을 얘기하기도 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피와 살이 있어 사람이 만질 수도 볼 수도 있었다. 사람은

이러한 인자를 아주 친근하고 편하게 느꼈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인자를 마음 놓고 의지하고, 확신에 차서 앙망하기 시작했으며, 망설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혜와 축복,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했으며,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예수가 육신으로 사역하던 기간에, 그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신분과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저 관망했을 뿐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 했던 말씀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나아가 그것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나타나자, 그를 직접 보거나 부활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부인하던 마음이 점차 반신반의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다 부활한 예수가 도마에게 그의 옆구리를 만져 보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떡과 구운 생선을 먹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가 성육신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뼈와 살이 있는 영체는 모두에게 마치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눈앞에 서 계신 이 인자가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구나. 형체도, 뼈와 살도 있는 이분은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먹고 생활하셨구나...’라고 말이다. 이때 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참되고 아름답고 오묘한 느낌을 주었고, 또 지극한 기쁨과 행복, 충만한 감동을 주었다. 예수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가 지극히 낮췄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의 친근함과 사람에 대한 염려, 애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예수와의 짧은 만남은 그를 본 사람들에게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상실감과 막연함, 당황스러움과 불안감, 초조함, 크나큰 그리움, 무감각이 들어 있던 사람의 마음이 위안을 얻은 것이다.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이제는 희망과 의지처가 생겼고, 눈앞에 서 있는 인자가 바로 영원하고 든든한 요새요,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활했지만, 그의 마음과 사역은 사람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현현을 통해 사람에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곁에 있으며,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한다고 알려 주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을 목양하며,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있게 하고, 더 이상은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또 예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의지처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가족이며, 그를 의지하면 더 이상 외롭지도 무기력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를 받아들여

자신의 속죄 제물로 삼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했던 이러한 사역들이 사람에게는 소소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부 참으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더없이 중요한 일들이었다.

예수가 육신으로 사역했던 기간은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는 뼈와 살이 있는 영체로 나타남으로써 성육신하여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는 성육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직분을 시작했고, 또 성육신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의 직분을 마무리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은혜시대를 가져왔으며 그 시대를 시작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은혜시대의 사역을 펼쳤으며, 은혜시대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확실히 시작과 끝이 있고, 절차와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한 행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일관된 맥락은 바로 사람에 대한 보살핌과 하나님의 떨쳐 버릴 수 없는 염려의 마음이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가 부활한 후에 행한 모든 일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대와 염려,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희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더냐? 만일 너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부활한 후에 너희 앞에 나타나고, 형상이 있어 너희가 그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너희 앞에 앉아 떡과 생선을 먹으며 성경을 풀어 주고 너희와 얘기를 나누었다면,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겠느냐? 기쁘지 않았겠느냐?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피하려는 마음, 반발심, 그리고 의심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았겠느냐?

너희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 성품의 어떤 작은 흠이라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더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에 어떤 간사함이나 사악함이 있더냐? 단언컨대, 없다! 그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전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발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을 보고 깨달은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서 갈수록 좋은 성과를 거둬 너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과도 가까워지길 바란다.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싫증 내지 말고, 진리와 성품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귀찮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의 발현과 거룩한 본질이 너희에게 동기 부여가 되어

광명과 정의를 갈망하게 되기를,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얻어지는 사람,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 우리는 은혜시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육신하여 행한 일에 관해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는 기간에 나타낸 성품을 보았고, 하나님이 지닌 여러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았다. 이 여러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은 아주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드러나고 발현된 모든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성육신하여 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든 방식과 그 성품의 측면은 다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의 방식으로 인류에게 임한 것은 아주 중요하며, 육신으로 행한 사역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또한, 그가 나타낸 성품과 뜻은 육으로 사는 모든 사람, 패괴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중요하다. 이것을 너희는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소유와 어떠함을 알고 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었느냐? 이 문제에 있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하겠다.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든,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둘째,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어떤 사역을 담당하게 하든, 하나님이 어떤 본분을 맡겨 너를 높여 주든, 네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바쳤든, 절대 하나님과 지위를 다투지 마라. 셋째, 하나님과 겨루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행한 일과 마련해 준 일, 그리고 네게 임한 일을 네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순종할 수 있든 없든, 절대 하나님과 겨루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너는 비교적 안전할 것이며, 쉽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교제하도록 하자!

2013년 11월 23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

하나님의 권병(1)

앞에서 몇 번에 걸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주제로 교제하였다. 교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 이해와 앎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난 몇 차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앎이 있다고 해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을 다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난 몇 번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몇 번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찍이 행했던 사역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이 매사에 취하는 태도와 생각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글자 그대로나 말로만 이해한 것일 뿐, 그 내용에 과연 실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로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그것은 사람이 실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얼마만큼이나 참되게 체험했는지, 실제 체험 과정에서 얼마나 보고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지난 몇 차례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사역의 출발점 그리고 일하시는 원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부를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느냐? 명백히 틀리다. 왜 틀리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발현된다.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부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더 많이 체험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 말씀과 사역을 체험하여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대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본질을 대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참된 성품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본질도 대변한다. 이는 확실한 사실이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고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어떤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든, 그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모두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며, 다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을 대변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사역하고, 자신의 참된 신분으로 사역하는 것은 더없이 확실하다. 하지만 사람은 현재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부를 알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일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실제 내적 상태를 감안하면, 각자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겪어 보고 조금씩 깨달아야 오늘날 듣고 본 것이나 마음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을 확증할 수 있다. 만일 내가 너희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체험만으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마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체험할지 알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안내하고 사람이 체험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의 몇 차례에 걸친 교제는 참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체험이 없는 자나 이제 막 체험하기 시작한 자, 이제 막 실재를 접한 자에게는 커다란 검증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 교제했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이야기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부분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지난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너희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주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신한 것이냐? 몇 가지 측면에서 인정한 것이냐? 누가 말해 볼 수 있느냐? 지난 몇 번의 교제를 통해 확실히 너희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는 참 긍정적이다. 예전보다 하나님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너희의 정의는 여전히 율법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은혜시대의 주 예수의 이름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교제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 행했던 사역, 나타내 보인 소유와 어떠함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를 올바르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만물과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지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정확한 인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 교제한 이전의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찍이 보여 주고 나타냈던 것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고 구원하는 일에서, 혹은 다른 일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 준 소유와 어떠함은 다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한 사역에서 나타낸 소유와 어떠함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 너희가 내린 정의는 여전히 유일무이한 하나님,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과는 거리가 있고, 창조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모두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정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또 자신이 사역할 때의 자세와 출발점을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너희가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이는 분명 사람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고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단 말이나? 또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지닌 그분이 주재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나?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어떠한 특징과 본질로써 그가 하나님의 신분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고, 만물을 주재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지난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너희는 단지 하나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기간의 역사(歷史)와 하나님이 이전의 사역에서 취했던 태도, 나타내고 드러낸 것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그런 인식을 통해, 모두가 그 두 단계의 사역을 행한 분이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가 바로 너희가 영원히 따라야 할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가 바로 창세 이래로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며, 그가 바로 전 인류를 인도하고 주재하는 그분임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너희는 분명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든, 예수든, 너희는 어떤 측면의 본질과 태도를 보고 그가 바로 너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자 인류를 주관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그분이며, 더 나아가 천지 만물을 주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하는 것이냐? 어떤 방법을 통해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하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 짓는 것이냐? 무엇을 통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하느냐? 이것은 내가 이제 얘기할 주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너희가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지만 구할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러한 문제가 너희와 맞닥뜨리게 되어 너희가 직면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 너희의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혹은 너희의 체험 부족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철저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 커다란 걸림돌과 방해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교제가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말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알겠느냐? 이러한 문제들은 너희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아니냐?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문제이긴 한 것이냐? 너희가 이를 혼동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에게 그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한단 말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상관없이 여하튼, 내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함도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대해 더 굳은 확신과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유일한 존재로 자리 잡고, 모든 피조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위, 즉 창조주, 만물의 주재자,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또한 내가 다음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이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 보자.

1.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다

창 1:3~5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 1:6~7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 1:9~11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창 1:14~15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 1:20~21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24~25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인류의 낮과 밤이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세워지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3~5). 이 단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행한 첫 번째 일이자 하나님이 보낸,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던 첫 번째 하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하루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 빛을 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날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씀과 권병은 공존한다. 그의 권병은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능력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서 펼쳐졌다. 이날부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기 시작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사도 벌이지 않았지만,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 낮이라 명명된 ‘빛’이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신의 본질과 가치를 바꾼 적이 없고, 또한 사라진 적도 없다. 그것의 존재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창조주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창조주의 신분과 지위를 입증하고 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로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텅 빈 이 세계에 첫 번째 물질이 생겨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지는 제1막에 출현하였다. 이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하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명명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였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세계의 첫 번째 저녁과 첫 번째 아침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이날을 첫째 날이라 칭하였다. 이날은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한 첫째 날이며, 또한 만물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그가 만든 이 세계에 첫 번째로 나타난 날이다.

이 단락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병을 보여 주고, 하나님 말씀의 권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녔으므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권병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병을 지녔기에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그러한 권병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이에 대한 답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그러한 권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책이나 간행물에서 이러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 유사 이래로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그것은 책이나 어떠한 기록에도 없으며, 성경에서도 물론 그것은 유일한 기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관한, 위세가 드높고 권병과 위력을 지닌 일부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신분을 대변한다. 그러한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신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지닌 권병과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권병과 능력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며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의 특징이 아니냐? 너희는 이것을 보았느냐?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권병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졌고, 지극히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교제를 통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둘째 날, 하나님이 권병으로 물을 지배하고 궁창을 창조함으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공간이 만들어졌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의 성경 구절을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6~7).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라고 말씀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일을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이다. “그대로 되니라”.

짧은 이 두 구절에 기세가 웅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인류의 생존 공간을 창조하였는지, 이 놀라운 위업, 멋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 물과 궁창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위와 아래로 나뉘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궁창이 아래쪽 물 위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쪽 물까지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창조주가 물을 움직이고 물을 다스리고 궁창을 창조할 때의 장관이나 그가 보여 주는 권병의 위력은 놀랍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위업이 달성되었다. 이것이 창조주 권병의

위력이 아니겠느냐? 성경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해석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궁창이 생겼고, 아울러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는 일반적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일종의 교체로서, 그것은 창조주의 생각으로 생겨난 것이다.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그때부터 그것은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고 세워지며, 창조주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워진다. 이 단락에서 기록한 것은 창조주가 행한 천지 창조의 두 번째 사건으로서,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또 한 번 발현된 것이자 창조주의 위대한 행사이다. 이날은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며 보낸 둘째 날이자, 창조주가 보낸 또 하나의 멋진 하루였다. 그가 빛 속을 거닐며 궁창을 가져오고 모든 물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날 속에서 그의 행사, 그의 권병과 능력이 행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느냐? 물론 없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말씀한 후에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던 것이 나타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물 또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아래로 나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 가운데에 신선하고 새로운 두 가지 사물이 출현하였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새로운 사물의 출현에 대해 너희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창조주 능력의 대단함을 느꼈느냐? 창조주의 유일무이하고 비범한 기개를 느꼈느냐? 그러한 기개, 그러한 능력의 대단함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권병은 하나님 자신의 대언이자,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다.

이 단락의 말씀에서 너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감명 깊게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유일무이함은 그의 본질이 그 어떤 피조물의 본질과도 다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이 비범하고 무한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것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권병과 소유와 어찌함이 생명과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멋지고 특별한 때 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가 자신이 창조한 생명을 주관하며, 자신이 만든 기적과 일분일초의 때 순간을 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날,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겼으며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생기로 가득 찼다

계속해서 다음 단락 창세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첫 구절을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라고만 했을 뿐인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빛과 궁창 이외에 그 공간에 또 무엇이 생겼느냐? 성경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바로 그 공간에 또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긴 것, 다시 말해 물과 육지가 나뉜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 한 마디에 ‘그대로 되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던 기간에 바쁘게 보냈다고 기록된 것이 있더냐? 하나님이 손을 댔다고 기록된 것이 있더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새로운 사물이 생겨나게 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구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났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워지라 명하면 그대로 세워진다.”라는 이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던 그 순간에 확증되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충분히 구현되었다.

계속해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겨났다. 순식간에, 형태가 각각인 여린 작은 생명들이 흙 속에서 꼬물꼬물 올라와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몸에 묻은 흙을 채 털어 내기도 전에 너도나도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그들은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명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 모두가 만물의 일원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 각자의 생명을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땅에는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났고, 사람들에게 제공될 각종 채소가 흙을 뚫고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산과 들판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숲이 울창하였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이 밋밋하던 세상이 순식간에 풀, 채소와 나무 등 각종 식물들로 둘러싸여 초록빛을 한가득 머금게 되었다... 공기는 풀꽃 향기로 그윽하고, 흙 내음이 물씬 풍기며, 각종 식물들은 공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 자신들의 성장 과정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따라 모든 식물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싹트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고 번식하는 일련의 생명 여정을 시작하였다. 각자 생명의 궤적을 지키며, 만물 중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또한 창조주에게서 계속 자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 곳곳에서 강인하게 살아갈 것이며,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명력을 영원히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창조주의 생명은 비범하고 그의 생각은 비범하며 그의 권병은 비범하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있자 최후의 결과는 늘 ‘그대로 되었다’. 확실히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손댈 필요 없이, 그의 생각으로 지휘하고 말씀으로 명령했을 뿐인데, 일은 곧 그대로 되었다. 그날 하나님은 물을 한곳으로 모아 물이 드러나게 한 다음, 물에 풀이 자라나게 하였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분류하고 열매마다 씨를 품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져 계속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그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의 내용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의 권병을 어떻게 행하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이루어졌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변화되었다. 그 모든 변화와 발전은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고, 또한 창조주 생명력의 비범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구상도, 공허한 그림도 아니며, 생명력과 엄청난 능력을 지닌 권병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다 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며, 동시에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완전한 구상과 아주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비록 셋째 날 땅에 각종 식물들이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계속 말씀으로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사물을 만들었다. 그는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의 권병을 행하고 그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만들고자 한 만물과 인류를 위해 구상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있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또 한 번 권병을 행하자 인류의 절기*와 날짜와 연도가 탄생되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신이 계획했던 처음 3일을 보냈다. 그 3일 동안,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기진맥진하는 모습도 보지

* 절기: 창세기 1장에서는 ‘사시’로 번역되었음.

못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첫 3일을 멋지게 보냈고, 상전벽해처럼 변화무쌍하게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다.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봉인되어 있던 아름다운 그림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씩 펼쳐졌다. 모든 새로운 사물의 출현은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았다. 창조주는 그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막 현실이 된 그 광경을 흐뭇하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창조주의 그 새로운 페이지의 계획은 또 무엇이였을까? 그는 또 무슨 말씀을 하였을까? 그의 권병은 또 어떻게 행사되었을까? 아울러, 또 어떤 새로운 사물이 이 새로운 세상에 왔을까? 창조주의 인도에 따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에 머무는데, 이 하루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물론 창조주에게 있어 그것은 틀림없이 또 하나의 멋진 하루이자 현 인류에게도 역시 대단히 중요한 하루이며,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루였다. 그날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중요하며,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먼저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 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창 1:14~15). 이것은 하나님이 물과 그 위의 식물을 만든 후에, 또 하나의 피조물에서 보여진 하나님 권병의 행사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고 명령하니, 그 광명체는 하늘에서 빛을 발해 땅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구분하는 기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늘 궁창의 광명체’는 상공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로서, 그것은 하늘도 비추고 땅과 바다도 비춘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한 리듬과 빈도로 회전하며, 땅을 비추어 서로 다른 시간대가 형성되게 한다. 이와 같이, 지구 동서쪽의 낮과 밤은 이 광명체의 회전 주기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낮과 밤에 대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서로 다른 회전 주기로 인류의 절기와 각종 날짜에 대한 표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명한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인류에게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기호가 된다. 인류는 경작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가 구분해 주는 절기, 날짜, 연도를 알아보고 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 인류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절기, 날짜, 연도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부터 있었고, 인류가 경험하는

춘하추동의 교체 주기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에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로 인해 사람들은 낮과 밤을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날짜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절기와 연도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달이 등글어지는 날, 즉 달이 차서 한 달이 되는 날에 사람들은 광명체가 비추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게 되고, 달이 이지러지는 날, 즉 한 달의 절반이 되는 날이면 사람들은 새로운 절기의 시작을 알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며칠이 하나의 절기를 이루고, 몇 개의 절기가 하나의 계절을 이루며, 몇 개의 계절이 한 해를 이루는지 매우 규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류는 광명체의 운행으로 표시되는 절기, 날짜, 연도를 매우 쉽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류와 만물은 자연스럽게 광명체의 운행으로 만들어지는 낮과 밤의 교체, 사계절이 바뀌는 규칙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이 역시도 창조주가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든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그 일을 통해 이룬 목표와 의의도 그의 권병과 능력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광명체와 그 광명체들이 장차 인류에게 가져다줄 가치 역시 창조주가 행한 권병의 또 하나의 결작인 것이다.

인류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신세계에서, 창조주는 이미 자신이 곧 만들 새 생명을 위해 ‘저녁과 아침’, ‘공기’, ‘땅과 바다’, ‘풀과 채소, 그리고 각종 나무’, ‘광명체와 절기, 날짜, 연도’를 예비하였다.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그가 창조한 모든 새로운 사물 가운데서 발현되었고, 그의 말씀과 사실은 오차도 간격도 전혀 없이 병행된다. 그 모든 새로운 사물의 출현과 탄생은 다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즉,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뀐 적이 없으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지금 다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매우 새롭게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는 새로운 내용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창조주의 행사가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권병과 능력을 알도록 인도하고 또한 너희에게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며, 그의 행사와 권병이 이런 말씀과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창조주의 권병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창조주의 지고지상함을 보게 되었으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의 뛰어남을 보게 되었다.

창조주는 권병과 능력으로 하나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고,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 권병으로 행한 창조주의 하나하나의 놀라운 행사를 주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은 인류에게 계속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여 사람들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묘함에 감탄하고, 갈채를 보내게 만들었다. 더욱이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움의 정이 생기게 했다.

창조주의 권병과 행사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였으며, 더욱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게 하였다. 그의 모든 생각, 모든 음성, 발현된 그의 모든 권병은 다 만물 가운데의 걸작으로서, 창조된 인류가 가장 깊이 알고 인식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위업인 것이다. 창조주의 말씀으로 탄생된 모든 피조물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묘한 능력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창조주의 발자취를 따라 다음날,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다섯째 날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창조주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자.

다섯째 날,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창조주의 권병을 보여 주었다

성경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0~21).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날 하나님은 각종 수중 생물들을 만들고, 땅 위에는 각종 새들을 만들었다. 즉, 어류와 날짐승들을 만들고,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을 각기 종류대로 되게 하니, 땅 위와 하늘과 물속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풍요로워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자, 순식간에 형태가 각기 다른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이 창조주의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깡충깡충 뛰면서 기쁨에 차 환호하며 이 세상에 왔다… 물속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각양각색의 패류들이 갯벌에서 자라며, 비늘 달린 생물, 갑각류, 그리고 각종 연체 생물들이 물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하듯 자라났다. 그들은 크고 작고 길고 짧은 것들로 어우러져 크기도 다양했다. 또한 각종 해조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앞다투어 자라났으며, 수중 생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거리며 몸을 흔들었다. 그들은 마치 그 고요한 물에 다그치듯 말하는 것 같았다. “힘차게 흘러라! 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너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만든 수중 생물들이 물속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그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은 오랜 세월 침묵하던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고 신기원도 열어 주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면서 서로를 구분 짓지 않았다. 물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해 존재하며, 자신이 품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 각각의 생명들 또한 물이 공급해 주는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생명을 바치며,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창조주의 창조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증거하고, 창조주의 권병에 깃든 초월할 수 없는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바다가 더 이상 고요하지 않게 되었고, 공기 중에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새들이 땅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들이 수중 생물과 다른 점은 깃털이 가득 나 있고, 두 날개가 있으며, 자태가 우아하고 몸놀림이 가볍다는 것이다. 새들은 두 날개를 퍼덕이며 의기양양하게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화려한 겉모습, 특별한 능력과 재주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롭게 능숙하게 하늘과 땅 사이를 날아다니고, 들판과 숲속을 누비고 있다.... 새들은 하늘의 총아이자 만물의 총아이다. 그들은 곧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가 되어 만물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날아다니며 행하니 비어 있던 세상에 기쁨과 웃음소리를 채워 넣었고, 생기와 활력도 불어넣었다.... 그들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마음의 소리로,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해 준 생명을 찬미한다. 그들은 즐거운 춤사위로 창조주의 완벽하고 놀라운 창조를 자랑하며, 창조주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명으로 창조주의 권병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생을 바친다....

수중 생물이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생물이든, 다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구조가 다른 생명체로 살며, 또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무리 지어 그들 각자의 부류 속에서 살아간다. 그 규칙과 법칙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감히 창조주가 정해 준 영역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며,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다. 그들은 창조주가 정해 준 숙명 속에서 대를 이어 번식하며, 창조주가 그들에게 정해 준 생명의 궤적과 법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또 창조주의 무언의 명령과 창조주가 그들에게 준 천상의 법칙과 계율을 오늘날까지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의 뜻을 깨닫고,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권병을 초월한 적이 없다. 창조주는 생각으로 그들을 주재하고 주관하고 있다. 말씀은 하지 않더라도,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권병으로 이 인류와 다른, 말하지 못하는 만물을 소리 없이 주관하고 있다.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권병이 행해짐으로 사람은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나는 새날에 행한 창조주의 권병으로 그의 유일무이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겠다.

계속해서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보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가 창조한 만물은 이미 그의 말씀으로 인해 세워지고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각종 사물과 성취한 갖가지 일들에 대해 아주 흡족해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일과 정해 놓은 일, 그리고 그의 목표를 성취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마친 후 후회한 적이 있느냐? 그 답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즉, 하나님은 후회는커녕 아주 흡족해했다. 후회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한 완벽하다는 것과, 그의 권병이 완벽한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임을 의미한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처럼 보기에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한 번으로써 영원히 이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더 좋은 것만 있을 뿐 가장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히 완벽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 이룬 모든 일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정불변의 법칙이 생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 한 번으로써 영원히 형태가 고정되고 유형이 구분되며 위치와 용도와 기능이 정해졌다. 동시에, 만물 가운데 맡은 역할과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는 기간 가야 할 여정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영원히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창조주가 만물에게 정해 준 ‘천상의 법칙’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워낙 단순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중시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내린 천상의 규칙, 천상의 법칙이다. 이 말씀에서 창조주의 권병이 또 한 번 더 실제적이고, 더 깊이 있게 구현되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고자 한 모든 것을 얻었고,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든 모든 것을 그의 수중에서 주관할 수 있고, 그의 권병 아래 질서 정연하게 주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만물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소멸되며,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한 법칙 안에서 생존한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존재하고, 지속되고, 운행될 것이다. 창조주가 그 법칙을 폐기하는 그날까지 말이다!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은 그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그의 명대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묻어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하며 만물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또한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하려 계획한 만물이 완벽한 형식, 완벽한 생명 구조, 완벽한 역할을 가지고 그가 만든 세계에 한 번으로써 영원히 나타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데서도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은 구현되고 있다. 또 창조주의 모든 생각이 그 어떤 조건의 제한이나 시간, 공간, 지리적인 제한도 받지 않는 데서도 구현된다.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신분은 그의 권병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병은 영원히 그의 유일무이한 신분의 대언과 상징으로서, 영원히 그의 신분과 공존할 것이다!

여섯째 날, 창조주가 말씀하니 그의 생각 속 각종 생물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부지불식간에,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이 벌써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곧이어 그 여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자 또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 새날이 왔을 때, 창조주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고 만들어졌을까? 들으라. 이것은 창조주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4~25). 이들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하자면, 이날 땅 위에는 각종 생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 그 종류대로 분류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앞의 다섯 날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여섯째 날에도 똑같은 어조로 그가 원하는 생물이 생겨나라 명하니 그들이 땅 위에 나타났으며, 각기 종류대로 되었다. 창조주의 권병이 행사되자,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창조주가 만들고자 계획한 모든 생물들이 예정대로 생겨났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창조주의 이 말씀이 있자, 물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땅 위는 순식간에 각종 생물들이 내뿜는 기운으로 가득 찼다….

초록 풀빛을 잔뜩 머금은 들판에는 튼실하게 살찐 소들이 꼬리를 흔들며 속속 등장하고, 양들이 떼에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무리를 짓고, 말들이 울부짖으며 질주해 왔다….

순식간에, 고요하던 광활한 들판이 시끌벅적해졌다….

각종 가축들의 출현으로 조용하기만 하던 초원에 아름다운 볼거리가 더해졌고 더없는 활기가 넘쳤다….

그들은 초원을 벗 삼고, 초원의 주인이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 것이고, 들판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들판 역시 그들의 영원한 서식지가 되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그들이 영원히 생존하게끔 자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들 가축들과 같은 날에 태어난 각종 곤충들도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잇따라 나타났다. 비록 그들이 피조물 중 가장 작은 생명체일지라도 그들의 생명력 역시 창조주의 오묘한 창조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결코 늦게 온 것이 아니다….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도 있고, 천천히 기어 다니는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폴짝폴짝 뛰어다니기도 한다. 비틀거리며 걷는 것도 있고,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재빠르게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옆으로 걷고, 어떤 것은 위로 뛰어오른다….

그들은 각자 바쁘게

자신의 집을 찾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것은 풀숲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땅에 굴을 파느라 분주하고, 어떤 것은 큰 나무에 날아올라 숲속에 몸을 감춘다… 몸집은 작아도 그들 모두 배고픔을 참지 못하니, 각자 집을 마련하고는 배를 채울 먹이를 급하게 찾아 나선다. 어떤 것은 여린 풀잎에 기어올라 먹고, 어떤 것은 흙을 물어 한 입씩 삼키는데,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한다(흙은 오히려 그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었음). 어떤 것은 숲속에 숨어서도 결코 쉬지 않는데, 나무 위 진초록 잎사귀의 진액은 그들 입맛에 맞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다… 배를 실컷 채운 후에도 그들의 활동은 계속된다. 그들은 작지만 에너지도 활력도 아주 넘쳐 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하고 가장 부지런한 피조물이다. 그들은 게으름 피우거나 편안함을 탐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배를 채운 후에도 여전히 앞으로 살날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그들의 내일과 생존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선율과 다채로운 박자의 노래들을 조용히 흥얼거리며 스스로에게 힘찬 기운을 북돋아 준다. 또한 온 풀숲, 숲속, 모든 토양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며, 언제나 특별한 하루, 남다른 한 해를 만들어 준다… 그들은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방식으로 땅 위의 각종 생물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한 각자 특별한 생존의 궤적으로 다른 만물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며 족적을 남긴다… 그들은 흙과 풀과 숲과 매우 친밀하여 이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창조주가 각각의 생물에게 한 당부와 안부를 전해 주기도 한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만물을 두루 살피고 있던 그 시각, 그의 두 눈은 숲에, 큰 산 사이에 머물렀으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말씀이 있고 난 후, 무성한 숲속에, 그리고 산속에는 이전의 피조물과는 다른 부류의 피조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짐승’이다. 그들은 예사롭지 않은 얼굴을 하고서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보라. 털이 난 것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이를 드러내고 어떤 것은 입을 벌리고 있다. 또 목이 긴 것이 있는가 하면 꼬리가 짧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두 눈에 살기를 띠고 있고, 어떤 것은 두려워하는 눈빛을 띠고 있다. 몸을 굽히고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네 발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나무에 기어올라가 멀리 바라보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은 숲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은 쉴 만한 동굴을 찾아가 하면 어떤 것은 또 평원을 내달리며 장난치고, 어떤 것은 수풀을 헤치며 다닌다. 포효하는 것도, 으르렁대는 것도 있고, 미친 듯이 짖어 대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높은 것도, 나지막한 것도 있고, 우렁찬 것도, 맑고 청아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무섭게 생겼고, 어떤 것은 예쁘장하고, 어떤 것은 역겹게 생겼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아름다워 호감 가게 생겼고, 어떤 것은 그 생김새가 공포감을 주고, 어떤 것은 귀여움이 철철 넘친다. 그들이 하나하나

속속 걸어 나온다. 보라. 그들 모두 의기양양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누구를 상대하려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생명을 받아, 거친 야수성과 난폭성을 지니고 숲과 산속에 나타났다. 그들이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기세가 등등해도 그들이 산과 숲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어찌겠느냐? 창조주가 그들에게 나타나라 명령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숲과 산을 ‘강점’했다. 창조주가 이미 그들의 경계를 정하고 그들의 생존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산과 숲의 진정한 제왕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것처럼 야수성을 지니고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야수’로 불리는 까닭은, 만물 가운데 그들만이 진정으로 야수성과 난폭성을 지니고 있는 길들이기 어려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길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육될 수 없고, 인류와 화목하게 살 수 없으며,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없다. 그들이 사육될 수 없고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인류를 멀리해야 하고, 인류도 그들을 가까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인류를 멀리하고 인류가 그들과 가까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가 부여한 책임, 즉 산과 숲을 지키는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야수성으로 산과 숲을 지키며, 야수성으로 번식을 위한 최적의 보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그들의 야수성은 또 만물의 균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의 출현은 산과 숲에 의지처를 제공했으며, 적적하고 쓸쓸하던 산과 숲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였다. 그때부터 산과 숲은 그들의 영원한 서식지가 되었고,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집을 잃지 않게 되었다. 산과 숲은 그들을 위해 생기고 존재하며, 그들은 장차 산과 숲을 지키기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가 자신들에게 당부한 것, 그들의 영토를 지키고 그들의 야수성을 유지함으로 창조주가 정한 만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주 권병 아래의 만물은 다 완전무결하다

새와 어류, 나무와 화초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짐짐승, 곤충, 들짐승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기에 다 좋았던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기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였다. 창조주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하고자 한 사역을 순서대로 하나씩 이루었다. 그가 창조하고자 한 것들이 한 가지씩 나타났다, 나타난 것마다 모두 창조주 권병의 구현이자 그의 권병이 가져온 결정체였다. 이 결정체는 모든 피조물들로 창조주의 은혜와 공급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가 나타남으로 이 세계는 점차 하나님이 만든 만물로 풍요로워졌다. 혼돈하고

감감했던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변화되었고, 적막하던 세계가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로 변화되었다. 창조된 만물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작은 것에서 미세한 것까지,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그것만이 갖는 정해진 존재의 필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형식이나 구조가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창조주의 창조에서 온 것이면, 그것은 모두 창조주의 권병 아래에 생존하게 된다. 간혹 사람은 못생긴 곤충을 보면 “왜 이리도 못생겼어?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못생긴 것을 만드셨을 리 없으니 이건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라고 한다.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관점이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곤충은 유난히 못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분명히 이것만의 특별한 쓰임새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가 만들려는 모든 생물들이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기능과 용도가 있도록 다 생각해 두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외형부터 내면의 구조까지, 생활 습관부터 각자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다 다르다. 소는 소의 생김새가 있고, 나귀는 나귀의 생김새가 있으며, 사슴은 사슴의 생김새가 있고, 코끼리는 코끼리의 생김새가 있다.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못생겼다고 하겠느냐? 누가 가장 쓸모가 있고, 누가 가장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겠느냐? 어떤 이는 코끼리의 모습을 좋아하지만 코끼리를 이용해 밭을 가는 자는 없다. 어떤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위엄 있게 생겼다고 사자, 호랑이의 모습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사자와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느냐? 요컨대, 만물을 대함에 있어, 사람은 창조주의 권병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즉, 창조주가 만물에게 정해 준 규칙에 순응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가장 현명한 것이다. 또한, 창조주의 초심을 찾고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창조주의 권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때에 이르러, 창조주 권병 아래의 만물은 창조주의 주재에 새 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창조주의 새날의 사역에 눈부신 서막을 열 것이며, 창조주도 그 순간 자신의 경영 사역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만물은 창조주가 정한 ‘봄에 싹트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이 법칙과 창조주의 경륜에 따라 서로 함께 호응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생명 여정을 맞이할 것이고, 또한 창조주 권병의 주재 아래에서의 하루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쉼 없이 성장하고 번성할 것이다….

피조물과 비피조물 모두 창조주의 신분을 대체할 수 없다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만유를 창조했든, 그가 어떤 이유로

만유를 창조했던 간에, 어쨌든 만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고, 세워지고,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다. 인류가 이 세상에 아직 출현하지 않았을 때, 창조주는 그의 능력과 권병으로 인류를 위해 만유를 창조했고, 그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를 위해 적합한 생존 환경을 예비했다.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은 다 장래에 자신의 생기를 얻게 될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와는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크게는 천체, 광명체, 바다, 육지가 있고, 작게는 날짐승과 길짐승 및 각종 곤충과 미생물이 있다. 또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각종 균류까지 그 어느 것도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어느 것 하나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번식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어느 것 하나 창조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주재 아래 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들은 비록 창조주의 생기를 얻지 못했지만,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창조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부여한 언어 능력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 각자는 창조주에게서 인류의 언어와는 또 다른, 생명의 표현 방식을 얻었다. 창조주의 권병은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사물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살아 있는 존재에게 번식 능력을 주어 영원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창조주가 부여해 준 생존 법칙과 규칙을 대를 이어 전하게 할 수 있다. 창조주가 권병을 행하는 방식은 거시적, 미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형식에도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의 운행을 주관하고 만물의 존망을 주재하며, 만물을 움직여 자신을 위해 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는 산천과 호수의 운행을 주관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주재하며, 만물이 필요로 하는 바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이외의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다. 이는 한 번의 생이나 하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다. 또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 없고,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 창조주의 신분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권병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비피조물도 그 권병에 이를 수 없다. 예컨대,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했고, 창조주의 권병은 더더욱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이 없는 까닭은 그들이 창조주의 본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피조물 가운데, 예컨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들이 인류에게는 없는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병은 갖지 못했다. 하나님처럼 만유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주재하는 권병은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은 그 어떤 비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 역시 그 어떤 비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왜 그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 만물을 창조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병을 행할 능력이 없다.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창조주의 주재 아래 있고, 창조주의 권병 아래 있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자 주재자이다. 신분의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그 어떤 자도 창조주의 권병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창조주의 신분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고, 영원히 창조주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사실이다!

이상의 교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면 어떻겠느냐? ‘오직 유일무이한 권병과 능력을 갖춘 만물의 창조자와 주재자만이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질문이 너무 심오하다고 여길 것이고, 얼마 동안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이 질문이 대답하기 어렵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교제하겠다.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권병과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 측면의 실제적 행사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이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할 것이다.

2.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다

창 9:11~13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만물을 창조한 후, 창조주의 권병이 ‘무지개 언약’으로 또 한 번 입증되고, 나타나다

창조주의 권병은 언제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고 행사된다. 그는 만물의 운명을 주재할 뿐 아니라, 그가 친히 빚은 인류, 즉 다른 구조와 형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특별한 피조물 역시 주재하고 있다. 만물을 창조한 후에도 창조주는 그의 권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류가 그의 손에 탄생된 순간부터 자신이 만물과 전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권병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류를 경영하고 주재하기로 하였고, 인류를 구원하고 진정으로 인류를 얻고자 하였는데, 바로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류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인류가 그의 권병 아래 살아가며, 그의 권병을

알고 그의 권병에 순종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말씀으로 그의 권병을 나타내고, 그의 권병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병은 어디서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친숙한 일부 특별 사례들만을 뽑아 보았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과 관련된 말씀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유사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을 행한 것이다. 다른 부분이라면 이 단락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라는 점이다. 이 대화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사람에게 언약에 대해 알려 주는 내용이다. 이때 하나님 권병의 행사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졌다. 즉,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지시이자 명령이었으며, 그가 만들고자 하는 피조물을 향한 선포였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대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사람과의 대화이자, 인류에게 하는 당부이자 훈계이고, 그가 만물에게 하달하는 권병을 지닌 명령이기도 했다.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홍수로 세상을 멸한 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주고,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증거를 세운다고 하였다. 그 증거는 무엇이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창조주가 인류에게 한 원래의 말씀이다. 그가 말씀함과 동시에 무지개가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너희 모두 무지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무지개를 보았을 때 그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았느냐? 과학으로는 이 사실을 논증할 방법이 없다. 과학으로는 그 근원을 찾지 못했으며, 행방도 찾지 못했다. 이는 창조주가 사람과 세운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필요 없다. 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이 있고 난 후 권병이 지속되는 결과인 것이다. 창조주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과 세운 언약과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출현시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은 창조주에게나 창조된 인류에게 있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천상의 규율이자 법칙인 것이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이 법칙은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고 난 후 그의 권병이 또 한 번 진정으로 구현된 것이며,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은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삼은 것은 창조주 권병의 지속이자 연장선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으로 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세운 언약의 증거이다.

이는 그가 무엇을 이루고자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 성취하겠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몇천 년 후인 오늘날에도 인류는 하나님이 말씀한 무지개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 이 일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변함이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지개를 없애지게 할 수 없고, 그것의 규칙을 바꿀 수도 없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지는 이상 반드시 이루며,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영원까지 지속된다.” 이 말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구현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확실한 증거이자 특징이다. 이러한 증거와 특징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피조물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와 특징은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 고유의 신분과 본질을 피조물과 구분시켜 준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 자신 이외의 모든 피조물과 비피조물이 영원히 초월할 수 없는 증거이자 특징인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줌과 동시에 그의 뜻도 알려 주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유한 방식으로, 특별한 증거를 사용해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그 증거로 그가 사람과 세운 언약에 확신을 준 것이다.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건 큰 사건이 아니냐? 얼마나 큰 사건일까? ‘언약’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며, 단체와 단체 간의 언약도, 한 국가와 또 다른 국가 간에 세운 언약도 아니다. 이걸 창조주가 인류 전체와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의 유효 기간은 창조주가 만물을 폐기하는 그날까지이며, 이 ‘언약’의 시행자는 창조주이고, 그것의 수호자 역시 창조주이다. 요컨대, 인류와 세운 ‘무지개 언약’의 모든 것은 창조주와 사람의 대화에 따라 응하고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권병에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며, 그 권병을 깨닫고, 묵도하고, 칭송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이외에 이러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매번 나타나는 무지개는 인류에게 창조주가 사람과 세운 ‘언약’을 알려 주고 상기시켜 준다. 창조주가 인류와 세운 언약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것이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은 ‘무지개’와 ‘언약’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원불변의 권병인 것이다. 무지개의 출현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놀랍고도 오묘한 행사이며, 창조주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권병의 생생한 구현이다. 이런 것들은 창조주의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병의 구현이 아니냐?

3. 하나님의 축복

창 17:4~6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창 18:18~19(중국어성경 직역)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나 여호와와 도를 지킬 것을 명함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로써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

창 22:16~18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창조주만의 말씀 방식과 특징은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신분과 권병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그의 방식대로 사람에게 복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 분배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설명할까? 사람에게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할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접어 두자.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것을 목표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자. 즉,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자.

이상 네 단락의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축복에 관한 기록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대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이유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조, 말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와 높이를 통해, 사람은 복을 내리는 자와 받는 자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와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만의 것이다.

그는 권병과 위력은 물론 창조주의 존귀함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의 위엄을 지니고 있다.

먼저 창세기 17장 4~6절 말씀을 보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였다. 또한 나라들이 그를 좇아 일어나고 열왕이 그를 좇아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였다. 너는 이 몇 마디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보지 못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병을 어떻게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 권병의 어떠한 본질을 보았느냐?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권병과 신분이 하나님의 어휘 사용에서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 될찌라 … 내가 너로 … 하리니” 이 중에서 ‘너는 … 될찌라’, ‘내가 … 하리니’ 등의 표현에서 하나님 신분과 권병이 나타나는 확고한 어휘 사용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창조주의 신실함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모두 창조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용 어휘이자 관용어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축복하기를, 후손이 번성하고 나라들이 그를 좇아 일어나고 열왕이 그를 좇아 일어난다고 했다면, 이는 확실히 하나의 바람일 뿐이지 약속이나 축복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감히 “나는 반드시 너로 하여금 어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러한 결정권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설사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빈말일 뿐이고 헛소리일 뿐이며, 사람의 욕망과 야심이 그렇게 만든 것일 뿐이다.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히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망을 갖기 마련이어서, 후손들이 모두 출세하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만일 황제가 되는 후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크나큰 행운이야! 성장(省長)만 될 수 있어도 괜찮아. 어쨌든 높은 사람이면 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바람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후손을 위해 축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약속을 이루어 줄 수는 없다. 인간에게 거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안다. 자신의 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는 그런 권병이 있어서 사람과 약속한 것, 사람에게 축복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며, 하나님께 있어 사람의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가 누군가의 후손을

변성하게 하는 것은 단 한 마디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에 그는 한 번도 이 때문에 수고한 적이 없다. 또한 이 때문에 머리를 쓰거나 고민해 본 적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권병이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라는 말씀을 보고 난 후, 너희는 하나님의 권병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창조주의 비범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창조주의 지고지상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아주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 필승을 자신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확신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지닌 권병을 입증하는 것이자 그의 말씀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이다. 여기에 너희가 주목해야 할 어휘가 두 가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땅의 만국은 필히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라고 한 말씀에 모호한 부분이 있느냐? 걱정의 요소가 있느냐? 두려움의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서 자주 드러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요소이다. 하나님 말씀 속의 ‘반드시’와 ‘필히’라는 이 두 어휘 때문이라도, 사람의 그런 요소는 창조주와는 조금이라도 연관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을 축복할 때 이런 어휘를 감히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그 누구도 감히 단정적으로 타인에게 강대한 나라를 주겠다는 복을 내리지 못하며, 천하 만민이 필히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란 약속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할수록 그 말씀은 무엇을 증명할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병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란 걸 증명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선 매우 확실해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 어떤 세력도 이 일의 이룩을 바꾸거나 저지하거나 파괴하거나 교란시킬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이룩과 성취를 멈추게 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하는 말씀의 위력이며,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인 것이다! 네가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마음속에 의혹이 일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위엄, 권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력과 권병, 그리고 일이 성취되리란 필연성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이를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창조주만이 이러한 어조와 말투로 인류와 대화할 수 있다. 사실을 통해 그의 약속이 빈말이나 허풍이 아니며,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이 초월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권병의 발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보고 너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느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느냐?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가 허풍을 떤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자신을 과시한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 약속했다면, 그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인 것에 불과하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며, 전형적인 천사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네가 그 안에서 교만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느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병이며 사실이다. 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전, 그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점차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께 교만한 성품이 있음을 뜻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병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 범위 안의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이 나타나고 발현된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권병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며, 창조주 신분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증거인 것이다. 말씀을 하는 이러한 방식, 어조, 어휘는 바로 창조주 신분의 상징이며,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 완전히 부합되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어떤 거짓도 불순함도 없으며, 온전히 창조주의 본질과 권병이 완벽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권병도 없고 이러한 본질은 물론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도 없다. 만일 사람이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패괴 성품의 분출이자, 꿈틀거리는 교만과 야심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미혹하고 유인하는 전형적인 마귀와 사탄의 악독한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언어적 노출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고 하나님을 사칭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내는 너의 속내는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원래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인류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영락없는 사탄이고, 천사장의 후예가 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던 자가 없느냐? 사람을 오도하고 미혹시킬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권병과 위력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며, 자신의 본질과 신분은 남다르며, 심지어 어조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자가 없느냐?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투를 모방해서 말하고, 소위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한다는 손짓을 하며, 하나님의

위력과 권병을 가진 척 가장한 적이 없느냐? 이런 건 너희들 대다수가 걸핏하면 저지르거나, 아니면 하려고 마음먹은 행위들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창조주의 권병을 진정으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데, 과거 너희가 행하고 드러냈던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 역겹지 않느냐? 너희의 비열하고 파렴치했던 모습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류의 성품과 본질을 해부해 보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굴욕을 자초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성질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자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차지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모두 이러한 욕망과 야심이 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사탄의 패괴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탄의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과 관련된 주제를 교제했는데, 너희에겐 아직도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은 욕망과 야심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이 능히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사람이 사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낼 순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모방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사칭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만물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일은 영원히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영원토록 아주 하찮은 피조물일 뿐이다. 네 능력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너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권세 아래 있다. 네가 몇 마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에게 창조주의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네가 창조주의 권병을 가졌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며, 외부로부터 더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창조된 인류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위를 지켜야 하며, 성실한 사람이 되어 분수에 맞게 창조주가 맡긴 사명을 지켜야 한다. 도가 넘치는 일을 해선 안 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위인이나 초인,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있어선 안 되는 ‘소망’이다. 위인이나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건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자 혐오감을 불러오는 일이며 버림받아 마땅한 일이다. 반대로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가장 지켜야 할 바이며,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다.

창조주의 권병은 시간, 공간, 지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루 해야될 수 없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축복하며 그의 자손을 크게 성하게 하리라고 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느냐? 성경 구절처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고 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그저 형상적인 언어일 뿐이다. 하지만 이 형상적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후손이 한둘이 아니고 수천수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나라를 이룰 정도가 된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나라의 아버가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까지 많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냐,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냐? 자신의 후손이 얼마가 될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느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후손이 몇 명일지조차도 사람은 결정할 수 없다. 누가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든,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든 상관없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적게 주었는데 네가 너무 많이 받게 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네게 많이 준다면, 네가 많다고 탓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네 씨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무지개 언약’처럼 영원히 이뤄질 것이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다. 이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보고 대하든 상관없다.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말씀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만물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만물이 사라지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뤄지는 날이다.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의 권병을 지녔으며,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만유와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 그는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가능케 하며, 모든 생과 사의 전환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선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사람이 듣기에는 천일야화나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결정한 일이나 사람에게 약속한 일은 천일야화나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목격한 사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너희는 여기에 대한 체득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예가 많은지 사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느냐? 각 나라, 각 지역,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의 권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동안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끊임없이 현실화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자 하나님 권병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일의 성취와 응답은 시간 차 없이 그 즉시 이루어졌다.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권병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일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권병의 또 다른 면의 본질을 보고, 창조주의 권병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과, 그 권병의 더 실질적이고 훌륭한 면도 알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하나님의 권병은 그 사역을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하였다.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맞았다. 일레로, 봄이 오면 풀이 파릇파릇해지고 꽃이 피고 나무에 싹이 튼다.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기러기들이 돌아오며, 논밭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에 발맞춰 만물도 다시 소생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놀라운 행사이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룰 때,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데,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만물이 다 힘쓰며 움직이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주의 권세 아래 지배되고 안배되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의 기능을 다한다. 창조주의 권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권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정해진 범위가 있느냐? 시간적 제약이 있느냐? 하나님 권병의 높고 낮음과 길고 짧음을 논할 수 있느냐? 크고 작음과 강함과 약함을 논할 수 있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헤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은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의 권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면,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그가 내린 복은 지속된다. 그 지속됨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병을 증거하고, 창조주가 가진 영원불멸의 생명력이 수없이 재현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 준다. 그의 권병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말씀을 완전하게 구현해 내어 만물과 인류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그의 권병이 이룬 일은 하나같이 더없이 정교하고 아름다우며 완전무결하다. 그의 생각, 그의 말씀, 그의 권병과 그가 이룬 일은 전부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그 의의와 가치는 인류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후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 무엇을 하든, 약속받기 전후로 그의 사정이 어떻든, 그의 생존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든, 하나님은 모두 환히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보기에 다 방금 일어난 일과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한 모든 약속을 추진하고 주관하고 실현시키는 능력과 권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간에, 시간, 장소, 종족 등 그 약속의 실현이 관련된 범위가 얼마나 넓은 상관없이,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실현된다. 게다가 이는 하나님께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주관하는 범위는 우주 전체, 인류 전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빛만 관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으니 물만 관리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오해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몇백 년 후,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 기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권병을 행하였는지, 만물을 어떻게 지배하고 안배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인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병과 그의 행사에서 나타난 탁월한 면면들은 만물 가운데 전해지며 칭송되고 있고, 만물은 창조주의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며 전하고 있다.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갖가지 미담들은 만물을 통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존재함을 만물에게 보여 준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시간, 지리, 공간,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범위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며,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우며,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추리하고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으로 하나님 권병의 진정성과 확실성을 그려 낼 수 있느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병을 알게 할 수 있느냐? 진정 하나님의 권병을 깨닫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은 사람 두뇌 작용의 산물일 뿐 하나님의 권병을 아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공상 과학 소설을 읽어 본 사람은 달이 어떤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우주의 행성들이 어떠한지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상상은 그야말로 상상일 뿐이며, 사실이 어떤지, 다시 말해서 이 일련의 일들과 하나님의 권병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설령 네가 달에 가 봤다 한들 어찌겠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추리와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알 수 없다면, 사람은 어찌해야 하겠느냐? 가장 현명한 선택은 추리와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절대 상상이나 추리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 하나님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너의 상상력으로 인식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상력으로 알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교제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체득하고 실증해 가며 깨달으면서, 한 걸음씩 깊이 있게 알아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며, 이 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 너희에게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논리로 추리하지 말고, 지식으로 분석하지 말며, 과학을 근거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삶 속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권병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증명하고 실증하라는 뜻이다. 또한 그가 너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으며, 그의 능력은 항상 그가 진정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실증하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혹자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목표에 이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간단한 방법을 너희는 생각해 냈느냐? 내가 말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너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을 통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인식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공허하지 않고 실제적이다.

창조주가 만물 생명을 주관하고 주재한다는 사실은 창조주의 권병이 진실로 존재함을 말해 주고 있다

욥기에도 마찬가지로 욥에 대한 여호와와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욥 42:12).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준 것들은 무엇이나? 사람의 재산이 아니냐? 이런 재산을 소유한 욥은 그 시대에 아주 부유하지 않았겠느냐? 욥은 그 재산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이냐? 그의 부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런 재산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욥이 그 재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기서 우리가 언급할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일생 동안 재산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산을 베풀어 주고 그 어떤 축복이라도 줄 수 있는 권병과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은 다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축복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이 일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후손, 한 종족을 강성해지게 하였다. 이 일에서 하나님이 권병으로 주재한 것은 만물 생명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류이다. 하나님 권병의 주재 아래 이 인류는 하나님이 정한 범위와 속도에 따라 종족을 번식하며 생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들 족속의 생존 능력, 확장 속도, 수명은 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일의 원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권병의 보호 아래 막힘없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대에서도, 인류가 어떤 재난을 겪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죽음이라는 재앙의 위협에서 안전할 것이며, 그 족속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를 매우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 가운데

대부분이 숨 쉴 수 있는 여러 생명체들이었다. 그 생명체의 수, 번식 속도, 생존율, 살진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 이 생명체들은 언어 능력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는 원칙은 욥에게 약속한 축복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욥에게 준 축복에 대해 말하자면, 약속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날지라도 만물 생명을 주재하는 창조주의 권병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욥에 대한 서로 다른 약속과 축복 가운데 구현되었고, 또 한 번 인류에게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세부적 내용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권병을 알 수 있음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다.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병에서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고 물이 드러나라 하니 물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씀에서만 구현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지속시키고, 궁창이 사라지지 않게 하며, 물을 영원히 물과 나뉘게 하느냐는 부분에서 구현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빛, 궁창, 물과 같은 피조물들을 주재하고 관리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구현된다.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희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아브라함과 욥에게 복을 준 후에도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권병은 이제 막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을 현실로 이루고, 자신이 한 말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후 세월 속에서도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계속하였다. 어쩌면 사람은 하나님께 권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사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이런 상상은 황당한 면이 없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권병으로 주재하는 만물이 생존하는 여러 현상과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너의 이해는 공허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상상을 품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벌써 미궁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상 속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는 기계일 뿐, 권병을 지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욥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실제적인 면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욥을 축복한 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사자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신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만물은 하나님 권병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에 협력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일, 사물을 예비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권병은 온 땅에서 행해졌고, 아브라함과 욥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응답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각의 절차와 모든 중요한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예비하였다. 그 기간 하나님이 움직인 것에는 하나님의 사자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하나님이 권병을 행하는 범위는 하나님의 사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만물도 움직여 하나님이 이루려는 사역에 협력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병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권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나 어떤 고정된 자리에 계시면서 그 어떤 구체적 사역을 행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이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권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권병은 진실하고 실제적인 것이지 절대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의 진정성과 실제성이란 측면은 그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가 인류를 인도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주재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각각의 방식, 각각의 측면, 각각의 세부 내용과 그가 이룬 모든 사역, 그리고 만물에 대한 그의 이해는 확실히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준다. 그의 권병과 능력은 항상, 모든 일에서,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시시각각 자신의 권병과 능력으로 지속적인 사역을 하며, 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과 권병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욥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었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설사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직접 임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일 뿐이며 모두 하나님의 권병 아래 있는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장면을 보았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였는지 보지 못했을지라도, 사실상 진정한 능력과 권병으로 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설사 네가 천사나 사자에게 큰 능력이 있어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거나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고 일련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일 뿐, 절대로 하나님의 권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창조주의

권병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의 권병을 행하거나 나타낼 수 없다.

창조주의 권병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거스를 수 없다

이상 세 부분의 성경 내용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의 권병을 행함에 있어 원칙이 있다는 것을 보았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무지개로 사람과 언약을 세웠다. 그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알려 주었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무지개’가 하나님이 당시 말씀했던 그 ‘무지개’가 아니냐? 그 무지개의 성격과 의미에 변화가 있느냐? 확신하건대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그의 권병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사람과 세운 언약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언약’이 언제 변할지는 물론 하나님이 결정한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 이 일에서 너는 또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권병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신중하고 원칙 있게 일하며 신용을 지킨다. 그의 신중함과 그가 일하는 원칙은 창조주의 거스를 수 없음과 뛰어넘을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지고지상한 권병을 가지고 있고, 만물이 모두 그의 권세 아래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만물을 주재하는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파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다. 그는 권병을 행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계획한 절차와 목표대로 정확하게 진행한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는 만물 역시 하나님 권병의 행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의 권병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그가 보기에 복받는 자는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받는 자 역시 그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 권병의 주재 아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권병의 행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 창조주의 권병은 그 어떤 요인의 변화로도 바뀌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권병이 행사하는 원칙 역시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 천지가 격변한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병은 변하지 않는다. 만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권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바뀌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 권병의 본질인 것이다. 이 역시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다음의 한마디는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 다음 교제할 내용 안에 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보자.

4.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욥 2: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

사탄은 창조주의 권병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만물은 규칙 속에서 생존한다

이것은 욥기에서 발췌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그’는 욥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짧을지라도 많은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영계에서 사탄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상인 사탄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이고 명령이다. 그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욥의 목숨과 관련되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욥을 대하는 마지노선에 관련된다. 즉, 오직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이며, 또한 욥기의 원문과 연관시켜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사탄은 욥을 참소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욥을 시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탄에게 이러한 조건을 걸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 이 말씀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확실히 이것은 지시이고 명령이다. 이 말씀의 성격을 파악하면, 너는 이 명령의 선포자가 하나님이며,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양자의 관계는 이 명령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진다. 물론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영계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류가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사탄의 신분과 지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기록이 인류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아는 데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며, 이 기록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영계에서의 창조주와 사탄의 대화를 통해 창조주 권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겉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태도와 서 있는 위치는 사탄보다 높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는 어조로 사탄에게 지시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 주고, 욥을 그의 손에 붙였으니 욥을 마음대로 대해도 되지만 욥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 뜻은 욥을 사탄의 손에 붙이긴 했으나 욥의 생명까지

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욕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태도는 사탄에게 한 이 명령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할 때 서 있던 위치 역시 이 명령에서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그는 빛과 공기를 만들고 만물 생명을 만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만물 생명을 주재하는 하나님이고, 인류를 주관하고 음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것이다. 영계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사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친히 명령을 내린 것일까? 욕의 목숨을 포함한 사람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사탄의 침해를 허락하지 않으며 욕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을 때에도 특별히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잊지 않고, 재차 사탄에게 욕의 생명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던 것이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권병을 넘어설 수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과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복종하고 따르며 감히 거역할 수 없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범위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감히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는 하나님 권병의 위력이 아니냐? 하나님의 권병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인류보다 훨씬 더 잘 안다. 사탄은 영계에서 하나님의 지위와 권병을 확실하게 보았고, 하나님 권병의 위력과 하나님의 권병이 시행되는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감히 태만히 굴거나 조금도 거스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권병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한다. 사탄은 본성이 사악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준 한계와 범위를 감히 벗어나지 못한다. 천만 년 동안, 사탄은 엄격하게 그 한계를 지켰고,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지금껏 감히 한계선을 한 걸음도 넘지 못했다. 사탄은 악독하긴 해도 파괴된 인류보다 훨씬 ‘현명’하다. 사탄은 창조주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안다. ‘규율을 지키는’ 사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사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천상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권병으로 인해 만물이 법칙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인류가 하나님이 정한 궤도 속에서 변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규율을 깰 수 없고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창조주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창조주의 권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신분을 갖춘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권병을 소유한다

사탄의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탄의 다방면의 행위에 관심을 보인다. 심지어 많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외에 사탄도 권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탄도 이적을 보이고 인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도 마음속에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으며, 심지어 사탄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불쌍하기도 하거니와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의 대역무도함과 타고난 사악한 본질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너희가 권병이 무엇인지, 권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대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곧 권병이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의 지고지상함과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사탄은 자기 자신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탄은 감히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만물을 주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한다! 사탄은 만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같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권병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히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탄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느냐? 물론 없다! 사탄이 행한 일들, 사탄이 보인 이적은 무엇이나? 능력이 맞느냐? 권병이라 할 수 있느냐? 물론 아니다! 사탄은 사악한 흐름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며 방해하는 짓을 일삼는다. 몇천 년 동안, 사탄은 인류를 파괴시키고 해쳤으며,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였다. 이런 짓 말고, 사탄이 인류에게 행한 것 중 어느 것 하나 기릴 만하거나 칭찬하고 귀히 여길 만한 것이 있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사탄에 의해 해를 입었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있었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겠느냐? 사탄에게 권병과 능력이 없다면, 사탄이 행한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겠느냐? 혹자는 사탄의 모든 행위가 보잘것없는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 대한 이런 정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류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악행이 보잘것없는 잔재주일까? 사탄이 욕을 해한 그런 사악한 기세와 욕을 해치고 집어삼키려던 강렬한 욕망은 단연코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욕이 소유했던 엄청난 양의 소와 양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거액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게 보잘것없는 잔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사탄이 한 행위의 성격으로 볼 때, 모두 파괴, 방해, 훼손, 상해, 사악, 악독, 어둠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와 잘 맞고 어울린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것의 발생은 사탄의 행위와 떼어 놓을 수 없으며, 또한 사탄의 추악한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사탄이 아무리 ‘재주가神通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만하고 야심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사람을 미혹하고 패괴시키는 재능이 탁월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수법과 권모술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의 존재 형식이 변화무쌍할지라도 상관없다. 사탄은 지금껏 생명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했고, 만물의 생존 법칙과 규율을 정하지도 못했으며,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주관하거나 주재하지 못했다. 우주 창공에는 사탄에 의해 생기고 사탄으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아무것도 없고, 사탄이 주재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나 사물 또한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도 함부로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 위의 개미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인류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 사탄은 산속의 백합만도 못하고, 하늘을 나는 새만도 못하며, 바닷속의 물고기만도 못하고, 땅 위의 구더기만도 못하다. 만물 가운데 사탄의 역할은 만물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이 아무리 악독하고 본질이 아무리 사악해도 상관없다. 사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분수에 맞게 자신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능과 부각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자 본래 자리이다. 사탄의 본질은 생명과 무관하고, 능력과 무관하며, 권병과 무관하다. 사탄은 하나님 수중에 있는 장난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은 사탄의 본모습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권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권병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권병이든 능력이든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과 무관하고, 그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과도 무관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형식의, 생명 있고 활력 넘치는 것이라도 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병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겨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존하며 지속되게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주재하고 주관한다. 지금껏 여기엔 오차가 없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으며, 창조주만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권병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그러므로 ‘권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나 권병의 본질은 오직 창조주와만 관련이 있다. 이는 권병이 창조주만의 신분과 본질의 상징이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신분과 지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권병’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이 역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권병에 대한 해석이다.

사탄이 욱을 호시탐탐 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욱의 털끝 하나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 사탄의 본성이 사악하고 잔인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탄은 하나님의 지시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욱에게 임한 사탄이 양 떼에 침입한 사나운 늑대처럼 거칠게 날뛰었을지라도, 사탄은 감히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를 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탄은 아무리 해도 감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사실 아니냐? 이 점에서 볼 때,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넘어설 수 없다. 사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고 천상의 법칙이며, 하나님 권병의 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상의 법칙을 어기며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권병을 넘어서고 천상의 법칙에 대항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 결과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사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사탄이 욱, 이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은 인류를 패괴시킨 사탄의 소행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사탄이 그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정해 준 범위와 내린 명령은 사탄이 모든 일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그리고 사탄이 이 일에서 담당할 역할과 위치는 사탄이 하나님의 경영 사역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치를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사탄이 욱의 시험에서 보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하나님의 경영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축소판일 뿐이다. 이 축소판들이 너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나? 사탄을 포함한 만물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감히 창조주가 정한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벗어나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항자에게 내리는 창조주의 처벌을 바꾸거나 그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만이 천상의 법칙과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창조주만이 그러한 법칙과 규칙을 시행할 능력이 있으며, 창조주의 능력만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만의 권병이며, 이 권병은 만물 가운데 지극히 높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사탄이 그 다음이다”라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유일무이한 권병을 가진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병은 사람의 권력과 어떻게 구분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자는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우 좋은 말이다! 사람들이 이 둘을 함께 논할 수 없다 말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관념 속에는 항상 사람의 권력이 권병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함께 놓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이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 양자는 함께 연관시킬 수도 함께 비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까? 네가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권병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네가 사람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병을 한데 놓고 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권력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패괴 성품, 욕망이나 야심으로 잔뜩 부풀어진 사람이 목적인 바를 달성시키는 일종의 수완이나 재주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권병이라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의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부풀어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든, 그 사람에게 권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팽창과 목적 달성은 기껏해야 사탄이 사람 가운데서 한 어릿광대짓에 지나지 않는다. 잘해 봤자 사탄이 스스로 조상이 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야심을 충족시키는 연극일 뿐이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권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상의 내용을 교제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의 권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만의 지위를 상징하지 않느냐? 만물 가운데 너는 어떠한 일들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사람이 경험하는 사계절에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대한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봄에는 나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병이 어느 한 면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의 존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느냐? 인류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의 본질과 기능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눈 낮과 밤, 주야를 정한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사탄을 포함해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밤이 되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대낮처럼 보낼지라도

역시 밤이다. 네가 너의 생활 규칙을 바꾸었지만, 낮과 밤이 교체되는 법칙은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사자에게 소처럼 밭을 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코끼리를 나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닭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늑대를 양처럼 풀을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를 육지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물속에서 살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속에서 살아야 한다. 육지에서는 살 수 없어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만물은 모두 자기만의 생존 법칙과 범위가 있고, 각각 자기만의 본능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창조주가 정한 것으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자는 영원히 사람과 격리된 야생 세계에서 살지, 영원히 소처럼 충직하게 성실하게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코끼리와 나귀는 다 동물이고 네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숨을 쉬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다른 종이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에 의해 종류가 구분되고 모두 각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서로 바꿀 수 없다. 닭도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나무 위에 날아오를 수 있을 뿐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없다. 이것은 닭의 본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병에 의해 정해진 것이 자명하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면서, 인류의 과학은 ‘일취월장’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가 ‘과히 놀랄’ 정도이니, 인류의 기량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유독 한 가지만은 인간의 과학이 돌파하지 못했다.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고, 항공 모함을 만들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우주로 날아가고, 달에 착륙하고, 인터넷을 발명하여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숨 쉴 수 있는 생물은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인류의 과학은 생물의 본능과 생존 법칙, 각 생물의 생사윤회를 통제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다. 그렇기에 인류의 과학이 아무리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도 창조주의 생각 하나에 비할 수 없고, 창조주의 만물 창조의 오묘함과 창조주 권병의 위력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구상의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각각에게 경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닷물은 지금껏 함부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 육지로 올라온 적이 없다. 그들은 정해 준 대로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할 때에야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권병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권병’을 늘 하는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그대로 한다.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천지 만물, 우주, 별, 1년 사계절,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당시의 법칙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권병 아래 존재하고 운행되며 변화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의 법칙을 바꿀 수 없으며, 그것 본래의 운행 궤적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그 권병으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병이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한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병이 그 어떤 피조물이나 비피조물이 갖출 수 있는 것이냐?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이 모방하고 사칭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창조주의 신분은 유일무이한 것이니 ‘다신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사탄의 기량과 재주가 사람보다 클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탄이 할 수 있을지라도, 사탄이 하는 일이 네가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든, 네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든, 네가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또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숭배하게 할 수 있든, 네가 사탄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든, 너는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만이 권병을 가지고 있으며, 만물을 주관하고 주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재주를 가졌고 사탄이 하나님으로 사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탄이 하나님이 행한 이적과 기사를 모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사탄이 하나님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량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다스리는 권력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먼저 오고 나중에 온 순서에 따라,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크고 작음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병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만일 네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권병을 지닌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다신론’을 고집한다면, 너는 피조물 중 인간 말종이고, 전형적인 사탄의 화신으로서 매우 사악한 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알겠느냐?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 함께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그것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할지라도, 사탄의 행동 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아무리 너의 생각과 일치하고 너의 상상과 일치하더라도, 얼마나 그것이 너를 만족시키든,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개념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문전 박대 하고 대신 사탄을 끌어들여 너의 마음속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인류는 패괴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권병의 주재 아래 살아간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패괴시키면서 무수히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대대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으며, 인간 세상에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사람을 해치고 미혹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병 아래 있는 만물 생령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규율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과 비교해 보면,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그것이 날뛰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으며, 역겹고 증오스러운 데다, 보잘것없고 취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어떤 사람, 일, 사물도 변화시킬 수 없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려 준 빛과 공기를 누리고 있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어 준 생기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꽃과 새, 물고기와 곤충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준 만물을 누리고 있다. 낮과 밤은 여전히 끊임없이 교체되고, 사계절 역시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울겨울에 떠나가서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온다. 물속의 물고기는 그들의 집인 강과 호수를 떠나 본 적이 없다. 땅 위의 매미는 여름날 마음껏 자기들만의 노래를 부른다. 풀 속의 귀뚜라미들은 가을날 소슬바람 따라 낮은 소리로 노래한다. 기러기는 무리를 이루고 매는 홀로 지낸다. 사자 무리는 사냥하며 살아가고, 사슴들은 꽃과 풀밭을 떠나지 않는다.... 만물 가운데 각종 생령들은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다시 가며 찰나 간에 천태만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본능과 생존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자양분을 받아 생존한다. 그 누구도 그들의 본능을 바꿀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들의 생존 법칙을 파괴할 수 없다. 만물 가운데 살아가며 사탄에 의해 패괴되고 미혹되었을지라도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물과 공기와 만물을 떠날 수 없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 속에서 번성하며 살아간다. 인류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는 여전히 두 눈으로 바라보고, 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두 다리와 두 발로

걸으며, 두 손으로 일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관(器官)은 변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은 변하지 않았다. 인류 심령의 필요는 변하지 않았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려는 인류의 소망은 변하지 않았으며, 인류가 창조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소망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병 아래 살아가며 사탄의 피비린내 나는 학대를 견디고 있는 인류의 현주소다. 비록 사탄의 엄청난 유린을 당한 인류는 더 이상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닌, 지식과 상상, 관념 등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들이 가득하고 사탄의 파괴 성품이 가득한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인류이다.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와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정한 궤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기에 사탄에 의해 파괴된 인류는 단지 외관상 더럽고 굶주리고 반응도 약간 느리고 기억력도 다소 감퇴되고 나이가 조금 많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기능과 본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이 인류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이다. 이 인류는 창조주의 부름과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 그 음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달려간다. 이 인류는 창조주의 그림자를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창조주를 위해 헌신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다. 인류의 마음과 영이 창조주의 마음의 소리를 깨닫게 될 때, 인류는 사탄을 버리고 창조주의 곁으로 온다. 인류가 완전히 몸의 더러움을 씻어 내고 창조주가 다시 공급해 주는 자양분을 얻게 될 때, 인류의 기억은 회복된다. 그때의 인류는 진정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온 것이다.

2013년 12월 14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2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앞서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니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으리라 믿는다. 너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알 수 있는지는 너희의 노력에 달려 있으니,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임할 수 있길 바란다!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알았다 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아는 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아는 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목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성경의 두 내용을 발췌하여 오늘의 제목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창세기 19장 1~11절과 창세기 19장 24~25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나 1장 1~2절과 3~4장이다. 이 두 내용에 관해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할지 너희가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로 무엇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관한 교제 중 어떤 내용이 너희의 이목을 집중시켰느냐? 왜 이와 같은 권병과 능력이 있는 그분만을 하나님 자신이라 할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할까?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병과 능력은 하나님 본질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증명하는 한 측면의 본질이 아니냐? 이 몇 가지 문제를 통해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느냐? 너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다’, 우선 이 일에 대한 성경 구절부터 보도록 하자.

창 19:1~11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 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창 19:24~25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성경의 이 구절들을 통해 소돔의 사악함과 파괴함이 천인공노할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안중에 반드시 멸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을 멸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고, 그 일들이 사람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였느냐? 그 일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고 있느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발생한 일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치가 떨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올 정도로 파괴된 소돔 성

그날 밤, 롯은 하나님의 두 사자를 영접하고 식사를 베풀었다. 식사 후 사자들이 아직 눕지 않았을 때,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롯의 집을 둘러싼 후 롯을 불렀다. 성경에는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되어 있다. 이는 누가 한 말이나?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이 말은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의 집 밖에서 롯에게 외친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화가 나지 않느냐? 역겹지 않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외침은 사탄의 행위를 뜻하지 않느냐? 그 외침에서 너는 그 성의 사악함과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들의 외침에서 너는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야만성과 잔인함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에서 그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이 말한 내용에서 그들의 사악한 본성과 흉악한 성품이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롯을 제외한 성안 사람들은 모두 사탄과 같아서 사람을 보면 해를 입히고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였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성의 음산함과 공포스러움, 죽음의 기운, 사악함과 잔혹함이 절로 느껴진다.

인간성도 없고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찬 폭도들을 보며 롯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에는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에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롯이 이 말을 한 의도는 그의 두 딸을 포기하더라도 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상, 롯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그 무리들은 양보를 하고 두 사자를 가만히 놓아두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두 사자는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들의 이익을 침해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본성에 끌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난폭해졌다. 여기서 그들이 나눈 또 다른 대화를 통해 그들의 악독한 본모습을 더한층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왜 그 성을 멸하려고 했는지도 알고 이해하게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하였느냐? 성경에 “너는 물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다. 그들은 왜 문을 부수려 하였을까? 두 사자를 빨리 해치지 못해 안달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두 사자가 소돔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성안의 사람들은 그 두 사자가 법관이 되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착각하며 추측만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해하려 하였다. 그들이 해하려 한 것은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두 사람이었다. 따라서 소돔 성 사람들이 이미 인간성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과 그들의 광기와 날뛰는 정도가 사람을 해하고 집어삼키는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롯에게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자 롯은 어떻게 하였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듯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롯은 하나님의 두 사자를 알았느냐? 전혀 몰랐다! 그렇다면 그는 왜 두 사람을 구하였느냐?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었느냐? 그는 그 두 사자가 그곳에 온 이유는 몰랐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다. 롯이 하나님의 종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롯이 평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소돔 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갔을 때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두 종을 영접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는 또 두 딸을 넘기고 그들을 보호하려 하였다. 이는 롯의 의로운 행위이며, 롯의 본성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종을 보내 그를 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롯은 아랑곳 않고 두 종을 보호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두 딸로 두 종의 안전을 지키려 하였다. 그 성안에 롯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또 있었느냐? 없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롯을 제외한 소돔 사람 모두가 멸해야 할 대상이자 멸망당해야 할 대상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다

소돔 성 사람들은 두 사자를 보았을 때, 그들이 거기에 온 이유를 묻는 자가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지도 묻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무리 지어 와서 다짜고짜 미친개와 같이, 악한 이리와 같이 그 두 종을 잡으려 하였다. 당시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그런 행위와 그런 일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기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날이 오면 그는 하고자 했던 일을 그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한 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을 멸하였는지를 말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멸하였는지도 알려 주고 있다. 우선,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로 이 성을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안의 사람에서부터 땅에서 난 모든 것까지 다 멸할 정도로 불태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린 불이 이 성을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안의 사람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함께 멸하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성을 멸한 후, 땅에는 더 이상 생물이 살지 못하였고, 더 이상 생기가 없었으며,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정적만 흐르는 공터로 변해 버렸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이 다시는 있을 수 없었으며, 살육과 피비린내가 다시는 없었다.

하나님은 왜 이 성을 이렇게 완전히 불태웠을까? 너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류와 만물이 그렇게 멸해지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을까? 네가 만약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킨 대상과 그 성이 멸망당한 정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노한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성을 증오할 때는 징벌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성에 염증을 느낄 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경고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없애고 멸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거스르는 일이 생겼다면 더 이상 징벌이나 경고를 주지 않고 곧바로 멸한다. 그리하여 완전하고 철저히 사라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계속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대항했던 소돔 성,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했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중의 죄악의 도시, 소돔 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돔 성의 본질을 앎으로써 하나님이 왜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였고, 왜 성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했는지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들 눈에 소돔 성은 인간들의 욕망과 사악함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이자 밤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요염하고 유혹적인 도시였다. 그 화려함에 사람들은 정신이 팔리고 미치광이가 되었으며, 그 사악함에 사람의 심령은 잠식당하고 미혹당해 타락하였다. 소돔 성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령이 판을 쳤고 죄악과 살육이 가득하였으며, 피비린내와 썩은내가 진동하였다.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도시였다. 성안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도를 찾거나 광명을 갈망하는 이가 없었고, 죄악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도 없었다. 사람은 사탄의 통제와 파괴, 농락 속에 살면서 인간성과 이성을 잃고 인간 본연의 생존 목표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악행은 수없이 많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였다. 그들의 악행은 그들과 그 성과 성안의 살아 있는 것 모두를 한 걸음씩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이 두 단락에는 소돔 성 사람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지 하나님의 두 종이 소돔 성에 도착한 후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실로 소돔 성 사람들이 얼마나 파괴되었고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성안 사람들의 본모습과 본질도 드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멸시하였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악독한 본성은 더 심해졌으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함, 하나님의 징벌을 적대시하였고, 하나님이 내린 경고는 더욱 적대시하였다. 그들은 안하무인으로 집어삼키고 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의 종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돔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 한 일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여기서 드러난 그들의 사악한 본성도 바닷물 중 한 방울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멸할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은 홍수, 허리케인, 지진, 해일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불사르는 방식으로 성을 멸하였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태워진다는 것은 성의 완전한 멸망을 뜻하며, 이 성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멸망’이란 형체나 외형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안의 모든 사람의 영혼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 성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멸해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 내세와 윤회는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된 인류 가운데서 한 번으로 영원히 제거해 버린 것이다. ‘불살랐다’는 것은 죄악이 그곳에서 제지되고 끝나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고 파생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사탄의 사악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잃고, 머무르고 기거할 수 있는 무덤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했음을 낙인으로 사탄에게 남긴 것이다. 소돔 성의 멸망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집어삼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사탄의 야심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인류 발전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스스로 타락한 인류의 수치스러운 기호이며, 아울러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실제 기록이다.

소돔 성이 하나님이 내린 불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소돔’이라 불리는

성을 볼 수 없고, 성안의 모든 것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성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 멸망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 속에서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 상응하는 징벌을 받았고, 그에 걸맞은 결말에 이르렀다. 소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소돔의 사악함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성과 성에서 사는 어떤 사람도, 성장하는 어떤 만물도 다시 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표현된 것이다. 그 성의 사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해 분노와 미움,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소돔 성과 성안의 사람 그리고 성안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불로 이 성을 멸하였다. 소돔 성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중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소돔에 대한 기억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즉, 하늘에서 내린 불이 태운 것은 온 소돔 성과 성안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한 기억까지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돔 성을 불태운 목적이었다.

인류가 심히 파괴되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면 그들은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독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할 때에도 그 파괴된 사람들에게서는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극히 증오하는 본성과 본질이다. 그러므로 파괴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파괴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진상을 모르면서 비방과 조롱을 쏟아 내는 것만도 아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무지몽매해서, 기만당해서, 미혹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공개적으로 제멋대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항하고 소란을 피우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을 노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범함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이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성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안의 사람들을 멸함으로 모든 죄악을 멸해 버리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의 죄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불로 태우는 것이었다. 소돔의 사람들을 상대로 취한 하나님의 태도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 위엄, 권병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쳐서 완전히 멸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멸시켜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의 진정한 함의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춰져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지몽매한 온 인류를 주로 긍휼과 관용으로 대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의 시간과 사건에서 가려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 아주 어렵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과 절차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했을 때, 즉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고 경고했을 때도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은 반대로 긍휼을 거두고 사람에게 진노만을 발한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의 진노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을 징벌하고 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불로 소돔 성을 멸망시켰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인류나 물체를 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불을 이용해 인류를 멸한 것은 그 육체뿐 아니라 영, 혼, 육 전부를 멸하여 소돔 성 사람들이 물질세계와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를 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런 발현은 하나님의 진노 본질의 일면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할 때 더 이상 그 어떤 긍휼과 자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이유도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도록 설득할 수 없고, 다시 긍휼과 관용을 베풀도록 설득할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한시도 지체 없이 그의 진노와 위엄을 나타내고, 그가 하려는 일을 하고 또한 깔끔하고 마음에 들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나타내는 방식이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걱정하고 사랑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위엄을 볼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없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오직 긍휼, 관용, 사랑만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성을 멸하고 인류를 증오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인류를 멸하는 그의 노와 위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고, 피조물이 아닌 어떤 것도 간섭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사칭이나 모방은 더욱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하나님 성품을 인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러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의로운 성품을 갖춘 것은 하나님이 사악함, 암흑, 패역, 인류를 패괴시키고 집어삼키는 사탄의 온갖 악행을 증오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를 증오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결한 본질에서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든 비피조물이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던 자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의 원칙을 거슬렀다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주저하지 않고 거스를 수 없는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 줄 것이다.

모든 정의의 힘과 긍정적인 사물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말씀하고 생각하고 행한 이 사례들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공의로운 성품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 사람이 얼마나 알 수 있든 간에 이는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다.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위엄은 하나님 자신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만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노하는 원칙은 하나님 자신만의 신분과 지위를 뜻하며, 그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상징한다는 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본질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바뀌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의 본질이다. 그가 누구에게 사역하든 간에 그의 본질과 공의로운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원래의 성품이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고, 그의 유일무이한 신분과 지위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노하는 이유는 그의 본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의 성품에 다른 요소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사람이 공공연히 하나님께 도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자 하나님의 노를 시험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과 겨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노를 시험할 때가 바로 죄악이 범람할 때이며,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연스럽게 발현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사악한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적대 세력이 멸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이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진노이다. 하나님의 존엄과 거룩함이 도전을 받을 때, 정의의 힘이 저지당하고 사람이 정의를 찾아볼 수 없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낼 때이다.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대적하고 맞서는 세력들은 모두 사악하고 파괴되고 정의롭지 않은 세력이며,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탄에 속하는 세력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빛이며, 흠이 없이 거룩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악하고 파괴되고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게 되면 모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한 측면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원칙 없이, 대상의 구분 없이 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쉽게 노하지 않고, 진노와 위엄을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상당한 정도와 기준이 있다. 이는 사람이 화를 내고 울분을 쏟아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하는 말이 깊이가 없고 우매하여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다. 특히, 욥이 시련을 겪는 동안 욥의 세 친구와 사람들이 욥에게 한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정죄했느냐? 그들에게 노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였고, 그들의 과실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는 파괴되고 무지한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주요 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총체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어서도, 울분이 극에 달해 쏟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도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이자 참된 표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분이어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와 원칙 없이 노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이유도 원칙도 없이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파괴된 인류의 전유물이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트집 잡아 분풀이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이유 없이 화를 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한 파괴된 인류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항상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파괴된 인류는 항상 자신의 지위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쏟아 내고 교만한 본성을 드러낸다. 사람이 화를 내고 울분을 표하는 것은 모두 죄악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불순함, 음모와 계략, 파괴와 사악함, 심지어 야심과 욕망이 가득하다. 정의와 사악의 싸움에서 사람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화내지는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의의 힘이 위협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격당할 때,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사악한 세력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굽실거린다. 그러므로

사람이 분풀이하는 것은 사악한 세력의 출구이며,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의 악행이 넘쳐 나고 억제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모든 사악한 세력과 사람을 해하는 죄악은 저지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적대 세력은 드러나고 분리되고 저주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적대시한 사탄의 모든 공범자들은 징벌받고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역은 막힘없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진 대로 한 단계씩 앞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은 사탄의 교란도 미혹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악한 세력이 더 이상 자생하고 판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모든 정의와 긍정적인 사물이 존재하고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한 일에서 너희는 하나님 진노의 본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노에 불순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노가 순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순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계략, 음모,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엄숙하고 진지하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사람이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없고, 하나님의 노는 순수하며 다른 속셈이나 목적이 없다. 하나님이 노하는 이유는 순결하며 질책하거나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일부이자 창조주가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점이다.

사람이 타인의 앞이나 뒤에서 화를 낼 때는 다 서로 다른 속셈과 목적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이미지, 체면 등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화를 내는 데에 기준이 있지만 어떤 이는 기준도 없다. 화를 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며 아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화는 사람의 패괴 성품에서 온 것이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다 혈기와 천성적인 것에 속하며,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과 본질에는 진리와 부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괴된 인류의 화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논할 수 없다. 사탄에 의해 패괴된 사람의 행동은 하나같이 다 패괴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패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당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노할 때, 사악한 세력은 저지당하고 사악한 사물은 멸망되지만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않고 부정적이고 사악한 사물이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거나 교란시키거나 파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의롭고 긍정적이며 아름답고 선한 사물의 존재를 수호하고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규칙과 법칙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는 근본 원인이다. 하나님의 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매우 정당하고 자연스럽고, 또 진실하게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다른 속셈이나 교활함이나 음모가 없고 파괴된 인류에게 공존하는 욕망, 간사함, 악랄함, 폭력성, 사악함 등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노를 발하기 전에 이미 모든 일의 본질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와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목표와 태도가 아주 명확하다. 두루뭉술하거나 맹목적이지 않고, 충동적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며, 원칙이 없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 진노의 실제적인 면이다. 인류는 바로 하나님 진노의 이 실제적인 면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잃게 되면 인류는 비정상적인 삶으로 추락하게 되고, 정의롭고 아름다우며 선한 모든 사물은 멸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잃게 되면 피조물의 생존 법칙과 규칙이 파괴되고 심지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진 후,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을 지키고 유지하였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진노와 위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악한 사람과 사물,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은 징벌받고 통제되고 멸망된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는 사역에서 그에게 대항하는 자, 사탄의 공범자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된 더러운 귀신과 악령을 그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끊임없이 치고 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가장 정의로운 일이 지금까지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진노의 본질에 대해 알았으니, 너희는 사탄의 사악에 대해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인의와 도덕의 겉모습에 가려진 잔인하고 사악한 사탄의 본질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흠치면서 늘 자신을 정의의 선봉자나 정의의 본보기로 치켜세운다. 사탄은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마비시키고 미혹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악행을 지지하고 따르게 만들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의 음모와 계략,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더 이상 사탄에게 짓밟히거나 농락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탄을 위해 목숨을 걸거나 사탄과 함께 징벌받고 멸망되길 바라지 않을 때, 사탄은 보살 같았던 얼굴을 금세 바꾸고 가면을 벗어던져 사악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악한 그 세력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지 못해 안달이 난다. 그때의 사탄은 더 이상 사람이 믿을 만한 정인군자의 모습으로 가장하지 못하고 양가죽 뒤에 숨겨져 있던 추한 악마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사탄은 음모가 발각되고 본모습이 폭로되면, 즉시 노발대발하며 야만성을 드러내고, 사람을 해치고 집어삼키려는 욕망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 분노하고, 자유와 광명을 갈망하고 사탄의 농락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소망으로 인해 강한 복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탄이 노발대발하는 것은 사악함을 지키기 위함이며, 또한 사탄의 잔인한 본성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을 행동 곳곳에서 드러낸다.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따르게 만들고, 사람을 이용해 나쁜 물이 들도록 한다. 나아가 진면목이 폭로되고 간파되어 사람에게 버려진 후에는 복수심을 갖기까지 한다. 사탄이 사람에게 저지른 그 모든 악행에서 사탄의 사악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사탄이 긍정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사탄이 모든 사악한 사물의 근원임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 없다.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사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악행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의롭고 긍정적인 사물과 어긋난 것이고,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법칙과 규칙을 깨는 것이며,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탄에게도 분노가 있지만 그것은 사악한 본성을 쏟아 내는 방식에 불과하다. 사탄이 악에 받쳐 격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음모가 드러나서 자신의 계략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야심과 욕망을 이루는 데에 타격을 받고 방해받았으며, 인류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물거품이 되어 영원히 실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계속해서 진노를 내려 사탄의 음모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고 사탄의 사악이 자생하고 판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를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사탄의 추악한 본모습이 폭로되었고, 사악한 욕망이 빛 속에서 드러났으며, 동시에 사탄이 인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도 빠짐없이 드러났다. 사탄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사탄의 음모가 폭로되는 것이다. 물론, 사탄의 모든 격노는 사악한 것이 파괴되고 긍정적인 것이 보호받고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스를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앞에 있어 경험과 상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네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도 사연이 있고 불순물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다 공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느냐? 우선 너는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인류를 치거나 벌하거나 멸한 것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어떠한 불순물도 흠도 없고 거룩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고유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는 인류의 지식, 전통,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의 발현으로서 파괴된 인류의 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 사람은 고정 관념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관용은 어떤 흠과 불순물 없이 거룩하다고 여길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도 불순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왜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크게 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이도 없다. 반대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파괴된 인류의 성질로 오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파괴된 인류가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사람의 파괴 성품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고 파괴된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일종의 감정 표현으로 잘못 생각한다. 이번 교제를 통해 나는 너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오해하거나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있는 진노에 대해 진정한 확신이 생기고,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진노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견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너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더 이상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추리하거나 상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하나님 자신의 참된 본질이지 사람이 만들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피조물과 그 어떤 관계도 관련도 없다. 하나님 자신은 곧 하나님 자신으로, 영원히 피조물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일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유의 성품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아니다. 사물을 인지하거나 사람을 알아 가는 관점 혹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 간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이나 상상에 따르면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체험과 상상을

하나님께 덧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너의 경험과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된 것이다. 더구나 너의 상상은 사실에도, 진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참된 성품과 본질에 전혀 맞지 않는다. 너의 상상력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천천히 체험하고 천천히 알아 가는 것이다. 너의 협력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네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이해하도록 깨우쳐 줄 것이다. 이런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인류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다’, 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하자.

욥 1:1~2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욥 3장 “여호와와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욥 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념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찢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찌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느웨 이야기 개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한’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했던 사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보자.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욥 1:1~2).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그곳으로 보냈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성안 사람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여호와가 하려는 일을 그들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에 요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물론, 이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람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킨 일과 왜 그렇게 했는지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요나 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일러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한 말씀으로, 여호와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다. 이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40일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소돔 성처럼 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분명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를 전달한 것이었고 또한 성안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이 경고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증오했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이 큰 재난을 불러올 것이므로 성안 사람들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대함에 있어 소돔 성 사람들과 전혀 달랐던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

여기서 ‘무너지리라’는 무슨 의미이냐? 사라진다는 뜻이다. 왜 사라질까? 누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나? 물론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았기에 듣자마자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은 성과 함께 멸해질 것임을 알아차렸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 어떻게 하였느냐? 왕부터 백성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소돔 성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소돔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여 악에 악을 더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들은 후 외면하거나 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복*하고 금식을 선포하였다. 여기서 ‘신복’이란 무슨 의미이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다. 니느웨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곧 그렇게 할 것임을 믿고 기꺼이 회개하겠다는 뜻이다. 곧 닥쳐올 재앙을 앞두고 니느웨 사람들은

* 신복(信服): 요나 3장에서는 ‘믿고’로 번역되었음.

두려움을 느꼈느냐? 그들은 신복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신복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에 따르면,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참으로 신복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신복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굶은 베옷을 입었다. 이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소돔 성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표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니느웨의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그렇게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니느웨 왕의 회개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옷을 입은 후 재에 앉았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소나 양 같은 가축에게도 풀이나 물을 먹이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굶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선포하였다. 니느웨 왕이 행한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보좌에서 일어난 후 왕의 의복을 벗고 굶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다. 이 일련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니느웨의 왕이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일반 백성처럼 굶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다시 말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후, 왕위에 있을 때 행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권력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다. 이때 니느웨 왕은 왕의 신분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다. 또한 그는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하였다. 그는 니느웨 성의 왕으로서 최고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하거나 홀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에 그칠 수도 있었으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성안의 사람들과 가축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하였다. 니느웨 왕의 이러한 행동은 왕으로서 진정으로 행해야 할 행동이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하기 어렵고 하지 못했던 행동이자,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행동으로,

기념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왕들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게 하였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행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징벌을 피하게 한 자는 없었다. 하지만 니느웨 왕은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리게 하였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도록 하였으며 왕위를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바꾸고 진노를 거두어 성안의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니느웨 왕의 행동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기 드문 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패괴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참된 회개를 보았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후 일련의 일을 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그런 일을 한 성격은 무엇이나? 즉,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무엇이나? 그들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안중에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죄를 자백하였고 또한 모든 악행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큰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는 것으로 자신을 돌이키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표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과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악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왜 멸망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나려고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를 알게 된 후 그들은 다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과거로 그들을 대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했으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들의 회개는 참되고 철저한 것이었으며, 가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취한 모든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인 행동에 따라 마음이 바뀌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복이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음을 뱃속 깊이 느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릴 처벌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절실한 간청도 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살핀 후 조금씩 진노를 거두었다. 전에 얼마나 크게 노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참된 회개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더 이상 노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었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복이 있으면 너는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모호함도 없었고, 순수한 진노에서 순수한 관용에 이르렀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이 참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 단 한 번도 우유부단한 적이 없다. 그의 사역 원칙과 목적은 흠 없이 순결하고 투명하며, 여기에는 절대 그 어떤 계략과 음모도 섞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둠과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노한 것은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 안중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그들에게 다시 관용을 베풀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로 인해 바뀐 것이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다. 사람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하지만,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려 진노를 거둔다. 그러나 사람이 완고하게 하나님께 계속 대항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멸할 때까지 노를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조금씩 사람에게 가까워진다. 이 또한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성품이 진노든, 긍휼과 자비이든 모두 사람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다. 만약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노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 적이 없고 진심으로 신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신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한 적이 없을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늘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간단한 성경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본질의 참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과 마음을 되돌리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와 마음을 되돌릴 때 극명한 대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용, 두 측면의 본질에 차이와 대비가 크다고 느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참된 성품의 다른 면을 느낄 수 있었다. 인류는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진실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진실하게 발현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었다.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전설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했고, 마음을 되돌린 것도 진실했으며, 하나님이 확실히 또 한 번 인류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결말을 바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것과 진노하는 것에 모순이 있느냐? 당연히 없다!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언급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다’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다’이다.

‘악한 길’은 한두 가지의 악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일의 근원이 사악함을 의미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다’는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하는 방식, 근원, 출발점, 속셈, 원칙 모두를 바꾸어 더 이상 그런 방식과 원칙으로 향유하거나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다’의 ‘떠나다’는 내려놓고 버림으로 과거를 완전히 끊어 내고 다시는 지난 길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은 참된 회개를 했음을 증명하고 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을 모두 관찰한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살펴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마음을 되돌렸다. 즉, 사람의 행동과 태도, 다양한 모습과 마음에 진실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고, 뜻을 바꾸고, 내린 결정을 거두고, 그들을 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결말이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었다.

언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이 아닌 사람의 참된 회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든 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 위에 앉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점차 누그러져 뜻을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멸할 것이라 선포하기 바로 직전, 즉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점차 관용과 긍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이 하나의 일에서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 모순되지 않음을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느냐? 완전히 다른 두 본질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고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의 참된 회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긍휼과 관용을 베풀 것이다. 사람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는 자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대한 일에서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명확하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참된 회개를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생생하게 나타나는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음을 되돌렸을 때, 그가 베푸는 긍휼과 관용이 거짓이었겠느냐?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두 측면의 성품이 전환되어 나타난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은 분리되지 않고 완전하다. 그가 사람에게 진노하든, 긍휼과 관용을 베풀든 모두 그의 공의로운 성품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생생하게 나타나며, 그는 일이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가 로봇이나 돌부처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류에게 말해 준다. 그는 살아 숨 쉬는 하나님 자신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노할 수도
 있고, 그들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들의 과거를 용서할 수도 있으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들의 회개로 그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이다.
 사람은 규례에 끼워 맞추기를 좋아하고, 규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기를 좋아하며,
 공식(公式)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할 줄
 모르고 실질적인 견해도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물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며,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측면의 하나님 본질이 드러난다.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생명이 확실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그의 진노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관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물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다. 그에게는 수사자 같은 진노도 있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긍휼과 관용도 있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그 누군가 의심하거나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 바꾸거나
 고통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만사와 만물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만물의 구석구석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순간순간에 생생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시간이나 공간에 국한되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발현되고 나타난다. 하나님이
 마음을 되돌려 진노를 거두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긍휼이요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빈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고 크게 진노할 때, 하나님에게 인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크게 진노한다. 그의 진노에는 흠이 없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로 감동받고 사람의 회개로 마음을 돌이킨다. 그의 감동과 돌이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용과 긍휼은 어떤 흠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며 아무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관용은 곧 관용이고, 긍휼은 곧 긍휼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와 다양한 태도에 따라 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긍휼과 관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드러냈든 그것은 모두 순결하고 직접적이며 어떤 피조물의
 본질과도 다르다. 하나님이 나타내는 사역의 원칙, 마음과 생각 혹은 하나님이 내린 어떤
 결정이나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에서도 흠이나 오점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은 결정한

이상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이론다. 그 결과는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다. 그 근원에 흠도 오점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어떤 흠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 역시 피조물이 갖추지 못한 것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어떤 연구와 검증(원문: 推敲與體驗)도 통과할 수 있다.

너희는 니느웨 성 이야기를 알게 된 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다른 측면의 본질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인류 중에 이러한 성품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지닌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관용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피조물 중에 크게 진노하여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거나 인류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또 인류에게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 죄를 사해 줌으로써 인류를 멸하겠다는 결정을 바꿀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느냐? 창조주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원칙으로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어떤 사람과 일, 사물에도 좌지우지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의 고유한 성품으로 볼 때 그 어떤 사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고, 그를 설득하거나 그가 내린 결단을 바꾸지 못한다. 피조물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심판받는다. 그가 진노하든, 긍휼을 베풀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오로지 창조주의 본질, 즉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이다!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일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중 긍휼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 중 한 측면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이 두 가지 측면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 정의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거룩한 것으로, 사람의 거스름도, 누구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피조물과 비피조물 모두에게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며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다른 측면인 긍휼도 거룩하며,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비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소돔을 멸하거나 니느웨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공의로운 성품의 참된 발현이다.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진심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와의 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인류를 피해 숨거나 감춘 적도 없으며, 그의 마음과 생각, 말씀과 행사를 인류에게 다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고 이해할 수 있다. 인류는 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를 피하고 숨는다고, 사람이 그를 알아 가고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더욱이 창조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행했는지 등등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틈날 때만이라도 창조주의 말씀이나 행사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하고, 창조주의 생각과 마음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창조주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행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창조주가 항상 인류와 함께 있고, 만물, 그리고 인류와 대화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새로운 행사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본질과 성품은 인류와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의 행사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 그는 언제나 인류와 함께하며 인류를 관찰하고, 소리 없는 언어로 조용히 만물과 인류에게 알려 준다. ‘나는 하늘 위에 있다. 나는 만물 가운데 있다. 나는 수호하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로 네 곁에 있다.’ 그의 두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으며,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그의 음성은 감미로우며, 그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사람의 주변을 맴돈다. 그의 얼굴은 아름답고 온화하다. 그는 떠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으며, 줄곧 그림자처럼 인류와 함께하였다. 인류를 살뜰히 보살피는 정성과 인류에 대한 특별한 ‘감정’, 그리고 진실한 염려와 사랑은 그가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에서 창조주가 손수 만든 인류에 대한 연민의 정을 오롯이 드러냈다. 여기에서 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 말씀으로, 요나와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짧고 간결하지만, 인류를 아끼고 염려하는 창조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진실한 태도와 감정을 나타냈고, 또한 인류가 들어 보기 어려운, 명확한 언어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했다. 이 대화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 준다. 어떤 태도겠느냐? 회개하기 전후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

이 대화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끼다’라는 단어로 인류에 대한 그의 진실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끼다’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 첫째, 거기에는 보살피고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몹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너무 아껴서 차마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이 단어는 몹시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며 내치지 못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인류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대화에서 그의 마음의 소리와 인류에 대한 태도를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소돔 성 사람들처럼 패괴되고 사악하고 아주 폭력적이었지만,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되돌려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대하는 태도는 소돔 성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회개하였고, 여러 면에서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우러났고, 그들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해 주게 되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인류에게 보답을 해 주고 인류를 아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긍휼과 관용, 그리고 인류에 대한 진심을 지닐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위인이나 초인 중에 높은 위치, 즉 위인의 입장이나 지고한 위치에 서서 인류나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인류 중에 누가 인류의 생존 현황을 제 손금 보듯 환히 알 수 있겠느냐? 누가 인류의 생존에 부담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가 성을 멸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또 누가 성의 죄를 사할 자격이 있겠느냐? 누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아낀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인류를 사랑하며, 이 인류를 내치지 못하는 참된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오직 창조주만이 이 인류를 긍휼히 여기며 모든 피조물을 아낀다. 그의 마음은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끌린다. 그는 인류의 사악하고 패괴된 모습에 분노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인류가 회개하고 신복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을 되돌리고 축하한다.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인류를 위해 생기고 움직이며,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인류를 위해 발현된다. 또한 그의 희로애락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인류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인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생명을 전부 희생하며, 인류를 위해 생명의 매분 매초를 기여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낄 줄 몰랐지만 자신이 손수 창조한 인류는 늘 아껴 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인류에게 주었다.... 그가 조건도 보상도 없이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인류가 그의 눈 아래에서, 그의 생명의 공급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언젠가

인류가 다시 그의 앞에 돌아와 그가 바로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참된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와 나눈 이 대화는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참된 고백임이 틀림없다. 이는 창조주가 자신이 주재하는 만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과 같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안에 살아 있는 것(사람과 가축까지)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나 미성년자, 즉 좌우를 분변 못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다음으로 인류에 대한 창조주의 태도, 즉 창조주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무게를 사람에게 알려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과 같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모두 사실이다.

요나가 명을 받들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성안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염려와 기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질책함으로써 그에게 알려 주려는 것이 있었다. 즉, 인류는 하나님이 손수 만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였고,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이 기울인 심혈로 그 모든 사람을 바꾸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박 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손수 만든 인류를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더군다나 그 성안에는 수많은 아이와 무고한 가축이 있었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철없는 나이대인 창조된 인류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끝내거나, 그들의 결말을 그렇게 쉽게 정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장하여 다시는 조상들이 갔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으며, 니느웨 성의 과거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한 후의 니느웨와 니느웨의 미래를 보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서 사는 니느웨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창조된 인류가 곧 니느웨의 미래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언급하기 싫은 니느웨 성의 과거를 짚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는 니느웨 성의 과거와 미래를 증언하는 중차대한 일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된 고백에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는 창조주의 마음을 완전히 볼 수 있다. 이는 인류에게 ‘창조주의 긍휼’이 알맹이 없는 단어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체적인 원칙과 방식, 목표가 있다는 것과 그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는 모든 시기와 시대에 끊임없이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요나와의 대화는 창조주가 왜 인류를 긍휼히 여기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관용과 진심을 베풀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창조주가 언어로 표현한 유일한 내용인 것이다. 이 짧은 대화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고, 인류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의 선조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이 오늘날의 후손에게도 한 세대 또 한 세대 긍휼을 베풀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가 종종 인류의 어떤 구석, 어떤 시대에 임했더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멈춘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긍휼로 창조된 인류를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끌고 인도하며 그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에 대한 그의 참된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한 말씀처럼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손수 만든 만물을 아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공의로운 성품에 있는 긍휼이다. 이것 또한 틀림없는 창조주의 유일무이함이다!

다섯 부류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한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 체험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분류하겠다. 이를 통해 너희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단계와 분량을 알게 하려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놓고 볼 때, 사람이 처한 단계와 각 단계의 분량을 대략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주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아는 것에 기반하여 제시된 주제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음의 내용을 읽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너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첫 부류,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

무엇을 강보에 싸인 아기라고 하느냐? 강보에 싸인 아기는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가리키는데, 이는 사람이 가장 어릴 때를 가리킨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에 관해 인식이나 지각이 거의 없고, 모든 것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와 실제 분량으로 그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로 결정된다.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처한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시종일관 어리둥절하고, 흐리멍덩하며, 무지몽매하여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자신이 따르는 분이 하나님인지 분명히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실상이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혼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혼탁하고 텅 빈 상태에 있으며, 어리둥절하고, 흐리멍덩하며, 무지몽매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본 적도, 느껴 본 적도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마치 무자천서(無字天書)를 읽듯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설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혼탁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인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 젖 먹는 아기 단계

이 단계의 사람들은 강보에 싸인 아기 단계에 비해 조금의 발전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으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분명한 생각과 속셈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든 옳지 않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운택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며, 금생에 백배를 얻고 다음 생에 영생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며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만 확신한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과 사역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상관하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해 물어보려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으며 그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들은 진리의 실체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을 자주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예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쉽게 떠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로, 젓 먹는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 젓을 뱉는 아기 단계, 즉 유아 단계

이 단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뚜렷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참된 체험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고 은혜받는 것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체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을 찬양하며 간증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이고 진리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만 한다는 지나친 욕망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자 하며,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또 하나님과 협력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추구함에는 불순물이 지나치게 많다. 자신의 속셈과 욕망이 너무 크고 성품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정말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항상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 한 맹세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늘 최대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항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또 금방 자신의 맹세를 번복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깨우침, 인도, 공급,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또 스스로 활로를 찾는 모순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혀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 글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얕은 이해와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얕은 개념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진리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확정이 없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지 확신하지도 못한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의 진실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해서는 더욱 확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는 늘 의심과 오해, 상상과 관념이 섞여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마지못해 그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조금씩 체험하거나 실행한다. 이로써 그들은 믿음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자신이 확립한 인생의 길을 걷고, 인류의 정의로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허영심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인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도박을 걸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원대한 포부와 평생의 염원을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들은 욕망과 복을 얻으려는 속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내려놓기를 꺼리고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을 받으려는 욕망과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숙원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원동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마주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들의 상상을 대체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꿈이 깨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과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쌓은 ‘공덕’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물거품이 되고,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쌓은 ‘강산’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대가를 치렀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들이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에게 심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자 가장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류로, 젖을 떼는 아기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공의로운 성품을 참되게 믿지 못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세 단계의 사람들은 진리의 실제에 진입하기 무척 어렵고, 하나님의 공해를 얻기도 어려우며,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을 얻기도 쉽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심, 오해, 상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몹시 위험한 세 부류이자 몹시 위험한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신분, 또 하나님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진리, 길,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인도와 공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세 단계에 처한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 언제든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독하며 배신할 수 있고, 또한 참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 이 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부류, 유아의 성장 단계, 즉 유년 단계

사람은 젖을 떼 후, 다시 말해 충분히 은혜를 누린 후 하나님을 믿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려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긴 후, 사람들은 이 의문들을 가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며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의미도 정확히 깨닫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도 점차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된다. 이 시기의 사람은 성품의 변화이든 하나님을 알아 가는 측면에서든 모두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전환점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생명이 생기기 시작한다.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갖는 오해, 상상, 관념,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정의하는 것 등의 하나님을 알아 가는 부분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점차 해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진정으로 믿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지위를 확정하게 되며, 하나님을 진실로 따름으로써 막연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추구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질, 징계를 사모하며,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한 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과 상상을 점차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해 순수하고 올바른 기본 인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부분은 아직도 그리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관념,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점차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상상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포기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관념의 것, 지식적인 것, 사탄에게서 온 것을 버리기 시작하고, 옳고 긍정적인 것에 순종하려고 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과 진리에 맞는 것에 순종하길 원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행동 원칙으로 하고, 성품이 변화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체험과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있고, 사람을 인도하고 있고,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실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 자신의 관념과 지식, 자신의 상상을 부인하게 되고 또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구하게 된다. 이 성장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매우 얇고, 심지어 자신의 언어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감성적인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단계와 달리, 이 단계 사람들의 어린 생명은 양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땅에 심어진 씨앗 하나가 물과 양분의 공급을 받은 후 땅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이, 싹이 텃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사람들은 생명의 조짐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발을 내디디고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를 기초로 사람의 생명은 필연적으로 점차 성장한다. 이 성장은 무엇을 근거로 가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참된 체험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 성장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정말 어렵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성장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해의 깊이가 얕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함에 있어 이 단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관점이 있다.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이 바뀌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와 폭로를 통해 만약 사람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해도 성품이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면 사람은 영원히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아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명이 성장하는 단계로 발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네가 영원히 아기 단계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과 인식이 없다면, 네가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실제에 진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이 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 패괴 성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염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네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유아의 성장 단계, 즉 유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부류, 생명의 성장 단계인 성년 단계

비틀거리며 부딪치고 넘어지는 유년 단계를 겪고 반복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 사람의 생명은 안정화된다. 더 이상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이상 모색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기반이 단단해졌고, 마음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에 이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자 간절히 바란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신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한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체험을 통해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없다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족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시련이 임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고, 더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길 바라며, 동시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단계의 사람은 이미 아기 단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떡으로 배를 불리는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들은 더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을 지나치게 바라지 않고, 오히려 패괴 성품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끊임없이 임하길 바라고 또 받아들일 자신감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나 추구 혹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두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한 신앙 단계, 은혜로 구원 얻는 단계, 생명이 어려서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서 벗어났고, 모호한 단계, 모색하는 단계, 늘 행할 방법이 없는 단계를 떠났으며, 변덕스러운 불안정기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단계와 결별하였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깨우침과 빛 비춤이 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귄과 소통이 있다. 이 단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일할 때 진리의 원칙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점차 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점차 깨닫고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는 사람의 그 어떤 관념이나 상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의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완전한 사람이라 칭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단계로 이미 들어섰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체험하였고, 무수한 시련을 겪었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형벌도 셀 수 없이 겪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잠재의식에서 정확하고 뚜렷한 인식으로, 얕은 인식에서 깊은 인식으로, 모호한 인식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힘들게 모색하고 수동적으로 구하던 데서 쉽게 깨닫고 자발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실재를 갖추었고, 베드로처럼 온전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생명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단계, 성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3년 12월 14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3

하나님의 권병(2)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란 주제에 대해 교제해 보도록 하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한 바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너희는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접한 후 하나님의 신분, 지위, 본질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지는 않았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확신하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거시적 · 미시적 차원에서 알아보는 하나님의 권병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고유의 발현이자,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정 본질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 고유의 발현과 특정 본질은 피조물과 비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며, 오직 창조주만이 이런 권병을 가지고 있다. 즉, 창조주,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이러한 발현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병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자신의 권병은 사람이 생각하는 권병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데는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병’이란 주제에 대해 항상 막연하게 느낄 것이다.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들도 다소 공허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하나님 권병의 본질과 늘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실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사물, 일이나 여러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조금씩 깨닫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권병’이란 말이 사람에게 심오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인류와 매 순간을 함께하며 매일매일 인류를 이끌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실생활에서 하나님 권병의 가장 실제적인 면을 보거나 느낄 수 있다. 이 가장 실제적인 면은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함을 족히 증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권병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고 깨닫게 해 준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고 또 만유를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면서 동시에 만유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실에 비추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 행성, 피조물, 인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부터 볼 수 없는 것까지, 우주의 각종 행성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물까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생명체 모두를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린다’에서 ‘만유’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이자 하나님의 권병이 미치는 범위이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범위이다.

우주의 천체는 인류보다 먼저 생겨났다. 우주의 천체가 언제부터 존재했든 간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어떤 행성이 언제 어떤 위치로 이동하는지, 어떤 행성이 언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어떤 행성이 어떤 궤도에서 운행하는지, 언제 소멸하고 또는 교체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이 행성들의 위치와 행성 간의 거리에는 엄격한 법칙과 정확한 수치가 있다. 운행 궤도, 운행 속도, 운행 법칙, 언제 어떤 위치까지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법칙과 정확한 수치가 있다. 행성들은 천만년 동안 그러한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왔다. 그 어떤 힘도 그 운행 궤도와 법칙을 변경하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정확한 수치와 특정한 운행 법칙들은 모두 창조주의 권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행성은 자발적으로 창조주의 주재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에 따라 규칙적으로 운행한다. 인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부 법칙과 수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일부 신기한 법칙이나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인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조주의 권병의 존재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알 수 없는 엄청난 암흑에너지가 만물의 생존과 운행의 법칙을 주재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존재하기에, 인류는 만물의 운행 법칙에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항상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린다. 그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인류는 사람이 만물의 생존 법칙을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칙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으며,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어느 주재자가 다스리는 법칙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모두 인류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병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산과 하천, 호수, 바다, 육지와 사람이 겪는 사계절, 각종 동식물, 미생물, 인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지구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로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성 또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주관과 주재로 생존의 법칙이 만들어져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번성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란 게 그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의 권병으로 인한 것이다”란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친히 한 행사로 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즉, 만물의 법칙은 하나님의 권병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에 따라 생겨난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 모든 움직임과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생성 또는 소멸한다. 일례로 전염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아무도 그것의 발원지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 또한, 전염병이 이르는 곳마다 불운을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인류가 가진 과학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전염병’은 악성 혹은 유해 미생물이 만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전염 속도와 범위, 전염 방식은 인류의 과학 지식으로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인류가 각종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는 있으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병에 걸리고야 마는 사람이나 동물을, 인류는 통제할 수 없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예방과 억제, 연구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매년 전염병 자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염병이 발생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류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백신 개발이다. 그런데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기도 전에 전염병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세균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절이 바뀌면서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인류는 이러한 황당한 가설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몰이해와 공포와도 마주해야 한다. 그 누구도 전염병의 근원과 그것이 소멸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는 인류가 과학만을 신뢰하고 의존한 탓에 창조주의 권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는 영원히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하에서 하나님의 권병으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소멸하며,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생성되고 소멸한다. 어떤 것들은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진다. 인류는 그 기원을 보지 못하며, 그 법칙 또한 파악할 수 없고, 생성되었다 소멸한 이유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사람은 만물에 발생한 모든 현상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은 인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인류는 온갖 현상의 특이함과 법칙,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까지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만물에 발생한 현상 이면에 창조주의 어떤 뜻과 생각이 담겨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한 현상 이면에는 많은 이야기와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인류는 창조주를 멀리하고 그의 권병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류는 창조주 권병의 주재하에서 발생한 모든 현상을 영원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재는 사람의 상상과 지식,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능가하고, 사람의 과학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창조된 인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믿을 수 있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다고 해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나는 “믿음은 사람이 사물의 근원과 진상에 대해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느끼느냐에 따라 생기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눈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권병을 가지고 있고 그의 권병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영원히 창조주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운명,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주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미 모두 성인이 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중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믿기까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사역을 체험하기까지 그의 주재에 대해 얼마나 깨달았느냐?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소원대로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뜻대로 풀린 일이 얼마나 되느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기쁨을 가져다준 일이 얼마나 되느냐?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다시 말해 저도 모르게 적절한 시기와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손을 놓고 있느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기대를 가득 품고 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면서 출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난하고 미천한 삶, 우여곡절로 점철된 삶, 불행이 끊이지 않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람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자들은 과거에 경험한 모든 일에 흐리멍덩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안

적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이, 동물처럼 무지몽매한 상태로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운명에 대해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도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없는 송장과 같으며 짐승과 진배없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살며 이 세계가 선사하는 온갖 필요한 물질들을 누리고, 이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하는 것, 즉, 사람의 마음과 영이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상관없고 그 어떤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으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은 운명 또는 인생에 대한 이해 혹은 느낌으로 이어진다. 또한, 은연중에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고 지배하는 주재자가 있음을 수시로 느끼게 한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운명의 지배와 안배, 창조주가 예비해 놓은 앞날,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운명에 대해 무엇을 깨닫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아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이 매일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이나 일을 맞닥뜨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은 이 모든 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통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맞닥뜨리는 상황은 살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삶 속의 사소한 일’들의 발생과 발전 양상 혹은 법칙은 인류에게 어떤 일이든 우연이란 없으며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과 필연성은 사람의 뜻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모든 사건의 발생은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인류를 향한 창조주의 경고를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손안에 운명을 쥐고자 하는 인류의 헛된 야심과 욕망에 주먹을 날리고 있다. 여러 차례 거칠게 뺨을 때려 대는 것처럼 인류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체 누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하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인류는 또한 야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깨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예비된 운명에 순응하고, 현실과 하늘의 뜻,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 속의 사소한 일’부터 일생의 운명까지,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를 나타내지 않는 일이란 없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같이 ‘창조주의 권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와 ‘창조주의 권병은 지고지상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주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의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인류의 운명과 만물의 운명은 창조주의 권병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인류는 만물의 법칙 가운데 창조주의 지배와 주재를 경험하고, 만물의 생존 법칙을 통해 창조주의 다스림을 목격하게 된다. 만물의 숙명을 보며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고 주관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며, 인류와 만물의 생사윤회를 통해 창조주가 모든 만물 생령을 지배하고 안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가 세상의 모든 법률, 규정, 제도뿐 아니라 그 어떤 힘과 세력도 넘어서는 사실에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인류는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의 주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어떤 세력도 창조주의 예정을 따르는 만사 만물에 해를 끼치거나 이를 바꿀 수 없다. 인류와 만물은 바로 이런 천상의 법칙과 규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번성해 왔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권병이 진실로 구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인류는 객관적인 법칙을 통해 창조주의 주재, 만사 만물에 대한 그의 예정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하는 원칙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창조주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가 사람 일생의 운명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의 운명이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진정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대면한 인류가 창조주의 주재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지는, 지금 이 사실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여섯 관문

모든 사람은 살면서 몇 개의 중요한 관문을 거친다. 이 중요한 관문들은 한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단계들이다. 다음은 사람이 일생 동안 반드시 거치는 관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첫 번째 관문, 출생

어느 곳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성별과 외모를 가지고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이 첫 번째 관문과 관련한 부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창조주가 일찌감치 운명으로 정해 놓은 것들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외부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창조주가 예정한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한 사람의 탄생은 창조주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세부 사항들은

모두 창조주가 운명으로 정해 놓은 것이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앞으로의 운명과 상관없이, 사람의 출생 배경은 이미 정해져 있다. 출생 배경은 일생의 운명에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생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주재함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 새 생명의 탄생은 창조주의 안배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관문의 출생지, 집안, 성별, 외모, 출생 시간 중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곳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 한 가정의 일원이자 한 가족의 후손이 된다. 삶의 첫 번째 관문에서 사람은 선택권 없이, 창조주의 안배에 따라 특정한 환경에서 태어난다. 태어날 가정, 성별, 외모뿐 아니라 사람의 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 시간 역시 정해져 있다. 이 중요한 관문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생과 관련해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올 때 창조주의 예정과 인도가 없다면 가족, 귀속, 진정한 집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창조주가 세심히 안배해 머무를 곳을 주었기에 그에게 부모와 귀속,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 생명의 인생 여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새 생명의 탄생은 창조주의 안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장차 이 생명이 가지게 될 모든 것 역시 창조주가 부여하는 것이다. 이 새 생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표류체에서 조금씩 피와 살이 있고 모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 간다. 그 생명은 사고를 하고 숨을 쉴 수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고 물질세계의 여느 피조물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될 세상만사를 경험하게 된다. 창조주가 한 사람의 출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차 또 다른 형태로 창조주의 공급과 그의 주재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람의 출생 배경이 각양각색인 이유

다시 태어나면 명문가에서 태어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다. 여성의 경우, 공주 같은 외모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다. 남성의 경우, 먹고 살 걱정 없이 평평거리며 사는 왕자 같은 삶을 꿈꾼다. 이렇게 원하는 출생 배경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시에 태어난 가정부터 외모, 성별, 심지어 출생 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에 큰 불만을 느낀다. 하지만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 외모를

타고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태어나든, 어떤 외모로 태어나든, 사람이 창조주의 경영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정해진 여러 가지 사명을 완수한다는 이 근본 취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창조주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별로 태어나고, 어떤 외모를 가지는지는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창조주가 모든 시기의 전체 인류를 경영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작은 기호나 상징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종착지와 결말은 한 시기의 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 차례 사명과 창조주의 경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창조주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출생은 전생과 금생, 모두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번 윤회의 끝이라면 한 사람의 출생은 당연히 새로운 윤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윤회가 전생이라면 새로운 윤회는 당연히 금생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출생이 전생과 금생, 모두와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 집안, 성별, 외모 등 모든 요인 역시 전생과 금생, 모두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요인이 전생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금생의 운명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출생 배경이 각양각색인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남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사막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푸르른 초원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환호, 웃음, 축하를 동반하는 출생이 있는가 하면 슬픔, 불운, 걱정을 유발하는 출생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복덩이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반듯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목구비가 조화롭지 않은 사람도 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다. 한밤중인 자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양이 중천에 떠오른 오시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제각각인 출생 배경은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금생의 운명, 금생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사명도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주재와 예정하에 이루어지며, 아무도 그가 정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출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두 번째 관문, 성장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가정 교육을 받는지가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결정하고, 이 역시 사람이 일생에서 두 번째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관문 역시 사람이 선택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지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1.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정한 성장 배경을 안배하였다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일, 사물의 감화와 영향을 받는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갖추는지, 어떤 습성을 익히는지, 이 모든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모, 가족,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도 선택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과 일, 사물과의 관계나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선택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안배하는 것일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면, 이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의 형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확실하다. 창조주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 출생 배경을 안배한 것처럼 특정한 성장 배경도 안배한 것이다. 한 사람의 출생이 주변 사람과 일, 사물의 변화를 초래한다면, 그 사람의 성장 역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집안의 몰락을 가져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사람도 어느 한 특정 규칙에 따라 태어나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의 성장 배경에도 규칙과 필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상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운명에서 비롯되고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에는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 그가 주재하고 안배한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 사람의 여러 가지 역할은 다양한 성장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출생 배경은 그의 기본적인 성장 환경과 배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의 성장 배경 역시 출생 배경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이 시기에 언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받아들인다.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뇌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생각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접하는 사람과 일과 사물, 사람이 배우는 다양한 상식, 지식, 능력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받고 주입당하는 다양한 생각이 삶의 운명을 이끌고 영향을 준다. 성장 과정에서 배우는 언어와 가지게 되는 생각은 모두 성장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성장 환경은 부모, 형제,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이 성장기에 생활하는 환경과 이 시기에 접하는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의 성장 배경이 정해져 있는 이상 성장기에 생활하게 되는 환경 역시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성장 환경은 사람의 선택이나 기호가 아닌 창조주의 계획,

그의 세심한 안배, 사람의 운명에 대한 그의 주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접하는 사물은 모두 창조주의 계획, 안배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망을 예상할 수도, 통제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성장 배경은 다른 사람, 다른 일과 사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일과 사물과 관련되어 있다. 아무도 이렇게 거대한 관계망을 계획하거나 안배할 수 없다. 각 부류의 사람과 일과 사물의 출현, 지속, 소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창조주만이 가능할 뿐이다. 사람과 일, 사물을 연결하는 각각의 방대한 관계망은 창조주의 예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성장을 일구어 내고, 또한 성장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또한, 창조주의 경영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키워 내고, 사람이 저마다의 사명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구축한다!

세 번째 관문, 독립

모든 사람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숙해진다. 다음으로 할 일은 성장 단계에 철저히 작별을 고하고 부모와 이별하는 것이다. 성인으로서 홀로 앞에 놓인 길을 대면하고, 성인으로서 직면해야 할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마주하며, 장차 자신의 운명에 나타날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면서 거쳐야 할 세 번째 관문이다.

1. 사람은 독립 이후 어렴풋이 창조주의 주재를 체험한다

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이 전체 인생 여정을 위한 준비 기간이자 운명의 기반이라면, 독립은 운명의 서막이 열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출생과 성장이 운명을 위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라면, 독립은 그 재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두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부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것이다. 인생 여정에서 첫발을 순조롭게 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술을 가졌어도 자신의 사업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이나 자신이 속할 곳 하나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순탄치 않아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경우다. 성공과는 연이 없는 운명인 것처럼, 힘들게 공부했지만 대학교와는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첫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 경우, 앞으로의 운명은 순탄할지 험난할지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인생에 대해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게 된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책을 써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무식인데도 창업을 해 돈을 벌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사람은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의 바람과 결정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한다. 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지내며 번듯하게 차려입고 평평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남보다 성공해서 가문을 빛내고 싶어 한다. 사람의 소망은 이렇게 ‘완벽’하지만, 그가 인생의 여정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운명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차츰 깨닫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는 있어도 실제 자신에게 꿈을 실현할 능력과 힘이 없을뿐더러 미래를 결정할 능력도 없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다. 사람이 직면한 현실은 언제나 꿈과는 괴리가 있고 늘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운명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숙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능력, 지능,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 앞에서 사람은 나이, 우열, 귀천을 구분할 수 없는 동등한 존재이다. 사람이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질지는 부모에 의해 좌우되거나 재능, 노력, 욕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 달려 있다.

2. 사람은 부모의 품을 떠난 후 인생이란 큰 무대에 올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람은 이 시점에 자신의 역할을 진정으로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확실했던 현생에서의 사명도 이 시점에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다. 형식적으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만, 현생에서 수행할 역할과 사명은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 후엔 부모와의 친밀했던 관계가 차츰 벌어지게 된다.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람이 일단 성장기를 벗어나면 그의 모든 것이 부모와 상관이 없어지고,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독립적으로 해내야 한다. 부모는 한 사람의 삶에서 출산과 부양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식적으로 제공할 뿐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정하심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미래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부모조차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식이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 데 힘을 보태 줄 수도

없다. 즉,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지, 이는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것이 운명을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운명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지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한 사람이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가족들 역시 그가 현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게 될지, 어떤 생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순전히 현생의 운명에 달려 있다. 즉, 창조주의 뜻으로 정해진 모든 사람의 사명은 그 어떤 객관적인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특정 성장 환경에서 성숙해지고, 인생 여정을 한 걸음씩 밟아 가며,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을 조금씩 실현하게 된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인생에서의 역할을 짊어지고, 창조주의 예정과 주재에 따라 피조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 관문, 결혼

사람이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부모와 점점 소원해진다. 출생과 성장 배경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 대신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만의 인생 방향과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닌, 일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를 — 자신의 운명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배우자를 —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독립 후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첫 번째 대사(大事)가 바로 결혼, 즉 사람이 거쳐야 할 네 번째 관문이다.

1. 결혼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인류지대사로, 여러 책임을 짊어지고 각종 사명을 점차 완수해 가게 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 결혼 전에는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여성은 백마 탄 왕자를, 남성은 백설공주를 배우자로 원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각자 결혼에 대해 나름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악한 시대에선 결혼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그릇된 정보들이 넘쳐 난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결혼에 더 많은 조건을 붙이고, 결혼에 대해 여러 부담을 느끼며 왜곡된 시선으로 결혼을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든, 결혼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결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누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결혼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과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누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구애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지, 너의 반려자가 될 수 있을지는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와 삶을 함께할 배우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삶 속으로 들어와 운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네 운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그 모습은 천태만상인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불만스러운 결혼도 있다. 동과 서를 넘나드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을 아우르는 결혼도 있다. 천생연분인 부부가 있고 비슷한 집안의 상대와 결혼한 부부도 있다. 행복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결혼도 있다. 동경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결혼도 있다. 기쁨으로 가득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눈물이 끊이지 않는 절망적인 결혼도 있다.... 결혼 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제각각이다. 결혼에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생활을 아끼고 소중히 지키는 사람도 있다. 반면, 결혼 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 자체가 가져다주는 것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창조주의 예정으로 각자가 결혼에서 맡게 되는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결혼 생활 이면에 있는 각자의 운명은 창조주가 정해 놓은 것이기에 바뀌지 않는다.

2. 결혼은 두 사람의 운명에서 비롯된다

결혼은 삶의 중요한 관문이다. 결혼은 운명에서 비롯되고, 운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혼은 사람의 의지와 취향에 기반하지 않고, 그 어떤 외부 조건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오롯이 두 사람의 운명, 결혼할 두 사람을 위해 창조주가 예정하고 안배한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결혼은 후손을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의식에 불과하다. 사람이 결혼을 통해 수행하는 역할은 자녀 양육만 있는 게 아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맡게 되는 여러 역할과 완수하게 되는 사명도 포함된다. 한 사람의 출생이 주변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치듯이 결혼 역시 주변 사람과 일, 사물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람은 독립 후 인생의 여정에 오른다. 이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결혼과 관계된 사람과 일, 사물로 이어진다. 그와 동시에 결혼 상대방도 그런 사람과 일, 사물을 향해 다가간다. 창조주의 주재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이 같은 운명에 의해 결혼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기적적으로 한 가족이 된다.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결혼 후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배우자와 연관되며, 그 배우자의 인생 여정 역시 자기 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그 운명과 연관된다. 즉, 사람과 사람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삶의 사명이나 역할을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출생은 거대한 관계망과 닿아 있고, 한 사람의 성장도 복잡한 관계망과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 역시 거대하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고 유지된다. 결혼은 이 관계망 속 모든 사람과 관련을 가지며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은 태어난 가정, 성장 배경, 외모, 나이, 자질과 재능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의 공동 사명과 관련된 운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지배하고 안배한 사람의 운명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유래이다.

다섯 번째 관문, 자녀

사람은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어떤 자녀를 몇 명이나 돌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사람의 운명과 창조주의 정하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쳐야 할 다섯 번째 관문이다.

한 사람의 출생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이 바뀌면서 인생의 각 시기를 겪으며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창조주의 변함없는 주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1. 자녀의 일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출생이나 성장, 결혼에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다. 자신의 가정이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성장 환경에 큰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혼만큼 불만스러운 것도 없다. 출생과 성장, 결혼에 있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든, 경험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출생 시점과 장소, 외모, 부모,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가 대신 이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만회해 주길 바란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딸은 예쁘고 아들은 잘생기기를 바란다. 딸은 예술적인 재능을 두루 갖추고, 아들은 공부와 운동에 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길 바란다. 딸은 온화하고 현명하며 교양과 지성을 겸비하기를 바라고, 아들은 똑똑하고 유능하며 이해심이 많기를 바란다. 딸과 아들 모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살뜰히 챙기는, 모두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시기 사람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새로운 욕망에 불이

불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변변찮은 탓에 이번 생에서는 더 이상 성공의 기회와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에게 떠넘기고 대신 이뤄 주기를 바란다. 자녀가 가문을 빛내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고, 큰 부자나 유명인이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출세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여긴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부모가 자녀의 수, 그리고 그 자녀의 외모나 능력 등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녀의 운명은 더욱이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느냐? 자신의 운명도 어찌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려 들고, 자신의 운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분수를 모르는 짓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사람은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만 어떤 자녀를 몇 명이나 두게 될지는 계획이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무일푼임에도 많은 자녀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부자임에도 슬하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딸을, 어떤 이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녀 덕분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입는 사람도 있다. 부모는 똑똑한데 자녀는 멍청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지런한 부모와는 달리 자녀가 게으른 경우도 있다. 정직하고 선한 부모가 간사하고 악한 자녀를 두는가 하면 건강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는 경우도 있다. 평범한 부모가 비범한 아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자녀가 대성하는 경우도 있다….

2. 다음 세대를 키운 후 사람은 운명을 새로이 이해하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하지만,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 타고난 운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 역시 이전 세대의 삶과 모든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보며, 그들은 자신의 삶이 꼭 그랬듯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길 또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러한 사실과 마주하면 사람의 운명이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소망을 내려놓게 된다. 욕망의 불길도 조금씩 꺼져 간다…. 이 시기는 삶의 중요한 몇 가지 단계를 지나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그 나이의 사람이 미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쉰 살이 되고도 백마 탄 왕자를 꿈꾸는 여성, 백설공주를 찾길 바라는 남성이 있을까? 쉰 살이 되고도 눈부신 외모로 탈바꿈하길 꿈꾸는 여성이 있을까? 젊은이들만큼 일에 의욕이 넘치는 중년 남성들이 얼마나 될까? 한마디로 말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과 가정, 아이들에 대해 비교적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운명에 도전하려는 욕구도 없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운명이 따로 있지.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거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의 갖은 우여곡절과 좌절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다 운명이야!”라는 한 마디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총결한다. 이 표현은 운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결론과 깨달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람의 무력함을 보여 주는데,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창조주의 주재를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고, 이를 깨달았다고 해서 창조주의 권병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3. 운명을 믿는다고 해서 창조주의 주재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긴 세월 하나님을 따른 너희가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희는 창조주의 예정과 창조주의 주재를 진실로 알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다 운명이야.”라는 말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주재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는다. 바다 위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다 운명이라 생각하며 단념할 뿐이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재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병을 알아 가는 삶,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삶, 더 이상 운명에 맞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하게 된 것은 아니다. 운명을 믿는다고 창조주의 주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게 된 것은 아니다. 그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이 사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주재하는지 알거나, 그가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인류의 운명에 대한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것과는 더더욱 차이가 있다. 누군가 운명을 믿고 이를 마음 깊이 느꼈음에도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이번 생은 한 편의 비극일 것이다. 여전히 헛되고 공허할 것이며, 여전히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지 못해 창조주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된 인류가 되지 못한다. 진실로 창조주의 주재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무력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삶과 운명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사람의 일생은 창조주의 주재 아래에 있다는 정의 말이다.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각 단계들을 떠올려 볼 때, 매 순간이 힘들었든 수월했든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안배하고 인도해 왔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정성스러운 안배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 창조주의 주재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생에서 얻은 얼마나 큰 복인가! 누군가 운명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에 반항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재를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에 더욱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어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더욱 단호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할 것이다. 운명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주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안개 속을 헤쳐 가며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단하고 쓰라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총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깨닫고 받아들이는 길을 택한다. ‘자신의 두 손으로 좋은 삶을 일구기 위해 애썼던’ 고통스러운 날들, 운명에 맞서 싸우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위 삶의 목표란 것을 추구하던 나날에 안녕을 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던 나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나날, 하나님의 주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나날, 그런 나날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든 사람의 생존 방식과 추구 목표는 끝없는 슬픔과 벗어날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기에, 그런 날들은 돌이켜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오로지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참된 삶을 추구할 때, 사람은 차츰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풀려나고 삶의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다.

4.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재를 알지 못하는 탓에 늘 반항심을 가지고 패역한 태도로 운명과 마주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 그리고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바람일 뿐, 곳곳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다. 영혼 깊은 곳에서의 이런 몸부림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사람의 생명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재 탓일까,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 나쁜 탓일까? 둘 다 틀렸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이 너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보호해 주는지 알게 될 때,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유롭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의 실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의 주재를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며, 어떻게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를 구하고 받아들이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의 권세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운명은 스스로 정하는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기 쉽지 않고, 운명과 창조주의 권병에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물론 참된 자유를 얻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도 아주 어렵다. 이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 목표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목표, 소망과 꿈을 정리해 보고 분석한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요구에 대조해 본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것이 있는지,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진리를 점점 더 깨닫는 삶을 살고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목표와 생존 방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할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창조주의 주재와 보살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뿐, 하나같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인생관을 버리고 여러 함정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주관과 안배에 네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에 순종하기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쉬워 보이지만 실은 어려운 일이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기꺼이 응하고 어떤 이는 꺼린다. 이를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응하려는 생각과 의지가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고 안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하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 사람에게 슬픔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명예와 이익을 좇기 때문도, 안개 속에서

운명에 맞서며 힘겹게 나아가기 때문도 아니다.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렁 속에서 나오는 대신, 차라리 잘못을 깨닫지 않고 독하고 완강하게, 수렁 가운데서 계속 발버둥 치길 원하며 고집스럽게 창조주의 주재에 반항하고 조금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서야 포기하고 방향을 돌린다.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슬픔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을 선택한 자는 현명하고, 벗어나려는 자는 우매하고 완고하다고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관문, 죽음

정신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며 수많은 우여곡절, 기쁨과 슬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경험하고, 잊을 수 없는 세월들과 무수히 많은 계절을 보내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삶의 중요한 관문들을 지나온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인생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세월은 온몸에 낙인과 같은 흔적을 남겨 놓았다. 허리는 굽고, 검던 머리는 하얗게 세었으며, 초롱초롱 빛나던 눈은 흐릿해졌고, 부드럽고 탄력 있던 피부는 주름과 반점들로 가득하다. 청력이 떨어지고, 치아는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하며, 반응 속도와 움직임이 느려진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열정적이었던 젊은 시절과 작별하고 인생의 황혼기, 즉, 노년기에 들어선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한 가지, 삶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이다.

1. 오직 창조주만이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다

사람의 출생이 전생의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죽음은 그 인연의 끝인 것이다. 사람의 출생이 현생에서 이행해야 할 사명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그 사명의 끝이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출생 배경을 정해 놓은 창조주는 죽음에도 당연히 각자의 배경을 계획해 놓았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고, 죽음 역시 돌연한 것이 아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그 사람의 전생 및 금생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생과 죽음의 배경 모두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의 타고난 숙명이자 운명이다. 모두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듯, 죽음에도 각자 고유한 배경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 죽음의 방식과 시점이 모두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건강하지만 일찍 죽는다. 어떤 이는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지만 장수하며 편안히 눈을 감는다. 비명횡사하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다. 타지에서 마지막을 맞는 이도 있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 이도 있다. 하늘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지하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 누구는 익사하고 누구는 재난을 만나 죽는다. 누구는 아침에, 누구는 밤에 죽는다.... 누구나 빛나고 당당하게 태어나 멋진 삶을 살다 명예롭게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숙명을 뛰어넘고, 창조주의 주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이든 세울 수 있어도 어떻게 태어날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계획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는 것을 피하고 막으려 애쓰지만 죽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다가온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더 나아가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인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존재는 인류 자신도, 자연계의 그 어떤 생명체도 아닌 유일무이한 권병을 지닌 창조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삶과 죽음은 자연계 내 모종의 법칙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병과 주재로 인한 결과이다.

2. 창조주의 주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가 맞이하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거나 인생의 원대한 꿈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삶과 작별할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어떻게 삶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음에 대한 탐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의 저편에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또 다른 미지의 세상이 존재하는지 사람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직시하길 두려워하고,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길 겁내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외면한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실엔 신비의 베일이 드리워지며, 모든 이의 마음에는 건히지 않는 그늘이 생긴다.

자신의 몸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며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감지할 때, 사람은 어렴풋한 공포와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한층 더 외로움과 막막함이 느껴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삶이란 이렇게 빨리 끝나 버리는 것일까?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한 것인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인가?’ 사람이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든 그렇지 않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든,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비밀을 탐구해 보고 싶다는 욕망과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섞여 있다. 과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마치 걱정거리가 있으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지울 수 있기라도 한 듯, 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 가면 죽음이 가져오는 막막함과 외로움을 피할 수 있기라도

한 듯,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재산을 걱정한다. 사람은 마음속 깊이 어렴풋한 공포를 느낀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 파란 하늘과 이 물질세계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외로운 영혼은 낯선 미지의 세계로 홀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3. 명성과 부를 좇던 삶은 죽음 앞에서 방황한다

본디 가진 것 하나 없던 외로운 영혼이 창조주의 주재와 예정으로 부모와 가족을 얻고 인류의 일원이 되고, 삶을 경험하고 세상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하고, 창조주의 만물 창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며, 창조주의 권병을 알고 그 권병 아래에 복종할 기회 역시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드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 사람은 평생의 에너지를 운명과 맞서 싸우는 데에 쓰고,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을 가족을 부양하고 명성과 재물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데 다 써 버린다. 사람들은 가족, 돈, 명예, 이익 등을 소중히 아끼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운명이 기구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처럼 사람이 꼭 알아야 하고 탐구해야 할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룬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이 얼마나 되든 명성과 부만 좇다가 젊음을 보낸다. 머리가 세고 얼굴에 주름이 질 때까지, 명성이나 재물이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돈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법칙과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삶의 마지막 관문을 마주한 뒤에야 백만장자도, 귀한 신분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의 원래 자리, 즉 가진 것 없는 외로운 영혼으로 되돌아가야 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재산이 있을 때는 돈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밑천이라 생각한다. 지위가 있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여 목숨이라도 걸려고 한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좇은 것들이 찰나에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여 소유할 수도, 가져갈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하게 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외로운 영혼이 돌아가는 길의 동반자나 위로가 되어 주거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쌓은 명성과 재물은 일시적인 만족감, 잠깐의 기쁨과 위로를 주고 마음이 편안한 듯한 착각을 주어 방향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안식과 위안과 마음의 평온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아득한 인생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다 겹겹이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사람들은 명성과 재물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 그것들의 조종을 받는다.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고 세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려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 버린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조금씩 멀어지고, 가졌던 모든 것을 쥐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 그제서야 사람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고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온 건지 생각하게 된다. 또한 바로 이때에 내세가 있는지, 하느님(원문: 上天)이나 보응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등의 사실들을 점점 더 알고 싶어 한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며, 의지할 곳 하나 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날로 커져만 간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삶의 기반이 되었던 명성이나 재물을 곧 잃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낯선 미지의 세상, 두렵고 알 수 없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할 데도 없는 세상과 곧 혼자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처음 느끼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람은 깨닫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내용들은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며, 누가 인류를 생존하도록 공급하고 인류의 생존을 주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란 걸 말이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삶의 자산이며, 생존의 근본이다.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지, 어떻게 명성과 부를 좇을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더 부자가 될지, 어떻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경쟁해서 남들을 이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들여 익힌 다양한 생존의 기술들은 충분한 물질적 안락함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꾸만 방향과 통제력을 잃게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게 만들며,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근심을 가져다준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진다.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모두에게 일생 동안 그의 주재를 체험하고 알도록 기회를 준다. 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마주했을 때, 곧 죽게 되었을 때에야 이를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람들은 돈과 명리가 자신을 구해 주는 생명 줄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양 평생을 이것들을 좇는 데 쓴다. 이것들만 있으면 죽음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돈과 명리란 게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를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돈이나 명리와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고, 돈이나 명리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수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수록 살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층 증폭된다. 그제서야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은 자신의 것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생과 사는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여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다

한 사람의 출생은 외로운 영혼이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경험하는 출발점이자 창조주의 안배에 따라 창조주의 권병을 경험하는 시발점이 된다. 이는 당연히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이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을 인지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람은 평생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 수십 년 인생을 살며 창조주의 주재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인지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임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느끼거나, 그 의미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러한 삶의 경험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마음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거나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할 때, 즉 영혼이 다시 창조주와 마주하게 될 때 그 영혼은 더없는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될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지 못하고 운명이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 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며, 삶의 이유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또한 창조주의 주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의 권병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창조주가 사람을 만든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또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해야 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머지않은 미래에 창조주께 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안다. 이런 사람은, 삶은 창조주가

마련한 것이고, 죽음은 창조주의 주재에 달려 있으며, 삶과 죽음 모두 창조주의 권병 아래 예정돼 있음을 안다. 따라서 사람이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자연스레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담담히 내려놓게 된다. 또한, 무턱대고 저항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곧 닥칠 모든 것을 흔쾌히 수용하고 순종하며, 창조주가 마련한 삶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하고 창조주의 권병을 알아 가는 기회로 삼고, 또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분명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창조주의 축복과 인도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의 빛 속에서 행하고,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으며, 창조주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또 창조주의 경이로운 행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창조주의 권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창조주에게 열납될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 관문을 흔쾌히 맞이할 수 있다. 욥은 분명 죽음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졌고 흔쾌히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순조롭게 인생의 여정을 마쳤고, 삶의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갔다.

5. 욥은 평생 동안 추구하고 얻은 것이 있었기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성경은 욥에 대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욥 42:17)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죽을 때가 된 욥은 어떠한 미련이나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알다시피, 욥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 후세에 길이 남겨졌다. 그는 인류 중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땅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불렸다. 그는 하나님이 내린 시련을 받기도 했고 사탄의 시험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의인’이란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섰다. 하나님의 시련을 받은 후 수십 년 동안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며, 한층 더 평온하고 담담한 태도로 살았다. 그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준 시련을 받았고, 또한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욥은 시련을 받은 후 수십 년 동안 삶의 가치에 대해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창조주의 주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창조주가 복을 베풀어 주는 것과 거두어 가는 것에 대해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욥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더 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축복은 욥이 창조주의 주재를 깨닫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데 좋은 조건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욥은 나이를 먹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재산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았았고 다른 근심거리도 없었다. 어떠한 미래도 없었고 당연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았았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갔기에 자신의 최후도 걱정하지 았았다. 현대인 중에 죽음을 앞두고 욥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곁으로 볼 땐 쉬워 보이는 일인데도 정작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다.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주재를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중요한 관문들을 지나 자신의 노년을 보냈으며,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했다. 욥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든 그의 추구하고 인생 목표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행복한 것이었다.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의 축복이나 칭찬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의 추구하고 인생 목표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조주의 주재를 조금씩 깨닫고 실제로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의 놀라운 행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알아 가면서 느끼는 따뜻함과 잊지 못할 경험, 마음 깊이 새겨진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의 위대함, 놀라움, 사랑스러움, 신실함을 경험하여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욥이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 추구하고 얻은 것이 있었기에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창조주가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에도 담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성결하게 창조주와 마주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욥이 소유했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너희들은 그런 행복을 소유할 조건을 갖추었을까?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이 욥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사람들은 왜 죽음의 공포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죽음을 앞두고 실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도 있다. 기절하는 사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 심지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급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제대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려 들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과 생사를 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창조주의 주재를 받아들여야 그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운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며, 사람이 그의 주재를 뿌리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 전 길고 긴 유언을 하고 걱정과 미련을 남긴다. 마음의 짐이 몹시 무겁고, 꺼려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출생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 사람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런 아쉬움과 근심 없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맞이하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을 깨닫고, 창조주의 주재와 권병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류의 다툼과 죄악, 사탄의 울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 오히려 창조주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의롭고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 오히려 창조주의 시련과 박탈,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오히려 평생 동안 창조주를 경배하며 창조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창조주가 친히 발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다 그 어떤 고통이나 근심과 미련 없이 행복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오히려 빛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삶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곤 빛 가운데 순탄히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순조롭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즉,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주재를 체험하고, 깨달아 빛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리하여 창조주의 칭찬을 받는 창조된 인류로서 그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창조주의 주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위의 여섯 관문은 창조주가 모든 정상인을 위해 설정한, 일생을 살면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들이다. 모든 관문은 사람이 맞아야 할 현실이고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으로, 창조주의 예정 및 주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 모든 관문은 중요한 길목이다. 이러한 관문을 어떻게 하나씩 순조롭게 통과할지가 지금 너희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이다.

몇십 년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20년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 나이대의 사람은 나이로 보면 성인이지만 인생과 운명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사람은 차츰 중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30~40대가 되면 인생이나 운명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지만 이 연령대의 사람도 인생과 운명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은 4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만든 인류와 천지 만물에 대해 알기 시작하며, 인생과 운명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따랐고 어느덧 중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의를 가지지 못하고, 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복받는 것에만 몰두해 그 외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한다’라는 실제 공과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고, 평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운명에 대한 인식과 인생 경험에 따라 삶을 구분한다면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년기, 즉 출생부터 중년 또는 태어나서 3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기, 즉 중년부터 노년 또는 30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 즉 노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는 60세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태어나서 중년에 이를 때까지 대부분 사람의 운명과 삶에 대한 인식들은, 대체로 실제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내용 하나 없이 그저 남의 말에 주관 없이 흔들리는 말잔치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 형성된 인생관과 삶의 여러 처세 방식은 알팍하고 유치하다. 이 시기가 바로 사람의 유년기이다. 사람은 삶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 비로소 운명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속 깊은 곳과 무의식 속에 운명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고, 창조주가 인류의 운명을 실제로 주재한다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사람의 성장기이다. 그러다 사람이 더 이상 운명에 맞서지 않고 각종 분쟁에 휘말리려 하지 않으며, 천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자기 생의 공로와 잘못을 정리하고, 창조주가 자신의 삶을 심사해 주길 기다리는 시기가 온다. 바로 사람의 성숙기이다. 세 단계의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경험과 수확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창조주의 주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 사람의 수명이 60세라면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충분히 오래 살거나 100세까지 장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생존의 법칙에 따라 보면, 한 사람이 ‘창조주의 주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창조주의 주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고 창조주의 주재에 순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성과를 얻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30~4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은 늘상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 삶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창조주의 주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와서 인생과 창조주의 주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귀한 건지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을 조속히 정해, 되도록 빨리 하나님의 참모습을 목격하고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대역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반대로 제한된 세월 가운데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조주의 주재를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품은 서로 다른 희망을 통해 그들의 전혀 다른 관점과 추구하는 바가 드러났다.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열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의 주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할 생각도 없이 제멋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은 타락을 자초하는 자들이고 파멸될 부류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리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은 빛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사람의 선택은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결정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고 그의 주재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들 어찌겠느냐? 하나님이 손해 볼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배에 따르지 않고 너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너 자신이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의 지배에 따르며, 그의 권병과 그가 사람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위의 내용을 듣고 운명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 아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인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시행착오를 겪어도, 결국에는 창조주가 정해 놓은 운명의 길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창조주의 권병이며, 또한 창조주가 권병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방식이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창조주의 이러한 권병이 있고, 이러한 주재와 다스림의 방식이 있기에, 만물은 질서 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인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끊임없는 윤회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매일,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고 정도는 다르겠지만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너희들의 경험과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느끼는 바가 깊을

수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는 진리의 실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체험했는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가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런 권병이 사람의 순종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권병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이는 사람의 변화나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 지리적인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재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의 주재에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이 사실을 조금도 바뀌게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든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과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주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의 운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재 아래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주재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병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의지와 기호, 선택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천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권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고, 유일무이한 권병을 갖고 있으며, 그의 권병은 그 어떤 사람이나 일, 사물, 공간,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권병을 시행하고 큰 능력을 나타낸다. 그는 경영 사역을 계속하며 만물을 주재하고, 공급하며, 지배한다. 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사실이자 영원불변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

하나님의 권병과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사람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알아 가야 할까? 이는 모든 사람의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이다. 네가 실생활에서 문제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권병과 주재를 어떻게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지 모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네게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염원과 실제가 있음을 보일 수 있을까? 우선 너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다음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런 후에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너에게 안배한 사람과 일과 사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과 일, 사물 가운데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을 살피고 깨닫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행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도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성과와 맺고자 하는 결실을 아는 것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과 일, 사물, 그리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어떻게 그의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하며, 어떻게 진리를 사람 안에 만들어 넣는지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안배와 주재 아래에서 모든 일은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하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이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너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이런 태도와 소양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실체에 진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주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첫걸음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진리를 진지하게 대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이런 진리들은 모든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거치게 되는 중요한 관문들과도 관련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주재를 알아야 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권병을 대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와도 관련된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종착지와도 관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평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직시하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권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고 체득하게 된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주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다고 해도 인생에서 얻은 바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얼마나 슬픈 일이냐? 따라서 인생의 길을 얼마나 걸어왔든,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남았든, 우선 하나님의 권병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주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진리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완수해야 할 과제이자 인생을 알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고, 매일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본적인 공과이자 일상이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름길로 이런 목표에 이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알려 주겠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주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일한 주인고, 유일한 운명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주재할 수 없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타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것을 지배하고 안배하거나 좌우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할 수 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만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병을 가지고 있기에 창조주만이 인류의 유일무이한 주재자이다. 하나님의 권병은 창조된 인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非)피조물, 우주와 별들도 주재한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를 바꾸지 못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요행심을 품은 채 자신에게 특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현재의 처지를 바꾸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인위적인 노력을 빌어 명예와 부를 얻고 출세를 하는 등 운명을 바꿔 보려는 자가 있다면, 자기 무덤을 제 손으로 파며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 주겠다! 너는 조만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헛수고를 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명에 맞서려는 야심과 욕망, 반역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며,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진리를 점차 깊이 체험하게 될 때면 오늘 내가 한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과 영이 있는 사람인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주재와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것들은 네가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지도 결정한다. 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를 느껴 본 적이 없고 그의 권병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며 분명 하나님이 혐오하여 버리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너 자신이 가는 길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권병에 순종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재에 대해 진실한 체험을 하게 되며, 진정 창조주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재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확실히 깨닫고 이에 순종한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닥쳤을 때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며, 개인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려 하거나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창조된 인류의 신분으로 창조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4

하나님의 거룩함(1)

지난번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또 추가로 교제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새로운 주제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 역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꼭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교제한 하나님의 본질과 지난번에 교제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권병은 모두 유일무이한 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역시 유일무이한 것으로, 이 ‘유일무이함’의 근거와 근원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교제할 주제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교제하겠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교제하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찬찬히 설명해 줄 테니 조금해하지 마라. 너희는 들어 보면 내가 이 주제를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거룩함’에 대해 정의해 보자. 너희의 생각과 관념, 그리고 너희가 배운 지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함’의 정의는 무엇이나? (‘거룩함’이란 더러움이 없고, 인류의 패괴나 흠도 전혀 없으며, 생각과 언행이 모두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하다. (‘거룩함’은 신성하고, 더러움이 없으며, 사람이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린 정의이다. 각자 마음속에는 ‘거룩함’에 대한 나름의 범위와 정의, 설명들이 있다. 적어도 ‘거룩함’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지는 않을 것이며, 이 단어에 대한 일정한 정의와 범위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의 설명은 하나님 성품의 본질을 정의한 설명과 매우 비슷한데, 이는 아주 훌륭하다. 대다수 사람은 ‘거룩함’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면서 정의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이를 실제로 증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지, 왜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교제가 끝나면, 너는 ‘거룩함’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하고,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소한 현존하는 인류 언어 중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기에 매우 적절한 단어이자, 인류 언어에서 하나님께 쓰기 가장 합당한 유일한 단어이다.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빈말도, 이유 없는 찬미도, 과장된 표현도 아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의 진실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만 사람이 잘못 알까 걱정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본질과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부분의 본질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실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 줄 수 있다.

‘거룩함’이란 단어를 정의한 후에 예를 들어 보겠다. 사람은 관념 속에서 수많은 ‘거룩한’ 사물과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순결을 지킨 여자와 남자는 인류의 사전에 거룩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거룩하겠느냐? 그 거룩함과 우리가 오늘 교제하려는 ‘거룩함’이 같겠느냐? (아닙니다.) 품성이 고상하고, 말씨가 우아하고 교양 있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에게 듣기 좋은 말과 칭찬만 하는 사람은 거룩하겠느냐? 자주 착한 일을 하고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다른 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사람의 생활에 큰 안락함을 주는 자들은 거룩하겠느냐? 사사로운 마음과 잡념이 없고 어떤 이에게도 가혹하지 않으며 관용을 베푸는 자는 거룩하겠느냐? 남과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챙긴 적 없는 자는 거룩하겠느냐? 남을 위해 선행을 하고 어디에서나 남들에게 유익함을 주며 남의 성취를 돕는 자는 거룩하겠느냐? 평생 모은 재산을 타인에게 주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자는 거룩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피 주고 보호해 주는 어머니를 거룩하다고 여기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유명인, 스타, 위인 같은 우상들은 거룩하겠느냐? (아닙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은 사람이 모르는 미래의 일들을 많이 말할 수 있었다. 이들은 거룩하더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역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거룩하더냐? 모세는 거룩하더냐? 아브라함은 거룩하더냐? (아닙니다.) 그럼 욥은 어떠하냐? 욥은 거룩하더냐?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았다. 어째서 그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냐? 도대체 거룩한 것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너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감히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아니라고 답한다. 다시 묻겠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파견한 사자들은 거룩하더냐? 천사들은 거룩하더냐? (아닙니다.) 사탄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인류는 거룩하더냐? (아닙니다.) 너희는 한결같이 “아닙니다”라고 답하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왜 천사도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가 분명하지 않구나. 너희는 지금까지 말한 인물과 사물, 혹은 비피조물들이 거룩하지 않다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너희는 분명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저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더냐? 아마 내가 이렇게 물으니 분명 답은 부정적일 거라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다음의 주제를 교제하고 나면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잠시 후 답을 알려 줄 테니,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창 2:15~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에 대한 뱀의 유혹

창 3:1~5(중국어성경 직역)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니라”

이 두 구절은 창세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모두 익숙한 구절이 아니더냐? 이는 처음 인류가 막 창조되었을 때 일어났던 실제 일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교제할 주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위험하지 않고 독이 없어 사람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은 경고다. 이 경고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실과를 먹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직설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그 이유를 몰라도 그 말씀을 규례나 명령으로 여겨 지킬 수 있느냐?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이 지킬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하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 주었다. 하나님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지 않더냐? 기만하는 것이냐? 거짓됨이 있느냐? 헐박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느냐? 아주 직설적이지 않더냐? 추측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다. 뜻을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으니, 아주 명확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하려는, 그리고 표현하려는 말씀은 바로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깨끗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하다. 말씀 속에는 풍자나 숨겨진 다른 뜻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알려 주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조금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라는 뜻은 없다.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씀한다. 만약 내가 이 몇 구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면, 아마 너희는 별것도 아닌 것을 억지로 크게 부풀려 해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금해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아라.

다음은 ‘여자에 대한 뱀의 유혹’에 대해 말해 보자. 뱀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6천 년 경륜에서 부각물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제할 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사람이 사탄의 사악과 패괴, 그리고 사탄의 본성을 모르면 인정하지 못하며,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사탄의 행위가 아주 정당하다고 여긴다. 사람이 이러한 패괴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부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이는 무엇이 거룩함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사탄을 언급해야 한다.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언행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간을 패괴시켰는지, 그리고 본성은 어떠한지 몰골은 또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다. 여자는 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한 말씀을 뱀에게 전했다.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확신했느냐? 확신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느냐? 막 창조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었다. 그녀가 뱀에게 한 말을 통해,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자의 태도를 본 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니라(중국어성경 직역)”. 이 말에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을 보고 뱀에게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느냐? 뱀에게 어떤 속내가 있었느냐?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뱀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교활하다는 것이다. 뱀은 돌려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전하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속에 숨겨 둔 목적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교활한

부분이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사탄이 “죽지 않을 수도 있노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무지한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뱀은 자신의 말이 효과가 있었기에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교활한 속셈이다. 그리고 뱀은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꺼내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여자를 유혹했다.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눈이 밝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라고 여겼다. 뱀은 이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라고 사람에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일단 들으면 엄청난 유혹을 느낄 말을 했다. 이 말이 사람을 유혹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지 않느냐?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겠느냐? “당신은 다른 곳은 다 예쁜데 코가 좀 낮네요. 코만 더 높이면 세계적인 미녀가 될 거예요!” 성형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도 이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게 유혹하는 말이 아니냐? 이 유혹이 너를 꼬시는 것이 아니냐? 한번 떠보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더냐? 방금 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더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네.) 하지만 뱀이 사람에게 한 말들에서는 그것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무지함 때문에 사탄의 말에 쉽게 유혹되어 꾀에 빠진다. 그렇다면 사탄의 그 속셈은 알 수 있느냐? 사탄이 한 그 말의 목적은 알 수 있느냐? 사탄의 음모와 간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말하는 방식은 사탄의 어떤 성품을 대변하느냐? 사탄의 그런 말에서 너는 사탄의 어떤 본질을 보았느냐? 음험함이 아니냐? 사탄이 겉으로는 너를 향해 웃거나 무표정으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다. 그 목적은 네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너에게 말하는 약속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를 유혹하는 요인이 되어 너는 그런 것들을 좋게 보고,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유용하고 실속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포로가 되어 따르지 않겠느냐? 사탄의 이런 수법은 악랄하지 않느냐? 사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타락하게 만든다. 그저 몇 마디 말로 그를 따르게 만들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속셈이 아니냐? 이것이 사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냐? 사탄의 말에서 사람은 사탄의 사악한 속셈과 추악한 몰골, 그리고 사탄의 본질을 보았다. 그렇지 않느냐? 이 대조되는 말들을 분석해 보지 않는다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통속적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크게 확대하여 찬양할 정도는 못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탄의 말과 추악한 몰골을 통해 부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매우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각물을 통해 하나님의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다. 사탄의 말에는 모두 속셈과 속내, 말하는 방식 같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다. 사탄이 말하는 방식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빙빙 돌려 말하며 유혹한다. 그러니 너는 사탄의 진짜 목적을 볼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너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 사탄을 찬미하고 그것의 공덕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사탄의 일관된 수법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또 사탄의 어떤 말과 모습에서 그 추악한 몰골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어서 성경을 읽어 보자.

사탄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욥 1:6~11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습니다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 2:1~5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고 사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 않고 매우 간단했다. 이 간단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의 대답에서 사탄의 추악함을 볼 수 있느냐? (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살펴보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씀은 직설적이지 않느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느냐? (없습니다.) 순수한 질문일 뿐 다른 속셈이나 불순물이 전혀 없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너희는 어떻게 답할 것이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냐? 너희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고 답할 것이냐?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물음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참 터무니없고 간사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어떻게 느꼈는지 아느냐? 나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혐오감이 든다.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냐? 이 말은 대답이 아니다. 결과가 없다. 하나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탄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너희는 그 답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탄 간계의 ‘교묘함’이다. 그 누구도 사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사탄은 대답을 끝내고 스스로 훌륭하게 답했다고 여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혐오스럽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을 혐오하게 되었구나. 사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상대가 갈피를 못 잡고 영문을 모르게 만든다. 어떨 때는 다른 속셈이 있다. 사탄은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지배받기 때문에 입을 열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때도 있다. 오랜 시간 생각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네가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장황하게 대답하여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든다. 너희 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말하며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진위를 구분 못 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는 마치 어떤 이가 자신이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과 같다. 네가 그에게 “어제 어디 갔었어요? 어제 당신을 봤는데요.”라고 물었는데, 그가 “어제요, 정말 피곤했어요!”라며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가 너의 말에 대답을 했느냐? 대답은 했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화법의 ‘교묘함’이다. 너는 늘 그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으며, 그가 하는 말의 근원과 속셈을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무엇을 피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꿑꿑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음험하다고 한다. 너희도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이나? 어떤 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때는 자신의 지위, 이미지, 사생활의 비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이냐? 어찌 됐든 모두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본성이 아니더냐? 이런 본성을 가진 자는 사탄의 친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는 반감이 드는 혐오스러운 부분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너희도 혐오감을 느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자. 사탄은 또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에 적의를 담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이는

여호와가 욥에게 한 일들에 대한 사탄의 인식과 평가이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늘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말하던 사탄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자 모독이며 반항인 것이다. 사탄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너희는 어떠하냐? 반감이 드느냐? 사탄의 속셈이 보이느냐? 먼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여호와의 평가를 부정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모든 언행, 즉 여호와를 향한 욥의 경외심을 부정했다. 이는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탄은 여호와가 행한 것과 말썽한 것을 참소하고 부정하고 의심하였다. 그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 말썽이 그러해도, 왜 내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이까? 욥에게 그리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가 어찌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나이까?” 이는 하나님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참소, 부정, 모독이 담긴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느냐? 이 말은 사탄의 마음속 생각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방금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이 말 한마디에서 사탄이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한 증오심이 확연히 보인다. 그때는 사탄의 악랄함과 사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를 증오하고, 여호와가 복을 준 자는 더욱 증오한다. 사탄은 이 기회를 빌려 하나님이 손수 인도해 키운 욥을 해하려 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욥이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시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나이다.” 사탄은 갖은 수단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고 시험했다. 또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욥을 넘겨받아 마음대로 다루며 우롱하고 해하려 했다. 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이 보기에 의인이자 순전한 자를 파멸시키려 했다. 사탄은 충동적으로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냐? 아니다. 사탄의 이런 마음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감찰하면, 사탄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하면 사탄은 그 뒤를 쫓아가서 살펴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 훼방 놓는다. 갖가지 사악한 방식을 동원해 시험하고 방해하며 하나님 사역을 파괴하여 오직 자신만 아는 숨겨진 목적을 이루려 한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얻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점령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게 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음험한 속내가 아니겠느냐? 평소 너희는 사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지 종종 말하지만 직접 목도한 적이 있더냐? 사람의 나쁨만 봤지 진짜 사탄이 얼마나 나쁜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에서 사탄의

나뻐를 보았느냐? (네.) 사탄의 추악한 모습과 본질을 아주 명확히 보여 준다. 사탄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두 멸해 버리거나 자신이 가져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간단한 한 마디만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너희도 보았듯이 사탄의 행함과 말에 대한 기록은 더욱 많다. 아래 구절에서 여호와가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사탄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여전히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답이다. 이 말이 사탄의 좌우명이나 대표 어록이 되기라도 한 것이냐? 사탄이 증오스럽지 않느냐? 한 번만 해도 될 이 혐오스러운 말을 왜 매번 되풀이하겠느냐? 이는 사탄의 본성이 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사탄의 추악한 면모는 그 스스로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물음에도 이러한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겠느냐!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굴고, 매번 똑같은 말로 하나님 물음에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대응하여 하나님을 미혹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추한 면모다. 사탄은 하나님의 전능과 권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순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행사를 파괴하려 든다. 이것이 사탄의 사악한 목적이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6천 년 경륜 중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 사례이며, 사탄 본연의 모습이다. 너는 실생활에서 사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설령 봤더라도 사탄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사탄을 대표한다. 네가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해도 정말 사탄이 말하는 것이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서 사탄 스스로 한 말을 명확히 보았고, 사탄의 추악한 모습과 사악함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사탄의 본성을 아는 데 큰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구절은 현재 인류가 사탄의 추악한 면모와 본연의 모습을 아는 데 있어 간직할 가치가 크지 않느냐? 이 말은 비록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뜻은 잘 전달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그 의미를 알면 된다. 사탄은 여호와가 하는 일을 거둬서 공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외심을 참소하였다. 사탄은 여호와에게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려 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말해 보아라.

사탄이 이런 말들을 끝냈을 때,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알지 않았겠느냐? (명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자신이 감찰하던 욥, 즉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순전한 자는 그런 시험을 이겨 낼 수 있었느냐? (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줄곧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수 있겠느냐? 사탄은 하지 못한다. 사탄이 설령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사악한 본성으로는 절대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악한 사탄은 절대로 거룩함과 정의, 광명한 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질리지도 않는 듯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성과 사악함,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징벌받거나 멸망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완고하게 반항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함이고 사탄의 본성이다. 그래서 사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것들을 거두어 가면 바로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는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거룩함이고 경외심인지 모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사탄이 사악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제외한 각 종교 각 교파, 종교 단체 혹은 사회단체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심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또한, 간음하는 자는 누구를 봐도 그 자신처럼 음란해 보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눈에는 누구나 다 솔직해 보이지 않고 모두 거짓말쟁이로 보이며, 악인은 누구를 봐도 악하게 보여 늘 싸우려 든다. 상대적으로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솔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며 늘 방비를 하지 못한다. 내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사탄의 이러한 사악한 본성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드러냄 혹은 환경에 의해 생겨난 것이거나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다! 좋은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사탄이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너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의 말이 듣기 좋고 완곡하고 부드러울수록 뒤로는 더 음흉하고 악독한 속셈을 숨기고 있다. 사탄이

한 이 두 구절의 말에서 너는 사탄의 어떤 면모와 본성을 보았느냐? (음험하고, 악독하며, 사악합니다.) 사탄의 주요 특징은 바로 사악함이다. 아주 사악하고 악독하다.

사탄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6천 년 경륜 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한 말씀은 매우 적고 간단하다. 그렇다면 처음 부분부터 얘기해 보자.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한 후 줄곧 인류의 생활을 이끌어 주고 있다. 인류에게 복을 준 것, 율법과 계명을 정해 준 것, 생활에 관련된 많은 규칙들을 정해 준 것 등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의중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먼저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 있어 이 말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사람을 이끌고 인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규례나 율법을 지키게 해서라도 사람이 사탄을 경배하거나 사탄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최초의 목적이었다. 최초에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간단한 율법과 규칙 등 여러 부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목적은 정당하고 긍정적이나? (네.) 하나님이 어떤 규정을 만들었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동안 이 규정들을 통해 이루려는 결심은 모두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이고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사로운 생각과 잡념이 있느냐?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람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도 이리했고, 일을 할 때도 이리했으며, 또한 마음의 생각도 이리했다. 그 어떤 불순물이나 사사로운 생각과 잡념이 없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이다. 자신을 위한 목적은 없다. 그는 사람에게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인류를 보호하고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마음을 사탄에게서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느냐? 사탄에게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모두 하나님의 자연적 발현이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율법과 말씀을 마치 긴고아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에 씌어 강요했느냐?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했느냐? (이끌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협박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 (깨우침과

빛 비춤을 주십니다.) 깨우침과 빛 비춤으로 진리에 맞지 않는 것들과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 준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방식을 보면서 그와 너의 관계가 어떻다고 느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할 수 없는 높은 존재라고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느꼈느냐? 거리가 없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공급하며, 도와주고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은 정답고 존경스러우며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패괴를 꾸짖거나 너의 패역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말씀으로 꾸짖지 않느냐? 환경이나 사람과 일, 사물로 징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 징계의 정도는 어떠하냐? 사탄처럼 사람을 해하는 지경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사랑이 넘치고, 매우 애뜻하다. 또한 적절한 수위와 정도가 있어 ‘무조건 이래라저래라’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너의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게 강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들더냐? 하나님의 권병과 위력을 느낄 때는 어떤 기분이더냐? 하나님의 신성불가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더냐? 하나님이 무섭더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행사가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더냐? 사탄이 역사할 경우 이런 느낌이 들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끊임없이 사람에게 공급하고 사람을 붙들어 준다. 사람이 연약하고 소극적일 때,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굴지 마라! 소극적이고 연약해질 일이 뭐가 있느냐? 너는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고 소극적인데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며 강압적으로 말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권병이 있느냐? (네.) 하지만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낌과 사랑, 귀히 여김은 사람이 한두 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자랑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본질의 발현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방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고심, 사람에게서 이루려는 성과, 사람에게 따라 취하는 다양한 방식,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든,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이런 애쓰는 마음에서 그 어떤 사악함이나 간사함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사와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본질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러한 거룩함을 인간 세상이나 너희 자신에게서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사탄에게서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서,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취한 여러 방식, 사람에게 알려 주고 일깨우고 권면한 것들 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런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을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줬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어디 여기 온전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며 큰소리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랬을 겁니다.) 100% 그럴 것이다. 하고도 남았을 테지! 사람에 대한 사탄의 태도에서 사탄의 본성, 사탄의 본질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조되는 사탄의 본질은 무엇이나? (사악함입니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대조적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발현과 거룩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패괴 속에서, 그리고 그의 활동 반경 내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른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도, 너는 이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의 인식 간 차이가 이러하다.

사탄이 사람에게 행한 것은 어떤 대표적 특징이 있느냐? 너희는 체험을 통해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자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 너희는 아마 그런 특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무섭거나 가증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있느냐? (사탄이 하는 모든 짓은 사람을 해칩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이냐? 구체적인 행동과 자세한 내용을 말해 보겠느냐? (피어내고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그렇다.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 또한 미혹하고 공격하며 참소한다. 다 맞는 말이다. 또 있느냐? (거짓말합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본성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탄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별로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다. 또 있느냐? (이간질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설명해 주면 너희는 아마 듣고 등골이 오싹해질 것이다! 너희를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역,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은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반면, 사탄은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느냐? 사탄은 그렇지 않다. 사람을 해할 궁리만 한다. 그렇지 않느냐? 사탄이 사람을 해하려고 궁리할 때, 그 마음은 다급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사탄의 악독하고 사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 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너희는 사탄의 가증스러움을 잘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사탄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들러붙음으로써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해치려는 목적과 야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강제 점령’은 무슨 뜻이냐? 네가 원하는 상태이겠느냐, 원하지 않는 상태이겠느냐? 네가 알 때이냐, 모를 때이냐? 네가 모를 때이다!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탄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 짓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런 전제나 배경도 없이 너의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리다 강제로 점령하고 들러붙음으로써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해치려는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인류를 빼앗기 위한 사탄의 가장 전형적인 속셈과 행동이다.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모골이 송연해지고 겁이 납니다.) 혐오스럽지 않느냐? (혐오스럽습니다.) 혐오감이 들면서 사탄이 뻔뻔하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사탄의 뻔뻔함을 느끼고 보니, 너희 주변에서 항상 너희를 통제하려는 자들, 지위와 이익에 대한 야심이 큰 자들이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혐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강제로 들러붙어 점령하는지 명확하게 알겠느냐? ‘강제 점령’이나 ‘들러붙다’라는 말을 들으면 혐오감이 들고 사악함이 느껴진다.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아직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탄은 너에게 들러붙어 너를 강제로 점령하고 파괴시킨다. 너는 어떤 기분이겠느냐? 증오스럽고 혐오스럽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가 사탄의 이런 수법에 대해 증오심과 혐오감을 느낄 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느냐?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재하길 바라는 소망이나 의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냐? 사탄이 강제 점령하고 들러붙을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는 것도 옳지 못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는 사탄의 사악한 본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고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더 정확히 알거나 귀하게 여기게 된다. 사탄이 그렇게 증오스러운데도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대려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사탄이 그런 식으로 너를 해하길 바라는 것이냐? 사탄의 사악함과 추악함을 보고 난 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좀 생겼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거룩함’이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세상 만물 중,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사람의 이러한 인식에 걸맞지 않느냐?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보호와 관심, 보살핌을 조금 주는 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속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 진리와 말씀과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여, 사탄의 해함과 시험, 유혹을 멀리하고 또한 사탄의 사악한 본성과 추악한 면모를 간파해 제대로 보게 해 주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뜻함이 진실하지 않더냐?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 온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돌이켜 보아라. 그 느낀 바가 깊은 얕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더냐? 네가 가장 얻어야 할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냐? 생명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에 너를 깨우쳐 주었던 아니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고 난 후 보답하라거나 갚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도 너를 점유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보좌에 오르려는 것이냐? (네.) 그렇다면 마음의 보좌에 오르는 것과 사탄이 강제로 점령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나? 사람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는 것과 사탄이 강제로 점령하거나 들러붙는 것은 차이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 (사탄은 사람에게 강요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발적인 뜻에 맡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가져 뭐 하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점유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다’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람은 늘 오해를 한다. ‘하나님이 늘 나를 점유하려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점유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사탄이 사람을 점령한다더니 하나님도 사람을 점유하시는구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나는 나야. 그 누구에게도 점유당하고 싶지 않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먼저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한다’는 것이 그저 허울뿐인 말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 모든 언행을 지배하는 것이냐? 앉으라 하면 감히 서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라 하면 감히 서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냐? 이런 의미의 점유란 말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세월 사람을 경영해 오면서 사람에게 행한 사역들,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 그 안에서 살고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하라고 하면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갖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의 행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점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 모든 말씀과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소유와 어떠함의 발현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는 확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행하고 갖춰야 할 것들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사람의 패괴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심판하여 이루는 성과는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냐?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점유하려 한다는 것은 허울뿐인 말이냐?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이 모든 진리를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려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말씀을 사람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악에서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경지에 이르면, 이미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권병 아래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욕이나 베드로처럼 길의 끝에 이르렀을 때, 생명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그때도 사탄이 그들을 데려갈 수 있겠느냐? 여전히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강제로 그들에게 들러붙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완전히 하나님께 얻어진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진 자들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볼 때, 이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병, 하나님의 도가 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어 사람의 전부를 점유하였고, 그 사람의 삶과 본질이 하나님을 흡족게 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있어 바로 이때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점유된 순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를 점유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가 너의 생명이 되었고, 진리가 너의 생명이 된 것이다. 이때,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생긴다. 하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갖춰야 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따랐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얻었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설령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점유했고, 너는 내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할지라도,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생명이 가득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때든 사람은 결국 사람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받아들여도, 너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가진 것일 뿐,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방금 말한 주제로 돌아와 보자. 앞에서 너희에게 물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냐? (아닙니다.) 욥은 거룩하냐? (아닙니다.)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갖추어져 있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없다. 설령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실질적인 면을 가졌더라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가질 수 없다. 사람은 사람이다. 알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점유한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도,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어떤 이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까?”라고 묻는다.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로봇이 하나 있는데, 네가 스위치를 켜면 춤을 추고 말을 한다. 너도 로봇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너는 로봇이 귀엽고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로봇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전원을 꺼 버리면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느냐? 로봇이 움직이면 너는 그 활발하고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본질적인 평가이든 겉모습에 관한 평가이든 너는 로봇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어쨌든 너는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원을 꺼 버리면 로봇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본질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즉, 이 로봇이 설령 움직이고 멈출 수 있다고 해도 너는 영원히 “어떤 본질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묘사할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말은 더 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 의미를 대략 이해했으면 됐다. 오늘의 교제는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보도록 하자!

2013년 12월 17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5

하나님의 기록함(2)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불러 보거라. 너희가 좋아하고 평소 자주 부르던 곡을 찾아보아라. (하나님 말씀 찬양 ‘티 없이 순수한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1.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간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만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배반도 거역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무엇을 얻고자, 얼마큼 얻고자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2.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간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바치고, 고난을 감내할 것이다. 또한 나와 마음을 합할 것이며,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너의 가정과 앞날, 청춘과 결혼까지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배반이다!

찬양을 참 잘 선택했구나. 너희는 이 찬양을 좋아하느냐? (네.)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자신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고 느껴지느냐?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찬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어느 부분이냐?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없고, 거래도 없으며, 간교도 선택도 없고,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많은 불순물이 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아직 티 없이 순수한 사랑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티 없이 순수한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네 사랑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너의 분량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말해 보아라. 어느 정도에 도달했느냐? 기만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 요구나 욕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불순물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환경이 저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거나 저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파괴된 성품이 드러납니다.) 대만의 형제자매들, 너희도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느냐? 너희는 ‘티 없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해 볼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겠느냐? (저도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임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이런 기준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참된 사랑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더해 주신 힘과 기도로 하나님과 협력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이 임하거나 드러나 저 자신에게 앞날이나 운명, 종착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특히 연약해집니다. 자주 이 부분에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운명과 앞날’은 도대체 무엇이야? 가리키는 것이 있느냐? 하나의 그림이야? 아니면 상상이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앞날과 운명이란 것을 보기라도 했느냐? 그것은 하나의 실체야? 너희 모두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마음속으로 염려하는 앞날과 운명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원받아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말해 보아라. ‘티 없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불순물이 없고, 앞날과 운명의 속박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배치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야말로 티 없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저 자신과 대조해 보면, 하나님을 믿어 온 이 여러 해 동안 겉으로는 얼마간 헌신도 하고 버리기도 했지만,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드러날 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소극적인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종착지, 앞날, 운명을 한시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이 찬양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실제 체험과도 연결을 좀 시키고 있지만, ‘티 없이 순수한 사랑’에서 언급된 매 구절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꺼이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앞날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가정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기만도, 원망도, 거역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또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했겠느냐? 사람은 이러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랑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은 사람에게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기에 이런 말씀들이 사람에게는 다 생소한 것이다. 사람은 이런 세상에 태어나 파괴된 성품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있거나 혹은 이런 사랑을 갖추어 바라는 것이 없고, 무엇을 얻고자 하지도 않고, 기꺼이 바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면, 또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랑을 갖춘 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겠느냐? 완벽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진공 속에서 살면 모를까,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험하면서 이런 말씀과 자신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억제했고, 심지어는 끊임없이 자신을 저버리면서 고난을 받고 관념과 패역, 욕망과 요구를 내려놓으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찌 된 영문이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의 기준을 준 것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즉시 도달해야 한다고 말씀했더냐? 사람에게 얼마 동안의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씀했더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느냐? 이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에 그런 부분은 없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려 주었을 뿐이다. 사람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지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즉시,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늘 이런 말씀을 읽는다고 조금씩 사랑이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만이 없으려면? (역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거래가 없으려면? 이것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교가 없으려면? 사랑에 선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더냐? 여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언급하거나 사랑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느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간격이나 거리가 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심하더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고, 알고 있다. 진실로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기만이 있더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완벽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더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느냐? 사람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 베풀거나 바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말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면은 없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말씀은 하나님의 한 가지 측면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어떤 측면의 본질이겠느냐? 지난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화제를 교통했다. 그 화제는 이전에 사람이 자주 말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그 단어가 자주 제기되지만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익숙하면서도 또 생소하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 단어가 인류의 언어에서 오긴 했지만, 인류가 그것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명확하면서도 모호하다. 그 단어는 무엇이겠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했던 화제다. 지난번에는 일부만 교통했다. 지난번의 교통을 통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측면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기지 않았느냐? 어떤 인식들이 새롭다고 생각되느냐? 어떤 인식과 말씀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교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별되거나 다르다고 느끼게 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인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한 측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노를 발하실 때도 거룩하시고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는 진노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유일무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긍정적인 것이고 원칙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로 인해 발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보셨기에 그런 진노를 발하는 것이며,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화제는 ‘거룩함’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다 조금씩은 들어 보았고, 또 조금씩은 알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흔히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한다. ‘거룩함’이란 이 단어는 모두에게 생소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룩함의 함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는 것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이 나타낸 것에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지만, 네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듣기에 조금 모호하고 헷갈린다. 왜 그렇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거나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어떤 나타냄이나 소유, 어떠함들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본 것은, 사람은 늘 자주 쓰는 단어나 자주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 습관이 되어 관용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 보고 알아보면, 그것의 실제 의의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룩함’이란 이 단어를 예로 들자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인지, ‘거룩함’이란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적절하게 나타나는지(원문: 兌現)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음속이 명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길 뿐,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화제를 교통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란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서 구현시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실제 내용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늘 함부로 쓰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피하고, 또한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도 모른 채, 아무튼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니 너도나도 덩달아 입버릇처럼 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단어를 더럽히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단어가 겉보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룩함’이란 단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성하고, 순결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는 방금 부른 찬양 ‘티 없이 순수한 사랑’과 같이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사랑’과 연결시키는데, 이는 틀리지 않았다. 그것도 일부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지닌 본질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념적으로 이 글자를 볼 때 늘 본인이 순결하거나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 혹은 소위 말해서 불결하지 않고 정결한 것들을 연상한다. 일례로 연꽃이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진흙 속에서 났지만 물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룩함’이란 단어를 연꽃과 연결시킨다. 또 지어낸 사랑 이야기나 꾸며 낸 위대한 인물들을 거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성경이나 영적 서적에 기록된 성도나 사도와 같은 인물, 또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의 영적 체험을 거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는 모두 사람의 상상이자 관념이다. 사람은 왜 그런 관념을 갖고 있겠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패괴 성품으로 살고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접하고, 체험한 것이 전부 사탄의 사악함과 사탄의 패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간의 암투와 싸움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나타내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이는 참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사람은 더러움 속에서, 패괴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으므로 빛을 보지 못한다. 또한 무엇이 긍정적인 사물이고, 긍정적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괴된 인류 가운데 거룩한 것이나 거룩한 사람이 존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본질만이 거룩하므로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 일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일부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데 어느 정도 깨우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알게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일무이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거룩함의 참뜻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나타난다는 내용을 깨닫게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갈 차례이다. 성경을 읽어 보자.

사탄의 시험

마 4:1~4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에게 한 말이다. 어떤 내용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 말은 간단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니냐?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했다. 그럼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겠느냐? 그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겠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일’이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한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귀는 순종하거나 경배하였느냐? (아닙니다.)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런 방법, 그런 말로 예수를 격노하게 하여 꼬임에 빠지도록 유인하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 아니겠느냐? 사탄의 본성은 어떠하냐? (교활하고 사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했다. 그리고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탄의 음흉한 속셈 아니겠느냐?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사탄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 즉,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부인하려 한 것이다. 사탄의 그 말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그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허물거나 망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악독함이다. 사탄의 악독함은 본성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짓,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쫓고, 계속 공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다시 사탄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 말을 분석해 보자.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이는 무의미한 일 아니더냐? 그때 예수가 금식을 하고 있긴 했으나 설마 먹을 것이 없었겠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탄이 한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또 사탄이 아주 음험하고 악독하지만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사탄이 한 일들을 통해 사탄의 악독한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화가 난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한 그런 일과 말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몹시 유치하고 황당하지 않느냐? 이는 사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본성이 있기에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지금 사람이 그 말을 보면 황당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말을 꺼냈다. 그러니 사탄을 무지하고 그릇되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탄의 사악함은 어디서나 시시각각 드러난다. 예수는 어떻게 대답하였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지 않느냐? (강력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람이 살려면 떡에만 의지해야 하느냐? 예수는 사십 주야를 금식했다. 그가 아사하였더냐? (아닙니다.) 그가 아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가와 그런 말을 하며, “돌을 떡으로 만들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금식을 할 필요도, 굶주릴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다. 하지만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사람이 비록 육으로 살고 있으나 사람의 육을 살게 하고 숨 쉬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로,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을 진리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그의 실제적인 면도 담겨 있지 않느냐? 예수는 사십 주야를 금식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냐? 살아 있지 않았더냐? 이것이 실례(實例) 아니겠느냐? 예수가 사십 주야를 금식했음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강력한

증거이다. 간단한 말씀이긴 하나 예수는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그제서야 이 말씀을 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이 말씀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곧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이냐? 후천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이자 생명이다. 어떤 일이 임해도 그에게서 발현되는 것은 다 진리이다. 그가 말한 내용이 길든 짧든 그 진리, 그 말씀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또한 사람이 그 말씀에서 진리를 얻게 하고, 인생의 길을 알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즉,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의 근원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럼 긍정적인 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한 말은 사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사악하고 악독한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아니더냐?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자가 있더냐? 도와준 자가 있더냐? 협박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악한 본성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사탄은 그 뒤를 쫓는다. 사탄이 한 행동, 말의 본질과 본색이 바로 사탄의 본질, 즉 사악하고 악독한 본질이다. 사탄은 또 어떤 말을 하였느냐? 다음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자.

마 4:5~7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우선 사탄이 한 말을 살펴보자.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했고, 또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성경 말을 인용하였다. 사탄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굉장히 유치하지 않느냐? 유치하고 황당하며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항상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여기며 늘 성경의 말, 심지어 하나님이 했던 말씀까지 인용한다. 이런 말을 통해 역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한 말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탄의 사악한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고 유인하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빙 돌려 말한다. 사탄은 평범한 사람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사물의 본모습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또한 그것의 본질, 교활함과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어리석은 면

아니겠느냐? 또한, 사탄은 당당하게 성경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말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다고 여겼다. ‘당신이 무슨 빈틈을 찾을 수 있겠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사탄의 터무니없고 유치한 점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더냐? 너희도 비슷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 않더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하더냐? 역겹지 않더냐? (역겹습니다.) 역겨운 마음이 들면서 혐오감과 증오심이 생기지 않더냐? 그럴 때면 사탄, 그리고 사탄에 의해 생성된 패괴 성품이 사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 않더냐? 그런 느낌이 들 때, ‘사탄의 말은 공격성과 유인책을 담고 있어 참으로 황당하고, 가소로우며, 유치하고 역겹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거나 사역하신 적이 없어. 그런 방식은 한 번도 없었다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냐? 물론 그때도 사람은 그런 느낌만 들 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현재 분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야. 우리에게 이로우니 받아들여야 해.’라는 정도만 느낄 뿐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 자체가 곧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곧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럼 방금 사탄이 했던 말에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예수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다. 예수의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다. 겉보기에는 명령의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아도 사람과 사탄은 이를 자주 거스른다. 그래서 예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그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탄의 본성과 본질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심도 없다. 사탄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때문에 예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항상 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느냐? (유효합니다. 저희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도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느냐? 사람에게 사탄의 패괴 성품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위에서 사탄이 했던 말들을 사람도 자주 하지 않더냐?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한다. 이는 사람의 성품이 사탄의 패괴 성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다. 예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했지만, 이는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사탄과 전쟁을 벌이며 한 말씀이 있더냐? 사탄과 맞붙어 싸우면서 한 말씀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혐오스럽고

역겹다고 느끼면서도 그는 사탄과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사탄에게 큰 이치를 설명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왜 그랬겠느냐? (사탄은 줄곧 그렇게 해 왔고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치로 깨우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다. 사탄의 본성에 혐오스러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겠느냐? 사탄은 예수를 시험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시도해 보려고 했다.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맞섰다. 이는 어떤 본성이겠느냐? 사악함 아니겠느냐?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하나님 역시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를 건드린 적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화를 내는 것이겠느냐? 그런 사람을 사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의 풍조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며, 스타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만 언급해도 성을 내고,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만 언급해도 성을 내니, 이것이 사악한 본성 아니겠느냐? 이것으로 사람의 사악한 본성이 충분히 증명된다. 너희는 진리를 언급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시련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감이나 혐오감이 들고 듣기 싫은 경우가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떤 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꾸짖는 말씀이잖아!’ 심지어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입만 열면 시련이요, 심판이요 하는 것들뿐.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거지? 언제쯤이면 좋은 종착지에 이를 수 있는 거냐고!’라며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원인 모를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어떤 본성이겠느냐? (사악한 본성입니다.) 이는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 초래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사악한 본성이나 인류의 패괴 성품에 대해 사람과 언쟁을 벌이거나 따진 적이 없고, 또는 사람의 우매한 행동을 크게 문제 삼은 적도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인류가 특정 사물에 대해 갖는 관점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인류의 관점이나 지식, 과학, 철학, 상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나타낸 모든 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이 한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다 진리와 관계가 있다. 그 진리는 터무니없이 상상해 낸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진리와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생명으로 인해 발현된 것이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행한 일들의 본질이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행사나 말씀은 사람에게 생기와 빛을 가져다준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실재를 보게 하고 길을 알려 줘 바른길을 가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의해 결정된다. 너희도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 보자.

마 4:8~11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사탄 마귀는 앞에서의 두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방법을 택했다. 바로 예수에게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자신을 경배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마귀의 어떤 본모습을 알 수 있느냐? 사탄 마귀는 참으로 뻔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뻔뻔하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역으로 만물을 보여 주며 “만국의 이 부귀영화를 보라. 당신이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뻔뻔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는 하나 그 모든 것을 누리더냐? 하나님은 만물을 인류에게 주었다. 사탄은 이를 삼켜 버릴 속셈을 품고 있었고, 그다음 하나님께 보여 주며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탄의 추악한 몰골 아니겠느냐! 사탄은 ‘수치’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모른다. 여기서 또 사탄의 사악함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수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주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며 더욱이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귀 사탄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이 만물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사탄이 또 한 번 어이없고 낮 두꺼운 일을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증오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사탄이 어떤 짓을 하든 예수가 그 꼬임에 넘어갔더냐? 예수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실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실제 의미가 있겠느냐? 사탄의 말에서는 사탄의 사악함과 뻔뻔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인류가 사탄을 경배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겠느냐? 만국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사람도 사탄처럼 뻔뻔하고 가소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한 예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주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거나 사탄 마귀를 경배한다면, 너는 사탄과 한패가 되는 것이며, 사탄과 똑같이 뻔뻔하고 사악해질 것이고, 사탄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네

결말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 혐오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한 몇 번의 시험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했더냐?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떠나갔다. 이로써 무엇이 증명되었느냐? 사탄의 사악한 본성, 악독함, 그릇되고 황당무계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단 세 마디로 사탄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사탄은 수치를 당하고 풀이 죽어 도망갔으며, 더 이상 예수를 시험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는 이미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겼으므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 담당한 사역을 순조롭게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예수가 한 이러한 말씀과 일들을 오늘날로 가져와도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이나? 그러려면 사람이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탄의 시험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간파할 수 있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사탄의 그릇되고 황당무계한 면을 알게 되면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너 자신에게서 사탄의 뻔뻔함과 악독함이 발로될 때, 이를 확실히 깨닫고 의식한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시험할 수 있겠느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탄을 저버리고 내칠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성찰해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탄의 미혹과 통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사탄이 한 이 모든 말을 통해 사탄의 본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우선, 사탄의 본질은 전반적으로 사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립된다. 왜 사탄의 본질이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는 사탄이 사람에게 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근거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탄은 사람을 패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면서 일을 하고, 사탄이 패괴시킨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점령되고 동화되어 사탄의 패괴 성품, 즉 사탄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탄의 말과 행위에서 교만함을 보지 못했느냐? 사탄의 간사함과 악독함을 보지 못했느냐? 사탄의 교만함은 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더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지위를 없애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려 들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고, 옹호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탄의 교만한 본성이다. 사탄이 인류를 패괴시킬 때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직접 알려 주더냐?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을 시험하고 공격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더냐?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유인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함정을 파 놓으며, 심지어 성경 말까지 인용해 다양한 방식의 말과 행위로 음흉한 속셈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사탄이 이렇게 한 후, 사람에게서 발로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도 교만해지지 않더냐? 수천 년 동안 사탄에게 패괴되면서 사람 역시 교만하고, 간사하고, 악독하게 변했고, 이치로 깨우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본성이 초래한 결과다. 사탄은 사악한 본성을 가졌기에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도 그 사악한 본성이고, 그 사악한 패괴 성품이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매우 익숙한 화제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추상적이라고 느끼거나 내용이 좀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도 서두를 것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겠다. 한 사람이 행한 일과 일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 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본질은 사악하다. 그럼 사탄이 인류에게 한 일은 어떠하냐? 끝없이 패괴시키고 또 패괴시킨다.... 사탄은 사악하므로 그것이 패괴시킨 사람 또한 분명 사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탄은 사악하지만, 사탄이 패괴시킨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웃음을 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사악한 존재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측면도 있고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 이는 빈말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다. 이 부분의 실재를 교통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악의는 없다. 어쩌면 너희는 오늘 이 말을 듣고 언짢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깨닫게 될 때면 스스로를 증오하게 될 것이며,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가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의 본질은 사악하므로 사탄이 한 일 역시 사악한 결과를 낳으며, 적어도 사탄의 사악함과 관계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느냐? (네.)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이 세상에서, 이 인류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탄의 사악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요점을 알려 주겠다. 사탄이 제기한 진화론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더냐? 진화론은 사람이 배우는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고, 자기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친다. 그런 다음,

과학을 이용하여 사람을 패괴시키고, 지식, 과학, 비밀, 또는 사람이 알아내고자 하는 일들에 흥미를 갖게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전통문화, 미신, 사회 풍조를 통해 사람을 패괴시킨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살면서 접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보고, 듣고, 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것들과 관계가 있다. 사람은 모두 이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이것들에 속절없이 영향받고, 동화되고, 지배받고, 결박되어 벗어날 힘이 없다.

1. 사탄은 어떻게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우선,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 아니더냐? 적어도 ‘지식’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화론은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뉴턴의 법칙도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지구 인력 역시 지식의 일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식이 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포함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에 진리가 조금이라도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나? 사람은 무엇에 기초하여 이 모든 지식을 배우느냐? 모두 진화론을 기초로 배우는 것 아니더냐? 사람이 탐구하고 정리한 지식은 모두 무신론에 기반한 것 아니더냐? 이 모든 지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진리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겠느냐? 나는 방금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도, 진리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진리와 상관은 없지만 지식이 사람을 패괴시킨 것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은 너에게, 행복은 사람의 두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더냐?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보느냐? (허튼소리입니다.) 적합한 표현이다. 모두 허튼소리이다! 지식이란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만약 단순히 어느 지식은 그저 지식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지식을 배울 때,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답을 찾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연구만 한다면 영원히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그저 지식을 통해 생계 수단과 일자리를 마련하고, 돈을 벌며 그럭저럭 밥벌이를 할

뿐, 지식은 결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지 못한다. 네가 배운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연구하고, 시험하려 들며,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더 커진다. 지식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 모두 사탄의 철학이다. 사탄이 패괴된 인류 가운데서 퍼뜨린 생존 철학과 생존 법칙이 진리와 관계가 있겠느냐? 진리와 관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진리에 위배된다. 사람은 흔히 “목숨은 운동에 달렸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말한다. 이는 무슨 말이나? 전부 궤변이자 듣기만 해도 역겨운 말이다. 사탄은 소위 말하는 지식에 자신의 많은 처세 철학과 사상을 담아 사람에게 주입한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그러한 사상, 철학, 관점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유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배울수록, 또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탄이 사람의 내면에 관점, 관념, 생각들을 주입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런 사상들을 사람의 내면에 주입할 때, 사람은 패괴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람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이런 지식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아니다. 사람은 지식 속에 숨겨진 사탄의 사상, 관점, 철학에 기대어 산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핵심이며 목적이자 방법이다.

지식 얘기가 나왔으니 가장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해 보자. 말과 글의 문법이나 글자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단어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단어는 사람을 패괴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게다가 오늘날 하나님은 언어와 말씀을 통해 사람과 소통하므로 이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1+1=2$, $2 \times 2=4$ 는 지식이 아니더냐? 그런데 이런 지식이 너를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이는 상식, 규칙일 뿐 사람을 패괴시킬 수 없다. 어떤 지식이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사탄이 지식에 가미한 관점과 사상이다. 사탄은 지식을 통해 사람에게 이러한 관점과 사상을 주입한다. 한 편의 글을 예로 들어 보면, 그 모든 글자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자가 글을 쓸 때의 관점과 속셈, 그리고 그의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영혼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드라마를 본다고 하자. 드라마의 어떤 부분이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키겠느냐? 배우가 하는 말, 그 어휘들이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바로 그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와 내용이다. 이는 감독의 관점을 대변하며, 이러한 관점에 담긴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사탄이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패괴시킨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 그릇되게 이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담긴

사상이 사람을 패괴시키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유익한지 분별할 수 있겠느냐?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연구하거나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문에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학문에 대한 상식과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전기를 예로 들어 보자. ‘전기’는 지식 아니더냐? 전기에 감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무지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전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함부로 전기를 만지지 않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점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패괴시키는 지식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겠느냐? 이해했으면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매우 많아서 너희는 스스로 천천히 분별해 나가야 한다.

2. 사탄은 어떻게 과학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과학이란 무엇이나? 모두가 마음속으로 과학이 아주 대단하고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과학이라고 하면 그것은 과학 연구원이나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나 접하는 것이 일반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관계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과학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겠느냐? 멀리 갈 필요 없이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자. ‘유전자’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전자는 과학을 통해 발견한 것 아니더냐? 그럼 유전자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었느냐? 사람의 몸이 굉장히 신비롭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이 화제를 접하면, 특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에 몰두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나머지 시간만 나면 온갖 서적을 뒤지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할 것이다. 과학이란 무엇이나? 과학이란 사실 사람이 호기심을 느끼는 일, 사람이 모르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 주지 않은 일, 사람이 탐구하는 비밀에 대한 상상이나 학설이다. 과학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모든 것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며, 세부적인 내용과 법칙을 연구한 후 보기에 그럴싸한 결론을 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이렇게 많다니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해. 지식을 얼마나 쌓아야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우러러본다. 그렇지 않더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더냐? 만물을 연구하고, 흥미를 느끼는 신비로운 현상을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더냐? 그럼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나?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도 있다. 또 역사와 배경을 연구하여 결론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럼 과학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느냐? 과학은 사람에게 물질세계의 존재만 보게 하고 호기심만 충족시켜 줄 뿐,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법칙을 일깨워 주지는 못한다. 사람은 과학에서 해답을 찾은 것 같지만, 이 해답은 사람을 미혹하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준다. 이러한 만족감은 사람의 마음을 물질세계에 가둬 버린다. 사람은 과학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이든 과학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고 받아들인다. 과학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유혹하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거나 경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게 됐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니더냐? 과학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릇됐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든 과학이나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몇 년이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세균을 연구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자료를 찾는 사람도 있다. 진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며, 많은 일에서 과학적인 관점이나 지식, 과학적인 해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겠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려는 사람도 있다. 일례로, 많은 종교 전문가가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산에 가서 방주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방주의 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이야기와 역사(歷史)만 믿게 된다. 이것이 과학과 물질세계를 연구한 결과이다. 물질을 연구하면, 연구 대상이 미생물이든 천문 지리이든, 하나님이 존재하고 만유를 주재한다는 결과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럼 과학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연구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의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은 과학으로 사람의 무엇을 파괴시키려 하겠느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마비시키려 하지 않겠느냐? 불확실한 답으로 사람의 마음을 점유하여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믿지도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과학 역시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3. 사탄은 어떻게 전통문화로 사람을 파괴시키는가

전통문화에 포함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전통문화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부분이다. 가족, 민족, 나아가 인류가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 생활 방식이나 규칙, 논리, 규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주입되어 사람은 그것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규례, 생명으로 간주하며 지켜

나간다.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므로 영원히 바꾸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자나 맹자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 중국의 도교나 유교가 주는 가르침 등이 모든 사람의 뱃속에 박혀 있다. 그렇지 않느냐? 전통문화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사람이 기념하는 명절들도 포함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설날, 정월 대보름, 청명, 단오, 백중, 추석과 같은 명절들이 있으며, 심지어 어떤 집안에는 집안 어른의 생신, 생후 1개월 축하 잔치, 백일잔치 등등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 명절에 속한다. 전통 명절의 근간이 전통문화 아니더냐? 전통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나?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있느냐? 진리를 실천하게 하는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명절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모든 명절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현대인은 명절을 먹고 놀며 즐기는 날로 생각한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 사탄이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 몰래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들이 있다. 무엇을 주입하겠느냐? 조상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중 하나 아니더냐? 일례로 청명절에는 성묘를 가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기린다. 단오절에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긴다. 음력 8월 15일은 어떠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가족들이 어떤 배경에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정을 나누고 마음을 교감하기 위함이다. 물론 선달 그믐날,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런 다양한 설은 모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철학과 사상이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이 조상이나 사탄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며, 육의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다. 여러 명절을 지내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사상이나 관점이 심어지며, 40~50세 또는 그 이상 나이를 먹으면 이런 사상과 관점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또한 사람은 그 관점이 맞는지 틀린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이를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전수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와 명절은 어떻게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규례로 사람을 속박하고 옳아매어 하나님을 찾을 시간과 힘을 앗아 갑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설날에 다른 사람은 모두 설을 쇠는데 너 혼자 쇠지 않는다면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느냐? 꺼림칙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올해 설도 제대로 못 쇠었는데, 한 해 동안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심지어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 조상이 꿈에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세상을 뜨신 분이 돈이 부족하다니 안되셨네. 종이돈이라도 태워 드려야지 안 되겠어! 그러지 않으면 산 사람이 무슨 해를

입을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고!’라며 마음속에 늘 이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걱정은 누가 가져다준 것이겠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아니더냐? 사탄은 온갖 구실과 방법을 동원하여 너를 지배하고, 위협하고, 속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이다. 사람은 연약할 때 종종 귀신에 홀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일을 하곤 한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식이다. 심지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뿌리 깊이 박힌 전통문화에 연연하며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람은 연약해져 있거나 소극적일 때, 명절을 보내면서 사탄과 상봉도 하고, 다시금 사탄을 만족시키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 이런 전통문화의 뒤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겠느냐? 사탄의 검은 마수가 조종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사악한 본성으로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전통문화 속에서 살면서 전통 명절을 지내는 것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패괴되는 것이라고, 또한 그것은 스스로가 원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를 알고 인정하는구나.

4. 사탄은 어떻게 미신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미신’이란 단어가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미신은 전통문화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상통하는 부분이 아닌, 사람들이 점을 보고 향을 태우며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미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향을 태우며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주나 관상을 보는 사람도 있다. 너희 중에 사주나 관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점을 보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켜 주느냐? (호기심입니다.) 그저 호기심뿐이냐?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점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점을 보느냐?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화복이 궁금해서 점을 본다. 결혼이나 내년 운세가 궁금해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점쟁이에게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한다. 이것이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점을 보는 것이냐? 사람이 점을 보는 것은 모두 자기 미래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다. 점을 보는 것이 자신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 그런 것들이 소용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 소용없느냐? 조금이라도 알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미래에 불행이 닥쳤을 때 모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미리 안다면 불행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잘되면 방향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다음 해에 행운을 불리와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와 상관없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런 화제가 아니다. 사탄은 어떻게 미신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느냐? 사람은 모두 앞으로의 운명을 알고 싶어한다. 사탄은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한다. 사람이 점, 사주, 관상을 보는 것은 모두 미래의 운세와 앞으로 가게 될 길을 알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미래와 운명은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 결정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 주느냐? 사탄은 사주나 점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의 향후 운세를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관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기회를 틈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여 미신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네가 사주를 보러 갔다고 가정해 보자. 점쟁이가 눈을 감고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일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정말 용하네! 다른 사람한테 옛날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참 대단해!’ 사탄이 너의 과거를 아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너를 이끌어 왔고, 사탄 또한 오늘날까지 너를 쫓아다니며 패괴시켜 왔다. 몇십 년 동안 너에게 발생했던 일을 알기란 사탄에게는 식은 죽 먹기이다. 점쟁이가 한 말이 모두 정확하다고 느낄 때 너는 마음을 그에게 내주게 되지 않겠느냐? 너의 앞날과 운세를 모두 그가 결정하게끔 맡기지 않겠느냐? 너는 갑자기 그에 대한 숭배나 존경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심지어는 혼이 쏙 나가서 곧바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피해야 하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점쟁이는 가지 말아야 할 곳, 피해야 할 일, 입지 말아야 할 옷 색깔, 많이 가면 안 되는 장소, 많이 하면 좋은 일 등등을 늘어놓는다. 너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마음에 새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빨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에 기대 요행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점쟁이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겠느냐? 점쟁이의 말이 하나씩 들어맞으면 다시 그를 찾아가 다음 해의 운세를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럴 겁니다.) 점쟁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겠느냐? 너는 아주 빨리 그 품으로 들어가고, 쉽사리 미혹되며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점쟁이가 한 말이 사실이고, 그가 네 전생, 금생, 미래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탄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사람을

주관하느냐?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다. 사탄은 그저 이때를 틈타 무지하고 물질세계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고는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따르게 한다. 그다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사탄이 손을 놓아주겠느냐? 사탄은 손을 놓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의 이러한 행위를 뻔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느냐? 사탄은 사기와 기만이란 수단을 동원한다. 사탄은 뻔뻔하기 그지없으며, 자신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든다. 불과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탄은 어떤 방법이나 말들로 네가 믿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네가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란 말을 하기 전에 점쟁이가 너희 집 식구가 몇 명이고, 네 부모와 자식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맞춘다고 가정해 보자. 네가 점쟁이를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곧이어 점쟁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군요. 상사가 알아주기는커녕 툭하면 걸고넘어지니...”라고 하면 너는 그 말을 듣고 “맞아요.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긴 하죠.”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점쟁이는 다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너를 미혹하고 그를 더욱더 믿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너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그와 맞설 힘을 잃고 의심을 지우게 된다. 사탄은 하찮은 능력, 심지어 보잘것없는 수작으로도 너를 미혹한다. 또한, 네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고단수’의 수법이다. 네가 자신도 모르게 꼬임에 넘어가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일러 준다. 그런 다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그러다 보면 너는 자신도 모르게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속임수에 빠지는 순간 일은 복잡해진다. 너는 사탄의 말과 지시를 시시때때로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어째서 그렇겠느냐?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없으면 사탄의 유인과 유혹에 맞설 힘이 없다. 사탄의 사악함, 간사함, 음험함 앞에서 사람은 몹시도 무지하고 유약하며 연약하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온갖 수법에 조금씩 유혹당하고 속아 넘어간다. 사람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과 분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이길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5. 사탄은 어떻게 사회 풍조로 사람을 패괴시키는가

사회 풍조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최근 들어 형성된 것이냐?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킨 순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회 풍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주 접하는 것이다. 옷차림, 패션, 의류 풍조는 사회 풍조의 작은 부분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소문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스타, 잡지, 소설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떤 분야의 풍조가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풍조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50~60대, 70~80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요. 풍조는 우리에게 유혹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냐? 또 어떤 사람은 “20대 애들이나 연예인을 따라다니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입지도 않고요. 그런 건 몇 내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요.”라고 말한다. 그럼 무엇이 너희를 패괴시키느냐? (유행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사람을 패괴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예를 들어 볼 테니 맞는지 보아라.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은 풍조에 포함되지 않느냐? 너희가 언급한 패션, 미식보다 더 강력하지 않느냐?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라는 말은 사탄의 철학으로, 인류에게서,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입되어 자리 잡고 있으므로 풍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실생활에서 이 말을 접했을 때 차츰 묵인하게 되고 이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 말에 대한 이해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기반하여 각기 다른 정도로 해석하고 수긍한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이 말을 얼마나 체험했는지는 차치하고,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겠느냐? 너희 모두를 포함해 이 세상의 인류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느냐? 사람은 돈을 숭배한다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를 지우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다! 사탄이 사람을 참 심각하게도 패괴시킨 것 같다! 그럼 사탄이 이런 풍조를 통해 사람을 패괴시킨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너희는 돈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를 누리고 존귀해진다. 기를 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달리 부자는 높은 지위를 누리고 거만을 떨며 큰소리를 치면서 오만 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풍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많은 사람이 돈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겠느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존엄성과 인격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본분을 이행할 기회와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냐? 이는 사람에게 손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 이런 말로 사람을 이 정도로 패괴시켰다. 사탄의 속셈이 음흉하지 않느냐? 이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 아니더냐? 이런 말이 유행할 때 처음에는 수긍하지 못하던 네가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너라는 사람의 마음은 사탄에게 철저히 빼앗겼다. 그래서 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벌써 얼마나 영향을 받았더냐? 참도이고 진리임을 알면서도 추구할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으며, 진리를 얻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미래와 운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맞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해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어도, 너는 오로지 이 말만 고집하고 집착하며 자신을 바친다. 즉, 이 말이 네 행위와 사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이 말에 네 운명이 좌우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어 끌려다니는 것은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겠느냐? 사탄의 철학과 패괴 성품이 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탄이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패괴시키는 것을 보았느냐? 느꼈느냐? (아닙니다.)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 그럼 이제 사탄의 사악함을 알겠느냐?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람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사상, 관점, 사탄에게서 비롯된 사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보물처럼 끌어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농락당한다. 이렇게 사람은 사탄에 의해 갈수록 패괴된다.

사탄은 위의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적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전통문화에 물든 채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전통문화의 계승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전통문화를 이어 간다. 또한, 사람은 사탄이 만든 사회 풍조에 발을 맞춘다. 사람은 이렇게 사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탄이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협조한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사악함, 간사함, 악독함, 교만함을 받아들인다. 사탄의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된 후 이 패괴된 인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슬프겠느냐? (슬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모두 패괴된 것들에 결박당하고 지배당하여 죄악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쓴, 유식해 보이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점잖게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청산유수이며 근거가 탄탄하다. 다양한 일을 두루 겪었기에 경험과 경력이 풍부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일의 이치와 진위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의 행위, 외모, 인격, 인성, 됨됨이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의 사회 풍조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회 풍조에 뒤처지지 않고 평생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내적 본질은 사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점잖으며, 유식하고, 윤리 의식과 인품을 갖추어 흠잡을 구석이 없어 보이고, 젊은 세대만큼 아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사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완전히 살아 있는 사탄의 모델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켜 거둔 ‘성과’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사람이 습득한 지식, 사람이 지닌 과학, 사람이 사회 풍조에 발맞추기 위해 선택한 방식, 이 모두가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수단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듯 철저히 사탄의 파괴 성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의 행위 역시 비정상적인 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하고,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공부하며, 말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좀 배워 말을 잘하고,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고, 타인을 돕는다. 또 은혜를 베풀고, 계산적으로 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덕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파괴된 성품은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 본질은 외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이런 본질을 지녔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지 알지 못한다. 설령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공개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탄이 이미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 관점과 사상을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 점령과 파괴는 일시적이거나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3~4년, 5~6년 믿고도 사탄이 주입한 사악한 사상과 관점, 논리와 철학을 여전히 보물인 양 끌어안고 내려놓지 못한다. 사람이 사탄 본성에서 비롯된 사악하고, 교만하고, 악독한 것들을 받아들였기에 사람들 사이에 언쟁과 싸움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사탄의 교만한 본성이 초래한 것이다. 사탄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주었다면, 예를 들어 사람이 유교와 도교와 같은 전통문화를 수용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아들이고도 더 심하게 분열하겠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고,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 겉으로 그럴싸하고 위대해 보여도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 그리고 살아 내게 한 것은 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사악한 본성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위장에 능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사탄에 의해 파괴된 성품을 감출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몹시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네 생각에 성인(聖人) 같은 사람이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네가 그를 아무리 깨끗하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삶 이면에서, 그들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본질을 보면 다 무엇이더냐? 완전히 사탄의 사악한 본성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변에서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이나 우러러보았던 우상을 예로 들어 보자. 현재의 네 분량으로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우선 너는 그에게 인성이 있는지, 정직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가 드러낸, 소위 말하는 선량함, 사랑, 훌륭함은 무엇이냐? 모두 위선과 허상일 뿐이다. 그러한 허상 뒤에는 자신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하려는 은밀하고 사악한 목적이 숨어 있다. 이제 확실히 간파했느냐? (네.)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긍정적인 것이 있겠느냐? 우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유명인, 위인이나 잡지, 간행물의 선악, 시비 분별 기준이 정확하겠느냐?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겠느냐? 진리가 담겨 있겠느냐? 이 세상과 인류가 진리의 기준에 따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가늠하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에는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이해하게 됐으면 능력도 대단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무엇 때문이겠느냐? (사람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지식은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은 사악함과 파괴일 뿐, 진리, 생명, 길이 없다. 사탄은 사람에게 이런 사악함과 파괴를 가져다주었는데, 사탄에게 사랑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인류에게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선 단체들도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행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떠냐? 사탄은 온갖 방법과 학설로 사람을 파괴시킨다.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다는 것이 모호한 개념이냐? 모호하지 않다. 사탄도 이 세상과 사회에서 어떠한 관점, 학설을 제창하며 실제적인 일들을 하고, 각 연대, 각 시기마다 학설을 제창하며 사람에게 사상을 주입한다. 이런 사상과 학설은 사람의 마음에 차츰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사람은 그런 학설과 사상들에 의존해 살게 된다. 사람이 그런 것들에 의존해 살아가면

사탄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사탄과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탄과 하나가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겠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겠느냐? 이를 인정하기는 두려운가 보구나. 그렇지 않느냐? 더없이 무서운 일이다! 어째서 사탄의 본성을 사악하다고 하겠느냐? 사탄이 저지른 일과 드러낸 것에 따라 그것을 규정하고 해부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저 말로만 사탄이 사악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탄은 사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탄이 어떤 면에서 사악하냐?”라고 물으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니 사악하지요.”라며 얼버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사탄의 사악한 본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정확히 간파하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말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에 대해 교통할 때, 사탄의 사악한 본질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하냐? (사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하냐? 그 말도 반은 맞다. 즉, 사탄의 사악함 없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없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탄의 사악함으로 부각되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말이 옳겠느냐? 이렇게 변증하듯 하는 말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고유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무엇이 발현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로, 줄곧 존재해 온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다만 사람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사람은 사탄의 패괴 성품으로 살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더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니 먼저 사탄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항상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사탄의 사악한 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문이 해소되었느냐? 사람이 사탄의 사악함을 분별하고, 이를 정확히 정의하여 사악함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도, 근원과 본질을 모두 똑똑히 본 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논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거나 인식할 수 있다. 내가 사탄의 사악함을 언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나 인류 가운데서 사람이 행한 일,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 중에도 거룩함과 연관된 것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는 잘못된 관점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방금 이렇게 사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지난 몇 년간의 체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그의 거룩함에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느냐? 이야기해 보아라.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해 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만 가리키더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더냐? 그러면 지나치게 단편적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 외에도 다른 측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 풍속, 미신들을 혐오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한다는 의미이냐?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혐오뿐인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사악한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는 추리 아니더냐? 일종의 추론, 판단이 아니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 가는 데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실제에서 벗어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추리와 상상입니다.) 그 역시 가장 피해야 할 것들이다. 추리와 상상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추리한 것과 상상한 것이 실제로 본 것이더냐?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더냐? (아닙니다.) 그럼 또 무엇을 피해야겠느냐?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나열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허풍 아니겠느냐? 헛소리 아니겠느냐? 판단과 추리도 헛소리이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 것도 헛소리이다. 근거 없는 찬미도 헛소리 아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런 헛소리를 들으면 즐겁겠느냐? (아닙니다.) 듣기 괴롭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모른다. 누군가 “하나님이 좋습니까?”라고 물으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라는 물음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답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한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묘사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아주아주 사랑하십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이요!”라고 대답한다. 이는 헛소리 아니더냐? 이 헛소리는 너희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사탄의 패괴 성품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도 헛소리를 한 것 아니겠느냐? 헛소리는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사탄에게서 비롯됩니다.) 헛소리는 주로 사람의 무책임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경 아니겠느냐? 지식을 조금 습득했다고, 추리와 논리를 약간 알게 되었다고 여기에 모두 적용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적용했으니 하나님이 듣고 괴롭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냐? 듣기만 해도 거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을 언급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게 된

것만큼 이야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실재를 이야기해라. 빈말을 하지 말고 아부를 떨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사탄은 성품이 교만하여 사람이 자신에게 아부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인류가 배운 사탕발림을 충동원하여 비위를 맞춰 줘야만 만족하고 기뻐한다. 반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과 아첨을 원하지 않으며, 사람이 무턱대고 하는 허튼소리, 근거 없는 찬미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찬미와 아부를 혐오하여 아예 듣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의 가식적인 찬미, 터무니없는 서원과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다. 너는 네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고, 인식했다면 실제적인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참된 인식이 있느냐? (패역을 드러냈을 때, 과오를 범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 뜻에 맞지 않는 환경에 처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사탄에 의해 패괴되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대가를 아끼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말이자 참된 깨달음이구나. 다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저는 사탄이 말로 하와가 죄짓도록 유인한 것과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서 사탄의 사악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일러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매우 직설적이고, 깨끗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은 몇 사람의 말 중에 누구의 말에 아멘을 하게 되느냐? 누구의 교제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주제에 더 가깝고 실제적이냐?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자매의 교제가 어떠하냐? (좋습니다.) 너희는 자매의 말에 아멘을 했는데 어떤 말이 핵심을 찔렀느냐? (방금 자매님이 한 말에서 저는 돌려 말하는 사탄의 화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한 측면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나? (네.) 아주 좋다. 너희가 두 차례 교제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은 것 같구나.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아주 깊은 공과여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한두 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탄의 갖가지 패괴 성품, 지식, 철학, 사람의 사상과 관점, 그리고 사람에게 원래 있는 갖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 가는 데에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주제를 들으면서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실제 상황과 연관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너희의 인식을 들어 보니,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내 말과 교제의 내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알고자 하는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더 기쁜 것은 몇몇 사람들이 이미 가장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묘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나도 언급한 적이 있는 매우 단순한 말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인정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말을 새긴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는 바람직한 시작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심오하다고 느끼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하고 교제를 했으면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향후 누군가 너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다. 일단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 교제해라. 교제를 함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여 더 많은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 진입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간과하지 말고 장난으로 여기지도 마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근본이고,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를 알지 못하고 문구와 이치로만 살아간다면, 소위 말하는 진리의 표면적인 의미대로 행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즉,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를 알지 못한다면 너의 믿음은 제로이고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4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6

하나님의 거룩함(3)

지난번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질과 관련해 어떤 주제를 나누었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맞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본질이다. 지난번 우리는 주로 어떤 내용을 나누었느냐? (사탄의 사악함을 분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패괴시키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지식, 과학, 전통문화, 미신,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사람을 패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주요 내용이다. 사탄은 지식, 과학, 미신, 전통문화, 그리고 사회 풍조를 가지고 사람을

패괴시킨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다섯 가지다. 너희는 사탄이 그중 무엇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패괴시킨다고 생각하느냐? (전통문화입니다. 사탄의 철학, 즉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과 같은 사상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식입니다. 지식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주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만듭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야만 좋은 미래와 운명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사탄이 지식을 이용해 너의 미래와 운명을 통제하면, 너는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이것이 네가 사탄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패괴시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너희 대부분이 사탄이 지식을 이용해 사람을 가장 심하게 패괴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 과학이나 사회 풍조라고 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다섯 가지 각기 다른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자. 교제를 마치고 나면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패괴시키는지 보도록 하자.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지식이다. 그럼 지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 사탄은 지식을 미끼로 쓴다. 잘 듣거라. 지식은 다만 미끼일 뿐이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며 매일 정진하도록 유도하고, 사람이 지식을 무기 삼아 자신을 무장하게 한 후 지식으로 과학의 문을 열게 한다.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많이 익힐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말한다. 이걸 모두 사탄이 알려 주는 것들이다. 또한 사탄은 지식을 습득하고 원대한 이상(理想)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이런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메시지가 옳고 유익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정해 놓은 길을 가고, 이상과 포부에 끌려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은 사탄이 주는 지식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위인과 유명인의 사상을 배우고, 사람이 보기에 영웅인 인물의 행적을 본받게 된다. 사탄은 ‘영웅’들의 행적을 통해 사람에게 무엇을 권장하느냐? 어떤 것을 주입하고자 하느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지조와 영웅적 기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입한다. 사람은 역사 이야기나 영웅 전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의리가 있어야 하고 친구나 의형제를 위해서는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사람은 사탄의 지식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어느새 사람의 어린 마음에는 사탄이 미리 준비해 놓은 씨앗들이 심어진다. 그런 씨앗으로 인해 사람은 위인, 유명인, 영웅, 애국자, 가정적인 사람, 친구를 위해 위험도

무릅쓰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준비해 놓은 길을 가게 된다. 사람이 그 길을 가는 동안 사탄은 자신의 생존 법칙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럼 사람에겐 부지불식간에 자신만의 생존 법칙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강제로 주입한 사탄의 생존 법칙이다. 사탄은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생존 목표, 생존 법칙, 생존의 방향을 정하게 하며, 사탄에게 속한 것들을 주입한다. 이야기나 전기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조금씩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문학을, 어떤 사람은 경제를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문 지리,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신학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지식의 일부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또한 누구나 다 접해봤던 것들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지식들 중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식이 얼마나 사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지식들이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사람이 특정 지식 분야에 흥미를 가지거나 깊이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품게 된다. 작가나 문학가를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나 정치인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꿈인 사람도 있다. 또 영웅이나 위인,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인물이 되길 꿈꾸든, 사람의 목표는 모두 배움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는 목적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번 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큰 업적을 세우고 싶어서라든가 등의 말로 미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탄이 이런 것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너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 사탄이 어떻게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사탄이 지식을 통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려는 건지 알아보자. 사람을 어떤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건 당연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네가 목격한, 지식 습득 후 생겨난 결과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걸 잘 모를 것이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단순한 특정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꿈을 이루게 만들기도 한다. 사탄은 대체 너를 어떤 길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걸까? 사람은 지식 학습이 비난할 만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게 말해서,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진다는 것은 패기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크게 성공하는 게 더 멋진 삶 아닌가? 가문을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떨칠 수 있으니 좋은 일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는 좋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사람을 그러한 길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칠까? 당연히 아니다. 사실,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든,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일까? 바로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공격적인 방법 대신 부드럽고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고 온건한 방법을 써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생존 방법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인생의 꿈이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에는 ‘명예’와 ‘이익’으로 귀결된다. 어떤 위인이냐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두 가지뿐이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유흥과 육적인 향락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미래와 운명마저 사탄에게 확실하게 넘겨 버린다. 그러고는 이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면 광명도, 정의도, 아름다움과 선함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이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히 좇아도 끝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혹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시대나 세상에 뒤처져 도태되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배움이란 자신의 직업, 미래, 생계를 위한 것일 뿐이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의식주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힘들게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과 고된 시간을 견디는 것일까? 바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다. 명예와 이익이 눈앞에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하고 싸워야 명예와 이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평탄한 길을 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 정도 고생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생존 법칙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인생의 ‘원대한 이상’이 아니겠느냐? 위인의 사상, 유명인의 품격, 영웅의 기개,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협객이나 검객이 가진 강직함과 부드러움을 예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생각이 한 세대 또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며 이를 끊임없이 좇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수단이다. 사탄에게 끌려 이러한 길을 가게 된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지식과 사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느냐? 진리에 속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없다. ‘명예’와 ‘이익’은 사탄이 사람을 사악한 길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다시 복습해 보자.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단단히 움아매느냐? (명예와 이익입니다.) 사탄은 명예와 이익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만 사로잡혀 이를 위해 분투하고, 고생하고, 치욕을 참고,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놓았다. 족쇄가 채워진 사람은 족쇄에서 벗어날 능력이나 용기가 없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족쇄를 차고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인류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며,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이 사탄의 명예와 이익에 넘어가 파멸한다. 지금 보니 사탄의 이런 음흉한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느냐? 오늘은 너희가 아직 사탄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명예와 이익이 없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이익이 없으면 앞으로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 없고 칙흑같이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명예와 이익이 얼마나 큰 사탄의 족쇄인지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깨닫고 나면, 사탄의 통제와 사탄이 묶어 놓은 족쇄에 철저하게 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탄이 주입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과 완전히 결별하고 사탄이 준 모든 것을 진심으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서 사탄이 과학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 것에 대해 교제해 보자. 우선, 사탄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 과학이나 비밀을 향한 탐구욕을 충족시킨다. 또한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물질적인 욕구, 갈수록 높아지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삼아 사탄은 과학을 내세워 사람을 패괴시킨다. 사탄이 과학을 통해 패괴시키는 것이 비단 사람의 생각과 머리뿐일까? 우리가 보았거나 접했던 주변의 사람과 일, 사물을 생각해 보자. 사탄이 과학으로 또 무엇을 패괴시켰느냐? (자연환경입니다.) 그렇다. 너희도 큰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잘 알고 있구나. 사탄은 각종 과학 정설과 과학적 결론으로 사람을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적 수단을 이용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생존 환경을 함부로 개발하고 파괴한다. 과학을 연구하면 생존 환경이 점점 개선될 것이고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물질적 수요와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데 과학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느냐?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류가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진짜로 깨끗할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천연 식품이냐? 대부분이 화학비료나 유전자 변형으로 재배되거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조차 천연 식품이 아니다. 요즘에는 온전한 천연 상태의 계란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탄이 말하는 소위 과학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계란 본연의 맛이 다 사라졌다. 더 넓게 보면 공기가 망가지고 오염되었으며, 산천, 호수, 삼림, 강, 바다, 땅, 지하 모두 소위 과학적 성과에 의해 파괴되었다. 즉,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생태계와 생존 환경 전체가 소위 말하는 과학에 의해 훼손되고 못 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기대만큼 향상되었고 사람의 욕망과 욕은 충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존해야 할 환경은 여러 과학적 ‘성과’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공기 한 모금 마실 권리조차 잃어버렸다. 이것이 인류의 비애가 아니겠느냐?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을 논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즉 이 생존 환경은 본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것이었다. 사람이 마시는 물, 공기, 사람이 먹는 식재료, 식물, 나무 그리고 바다까지, 이러한 생존 환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자연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다. 과학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 누릴 수 있게 된 것들로 본디 행복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태초의 상태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탄에 의해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은 이미 태초의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사탄이 주입한 생각을 바탕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다룬다. 참으로 가증스럽기도

하고 또 붙잡히기도 하지 않느냐? 지금 사탄이 사람의 생존 공간과 환경을 이 모양으로 망쳐 놓았다. 인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류를 친히 멸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인류는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멸망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사람은 탐욕스럽게 명예와 이익을 좇을 뿐만 아니라 과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연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먼저 생태계가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인류의 오장육부는 모두 이런 환경 속에서 오염되고 망가졌으며, 각종 전염병과 유행병이 도처에 창궐하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사탄을 쫓아가며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고, 과학을 이용해 인생의 미래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자연히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알 수 있느냐? (멸망입니다.) 바로 멸망이다. 한 걸음씩 멸망을 향해 걸어간다. 한 걸음씩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 보면, 과학은 사탄이 사람의 혼을 빼놓기 위해 조제한 약과 같아서 너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사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사탄은 또 과학이란 이름으로 너의 흥미를 유발하고 너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사탄이 전통문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패괴시키는 것이다. 전통문화와 미신은 비슷한 점이 많다. 다만 전통문화는 이야기, 유례, 출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사탄은 수많은 이야기를 날조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역사책에 실어 전통문화나 미신과 관련된 인물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 예를 들면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넌 이야기, 당나라 승려가 인도에 가서 불경을 구하는 이야기, 옥황상제 이야기, 정의로운 소년 나타와 악을 저지르는 동해 용왕 사이의 대결을 다룬 이야기, 봉신연의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중국에서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일지라도 마음과 머리에 아로새겨져 잊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미리부터 마련해 둔 것이다. 사탄이 시대별로 퍼뜨리는 각종 사상이나 전설 이야기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갇아먹고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각종 마법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즉, 네가 그러한 전통문화와 이야기, 미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과 머릿속에 새기는 순간, 마치 마법과 저주에 걸린 것 같다. 즉, 그런 문화와 사상, 전통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의 삶과 인생관에 영향을 미치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길을 찾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떨쳐 내려고 해도 떨쳐 낼 수 없는 마법과 저주이다. 게다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법과 저주에 걸리면 무의식적으로 사탄을 경배하게 되고, 마음속에 사탄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된다. 즉, 사탄을 자신의 우상 또는 자신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게 된다. 너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나 전설이 가짜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이야기 속의 인물이나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상과 그것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마귀와 사탄, 우상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법과 저주이다. 공감하느냐? (네.) 너희 중 향을 피우면서 부처를 숭배했던 사람이 있느냐? (네.) 어떤 목적으로 향을 피우고 부처를 숭배했느냐? (안녕을 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탄에게 안녕을 빈 것이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안녕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때 참 어리석지 않았느냐?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이었다. 그렇지? 사탄은 어떻게 너를 패괴시킬지에 대해 열중하지 안녕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일시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해줄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래도 서원을 해야 한다. 네가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서원을 저버리면 사탄이 너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서원을 하게 해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너희는 안녕을 빌어서 안녕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안녕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입었고, 게다가 불행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하에 안녕이란 없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이 바로 봉건적 미신과 전통문화가 인류에게 초래한 결과이다.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마지막 방법은 사회 풍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회 풍조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패션, 뷰티, 헤어, 미식을 가리키는 건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것이냐? 그것도 풍조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회 풍조가 사람의 생각, 처세 방식, 생존 목표와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풍조에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 있다. 사람은 사악한 기운에 물들어 계속해서 타락하고, 양심, 인성, 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도덕성, 인격과 품격도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사람은 인격과 인성, 양심, 그리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풍조는 과연 어떤 것일까? 풍조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풍조라는 바람이 불 때 앞장서서 그런 일, 그런 사상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풍조에 물들고, 동화되고, 매료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풍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매몰되거나 지배받기도

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풍조 속에서 원래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애당초 모르는 사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런 풍조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사탄의 생존관과 가치관, 사탄이 사람에게 알려 준 삶을 대하는 방법, 사탄이 사람에게 ‘선사’한 생존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은 거부할 힘이나 능력이 없거니와 거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풍조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간단한 예를 들면 너희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장사를 할 때 고객이 누구이든 상도를 지켰고, 물건 가격을 제멋대로 부르는 일이 없었다. 조금이나마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신조를 지키며 장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과 인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갈수록 돈, 이익, 안락함에 큰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은 돈을 더 중시하게 되지 않겠느냐? 돈을 더 중시하면 자신도 모르게 명예, 명성, 신용, 인격을 간과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온갖 사기 수법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갈수록 많은 돈을 쓸어 담는다. 똑같이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배가 아프다. 그럼 너는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벌지 못하지? 나도 어떻게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돈 벌 방법을 궁리한다. 평소에 하던 대로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면 양심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너는 이익에 눈이 멀면서 조금씩 생각이 변하게 된다. 생각이 변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원칙도 변하기 시작한다. 처음 남을 속일 때는 ‘이번만 남을 속이고 다시는 사기를 치지 않을 거야. 사기를 쳐서는 안 돼. 천벌을 받고 후환이 생기니까!’라고 생각하며 조금 망설인다. 처음 사기를 칠 때는 양심의 작용으로 망설여지고 마음이 찢리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사기 치는 데에 성공하고 평소보다 많은 돈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만 자신이 거둔 성공에 기뻐하며 자축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합리화하게 된다. 사람이 도박에 물들면 도박꾼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에 물들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사기 행각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사기를 일종의 정당한 비즈니스 행위 또는 자신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게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기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행위와 방법을 경멸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사기를 시도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음이 점차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변할까? 그러한 풍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사회 풍조가 주입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사할 때 사기를 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봤거나 뭔가를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부지불식간에 ‘사기를 치는’ 것이 너의 영혼으로 자리 잡고, 너의 중심이 되며, 생존을 위해 꼭 해야 할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사람이 그러한 행위와 생각을 받아들일 때면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마음이 변한다. 그럼 너의 인격은 어떨까? 인성은 어떠하겠느냐? 너의 양심은 또 어떻겠느냐?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심지어 안팎으로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너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사탄과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사탄을 닮아 가는 것이다.

이제 보니 이런 사회 풍조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사람에게 큰 해악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크나큰 해악을 초래한다! 사탄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사람의 무엇을 파괴시키느냐? (양심, 이성, 인성, 도덕성, 생존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람을 조금씩 타락시키지 않느냐? 사탄은 이런 사회 풍조를 이용하여 사람을 악마의 소굴로 조금씩 유인한다.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돈, 물욕, 사악함, 폭력을 숭상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사탄 마귀로 변한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지향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냐? 사람이 무엇을 숭배하느냐? 사악함과 폭력을 좋아하게 되는 반면 아름다움과 선함을 싫어하고, 평화는 더욱 싫어하게 된다. 그리고 정상 인성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적인 향락을 즐기고 자신의 욕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싶어 하며, 그 어떤 제약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사람이 이런 풍조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습득했던 지식이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네가 잘 알고 있는 전통문화와 미신이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전통적 윤리 도덕과 예의가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삼자경》이 그런 풍조에서 발을 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교만해지며, 안하무인이 된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악랄해진다. 사람 사이의 정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지며, 친척과 친구에 대한 이해심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엔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밥그릇을 차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폭력적이고 사악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한다. 이 인류가 무시무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어 보니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너희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느냐? 지금은 조금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지? (네.) 너희들의

말투를 들어 보니 ‘사탄이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패괴시키고 틈만 찾으면 파고드는데, 과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구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옥황상제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공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관음보살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미쳐 날뛰면서 해를 가하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는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잃었고 패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패괴시키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느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실의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너희는 꽤 강렬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해 주는 내용을 깨달을수록 너희는 더욱 자신이 구원받을 가망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희는 조급해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사탄의 사악함’은 진짜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된 본질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과 사탄의 사악함을 얘기해야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야 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다룬 목적은 사탄의 사악함을 알게 하고,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인지 더 깊이 이해시키고자 함이다.

방금 언급한 몇 가지 내용이 지난번보다 구체적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는 더 깊은 인식을 얻었느냐? (네.)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겠다. 집중해서 듣거라. 그다음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 나는 직접 말해 주지 않고 너희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려 하는데 이런 방식은 어떠냐? (좋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듣거라!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고 있을 때, 사람을 닥치는 대로 해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못 본 척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을 분명하고 똑똑히 알고 있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거나 풍조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해 나갔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사역을 할 때나 누군가를 택할 때,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사탄에게도 선포하지 않고, 요란하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우선 하나님은 네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 주었다. 너의 가정

환경, 부모, 조상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다. 네가 태어날 가정을 정한 다음에는 네가 태어날 날짜도 정했다. 이어서 네가 울며 태어나는 모습, 네가 웅얼웅얼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았다. 한 걸음씩, 너는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으며,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호시탐탐 노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이나 일, 사물, 공간,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는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뿐이다. 너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좌절, 질병,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곁에서 너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이 길을 걷는 너의 생명과 미래를 엄격하게 지켜 주었으며, 너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느새 너는 장성하여 새로운 사물을 접하게 되고, 이 세상과 이 인류를 알아 가기 시작한다. 모든 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너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길 좋아하며, 자신의 인성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조금씩 성장하고,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도 세상을 알아 가고 접하는 과정에서 꿈을 키운다. 자신의 취미,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게 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본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눈에 담고 있다. 어쩌면 너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아가고, 자라고,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한다. 이는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아무 개념도 없어 보이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 주겠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은 너에게 수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알리지 않고, 네가 알게 하지도 않으며, 너에게 말한 적도 없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다른 일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바로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 말이 너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아 “안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다. ‘안전’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 너희는 평안함, 재앙도 화도 없는 것, 멀쩡하게 사는 것, 정상적인 삶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안전’이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정말 너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일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켜 준다는 의미이다. 중요한 일이지 않으냐? 사탄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지 않으냐?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탄에게 먹히는 순간, 너의 영혼과 육체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 그런 사람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네가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중요한 일이지 않으냐? 그런데도 너희는 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아무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지 못했나 보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도 많은 사역을 하였다. 즉, 한 사람을 택하고 구원하기 위해 많은 예비 사역을 한 것이다. 우선, 하나님은 너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소유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부모는 누구일지, 형제는 몇 명일지, 그 가정 상황과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지,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등을 다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할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느냐? 대단한 지위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느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드물다. 그럼 억만장자, 천만장자의 집안처럼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하겠느냐? (평범한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느냐? 근로자 가정이 있다. 근로자는 급여로 생활하며,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농민 가정도 있다. 농민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 배를 곯거나 추위에 떨지는 않는다. 자그마한 장사를 하는 가정도 있다. 부모가 지식인인 가정도 평범한 가정에 속한다. 부모가 기껏해야 회사원이거나 낮은 직급의 공무원인 가정도 상류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이는 다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생각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 준 가정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다.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경제력이 평범하고, 이렇다 할 사회적 지위가 없다.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성장(省長)이나 대통령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껏해야 작은 회사의 과장이나 사장으로 평범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가정생활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일단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가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부모가 평범한 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정해 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모든 일을 묵묵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길을 예비하고, 각종 조건을 예비한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시점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때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점이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때이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미 부모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녀의 신분으로 남아 있다. 즉,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미혼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택할 시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다가갈 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았고, 환경까지 마련해 놓았다. 누구를 통해 혹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시켜 너에게 복음을 전해 줄지,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지를 정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모든 조건을 예비해 두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그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그의 사역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겠느냐? 우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과 일, 사물을 마련하여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다른 이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은 누가 마련한 것이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병 때문에 온 가족 또는 가족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겉보기에는 가족이 병에 걸린 것 같지만 사실 이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준 계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늘 가정에 평안이 없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에게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평안이 깃듭니다.”라고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계기 아니겠느냐? 가정에 평안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준 은혜 아니겠느냐? 또 다른 이유로 믿게 된 사람도 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 네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안배와 인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너를 택하고 하나님의 집까지 데리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이다.

지금의 이 말세 사역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은혜와 축복만 주는 사역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람을 달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 사역의 다양한 면을 체험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보게 된다. 또한 이 기간에 하나님은 공급과 붙들, 깨우침, 인도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그의 뜻과 그의 말씀, 그가 사람에게 준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한다. 사람이 연약하거나 소극적이거나 길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해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그리하여 유약한 사람의 분량을 조금씩 강하게 키워 주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패괴 성품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가차 없이 사람을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그러나 사람의 우매함과 무지함, 연약함과 유약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인내한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다양한 사역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며, 조금씩 그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 가고,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사악함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베풀거나 인내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처한 시기, 사람의 분량과 자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공급한다. 그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다. 사람은 그러한 대가와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한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또 한 번 화를 면하게 되었고, 연약함으로 인해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관용을 받게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 인류의 패괴와 인류에게 있는 사탄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 깨우침, 인도를 통해 갈수록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취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겠느냐? 어떤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겠느냐? 즉, 그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에게 사역하여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과 영을 불러 깨우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사람을 인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공급하고 있는지, 누가 사람을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또한 누가

창조주이고, 사람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소생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게 한다. 마음이 깨어나면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한 패괴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하여 하나님을 흠족게 하고자 한다. 사람은 마음이 되살아났을 때 사탄과 완전히 결별한다. 사탄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사탄에게 우롱당하지 않게 된다. 또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흠족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취지이다.

방금 사탄의 사악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사람의 삶은 행복이 없고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가 사람에게 행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니, 기분이 어떠하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심하게 마련한 모든 것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한 일에 오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누군가 정정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를 위해 행한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 너를 보살피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사람은 이런 환경과 배경에서 성장하니,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란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허전하냐? 여전히 소극적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느냐? (인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행하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치른 대가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수많은 위험과 시험을 겪게 된다. 사탄이 네 곁에서 시시각각 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네게 재난과 불행이 닥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즐거워한다. 또한 네가 사탄이 던진 올무에 걸려드는 것을 즐긴다. 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불행과 재난을 피하도록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므로 평안, 즐거움, 복, 신변의 안전 등 사람의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모든 이의 평생의 운명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위라는 개념이 존재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니 내가 너희를 관리하겠다. 모두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며 인류를

위험한 적이 있더냐?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패괴된 인류는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안배해 줄 필요 없이 대충 챙기면 된다.”라고 말씀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매우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 네가 스스로를 대하는 것보다 더 책임감 있게 말이다. 그렇지 않더냐?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지위를 점하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람을 무책임하게 대하거나 기만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진실하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한다. 그렇게 행한 일들은 사람에게 복과 평안, 기쁨을 가져다주었으며, 지금처럼 무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의 구원을 받게 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역하면서 사람을 겉 다르고 속 다르게 대한 적이 있느냐? 가식적으로 대하며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리고 외면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언행이 불일치한 적이 있느냐? “너 대신 이 일을 해 주겠다. 저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공수표를 날리거나 큰소리를 치고 사라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함이나 거짓됨이 없으며 신실하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신실하다. 그는 사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자 사람이 자신의 일생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간사함이 없으니 가장 진실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을 ‘진실하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인간의 관점에 치우친 단어이다. 그러나 인류의 언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도 잠시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측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인류와 다르고 사탄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는 사탄의 패괴 성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에서는 사탄의 그 어떤 사악함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이롭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과 생명이 되고, 길이 되며, 방향이 된다. 하나님께는 패괴가 없다. 또한 우리가 지금 보게 된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어떤 패괴도 없고, 인류의 패괴 성품, 사탄의 본질과 비슷하거나 같은 점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패괴 성품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로, 이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너희는 이를 깨달았느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알게 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본질을 말하겠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패괴 성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 준다. 그 본질은 모두 긍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한 모든 사역은 다 긍정적인 것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근거하여 사람, 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거두게 되는 성과는 사람이 사탄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잔혹한 해를 입지 않으며,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너희는 이 길의 어디까지 걸어왔느냐?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는 최소한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패괴시키는지, 어떤 것이 사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았느냐? 적어도 이제 너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해 말했는데, 너희가 듣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이야? 다시 되새겨 보거라.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하나님의 신실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하나님의 사심 없는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대가 없이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더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낸 이 모든 것은 다 유일무이한 것으로, 패괴된 인류에게는 존재하지도 보이지도 않으며,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의 패괴 성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사탄의 본질과 본성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이런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러한 본질을 지니며,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러한 본질을 갖추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너희는 인류 중에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가 우러러보는 유명인이나 위인, 우상 중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일무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명실상부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도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이 너희가 그동안 생각하고 상상했던 거룩함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흔히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행위 또는 특정 사물을 묘사하거나 서술할 때 거룩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깨끗하고 보기 좋고 이목을 끄는 것일 뿐, 거룩함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없다. 그것이 도리적인 면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실제적인 면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대부분 사람이 ‘거룩하다’고 상상하거나 판단하는 것들 아니더냐? 일례로, 불교 신자들이 수련하다 앉아서 잠든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열반에 들었다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승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또한 상상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개념은 공허한 상상과 이론에 불과하다. 실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본질과도 무관하다. 거룩함의 본질은 진실한 사랑이며, 더 나아가 진리와 공의와 빛의 본질이다. ‘거룩함’이란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어울릴 뿐, 그 어떤 피조물도 거룩하다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는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점이다. 그러니 앞으로 ‘거룩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 사탄이 어떤 수단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역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너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수단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적어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좀 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알고 싶으냐? “왜 또 사탄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사탄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듣고 있으면 온몸이 다 불편해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인식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다.

전에 우리는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과 그것에 포함되는 수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탄이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법은 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뒤에 감춰진 수단이야말로 가장 음흉한 것이다. 사탄은 그런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수단이란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이 요약해 보아라. (기만, 유인, 위협입니다.) 갈수록 적절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보니 사탄에게 큰 해를 입어 느낀 바가 많은 모양이구나. (그 외에 감언이설, 악영향, 강제 점령도 있습니다.) 강제 점령이라, 참으로 인상 깊구나. 사람은 ‘강제 점령’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지 않으냐? 또 뭐가 있겠느냐? (폭력으로 사람을 해치고, 협박과 회유를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로, 그것을 통해 너를 기만한다. 이러한 수단은 어떤 성격을 띠느냐? 거짓말은 기만

아니겠느냐? 사실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너를 속이는 데 있다. 또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가 깨달은 것을 전부 말해 보아라. (유도, 해악, 눈속임,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통제하고, 속박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대충 알겠다. 모두 훌륭하구나. 너희 모두 조금씩은 알고 있으니 이제 총정리를 해 보자.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수단은 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통제와 협박이다. 사탄은 어떻게든 너의 마음을 지배하려 든다. ‘협박’이란 어떤 의미더냐? 위협과 강박으로 그것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결과를 연상하게 만듦으로써 두려움을 느껴 사탄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순순히 따르게 된다.

둘째는 기만과 현혹이다. ‘기만과 현혹’이란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탄은 전설과 거짓말을 지어내어 너를 속이고,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 또한 사탄은 절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이를 대체하고 너를 미혹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이 ‘기만’이란 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는 강제 주입이다. 무엇을 주입하겠느냐? 강제 주입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겠느냐? 사람의 동의를 거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사탄은 네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 생존 법칙, 본질을 주입한다.

넷째는 위협과 회유이다. 즉, 사탄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네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든다. 사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작은 선심을 베풀 때도 있고, 너를 범죄로 유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괴롭힌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너를 공격하고 해를 가한다.

다섯째는 미혹과 마비이다. ‘미혹과 마비’란 사탄이 듣기에 그럴싸하고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말과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다. 언뜻 보기엔 사람의 육적인 것과 삶, 미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속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마비시킨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꼬임에 넘어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여섯째는 심신 파괴이다. 사탄이 사람의 무엇을 파괴하겠느냐? (사람의 마음, 사람 전체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여 거스를 힘을 앗아 간다. 즉, 너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사탄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매일 네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그러한

사상과 문화로 악영향을 끼쳐 너를 몰들인다. 너의 의지를 조금씩 꺾음으로써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거나 소위 말하는 정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말끔히 없애 놓는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맞설 의지를 상실하고 사탄의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 ‘파괴’란 사람을 괴롭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상태로 만든 후 기회를 틈타 집어삼키는 것이다.

사람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이 모든 수단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사지로 내몬다. 즉, 사탄이 동원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든 너를 타락시키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며,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수단이다.

사탄이 사악하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 결과가 무엇인지, 사탄이 사람에게 어떠한 성품과 본질적인 것을 심어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탄의 사악함을 증명해야 한다. 너희 모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으니 말해 보아라.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에게 어떤 파괴 성품이 나타나겠느냐? (교만함, 이기주의, 비열함, 교활함, 간사함, 음흉함, 악랄함, 인간성 상실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성이 없는 것이다. 다른 형제자매들도 말해 보아라. (사람이 사탄에게 파괴된 후 드러내는 전형적인 성품으로는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 잘난 체하는 것, 탐욕스러운 것, 이기적인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파괴된 후 물질과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며 거역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양심과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대부분 비슷하고 지엽적인 내용이 많구나. 종합해 보면 파괴된 인류에게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은 교만함과 간사함, 악랄함, 이기주의다. 그러나 너희가 빠뜨린 것이 한 가지 있다. 너희는 사람이 양심, 이성,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배반이다.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파괴된 후 갖게 되는 이 성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에게 말씀하고 사역해도, 사람은 그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킨 결과이다. 사람의 파괴 성품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사탄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즉 사람이 배우는 지식, 사람이 알고 있는 과학, 미신, 전통문화, 사회 풍조 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거룩함과 사악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기준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근거도 전무하다. 사람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안다 해도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다준 그런 것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겠느냐? 점점 더 사람다운 인성으로 살게 하겠느냐?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겠느냐? (아니요.) 분명 아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지도, 진리를 깨닫게 하지도, 거룩함과 사악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갈수록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사탄이 사악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많은 분석을 하였다. 사탄의 본질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사탄의 본질 중에 거룩하다고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탄의 본질 중에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사탄의 행위 중에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묻겠으니 너희만의 표현으로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이야? 우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특정 성품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결론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먼저, 우리는 사탄의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부각시켰다. 그럼 너는 하나님에게서 사탄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보았느냐? 인류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이기적이지 않으시며,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탄의 패괴 성품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탄에게는 부정적인 것만 있고 하나님께는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저희가 막막해하고 실의에 빠졌을 때 줄곧 저희 곁에서 보살피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간사함도 기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참된 본질입니다.) 훌륭하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어떤 패괴 성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허풍을 치거나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시며, 간사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지혜를 가지게 하시며, 선과 악, 그리고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 말했느냐? 너희가 이야기한 것에 만족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 모두의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감성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행한 사역을 느낄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께 은혜, 축복, 깨우침과 빛 비춤, 심판과 형벌 등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알게나마 알고 있다.

오늘 나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대부분은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너희는 길을 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체험하면서 조금씩 느끼고 알아 가야 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인식은 오랫동안 체험하고, 증명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날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흠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심 없이 모든 것을 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흠잡거나 비난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로 묵묵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질은 공허하지 않고,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며, 지식이나 사람에 대한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 일할 때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소유와 어떠함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말씀은 모든 이에게 더없이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에 사람은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의 진실한 함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해 준 모든 것을 더는 저버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밝고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인성으로 살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갖추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사탄의 박해와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네가 고통의 나락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사심 없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미래, 운명,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을 지닌 피조물과 비피조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물도 너를 구원하고 인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갖는 중요성이다. 나의 이 말들이 너희에게는 그저 도리적으로 작은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지금의 이 말이 앞으로 체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운명을 바꾸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해했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 가는 데에 좀 관심이 생기느냐? (네.) 관심이 생긴다니 좋은 일이구나. 그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 가는 것에 대한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

오늘 모임을 시작할 때 너희가 보인 뜻밖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하거나 감사한 마음 등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는 비난할 만한 사안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이겠느냐? 우선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아까 한 행동이 옳드린 것이냐, 아니면 무릎 꿇고 절한 것이냐? 말해 줄 사람이 있느냐? (옳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옳드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옳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경배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너희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으니 오늘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너희는 평소 예배 모임에서도 옳드리느냐? (아닙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옳드리느냐? (네.) 여건이 되면 기도할 때마다 옳드리느냐? (네.) 좋구나. 그렇지만 나는 오늘 너희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하나님이 무릎 꿇은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두 부류의 사람에 한한다. 성경이나 영적 인물의 행위를 참고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겠다. 먼저, 옳드리는 것과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이 무릎 꿇고 옳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맡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옳드리게 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옳드리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감정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따질 것이 없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은 기도할 때 대부분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늘 너희가 한 행동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너희가 이러한 원칙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드리 무릎 꿇을 기회는 없는 것이겠느냐?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알겠느냐? 서글픈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다.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가 많아지긴 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다. 나는 너희가 조급한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바람이나 마음을 표출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 너희가 한 행동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느꼈기에 너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서 너희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기에 말 한 마디,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돕고 인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일에 정확한 인식과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아주 좋다. 사람이 하나님의 여러 측면의 성품, 소유와 어떠함, 사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문자적인 것, 도리적인 것,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실제 체험 과정에서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고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되살아날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 봐야 한다. 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냉대받거나, 버림받거나, 미움받는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모든 사람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무 후회 없이, 또 주저함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을 갔으면 한다. 어떠한 걱정도, 부담도 없이 말이다. 내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잘못된 길을 갔든, 어떤 과오를 남겼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길에서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 중 가장 귀한 것이다. 이제 너희 마음은 좀 괜찮아졌느냐? (네.) 너희가 모든 일과 내가 한 말을 바르게 대하기를 바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1월 11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7

하나님의 권병,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약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해졌느냐? (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평온해지지 못하면 늘 마음이 들뜨고 다른 생각이 들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요즘 주로 이야기한 내용의 요점은 무엇이더냐?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관련해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권병,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느냐?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권병’에서 너희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너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말씀의 권병과 위력에 대해 교제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책임지시고, 책임지시는 이상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욕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욕의 생명은 취해선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보충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또 말씀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병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신 것에서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며 사탄은 이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역하시든 영으로 사역하시든 하나님의 권병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제를 듣고 나서 너희가 얻은 인식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말했는데, 너희는 그 ‘권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 권병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나타낸 것에서 사람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언제나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병이 크게는 만유를 주재하고, 작게는 사람의 일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았으며, 인생의 여섯 관문은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안배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권병은 그 어떤 피조물과 비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병은 하나님 신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란 말을 지금 너희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면이 있다. 하나님의 권병에 대해 뭔가 실질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느냐? (저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권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저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은밀히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권병입니다.) 아주 좋다. 잘 대답했다.

‘하나님의 권병’을 말할 때 그 요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 부분을 얘기하겠느냐? 우선, 이 부분을 얘기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신분과 만물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지위를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한 일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유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보거나 느끼고 이해한 하나님의 권병을 통해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나?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이야기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권병으로 행한 일과 말씀, 그의 권병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되었다. 즉,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지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의 요점이자 핵심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주제를 잊어버렸다. 이는 하나님의 권병에 대한 너희의 깨달음이 얕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하게는 사람이 하나님 권병의 일면을 보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권병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네가 진정으로 느낀 것은 무엇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느냐? (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한 말씀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을 보고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느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만유를 주재하고 인류의 운명을 주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추었기에 그런 권병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만물 중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나 사물이 있더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재하며, 또한 전 인류를 주재하고 인도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나 사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의 진정한 함의를 이해했느냐?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느냐?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돌아보겠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이번 단계 사역은 심판과 형벌이 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서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창세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씀들을 했고, 그 말씀들을 통해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체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핵심은 무엇이나? 깊이 깨달았거나 체험으로 알게 된 바가 있느냐? (당시 인류가 심히 패괴되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불태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았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 수 있었겠느냐? 그래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나라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저주에서도 조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한 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볼 수 있느냐? (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관용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인류의 회개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를 전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성품의 발로를 분명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이야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금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중에서, 너희가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어떤 것이냐? 경험한 대로 말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신 환경 속에서 진리를 구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마음을 밝게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마음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관념과 상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니 점차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거룩하며,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에는 나타나시고 더러운 곳에는 나타나지 않으심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분량과 자질이 다른 만큼 하나님의 요구도 각각 달랐습니다. 저희는 모두 서로 다른 정도로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다들 실제적인 인식을 조금씩 갖고 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아 갈 때는 체험 측면의 내용이 아주 많지만, 먼저 몇 가지 중점을 알려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증오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든, 얼마나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든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하나님의 존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총애하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 관용을 베푸지만 한 번도 지나치게 사랑한 적은 없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원칙과 범위가 있다. 네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절대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긴다면, 피조물과 동등한 한 사람이나 친구, 혹은 숭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감추고 너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다. “네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친척이나 친구로 여기거나 단짝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네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얼마나 크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너의 친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알겠느냐? 이에 대해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예전에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도리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좋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좋다. 어쨌든 이는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이유는 말한 마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어떤 태도나 내적 상태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족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과 동등해져야 하고 하나님께 허물없이 굴어도 된다고 여긴다. 이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깊은 인식이 없다면 너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잘 알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과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명심해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든, 하나님의 지위와 권병,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분은 영원히 만유를 주재하는 그분, 바로 창조주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너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에서 사탄의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 우리가 이야기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이 아니냐? 그런 소유와 어떠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피조물이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역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너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해 이야기했다. 너희의 말로 너희가 이해한 것을 말해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지난번 예배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절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진실한 인식이다. 또 있느냐?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돌려 말하고 그 속에는 많은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 처리하시는 것에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준수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고 명백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에 의해 파괴된 후부터 언행에는 항상 자신의 속셈과 목적,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긍정적이고 아주 분명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의 발로를 보았습니다.) 잘 이야기했다. 또 보충할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본질을 밝히시어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고, 사탄의 사악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인류가 고통받는 근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하에서 사는 고통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것을 통해 인간이 명예와 이익을 좇으면서 받는 모든 고통이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임을 느꼈습니다.) 더 보충할 것이 있느냐? (패괴된 인류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옳드려 절할 때에도 다른 목적이나 속셈, 불순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치켜세워 주고 옳드려 절하길 원하며, 사탄에게는 원칙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습니다.) 아주 좋다!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았느냐? (네.) 하나님이 모든 긍정적인 사물의 근원임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의 화신임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임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한 사역과 말씀, 나타낸 모든 것에 흠이 없음을 보았느냐? (네.) 이 몇 가지가 내가 말한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이다. 아마도 이런 말이 지금은 너희에게 그저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체험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면, 그때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인류와 다르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본질은 거룩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보게 되었고, 그 거룩함의 본질에 흠이 없음을 보게 되었다. 그의 거룩함의 본질로 그가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임이 결정되었고, 또한 사람이 그가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임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냐?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에 몇 차례에 걸쳐 나눴던 몇몇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다. 너희가 모든 일, 모든 내용의 핵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길 바란다. 그것을 이론으로 여기지 말고 시간이 나면 자주 꺼내 보고 펼쳐 보고 곱씹어 보아라.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현실에서 체험해 보면 내가 말해 준, 하나님에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들을 노트에만 담아 두고 평소에 펼쳐 보거나 곱씹어 보지 않으면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알겠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 성품에 대해 대략적으로 혹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완전해진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어느 면에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의 권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거룩함을 안 다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가 네 마음속에 확립됐겠지만,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네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 가고, 깨닫고,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희에게는 대략 이런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는 것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며, 이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다. 이런 교제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생겼을 것이다. 기초적인 이해가 생긴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1)

오늘 새로운 내용을 교제하려 한다.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이다. 좀 큰 주제같이 들리지 않느냐? 너희 입장에서 조금 닿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 주제가 조금 먼 이야기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꺼낸 것이다. 전에는 사람이 이런 주제에 대해 단순한 인식, 혹은 개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단순하거나 얕은 깨달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한 깊이 있는 체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인식이 얕든 깊든 다 단편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가 이 주제를 꺼낸 것도 너희로 하여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나는 특별한 방식을 쓰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너희에게는 조금 특이하게 들리거나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너희가 듣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느냐? (네.) 너희 모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이야기 방식을 선택한 것은 옳은 선택인 것 같다. 그럼 우리 시작해 보자. 이것은 노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어라.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주위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눈을 감아도 좋다. 너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씨앗, 대지, 나무, 햇빛, 새, 그리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느냐? (씨앗, 대지,

나무, 햇빛,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매우 상쾌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럼 조용히 들어 보아라.

이야기 1. 씨앗, 대지, 나무, 햇빛, 새, 그리고 사람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큰비가 지나간 후 씨앗은 새싹을 틔웠고, 천천히 땅에 뿌리를 내렸다. 새싹은 비바람을 견디고 맑고 흐린 날씨를 견디며 점점 자라났다. 여름에는 대지가 수분을 공급해 주며 뜨거운 날씨를 견디게 해 주었다. 대지 덕에 새싹은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무더위를 넘겼다. 겨울이 되자 대지는 따뜻한 품으로 새싹을 꼭 껴안으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 주었다. 그렇게 새싹은 혹한을 견디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넘겼다. 새싹은 대지의 보호로 즐거워졌고, 용감해졌다. 또한 대지의 아낌없는 공급으로 튼튼해졌다. 새싹은 빗속에서 기뻐 노래하고 바람 속에서 흔들거리고 춤을 추었으며, 즐겁게 성장했다. 새싹과 대지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몇 년 후 새싹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잎은 무성하고 기둥은 굵고 단단했다. 나무는 여전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는 땅속 깊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원래 새싹을 보호하던 땅이 이제는 나무의 기반이 되었다.

한 줄기 햇빛이 나무를 비췄다. 나무는 몸을 흔들고 팔을 뻗으며 햇빛의 기운을 깊숙이 빨아들였다. 나무 발아래에 있던 땅은 나무의 리듬에 따라 호흡했고, 대지는 상쾌함을 느꼈다. 순식간에 나무에서 신선한 기류가 퍼져 나오면서 나무는 기운 넘치고 생기 있게 변했다. 나무와 햇빛은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사람들이 이따금 맑은 향기를 느꼈다. 이 향기는 사람의 심장과 폐를 깨끗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했다. 사람의 몸은 이제 축 처지거나 답답해지지 않았다. 사람과 나무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며 날아와 나무에 앉았다. 어쩌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 어쩌면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 새와 나무는 서로 기대고 의지했다...

나무는 땅속 깊이 열기설기 뒤엎히며 뿌리를 내렸다. 나무는 자신의 몸으로 대지를 위해 바람과 비를 막았고, 팔을 펼쳐 발아래의 대지를 보호했다. 대지는 나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나무와 대지는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고 영원히 함께했다...

자, 이야기가 끝났다. 내가 들려준 씨앗, 대지, 나무, 햇빛, 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는 몇 단락에 불과하다. 너희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느냐? 이런 방식으로 들려주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 너희 느낌을 말해 보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우선,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 있다. 내가 언급한 몇 가지 사물은 너희가 볼 수 있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여기에는 심오한 것도 없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몇 마디 속에 담겨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한 톨의 씨앗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1년 사계절을 — 봄, 여름, 가을, 겨울을 — 거쳤습니다. 대지는 어머니처럼 씨앗을 키워 주었으며, 겨울에는 따뜻함을 제공해 혹한을 넘기게 해 주었습니다. 나무가 자랐을 때 한 줄기 햇빛이 나무를 비추어 나무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중에서 대지 역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지도 나무와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나무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의 인류, 나무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이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말했다! 더 보충할 사람이 있느냐? (한 톨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참 놀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로 연결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기묘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모든 사물은 너희가 본 적이 있는 것들이다. 씨앗은 알고 있을 것이다. 씨앗이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자세히 못 봤겠지만 너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안다. 그렇지? 대지, 햇빛도 알고 있다. 그럼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장면은 다들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나무 아래서 바람을 쐬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느냐? (네.) 그럼 이 몇 가지 사물을 한 장면에 두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 (조화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장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으니 하나님은 이 사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와 가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각각의 사물을 예비하고 만들 때 다 그만의 의도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각각의 사물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이런 생존 환경, 다시 말해 방금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대지와 씨앗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대지는 씨앗을 키워 주고, 씨앗도 대지를 떠날 수 없는 둘 사이의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정해 놓은 것이다. 나무, 햇빛, 새와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생존 환경이다. 우선, 나무는 대지를 떠날 수 없고, 햇빛도 떠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나? 단순히 대지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새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럼 그들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관계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다시 말해, 대지, 나무, 햇빛, 새와 사람 사이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급하는 관계다. 나무는 대지를 보호하고, 대지 또한 나무를 키워 준다. 햇빛은 나무를 비추고, 나무 또한 햇빛에서 신선한 기운을 얻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햇빛의 열기를 약화시킨다. 최종의 수혜자는 누구냐? 최종의 수혜자는 인류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생존 환경을 만든 원칙이자 초심이다.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다. 사람은 대지를 떠날 수 없고, 나무도 떠날 수 없고, 햇빛과 새도 떠날 수 없다. 그렇지? 이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생존 환경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존 환경을 만들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한 핵심은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원칙하에서 인류의 생존 환경이 보존되고 지속되며, 이런 생존 환경이 있기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은 나무, 대지, 햇빛, 새, 그리고 사람이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 하나님이 있느냐? 보지 못했다. 그렇지? 하지만 이 장면 속에서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사는 법칙을 보았고, 이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과 법칙으로 만물의 생존과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방식으로 만물과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와 관계가 있느냐? 겉보기에는 무관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물의 법칙을 창조한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제는 조금 느낄 수 있겠지?

하나님은 만유의 운행 법칙과 만물의 생존 법칙을 주관하며, 만유와 만물을 주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며 멸망이나 소멸에 이르지 않게 한다. 그래야 인류는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런 생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운행 법칙은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으며,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바꿀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러한 운행 법칙을 알고 있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법칙을 관리하고 있다. 나무는 언제 싹을 틔울지, 비는 언제 올지, 대지는 식물에 수분과 영양을 얼마나 공급할지, 낙엽은 어느 계절에 질지, 나무는 어느 계절에 열매를 맺을지, 햇빛이 나무에 양분을 얼마나 줄지, 나무가 햇빛에서 양분을 얻은 후 내쉬는 것은 무엇일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정한 것이다. 이 법칙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 즉 생명을 지닌 것이든 사람이 봤을 때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법칙을 바꿀 수도 깨뜨릴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이런 법칙을 다 정해 놓았다는 뜻이다. 나무는 대지를 떠나 뿌리를 내릴 수도, 싹을 틔울 수도, 자랄 수도 없다. 대지에 나무가 없다면 대지는 말라 버릴 것이다. 나무는 새의 집이 되고 새가 바람을 피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무에게 햇빛이 없으면 되겠느냐? (안 됩니다.) 나무에게 대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인류는 나무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얻으며, 나무가 보호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인류는 햇빛과 여러 가지 생물들을 떠나서 살 수도 없다. 이런 관계가 복잡하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만유의 법칙을 창조한 것은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각각의 사물은 각자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만든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공급’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매일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냐? 나무가 호흡하는 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창조 후에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법칙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나무의 씨앗을 대지에 심으면 스스로 자라난다. 씨앗이 자랄 여건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두었다. 햇빛, 수분, 토양, 공기와 주변의 환경, 바람, 서리, 눈, 비, 1년 사계절, 이것은 나무가 필요로 하는 생존 조건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런 생존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매일 가서 나무에 잎이 몇 장 달렸는지 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겠지? 하나님이 나무의 호흡을 도울 필요도 없다. 햇빛도 하나님이 매일 가서 깨울 필요도 없고, “나와서 나무를 비춰라”라고 할 필요도 없다. 햇빛은 법칙에 따라 때가 되면 나와서 나무를 비춘다. 나무는 필요할 때 햇빛을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역시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너희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만물의 생존 법칙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만물의 생장과 존속이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 이야기 속에 인류가 말하는 비유가 있었느냐? 그럼 말하는 것이 일종의 의인화 기법이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살아 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재하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후 각 사물은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각 사물은 자기 생명의 궤적과 법칙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으니 사람이 바꿀 필요도, 도울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알겠느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야기가 생물학과 관계있느냐? 지식이나

과학과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생물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요점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봤느냐? 나무를 봤느냐? 땅을 봤느냐? (네.) 햇빛도 보았다. 그렇지? 새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느냐? (네.) 그럼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 통해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인류와 만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냐? (이해하기 쉽고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막연하지 않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임을 아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해 보자. 다음 이야기는 내용이 좀 다르다. 주안점도 다르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에도 이야기 방식으로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조용히 듣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이야기를 마치면 너희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보겠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산과 시냇물, 광풍, 거대한 파도이다.

이야기 2. 큰 산과 시냇물, 광풍, 거대한 파도

시냇물이 구불구불 천천히 흘러 산자락에 다다랐다. 큰 산이 시냇물의 길을 막자 시냇물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 줘. 내 앞길을 막았어. 내가 갈 방향을 막았던 말이야.”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시냇물이 답했다. “내 고향을 찾아갈 거야.” 산이 말했다. “좋다. 내 몸을 넘어가거라!” 하지만 시냇물은 너무 약하고 어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큰 산을 넘어가지 못했고, 결국 산자락을 따라 계속 흐를 수밖에 없었다...

광풍이 모래와 자갈, 잡다한 것들을 휩쓸며 큰 산 앞에 다다라 으르렁댔다. “비켜!”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광풍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난 저 너머로 갈 테다!” 산이 말했다. “좋다! 네가 내 허리를 꺾을 수 있다면 지나가거라!” 광풍은 울부짖으며 한 번 또 한 번 도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고 애를 써도 큰 산의 허리를 꺾을 수 없었다. 광풍은 지쳐 발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산 저편에서는 미풍이 조금씩 불어왔고 사람들은 쾌적감을 느꼈다. 그것은 큰 산이 사람들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였다...

해안가에 포말이 넘실거리며 해변의 암석을 가볍게 때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몰아친 거대한 파도가 포효하며 큰 산 앞에 다다라 외쳤다. “비켜!” 산이 물었다. “넌 어디를 가느냐?”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거대한 파도는 계속해서 포효하며 답했다. “난 내 영토를

넓히고 내 팔을 펼칠 거야!” 산이 말했다. “좋다! 네가 내 머리를 넘어갈 수 있다면 길을 내주겠다.” 거대한 파도는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큰 산을 넘을 수 없었고, 결국 천천히 물러났다….

수천 년 동안 시냇물은 산자락을 따라 계속 그렇게 조용히 흘렀다. 시냇물은 큰 산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고향에 도착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큰 산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시냇물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시냇물과 큰 산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수천 년 동안 광풍은 으르렁대는 습성을 바꾸지 않았다. 광풍은 모래와 자갈을 휩쓸며 늘 큰 산을 ‘방문’했고 큰 산을 위협했지만 산허리를 꺾지는 못했다. 큰 산과 광풍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수천 년 동안 거대한 파도 또한 쉼 적이 없었다. 거대한 파도는 땅을 넓히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큰 산을 향해 거듭 포효했다. 하지만 큰 산은 거대한 파도의 포효에 눌러 몸을 비키지는 않았다. 산은 계속 바다를 지켜봤고, 바닷속 만물은 그렇게 번식하고 성장했다. 큰 산과 거대한 파도는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우선 내가 한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일단 큰 산이 있었다. 또 시냇물, 광풍, 거대한 파도가 있었다. 그럼 첫 부분에서 시냇물과 큰 산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시냇물과 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큰 산이 시냇물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시냇물은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산과 시냇물은 서로 의지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냇물 입장에서 큰 산은 보호자냐, 방해꾼이냐? (보호자입니다.) 그럼 방해꾼이 아니란 말이냐? 큰 산과 시냇물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 줬다. 큰 산은 시냇물의 보호자이자 방해꾼이기도 하다. 큰 산은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보호해 줬고, 동시에 곳곳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막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에게 재해를 입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아니냐? 큰 산의 보호 덕에, 시냇물의 장벽 역할을 한 큰 산 덕분에 인류의 보금자리도 보호받게 되었다. 시냇물은 산자락을 따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이것은 시냇물의 생존 법칙이 아니냐? 시냇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냐? 큰 산 덕분이 아니냐? 산의 보호와 방해 덕분이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냐? 여기서 시냇물에게 큰 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저 높고 낮은 산을 창조한 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이는 시냇물과 산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두 사물의 존재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 두 사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나? (광풍과 큰 산입니다.) 바람이 있으면 좋으냐? (네.)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때 바람이 너무 세면 재해가 된다. 네가 광풍 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겠느냐? 물론 풍속 등급을 봐야겠지? 만약 3, 4급 정도라면 견딜 만하다. 기껏해야 눈을 못 뜨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 토네이도가 된다면 견딜 수 있겠느냐? 못 견딘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이 완전히 좋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완전히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 일단 얼마나 센 바람인지 봐야 한다. 그럼 큰 산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람을 거르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큰 산은 불어오는 광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미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대다수 사람이 맞고 느끼는 것은 광풍이나, 미풍이나? (미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큰 산을 창조한 목적이자 의도가 아니냐? 광풍이 늘 모래와 자갈을 몰고 와 아무런 방해나 여과 없이 사람에게 불어닥친다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떻게 되겠느냐?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굴러다닌다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아마도 돌에 맞거나 모래에 눈이 흐려져 앞을 못 볼 것이다. 사람이 바람에 휩쓸려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집이 파손될 수도 있다. 각종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렇다면 광풍은 존재 가치가 없느냐? 바람이 나쁘다고 말하니 사람들은 바람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미풍으로 변하면 광풍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무덥다고 느낄 때, 숨 막히는 공기를 느낄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가장 필요한 것은 미풍이다. 그 미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사람의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진다. 예를 들어, 너희가 지금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답답하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미풍입니다.) 공기가 혼탁한 곳에 가면 공기에 들어 있는 더러운 것이 사람의 사고를 느리게 하고 혈액 순환을 늦추고 머리도 흐리게 만든다. 공기가 통하게 환기를 시키면 공기가 신선해질 것이고 사람의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시냇물이나 광풍은 재난이 될 수 있지만, 큰 산의 존재로 인해 이런 재난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느냐?

세 번째 부분에서 언급한 것은 무엇이나? (큰 산과 거대한 파도입니다.) 큰 산과 거대한 파도이다. 이는 산 아래의 해안가에서 벌어진 장면으로, 우리는 큰 산과 포말, 거대한 파도를 보았다. 거대한 파도의 입장에서 큰 산은 무엇이나? (보호자이자 장벽입니다.)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큰 산은 보호자이자 장벽이다. 보호의 목적은 바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다가 사라지지 않으면 바닷속 만물이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파도의 장벽으로서 해수가 범람하여 재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인류의 보금자리를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거대한 파도에게 있어 큰 산은 보호자이자 장벽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산과 시냇물, 큰 산과 광풍, 큰 산과 거대한 파도가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물들은 각자의 생존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한 후 그냥 내버려 뒀느냐? 어차피 사물 각각에 법칙과 기능을 정해 줬으니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계속 관리했다. 물, 바람, 파도를 관리하며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인류의 터전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할 때 만유의 생존 법칙을 정하고, 이들을 인류에게 이롭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앙을 가져오지 못하게 관리해야 했다.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물이 멋대로 흐르지 않겠느냐? 바람이 멋대로 불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법칙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칙이 없어 바람은 멋대로 불고, 물은 아무렇게나 흘러 사방으로 범람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산을 넘는다면 그 바다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바다는 존재할 수 없다. 큰 산이 거대한 파도보다 높지 않다면 바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산도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잃을 것이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다. 또한 만유를 주재하고 관리하며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 속에서 만유의 일거수일투족, 언행 하나하나를 살피고, 인류가 사는 구석구석을 살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유, 모든 사물의 기능과 성질, 생존 법칙, 생존의 의미, 존재 가치에 대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상대로 그 법칙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지식과 과학을 배워 그것을 연구하고 알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요.) 그럼 인류 중에 박학다식하여 하나님처럼 만물에 대해 잘 아는 자가 있느냐? 없겠지? 진정으로 만물의 생장 법칙을 파악한 천문학자나 생물학자가 있느냐? 그들이 정말로 모든 만물의 존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아무리 높이 쌓고 아무리 오래 배운다 한들 영원히 만물 창조의 비밀과 목적을 측량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이쯤에서 너희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함의를 조금 이해했느냐? (네.) 내가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를 말하니 많은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차원의 의미만 떠올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매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딱히 공급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류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인류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하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유에게, 인류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은 사람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하나님을 앞에 있어, 하나님이 했던 말씀만 알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만 받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권병의 일부만 알면 충분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안 것과 다름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나?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만유를 창조하면서부터 존재했으며,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사역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것 외의 일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권병과 신분, 하나님의 행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특정 무리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이 참된 인식이겠느냐? 이런 식의 인식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는 걸 난 보지도 못했고, 그건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야.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건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만유의 법칙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와 인류에게 공급하는지 따위는 나와 관계없어!’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대역무도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너희 중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교조주의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대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시키고 표면적인 글귀에 국한시킨 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유치하고 종교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매우 알기 어렵다. 오늘 두 이야기를 들려줬다. 막 들었을 때, 막 접했을 때 너희는 조금 심오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이해하기도 알아듣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행사나 하나님 자신과 연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 가운데서 나타낸

모든 행사와 행했던 모든 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앎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만유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허상이나 전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일종의 학설이나 정신적인 지주가 아니라 실재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자신의 방식과 템포로 만유와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만유에 법칙을 부여했기에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제 몫을 다하고, 제 책임을 다하고, 제 역할을 하면서 인류를 위해, 인류의 생존 공간과 생존 환경을 위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인류에게 이런 생존 환경이 없었으면 인류가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것도 빈말에 그치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방금 했던 큰 산과 시냇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큰 산의 역할은 무엇이나? 큰 산에도 만물이 생장한다. 큰 산은 그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시냇물이 제멋대로 흘러 인류에게 재난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 그렇지 않느냐? 큰 산은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자신에게 딸린 만물을 — 나무와 풀, 산속의 각종 동식물을 — 생장시키고 있다. 또한 시냇물에게 방향을 안내하고, 시냇물을 한데 모아 산자락을 따라 흐르게 해 자연스럽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한다. 이런 법칙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이다. 큰 산과 광풍은 어떠냐? 산 자체도 바람이 필요하고 산에 있는 생물도 바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산은 광풍을 풍해로 번지지 않도록 억제하기도 한다. 이 법칙에는 큰 산의 역할이 들어 있다. 큰 산의 역할에 대한 법칙은 자연스럽게 생겼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큰 산은 큰 산의 역할이 있고, 광풍은 광풍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큰 산과 거대한 파도는 어떠냐? 산이 없다면 물이 방향을 가지고 흐를 수 있겠느냐? (아니요.) 물도 범람할 것이다. 큰 산은 큰 산대로 존재 가치가 있고, 바다도 바다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억제한다. 큰 산은 바다가 범람하지 않게 억제하여 인류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고, 또한 바다가 바닷속 만물을 양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경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 장면에서 큰 산은 어디에 돌지, 시냇물은 어디서 흐를지, 광풍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불지, 거대한 파도의 높이는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이미 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이다. 그럼 이제는 만물의 면면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하나님이 만든 만유의 법칙을 연구해

보라는 것이냐? 천문 지리에 관심을 가져 보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사를 알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임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다. 네가 이를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참으로 확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물의 법칙과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우선, 네가 하나님의 이런 행사를 알게 됐을 때 천문 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의혹을 품고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의심할 수 있겠느냐?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의심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의 일부 법칙을 알게 되면, 너는 하나님이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지 않겠느냐? (믿을 것입니다.) 이 ‘공급’은 어떤 특정한 의미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특정한 환경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만유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와 범위에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보이는 만유와 보이지 않는 만유를 공급하며, 인류에게 필요한 이 생존 환경을 떠받치고, 관리하고, 주재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절에 인류에게 어떤 환경이 필요할지 미리 예비해 두었고, 어떤 공기와 온도가 인류의 생존에 적합할지에 대한 것도 관리하고 있다. 이 모든 법칙은 자연이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와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모든 법칙과 만물의 생존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네가 믿든 못 믿든, 네가 볼 수 있든 없든, 네가 이해하든 못 하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만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의 행사를 나타내어 그의 존재 가치를 알게 하고, 그의 신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하였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모호하며, 심지어 의심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연계의 법칙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자연계의 변화와 전환, 자연계의 일부 현상과 모든 법칙이 자연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는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를 관리하고 만유에게 공급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전제 조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고 만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반대로 이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단지 율법시대, 은혜시대, 하나님나라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행사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이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다.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한 모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천지 만물이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뿐, 그것을 관리하는 주재자도, 그것에게 공급하고 유지하는 주재자도 없다고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사임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최대 사각지대인 것이다. 그러기에 일단 내가 성경이나 소위 영적인 용어와 관련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지겨워하며, 영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일과 무관한 것 같다며 듣기 불편해한다. 이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행사를 앞에 있어, 우리가 천문을 말하거나 지리나 생물을 연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에게 공급하며,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공과이다. 이제는 알겠지!

방금 한 두 이야기는 너희에게 있어 내용도 좀 특이하고, 이야기의 전달법이나 표현 방식도 조금 특이하겠지만, 나는 쉬운 말과 쉬운 방식으로 너희가 더 깊은 것을 얻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싶다. 이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다. 너희가 이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이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하고 있음을 보거나 믿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유한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행사를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언제 완전히 실현되어 너희에게서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너희 개인의 체험과 추구에 달렸다. 네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점점 더 깊이 있고 분명한 인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매우 근접하고 거리도 오차도 없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너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없으니,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면 된다.

두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먼저, 두 이야기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무관한 것이냐? 필연적인 연결이 있지 않느냐?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안배한 모든 것이 매우 섬세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한 모든 것, 하나님이 기율인 모든 심혈은 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고심이 확연히 보이지 않느냐? 인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공기를 준비해 놓았으니 사람은 그저 숨만 쉬면 된다. 사람이 먹는 채소와 과일도 미리 마련된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고, 다양한 지대의 농작물과 채소, 과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었다. 큰 환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만물이 서로 상생상극 작용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게 했고, 이런 방식과 법칙으로 만물의 생존과 존재를 유지시키고 보호해주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런 생존 환경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한 세대 한 세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연환경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비록 이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했을지라도 그가 주재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이 환경을 보호하여 균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곳은 공기가 없다. 그런 곳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이므로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는 보호가 되며, 거기에는 다 비밀이 있다. 이러한 환경의 모든 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길이, 너비, 높이, 깊이, 그리고 지구상에 갖춰진 모든 생물, 산 것과 죽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고 예비한 것이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왜 저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이곳에 둔 것은 어떤 목적이고 저것을 저곳에 둔 것은 또 어떤 목적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오래전에 생각해 둔 것이니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일부 우매한 자들은 자꾸 산을 옮기려 한다. 산을 옮기느니 차라리 평원에 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산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산 가까이에서 살려고 하느냐? 이는 우매한 짓이 아니냐? 산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허리케인도 오고 대형 파도도 와서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인류는 파괴에 능하다. 자신의 유일한 생존 환경도 지키지 못하면서 만물의 공급자가 되려고 하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의 주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람이 잘했느냐? 인류는 파괴만 일삼았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만물의 원래 모습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 파괴했다.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고, 평원도 사막으로 바꿔 놓았다. 사막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니 거기에 공업 단지를 세우고 핵 기지를 만들었다. 곳곳을 파괴해 이제는 강이 강 같지 않고, 바다가 바다 같지 않다.... 인류가 이 균형과 법칙을 깨뜨렸으니 인류의 재앙과 인류 멸망의 날이 머지않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재앙이 닥칠 때 인류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모든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 사람은 낙원에서 사는 것같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가령 하나님이 다시 창조할 생각이 없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는 방법이 있느냐?(없습니다.) 사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알려 주면 너희는 듣자마자 이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알 것이다. 인류가 지금 이런 생존 환경에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나? 인류의 탐욕과 파괴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인류가 이런 파괴를 멈추면 이 생존 환경이 점차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파괴를 멈추고 자연을 되돌려 놓는 것이다. 모든 파괴를 멈추면, 즉 하나님이 창조한 만유에 대한 약탈과 훼손을 멈춘다면 인류의 생존 환경은 점차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존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점점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방법이 간단하지 않느냐? 간단하고 실행 가능하다. 그렇지 않느냐? 간단하긴 간단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너희에게는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가능’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알게 된 기초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는 기초에서 나온 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방법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존을 책임질 것이며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네가 사탄에 의해 파괴된 생존 환경에서 병에 걸리거나 오염되거나 침해당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네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네.)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유의 생명 근원임’을 알아야 할 중요성을 조금 느꼈느냐? (네.) 너희의 느낌은 무엇이나? 내게 말해 보아라. (전에는 산이며, 바다며, 호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행사와 연결시키지 않았습시다. 오늘 하나님의 교제를 듣고 나서야 그 속에 하나님의 행사와 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정해 놓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고 있고, 최종 수혜자는 인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사가 이토록 실제적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만물 속에서 사실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보았다.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말만 한마디 하고 그만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심지어 네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창조한 만유 속에서 살면서 만물과 서로 의지하고 있다. 식물이 기체를 뿜어내면 공기가 정화되고, 사람이 그 공기를 마시면 몸에 이롭다. 하지만 어떤 식물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그러나 그 유독 식물과 상극을 이루는 다른 식물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놀라운 점이다! 이 부분의 주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 오늘은 주로 사람과 만물이 서로 의지하고 있고, 사람은 만물을 떠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대략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중요성은 무엇이나? 바로 사람이 만물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이다. 가장 간단한 예로,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안 된다. 너를 진공 속에 둔다면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이전 아주 간단한 이치이다. 이를 통해서 너는 사람이 만물을 떠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태도로 만물을 대해야 하겠느냐? 아끼고,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파괴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말아야 한다. 만물 속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해 준 것이니 사람은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 소소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돌아가서 천천히 음미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다음에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겠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1월 18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8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2)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이 주제가 너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었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얽은 인식이라도 있게 되었느냐? 지난번, 이 주제로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한번 말해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과 인류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고 알았지, 만물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신 진리를 통해 그제서야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법칙을 주관하고, 만물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에게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다루었다. 그 규칙과 법칙으로 인해 만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인류와 함께 동생공사(同生共死)하고 공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물의 생장 법칙, 생장 과정, 생장 방식을 정하였으며, 또 만물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정해 상호

의존하고 끊임없이 번성하도록 해 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법칙과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은 이 땅에서 순조롭고 무사히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생존 환경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먼저 그런 방식으로 만물에게 공급하여 만물이 인류를 위해 존재하고, 인류를 위해 생존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환경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유지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현재의 생존 환경이 있게 된 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논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인류, 즉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고 경영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성경이라는 범위,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범위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성경과 그의 선민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3단계 사역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과 하나님의 3단계 사역에만 국한하여 하나님을 알아 가서는 안 된다. 더 넓은 시각으로 만물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행사, 소유와 어떠함,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법을 보아야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물에게 어떻게 공급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진정한 근원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참된 신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병,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만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지금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즉 너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만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여기서 내가 ‘만물’로 하나님이 주재하는 모든 대상의 범위를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대상은 너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세계뿐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인류가 생존하는 세상 밖의 공간과 천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의 범위이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너희에게 있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일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며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만물의 범위가 매우 넓긴 하지만 너희가 전혀 볼 수 없거나 닿을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만 알려 주어

모두가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어떤 말도 빈말로 끝나지 않게 된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서술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에게 공급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본 개념을 모두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과 3단계 사역 이외에도 사람이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역을 직접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선민들만 인도하고 경영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은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포함한 이 인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고, 이 인류와 세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기본적인 생존 환경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에 대한 주제와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하는 것 외에 인류에게 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게 세심한 관심과 보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며,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육체 생명에 관한 체험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만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어 만물의 생존을 보호하고 만물의 생존 법칙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느냐? 이 주제는 아마도 너희에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심오한 이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진지한 태도로 듣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나? 말해 보거라.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에게 공급하느냐? 하나님이 만물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기에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 있느냐? 보아하니, 내가 말한 이 주제에 대해 너희의 마음과 머릿속은 백지상태인 듯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논하고자 하는 주제와 이야기를 그 어떤 지식과 결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인류의 문화나 인류의 연구와도 연관시키지 말며, 오로지 하나님의 행사와 결부시키기를 바란다. 미리 일러두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만 언급할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하나님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먼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즉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는 사람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했는지, 물질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자.

첫째, 공기

먼저, 하나님은 공기를 만들어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자, 또한 모든 순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공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으며, 호흡하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기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럼 공기가 간단하게 만들어졌겠느냐?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 때, 공기의 밀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공기의 함량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고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으로 공기를 만들었겠느냐? 왜 공기를 만들려 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사람은 공기가 필요했고 숨을 쉬어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기의 밀도는 사람의 폐에 적합해야 한다. 공기의 밀도에 대해 아는 이가 있느냐? 이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니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수치로 공기의 밀도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아는 정도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만든 공기의 밀도는 폐 호흡에 가장 적합하여 사람이 숨을 쉬기에 알맞고, 또한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공기의 밀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다음 공기의 함량에 대해 말해 보자. 하나님은 공기의 함량이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고, 폐와 몸에 해를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했다. 사람이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어야 하며, 공기의 성분과 함량은 체내에 들어간 후 혈액을 정상적으로 순환시켜 주고, 체내와 폐 안의 탁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공기 안에는 유독 성분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고려해야 했던 사항이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말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또 가장 좋게 만들어졌음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대기 중에 분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구상의 먼지, 모래, 흙

그리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는 해결할 방법, 다시 말해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소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대기 중에 먼지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호흡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먼지의 입자 크기도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처리해 두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든 것에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한 번의 입김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단순한 것에도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지 않느냐? (실제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창조할 때도 인류를 생각하였다. 사람이 숨 쉬는 공기는 깨끗하며, 공기의 함량도 호흡하기에 알맞고 독이 없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공기의 농도 역시 인류가 숨 쉬기에 적합하며, 공기를 들이마신 후 다시 내쉬는 것은 신체와 육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은 공기 속에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해나 근심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인류의 호흡에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공기이다.

둘째, 온도

둘째는 온도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온도는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너무 높게 오르면 사람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반대로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간다면 어떨까? 이 또한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도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 사이로, 북방에서 남방까지의 기온이 이 범위 안에 있다. 기온이 영하 50~6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한랭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주하도록 한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추운 지대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지혜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곳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지나치게 더운 곳이나 추운 곳은 하나님이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 곳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준비된 곳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예비한 곳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장소가 지구상에 존재할까? 인류가 거주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도록 한 곳을 왜 만든 것일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가 생존하는 환경의 기본 온도도 합리적으로 조절했다. 여기에도 법칙이 있다. 하나님은 그 온도를 유지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창조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태양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였다.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 태양에 감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구상에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너무 뜨거워 가까이 가면 녹아 버리기 때문이다. 태양과 인류의 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했다. 다음으로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빙하 지대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느냐? 빙하는 인류가 살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다. 남극과 북극에 가지 않으면 빙하가 존재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었느냐? 만약 남극과 북극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이 계속해서 지구를 비춘다면 사람은 더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 생존에 적합한 온도 조절을 위해 하나님은 단지 이 두 방법만 사용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외에도 초원의 풀, 숲속의 각종 나무, 각종 식물 등 여러 생명체를 두었다. 이들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태양의 열에너지를 적절하게 제거하여 인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다음으로는 하천, 호수와 같은 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강, 호수의 면적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물의 양, 물이 흐르는 방향, 그리고 물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지하수와 지상에 있는 하천, 호수 등의 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산 지대, 평원, 협곡, 습지와 같은 다양한 지형도 있다. 다양한 지형, 그리고 그것들의 면적과 범위도 온도 조절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둘레가 100km 인 산이 있다면 그 크기만큼 온도 조절 작용을 한다. 하나님이 지구에 그런 산맥과 협곡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는 각각 탄생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삼림과 식생의 면적과 생장 범위를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삼림과 식생이 얼마나 많은 수분과 태양열을 흡수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고려하며 계획하고 배치했기에 사람은 온도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태양, 흔히 들을 수 있는 남극과 북극, 지상·지하·수중 생물들, 삼림과 식생의 면적, 수원(水源)과 여러 가지 물, 해수와 담수의 양, 그리고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인류 생존에 필요한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로 사람은 적합한 온도가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된다. 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지역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곳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춥거나 기온이 심하게 낮은 지역에 가게 되면 사람은 몇 분도 채 안 돼 입이 얼어 말을 할 수 없고, 뇌가 경직되어 생각할 수 없으며, 바로 질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비한 곳이 아니다. 인류가 연구를 하려 하든, 혁신을 이루려 하든, 돌파구를 찾으려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사람은 육체가 적응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온도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는 모른다. 왜 사람이 모른다고 하느냐? 사람은 어떤 어리석은 짓들을 저질렀느냐? 많은 이들이 항상 남극과 북극 정복에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곳의 땅을 점령하고 하루빨리 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행동이다. 남극과 북극을 철저히 연구한들 어찌겠느냐? 네가 그 온도에 적응하여 거기에서 살 수 있고, 남극과 북극의 생존 환경과 상태를 ‘개선’한다 한들 그것이 인류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인류는 생존이 가능한 환경에 가만히 있지 않고 기어코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려고 한다. 이는 무슨 뜻이냐?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지내는 삶이 지겨워졌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생존 환경을 거의 다 파괴했으니 남극과 북극에까지 가서 파괴하며 크게 ‘사업’을 하여 ‘유례없는 업적’ 따위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인류는 조상인 사탄에게 이끌려 계속해서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창조한 아름다운 터전을 조금도 망설임과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현재 지구에 닥친 위기를 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달에 가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런데 달에는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달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늘 달에 가고자 한다. 이는 무슨 행동이냐? 이 또한 자해이다. 그렇지 않느냐? 달에는 공기가 없고, 온도도 인류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비해 준 곳이 아니다.

온도는 일상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온도는 몸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온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인류 생존에 적합한 온도는 누가 주관하고 주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에 적합한 온도가 있는 알맞은 환경을 인류에게 조성해 주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물에게 제공하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이 그중 한 가지 방식이다.

셋째, 소리

셋째는 무엇일까? 이 또한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할 때 반드시 조절해야 할 일이었다. 그 일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생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육체와 생활에 지장이 생겨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생물이 그러한 환경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소리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였고, 만유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가며, 만물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각자 생존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중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 있는 것이다. 모두가 살아 있기에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는 끊임없이 회전하고, 태양도 달도 끊임없이 회전하며, 만물은 살아 움직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소리를 낸다. 지구상의 만물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산의 밑부분은 활동하며 이동하고 있고, 심해의 생물들도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들, 하나님 안중의 만물들은 끊임없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발생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무엇이 생길까? 바로 강한 소리이다. 지구 밖의 천체들도 계속해서 회전하고, 천체의 생명체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생명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계속 앞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조절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비행기에 가까이 갔을 때 들리는 엔진 소리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래 있으면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심장이 견딜 수 있느냐? 심장이 약한 사람은 견디기 힘들고, 심장이 강한 사람이라도 오래되면 견디기 힘들다. 소리는 귀나 심장과 같은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며, 너무 큰 소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한 후, 움직이는 소리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환경을 창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중 하나였다.

첫째, 지구의 지면과 대기층의 거리는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토양의 밀도도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지리적 환경의 조합도 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소리를 조절하여 사람이 귀와 심장이 견딜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소리로 인해 생존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고, 삶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그것은 인류에게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땅과 대기층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창조할 때,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다. 이에 대해 사람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그저 거기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럼 너희들이 말해 보아라. 하나님이 행한 일, 즉 소리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인류의 생존 환경을 유지시키고, 인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 만물에게 공급해 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정된 환경을 창조하고 제공하여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이 행한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비록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애쓰심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행사를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빛

넷째는 사람의 눈에 관한 것, 바로 빛이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눈은 강도가 너무 센 빛을 보면 실명할 수 있다. 사람의 눈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눈이기 때문에 자극을 견뎌 내지 못한다. 태양을 계속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시도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본다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도구 없이 사람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힘들다. 사람에게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빛을 주었는데, 그 빛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든 후 상관치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전반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만들어 주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물을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도 예비해 주었다. 빛이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 너무 어두워서 손을 내밀어도 볼 수 없을 정도면, 사람의 눈은 제 기능을 잃어 쓸모없게 된다. 또 너무 밝아도 사람의 눈은 견딜 수 없고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 환경에 사람의 눈에 적합한 빛을 제공하였고, 이 빛으로 사람은 눈이 손상되지 않고, 게다가 눈의 기능도 잃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 주변에 구름을 추가하였고, 공기의 밀도로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는 빛을 여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대지의 색깔이 태양 빛과 각종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눈이 적응하기 힘든 빛의 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외출할 때나 생활할 때 항상 짙은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빛의 방해 없이 시야 안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빛은 너무 밝아도, 너무 어두워도 안 된다. 너무 어두우면 눈이 손상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실명하게 되고, 너무 밝으면 눈에

자극이 심하다. 따라서 빛의 밝기는 사람의 눈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 사람의 눈에 줄 수 있는 자극을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화하였다. 빛이 눈에 좋은 해롭든,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님이 주도면밀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떠하냐?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빛을 너무 밝게 하거나 너무 어둡게 한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이런 일들은 시각, 청각, 미각, 호흡, 느낌 등 신체의 여러 부분의 생존 적응력을 최대화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러한 생존 환경은 인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익한 환경이다. 어떤 이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별것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 소리, 빛, 공기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있다. 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가 인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소리, 빛, 공기 등을 창조할 때 신경을 썼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람을 이러한 환경에 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말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공해 준 모든 것은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

다섯째, 기류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의 하루하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도 아주 관련이 크다. 사람의 육체가 이 물질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기류이다. ‘기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무엇을 기류라고 하느냐? 공기의 흐름을 기류라고 할 수 있다. 기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이고 기체가 이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기류는 주로 무엇을 가리킬까? 내가 설명하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지구의 산과 강과 바다를 비롯하여 만물은 모두 회전하며, 회전할 때는 속도가 있다. 사람이 지구의 회전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구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다. 지구의 회전은 무엇을 일으키느냐? 달릴 때 귓가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사람이 달릴 때도 바람이 생기는데, 하물며 지구가 회전할 때 어떻게 바람의 힘이 없을 수 있겠느냐? 지구와 만물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운동하며 지구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번식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류가 발생하는데, 그런 기류를 말한다. 이 기류가 어느 정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태풍이 기껏해야 얼마나

강하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한다. 또 바람이 부는 거리를 걸을 때면 걸음을 내딛기조차 힘들어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람이 너무 강하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뭔가를 의지해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중 하나이다. 만약 지구 전체가 평지라면, 사람의 몸은 지구가 회전하고 만물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기류를 절대 견딜 수 없고 대응하기도 힘들다. 그런 상태에서 기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즉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류가 약화되도록 하였고 기류의 방향, 속도, 강도를 조절하여 기류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산천, 산맥, 평원, 구릉, 분지, 협곡, 고원, 하천 등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지리적 환경을 통해 기류의 속도, 방향, 강도를 변화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약화시키거나 처리하여 적절한 풍속, 풍향, 풍력을 만들어 주었고, 이로써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눈이 늘 만물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맞은 기류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하나님께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환경 속의 만물 중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모두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사탄과 패괴된 인류는 이 원리를 모르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파괴한다. 산천을 평지로 바꾸고, 협곡을 평평하게 메우고, 평원에 고층 건물을 지어 콘크리트 숲을 만들려는 망상에 빠져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람이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 온도에서 공기, 소리에서 빛까지 하나님은 정밀하게 안배하여 인류의 생존 환경과 사람의 몸이 어떤 자연조건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번식하고 또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에게, 더 나아가 인류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조절하는 인류 생존의 5가지 기본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관리하고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류 탄생 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존 환경을 바꾸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생존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되겠느냐? 다시 말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제공할까? 바로 하나님의 경영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다.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같은 방식 또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생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람이 진정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인류의 생존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하나님의 선민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만물도 하나님의 주재로 인해 계속해서 생존하고 인류 전체도 이와 같은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며 새롭게 느낀 점이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인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도대체 누가 만물의 주인이냐?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고 안배하시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누립니다.) 너희는 이 말을 인정하겠지? 하나님과 인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또 그 모든 것의 근원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공급할 때 그것을 누린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에게 베푸는 생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만물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성과를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은 주재자이다. 그렇다면 만물에게 있어 하나님과 인류는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은 만물의 성장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주관하고 주재한다. 즉,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안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감찰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사람은 만물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다. 산에 오르면 그 산만 볼 수 있을 뿐, 산 너머의 것은 볼 수 없다. 해변에 가면 바다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 바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 없다. 숲속에 들어가면 주변의 식물만 볼 수 있을 뿐, 더 먼 곳은 볼 수 없다. 사람은 더 높은 곳, 더 먼 곳, 더 깊은 곳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 시야 내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사람이 1년 사계절과 만물 성장의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만물을 관리하고 주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이 손수 만든 기계처럼 다루며, 모든 절차, 원리, 법칙 그리고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만물의 법칙을 탐구한다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무한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한 아주 작은 일을 사람에게 연구하라고 한다면, 평생의 시간을 쏟아도 진정한 성과를 얻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네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연구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진리를 찾는 방식과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 가는 측면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행사가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왜 만물의 주재자라고 하는지, 왜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너를 포함한 만물 모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만물의 생존을 주재하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본질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겼을 때, 너는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너의 주재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생기고 생명이 그런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너에게 시련을 주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는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실제로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일용할 양식

방금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인류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어떤 것을 예비했는지, 즉 큰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는 큰 환경에 속한다. 지금부터는 사람의 육체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육체적 생활에 아주 적합하고 잘 맞는 것인 식량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후 살기 적합한 환경에 두었다. 사람에게에는 식량과 물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예비해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모든 사역과 매사를 보면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량은 사람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식량이 공기보다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 식량, 공기는 모두 인류가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온도가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모두 중요하다. 어느 것만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지금 너는 음식을 보면, ‘아,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너를 만들었을 때 네 스스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배고플 때 나무 위에 열매가 있고 땅에 작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는 그제서야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목이 마르던 참에 눈앞에 있는 샘물을 마실 때 그제서야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다. 식량에 관해서는, 사람이 하루에 두세 끼를 먹든 그보다 더 많이 먹든, 결론적으로 식량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육체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식량은 어디에서 오느냐? 토양에서 온다. 토양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으로 나무, 풀 등 각종 식물의 생존에 적합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곡물과 각종 씨앗도 예비해 주었고, 적합한 토양을 예비해 주어 사람이 그곳에서 재배하고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식량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먼저, 다양한 곡물이 있다. 곡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밀, 좁쌀, 기장, 조 등 껍질이 있는 곡물이 있다. 밀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리, 밀, 귀리, 메밀 등 여러 가지의 밀은 남방에서부터 북방까지 각각 다른 지대에서 자란다. 벼 또한 여러 종류가 있다. 남방에서는 남방만의 벼가 자란다. 이 벼는 알갱이가 길고 찰기가 없기 때문에 남방 사람들이 먹기에 적합하다. 남방은 날씨가 덥기에 뭉쌀처럼 찰지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한다. 너무 찰져서는 안 된다. 찰기가 많으면 목 넘김이 어렵고 식욕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방 사람들이 먹는 쌀은 찰기가 많은 편이다. 북쪽은 늘 춥기 때문에 찰기가 어느 정도 있는 쌀을 먹어야 한다. 이외에 여러 종류의 콩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또 감자, 고구마, 토란 등 땅 밑에서 자라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다. 감자는 북방에서 자라는데 북방의 감자는 품질이 아주 좋다. 곡물을 먹을 수 없을 때는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 하루 세끼를 때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감자도 곡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질이 좀 떨어지지만 역시 주식으로 삼아 사람의 하루 세끼를 유지할 수 있고, 곡물 공급이 어려울 때 허기를 달랠 수 있다. 남방 사람들이 자주 먹는 토란 역시 주식으로,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다양한 것들은 모두 사람의 식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곡물로 면 요리, 만두, 쌀밥, 쌀국수를 만든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곡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이 곡물들이 동서남북의 각기 다른 토양과 기후에서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다양한 종류의 곡물 성분과 함량이 체내의 여러 성분 및 함량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먹어야만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와 필수 성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남쪽과 북쪽에서 나는 식량의 종류는 다르지만 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의 정상적인 생존을 유지시키는 기능은 비슷하다. 따라서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식량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이유는 인체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땅에서 나는 다양한 식량이 신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로 사람에게 한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식량을 베풀어 주었다. 따라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누군가 면 음식을 싫어하여 밥을 먹고 싶어 한다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쌀도 알맹이가 긴 것, 짧은 것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것으로 골라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골고루 먹는다면 영양 결핍 없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을 베풀어 준 원래의 취지이다. 사람의 육체에 식량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생각하고 예비해 놓았다.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채소도 예비해 주었다! 쌀을 먹을 때, 밥만 먹는다면 영양이 부족할 수 있다. 밥에 2가지 정도의 요리나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면 비타민과 각종 미량 원소나 영양소 등이 채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밥을 먹지 않을 때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다. 그렇지? 사람은 수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영양소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또 색다른 맛을 원할 때도 있다. 이럴 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된다. 동서남북의 지역은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의 종류도 다르다. 남방은 날씨가 덥기에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에 냉한 기운이 있어 이를 섭취하면 신체에 냉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방은 채소, 과일 종류가 적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먹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의 발전, 소위 사회적 진보와 교통, 정보의 발달로 동서남북이 연결되면서 북방 사람들도 남방의 채소, 과일, 특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식욕과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 있게 되었지만 몸은 오히려 손상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할 때 남방과 북방 사람들에게 맞는 각각의 곡식과 채소, 과일을 예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후에 맞는 채소, 과일 등의 식량을 예비했기 때문에 남방에서 태어났다면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몸에 잘 맞는다. 마찬가지로 북방에도 북방 사람의 몸에 맞는 식량이 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사람의 탐욕과 사회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대세에 휩쓸리게 되면서 이 법칙을 어기게 되었다. 지금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의 발전은 인체에 눈에 띄지 않는 해를 끼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과 채소, 과일을 예비한 본래의 취지가 아니었다. 이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어겨 초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은 풍부하다. 각지에는 각각의 특산물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는 홍대추(흔히 대추라 불림)가 많이 나고 또 어떤 지역에는 호두가 많이 나며 또 어떤 곳은 땅콩과 견과류가 많이 난다. 이런 것으로 사람은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그리고 제때에 적당량을 베풀어 준다. 사람의 육체적 향락에 대한 탐닉과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만든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 법칙을 쉽게 위배하고 파괴한다. 앵두를 예로 들어 보자. 앵두는 대략 6월쯤에 익으며 일반적으로 8월에 수확이 끝난다. 원래 앵두의 유통기한은 2개월 정도지만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기간을 12개월로, 이듬해에 앵두가 다시 생산될 때까지로 연장시켰다. 따라서 1년 내내 앵두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정상이냐? (비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앵두를 먹기에 최적의 시기는 언제냐? 6월부터 8월까지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신선하게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맛이 나지 않고, 사람 몸에도 불필요하다. 앵두의 유통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그 어떤 화학적 방법을 쓴다 해도 그 성분은 자연적인 생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분보다 못하다. 또한 화학 물질로 인한 인체의 손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거나 바꿀 수 없다. 지금의 시장 경제가 사람에게 가져다준 것이 무엇이나? 교통도 편리해져 사시사철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북쪽에서도 바나나를 먹을 수 있고 남쪽의 모든 음식이나 과일, 특산물 등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사람 삶의 질이 좋아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려던 것이 아니다. 이런 시장 경제는 사람의 생활에 좋은 점도 가져다줄 수 있지만 해로운 점도 가져다준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마구 먹어 대며 자연법칙을 어긴 바람에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포도가 1년 내내 판매되고 있지 않느냐? 포도의 유통 기한은 아주 짧다. 수확한 포도를 이듬해 6월까지 보관한다면 그때도 그것을 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쓰레기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포도 본연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포도 표면에는 많은 화학 약품이 뿌려져 있다. 1년의 시간이라면 신선도도 없고, 영양분도 오래전에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포도를 먹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30년 전만 해도 이 계절에 포도를 먹을 수 있었겠어? 먹고 싶어도 구경도 못했었지. 지금은 얼마나 좋아!”라고 한다.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 관심이 있다면, 유통 기한 연장을 위해 포도에 뿌려진 화학 약품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인체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율법시대를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 주어 먹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저장하라고 일렸느냐? 어떤 이들은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잔피를 부려 나중을 대비하려고 저장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다음날 악취가 진동했다. 하나님이 여분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굶지 않도록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여분을 남기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는 하나님의 애쓰는 마음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누가 알겠어? 대체 언제 주신다는

말이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굶어야 되잖아. 그럼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도 보잘것없다!

곡물류, 채소, 과일, 견과류는 채식에 포함된다. 식물성 식품이지만 영양소가 풍부하여 인체에 필요한 성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겐 이런 것만 주면 되니 이런 것만 먹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 더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예비하였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각종 고기와 생선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준 고기와 생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류는 물속에서 서식하고 육질이 육지 고기와 다르며, 인체에 또 다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어류의 성질은 인체의 냉열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기에 따라 알맞은 양을 베풀어 주어 사람이 계절과 시기에 맞춰 음식을 정상적이고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조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조류에는 닭, 메추라기, 비둘기 등이 있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리나 거위도 있다. 이런 육류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지만 하나님 선민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었고, 율법시대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이제는 사람들 개개인의 입맛과 제 나름의 이해에 달렸다. 육류는 인체에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단백질, 철분, 혈액을 보충해 주기도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어떤 요리법으로 만들어 먹든 사람의 입맛과 식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배를 든든하게 채워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일상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식량을 예비할 때 고려해 둔 것이다. 채식도 있고 육식도 있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풍부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량을 예비해 줄 때의 본뜻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음식을 탐하라는 뜻이었겠느냐?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양 과잉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영양 과잉이 되면 몸에 각종 질병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양을 정해 놓았고, 시기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나면 체내에는 열기와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쌓이는데, 이때 가을철에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습하고 건조한 기운이 제거된다. 또한 이 시기는 소와 양이 살찌는 계절이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 몸보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고기로 몸에 에너지와 열량이 축적되면 매서운 추위에도 버틸 수 있고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 어떤 시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예비해 줄지, 어떤 시기에 무엇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잘 익도록 할지 이 모두는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아주 알맞게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양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물을 제공한다. 사람은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과일만 먹어서야 되겠느냐? 과일만 먹어서는 견딜 수 없다. 게다가 어떤 계절에는 과일이 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의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지상과 지하에 호수, 강, 샘물과 같은 다양한 수원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수원은 오염되거나 사람이 변질시키거나 파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마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의 근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밀하고, 정확하고, 알맞게 예비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그 무엇도 부족함 없게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가운데는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병이 났을 경우 이를 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식물이나 각종 풀들도 있다. 예를 들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혹은 뜨거운 물에 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로 씻어 내면 되느냐? 아무 천으로 감싸면 되느냐? 그러면 끓거나 감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이 나고 감기에 걸리거나, 일하다 타박상을 입거나, 무엇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혈관 질환, 심리적 질환, 오장육부에 생긴 질병 등 생활 습관 혹은 각종 정서로 인한 병은 그에 맞는 식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식물에는 어혈을 풀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통증을 없애거나, 지혈이 가능한 것도 있고, 마취를 하거나, 피부의 정상적인 회복을 돕는 것도 있으며, 체내의 어혈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식물 모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쓸모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위해 예비한,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들 중에는 사람이 무심코 발견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특이한 현상이나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도 있다. 발견한 후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식물 또한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 환경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 마련하고 자라게 한 것으로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한다.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인류와 접촉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고 인류를 위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고려하였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예비한 풍요로운 물질세계 속에서 인류가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는 계속 번성하며 생존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모든 일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논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자.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묻는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알이 아니고, 닭이 먼저일까? 알이 부화되어 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알이 21일간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또다시 커서 알을 낳아 그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날짐승과 길짐승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다. 지금 나는 각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너희들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너희들의 인식에 실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대답을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닭을 만드신 후 닭에게 번식 기능을 주셨습니다. 즉, 알을 부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닭이 먼저이고 후에 알이 생겼다. 이는 확실하며 신비로운 비밀 같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심오하게 생각하고 철학적 추리 과정을 거쳐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 원리를 모른다. 알이 먼저여야 하는지 닭이 먼저여야 하는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답을 찾지 못한다. 닭이 먼저라면 정상적인 것이고, 닭이 없는데 알이 나왔다면 비정상적이다! 닭이 먼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매우 간단한 일이므로 더 깊이 논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도 생기는 법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 알이 먼저 만들어졌다면 그 알을 품어야 할 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닭을 먼저 만들면 그 뒷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닭을 만들었고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그것을 품어 병아리가 되도록 하였고, 사람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얼마나 편리한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다. 달걀은 어디에서 왔느냐? 닭이 낳은 것이다. 닭이 없으면 달걀도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사람은 황당무계하여 이렇게 간단한 일도 쉽사리 분별해 내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논리만 잔뜩 도출해 내는데, 참으로 미숙하기 그지없다! 이제 닭과 알의 관계가 분명해졌다. 닭이 먼저인 것이 정확한 설명이고 이해이자 해답이며, 맞는 말이다.

방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지? 처음에 우리는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존 환경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예비했는지, 무엇을 처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만물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 만물이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만물이 가져온 여러 요소가 인류 환경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여 만물이 각각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인류에게 유익한 환경과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 인류가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종족 번식을 이루면서 윤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인체에 필요한 먹거리, 즉 일상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다. 사람의 육체는 숨만 쉬면서 살 수 없고 햇빛만 보며 살 수 없고 바람만 쐬며 살 수도 없으며 적절한 온도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배를 채우는 음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도록 예비하였다. 이것이 바로 식량의 유래이다. 풍부한 산물인 식량의 유래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인류에게 공급하고, 만물에게 공급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나무나 풀만 만들거나 각종 생물만 만들었고, 그 생물과 식물이 오로지 소, 양, 얼룩말, 사슴 같은 동물들의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사자는 얼룩말이나 사슴 등을 잡아먹고 호랑이는 돼지나 양 등을 잡아먹지만 이것들 중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겠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육체는 살 수 없다. 사람이 나뭇잎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양에게 예비한 풀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한 번쯤 맛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사람은 위가 견디지 못할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것은 동물이 먹으면 괜찮지만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다. 동물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유독 물질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의 원리와 구조, 인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 하나님은 인체의 성분과 함량, 인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오장육부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흡수하고 배출하며, 신진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제멋대로 먹고 제멋대로 관리하는 바람에 지나친 몸보신으로 영양의 균형을 잃기도 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정상적으로 먹고 누린다면 아무 탈도 나지 않는다. 가끔 기분이 상하는 일 때문에 기와 혈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 해도 괜찮다. 한 가지 식물을 먹으면 막혔던 혈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인류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식물을 위해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고, 동물을 위해 먹이와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의 생존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엄격한 잣대로 임했고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가 정상적인 발전과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쩌면 너는 이미 봤거나 누리고 있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것, 혹은 원래부터 있었거나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를 느끼기 힘들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뒤에서 혹은 오래전에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불리한 모든 것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해결하였다. 이는 무엇을 설명할까? 인류를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태도는 어떠하냐? 하나님은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으며 하나님 외의 어떤 적대 세력이나 요소, 조건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인류를 창조하고 나아가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냐? 사람이 누리는 생활 환경과 생존 환경, 식량과 일상에 필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다음 인류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심도 볼 수 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묘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고, 나아가 만물에게도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매우 확실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없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만물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며,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 환경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으며, 심령에 진리를 공급하기까지 한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신분이나 지위로 봤을 때,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세계의 주관자이고 주재자이며 공급자이다. 이는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거짓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생명체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또 땅에서 사는 나무와 식물은 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지만 남아 겨울을 보내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존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각각의 형태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방식으로 그것의 생명력과 생명의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생명 형태를 가진 생물과 생명체를 주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법칙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있어 인류의 정상적인 생존과 종족 번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와 만물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고, 만물의 생존을 보호하여 인류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측면이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생존 환경을 창조해 주신 것이 첫 번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류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필요한 물질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중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았겠지? 그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있었느냐? 없었겠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좀 인식하여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희 모두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언젠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제적인 말로 하나님의 행사를 심도 있게, 참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이 얇고 표면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적어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 혹은 인류에게 무엇을 공급하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기본적인 개념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두 측면의 내용이 성경과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의 심판, 형벌과 관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두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겠느냐?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있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아니냐? (맞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부를 알려면 성경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선민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사역하고 행사를 보여 주느냐? (아닙니다.)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범위는 작게 말하면 전 인류와 만물이고 크게 말하면 우주 전체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사역하고 행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3단계 사역과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사역의 그런 이야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한 범위에 국한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까? 하나님의 기묘함과 지고지상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 그리고 권병의 범위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참된 신분과 지위를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인식한다면 그 한정된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넓히고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주재하는 범위,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는 만물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며 또 만물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너는 자신이 만물 중의 하나이고 만물의 일원임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에게 공급하고 있고, 너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공급하는 것을 받고 있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물에는 만물의 법칙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만물에는 만물 생존의 법칙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다. 인류의 운명과 인류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재 속에서 사람과 만물은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과 만유를 창조한 가치이다. 이제 알겠느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9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3)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에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입니다.) 내가 얘기한 내용과 제목에 대해 분명한 인상이 남은 것 같구나.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생존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존 환경과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 인류의 생활을 위해 각 방면에 걸쳐 놀랍고 필수적인 사역을 무수히 많이 행하였다. 이런 사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행사였다. 하나님의 이런 행사들은 사람에게 생존 환경과 일용할

양식을 예비해 주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즉,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역 외에도,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많은 환경과 생존 조건도 예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다. 이 주제 역시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단어, 혹은 하나님의 여러 측면의 소유와 어떠함에 대해 글귀상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인식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야 할까?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고, 하나님의 면면을 알아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의 행사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래, 만물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 운행되고 규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의 주재 아래, 만물은 사람과 함께 생존하며 규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무엇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재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 아래 규칙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며, 사라지고 윤회하게 된다. 봄이 오면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봄의 기운을 전하고, 대지를 촉촉이 적셔 주며 토양을 녹인다. 그리하여 작은 떡잎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나무는 점점 더 푸르게 변해 간다. 이 모든 생물들은 대지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것이 바로 만물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모습이다. 온갖 동물들도 동굴에서 나와 따스한 봄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여름이 되면 만물은 무더위를 즐기고 여름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을 느끼며 빠르게 성장한다. 나무와 풀, 온갖 식물들이 빠르게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인류를 포함한 만물도 여름을 분주히 보낸다. 가을이 되면 가랑비가 내리며 시원한 계절이 왔음을 알리고, 각종 생물도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만물은 열매를 맺고, 인류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며 겨울을 위해 식량을 비축한다. 겨울이 오면 만물은 추위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며, 사람들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칙에 의한 것으로,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으로 만물을 이끌고 인류를 인도하며, 인류에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활 방식을 정해 주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각기 다른 온도와 서로 다른 계절의 생존 환경을 예비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칙적인 생존 환경에서 인류도 규칙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없다. 상전벽해가 되든 벽해상전이 되든 이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로 인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대환경이 있으므로, 인류의 생활도 이 법칙과 규칙 속에 이루어진다. 이 법칙은 세대를 이어 가며 사람들을 양육하였고, 사람들은 이 법칙 속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 창조한 만물과 이러한 법칙이 있는 생존 환경을 누리고 있다. 사람이 이런 법칙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며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다스리고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줄곧 이 불변의 사역을 해 오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류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불변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물에 경계를 정하여 전 인류를 양육한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물에게 정해 준 이러한 법칙으로 어떻게 전 인류를 양육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이야기하며 분명한 윤곽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점차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산천, 평원, 사막, 구릉, 강, 호수에 모두 경계를 정하였다. 지구에는 산천, 평원, 사막, 구릉과 여러 수원(水源)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종 지리적 형태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각종 지리적 형태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은 산에는 산의 경계가 있고, 평원에는 평원의 경계가 있으며, 사막에는 사막의 범위가 있고, 구릉에는 구릉의 정해진 면적이 있으며, 강과 호수 같은 수원에도 모두 정해진 양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산의 둘레가 몇 백 km 인지,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 이미 정해 놓았고, 이 평원의 둘레가 몇 백 km 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해 놓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막의 범위도 이미 정해 놓았고, 구릉의 범위와 면적, 무엇과 접해 있는지까지 모두 정해 놓았다. 또 강과 호수의 범위도 그것들을 만들 때 다 정해 놓아 모두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경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방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법칙을 정하여 만물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산천의 범위와 경계는 지구의 회전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면적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고정함’이 하나님의 주재이다. 하나님은 평원의 면적이 얼마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무엇과 접해 있는지까지 이미 정해 놓았다. 여기에는 경계란 게 있기에 평원에 불쑥 언덕이 생겨나거나 그 평원이 갑자기 산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 방금 이야기한 법칙이란 이를 뜻하며, 경계도 이를 의미한다. 사막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사막이나 다른

지리적 형태 및 위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것의 경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주재하에 사막 역시 더 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법칙과 범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막이 얼마나 큰 면적을 갖고 있을지, 역할은 무엇일지, 무엇과 접해 있을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이미 다 정해 놓았다. 그러므로 사막은 그 범위를 넘지 않고, 위치를 옮기지 않으며, 마음대로 면적을 넓히지도 않을 것이다. 강과 호수 같은 수역의 물도 비록 질서 있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만, 한 번도 그 범위와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한 방향,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따라 흐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법칙 속에서 그 어떤 강과 호수도 지구가 회전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마음대로 물이 말라 버리거나,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거나, 물의 양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창조한 만물은 모두 정해진 방향과 면적, 범위가 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이미 그 경계를 정하였으며, 그 모든 것은 제멋대로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제멋대로’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날씨, 온도 그리고 지구의 회전 속도에 따라 제멋대로 움직이고, 확장하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을 예로 들어 보면, 그 산의 높이가 얼마일지, 산기슭의 면적이 얼마일지, 해발이 얼마일지, 식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고 계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산은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인류의 대다수는 평원에서 살고 있다. 평원 역시 기후의 변화에 따라 면적이 바뀌거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지형과 지리적 환경은 모두 갖고 있는 바를 제멋대로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막의 경우, 사막의 성분, 사막 아래 매장된 자원, 사막의 모래 함량, 사막의 모래 색깔, 사막 모래층의 두께, 이런 것은 모두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주재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제각기 다른 모든 지리적 형태와 환경을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관리한다. 따라서 이 모든 지리적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존재하며, 여전히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언젠가 화산이 분출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크게 이동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지리적 형태도 고유의 기능을 절대 잃지 않도록 한다. 하나님의 이런 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칙에 대한 주재와 주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과 보는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리적 형태를 관리하는 것일까? 바로 여러 지리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이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그 안에서 번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모든 만물, 즉 코로 숨을 쉴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모든

만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비로소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대대손손 평안하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방금 말한 건 좀 큰 이야기였다. 어쩌면 너희는 다소 요원한 이야기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이 법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이다! 만물이 이 법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주재이다. 하나님의 주재로 인해, 하나님의 주재 아래, 모든 만물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천은 숲을 양육하고, 숲은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평원은 인류의 경작과 여러 날짐승, 길짐승을 위해 예비한 장소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평한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평원에는 넓은 초원도 포함된다. 초원은 지구의 식생이며, 그것은 토지를 보호하고, 초원에서 자라는 소, 양, 말을 양육한다. 사막도 자신의 기능을 발휘한다. 사막은 사람들이 거주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사막의 기능은 습한 기후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여러 강과 호수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이 있게 되고 물의 흐름으로 인해 물이 필요한 만물은 물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지리적 형태에 정해 놓은 경계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 지리적 형태에 따라 다양한 생존 환경이 생겼다. 이러한 생존 환경은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에게 편리함과 생존 공간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여러 생물들의 생존 환경에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이다.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삼림이나 작은 숲에서 생활하지 않느냐? 그곳은 그들의 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지리적 환경에 경계를 정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 곤충 및 식물을 위해서도 경계를 나누고 법칙을 정하였다. 서로 다른 여러 지리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 곤충 및 식물에게도 역시 다양한 생활 환경이 생겼다. 날짐승과 길짐승, 곤충은 여러 식물 속에서 살아가고, 각종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활하며, 각종 식물은 땅에서 자란다. 이 ‘땅’은 큰 산, 평원, 구릉 등 각종 지대를 포함한다. 정해진 자기 집이 생긴 날짐승과 길짐승은 아무 데나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집은 삼림이며, 큰 산이다. 어느 날 그들의 집이 파괴된다면 이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입겠느냐? (인류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인류이다. 하나님이 정한 이런 법칙과 범위에서 너희들은 이상한 현상을 본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 코끼리가 사막에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느냐? 정말 본 적이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코끼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숨이기 때문이다. 숨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해 준 생존 환경이다. 코끼리에게 자신의 생존 환경이 있고 정해진 집이 있는데도 이리저리 무턱대고 돌아다니겠느냐? 사자나 호랑이가 해변에서 산책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겠지? 사자와 호랑이의 집은 삼림 속에, 산속에 있다. 바다에 있던 고래나 상어가 사막에서 노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겠지? 고래와 상어의 집은 바다다.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사람과 큰 불곰이 함께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집이 안과 밖으로 늘 공작새나 온갖 새들로 둘러싸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독수리나 기러기가 원숭이와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일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든, 아니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다 자신만의 생존 법칙을 갖고 있음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런 생물들을 창조하기 전 일찌감치 그들의 집과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그 생물들에게는 자신만의 정해진 생존 환경과 먹이가 생겼고, 자신만의 정해진 집이 생겼으며, 생존에 적합한 정해진 장소, 혹은 생존에 적합한 온도를 가진 지역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파괴하거나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만물을 관리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생존 환경을 제공한다. 만물 중의 생물들은 각자의 생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유한 생존 환경에 고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생존 환경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든 법칙에 따라 생존하고 번식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 때문에 만물과 인류는 화목하게 어울려 살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의 경계를 정했으며, 만물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을 양육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다양한 생존 방식도 예비하였다. 따라서 내가 본 인류의 생존 방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생존 환경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여러 가지 먹거리와 수원(水源)에 대해 얘기하였다. 이 먹거리와 수원은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각 지리적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인류도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경작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먹거리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세 번째 내용, 즉 인류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인해 경계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활 방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인류 먹거리의

근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로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 다들 알고 있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은 숲의 날짐승과 길짐승을 먹는다. ‘야생 동물 요리’라는 말은 현대어로, 사냥꾼들은 그것을 야생 동물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거리이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자. 그가 잡은 사슴은 농민이 땅에서 얻은 식량 같은 것이다. 땅에서 식량을 얻는 농민은 식량을 보면 기쁘고 든든하다. 먹을 것이 생겨 가족이 배를 곯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이고 만족감이 드는 것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포획물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끼니에 먹을 것이 생겨 배를 곯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 대다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산에서 산다. 산에서는 경작지를 얻기 힘들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생물과 수렵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과 다른 첫 번째 생활 방식이다.

둘째는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땅을 경작하느냐? (경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할까? 이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주로 소와 양을 방목합니다. 겨울이 되면 소나 양을 잡아먹고,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또 밀크티를 마십니다. 유목민들은 1년 사계절 늘 바쁘지만 풍족하게 먹습니다. 우유, 유제품, 육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로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고, 소젖이나 양젖을 마신다. 그리고 소나 말을 타고 야외에서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면서 방목한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매일 드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초원을 볼 수 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초원에서 생활하며, 자신들의 유목 생활을 대대손손 이어 나갈 수 있다. 초원에서 살면 조금 적막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생활도 아주 행복한 것이다. 관참은 생활 방식이다!

셋째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방식이다. 인류 중에 극히 일부만이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이나, 바다를 향해 있는 해변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올까? 여러 가지 생선, 해산물, 해물 요리이다.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매일 물고기를 잡는다. 그들의 주식은 여러 종류의 생선, 해산물이며, 가끔 생선을 쌀, 밀가루, 생필품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생활 방식이다.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며, 고기잡이를 생계원이자 먹거리의 근원으로 삼는다.

인류는 농사 외에 주로 위의 세 가지 각기 다른 방식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방목과 고기잡이,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몇몇 부류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땅을 경작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땅이다.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채소든 과일이든, 아니면 곡식이든 간에, 땅에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얻는다.

인류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숲을 잃고 날짐승과 길짐승을 잃으면, 그들의 생계원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의 앞날은 알 수 없게 돼 버리며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방목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느냐? 이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소와 양이 아니라 소와 양의 생존 환경인 초원이다. 초원이 사라지면 이들은 어디에 가서 소와 양을 방목하겠느냐? 소와 양은 무엇을 먹겠느냐? 소와 양이 없어지면 유목민들의 생계원이 사라진 것이다. 생계원을 잃은 민족은 어떻게 되겠느냐?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미래가 사라질 것이다. 수원이 없어지고 강과 호수가 모두 말라 버린다면 물에 의지해 사는 각종 물고기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물과 물고기에 의지해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먹거리가 없어지고 생계원이 사라진다면, 이들 민족은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생활과 생존에 문제가 생긴 종족은 지속될 수 없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멸망할지도 모른다. 만약 경작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각종 식물을 경작할 수 없고, 그 식물로부터 먹거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겠느냐? 사람이 굶어 죽으면 인류는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각종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각종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러 생물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여러 부류의 인류를 양육하고,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만물이 자신의 법칙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만물의 법칙을 잃게 된다면 만물 중의 생물은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이며, 인류 역시 생존 환경을 잃게 될 것이다. 인류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지금처럼 대대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 만물이 인류를 양육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고정적인 생존 환경과 규칙적인 생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종족은 각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생존하고 있다. 이 범위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으며, 이 경계 역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하였을까? 이는 전 인류에게 있어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물의 범위를 나누고, 여러 인류의 생존 방식을 정하였으며, 지구상의 서로 다른 종족,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범위를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이다.

넷째, 하나님은 인류의 각 종족에게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 지구상에는 백인종, 흑인종, 갈색 인종, 황인종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생활 범위를 정해 주었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있어야 할 생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 예를 들어, 백인종은 대부분 어느 지역 범위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대부분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흑인종의 생활 지역 범위는 주로 아프리카다. 갈색 인종은 주로 태국, 인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의 나라와 같이 동남아나 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황인종은 주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서로 다른 인종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지구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인종이 분포되어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을 위해 각자에게 적합한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생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토양의 색깔 및 성분을 예비하였다. 즉, 백인의 신체 성분은 흑인의 신체 성분과 다르고, 다른 인종의 신체 성분과도 다르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이러한 인종의 생존 환경을 미리 예비해 두었다. 그 목적은 바로 이들이 번식하고 늘어날 때 이들을 정해진 범위 내에 고정해 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기 전에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을 백인종에게 주어 그들이 발전하고 생존하게 하려고 생각해 놓았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양육할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어떤 높은 산을 만들고 평원은 얼마나 만들지, 수원은 얼마나 만들고 어떤 날짐승과 길짐승을 만들지, 어떤 물고기를 만들고 어떤 식물을 만들지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둔 것이다. 즉, 하나의 인류, 하나의 인종을 위해 생존 환경을 예비할 때, 하나님은 지리적 환경, 토양의 성분, 날짐승과 길짐승의 종류, 그리고 각종 물고기의 크기와 성분, 수질의 차이, 각종 식물의 유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미리 예비해 두었다.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백인종을 위해 예비한 고유의 생존 환경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일하였는지를 알겠느냐? (네.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부류의 인류를 위해 세심히 고려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인류의

생존 환경에 어떤 날짐승과 길짐승, 물고기들을 예비할지, 높은 산과 평원을 얼마나 만들지 등 모든 부분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고려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종은 대부분 무엇을 주로 먹느냐? 백인이 먹는 음식은 아시아인이 먹는 음식과 큰 차이가 있다. 백인의 주식은 대부분 고기, 달걀, 우유, 가금류이다. 빵이나 밥과 같은 곡물 종류는 접시 한쪽에 두고 먹는 부식에 불과하다. 야채샐러드를 먹더라도 구운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어 먹는다. 밀가루 음식을 먹더라도 대부분 치즈, 달걀, 육류 등을 곁들여 먹는다. 즉, 이들 주식의 대부분은 밀가루나 쌀이 아니라, 육류나 치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열량이 매우 높아 종종 열음물을 함께 마신다. 그래서 백인종은 아주 건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비해 준 생계원이자 생활 환경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다른 인종의 생활 방식과 다르다. 이런 생활 방식에는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자,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로 인한 것이다. 이 인종이 이런 생활 방식과 생계원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의 인종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예비한 생존 환경 때문이다. 하나님이 백인종을 위해 예비한 생존 환경과 그들이 생존 환경에서 얻는 일용할 양식은 매우 풍족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인종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존 환경을 예비하였다. 다른 인종에는 흑인도 있다. 흑인은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부에 분포해 있다. 이러한 생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였을까? 열대 우림, 각종 날짐승과 길짐승, 사막, 여러 가지 식물이 이들과 함께한다. 이들에게는 수원이 있고, 생계원과 먹거리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이들이 과거에 무엇을 하였든 이들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 이들은 지구의 한 지역에서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황인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황인종은 주로 지구의 동방에 분포해 있다. 동방은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에 있어 서방과 어떻게 다를까? 이 땅은 대부분 매우 비옥하며, 물질 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즉, 지상과 지하의 각종 자원이 모두 굉장히 풍부하다. 하나님은 이 일부 사람들, 이 인종을 위해 이들에게 적합한 토양, 기후 그리고 각종 지리적 환경을 예비하였다. 이 지리적 환경은 서방과는 크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생계원, 생존의 근원을 예비해 두었다. 다만 서방 백인종의 생활 환경과 다를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알려 줄 것이 있다. 무엇일까? 동방에 있는 이 인종은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곳 땅에 서방과는 다른 성분을 많이 더하였다. 이 땅에 서방과는 다른 경치와 각종 물질을 풍성하게 더하였다. 이 땅은 물산이 풍부하고, 지리적 형태도 천태만상으로 다양하여 방대한 수의 동방 인종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방과 다른 점은 동방의 땅은 남에서 북까지, 동에서 서까지 기후가 서방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도가 적절하며, 물산도 매우 풍부하고, 자연 경치와 다양한 지리적 형태 역시 서방보다 훨씬 더 좋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백인종과 황인종 간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인종이 먹고 쓰고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황인종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종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황인종에게 더욱 아름답고 좋은 생존 환경을 주었다. 바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인종이 어느 땅에서 성장할지 정해 놓았다. 사람은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요.) 이는 아주 기묘한 일이다! 서로 다른 시기 혹은 어느 특별한 시기에 전쟁이나 침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침략과 전쟁은 하나님이 각 인종에게 정해 준 생존 환경을 절대 파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느 인종을 지구의 특정 지역에 고정해 놓으면 그들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인류가 야심이 생겨 영토를 바꾸거나 늘리고 싶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루기 어렵고, 성공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백인들은 한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독일인은 다른 국가들을 침략했었고, 영국인도 인도를 점령했었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결국에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 실패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일을 사람이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이 엄청난 기세로 영토를 확장했어도 결국 그들은 철수해야만 했다. 그 땅은 여전히 인도의 것이며, 그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도인이자 영국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나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국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민족은 정복당할 수 없다라든가, 사람의 어떤 원인 때문이라든가 등등 여러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 진짜 이유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 정착하여 성장할 땅을 정해 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이동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 준 범위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뚫고 나갈 수도 없다. 이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침략자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침략당하는 자의 세력이 아무리 미약해도, 최종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여기까지, 각 인종들이 서로 다른 곳에 분포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은 각 인종들이 서로 다른 곳에 분포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였느냐? 우선, 거대한 지리적 환경을 예비하였다. 그들에게 장소를 나누어 주어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였다. 이것이 정해지면 그들의 생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즉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갈지 미리 정해 놓았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각기 다른 것들을 예비하였다. 토양의 성분, 기후, 식물, 지리적 환경이 모두 다르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날짐승과 길짐승이 있고, 수역(水域)에 따라 서로 다른 물고기와 수산물이 있다. 심지어 곤충까지도 하나님은 종류를 모두 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미주 지역에서 자라는 것들은 모두 크기가 크고, 키도 크며, 건장하다. 숲의 나무는 얇게 뿌리를 내리지만 아주 높이, 심지어 100m 이상 자라기도 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나무는 대부분 그리 높게 자라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알로에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알로에는 가늘고 약하지만, 미국의 알로에는 매우 굵다. 차이가 있지 않은가! 같은 종류의 식물이고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주 크다. 이러한 각 부분의 차이점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를 구분해 놓았다. 서로 다른 인종을 위해 각기 다른 지리적 환경과 형태, 다양한 생물을 예비해 놓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인종을 만들었고 그들의 필요와 생활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방금 이야기한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과 이해가 생겼느냐? 내가 이 대주제에서 왜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는지 기본적인 윤곽은 다들 잡혔겠지? 너희가 이해한 내용들을 말해 보아라. (하나님은 만물의 법칙을 정하여 전 인류를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실 때 서로 다른 인종에게 각기 다른 환경, 생활 방식, 식량, 기후, 온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전 인류가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완벽하심을 보았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범위는 어떠한 사람, 일, 사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주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만물의 성장 법칙을 보면, 어떤 부류의 인류이든 모두 하나님의 공급과 양육 아래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 사람이 이러한 법칙을 깨뜨리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러한 법칙을 정해 주지 않았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겠느냐? 인류가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잃으면 인류에게 먹거리의 근원이 있겠느냐? 먹거리의 근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류가 먹거리의 근원을 잃으면, 즉 먹거리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생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생존, 지속과 번식을 위해 한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한 모든 일은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람의 생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경영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영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이 양육하는 전 인류의

생존은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 인류를 위해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류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정한 이 법칙에서 벗어나고, 만물의 법칙이 깨지고 혼란이 오게 된다면,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인류의 생존 환경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의 일용할 양식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 모든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희들은 어쩌면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또 누군가는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만물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일원이며,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 중의 하나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주재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재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주재를 잃고 하나님의 공급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생명과 육체의 생명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인류의 생존 환경이 갖는 중요성이다. 네가 어느 종족이든, 어느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든, 서방에 있든 동방에 있든 너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한 생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생존 환경의 양육과 공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하든, 무엇에 의지해 살며 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든 너는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를 떠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농민도 아니고, 경작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니 하늘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정하신 생존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나? 너는 경작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양식을 먹지 않느냐? 고기와 달걀을 먹지 않느냐?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느냐? 네가 먹는 것,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한 생존 환경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생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네가 마시는 물, 입고 있는 옷, 사용하고 있는 여러 물건이 포함된다. 여기서 만물로부터 얻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만물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만물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품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나?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화학품이지만, 플라스틱의 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의 원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에서 얻은 것이다. 네가 누리는 것, 보는 것,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이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서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생존 방식을 갖고 있든,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살든 하나님의 공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이 대제목 아래에 열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비교적 다방면의 주제를 광범위하게 나눴다. 너희가 듣기에 약간은 벅찼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접한 적 없던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교제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삼아 들었는데 어떤 관점이 옳겠느냐? 너희는 어떤 관점으로 들었느냐?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 있게 배치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만물에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행사,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안배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관리하는 만물의 범위를 알았느냐? (전 인류와 만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인종만의 하나님이냐? 한 부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냐? 소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갈 때 하나님을 소수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관점, 혹은 너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관점이 옳은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재자인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사와 지혜, 전능을 봐야 한다. 이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재하며, 전 인류를 주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도, 깨달은 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는 속으로 ‘인정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재하시는 걸 봤으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존재냐? 아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을 본 것이다. 이런 일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주재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 이것은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데 제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이라는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만유와 만물, 전 인류를 주재한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네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겠느냐? 아닐 것이다. 네 마음은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의 내용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알겠느냐? 나는 내가 지금 말한 주제와 내용을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왜 계속 이야기하려 하겠느냐? 이런 주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설사 지금 알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너의 생명과 진리에 대한 체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네 생명 성품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때, 네 분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자랐을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주제들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데 충분한 공급이 되어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임을 알아 가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 가는 데 기초가 되라고 예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서 그만큼의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그만큼 커진다. 네가 아는 하나님이 공허하고 막연하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역시 공허하고 막연하다. 네가 아는 하나님이 너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참된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전능한 면을 아는 것, 하나님 자신의 참된 신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아는 것,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는 행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람이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앎이 글귀에만 국한되고, 네 소소한 체험이나 네가 따져 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에 대한 네 보잘것없는 증거에만 국한된다면,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애초에 참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된 하나님은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 가운데서 거닐며, 만유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자, 전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고, 만유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 그의 사역, 그의 행사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다시 말해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의 행사는 만물 가운데, 만물의 생존 가운데, 만물의 변화 법칙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행사를 조금도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면, 너는 예전처럼 계속 네가 안다는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논하고, 네 사상과 네 좁은 마음속에 국한된 그 하나님을 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계속 이런 하나님을 논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와 채찍질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 등을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이런 증거는 너무 부족한 탓에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사에서 그의 소유와 어떠함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한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권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 인류를 공급하는지 알아야 한다. 네 일용할 양식과 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 전 인류에게 공급한다는 사실, 그리고 만물을 주재함으로써 전 인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말한 주제들이 너희 개인의 생명 진입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지식이나 학설로만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를 지식이나 학설로만 여긴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주제를 말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 행사에 대해 알려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을 알 기회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이 풍부한 지식을 가졌는지를 보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행과 생각, 그 사람이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분별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면과 진실한 면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행한 실제적인 일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어 인류에게 안정된 생존 환경을 주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자신의 행사를 나타내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법칙을 주재하고 다스린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 만물의 법칙을 어떻게 주재하고, 또 어떻게 만물의 법칙을 통해 전 인류를 공급하고 양육하는지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한 측면이다. 다음으로 말하려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후 어떻게 만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도 너희에게 조금 벅찰 것이다. 만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파괴할 줄만 알지 만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출 줄 모르고, 다스리지도 못한다. 사람에게에는 그렇게 큰 권병도, 능력도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마찬가지로 인류의 생존과 지대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인류에게 좋은 생존 환경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하여 인류의 생존을 지켜 줘야 한다.

‘하나님이 만물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아주 두루뭉술한 주제이지만 일단 한 가지 개념을 전하고 있다. 바로 만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라는 것이다. ‘균형을 맞춘다’는 말의 표면적 의미는 무엇이나? 우선,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균형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마치 천칭으로 물건의 무게를 잴 때 균형을 맞추려면 양쪽의 중량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많은 것을 만들었다. 고정된 것, 이동하는 것, 살아 있는 것, 숨 쉬는 것, 숨 쉬지 않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상생상극(相生相剋) 작용을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것이 쉽겠느냐? 분명 이 안에는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게 아주 복잡하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사람이 연구하기엔 상당히 복잡하다. ‘균형을 맞춘다’는 이 간단한 말, 이 ‘균형’을 인류더러 연구하고 균형을 맞춰 보라고 한다면, 인류의 생물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나아가 역사를 연구하는 인물까지 다 동원된다고 한들 어떤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연구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너무나 기묘해서 사람은 영원히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만물 간 원리를 만들고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만들어 서로 제약하고, 보완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 여러 방식은 단일하고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눈으로 본 현상과 사람의 머리를 근거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는 원리를 증명하려 하거나 연구할 경우, 그 원리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과 역시 얻기 매우 힘들다. 결과조차 얻기 어려운데 인류의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린다면 인류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물의 생존 법칙을 모른다면 인류는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한다면 인류는 쉽게 이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균형이 깨지면 인류의 생존 환경도 파괴되고, 생존 환경의 파괴와 함께 인류의 생존에 위기가 생기고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 인류가 재앙 속에 살 때 인류의 앞날은 어떠하겠느냐? 가늠하기 어려운 예측 불허의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맞추겠느냐? 우선, 지구상 어떤 곳은 일 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지만, 어떤 곳은 겨울이 없고 사계절이 모두 봄과 같아서 얼음이나 눈을 볼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방식으로, 큰 기후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산은 식물이 무성하다. 각종 식물로 뒤덮인 땅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사람이 그 속에서 걸어가면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반면, 저 산은 풀 한 포기 나지 않은 황량한 산봉우리만 겹겹이 쌓여 있다. 겹보기에는 둘 다 흙이 쌓여 생긴 산인데, 한쪽은 삼림이 무성하고, 다른 한쪽은 풀 한 포기 없다. 이것이 두 번째 방식이다. 세 번째로, 이쪽은

푸른 초원이 한없이 펼쳐져 있지만, 저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 생물은커녕 수원도 안 보이고, 모래바람만 세차게 불고 있다. 네 번째로, 이쪽은 해수로 뒤덮여 있고 수역도 넓은데, 저쪽은 샘 하나 보기 힘들다. 다섯 번째로, 이쪽 땅은 늘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고, 공기도 촉촉하지만, 저쪽 땅은 늘 뜨거운 태양이 떠 있고, 비 한 방울 보기 힘들다. 여섯 번째로, 이쪽은 공기가 희박하고 호흡이 곤란한 고원이지만, 저쪽은 각종 철새가 서식하는 늪지와 습지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기후 혹은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에 상응하는 기후나 환경이다. 즉, 하나님은 대환경의 틀에서 기후부터 지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토양의 다양한 성분부터 수원의 양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환경을 균형 있게 맞추어 사람이 사는 곳의 공기, 온도, 습도의 균형을 이루어 낸다. 이런 대조적인 지리 환경이 있기에 인류에게 균형 잡힌 공기가 있고, 균형 잡힌 계절별 온도와 습도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인류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생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선 대환경에서의 균형이라 하면,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와 형세, 그리고 서로 다른 기후가 변천하며 상호 제약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균형과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대환경에서의 이야기다.

세부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떻게 식물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균형 잡힌 생존 환경 속에서 식물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까? 바로 각종 식물의 수명과 성장 속도와 번식 속도를 주관함으로써 식물의 생존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가령 작은 풀은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을 피우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열매는 땅에 떨어진다. 이듬해가 되면 작은 풀의 씨앗은 이어서 싹을 틔우며 같은 규칙을 지속한다. 작은 풀의 수명은 무척 짧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각종 나무도 각기 수명이 다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주기도 각기 다르다. 어떤 나무는 30~50년을 살다가 죽는다. 수명이 30~50년인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또 30~50년을 산다. 나무에게는 이런 주기가 있다. 늙은 나무가 죽으면 어린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늘 숲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들도 정상적인 순환과 생사의 과정이 있다. 어떤 나무는 천 년 이상 살고 심지어는 3천 년을 살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식물이든 그것의 수명이 몇 년이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의 수명과 번식 능력, 속도, 수량, 빈도에 따라 식물의 균형을 주관한다. 그렇게 해서 식물들이 작은 풀에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식하면서 균형 잡힌 생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구에서 네가 보는 숲속의 나무든, 작은 풀이든 그것들은 자신의 규칙대로 끊임없이 번식하고 성장하고 있다.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고, 사람이 따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균형이 있었기에 식물은 그들만의 생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알맞은 생존 환경이 주어졌기에 그렇게 많은 숲과 초원이 지구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을 양육하고 또 대대로 숲과 초원에서 서식하는 각종 생물을 양육한다. 날짐승과 길짐승과 곤충에서 각종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한편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의 균형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할까? 식물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번식 능력과 수와 빈도에 따라, 동물 중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균형을 주관해 동물들의 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자는 얼룩말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사자의 수가 얼룩말의 수를 초과한다면 얼룩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얼룩말은 멸종될 것이다. 만일 얼룩말의 번식 수가 사자보다 한참 부족하다면 얼룩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역시 멸종될 것이다. 그래서 얼룩말의 수는 반드시 사자의 수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얼룩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자의 생존을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얼룩말은 얼룩말 무리의 한 구성원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자 입에 들어갈 먹잇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자의 번식 속도가 영원히 얼룩말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사자의 수도 영원히 얼룩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래야만 사자의 먹잇감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자는 얼룩말의 천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같은 땅에서 한가롭게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얼룩말은 사자의 사냥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가 감소하거나 멸종하지 않는다. 사자도 자신의 ‘왕위’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수를 확대하지 않는다. 이런 균형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각종 동물 간에도 균형의 법칙을 정해 그런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종종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룩말의 천적은 사자뿐일까? 그렇지 않다. 악어도 얼룩말을 먹는다. 얼룩말은 참으로 미약한 동물로 보인다. 얼룩말에게는 사자와 같은 포악한 성질도 없다. 사자처럼 강력한 적을 만나면 얼룩말은 그저 달아날 수밖에 모르고 심지어 반항조차 못 한다.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동물 세계에서 종종 목격되는 장면이다. 너희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않았느냐? 얼룩말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았느냐? 사자가 가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느냐? 얼룩말은 생김새가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사자는 호시탐탐 얼룩말을 노린다. 얼룩말은 멍청하게 멀리 떠나지도 않는다. 그늘 밑에서 더위를 식히며 자신을 노리고 있는 사자를 보고 있는 얼룩말은 그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얼룩말은 그 땅을 떠나지 못한다. 기이한 일이다. 이 기이한 일 속에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 있고 하나님의 주재가 있다. 너는 불쌍한 얼룩말을 보면서도 구해 줄 수 없고 가증스러운 사자를 보면서도 사자를 멸할 수 없다.

얼룩말은 하나님이 사자를 위해 예비한 먹이인 것이다. 하지만 사자가 아무리 얼룩말을 잡아먹어도 얼룩말은 멸종하지 않는다. 사자는 번식 수가 아주 적고 번식도 매우 느리다. 그래서 사자가 얼룩말을 아무리 잡아먹어도 사자의 수는 얼룩말을 앞지르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균형을 유지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사람의 생존 환경과도 관련이 있고 사람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다. 만일 얼룩말이나 사슴과 같은 다른 모든 사자의 사냥감들의 번식이 너무 느리고 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인류는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까? 사자가 그의 사냥감을 잡아먹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어떨까? 참극이다. 이런 참극은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재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것도 아니다. 인류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만물의 균형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땅히 갖춰야 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 산천과 호수로 인류에게 아주 정상적인 생태 환경을 예비해 주었다. 인류에게 이런 균형 잡힌 생태 환경이 있어야만 인류는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 만일 거목이나 작은 풀의 번식 능력이 떨어지고 번식 속도가 무척 느리다면 토양은 수분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수분을 잃은 토양은 병에 걸리지 않겠느냐? 식생과 수분을 잃은 토양은 빠르게 유실된다. 그러면서 아주 빨리 사막화가 이루어진다. 토양이 변해 버리면 인류의 생존 환경도 파괴되고 동시에 재난이 도래한다. 이런 생태 균형이 없어지고 이런 생태 환경이 사라지면 인류는 만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종종 재난의 습격을 받게 된다. 가령 환경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구리의 생태 환경이 파괴되어 개구리가 한곳에 모여들게 되면 수가 급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수많은 개구리가 도시의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수의 개구리가 사람의 생존 환경을 점거하면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할까? 재난이라고 한다. 왜 재난이라고 할까? 인류에게 무척 유익한 작은 동물이 자신에게 적합한 곳에 있으면 인류에게 유익하고 인류의 생존 환경 균형도 보호하고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재난이 되면 그것은 사람의 생활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구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사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인체의 어떤 기관에 침입할 수도 있다. 이는 재난 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도 인류는 대량의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상황을 종종 겪었다. 이것도 재난이 아니냐? 아주 무서운 재난이다. 사람이 비행기와 대포,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메뚜기 떼의 습격에 인류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상황에서 대포를 사용하여 쫓아 버릴 수 있을까? 기관총을 사용하여 쫓아 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약을 살포해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다. 이 조그마한

메뚜기들이 왜 왔을까? 오로지 농작물과 양식을 먹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에는 농작물이 전부 사라진다!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의 한 해 먹을 양식이 메뚜기의 습격에 눈 깜짝할 새 전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처럼 메뚜기의 습격은 인류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재난이 되기까지 한다. 대량의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이 재난이라면 쥐는 어떨까? 각종 매가 쥐를 잡아먹지 않는다면 쥐의 번식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말이다. 쥐가 범람하면 인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뿐일까? 쥐는 무엇이든 다 마구 갉아 버린다. 나무도 갉아 버린다. 한 집 안에 쥐가 두 마리 있다면 그 집 사람들 모두 불편을 겪는다. 때로 쥐는 기름을 훔쳐 먹기도 하고 식량을 갉아먹기도 한다. 쥐는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도 갉아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 옷, 신발, 가구 등 무엇이든 다 갉아 버린다. 어떤 때는 그릇장에 기어올라 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속으로 계름치해서 그 그릇을 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쥐가 사람에게 주는 고민거리다. 조그마한 쥐일지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고 분을 참아야 한다. 그러니 쥐가 무리를 이루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마리 쥐라도 사람에게 큰 방해가 된다. 그것이 재난이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작디작은 개미일지라도 재난이 된다면 인류에게 가하는 해역시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개미는 집을 헐고 심지어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개미의 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각종 조류가 재난이 된다면 두려운 일이 아니냐? (두렵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든 일단 균형을 잃으면 불규칙적이고 법칙이 없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고 번식하면서 인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난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심지어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당하게 하거나 멸망의 운명을 맞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방식과 형식으로 만물의 균형을 이루었고, 산천과 호수의 생존 환경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식물의 생존 상태의 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각종 동물과 조류, 곤충의 생존 상태의 균형도 이루었다. 그 목적은 각종 생물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 속에서 번식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만물은 이런 법칙을 벗어날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안전하게 대대로 번성할 수 있다. 어떤 생물이든 하나님이 정한 수와 범위를 초과하고 하나님이 주재하는 성장 속도와 성장 빈도와 성장 수를 초과하면 인류의 생존 환경은 각기 다른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된다. 한 종의 생물의 수가 급증하면 그 생물은 인류의 식량을 빼앗고 인류의 수원을 파괴하며 인류의 삶의 터전도 파괴하게 된다. 그러면 인류의 번성과 생존 상황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을 예로 들어 보자. 물은

만물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 만일 쥐, 개미, 메뚜기, 개구리 등 각종 동물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그들의 물 섭취량도 증가한다. 그들의 물 섭취량이 증가하면 고정된 식수원과 수역 범위 안에서 사람의 식수량과 수원은 감소하게 되고 인류에게 물이 부족해진다. 인류의 식수가 파괴되고 오염되며, 급증하는 각종 동물로 인해 식수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생존 환경에서 인류의 생존은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된다. 만일 한 종의 생물이나 몇 종의 생물이 정해진 수를 초과하게 되면 인류가 생존하는 공간의 공기,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에 함유된 성분까지 모두 각기 다른 해독을 입고 파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 인류의 생존과 운명은 당연히 그런 생태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균형을 잃으면 인류가 호흡하는 공기는 파괴되고 인류가 마시는 물은 오염되며 인류에게 필요한 온도도 각기 다른 정도로 변화를 맞고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인류 고유의 생존 환경은 엄청난 영향과 도전을 받게 된다.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환경이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인류의 운명과 앞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은 만물이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만물이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자신이 창조한 만물의 여러 면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은 무척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네가 만물 속의 생태 현상을 보았든, 만물 속의 자연법칙을 보았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법칙에 대해서도 멋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에는 그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지만 사람의 생존과 엄청난 관련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헛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한 모든 일과 그 일의 원리와 원칙에는 모두 그의 계획이 들어 있고 그의 지혜가 깃들여 있다. 그 계획한 뜻과 목적은 인류를 보호하여 인류가 재난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생물의 습격을 피하고 만물로부터 인류에게 닥치는 그 어떤 해도 다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전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전 인류를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는 관계가 크지 않느냐? (큭니다.) 엄청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그중의 한 가지 사항에 해당된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사람은 다소 막연한 상상만 하고 있었다. 진실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알려 주면, 하나님이 행한 일들의 원칙에 대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은 무척 복잡하다. 하지만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교제하여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해도 너희는 마음속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행사이고 실제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전의 인식은 매우 실속 없고 막연했다. 하지만 지금의 인식은 상당히 많은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 비춰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이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교재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자! 굿나잇!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2014년 2월 9일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 10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4)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체험해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어떤 두 가지겠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 얘기했는데, 다들 이해할 만했느냐? 정확히 말해서, 대부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너희는 이 말에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어휘를 쓰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너희가 이론적으로 혹은 글자 표면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가 왜 그런 내용을 말하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고 그 내용도 풍부해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너희의 생명 체험이 너무 얇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나 체험이 매우 얇은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대부분 막연하고, 개략적이고, 글귀나 이론 수준에 머문다. 이론적으로 보면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대다수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모두 공허한 것이다. 왜 공허하다고 할까? 사실, 네가 입으로 한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한지 아닌지를 너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주제나 내용을 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막연한 글귀나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재가 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실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알지 못한다. 이는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자기 자신을 아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되면 할 말이 없어져. 조금 얘기한다 해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라 부자연스럽고, 내가 들어도 이상해.”라고 말하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공급이 될 만한 얘기나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는 어떤 태도이고 악한 자에게는 어떤 태도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두 모호하고 불분명할 것이다. 네가 이런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들, 그 말이 진실성이 있겠느냐? 없겠지?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

다들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가 최근 들어 얘기했던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다. 각기 다른 방식과 각도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하는지, 즉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주재하고

어떤 원리로 만물을 관리하여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이 행성에 살아가게 하는지 알려 주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에게 공급하는가’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에게 공급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생존 환경을 제공하는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존 환경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다. 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물을 관리하는지, 왜 이렇게 전 인류에게 공급하고 양육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나눈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거시적인 면인 큰 환경부터 사람의 의식주와 관련된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하는지 또 그 만물을 어떻게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지부터 하나님이 각 인종에게 적합하고 알맞은 생존 환경을 마련해 준 것까지 등등 이 모든 내용은 인류의 육체적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물질세계에 속한 것들에 관한 내용이다. 그 예로 산, 강, 바다, 평원 등은 모두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공기와 온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바로 호흡을 통해 공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몸으로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무와 풀, 그리고 숲속에 있는 날짐승과 길짐승, 즉 하늘에서 날고, 땅에서 뛰고, 동굴에서 나오는 각종 작은 동물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내용이 관련된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지만 그것들은 만물 가운데서 물질세계만을 대변할 뿐이다. 물질적인 것은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만지면 느낌이 있으며, 눈으로 보면 머릿속에 구도와 그림이 떠오른다. 네게 있어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네모난 것이든, 동그란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것은 형태가 있어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인상을 준다. 이 모든 것들은 만물 속의 물질세계 부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는 말의 참뜻이다.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감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주재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 그것이 추상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사람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쪽에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의 또 다른 세계이자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의 또 다른 범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주제, 즉 하나님은 영계를 어떻게 주재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주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하는지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물질세계 외의 또 다른 세계인 영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매우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내용을 교제하고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의 참뜻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고 관리한다’라는 주제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놀랍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느끼든, 영계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의 일부인 만큼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계를 주재하고 관리하는가

물질세계에 대해, 물질세계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사람이 알지 못하면 관련 자료를 찾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실상과 근원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물질세계 외의 또 다른 세계, 영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볼 방법이나 경로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인류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세계의 모든 것은 사람의 육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물질세계의 모든 것이 육의 삶과 육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거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다수는 영계, 즉 다른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믿지 않는다. 사람은 영계를 볼 수 없고, 영계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 또한 영계의 그 어떤 상황도 알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계는 물질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공개된 것이지만 인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것이기에, 사람은 그 영계의 면면을 알아볼 방법을 찾기 어렵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영계의 면면은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에만 관련되는 것이다. 나는 비밀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비밀을 알려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관리 및 하나님의 공급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말해 주겠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영계는 무엇이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물질세계 외의 또 다른 세계로, 사람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런데 너희가 상상하는 영계는 어떤 세계냐? 너희가 볼 수 없는 세계이니 생각해 보기도 어렵겠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생각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 혹은 귀신이나 혼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적이 있다. 왜 무서워할까? 그런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 주위나 은밀한 곳 혹은 어두운 곳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서워 혼자 자지도 못하고, 특히 밤이 되면 방 안에 혼자 있지도 못하고 혼자 마당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상상하는 영계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이다.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상상하는 바가 있고, 살짝 느낄 수도 있다.

먼저 영계를 이야기해 보자. 영계란 무엇이나? 간단히 요약해 설명하자면, 영계는 물질세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곳이다. 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할까?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영계의 존재는 인류가 사는 물질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계는 하나님이 주재하는 만물 속에서 윤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역할이며 그 존재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영계의 각종 움직임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히 관련되고, 그로 인해 인류의 생활 질서도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천상의 규율과 법령, 행정 제도는 물질세계에 있는 그 어떤 국가의 법률과 제도보다 훨씬 엄격하고, 영계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도 그것을 넘어서거나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영계에는 명확한 행정령과 천상의 규율, 법령이 있고, 각 계층과 영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엄격히 지키고 규율을 따른다. 그들은 천상의 규율을 어기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상선벌악(賞善罰惡)하고, 어떻게 만물을 관리하고 주재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이 천상의 규율과 법령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인류가 사는 이 물질세계와 다르지 않느냐? 크게 다르다. 그것은 물질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다. 천상의 규율과 법령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주재, 하나님의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함과도 관련된다.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너희는 이 이야기가 정말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비밀을 참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듣니다.) 영계란 이런 개념이다. 그것은 물질세계와 공존하고, 물질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를 받고 있으나,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는 물질세계보다 훨씬 엄격하다.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먼저 영계가 인류의 윤회 사역을 어떻게 담당하는지부터 말해 보자. 그 일은 영계의 생명들이 담당하는 주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이다. 즉, 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이방인의 절대다수는 돈을 받들고, 이익을 숭상한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다. 물질세계만 믿고 윤회나 신령에 관한 설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했으며,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이다.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을 제외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나는 몇몇 큰 부류로 나눈다.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천주교, 세 번째는 기독교, 네 번째는 이슬람교, 다섯 번째는 불교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부류이다. 이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는 너희와 관련된다. 하나님을 믿는 이 부류의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도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는 봉사자다. 몇 가지 큰 부류로 명확히 구분했으니, 이제 너희 마음속에 인류의 부류와 등급이 확실히 나뉘었겠지? 먼저 이방인을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지 말했다. 그럼 하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에 해당하느냐? 많은 이방인들은 하늘을 믿는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것 등은 다 하늘이 한다고 믿으며,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도 하늘에 의지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방인에는 이런 사람도 포함된다. 알겠지? 범위를 혼동하지 마라. 두 번째 부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부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왜 인류를 이 몇 가지로 분류했겠느냐? (각 부류 사람들의 종착지와 결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다. 각 인종, 각 부류 사람마다 영계로 돌아갈 때 갈 곳이 다르고, 서로 다른 생사유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몇 가지 큰 부류로 나눈 이유다.

1. 이방인의 생사유회

이방인의 생사유회부터 이야기해 보자. 사람이 죽으면 영계의 한 일꾼이 와서 데려간다. 데려가는 것이 무엇이나? 데려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 영혼은 어떤 장소로 인도되는데, 이곳은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전문적으로 맞이하는 영계의 한 기관이다. [주: 죽은 후 누구나 가게 되는 첫 번째 장소로, 그 영혼에게는 낯선 곳이다.] 이곳에 도착하면 집행관이 첫 번째 관문을 지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및 생전에 행한 모든 일을 확인한다.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평생의 행적 사항을 정확하게 대조 확인하는 것이다. 각 항목의 대조 확인이 끝나면 일생의 행실과 한 일에 근거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지 계속 사람으로 환생시킬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첫 관문이다. 첫 관문이 무서우냐?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그저 어두컴컴한 낯선 장소에 간 것뿐이다.

두 번째 관문. 만약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나쁜 짓과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면 벌받는 곳으로 끌려가 처벌받을 것이다. 그곳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전담하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하는지는 이 사람이 생전에 죄와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상황이다.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나쁜 짓과 어떤 악행 때문에

별을 받은 후 다시 윤회하게 될 때, 즉 다시 환생해서 물질세계로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난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영계로 돌아간 후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별을 받고, 또 자신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다음 윤회에서 더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동물의 범위는 소일 수도, 말일 수도, 돼지일 수도, 개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새나 오리, 거위 등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동물로 환생했다가 죽은 다음 다시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에서는 또 생전의 행적에 따라 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은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여 다시 윤회할 때, 일곱 번에서 열두 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일곱 번에서 열두 번은 무섭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무섭게 하느냐?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 동물이 되는 것의 최대 고통은 무엇이나? 언어가 없고, 단순한 생각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물이 하는 짓만 할 수 있고, 동물의 먹이만 먹을 수 있다. 동물의 단순한 사고와 단순한 몸짓 언어만 있고, 직립 보행하지 못하고, 인류와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동물과 무관하다. 요컨대, 만물 중에서 동물은 아주 저급한 생물로서, 동물로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한 일부 사람에 대한 영계의 처벌이다. 처벌의 경중은 그 사람이 어떤 동물로 환생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로 환생하는 것이 개로 환생하는 것보다 나을까? 돼지로 사는 것이 개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편치 않다. 그렇지? 소나 말로 사는 것이 돼지로 사는 것보다 편할까? (좀 편합니다.) 고양이가 되면 조금 편안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동물로 살 것이라면 고양이로 사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 대부분의 시간에 늘어지게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나 말이 되면 비교적 고생스럽다. 그래서 소나 말로 환생하면 고생한다. 보아하니 이 별은 가볍지 않구나. 개가 되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개와 주인의 관계는 어쨌든 소, 말과 주인의 관계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많은 사람이 개를 기르고 있고, 기른 지 3년에서 5년이 되면 개가 사람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 개가 주인의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주인을 많이 알게 되면 가끔 주인의 기분이나 요구에 맞춰 줄 수 있으니 주인은 개를 더 잘 대해 준다. 그럼 개는 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플 때 더 많은 보살핌을 받게 되니, 이 개는 호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가 되는 것이 소나 말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처럼 처벌의 경중에 따라 동물로 환생하는 횟수와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전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별을 받고 일곱 번에서 열두 번까지 동물로 환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이 별받은 횟수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영계로 돌아와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그곳의 각종 영혼들은 별을 다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예정인 영혼들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가정으로 갈 것인지, 사람으로 환생한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모든 영혼을 분류해 놓았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와서 가수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 부류의 무리에 넣고, 이 세상에 와서 상인이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상인의 무리에 넣는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환생해 과학 연구자가 될 것이라면 그 사람을 과학 연구자 무리에 넣는 것이다. 영혼들을 분류한 다음에는 시기에 맞춰, 결정된 날짜에 맞춰 현대인들이 이메일을 보내듯 하나씩 내보낸다. 이러면 하나의 윤회 과정이 완성된다. 한 사람이 영계에 간 그날부터 별을 다 받을 때까지, 혹은 여러 차례 동물로 윤회한 후 다시 사람으로 윤회할 준비를 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의 온전한 과정인 것이다.

별을 다 받은 후 더는 동물로 환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물질세계로 보내져 사람이 되는 걸까? 바꿔 말해서, 그들은 얼마나 있어야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을까? 이 주기는 어떻게 될까? 이 주기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영계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명확한 시간 제한과 시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숫자로 설명해 주면 너희는 금방 이해할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환생하는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이 죽으면 영계에서는 바로 그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킬 준비를 마친다. 가장 짧게는 3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3백 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천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럼 이 시간은 무엇에 따라 정해지겠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물질세계와 인류 세계의 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맡을 역할에 달린 것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환생하는 사람이라면 인간 세상에 이런 평범한 사람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로 환생할 수 있다. 3일 후에 바로 전생과 완전히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이란 인류 세계에 이런 사람에 대한 수요량이 많지 않아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3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즉, 이 영혼은 3백 년에 한 번 환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영혼은 3천 년에 한 번 환생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3백 년 혹은 3천 년 동안 인류 세계에 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영계의 한곳에 가둬 두는 것이다. 공자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사람은 중국 전통문화에 심원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의 출현은 그 시대 사람의 문화, 지식, 전통, 그리고 사상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시대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계에 머물러야 하고, 3백 년 혹은 3천 년간 충분히 머문 다음 한 번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는 한가롭게 지내야 한다. 그의 역할이 적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적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영계의 한곳에 가두어진 채 한가로이 보내다가 인간 세상에 그가 필요할 때 바로

내보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사람의 윤회 주기에 대해 영계에서 정한 시간상의 규정이다. 평범한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이든 영계에서는 그들의 윤회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규정과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과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다. 이는 어떤 일꾼이나 영계의 어떤 생령이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어떤 영혼이든 그의 윤회, 그가 이번 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의 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인간 세상에 온다. 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맡은 임무도 다르다. 어떤 임무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빛을 갚으러 온다. 지난 생에 진 빛이 너무 많아서 이번 생에 와서 갚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빛을 받으러 온다. 지난 생에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물건과 돈을 뺏겼기 때문에 영계에 돌아간 후 영계에서는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번 생에 빛을 받으라고 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으러 온다. 지난 생, 즉 전생에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생에 다시 윤회할 좋은 기회를 얻어 은혜를 갚으러 환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번 생의 윤회가 목숨을 뺏기 위해서인 사람도 있다. 누구의 목숨을 뺏겠느냐? 바로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가져간 사람의 목숨이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현생은 전생과 엄청난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의 현생은 다 전생의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생전에 B를 속여 많은 돈을 뺏었다. 그럼 A가 B에게 빚진 것이 아니겠느냐? A는 B에게 빚을 졌으니, B는 당연히 A에게서 빚을 받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죽으면 청산할 빚이 남는다. 다시 윤회할 때 A가 사람으로 환생하면 B는 어떻게 빚을 받아 내겠느냐? 한 가지 방식은 B가 A의 아들이 되어 빚을 받아 내는 것이다. A는 돈을 많이 벌고, B는 A의 돈을 흥청망청 쓴다. A가 돈을 얼마나 벌든 그의 아들이 돈을 물 쓰듯 쓰니 A는 늘 돈이 부족하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그의 아들은 늘 각종 방식과 수단으로 그의 돈을 헤프게 쓴다. A는 답답해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난 어쩌다 이렇게 재수 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다른 집 아들은 어쨌든 다 그렇게 훌륭할까? 내 아들은 왜 패기도 없고, 재주도 안 배우고, 돈도 벌지 못하고 늘 내가 먹여 살려야 할까? 먹여 살리려면 살리겠는데, 왜 얼마를 줘도 부족하다는 걸까? 왜 바른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한량 짓에 도박이며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걸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다. ‘아마도 전생에 녀석한테 빚을 졌나 보지. 갚자! 내가 갚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다 B가 마흔 혹은 쉰이 되고, 어느 날 정말 모든 빚을 받아 낸다면 갑자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난 이제까지 좋은 일 한 게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번 돈을 내가 다 헤프게 써 버렸어. 사람 노릇을 해야 해! 마음을 잡고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잘 살아 보자.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면 안 돼!’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느냐? 왜 갑자기 달라졌겠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B는 빗을 다 돌려받았고, A는 빗을 다 갚은 데에 있습니다.) 이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일은 훨씬 전에 그 둘의 전생에서 발생했고, 전생의 일이 현세까지 이어진 것이니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A가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든 아들은 A의 말을 듣지 않고 빈둥거렸지만, 빗을 다 갚는 그날이 되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것은 간단한 예지만 이런 예가 많지 않느냐? (많습니다.) 이 예가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선하게 살고, 악행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행에는 응보가 있다! 이방인 중 많은 자가 적잖이 악행을 저질렀고, 그들의 악행은 다 응보를 받았다. 그럼 응보는 아무 이유 없이 내려지는 것이냐? 모든 응보에는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는 법이다. 네가 남의 돈을 편취하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느냐? 남을 속여서 돈을 얻어 내고도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분명 나쁜 결과가 따른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라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 간단한 예에서 A는 벌을 받고, B는 빗을 받아 냈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영계의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사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천상의 규율과 법령 아래에서 살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볼 수 없거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생사윤회’는 없다, ‘벌받는’ 일이란 없다는 주장을 기꺼이 믿는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음 결국 벌을 받거나 동물로 윤회한다. 이방인 중 대다수는 모두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영계에서 모든 생명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나 천상의 규율, 법령의 규정과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과 사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예는 네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와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되며, 범할 경우 응보가 있음을 알려 준다. 단순히 남을 속여 재물을 뺏은 사람이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은 합리적이다. 흔히 벌어지는 이런 행위도 영계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의 법령과 천상의 규율의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강간과 약탈, 기만과 사취, 절도와 강도, 살인과 방화 등등 심각한 범죄와 악행은 더더욱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경우는 시간으로, 어떤 경우는 처벌 방식으로, 또 어떤 경우는 환생하여 가는

곳으로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입버릇이 나쁘다. ‘입버릇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나? 늘 저주성 욕설과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악독한 말은 무엇을 보여 주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악독함을 보여 준다. 저주성 악담은 늘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그 악담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다시 환생하면 아마 병어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철저한 계산으로 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알뜰한 이해타산에 강해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바보, 멍청이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사생활을 엿본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알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다시 환생하면 아마도 장님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 있을 때 발놀림이 좋아서 늘 치고받고 싸우며 나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시 환생할 때 아마도 절름발이나 외팔, 꼽추 같은 장애인인 될 것이다. 목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걸을 때 절름거릴 수도 있다. 이것이 살아 있을 때 저지른 악행의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다양한 수위의 벌이다. 사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느냐? 사시인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지금 봐도 적은 편은 아니다. 사시인 사람들은 지난 생에 눈을 지나치게 써 가며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눈이 사시가 된 것이다. 심각한 경우 장님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응보이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 인간관계가 좋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혹은 지원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긴다. 이런 사람은 영계로 돌아가면 벌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범위에서 아주 좋은 사람인 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고, 그저 하늘을 믿으며 ‘머리를 쳐들면 석 자 위에 신령이 있다’는 신조만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나쁜 짓을 덜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선하고, 선행을 즐겼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계로 돌아갔을 때 영계에서는 그에게 좋은 처분을 내려 바로 다시 윤회하게 한다. 그럼 다시 환생하여 어떤 가정으로 가겠느냐? 부유하지 않아도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고,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여 살기 좋은 그런 가정으로 간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면 남은 반평생 동안 자식들이 출세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또한, 집안의 운세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도 그의 전생과 큰 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 환생해서 어디로 갈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사명은 무엇일지, 평생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좌절을 겪을지, 얼마만큼의 복을 누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일들에 부딪힐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네 삶이 정해진 후 네 삶에서 발생하게 될 일은 네가 어떻게 피하려고 하든지, 네가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영계에서 네게 정해 준 삶의 궤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환생할 때 네 삶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것이 좋은 나쁜 모든 사람은 맞닥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다 이해했겠지?

이런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생사윤회를 아주 치밀하고 엄격하게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았느냐? 우선 하나님은 영계에서 각종 규율과 법령, 제도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이를 반포한 후, 영계의 여러 직위에 있는 생명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엄격히 집행하며 누구도 감히 이를 위반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세계에서 인류의 생사윤회, 동물 혹은 사람으로 교차 윤회하는 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감히 이 법칙을 깨뜨리려는 사람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이런 주재가 있고 이런 법칙이 있기에 사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세계가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런 주재가 있기에 인류는 아예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 사람의 육의 생명이 끝난 후 영혼이 아직 살아 있는데, 이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영혼은 여기저기 떠돌며 아무 데나 쳐들어가고, 심지어는 인류 세계의 생물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인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를 입는 것은 인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즉 이런 영혼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다면, 영계에서는 이런 영혼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린다. 심각하다면 이 영혼을 머지않아 소멸하여 없앤다. 혹은 가능하다면 이 영혼을 한곳에 두었다가 다시 윤회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영계에서는 각종 영혼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물질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 물질세계에 사는 인류가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이 있고 질서 있는 육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류가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육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대대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냐? 꽤 신선하지 않느냐? 오늘 이 주제를 교제하니 소감이 어떠냐? 신선하다는 것 외에 또 다른 느낌이 있느냐? (사람은 정직하고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각 부류 사람의 결말을 어떻게 안배하시는지에 대해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상당히 원칙 있게 일한다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람의 결말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말한 이방인의 여러 결말이다.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은 상선벌악이 아니냐? 이 범위를 벗어났느냐? (아닙니다.) 그럼 너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원칙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재도 모르고, 더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취하는 태도는 적대적이다. 그들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성품에 따라 그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관리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무엇으로 간주할까? 무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즉 이방인 중의 대다수 사람들을 동물로 윤회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이방인은 어떤 존재이나? 다 짐승인 것이다. 하나님은 짐승을 관리하고, 인류를 관리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은 원칙으로 대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관리와 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법칙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이방인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주재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았느냐?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 중의 무엇을 대하든지 하나님 자신의 원칙과 성품에 따라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짐승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자신이 정한 천상의 규율과 법령을 함부로 깨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 절대 함부로 행하지 않으며, 어떤 요인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하나님 본질의 일면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 중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처리하고, 대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주재한다. 여태껏 무책임하게 대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은 은혜롭게 후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은 인정사정없이 벌준다. 또한, 모든 생명을 각 시기의 인류 세계의 요구에 맞춰 제때에 정기적으로 적절히 안배한다. 그러면 모든 생물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규칙적으로 윤회하며, 물질세계와 영계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가게 된다.

한 생명의 죽음, 육체 생명의 마감은 이 생명이 물질세계에서 영계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새 생명의 탄생은 이 생명이 영계에서 물질세계로 넘어와 자신이 맡고 담당할 역할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모두 영계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이 오는 것, 한 사람이 어떤 가정, 어느 시대, 어느 시각에 와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모두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안배하고 정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은 영계의 안배대로 조금도 어긋남 없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끝나는지도 영계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꿰뚫어 보고 있다. 하나님은 물질세계를 주재하고 영계도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의 정상적인 생사윤회를 그르치지 않고, 한 영혼의 생사윤회를 잘못 안배하지도 않는다. 영계의 각 직위에 있는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 세계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모든 물질 현상이 아무 혼란 없이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법칙에 따라 만물을 주재하기 때문이자 하나님의 권병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모든 것에는 인류가 살아가는 물질세계는 물론, 인류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가 좋은 생활과 좋은 생존 환경을 원한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세계의 공급 외에, 인류를 위해 생명을 관리하는 영계의 질서 있는 공급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만물’에 대해 오늘 한 가지 더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네.)

2.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

방금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인 이방인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해 보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생사윤회’라는 주제도 아주 중요하고, 너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등 5대 종교가 있다. 이방인을 제외하고 이 5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높다. 이 5대 종교에 성직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일반 신도는 많다. 이 각 종교의 신도들은 죽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 여기서 말한 ‘다른’은 누구와 다르다는 말이나?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아무 신앙도 없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다. 그들은 죽은 후 다른 곳으로, 이방인이 죽은 후 갈 곳과 다른 곳으로 간다. 순서는 똑같다. 영계는 그들이 생전에 한 행위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각각 달리 처리한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에 두고 처리하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겠다. 내가 말해 주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믿기 때문이겠지! 적어도 완전한 불신자는 아니잖아.’ 그런 이유가 아니다. 여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불교를 예로 들어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겠다. 한 불교도가 있다. 일단 그는 불문에 귀의한 자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불교도가 삭발하고 승려나 비구니가 되면 그것은 속세를 떠나고 인간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 그는 매일 독경·염불하며, 채식을 하고, 등잔불과 함께하는 청빈한 생활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다. 그의 육의 생명이 끝날 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해 볼 것이다. 하지만 죽은 후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모른다. 그는 그냥 맹목적으로 한 가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또 맹목적인 소망과 이상(理想)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난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 그의 육의 생명은 그렇게 끝난 것이고, 그런 다음 영계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환생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생전 행위와 수행에 달렸다. 평생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곧 인간 세상으로 보내져 두 번째로 윤회하고, 다시 승려나 비구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육의 생명은 첫 생과 같은 법칙에 따라 수행을 하고, 육의 생명이 끝나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 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다시 불문에 입문해 수행을 계속한다. 이렇게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가 끝나고 다시 영계로,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끝날 때마다 갔던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의 여러 조건과 인간 세상에서의 행위가 영계의 계율에 부합하면 그때부터는 영계에 남는다. 더는 환생하여 인간이 되지도 않고, 인간 세상에 돌아가 나쁜 짓을 하고 벌받을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는다. 다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계에 남아 그의 상황에 따라 직무를 하나 맡게 된다. 직무를 맡는 것이 바로 불교 쪽 사람들이 말하는 ‘열반에 든다’는 것이다. 열반에 든다는 것은 주로 영계에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더는 환생하지 않고, 더는 벌받을 일이 없으며, 환생하여 인간으로 살면서 생기는 번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또 환생하여 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영계에 남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관한 하나의 예이다. 그럼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겠느냐?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돌아간 후 영계 일꾼의 검증과 확인을 거친다. 그 사람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불교에서 규정한 대로 성실히 독경·염불하지 않고 오히려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면, 영계에서는 그의 악행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는 분명 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언제 열반에 들 수 있겠느냐? 어느 생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 영계에 돌아가 그 사람이 생전에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환생하여 독경·염불하는 청빈한 삶을 보낸다. 살생하지도 않고, 육식하지도 않고, 세상에 참견하지도 않고, 인간 세상의 번뇌도 멀리하며, 사람들과 어떤 분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악행도 저지르지 않고 나중에 영계로

돌아가면, 영계에서는 그가 행한 모든 행실을 검증한 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역시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치게 된다. 중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는 아무 지장 없이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사윤회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들은 ‘열반에 들’ 수 있고, 영계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다른 점이다. 우선, 영계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거나 약탈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면 열반에 들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악행에 관련되면 영계에서 내리는 별을 피할 수 없다. 영계는 열반에 든 불교도를 적절히 배치할 것이다. 어쩌면 불교나 천지신명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주어 관리하게 한다. 또 어쩌면 이방인만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꾼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영혼의 성격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한 예이다.

우리가 말한 다섯 가지 신앙에서 기독교는 좀 특별하다.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특별하겠느냐? 그들은 참하나님을 믿는다. 참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기에 분류되었느냐? 기독교를 일종의 신앙이라고 한 이상, 그것은 단순히 신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식만 행하는 것이고, 일종의 종교일 뿐이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신앙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를 5대 종교 범주에 넣은 것은 기독교가 이미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한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믿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성경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으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고생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기만 한다. 바로 이런 종교이다. 신학 이론만 중시하는 종교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사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이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 이방인을 대하듯이 임의로 처리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불교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한다. 기독교 신도가 생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엄격히 십계명, 율법과 계명에 따라 행하면서 일생을 보내면, 그들도 똑같은 윤회를 거친 후에야 그들이 말하는 소위 ‘휴거’될 수 있는 것이다. ‘휴거’되면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고 영계의 일꾼이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살아 있을 때 악행을 저지르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면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든다’는 것은 극락세계에 간 것이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들어간다’, ‘휴거된다’라고 말한다. 진짜 ‘휴거’될 수 있는 사람도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친 것이다. 죽은 후 잠든 것처럼

영계로 돌아가는데, 합격이면 남아서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고 일반적인 윤회를 겪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결말, 그들이 추구하는 결말은 불교의 열반과 표현만 다를 뿐 다 비슷하다. 하나님은 이 몇 개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엄격히 종교적 규율에 따라 행한 사람에게 적절한 종착지나 갈 곳을 마련해 알맞게 처리한다. 이는 극히 합리적이지만 사람의 상상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느냐? 기독교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듣고 나니 너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들을 위해 불공평함을 호소하고 싶거나 유감스러운 느낌은 없느냐?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들도 자업자득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살아 있고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사역은 전 인류, 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거부하는 것이냐? 왜 미친 듯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정도의 결말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다. 너희는 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에게는 이런 처분도 이미 관대한 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정도에 따르자면 그들을 멸해 버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평범한 종교로 간주해 처리한다. 그럼 다른 종교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종교의 근본 취지는, 많이 고생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시비를 멀리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리가 이러하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사람, 즉 모든 종교인들이 엄격히 종교적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동안 과도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세 번에서 일곱 번의 윤회를 거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많지 않다고 하느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란 어렵고, 규칙이나 계율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너에게 회색 도포를 입고 온종일 불당에서 독경·염불하라면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에는 십계명이 있고 계명과 율법도 있다. 그것들을 지키기 쉬우냐? 쉽지 않겠지? 욕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도 사람은 지키지 못한다. 참지 못하면 욕한다. 뉘 욕은 주워 담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저녁에 죄를 자백하겠지? 가끔 욕을 하고도 마음속에 계속 증오심을 품고 있고, 더 나아가 언젠가 다시 혼내 주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요컨대, 사람이 죽은 교리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기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는 각 종교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영계에 남아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지 않겠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의 생사윤회는 대충 이렇다. 특별한 점은 그들이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다.

3.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생사윤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생사윤회를 이야기해 보자. 이는 너희와 관련되는 일이니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 말해 보자. 이 부류의 사람 수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따를 일부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을 약칭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할 때는 특별한 범위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범위란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반드시 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수성이다. 그럼 의미는 무엇이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만들고, 이들을 온전케 하고, 경영 사역이 끝날 때 이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 의미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은 하나님이 얻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 봉사자는 어떠하냐? 우선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제쳐 두고 봉사자의 유래를 말해 보자. ‘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자다. 봉사하는 자들은 장기적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임시로 불러 모아 고용한 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 가운데서 택한 것이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봉사자로 정해졌을 때 그들의 전생은 어쩌면 동물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 이것이 봉사자의 유래이다.

다시 하나님의 선민을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선민도 죽은 후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된다. 이곳은 이방인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곳은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이곳은 영계의 그 어떤 곳과도 다른 곳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죽은 다음 가는 곳이다. 그들도 죽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엄격히 심사한다. 무엇을 심사하겠느냐? 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온 길을 심사한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는지, 심각한 죄나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런 심사를 거친 후 그 사람을 내보낼지 남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보낸다’는 것과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그를 하나님의 선민 대열에 계속 남겨 둘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남긴다’

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세에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범위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남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배치를 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각 시기마다 이런 사람을 보내 사도가 되게 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 혹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을 하게 한다. 하지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한 세대 또 한 세대 빈번하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필요와 사역 단계에 따라 윤회한다. 이런 사람은 자주 환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환생’에 법칙이 있느냐? 몇 년에 한 번씩 환생하는 것이냐? 그런 빈도가 있느냐? 역시 없다.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 단계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환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해진 것은 없다. 유일하게 정해진 것은, 말세에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사역을 할 때 선민들이 모두 환생한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의 환생’은 맨 마지막 윤회를 의미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 사역에서 거둘 효과를 놓고 말한 것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선민들을 완전히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온전케 되면 더는 예전처럼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으로 사는 과정, 윤회의 과정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다. 이것은 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남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느냐? 남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합한 곳이 있다. 우선, 그의 악행, 그가 저지른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기 마련이다. 그가 벌을 받은 후,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를 이방인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배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벌을 받은 후 다시 윤회하여 어찌면 어떤 종교를 믿으며 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다. 이방인이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선민 대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면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언급했던 바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아직도 벌을 받고 있다. 요점을 알아들었느냐? 하나님 선민에 속한 사람은 고정되어 있느냐?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일부는 왜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를 각 인종, 각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더는 희망이 없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 선민의 생사윤회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봉사자의 생사윤회에 관한 것이다. 방금 봉사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했다. 다시 말해서, 봉사자는 전생에 이방인과 동물을 넘나들며 환생했던 자들이다. 마지막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이런 사람을 일부 택했는데, 이는 특수한 무리이다. 이런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봉사’라는 단어가 고상하게 들리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바람에 부합하지도 않겠지만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봐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존재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들이 하는 역할 역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이나?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온전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들이 힘을 쓰든, 어떤 사역을 하든, 혹은 어떤 직무를 맡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나? 높이 요구를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봉사자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 네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너를 택했든 너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이 네게 맡긴 사명에 대해, 네가 맡은 사역에 대해, 이행할 본분에 대해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봉사자가 충성을 다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흠족게 한다면, 어떤 결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다. 봉사자에게 있어 살아남는 것은 복이 아니냐? 살아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위 면에서 하나님의 선민과 좀 다르고 차이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봉사자가 금생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과 같지 않느냐? 최소한 금생에 누리는 것은 같다. 이는 너희도 부인하지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공급,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느냐? 누구나 풍성하게 누렸다. 봉사자의 신분은 봉사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피조물의 일원이며, 그저 이들이 맡은 역할이 봉사자일 뿐이다.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봉사자는 하나님의 선민과 차이가 있느냐? 사실상 차이는 없다. 명칭과 본질, 맡은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봉사자로 정했겠느냐? 이에 대해 너희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봉사자는 이방인 가운데서 온 자들이다. 이방인 가운데서 왔으니 이들의 본바탕은 좋지 않다. 이들은 전부 무신론자들이다. 이들의 본바탕을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진리와 긍정적인 사물을 적대시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앞서 말했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진리를 갖췄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나 인식을 갖췄겠느냐?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의 유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봉사하라고 한 이상 이들에 대한

요구 기준이 있다. 결코 이들에게 멸시나 대충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명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우대하며 이들에 대한 요구 기준이 있다. 그 요구 기준은 방금 너희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말을 잘 듣고, 제대로 봉사하고, 끝까지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충성스러운 봉사자로서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하나님이 네게 맡긴 사명을 완벽히 완수한다면, 너의 금생은 가치 있게 되고, 너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네가 좀 더 힘을 내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봉사자인 너에게 전환점이 있게 된다. 이 전환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네 행위와 개인적인 소망과 추구에 따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선민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이 전환점이 봉사자에게 가져다줄 최고의 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은 더는 이방인들처럼 사람과 동물을 넘나들며 윤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좋은 일이고 좋은 소식이다. 바꿔 말하면, 봉사자의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봉사자로 정했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우하고 서로 다른 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봉사자가 끝까지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동안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한 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지를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상당한 파괴를 초래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등등의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악행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느냐? 이 모든 악행은 봉사자의 봉사 중단을 의미한다. 이는 네가 형편없이 봉사한 데다 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네 봉사가 크게 자격 미달이어서 더는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너는 봉사하기 싫은 것이 아니었느냐? 늘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느냐? 늘 충성심이 없지 않았느냐? 그럼 좋다. 이 일은 해결하기 쉽다. 너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봉사자 자격이 박탈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봉사자의 결말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더는 봉사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봉사를 더는 원치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 지경에 이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봉사자는 되돌아올 길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봉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단지 그 사람이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한쪽에 내버려 두고 기다리겠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봉사자에 대해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의 태도가 이렇다면, 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그를 이방인 가운데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면 그 봉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과 똑같이 사람과 동물을 넘나들며 윤회하고, 이방인이 영계에서 받는 벌을 받게 된다. 어떻게 처벌할지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아무 관계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끝일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의 끝이자 운명에 대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봉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봉사자가 끝까지 봉사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봉사자 자격이 박탈되면, 그 봉사자는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고, 이방인들 가운데로 보내지면 짐승처럼 취급된다. 생각이나 이성이 없는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제는 알겠지?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의 생사윤회에 대한 처리는 이렇다.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내가 방금 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느냐? 사실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과 봉사자를 공의롭게 대한다. 어느 모로 보나 다 공의롭다. 그렇지 않느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은 왜 선민에게 그토록 관대하게 대하십니까? 왜 봉사자에게는 그 정도의 인내밖에 쓰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자가 있느냐? 봉사자를 위해 불공평을 호소하고 싶은 자가 있느냐? “봉사자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은 옳느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봉사자가 되는 것도 사실 저희에게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봉사자가 된 것은 사실 행운이다! 봉사자라는 호칭이 없고 봉사자의 사역이 없었다면, 봉사자들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짐승과 생사를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집으로 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엄청난 은혜다! 하나님이 네게 봉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올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 네가 불교인 중 열반에 든 사람이 된다 해도 너는 영계에서 기껏해야 심부름꾼밖에 못 한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네게 주는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간단한 직무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한다. 하지만 봉사자가 이 단계 사역에서 얻는 것은 참으로 많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말씀과 진리를 누릴 수 있다. 정말이지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 네가 봉사자로서 봉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남겨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남겨 둘 수 없다. 네게 그리 대단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엇 하나 잘 해내지 못하고, 자신의 본직 사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너를 남겨 둘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다. 하나님은 너를 총애하지 않지만 불공평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피조물을 대하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한다.

영계에 대해 말하자면, 영계에 있는 각종 생명들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을 잘못 수행하면 하나님은 그에 해당하는 천상의 규율과 법령에 따라 그들을 처벌한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천 년 경영 사역 중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일부 일꾼들은 멸망되었고, 어떤 일꾼들은 지금까지도 구금되어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실이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 이 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이나 봉사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계에서든 물질세계에서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볼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원칙에 따라 만물을 대하고 처리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을 잘 대해 준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 속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에 따라 그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 주고 사랑한다. 다만 이방인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까지, 하나님이 각 부류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방인을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만물 속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고, 머물 자리가 있으며, 정상적인 생사유회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 대해 준다. 그렇지 않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엄격하게 종교 규칙을 지키며 한 생 한 생 살아가면, 결국 그들의 유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정한 결론을 내린다. 오늘의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선민이든 봉사자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행정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이들의 결말을 정한다. 이 몇 부류 사람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생존할 공간을 주지 않았느냐? 유대교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간섭했느냐?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지? 기독교는 어떠냐? 역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지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계시해 주지도 않으며, 뭔가를 밝히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믿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천주교인은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도 일정한 생존 공간을 주었다. 이슬람교인과 불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들에게도 일정한 범위를 그들만의 생존 공간으로 정해 주었고, 그들의 신앙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질서가 있다.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권병을 가지고 있지만 권병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만물을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전능이다.

오늘 특별하고 신선한 주제를 이야기했다. 영계에 관한 일, 영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와 주재에 관한 내용이었다. 너희가 이 부분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이 부분은 너무 심오한 데다 우리의 생명 진입과 관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실생활과 관련 없는 것이니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도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제는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주재하는지 알려면, 단순히 눈에 보이고 생각이 미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세계의 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재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만약 이 부분의 내용이 빠진다면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에 대한 이해에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오늘 말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말했던 모든 내용을 보완했고,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내용도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너희가 이해했으니, 이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로 봉사자에 관한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듣기 좋아하고, 여기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들려준 내용에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 어쩌면 너희가 다른 내용에는 인상이 깊지 않겠지만, 봉사자에 관한 내용에는 아주 인상 깊을 것이다. 그만큼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1.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지위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는 일단락됐다. 동시에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주제도 잠시 일단락한다. 일단락을 지은 후 정리해 봐야 한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 역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인 만큼 하나님의 면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 우선 너희에게 묻겠다. 이런 내용을 듣고 난 후 너희 마음속의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십니다.) 너희 마음속의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느냐? 만물의 주재자라는 말은 적절하냐?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재하는 분이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했고 또 다스리고 있으며, 동시에 만유를 주재하고 만유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위이고, 하나님의 신분이다. 만유에게 있어, 또 만물에게 있어 하나님의 진짜 신분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재자이다. 하나님은 이런 신분을 지녔고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다. 인류, 그리고 영계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방식이나 명목으로든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신분을 지닌 분, 이런 능력과 권병을 지닌 분, 만물을 주재할 수 있는 분은 만물 가운데에 단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물 가운데서 살고 만물 가운데서 다닌다. 그는 지극히 높이 올라 만물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을 낮춰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의 일원이 되어 사람과 대면하거나 동고동락할 수도 있다. 동시에 그는 만유를 주관하며 만유의 운명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더욱이 전 인류의 운명과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자 마땅히 알아야 할 분이다. 그러므로 네가 인류 중의 어느 부류에 속하든, 네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 놓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선택이자 필수 선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과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만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모두 유일무이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참된 신분과 하나님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피조물 중에서, 영계에 있거나 인류 가운데 있는 어떤 생명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사칭하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 자신의 신분,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지위를 지닌 창조주이자 주재자가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명확히 알고 명심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다 매우 중요하다!

2. 하나님을 대하는 인류의 다양한 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처리 방법도 결정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일부 방식을 열거해 보겠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방식과 태도가 옳은지, 틀린지 들어 보거라. 다음 일곱 부류 사람의 태도를 보자.

(1)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황당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전설에서 들은 보살이나 성자(聖者)처럼 만나면 머리를 세 번 조아리고 식사 후 향 하나를 피우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종종 이런 충동을 느낀다.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그 성자처럼 ‘만나면 머리를 세 번 조아리고 식사 후 향 하나를 피우는’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2)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생을 제도(濟度)하고 구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부처’, 자신을 고향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부처’로 여긴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부처로 여기며 섬긴다. 향을 피우거나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제물을 바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단지 선행하고, 베풀고, 살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처’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이다.

(3)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숭상하는 위인이나 명사로 여긴다. 예를 들어, 위인이 즐기는 말하기 방식, 말할 때의 어조,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단어 선택법, 말투, 제스처, 행동거지 등은 모두 그들이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완전히 닮고 싶어 하는 것이다.

(4)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여기며 그는 지고지상한 분이고,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으며, 거스르는 사람은 그의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통치자를 숭상하는 이유는 이런 통치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사상, 행동 양식, 권세와 본성은 물론 통치자들의 취미와 사생활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되고, 그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이자 일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한 명의 통치자로 여기며 숭상한다. 이는 아주 황당한 믿음법이다.

(5)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 많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우상으로 여기며 경배한다. 이 우상이 바로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들이 무릎 꿇고 절할 대상이자 경외할 대상이다. 또한 그들이 따르고, 본받을 대상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고, 이 우상을 자신들이 평생 추종할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투를 따라 하고, 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는다. 늘 유치해 보이는 일을 하고, 순수하고 정직해 보이는 일을 한다. 심지어 이 우상을 자신과 그림자처럼 붙여 다니는 반려나 친구로 여기며 추종한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6)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도를 들었음에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직역: 취지)이 아부와 아첨, 혹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랑이나 찬미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노여움과 미움을 살 수 있으며, ‘미움을 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마음속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7)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적 의지처로 삼는다. 세상을 살다 보면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데다 위안을 얻을 곳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된 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다행이라 여긴다. 그들은 드디어 정신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정신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른 후부터 그들의 정신은 즐거워졌고 생활은 충실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흐리멍덩하게 지내지도, 짐승처럼 살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즐거움을 안겨 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신적으로 의탁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 부류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들이 너희 가운데 존재하느냐?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이런 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겠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네가 믿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네가 믿는 것은 누구겠느냐? 네가 믿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네가 믿는 것은 우상일 수도, 위인일 수도 있고, 보살일

수도 있다. 네가 섬기는 것이 마음속의 부처일 수도 있고, 네가 믿는 것이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은 더 크다. 요컨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믿음법과 태도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끌어다 놓고, 자신의 상상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상상을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나란히 둔 다음 이를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당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참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하며, 참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이런 믿음법을 고수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믿음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반대다. 사람이 자기 관념과 상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것은 네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는 방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남원북철(南轅北轍)’ 이야기를 들어 봤느냐? 바로 이렇게 수레의 끌채는 남을 향하고 바퀴는 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힘을 쓸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가 힘을 쓰기 전에 반드시 방향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거라. 함부로 힘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 꼭 이렇게 묻거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자일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단지 내 정신적 의지처일까? 그가 내 우상일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정할까?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일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고 있는 것일까? 내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정하는 길일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믿음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반복적으로 물어보아라.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 반드시 뚜렷한 의식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흡족게 할 수 있다.

내가 앞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당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관용 때문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태도를 인정하겠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바라는지 분명히 알겠느냐?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주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소유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제 너희의 태도를 밝힐 때가 됐다. 체험과 실행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적거나 알다면 그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말해 봐도 좋다. 이해한 바가 정리되었느냐? 하나님은 대체 사람의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몇 번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만물 생명의 근원임을 알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것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이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나 혹은 사람의 본분 이행과 사람의 생명 성품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 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후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격이 있는 피조물,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진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좋다! 다른 사람도 더 말해 보아라. (하나님을 알면 나중에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다!

3. 하나님이 요구한, 인류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사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높지 않다. 최소한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어떤 성품도 나타내지 않고, 어떤 행사도 나타내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추측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했고, 수많은 사역도 했고, 사람에게 많은 요구도 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많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를 알게 했다. 사람은 이런 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막연하거나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이해하고 거기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을 알려 주었으니 말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방금 너희들이 한 측면을 이야기했다. 구체적이든, 대략적이든 너희가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정확하고,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알려 주고자 한다. 몇 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은 어쩌면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요구는 5가지다. 바로 진심으로 믿고, 충실히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진실로 알고, 진심에서 우리나라와 경외하는 것이다.

이 5가지는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상상과 막연한 관점, 어떤 공상적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요구이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탄마음을 품거나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라는 요구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줄 때, 너를 심판할 때, 너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 너를 징계하고 칠 때 너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유도 묻지 말고, 조건을 달지도 말고, 원인은 더더욱 말하지 말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을 하나님께 억지로 갖다 붙인다. 그들은 그런 말이 하나님에 대한 앎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의 상상과 추론에서 비롯된, 지식을 통해 도출한 견해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임을 모른단 말이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알아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길 원한다. 설사 너희가 한 마디만 할 수 있다 해도, 너희가 티끌만큼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티끌만 한 앎이 정확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부합한 것이길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실제에 맞지 않게 멋대로 찬미하고 자랑하는 것을 혐오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공기처럼 생각하는 것을 더욱 혐오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논할 때 되는데로 말하고, 멋대로 논평하고, 함부로 지껄이는 것을 혐오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떠벌리며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논하는 사람은 더욱 혐오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가지, 즉 진심에서 우리나라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참된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다. 또한 기꺼이 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 어떤 좋은 태도, 좋은 모습, 표면적인 좋은 행동을 보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갖길 원한다. 이 경외는 네 생명 성품의 변화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앎,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앎, 하나님 본질에 대한 앎으로 인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진심에서 우리나라 온’이라는 말로 경외를 정의했는데, 이는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가져야 할

경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금 이 5가지 요구를 보아라. 너희 가운데 그중 앞 3가지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진심으로 믿고, 충실히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이다. 너희 가운데 있느냐? 5가지를 말하면 분명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3가지로 범위를 좁혔으니 자신이 달성했는지 가늠해 보아라. ‘진심으로 믿는다’, 이 요구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충실히 따르는’ 것은 어떠하냐? ‘충실’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판마음이 없는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판마음이 없는 일편단심이라, 정말 잘 말했다! 그럼 너희는 이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느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지금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달성했느냐? (못했습니다.)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 진입 후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구 사항으로, 너희는 아직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지금 너희의 잠재력은 크지 않느냐?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나니 조금해지지 않느냐? (조금해집니다.) 조금해지는 것이 맞다. 조금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 때문에 조금하다. 나머지 2가지 요구는 말하지 않겠다. 분명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조금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목표를 확정했느냐?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겠느냐? 목표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솔직하게 알려 주겠다. 너희가 이 5가지 요구를 달성할 그때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각 요구마다 하나의 지표이다. 모두 생명 진입이 성숙해졌다는 하나의 지표이자 최종적 목표이다. 그중 어느 한 가지를 따로 꺼내서 자세히 설명하며 너희에게 요구한다 해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공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너희 모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겠느냐? 모두 암 환자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려면, 고통받지 않고 공들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많은 도를 들긴 했지만 들었다고 해서 이 도가 바로 네 것이 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도를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네 개인의 생명, 네 개인의 생활 속으로 가져가 이 말과 도가 네게 생존의 방향을 알려 주고, 네 생명에 생존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불어넣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이 말들을 들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이 말들이 네 삶에 아무런 전환점을 가져다주지도 못하고, 네 생명에 존재의 가치를 불어넣어 주지도 못하면 이 말들은 헛들은 것이 된다. 알았지? 알았다면 남은 일은 모두 너희 자신의 몫이다. 반드시 공을 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건성건성 대하지 말아라. 세월은 빨리 흐른다.

사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벌써 십여 년이 됐다. 그럼 한번 돌아보아라. 십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사람의 일생에 이런 십여 년이 몇 번이나 더 있겠느냐? 시간은 길지 않다. 하나님이 사역할 때 너를 기다려 주진 않을까, 너에게 기회를 남겨 두진 않을까, 하나님이 같은 사역을 다시 하진 않을까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너의 지난 십 년은 되돌릴 수 있겠느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네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네게 남은 세월은 하루씩 짧아진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일생의 중대사로 삼고 대해야 한다. 먹고 입는 것보다, 네 인생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대하면 수확이 있을 것이다! 네가 늘 심심풀이로 믿고, 믿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늘 건성으로 믿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알겠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5일

부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섬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또 예수의 재림과 그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재난을 가져오고 상선벌악(賞善罰惡)하리라. 주를 따르고, 주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모두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라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되기를 고대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행히 주님의 강림을 볼 수 있는 말세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모든 기대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어쩌면 내년, 아니면 내일,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가까운 때 주께서 홀연히 강림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우리는 첫 순위로 주님의 나타남을 보고, 들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에게 뒤질세라 앞다투었다. 우리는 도래할 그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일을 그만뒀고, 어떤 이는 가정을 버렸으며, 어떤 이는 결혼을 포기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모든 적금을 바쳤다. 이 얼마나 사심 없는 봉헌인가! 이런 진심과 충성심은 역대의 성도들에게도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흠을 베푸는 자에게 공흠을 베푸시니, 우리의 이러한 봉헌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 상달되었으니, 우리의 봉헌에 대한 상을 내리실 것이라 믿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누구도 앗아 갈 수 없는 복과 약속을 주실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의 봉헌과 헌신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자 밑천이라고 확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미래의 보좌 위에 앉혀 놓고는, 만국 만민을 다스리거나 왕권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 범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탄생과 발전’에 관해 쓴 서문이다.

우리는 예수와 적대하는 모든 이를 경멸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일 것이다.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는가? 물론, 때로는 예수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해야 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성경에 따랐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신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은 성경 안에 계시니,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기를, 주님께 열납되기를 바랐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손만 뻗으면 복을 잡을 수 있는데, 뭘들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름 더미에서 건져 올려진 극소수의 궁핍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림 받는 꿈, 복받는 꿈, 만국을 다스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패괴는 남김없이 드러났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듯이 일어났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대가 정말 옳은지,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확한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대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찾을 방법도, 탐구할 방법도 몰랐으며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축복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 받았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쫓잔도 마셨으며 십자가도 졌다. 우리의 대가가 주님께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한 기쁨을 예비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지 않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더 자주 기도했다. 성경에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3~24)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달달 외웠으며, 그것을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생명으로 여겼고, 구원받거나 들림 받을 수 있는 증거 등으로 여겼다.

수천 년 동안, 살아 있던 사람들은 기대와 꿈을 갖고 떠났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죽은 자는 또다시 돌아왔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잊은 채, 여전히 앞서사람들의 가르침과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가 흘렀지만, 우리의 예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열납하시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을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도,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적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졌고, 우리의 사유 방식으로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우리의 지식과 관념, 도덕관과 윤리관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규례를 지키는 데에 익숙해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데에 익숙해졌다. 우리는 이렇듯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무엇인지, 그의 형상은 어떤지,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가 있고, 우리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좋아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세상만사를 하찮게 여기고, 만유를 발아래 두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천산만수(千山萬水)도, 그 어떤 역경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열두 가지 실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며 그 나무의 잎은 만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 성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리라 더 이상 밤이 없으며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도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취 주심이라 그들은 영원토록 왕이 되어 살리라”(계 22:1~5, 중국어성경 직역)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님의 택하심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현세에 백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지금 저희의 목숨을 거둔다고 하셔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를 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저희를 봐서, 한시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지만,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땅을 감찰하고, 만유를 주관하며, 사람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의 경영을 펼치고 계셨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에게 다가와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우주에 그의 심판대를 세웠고, 곧이어 그의 보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 얼마나 위엄 있는 장면인가! 또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그 영은 비둘기같이, 또 포효하는 사자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는 지혜요, 공의요, 위엄이며, 권병을 지니고 자비와 긍휼을 가득 안고 조용히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의 강림을 알아차린 사람도, 맞이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가 장차 할 모든 일을 아는 이는 더더욱 없었다. 사람의 삶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평소와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또한 따르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평범한 신자로, 보통 사람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하셨다. 그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있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없는 신성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신성을 알아채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본질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 어떤 구속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눈에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그의 눈에 보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무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기능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으며, 또 아무도 그의 신분에 어떤 의구심조차 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좇는 바를 계속할 뿐이었다. 마치 그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듯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성령이 그를 ‘통해’ 한 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으며, 기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든,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음성은 나를 통해서, 혹은 너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를 통해서 선포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일 리가 없으며, 우리 또한 절대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신데, 어찌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분명 흰 구름을 타고 만민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주님이 어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지도, 자신이 온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계획과 단계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그의 말씀은 갈수록 찾아졌다. 위로, 권면, 일깨움, 경고에서 책망과 징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에서 격하고 위엄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절로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꿰뚫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찢어 아파게 했으며,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들림 받을 수 있는 걸까?’라고 마음속으로 따져 보았다. 훗날의 종착지와 미래의 운명 등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장차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은총에만 감사할 뿐, 신성을 지닌 이 평범한 사람이 느낄 심정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저버림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사람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있는 듯, 그에 대한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영원히 받아 줄 수 있는 듯,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셨다.

우리는 어느새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끌려 하나님 사역의 절차 속으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시험을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엄 있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을 보았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동시에 ‘부활’ 시켰고,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가책과 죄책감을 배로 느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 그의 손안에 있는 어린양마냥 그의 뜻대로 처분되었고, 때로는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그의 원수처럼 그의 눈앞에서 그의 분노에 의해 찢터미로 변했다. 우리는 그가

구원하는 인류이고, 그의 눈에 구더기로 보이는 존재이자, 또 그가 주야장천으로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들어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셨다. 또 그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고 돌보고 지켜 주었으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대가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이 작고 평범한 육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착지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영심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방해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선뜻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주님의 지위'는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존중했다. 그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셨다. 생명력을 가진 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어조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심혈을 쏟아부었고, 우리 때문에 침식을 잊었으며,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병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종착지와 구원을 위해 굴욕을 견뎌셨으며, 또 우리의 무감각과 패역 때문에 마음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한 소유와 어머함은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자, 파괴된 사람은 절대 갖출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관용과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지 못하며, 어떤 이도 인류의 패역과 파괴를 심판하지 못하고, 어떤 이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말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권병과 지혜와 존엄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머함은 그에게서 남김없이 발현되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빛을 가져다줄 수 없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밝힐 수 없었고,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를 사탄의 속박과 파괴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당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망 속에서 보내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를 정복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둬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방랑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완전히 정복되었고,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도, 그의 사역과 말씀에 맞서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의 앞에 오롯이 엎드려 이생에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르리라 다짐하였고, 그에게 온전케 되고 그의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며, 온 힘을 다해 그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께 정복되는 과정은 격투 시험과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급소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 그는 우리의 관념과 상상, 패괴 성품을 드러내셨다. 일언일행, 일거수일투족부터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에 우리는 겁에 질려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속셈, 목적,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괴 성품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그를 대적한 우리를 심판하고, 그를 모독하고 정죄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의 눈에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사탄임을 느끼게 해 주셨다. 우리의 희망은 깨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감히 그 어떤 지나친 요구나 꾀함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우리는 한 번도 예수와 ‘만나거나 알고 지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미망에 빠지고 방황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견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그것을 쏟아 내려고

시도했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으며, 더더욱 우리의 구주 예수를 계속 기다려 보고, 그에게 속마음을 하소연하고자 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고 의연해 보였으나 마음은 전혀 없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듯 몹시 괴로웠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 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그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으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의 심판과 형벌로 우리는 난생처음 이렇게 심한 좌절과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진정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설 수도, 함께 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패괴 성품으로 살지 않고, 한시바삐 이러한 본성과 본질에서 벗어나, 더는 그의 증오와 역겨움을 불러오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더 이상 그의 지배와 안배에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복 사역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가진,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운 궁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죄했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도를 얻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있더라도, 그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 너와 나에게, 그에게, 또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베풀다.

하나님의 사역은 해와 달이 바뀌듯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너와 나에게,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 3월 23일

후 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성품의 변화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혹자는 중국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할 말씀을 다 끝냈다고, 더는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만큼의 말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혹자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라는 책이 하나님나라시대(역주: 왕국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한 모든 말씀이므로 이 책을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이 책이 성경처럼 이후의 인류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어떤 범주에 국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며 만유를 포함하는 분이라고 모두가 외치지만, 사람의 본성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한 범주에 규정하려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규정한다.

하나님나라시대에서 펼칠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당시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이번에 성육신하여 한 말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으며, 이번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려는 모든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민족,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여 전 인류를 정복하고 옛 시대를 끝낼 것이다. 그런데 어찌 작은 일부분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시기별로, 절차별로 나뉘기에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역을 하고 절차에 따라 말씀을 할 뿐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과 소유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자 만물의 근원이며, 어떤 피조물도 그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에게 일깨워 주겠다. 하나님을 또 한 번 책 속에 규정하거나 글귀에 규정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과거에 한 말씀에 규정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사역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새롭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옛길을 다시 가거나 했던 사역을 중복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이 그를 어떤 범주에 규정해 놓고 경배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복음 사이트

<https://kr.kingdomsalvation.org>



복음 사이트 방문



App 다운로드

YouTube: <https://l.kingdomsalvation.org/kr/video>

Facebook: <https://l.kingdomsalvation.org/kr/facebook>

Email: contact.kr@kingdomsalvation.org